韓中修交 30週年 紀念
2022年度 大韓中國學會·中國人文學會
秋季 聯合學術大會

韓國華人·華僑社會 發展과 統合

大韓中國學會 Korean Association for Chinese Studies

中國人文學會

孔子学院 Confucius Institute

DSU Dongseo University 동서대학교

동아대학교

【日 時】	2022年 11月 19日(土) 13:00~18:30
【場 所】	東亞大學校 富民캠퍼스
【主 催】	大韓中國學會·中國人文學會·東西大學校 孔子學院· 東亞大學校 孔子學院·東亞大學校 國際大學· 釜慶大學校 글로벌차이나硏究所
【主 管】	大韓中國學會

2022년도 추계 연합학술대회 준비위원회

大韓中國學會
Korean Association for Chinese Studies

학술위원회	**김현태** (위원장·부경대) **곽현숙** (학술이사·경성대) **김정훈** (학술이사·부산외대)
사 무 국	**박민수** (수석총무이사·부산외대) **이서현** (총무이사·한국해양대) **이민경** (총무이사·한국해양대), **강병관** (출판이사·한국해양대) **양 난** (대외협력이사·동아대) **이길연** (학술이사·창신대) **고권태** (총무간사·부산외대)

中國人文學會

총무위원회	**이광혁** (총무위원장·호남대) **김기범** (총무이사·광주여대) **노민정** (총무실무이사·전남대) **이가영** (총무실무이사·전남대) **이여빈** (총무실무이사·전남대)
기획학술위원회	**김계태** (기획학술위원장·군산대) **문대일** (학술이사·서원대) **박소현** (기획학술실무이사·전북대) **김서윤** (기획학술실무이사·한국고전번역원)

목 차

• 식순안내 ····· 5

• 오시는길 ····· 13

【한중수교 30주년 기념 특별분과】

1. 북방계 화인의 이동과 부산 차이나타운의 혼종화 / **예동근** ····· 15

2. 부산 화인, 화교 단체의 현황과 과제 / **박영남** ····· (현장배부)

3. 중국 유학생들의 한국 유학 환경과 한국사회 문화적응에 관하여 / **이길연** ····· 19

4. 한국화교의 현지적응 실태와 사회통합 / **김혜련** ····· 31

5. 后疫情时代国际中文教育发展背景下的在韩华人华侨子女中文教育方案研究 / **王静** ····· 45

6. 心理与认同——中韩跨国婚姻女性适应调查研究 / **李璇** ····· 53

【중국어학분과Ⅰ】

1. "有助"的詞性、詞義以及相關問題探究 / **김종찬** ····· 59

2.『詞林韻釋』소고 - 운서의 성격과 체재 중심으로 / **왕옥지** ····· 69

3. 基于范畴化理论的线状量词分析及其教学启示——以"条"、"根"、"道"为例 / **俞渊・韩容洙** ····· 73

4. 中文国际传播研究综述 / **赵唯** ····· 77

5.『說文解字』에 나타난 고대 중국인의 질병 발생의 원인 탐구 - 「疒」부를 중심으로/ **서재선** ····· 89

【중국어학분과Ⅱ】

1. 영상도식과 그릇도식을 통한 한중 차등 비교문에서의 비교결과 분석 - 중국어 '小'에 해당하는 한국어의 표현 중심으로 / **이은민** ····· 105

2. 한중 '연속' 표현과 주관량 / **이선희** ····· 109

3. 동아시아 한자문화권 속담에서 숫자 '三'의 활용과 의미
- 한중일 속담을 중심으로 / **기유미** ····· 121

【중국문학분과Ⅰ】

1. 先秦시기 道家의 學에 대한 소론 / **오만종** ····· 129

2. 이승 사람의 명계 겸직 현상 연구 - 중국 고전 문헌 자료를 중심으로
/ **안희진** ····· 143

3. 고계(高啓)의 시가 특징과 명대 시학의 추향 / **정보선** ····· 167

【중국문학분과Ⅱ】

1. 東南學派 研究 / **이여빈** ····· 189

2. 在批判、反思中建构中国精神文化内涵——以卢新华为研究对象 / **毕文秀** ····· 209

3. 홍콩문학에 관한 한국 학자의 관점과 논의 고찰 / **송주란** ····· 219

4. 근대 초기 한중일 번역문학의 상호텍스트성
- 한중일 「십오소년표류기』의 번역을 중심으로 / **이시활** ····· 225

【중국문화분과Ⅰ】

1. 동북아 문화냉전과 미국의 對 대만 교육원조
- 스미스-문트 프로그램과 풀브라이트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 **이가영** ····· 243

2. 고급 중학교 필수 조선어문교과서에 나타난 시진핑 시기 중국의 국민화 강화 양상
- 2017-2018년 판과 2020년 판의 비교를 중심으로 / **한담 · 이은홍** ····· 255

3. 疫情后韩国国内文化旅游业为中国游客相对应措施——文化内容为中心
/ **이해명 · 이지윤** ····· 275

4. '공한증'의 한국적 의미 - 한국 축구를 자기-정의하는 재현을 위해 중국 축구를
타자로 호명하는 기표 / **李赛珞 · 서재철** ····· 281

【중국문화분과Ⅱ】

1. 从听见到"看见"——中国流行音乐的新媒体传播 / **刘磊** …… 287

2. 中国"关公大刀"的民俗信仰研究 / **靳晓斌** …… 295

3. 高麗時期的書法與中國書法的關係 / **李雪峰** …… 303

【중국사회과학분과】

1. 중국의 수출입 동물과 동물제품 위생검역에 관한 연구 / **손성문** …… 311

2. How does leisure participation benefit life satisfaction for demographic overworking adults in China? Testing curvilinear moderating effect*
/ **陈楠** …… 325

3. 对中国互联网平台企业"扼杀式并购"的反垄断规制研究
/ **郑金鑫 · 서석흥** …… 339

4. 녹색신용대출이 은행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중국상업은행을 중심으로 / **권일숙 · 주병육** …… 351

【차세대학자분과Ⅰ】

1. 중학교『생활중국어』상의 '了' 분석과 제언 / **김선호** …… 359

2. 花间词情境整一性的显现与建构方式 / **韩珂** …… 369

3. 路遥小说人物精神的美学分析——以『平凡的世界』为例 / **李文** …… 377

4. 论冯梦龙"三言"中自然良知的近代化转变 / **张静** …… 381

5. 退溪与朱熹哲理诗之对比研究——以「天渊台」」和「鸢飞鱼跃」为中心 / **阎先宝** … 403

6. 意识形态安全视角下高校网络思想教育体系构建研究 / **赵繁** …… 417

【차세대학자분과Ⅱ】

1. 数字经济发展与人口迁移——来自中国广东省的经验证据 / **张荷 · 殷慧慧** …… 423

2. 中国对外援助政策中的国家身份——基于援外白皮书的分析 / **吴岳** …… 431

3. Political Trend of China's Foreign Affairs since the 20th Party Congress
/ **이재승** ····· 445

4. 论奥林匹克运动会中文化创意的各方异彩与完美的交织
——中国和五大陆发达国家比较，美美与共，天下大同 / **徐立忱・李知润** ····· 453

5. 在韩中国留学生对韩国文化适应的影响因素研究 / **郭胜杰** ····· 459

【차세대학자분과Ⅲ】

1. 物态·意象——"银钩"再阐释 / **孙其明** ····· 467

2. 论白族民俗文化中"龙"的形象 / **刘浩淼** ····· 475

3. 以"内卷"思想解读中国武术拳种与流派精细化产生的机制 / **孫皓然・李好根** ····· 483

4. 中国传统技艺类非物质遗产受众及受众保护评价体系研究
——以宣纸传统制作技艺为案例 / **吕尚枝** ····· 491

5. 中国传统文化融入播音主持教育的路径与方法 / **杨丽菲** ····· 509

【포스터 발표】

1. 对中国互联网平台企业的自我优待行为的反垄断规制研究
/ **莫然・서석흥** ····· 517

2. 对中国数字平台企业滥用市场支配地位反垄断规制研究
/ **商鹏程・서석흥** ····· 527

3. 中国、美国和欧盟的平台经济反垄断政策比较研究
/ **张乃特・서석흥** ····· 535

식 순 안 내

제1부 개회식
(13:00~14:00)

▶ 개회식 13:00~14:00

■ **사회 : 박민수 (대한중국학회 수석총무이사, 부산외대)**

▢ **등 록** 13:00～13:30

▢ **개 회 식** 13:30～14:00

- ■ **개 회 사** 김영기 (대한중국학회 회장, 동서대)
- ■ **개 회 사** 진명호 (중국인문학회 회장, 전북대)
- ■ **축 사** 이해우 (동아대 총장)
- ■ **환 영 사** 정주연 (동서대 공자아카데미 원장)
- ■ **환 영 사** 문철주 (동아대 공자아카데미 원장)
- ■ **윤리교육** 이웅길 (대한중국학회 연구윤리위원장, 동서대)

  *전체 학회 회원 대상 연구윤리교육

제2부 학술발표회
(14:00~17:30)

▶ 한중수교 30주년 기념 특별분과 14:00~17:30

■ **사회 : 리 단 (부경대)**

▢ 1. 북방계 화인의 이동과 부산 차이나타운의 혼종화
- 발표 : 예동근 (부경대)
- 토론 : 황명호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 2. 부산 화인, 화교 단체의 현황과 과제
- 발표 : 박영남 (부산화인화교협회)
- 토론 : 리 단 (부경대)

▢ 3. 중국 유학생들의 한국 유학 환경과 한국사회 문화 적응에 관하여
- 발표 : 이길연 (창신대)
- 토론 : 양 난 (동아대)

▢ 4. 한국화교의 현지적응 실태와 사회통합
- 발표 : 김혜련 (한성대)
- 토론 : 장연호 (신라대)

▢ 5. 后疫情时期国际中文教育推广背景下的在韩华人华侨子女中文教育方案研究
- 발표 : 王 静 (울산대)
- 토론 : 毕文秀 (부산대)

▢ 6. 心理与认同——中韩跨国婚姻女性适应调查研究
- 발표 : 李 璇 (千城传媒)
- 토론 : 吴 明 (부경대)

▶ 중국어학분과 I 14:00~17:30

■ **사회 : 오세준 (한서대)**

▢ 1. “有助”的詞性、詞義以及相關問題探究
- 발표 : 김종찬 (안동대)
- 토론 : 서재선 (강서대)

▢ 2.『詞林韻釋』소고 - 운서의 성격과 체재 중심으로
- 발표 : 왕옥지 (동명대)
- 토론 : 김영찬 (동의대)

▢ 3. 基于范畴化理论的线状量词分析及其教学启示——以“条”、“根”、“道”为例
- 발표 : 俞 渊 (동국대)·한용수 (동국대)
- 토론 : 이영희 (동의대)

▢ 4. 中文国际传播研究综述
- 발표 : 赵 唯 (洛阳理工学院)
- 토론 : 孟 琳 (군산대)

▢ 5. 『說文解字』에서 나타난 고대 중국인의 질병 발생의 원인 탐구
- 「疒」부를 중심으로
- 발표 : 서재선 (강서대)
- 토론 : 노민정 (전남대)

▶ 중국어학분과 II 14:00~17:30

■ **사회 : 김현태 (부경대)**

▢ 1. 영상도식과 그릇도식을 통한 한중 차등 비교문에서의 비교 결과 분석
- 중국어 ‘小’에 해당하는 한국어의 표현 중심으로
- 발표 : 이은민 (동국대)
- 토론 : 이효영 (부산외대)

▢ 2. 한중 연속 표현과 주관량
- 발표 : 이선희 (계명대)
- 토론 : 남양우 (경남대)

▢ 3. 동아시아 한자문화권 속담에서 숫자 ‘三’ 의 활용과 의미
- 한중일 속담을 중심으로
- 발표 : 기유미 (경성대)
- 토론 : 김현태 (부경대)

▶ 중국문학분과 I 14:00~17:30

■ **사회 : 강경구 (동의대)**

▢ 1. 先秦시기 道家의 學에 대한 소론
- 발표 : 오만종 (전남대)
- 토론 : 김훈호 (순천대)

▢ 2. 이승 사람의 명계 겸직 현상 연구 - 중국 고전 문헌 자료를 중심으로
- 발표 : 안희진 (단국대)
- 토론 : 진명호 (전북대)

▢ 3. 고계의 시가 특징과 명대 시학의 추향

- 발표 : 정보선 (경북대)
- 토론 : 장춘석 (전남대)

▶ 중국문학분과 II 14:00~17:30

■ **사회 : 권운영 (신한대)**

▢ 1. 東南學派 研究

- 발표 : 이여빈 (전남대)
- 토론 : 서광덕 (부경대)

▢ 2. 在批判、反思中建构中国精神文化内涵——以卢新华为研究对象

- 발표 : 필문수 (부산대)
- 토론 : 김윤수 (덕성여대)

▢ 3. 홍콩 문학에 관한 한국 학자의 관점과 논의 고찰

- 발표 : 송주란 (부산대)
- 토론 : 구경모 (우송정보대)

▢ 4. 근대 초기 한중일 번역문학의 상호텍스트성

- 한중일『십오소년표류기』의 번역을 중심으로

- 발표 : 이시활 (경북대)
- 토론 : 김서윤 (한국고전번역원)

▶ 중국문화분과 I 14:00~17:30

■ **사회 : 손상범 (영남대)**

▢ 1. 동북아 문화냉전과 미국의 對 대만 교육 원조

- 스미스-문트 프로그램과 풀브라이트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 발표 : 이가영 (전남대)
- 토론 : 김경아 (부경대)

▢ 2. 고급 중학교 필수 조선어문교과서에 나타난 시진핑 시기 중국의 국민화 강화 양상

- 2017-2018년 판과 2020년 판의 비교를 중심으로

- 발표 : 한 담 (원광대)·이은홍 (순천대)
- 토론 : 이광혁 (호남대)

▢ 3. 疫情后韩国国内文化旅游业为中国游客相对应措施——文化内容为中心

- 발표 : 李海铭 (경희대)·이지윤 (경희대)
- 토론 : 张建国 (부경대)

▢ 4. ‘공한증’의 한국적 의미
- 한국 축구를 자기-정의하는 재현을 위해 중국 축구를 타자로 호명하는 기표
• 발표 : 서재철 (부경대)·李赛珞 (부경대) • 토론 : 손상범 (영남대)

▶ 중국문화분과 II 14:00~17:30

■ **사회 : 손상범 (영남대)**

▢ 1. 从听见音乐到“看见”音乐——中国流行音乐的新媒体传播
• 발표 : 刘 磊 (南京传媒学院) • 토론 : 강창구 (세한대)

▢ 2. 中国“关公大刀”的民俗信仰研究
• 발표 : 靳晓斌 (运城师范高等专科学校) • 토론 : 王路成 (湖北师范大学)

▢ 3. 高丽时期的书法与中国书法的关系
• 발표 : 李雪峰 (书法导报) • 토론 : 김계태 (군산대)

▶ 중국사회과학분과 14:00~17:30

■ **사회 : 김태식 (창원대)**

▢ 1. 중국의 수출입 동물과 동물제품 위생검역에 관한 연구
• 발표 : 손성문 (경상국립대) • 토론 : 김태식 (창원대)

▢ 2. 여가참여가 노동인구 삶의 만족도와 초과근무 관계에 대한 곡선조절효과 연구
- 중국지역을 중심으로
• 발표 : 陈 楠 (고신대) • 토론 : 이중희 (부경대)

▢ 3. 对中国互联网平台企业“扼杀式并购”的反垄断规制研究
• 발표 : 郑金鑫 (부경대)·서석흥 (부경대) • 토론 : 王 涛 (부경대)

▢ 4. 녹색신용대출이 은행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중국상업은행을 중심으로
• 발표 : 권일숙 (한남대)·주병육 (한남대) • 토론 : 서석흥 (부경대)

▶ 차세대학자분과 I 14:00~17:30

■ **사회 : 이규일 (국민대)**

▢ 1. 중학교『생활중국어』상의 '了' 분석과 제언
- 발표 : 김선호 (경희대)
- 토론 : 위수광 (창신대)

▢ 2. 花间词情境整一性的显现与建构方式
- 발표 : 韩 珂 (군산대)
- 토론 : 張 佳 (부경대)

▢ 3. 路遥小说人物精神的美学分析——以『平凡的世界』为例
- 발표 : 李 文 (부경대)
- 토론 : 黄玥明 (조선대)

▢ 4. 论冯梦龙“三言”中自然良知的近代化转变
- 발표 : 张 静 (한서대)
- 토론 : 李 文 (부경대)

▢ 5. 退溪与朱熹哲理诗之对比研究——以「天渊台」和「鸢飞鱼跃」为中心
- 발표 : 阎先宝 (군산대)
- 토론 : 이명애 (창신대)

▢ 6. 意识形态安全视角下高校网络思想教育体系构建研究
- 발표 : 赵 繁 (군산대)
- 토론 : 陈春豆 (군산대)

▶ 차세대학자분과 II 14:00~17:30

■ **사회 : 龚克瑜 (上海国际问题研究所)**

▢ 1. 数字经济发展与人口迁移——来自中国广东省的经验证据
- 발표 : 张 荷 (경희대)·殷慧慧 (경희대)
- 토론 : 温晓晨 (부경대)

▢ 2. 中国对外援助政策中的国家身份——基于援外白皮书的分析
- 발표 : 吴 岳 (부산대)
- 토론 : 王彦迪 (부경대)

▢ 3. Political Trend of China's Foreign Affairs since the 20th Party Congress (第20次全国代表大会后中国外交政策的走向)
- 발표 : 이재승 (부산대)
- 토론 : 涂 波 (신라대)

▢ 4. 论奥林匹克运动会中文化创意的各方异彩与完美的交织
——中国和五大陆发达国家比较，美美与共，天下大同
- 발표 : 徐立忱 (경희대)·이지윤 (경희대)
- 토론 : 张佳敏 (인제대)

▢ 5. 在韩中国留学生对韩国文化适应的影响因素研究
- 발표 : 郭胜杰 (부경대)
- 토론 : 王誉璇 (부경대)

▶ 차세대학자분과Ⅲ 14:00~17:30

■ **사회 : 권예경 (동서대)**

▢ 1. 物态·意象——“银钩”再阐述
- 발표 : 孙其明 (부경대)
- 토론 : 刘秋秀 (부경대)

▢ 2. 论白族民俗文化中“龙”的形象
- 발표 : 刘浩淼 (군산대)
- 토론 : 张凤娟 (贵州省黔南民族师范学院)

▢ 3. 以“内卷”思想解读中国武术拳种与流派精细化产生的机制
- 발표 : 孙皓然 (군산대)·李好根 (군산대)
- 토론 : 张亚敏 (梧州学院)

▢ 4. 中国传统技艺类非物质遗产受众及受众保护评价体系研究
——以宣纸传统制作技艺为案例
- 발표 : 吕尚枝 (한서대)
- 토론 : 张　巍 (경상국립대)

▢ 5. 中国传统文化融入播音主持教育的路径与方法
- 발표 : 杨丽菲 (군산대)
- 토론 : 线　晨 (陕西国防工业职业技术学院)

▶ 포스터 발표

▢ 1. 对中国互联网平台企业自我优待行为的反垄断规制研究
- 발표 : 莫　然 (부경대)·서석홍 (부경대)

▢ 2. 对中国数字平台企业滥用市场支配地位反垄断规制研究
- 발표 : 商鹏程 (부경대)·서석홍 (부경대)

▢ 3. 中国、美国和欧盟的平台经济反垄断政策比较研究

- 발표 : 张乃特 (부경대)·서석홍 (부경대)

제3부 총회 및 폐회식
(17:40~18:30)

▶ 총회 및 폐회식 : B05-0305 17:50~18:30

■ **사회 : 박민수 (대한중국학회 수석총무이사, 부산외대)**

▢ **대한중국학회 총회** 17:40~18:30

- ■ **공로상 시상** 김영기 (회장, 동서대)
- ■ **학술상 시상** 김영기 (회장, 동서대)
- ■ **신진연구자상 시상** 김영기 (회장, 동서대)
- ■ **우수심사위원장 시상** 김영기 (회장, 동서대)
- ■ **공자학술상 심사결과 발표** 강경구 (공자학술상 심사위원장, 동의대)
- ■ **2022년도 회계감사보고** 김창경 (감사, 부경대)
- ■ **2022년도 하반기 사업보고** 박민수 (수석총무이사, 부산외대)
- ■ **차기 회장 선출**
- ■ **차기 회장 인사말**

▢ **폐회식** 18:30

- ■ **폐회사** 김영기 (대한중국학회 회장, 동서대)

▢ **리셉션** 18:30~

- ■ 맛찬들왕소금구이 부평점
  부산광역시 중구 광복로3 (부평동2가 56-2) ☎ 051-231-8392
  (주차는 인근 공용주차장 개별이용)

오 시 는 길

☞ **동아대 부민캠퍼스 국제관(B05)** (지하철 1호선 토성역 2번 출구에서 도보 5분)

☞ **리셉션 장소 : 맛찬들왕소금구이 부평점** (지하철 1호선 자갈치역 3번 출구에서 340m)

■ 미정횟집 : 부산광역시 중구 광복로3 (부평동2가 56-2) ☎ 051-231-8392

메 모

【한중수교 30주년 기념 특별분과】 발표 ①

북방계 화인의 이동과 부산 차이나타운의 혼종화

예동근*

【목 차】

1. 서론
2. 장기 글로벌화과정과 북방계화교의 형성
   1) 미-러-일 중심의 동북아패권질서 확립과 화교이동
   2) 청일, 러일전쟁과 한국화교의 한반도이동과 형성
3. 근대국가의 형성과 한국화교의 다중정체성
   1) 대만국적 산동출신 부산거주라서 부산화교
   2) 민족국가 강조와 타자의 배척지 부산차이나타운
4. 한중수교 이후 신화교의 유입과 차이나타운의 혼종화

1860연대까지 영국중심의 유럽국가들이 동아시아를 통치하고 있었다. 스페인, 네드란드, 영국, 프랑스 등 국가들이 인도와 동남아를 통치하면서 중국과 무역흑자를 전환하기 위해 아편을 판매하고 중국의 문호개방을 요청하였다.

명나라 중기 청나라 초기 중국은 쇄국정책을 실시하면 광저우 하나만 문호를 개방하였지만, 복건, 광동성 지역을 중심으로 동남아로 인구이동이 일어나고 있었다. 동남아시아 광산개발, 항구건설, 도시건설 등에 많은 인력들이 필요하였고, 중국 남부지역은 전쟁과 재난의 피해가 자주 일어나서 동남아로 이주가 더욱 빈번하게 일어나 나고 있었다.

이것이 중국 남방계이민들이 동남아로 이주하는 중요하는 경로가 이다. 또 일부는 미국의 서부개발과 함께 센프란시스코 등 금광개발, 철도건설 목적으로 이주하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것도 중국의 남방계이민들이 북아메리카진출을 하였기에 19세기 전반에 중국의 이민의 주류는 남방계이민이 주류라고 하여도 과인이 아니다.

하지만 1860년대 남북전쟁이후 미국의 부상과 태평양세력으로 확장되면서 적극적으로 일본, 중국문제에 개입하게 되고, 미국의 페리호가 일본의 문호를 강제로 개방시켰고 메이지유신으로 일본은 성성장구하면서 러시아, 청나라와 전쟁을 마다하지 않고 조선반도를 합병하는 작업들이 준비되면서 산동성을 중심으로 북방계 중국인들이 조선반도로 유입되기 시작하였다.

청나라와 조선은 상호조약을 체결하여 조선반도에 합법적으로 영사관을 설치하고 합법적으로 상업을 종사함으로써 청관거리가 형성되고 시작하였다. 청일전쟁과 함께 산동성을 중심으로 많은 보

* 부경대학교 중국학과 교수 (buuli@pknu.ac.kr)

복상과 짐꾼들이 인천, 부산 등 항구에 도착하여 반도중심으로 육로 이동하는 경로가 아니라 바다를 건너 직접 인천으로 진입하면서 북방화교들도 바다의 경험, 해양의 경험을 하게 된다. 이런 측면에서 남방계의 해양을 넘어 이주하는 특징과 비슷한 점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른 것도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 특히 부산에서 화교수가 절대적으로 남방계화인들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이기에 초창기에 정착의 특징들이 더 두드리고지고 있다.

우선 19세기 부산의 화교들의 수자를 보면 매우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도	인구수	연도	인구수
1883	(14)	1892	148
1884	15	1893	142(144)
1885	17	1897	(47)
1886	87(82)	1906	144
1890	(164)	1911	168
1891	138	1913	211

이처럼 20세기 초반까지 부산지역을 볼 때 청나라 때 부산으로 이주한 화교의 수는 200명을 넘지 않았다. 이들은 주로 청관거리와 왜관거리 부근에 생활하였다. 실제 청일전쟁에서 청나라가 패한 후 중국인들은 소폭 증가하였지만 그 수는 350명을 넘지 않았다.

일제식민지시기에 부산의 중국인들은 333명으로 집계되었으며 구체적으로 그 직업들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직업별	호수	인구	직업별	호수	인구
포목점(吳服商)	19	131	土木人夫	3	61
農業	15	27	중국만두(支那面包)	11	27
人力車夫	-	1	노동자 (苦力)	1	2
料理・飮食店	23	84	**총계**	72	333

대부분 화인들은 상업과 음식업을 중심으로 하는 서비스업종에 종사하는 자 가장 많았고 가족별로 볼 때 농업종사자들이 세 번째 정도로 많았다. 『부산의 화교』에 따르면 일제식민지 시기에 조선인과 일본인을 대상으로 상업무역을 진행하였고, 이 곳에 음식점 등을 운영하면서 필요하는 채소밭을 가꾸기 위해 농업인력들이 이주하였다는 것도 흥미로운 대목이다.

부산의 화교는 이동경로 볼 때 하나는 산동성으로부터 배로 인천, 부산으로 왔겠지만 그때 철도가 개설되면서 원산-훈춘, 부산-원산-훈춘을 이어가는 심지어 중국 내륙의 만주까지 철도가 이어지고 있었기에 육로이동이 남방계화교와 달리 대륙성이 비교적 강한 특징이 있다.

만주지역에서 러일세력 다툼이 심해지고 만주와 조선이 이어지면서 조선반도의 항구들은 지정학적으로 러시아, 일본, 중국과 연결되어 있고, 다양한 문화들이 함께 혼종되어 있다. 이런 지정학적 특징은 부산의 차이나타운과 그 주변의 장소들이 함께 동북아문화의 혼종화 축소판을 형성하고 있다. 초량동 원도심은 전반적으로 일본인들이 설계한 도시구역으로 일본색채가 농후하다. 전에 청관거리로 있는 초량동차이나타운은 중국인들이 집중하여 있고, 바로 옆에 텍사스거리는 러시아와 미

국의 역사흔적과 현재의 특징들이 부분적으로 압축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이런 장소적 특징들이 영국중심의 유럽세력들이 통치하는 도시성, 항구성과 다른 북방계화교들의 종족성이 재현한 독특한 특징들이 있다고 본다.

남방계화인들은 역사가 오래고 동남아를 중심으로 다양한 국가와 지역들이 분포되어 있으며, 그 규모가 크고 거주국가에서 영향력도 매우 크다. 싱가폴에서 중국화교의 수는 전체 인구의 80%를 차지할 정도로 절대적으로 우위를 차지한다. 하지만 이 곳의 공식언어는 영어를 중심으로 영어-중국어, 영어-말라이어 이중언어의 비중이 가장 높게 사용하고 “일체다원”의 다양성을 띄고 있다. 종교, 민족의 다양성이 한국보다 훨씬 높고 혼종화 정도도 높지만 하나의 싱가폴에 뭉쳐져 싱가폴도 시국민국가에 존재하는 남방계 화인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하지만 한반도의 경우에는 역사에서 현재까지 미-러-일-중 4대 강국의 세력권속에서 화교들이 존재하여 왔고, 이 세력권의 다툼, 갈등완화구조에서 이합집산이 벌어지고 있었다. 부산의 화교들은 초창기에 산동성 중심의 화교들이 주로를 이루었지만 가장 일찍 부산에 정착한 화교는 일본의 화교라고 볼 수 있다. 그들이 가장 먼저 부산을 찾아서 한중일 상업망을 구축하여 비즈니스를 진행하였고, 항구를 통하여 배로, 철도를 통하여 기차로 해양과 대륙의 양대 근대문명의 길을 가장 잘 활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림 1. 대상지 위치도

좀 더 구체적으로 부산의 화교를 좁게 살펴보면 부산의 화교들은 냉전으로 부산에 남게 되었고, 냉전으로 다시 미국/케나다로 떠나게 되면서 부단히 디아스포라의 디아스포라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들은 조상은 중국 대륙산동이지만, 대만국적으로 갖고 되었고 한국에 살게 되면서 다중 정체성을 소유한 자들이다. 1992년이후 중국 대륙과 대만에서 한국으로, 부산으로 이주한 사람들은 또 1992년 전에 정착한 사람들을 “老華僑”로 호명되었지만 그들은 씁쓸하였다. “화교면 화교이지, 무슨 노화교인가?”그들은 노화교&신화교로 이분법으로 분리되는데 불쾌한 사람도 적지 않다. 또 후에 온자들로 “신화교”로 구분되는것에 100%는데 동의하는 것도 아니지만 이 호칭들이 점차 정착되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럼 부산화교들의 상징성은 무엇인가? 그들은 어떻게 부산화교사회를 바라보고 있으며 자신들의 상징공간인 차이나타운에 어떤 색채와 기호를 만들어 내고 있을까? 본 발표는 2019년에 차이나타운을 중심으로 진행한 조사들을 기반으로 그 결과들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중국의 전통문양을 중심으로 중국식要素를 만들어 가고 있다.

둘째, 차이나타운의 한국주민들은 '대만'보다 '중국'기호를 더 선호한다. 하지만 현재 코로나, 한중 갈등이 강화된 이 시점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는 더 살펴보아야 한다.

셋째, 동구지역에서 "차아나페스티발"을 장기적으로 조직하면서 "남방계화인"의 문화기호들이 유입되면서 더욱 다양하여 진다.

넷째, 한국문화기호들이 함께 존재하면서 다문화공생의 화면을 연출하고 있다.

다섯째, 주변 러시아거리와 비교가 되면서 여러 에스닉집단들이 함께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여섯째, 아직도 중화민국 국기는 펄럭이고 있다. 대만과 함께 손잡고 갈 길은 멀지만 화인문화요인을 인정하면서 더 넓게 차이가 나는 "다문화"타운을 만들어가야 공생의 기회도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중수교 30주년 기념 특별분과】 발표 ③

중국 유학생들의 한국 유학 환경과 한국사회 문화적응에 관하여*

이길연**

【목 차】

1. 서론
2. 국내 외국인 유학생 유치 현황
3. 중국의 双减정책과 한국 유학
4. 중국 유학생의 한국 사회 문화 적응
5. 결론

1. 서론

우리나라는 2000년대 중반부터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해 정부 주도적으로 적극적인 유학생 유치 정책을 추진해 왔고, 지난 15년간 유학생 수는 9.5배 이상 급증하여 양적 성장을 이루었다. 이에 따라 유학생의 입학, 학업, 생활, 졸업, 취업까지 총체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대학의 체계적 인프라와 시스템 구축 실태를 확인하고자 2011년부터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도를 도입·운영하였다(김지하 외, 2021). 아울러 학령인구의 감소로 인한 교육수요자 감소와 등록금 동결로 인한 대학재정 위축 등 갈수록 열악해지고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따라 각 대학들은 국제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생존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대학들이 다양한 방식을 통해 경쟁적으로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고 있고 유학생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2019년에 발생한 COVID-19 사태로 인해 전국 각 대학에서 유학생 유치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사상 초유로 정규수업뿐만 아니라 대부분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운영하고 있다. 온라인으로 개강하고 온라인 수업 시행으로 유학생들의 학업관리와 생활관리가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고등교육 국제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오늘날에 세계의 주요 국가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우리 정부도 예외가 아니다. 이는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를 통하여 기대할 수 있는 국가적 차원의 이익이 지대하기 때문이다. 국제사회에서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차원 등 다양한 층위에서 인적 물적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외국 문물의 유입이 자유롭고 자국

* 이길연,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관리 방안 연구」, 『아시아연구』, 25(1) 논문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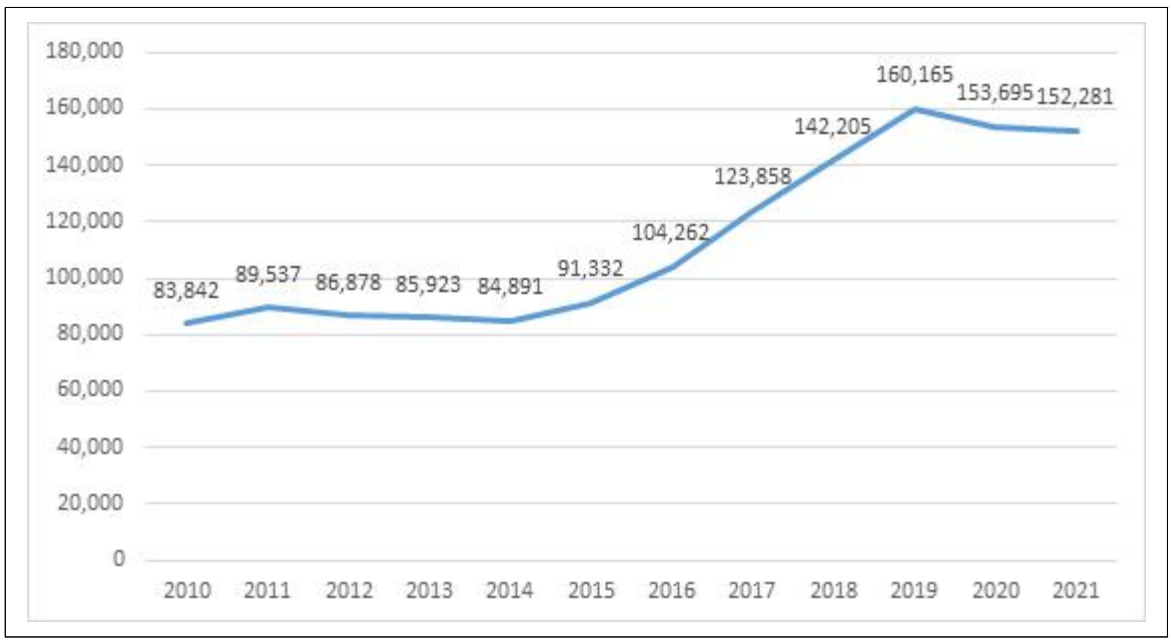
** 창신대학교 중국비즈니스학과 교수 (1jl22000@cs.ac.kr)

의 문물을 세계에 널리 전파하고자 모든 나라가 노력한다. 국가 간의 교류와 협력이 가장 큰 가치를 가지며 세계의 모든 국가는 자국에게 도움이 되는 나라들과 교류하고 협력하고자 노력한다(신영웅, 2020). 또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근 들어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정부의 정원 감축 정책 시행으로 대학마다 정원 외 학생으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대한 노력을 부단히 해왔다. 대학의 입장에서 외국인 유학생은 정원 외 학생으로서 교육부의 인가 없이 증원이 가능하므로 학령인구 감소와 12년째 지속되는 등록금 동결 정책으로 인한 재정난을 타개할 주요 재원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대학별로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능한 많은 학생을 유치하고자 등록금 감면, 기숙사 관리비 면제 등의 각종 우대혜택을 제공하고, 한국어교육원이나 외국인 전용 기숙사 등에 투자함으로써 치열한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KBS NEWS, 2016.7.7.).

2. 국내 외국인 유학생 유치 현황

COVID-19 이전인 2019년 교육부 통계에 의하면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 수는 학위과정과 비학위과정을 모두 포함하여 16만 명을 돌파하였고, 이는 역대 최고수준으로서 1999년도 3,418명에 비하면 20년 만에 40배가 늘었다고 할 수 있다. 유학생의 양적인 팽창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자 정부, 지자체, 학교 차원에서 유학생들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고 정치적 기조는 질적 관리체제로 전환되었다. 또한 외국인 유학생 수는 COVID-19를 기준으로 2019년 이전과 2019년 이후가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선 COVID-19 이전 시기인 2010년도에서 2019년도까지 10년 간 외국인 유학생들의 추이를 살펴보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데이터를 보면 2010년에 83,842명이고, 2019년에 160,165명으로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지난 10년간 약 2배 정도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1>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2010~021)



*출처 : 교육부 (2021 교육기본통계)

그런데 2019년 12월에 처음 COVID-19가 발견되었고 그 이후 단기간에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었으며 2020년도 2월 하순경부터 한국 내에서도 확진자가 급속도로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정부는 부득이 2020년 4월 1일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2주간 격리 조치를 취하였으며, 한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모든 외국인들에 대한 비자발급을 제한하였다. 4월경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COVID-19가 급속히 확산되어 한국에 대한 유학생들의 불안감이 조성되고 입국을 꺼리는 유학생들이 늘어나게 되었고, 여기에 소속 국가에서 자국민의 해외 출국을 허용하지 않음으로 인해 입학이 취소되는 사태도 발생했다(김명광, 2021).

아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전체 국내 외국인 유학생이 2019년 160,165명에서 2020년 153,695명으로 전년 대비 약 4%인 6470명이 감소하였는데 이런 감소현상은 2014년 이후 6년 만에 처음이다. 유학 과정 별 증감 추이를 보면 학위과정과 비학위과정이 상이하게 나타났는데 153,695명 중 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 수는 113,003명(73.5%)으로 전년대비 12,788명(12.8%) 소폭 증가하였지만 어학연수과정 등 비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 수는 40,692명(26.5%)으로 전년 대비 19,258명(32.1%) 감소하였다(교육부 2021 교육기본통계).

<표1> 교육과정별 외국인유학생 수

연도	전체	학위과정				비학위과정		
		소계	전문학사·학사	석사	박사	소계	어학연수생	기타연수생
2021	152,281	120,018	80,597	25,169	14,252	32,263	23,442	8,821
2020	153,695	113,003	74,851	24,996	13,156	40,692	32,315	8,377
2019	160,165	100,215	65,828	23,605	10,782	59,950	44,756	15,194
2018	142,205	86,036	56,097	21,429	8,510	56,169	41,661	14,508
2017	123,858	72,032	45,966	18,753	7,313	51,826	35,734	16,092
2016	104,262	63,104	38,944	17,282	6,878	41,158	26,976	14,182
2015	91,332	55,739	32,972	16,441	6,326	35,593	22,178	13,415
2014	84,891	53,636	32,101	15,826	5,709	31,255	18,543	12,712
2013	85,923	56,715	35,503	16,115	5,097	29,208	17,498	11,710
2012	86,878	60,589	40,551	15,399	4,639	26,289	16,639	9,650
2011	89,537	63,653	44,641	14,516	4,496	25,884	18,424	7,460
2010	83,842	60,000	43,709	12,480	3,811	23,842	17,064	6,778

*출처 : 교육부 (2021 교육기본통계)

전체 외국인 유학생 수 중 출신국가별로 외국인 유학생 수를 살펴보면 전체 유학생 중 중국인 유학생은 44.2%(67,348명)로 전년 대비 0.6%p 증가하였고 그다음 베트남 23.5%(35,843명), 몽골 4.0%(6,028명), 일본 2.5%(3,818명), 미국 1.5%(2,218명) 순으로 주로 아시아 국가의 유학생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의 경우 2019년에 비해 2020년은 4,037명 감소하였으나, 2020년에 비해 2021년에는 318명 증가하였다. 베트남의 경우, 2019년에 비해 2020년에는 오히려 911명 증가하였고 2021년에는 2,494명 감소하였다. 몽골의 경우 2020년과 2021년 유학생 수가 모두 줄어들었고, 일본은 2020년에는 1,218명 줄었으나 2021년에는 644명 증가하였다. 미국 출신 유학생은 2년간 연속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교육부 2021 교육기본통계).

<표2> 출신국가별 외국인 유학생 수

연도	전체	중국	베트남	몽골	일본	미국	기타	아시아
2021	152,281	67,348(44.2)	35,843(23.5)	6,028(4.0)	3,818(2.5)	1,218(1.5)	37,026(24.3)	138,343(90.8)
2020	153,695	67,030(43.6)	38,337(24.9)	6,842(4.5)	3,174(2.1)	1,827(1.2)	36,485(23.7)	141,232(91.9)
2019	160,165	71,067(44.4)	37,426(23.4)	7,381(4.6)	4,392(2.7)	2,915(1.8)	36,984(23.1)	145,747(91.0)
2018	142,205	68,537(48.2)	27,061(19.0)	6,768(4.8)	3,977(2.8)	2,746(1.9)	33,116(23.3)	128,506(90.4)
2017	123,858	68,184(55.1)	14,614(11.8)	5,384(4.3)	3,828(3.1)	2,767(2.2)	29,081(23.5)	109,915(88.7)
2016	104,262	60,136(57.7)	7,459(7.2)	4,456(4.3)	3,676(3.5)	2,826(2.7)	25,709(24.7)	91,368(87.6)
2015	91,332	54,214(59.4)	4,451(4.9)	3,138(3.4)	3,492(3.8)	2,968(3.2)	23,069(25.3)	79,257(86.8)
2014	84,891	50,336(59.3)	3,181(3.7)	3,126(3.7)	3,958(4.7)	3,104(3.7)	21,186(25.0)	73,229(86.3)
2013	85,923	52,317(60.9)	3,013(3.5)	3,904(4.5)	4,503(5.2)	3,120(3.6)	19,066(22.2)	75,288(87.6)
2012	86,878	57,399(66.1)	2,458(2.8)	3,799(4.4)	4,172(4.8)	3,037(3.5)	16,013(18.4)	77,639(89.4)
2011	89,537	60,935(68.1)	2,332(2.6)	3,700(4.1)	4,645(5.2)	3,023(3.4)	14,902(16.6)	80,766(90.2)
2010	83,842	59,490(71.0)	1,919(2.3)	3,335(4.0)	4,090(4.9)	2,485(3.0)	12,523(14.9)	76,483(91.2)

*출처 : 교육부 (2021 교육기본통계)

3. 중국의 双减교육정책과 한국 유학

2021년 7월 24일, 中共中央办公厅 、国务院办公厅에서 의무교육단계에서 학생들의 학습 부담완화에 대한 의견을 제시

제목 :『关于进一步减轻义务教育阶段学生作业负担和校外培训负担的意见』의 약칭 "双减 "

1) 과제부담 (作业负担)

其中明确提出，要全面压减作业总量和时长

초등학교 : 1-2학년 书面 과제를 내지 않는다.

3-6학년 과제 작성 시간이 평균 60분을 초과하지 말 것.

중학교 : 서면 과제 작성 시간은 90분을 초과하지 말 것.

2) 사교육 부담 (校外培训负担)

要求学校安排课后服务，且结束时间不得早于正常下班时间，方便上班族家长接送。

减负政策 개요

1955年7月-『关于减轻中小学校学生过重负担的指示』

1964年5月-『关于克服中小学学生负担过重现象和提高教学质量的报告』

1988年5月-『关于减轻小学生课业负担过重问题的若干规定』

1994年6月-『关于全面贯彻教育方针,减轻中小学生过重课业负担的指示』

2000年1月-『关于在小学减轻学生过重负担的紧急通知』

2013年8月-『小学生减负十条规定』

2018年2月-『关于切实减轻中小学生课外负担开展校外培训机构专项治理行动的通知 』

1955년부터 2018년까지 60여 년간 중국에서는 모두 7차례나 여러 형식의 학생들의 학습부담 완화 정책을 펼쳤다. 처음에는 수업을 통제하고 학습시간과 과제량을 줄이고 나중에는 입학, 시험, 평가 등 방식에서 엄격한 규정을 내놓았다. 하지만 사회 경제발전에 따라 초중등학교 수업 부담은 오히려 더욱더 커졌고 정부의 학업부담 완화정책은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했다.

2021년 7月24日 "双减"정책이 예전의 여러 정책과의 공통점과 차이점

공통점 : 학생들의 과제량과 과제 작성시간을 줄이는 것.

다른점 1) 사교육기관의 혼잡한 현상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

설립인가에서부터 경영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예고

2) "职普平等 "、 "职业化教育 "에 관련하여 여러 조항의 통고문 .

이것은 중국교육의 구도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는 것을 예시한다.

이번 "双减"정책의 목적은 사교육기관의 운영을 규범화하고 의무교육단계에서 학생들의 과도한 과제부담과 사교육 부담, 그리고 과도한 교육비 지출로 인한 학부모들의 경제 부담과 심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학생들이 건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었다. 아울러 정부에서는 3년 내에 그 효과를 검증하겠다고 했다.

教育部办公厅에서 반포한 문건『关于做好2021年中等职业学校招生工作的通知』에서 직업고중(특성화고교)와 보통고중(인문계고교)은 비슷한 비율로 학생모집을 할 것이다. 즉 9년 의무교육을 마친 학생들 중 50%의 학생만 인문계 고교에 입학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예전에는 4:6)

배경 : 교육자원의 낭비와 청년실업률의 증가 추세

중국 통계청의 통계에 따르면 2022년 4월 중국의 16세~24세 청년 실업률이 13.6%. (적정 실업률 3.6%)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려면 직업교육의 확대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중국사람들 사이에는 직업교육은 블루칼라, 일반교육은 화이트칼라는 인식이 팽배하여 있기 때문에 직업교육을 선택하느니 해외유학을 더 선호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실정.

한국 유학의 유인요인 분석

우리나라는 학령인구의 감소와 대학의 정원 감축으로 인한 문제와 연계하여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유학생 유치가 인적 교류, 인재 유치·활용뿐만 아니라 이를 통한 유학 수지 개선 등과 같은 교육 서비스 활성화 측면으로 초점이 맞추어지면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수립하고 있다(김의수 외, 2017).

이를 위해 2004년에는 '2010년까지 유학생 5만 명 유치'를 목표로 정부주도 하에 'Study Korea Project' 계획을 발표하고 시행하였고(교육인적자원부, 2004) 2005년에는 세부추진 계획을 실시한 결과 2007년에 5만 명 목표를 조기 달성했다. 이어 2008년 8월에 '2012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10만 명 유치하겠다는 목표로 'Study Korea Project 발전방안' 수립했다(교육과학기술부, 2008). 이후 2012년에는 'Study Korea 2020 Project'로 2020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20만 명으로 유치인원 목표를 수립하였다. 유학생의 양적 확대에서 유치 유학생의 질적 관리로 전환하여 한국의 고등교육 브랜드 가치 강화를 통해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동시에 우수한 인재들의 유학·취업·창업·정주

를 통해 국가 발전에 기여하게 하는 목표를 설계하였다(백성준, 2015). 무엇보다 이 정책은 우수 유학생 유치 지원 규모 확대, 귀국 및 정착까지 연계된 전주기적 유학 지원, 유학생 지원 조직체계 등을 정책적으로 보완하여 GKS 사업규모 확대, 한국 유학시스템을 통한 홍보 활성화, 유학생 정주여건 개선 및 취업 연계, 유학생 유치·관리 전문기관 육성, 한국어 교육 강화의 세부추진 과제를 내세웠다(교육과학기술부, 2012)

2000년대 이후 정부의 외국인 유학생 정책은 정책적 기조에 따라 크게 양적 확대 시기(2001년~2007년)와 질적 관리시기(2008년~2013년), 통합 관리시기(2013년 이후)로 구분할 수 있다.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와 교육 및 관리는 교육부에서 관여하지만, 국내 체류, 출입국신고, 비자 등 법적인 업무는 법무부가 관할하고 있다. 교육부 정책과 법무부 정책을 정리한 내용은 <표3>과 같다.[1)]

<표3> 교육부 및 법무부의 주요 외국인 유학생 관련 정책

교육부		시기	법무부	
주요정책	연도		연도	주요정책
『정부 조청 외국인 장학생 초청 사업』 실시	1967년	양적 확대	2002년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 허가
『외국인 유학생 관리지침』 제정	1999년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종합방안』 발표	2001년		2003년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 허가제도 확대방안』발표
『한국유학박람회 실시』			2004년	한국어 어학연수비자(D-4-1)도입
『Study Korea Project』 시행	2004년		2005년	『출입국관리법령』에 '외국인 유학생의 관리' 등 조항 신설, 『외국인 유학생 및 전문인력 유치 지원 대책』,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관리 지침』제정
『외국인 어학연수 관리지침』 제정				
『Study Korea 2010 Project』 시행	2005년		2007년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정, 『해외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유학생 취업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안』, 정부 합동 고충 상담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 연수생 표준 업무처리요령』 제정	2008년	질적 관리	2008년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유학생 종합정보시스템, contact korea 실시
『Study Korea 2012 Project』 시행				
『외국인 유학생 관리 부실대학 제재방안』 발표	2009년		2009년	온라인 사증 신청·심사 시스템(HuNet Korea) 도입·시행
『외국인 유학생 지원·관리 개선방안』 발표				
『Global Korea Scholarship』 시행	2010년		2010년	우수 인재에 대한 제한적 이중국적 용인,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길잡이』 발
『국제화 거점 전문대학 육성사업』 시행				

1) 김지하 외(2020) 내용 재인용

『글로벌 교육서비스 활성화 방안』 발표				표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관리 체계 선진화 방안』 발표	2011년		2011년	『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 도입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역량 인증제』 도입·시행				
『고등교육 국제화 추진전략』 발표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역량 인증제(1주기)』 시행	2013년		2013년	찾아가는 맞춤서비스 창업비자 허용
『Study Korea 2020 Project』 시행				
『전략적 유학생 유치 및 정주 지원 방안』 발표	2014년	통합 관리	2014년	『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 개정(『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역량 인증제』 결과에 따른 비자발급 제한)
『유학생 유치 확대방안』 발표	2015년		2015년	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의 창업과 취업을 위한 비자(E-7, D-9, 10)발급 확대, 영주권 취득요건 완화, 부모 초청 허용 신설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2주기)』 시행	2016년		2016년	일.학습연계 유학비자, 석·박사과정 전자비자, 단기유학비자(D-2-8)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3주기)』 시행	2020년		2020년	『외국인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 개정(유학생 비자발급 제한 강화)

*출처 : 김지하 외(2020), 대학의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 분석 연구, 24-25.

위의 표가 주로 유학생 유치를 위한 관련 정책이라면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EQAS: International Education Quality Assurance System)는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질 관리를 위한 제도라 할 수 있다. 한국에서 외국인 유학생 수의 폭발적인 증가로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자 정부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의 질 관리 제도화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들의 질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2011년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역량 인증제' 를 시범적으로 도입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2011) 2011년 시범운영했던 인증평가를 2013년에 수정 보완하여 1주기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역량 인증제』를 실시했다. 2주기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역량 인증제』는 2016년부터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로 명칭이 변경되어 시행되었다. 2020년부터 3주기가 진행되는데, 3주기 평가는 대학의 국제화 역량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를 진행하고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며 대학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인증기준을 당초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였다. 무엇보다 어학연수기관에 대한 질 관리의 필요성을 반영하여 학위과정과 어학연수과정을 분리하여 평가한다(교육부·법무부·한국연구재단, 2020).

<표4> 교육국제화 역량인증제 변천 과정

구분	2013년	2016년	2020년	
목적	• 고등교육의 국제적 신뢰도 및 경쟁력 제고 • 유학생 관리의 모범적 기준 제시 • 유학생 질 관리 제도화	• 대학의 교육 국제화 역량 강화를 통한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및 국내학생의 국제화 역량 제고	
특징	• 정량지표로 인증 및 하위대학 선정 기준 마련	• 지표개편 • 외국인 유학생의 학업 및 생활 정착 등의 지원에 초점	• 입학·선발지표 신설 등 인증 심사기준 강화 • 어학연수과정 단독평가 도입 • 인증방식 변경(정량, 정성지표 혼합) • 유학생 관리 부실대학에 대한 관리 강화	
신청 제한	• 재정지원제한대학 • 외국인 유학생 중도탈락률 20% 이상 대학 • 유학생 규모가 미미한 대학	• 불법체류율 하위대학 기준(10% 이상)인 대학 •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미신청 대학' 및 평가결과 '불인증 대학' • 외국인 유학생 수가 일정 수 미만인 대학	• 재정지원제한대학(유형II) •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미신청 대학' 및 평가결과 '불인증 대학' • 외국인 유학생 수가 일정 수 미만 대학외국인 유학생 모집제한 권고대학 평가	
평가 방식	• 상대평가	• 절대평가	• 절대평가	
인증 절차	• 1단계: 정량지표에 따른 서면평가 • 2단계: 정성평가, 자체평가보고서 • 3단계: 현장평가 후 종합평가 • 4단계: 위원회 최종심의	• 1단계: 정량지표에 따른 서면평가 • 2단계: 정성평가, 자체평가보고서 • 3단계: 현장평가 • 4단계: 위원회 최종심의	• 1단계: 지표 충족 여부 서면평가 • 2단계: 대학별 심사 통과 여부 가결정 • 3단계: 현장 실사(필요 시) • 4단계: 인증심사 가결과 안내 및 이의신청 • 5단계: 이의신청 수용 여부 심사 • 6단계: 인증 여부 최종결정 및 안내	
정량 지표	• 1. 외국인 전임교원 비율 • 2. 해외 파견 학생 수 및 비율 • 3. 국내 유치 교환학생 수 및 비율 • 4. 외국인 유학생 순수 충원수와 충원 비율 • 5. 외국인 유학생의 중도탈락률(이탈율) • 6. 외국인 유학생의 다양성 • 7. 유학생 유치를 통한 재정건전성 • 8. 유학생 숙소 제공 비율	• 1. 불법체류율 • 2. 중도탈락률 • 3. 등록금부담률 • 4. 의료보험가입률 • 5. 언어능력 • 6. 신입생 기숙사 제공률	<학위과정> • 1. 불법체류율 • 2. 의료보험 가입률 • 3. 외국인등록금 부담률 • 4. 외국인유학생 상담률 • 5. 중도탈락률 • 6. 유학생 공인 언어능력	<어학연수과정> • 1. 불법체류율 • 2. 한국어교원 자격증 비율 • 3. 어학연수생 자격증 비율 • 4. 어학연수생 등록금부담률 • 5. 의료보험 가입률
인증 기간	• 3년(2014-2016학년도) - 매년 절대지표 값 충족	• 3년(2017-2019학년도) - 매년 절대지표 값 충족 - 매년 실태조사	• 4년 - 매년 절대지표 값 충족 - 매년 실태조사	
인증 통과	• 인증부여	• 한국유학종합시스템에 인증부여 명시 • 교육정책·사업상 혜택 부여 • 불법체류율 1% 미만 대학에 대해 사증발급 절차 대폭 완화	• 인증부여 • 사증발급 절차 간소화 • 교육정책·사업상 혜택 부여 • 인증대학 홍보 강화	

	미통과	• 비자발급제한 • 시정명령 • 컨설팅	• 국가 주최 유학생 관련 행사 및 GKS 장학사업 참여 배제 • 차년도 실태조사 대상 · 비자발급제한 컨설팅 (모집제한 권고대학) • 비자발급제한	• 컨설팅 • 비자심사 강화 및 발급제한 • 차년도 실태조사 대상 컨설팅 • (모집제한 권고대학) 비자발급제한

*출처 : 김지하 외(2020), 대학의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 분석 연구, 28-29.

2020년 7월 2일, 교육부는 'POST 코로나 시대, 고등교육 변화와 혁신 지원' 을 제시하여 기존 고등교육 규제를 전면 혁신하고, 더 나아가 유학생 유치정책도 전면적으로 변경한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POST 코로나 시대의 고등교육 정책 방향에 맞추어 유학생 정책이 변화해야 할 방향과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주요 과제로서 부상하였다(김지하 외, 2020). <표5>에서 'POST 코로나 시대, 고등교육 변화와 혁신 지원' 내용 중 유학생 정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들을 정리했다.

<표5> POST 코로나 시대의 고등교육 변화와 혁신 지원 중 외국인 유학생 관련 정책

추진방향	추진전략	추진과제
원격수업의 뉴-노멀 정립	원격수업 운영 관련 제한의 획기적인 개선	• 원격수업 교과목 개설 기준 폐지 • 이수학점 제한 기준 전면 완화 (100% 원격이수를 제외하고 대학 자율 결정) • 출석평가 방식: 대학 자율로 결정
	원격수업에 대한 자율적 질 관리 원칙 도입	• 대학별 원격교육지원센터 설치 . 운영 • 강의평가 및 외부콘텐츠 인정기준 마련 • 원격수업관리위원회 구성 . 운영
	온라인 학위과정 운영 허용	• 일반대학의 온라인 석사학위과정 운영 허용 • 대학 간 온라인 공동학위과정 운영 허용
대학 운영기준의 혁신	원격교육 대폭 확대를 반영한 기준 마련	• 온라인 석사학위과정 운영 기준 마련 • 대학 간 공동학위과정 운영 기준 마련
	대학 4대 설립 . 운영요건 재정비	• 원격수업 등 교육방식 변화를 반영한 대학 설립·운영 여건 정비
K-에듀 국제화	외국인 유학생 유치 다변화	• 외국대학과의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운영 • 다양한 원격교육과정 활용
	국내 대학의 해외진출 촉진	• 외국대학의 국내 대학 교육과정 운영기준 대폭 개선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실태조사 일부 지표 조정	• 입국 유학생 감소 등으로 영향을 받는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실태조사 지표 일부 조정

*출처 : 교육부 자료 'POST 코로나 시대 고등교육 변화와 혁신지원'

4. 중국 유학생들의 한국 사회문화 적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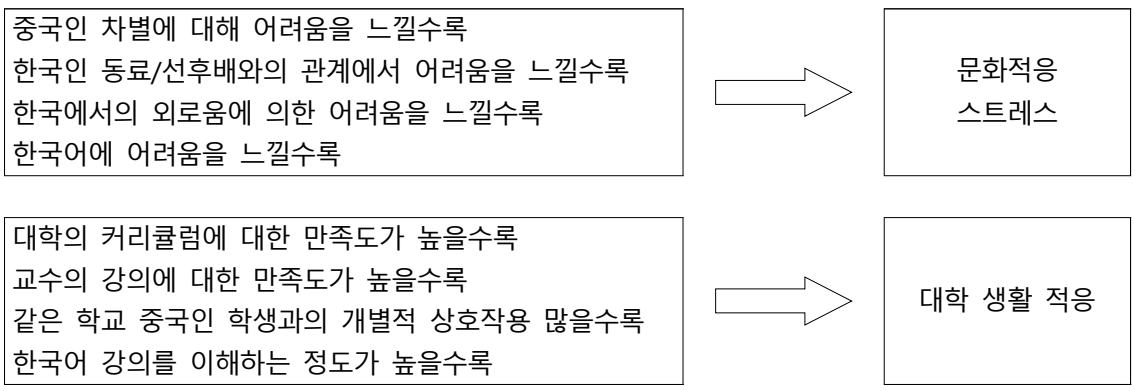
국내 유학생 집단의 다수를 차지하는 중국인 유학생의 역량수준 제고 및 취업경쟁력 강화 등 중국인 유학생들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와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양적성장뿐만 아니라 중국

인 유학생들이 한국의 사회·문화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소기의 진로목표를 달성하여 한국에 우호적인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배상률 외, <중국인 유학생의 한국 사회문화적응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7 참고

중국인 유학생의 한국사회문화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영향요인	FGI 분석결과(16명)	온라인 설문조사(694명)
1. 외국어 능력관련 요인	• 한국어 적응의 어려움	한국에서 느끼는 어려움 순위 1. 취업이나 창업 관련 정보 제약과 지원의 부족 2. 생활비, 주거비, 학비 조달 문제 3. 학교공부, 진학 관련 정보, 영어, 아르바이트 구하기 문제 4. 한국인 동료, 선후배와의 관계 5. 한국 일상생활 관련정보의 제약 6. 가족 언어 친구에 대한 그리움 등
2. 학교공부관련 요인	• 강의방식 적응의 어려움 • 학점 취득의 어려움 • 학교공부 도우미 제도의 부재	
3. 경제적 요인	• 장학금 취득의 어려움	
4. 생활관련 요인	• 기숙사 방 배정의 문제 • 한국음식에 대한 부적응 • 병원 보험비 처리과정에서의 어려움 • 휴대폰 할부구입의 문제 • 아르바이트과정에서의 문제 • 법적보호의 문제 • 한국인 친구 사귐의 어려	
5. 사회적 관계 요인	• 중국에 있는 가족 친구나 같은 국적의 친구와 더 가까움 • 조교선생님과의 관계 어려움 • 교수님과의 관계 어려움 • 한국사회 일반인들의 차별적 인식	한국에서 학업을 어렵게 하는 요인 1. 한국어 능력 부족 2. 선행/기초학습 부족 3. 전공 수업 내용의 어려움 4. 수업방식에 따른 어려움(토론, 팀프로젝트 등) 등
6. 미디어관련 요인	• 카톡, 페이스북, QQ, 위챗 등 • 중국어 관련 프로그램 시청	
7. 진로지원관련 요인	• 진로지원의 부족	
8. 유학생활 안내의 내실화	• 비자연장 과정에서의 어려움 • 유학생활 안내 및 내실화 부족의 문제	



5. 결 론

정책적 제언	내 용
대학의 역할	• 학교 내에서 아르바이트의 적극적인 알선 • 중국음식 요리공간의 확보 및 중국 음식 코너 마련 • 한국인과의 사회적 문화적 교류 강화 • 학교 내 중국인 유학생 네트워크 강화 • 유학생의 상담 강화 • 적응단계별 맞춤형 지원의 확대(입학/재학/졸업) • 취업 및 창업지원 강화
지역사회의 역할	• 중국인 유학생 커뮤니티와 지역사회의 협력강화 • 지역사회 참여활동, 홍보활동, 지역경제 활성화, 문화간 교류행사 • 중국인 유학생 대상 페스티벌의 확대
정부의 역할	• 중국인 유학생의 체계적인 유치 및 관리체계 구축 • 외국인유학생 전담기관의 설립 • 다문화 이해교육의 강화 • 법적 보호의 강화 • 중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취업박람회 개최 및 기업문화 적응 연수 제공

메 모

【한중수교 30주년 기념 특별분과】 발표 ④

한국화교의 현지적응 실태와 사회통합*

김혜련**

【목 차】

1. 서론
2. 한국화교와 사회통합에 관한 이론적 검토
  1) 한국화교는 누구인가?
  2) 이주민 사회통합과 '인정의 정치'
3. 한국사회의 타자: 한국화교와 '인정의 정치'
  1) 화교의 정치적 지위
  2) 화교의 경제적 지위
  3) 화교의 사회적 지위
  4) 화교의 교육적 지위
4. 결론

1. 서론

국제이주의 시대 한국사회의 정주외국인이 폭증함에 따라 이주민의 사회통합문제는 점차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2022년 9월 기준 한국 체류 외국인의 규모는 2, 172, 278명[1]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한국 전체 인구의 약 4.2%를 차지한다. 결혼이민자, 외국국적동포, 난민을 비롯한 이주민 집단이 점차 증가하자 한국사회는 이를 다문화 현상으로 규정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제정하여 적극 그들을 한국사회로 통합시키려는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사회통합 정책은 한국사회의 잠재적 시민인 여성결혼이민자에 집중되었을 뿐, 한국사회의 또 하나의 이주민 집단인 화교(华侨)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실정이다. 전 세계 198개국에 산재한 화교·화인은 6, 000만 명[2]에 이르며, 이중 80% 정도는 아시아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중국의 신속한 경제발전과 동남아지역에서의 화교·화인들의 성공 사례는 전 세계로 하여금 그들을 주목하도록 하였다. 한국정부

* 이 발표문은 『21세기정치학회보』 제22집 1호에 게재된 "다문화시대 한국화교의 사회통합과 '인정의 정치'"를 가필 정정하여 재구성한 연구임.

** 한성대학교

1) 한국 체류 외국인의 규모는 2019년 252만 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나, 코로나19의 전 세계 확산으로 인해 대폭 감소되었다가, 2022년 국경관리가 완화됨에 따라 다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22년 9월 통계월보, https://www.immigration.go.kr/immigration/index.do [2022.10.29.]

2) 『2019华侨华人蓝皮书』, 中国侨网. http://www.chinaqw.com/ydylpc/2019/12-21/240525.shtml [2022.10.29.]

의 화교에 대한 관심은 주로 성공한 이들 외국인 투자자본가로서 화교에 국한되었고, 정작 '우리 안의 화교'에 대한 관심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한국의 역사적·문화적 층위에서 화교는 한국이 이문화의 집단을 접촉하였던 대표적 종족(민족) 집단이라고 하겠으며, 이들의 이주역사는 한국사회의 변동, 즉 식민과 냉전의 역사와 정확히 중첩되어 있다. 한국화교[3]의 이민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진한시기 때부터 화교 이민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었는데, 집단적 자의식을 보존하면서 별개의 집단으로 존재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말부터라 할 수 있다.[4] 이렇듯 화교들은 100여 년간 한국에 정착하면서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해방 직후 한국 정부의 차별 정책으로 인해 늘 소외되고 배제되어왔다. 이러한 차별로 인하여 1960년대 말에 4만 여 명에 달했던 화교의 수는 2만 여 명으로 급격히 감소되었다. 한성화교협회의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화교는 21, 806명으로 추산되었다.[5] 한국 내 화교들의 출신을 보면 중국 산동성 출신이 90%를 차지하고, 하북성 출신이 약 3%이며, 동북지역 출신은 약 2%이다.[6] 한국화교 사회 구성원 원적 지역의 비율로서 90%정도가 동일한 지역 즉 산동 출신이라는 것은 해외의 다른 화교 사회와 구별되는 큰 특징 중 하나이다.

2022년 현재 코로나19의 전 세계 확산으로 인해 감소되었던 외국인 체류자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오랜 이주 역사를 가지고 있는 화교들은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한 제도적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현재, 화교들의 사회통합 문제도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된다. 최근 몇 년간 화교의 존재가 주목의 대상이 된 것은 거대한 화교 자본과 중국의 급속한 성장, 한중 교류 증가에 따라 한국 내 화교의 사회적 역할도 점차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에서 시작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한국화교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화교의 역할을 최대화 하자는 활용 차원에서 접근하였을 뿐, 그들의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는 전제 위에서 그들을 한국사회로 어떻게 통합시킬 것인가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화교들이 한국사회에 통합되지 못하고 주변화 된 채 '한국 안의 타자'로 살아가는 원인과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테일러(C. Taylor 1992)의 '인정의 정치(politics of recognition)' 이론을 통해 화교들의 경험을 재구성하고 나아가 '다문화사회'를 지향하는 한국의 사회통합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화교의 지위와 현지적응 실태를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다문화시대 한국의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2. 한국화교와 사회통합에 관한 이론적 검토

다문화시대가 도래됨에 따라 이주민의 사회통합문제는 새로운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국경을 횡

3)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화교는 크게 두 집단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100여 년 전부터 한국으로 이주하여 지금까지 한국에 정착하고 있는 '중화민국(대만)' 여권의 '구화교'이고, 다른 하나는 한·중 수교 이후 새로운 이민물결을 따라 한국으로 이주한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신화교'이다. 이 연구에서는 주로 한국에서 태어나 생활하고 있는 '구화교'를 연구대상으로 한다.

4) 최승현(崔承现), 2003,『韩国华侨史研究』, 香港: 香港社会科学出版社有限公司. p.22.

5) 한성화교협회, http://craskhc.com/index2.php[2021.9.30)

6) 박현옥·박정동, 2003, "한국화교(인천화교)의 경제활동 및 사회적 지위에 관한 연구."『IDI연구보고서』, 인천발전연구원, p.23.

단하는 이주가 날로 빈번해 지고 있는 오늘, 이주민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거주국에서 평등한 삶을 영위하고 새로운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하는 것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세계화 추세가 되었다. 여기서는 한국화교의 인정(recognition)을 둘러싼 담론과 사회통합 문제 분석을 위해 우선, 선행연구들이 담고 있는 경향과 관점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후, 한국화교의 사회통합에 관한 일반적 이론을 정립하고자 한다.

1) 한국화교는 누구인가?

1990년대 이후 국내외 학자들은 정치·경제·문화·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화교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해왔다. 이러한 연구는 대부분 화교 해외 이주사, 화교·화인의 현지 적응 실태와 거주국 및 모국 경제발전에 대한 역할, 글로벌 화상 네트워크 등에 집중되었다.

전 세계 화교에 대한 연구들이 한국 국내는 물론 세계적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반해, 동북아 지역의 화교 특히 한국 내 화교에 대한 연구는 아직 양적으로 빈약하며, 내용들도 주로 화교 이주역사, 화교의 정착과 이동, 현지 적응 실태 등에 집중되어왔다. 그러다보니 한국화교의 사회 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일부를 제외하면 심층적으로 다루지 않고 있다.

한국에서 본격적인 이주민의 효시를 이루었다고 볼 수 있는 화교들을 정의하는 개념도구들로는 소수민족(ethnic minorities), 디아스포라(diaspora), 그리고 초국가 이주민(transnational migrants) 등이 있다. 이러한 개념도구들은 화교에 대한 연구내용 속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녹아들어 있는데, 연구자들의 문제의식에 따라 비록 동일한 개념도구라도 학문적, 정책적으로도 함의하는 바가 다소 다르거나 중첩된다.

첫째, 소수민족이라는 개념은 주로 근대적 국민국가 발전과정에서 자국 내의 이방인들을 대할 때 흔히 사용하는 말로써, 배타적인 타자의 존재가 '우리'라는 국민국가 공동체의 결속과 유지에 긴요하게 활용됨을 부각시키는 용어이다. 소수자 시각에서 보면, 개별적· 집단적 인구이동에 의해 유입한 화교들은 한국에서 적대적인 '타인종'으로서 주변인에 다름없게 된다. 이들에게 붙은 '화교'라는 명칭 자체가 현지사회에서 차이 내지 외부화의 대상이 된다.

소수자로서 한국화교의 차별적 경험과 인권실태 및 정체성 변화를 바라보는 연구들로서 박경태(2004)의 연구 등이 있다. 박경태는 한국사회에서 화교들이 느끼는 차별의 수준을 교육, 취업과 승진, 공공 및 민간서비스, 주민으로서의 권리 차원에서 설문조사를 통해 규명하였으며, 정부정책과 한국인의 차별성에 대한 화교들의 반응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또한 이윤희(2004)는 인천 거주 화교의 인권 실태 및 정체성을 살피기 위해 화교의 법적 지위를 다루었는데, 이를 위해 출입국관리법상의 지위, 국적문제, 경제활동, 교육문제, 정치활동의 차원에서 세분화하여 다루었다. 또한, 박은경(박은경 1981; 박은경 1986)의 연구들도 한국화교의 종족성(ethnicity)에 초점을 맞추어 그들의 정체성과 한국사회와의 접합-분절을 설명해내고 있는데 크게 보면 이러한 설명방식은 화교를 소수민족의 개념범주에 위치시키려는 시도로서 한국 사회의 동화와 배제장치를 파헤치고자 한다.

이러한 소수민족 시각들은 화교들의 종족성을 분석단위로 삼아 이들이 한국에서 차지하는 특별한 위상이나 성격을 잘 드러내주며, 한국과 같은 국민국가에서 주류집단이 펼쳐 온 '정체성 정치(identity politics)'로서 이방인 억압기제를 설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화교를 소수민족으로만 간주하게 되면, 주로 한국의 주류사회와 화교들 간의 관계 틀 속에만 시야가 국한됨에 따라 화교와

모국과의 관계가 무시될 수 있다. 동시에 다문화시대 화교들이 갖고 있는 다층적인 정체성이나 충성심은 물론 새롭게 등장하는 초국가적 사회영역 등을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

둘째, 화교는 또한 코헨(R. Cohen 1997)과 사프란(W. Safran 1991)이 정의한 '디아스포라(diaspora)'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이들을 디아스포라로 개념화하는 것은 단지 낯선 곳에 머물러 산다거나, 떠나온 모국 혹은 고향과의 유대의식을 갖는다는 이유만이 아니다. 그들은 사회적 불안정과 소외의식으로 하여금 정체성의 혼돈과 재구성을 경험하게 된다. 이처럼 디아스포라로서 화교는 정체성 문제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어 정체성 정치를 설명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런데 한국화교가 갖는 고전적 의미의 디아스포라적 성격은 소수민족의 시각에서 포착하는 '정체성'의 문제와 엄밀히 구분하기 힘들다. 더욱이 화교들이 거주국의 타자로서 고립된 상태로 머물지 않고, 스스로 존재방식에 대한 인정을 포함한 적극적인 역할을 펼치는 경우 아래의 다문화 담론에서 등장하는 '인정의 정치' 문제와도 연관될 수 있다.

사프란(W. Safran)의 논의를 토대로 디아스포라 논의를 확대시킨 클리포드(Clifford, 2003)는 다지역적인 디아스포라가 반드시 특정한 지리정치적 경계로 규정되지는 않으며 경계의 중복이나 디아스포라의 경험들은 21세기 후반의 일상생활에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하나의 독자적 이론이라고 보기에도 어렵다고 주장한다. 이렇듯 전지구적이며 초국가적인 디아스포라 연구는 그동안 논의되어온 정체성 혹은 종족 연구에도 변화를 가져다주고 있다. 이창호(2010)에 따르면, 디아스포라적 공간과 장소에 대한 논의는 화교 및 화인 사회에 대한 연구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한국의 화교들은 그동안의 거주국의 차별-배제정책으로 인해 의미를 포함한 장소보다는 공간적 인식이 강하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셋째, 화교를 초국가 이주민(transmigrants)으로 분류하는 것은 초국가주의 관점에 바탕을 둔 것으로서 이주민들의 두 국가 이상에 걸친 공간적 이동 및 다층적인 경험을 강조할 때 유용하다. 화교들은 이주를 하지만 그들이 이동했던 국가와 가족적, 경제적, 종교적, 정치적 혹은 사회적 관계를 유지한다(임채완·전형권 2006). 임채완·박동훈(2006)은『한국화교의 역할과 발전방향』에서 근대화 이후 초국가적 시대에 나타나는 한국화교의 디아스포라에 관한 특성을 분석하였다. 현재 한국화교 사회는 제도적, 사회적 배타로 인해 여타 지역 화교들에 비해 많이 위축된 상태이지만 거주국과 모국 간의 관계에 있어서 역할과 기여도를 발견하고 있다. 이창호(2010)는 인천 및 차이나타운 거주 화교(華僑)들이 어떤 방식으로 공간과 장소를 인지하고 실천하는지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한국화교의 이주인식과 공간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에 따르면, 거주국인 한국사회의 그동안의 차별과 배제정책으로 인해 한국화교는 거주하고 있는 장소보다는 '공간성'에 대한 인식이 강하다. 즉, 화교들은 한국사회를 일종의 경험과 정체성이 없는 비장소(non-place)로 인식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이 죽어서 묻힐 실제적 장소로서 인지하기도 한다. 이는 화교의 초국가적 인식과 경험의 단면을 보여준다.

초국가주의는 또한 대만과 미국 등지로 재이주한 재외한화(在外韓華) 등의 경험을 설명할 때 유용하다. 갈수록 세대교체를 경험하고 있는 한국화교들의 현실을 볼 때, 이 개념은 초국가적 가족관계와 송금은 물론 이주민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의 발달 현상을 적절하게 설명하는 개념이다.

여기서 유의할 것은, 비록 초국가주의 개념이 고전적 디아스포라 개념에 비해 확산적이긴 하지만, 디아스포라가 배태된 원초적 상황에 대한 인식이나 이를 둘러싼 역사적·구조적 맥락이 간과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7]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초국가주의는 독립된 개념틀로 사용하기보다는 국제이

주의 역사적 구조적 맥락 속에서 전개되는 디아스포라 경험과 이주민들의 초국가적 성격을 보다 분명히 드러내는 상황적 개념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초국가주의와 디아스포라 개념은 오늘날과 같은 국제이주의 시대에 인간의 유목적(nomadic) 특성을 이해하는 데 적합한 해석도구이기도 하다. 초국가적 디아스포라는 어떤 고정된 실체나 정체성을 갖고 존재하기보다는 거주민과 이주민의 상호작용을 통해 늘 새로운 인식틀을 구성해가는 가변적 존재로 간주된다.

이 연구는 화교에 대한 초국가적 관점과 디아스포라 논의에 나타난 문제의식을 비판적으로 수용할 것이다. 그리하여 두 국가 사이에서 '끼인 존재(in between)'로 살아가는 화교들의 '인정(recognition)'의 요구와 한국정부의 '통합(integration)'의 과제가 상호 맞물려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일련의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이주민 사회통합과 '인정의 정치'

(1) 사회통합의 개념과 이론

일반적으로 사회통합(social integration)은 다양한 특성을 가진 구성원들이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을 갖고 공동의 비전을 공유하며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상태'[8]를 지칭하는데 특히 다문화시대에 들어서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주민 사회통합이라는 것은 이주민의 사회부적응으로 인한 사회 갈등을 최소화하여 이주민이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간 한국사회에서 통합(integration)은 동화(assimilation)와 유사한 것으로 여겨 다문화주의의 대척점에 있는 것으로 간주한 나머지 이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유럽에서 통합은 동화의 상위 범주이며 동화는 통합의 한 형태로 간주되기도 하고, 미국처럼 통합과 동화를 동일시하는 경우에는 다양한 동화의 방식을 상정하기도 한다.[9] 사실 사회적 통합은 쌍방향적 과정으로 이주민이 유입국 사회의 공동체적 가치를 존중하고 시민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인 동시에 유입국의 원주민이 이주민을 수용하고 차이와 다양성을 존중하며 포용하는 과정 모두를 의미한다. 그런데 '단일한' 민족성을 자긍심의 원천으로 삼아 근대 국민국가의 통합과 발전을 이룩해온 한국의 경험은 서구와 달리 이질적인 문화와 협상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한 나머지 사회통합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2) 다문화 담론으로서 '인정(recognition)의 정치'

다문화주의를 '인정의 정치(politics of recognition)'로 정의한 테일러의 주장(Taylor 1992)이 암시하듯이, 일반적으로 다문화를 수용한다는 것은 문화적 다수집단이 소수집단을 동등한 가치를 지닌 집단으로 인정함을 의미한다.

최근 현대 정치이론과 철학적 논의에서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는 이 '인정'이라는 개념은 한 때 주목받지 못하다가, 다문화시대에 이르러 개인과 집단의 정체성과 다문화주의 문제와 관련하여 신헤겔주의자인 테일러(Charles Taylor)나 호네쓰(Axel Honneth) 등에 의해 부활되었다. 그렇다면 인

7) 임채완·전형권, 2006,『재외한인과 글로벌네트워크』, 서울: 한울아카데미, pp.49-50.
8) 노대명 외, 2009,『사회통합을 위한 과제 및 추진전략』, 보건사회연구원, pp.15-16.
9) 엄한진, 2008, "한국이민담론의 분절성",『아세아연구』, 제51권 2호, p.134.

정받는다는 것이 왜 정치적인 문제인가? 정치현상을 권력에 국한시켜 접근하던 주류 정치학이 간과한 문제는 바로 권력 이전에 그것을 바라보고 인식하는 '주체'에 대한 인식이다. 즉, 권력과 부가 소중한 이유도 '나'에 대한 인정이 전제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사회적 관계 속에서 '나다운' 존재 자체가 인정받는다는 것은, 그 자체가 정치의 본질인 권력이 작동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인정이 없는 상태에서 주어지는 그 어떤 배분도 온정주의적 '시혜'나 동정의 산물일 뿐이다. 사회적 자원의 수동적인 배분은 그 자체가 인간이 마땅히 지녀야 할 능동성을 부정당하는 것이며, 동시에 사회적 권리로부터 소외되는 정치적 배제의 과정인 셈이다. 바로 이 점에서 권력의 본질은 인정의 쟁취에 있으며, 이로 인해 공동체 내에서 인정을 둘러싼 정치적 경합이 발생하는 것이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 새롭게 대두되는 사회통합 논의들은 이주민의 사회부적응으로 인한 사회 갈등을 최소화하고, 이주민들이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존중함을 의미한다. 비록 존중하자는 점에서는 일치하나, 여기에는 차이와 다름으로 인해 발생할지 모르는 사회혼란에 대한 염려에 더 큰 방점이 깔려 있다. 진정한 의미의 통합은 사회의 동질성을 강조하기 보다는 다양성이 존중된 상태로서 다양한 인종으로 이루어진 사회구성원이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문화가 형성되는 상태[10]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는 필연적으로 화교들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방식에 대한 있는 그대로의 인정을 필요로 한다.

3. 한국사회의 타자 : 한국화교와 '인정의 정치'

한국화교는 전 세계 화교 집단에서도 특수한 존재이다. 세계적으로 화교사회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동남아 화교 · 화인들이 거주국 사회에서 경제발전을 주도하고, 정치 및 사회적으로 적극적으로 동화되면서 주류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한 반면, 한국화교들은 거주국에서 동화되거나 핵심집단으로 부상하지 못하고 주변화 된 채 '타자'로 고립되어 왔다. 이 장에서는 화교들이 한국사회에서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지 못하고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원인과 실태를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지위와 교육의 차원에서 논하기로 하겠다.

1) 화교의 정치적 지위

화교들의 정치적 지위는 그들의 법적 지위와 직결되어 있다. 어떠한 국적과 체류자격을 소지하고 있는가는 직접적으로 그들의 정치적 권리를 결정한다. 여기서는 화교들의 법적 지위와 정치활동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선, 법적 지위는 화교들이 한국 사회에서 어떤 사회적 위치와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를 가늠하는 객관적 지표인 동시에, 또한 궁극적으로 그들 자신이 누구인지 그 정체성의 기반을 이루는 핵심요소이기도 하다. 화교들의 법적 지위를 가늠하는 기준으로는 거주비자(F-2)를 비롯한 장기체류자격, 영주자격(F-5), 그리고 국적 등이 있다.

첫째, 한국에서 태어나고 성장한 화교에게 있어서 체류자격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10) 최현실, 2009, "다문화가정 증가에 따른 한국 사회통합 정책 연구: 중국과 싱가포르의 상호성 원리의 한국 사회에 적용가능성", 『한국민족문화』 35호, pp.343-375.

체류자격의 측면에서 볼 때,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화교들은 '중화민국'(대만)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이다. 따라서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국의 출입국관리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입국심사를 받고 체류자격을 얻어야 하며, 또한 외국인으로 등록을 해야 한다. 화교는 한국 국내에 계속 거주하여 생활의 근거가 있는 자로서 임시 방문, 혹은 단기 체류가 목적인 다른 외국인들과 달리, 거주(F-2)자격을 가질 수 있고, 그 배우자 및 그의 출생자녀로서 미성년인 자도 역시 거주비자를 가질 수 있다. 거주비자의 체류기간은 5년이고, 특별한 사유 없는 한 5년씩 연장 가능하다. 화교들은 부여된 체류자격에 관련한 체류활동만을 할 수 있으며, 그 외의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정치활동은 금지되며, 체류기간 내에 체류자격에 국한된 활동만을 해야 한다.

현행 법무부의 체류관리기준에 따르면 체류기간 연장 등의 허가요건과 관련하여 체류자격별로 체류허가 내지 체류억제의 대상을 세분하고 있으나 화교들이 소지하고 있는 거주의 체류자격에 대해서는 이 같은 제한규정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체류의 자격과 기간의 문제는 화교들이 자신을 스스로 외국인으로서 한국에서 뿌리내릴 수 없는 '이방인'으로 간주하도록 한다. 비록 그들은 대만 여권을 가지고 있지만 이미 지역사회 구성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태어나고 성장한 화교들은 일단 해외로 나갔다가 한국으로 들어오려고 할 때 재입국 기한을 다만 며칠이라도 어기게 되면 바로 '장기체류자'의 신분을 박탈당하게 된다. 따라서 화교들은 자신을 스스로 외국인으로 취급하는 수밖에 없다.

둘째, 영주자격은 국민에 준하는 법적 지위가 보장되는 체류자격을 말한다. 영주자격(F-5)을 획득하면 국내 취업활동의 자유가 보장되는 한편, 체류기간연장허가 및 재입국허가 대상에서 면제되는 등 일반 체류외국인보다 특별한 처우를 받게 된다. 또한 영주자격을 부여받고 3년이 경과한 후부터는 지방선거 참여 등 일부 참정권까지 행사할 수 있다. 1950년부터 1990년대까지 한국은 화교들의 귀화를 억제하는 정책을 취하였다가, 2002년 영주자격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화교들은 체류자격을 정기적으로 갱신해야 하는 불편함을 어느 정도 해소하였다.[11] 또한 간이 귀화규정을 폭넓게 적용하고 있어 화교들에 대한 전향적인 조치를 취한 바 있다. 한국에서 영주제도 도입을 통해 그동안 체류자격으로 인해 늘 불안감을 안고 살아야 했던 화교의 법적 지위는 어느 정도 개선되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국적문제이다. 국적(nationality)은 개인이 어떤 나라의 국민이 되는 자격 또는 국민의 신분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국적취득은 출생 등에 의한 선천적 취득과 귀화 등에 의한 후천적 취득으로 구분할 수 있다.[12] 한국은 부모양계혈통주의에 기초한 속인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 일부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국적의 부 혹은 모와 화교 사이에 출생한 자녀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11) 현행 한국의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하면, 화교를 비롯해 5년 이상 한국 국내에 장기 거주한 외국인은 영주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영주자격 취득자는 부동산 및 금융 거래와 국민건강보험제도와 국민연금제도, 각급학교 취학에서 한국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갖게 된다. 또한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않는 한 강제퇴거의 대상이 되지 않고, 출입국에 있어서도 한국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되어 있다(하이코리아 2022).

12) 한국에서 귀화에 의한 국적취득에는 일반귀화, 간의귀화, 특별귀화 3종류가 있다(국적법 제5조). 화교 일반귀화에서 가장 어려운 요건은 본인 또는 가족이 독립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음을 입증하는 재정관련 서류이다(국적법시행규칙 제3조 제4항). 재정관련 서류는 구체적으로 한국은행이 고시하는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이상의 소득금액 증명원, 6천만원 이상의 금융재산(예금, 적금, 증권 등) 증명 서류, 공시지가, 실거래가 또는 시중은행 공표 시세가 6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부동산 소유 증명 서류가 있다. 하이코리아, https://www.hikorea.go.kr/info/InfoDatail.pt?CAT_SEQ=200&PARENT_ID=148 [2022.10.31.]

다음으로 화교의 정치활동을 통해 정치적 지위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한국화교는 비록 한국에서 태어나고 성장해왔지만 대만 여권을 가진 외국인이므로 그들의 정치활동은 제한되어 있다. 다만, 귀화를 하지 않은 화교 영주권자는 국민이 아닌 '주민'의 개념으로 인정하여 지방선거에 대한 투표권은 부여하고 있으며[13], 귀화절차도 과거에 비해 간소화시킨 바 있다. 2005년 6월, 한국에서 영주자격을 취득한 지 3년 이상인 자로서 19세 외국인들에게는 지방선거투표권을 부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모로 정치적 참여가 제한적인 여건 속에서 화교들의 정치적 성향은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화교들은 비록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제한적인 법적 지위로 인해 한국사회에서 뿌리를 내릴 수 없는 이방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또한 이러한 외국인 신분으로 인해 그들은 정치 활동에서 여러 가지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법제적 정비를 통해서 최소한 자유주의 국가의 기본 권리를 보장받고 싶어한다.

2) 화교의 경제적 지위

2000년대 이전 한국사회는 화교를 비롯한 외국인의 경제활동을 꾸준히 제한해왔다. 화교들의 경제활동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외국인토지취득허가제 및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지 못하게 하는 법적 제한이다. 한국에서 외국인토지법이 1961년 제정됨에 따라 외국인의 소유권은 모두 박탈당했다.[14] 1998년 외국인 토지법이 개정되면서 이러한 제한은 해제되었지만, 근 30년간 화교들은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지 못하였다. <표1>은 한국화교에 대한 한국정부의 규제들을 열거한 것이다. <표1>에서 나타나듯이, 한국 정부는 여러 가지 규제를 통해 화교를 주류사회에서 배제시켜왔다. 이러한 차별적인 제도들은 화교들의 사회경제 활동과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들이 한국사회의 진정한 일원으로 뿌리내리는 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정부의 경제적 제한은 화교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으며, 나아가 화교사회가 점차 위축되어 주변화 된 촉진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표1> 한국화교에 대한 주요 규제

시기	내용	비고
1948년	외국인에 대한 출입규제 외국인에 대한 외환규제	화교의 신규 이주 금지 화교의 무역거래 비용 상승
1950년	창고봉쇄조치	현물을 대량 보관하던 화교무역업에 타격
1961년	외국인토지소유 금지	한국인의 명의로 등록, 소유권분쟁 야기
1962년	통화개혁	대량의 현금 보유 화교에 타격
1968년	주택용 200평, 상업용 50평 이내에서 외국인의 토지소유 허용	부동산 가치 상승에 따른 자산가치증식에서 소외

13) 현재 한국 헌법에는 국내 장기거주 외국인(영주권자)에게는 지방선거 투표권(지방자치단체 및 의원)만을 부여하고 있지만 피선거권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화교들은 시의원, 구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될 수 없다.

14) 1970년『외국인 토지취득 및 관리에 관한 법』의 제정은 화교에게 1가구에 1주택 1점포만 허용하였고, 주택 면적도 200평 이하, 점포도 50평 이하로 제한하였다. 또한 논밭이나 임야의 취득도 불가능하여, 농업에 종사하던 화교들은 큰 타격을 받게 되었다(임채완·박동훈 2006, 17).

1970년대	짜장면값 동결, 인정과세 실시 중국 음식점 쌀밥 판매 금지	화교 경영 중국음식점의 수익성 악화
1950~90년대	귀화 억제 정책	외국인의 신분으로서 불편과 불이익을 감수
1950~90년대	화교학교를 임의 단체로 분류	화교의 취업과 진학에 불리
2000년대 ~현재	외국인 토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토지 소유 문제 해결. 화교에 대한 정책적 규제가 상당부분 완화.	그러나 여전히 경찰공무원 등 특정직 공무원에서 배제됨.

*출처: 박현옥·박정동, 2003, " 한국화교(인천화교)의 경제활동 및 사회적 지위에 관한 연구."『IDI연구보고서』 인천발전연구원, p.75 참조 및 재구성.

최근에 들어서 화교에 대한 지난 수십년간의 차별적인 법적·제도적 조치들이 상당부분 완화되고 개선된 것은 사실이다. 한국의 외환위기와 갑작스러운 지구화 질서의 편입에 따른 화교자본 유치가 이러한 제도 완화의 목적이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한국의 법·제도적 상황은 결혼이민자를 잠재적 시민으로 간주하나, 여전히 화교를 이방인으로 접근하는 입장에서 출발하고 있다.

3) 화교의 사회적 지위

화교에 대한 차별은 정부 정책 차원에서 그치지 않았다. 화교들은 일상생활에서도 한국인의 편견과 차별을 받아왔다. 과거 군사적, 경제적인 힘을 앞세워 한국 경제를 잠식했던 화교들에 대한 반감은 상황이 역전되면서 공격적으로 표출된 것이다.[15] 한 때 '차이나타운이 없는 유일한 나라'[16]으로 불릴 정도로, 한국사회에서 화교는 공적인 영역은 물론 사회 문화적으로 소외된 고립된 게토(ghetto)를 형성하여왔다.

대만의 교무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한국 내 화교들의 사회활동을 위한 협회는 서울의 한성화교협회를 비롯해 52개 지역에 화교협회(華僑協會)가 결성되어 있다(中華民國僑務委員會). 그리고 상호간의 정보교환 매체로서 '한중일보사'를 비롯한 3개의 언론사가 있으며, 한국중화총상회(韓國中華總商會)를 허브(hub)로 한 각종 온라인 네트워크도 구축되어 있다. 2005년 제8차 세계화상대회를 서울에서 개최한 것도 한국 내 열악한 위치에 있던 화교들에 대한 세계적 관심을 환기시키려는 노력에서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이처럼 화교들의 결속력이 강한 것은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외지에서 살아가야 했던 특별한 역사적 조건에서 나온 현상일 수 있다.

화교는 사회적 통합이나 문화적 동화의 대상으로 간주하기 보다는 고립의 대상으로 여겨진 채 방치되어 있다. 1940년대 8만명에서 1960년대 4만여 명을 헤아리던 한국화교 수는 한국 정부의 각종 차별 정책으로 인해 점차 미국, 대만, 캐나다 등지로 재이주함으로써 1970년대 절반으로 줄어들게 된다. 특히 1970년대 박정희 정권의 "외국인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과 같이 토지 소유를 제한하는 법의 시행 및 화교 학교 학력 불인정 등으로 인한 교육 문제는 보다 많은 한국화교들로 하여금 선진국으로의 이민행렬에 동참하게 만들었다.

15) 장수현, 2002, "한화, 그 배제의 역사",『당대비평 19』, pp.234-258.
16) '차이나타운' 논의와 관련하여, 화교의 상권이 커지는 것을 경계하였던 한국의 배타적 대응으로 인해 한국에는 화교들의 활발한 경제상권이 형성되지 않았다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양승필 외, 2004,『차이나타운이 없는 나라』, 삼성경제연구소.

이러한 과정을 통해 화교사회는 '재외한화(在外韓華)'라는 명칭의 다소 중층적인 초국가 디아스포라를 양산하게 된다.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화교는 현재 미국에 1만 5천여명, 대만에 1만명, 일본에 6천명 정도가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7] 이들은 어찌되었든 '한국'을 매개로 새로운 이민지인 미국이나 대만 등지에서 서로 유대관계가 돈독하며 한국문화에 대한 향수도 강해 본적지인 산동성 다음으로 한국을 제2의 고향으로 여기는 경향이 강하다. 한국에서는 여전히 '타자화'를 경험하면서도 모국인 대만에서 오히려 한국인에 가까운 것으로 인식되는 등, 두 국가 사이에 '걸쳐 사는' 초국가 경계인인 셈이다.

화교들은 1세대부터 차별을 받아왔지만, 그러한 차가운 시선은 현재 3, 4세대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차별 경험은 화교들의 개인적 기억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화교 집단에서 끊임없이 유포되면서 집단의 기억이 된다는 데 문제가 있다. 화교 1, 2세들이 지닌 한국사회의 배타성에 따른 피해와 그의 저항의식은 그 자녀들에게도 전달되기에 후속 세대들 역시 한국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고 융합되는 것을 거부한다. 이로 인한 약소자 혹은 피해자로서의 심리적 태도는 한국 사회에 대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적응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데 이것이 바로 현지적응 과정의 장애요인이다.

<표2> 한국 내 화교학교 현황

연번	지역	학교명	주소	인가일	소속
1	서울	한국한성화교 중·고등학교	서대문구 연희동	1999.08.27	대만
2	서울	영등포화교소학교	영등포구 문래동	1999.08.27	대만
3	서울	한성화교소학교	중구 명동	2001.11.23	대만
4	부산	부산화교소학교	동구 초량동	2001.07.23	대만
5	부산	부산화교중고등학교	동구 초량1동	2001.07.23	대만
6	대구	대구화교초등학교	중구 종로2가	2002.07.08	대만
7	대구	대구화교중.고등학교	남구 봉덕동	1998.10.18	대만
8	인천	인천화교소학교	중구 선린동	2002.12.21	대만
9	인천	인천화교중산중·고등학교	중구 선린동	2002.12.21	대만
10	경기	수원화교중정소학교	수원시 팔달구 교동	2007.08.31	대만
11	강원	원주화교소학교	원주시 판부면	1999.10.14	대만

* 출처: 교육부, "외국인학교 운영현황", https://www.moe.go.kr/search/front/Search.jsp 2022.10.20.]

최근 들어 소수자 계층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지고 정부의 외국인 규제정책이 점차 완화되면서 화교사회에 대한 차별적 정책은 과거에 비해 점차 약화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화교 집단은 여전히 보이지 않은 사회적인 배제와 차별로 인해 한국사회의 진정한 구성원으로 융합되기 어려운 장벽에 직면하고 있다.

17) 일찍부터 미국 내 주요 지역에서는 韓華聯誼會가 결성되어 한국화교의 단결 및 공동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1996년에는 미국내 9개 지역 韓華聯誼會 대표가 모여 "美韓華聯誼總會"를 공식 발족시켰다. 지난 2000년에는 미국 내 1만 5천여명 한국화교의 주소, 전화번호를 포함한 2000년 「全美韓華通迅錄」를 제작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젊은 한국화교를 대상으로 한 워크샵을 개최하는 등 한국화교의 역사와 정체성을 간직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한국내 거주 한국화교와의 연계는 주로 개별적으로 친지들과의 만남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지난 1998년 IMF 금융위기 때에는 한국을 방문하여 화교 학교에서 위문공연을 하는 등 제2의 고향 한국과의 인연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가하면, 대만의 한국거리 中和市 中興街는 이미 이민간 한국화교들이 거주하는 곳으로서, 1970년대 대만으로 건너간 한국화교들이 한국 음식점을 열거나 한국 의류 수입 판매를 시작하면서 형성되었다. 처음에는 남대문, 동대문에서 저렴하게 한국 옷을 구입해다가 파는 단순 보따리 장사에 그쳤으나, 80년대 대만이 수입 전면개방을 시작하면서 한국 상품 전문 거리로 변모하기 시작한 것이다(韓國中華總商會).

4) 화교의 교육적 지위

화교학교는 화교들의 민족 언어와 민족 문화를 계승하는데 극히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다. 화교학교는 1902년 인천에서 최초로 설립되었는데, 1974년 전국에 55개에 달했던 학교의 수는 대폭 감소되어 2019년 기준 11개 학교가 교육부에 '외국인학교'로 등록되어 있다(<표2> 참고).

화교학교는 대만계 중국인이 설립한 것이며 대만의 학제와 교육과정을 모델로 하고 있다. 한성화교소학교, 인천화교소학교와 같은 학교의 역사는 80에서 100년 이상이 된다. 박정희 정권 이후 모든 외국인학교를 외국인 단체로 등록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외국인학교는 한국 국적자를 받을 수 없고, 받게 된다면 등록을 취소하게 되어 있었다. 당연히 학력도 인정되지 않았다.

1950년부터 1990년대까지 한국정부는 화교학교를 임의단체로 분류하였는데, 이는 화교의 취업과 진학에 불리하게 작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육을 통한 화교들의 한국사회 진출기회를 차단함으로써 그들을 주변화시키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러다가 1990년대 말 한국의 외환위기 이후 한국정부는 외국에 대한 교육을 개방하면서 모든 외국인학교는 '각종학교'로 등록을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화교도 이제 한국 법상 '학교'이므로 학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각종 교육법상의 학력인정기준에 부합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화교 학교를 비롯한 외국인학교가 한국법의 기준에 따라 공식적으로 학력을 인정받은 곳은 한 곳도 없는 상황이다. 화교학교는 현재 대만학제에 따라 교과과정을 편성하고, 주당 3시간 정도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외국인 학교가 한국법이 정하는 교원, 교사, 체육장, 수익용 재산, 교과목 등 각종 학력인정기준을 충족하기란 매우 어렵다. 대학입학에 있어서도 화교학생들은 차별을 받고 있다. 외국인학교는 한국 고등학교와 교육체계가 상이하여 동등하게 한국대학에 응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18] 실체적으로는 한국에서 태어난 외국인이지만 대학입시 전형과정에서는 한국계라는 이유로 '특별전형'이 불가능하게 되는 모순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외국인에 대한 교육제한, 재정난, 화교 학생 수의 감소 등으로 인해 많은 화교 학교들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화교학교는 여전히 화교문화를 계승하고 정체성을 고양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화교들의 관심사이다.

이렇듯 한국화교의 교육환경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제한적이고 폐쇄적인 교육환경은 역설적으로 소수민족으로서 화교의 정체성을 고양시켰으며 그들을 결속시키는 기제가 되었다. 이는 또한 화교들이 한국사회로의 통합이 아닌 주변화 된 요인이기도 하였다.

한국화교는 한국 내 소수민족인 동시에 중국인 디아스포라이며, 동시에 초국가 이주민이기도 하다. 이들에 대한 시각은 거주국의 정치적 담론과 사회적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한국의 제한된 정치 · 경제 환경과 사회적 차별, 그리고 폐쇄적인 교육 환경 등은 화교들로 하여금 한국사회에 완전히 통합되지 못하고 '소수민족'으로 살아가도록 하였다. 이들은 한국에서 실현하지 못하는 '국민으로서' 소속감과 존재방식을 확보하기 위해 모국인 대만과의 관계를 꾸준히 유지하며 살고 있는 초국가적 디아스포라이기도 하다.

18) 『재외국민 및 외국인 특별전형 모집요강』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 학생에 대해 특별전형을 실시하는데 이 모집요강에는 외국인 학생일 경우 '부모 모두가 외국인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하지만 화교는 실제적으로 한국인 여성과 결혼한 가정이 많기에 이러한 유형의 화교 자녀들은 외국인 범주에 들어갈 수 없다.

한국사회에 체류하는 정주 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한국정부는 이를 다문화현상으로 규정하고, 각종 다문화정책을 제정하여 이주민을 통합시키고자 하고 있다. 최근 법무부는 다문화사회를 “언어, 종교, 관습, 가치관, 국적, 인종, 민족 등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이민자 등이 사회 구성원으로 참여하여 이루어진 사회”로 정의하고 과거에 비해 보다 전향적인 조치들을 내놓기 시작하였다. 또한『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과『다문화가족지원법』 등을 제정하여 적극적으로 이주민을 한국사회에 통합시키고자 한다. 하지만 이러한 다문화 지원 정책은 대부분 결혼이민자에게 집중되었을 뿐, 한국사회에 백여 년 간 정착해 온 화교에 대해서는 그 어떤 통합 지원방안도 실시되지 않고 있어, 사회통합은커녕 다른 집단 간의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 같은 사실은 이미 인구사회학적으로 ‘다문화국가’로의 외양을 갖춘 한국에서 ‘다문화주의’와 다문화정책이 갖는 분열상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가부장제적 사회질서의 틀 속에서 이질적인 것들을 통합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여온 한국으로서는 ‘관주도형 다문화주의’ 정책 외에는 다문화주의를 수용할 만한 상부구조 및 멘탈리티가 조성될 기회가 거의 없었다[19]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사회통합과 관련하여 중요한 개념이 바로 정체성이다. 정체성이란 자신이 처한 상황과 형편에 따라 끊임없이 변할 수 있다는 스튜어트 홀(Stuart Hall)[20]의 지적처럼 사실 객관적이거나 보편타당한 정체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어떤 정체성도 혼자서 존재할 수 없고, 대립, 부정, 반대의 배열 없이 존재할 수 없다(Edward W. Said)[21]는 역설을 이해해야 한다면, 그동안 한국이 외국인 이민자들을 타자화 시켜 국민통합을 훌륭히 완수했던 맥락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한국과 같이 전통적으로 ‘단일한’ 민족성을 자긍심의 원천으로 삼아 근대 국민국가의 통합과 발전을 이룩해온 국가에서는 이주민들이 한국 사회의 전혀 다른 문화, 사고방식, 언어, 전통과 관습의 차이로 인해 스스로 ‘정체성’ 혼돈을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다.

이는 단지 이주민에게만 혼란을 주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배타적인 기제에 길들여진 한국인들 역시 이질적인 문화와 협상하는 능력이 떨어짐으로서 지구화 시대 경쟁력 저하를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진정한 의미의 사회 통합은 쌍방향적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 즉, 통합은 이주민이 유입국 사회의 공동체적 가치를 존중하고 시민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인 동시에 유입국의 원주민이 이주민을 수용하고 차이와 다양성을 존중하며 포용하는[22] 양방향의 차원에서 이룩된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인정의 정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테일러와 같은 공동체주의자가 지적하듯이, 통합과 상호적 관심이 결여된 (자유주의적) ‘관용’ 담론에 비해 ‘인정’은 훨씬 더 정치적 함의가 크며 공존과 소통에 유리한 담론이 될 것이다.

4. 결론

이 연구는 한국 내 화교의 차별적 경험 및 한국 정부의 화교정책에 나타난 문제점을 파악하고 화교를 포함한 이주민에 대한 한국의 사회통합 방안에 주는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한국화교는 오

19) 오경석, 2009, “어떤 다문화주의인가?” 오경석 외 편,『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현실과 쟁점』, pp.22-54.
20) Stuart Hall. 1994. “Cultural Identity and Diaspora.” Patrick Williams and Laura Chrisman(eds.), *Colonial Discourse and Post-colonial Theory: A Reader*. 392-340.
21) Edward W. Said. 1993. Culture and Imperialism. 60.
22) 엄한진. 2008, “한국이민담론의 분절성”,『아세아연구』 제51권 2호, p.134.

랜 이주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어려운 귀화 조건으로 인해 안정된 법적 지위를 획득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많은 화교들은 영주자격을 소지했지만 주변인 내지는 타자로 취급받고 있다. 그들에게는 제한적인 투표권이 부여되고 있을 뿐 피선거권은 인정되지 않으며, 경제활동에서도 많은 제한이 주어졌다. 또한 화교학교의 학력은 인정되지 않아 화교들이 한국 주류사회로 편입되는데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한마디로 이들은 사회에 통합되지 못하는 주변인으로 살아온 셈이다. 이주의 시대가 도래되고, 보다 성숙한 다문화사회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화교집단을 포함한 이주민들이 더 이상 소외되고 배제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에 아래에서는 화교를 한국사회로 통합시키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화교의 귀화 조건을 완화하여 국적 취득이 용이하도록 해야 한다. 불안정한 법적 지위는 화교가 한국사회에 통합되지 못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다. 과거에 비해 화교의 귀화 조건이 완화되었지만, 3세대 이상 한국에 거주해온 화교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할 경우 추천서 등 형식적인 절차를 대폭 완화하여 한국 국적 취득이 더 용이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6천만 원 이상의 재정관련 서류 등 귀화조건을 완화하여 경제적 사정으로 인한 국적 취득의 장벽을 해소해야 한다.

둘째, 영주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화교들에 대한 지원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 비록 화교들은 한국에서 영주자격을 취득하여 합법적인 법적 지위를 확보하였지만, 그들을 위한 혜택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따라서 영주자격을 취득한 화교들에게도 시민으로서의 실질적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할 것이다.

셋째, 현재 화교 자녀들이 한국 국내 대학에 진학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화교 학교가 학력을 인정받지 못함으로써 불이익을 받고 있다. 따라서 교육부는 화교 학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교육과정 개편을 전제로 학력인정을 통해 화교학교 출신자들의 대학 진학을 용이하게 하는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화교들의 '인정(recognition)' 요구와 한국의 '통합(integration)' 과제는 상호 배타적이기보다는 상호보완적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다문화적 의제들이다. 우리가 진정한 의미의 다문화사회로 통합을 이룬다는 것은 이주민들이 동화되기를 기다리기보다 그들이 우리와 동등한 구성원으로 인정받는 기반 위에서 사회, 문화, 정치, 경제적 참여를 통해 독립적이고 지속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공생의 조건을 만드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국화교는 더 이상 한국사회의 소수민족으로 가두어질 대상이 아니다. 이들은 특정 국민국가의 틀에 고정되지 않은 사회영역을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그러한 환경 속에서 주류사회와 꾸준히 경합과 협상의 상호작용을 벌이면서 다층적인 정체성을 구성하고 있다. 이러한 정체성의 동학을 이해한다면 현재까지 한국사회의 다문화담론 속에서 조차 포함되어 있지 않은 화교에 대한 인정의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긴요한 과제라 할 것이다. 한국이 초국가주의에 걸맞는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이질적인 타자를 '굴복'시켜 한국 쪽에 편입시키려는 왜곡된 통합논의는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화교와 같은 이주민 소수집단을 주류사회 구성원과 동등한 존재로 인정할 때만이 한국인들에게는 이질적인 것과의 문화적 협상력이 길러질 수 있을 것이다.

메 모

【한중수교 30주년 기념 특별분과】 발표 ⑤

后疫情时代国际中文教育发展背景下的在韩华人华侨子女中文教育方案研究

王静**

【摘要】1992年之后的新移民是韩国华人华侨的主要群体，这些新移民构成的多文化家庭占韩国多文化家庭总数的约50%。通过年龄分布数据可以看出，百分之七十以上的韩国新移民的子女处于可以同时习得几种语言的学习关键期，也就是说，在韩中国新移民子女的中文教育是一个当下应该密切关注的问题。本研究以蔚山地区韩国结婚移民新华侨群体为研究对象，调研并分析韩国华文教育现状，探索如何加强海外华文教育与国际中文教育的联系。如何在人工智能、大数据、移动互联网技术飞速发展的背景下，以信息技术赋能海外华文教育？分析并探索后疫情时代适合本土的华人华侨子女中文混合式教学方案。

【关键词】国际中文教育；海外华文教育；在韩新移民；新移民子女。

1. 引言

“海外华人”泛指所有从中国移民国外的华人及其后裔。海外华人的中文教育也被称为“海外华文教育”（Overseas Chinese Education），是华人华侨在海外传授中华民族语言和文化的一种教育形式，主要对象是在海外出生的华裔青少年。在海外生活的中国人有通过华文教育保持继承本民族的语言及文化，获得族群认同的客观需求。华文教育历史悠久，华人华侨通过创办华文学校来实现文化传承，在全世界的各个地区分布着大量华文学校，据统计“目前全世界有华文学校近2万所，数百万学生在校接受华文教育，海外华文学校教师达数十万”[1)]。

国际中文教育（International Chinese Language Education）是对外国人的汉语教学，是一种外语教学，广义上也指海内外从事汉语作为第二语言教学的活动。伴随着中国经济的崛起，中国国际地位的提高，中国政府对中文国际化传播的重视，国际汉语教育得到空前的发展，经过几十年努力，国际中文教育体系已经日趋完善，在中国的很多大学都开设了相应的专业，并接收来华留学生学习中文；与此同时，孔子学院及孔子课堂也在全球160多个国家和地区设立。在这个过程中国际汉语教育经历了“对外汉语教育--汉语国际推广—汉语国际教育—国际中文教育”的变迁和发展[2)]。

很久以来，因为二者分属于不同的体系，教育的对象和教育内容，教学管理，师资建设都有很大不

* 蔚山大学国际专业 助理教授

1)『华文教育关系华人社会和谐及可持续发展』 裘援平

2)『历史大变局下的国际中文教育———语言与国家治理的视角』王春辉

同，即使在同一国家和地区也很少有交流与合作。直到2019年，在“国际中文教育大会”上提出了国际中文教育要致力于构建更开放、更包容、更规范的现代中文教育体系。并将华文教育纳入国际中文教育的领域之中，至此从教学类型来看，国际中文教育扩展为三大方向 ：国内的“对外汉语教学”、海外的“国际中文教学”，以及海外的“华文教育”[3)]。

2020年新冠疫情蔓延全球，叠加全球区域局势动荡，逆全球化趋势愈演愈烈，给全球的经济文化发展带来严重冲击。特别是新冠疫情迫使全球范围的线下教育改为线上教学，国际中文教学遇到了历史性的挑战，也迎来了前所未有的发展机遇。在疫情中探索出来的新型教学模式，迅速加强了各个国家国际中文教育与中国本土的联系，推动了国际中文教育的深刻改革。然而疫情叠加国际局势动荡却给有着数百年历史的华文教育带来打击，随着外部环境的恶化，因不能迅速适应时代的变化，导致教育人材和学生流失，华文教育面临种种困境。韩国的华文教育在以上问题的基础上又具有特殊性，包括老侨新侨华文教育断层，没有形成华人华侨群聚效应，以新移民为中心的华文教育处于探索期，疫情之下无法适应新教育模式种种问题。

本文的目的在于调研并分析韩国本土华文教育现状，探索如何加强海外华文教育与国际中文教育的联系？如何在人工智能、大数据、移动互联网技术飞速发展的背景下，以信息技术赋能海外华文教育？以蔚山地区韩国结婚移民新华侨群体为研究对象，分析并讨论后疫情时代适合本土的华人华侨子女中文混合式教学方案

2. 理论基础

1）扎根理论（Grounded Thoery）

1967年美国学者格拉塞（Barney G.Glaser）和斯特劳斯（Asselm Strauss）提出，在『扎根理论的发现』中提出该概念，是通过系统的资料收集和分析程序而发现理论，自下而上建立理论的方法，是质性研究的经典范式。扎根理论是社会学研究的基本方法，通过参与观察，深度访谈，实地调研等方式进行，随后对数据转录、整理与修订，编码后分析数据构建理论。

2）混合式教学（Blended learning）

混合式教学广义上是指综合运用多种学习理论、多种技术和手段以及多元化教学方法和学习方式实施教学，以达到教学效果最优化的一种教学模式和策略。当前主要指面对面的课堂教学和网络在线教学两种典型教学形式的有机融合。混合式教学强调既要充分发挥教师的教学引导、学习监督和过程调控的主导作用，又要充分体现学习主体的主动性、积极性和创造性。目前国内外对混合式教学的研究主要集中于理论和应用两个大的方面。具体研究内容包括混合式学习基础研究、混合式学习资源建设、混合式学习系统开发设计、混合式学习应用领域研究、混合式学习实践成果等。混合式教学模式已在多种学科，如教育学、计算机软件应用、外国语言文字、中等教育、高等教育、医学等领域得以广泛应用，但在国际中文教育等领域，有关混合式教学的研究则较少，主要集中于中国现代文学、中国古代文学；汉字教学、听力教学、

3)『明确“国际中文教育的 ” 的内涵和外延』， 郭熙 ， 林瑀欢

国外汉学研究等课程，目前还处于起步阶段，尤其是缺少以海外本土中文教学课堂为对象的研究。

3. 研究方法及资料分析

首先，本文通过数据整理及文献调查，追溯在韩华人华侨及华文教育的一般特征；其次，通过参与组织蔚山地区华人华侨子女网络中文夏令营活动，使用参与观察法，总结在韩华裔青少年汉语学习的困境与问题点。再次，因为华人华侨子女教育涉及问题较多，通过组织参与夏令营的华裔父母进行网络会议，采取半结构访谈法，对参与夏令营的华人华侨父母选取4-5名进行深度访谈，根据发现的问题寻找适和的教育方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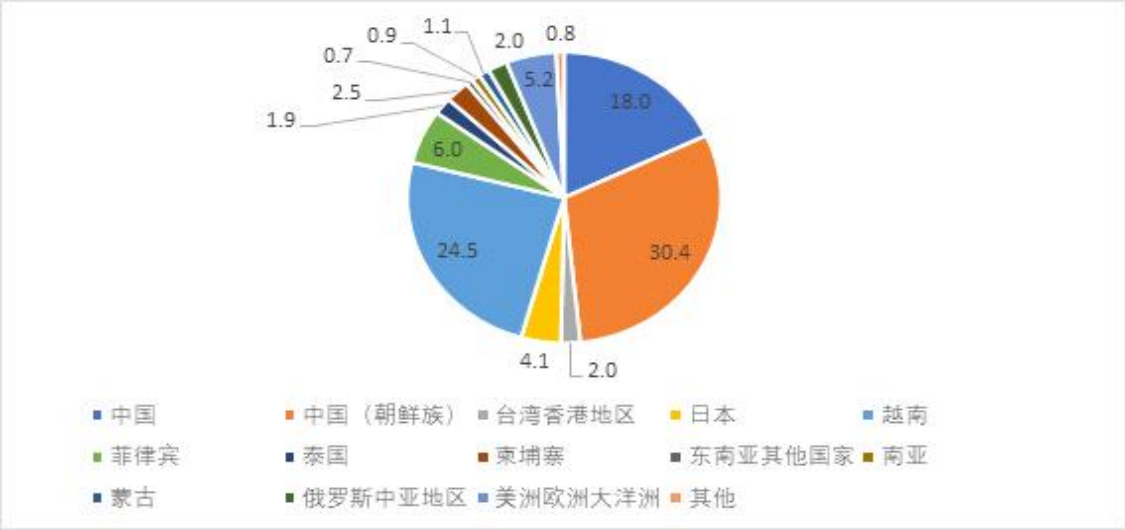
1）在韩华人华侨特征

⑴ 新移民正在成为韩国华人华侨群体的主体

在韩国的华人华侨被区分为老华侨和新华侨，老华侨是清末从山东迁入韩国的中国移民，由于历史的原因，战后中韩两国在1992年建交，所以韩国的华人华侨社会出现了明显的断层，现有的华侨学校多为老华侨早年创建。新华侨是1992年韩中建交以后来到韩国的新移民。新移民是在中韩建交以及韩国经济飞速增长，劳动力出现紧缺的背景下大批进入韩国的。韩国法务部2022年9月『出入国管理统计月报』显示，在韩登录的外国人（1，143，696）中，约42万为中国国籍，占37%，（包括中国朝鲜族和非朝鲜族）。

⑵ 华裔族群正在成为韩国多文化社会的主要族群

<图1> 韩国多文化家庭按国籍分布比例 （2020）



*来源：韩国女性家族部统计

在韩国长期生活的中国人分为务工人员、留学生、和结婚移民。务工人员和留学生中的一小部分，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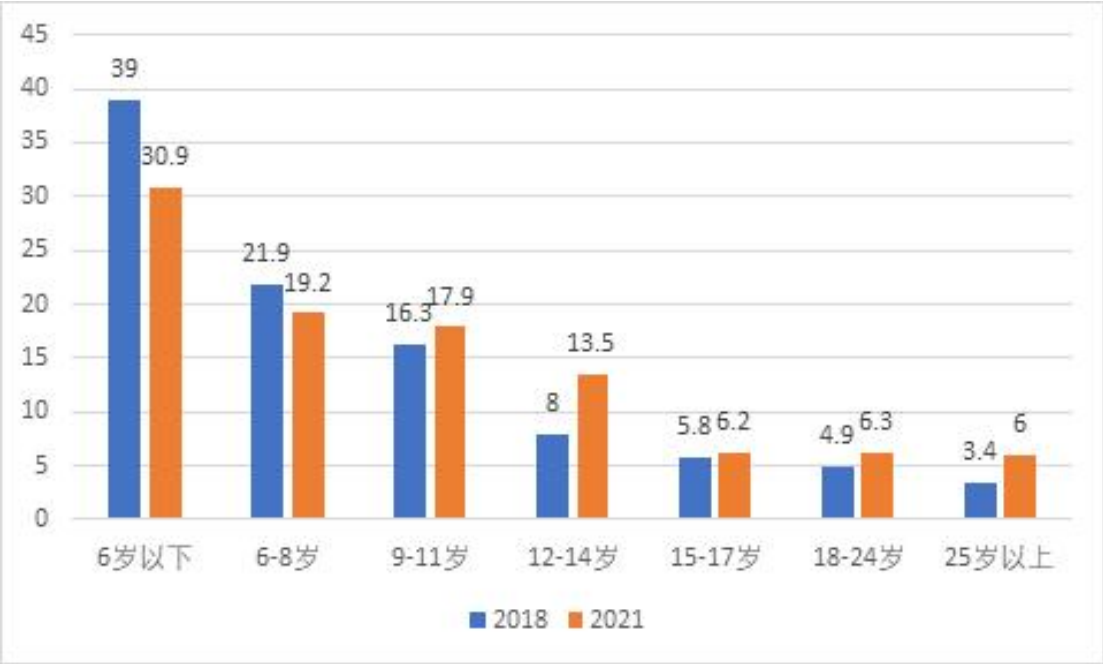
及结婚移民在韩国长期生活，随着他们落户入籍，结婚生子,成为了韩国社会的新移民,逐渐融入韩国社会。在韩国人口老龄化、少子化，外国人口流入的趋势下，韩国正在从同质文化社会向包涵异文化的多元文化社会转变，韩国将有外国人家庭成员的家庭称为多文化家庭，这其中90%以上为外国人与韩国人结婚组成的多文化家庭，其他为取得韩国绿卡的外国人家庭及韩国侨民归国家庭，根据韩国统计厅发布的数据显示，随着社会移民人口的增加，预计到2040年韩国将进入多元文化国家行列。在多文化家庭中，中国，中国朝鲜族以及台湾香港籍构成的多文化家庭占50.4%，占全部多文化家庭的一半，根据韩国女性家族部统计数据显示为160，230个家庭。在这样的背景下，新移民华裔将成长为韩国社会最大的多文化族群。

韩国多文化家庭父母年龄层集中在20-40岁，他们的子女年龄集中在不满6岁到12岁（见图2）。这是进行语言教育的最佳年龄。作为最大族群的华裔青少年与这个比例相符。这与我们后续在蔚山地区进行的抽样结果一致。

从在韩国的外国人家庭的居住分布情况来看，基本上集中在首都圈，以首尔为中心仁川京畿道的多文化家庭占全部家庭的 56.1%,其他则比较平均的分布在韩国其他城市及地区。与世界其他地区的华人华侨相比，韩国的中国新移民社会融入度很高，散落在韩国全国，没有形成相对集中的华人社区。

通过以上的数据调查我们可以对在韩华人华侨群体有所了解，新移民正成为韩国华人华侨的主体；与世界其他地区的华人华侨移民家庭不同，在韩国主要是与韩国人结婚的多文化家庭。从家庭子女的年龄分布来看，处于20岁以下的青少年占90%以上。根据韩国青少年政策研究院发布的针对多文化青少年样本的调研，[4]新移民普遍受教育程度较高，他们对于子女的教育问题十分迫切与焦虑，在高度竞争的韩国社会，一方面要融入韩国社会，另一方面要保持本身的文化特征，提高子女在韩国社会的竞争力，进而才能在多元文化社会中有立足之点，才能在即将到来的丰富的多元文化社会中扮演重要的角色。

<图2> 韩国多文化家庭子女年龄分布（2021）



*来源：韩国女性家族部统计数据

4)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2019 - 기초분석보고서 양계민 장윤석 창윤미

<表1> 多文化家庭的居住区域分布

	2015年	2018年	2021年	
居住地区	100（%）	100（%）	100（%）	346017
首尔	21.6	20.4	19	65795
釜山	4.2	4.2	4.1	14238
大邱	2.8	3	2.9	10006
仁川	6.1	6.5	7	24222
光州	2	2.1	2.1	7186
大田	2.1	2	2	7017
蔚山	2	2.7	1.9	6597
京畿	27.8	2.4	30.1	104280
江原	2.5	3.2	2.5	8527
忠北	3.2	5.4	3.3	11318
忠南.世宗	5.3	3.2	5.5	19065
全北	3.9	3.7	3.6	12424
全南	4.4	4.1	4	13784
庆北	4.8	4.8	4.7	16113
庆南	6.2	6.2	5.9	20344
济州	1.2	1.4	1.5	5102

*来源：韩国女性家族部统计数据

2）在韩华人华侨子女中文教育问题点

2020随着新冠疫情在全球范围蔓延，线上教学模式被广泛应用，由中国侨联主办的网上夏令营在全球展开。这种模式可以让分散在全球的海外华人通过网络共同学习，不受地理条件的制约。笔者参与并组织了2020年夏季蔚山地区"亲情中华为你讲故事"网络夏令营活动，借此机会对本地华人华侨子女中文学习情况进行了观察。

本次活动参与的华人华侨子女共计62人，年龄集中在6-14岁，这个人数与规模与前面统计数据的分布基本相符。根据调查，所有的家长都表示对子女开展过中文教育，但是实际情况却非常不乐观，学生的中文水品参差不齐，差距很大。其中有9位参与者表示，子女完全不会中文。大部分学生仅能听懂一点儿，80%学生不认识汉字不会写汉字，一部分子女能与妈妈进行简单的对话，仅有个别学生中文程度较好。在为期两周的夏令营活动中，因为学生水平参差不齐，将不同水平的学生混合后，分为5个小组，主要以看动画片，画画儿，讲故事的方式进行，家长协助完成，本组优秀学生起到示范和带头作用，但是最终仅有不到一半的学生完成了夏令营全部活动。

第二阶段我们邀请各界学者与参与网络夏令营的华人华侨举行了基于双语教育的网络座谈，并对华人华侨进行访谈，进一步发掘华人华侨在子女教育上的问题。我们选择4个样本作为访谈对象，分别是中文优秀的孩子的家长，中文可以简单交流的孩子的家长，完全不会讲汉语的孩子的家长，以及家庭中父亲是中国人，母亲是韩国人的孩子的家长。

我们发现新移民虽然认识到中文教育的重要性，但是教育展开十分困难。

首先，韩国社会环境总体上还是单一民族单一语言环境，多文化家庭在子女教育中更注重让子女融入

韩国社会，以免受到排挤，新移民父母首先担心的是孩子的韩国语学习状况。

其次，新移民家庭语言环境多为韩国语，汉族结婚移民女性在自己还没有掌握韩国语的情况下进入家庭生活，并忙于工作，对在养育孩子时与妈妈进行简单对话表示满足，对汉语教育没有紧迫性，错过孩子的最佳学习时间。

再次，周围没有适合子女的教育机构，没有学习汉语的氛围和共同学习的小伙伴。韩国本土的汉语学院主要为本土韩国人设计，无论教学方法还是内容都不适合新移民子女，传统的华侨学校为老华侨开办，教学内容与教育体系都延续了台湾模式，汉字教学也为繁体字教学，与主要来自中国大陆的新移民的需求不符。所以我们发现，现有的汉语教育主要以家庭教育为主，孩子的汉语水平主要取决于父母的重视程度。

3）研究结果及解决方案探索

(1) 将海外华文教育融入国际中文教育

在韩国的中华人华侨居住分散，华文教育资源不足。老的华侨学校不适合新移民子女，近两年在社会各界人事的资助下兴办的新华文学校也由于公益性、非盈利的办学模式及新华文学校资历浅，师资力量差，教学资源不足等问题缺乏吸引力。目前韩国华裔青少年教育并没有形成相应的体系和规模，是以家庭为单位的，力量薄弱。而与海外华文学校相比，国际中文教育事业是中国政府主导的，以推动中国语言国际化方向的发展，尤其在韩国各个主要城市和地区都有孔子学院和孔子课堂的存在。孔子学院的师资雄厚，教师队伍专业化，并与韩国本土大学合作，具有得天独厚的优势，应该将韩国华侨子女的中文教育纳入教学体系当中，开发适合在韩华人华侨子女的教学内容和课程，也为当地华文学校开展教师专业化的培养工作，提高华文教师的专业化水平，保证华文教师队伍的稳定和发展。

(2) 实现线上线下的翻转混合教学

后疫情时代，韩国社会已进入课堂教学和网络在线教学两种典型教学形式混合教学的时代，韩国的华文教学也可以充分利用韩国发达的网络基础设施得以实现。在网络技术支持下，可以将中国国际汉语教育资源库中开发的教学资源进行多种方式的实践，尝试网络在线教学和传统课堂教学优势的混合式教学方式。线上平台主要提供课程基础知识、学习资源和训练项目，学生进入网络平台自主学习，也可以让国内汉语教育专业的学生作为线上助教，对学生学习效果进行检验，加强韩国华裔青少年与国内大学生的交流。线下课堂教学立足解决问题，主要进行发音纠正、对话练习、小组交流、拓展学习、文化学习等多种学习活动。

(3) 尝试混合翻转教学模式

19世纪末20世纪初，美国现代教育家杜威（John Dewey）在儿童中心主义教育育思潮的影响下提出了“儿童中心”取代“教师中心”和“教材中心”的观点。杜威的教育思想促进了教学主体观的变革，“以学生为主体”逐渐成为主流的教育观。教育不再是教师简单地向学生介绍理论和主题，而是更多地关注如

何学生个体的发展以及个性化需求。翻转课堂（Flipped Classroom）的概念于2007年起源于美国，Jonathan Bergman 和 Aaron Sams发现，有的学生因生病或其他原因缺课而无法赶上课堂进度，为了不影响课堂上的其他学生，他们开始录制课程视频作为授课材料。这种方法推广开来，逐渐形成教师创建视频，学生在家中或课外观看视频中教师的讲解，然后再回到课堂教学中，师生面对面交流并完成学习内容的一种教学形态。这种方式重新调整了课堂内外的时间，将学习的决定权从教师转移给学生。具有以下几个特点:

1）灵活的学习环境：重新安排课堂设置，包括课程计划、活动和学习模式，以适应个人和小组学习。课前，学生可以按照自己的节奏和方式，选择何时以及如何学习。同时也为学生提供充足的时间和空间来学习、反思和复习。

2）有意义的学习内容：理想的翻转课堂主要是为了帮助学生更好地理解概念，并了解何时以及如何在现实生活中使用它们。不是为了考试和评估进行教学，而是根据学生的年级水平和理解程度量身定制。对于华裔学生来讲就可以根据学生的实际情况专门策划，使用内容比较直接的指导材料，便于学生们理解。要充分利用国际中文教育数字资源（简称“中文数字资源”），利用形态丰富的中文数字资源展开汉语教学。

3）以互动为中心的学习方法：翻转课堂与以教师为进行知识传授的传统教学模式不同，更侧重于课前自学以及帮助学生更加积极主动地进行自主学习。课堂上，学生可以通过丰富的课堂活动来学习。课下可以通过与家庭成员的互动来学习。

4）教师的角色是职业教育家：在翻转课堂方法中，教师的主要作用是课前进行授课内容的选择与组织，在实际课堂中的参与反而较少。由于深度学习的重要组成部分发生在课堂上，因此，教师应该以更专业的教育工作者身份持续关注每个学生的表现，并为他们提供实时反馈。

在以韩国华裔青少年为主体的教学活动中，由于学生汉语水平的多样性，可以充分利用翻转教学的模式，根据不同的学生情况，调整教学进度。华裔青少年的家长应该承担起辅助教师的角色，在双母语学习中，持续输入非常重要，一般语言学习分为机械性练习、有意义的练习、沟通练习几种方式，华裔学生在学习过程中应该持续输入，以达到母语使用水平。但是，在传统的课堂中，几十名学生作为一个整体班级，教师线上讲解，学生记笔记，课后完成作业，通过测试反馈学习效果，语言水平较难得到提高，这种教学方式不适合华裔学生的汉语教学，我们需要提高家长对中文教学的认识，对子女进行辅助和即时反馈，需要对家长也进行培训，指导他们参与到汉语教学中。

4. 结论及展望

海外华文教育是一个长期系统化的工程，需要不断地加大资金投入以及教育资源投入。由于要跨国界、跨距离，跨文化学习，华文教育更需要基于信息技术的教学支持，由于韩国新移民华文教育的基础薄弱性，将韩国华文教育融入韩国国际中文教育具有紧迫性，在韩国有大量的华裔青少年正在进入学习语言的最佳年龄，在双母语学习中，一定要对孩子的语言进行持续性输入，而韩国的新移民的家庭中文教育面临来自内部和外部的种种挑战。孔子学院等机构应该利用自身的专业优势，开设相应的课程，充分利用国内国际中文教育资源库的丰富内容，尝试利用混合教育的方式，通过翻转学习等方式，让华文教育获得新的发展。

在国际汉语教育国际化传播发展的大趋势下，如果可以推广将翻转课堂与在线中文教学相结合，开发出混合翻转教学模式，将华文教育融入国际汉语教育当中，让韩国本土华文教学与海外汉语教学以及国内的对外汉语教学相联系，不仅可以提高韩国华裔青少年的中文水平，通过交流增强文化认同。而且也可以使得国际中文教育在海外的发展得到新的突破，将对外语言教育和文化承传结合起来，将海外汉语教育与华裔青少年培育结合起来，将理论和学术研究与华文学校教学结合起来，使得各方到融合，焕发新的生机。

【한중수교 30주년 기념 특별분과】발표 ⑥

心理与认同
——中韩跨国婚姻女性适应调查研究

李璇*

【摘要】跨国婚姻增多是国际化发展的必然结果。中韩跨国婚姻中，中国女性的移民人数远高于男性，因文化、生活习惯等差异，中韩跨国婚姻问题频发，离婚率居高不下，家暴等恶性事件越演愈烈，中韩跨国婚姻存在的诸多问题在短时间内不会大幅减少。文章以中韩跨国婚姻家庭为例，运用半结构式深入访谈法，深入调查分析中韩跨国婚姻家庭中女性生活现状，并对异国新娘的生活适应能力进行分类，探究影响异国新娘社会适应能力的因素，并给出能够提升女性在跨国婚姻中心理与社会认同的对策。

【关键词】中韩；跨国婚姻；社会适应；认同。

引言

全球化与多文化背景下，加速了各国在经济、政治、文化上的交流，进而加剧了人口的跨国流动，催动跨国婚姻的出现。由于文化属性的差异，跨国夫妻必须在语言、饮食习惯、家庭文化观念等众多领域进行全方位的磨合与适应，相比于本土婚姻关系，跨国婚姻在日常生活中往往需要面对更多的困难与挑战。

而在中韩跨国婚姻中的女性，作为跨国流动人口进入男方所属的社会文化中生活，在跨国婚姻中不仅要处理好夫妻关系，还要适应异国文化对自身价值观念与生活习惯造成的冲击，因此，对女性在跨国婚姻家庭中的社会适应性类型进行分析，探究其影响因素，并给出能够有效提升其社会适应性的建议，对充分发挥跨国婚姻家庭的社会价值具有一定程度的现实意义。中韩两国由于地域相邻，文化相近，经济交往十分频繁，因而结成了许多跨国家庭，因此本文将以中韩跨国婚姻关系为例，对中韩跨国婚姻中女性的生活适应类型进行划分，探究中韩跨国婚姻中女性在日常生活中因文化差异遇到的困难，并给出解决方案。

1、理论基础

1）社会适应理论

社会适应一词最早由社会达尔文主义之父Herbert Spencer提出，Herbert Spencer认为社会中人的生

* 千城传媒。

存与发展同大自然中的“物竞天择，适者生存”具有异曲同工之妙，正如物种要想在不断变化的自然生态环境中生存下去，就需要主动地通过基因的优化与遗传来适应环境，而个体要想在社会生态环境中生存并取得理想的发展，也需要主动地对自身进行调整以更好地适应所处社会的道德规范与行为准则，以便对在日常生活中遇到的外部刺激作出适宜的反应，因此社会适应能力对个体有着重要意义，如果一个人难以与社会相融，就会在社会生活中屡屡碰壁，久而久之，容易引起心理疾病，影响个人健康。

2）扎根理论

扎根理论研究法是一种自下而上的定性研究方法，由哥伦比亚大学的学者Anselm Strauss及Barney Glase提出，指的是研究人员在对某一现象或问题进行研究时，不预先做出假设，而是在实际的观察和对原始资料进行分析研究的基础上进行归纳，最后将归纳的结果抽象后上升为系统的理论，因此其提出者将这一自下而上的研究理念起名为“扎根理论”。由于扎根理论的核心理念在于理论的提出必须要有相应的现实资料作为基础，因此扎根理论所配套的研究方法多为观察法与非结构式访谈法等实证方法。

2、中韩跨国婚姻家庭现状分析

1）研究方法

跨国婚姻的研究属于社会学范畴，由于涉及面较广，本文将采取半结构式访谈法，围绕“您为什么选择跨国婚姻？”“在这段跨国婚姻中您有因为双方文化的差异遭受什么挫折吗？您是如何应对的？最终问题得到解决了吗”“您在异国生活多少年了？对当地的生活能够适应吗？”等问题对20名中韩跨国婚姻中的女性进行深入访谈，得出研究所需的一手实际资料。为了保护被访谈对象的个人隐私，在接下来的行文中，笔者将用姓氏+某某的方式代指具体的被访谈对象。

2）女性选择跨国婚姻的动机

在接受访谈的20名女性中，有14名女性选择跨国婚姻的原因在于追求爱情与幸福，而另外6名女性则是出于对别国文化的向往而决定通过与他国异性相结合的方式留在当地。嫁至韩国的李某某（中国，28岁，婚龄2年）是在留学期间与丈夫相识的，她表示：“一个人在异国他乡觉得很孤独，对方在小组作业中给了我很大的帮助，对他产生了好感，再然后就发展成了恋人，后来，我的父母在我读研期间相继离世，就选择和他结婚留在了韩国。”嫁入中国的金某某（韩国，24岁，婚龄1年）则是因为对当地文化的认可而选择跨国婚姻的，同李某某一样，她也是留学生，她说;“最重要的是，我发现这里的家庭氛围要比我们国家更尊重女性一点，所以毕业那年我决定留在中国发展。”

3）中韩女性在跨国婚姻中遇到的问题

根据对访谈结果分析与总结，我们可以将中韩女性在跨国婚姻中遇到的问题分为语言障碍、文化适应

障碍、生活期待与现实差距三种类型。

1.语言障碍

通过总结访谈结果发现，在谈及跨国婚姻中遇到的问题时，7名婚龄在1年左右的女性中，有5人都指出了两个家庭间因语言导致的沟通障碍会对婚姻幸福感产生消极影响，而婚龄在两年以上的女性则很少反映这个问题，对此，张某某（韩国，30岁，婚龄3年）指出“刚开始的时候肯定会在沟通上有点问题，但是其实呆久了，慢慢地也能掌握当地的语言。”由此可以得出一个初步结论：大多女性在跨国婚姻的早期基本上会遇到一些因语言导致的困难，但随着时间的推移，这一问题对婚姻生活的影响会慢慢被削弱。

2.文化适应障碍

国与国之间在文化、习俗、价值观等方面的差异，使得异国新娘在跨国婚姻开始之初难以适应新的社会环境，融入新的家庭，当被问及在跨国婚姻中曾遭遇的困难时，接受访谈的20名女性无一例外都提到了文化适应障碍。金某某（韩国，23岁，婚龄半年）：“在韩国，我们基本都喝冷水，但中国人的观点就是喝冷水对女生的身体不好，一起聊天的时候，他们会提到一些他们文化里面的专属笑话，但是我不了解，就会很边缘。”

3.生活期待与现实差距

在6名出于对他国文化向往而决定选择跨国婚姻的女性中，有3名被访者认为当前的婚姻生活同自己的期盼存在一定差距，并且有1名被访者认为这种差距已然严重影响了自己的生活幸福感。而在动机为追求爱情与幸福的14人中，有10人也表示当前的婚姻现实与理想之间存在一定差距，但是这一差距对她们生活影响较小。

3、中韩跨国婚姻中的女性生活适应类型划分

本次研究中，笔者根据访谈结果，以跨国婚姻动机、在异国生活的年限以及在家庭中与男方及其家庭成员之间的关系为维度，将中韩跨国婚姻中的女性生活适应类型分为：主动适应型、忍耐型以及被动适应型。

1）主动适应型

主动适应型的女性可以再细分为两种类型，一种是持续适应型，这类女性往往在婚前与丈夫有一段较为稳固的恋爱关系，对丈夫感情较深，且已在当地生活了一段时间，对当地文化有一定了解。另一种则是暂时性的主动适应，这类女性缔结跨国婚姻的很大一部分原因在于对异国文化的认同，她们可能并不具备在当地长期生活的经历，而是仅凭借媒体所传递的信息在头脑中勾画出一幅理想的异国婚姻图景。主动适应型的女性在异国婚姻中遇到挫折时，都能够积极主动地探索解决问题的方案，但不同的是，持续适应型的女性更不易被困难所击倒，而暂时性的主动适应型的女性做出解决问题的努力后，一旦发现问题依旧存在或难以解决，可能就会失去主动适应的信心，放弃挣扎，得过且过，甚至患上心理疾病或因难以适应异国文化而结束婚姻关系。

2）忍耐型

忍耐型的女性结婚年限较长，均在3年以上，她们或对丈夫在情感或物质上依赖程度较大，或已经生育，无法彻底割舍家庭，经过长久的异地居住，她们虽然依旧难以完全融入异国文化与社会，但稳定的家庭关系使得她们可以选择忍受文化差异给日常生活带来的不便，当因文化差异导致的冲突发生时，她们往往选择退让，以被动的姿态适应环境，得过且过，这一类型的女性往往婚姻幸福指数一般。

3）被动适应型

被动适应型女性自身的环境适应能力较低，她们内向的性格或强烈的对本国文化的认同感导致她们难以积极主动地通过扩大社交或主动学习的方式快速适应异国文化，这一类型的女性之所以在适应艰难的情况下，依旧试图融入异国文化，主要有以下两种情况：第一种，她们与丈夫感情深厚，且丈夫或婆家在她们社会适应的过程中给予了较大的支持与帮助，为了回馈家人的社会期待，她们不得不被动地调整心态，强迫自己融入异国社会；另一种则是在祖国有着不幸的经历或不愿接受离婚可能会给自己带来的伤害，她们虽然难以适应当前的社会环境，但也不愿意终止婚姻，以免落入更为尴尬的境地。

4、影响跨国婚姻中女性生活适应的因素

1）性格因素

在跨国婚姻中，女性自身的性格气质是影响其生活适应力的主要原因。通过调查发现，在跨国婚姻中，一部分女性能够积极主动地去适应生活环境的变化，她们会在陌生的环境中主动出击，致力于在全新的社会生态中构建自己社交圈，并努力向周围的人学习以迅速适应甚至享受当地的文化传统和风俗习惯，在婚姻中出现矛盾分歧时，也能够通过沟通或其他合理的方式化解纠纷，这类女性往往在跨国婚姻中具有较高的生活适应能力，她们的婚姻幸福指数也相对较高；另一部分女性则因为难以忍受文化差距给心理带来的冲击而陷入自怨自艾的情绪中，要么勉强忍受，要么最终选择结束婚姻关系。

2）男方家庭的因素

在异国婚姻中，男方家庭尤其是另一半对异国妻子的认同及支持能够有效提升女性在异国婚姻关系中的生活适应能力。访谈过程中发现，对跨国婚姻感受良好的女性大多获得了丈夫及婆家的支持与理解，他们能够包容女性在跨国婚姻中表现出的不安与紧张情绪，主动向妻子或儿媳介绍本国的文化与习俗，帮助她们尽快融入本国文化，而难以适应异国婚姻关系的女性则大多表现出了对另一半及公婆的抱怨情绪。

3）国家关系的影响

跨国婚姻关系的成立意味着异国新娘作为跨国流动人口将成为异国他乡的常住居民，因此，异地社会对其社会身份是否认同和尊重也会在一定程度上对她们的生活适应能力产生影响。中韩关系在近年来始终处于一个较为微妙的状态，两国的政治关系在一定程度上会影响本国民众对异国新娘的看法，据反馈，当

两国关系融洽时，异国新娘在社会生活中将获得更高的认可度，反之当两国关系恶化，这些异国新娘则有较大可能会在日常生活中遇到一些会使其产生负面情绪的事件，不利于其融入异国社会。

4）本土文化认同感

对于因婚姻而迁移至异国的女性而言，要想更好地融入当地社会，就必须要主动地调整、改变认知结构中与异国文化不相适应的成分，而这种调整与改变是否能够取得成功，会受到个体对本土文化认同感的影响。一个人对认知结构中已有的信息认同感越高，她就越是难以接受与之相悖的信息，当外部信息与头脑中已有的认知结构相冲突时，个体若不愿意改变原有的认知结构，就会表现出对新信息的排斥与拒绝，进而影响社会适应的结果。

5、总结

综上所述，通过对跨国婚姻关系中女性的生活适应能力进行分类，不难看出在跨国婚姻关系中，女性的社会适应能力受到中个人性格、夫家的支持力度以及国家关系和本土文化认同感高低等多重隐私的影响，因此要想提升跨国文化中女性的生活适应能力，帮助她们更好地适应陌生的社会环境，可以从以下几个方面着手：

一是政府应主动修订相关法律法规，出台相应的政策，拓宽就业渠道，提供就业支持，保障跨国婚姻中的移民能够享受与本土居民同等的待遇，并能通过就业更好地融入当地社会，为社会做贡献，同时加大宣传引导，增强文化包容性，削弱本土民众在国家关系恶化之时对异国新娘的排斥感。

二是在跨国婚姻关系中，跨国新娘的丈夫及其公婆作为与移民女性接触最为频繁，关系最为重要的家人，应深刻认识到女性远嫁的不易与恐慌，为女性适应本土文化提供积极的支持和帮助。

三是当移民女性发现自己受内在因素影响无法融入异国社会时，应主动寻求社会学家或心理学专家的帮助，通过科学系统的专业训练，提升自己的社会适应能力。

메 모

【어학분과 I】 발표 ①

“有助”的詞性、詞義以及相關問題探究

김종찬*

1. 序言

《中朝詞典》（以下簡稱《中朝》）(1986：2061)、《現代漢語規範詞典》（以下簡稱《規範》）(2004：1591)、《現代漢語圖解詞典》（以下簡稱《圖解》）(2017：1498)、《應用漢語詞典》（以下簡稱《應用》）(2000：1532)等詞典收有了“有助於”，但是却沒收“有助”，它們都認爲“有助於”是動詞。而周行健的《實用漢語用法詞典》（以下簡稱《實用》）(1992：806)却收錄了“有助”，他認爲“有助”具有“有幇助”的意思，並將它歸於動詞。

在現代漢語中由“有+單音節形式”構成的詞不少，如“有益”、“有利”、“有害”等。値得注意的是“有助”能單獨充當述語而帶賓語，可見“有助”很可能是及物動詞。另外，“有助”無論它在什麽情況下都能爲“有助於”所代替，它們之間肯定有意思上的關係。

本文先討論介詞的前附性與“有助於”，再探究“有助於”動詞說，最後陳述我們關於“有助”的詞性、詞義以及相關問題的觀點。

2. 介詞的前附性與“有助於”

董秀芳在《詞彙化——漢語雙音詞的衍生和發展》(2017：282)中有如下論述：

「(1)動介的重新分析

現代漢語中有一類動詞加介賓構成的結構，可以記作V+P+NP，其中P(介詞)與其賓語NP(名詞短語)構成一對直接成分，共同充當動詞的修飾語(adjunct)，V(動詞)和P(介詞)不在同一個層次上，但當二者都是單音節　　時，它們就有黏合成爲一個詞的强烈傾向。如：

他來自北京。

媽媽躺在床上。

他走到學校。

以上例子中的“來自”、“躺在”都有成詞傾向。」

董秀芳討論的是跨層結構的詞彙化現象。“自”、“在　”、“到”等本是介詞，與其後面的成分構

* 안동대

成介詞結構，現在它們却與其前面的成分“來”、“躺”、“走”等構成一個句法單位了。

她認爲“來自、躺在”都有成詞傾向。“來自”是詞，但“躺在”不一定是詞，而只能證明虛詞“在”的前附性。其實此現象不僅與單音節有關，也不僅只與動詞有關。“雙音節動詞(結構)/形容詞(結構)+虛詞”都有構成一個語法成分充當述語的現象。

由於介詞的前附性，介詞已與其前面的動詞或者形容詞發生依附關係，“於”也不例外。例如：

①成語主要來源於：

⓫神話寓言如：“精衛填海”、“愚公移山”、“守株待兎”等。

⓬歷史故事如：“望梅止渴”、“四面楚歌”、“聞鷄起舞”等。

⓭詩文語句如：“學而不厭”、“捨生取義”、“物換星移”等。

⓮口頭俗語如：一乾二淨”、“指手畫脚”、“狼子野心”等。～(《圖解語言學》，p84)

案：有冒號(：)用在“來源於”的後面，意味着“來源於”是一個句法成分充當述語。

②比如第一例相當於：他恐怕認識這個人。(《現代漢語短語解析詞典》，p54)

案：有冒號(：)用在“相當於”的後面，意味着“相當於”是一個句法成分充當述語。

③適用於或者實際應用於不同交際場合的語言風格類型就是語體。(《現代漢語研究》，p99)

案：“適用於”後面有連詞“或者”，意味着“適用於”是一個語法單位。

④原因歸咎於：在臺灣聽的大部分都不是「正常英語」，是慢速的「教室英語」。(《英文，非學好不可》，p19)

案：“歸咎於”後面有冒號(：)，意味着“歸咎於”是一個語法單位。

⑤支配成分和說明成分依附於或從屬於動詞。(《動詞研究》，p153)

案：“依附於”後面有連詞“或”，意味着“依附於”是一個語法單位。

⑥其他成分分別附加於或連帶於主、謂。(《語法論稿》，p292)

案：“附加於”後面有連詞“或”，意味着“附加於”是一個語法單位。

能夠證明虛詞“於”前附性的例句非常多，目前支持虛詞“於”前附性的學者越來越多，我們認爲這符合語言實際。請看以下例句：

①造詞所採取的方式要傾向於比喻、借代、說明等；同時還要依靠主體的感官聯想。(《現代漢語概論》，p145)

②中期受結構主義理論影響側重於形式分析，而忽略了相應的語義分析，……。(《漢語語法專題研究》，p5)

③用個“哪兒”不會有損於作品的眞實性，也不會影響人物性格的刻畫。(《實用現代漢語》，p124)

④....因此我要求她不要過度依賴過去的經驗，專注於事實的表徵，……(《巧用腦科學學英語快1倍》，p45)

⑤北拉接近“老國音”而不同於“新國音”。(《語言文字學的新探索》，p99)

⑥宗教雖注重精神，然必定附麗於人類社會。(《現代漢語狀語及相關成分探索》，p83)

⑦語言的語義解釋除了依靠語言本身之外，還依賴於使用它的社會。(《英漢詞彙模式對比研究》，p21)

⑧我們不能局限於某幾項素質而忽視其他素質，……(《做有心人》，p34)

⑨第一類是實體詞，即表示事物的實體，或附着於事物的某些功能、性質、狀態等。(《張志公漢語語

法教學論著選》，p731)

⑩司徒：夏商周時期，司徒屬六卿之一，相當於宰相。(《英漢語言與文化的多維對比研究》，p152)

以上例句中的“傾向於”、“側重於”、“有損於”、“專注於”、“不同於”、“附麗於”、“依賴於”、“局限於”、“附着於”、“相當於”等分別與“依靠”、“忽略”、“影響”、“依賴”、“接近”、“注重”、“解釋”、“忽視”、“表示、“屬”等及物動詞發生對應關係，“依靠”等是及物動詞，“傾向於”等則是及物動詞或及物動詞性結構，且都充當述語而帶賓語。這種例句都能證明虛詞“於”的前附性。[1]“有助於”也不例外。例如：

①我們認爲，這樣分析，既符合句子的結構關係，也有助於理解句子所表達的意思，……(《現代漢語語法論集》，p198)

②練習項目的設計既有助於掌握所學語法規則，又針對學習者易出現的錯誤。(《漢語研究與對外漢語教學》，p252)

③這有助於他理解女性的特點，也表明他能與異性交流。(《魅力女人的優雅下午茶》，p160)

④它不僅有助於學生在語篇中借助語境學習詞彙，而且可以引導學生欣賞語篇的語言和文體之美，擺脫傳統詞彙學習的機械和枯燥。(《英漢詞彙模式對比研究》，p125)

⑤第一，它們有助於我們的社交；第二，這幾件東西不至於一吃就飽，……(《林語堂散文》，p43)

⑥聽覺形象刑象有助於習得正確的語音、語調、節奏，獲得遣詞造句的能力。(《英語教學法》，p38)

⑦在語境中教單詞，不但可幫助學生準確地理解詞義，而且有助於學生恰當地使用所學單詞。(《英語教學法》，p127)

⑧……作爲修辭手段有助於文氣的貫暢，却經不起邏輯的檢驗。(《王蒙人生小品》，p288)

⑨因此，離合詞研究的意義，不但在於解決這個問題本身，同時也有助於漢語的許多基本問題的探討。(《漢語離合詞研究》，序p4)

以上例句都能證明“有助於”是一個句法成分充當述語帶賓語。

基於這種認識，我們不能將“有助於……”分析成述補結構，而是分析爲述賓結構。“有助於”是述語，而其後面的成分是賓語。[2]它在現代漢語中充當述語，具有相當於及物動詞的功能。

---

1)這 種例子非常多。例如：
①研究漢語的句法結構，必須立足於漢語的組合特點，反映漢語的本來面貌。(《漢語語法新解》，p.101)
②……成爲語義概念，後來又應用於語法分析。(《連詞與相關問題》，p.68)
③如果借助於另一個字生成字組，就能表示taxi的意義。(《語言學是什麽》，p.249)
④你是怎麽樣來尊重旁人和施惠於旁人的?(《我的人生哲學》，p.68)
⑤這樣了解善的可貴，有感於善的光輝，……(《我的人生哲學》，p.177)
⑥我們重視特別，我們更應該着眼於一般，……《我的人生哲學》，p.235)
⑦因爲你再偉大，也還生活於俗世，離不開世俗呀。(《我的人生哲學》，p.283)
⑧再避世的，也不能忘情於這裏的熱鬧；再苦寂的，也要分享這裏的一角秀色。(《文化苦旅》，p.146)
⑨孕期娛樂休閑不僅可以豐富懷孕女性的孕期生活，提高孕期生活質量，同時也有益於胎兒的健康發育。(《愛上漫生活》，p.220)
⑩所謂理性原則是指對那些既合乎現有規範又有利於語言發展的新生語言形式加以推廣，……(《當前我國語言文字的規範化問題》，p.17)

2) ①人們往往迷惑於他們的技藝而忽視了一個事實：…….(《叩訪感覺》，p.279)
②他們是間諜、偵探、特工，神祕地行走於城市的某些角落，創造一種個人的冒險生涯。(《叩訪感覺》，p.3139)
③這樣既有利於閱讀的循序漸進，也便於同步的模仿寫作訓練。(《現代漢語語法與對外漢語教學》，p.255)
④擅长跑步的運動員宜於多食猪蹄，猪肺熬花生湯有助於清肺，猪肚或者牛肚有助於消化。(《叩訪感覺》，p.91)
⑤而語調的抑揚頓挫不但要貫串於整個句子，還要貫串到整個語段，乃至整個篇章。(《新編普通話教程》第二版 p262)

3. “有助於”動詞說質疑

周行健在《實用》(1992：806)中關於“有助”的詞性有如下的論述：

「有助 yǒuzhù 合成詞 ，動賓式。〈動〉有幫助；有作用。多用於書面語。謂〔～補〕智力遊戲～於訓練邏輯思維能力｜利用電子計算機進行快速的複雜運算～於提高工作效率｜飯後吃些水果～於消化｜在醫生指導下進行適當鍛煉～於傷口愈合和肢體功能的恢復。」

周行健認爲“有助”具有“有幫助”的意思，是動詞，而 “於+其後面成分”爲補語，並舉了如下例句：

①智力遊戲有助於訓練邏輯思維能力。
②利用電子計算機進行快速的複雜運算有助於提高工作效率。
③飯後吃些水果有助於消化。
④在醫生指導下進行適當鍛煉有助於傷口愈合和肢體功能的恢復。

周行健(《實用》1992：806)將“有助”分析爲動詞述語，而將“於”與其後面的成分分析爲介詞結構充當補語，這種觀點反映出周行健時代的語言現象，已經不再符合現代的語言實際了。但周氏認爲“有助”是動詞，這說明他並不認爲“有助於”是一個動詞。這可能是有道理的。如果“有助”是動詞，那麽，“有助於”不一定是動詞，而只是動詞性結構，其後面的成分是“有助於”的賓語。

金昌吉在〈“粘賓動詞”之我見〉《語言問題再認識》(2001：220)中有如下的論述：

「(3)此類結構中，有些確已凝結爲詞典所收。如：
“組成，成爲，作爲，當做(詞典寫爲‘做’)等，但如果其後的賓語可以移位的話，仍舊不應看作”粘賓動詞“，例如”組成“可以變換爲”由三個人組成。
(二)一些”x於，x以“結構。例如：
工於，介於，精於，置於，始於，富於，窮於，擅於，羞於，宜於，適於，耽於，懾於，慣於，集於，懶於，勤於，寬於，嚴於，疏於，……」

金昌吉談到與粘賓動詞相關的工於，介於，精於，置於，始於，富於，窮於，擅於，羞於，宜於，適於，耽於，懾於，慣於，集於，懶於，勤於，寬於，嚴於，疏於等。現代漢語雖然沒有印歐語言中嚴格意義的形態標識，但還是有形態標識，如果“有助於”是動詞的話，那麽，其中的“於”應是一種構成及物動詞的形態標識。但“有助於”是不是動詞則有不同的觀點，三音節”有助於“不一定是一個詞。

與”有助(於)“的例子在現代漢語中有很多，例如”借助(於)“、”習慣(於)“、”符合(於)“、”求諸(於)“、”來自(於)“、”有待(於)“、”不合(於)“、”傾向(於)“等等。學界一般都將”借助“、”習慣“、”符合“、”求諸“、”來自“、”有待“、”不合“、”傾向“等分析成動詞，而沒有

⑥…… 因此我要求她不要過度依賴過去的經驗，專注於「事實的表徵」，用全新的方式分析判斷。(《巧用腦科學學英語快1倍》，p.45)

將”借助於“、”習慣於“、”符合於“、”求諸於“、”來自於“、”有待於“、”不合於“、”傾向於“等分析成動詞。

《中朝》(1986：2061)：

「[有助於] yǒuzhùyú [動]…에 도움이 되다.…에 리롭다//~恢復國交 국교를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다」

《規範》(2004：1591)：

「【有助於】yǒuzhùyú 動對某人某事有幫助 ▷ 這些活動，~孩子的成長。」

《圖解》(2017：1498)：

「【有助於】yǒuzhùyú 動對某人或某事有幫助 ▷ 遊戲，~孩子的智力發育。」

《應用》(2000：1532)關於“有助於”的闡釋如下：

「有助於yǒuzhùyú〔動〕對某事有幫助(後面多跟動詞性詞語)：~消化丨~增進兩國人民的相互了解丨~問題的解決。」

《中朝》、《規範》、《圖解》、《應用》都沒有將“有助”歸屬於動詞，却將“有助於”看成動詞。這不符合現代漢語的一般情況。一般來講“有助”是動詞，而“有助於”不一定是動詞。

4. 動詞“有助”與其詞義

下面看一下與“有助”[3]有關的句子。

3) ▶“有助”作爲述語之例(參照北京大學資料庫)：
① 118.1 ……豐胸有9成的人認爲出眾的身材有助她們增添自信。
② 438.1 有助心血管健康是蘋果醋的主要“奇效”……
③ 455.1 軟體積增大，從而促進腸蠕動，有助排便。
④ 514.1 ……鈣，使得身體容易吸收。另外，醋有助消化，生薑又能行氣引滯，兩者合用……
⑤ 548.1 ……是位美容鼻祖。攝取足夠水分不但有助腸道的健康，更能提供排除毒素所需……
⑥ 552.1 ……的心情，培養樂觀的情緒，這樣才有助血瘀體質的改善。
⑦ 749.1 ……經理羅志強則說，中國加入ＷＴＯ有助該公司擴展上海以外的保險業務。
⑧ 845.1 ……之餘、茶餘飯後，均可自助按揉，有助消化，促進吸收，排毒養顏，延年益……
⑨ 933.1 ……事自己較感興趣的各種休閑活動，有助身心平衡。
⑩ 1038.1 ……發香氣，與芹菜形狀相似，是春季有助食慾的山菜，並可提神，去春困症大……
⑪ 1039.1 ……醇厚，茶香四溢，臨睡前喝一杯，有助睡眠。
⑫ 4654.1 ……佔16%。馬丁斯得出結論：廉潔有助長壽。
⑬ 4969.1 ……銷售原則爲：店中出售商品必須是有助人類健康的天然產品，包括維生素礦……
⑭ 5055.1 ……邊自信地大聲朗讀，一邊做着各種有助發音和記憶的手勢。據悉，這些學員……
⑮ 5209.1 ……打高爾夫球。我希望這次到訪可以有助中國高爾夫球運動的開展。
⑯ 6786.1 ……公布的一項研究表明，咀嚼口香糖有助記憶。
以上例句中的“有助”直接帶賓語，這種語言現象在現代漢語中比比皆是。

①慢餐有助消化避免哽噎，……(《愛上慢生活》，p97)

②……培養有助睡眠的習慣……(《愛上慢生活》，p66)

③不僅有助學習語言，也會訓練到聽覺系統腦區及運動系統腦區。《巧用腦科學學英語快1倍》，p50)

④積少成多，大家要善加把握學習契機，留意街道上的英語標示等，也有助你養成閱讀英語的習慣。(《巧用腦科學學英語快1倍》，p. 136)

⑤……也有助你養成閱讀英語的習慣。(《巧用腦科學學英語快1倍》，p136)

⑥靈活運用這些工具獲得許多閱讀經驗，都有助你學會更有效率的閱讀英文。(《巧用腦科學學英語快1倍》，p54)

⑦堅果也有助提高性能力。(《沒人聽我說》，p70)

⑧……不但有助長期記憶，還能讓你重新確認不懂的地方，讓學習更有效率。(《你背過一本英文書嗎?》，p121)

⑨……但我建議盡量選擇英文字幕才有助聽力訓練。(《你背過一本英文書嗎?》，p187)

⑩你也可以給自己一個默寫小考，不但有助長期記憶，還能讓你重新確認不懂的地方，讓學習更有效率。(《你背過一本英文書嗎?》，p. 121)

⑪影片播放時的畫面下方會有字幕按鈕，通常瀏覽數高的影片會提供韓文字幕，但我建議盡量選擇英文字幕才有助聽力訓鍊。(《你背過一本英文書嗎?》，p. 187)

⑫無論是記憶單字或使用新詞彙，均有助刺激大腦，讓腦區的枝幹變得粗壯。(《巧用腦科學學英語快1倍》，p. 54)

以上都可以轉換爲如下：

①慢餐有助於消化避免哽噎，……

②……培養有助於睡眠的習慣……

③不僅有助於學習語言，也會訓練到聽覺系統腦區及運動系統腦區。

④積少成多，大家要善加把握學習契機，留意街道上的英語標示等，也有助於你養成閱讀英語的習慣。

⑤……也有助於你養成閱讀英語的習慣。

⑥靈活運用這些工具獲得許多閱讀經驗，都有助於你學會更有效率的閱讀英文。

⑦堅果也有助於提高性能力。

⑧……不但有助於長期記憶，還能讓你重新確認不懂的地方，讓學習更有效率。

⑨……但我建議盡量選擇英文字幕才有助於聽力訓練。

⑩你也可以給自己一個默寫小考，不但有助於長期記憶，還能讓你重新確認不懂的地方，讓學習更有效率。

⑪影片播放時的畫面下方會有字幕按鈕，通常瀏覽數高的影片會提供韓文字幕，但我建議盡量選擇英文字幕才有助於聽力訓鍊。

⑫無論是記憶單字或使用新詞彙，均有助於刺激大腦，讓腦區的枝幹變得粗壯。

以上例句中及物動詞“有助”相當於及物動詞性結構“有助於”，可見及物動詞“有助”隱含着“於”，故及物動詞“有助”完全可以爲及物動詞性結構“有助於”替代。

在現代漢語中有很多由“有+單音節”形式構成的詞，如“有益”、“有利”、“有害”等。更重要的是這種“有+單音節”形式構成的詞能單獨充當述語而帶賓語，因此，我們認爲“有助”是動詞。

石毓智在《漢語語法》(2015：157)中有如下論述：

「概括地說，詞語的意義是聚合關係，與語言系統之外的現象發生關係；詞的功能是組合關係，與句子內部的其他成分發生聯繫，分布如何(即做什麼樣的句子成分)，可帶什麼樣的語法標記。」

石毓智談到組合關係和聚合關係的問題。[4]關於“有助於”的組合關係，我們已在前一章中討論了。現在我們注意的是“有助於”與“有助”的聚合關係。

我們已在前面列舉了“有助”帶賓語的例子。例句中的“有助”都能爲“有助於”所代替。原句與變換句的意思完全相同，“有助”與“有助於”的句法功能以及意思完全相同，可見它們之間有聚合關係。這都證明及物動詞“有助”的意思相當於及物動詞性結構“有助於”的意思。“有助於”是“對……有幫助”的意思，當動詞“有助”充當述語而帶賓語時，它與“有助於”有聚合關係而意思完全相同。那麼動詞“有助” 它不是“有”與“助”的簡單相加“有幫助”，而是“對……有幫助”。

5. 動詞“有助”與相關問題

邢福義在《漢語語法三百問》(2004：30)中關於“與事賓語”有如下的論述：

「〔4〕於事賓語。表示行爲發生的方所位置或時間位置，動賓之間或現或隱 地包含有“在”“到”“進”等語義關係。……」

邢福義談到動詞與賓語之間或現或隱地包含有“在”“到”“進”等語義關係。及物動詞“有助”與此有一定的關係。

金昌吉在〈“粘賓動詞”之我見〉《語言問題再認識》2001：223)中有關於粘賓動詞的敍述：

「粘賓動詞正如我們上文所指出的那樣，其句法框架的固定化這一事實本身就 決定了人們不能離開它所粘帶的賓語而對它進行孤立的分析。造成粘賓動詞這一句 法事實的主要原因之一我們認爲顯然與粘賓動詞本身的語義框架有着極爲密切的關 係。正如尹世超(1991)所說，粘賓動詞絶大多數是表示連繫，異同，配合，存在或影 響等抽象關係的關係動詞。」

金昌吉說“於”本來是介詞，之所以出現在名詞性詞語前面，不過由於介詞的前附性，與其前的成分構成一個語法成分充當述語而帶賓語了。但其“介接”的功能並未完全消失，因此形成了“x於”“x以”形式粘賓動詞(參照金昌吉〈“粘賓動詞”之我見〉《語言問題再認識》2001：224)。

4) 古代漢語與 近代漢語中 已有“有助”與“有助於”混用的例子。例如：
①又多致銅鼓、 生口，獻奉珍異，前後委積，頗有助軍國焉。〈南史•列傳•卷六十六〉：唐朝
②將以抑流宕之邪心，諒有助於諷諫。〈陶淵明《閑情賦•序》〉：魏晋南北朝
③事豐奇偉，辭富膏腴，無益經典，而有助文章。〈文心雕龍•正緯》〉：魏晋南北朝
④呂居仁學術雖未純粹，然切切以禮義廉恥為事，所以亦有助於風俗。今則全無此意。〈朱子語類•卷第一百三十二》〉：宋朝
⑤正之不已，然後有助長之患。〈朱子語類•卷第五十二》〉：宋朝
⑥下有益於民事，上有助於官司。〈日知錄•卷八〉
⑦不說三尺之嚴，頓悔一朝之過，有助政教，故雲勸世。〈東度記•第一回〉

“有助”隱含着“於”，故後面一定出現賓語，實際上它是粘賓及物動詞。基於這種觀點考察一下例句：

①A有益(於)B。→ A對B有益。
②A有利(於)B。→ A對B有利。
③A有害(於)B。→ A對B有害。
④A有助(於)B。→ *A對B有助。

例①、②、③的轉換式都成立，而例④轉換式不能成立，只能轉換爲{“A對B有幇助”。可見“有助於”中的“有助”沒有單獨充當語法成分，做謂語的中心成分，就這點來講，它與“有益於”的“有益”、“有利於”的“有利”、“有害於”的“有害”很不一樣。“有益”、“有利”、“有害”都是形容詞，與虛詞“於”一起構成句法成分充當述語而帶賓語。形容詞“有益”與“有利”也都能充當定語。例如：

①很多學者卽着手進行有益的探索。(《語言文化探索》，p.65)
②這就爲各民族之間互相學習彼此的語言創造了有利的條件。(辛菊《現代漢語》，p.3)

至於“有助”，它並沒有這種功能，但一旦後面帶上“於”也能構成句法成分充當述語，而帶賓語。[5)]

邢福義在《漢語語法三百問》(2004：197)中又有如下論述：

「〔4〕强化——用特定形式强化已由某種格式所顯示的某種關係。 比如“這種浪費現象卽使不嚴重，也應該引起我們的高度重視”之間本來有 轉折關係，“卽使……也……”是表示先讓步後轉折的句式，因此已經顯示了 這種關係，但是，如果覺得還需要强調，就可以添加“但”，說成“這種浪費現 象卽使不嚴重，但也應該引起我們的高度重視”，這樣，這個複句的轉折關係便被突出地强調出來了。由於“强化”是在一種標志的基礎上再加上一種標 志，因此，强化的結果，就會造成“標志復現”的現象。」

邢福義談到了“强化”問題，卽“卽使……也……”是表示先讓步後轉折的句式，這已經充分顯示了這種關係，但是“也”前面再加上表示轉折的“但”，正是一種强化。“有助”隱含着“於”，已經充分表明它充當述語而帶賓語，故不需要一定要加個“於”。但“有助於”類型比“有助”更能使述語與賓語的界限淸楚。在這一點來說，其後面還加上相關的“於”是一種述語“有助”類型的强化形式。

6. 結論

綜上所述，我們有如下結論：

5) 這種例子很多，例如：
①(1)有助於正確認識語言學習的規律；(2)有利於正確地確定語言學習的評估指標。(《應用語言學概論》，p.112)
②正確地開展語言文明教育，有利於化解交際中的人際摩擦，創設良好的社會交際氛圍；有助於樹立互助互諒的人際關係，促進社會風氣的改善。(《應用語言學概論》，p.273)

第一，在現代漢語中”有助“能單獨充當述語而帶賓語，因此我們認爲”有助“應是動詞。《中朝》、《規範》、《圖解》、《應用》都沒有將“有助”歸屬於動詞，却將“有助於”看成動詞。這不符合現代漢語的一般情況。一般來說“有助”是動詞而“有助於”不一定是動詞。

第二，”有助“能爲”有助於“代替而意思相同。”有助於“是”“對……有幫助”“的意思，故”有助“的意思不是”有幫助“而是”“對……有幫助”“。

第三，“有助”隱含着“於”，已經充分表明它充當述語而帶賓語，故不需要一定要加個“於”。但“有助於”類型比“有助”更能使述語與賓語的界限清楚。在這一點來說，其後面還加上相關的“於”是一種述語“有助”類型的强化形式。

메 모

【어학분과 I 】 발표 ②

『詞林韻釋』 소고
- 운서의 성격과 체재 중심으로

왕옥지*

【목 차】

1. 서론
2. 운서의 성격과 특징 그리고 체재
   1) 운서의 성격과 특징
   2) 운서의 체재
3. 결론

1. 서론

『詩經』과 『楚辭』에 이어 발전해 온 詩體는 漢代에 四言詩, 五言詩와 七言詩가 형성되어 魏晉 南北朝 時代의 발전 과도기와 初唐(618년-712년)의 화려한 詩風을 거쳐 盛唐(713년-762년)에 이르러 개성적인 漢魏風骨의 詩가 기틀을 마련하고 발전시켰고[1], 사실주의적 시풍을 지닌다. 中唐(762년-826년)은 安史의 亂(755년-763년)으로 쇠락해 지는 시기로 민중의 감정이나 생활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民歌의 영향을 받아 사회를 비평하는 시를 지었고, 晩唐(826년-907년)에 이르러서는 국력이 혼란하여 詩風 역시 새로운 변모를 하였다. 詩歌는 唐(618년-907년)에 이르러 꽃을 피웠고,唐詩의 발전 단계에 따라 初唐·盛唐·中唐·晩唐으로 詩의 시기를 구분한다.[2]

한편 민간에서 만들어져 민중들에게 불렸던 민간의 歌曲인 詞는 中唐 이후 문학 형태로 정착하여 晩唐과 五代에 발전하여 宋詞에 이르러 꽃을 피웠다. 中唐과 晩唐의 시가가 큰 변화를 거치면서 민간에서는 詞가 등장하였다는 차원에서 광의적 의미로 詞는 詩라 볼 수 있지만, 詩와는 달리하는 독특한 문학 형태를 갖추고 있다. 사가 민간의 통속 가창 문학이 문인들의 형식주의 詞作이 되면서 통속성을 잃어버렸으며 일반 대중들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詞는 쇠락의 길을 걷게 되었다. 그리고 민간에서는 대중들의 정서에 부합하고 또 북방 이민족의 외래 음악의 영향을 받은 散曲, 元曲이 발전하게 되었다.

唐詩, 宋詞, 元曲, 明淸 小說이란 말과 같이 중국 각 시대에는 꽃을 피운 문학 장르가 있었고 문

* 동명대학교 학부교양대학 부교수 (yuzhi3@hanmail.net)

1) 張九齡·賀知章 등이 기틀 마련을 하였고, 李白·杜甫·韓愈·白居易 등이 꽃을 피웠다.

2) 盛唐의 李白·杜甫·孟浩然·王維·王昌齡·岑參 등 詩人과 中唐의 韓愈·白居易 등 詩人에 이르러 꽃을 피웠다. 李白는 浪漫詩派, 杜甫는 寫實詩派, 孟浩然과 王維는 自然詩派, 王昌齡과 岑參은 邊塞詩派, 韓愈와 白居易는 元和詩派이다.

학의 전성기가 있었다. 한편 각 시대에는 여러 문학 장르가 함께 흥행하였는데, 그 중 詩歌는 唐에 이어 詞가 전성기였던 宋에서도 큰 흥행을 하였다. 宋의 詩人들은 많은 詩作을 남겼는데 宋詩의 수량은 唐詩의 몇 배를 초월하였으며, 歐陽修와 蘇軾 등은 北宋의 詩人이자 詞人이었다. 詩歌는 漢에 기원하여 위진 남북조, 수, 당, 송, 원, 명, 청을 거쳐 가장 중요하고 흥행했던 문학 장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詩韻과 관련된 운서는 隋의『切韻』을 비롯한 수많은『切韻』系 운서들이 세상에 출현하였으며,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반면 詞는 唐에서 흥기하여 宋에서 꽃을 피운 후 쇠락하였다가 淸(1636년-1911년)에 이르러 훌륭한 사 작품들이 창작되었고, 청의 詞人들은 앞 사인들의 詞를 수집하고 출간하는 한편 연구가 이루어져 다시 꽃을 피웠다. 그러나 詞韻과 관련된 운서는 韻書史, 漢語語音社 등에서 주목을 전혀 받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詞林韻釋』의 跋文에 대한 해석을 통해 그 성격과 특징 그리고 체재에 대하여 살펴보는 동시, 이 운서가 갖는 운서로서의 가치를 규명하여 운서사, 한어 어음사, 문학사에 보탬이 되고자 한다.

2. 운서의 성격과 특징 그리고 체재

1) 운서의 성격과 특징

『詞林韻釋』 끝에는,

詞는 騷의 먼 후예의 노래의 변체이다. 당대에 시작하여 오대에 발전하였고, 남북 송대에 이르러 극히 흥성하였다. 작가는 계승하여 모두 음률을 자세히 알았으므로 음성을 고르게 하고 글자를 정하였다. 確有據依夷攷其時, 그러나 작곡의 이름이 있고, 운을 짓는 악보는 없다. 어찌 백여 년 이래 학사대부들은 각각 스승님에게 가르침을 받아 不復措意歟. 나의 고향 원 중승 집에『詞林韻釋』1권을 소장하고 있었는데, 일명『사림요운』이다. 누가 편찬하였는지를 알지 못하며, 송『예문지』에는 이 책을 실지 않고 있다. 려번사『樊榭集』의『論詞絶句』에서는 “소흥 2년 록비헌 간본에서는 동, 홍, 방, 양 등 등 19운으로 나누었고, 원 주덕청의『중원음운』과 대략 상동하며, 상거입 삼성은 평성에 배열하여 송 심의부의『樂府指迷』와 서로 부합한다.”고 주석을 달았다. 이 책이 원대 말 명대 초에 출현하였다고 의혹한바, 남송 초년 간본으로 어긋나게 번사는 뜻하지 아니하게 깊게 살펴보지 못하고 송나라 사람의 詞韻으로 잘못 생각하였다. 그렇지 않으면 송나라가 남쪽으로 건너온 이후 여러 현인들이 어찌하여 모두 보지를 못하였는가? 곧 심의부와 주덕청 역시 끊어지고 인용해서 증거로 삼지 않았고 군색하게 남이 알지 못하게 암합하였는가? 또한 이 책은 전문적으로 북곡을 위하여 만들어지고 혹은 더 나아가 대성 악부의 유의라고 의혹하였지만 아쉽게도 대성 악부와 대성집은 모두 이미 실전하여 고증할 수 없고, 오래 전하는 까닭은 마치 옛 책에 약간 정돈과 모방을 더하여 조금은 관람할 수 있을 뿐, 역시 책으로 간행할 수는 없다. 가경 경오년 4월 입하일 강도에 진은복 발문이다.(詞也者, 騷之苗裔而謂行之變體也. 胚胎於唐, 濫觴於五代至南北宋而極盛. 作者繼踵皆能精曉音律, 故諧聲定字, 確有據依夷攷其時, 但有製曲之名絶無撰韻之譜. 豈百餘年來, 學士大夫各守師承不復措意歟. 吾鄉阮中丞家藏有詞林韻釋一卷, 一名詞林要韻. 不知何人所撰, 宋藝文志不載此書. 厲樊榭集中論詞絶句注云紹興二年菉斐軒刊本分東紅邦陽等十九韻, 與元周德淸中原音韻畧同, 以上去入三聲配隸平聲, 與宋沈義父樂府指迷相合, 竊疑此書出於元明之季. 謬托南宋初年刊本樊榭偶未深攷, 遂以爲宋人詞韻. 不然南渡以後諸賢何以均未之見, 卽沈義父周德淸亦絶不引證而遽與之暗合耶, 又疑此書專爲北曲而設或卽大晟樂府之遺意. 惜大晟樂府及大聲集皆已亡佚無

從攷正耳, 因流傳旣久猶是舊帙畧加整比梢可觀覽, 亦不能盡爲刊落也. 嘉慶庚午四月立夏日江都秦恩復跋.)

란 跋文이 실려 있고, 이 발문을 통해 『詞林韻釋』에 대해 아래와 같이 살펴 볼 수 있다.

『詞林韻釋』은 一名 『词林要韵』이며, 누가 언제 편찬하였는지 전하지 않는다. 一名 『词林要韵』은 書頭의 있는'新增词林要韻'에서 짐작할 수 있다. 清 翰林院 庶吉士이자 藏書家인 秦恩復(1760년-1843년)이 본인의 출생지인 江蘇省 江都(지금의 揚州)의 中丞 阮元의 所藏本을 『詞學叢書』[3]에 수록하고, 嘉慶 15년(嘉慶 庚午年, AD 1810년)에 江都에서 위의 跋文을 썼다. 書名에서 『詞林韻釋』은 詞韻을 다룬 운서로 짐작할 수 있지만, 跋文의 "詞也者, 騷之苗裔而謌行之變體也....."란 말을 통해 詞를 韻文의 한 體인 楚 屈原의『離騷』와 연관시키며 歌의 변체가 詞이고, 唐代에 시작하여 五代의 발전을 거쳐 北宋(960년-1127년) 과 南宋(1127년-1279년)에서 크게 성행하여 꽃을 피웠음을 알 수 있으므로, 『詞林韻釋』은 詞韻을 위한 운서임을 확신할 수 있다. 그러나 宋 『藝文志』[4]에는 『詞林韻釋』이 실려 있지 않고, 秦恩復은 또 "但有製曲之名", "此書專爲北曲而設"라고 하면서 曲韻을 위해 설정한 운서로 보았다. 厉鹗(1692년-1752년. 號가 樊榭이다) 『樊榭集』의 『論詞絶句』에서는 "紹興 2年(1132년) 菉斐軒 간본에서는 東, 紅, 邦, 陽 등 韻을 19韻으로 나누었고, 元 周德清의 『中原音韻』의 分韻體系와 대략 상동하며, 上去入 三聲은 平聲에 배열하였는데 宋 沈義父(生卒未詳, 약 宋 理宗 淳祐(1241년-1252년 전후 아직 생존에 있음) 의 『樂府指迷』와 서로 부합한다."고 注를 달았다. 그러므로 『詞林韻釋』의 成書年代를 紹興 2年, 즉 南宋 初期 이전의 출현한 운서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에에 대해 秦恩復은 元末 明初에 완성하였다고 보면서 樊榭가 뜻하지 아니하게 깊게 살펴보지 못하고 송나라 사람의 詞韻으로 잘못 생각한 것으로 보았다. 또한 그는 만일 남송 초기에 이 운서가 이미 있었다면 남송 이후의 여러 현인들이 『詞林韻釋』을 보았고, 이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하지 못하였고, 紹興 2年 이후의 사람인 南宋 沈義父와 元 周德清 역시 『詞林韻釋』을 인용하여 증거로 삼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 책은 전문적으로 北曲을 위하여 만들어지고 혹은 더 나아가 北宋 大晟樂府[5]의 유의일 수 있다고 하면서 그러나 아쉽게도 대성 악부와 大聲集은 모두 이미 실전하여 고증할 수 없다고 하였다.

秦恩復은 『詞林韻釋』에 대해서 元末 明初에 완성된 운서로 北曲을 위하여 韻을 설정하였다고 보았다. 그러나 宋 『藝文志』에 수록되지 않는 운서라고 해서 宋의 운서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단정하기에 秦恩復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 또한 宋 『藝文志』는 『宋史·藝文志』로 元代 脱脱 등이 편찬한 變志总目이며, 宋代 서적의 소장과 저술 정황을 기재하고 있지만, 잘못된 것이나 누락된 것이 비교적 많다. 그리고 秦恩復보다 91년 앞 인물인 厉鹗[6], 즉 厉樊榭가 紹興 2年(1132년), 즉 南宋 初期에 菉斐軒 刊本이 이미 있음을 그의 『樊榭集』『論詞絶句』에서 언급하고 있으므로 南宋 이전에 완성된 詞를 위해 설정된 운서란 厉樊榭 주장을 소홀히 할 수는 없다. 厉樊榭는 錢塘(지금의 浙江 杭州)人이고, 清代에 저명한 诗人이자 학자이며 江西词派说을 제질 먼저 이끈 인물이자 浙西词派 中期의 대표인물로서 그는 詞에 있어 조예가 깊고, 그의 주장을 쉽게 부정하기에도 무리가 따른다. 즉 『詞林韻釋』은 宋代에 詞를 위한 운서라고도 볼 수 있다. 『詞林韻釋』은 현재 전하는 詞韻

3) 清代에 이르러 浙西詞派가 유행한 이후, 詞學이 다시 일어났지만, 일부 중요한 宋元 词의 운서와 이론서적들이 간행되지 않아 秦恩復은 이 책을 편찬하였다.
4) 『宋史·藝文志』이며, 宋代 서적의 소장과 저술 정황을 기재하고 있다.
5) 大晟府에서 만들고 정리한 樂曲이다. 北宋의 词人인 周邦彦이 일찍이 大晟府에 提擧되므로 周邦彦의 악부를 말하기도 한다.
6) 그는 '宋词南宗'을 따르며'宋词北宗'을 낮게 모았다.

가운데 가장 오래된 운서로 이 운서의 편찬 연대 및 詞韻인지 曲韻인지하는 韻書의 성격 유형에 대한 논쟁이 지금까지 분분하다[7].

『詞林韻釋』의 詞林은'詩文을 모아서 엮은 책'또는'詩人이나 文人들의 文壇과 사회'란 뜻을 갖는다. 書頭에는'校正詩韻'이란 말이 있는데, 이 운서가 갖는 성격이 무엇인지, 즉 詞韻 또는 曲韻을 반영한 운서인지 아니면 詩韻을 반영한 운서인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조심스럽게 다음과 같이 추론을 해본다.

① 紹興 2年(1132년) 南宋 初期 이전에 완성되었다면 詞韻을 위한 운서로 당시의 사운의 分韻 體系가 곡운과 유사하였다는 것이다.

② 元末 明初에 완성된 운서라면 北曲을 위한 운서로 원 정부의 쇠퇴기 또는 명초 몽고풍 문화에 대한 타도와 한 민족의 전통문화 회복이란 정부의 정책 하에 曲이란 서명 대신 詞林의란 서명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詞林韻釋』의 성격에 대한 연구는 이 운서의 어음체계와 기타 자료를 통해 연구되어야 한다.

2) 운서의 체재

『詞林韵释』의 체재는 書頭에 '新增词林要韻' 一東紅, 二邦陽, 三支時、四齊微, 五車夫, 六皆来, 七真文, 八寒閒, 九鸞端, 十先元, 十一蕭韶, 十二和何, 十三嘉華, 十四車邪, 十五清明, 十六幽游, 十七金音, 十八南山, 十九占炎 등 19韻部가 수록되어 있고, '校正詩韻' '卷一上平聲' 一東, 二冬, 三江、四支, 五微, 六魚, 七虞, 八齊, 九佳, 十灰, 十一眞, 十二文, 十三元, 十四寒, 十五刪; '卷二下平聲' 一先, 二蕭, 三肴、四豪, 五歌, 六麻, 七陽, 八庚, 九青, 十蒸, 十一尤, 十二侵, 十三覃, 十四鹽, 十五咸; '卷三上聲' 一董, 二腫, 三講, 四紙, 五尾, 六語, 七麌, 八薺, 九蟹, 十賄, 十一軫, 十二吻, 十三阮, 十四旱, 十五潸, 十六銑, 十七篠, 十八巧, 十九皓, 二十舸, 二十一馬, 二十二養, 二十三梗, 二十四迥, 二十五有, 二十六寢, 二十七感, 二十八口; '卷四去聲' 一送, 二宋, 三絳, 四寘, 五味, 六御, 七遇, 八霽, 九泰, 十卦, 十一隊, 十二震, 十三問, 十四願, 十五翰, 十六諫, 十七霰, 十八嘯, 十九效, 二十號, 二十一箇, 二十二禡, 二十三漾, 二十四敬, 二十五徑, 二十六宥, 二十七沁, 二十八勘, 二十九豔, 三十陷; '卷五入聲' 一屋, 二沃, 三覺, 四質, 五物, 六月, 七曷, 八黠, 九屑, 十藥, 十一陌, 十二錫, 十三職, 十四緝, 十五合, 十六葉, 十七洽 등을 수록하고 있다. 즉 書頭에 '新增词林要韻'과 '校正詩韻' '卷一上平聲', '卷二下平聲', '卷三上聲', '卷四去聲', '卷五入聲' 등을 수록하고 있다.

'卷一上平聲'과 '卷二下平聲'에는 각각 15운부을 명시하고 있고, '卷三上聲'에는 28운부, '卷四去聲'에는 30운부, '卷五入聲'에는 17운부를 각각 명시하고 있다. 이 뒤를 이은 페이지에서는『詞林韵释』가 명시되 있고, 一東紅平聲, 上聲, 去聲, 二邦陽平聲, 上聲, 去聲 등에 이어 마지막에는 十九占炎平聲, 上聲, 去聲이 이어지며, 입성이 해당되는 운부에는 入聲作平聲, 入聲作上聲, 入聲作去聲 등이 있으며, 각 운부의 각 성조 부분에는 글자와 해당 글자의 설명이 간략히 명시되어 있는데, 총 약 8000字를 수록하고 있다. '校正詩韻'에서 平聲을 上권과 下권으로 구분하고 있지만, 사실 平聲은 陰陽으로 구분하고 있지 않다.

7) 叶恭绰 역시 이 간본을 소장하고 있는데,『菉斐轩所刊词林要韵跋』에서는 이 책은 赵子固의 印記가 있고, 元말 明초에 출간한 운서가 아니며, 元초 간본이라고 하였다. 그밖에 民国에 이르러 刻本을 발견하였는데 南宋 말년 词人 仇远의 印이 있어 최소한 宋末 元初에 편찬한 刊刻이라 할 수 있다.『菉斐轩词林要韵』에 대하여 宋 간본으로 보았지만, 赵荫棠은 明代 陈铎이 편찬하였다고 보았다.

【어학분과 I】 발표 ③

基于范畴化理论的线状量词分析及其教学启示
——以“条”、“根”、“道”为例

俞渊* · 韩容洙**

【目 录】

1. 绪论
2. 条状量词的范畴化分析
   1) “条”的范畴化分析
   2) “根”的范畴化分析
   3) “道”的范畴化分析
3. 范畴化总结对于教学的启示
4. 总结

1. 绪论

世界上有着各种各样的事物和现象。在认识它们的时候，人们习惯于将它们进行分类，并在此基础上形成一个个的概念，以便于更轻松、更准确地认知这些事物。这样的分类过程就是范畴化的过程。范畴中有的成员对于范畴的特征体现得非常明显，这些是范畴中的核心成员；有的成员则体现得不明显，这些是边缘成员。范畴化的现象在汉语的量词中体现得非常明显。

量词是现代汉语词类系统中非常重要的一个部分，也是非常有特色的一个部分。汉语量词的类别和数目的设立，远非随意的，而是深刻反映了汉民族认知上的范畴化特征。[1]这种特点也使得量词成为对外汉语教学的重点以及难点。

邵敬敏(1993)对于量词的分类中有一类线状量词，其中“条”、“根”、“道”三个词都可以表示细长的东西，实际生活中使用频率也很高，因而本文选取这三个词作为研究对象。

前人的研究中，石毓智(2001)认为“条”是二维形状量词，“根”是三维形状量词。[2]周芍·邵敬敏(2014)认为“条”的核心语义特征是[长条][线形]，外围语义特征是[-硬度]；“根”的核心语义特征是[长条][圆柱形]，外围语义特征是[硬度]；“道”的核心语义特征为[长条][平面]，外围语义特征为[阻隔]。[3]宗守云·赵东阳(2015)认为“道”的基本语义特征是[长条]和[依附]。[4]

* 第一作者：东国大学-首尔，一般大学院，中国语学专业，硕博统合课程 (hawklion@naver.com)。
** 通讯作者：东国大学-首尔，中文系，教授 (rzhan@dongguk.edu)。
1) 石毓智，「表物体形状的量词的认知基础」，『语言教学与研究』，第1期，2001，p.34.
2) 同上，pp.34-41.

对于量词教学的研究有舒叶(2014)对“条”和“根”的语义进行了分析，找出了“条”和“根”与名词搭配上的差异，给出的教学策略有通过溯源分析法来讲解两个词的本源意义；通过分阶段教学法来让学生循序渐进地掌握相关知识；通过示形感知法来让学生从认知上掌握搭配对象的形态特征。于亚楠(2019)利用HSK动态作文语料库，总结出“条”的偏误类型有误用、遗漏和冗余。“根”的偏误主要有误用和遗漏，并将偏误产生的原因分析为目的语知识的负迁移、母语的负迁移以及学习策略和交际策略的影响。最终给出的教学建议是以语言本体为基础，建立学生对量词的正确认知；使用直观展示法，形象地展示易混淆的量词；对比量词“条”与“根”的适用对象，避免误用。王馨(2020)等“条、根、支”的教学难点是因为“条、根、支”的近义交叉现象混淆了三者差异以及“条、根、支”指量抽象名词的用法提高了理解难度，将三个词的教学策略分为教学任务的安排和教学理念与方法两个部分。教学任务的安排中包括分步骤逐一突破和按照量词搭配具象事物到搭配抽象事物的规律分等级进行教学。教学理念与方法包括第一，增强释义的理据性。第二，要配有多样的名量搭配训练及游戏。第三，激发学生主动思考、引导学生对比差异。

本文将在范畴化理论的指导下利用BCC语料库[5]中的语料整理三个量词的范畴成员，总结出各量词的范畴化特征，并提出相应的教学建议。通过本文的研究能加深各量词的认识。由此提出的教学建议更有利于汉语学习者掌握、运用这些量词。

2. 条状量词的范畴化分析

1) “条”的范畴化分析

在BCC语料库中搜索“条”和名词的组合共计得到84472个用例，可以将其分为以下几类：

(1) 具体事物类

自然建筑事物类：路(5252，0.062%)、街(3464，0.041%)、河(864，0.01%)
人物部位及相关类：腿(2528，0.03%)、人影(1179，0.014%)、好汉(490，0.006%)
一般事物类：线(1925，0.022％)、围巾(529，0.006%)、裤子(470，0.006%)
动物类：狗(1765，0.02%)、鱼(1007，0.012%)、蛇(537，0.006%)
植物类：树枝(20，0.001%)、水草(16，0.001%)

(2) 抽象事物类

条目类：规定(826，0.01%)、信息(767，0.009%)
路线途径类：血路(511，0.006%)、途径(309，0.004%)

3) 周芍·邵敬敏，「近义量词“条、根、道”的三维解释与组合机制」，『语言教学与研究』，第1期，2014，pp.81-88.
4) 宗守云·赵东阳，「量词“道”的基本语义特征及其与“条、根”的差异」，『广西师范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第2期，2015，pp.77-82.
5) 北京语言大学大数据与语言教育研究所，BCC语料库，http://bcc.blcu.edu.cn(搜索日期：2022.7.11)

性命类：命(1616，0.019%)、生命(413，0.005%)

周芍·邵敬敏(2014)将“条”的核心语义特征总结为[长条]、[线形]，外围语义特征总结为[-硬度]。这样无法解释为什么“树枝”等频率不高的硬质事物会出现在范畴之中，抽象范畴内的“新闻”、“路线”、“性命”等也很难将其语义特征总结为[-硬度]。石毓智(2001)将“条”总结为平面的二维词语更为妥当。因而“条”的语义特征为[长条]、[线形]、[平面]。

2) “根”的范畴化分析

(1) 具体事物类

植物及其相关类：树枝(290，0.014%)、稻草(253，0.013%)、香蕉(183，0.009%)
一般事物(刚性)类：针(563，0.028%)、火柴(441，0.022%)、柱子(268，0.013%)
人体部位类：手指(610，0.03%)、头发(492，0.024%)
一般事物(柔性)类：烟(1101，0.054%)、绳子(504，0.025%)、弦(180，0.009%)

(2) 抽象事物类

人体部位类：筋(588，0.029%)、神经(171，0.008%)

周芍·邵敬敏(2014)认为“根”的核心语义特征是[长条]、[圆柱形]，外围语义特征是[硬度]。但是“根”的一般事物(柔性)类和人体部位类范畴，不具有[硬度]的特性。“根”还从它的名词义演化出来一个语义特征：[依附]。因而，本文将“根”的核心语义特征总结为[长条]、[圆柱形]，外围语义特征总结为[依附]。

3) “道”的范畴化分析

(1) 具体事物类

人体部位及相关类：口子(279，0.013%)、眉(246，0.012%)
自然事物类：风景(848，0.04%)、曙光(158，0.007%)、山(42，0.002%)
阻隔事物类：墙(282，0.013%)、门(224，0.01%)、鸿沟(80，0.004%)
食物类：菜(1174，0.056%)、甜点(38，0.002%)
书面事物类：难题(418，0.02%)、圣旨(59，0.003%)

(2) 抽象事物类

程序类：工序(851，0.04%)、程序(132，0.006%)

周芍·邵敬敏(2014)认为“道”的核心语义特征是[长条]、[平面]，外围语义特征是[阻隔]。宗守云·赵东阳(2015)认为“道”的基本语义特征是[长条]、[依附]。两篇文章的总结都不够准确。“道”基于道路的本义所具有的语义特征为[分隔]，因而将“道”的语义特征总结为[长条]、[分隔]。

3. 范畴化总结对于教学的启示

“条”、“根”、“道”三个词由于都具有[长条]的语义特征，汉语学习者在学习的时候很容易产生张冠李戴的现象，从而产生偏误。在实施教学时要采用几下几个原则与方法使学生加深理解，掌握使用方法，减少偏误产生。

第一，注重核心语义的讲解。

第二，培养名词与量词搭配的意识。

第三，注重高频词语，不过分依赖教材。

第四，分阶段、分层次进行教学。

4. 总结

本文用范畴化的相关理论通过语料库中的实际语料对与“条”、“根”、“道”三个线状量词进行搭配的名词进行了分析和总结。对三个词的范畴成员进行划分以外将“条”的语义特征总结为[长条]、[线形]、[平面]；“根”的核心语义特征总结为[长条]和[圆柱形]，外围语义特征是[依附]；“道”的语义特征总结为[长条]、[分隔]。

同时，提出了四点教学建议：第一，注重核心语义的讲解。第二，培养名词与量词搭配的意识。第三，注重高频词语，不过分依赖教材。第四，分阶段、分层次进行教学。

通过本文的研究，可以让人们加深对于这三个条状量词的认识与理解，有助于人们对这些词语进行区分，给出的教学建议也有助于汉语学习者更好地掌握这些词语，减少偏误的产生。

【어학분과 I】 발표 ④

中文国际传播研究综述

赵唯*

【目 录】

1. 引言
2. 研究趋势
1) 中文国际传播的起步阶段
2) 中文国际传播的快速发展阶段
3) 疫情下的中文国际传播
3. 研究方法
4. 内容分析
1) 传播要素类研究
2) 国别区域传播类研究
3) 历史现状类研究
4) 专题类研究
5. 评述
1) 开拓研究领域
2) 创新研究方法
3) 完善国别研究

【摘要】本文以2007-2022年中国知网中文学术期刊篇名包含中文国际传播、汉语国际传播的120篇论文为研究对象，对近十五年来中文国际传播研究的总体趋势、研究方法、研究内容三方面进行分析。总体来看，2007-2022年中文国际传播论文发表数量呈波动上涨趋势；研究方法以非实证研究为主；研究内容上，主要包括历史现状类研究、传播要素类研究、国别区域类研究以及专题类研究。未来中文国际传播应开拓研究领域、创新研究方法、完善国别研究。

【关键词】中文国际传播；CNKI文献分析；研究状况。

1. 引言

通常，中文传播也称中文推广，是指某个地区在某段时间范围内不断扩大对中文或其方言使用的现象[1)]。根据国家地理概念，中文推广或传播可分为国内的推广或传播 (Internal Language Diffusion) 和国外的推广或传播 (External Language Diffusion)，后者也称中文国际推广或传播。而中文国际推广与中文国际传播略有不同，张治国 (2022) 认为语言的国际推广以语言推广国为主，语言接受国为辅，而语言的国际传播则正好相反[2)]。本文要探讨的中文国际传播正是源于这一概念。

* 洛阳理工学院人文与社会科学学院教师。

1)李延福.国外语言学通观[M].济南:山东教育出版社，1996:722.

2)张治国.语言国际推广与传播理论探讨[J].云南师范大学学报(对外汉语教学与研究版)，2022，20(01):1-9.

中文国际传播是中国国际传播体系的重要组成部分，是中外文明交流互鉴的重要窗口与桥梁。在国际中文教育的理论研究和具体实践过程中，中文国际传播相关研究起步较晚，2007年以前，相关研究较为零散，但随着国际中文教育事业的不断发展，中文国际传播的研究也在不断深入。目前，中国在该领域的理论研究主要集中在如下四个方面：第一是历史现状类研究，如“中文国际传播事业新常态特征及发展思考”“历史上的汉语化进程和当代汉语的国际化传播”等；第二是传播要素类研究，如传播方略、路径、传播体系建设、传播资源配置、传播中的跨文化问题；第三是区域国别类传播问题，如美国汉语传播研究、韩国汉语传播研究、东南亚汉语传播研究等；第四是关于国际中文传播的专题性研究，例如“从‘互联网+’背景和生态语言学视角出发的中文国际传播相关问题”“中文国际传播对中国国家形象建构”等研究。综上发现，已有研究成果缺乏对中文国际传播研究的整合与梳理，为此，本文拟在学界先贤的研究基础上从理论上分析、阐明和整合中文国际传播的相关研究成果，以期增强为国际中文教育服务能力。

本文通过检索近15年中国知网所收录的《云南师范大学学报》《语言文字应用》《海外华文教育》《华文教学与研究》《国际汉语教学研究》《新疆师范大学学报》等国际中文教育类专业期刊以及相关博士论文，从这些专业期刊和论文中搜集所有关于中文国际传播的研究文献共120篇，对以上成果进行归纳整理，从研究的总体趋势、方法、内容三方面进行汇总考察，力图实现两个目标：第一，总结中文国际传播研究成果，发现其研究特点和不足。第二，为未来中文国际传播研究方向提供有益参考。

2. 研究趋势

本文基于CNKI的文献统计分析，在中国知网中文期刊数据库中进行检索，检索步骤如下：选择中国知网中的高级检索功能，检索条件篇名为“中文国际传播”、“汉语国际传播”，选取专业期刊的相关论文及博士论文，检索出符合要求的期刊论文共125篇，经过人工筛选，去掉书评、会议通知、报告、无效文献、共得到有效期刊论文120篇。

<图1> 2007——2022年篇名包含"中文（汉语）国际传播"的论文篇数

1）中文国际传播的起步阶段

<图1>显示，2007—2022年中文国际传播相关论文的发表数量呈波动上涨趋势。具体来看，2010-2013年中文国际传播的相关研究稳中有升。2011年开始，中国国家领导人相继出席了一系列致力于推动中文和中华文化国际传播的重要活动，如访问印尼阿拉扎大学孔子学院、访问匈牙利罗兰大学、出席法国“汉语

年”开幕式等；中国有关部门从政策、资金等方面加大对中文国际事业的支持力度，相关部委大力支持中文国际传播事业的发展，如2011年6月，财政部、教育部联合制定并颁发《国家公派出国教师生活待遇管理规定》，提高公派出国教师生活待遇；中国华文教育基金会深入开展募资工作，资助54所海外华文教育示范学校共540万人民币；文化部2011年外交类支出约3.8亿元，主要用于海外文化中心建设和日常运转[3]。

这些举措带动了中文国际传播的快速发展，吸引了更多学者开展相关领域的研究。在此阶段，吴应辉（2008）首先提出中文国际传播研究是一个新兴的国际中文教育研究领域[4]；陈永莉（2009）也对中文国际传播的制度问题进行了总结分析[5]；李建军、韩明杰（2010）阐明了中文国际传播的几组核心概念[6]。总体来说，该阶段的中文国际传播类研究还处于起步阶段，专家学者们对中文国际传播体系建设和概念性问题关注较多。

2）中文国际传播的快速发展阶段

2013年以后，中文国际传播相关研究出现了一段井喷式发展。2013年“一带一路”政策提出，《孔子学院发展规划（2012—2020）年》正式发布，中文国际传播事业向着既定目标稳步迈进。与此同时，海外文化中心举办的活动更具专业性、针对性，并积极组织汉语学员参加演讲比赛，汉语知识问答。2013年，孔子学院成立区域中心，孔子学院的海外传播体系也进一步完善。此外，慕课（MOOC）作为中文国际传播的一种新型模式开始出现并引起了广泛关注，在2012年底的孔子学院大会上，“慕课”成为最受关注的议题之一[7]。在此阶段，中文国际传播的相关研究更是呈现井喷式发展，从<图1>可以看出2013—2018年的6年时间，中文国际传播发表的论文篇数为55篇，占总数的45.83%。期间，国别区域类研究、历史现状类研究以及专题性研究急剧增加。例如，李欣（2017）通过分析“一带一路”沿线国家中文传播的历史、现状和问题，探讨在“一带一路”战略背景下，如何进行中文传播的顶层设计和汉语人才的培养，以期为中文传播和“一带一路”战略实施贡献更大力量[8]；王茜（2017）通过阐述“互联网+”背景联系中文国际传播教学的发展，分析其特点，提出对“互联网+”视野下中文国际传播教学的未来展望[9]；商田蓉（2017）在“汉语国际化传播的经济价值”一文中从经济学角度分析了中文国际传播的必要性。李志凌（2017）认为，以东南亚为代表的汉语热点地区，因历史传统和现实需要的原因，在对待中文传播的问题上形成了突出的政治生态，构成了汉语本地化不得不面临的生存现实。在政治力量强势的社会环境里，中文的传播和发展同适应政治生态的能效密切相关。低层次上应做到对政治生态的顺应；高层次上则可采取主动介入的方式改善政治生态。在外部控制和自我调控的持续协调中，获得中文传播的生存空间[10]；杨刚、朱珠（2015）借鉴斯里兰卡的中文传播体系分析了中文在东南亚快速传播模式[11]。汲传波、刘芳芳（2017）分析了欧洲6国的中文传播素材，分析了其中存在的问题并对中文在欧洲的传播提出了意见[12]。总之，这一时

3)刘文燕.汉语国际传播年度报告(2011)[J].汉语国际传播研究，2015(01):1-14+193.
4)吴应辉.汉语国际传播研究，一个新兴的汉语国际教育研究领域[J].云南师范大学学报(对外汉语教学与研究版)，2008(02):1
5)陈永莉.汉语国际传播的制度建设问题[J].暨南学报(哲学社会科学版)，2009，31(01):57-61.
6)李建军，韩明杰.汉语国际传播的核心概念及问题辨析[J].当代传播，2010(05):115-117.
7)王祖嫘.汉语国际传播年度报告(2012)[J].汉语国际传播研究，2015(01):15-27+193.
8)李欣.“一带一路”战略下汉语国际传播探索与思考[J].传播力研究，2017，1(03):24+29.
9)王茜.“互联网+”视野下汉语国际传播教学的发展与思考[J].齐齐哈尔师范高等专科学校学报，2017(05):122-124.
10)李志凌.东南亚汉语传播与政治生态适应研究[J].云南师范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2017，49(02):43-49.
11)杨刚，朱珠.斯里兰卡汉语快速传播:小国经验的大启示[J].印度洋经济体研究，2015(03):129-140+144.
12)汲传波，刘芳芳.欧洲孔子学院汉语国际传播现状与思考[J].理论月刊，2017(02):173-178.

期，中文国际传播形式良好，中文国际传播的成就主要体现在国别区域发展研究、传播方式的融合创新以及从不同视角（领域）促进中文国际的传播。

3）疫情下的中文国际传播

2020年初突如其来的新冠疫情席卷全球，作为“国际敏感型”事业的中文国际传播受到了前所未有的冲击与影响。<图1>显示，这一阶段的论文发表数量有所下降。论文发文量的减少表明专家学者对中文国际传播的研究受到阻力，中文国际传播在选题、研究方向上需要创新。从研究内容来看，这一时期的中文国际传播研究主要呈现两个趋势：一是加强了对中文国际传播路径的研究，例如，刘立（2021）认为国际中文教师是中国语言文化的使者，其优良的综合素养有助于中外语言文化交流与合作，从而促进中文国际传播，并对国际中文教师需具备的综合素养进行探析[13]；王恩界（2022） 探讨了孔子学院在中文国际传播中的角色作用，并对孔子学院对中文教学与传播的促进路径进行研究，寻求发展之策[14]。二是对中文国际传播的发展方略进行深入探索，如：郭晶、吴应辉（2021）明确提出了中文国际传播的远景目标——让中文成为一门全球性语言、发展中国家优先战略、支持重点从基础教育向高端中文专业教育转变以及清醒认识中文国际传播中的中国有限责任和各国主体责任等6项战略调整建议[15]。何干俊（2022） 认为最大限度地推动新时代中文国际传播能力建设取得突破性进展应从三方面入手：以受众为本位，更新传播观念；找准切入点，体现传播的文化追求；与时俱进，推动汉语的网络传播。从总体上看，新冠疫情下的中文国际传播研究方向较为单一，研究成果的作者源相对集中，观点也较为统一。

3. 研究方法

本文依据文秋芳(2004)的研究分类方法[16]，将中文国际传播论文分为实证性研究和非实证研究两类，实证研究主要为数据调查、统计等，非实证研究主要包括综述、理论探讨、操作等。根据以上分类标准，关于中文国际传播的综述、教学理论应用、反思性的非实证研究总数为112篇，所占比例为93.33% ；实证研究仅有8篇，仅占6.67%，且多为近5年研究成果。实证研究和非实证研究比例差距过大，说明中文国际传播研究仍停留在理论探讨阶段。

实证研究以定量和定性混合研究为主。例如：沈索超（2020）以非洲中文国际传播研究文献为研究对象，将CiteSpace可视化软件作为分析工具，通过对高产作者、高频关键词等方面的梳理，对非洲中文国际传播研究热点和趋势进行了分析并得出以下结论：非洲中文国际传播研究进入相对稳定阶段，并且产生了一批起引领作用的核心作者，但是在研究中仍存在一些问题，还有提升空间[17]。袁方明、林雨晴（2021） 通过参考“国际汉语教材文化点分析框架”，对数据库录入的2018—2019年在美国的81所孔子学院和13所孔子课堂的文化传播活动进行一、二级文化点的对比归类，发现孔子学院文化活动和该框架中的文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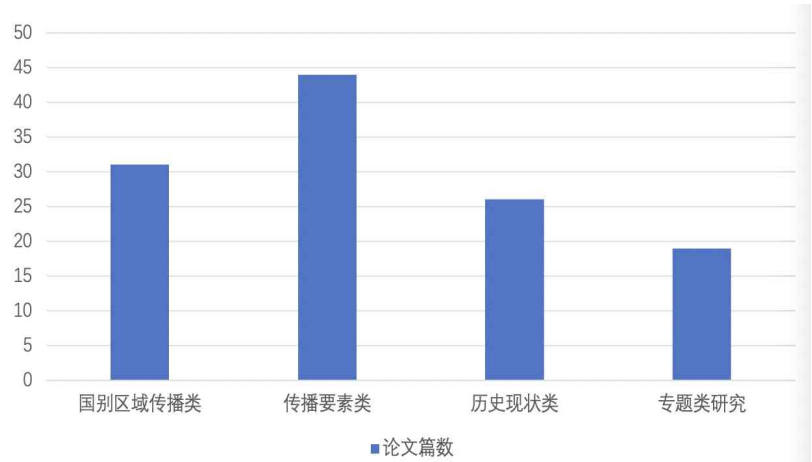
13)刘立.汉语国际传播背景下对外汉语教师的综合素养探析[J].辽宁农业职业技术学院学报，2021，23(02):27-30.
14)王恩界.孔子学院对埃及中文教学与传播的促进路径研究[J].文化与传播，2022，11(01):75-80
15)郭晶，吴应辉.大变局下汉语国际传播的国际政治风险、机遇与战略调整[J].云南师范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2021，53(01):46-53.
16)文秋芳.应用语言学研究方法与论文写作[M].北京:外语教 学与研究出版社，2004.
17)沈索超.2000—2018年中国对非洲汉语国际传播研究热点概述——基于CiteSpace可视化软件分析[J].国际汉语教育(中英文)，2020，5(01):12-21.

点基本一致，其活动内容主要集中在“中国国情”和“成就文化”的介绍方面[18]。王祖螺（2022） 以“中国形象”为切入点，在东南亚五国展开了一项量质结合的实证研究，证实了中文国际传播效果与受众的中国形象认知呈正相关关系，并在此基础上归纳了中文国际传播的四大软实力功能：符号功能、交际功能、身份建构功能和思维功能，在新时期均衡发挥各项功能，可使中文国际传播为国家软实力建设作出更大贡献[19]。

随着未来技术进步，中文国际传播不要能单单停留在理论探讨，需加大实证研究力度，将访谈法、调研法、大数据量化研究方法、整体系统分析法等实验、统计类研究方法与理论研究相结合，提高中文国际传播研究的科学性和可信度。

4. 内容分析

吴应辉（2022）指出中文和中华文化如何从中国向世界传播，包括传播现状与传播历史，全球、区域和国别传播相关的各种问题，如区域、国别传播整体状况与比较，传播要素如方略、路径、传播体系建设、传播中的跨文化问题等，此外还有一些中文国际传播专题性问题研究，如语言国际传播组织比较、不同视角下的中文传播等[20]。因此，本文以此为分类依据，将专业期刊论文与相关博士论文的研究内容按照国别区域传播类研究、传播要素类研究、历史现状类研究以及专题性研究四个方面进行分类（<图2>）。对其中的内容、观点进行梳理，找出目前较为薄弱的研究方向，为未来中文国际传播乃至国际中文教育研究发展方向提供一点建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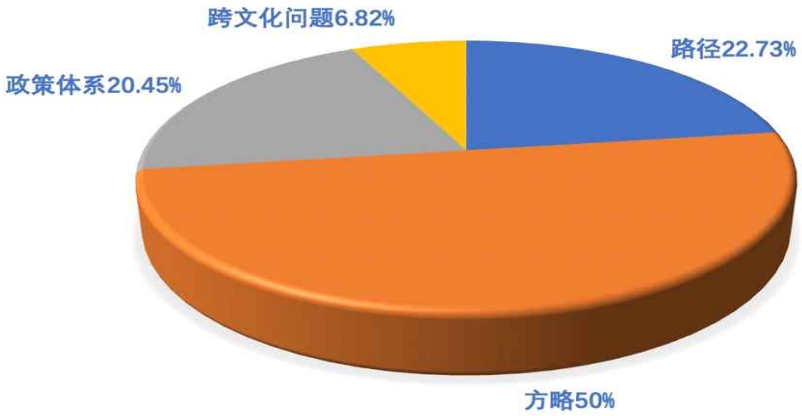
<图2> 中文国际传播研究分类情况

根据<图2>不难发现，当前与中文国际传播相关的研究内容主要集中在传播要素类研究和国别区域类研究，分别占论文总数的36.67%和25.83%；其次是历史现状类研究，占论文总数的21.66%；而专题类研究最少，占研究总数的15.83%。

18) 袁方明，林雨晴. 基于数据库的汉语国际传播项目在美国的文化因素选择分析[J]. 传播与版权，2021(06):78-81+95.
19) 王祖嫘. 中文国际传播与中国形象认知的相关性研究——来自东南亚五国的实证[J]. 云南师范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2022，54(03):66
20) 吴应辉. 国际中文教育新动态、新领域与新方法[J]. 河南大学学报(社会科学版)，2022，62(02):103-110+155.

1) 传播要素类研究

中文国际传播要素类研究分为4个层面（如<图3>），目前最多的成果是对中文国际传播方略的探讨，占论文总数的50%；其次是政策类和路径体系类研究，分别占论文总数的百分之22.7%和20.45%；跨文化问题类研究相对较少，占论文总数的6.82%。



<图3> 中文国际传播要素类研究比例

(1) 中文国际传播方略类探讨

中文国际传播的风险规避方略。朱瑞平（2021） 从中文国际传播的风险源和风险类别划分入手，讨论了规避风险应从传播者、传播途径与方式、传播内容和传播受众、传播效果5个方面展开，提出了科技赋能、文化赋值、交流赋情和发展赋新的内涵式发展策略，以及化整为零的弱传播、以民心相通为要务、认清传播扩散性的利弊、“以文会友”加深国际友谊、提高民间媒体话语权等风险化解策略，进一步强调了建立中文国际传播风险有效机制的重要性和必要性，以助力中文国际传播加速建立风险识别、评估、预警、规避和转化机制[21]。刘旭（2021） 在分析导致中文国际传播风险升级的宏观环境、中文国际传播特性和传播风险特性的基础上，依据Cooper提出的语言传播的7个变量和拉斯韦尔的语言传播“5W模式”的理论，借鉴英国文化协会采取的ERMF风险管理框架，构建了包含2个一级指标、8个二级指标和39个三级指标的中文国际传播风险评估指标体系，并进一步论述了该指标体系的适用范围、适用性和预期效果[22]。

中文国际传播方略的优化创新。孙强（2012） 认为当今中文国际传播在中文教学本身及中文承载的文化传播两个方面存在不足，有必要进行策略重塑和路径创新。策略重塑包括传播理念的“去工具化”、传播形式的“柔性化”和传播媒介的“丰裕化”等。路径创新则可以从分类传播、典型引领和受众体验驱动等方面着手进行[23]。李宝贵、李辉（2021） 认为中文国际传播能力是中国国际传播能力和国家语言治理能力的重要组成部分。提升中文国际传播能力的方略在于：积极推动中文教学的当地化，打造高水平传播人才队伍，提升服务水平，推进智慧型中文国际传播建设，增强中文国际产品供给，保障中文国际传播安全可持续发展[24]。李宝贵、刘家宁（2022） 阐释了区域国别中文国际传播研究的内涵、特征及价值，并

21)朱瑞平.论汉语国际传播的风险规避策略[J].云南师范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2021，53(01):54-61.
22)刘旭.汉语国际传播风险评估体系构建刍议[J].云南师范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2021，53(01):62-69.
23)孙强.汉语国际传播提升文化软实力的策略与路径[J].南京社会科学，2012(12):98-103+111.
24)李宝贵，李辉.中文国际传播能力的内涵、要素及提升策略[J].语言文字应用，2021(02):2-15.

对国内区域国别中文国际传播研究的实践进展进行了梳理，指出存在的问题，并提出优化策略[25]。

不同视角下中文国际传播方略。王振项（2009）认为在中文国际传播中，除考虑政治、文化、学科策略外，还必须考虑经济因素，并从中文使用域的开拓和适应、汉语人力资源的国内国外两重市场的开拓、汉语文化产品的开发与出口、孔子学院的语言经济学运作4个方面，分析了中文国际传播的经济策略[26]。毕彦华（2019）分析了新形势下“一带一路”倡议的背景和意义，追溯中文国际传播的历史与现状，探讨中文国际传播所面临的有利条件以及困境，并提出加快中文国际传播的优化策略[27]。刘旭（2019） 论述了“一带一路”建设中的中文国际传播发展现状，分析“新常态”阶段的问题，提出了发展策略建议，即推动与沿线国家合作开展语言政策规划沟通、语言文化传播联通、语言技术人才流通、语言服务平台融通和语言体系转换互通[28]。姚敏（2019） 在剖析中文国际传播构成的基础上，分析“大华语”传播在中文国际传播中的作用，比较中文国际传播过程中不同传播圈传播主体的优劣势，指出应当重视“大华语”传播的重要作用，并提出了调整当前的中文国际传播策略的新构想[29]。

(2) 中文国际传播路径类探讨

对中文国际传播路径的探讨主要集中在四个方面。一是经济路径，二是文化路径，三是教育路径，四是提高中文在国际组织中的地位。例如，张维佳、王龙（2014）结合中国的国家安全战略，对中文国际传播的路径进行研究，进而提出孔子学院应走与国家现阶段发展战略相适应的道路，为国家安全战略的实施贡献力量[30]。何干俊（2018） 以多学科交叉为视角，结合中文国际传播的相关实践，有针对性地提出了促进当代中文国际传播的实施，如激发中文学习者的学习热情、丰富中文习得理论、促进异文化沟通、完善资助体系等[31]。佘清（2018） 认为“一带一路”倡议在实现全球范围内经济产业合作的同时，也为中文国际传播提供了有利条件和广阔平台。面对机遇和挑战，在“全球一体化”和“互联网+”大格局下，要全方位、多层次、立体化推进中文国际传播，加强对“一带一路”沿线国家的传播力度[32]。王恩界（2022） 认为本土中文师资队伍稳步增长和中文教育学科制度的不断完善是中文国际传播的必要条件，能够促进中文国际传播的持续发展，应对孔子学院对埃及中文教学与传播的促进路径进行研究，寻求发展之策[33]。樊静（2022） 提出“汉语桥”世界大学生中文比赛这一国际舞台是彰显中国魅力、传播中华文化的重要媒介，是中文国际传播的重要路径[34]。

在中文国际传播的路径研究中，学者们能够结合实际，进行持续的优化调整，切实提高了中文国际传播质量，加快了国家国际话语权体系建设的应有之义。这四种路径并非完全独立，二是相互交叉、综合作用，达到中文国际传播的最佳效果。

(3) 中文国际传播政策体系探讨

25)李宝贵，刘家宁.区域国别中文国际传播研究：内涵、进展与优化策略[J].语言文字应用，2022(01):44-55.
26)王振项.汉语国际传播与中国出入境游之互动发展研究[J].宁夏社会科学，2016(05):239-244.
27)毕彦华.“一带一路”倡议背景下汉语国际传播的新思考[J].文化学刊，2019(12):195-197.
28)刘旭.“一带一路”视阈下的汉语国际传播发展策略研究[J].语言文字应用，2019(04):73-81.
29)姚敏.“大华语”视角下的汉语国际传播策略思考[J].语言文字应用，2019(01):20-26.
30)张维佳，王龙.国家安全战略视阈下汉语国际传播的路径选择[J].国际汉语教学研究，2014(04):13-17.
31)何干俊.新时代推动汉语国际传播能力建设的路径[J].中南民族大学学报(人文社会科学版)，2022，42(07):149-155+187.2
32)佘清.“一带一路”背景下的汉语国际传播研究[J].中州大学学报，2018，35(01):85-88.
33)王恩界.孔子学院对埃及中文教学与传播的促进路径研究[J].文化与传播，2022，11(01):75-80.
34)樊静.汉语国际传播的路径选择——以“汉语桥”世界大学生中文比赛为例[J].传媒，2022(17):61-63.

中文国际传播的制度建设。陈永莉（2009）依据国外语言传播过程中的法律保障、资助体系、管理体制和研究机制等方面的成熟经验提出了中文国际传播的相关制度建设，如法律保障方面，要注意政策指导、制度规定；资助体系方面，要实行“官民并举，公私互助”的资助方式；管理体制方面，要分层管理，形成网状管理结构；研究机制方面，要国内外结合，实现研究资源的整合[35]。孙晓明（2013） 认为在中文国际传播进程中，中文教学的重心由国内转移到国外，主要面临的是标准竞争的问题，在欧盟、美国、加拿大语言教学标准的基础上，探讨了汉语语言标准的建设问题，以期为中文国际传播过程中的汉语语言能力标准建设提供借鉴[36]。

中文国际传播的战略规划。王建勤（2010）提出中文国际传播需要进一步加强标准设计的战略规划，建立标准联盟和标准兼容机制，提高中文国际传播标准的学术竞争力[37]。郭晶、吴应辉（2021） 认为中文国际传播中的国际政治机遇主要表现为中国综合实力提升带动的国际影响力提升，中国在亚非拉广大发展中国家具有较高的认可度，越来越多的国家将中文教育纳入国民教育体系。文章提出了明确中文国际传播的远景目标——让中文成为一门全球性语言、发展中国家优先战略、支持重点从基础教育向高端中文专业教育转变以及清醒认识中文国际传播中的中国有限责任和各国主体责任等6项战略调整建议[38]。

(4) 中文国际传播跨文化问题探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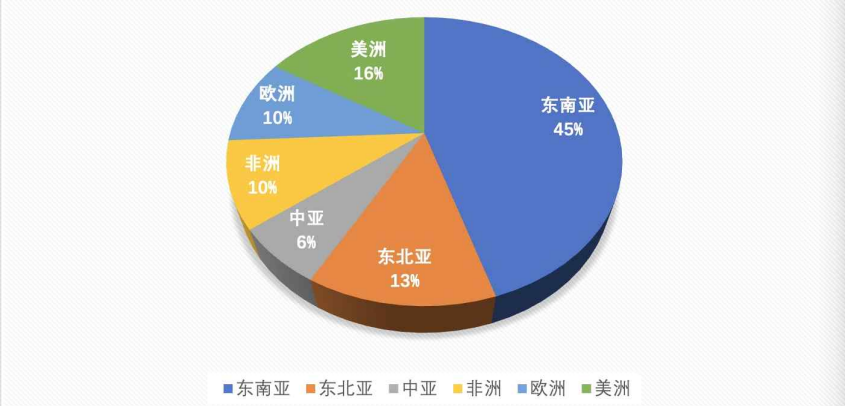
目前关于中文国际传播的跨文化问题研究成果较少。李昊（2012）认为在中文国际传播新形势下，跨文化交际能力既是国际中文教育的终极目标，也是中文国际传播者必须具备的核心素质，中文国际传播的成功有赖于教师自身具备跨文化交际能力并培养出具备此能力的学生，并提出应该将跨文化交际能力在中文国际传播中的重要性落实到国际中文师资培养及师资培训之中[39]。茅海燕（2017） 认为在中文国际传播中，中文教师扮演了重要角色，除了需具备牢固的语言知识外，更需要具备一定的跨文化交际能力，因此，认为在中文国际传播过程中，中文教师应增强文化差异的认知能力，提高跨文化交际的能力，不断提高语用的应变能力，在教学中得体得当地进行交流，从而提高中文国际传播效率[40]。曹沸（2022） 通过对中文及其在跨文化过程中涉及的审美意象进行分析，探究了基于美学共通性和差异性的跨文化意象构建，寻找美学阐释在中文国际传播中的可能性[41]。

2) 国别区域传播类研究

国别区域研究也是当前中文国际传播研究的热门视角。根据已有研究成果，目前涉及到的研究区域包括泰国、越南、缅甸、印度尼西亚等在内的东南亚国家，韩国、日本、蒙古国等东北亚国家，哈萨克斯坦、乌兹别克斯坦、吉尔吉斯斯坦、塔吉克斯坦、土库曼斯坦中亚五国，津巴布韦、肯尼亚等非洲国家，

35)陈永莉.汉语国际传播的制度建设问题[J].暨南学报(哲学社会科学版)，2009，31(01):57-61.
36)孙晓明.汉语国际传播与语言标准研究[J].民族教育研究，2013，24(03):113-117.
37)王建勤.汉语国际传播标准的学术竞争力与战略规划[J].云南师范大学学报(对外汉语教学与研究版)，2010，8(01):28-34.
38)郭晶，吴应辉.大变局下汉语国际传播的国际政治风险、机遇与战略调整[J].云南师范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2021，53(01):46-53.
39)李昊.汉语国际传播视角下的跨文化交际能力及其培养[J].现代传播(中国传媒大学学报)，2012，34(07):119-122.
40)茅海燕.论汉语国际传播中的跨文化交际与对外汉语教学[J].安徽文学(下半月)，2017(03):146-149.
41)曹沸.“共通”与“差异”:汉语国际传播的跨文化美学阐释[J].社会科学战线，2022(06):263-268.

以及法国、俄罗斯两个欧洲国家，美国、巴西两个美洲国家。不难发现，当前中文的区域国别传播研究成果较为集中，多是对东南亚及中国周边区域的传播研究，覆盖区域少而不均。



<图4> 国别区域类中文国际传播研究比例

东南亚中文传播的相关研究是目前学界涉足最多的研究领域。其研究内容主要体现在以下几个方面：一是对中文传播模式的探讨；例如，吴应辉、杨吉春（2008） 在深入分析泰国中文传播的特点之后，提取了泰国中文传播模式：母语国政府主导、民间响应、中国支持、媒体造势、超常发展，认为这是中文快速传播的有效措施[42]。邹丽冰（2012） 认为“非政府现象”是缅甸中文传播模式中最为突出的特点，“嫁接式引才助推模式”是缅甸实现中文传播跨越式发展的一个有效途径，最后对推动缅甸中文快速传播提出了五项具体建议[43]。二是中文传播有效途径的研究；例如，周倩（2015） 指出，东南亚的汉语市场是“一带一路”战略规划的重要内容，充分发挥这一地区汉字文化圈优势，加强语言文化交流“软”项目建，是推进中文传播的有效途径[44]。吴应辉、何洪霞（2016） 对20世纪以来东南亚国家中文传播发展历程进行国别比较研究后发现，东南亚多数国家华文教育发展轨迹都经历了“三起两落”，呈现出“波段共振性”，同时又具有明显的国别差异性，因此，中国应将推动语言文化国际合作交流纳入国家外交工作，推动签署语言文化国际交流协定，建立需求导向的东南亚中文传播服务体系，以促进中文和中华文化国际传播，提升中国软实力[45]。三是中文传播的历史现状类研究。如：翟媛媛（2014） 论述了中文在东南亚的传播历史。以越南和印尼为典型，详细分析了汉语在此经历的繁荣与衰落，并对当前中文传播现状进行分析，最后阐述了中文传播的新思维[46]。罗骥、钱睿（2014） 认为东南亚中文传播历史学术关注度低、独立的研究范式尚未形成、在教学体系中缺位等，主要原因是学界和管理者不重视、研究难度较大、相近研究可替代的误解等，建议加强跨学科研究，加强各个时期各类传播介质语料的收集处理，加强语言地理分布的调查研究[47]。

欧州、美洲、非洲及中亚中文传播的相关研究，主要立足于对各国传播模式的研究。例如宇璐（2019） 认为法国是欧洲中文传播的核心国家，并以法国中文传播体为研究对象，对中文在法国的传播模式进

42)吴应辉，杨吉春.泰国汉语快速传播模式研究[J].世界汉语教学，2008(04):125-132+4.
43)WAI WAI THI （邹丽冰） . 缅甸汉语传播研究[D].中央民族大学，2012.
44)周倩.“一带一路”视野下的东南亚汉语推广市场分析[J].云南师范大学学报(对外汉语教学与研究版)，2015，13(05):71-76.
45)吴应辉，何洪霞.东南亚各国政策对汉语传播影响的历时国别比较研究[J].语言文字应用，2016(04):80-92.
46)翟媛媛.汉语在东南亚的传播史[J].福建农业，2014(08):184.
47)罗骥，钱睿.东南亚汉语传播历史研究:现状与思考[J].云南师范大学学报(对外汉语教学与研究版)，2014，12(02):89-92.

行了整体的、系统的、多维度的梳理、探讨与分析[48]。肖顺良、吴应辉（2016） 从宏观视角全面系统地考察美国语言环境，剖析美国语言政策，追溯美国中文传播的历史，考察中文教学现状、中美政府的中文传播政策以及相应的助推中文传播的项目及措施，进而分析美国中文传播的动因及其相互关系和相互影响，探讨中文在美国的传播规律，以建构语言国际传播活力模型[49]。高飞（2018） 对津巴布韦的中文传播模式进行了总结，从中文国际传播的宏观视角对津巴布韦中文传播历史的发展及模式进行探讨，分析了津巴布韦中文传播过程中存在的问题，继而分析了津巴布韦的中文教学作为外语教学情况，包括津巴布韦中文课程设置、教师队伍等内容，最后提出对津巴布韦中文传播的建议及对策[50]。范晓玲（2009） 以哈萨克斯坦等国中文国际传播调研为依据，对目前中亚地区中文国际传播现状、存在的问题进行了研究，并对如何寻求中亚中文国际传播之路开展探讨[51]。

与中文国际传播研究领域开展的其他类型研究相比，区域国别中文国际传播研究具有一些自身的显著特征：

第一，从研究内容上看，主要是围绕中文国际传播在宏观层面上的发展现状、关键问题、发展趋势等方面展开研究。相较于中文教学理论、汉语习得、师资培训、教材研发等微观、中观研究内容，更倾向于中文国际传播事业发展的远景目标、传播模式、传播体系、历史现状等，是从中文国际传播整体出发的综合研究。

第二，从研究视角上看，多采用历时共时结合视角。中文国际传播是一个动态发展的系统。区域国别中文国际传播研究从时间和空间的二维视角出发，可以更系统、准确地观察特定区域或国家中文传播的具体状况。立足历时与共时结合视角也是区域国别中文国际传播研究的特征之一，有利于更加全面、系统、准确地把握区域化、国别化中文传播发展的主线、主流和本质。

第三，从研究方法上看，主要综合运用田野调查法、比较研究法、系统分析法、案例分析法等。“田野调查法”通过实地考察、问卷及访谈等方法，收集所研究对象的第一手资料，把握不同区域国家中文国际传播的历时演进和发展趋势。“比较研究法”通过多层级、多维度的比较，对区域之间、国家之间、不同文化背景下、不同语言背景下的中文传播进行定量与定性的比较研究，揭示中文国际传播的区域国别发展现状，探究其不同特征及发展规律。“系统分析法”将中文国际传播看成由若干处于相互联系并相互作用的要素构成的有机整体，在全面系统研究基础上力求从整体上把握中文传播的基本问题和规律。“案例分析法”选择有代表性国家或特色区域的中文传播典型案例，基于各种综合因素的分析来 总结经验，为其他区域国家的中文传播提供借鉴参考。

3）历史现状类研究

借古明今，对历史进行全面深入的总结有助于当今的中文国际传播。张西平（2007）详细研究了关于传教士在中文国际传播中的作用[52]，陈莉（2010） 概括为“激发起欧洲人了解中国、学习中文的热情；为外国人学习中文提供大量系统的工具书；初步培养早期中文师资，促进国际中文教学学科化[53]。”此外，陈东东（2013） 通过三位美国中文教学巨匠在不同时期各自的卓越贡献，梳理了中文在美国的传播

48)宇璐. 法国汉语传播研究[D].吉林大学，2019.
49)肖顺良，吴应辉.美国汉语传播研究[J].语言文字应用，2016(02):144.
50)高飞（GODFREY CHISONI）. 津巴布韦汉语传播研究[D].吉林大学，2018.
51)范晓玲.中亚地区汉语国际传播现状与研究[J].新疆社会科学，2009(02):46-48.
52)张西平.走向世界的汉语所面临的若干战略问题思考[J].北华大学学报(社会科学版)，2011，12(02):9-13.
53)陈莉.论传教士在汉语国际传播中的作用[J].青海社会科学，2010(06):150-154.

史，探讨了中文在美国传播的条件和因素，其研究角度颇为新颖。杨云、刘富华（2021）回顾与整理中文国际传播事业的发展历程对其今后的发展具有重大现实意义，对“十三五”时期中文国际传播事业的发展状况进行深入观察[54]。

中文国际传播历史在国际中文教育学科体系中具有非常重要的地位，但是，学界对于中文国际传播的历史现状类研究还不能令人满意，主要体现在学术关注度低、独立的研究范式尚未形成、在教学体系中缺位等。主要原因是学界和管理者不重视、研究难度较大、相近研究可替代的误解等。应加强跨学科研究，加强各个时期各类传播介质语料的收集处理，加强语言地理分布的调查研究。

4）专题类研究

目前，学界关于中文国际传播的专题性研究成果包括：中文国际传播对中国国家形象构建、传播学视角的中文国际传播、生态语言学视角的中文国际传播、互联网+视野下的中文国际传播等研究，这些都是当前研究的前沿视角，且多为前人很少涉足的领域。

王迎春、周华（2016）认为中文国际传播与国家形象的建构密切相关，消除“文化渗透论”对中文国际传播事业产生的消极影响，将有助于建构中国良好的国家形象；采取“走出去”与“引进来”策略，在新媒体时代下抓住新机遇，塑造良好的国家形象，必将进一步促进中文国际传播的繁荣发展[55]。李洁麟（2013） 从传播学角度将中文分为自然传播与社会传播，对当前中文传播类型进行了人际传播、组织传播、大众传播和网络传播的分类，并认为，在网络微环境下的自媒体时代，中文国际传播是国家战略不可分割的重要组成部分，应提倡中文国际传播的规范意识，重视中文变体研究，结合微环境下自媒体的使用，进一步研究语言传播的基本规律[56]。陈莉（2016） 以生态语言学为研究视角，对世界语言系统及系统的基本生态特征、中文国际传播的生态动因、中文国际传播的历史特征以及中文国际传播的语言生态观等几方面内容进行研究，形成生态语言学视角下中文国际传播研究的大致框架[57]。王茜（2017） 通过阐述“互联网+”背景联系中文国际传播教学的发展，分析其特点，提出对“互联网+”视野下中文国际传播教学的未来展望。

5. 评述

纵观近十五年来中文国际传播研究，值得肯定的是，学者们默默耕耘和不懈创造，中文国际传播已经取得了一定成果，丰富了该领域建设，这是新时代中文国际传播的重要财富和参考。其次，应该放开视野，跳出视野局限。具体来说，研究者应该在以下问题上进行深入研究和探讨：

1）开拓研究领域

目前中文国际传播研究已取得不少成果，主要包括国别区域类、传播要素类、历史现状类以及专题类等四个方面的研究。在中文国际传播研究领域中，相关成果主要围绕传播路径、方略等角度展开，主要集

54)杨云，刘富华.“十三五”时期我国汉语国际传播事业的发展回顾[J].出版广角，2021(04):39-41.
55)王迎春，周华.汉语国际传播与中国国家形象提升[J].世界教育信息，2016，29(23):63-66.
56)李洁麟.传播学视野下的汉语国际传播[J].新闻爱好者，2013(02):45-49.
57)陈莉. 生态语言学视角下的汉语国际传播研究[D].南京大学，2012.

中在对东南亚地区的研究，研究成果较为集中。因此，开辟新领域、实现新突破，是当前中文国际传播研究的主要课题。

中文国际传播是一项紧密服务国家战略的事业。2019年国际中文教育大会，开启了构建新的中文国际传播事业发展时代。只有把握时代脉搏，不断开拓研究领域，才能使学术永葆活力。不断推出精品力作，更好地服务国家战略和国际中文教育事业和学科发展，推动中文和中华文化加快走向世界，才能为构建人类命运共同体添砖加瓦。

2）创新研究方法

科学研究有许多方法，并各有其合理性。但目前学界在中文国际传播研究中过度追求理论性，如前文对现有成果研究方法的总结中可以发现，中文国际传播研究宏观层面论文数量较多，多为非实证类研究，科学性和可信度有待加强。在中文国际传播的新时代下，我们要创新研究方法，例如“基于大数据的量化研究方法”利用大数据支撑，开展深入的量化研究，是当前广泛应用于各学科的新兴研究方法，在量化研究方面具有独特优势；“整体系统分析法”可以帮助研究者从整体视角中鉴别筛选出有价值的材料，从而帮助研究者进行综合分析处理，适用于中文国际传播方略、途径、专项调研、项目论证等综合性较强的研究；“全球视野比较法”是指在研究中文国际传播问题时不仅要关注研究对象本身，而且要将其置于全球背景下考察，努力揭示该研究对象在全球背景下的不同国家和地区的共性和差异，有助于研究者通过研究构建全球化理念，可应用于不同国别的中文传播政策、师资培养、中文教育状况等方面。总之，要树立学术自信，不断创新研究方法，在理论基础上深入调研、开展量化研究。

3）完善国别研究

本文对中国近年来区域国别中文国际传播研究的进展情况进行了系统介绍，当前中文的区域国别类研究成果较为集中，多是对东南亚及中国周边区域的传播研究，覆盖区域少，研究方法较为单一。此外，区域国别中文国际传播领域的研究成果多停留在现象描述或概况介绍性研究上，不少研究主要靠第二手资料或翻译资料开展研究，难以掌握研究对象的第一手资料和最新发展趋势，研究结论与现实情况有所脱节。同时，因缺少数据库分析、大数据等量化研究方法支撑，现有研究深度和效度明显不足。

针对中文的区域国别传播研究，一是要对接全球多样化中文需求，加强国际合作研究，培养专业化研究人才队伍，构建区域国别研究范式。二是要提升中文的精准传播能力。针对不同区域不同国家开展有针对性的中文传播研究，同时加强对东南亚以外地区的传播研究，对接全球多样化的中文需求。三是要加强合作交流，形成研究合力。研究者在从服务全球多样化中文需求和促进中外文明交流互鉴的全局高度开展区域国别研究时，也应加强科研合作，推进协同创新。不仅要与其他高校的团队相互协调合作，还应与所研究国家或地区不同学科的学者加强沟通交流。

新时期中外文明交流互鉴的深入开展，为区域国别中文国际传播研究提供了广阔空间。中文国际传播不应局限于原有的语言教学与文化传播功能，还应充分发挥汉语母语国的优势，服务全球多样化中文学习需求，拓展中外语言文字交流合作，深化区域国别研究，构建区域国别中文国际传播研究理论体系，切实提升贴近不同区域、不同国家、不同群体受众的精准中文传播能力，积极推动中文在国际活动和中外交往中的应用，为助力国际中文教育创新发展、推动区域国家间合作深化作出应有的贡献。

【어학분과Ⅰ】 발표 ⑤

『說文解字』에 나타난 고대 중국인의 질병 발생의 원인 탐구
- 「疒」부를 중심으로

서재선*

【목 차】

1. 들어가며
2. 『說文解字』에서 나타난 고대 중국인의 질병 발생의 원인
1) 氣의 과다
2) 외상
3) 약물 오용
4) 독충
5) 음식
6) 역병
7) 과로
8) 선척인 장애
3. 나오며

1. 들어가며

『說文解字』는 동한시대 및 그 이전의 글자들을 집대성한 자전으로 수집된 글자의 범위가 광범하다. 高明의 「說文解字之新評價」에서 『說文解字』의 가치에 대한 평가를 14가지로 평가를 했다. 그중 10번째의 가치에서 "先民藏先民之史"라는 말과 12번째 가치에서 "說文供博物之資"라는 말이 있다.[1] 즉 『說文解字』는 글자의 자구 해석뿐만 아니라 글자 속에 당시 사람들의 관념과 문화성이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필자는 이러한 관점에서 동한 허신이 집필한 『說文解字』에는 질병을 인식하고 있는 글자들이 상당히 내포하고 있는데 중의학과 관련 있는 글자들은 許敬生의 통계[2]에 따르면 "1300개의 글자가 있고 그중 병리학 방면의 글자들은 427개 글자가 있고, 이 중 400개의 한자가 대부분 병명을 나타내고 이 병명을 내과, 외과, 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및 유행성 전염병 등으로 나뉠 수 있다" 라고 한다. 『說文解字』에 이와 같은 내용이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文字群이 바로 卷七下 「疒」부에 해당하는 문자들이다. 「疒」부에 나타난 질병과 관련 있는 글자는 모두 103개 글자로 다수가 질병과 유관한 글자로 "고대 중국인의 질병 발생의 근본 원인과 질병관, 질병의 종류와 증상, 질병의 쾌유" 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 이 글자들의 의미를 좀 더 이해하기 위해 『說文解字』가 출간되기 전의 출토문자들과 대조해 보고, 방증으로 중국 고대 자서와 의학에 관한 문헌을 참고하여 "고대 중국인의 질병 발생의 원인"을 탐구해 보고자 한다. 단 『說文解字』 「疒」부에서 나타나지

* 강서대학교 G2빅데이터경영학과 중국어트랙 부교수 (jsseoh@naver.com)
1) 高明, 「對說文解字之新評價」, 『高明小學論叢』臺北:黎明文化事業公司, 1988.10, pp.12-16
2) 許敬生 簡論『說文解字』在中醫研究的價值 許愼文化網 2006.08.30

않고 다른 부수에서 질병을 언급한 글자들도 고석하여 「疒」부에서 발병 원인의 미진한 부분을 보충하였다.

2.『說文解字』에서 나타난 고대 중국인의 질병 발생의 원인

1) 氣의 과다

『左传·昭公元年』“天有六氣，降生五味，發爲五色，徵爲五聲. 淫生六疾. 六氣曰陰、陽、風、雨、晦、明也. 分爲四時，序爲五節，過則爲災：陰淫寒疾，陽淫熱疾，風淫末疾，雨淫腹疾，晦淫惑疾，明淫心疾. ”[3]

이 내용은 晋侯가 병환이 생겨 秦나라에 도움을 청할 때, 秦伯이 秦나라 명의 醫和한데 晋侯를 치료하게 한 후 醫和가 “六气病源” 이라는 학설을 내놓았다. 즉 六气는 陰、陽、風、雨、晦、明으로 이 기운을 다시 풀이하면 風、寒、暑、濕、燥、火 六種의 기운으로, 六气가 몸에서 정상적으로 운행할 때는 아무런 이상이 없으나 이 기운이 너무 과하거나 부족할 때를 “六淫” 이라 하여 신체에서 발병의 원인이 된다고 한다.[4] 이 이론은 후세 “질병 발생의 원인 학설”의 시조가 되었다.『說文解字』足部에서 이 학설을 반영한 글자가 있다. 예를 들면,

① 跔

跔,『說文解字·足部』「. 天寒足跔也. 从足句聲.」段注:「跔者、句曲不伸之意.」[5]

『說文解字擊傳』卷四「跔, 筋遇寒不舒也,」[6]

『說文』의 「跔」자 허신의 해석을 보면, ‘날씨가 추워 발이 구부러진 것, 단옥재의 주석은 ’굽어져 펴지지 않는 것‘이라고 했고,『擊傳』에는 ’근육이 추위를 맞아 펴지지 않는다 ‘라고 했다.

拘,『說文解字·句部』「止也. 从句从手，句亦聲.」[7]

止,『說文解字·止部』「下基也. 象艸木出有址，故以止爲足.」段注:「止象艸木生有阯. 中象艸木初生形. 象艸過中枝莖益大. 出象艸木益滋上出達也. 故止爲足. ……以止爲人足之偁與以子爲人之偁正同. 許書無趾字. 止卽趾也. 詩麟之止. 易賁其止、壯于前止. 士昏禮北止, 注曰, 止、足也. 古文止爲趾. 許同鄭从今文. 故不錄趾字. ……」[8]

句,『說文解字·句部』「曲也. 从口丩聲.」[9]

---

3) 左丘明,『十三經注疏左傳』6,『左傳』臺北:藝文印書館印行 pp.708-709.
4)『黃帝內经』第十九卷 「素問·天元纪大論」 六十六：“鬼臾区曰：陰陽之氣各有多少，故曰三陰三陽也……鬼臾區曰：寒暑燥濕風火，天之陰陽也，曰三陰三陽上奉之. 木火土金水火，地之陰陽也，生長化收藏下應之. ”、“其與三陰三陽，合之奈何？……厥阴之上，風气主之；少陰之上，熱氣主之；太陰之上，濕气主之；少陽之上，相火主之；阳明之上，燥气（金）主之；太阳之上，寒气（水）主之. ”
5) 許愼『說文解字』卷二下 臺北:書銘出版社 1994. 10 p.84.
6) 徐鍇『說文解字擊傳』載『說文解字通釋』卷第四 臺北:臺聯國風出版社印行, 1968. p.48.
7) 許愼『說文解字』卷三上 臺北:書銘出版社 1994. 10 p.88.
8) 許愼『說文解字』卷二上 臺北:書銘出版社 1994. 10 p.68.
9) 許愼『說文解字』卷三上 臺北:書銘出版社 1994. 10 p.88.

위에서 인용한 『說文』을 정리하면 「跔」자는 “사람의 발 부위가 굽었다” 라는 의미, 「拘」, 「止」 두 글자는 “사람의 발”을 가리키고, 「句」는 “굽은 모양”을 나타낸다. 『古字通假會典·侯部第十』「句」와 「拘」가 “의미와 소리가 같은 통가자”[10]라고 하였다. 『古字通假會典』에서 예를 든 고문헌의 자료를 보면,

『山海經·墜形』「拘纓之國」, 『淮南子·墜形』「拘纓作句嬰」, 『荀子·宥坐』「其流也埤衇拘」, 『大戴禮·勸學』, 『說苑·難言』「拘作句」, 『荀子·哀公』「古之王者, 有務而拘領者矣」楊注「拘與句同.」

『古字通假會典』에서 “「拘」와 「句」는 소리와 의미가 같은 통가자“”이다. 방증된 자료를 보면, 「句」자는 굽은 모양을 나타내고, 「拘」자 역시 ’사물이 굽어진 상태’를 의미하는 글자로 통가하였다. 「跔」자는 『說文』에서 “발이 굽어 펼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拘」자는 『說文』에서 “止也” 라고 해석하여 “발”을 의미하였다. 하지만 「拘」와 「句」가 고문헌에서 통가자로 쓰인 것으로 미루어 「拘」자도 「跔」자와 같이 “발이 굽어 펼칠 수 없는 상태”로 보아도 무방하다.

「素問·生氣通天論」「因于濕, 首如裹, 濕熱不攘, 大筋軟短, 小筋馳長, 軟短爲拘, 馳長爲痿.」[11]
「素問·六元正紀大論」「凡此太陰司天之政……民病寒濕, 腹滿, 身,膜憤胕腫, 痞逆, 寒厥拘急」[12]

여기서 “軟短爲拘”, “拘急” 이라는 단어가 나타내는 것은 ‘濕熱이 오랫동안 몸에 가득하여 손발이 굽어 펴지지 않는 병’을 말한다. 『黃帝內经』「素問」편은 秦漢시대에 기술된 문헌으로 「跔」자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拘」자를 많이 사용했다. 어떤 자형이 정체자이고 이체자인지는 더 살펴보아야겠으나, 『黃帝內经』에서는 「拘」자가 「跔」 의미로 사용되었고, 두 글자 모두 「句」를 성부로 “굽은 모양”을 의미한다. 이 두 글자와 고문헌의 방증으로 볼 때 六氣중 “寒濕”의 과다로 인하여 발병의 원인이 되었다.

② 痱

痱, 『說文解字·疒部』「 , 風病也. 非風雙聲.」[13]
『說文解字約注』「乃中風之後, 手足癱瘓, 不能屈伸者, 醫經謂之風痱, 是也.」[14]

『說文』에서는 「痱」는 “風病”이라고 했고, 『說文解字約注』에서는 “중풍이 들어 손발에 마비가 와 펼수 없는 것으로, 의경에서는 風痱라고도 했다” 이것은 六氣 중 “風”으로 인한 발병이다.

③ 痹

10) 『古字通假會典』齊南:齊魯書社出版發行, 1997.7, p.337.
11) 『黃帝內经』第一卷「素問·生氣通天論」三 洪元植 『黃帝內经素問解釋』, 古文社 1990.05 p.12.
12) 『黃帝內经』第二十一卷「素問·六元正紀大論」七十一원문, http://www.360doc.com/document/21/0510/16/74652311_976507734.shtml 2022.10.12. PM.3:45
13) 許愼 『說文解字』卷二下 臺北:書銘出版社 1994. 10 p.353..
14) 張舜徽 『說文解字約注卷十四』2冊 武漢: 華中師範大學出版社, 2009.12 p.1829.

痹,『說文解字·疒部』「 , 溼病也. 从疒畀聲. 必至切」段注「素問痹論、痿論各爲篇. 岐伯曰, 風寒溼三氣襍至. 合而爲痹也. 从疒畀聲. 必至切, 十五部.」[15]

『漢書·藝文志』「『五臟六腑痹十二病方』三十卷 」顔師古注曰「痹, 風濕之病, 音必二反.」[16]

「素問·痹論」「風寒溼三氣雜至,合而爲痹也 其風氣勝者爲行痹, 寒氣勝者爲痛痹, 濕氣勝者爲자비야.」[17]

(3·901), (3·902), (3·903), (3·904)[18]

「痹」자는『說文』에서 "습기로 인해 발병된 것"으로 당시 허신이 알고 있는「痹」병의 발병 원인이 '습기'에만 국한되었다. 하지만 단옥재는『黃帝內經·素問』을 인용하여 風, 寒, 溼 三氣가 서로 섞여 체내에 과다하게 영향을 미칠 때 발병하는 마비 증상을「痹」로 해석하여 허신의 해석을 보충하였다.『漢書·藝文志』顔師古 주석에는 "風濕之病" 이라고 하여 "바람과 습기"로 인한 병으로 해석하였다. 위의 인용한 내용을 종합하면, 허신은「痹」자를 단지 '습기'로 인해 발병된 병으로 보고 있으나,『黃帝內经·素問』에는 六氣중 '風, 寒, 溼 三氣의 과다로 인해 발병된 병으로 기술하고 있다.「痹」자의 자형은 전국문자에서 처음으로 출현하였고, 당시 '人名'으로 사용되었다.[19]

④ 瘃

瘃,『說文解字·疒部』「 , 中寒腫覈. 从疒豕聲. 陟玉切」段注「趙充國傳, 手足皸瘃. 文穎曰, 瘃, 寒創也. 按腫覈者, 腫而肉中鞕, 如果中有覈也. 覈、核古今字, 从疒豕聲, 陟玉切, 三部.」[20]

『漢書·趙充國辛慶忌傳』第三十九「將軍士寒, 手足皸瘃」文穎曰「皸,坼裂也. 瘃, 寒創也.」[21]

『黃帝內經·靈樞經·陰陽二十五人』「足陽明之下血氣盛則下毛美長至胸, 血多氣少則下毛美短至臍, 行則善高舉 足, 足趾少肉足善寒, 血少氣多則肉而善瘃, 血氣皆少則無毛有則稀、枯悴, 善痿厥, 足痺.」[22]

「瘃」자는『說文』에서 "寒氣에 걸려 살에 종기가 생겨 과일 속의 씨처럼 부풀어 올랐다" 라고 했다.『漢書·趙充國辛慶忌傳』文穎注에서 "동상"이라고 해석하였고,『黃帝內經·靈樞經·陰陽二十五人』에서도 "살에 동상이 걸린 것"이라고 했다.「瘃」는 六氣 중 "寒氣"의 과다로 발병된 병임을 알 수 있다.

2) 외상

① 胅/跌/踢

15) 許愼『說文解字』卷七下 臺北:書銘出版社 1994. 10 p.354..
16) 楊家駱「漢書·藝文志」,『新校本漢書幷附編二種』二 臺北:鼎文文書局印行 1995.01, p.1777.
17)『黃帝內经』卷十三「素問·痹論四十三」, 洪元植『黃帝內经素問解釋』, 古文社 1990.05 p114.
18) 자형 출처 高明·葛英會『古陶文字徵』北京:中華書局 1991.02, p.102.
19)『戰國古文字典』下 北京:中華書局 1998.09, p.1298./孫剛『齊文字編』福建人民出版社 2010.01, p.212.
20) 許愼『說文解字』卷七下 臺北:書銘出版社 1994. 10 p.354..
21) 楊家駱「漢書·趙充國辛慶忌傳」第三十九,『新校本漢書幷附編二種』四 臺北:鼎文文書局印行 1995.01, p.2980.
22) "족양명의 아래에 혈기가 왕성하면 음모가 아름다우며 길어 가슴까지 이어지고, 혈이 많고 기가 적으면 음모가 아름다우나 짧아 배꼽까지 이어져 걸어 다닐 때 발을 높이 들고 발가락 살이 적어 발이 쉽게 차게 되고, 혈이 적고 기가 많으면 살에 동상이 잘 걸리며, 혈기가 모두 적으면 털이 없고 혹 있더라도 드물며 말라 초췌하며 위궐증과 족비증이 잘 생기게 됩니다." 출처: 한의학고전DB https://mediclassics.kr/

胅,『說文解字·肉部』「 , 骨差也. 从肉失聲, 讀與跌同. 徒結切」段注「骨差也, 謂骨節差忒不相值, 故胅出也. 蘇林漢書注云, 窊胅, 窊謂入, 胅謂出.」[23]

跌,『說文解字·足部』「 , 踢也. 从足失聲, 一曰越也. 徒結切.」[24]

踢,『說文解字·足部』「, 跌踢也. 从足昜聲, 一曰搶也. 徒郎切.」[25]

『說文解字繫傳·足部』「跌, 踢也, 臣鍇曰, 跌踢, 邁越不拘也.」[26]

『集韻·沒韻』「跌, 足傷也.」[27]

「胅」자는 "骨差也" 라고 풀이하였다. 즉 "골격이 차이가 난다" 라는 뜻이다.「胅」자와「跌」 발음이 같다고 했다. 단옥재 주에서는 "骨差也, 謂骨節差忒不相值, 故胅出也" 라고 하였는데, 즉 "골절이 차이가 많이 나서 서로 맞지 않아 뼈가 튀어나온 상태"라고 했다.『說文解字繫傳』에서는 "跌踢, 邁越不拘也"라고 풀이했는데. 즉 "제재를 받지 않고 내달리면 결국 실족하여 넘어지게 된다." 그래서『集韻·沒韻』에서는「跌」를 "足傷"이라고 풀이하였다. 즉 "骨差"의 원인은 "넘어져서 다치는 외상"으로 인한 질병이다.

② 疢/疿/瘢/痍

疢,『說文解字·疒部』「 , 疢疿, 毆傷也. 从疒只聲, 諸氏切.」段注「疢疿, 二字各本無. 依全書通例補. …應劭曰, 以杖手毆擊人, 剝其皮膚, 起青黑而無創瘢者. 律謂疢疿. 按此, 應注譌脫. 急就篇顔注云, 毆人皮膚腫起曰疢, 毆傷曰疿. 葢應注律謂疢下奪去六字. 當作其有創瘢者謂疿. 文選嵇康詩, 怛若創疿. 李善引說文, 疿、瘢也, 正與應語合, 皆本漢律也. 疢輕疿重, 遇人不以義而見疢. 罪與疿人等. 是疢人者輕論, 見疢者重論. 故曰惡不直也. 創瘢謂皮破血流.」[28]

疿,『說文解字·疒部』「疢疿也. 从疒有聲.」段注「疢疿也. 按依許全書之例, 則疢下云疢疿, 毆傷也. 此但云疢疿也. 而義已足.」[29]

瘢,『說文解字·疒部』「痍也. 从疒般聲. 薄官切」段注「按古義傷處曰, 瘢」[30]

痍,『說文解字·疒部』「傷也. 从疒夷聲. 以脂切」[31]

『說文通訓定聲』「凡毆傷皮膚起青黑而無創瘢者爲疢, 有創瘢者曰疿.」[32]

「疢」,「疿」자는 "구타로 인한 상처"이다. 그러나 이 두 글자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그 차이는 단옥재 주와『說文通訓定聲』에 의하면, "구타를 당했는데, 피부가 붓고 멍들은 경우는「疢」이고, 피부가 붓고 멍든 것뿐만 아니라 피부가 벗겨지고 피가 흘러 흉터가 생겨 상처가 난 것은「疿」이다." 둘 다 몽둥이나 손으로 맞아서 멍들은 상처이나「疢」는 그 상처가 가볍고,「疿」는 상처가 중한 경우이다.「疿」,「瘢,」,「痍」 세 글자 들은 서로 의미를 互用하여 "외상으로 인해 상처가 나서 흉터가 생긴 것"을 의미한다.

23) 許愼『說文解字』卷四編 下 臺北:書銘出版社 1994. 10 p.174.
24) 許愼『說文解字』卷二編 下 臺北:書銘出版社 1994. 10 p.84.
25) 許愼『說文解字』卷二編 下 臺北:書銘出版社 1994. 10 p.84.
26) 徐鍇『說文解字繫傳』載『說文解字通釋』卷第四 臺聯國風出版社印行, 1968.02, p.48.
27)『集韻·沒韻第十一』入聲九, 中華書局聚珍倣宋版印 p.22.
28) 許愼『說文解字』卷七編 下 臺北:書銘出版社 1994. 10 p.354.
29) 許愼『說文解字』卷七編 下 臺北:書銘出版社 1994. 10 p.354.
30) 許愼『說文解字』卷七編 下 臺北:書銘出版社 1994. 10 p.355.
31) 許愼『說文解字』卷七編 下 臺北:書銘出版社 1994. 10 p.355..
32) 朱駿聲『說文通訓定聲』臺北:藝文印書館印行, 1975.08 p.543.

③ 𥫗

𥫗,『說文解字·矢部』「𥫗, 傷也, 从矢傷省聲.」段注「謂矢之所傷也, 引伸爲凡傷之偁. 各本篆作𥫗, 注曰易聲. 鉉於傷下𥫗下曰𥫗省聲, 知字本作𥫗, 今正爲傷省聲.」[33]

𥫗,『說文通訓定聲』「傷也, 从矢昜聲, 與傷略同. 此謂傷於矢.」[34]

「𥫗」자는 "화살에 맞아 생긴 상처"이다. 이후 그 의미가 확대되어 모든 상처에 사용되었고, 이후 "人"변의 "傷"자와 통용하였다.

3) 약물 오용

① 瘌

瘌,『說文解字·疒部』「瘌, 楚人謂藥毒曰痛瘌. 从疒剌聲, 盧達切.」[35]

『方言』「凡飮藥傅藥而毒, 南楚之外謂之瘌., 自關而西謂之毒瘌, 痛也.」[36]

「瘌」자는『說文』에서 "독한 약을 먹고 심히 아픈 것"이라고 해석했고,『方言』에서도 "약을 마시거나 복용하여 몸에 독이 퍼진 것을 남초지역 밖에서는 "瘌"라고 하고, 관서지역에서는 "毒瘌"라고 하여, 매우 아픈 것을 말한다." 즉「瘌」는 약물을 오용하여 생긴 독으로 인해 매우 아픈 상황을 말한다.

② 癆

癆,『說文解字·疒部』「癆, 朝鮮謂藥毒曰癆. 从疒勞聲, 郎到切.」

『方言』「凡飮藥傅藥而毒,……北燕朝鮮之間謂之癆.」戴震疏引『廣雅』「癆毒, 瘌痛也.」[37]

「癆」자 역시「瘌」자와 동일한 의미로 "약물 오용으로 인한 독으로 인해 심하게 앓는 질병"을 말한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 사용하는 단어가 다르다.『方言』에 의하면 "北燕朝鮮"지역에는「癆」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4) 독충으로 인한 질병

① 蜮

33) 許愼『說文解字』卷五編 下 臺北:書銘出版社 1994. 10 p.229.
34) 朱駿聲『說文通訓定聲』臺北:藝文印書館印行, 1975.08 p.889.
35) 許愼『說文解字』卷七編 下 臺北:書銘出版社 1994.10 p356.
36) 戴震『方言疏證』卷三 中華書局聚珍仿宋版印本, p.4.
37) 戴震『方言疏證』卷三 中華書局聚珍仿宋版印本, p.4.

蜮,『說文解字·虫部』「蜮, 短弧也,似鼈, 三足, 以氣害人. 从虫或聲.」段注「短弧也. 弧各本作狐, 今正. ……按此因其以氣射害人, 故謂之短弧. 作狐, 非也. 其氣爲矢, 則其體爲弧, 侣鼈三足. 洪範傳, 陸璣疏皆云爾, 氣害人. 陸疏云, 人在岸上, 影見水中, 投人影則殺之. 師古曰, 短弧卽射工也. 亦呼水弩. 陸氏佃, 羅氏願皆曰, 口中有橫物如角弩, 聞人聲以氣爲矢, 用水勢以射人, 隨所箸發創, 中影亦病也.」[38]

『說文解字議證·虫部』「蜮, 似鼈, 含沙射人, 爲害如狐也 .」[39]

『山海經· 大荒南經』「射蜮是食.」郭璞注「蜮. 短狐也, 似鼈, 含沙射人, 中之則病死.」[40]

『周禮·秋官』「壺涿氏, 掌除水蟲, 以炮土之鼓敺之, 以焚石投之. 若欲殺其神, 則以牡午榛貫象齒而沈之, 則其神死, 淵爲陵.」[41]

「蜮」자는 『說文』과 단옥재 주에서 "短弧也"라고 해석하였고, 즉 "물여우"라고 하는 독충이다. 『說文解字議證·虫部』가을에 서식하며, 사람에게 모래를 쏘아 해를 입히는 독충으로 그 폐해가 마치 여우와 같다고 하여 "短弧"라고 명명하였다. 『山海經· 大荒南經』에서 "弧蜮에게 잘못 쏘이면 심할 경우 죽음에 이르게 된다"고 한다. 그래서 『周禮·秋官』에서 "壺涿氏라는 관리를 두어 가을이 되면 "弧蜮"을 잡는 일을 하였다"

② 蛕

蛕,『說文解字·虫部』「蛕, 腹中長蟲也. 从虫有聲. 戶恢切.」[42]

『玉篇·虫部』「人腹中長蟲也. 蛕上同.」[43]

『廣韻·灰韻』「蚘, 人腹中長蟲.」[44]

『集韻·灰韻』「蛕, 或作 蚘, 蛔.」[45]

『說文』과 『玉篇』은 「蛕」자를 "배 속에 있는 긴 회충"으로만 해석하였다. 『廣韻』, 『集韻』은 「蛕」자가 아닌 「蚘」, 「蛔」자로 「蛕」자의 의미를 대신하였다. 그러나 『說文』에서는 「蚘」, 「蛔」자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 『說文』이후 생성된 글자이다. 회충으로 인한 폐해는 기생충이 일반적인 기생 부위를 벗어나 여러 장기로 들어가는 것이다. 위에 들어가서 위경련, 쓸개에 들어가서 염증을 일으키거나 췌장에 들어가서 췌장염을 일으키며, 또 충수에 들어가서 충수염을 일으킨다. 드물게는 장벽을 뚫고 복막염을 일으키며, 그 밖에 신체 각부에 침입하여 위험한 증세를 일으킨다. 또한 충란이 핵이 되어 담석을 형성하는 수도 있다. 이러한 자세한 상황은 당시 의술의 미발달로 고문헌에는 자세한 기록이 없으나 현재 의학적인 판단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③ 蟯

38) 許愼『說文解字』卷十三編上 臺北:書銘出版社 1994.10 p.678.
39) 桂馥『說文解字議證』上海古籍出版社 2021.01.p.1170.
40) 郭璞『山海經校注』洪氏出版社印行, 1980.11, p.373.
41)『周禮』載 『十三經注疏』3 藝文印書館印行, 1985.12, p.559./呂宗力主编, 『中國歷代官制大辭典』修訂版 : 商務印書館, 2015.01, p.728.
42) 許愼『說文解字』卷十三編 上 臺北:書銘出版社 1994. 10 p.354.
43)顧野王 『玉篇』卷二十五 四庫全書本 https://zh.wikisource.org/wiki/%E7%8E%89%E7%AF%87_(%E5%9B%9B%E5%BA%AB%E5%85%A8%E6%9B%B8%E6%9C%AC)/%E5%8D%B725
44) 沈兼士 校訂本『廣韻聲系』大化書局 1984.10 p.953.
45)『集韻』平聲二 灰十五 中華書局聚珍倣宋板印 1912-1948 p16.

蟯,『說文解字·虫部』「 ,腹中短蟲也. 从虫堯聲.」段注「腹中短蟲也. 倉公列傳. 診其病曰蟯瘕. 从虫堯聲.」46)

「蟯」자는『說文』에서 "배 속안의 짧은 기생충"으로 해석하였다. 단옥재 주에서 인용한『史記·扁鵲倉公列傳』에서 이 병을 "蟯瘕"라고 진단하였다. 즉 "짧은 기생충 즉 요충으로 인한 병"이다. 요충은 주로 불결한 음식을 섭취하여 脾胃가 허약해져 생기는 병이다.

④ 蠱

蠱,『說文解字·虫部』「 , 腹中蟲也. 春秋傳曰, 皿蟲爲蠱, 晦淫之所生也. 枭桀死之鬼亦爲蠱. 从蟲从皿, 皿, 物之用也.」47)『周禮·秋官·庶氏』「庶氏掌除毒蠱, 以攻说檜之, 嘉草攻之. 凡歐蟲, 則令之比之.」鄭元注「毒蠱, 蟲物而病害人者.」48)

「蠱」자는『說文』에서 "배 속에 있는 벌레"라고 풀이하였다.『周禮』에서는 "사람에게 해를 입히는 독충" 이라고 했다.「蠱」자는 갑골문에도 이미 기록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이 "蠱毒之疾(독충으로 인한 질병)"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래서「蛕」,「蟯」의 질병을 통틀어「蠱」라고 한다49). 또 다른 갑골문에서는「蠱」자가 "재앙"이라는 의미로 인신되었는데.50) 왜냐하면 몸 안의 기생충으로 인해 사람의 건강과 목숨을 앗아갔기 때문이다.

5) 음식

① 酲

酲,『說文解字·酉部』「 , 病酒也. 一曰醉而覺也, 从酉呈聲, 直貞切.」段注「病酒也. 小雅, 憂心如酲. 傳曰, 病酒曰酲. 一曰醉而覺也.」51)

『後漢書·文苑列傳』「惘焉若酲.」李賢 注「酲, 病酒也.」52)

『晏子春秋·諫言上三』「景公飮酒, 酲, 三日而後發. 晏子見曰, 君病酒乎？公曰, 然.」53)

「酲」자는『說文』,『後漢書·文苑列傳』,『晏子春秋·諫言上三』에서 "病酒也"라고 풀이했다. 즉 "음주과다로 인한 술병이 난 것"을 말한다.

② 斷

46) 許愼『說文解字』卷十三編 上 臺北:書銘出版社 1994. 10 p.670.
47) 許愼『說文解字』卷十三編 上 臺北:書銘出版社 1994. 10 p.683.
48)『周禮』載『十三經注疏』3 藝文印書館印行, 1985.12, p.557.
49) 于省吾『甲骨文字詁林』第三冊 1996.05, pp2646-2647.
50) 徐中舒『甲骨文字典』成都: 四川辭書出版社 1993. 09, pp.1428-1429..
51) 許愼『說文解字』卷十四編 下 臺北:書銘出版社 1994. 10 p.757.
52)『後漢書·文苑列傳』載『後漢書』(四) 卷八十 下,「文苑列傳」七十 下「惘焉若酲, 撫劍而嘆」臺北:洪氏出版社印行, 1978.10, p.2644-2645.
53) https://baike.baidu.com/item/%E7%97%85%E9%85%92/906158?fr=aladdin

齗『說文解字·齒部』「 , 齒傷酢也.」段注「齒傷酢也. 酢者今之醋字, 酸澀也.」[54]

「齗」자는 "齒傷酢也"라고 풀이하였고, 「酢」자는 「醋」자와 古今字이다. 즉 "시다" 라는 뜻이다. 『說文』과 단옥재 주를 살펴보면, 즉 "신 것을 과다 복용하여 이가 상하고 시린 병"에 걸린 것을 의미한다.

6) 역병으로 인한 질병

疫病은 이후 "瘟疫"이라고도 부르며, 강렬한 전염성이 있는 외래적인 요소로 인해 발병되는 것이다. 『周禮·夏官·司爟』「司爟掌行火之政令, 四時變國火, 以救時疾.」賈公彥疏「司爟,……所以禳去時氣之疾也.」[55] 『周禮』에는 "時疾"이라는 기록이 있는데, 당시의 전염병을 일컫는 말이다. 그럼 『說文』에서 역병에 해당하는 글자를 살펴보겠다.

① 疫, 癘

疫,『說文解字·疒部』「 , 民皆疾也. 从疒, 役省聲, 營隻切.」[56]

癘,『說文解字·疒部』「, 惡疾也. 从疒, 蠆省聲, 洛帶切.」[57]

『漢書·刑法志』「鬻棺者欲歲之疫」顔師古注「鬻, 賣也, 疫, 癘病也.」[58]

『周禮·天官·疾醫』「四時皆有癘疫.」鄭玄注「癘疫, 氣不和之疾.」賈公彥疏 : 「癘謂癘疫……癘氣與人爲疫.」[59]

『後漢書·鐘離意傳』「會稽大疫, 死者萬數.」李賢注「疫, 癘氣也.」[60]

『左傳·哀公元年』「在國天有災癘.」杜預注「癘, 疾疫也.」[61]

『山海經·西山經』「食之已癘.」郭璞注「癘, 疾疫也, 或曰惡創.」[62]

『說文』에서 「疫」은 "백성들 모두가 병에 걸렸다"는 의미로 "당시 전국적인 유행성 전염병"이 있었음을 나타낸다. 「癘」는 "악질"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漢書·刑法志』, 『後漢書·鐘離意傳』, 『左傳·哀公元年』, 『山海經·西山經』에서 「疫」과 「癘」 두 글자가 '瘟疫'이라는 뜻으로 互訓되고 있다. 『周禮·天官·疾醫』鄭玄注, 賈公彥疏에서 이 두 글자가 합하여 구체적으로 "기가 조화롭지 못하여 발생하는 병으로, 癘氣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 발병하는 전염병이다."라고 했다. 『後漢書·鐘離意傳』에서도 "會稽에서 大疫에 걸려 수많은 사람이 사망했다"는 기록을 보면 「癘」와 「疫」자는 '전염병'을 나타내는 글자이다. 그리고 『說文』이전의 문헌을 보면, 「癘」자의 함의가 좀 더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癘」자는 「疫」과 같이 '전염병'이라는 뜻으로 쓰였고, 또 '惡瘡' 즉 '문둥병'이라는 의미에도 사용되었

54) 許愼『說文解字』卷二編 下 臺北:書銘出版社 1994. 10 pp.80-81.
55) 『周禮·夏官·司爟』載『十三經注疏』3 臺北:藝文印書館印行 1985.12, p.458.
56) 許愼『說文解字』卷七下 臺北:書銘出版社 1994. 10 p.355.
57) 許愼『說文解字』卷七下 臺北:書銘出版社 1994. 10 p.354.
58) 楊家駱「漢書·刑法志」,第三『新校本漢書幷附編二種』二 臺北:鼎文文書局印行 1995.01, p.1110.
59) 『周禮·天官·疾醫』載『十三經注疏』3 臺北:藝文印書館印行 1985.12, p.73.
60) 『後漢書·鐘離意傳』載『後漢書』(二) 臺北:洪氏出版社印行, 1978.10, p1406.
61) 『左傳·哀公元年』載『十三經注疏』6 臺北:藝文印書館印行 1985.12, p.992.
62) 『山海經·西山經』載『山海經校注』臺北:洪氏出版社印行 1981.11, p.25.

다. 그 예로,『黃帝內經·素問·風論』「癘者, 有榮氣熱胕, 其氣不淸, 故使其鼻柱壞色敗, 皮膚瘍潰, 風寒客於脈而不去名曰癘風. 或名曰寒熱.」[63] 그래서『說文』에서「癘」의 의미를 "악질"이라고 풀이하였다.

「疫癘」로 인한 병의 심각성은『諸病源候論』卷十「人感乖戾之氣而生病, 則病氣轉相染易, 乃至滅門, 延及外人.」[64]에서 "戾之氣가 바로 "疫癘"이고, 이 사악한 병균의 기운으로 인해 감염되어 발병된다. 그 병균은 쉽게 전염이 되어 결국에는 멸문지화를 당하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옮겨간다."라고 했다. 그래서 고대 중국인들은 "疫癘"의 기운이 폭발하면 그 결과가 심각하여 신령에게 재앙을 피하게 해달라고 빌었다. 그 기록이『說文』에도 나타난다.

> 禜『說文解字·示部』「, 設綿蕝為營, 以禳風雨, 雪霜, 水旱, 厲疫于日月星辰, 山川也..」[65]
>
> 禳『說文解字·示部』「 , 磔禳祀, 除癘殃也. 古者燧人禜子所造, 从示襄聲.」[66]

「禜」,「禳」자에서 "厲疫"의 재앙을 피하게 해달라고 일월성신에게 빌었는데, 당시 고대 중국인이 "厲疫"에 대한 공포가 어떠함을 짐작할 수 있다.

② 瘧

「瘧」자는 갑골문에도 등장한다. 徐中舒는『甲骨文字典』에서 (一期 存1.1274), (一期 前5.31.1)의 글자를 "질병"을 나타내는 글자가 아닐까 하고 의문으로 남겼다.[67] 그러나『甲骨文合集』에는 (合集17452)로 "夢"으로 해석하였다.[68] 그래서 소수의 학자들은 徐中舒의 학설을 인용해 상나라 시대의 온역이 있었음의 증거 문자로 삼으려 하나 아직 이 글자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여 필자는 이 글자를 갑골시대의 온역을 나타내는 글자로 삼지 않겠다. 그리고 戰國시기 곽점초간에 (郭.緇3.27)이 출현하였다.『郭店楚簡·緇衣』「隹乍五虐(虐)之埅(刑)曰法. 子曰, 正(政)之不行, 教之不成也, 則埅(刑)罰不足恥.」[69]곽점초간에서의 "五虐"은『尙書·呂刑』「苗民弗用靈, 制以刑, 惟作五虐之刑曰法. 殺戮無辜, 爰始淫爲劓、刵、椓、黥.」[70]에서 말하는 고대 중국의 다섯 가지 잔혹한 형벌을 말한다. 병명 "학질"에 속한 "五瘧"은『黃帝內經·素問』에서 살펴보면,

> 『黃帝內經·素問·刺瘧論』「肺瘧者令人心寒, 寒甚熱, 熱間善驚, 如有所見者, 刺手太陰陽明. 心瘧者 令人

63)『黃帝內经』第十二卷「素問·風論」四十二 洪元植,『黃帝內经素問解釋』, 古文社 1990.05 p.112. "문둥병은 영기(榮氣)가 뜨거워져 썩어서 그 기운이 맑지 않으니 그러므로 그 비주(鼻柱)로 하여금 무너져서 색이 썩게 하며 피부가 양궤(瘍潰)하게 합니다. 풍한의 사기가 맥에 머물러서 물러가지 않으니, 이름하여 려풍(癘風)이라 하고 혹 이름하여 한열(寒熱)이라 합니다. "「번역출처: https://mediclassics.kr/books/162/volume/87」

64) 隋代 巢元方等『諸病源候論』중국 최초 각종 질병원인, 병리변화, 증상들을 기술한 전문 서적 https://www.zysj.com.cn/lilunshuji/zhubingyuanhoulun/623-14-1_group.html 2022.10.26. PM3:20

65) 許愼『說文解字』卷一上 臺北:書銘出版社 1994. 10 p.6.

66) 許愼『說文解字』卷一上 臺北:書銘出版社 1994. 10 p.7.

67) 徐中舒는『甲骨文字典』「己亥卜央貞卓有 勿有匄亡匄十月」成都: 四川辭書出版社 1993. 09, pp.842-843.

68) 姚孝遂『甲骨刻辭類纂』下冊,「己亥卜爭貞 有夢勿崇有匄無匄十月」1989.01, 中華書局 p.1187/「17452」편 탁본 載 郭沫若『甲骨文合集』6 1977.12 p2371.

69) 탁본: 張光裕『郭店楚簡研究』第一卷 文字編 臺北: 藝文印書館印行 1999.01, p.522./자형: 張守中『郭店楚簡文字編』北京:文物出版社, 2000.05 p.114.

70)『尙書』載『十三經注疏』1 臺北:藝文印書館印行 1985.12, p.296.

煩心甚, 欲得清水, 反寒多, 不甚熱, 刺手少陰. 肝瘧者, 令人色蒼蒼然, 太息, 其狀若死者, 刺足厥陰, 見血. 脾瘧者, 令人寒, 腹中痛, 熱則腸中鳴, 鳴已汗出, 刺足太陰. 腎瘧者, 令人洒洒然, 腰脊痛, 宛轉, 大便難, 目眴眴然, 手足寒, 刺足太陽少陰. 胃瘧者, 令人且病也. 善飢而不能食, 食而支滿腹大, 刺足陽明太陰橫脈, 出血. 瘧發身方熱, 刺跗上動脈, 開其空出其血, 立寒, 瘧方欲寒, 刺手陽明太陰, 足陽明太陰.」[71]

병명 학질에 속한 "五瘧"은 "肝瘧, 心瘧, 脾瘧, 肺瘧, 腎瘧"을 말한다. 학질이라도 그 부위가 다르면 발생하는 寒氣와 熱氣의 경중이 다르다. 『說文』과 고문헌에서는 「瘧」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살펴보겠다.

瘧, 『說文解字·疒部』「熱寒休作病. 从疒从虐, 虐亦聲. 魚約切」 段注「謂寒與熱一休一作相代也. …… 凡疾或寒或熱耳. 而此疾先寒後熱. 兩疾似酷虐者.」

『黃帝內經·素問·瘧論』「瘧之始發也, 先起于毫毛, 伸欠乃作, 寒慄鼓頷, 腰脊俱痛, 寒去則內外皆熱, 頭痛如破, 渴欲冷飮.」[72]

『周禮·天官·疾醫』「秋時有瘧寒疾.」 賈公彦疏「秋時陽氣漸消,陰氣方盛,惟火沴金,兼寒兼熱,故有瘧寒之疾.」[73]

『釋名·釋疾病』「瘧、酷虐也.」[74]

『廣雅·釋詁』「虐, 惡也」[75]

『說文解字·虍部』「虐, 殘也.」[76]

「瘧」자에 대한 해석은 『說文』과 『黃帝內經·素問·瘧論』에서 그 의미가 일치하다. 그 발병 증상이 "열기와 한기가 번갈아서 오는 현상"으로 해석하였다. 『釋名·釋疾病』에서 학질도 학질모기에 물려 감염되는 전염병으로 그 고통과 후유증이 아주 심하고 잔인한 병으로 당시 많은 사람 들이 학질로 사망하였다.

---

71) 폐학(肺瘧)은 사람으로 하여금 가슴이 서늘하여 오한이 심하다가 발열이 나게 하고, 열이 나는 사이에 자주 놀라며 마치 헛것이 보이는 것이 있는 것 같으니, 수태음경(手太陰經)과 수양명경(手陽明經)에 침을 놓습니다. 심학(心瘧)은 사람으로 하여금 가슴이 번거로운 게 심하여 시원한 물을 마시게 하고자 하는데, 도리어 오한은 많고 발열은 심하지 않으니, 수소음경(手少陰經)에 침을 놓습니다. 간학(肝瘧)은 사람으로 하여금 얼굴에 푸른색이 나타나며 크게 숨을 몰아 쉬고 그 모습이 마치 기절한 듯하게 하니, 족궐음경(足厥陰經)에 침을 놓아 피를 냅니다. 비학(脾瘧)은 사람으로 하여금 오한이 날 때는 뱃속이 아프게 하다가 발열이 날 때는 뱃속에서 꾸룩꾸룩 소리가 나며, 뱃속에서 소리가 나는 것이 그치고서 땀이 나니, 족태음경(足太陰經)에 침을 놓습니다. 신학(腎瘧)은 사람으로 하여금 오싹오싹하게 하며 허리와 등줄기가 아파서 몸을 구부리고 뒹굴며 대편을 보기가 어려우며 눈앞이 어질어질하고 손발이 차가우니, 족태양경(足太陽經)과 족소음경(足少陰經)에 침을 놓습니다. 위학(胃瘧)도 사람으로 하여금 장차 병들게 함에 자주 배고파하면서도 음식은 잘 먹지 못하며 음식을 먹고 나서는 옆구리가 벌어지는 듯하며 그득하고 배가 불룩해지니, 족양명경(足陽明經)과 족태음경(足太陰經)의 橫脈에 침을 놓아 피를 냅니다. 학질이 발작하여 몸에 바야흐로 열이 나려고 할 때에는 부상(跗上)의 동맥에 침을 놓아 그 혈자리를 열어서 피를 내면 곧 몸이 서늘해지고, 학질발작이 바야흐로 오한이 나려고 할 때에는 수양명경(手陽明經)과 수태음경(手太陰經)과 족양명경(足陽明經)과 족태음경(足太陰經)에 침을 놓습니다. 번역출처: https://mediclassics.kr/books/162/volume/86 한의학 고전 DB

72) 학(瘧)이 처음 발생함이 먼저 호모(毫毛)에서 오싹오싹함이 일기 시작해서 기지개를 켜고 하품을 하고 나서 이에 발작하니, 오한(惡寒)이 나서 몸이 떨리면서 아래턱을 두드리며 허리뼈가 모두 아프고, 오한이 사라지면 안과 밖에서 모두 열이 나면서 두통이 머리가 깨지듯이 심하며 갈증이 나서 찬 음료를 마시고자 합니다. 번역출처: https://mediclassics.kr/books/162/volume/86 한의학 고전 DB

73) 『周禮·天官·疾醫』載『十三經注疏』3 臺北:藝文印書館印行 1985.12, p.73.

74) 『釋名·釋疾病』載『釋名疏證』臺北:廣文書局 1995.02, p.265.

75) 『廣雅·釋詁三』載『廣雅疏證』卷三下 臺北:廣文書局 1990.01, p.93

76) 許愼『說文解字』卷五上 臺北:書銘出版社 1994. 10 p.211.

③ 痞

痞,『說文解字·疒部』「痞, 有熱瘧. 从疒否聲. 春秋傳曰, 齊侯疥, 遂痞.」段注「春秋傳曰, 齊侯疥, 遂痞. 左傳昭二十年文. 按梁元帝及袁狎, 顔之推欲改疥爲痎. 所謂無事而自擾也. 陸氏德明旣辨之矣.」[77]

『左傳·哀公二年』「痞作而伏.」杜預注「痞, 瘧疾也.」[78]

『集韻·去聲八』「痞, 痎病.」[79]

疥,『說文解字·疒部』「疥, 搔也.」段注「疥, 搔瘍也.」[80]

「痞」자는 "熱氣만 있는 학질"로 단옥재 주에 의하면, "寒氣가 없는 학질"을 말한다.『集韻·去聲八』에서 「痞」자와 「痎」자는 "학질"이라는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단옥재 주에서 인용한 春秋傳에서 「痞」자를 「疥」 로 풀이하였으나, 「疥」자는 "종기를 긁는다"는 의미로 梁 元帝 및 袁狎, 顔之推가 오류가 났다고 인정되어 「痎」자로 수정하기를 원했고, 이후 陸德明이 그 오류를 판별하였다.

④ 痎

痎,『說文解字·疒部』「瘧, 二日一發瘧也, 从疒亥聲. 古諧切.」段注「今人謂, 閒二日一發爲大瘧. 顔之推云, 兩日一發之瘧. 今北方猶呼痎瘧.」[81]

『黃帝內經·素問·四氣調神大論』「逆之則傷心, 秋爲痎瘧.」王氷注「痎, 痎瘦之瘧也.」[82]

『玉篇·疒部』「痎, 瘧疾, 二日一發.」[83]

「痎」자는 "격일로 학질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이 역시 학질의 일종으로 전염병이다.

7) 과로

① 癃

癃,『說文解字·疒部』「癃, 罷病也. 从疒隆聲. 痒, 籀文癃省. 力中切」段注「罷病也. 病當作癃. 罷者、廢置之意. 凡廢置不能事事曰罷癃. 平原君傳. 躄者自言不幸有罷癃之病. 然則凡廢疾皆得謂之罷癃也. 師古注漢書, 改罷病作疲,非許意.」[84]

『史記·白起王翦列傳』「王翦謝曰, 老臣罷病悖亂, 唯大王更擇賢將.」張守節『史記正義』「罷,音皮.」[85]

『黃帝內經·素問·宣明五氣論』二十三「膀胱不利爲癃.」[86]

77) 許愼『說文解字』卷七下 臺北:書銘出版社 1994. 10 p.354.
78)『左傳·哀公二年』載『十三經注疏』6 臺北:藝文印書館印行 1985.12, p.996.
79)『集韻·去聲八』五十六 載『集韻』中華書局聚珍倣宋板印 1912-1948 p28.
80) 許愼『說文解字』卷七 下 臺北:書銘出版社 1994. 10 p.353.
81) 許愼『說文解字』卷七下 臺北:書銘出版社 1994. 10 p.354.
82) 이 양생법에 거역하게 되면, 여름에 왕성하게 활동하는 심장을 상하게 된다. 비록 즉시 발병하지 않더라도 가을이 되면 이것이 원인이 되어 瘧疾이 된다. 번역출처: 洪元植『黃帝內经素問解釋』, 서울:古文社 1990.05 p.12.
83)『玉篇』卷十一www.zhonghuadiancang.com/xueshuzaji/yupian/70516.html 2022.10.28. PM.10:43
84) 許愼『說文解字』卷七 下 臺北:書銘出版社 1994. 10 p.355.
85)『史記·白起王翦列傳』載『新校本史記三家注并附編二種 三』臺北:鼎文書局 1997.10, p.2340.
86)『黃帝內經·素問·宣明五氣論』「五氣所病心爲噫, 肺爲咳, 肝爲語, 脾爲吞, 腎爲欠爲嚏,, 胃爲氣逆爲噦爲恐, 大腸小腸爲泄, 下焦溢爲水, 膀胱不利爲癃, 不約爲遺溺, 膽爲怒, 是謂五病.」五病이란 五藏의 氣가 손상되면 흔히 일으키는 증상이다. 간을 앓으면 말이 많다. 心臟을 앓으면 트림이 난다. 脾를 앓으면 신 것이나 쓴 것이 올라온다. 肺를

『黃帝內經·素問·五常正大論』「其病癃悶, 邪傷腎也.」王氷注「癃, 小便不通.」[87]

『說文』에서 「癃」자는 "罷病"으로 풀이하였고, 단옥재 注에서 "罷者, 廢置之意"라고 풀이하였다. 즉 "불치의 병"에 걸린 것을 말한다. 『黃帝內經』을 참고하면 "방광에 邪氣가 들어 신장이 상하여 소변이 통하지 않는 병"으로 腎臟靜이라고 하는데 이 병이 발병하는 원인은 피로가 누적되어 과로가 생기고 과로로 인해 邪氣가 신장에 들어가 신장을 상하게 하고, 그 결과로 배뇨 작용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는 병을 말한다. 그 증상이 심하면 癃閉[88]되어 불치의 병에 이르게 된다. 『史記·白起王翦列傳』에서 "王翦이 노쇠하여 罷病에 걸려 혼란에 빠졌다"라고 하였다. 즉 "기력이 노쇠하여 배뇨 작용이 잘되지 않음"을 뜻한다. 그래서 張守節이 「罷」 음을 「皮」 라고 한 것은 顔師古가 "罷病"을 "疲病"으로 수정한 것과 그 뜻이 일치한다. 즉 「癃」 은 "疲困"이 주원인으로 발병되는 병이다.

② 疲/瘦

疲, 『說文解字·疒部』「癈, 勞也. 从疒皮聲.」段注「經傳多假罷爲之, 从疒皮聲.」[89]
『莊子·齊物論』「芒然疲役而不知其所歸, 可不哀邪！」陸德明『經典釋文』引簡文注「疲,病困之狀.」[90]
『史記·平原君列傳』「臣不幸有疲癃之疾.」[91]
『管子·小匡』「故使天下諸侯以疲馬犬羊爲幣.」注「疲爲瘦也.」[92]
瘦, 『說文解字·疒部』「癆, 臞也. 从疒叟聲. 所又切」段注「肉部曰, 臞、少肉也, 今字作瘦.」[93]

「疲」자는 『說文』에서 "과로"로 풀이하였다. 『莊子·齊物論』에서는 「疲」자는 "과로하여 병이 난 상태"라고 하였고, 『史記·平原君列傳』에서는 "과로로 인해 배뇨가 원활하지 않은 질병"이라고 하였고, 『管子·小匡』에서는 " 「瘦」 는 피곤으로 인한 여윈 상태"라고 하였다. 종합해 보면, 「疲」 의 의미는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었다 하나는 "피곤이 원인이 되어 "疲癃"이 발생하였고, 또 다른 의미는 "피곤으로 인해 몸이 마르는 병"이 생긴 것을 말한다. 즉 「疲」 와 「瘦」 는 그 병의 원인이 모두 "과로"로 인한 것이다.

③ 癉

앓으면 기침이 난다. 腎을 앓으면 하품이 나거나 재채기를 한다. 胃를 앓으면 氣가 逆上하여 딸국질이 나고 정신적으로 잘 놀라는 상태가 된다. 대장과 소장을 앓으면 설사를 한다. 三焦 중 下焦를 앓으면 水氣의 병이 생겨 붓는다. 방광의 기능이 나빠지면 소변이 잘 안 나오고, 괄약이 나빠지면 소변을 싼다. 膽을 앓으면 정신적으로 잘 怒하는 상태가 된다. 이것을 五病이라 한다.

87) 『黃帝內經·素問·五常正大論』第二十卷 「素問·五常正大論」 七十 洪元植, 『黃帝內经素問解釋』, 古文社 1990.05 p.175.

88) 癃閉: 『동의보감(東醫寶鑑)』에 륭(癃)과 폐(閉)는 한 가지 병이지만 분별해서 보면 폐는 갑자기 생긴 병인데 소변이 방울방울 떨어지다가 나오지 않는 것이고, 륭은 만성병인데 소변을 시원하게 누지 못하고 방울방울 떨어지면서 하루에 수십 번 이상 누는 것이라고 하였다. 륭과 폐는 다 같이 배뇨장애의 정도상 차이에 따라 나눈 데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것들을 합해서 융폐라고 한다.[네이버 지식백과] 융폐 [癃閉] (한의학대사전, 2001. 6. 15., 한의학대사전 편찬위원회)

89) 許愼『說文解字』卷七下 臺北:書銘出版社 1994. 10 p.355.

90) 『莊子·齊物論』載 郭慶藩『莊子集解』華正書局 1989.08, p.56, p.60

91) 『史記·平原君列傳』載『新校本史記三家注并附編二種 三』臺北:鼎文書局 1997.10, p.2365.

92) 李勉註譯『管子今注今譯』上冊, 臺灣商務印書館發行 1990.09, p.393.

93) 許愼『說文解字』卷七下 臺北:書銘出版社 1994. 10 p.355.

癉,『說文解字·疒部』「癉, 勞病也. 从疒單聲.」段注「大雅, 下民卒癉. 釋詁, 毛傳皆云, 癉, 病也. 小雅, 哀我癉人釋詁, 毛傳曰, 癉, 勞也. 許合云, 勞病者, 如嘽訓喘息皃, 幝訓車敝皃皆單聲字也. 癉與疸音同而義別, 如郭注山海經, 師古注漢書皆云, 癉, 黃病. 王氷注素問, 黃疸云, 疸, 勞也. 二字互相假而淆惑矣. 癉或假憚, 或作瘖.」[94]

「癉」자는『說文』에서"勞病也"이라고 했다. 단옥재 주에서『詩經』「大雅」에서는 "病也"「小雅」에서는 "勞也"이라고 풀이했다. 그래서 허신은 합쳐서 "勞病也"로 해석하였다. 단옥재 주에 의하면, "郭注山海經, 師古注漢書皆云, 癉, 黃病. 王氷注素問, 黃疸云, 疸, 勞也. " 라는 해석에 따라「癉」은 "황달"을 의미하고 그원인은 "과로"로 인한 질병이다.

④ 蔑

蔑,『說文解字·苜部』「蔑, 勞目無精也. 从苜从戍, 人勞則蔑然也.」[95]

苜『說文解字·苜部』「苜, 目不正也. 从丫从目. 凡苜之屬皆从苜. 莧从此. 讀若末.」[96]

「蔑」자는『說文』에서 "勞目無精也"로 풀이하였다. 즉 "과로로 인해 눈동자가 상하여 초점이 없는 것" 또 "人勞則蔑然也"로 부가 설명되어 있어 즉 "사람이 과로로 인해 눈동자가 바르지 못한 것"이다.「蔑」자가 从苜이 되어 있어「苜」자를 찾아보니 "目不正也"로 즉 "눈동자가 바르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있어,「蔑」자는 "과로로 인해 눈 초점이 흐려지고 눈동자가 바르지 못한 병"을 말한다.

갑골문에도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등의 자형이 있는데 그 의미는 "은나라의 옛 신하 이름, 혹은 비가 내리는 상황을 표현하는 형용사"[97]로 사용되었고, 금문에는 "蔑曆"이라는 단어가 자주 출현하였는데 "아름다움을 칭찬하는 것"[98]을 말할 때 사용되어『說文』의 의미와는 다르다.

8) 선천적인 장애

① 跂

跂,『說文解字·足部』「跂, 足多指也. 从足支聲.」段注「莊子, 駢拇枝指, 字只作枝, 跂蓋俗體.」[99]

『說文』과 단옥재 주에 의하면,「跂」자는 "발가락이 한 개 더 많은 상태"로 선천적으로 발육 불량으로 인한 병이다.

② 聳(聳)/聾/聹/聵

94) 許愼『說文解字』卷七下 臺北:書銘出版社 1994. 10 p.355.
95) 許愼『說文解字眞本』四上 倣宋影印本 臺灣中華書局 1986.05 p13..
96) 許愼『說文解字眞本』四上 倣宋影印本 臺灣中華書局 1986.05 p13..
97) 徐中舒『甲骨文字典』四川辭書出版社, p.411.
98) 陳初生『金文常用字典』高興:復文圖書出版社 1992.05, p.454.
99) 許愼『說文解字』卷二編 下 臺北:書銘出版社 1994. 10 p.85.

聳,『說文解字·耳部』「[illegible], 生而聾曰聳. 从耳, 從省聲.」[100]

聾,『說文解字·耳部』「[illegible], 無聞也. 从耳龍聲. 虛紅切」[101]

聹,『說文解字·耳部』「[illegible], 益梁之州謂聾爲聹, 秦晉聽而不聞, 聞而不達謂之聹. 从耳宰聲. 作亥切」[102]

聵,『說文解字·耳部』「[illegible], 聾也.」段注「國語曰, 聾聵不可使聽. 韋云, 耳不別五聲之和曰聾, 生而聾曰聵.」[103]

『方言』卷六「聳、聹聾也. 反聾梁益之閒謂之聹, 荊揚之閒及山之東西雙聾者謂之聳, 聾之.」戴震疏「陳楚江淮之閒聾謂之聳.」[104]

「聳」,「聾」,「聹」,「聵」자는 모두 "귀머거리"를 뜻한다. 그러나 의미적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다. 「聳」과 「聵」자는 『說文』에서 "선천적인 귀머거리"라고 풀이하였다. 「聹」는 『方言』에서 "反聾이라 하였고, 雙聾을 「聳」"이라고 하여 당시 지방마다 의미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聾」는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의 총칭"이라고 할 수 있다.

③ 顡/癡/脀/騃/懝/忥

顡,『說文解字·頁部』「[illegible], 癡顡, 不聰明也. 从頁豪聲.」[105]

癡,『說文解字·疒部』「[illegible], 不慧也, 从疒疑聲.」段注「癡者, 遲鈍之意, 故與慧正相反. 此非疾病也. 而亦疾病之類也.」[106]

脀,『說文解字·肉部』「[illegible], 騃也.」[107]

『方言』卷十「癡, 騃也.」[108]

『方言疏證』引『廣雅』「騃, 癡也.」[109]

『廣韻』「脀, 癡皃.」[110]

懝,『說文解字·心部』「[illegible], 騃也. 从心从疑, 疑亦聲.」段注「則方言曰癡, 騃也. 懝騃卽方言之癡騃.」[111]

忥,『說文解字·』「[illegible], 癡皃, 」[112]

『說文』에서 「顡」는 "총명하지 못하다", 「癡」도 "총명하지 못하다"라는 뜻으로 풀이하였다. 단옥재 주에서는 "우둔하다라고 해석하였고 질병은 아니지만, 질병의 류에 속한다"고 했다. 즉 선천적으로 지적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경우를 말한다. 疾病의 "疾"은 갑골문에서 "화살이 옆 가슴에 맞아 상처가 난 것"을 뜻한다. [113] 즉 질병이라고 정의한다면 "외상"이나 혹은 병균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

100) 許愼『說文解字』卷十二編 上 臺北:書銘出版社 1994. 10 p.598.
101) 許愼『說文解字』卷十二編 上 臺北:書銘出版社 1994. 10 p.598.
102) 許愼『說文解字』卷十二編 上 臺北:書銘出版社 1994. 10 p.598.
103) 許愼『說文解字』卷十二編 上 臺北:書銘出版社 1994. 10 p.598.
104) 戴震『方言疏證』卷六 中華書局聚珍仿宋版印本, pp.1-2.
105) 許愼『說文解字』卷九編 上 臺北:書銘出版社 1994. 10 p.426
106) 許愼『說文解字』卷七編 下 臺北:書銘出版社 1994. 10 p.356.
107) 許愼『說文解字』卷四編 下 臺北:書銘出版社 1994. 10 p.173.
108) 戴震『方言疏證』卷十 中華書局聚珍仿宋版印本, p.7.
109) 戴震『方言疏證』卷十 中華書局聚珍仿宋版印本, p.8.
110) 沈兼士『廣韻聲系』大化書局 1984.10, p812.
111) 許愼『說文解字』卷十編 下 臺北:書銘出版社 1994.10 p514.
112) 許愼『說文解字』卷十編 下 臺北:書銘出版社 1994.10 p515.
113) 李孝定『甲骨文字集釋』第七「象矢著人肊下, 會意, 謂其來之疾也, 與訓病之疾本非一字, 惟矢中人即有創病之義」[illegible](一期 後下 35.2), [illegible](一期 乙383), [illegible](三期 粹1568)p.2525-2526.

가서 병을 유발시켜야 한다.「癡」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나 태어나고 보니 지적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질병류에 속한다고 해석한 것이다.「癡」,「脀」,「騃」,「懝」,「忥」이 글자들은 서로 互訓 하며, 모두 "멍청이, 치매, 우둔하다, 바보같은 모습" 등의 뜻을 나타낸다.

3. 나오며

『說文解字』에서 나타난 고대 중국인의 질병 발생의 원인을 8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첫째, 氣의 과다로 인한 질병은 跔, 痱, 痹, 瘃 등의 4글자를 통해 六氣가 몸에서 정상적으로 운행할 때는 아무런 이상이 없으나 이 기운이 너무 과하거나 부족할 때 생기는 병으로 "寒濕의 과다, 風의 과다, 風, 寒, 溼 三氣의 과다, 寒氣의 과다로 생기는 질병"이다. 이중「痹」자는 당시 허신이 알고 있는「痹」병의 발병 원인이 "습기"에만 국한되어 글자를 풀이하였으나, 단옥재는 중의학 전문서적인『黃帝內經·素問』을 인용하여 風, 寒, 溼 三氣가 서로 섞여 체내에 과다하게 영향을 미칠 때 발병하는 마비 증상을「痹」로 해석하여 허신의 해석을 보충하였다.

둘째, 외상으로 인한 질병은 胅/跌/踼, 疻/痏, 𤸫 등의 글자로 외상의 기록을 고찰하였다. 胅/跌/踼 드의 글자는 주로 넘어져 골절이 생기는 외상이고, 疻/痏/瘢/痍자는 큰 의미로 "구타로 인한 상처"이나 疻는 단지 붓고 멍이 든 것을 의미하고, 痏, 瘢, 痍 글자들은 멍이든 것 뿐만 아니라 피가 흐르고, 껍질이 벗겨져서 흉터가 난 것을 의미한다. 𤸫자는 화살에 맞아 생긴 상처를 말한다.

셋째, 약물 오용으로 인한 질병으로 瘌, 癆 자는 "약물을 오용하여 생긴 독으로 인해 매우 아픈 상황"을 말한다. 그 의미는 같으나 지역에 따라 사용하는 글자가 다르다.

넷째, 독충으로 인한 질병으로 蜮, 蛸, 蟯, 蠱. 등의 글자로 당시 독충의 인한 질병을 살펴보았다. 蜮에게 쏘이면 그 맹독성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그래서 周代에는 가을이 오면 "壺涿氏" 라는 관리를 두어 "弧蜮"을 잡는 일을 하였다고 한다. 蛸, 蟯는 둘 다 배 속의 기생충으로 그 종류가 다르다. 蠱자는 몸 안의 "기생충의 총칭"이다.

다섯째, 음식으로 인한 질병으로 酲, 齗 두 글자를 살펴보면 酲자는 "음주 과다로 인한 술병이 난 것"을 말하고, 齗자는 "신 것을 과다 복용하여 이가 상하고 시린 병"을 말한다.

여섯째, 역병으로 인한 질병으로 그 예로 疫/癘, 瘧, 痁, 痎등의 글자로 疫/癘자는 온 백성이 역병에 걸린 전전염병을 말하고, 瘧, 痁, 痎은 학질을 말하는데, 그 병의 정도에 따라 의미의 차이가 있다.

일곱째, 과로로 인한 질병으로 예를 들면, 癃, 疲/瘦, 癉, 蔑등의 글자를 고석 한 결과, 癃 자는 "과로로 인해 邪氣가 신장에 들어가 신장을 상하게 하고, 그 결과로 배뇨 작용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는 병"이다. "疲는 피곤이 원인이 되어 "疲癃"이 발생할 때를 말하고, 疲와 瘦는 같은 글자이나 疲가 과로로 인해 살이 마를 때는 瘦자와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癉자는 "과로로 인한 황달을 의미한다. 蔑은 "과로로 인해 눈 초점이 흐려지고 눈동자가 바르지 못한 안질" 이다.

여덟째로 선천적인 장애로 인한 질병으로 그예로 跂, 顙/癡/脀/騃/懝/忥 가 있다. 跂는 발가락이 6개 이상으로 태어난 것을 말하고, 顙/癡/脀/騃/懝/忥는 선척적으로 지적장애로 태어난 병을 말한다. 이상 8가지로『說文解字』와「疒」부를 중심으로 고대 중국인의 질병 발생의 원인을 살펴보았다.

【어학분과Ⅱ】 발표 ①

영상도식과 그릇도식을 통한 한중 차등 비교문에서의 비교결과 분석
- 중국어 '小'에 해당하는 한국어의 표현 중심으로

이은민*

【목 차】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3. 연구 결과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한·중 양국의 서로 다른 문화와 환경으로 인해 언어 사용에 있어 차이점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중국어의 표현법은 크게 표현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한국어는 다채롭고 세밀하게 표현하는 경향이 있다. 그 한예로'빨갛다'라는 색깔을 나타내는 것에 있어 중국어는'红' 하나로 표현되지만, 한국어는 기본적으로 '빨갛다'외에 '뻘겋다, 새빨갛다, 시뻘겋다, 빨그스레하다, 뻘그스레하다, 붉다, 불그스레하다, 빨그스름하다'등의 여러 가지 표현으로 나타낼 수 있다.

앞에서 단적인 예로 한·중 언어적 표현에 대해 살펴보았지만, 이러한 차이점이 나타나는 한·중 언어적 현상 아래 본 연구는 한·중 현대 문학소설 텍스트 속 차등비교문의 비교결과에서 중국어'小'에 해당하는 한국어의 다양한 표현을 중심으로 인지적 이론을 통해 분석하고, 이러한 한국어의 다양한 표현이 차등비교문 전체 의미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현재까지 살펴본바 통사적으로는 어느 정도 연구가 되어 있지만 아직 인지언어학적 관점에서 한·중 차등비교문과 관련한 연구는 발견하지 못했다.

현재 인지언어학적 관점에서의 다의어와 관련한 한국어의 연구는 최근 10년간 동사 "먹다"를 통해 살펴본 한국어 고급 학습자의 다의 관계 인식 양상 연구(김은혜 2011), 한국어 다의어 동사 '열다'의 사전(辭典) 의미 기술(박보연, 2011), 다의어와 다면어의 변별 기준과 의미 특성(임지룡, 2011), 다의어 'walk'의 인지의미론적 접근(나익주, 2012), 연결어미 '-어서'의 다의성 연구(박민신, 2016), 인지은유의 시각으로 본 한국어 다의어의 중국어 번역(김홍련, 2017)에 대한 연구가 있고, 중국에서는 探索认知语言学下的汉语多义词 (王娟, 2013) , 基于认知语言学视角下的汉语多义词分析 (丁妍, 2

* 동국대학교 wise 캠퍼스 중어중문학과 조교수 (eunminlee9@naver.com).

016) 에 대한 연구가 있다. 이러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의어와 관련된 연구만 되어 있지 어떤 특정 문장 속 다의어의 역할에 대해선 논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국어 '小'에 해당하는 한국어의 다양한 표현을 차등비교문이라는 특정 문장 속 구성요소인 비교결과 안에서 살펴보고, 이러한 한·중 언어 간의 표현상에서의 차이가 차등비교문의 전체 의미에 있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인지언어이론 중의 영상도식과 그릇도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어 차등비교문과 관련된 선행연구 조사
둘째, 중국어 차등비교문과 관련된 선행연구 조사
셋째, 한국 그리고 중국 현대소설 속의 차등비교문 자료 수집
넷째, 영상도식과 그릇도식을 통한 차등비교문 속 중국어'小'에 해당하는 한국어의 다양한 표현 분석
다섯째, 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한·중 언어 학습자들에게 교육적 제언 방안 마련

요컨대, 영상도식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동적이며, 다양한 문맥에서 실례들을 명시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연하다. 이러한 유연성 때문에 영상도식은 유사한 많은 상황에 변형될 수 있고, 단어의 다의성이 자연스럽게 설명될 수 있다. 그릇도식은'내부, 외부, 경계'의 구조를 가지며 이러한 구조로 인해'안-밖, 열림-닫힘, 가득함-텅빔, 초과'와 같은 그릇도식의 세부적 하위 양상을 분류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영상도식을 통해 중국어'小'와 한국어 표현에 있어서의 다양성 그리고 그릇도식을 통해 포함과 불포함을 기본 전제로 한'안-밖 도식'으로 한·중 차등비교문의 비교결과 표현 차이에 초점을 맞추고, 중국어'小'와 한국어 표현의 의미적 특성을 체계적으로 기술하고 설명하고자 한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인지언어학의 이론 중에서 영상도식과 그릇도식을 통해 중국어 차등비교문 속 비교결과 '小'가 한국어에서 다양하게 표현되는 것과 동시에 그 다양함으로 인해 전체 차등비교문의 의미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과정을 진행하고자 한다.

1) 선행 연구 분석 및 정리

한·중 차등비교문과 관련된 선행 연구 정리 및 분석을 하고 중국어 '小'에 관련된 어휘 연구뿐 아니라 한국어의 '작다'와 관련된 연구 그리고 예문 속에서 찾아낸 중국어 '小'에 대한 한국어의 다양한 표현과 관련된 어휘에 대한 선행 연구 정리 및 분석을 한다.

2) 예문 추출

한·중 현대문학 작품을 선정하여 작품 속 차등비교문을 추출하여 정리 분석한다. 그중 중국어 '小'가 한국어 차등비교문에서 다양하게 표현되는 문장을 추출하여 분석 정리한다.

3) 예문 분석

추출된 전체 차등비교문 중 중국어의 '小'가 한국어에서 어떻게 여러 가지로 표현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인지어어학의 이론 중 하나인 영상도식과 그릇도식을 통해 심도 있는 분석을 한다.

4) 논문 작업

정리 분석한 예문을 바탕으로 차등비교문 속 중국어 비교결과 '小'가 한국어에 있어 다양하게 표현되는 것을 영상 도식과 그릇 도식을 통해 살피고 결론을 도출하고 한·중 학습자들에게 교육적 제언 방안 마련을 한다.

3. 연구 결과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본 연구는 한·중 차등비교문에서의 중국어의 비교결과 '小'에 해당하는 한국어의 다양한 표현에 대해 인지언어학의 이론 중의 영상도식과 그릇도식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차등비교문의 통사적인 관점에 대한 연구는 한·중 여러학자들이 다뤄왔지만 인지언어학적 관점에서의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이에 인지언학적 관점인 영상도식과 그릇도식을 통해 한·중 차등비교문에의 비교결과인 중국어의 '小'가 한국어에서 다양하게 표현되는 현상을 분석하고 결과를 도출해낸다면 학문적뿐만 아니라 교육적으로도 큰 의의를 가질 것으로 생각한다.

먼저 본 연구가 기대하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1) 인지적 접근으로의 연구에 대한 참신성 및 기여도:
한·중 양국의 서로 다른 문화적 환경으로 인해 언어 사용에 있어 차이점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이러한 차이점이 나타나는 언어적 현상에 있어 차등비교문의 구성 요소 중 하나인 비교결과를 가지고 인지적 접근을 통해 대조 분석을 하는 것에 있어 기여도가 클 것으로 본다. 이는 중국어의'小'와 한국어의 다양한 표현을 통해 차등비교문의 전체적인 의미적인 효과를 연구하는 것이지만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한·중 언어적 현상에 있어 차이점에 대해 지속적인 후속 연구를 할 수 있게 도움이 될 것이다.

2) 한·중 학습자들에게 교육적 제언:
한·중 학습자들에게 있어 한·중 차등비교문의 비교결과의 중국어의'小'와 한국어의 다양한 표현으로 나타나지는 거에 있어 인지적으로의 접근 방식이 학습자들로 하여금 좀더 언어 현상에 대해 표

면적인 사고를 넘어서 깊이 있는 사고력을 길러줌과 동시에 학습자들로 하여금 실제 언어 상황에서 그 담화에 맞는 적절한 문장을 구사할 수 있는데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이러한 한·중 언어 간의 차이점에 대해 인지적 접근으로의 분석으로 한국인 그리고 중국인의 발화 의도를 더욱 심층적으로 알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한·중 언어 간의 나타나는 차이점을 이해할 수 있다.

【어학분과Ⅱ】 발표 ②

한중 '연속' 표현과 주관량

이선희*

1. 시공간 개념과 주관량

주관량은 흔히 언어의 주관성이 양범주에 반영된 개념이라 할 수 있으며, 주관성이 반영되지 않은 양은 객관량이다. 주관량은 화자가 많다거나 적다고 보는 양이기 때문에 기준이 되는 양을 참조해야 하는데, 이때 기준이 되는 양이 기준량이다. 주관량은 보통 언어 보편성을 가지는데, 중국어와 한국어에서 이에 대한 연구가 학자들의 꾸준한 관심으로 지금까지 밝혀지 언어사실도 적지 않다. 주관량은 음성, 어휘, 통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는데, 한국어와 중국어의 경우 어휘와 통사를 활용한 방식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다. 이선희(2003)에서는 중국어에서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양이 참조량에 도달하는지, 초과되는지 아니면 미달되는지를 근거로 도달과 초과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주관적인 대량을, 미달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주관적인 소량임을 밝힌 바 있다. 이후에 이를 참고하여 양해승(2014:138-139)에서는 한국어에서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양이 참조량에 초과되는지 미달되는지, 아니면 중립인지의 세 가지로 나누고 구체적인 어휘들을 분석하고 있다. 그는 중립 주관적 대량 표현(-나, 무려, 물경, -에 이르다 등), 초과 주관적 대량 표현(적어도, 최소한, 넘다 등), 미달 주관적 대량 표현(가까이, 거의 등), 중립 주관적 소량 표현(-밖에, 겨우, 고작, 불과 등), 초과 주관적 소량 표현(남짓 등), 미달 주관적 소량 표현(기껏해야, 끽해야, 많아야, 많아 봤자, 최대한 등) 등으로 구분하였다. 이를 통해 도달, 미달, 초과 등의 개념은 한중 두 언어의 주관량을 설명하는데 상당한 유사성이 있음이 밝혀졌다. 재미있는 것은 이들이 대개 일차적으로는 공간에서 실현되는 공간 개념들이라는 것이다. '도달, 미달, 초과' 등은 목표지점을 전제로 한 개념으로 문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주로 부사어나 술어로 나타나는데, 이들 어휘에 대해서는 한중 두 언어에서 상당히 많이 논의가 진행되었다. 그런데 李善熙(2003)에서는 다량의 예를 통해 이들 개념 외에도 또 '연속'을 나타내는 어휘들(대체로 부사어)도 역시 중국어에서 흔히 주관량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밝혔다. 반면, '연속' 개념의 어휘들과 주관량에 대해서는 중국어학계에서 어느 정도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한국어에서는 아직까지 이에 대한 연구를 찾기가 어렵다. 본고는 이러한 '연속' 개념의 어휘들 역시 중국어와 마찬가지로 한국어에도 주관대량을 나타내는 경향성이 강하다고 보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어휘들이 주로 사용되는지를 밝히고 중국어와의 비교를 통해 이를 밝히고 그 원인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고에서 제시한 중국어 예는 베이징대 언어코퍼스와 베이징어언대 언어코퍼스에서 검색하였으며, 한국어 예는 연세 말뭉치 용례 검색 시스템에서 검색하였음을 밝힌다.

* 계명대

2. ‘연속’ 개념과 주관량

먼저 중국어의 예를 보자.

(1) a: 上个星期, 他参加了三个会。(지난주에 그는 세 개의 회의에 참석했다.)
b: 上个星期, 他连续参加了三个会。(지난주에 그는 연이어 세 개의 회의에 참석했다.)
(이선희 2003에서 재인용)

李善熙(2003)에 따르면, 두 예문 모두 지난주에 세 개의 회의에 참석했다는 객관적인 사실은 동일하다. 하지만 b는 ‘连续’하는 단어를 사용하여 세 회의의 시간 간격이 매우 가깝다는 화자의 주관적인 느낌을 나타낸다. 흥미로운 것은 a와 비교해서 b는 회의들 간의 시간 간격이 가깝다는 표현으로부터 ‘他’가 지난주에 많은 회의에 참석했다는 화자의 주관점인 느낌을 나타낸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주관대량의 느낌은 분명 ‘연속’이라는 개념에서 왔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복수의 어떤 사건이 발생하거나 복수의 행위를 할 때 이들에게 연속성을 부여함으로써 화자의 느낌이나 태도, 평가 등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어 번역문을 보아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연속의 개념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표현되는데 하나는 직접 ‘연속’의 의미를 나타내는 어휘를 통해 표현하는 직접적인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중단’의 의미를 부정함으로써 반대로 ‘연속’의 의미를 나타내는 간접적인 방식이다. 본고는 한중 두 언어 모두 이러한 두 방식을 나타내는 어휘가 상당히 다양하고, 이를 통해 주관대량의 의미를 나타낸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나아가 그 이면에 존재하는 주관량 표현 기제에 대해서도 모색하고자 한다.

1) 직접적인 연속 표현

직접적으로 ‘연속’의 개념을 나타내는 경우인데, 이는 다시 연속성을 나타내는 표현과 단시간임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나눌 수 있다. 연속성을 나타내는 표현으로는 주로 부사가 많은데, 중국어의 경우 자주 사용되는 것으로는 ‘连着, 连连, 相继, 先后, 迭连, 连气(儿), 一连, 陆续, 一个劲儿’, ‘连绵’ 등이 있다.

(2) 就说村小学吧, 十几年里连着挪了五、六个地方, 可还是不断被人侵占。
(3) 信徒欢喜得连连叩首：“够了! 师父您真是神通广大! ”
(4) 由于他踏实负责、用功, 一篇篇论文相继问世, 深获上级赏识”。
(5) 重庆大学自80年代以来, 先后参加了16个国内大型企业, 同160多个大中型企业建立了合作关系。
(6) 一年内小王迭连立了两次功。
(7) 女儿在两年中一连注册了盖德教授讲授的三门经济学课程。
(8) 他又陆续发表了一系列有关文章, 不断完善和发展该学说, ……
(9) 他看着我一个劲儿笑。
(10) 十五年前的魔神战争、以及英雄战争之后在罗德斯岛各处连绵发生的争乱。

(2)에서는 10여 년간 학교의 위치를 5-6개 장소로 옮겼는데, '连着'를 사용함으로써 이들 사이의 연속성을 나타냄으로써 많이 옮겨 다녔다는 의미를 표현하고 있다. '连连'은 주로 '点头, 摇头, 称赞, 夸赞, 摆手' 등 신체 동작어와 호응하는 경우가 많은데, (3)에서도 머리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叩首' 앞에서 행동이 많음을 나타낸다. '先后'에는 '앞과 뒤'라는 의미 외에 앞뒤가 서로 이어진다는 연속의 의미도 있다. (8)에서는 16개 대기업이 많다는 의미는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连绵'은 주로 산이나 강, 비 등의 자연이 이어져 있음을 나타내지만, 전쟁 등과 같은 사건이 연속해서 발생함을 나타내기도 한다. 주관다량의 의미는 주로 후자의 경우에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부사 외에 '연속'의 의미를 가지는 어휘는 '连续'등의 동사와 '接二连三', '马不停蹄' 와 같은 성어도 있다. 이들 역시 문장에서 부사어로 사용되는 경우에 대체로 주관대량의 의미를 나타낸다.

(11) 当它里面一段议论出现的时候, 连续占了11页, 比我的议论还多, ……
(12) 华升集团接二连三地办起了 6 家中外合资企业, ……
(13) 去年她马不停蹄地出访了12个国家。

그 밖에 '연속'의 의미를 나타내는 표현 중에는 '连日', '连天', '连月', '连年'과 같이 '连+시간사'의 형태로 이루어진 명사들도 있다. 이들 역시 주로 주관대량의 의미를 나타낸다.

(14) 他们连日召开各种座谈会, 经过上上下下反复酝酿, ……
(15) 白衣女明显是睡眠不足的样子, 哈欠连天, 不断用手捂嘴。
(16) 该店开业以来惨淡经营, 连月亏损。
(17) 公元1337年英法百年战争爆发后, 法国连年战败。

(14)는 각종 좌담회 개최 횟수가 많음을 의미하고, (15)은 하품을 하는 횟수가 많음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16)은 적자를 보는 달이 많음을 뜻하고, (17)은 프랑스가 전쟁에서 패하는 해가 많음을 뜻한다. 역시 표면적으로는 연속을 뜻하지만 결국은 주관대량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국어에도 '연속'의 의미를 나타내는 어휘는 상당히 많은데, '연잇다, 연달다, 잇달다, 잇따르다, 연속하다, 줄달다, 연하다' 등과 같이 동사가 상당히 많다. 이 가운데 '연잇다, 연달다, 연하다'는 1음절 한자어 '連'과 우리말 동사 '잇다, 달다, 하다'가 결합된 형태이다. '연잇다'는 '어떤 일이나 상태가 끊이지 않고 계속되다. 또는 어떤 일이나 상태가 끊어지지 않게 계속하다'의 의미이고, '연달다'는 '어떤 사건이나 행동 따위가 이어 발생하다'의 의미이다, 이와 유사하게 '연하다'는 '행위나 현상이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지다'의 의미이다. 이들이 문장에서 사건이나 동작 앞에서 '연이어, 연달아, 잇달아, 잇따라, 연속해서, 연속적으로, 줄달아, 연하여'의 형태로 부사어로 쓰일 때는 중국어와 마찬가지로 역시 다량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18) 대형공장들이 연이어 문을 닫았고 실업자가 폭증했다.
(19) 작년 8월 이식환자 4명이 연달아 사망한 뒤로 심기일전.
(20) cj 골든빌리지는 2001년까지 일산 9개, 광주 6개, 부산 8개관을 잇달아 세워, 1백50개 스크린을 아우르는 극장체인을 건설한다는 야심찬 청사진을 갖고있다.
(21) 해마다 스승의 날을 맞지만, 올해처럼 「우울한」 적도 없는 것 같다. 물론 최근 잇따라 터진 불미스런 촌지사건 때문이다.

(22) 그러나 연속해서 터져 나오는 부패를 볼 때,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질을 볼 때, ……
(23) sbs는 지난 1~3일 사흘동안 연속적으로 영화를 편성, 역시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24) 마을사람들이 줄달아 죽어갔다.
(25) 양우진도 주먹으로 가슴을 치며 몰락된 집일을 비탄하는 듯이 연하여 눈물 콧물을 쥐어짜가며 한바탕 추잡한 희극을 연출하였다.

한국어에서 연속의 의미는 동사 외에, '줄곧, 줄줄이, 계속, 내내, 연거푸, 거푸, 거푸거푸, 연방, 연신, 내리, 속속'과 같은 부사를 통해서도 나타난다. 이들 중에는 '줄곧, 줄줄이, 거푸' 등과 같이 우리말로 된 것들도 있지만, '계속(繼續), 연방(連方), 속속(續續)' 등과 같이 한자어에서 온 것들도 있다. 이러한 부사들 역시 상태나 동작 앞에서 연속의 의미 외에 다량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26) 언젠가 풍파를 만나 서쪽으로 줄곧 사흘 동안을 흘러가서 어떤 빈 섬에 닿았습지요.
(27) 강력한 우승후보들이 줄줄이 버티고 있어 금메달은 기대하지 않았다.
(28) 그런데 계속 내 이름만 나와서 결국은 내가 반장이 되었다.
(29) 한 달 내내 비가 와, 집에도 못 올 뻔하였습니다.
(30) 원인불명의 화재가 연거푸 일어나 수천명이 그나마 보금자리를 잃고 유랑걸식으로 내쫓긴 것이 그 무렵이었다.
(31) 사태의 중대성과 긴박감은 유엔 안보리가 주말과 미국 공휴일인데도 거푸 비공식 협의를 가진 데 이어 30일 밤 9시20분에 안보리 긴급 전체회의를 열어 의장성명을 채택한데서도 찾아볼 수 있다.
(32) 나는 거푸거푸 그에게 맥주를 권하고, 그 역시 나에게 지지 않으려는 듯이 거푸거푸 잘 받아 마시고 또 나에게 권하고 했다.
(33) 하늘로 쳐들린 콧구멍이 연방 벌름거렸다.
(34) 김 선배는 벌써 피로해졌는지 연신 하품을 해대며 눈을 부볐다.
(35) 쉬는 시간 없이 1시간30분 내리 공연하는 대형 작품이다.
(36) 최근 인터넷 쇼핑몰의 증가 속에 결제대행 기관이 속속 등장하고 있고, 가맹 쇼핑몰과 거래 금액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36)은 하나 이상의 결제대행 기관의 등장이 연속적이라는 것을 나타내지만 결국은 결제대행 기관이 많이 나타났다는 주관대량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역시 대량을 의미하는 뒷부분 '거래 금액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와 의미적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됨을 알 수 있다.

그 외에, 단어의 문자적 의미는 명시적이지 않지만 비유적으로 '연속'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빗발치다'는 비유적으로 '어떤 의사를 나타내는 일이 끊이지 않고 세차게 계속되다(표준국어대사전)'라고 하는 '연속'의 의미이며, 따라서 이 역시 주관대량을 나타낸다고 하겠다.

(37) 거란군의 화살은 탈출하는 발해 부흥군을 향해 빗발치듯이 날아갔다.

위 문장에서 '빗발치듯이 날아갔다'는 화살이 매우 많이 날아갔음을 나타낸다.

또 구어에서 자주 사용하는 '주구장창'이 있는데, 이는 '주야장천(晝夜長川)'이 변한 말이다. 이 역시 문자적으로는 연속의 의미가 명시적이지 않다고 볼 수 있지만, 표준국어대사전의 풀이는 '밤낮으로 쉬지 아니하고 연달아'로, 역시 '연속'을 나타낸다. 따라서 이 역시 대부분 대량을 나타내는 경우

가 많다.

(38) 아무리 사랑스런 딸 사위도 가끔 와야 예쁘지, 주구장창 지낸다면 좀 심하지 않은가.

(38)에서 '주구장창 지낸다'는 앞의 '가끔 와야'와 대조적으로 사용되어 와 있는 시간이 길다는 것을 나타낸다.

연속 의미의 부사, 동사가 부사어로 사용되는 경우 외에도 연속 의미의 동사가 술어가 되는 경우에도 다량의 의미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연발되다'와 '연발하다'는 모두 '연속'의 의미인 '연이어 일어나다'를 나타낸다.

(39) 감탄사를 연발하다.
(40) 그의 입에서는 반드시 할렐루야가 연발되었을 것이오.

위의 두 예 모두 다량의 의미를 나타냄을 알 수 있다.

이상으로 한중 두 언어에서 연속을 나타내는 어휘들이 단순히 연속의 의미만을 나타내지 않고 많은 경우에 다량의 의미를 나타낸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이는 사전 속 예문에 대한 한중, 중한 번역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다. 다음 예를 보자.

(41) 南瓜沿着墙结了许多。
호박이 담을 따라 줄줄이 늘어져 있다.
(42) 她一连生了三个儿子。
그녀는 내리 셋이나 아들만 낳았다.

위의 두 예는 모두 네이버 중국어 사전에 나타난 예이다. (42)은 『에듀월드 표준한한중사전』에서 인용한 예인데, 중국어 원문에서 많음을 뜻하는 '许多'의 한국어 번역이 바로 연속을 뜻하는 '줄줄이'이다. 이는 역으로 '줄줄이'에 다량의 의미가 있다는 방증이다. 유사한 예로 (43)는 『고려대 한한중사전』에서 인용한 예인데, 중국어 원문의 '一连'은 한국어로도 역시 연속 의미의 '내리'로 번역하고 있지만, '셋' 뒤에 주관대량을 나타내는 조사 '이나'를 붙이고 있다. 이 역시 중국어 '一连'에 다량의 의미가 있다는 방증이다.

2) 간접적인 '연속' 표현

간접적으로 연속의 개념을 표현하는 경우는 직접 연속 의미의 어휘를 사용하지 않고 그 반대인 단절이나 멈춤을 부정하는 방식으로 연속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이 역시 표면적으로는 연속을 나타내지만 근본적으로는 주관다량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간접적인 연속 표현 현상도 한중 두 언어에서 상당히 보편적으로 사용된다.

먼저 중국어를 보자. 자주 사용하는 어휘들로 '不歇, 不休, 不歇气, 不断, 不绝, 不懈, 不停, 无休止,

不间断' 등이 있는데, 문장에서 주로 부사어, 관형어, 서술어 등으로 사용된다.

(43) 经三四年不歇努力，终使江南烟水与明末遗恨跃然于纸上。
(44) 为什么左邻右舍都不吵架，为什么偏偏是我家常常吵个不休？
(45) 全程4500公里，要不歇气地飞行48－72小时。
(46) 由于我方不能按时装船，并要求提高合同的价格，年初双方不断出现纷争。
(47) 我是属于这种执著者，所以我和敌人固然冲突不断，和朋友也争执不绝。
(48) 经过20多年的不懈努力，中国工业污染防治取得了较大进展。
(49) 一封一封的加急电报不停地发出去
(50) 但他没想到这无休止的咳嗽原来可以危及自身的性命，
(51) 联大一般性辩论的日程为联大开幕后第二周的周二起不间断地进行9个工作日。

위의 예들은 모두 간접적인 연속 표현이 주관다량의 의미를 나타냄을 보여준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어에도 상당히 보편적으로 나타나는데, 자주 사용되는 표현은 단절이나 멈춤을 나타내는 동사 '쉬다, 멈추다, 끊다, 그치다' 등의 부정 형식인 '쉬지 않다, 멈추지 않다, 끊이지 않다, 그치지 않다' 등이 있다.

(52) 암수가 교대로 쉬지 않고 새끼에게 먹이를 가져다주는데, 보통 2-3분에 한 번꼴로 하루 5백여 회 이상 들락거린다.
(53) ……나의 손에는 쉼 없이 물집이 생겼고, ……
(54) 그러나 관중들의 시선을 한몸에 받은 선수는 노장중의 노장 아놀드 파머(67)였다. 관중들은 무엇보다 이 노인이 날리는 커다란 드라이브에 탄성을 멈추지 못했다.
(55) 95년에는 헌법소원까지 제기되는 등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으나 개선되지 않은 상태다.
(56) 레바논은 주민이 이슬람교도와 크리스트교도로 갈라져 있는데, 이들 사이의 분쟁이 그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이들 동사의 명사형에 '없다'가 결합한 형태인 '쉼 없다, 끊임없다' 등과 한자어에서 파생된 '중단(中斷) 없다, 부단(不斷)하다' 등의 형태도 있다.

(57) 주경야독하던 대학생이라 방학을 이용해 연극을 하던 모양이, 죽을 병이라는데도 무대에쉼 없이 서고 있는 지금과 비슷하다.
(58)「난타」」의 미덕은 관객을 끊임없이 작품 속에 끌어들이려는 노력이다.
(59) 오랜 포교 일선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중단 없는 신행 혁신 운동을 펼쳐 나가겠다.
(60) 한국 미술계에 부단히 새로운 자극으로 도전할 것을 선언하는 자리다.

그 외 이들 동사에 '~ㄹ 사이(새) 없다', '~ㄹ 틈 없다', '~줄 모르다'가 결합한 형태로 이루어진 간접적인 연속 표현도 눈에 띈다.

(61) 쉴 새 없이 전화를 걸던 조사원들은 회사측이 제공한 도시락으로 삼삼오오 모여 끼니를 때운다.
(62) 여기에 '인디애나 존스'처럼 숨쉴 틈 없이 사건이 이어지며 관객을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게

해 역대 디즈니 영화 중 가장 속도감 있고 다이내믹한 액션을 보여준다.

(63) 포항은 막강 화력을 자랑이라도 하듯 숨 돌릴 틈 없이 공격을 퍼부었지만 골운이 따라주지 않았다.

(64) 두 어깨가 멈출 줄 모르고 들썩였습니다.

그 외 간접적으로 연속을 표현하는 방식에는 사건이나 행위들이 발생하는 시간 간격을 축소시켜 이들이 짧은 시간 내에서 중단 없이 일어남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때 강조하는 것은 시간이 짧다는 것이지만 결국은 역시 연속을 나타내기 때문에 단시간에 대비되는 주관대량의 의미를 전달한다고 하겠다. 이러한 어휘로는 중국어에서는 대표적으로 소량을 나타내는 숫자 '一'을 포함하는 어휘들이 주로 사용되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一气, 一连气, 一口气, 一下, 一下子' 등이 있다.

(65) 他一气跑了12个沿海城市……

(66) 她一连气说出八九个人来。

(67) 一口气说了两小时五十五分钟。

(68) 首先是粮食问题，现在我们只进去三四千人，一下就借了七十万斤粮。

(69) 可是穴头这时才发现我们的"十佳名模"一下子跑掉了 4 个， 据说有一位"名模"是被一位唱歌的拐走了。

한국어에서는 '단숨에, 한꺼번에, 한숨에, 단번에' 등이 주로 사용된다.

(70) 다쓰나미가 적시타를 날려 단숨에 2점을 뽑아냈다.

(71) 서울대공원에서 한꺼번에 새끼 물개 3마리가 태어나 경사가 났다. 캘리포니아산 암컷 물개 3마리가 최근 잇달아 새끼 1마리씩을 낳은 것, ……

(72) 연이는 실신한 듯 이런 말을 쭉 한숨에 내쏟았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고 흥분해 보기도 처음이었다.

(73) 그는 수화기를 들고 외부로 연결되는 번호를 누르고…… 이후 단번에 일곱 개의 번호를 재빨리 눌렀다.

'단숨에'는 '쉬지 않고 곧장'의 의미인데, (70)을 보면 사실 야구에서 점수는 분명 시간 간격을 두고 얻는 것임에도 '단숨에 2점을 뽑아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또 '한꺼번에'의 사전적 의미는 '몰아서 한 차례에. 또는 죄다 동시에'이다. 하지만 (71)에서 뒷장을 보면 새끼 물개 3마리는 한 차례나 동시가 아니라 시간차를 두고 태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앞 문장에서는 이를 한꺼번에 태어났다고 표현하고 있다. (72)에서 '한숨에'의 문자적으로는 숨 한 번 쉴 동안이라는 뜻이지만 비유적으로 짧은 시간을 나타내므로 이 문장이 꼭 한숨에 많은 말을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다시 말해 몇 번의 숨을 쉬면서 말을 하는 경우에도 한숨에 말을 했다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73)에서 '단번에'도 '단 한번에'의 의미인데, 여기서는 일곱 개의 번호는 한 번에 동시에 누를 수는 없고 시간 간격을 두고 일곱 번을 눌러야 하는데도 단번에로 표현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시간을 두고 벌어지는 사건이나 행위의 간격을 좁혀서 동시간에 발생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속의 의미를 나타내는 어휘들이 주관대량의 의미도 함께 나타내는 경우가 상당히 보편적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앞에서 살펴본 어휘들은 문자적으로 연속의 의

미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는 경우이다. 그런데 문자적으로 연속의 의미가 뚜렷하지 않아도 연속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 경우에도 역시 주관대량의 의미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하염없다'라는 형용사는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첫 번째 의미항목은 '시름에 싸여 멍하니 이렇다 할 만한 아무 생각이 없다'로 연속의 의미가 뚜렷하지 않다. 하지만 두 번째 의미항목은 '어떤 행동이나 심리 상태 따위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계속되는 상태이다'인데, 여기서 '계속되는 상태'는 곧 '연속'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본고는 이 역시 일종의 간접적인 연속 표현에 해당하며, 이로부터 '주관대량'의 의미가 생성된다고 본다. 또 보조동사로 사용되는 '-대다'는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앞말이 뜻하는 행동을 반복하거나 그 행동의 정도가 심함을 나타내는 말'로 설명한다. 예를 들면, '먹어대다, 놀려대다' 등이 그러하다. 그런데 '-대다'는 '까불대다, 반짝대다, 방실대다' 등과 같이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일부 어근 뒤에서 접미사로도 사용되는데, 사전에서는 이때 '그런 상태가 잇따라 계속됨'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설명하고 있다. 본고는 '-대다'의 보조동사와 접미사 용법 모두 연속의 의미를 가진다고 보며, 전자의 연속 의미가 후자보다 더 강할 것이라고 추측한다. 다시 말해, 보조동사로 사용될 경우에는 문법화되기 전이어서 연속과 반복의 의미가 더 강하다고 보며, 이로 인해 일반적으로 주관대량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고 본다.

(74) 채린의 창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시간 가는 줄도 몰랐다.

(75) 그리구선 며느리보구 밥이 왜 적느냐구 볶아댔다 합지요. 며느리는 견디다 못해 죽어 새가 됐다지오니까.

3. 주관량의 강화

주관량 표현은 하나만 사용될 때도 있지만 2개 이상이 함께 사용되어 주관량 의미의 변화를 가져올 때도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한중 두 언어에서 상당히 보편적으로 나타난다. 둘 이상의 주관량 표현이 함께 사용되어 의미의 변화를 일으키는 현상을 李善熙(2003:112)에서는 '语义协同(의미협력)'과 '语义应变(의미변형)'의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분석한 바 있다.[1] 전자는 의미가 같은 주관량 표현들이 함께 사용되거나 의미가 반대인 주관량 표현들이 함께 사용되는 경우로 다시 세분할 수 있는데, 이들은 모두 주관량의 의미를 강화하는 것이다. 후자는 의미가 반대인 주관량 표현이 함께 사용되어 한쪽이 다른 한쪽에 따라 의미가 변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학자들의 연구가 진행 된 바 있지만, 한중 연속 표현과 관련하여서는 아직까지 진행된 연구를 찾기가 어렵다.

연속 표현과 관련하여서 의미협력은 2개 이상의 연속 표현들이 함께 사용되거나 연속 표현이 다른 주관량 표현과 함께 사용되어 주관량의 의미를 더욱 명확하게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연속 표현이 주관대량을 나타내므로 주관량 강화는 결국 주관대량의 강화로, 이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두 개 이상의 연속 표현들이 함께 사용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연속 표현과 주관대량을 나타내는 다른 표현이 함께 사용되는 경우이다. 마지막 하나는 연속 표현이 주관소량의 표현과 대비를 이루면서 주관소량과 주관대량의 의미를 모두 강화하는 경우이다.

1) 이후 한국어 주관량에 대한 연구에서 양해승(2014)은 이들을 각각 '의미협력'과 '의미변형'으로 칭하고 있는 바, 본고에서 이 용어를 따르기로 한다.

1) 연속 표현과 주관대량 표현의 공기

앞에서 살펴본 연속 표현이 함께 사용되는 경우는 매우 흔하다. 첫 번째는 간접적인 연속 표현이 공기하는 경우로, 흔히 보이는 유형은 '一口气'와 '不歇', '不停顿' 등이 함께 사용되어 사건이나 행위의 양이 많음을 나타내는 경우이다.

(76) 水不喝我一口, 烟不抽我一支, 一口气不歇地运了两车。
(77) 他在那里一口气不歇地干了几个小时, 直到编结成功了, 他这才高高兴兴地歇手。
(78) 何顿现在每天上午写三千字，可以一口气不停顿地写几十天。

또 다른 유형은 간접적인 연속 표현과 직접적인 연속표현이 공기하는 경우이다. 흔히 보이는 유형은 '一气', '一口气' 등과 '连', '连着', '接连' 등이 함께 사용되거나 '接连', '连续' 등과 '不断' 등이 함께 사용되어 사건이나 행위의 양이 많음을 나타내는 경우이다. 후자는 문장에서 부사어 외에 술어로 쓰일 수도 있다.

(79) 他一口气连着写了六次, 直到认为满意才搁笔。
(80) 看他一口气连喝两杯矿泉水, 我突然觉得这个人叫人害怕。
(81) 长实集团在重庆一口气接连拿下几个项目
(82) 一气连连唱下京剧、越剧、豫剧和黄梅戏中的四个名段
(83) 我确实经常一口气连续干几个昼夜，但那种物我两忘的境界，是再美妙不过的了。
(84) 此后，其他行业也先后不断缩短工时。
(85) 随着哥哥的城里同学陆续不断地来到我家, 我的父母觉得脸上光彩。
(86) 于在这里购花的人接连不断。
(87) 大年初一,白云机场从凌晨6时30分起, 就连续不断地飞出218个航班,……
(88) 连续不歇上了七天班。
(89) 她继续不歇不止地谈着。
(90) 连绵不断的掌声, 充满整个剧场。
(91) 她有一个女儿名叫兰芝, 今年才十岁, 连天鞍马不歇, 十分困倦, 一驻下来就在里间床上睡着了。
(92) 呛得一个劲儿不停地咳嗽。

세 번째 유형은 간접적인 연속표현과 공간 의미의 주관대량 표현이 공기하는 경우이다. 흔히 보이는 예는 '一气', '一口气', '一下子' 등과 근접, 도달, 초과 등의 의미를 나타내는 '就', '近', '将近', '达到', '达'등이 함께 사용되는 경우이다.

(93) 而我的这封信写得一点也不认真，随便想了一下，提起笔来一气就写出了3000字，……
(94) 她下水后一口气游了近1500米。
(95) 持股比例一下子达到16%，其时间刚好拿捏在公告发表的同时。
(96) 雾气缭绕的山间公路上一下子挤进近200辆汽车, 人群熙攘, 警灯闪烁。
(97) 从去年底的每磅30美分一气涨到将近80美分。
(98) 先后著书立说达800余万言，堪为当代佛教弘法著述第一人。
(99) 到8月7日下午, 陆续进港避风船只已超过100艘。

(100) 正好碰到秋雨连绵, 足足下了一个月, 到处道路泥泞, 行军发生困难。
(101) 应邀于五、六月间在沪、杭、宁接连演出达十余场, 反响之热烈, ……

그 외 '一口气'가 주관대량을 나타내는 '大'와 공기하여 주관량을 강화하는 경우도 눈에 띈다.

(102) 我不管三七二十一咕咚咕咚一口气喝了大半壶, 好像才稍轻松一些。
(103) 接着, 他便一口气列举了一大堆新变化：

이러한 현상은 한국어에도 상당히 보편적으로 나타난다.

(104) 한국에서 10여 년의 운전경력이 있는 베테랑이 영국에 가서 운전면허시험을 치르는데 운전상 아무런 실수나 결함이 없었는데도 연달아 다섯 번이나 낙방을 했다.
(105) 한 二 년 전, C 교수와 함께 연거푸 이틀 동안이나 영화관을 찾은 적이 있었다.
(106) 주인이 의리란 말을 뜻도 잘 모르면서 연하여 거푸 말하였다.
(107) 거기까지 말한 아내는 양주병을 꺼내 한 잔 따르고 홀짝거리며 쉼 없이 마셔댔다.
(108) 이것을 돈으로 따지기도 그렇지만, 5일간 쉬지 않고 자장면을 만들어댄 그의 노력이 더욱 값질 것이다.
(109) 마이클 잭슨의 측근에 따르면 그녀는 몇 달 동안 쉬지 않고 잭슨에게 전화를 해대고 메시지를 남겼으며 심지어는 마이클의 관심을 끌기 위해 커다란 풍선을 매단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고 한다.
(110) 대타"로 출전한 경기서 한풀이 하듯 컴퓨터패스를 쉴 새 없이 날려대며 "신데렐라"가 됐다.
(111) 단번에 수십 개도 넘게 열렸다 닫히는 이런 식의 대화방에서 우리들이 서로를 알아보게 된 것을 꼭 우연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104)-(105)에서는 '연달아', '연거푸'와 다량을 나타내는 '-(이)나'를 함께 사용하고 있다. '-(이)나'는 수량이 크거나 많음, 또는 정도가 높음을 강조하며, 흔히 놀람의 뜻이 수반된다는 의미로, 수량사구 뒤에 쓰이면 화자의 심리적 참조량보다 많은 주관적 대량을 나타낸다.(양해승 2014:145) (105)에서는 연속 표현 '연하여'와 '거푸'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 (107)-(110)에서는 간접적인 연속 표현 '쉼 없이', '쉬지 않고', '쉴 새 없이'와 '-대다'가 함께 사용되었다. (111)에서는 '단번에'와 초과를 나타내는 주관대량 표현 '넘다'가 함께 사용되었다.

이상으로 두 개의 연속 표현이 함께 사용되거나 연속표현이 다양한 주관대량 표현과 함께 사용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음을 확인하였다.

2) 연속 표현과 주관소량 표현의 대조

한 문장 안에서 주관대량 표현과 주관소량 표현이 선명한 대조를 이룸으로써 주관대량과 주관소량의 의미를 더욱 부각시키는 경우도 흔하다.

(112) 半年不到接连发生两起恶性事故, ……

(113) 有时一天只吃一顿饭, 连着几天不睡觉, 一个月下来, 体重就减少了十几斤。

(114) 占地面积达564公顷, 为北京颐和园的两倍, 仅四周连绵起伏的园墙就长达１０千米。

(115) 최근 1회전에서만 6번 연달아 탈락한 카펠니코프는 11일 이탈리아로마에서 열린 남자단식 1회전에서 크리스 우드러프 (미국) 를 2대1로 꺾어 1회전 탈락의 악몽에서 벗어났다.

(116) 지난 여름 작은 집을 사고 불과 40여 평의 뜰을 잇달아 붙여 짓고, 부근의 천주교도들을 부르게 된 것이다.

(112)에서는 주관소량을 나타내는 '不到'와 주관대량을 나타내는 '接连'을 대조하여 사용함으로써 반 년이라는 시간은 짧음을, 사건 두 건은 많음을 나타낸다. 마찬가지로 (116)에서도 '-만'과 '연달아'를 대조함으로써 1회전은 짧은 시간임을, 6번은 많음을 나타낸다.

4. 주관량 표현 기제

앞에서 한중 두 언어에서 많은 예들이 연속 표현이 주관대량을 나타낸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연속이 어떻게 많음을 의미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본고는 이러한 의문을 개념은유와 밀도량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본다.

1) [많음은 연속]

레이코프와 존슨은 은유을 크게 구조적 은유(structural metaphors), 지향적 은유(orientational metaphors), 존재론적 은유(ontological metaphors)로 나눈다. 구조적 은유는 하나의 개념을 다른 개념으로 구조화 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논쟁은 전쟁]과 같은 은유를 말한다. 지향적 은유는 추상적인 감정, 심리, 양, 선악 등의 개념을 '위/아래', '앞/뒤', '가까움/멂' 등의 공간 관계로 개념화 하는 것으로 일종의 공간적 은유를 말한다. 대표적인 예로 [많음은 위] 은유가 이에 해당된다. 존재론적 은유는 비물질적인 것을 물질적인 것으로 개념화하는 것으로 구조적 은유에 포함되는데, 예를 들면 [사랑은 불] 등이 이에 해당된다.

본고는 연속 표현이 다량을 나타내는 것은 일종의 지향적 은유로 볼 수 있다고 본다. 여기서 다량은 대체로 사건이나 행위의 양을 가리키므로 공간 보다는 시간의 연속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추상적인 시간에서의 연속 개념도 결국은 구체적인 공간에서의 연속 개념에서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본고의 생각이다. 다시 말해, '산들이 연이어 있다'는 공간적인 개념에서 사물의 연속이고, '회의를 연이어 열었다'는 시간적인 개념에서 동작의 연속인 것이다. 따라서 본고는 수많은 연속 표현이 다량을 나타내는 원인으로 [많음은 연속]이라는 지향적 은유가 작용하기 때문으로 본다.

2) 밀도의 증가

연속 표현에서 다량의 의미가 생성되는 또 다른 원인으로 밀도의 증가를 생각할 수 있겠다. 李善熙(2003, 2004:241)에서는 중국어 연속 표현이 주관대량의 의미를 나타내는 이유를 밀도의 증가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이 한국어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일주일에 세 번의 회의에 참가했다”와 “일주일에 연거푸 세 번의 회의에 참가했다”라는 두 문장에서 일주일이라는 시간과 세 번의 회의는 동일하다. 하지만 앞 문장은 세 번의 회의라는 객관적인 양만을 나타내는데 반해, 뒤의 문장은 세 번의 회의가 많다는 다량의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연거푸’라는 연속 표현이 세 번의 회의 사이의 간격을 축소시키는 역할을 함으로써 동일한 시간양 안에서 세 회의가 차지하는 밀도를 높였기 때문이다. 동일한 양이라도 밀도가 증가하게 되면 주관적으로 많다고 느끼게 되므로 주관다량의 의미가 생성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5. 결론

본고는 한중 두 언어에서 연속의 개념을 나타내는 많은 표현들인 주관대량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음을 확인하였다. 연속 표현은 직접적으로 연속을 나타내는 것과 단절은 부정하는 방식으로 연속을 나타내는 간접적인 방식이 있는데, 두 가지 방식을 표현하는 어휘들이 한국어와 중국어에서 대량으로 존재한다. 연속 표현이 주관대량을 나타내는 데에는 [많음은 연속]이라는 지향적 은유와 연속 표현으로 인한 사건, 행위들의 밀도 증가를 원인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어학분과Ⅱ】 발표 ③

동아시아 한자문화권 속담에서 숫자 '三'의 활용과 의미
- 한중일 속담을 중심으로

기유미*

【목 차】

1. 들어가는 말
2. 선행연구
3. 한중일 속담을 통한 숫자 '三'의 의미 재고
   1) 숫자 '三'의 초기 의미 : 인류 초기 가장 큰 수 →'많음'/'완전함'
   2) 숫자 '三'의 파생 의미 : '모두'(전체)
   3) 숫자 '三'의 파생 의미 : '너무 많음'(초과)
   4) 숫자 '三'의 파생 의미 : '일부', '어느 정도'(대략)
   5) 숫자 '三'의 파생 의미 : '적음'
   6) 숫자 '三'의 의미 확장 현상
4. 숫자 '三'의 의미 범주
5. 맺는 말

1. 들어가는 말

속담은 각 나라와 민족의 생활방식과 사유방식을 반영하고 있으며, 사람들의 경험과 삶의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속담에 담긴 철학은 현대의 삶에도 연계된다. 또 속담을 통해서 언어 습관도 살펴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속담은 한 구절의 짧은 형식으로 비교적 제한된 구성을 보이지만, 그 속에는 생활과 풍속, 역사와 문화 그리고 인물 등 다양한 제재가 나타난다. 특히 예로부터 유형의 물자 교역 및 무형의 문자와 문화의 교류가 빈번했던 동아시아 한자 문화권 나라들의 속담을 살펴보면 유사하게 닮은 내용들도 있고, 또 유사한 가운데 각각의 차이점을 보이기도 한다. 본고는 동아시아 한자 문화권에 속하는 한·중·일 삼국의 속담을 중심으로 속담 속에 나타나는 수많은 요소 가운데에서 숫자 활용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런데 다양한 숫자들을 모두 논의하기에는 편폭의 제한이 있어 여러 숫자 가운데'三'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초기'三'이 내포하는'많음'의 의미에서 출발하여 숫자 '三'의 활용 양상과 의미에 대해 예시와 함께

* 경성대학교 한자연구소 HK연구교수 (kym0331@hotmail.com)

대조 분석하였다.'三'은 한국 속담에서 가장 출현빈도가 높고, 중국 속담 가운데에서도 두 번째로 자주 활용된 숫자이다.[1] 그렇지만 단지 빈도 율만을 이유로 연구 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아니다. 또 다른 이유는 아래와 같이 두 나라의 언어를 번역하는 경우에 숫자 번역이 서로 다르게 표현되는 현상에 대해 의문을 가졌기 때문이다.

a. 三番五次 so ***many*** times
b. 三言两语 in ***a few*** words
c. 三思而行 think ***twice***
d. 三心二意 in ***two*** minds
e. 接二连三 one after ***another***
f. 三个臭皮匠胜过一个诸葛亮 ***two*** heads are better than one

과거에 출판된 관련 저서나 논문에서는'三'에 대해서 대부분 유사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三'은'多'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의 번역에서도'三'은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三'에 집중하고 다른 숫자는 잠시 간과하기로 한다.)

따라서 본고는 숫자가 빈번하게 활용되는 속담의 실례를 통해 상황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三'의 의미를 구분하고자 한다. 속담 내에서'三'은 대부분'三+X'의 형태로 나타난다. 또한'三+X'는 그 자체가 내포하는 의미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문장 내 근접한 다른 단어(명사) 또는 뒤에 이어지는 내용의 전체적인 의미가 변수로 작용하여 동일한'三' 또는'三+X'에 대한 의미가 달라지는 양상도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외국어를 학습하는 학습자가 속담 및 그 밖에 다양한 언어 표현 속에서 숫자가 내포하는 의미를 명확하게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며, 또한 번역에 있어서도 일부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문에 제시한 속담의 출처(속담사전)는 참고문헌에 제시하였으며, 분석한 속담의 수는 한중일 각각 50개씩 총 150개의 속담이다. 그런데'三'이 객관적인 수치 그대로의 3을 의미하는 경우는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 선행연구

속담 관련 연구는 대부분 자국(自國) 또는 두 나라간의 비교 형식이 주를 이루었으며, 한중일 삼국을 동시에 비교[2]한 경우는 많지 않았다. 과거 속담을 제재로 한 연구는 속담 자체의 표면적인 형식 분석에서부터 속담을 구성하는 제재가 되는 단어의 의미 분석, 속담의 교육 활용방안 등으로 다양한 양상을 보였다.

아래에 먼저 제시한 두 편의 연구는 속담 연구 가운데 표면적 형식 분석에 관한 연구와 교육에서의 응용 연구이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속담 연구를 다각도로 살펴볼 수 있다. 그리고 이어서 본고

1) 우아평,「韩中数字谚语的语义对比研究」,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대학원, 2016, p.7 / 27.
우아평은 중국 속담에서 '一'의 빈도가 가장 높다고 밝혔다.
2) 양민정,「속담을 활용한 다문화가정의 한국어/문화교육 방안 연구」,『세계문학비교연구』, 29권, 세계문학비교학회, 2009.12 ; 금영진,「동아시아 소화 (笑話)· 속담 (俗談) 속의 동물조합 상징성 비교」,『비교문화연구』, 42권, 비교문화연구소, 2016.03 ; 朱银花,「中日韩动物谚语素材的比较」,『剑南文学』, 中共绵阳市委宣传部, 2011.10.

의 내용과 밀접한 연구를 살펴보았다.

한탁철(2008)은 한일 속담의 형식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였는데, 양국 모두 수식어나 조사 등은 생략하고 최소한의 형식으로 간결하게 표현했으며, 한국 속담은 용언으로 끝나고, 일본은 체언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또 음절 구성에서는 한국이 8(4+4)음절, 일본은 12(7+5)음절이 많다고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형식에 대한 연구 외에 대부분의 속담 연구는 단어나 그 의미 표현에 관한 것이다. 그중 양민정(2009)은 한중일 속담에서 나타나는 유교사상, 불교사상, 의식주, 고전작품, 동물, 농경문화 등을 세부 비교하고, 이를 다문화 가정에서의 한국 문화교육에 활용하고자 하였다. 특히 중국과 일본이 한국보다 불교에 대한 표현이 많다거나, 한국이 다른 두 나라에 비해 농경문화에 대한 표현이 많으며, 의식주 범주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유사성이 많이 보였다는 점이 흥미롭다. 이와 같이 속담의 내용을 통해서도 각 나라의 문화적 측면이 다양한 각도에서 표출됨을 알 수 있다.

속담의 소재를 살펴보면, 자주 등장하는 것은 주로 인물과 동물인데, 본고에서 다루는 숫자 요소 또한 속담의 해석에 있어서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지만, 다른 소재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구가 많지는 않았다.

다음은 그 가운데 일부 본고와 연관성이 있는 연구를 소개하였다.

우아평(2016)과 이선희, 신지언(2019)은 모두 한국과 중국 속담을 비교하였는데, 전자는 속담에 나타나는 1-10까지의 숫자를 분석하여 상징적 의미를 제시하였고, 후자는'三'의 주관량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우아평(2016)은 숫자 3은 한중 양국 모두 숭배하는 숫자로 1과 2의 음양 조화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수이며, 이러한 완벽한 수의 의미에서 많음, 오램의 의미가 파생되었을 것으로 보았다. 그 외에도 3은 일부, 짧은 시간 등의 의미도 나타낼 수 있다고 하였다. 이선희, 신지언(2019)은'三'이 나타내는 주관적인 의미 가운데 대부분의 경우는 주관대량('많다', '크다', '넓다'등)의 의미를 나타내며, 일부는 주관소량[3]의 의미도 나타냄을 밝혔다. 두 연구 모두'三'이'많음'의 의미뿐만 아니라, 소량(짧은 시간) 등의 의미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한 것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 과거 연구에서 언급한 속담 외에 다른 실례를 두루 살펴본 결과'三'은'모두(전체)', '(너무 많음(초과)'등의 의미도 가질 수 있다. 또 한층 더 의미가 확장되고 추상화되어 다른 의미로 전이되는 양상도 보인다. 따라서'三'의 의미는 단편적이지 않고, 활용되는 상황에 따라 다의적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3. 한중일 속담을 통한 숫자 '三'의 의미 재고

1) 숫자 '三'의 초기 의미 : 인류 초기 가장 큰 수 →'많음'/'완전함'

수학자 토비아스 단치히(Tobias Dantzig 1884)는 남아프리카의 부시맨(bushmen) 종족이 사용하는 숫자는 1과 2 그리고'많다'라는 표현 외에 다른 숫자가 없다고 하였다. 또 몇몇 인류학자들도 원시민족에 관한 연구에서 많은 원시 민족(오스트레일리아, 남미 등)들은 계산을 할 때, 1과 2를 활용했고, 가끔 3이 있는 정도라고 하였다. 이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어휘는 풍부하지만, 숫자는 1, 2

3) 三只螳螂，抵个懒惰长工 (세 마리의 사마귀가 게으른 머슴과 맞먹는다, 즉 힘이 약한 대상도 여럿이 합치면 달라진다.)

로 구성되었고, 3은‘하나 더’의 부가적인 의미를 가졌다고 하였다. 즉 2이상 증가되는 몇몇 숫자는 3으로 불렀다는 것이다. 따라서 3은‘많음’, ‘너무 많음’심지어‘무한히 크다’등의 의미를 가진다.[4] 이와 같이 인류 초기의 모습을 보이는 사회에서는 숫자가 발달되지 않았다. 그리하여 3은 가장 큰 수로 인식되었으며, 그것이‘많음’을 표현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또 더 많은 수량 역시도 3으로 모호하게 표현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3은 수치적인‘많음’의 표현 외에도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신성한 숫자 또는‘완전함’등을 나타내는 숫자로 상징되었다. 일례로 우리나라의 삼족구(三足狗)[5], 삼두일족응(三頭一足鷹)[6] 그리고 중국의 홍산문화(红山文化) 유물의‘三孔玉璧’, ‘三孔玉器’등에서도 유독‘三’이 빈번하게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 외에도 표현이나 명칭에서‘三’을 쉽게 찾을 수 있다. 또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는‘三’이 천・지・인을 상징하여 세상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7]로 이는 세상 만물을 의미하며, 그것은 또한 조화로움, 완전함으로 연결된다.

아래 예시는‘三’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인‘많음’을 나타내는 속담 표현이다.

[예1] a. 나그네 귀는 **석 자** (경험이 많음)
b. **三人**寄れば文殊の知恵 **세 사람**이 모이면 문수보살 같은 좋은 지혜가 나온다.
c. 破家值万贯，一搬**三年**穷 낡은 집도 사용하던 살림이 적지 않기에
이사를 하면 **오랫동안** 경제적 어려움이 따른다.

2) 숫자 ‘三’의 파생 의미 : ‘모두’(전체)

[예2] a. 不干己事不开口，一问摇头**三不知** 자신과 관계없는 일에는 말을 하지 않고,
무엇을 묻더라도 **모두** 모른다고 답한다.
b. 将帅无能，累死**三军** 사령관이 무능하면 **(전) 군대**가 무너진다.
c. 子は**三界**の首かせ 자식은 **삼계**의 애물 (자식은 **한평생** 큰 짐이 됨)

기본적으로‘많음’, ‘완전함’의 의미를 가졌던‘三’이 전체 범주를 의미하는‘모두’의 의미로 파생된 것은 충분히 연상 가능하며, 자연스러운 의미 확장으로 보인다. 이중 b의 “三军”은 고대에는 상중하군, 현대에는 육해공군을 가리키지만, 이후에 전체를 통칭하는 의미로 확대되었다.

3) 숫자 ‘三’의 파생 의미 : ‘너무 많음’(초과)

[예3] a. **三人**旅の一人乞食 셋이 다니면 하나는 걸식한다.
b. **三个和尚**没水吃 승려가 셋이면 마실 물이 없다.

위의 [예3]를 단순히‘많음’으로 해석해도 무방하지만, 결국 너무 많으면 좋지 못하다는 의미를 전달하므로‘너무 많음(초과)’의 의미로 심층적 의미를 세분화하여 표현하였다.

4) 叶舒宪,『中国古代神秘数字』, 陕西师范大学出版总社, 2018, pp.56-57。
5) 다리를 세 개만 가지고 있고 신이한 능력을 지닌 삼족구(三足狗)와 관련된 설화. (한국민속문학사전:국립민속박물관)
6) 정혜영,『주술부작화의 표현연구 : 현대적 변용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p26.
7) 潘洪革, 王世兴,『中国传统数字文化集锦』, 大连出版社, 2007, p108。

4) 숫자 '三'의 파생 의미 : '일부', '어느 정도'(대략)

[예4] a. 부자는 망해도 **삼 년(일정 기간 동안 어느 정도)** 먹을 것이 있다.
b. 贵了贫，还穿三年绫 부자가 가난해져도 **삼 년(일정 기간 동안 어느 정도)** 입을 비단은 있다.
c. 吃奶像三分 우유를 먹인 사람을 **어느 정도**는 닮는다.
d. 秦桧还有三个相好的 진회[8](아무리 나쁜 사람)도 **세 명(몇 명)**의 친한 친구 (마음 맞는 짝)가 있다.
d. 入门三相，便知其家；听言三句，便知其品 문에 들어서서 **몇 가지(일부)**를 들여다보면 그 집안을 알 수 있고, **몇 마디(어느 정도)**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품성을 알 수 있다.

위의 [예4]에서'三+X'의 구성은 각각 다르지만, '三'이'일부', '어느 정도'등의 의미로 대략적인 수치를 표현한다.

5) 숫자 '三'의 파생 의미 : '적음'

성어나 속담의 표현 속에'三'이 단독으로 출현할 경우 대부분'많음'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고대에는 양사 없이 숫자가 명사를 직접 수식하는 구조로 구성되는데, 이 경우에도 대체로'많음'의 의미를 가진다. 그런데 속담 가운데'三'의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면 일부 양사와의 결합에서'적음'의 의미가 나타난다. 따라서'三'이'많음'의 의미 외에 다른 의미로 파생된 것은 양사가 출현한 이후로 보인다. 또 반대로 양사가 출현했다는 것은 그 만큼 다양한 사물에 대한 계량(計量)이 필요해졌다는 의미가 되므로 숫자가 늘어났으며, '三'이 더 이상'많음'의 의미만을 대변하지 않게 된 것이다. 다음 속담에서'三+X'는'적음'을 나타낸다.

[예5] a. 천 냥짜리 **서 푼**도 본다.
b. 早起きは三文の得 일찍 일어나는 것은 **서 푼**의 이익
c. 三寸舌害七尺身 **세 치** 혀가 부주의로 해서는 안 될 말을 하면, 사람의 7척 몸을 해칠 수 있다.

[예5]는 모두 양사와 결합한'三+X'의 형식으로 각각의 양사는 본래 적은 양을 표현한다. 양사의 의미가 전이되어'三+X'전체의 의미 또한'적음'을 표현한다.

6) 숫자 '三'의 의미 확장 현상 (语义泛化 semantic extension)

[예6] a. 중매는 잘하면 술이 **석 잔** 못하면 뺨이 **석 대**
b. 時には三つの捨鐘がある 미리 치는 **세 번**의 종[9]
c. 二度あることは **三度**ある 두 번 있는 일은 **세 번** 있다.

8) 남송의 간신
9) 산사 등에서 시각을 알리기 위해 치는 종으로 바로 치지 않고 주의를 끌기 위해 미리 세 번 가볍게 두드림. "바쁠수록 여유를 가져라"라는 의미로 표현되기도 한다.

d. 三日打鱼，两日晒网 **사흘**은 물고기를 잡고, 이틀은 그물을 말린다.
e. 既归三尺土，难保百年坟 **석 자**의 흙으로 돌아갔으니 무덤을 영원이 보존할 수는 없다.
f. 不怕虎生三个口，最怕人怀两样心 호랑이 입이 **세 개**인 것은 두렵지 않으나,
사람이 두 마음(다른 마음)을 가진 것이 제일 두렵다.

위의 예시에서 a는 중매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의미와 함께 그만큼 어렵다는 심층적 의미도 가진다. 또 c는 두 번 일어난 일은 또 다시 반복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의미를 전달하고, d는 어떤 일을 하는데 지속하지 못하고 자주 중도에 그만두는 것을 의미한다. e에서 "三尺土"역시도 실제 수치나'많음'혹은'적음'등의 의미와 관계가 없이 사람이 세상을 떠난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 f의 경우는 양사'个'는 범용 양사로 의미도 중립적이다. 따라서 그 자체만을 두고는 의미를 판단할 수 없고, 앞과 뒤에 이어지는 내용에 대비하여 볼 때, "(호랑이의 입이 세 개라면 실제로는 두려운 일이지만 사람이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두 마음과 비교할 때) 호랑이 입이 세 개인 것은 두려운 것도 아니다(대단한 일이 아니다)"라는 의미로 전달되어'(상대적으로)별 것 아닌 일'의 의미가 된다.

위의 예시에서'三+X'는 앞서 나열한 1)-5)와 같은 의미를 내포하지 않는다. 각 예시에서'三+X'를 삭제하거나 다른 단어로 대치하더라도 본래 전달하려는 심층적 의미는 충분히 전달될 수 있다. 서두에서도 언급한 것과 같이'三'은 사용 빈도가 높은 숫자이다. 활용이 높은 만큼 의미 확장(语义泛化 semantic extension)이 일어나고 일반화될 가능성이 높다.'三'의 의미가'많음'혹은'적음'등의 수치적 의미에서 한층 더 추상화[10] 또는 일반화된 의미로 확장된 양상을 보인다.

4. 숫자 '三'의 의미 범주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三'의 의미는'적음'-'일부(어느정도)'-'많음'-'너무 많음(초과)'-'모두(전체)'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의미 범주를 가지게 된 것은 아래와 같이 초기(원시) 숫자에서부터 현재 숫자에 이르기까지 수에 대한 인식 및 활용 양상의 변화가 가져온 결과라 할 수 있다.

[초기(원시) 숫자 범주] 1 2 ***3*** (많음, 너무 많음(초과), 모두(전체))
[현재 숫자 범주] 1 2 ***3*** 4 5 6 7 8 9...(적음, 일부(어느 정도)) + 양사 의미 전이 → 의미 확장(语义泛化)

따라서 속담 내에'三+X'의 의미도 고정적이지 않고, 활용되는 상황에 따라 다른 양상을 나타낼 수 있다. 아래"三年(삼 년)"이 나타나는 속담의 예시를 비교해보자.

[예6] a. **삼 년** 가는 흉 없고 석 달 가는 칭찬 없다.
b. **삼 년** 가뭄에는 살아도 석 달 장마에는 못 산다.
c. 当家**三年**狗也嫌 집안 살림을 삼 년 맡아 하면 개도 싫어한다.

10) 임지룡(2007/2017)은 의미 확장의 양상을 여러 형태로 제시하였다. 그 가운데 구체적인 의미가 추상적인 의미로 확장이 일어날 수 있는데, '三'의 경우도 그와 유사하다.

(시간이 오래지나면 불만이 생김)

d. 吃三年薄粥, 买一头黄牛 묽은 죽을 삼 년 먹으면, 황소 한 마리를 살 수 있다.

(근검절약의 중요성)

e. 石の上にも三年 (차가운) 돌 위에서 삼 년간 계속 앉아 있으면 돌이 따뜻해진다.

(끈기의 중요성)

f. 負うた子を三年探す 업힌 자식 찾아 삼 년 (건망증이 심함)

[예6]의 a-e에서 "삼 년"은 충분히 오랜 시간('많음')의 의미를 가진다. 그중 b는 표면적으로는 똑같이 긴 시간이지만 뒤에 이어져 나오는 "석 달 장마에는 못 산다"를 대비해서 볼 때, 사실상 "삼 년 가뭄"은 참을 수 있는 별 것 아닌 상황이 된다. 실제 객관적인 수치를 비교하면 "삼 년"이 "석 달"보다 훨씬 긴 시간이지만 속담 내 표현 속에서는 "삼 년 가뭄"이 "석 달 장마"에 비할 수 없는 '작음(짧은 기간)'의 의미가 된다. 이를 통해 '三' 또는 '三+X'의 의미는 주변 단어나 구절의 영향을 받기도 한다. 마지막 f의 "삼 년"은 건망증이 심함을 나타내어'정도가 심함'을 나타낸다. 이처럼 동일한'三+X'도 다양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아래에 한중일 삼국의 속담에서 나타나는'三' 또는 '三+X'의 의미 분포를 종합하여 정리하였다.

<표1> 한중일 삼국 속담에서 나타나는'三'과 '三+X'의 의미 분포

	적음	(대략) 일부, 어느정도	많음	(초과) 너무 많음	(전체) 모두	(의미 확장) 추상화
한	○(서 푼)	○(삼 년)	○	○	△	○(석 잔, 석 대)
중	○(三寸)	○(三年, 三分 三相, 三句 등	○	○	○	○(三日)
일	○(三文)	△[11]	○	○	○	○(三度)

본문에서는 모든 예시를 나열하지 못했지만, 한자문화권 나라의 속담을 살펴보면 유사한 내용들이 많다. 예를 들어, 세 사람만 우기면 없는 호랑이도 만든다, 여자 셋이 모이면 새 접시를 뒤집어 놓는다, 부자는 망해도 삼 년 먹을 것이 있다 등의 속담은 한중일 삼국에서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또 본고에서 중점적으로 다룬 숫자 표현 역시도 한자문화권 나라에서는 고대에서부터 공통적으로 사용했던 요소로 의미면에서 유사성이 발견된다. 위의 「표1」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三'이 가지는'많음'과 '적음'의 의미는 기본적으로 삼국이 모두 가지고 있다. 그 외에 일부분을 나타내는 대략의 의미는 일본의 경우 나타나지 않았고, 또 모두를 포괄하는 전체의 의미는 한국의 예시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특히 의미가 확장되어 더 이상'三+X'의 의미가 아닌 다른 의미로 추상화된 경우는 각국 마다 표현이 다양하여 각 예시와 함께 따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5. 맺는말

속담에는 한 나라의 생활과 풍속, 역사와 문화 그리고 인물 등 다양한 제재가 나타난다. 그 가운

11) 관련 예시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각 국의 모든 속담을 살펴보지는 못하였음으로 가능성을 열어두는 표시로 △를 사용하였다.

데 또 하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숫자이다. 속담의 심층적 의미를 이해하려면 명사형 단어의 의미뿐만 아니라 숫자가 내포하는 의미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고대 문헌에서‘三’의 의미는‘많음’에 편향되어 있었다. 최근 연구에서는‘적음’의 의미도 제시하였지만, 실제 예시 가운데에는 일부, ‘어느 정도(대략)’, ‘너무 많음(초과)’, ‘모두(전체)’ 그리고 더욱 추상화 된 의미로도 표현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외국어 학습 및 교육 그리고 번역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후‘三’외에 다양한 숫자에 관한 표현과 의미를 심층적으로 다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

【문학분과Ⅰ】 발표 ①

先秦시기 道家의 學에 대한 소론

오만종*

【목 차】

1. 들어가는 말
2. 무엇을 어떻게 배울 것인가
3. 무엇을 이룰 것인가
4. 나오는 말

1. 들어가는 말

유가와 도가가 서로 다른 사상체계를 갖게 된 것은 이들 사상이 근거로 하는 인식 대상과 사유 방식의 다름에서 비롯된다. 다시 말해 사유를 전개하는 지점이 시작부터 서로 다르고, 그 방식 또한 유가는 의도적이고 도가는 스스로 그러함(自然)에 따르는 점도 같지 않다. 물론 이 두 사상 모두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유체계이지만, 유가는 인간의 관찰을 통해 인간의 문제를 풀려고 하였다면, 도가는 인간도 우주 자연에 속하는 일부로 보기 때문에 보다 근원적이라 할 수 있는 우주 자연의 원리를 인간 혹은 인간사회의 문제에 적용하여 해결하려고 하였다. 유가와 도가 사이에 존재하는 사유범주의 차이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呂氏春秋·貴公』편의 다음 글에 잘 드러난다. “형 나라 사람 중 활을 잃은 사람이 있었는데, 찾으려하지 않고 말하길, 형 나라 사람이 잃었지만 형 나라 사람이 주을 터이니 찾을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공자가 듣고 말하길, 荊 자를 제거하면 좋겠다고 하였다. 노담이 듣고 말하길, 人 자도 제거하면 좋겠다고 하였다.”[1] 선진시기의 학자들은 이미 유가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인간에 대한 관찰로부터 사유를 진행하였고, 도가는 우주자연에 대한 관찰로부터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유를 진행하였다는 것을 『呂氏春秋』의 예문은 분명하게 보여준다.

도가는 유가와 그 근거하는 사유 대상이 다르듯이 배움에 대한 생각도 다르다. 유가와 달리 도가는 ‘배우지 않을 것을 배워라(學不學)’고 주장한다.[2] 이러한 사유는 우주자연의 기본원리를 무위(無

* 전남대 중어중문학과 교수

1) “荊人有遺弓者, 而不肯索, 曰, 荊人遺之, 荊人得之, 又何索焉. 孔子聞之, 曰, 去其荊而可矣. 老聃聞之, 曰, 去其人而可矣.” 高誘注, 『呂氏春秋』, 『諸子集成』第九冊, 河北人民出版社, 1986年4月, 8쪽. 이 인용 문구는 졸문 「고대 중국인들의 學에 대한 소론-선진시기 유가의 學을 중심으로」(대한중국학회, 『中國學』, 第73輯, 2020,12,31, 398쪽에서 인용한 것을 재인용)

爲) 즉 인위적으로 혹은 의도적으로 함이 없는 것으로 보는 도가의 자연스러운 사유의 결과일 것이다. 그렇다면 '배우지 않을 것을 배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먼저 배우지 않을 것을 배운다는 것은 無爲의 의미처럼 배운다는 생각 없이 배우는 것, 즉 의도적인 혹은 인위적인 배움을 배제하는 스스로 그러한 배움을 말한다. 다시 말해 경전의 가르침과 같은 기준에 따른 배움이 아니라 삶 속에서 그냥 익혀지는 배움일 것이다. 순리를 따르는 배움, 스스로 그러함을 따르는 배움, 道를 따르는 배움을 말할 것이다. 이는 도가의 "도는 항상 함이 없으면서도 하지 않음이 없다(道常無爲, 而無不爲.)"는 사유의 틀에 비추어 보면 '배우지 않을 것을 배운다'는 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비로소 배우지 않은 것이 없게 됨을 역설한다. 도가에서 이런 역설의 사유를 통해 말하려고 하는 배움(學)은 도대체 무엇인가?

2. 무엇을 어떻게 배울 것인가

도가는 무엇을 배워야 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아니 배우지 않을 것을 배워야 한다고 도리어 말한다. 그리고 또 "배움을 하면 날로 더해지나, 도를 하면 날로 덜어진다(爲學日益, 爲道日損)"고 말한다.[3] 의도적이거나 인위적인 목적이 깔린 세속적 배움을 하게 되면 아는 것이 쌓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언가 날로 늘어난다는 생각이 들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의도적 생각이 없는 도에 따른 배움은 오히려 안다는 생각이 없어져 알고 있다는 틀이 깨지게 되어 날로 덜어지게 된다. 그렇다면 '배우지 않을 것을 배운다'는 무엇을 말하는가? 인간의 의도나 의식이 관여되지 않은 스스로 그러한 세계, 보이고 들리며 느끼는 실상의 세계를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보이고 들리며 느껴지는 세계는 지식체계나 문명체계이고 문화 현상이며 관념의 세계이다. 어떻게 이러한 관념의 세계로부터 스스로 그러한 실상의 세계를 통찰하여 볼 수 있는가? 도가에서는 어떻게 이를 설명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도가에서 '배우지 않을 것(不學)'은 문자적 의미의 '배우지 않는다'가 아니라, 인위적 작위의 산물인 지식 문명 문화와 같은 이름으로 지칭되는 드러난 세계가 아니다. "보아도 보이지 않은 이(夷)라는 것과, 들어도 들리지 않은 희(希)라는 것, 그리고 만져도 만져지지 않은 미(微)라는 것(視之不見, 名曰夷, 聞之不聽, 名曰希, 搏之不得, 名曰微.)"과 같은 감각의 세계에서 포착되는 적절한 느낌의 지점 같은 것이다. 즉 이 지점을 느끼고 알아차릴 것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이 셋은 분명하게 말할 수 없으니 섞이면 하나가 된다. 그 위는 밝지 않고 그 아래는 어둡지 않으며, 이어지고 이어져 이름할 수 없으며, 다시 '실체 없음'으로 돌아간다. 이를 '모습 없는' 모습이라 하고 '물체 없는' 형상이라 하니, 이를 '황홀'이라 말한다.(此三者, 不可致詰, 故混而爲一. 其上不皦, 其下不昧, 繩繩兮不可名, 復歸於無物, 是謂無狀之狀, 無物之象, 是謂惚恍.)"[4] 보거나 듣거나 만질 수 없는 느낌의 지점을 모습 없는 모습, 물체 없는 형상이라는 역설적 논리로 형용하기도 하고, '恍惚'이라는 새로운 언어로 명명한다. 여전히 그 느낌의 지점이 분명하게 다가오지 않는다. 『莊子·天道』편의 윤편(輪扁) 관련 고

2) 陳鼓應, 『老子註譯及評介』(北京, 中華書局, 1984, 309쪽), "是以聖人欲不欲, 不貴難得之貨, 學不學, 復衆人之所過, 以輔萬物之自然, 而不敢爲."에 보이는 문구. 陳鼓應은 "學不學"을 "도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배우지 않은 것을 배운다(有道的人學別人所不學的)"라고 해석한다. 陳教授의 해석은 "學不學"의 의미를 인간의 관점에서 보는 제한된 해석으로 보인다.

3) 陳鼓應, 『老子註譯及評介』, 250-252쪽 참조.

4) 陳鼓應, 『老子註譯及評介』, 114-116쪽 참조.

사는 생활 속에서의 구체적 실례를 통해 그 감각적 느낌의 지점을 보여준다.

> 제나라 환공이 대청에서 책을 읽고 있을 때 수레바퀴 목수인 扁은 뜰에서 바퀴를 만들다가 몽치와 끌을 놓고 대청으로 올라가 환공에게 물었다. “황송하옵니다만 公께서 읽으시는 글은 어떤 말씀입니까?” 환공이 “성인의 말씀이네.”라고 하였다. “그 성인은 살아 계십니까?” “그 성인은 이미 세상에서 떠나셨네.” “그러하면 公께서 읽으시는 것은 성인이 뱉어놓은 찌꺼기입니다.” 환공이 “내가 책을 읽는데 수레바퀴 목수인 네가 어찌 그것을 논할 수 있느냐? 말이 이치에 맞으면 괜찮지만 말이 맞지 않으면 곧 죽이리라.”라고 하였다. 扁은 “저는 말입니다. 제가 하는 일로써 그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수레바퀴를 깎는 데 있어서, 너무 느슨하게 깎으면 헐거워서 끼워도 단단하지 못하고, 너무 틈이 없게 깎이면 빡빡해서 좀체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느슨하지도 빡빡하지도 않는 것은 손에서 기교를 익혀 마음에서 감을 잡지만 입으로는 그것을 말할 수 없어 그 가운데서 어떤 기교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자식에게 설명할 수 없고 저의 자식도 저에게서 그것을 이어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이 일흔인데도 늘 수레바퀴를 깎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의 성인도 그 전할 수 없는 것과 동시에 죽었으니 그러하면 公께서 읽으시는 글은 옛사람이 뱉어놓은 찌꺼기일 뿐입지요!”(桓公讀書於堂上, 輪扁斫輪於堂下, 釋椎鑿而上, 問桓公曰: 敢問公所讀爲何言邪? 公曰: 聖人之言也. 曰: 聖人在乎? 公曰: 已死矣. 曰: 然則君之所讀者, 古人之糟魄已夫! 桓公曰: 寡人讀書, 輪人安得議乎? 有說則可, 无說則死! 輪扁曰: 臣也, 以臣之事觀之, 斫輪, 徐則甘而不固, 疾則苦而不入, 不徐不疾, 得之於手而應於心, 口不能言, 有數存焉於其間; 臣不能以喩臣之子, 臣之子亦不能受之於臣, 是以行年七十而老斫輪. 古之人與其不可傳者死矣, 然則君之所讀者, 古人之糟魄已夫!)[5]

제나라 桓公과 輪扁과의 대화는 도가의 ‘무엇을 배울 것인가’에 대한 대답을 하고 있다. 환공이 보고 있던 책은 비록 성인이 남긴 말이지만, 윤편은 그 말들은 성인이 남긴 의미 없는 찌꺼기일 뿐이라고 본다. 그 이유는 말로 전하려는 가장 중요한 뜻은 글로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윤편은 본인의 직업인 수레바퀴 깎는 일을 예로 들어 설명한다. 수레바퀴 통과 굴대가 느슨하지도 빡빡하지도 않으며 적절하게 들어맞게 깎는 지점은 자기 자식에게도 말로 전할 수 없고 평생 동안 부단한 깎기를 통해 직감으로 알아낼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인간의 모든 행위에는 매 순간 가장 적절한 움직임의 지점이 있고, 모든 순간의 그 지점은 언어로 어떻게 설명이 불가함을 간파한 것이다. 도가는 인간의 감각으로 그 지점을 느낄 수 있어야 하고, 바로 그 지점을 감지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것이 배우지 않을 것을 배운다(學不學)는 진정한 의미가 아닐까? 순간순간 그 지점을 알아차릴 수 있어야 배우지 않은 것이 없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장자는 「庚桑楚」에서 배움에 대한 다음과 같은 의미심장한 말을 한다. “배우는 자가 그가 배울 수 없는 바를 배우고, 행하는 자가 그가 행할 수 없는 바를 행하며, 변론하는 자가 그가 변론할 수 없는 바를 변론하면서, 그가 알 수 없는 바에 머물 줄을 안다면, 지극한 지점이다. 만약 그 지점에 머물지 않는다면, 자연스런 성정이 무너진다.(學者, 學其所不能學也. 行者, 行其所不能行也. 辯者, 辯其所不能辯也. 知止乎其所不能知, 至矣. 若有不卽是者, 天鈞敗之.)”[6] 장자에 의하면 배움은 배울 수 없는 지점과 배움 지점의 경계에 서고, 행함은 행할 수 없는 지점과 행한 지점의 경계에 서며, 변론은 변론할 수 없는 지점과 변론 지점의 경계에 서야, 항상 지극한 지점에 자리하는 것으로 보고, 그래야 비로소 성정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다고 역설한다. 도가는 무엇을 배워야 한다고

5) 『莊子·天道』의 인용문 해석은 金在乘外 編譯, 『中國古代文學思想과 理論』, 全南大學校出版部, 2003, 56-58쪽을 인용하였음.

6) 陳鼓應, 『莊子今注今譯』, 北京, 中華書局, 1983, 606-607쪽 참조.

말하지 않고, 인간 행위의 적절한 지점을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을 배우고, 배울 수 없는 지점에 서서 배움의 지점으로 넘어가기를 배워라 한다. 모든 행위의 적절한 때를 알아차리는 그 지점이 바로 배움으로 넘어가는 찰나이다.

그러면 행동의 적절한 지점을 감지하고, 배울 수 없는 지점에서 배움으로 넘어가는 지점을 알아차릴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노자는 먼저 嬰兒와 같은 상태를 유지할 것을 말한다. 즉 "혼백이 도를 보듬고 서로 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가? 기를 온전히 하여 지극한 부드러움에 이르러 영아처럼 될 수 있는가? 가물한 거울을 씻고 닦아 흠이 없게 할 수 있는가?(載營魄抱一, 能無離乎. 專氣致柔, 能嬰兒乎. 滌除玄覽, 能無疵乎.)"[7](『老子道德經·十章』) 혼백 즉 몸과 마음이 도에 따라 분리되지 않고, 영아처럼 타고난 기를 온전히 하여 지극한 부드러움을 유지하며, 거울 같은 가물은 영성을 씻고 닦아 한 점 흠도 없게 해야 그 적절한 지점을 느낄 수 있고, 배울 수 없는 지점과 배운 지점의 중간에서 넘어가기가 가능하다는 말이다. 노자는 또 몸 밖의 것을 떠나고 자기에게 있는 것을 취하라고 한다. "다섯 가지 색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다섯 가지 음은 사람의 귀를 먹게 하며, 다섯 가지 맛은 입맛을 버리게 한다. 치달려 사냥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발광하게 하고, 얻기 어려운 재화는 사람의 행실을 훼방한다. 그러므로 성인은 배를 위하고 눈을 위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저것을 떠나고 이것을 취한다.(五色令人目盲, 五音令人耳聾, 五味令人口爽. 馳騁畋獵令人心發狂, 難得之貨令人行妨. 是以聖人爲腹不爲目, 故去彼取此.)"[8] 눈을 멀게 하는 현란한 빛깔, 귀를 먹게 하는 아름다운 소리, 마음을 발광하게 하는 욕망을 따르는 움직임, 행실을 유혹하는 귀한 물건 등은 모두 몸 밖의 것으로 떠나거나 버려야 할 대상이고, 오직 자기 몸에 있는 것만 취해야 즉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몸 밖의 것은 항상 가변적이어서 내 것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하여 의도적이거나 인위적인 행위를 하게 되면, 勞心焦思 하며 精疲力盡 함으로써 생명을 소진하기 쉽다. 오직 몸만이 자기에게 있는 것으로 자기의 뜻만 있으면 어느 때고 자기 마음대로 자연스럽게 하면서 생명의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고 본래 갖고 있는 보고 듣고 만지는 것에 대한 감각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장자는 감각 능력의 극대화 지점을 "좌망(坐忘)"에 대한 묘사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안회와 공자의 대화 중, 안회가 수련의 경지에 진척이 있는 것 같다고 말한다. 공자가 무슨 진척이 있는가라고 묻자, 안회는 인의와 예악에 대해 잊어버린 것 같다고 대답한다. 그러자 공자는 아직 멀었다고 말한다. 어느 날 다시 좌망을 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그러자 공자가 얼굴빛을 바꾸고 그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 안회가 대답하길, "사지가 떨어져 나간 듯하고, 귀와 눈의 총명함을 떠난 듯하며, 형체에서 멀어지고 지각을 떠나 '대통'인 우주 자연과 같아져서, 이것을 좌망이라 한 것입니다." 공자가 말하길, "['대통'인 우주 자연과] 같아지면 좋아함이 없게 되고, 변화 가운데 있게 되면 일정함이 없게 되니, 과연 현명한 지경에 이르렀다. 나도 그대를 좇아 뒤따르고 싶다."고 하였다.[9] 장자

7) 『老子道德經·十章』의 첫 구는 다른 번역이 가능하나, 여기서는 陳鼓應, 『老子註譯及評介』, 96-101쪽과 양회석, 『노자 도덕경』(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22년), 73-77쪽을 참조하여 번역하였다. "營魄"을 河上公은 "魂魄"으로 注하였고(鄭成海, 『老子河上公注疏證』, 台北, 華正書局有限公司, 2008年9月, 79쪽), 『黃帝內經·本身』(『黃帝內經靈樞譯釋』,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6, 76쪽)에 의하면 "신을 따라 왕래하는 것을 혼이라 하고, 정을 아울러 출입하는 것을 백이라 한다.(隧神往來者謂之魂, 幷精而出入者謂之魄)"라고 한다. 다시 말해 혼은 마음 작용을 의미하고, 백은 몸의 작용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8) 陳鼓應, 『老子註譯及評介』, 106-108쪽 참조.

9) "顔回曰: '回益矣.' 仲尼曰: '何謂也?' 曰: '回忘仁義矣.' 曰: '可矣, 猶未也.' 他日, 復見, 曰: '回益矣.' 曰: '何謂也?' 曰: '回忘禮樂矣.' 曰: '可矣, 猶未也.' 他日, 復見, 曰: '回益矣.' 曰: '何謂也?' 曰: '回坐忘矣.' 仲尼蹴然曰: '何謂坐忘?' 顔回曰: '墮肢體, 黜聰明, 離形去知, 同於大通, 此謂坐忘.' 仲尼曰: '同則無好也, 化則無常也. 而果其賢乎! 丘也請從而後也.'"(「大宗師」) 陳鼓應, 『莊子今注今譯』, 205-208쪽 참조.

가 안회의 입을 빌어 표현한 소위 “좌망”의 상태는 사지를 잃은 듯 중심에 처하고, 귀와 눈을 통해 지식 문명 문화에 대한 인위적 인식을 떠나, 형체와 지각으로부터 멀어져 우주 자연과 합일된 지점을 말한다. 이러한 지점에 처해야 살면서 체득된 인식의 방해로부터 벗어나 비로소 嬰兒 같은 온전한 감각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좋아함과 싫어함 같은 감정의 요동이 없고, 일정한 틀에 갇히지 않으며 변화에 가운데 처하면서 매 순간 가장 적절한 지점에서 반응할 수 있게 된다. 『莊子·知北遊』편의 다음 기록은 “좌망” 상태의 마음을 잘 드러내고 있다.

> 설결이 피의에게 도에 대해 묻자, 피의가 대답하였다. “만약 너의 형체를 바르게 하고 너의 바라봄을 하나로 하면, 타고날 때의 조화로움에 이르게 될 것이다. 너의 지각을 통섭하고 너의 의도를 하나로 한다면, 신명이 깃들게 될 것이다. 그러면 덕은 너의 아름다움이 되고 도는 네가 머무는 곳이 되어, 너는 순수함이 마치 막 태어난 송아지 같아 그 연고를 추구하지 않을 것이다.” 말이 끝나지 않았는데 설결은 잠이 들었다. 피의는 크게 기뻐하며 노래를 부르고 그 자리를 떠나며 말했다. “형체는 마른 해골 같고, 마음은 꺼진 재와 같아, 진실로 실상을 알지만 스스로 안다고 하지 않네. 어둡고 흐릿한 듯 마음이 없으니 더불어 도모할 수 없네.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齧缺問道乎被衣, 被衣曰: “若正汝形, 一汝視, 天和將至. 攝汝知, 一汝度, 神將來舍. 德將爲汝美, 道將爲汝居, 汝瞳焉如新生之犢而无求其故!” 言未卒, 齧缺睡寐. 被衣大說, 行歌而去之, 曰: “形若槁骸, 心若死灰, 眞其實知, 不以故自持. 媒媒晦晦, 无心而不可與謀. 彼何人哉!”)[10]

설결이 피의에게 도를 묻는 것으로 시작한 이 대화는 도에 이르는 방법과 이른 후의 상태를 묘사한다. 피의는 도에 이르러면, 먼저 형체 즉 몸을 바르게 하고, 바라봄으로 대표되는 감각을 하나로 집중하면 타고날 때의 온전한 조화로운 상태에 이르게 되고, 지각의 인지능력을 통섭하여 의도를 하나로 집중하면 신명이 자기 몸에 깃들게 된다. 그렇게 되면 타고난 덕성이 그대로 자신의 아름다움이 되고, 순수하여 어떤 마음도 일어나지 않은 상태가 되니, 바로 도에 이른 지점이다. 자신의 설명이 다 끝나기도 전에 설결이 이미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피의는 그 모습이 형체는 마른 해골 같고 마음은 꺼진 재와 같아, 실상을 알면서도 안다는 마음이 생기지 않으니 누구도 그와 더불어 무엇을 도모할 수 없다고 묘사한다. 다시 말해 사실 설결은 이미 도의 상태에 들었음을 간파한 것이다. 도의 상태에 있는 설결의 모습은 「大宗師」에 보인 “坐忘” 상태의 “사지가 떨어져 나간 듯하고, 귀와 눈의 총명함을 떠난 듯하며, 형체에서 멀어지고 지각을 떠나 ‘대통’인 우주 자연과 같아졌다”는 모습과 일맥상통한다. 단지 좌망에 대한 설명은 내적 세계에서 감지되는 모습이고, 설결은 잠들어 있는 형상에서 감지되는 모습에서 오는 묘사의 차이일 뿐, 모두 도의 세계에 대한 언어적 형용일 뿐이다. 설결의 꺼진 재와 같은 마음, 좌망의 우주 자연과 하나 된 마음인 도의 세계에 이르러야 비로소 “배우지 않을 것을 배워야, 배우지 않음이 없게 된” 상태라 할 수 있다.

“배우지 않을 것을 배워라”는 도가의 배움은 세속의 배움에서 벗어나 영아의 의식이나 좌망 또는 꺼진 재와 같은 마음의 상태에 이르러야 함을 주장한다. 세속의 배움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莊子·外物』편에는 그에 대해 묘사한 다음과 같은 글이 보이다. “무릇 옛것을 높이고 지금을 낮추는 것은 배우는 자의 부류이다. 희위씨(三皇 이전의 帝號) 시대 사람의 관점에서 지금 세상을 본다면 누가 치우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오직 지인(至人)만이 세상에 살면서도 치우치지 않고, 사람들을 따르면서도 자기를 잃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세상의 가르침은 배우지 않고, 그 뜻은 이

10) 陳鼓應, 『莊子今注今譯』, 566-567쪽 참조.

어받으며 그들이 되지 않는다.(夫尊古而卑今, 學者之流也. 且以狶韋氏之流觀今之世, 夫孰能不波? 唯至人乃能遊於世而不僻, 順人而不失己. 彼教不學, 承意不彼.)" 인용의 내용에서 요즘 배우는 사람들에게는 옛것을 높이고 지금의 것은 낮추는 폐단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그 이유가 옛 시대 사람의 관점을 배워 그것으로 지금 세상을 보기 때문에 편파적일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러나 지인은 세상에 살면서도 삶 속에서 익히게 된 옛것의 틀에 얽매어 치우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뜻을 따르면서도 자기의 중심을 잃지 않는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의 가르침인 전통에 의거한 지식 문명 문화에 대한 표면적 내용에 대해서는 배우지 않고, 전통적 지식 속에 전해지는 진정한 뜻을 계승하면서도 그것에 갇히지 않고 지금의 적절한 지점에 머물며 같게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도의 세계 즉 도에 이른 자의 세계에 대한 묘사는 漢 초기에 지어진 『회남자』에 이르러 비교적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나타난다. 「精神訓」에 보인 다음 구절을 보자.

> 그러므로 성인은 없음으로 있음에 반응하며 반드시 그 이치를 궁구하고, 빔으로 참을 받아들이며 반드시 그 절도를 궁구한다. 편안함 즐거움 비움 고요함으로 생명을 마친다. 그러므로 지나치게 소원할 것도 없고 지나치게 가까이할 것도 없으며, 덕을 안고 만물을 조화롭게 하면서 하늘에 순응한다. 도와 만나고 덕과 이웃하며, 복의 시작이 되지도 않고 화의 선두가 되지도 않는다. 혼백은 그 머물 곳에 처하고 정신은 그 뿌리를 치키며, 죽음과 삶 때문에 자기에게 변화가 없으니, 그러므로 至神이라 한다. 소위 진인은 성정이 도에 부합한다. 그러므로 있음이 없음 같고 참이 빔과 같으며, 하나에 머무르고 둘을 알지 않으며, 안을 다스리고 밖을 인식하지 않는다. 분명하고 순수하며, 무위하고 질박함으로 돌아가며, 뿌리를 몸으로 삼고 신을 안고서, 천지의 울타리를 노닐며, 망연히 속세의 밖을 배회하고, 일 없음의 일에 소요한다. 호탕한 마음으로 계산적 기교를 마음에 두지 않는다. 그러므로 죽음과 삶이 비록 큰일이나 그것 때문에 변하지 않고, 천지가 비록 무너져도 그것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다. 하자 없음을 살펴 사물과 섞이지 않으며, 일의 혼란스러움을 보고 능히 그 본원을 지킨다. 이와 같은 자는 간담을 잊고 이목을 버리며, 마음과 뜻을 몸 안에 집중하고 통달하여 도에 짝하게 한다. 머묾에 할 바를 모르고 행함에 갈 바를 모르며, 혼연히 가고 무심코 온다. 형체는 고목 같고 마음은 식은 재와 같다. 오장을 잊고 형해를 버린다. 배우지 않고도 알며 보지 않고도 보며, 하지 않고 이루고 다스리지 않고도 변별한다. 감지하면 반응하고 닥치면 움직이며, 부득이하면 감이 빛이 발하듯 그림자가 생기듯 신속하다. 도로써 법도를 삼으니 만물이 도에 따라 그렇게 되듯 한다. 태청의 뿌리를 안고 있으니 욕망이 수용되고 함께 할 틈이 없으며 만물이 미혹할 수 없다.(是故聖人以無應有, 必究其理. 以虛受實, 必窮其節. 恬愉虛靜, 以終其命. 是故無所甚疏, 而無所甚親, 抱德煬和, 以順于天. 與道爲際, 與德爲鄰, 不爲福始, 不爲禍先. 魂魄處其宅, 而精神守其根, 死生無變於己, 故曰至神. 所謂眞人者, 性合于道也. 故有而若無, 實而若虛, 處其一, 不知其二, 治其內, 不識其外. 明白太素, 無爲復樸, 體本抱神, 以游于天地之樊, 芒然仿佯于塵垢之外, 而消搖于無事之業. 浩浩蕩蕩乎, 機械之巧, 弗載於心. 是故死生亦大矣, 而不爲變. 雖天地覆育, 亦不與之抮抱矣. 審乎無瑕, 而不與物糅, 見事之亂, 而能守其宗. 若然者, 正(亡)肝膽, 遺耳目, 心志專于內, 通達耦于一. 居不知所爲, 行不知所之, 渾然而往, 逯然而來. 形若槁木, 心若死灰. 忘其五藏, 捐其形骸. 不學而知, 不視而見, 不爲而成, 不治而辨. 感而應, 迫而動, 不得已而往, 如光之燿, 如景之放效. 以道爲紃, 有待而然. 抱其太淸之本, 而無所容與, 而物無能營.)[11]

도와 만나고 덕과 이웃하는 성인은 없음으로 있음에 반응하고 빔으로 참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자기가 없고 형체가 있는 것의 움직임에 따라 그대로 수용함을 말한다. 편안하고 즐거우며 비우고 고요하게 생활하면서 있는 실상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멀리하지도 가까이하지도 않는다. 하늘에 순응

11) 高誘注, 『呂氏春秋』, 『諸子集成』第九冊, 103-104쪽 참조.

하며 타고난 덕에 따라 조화롭게 살면서 복을 차지하기 위해 서두르지 않고, 나쁜 일을 하여 화를 불러오지 않는다. 따라서 혼백은 있어야 할 곳에 머물고 정신은 근본을 지키니 삶과 죽음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신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성인에 대한 묘사에 보이는 특징은 도와 덕에 부합한다고 하지 않고 만나고 이웃한다고 하며, 없음과 있음에 머물지 않고 없음으로 있음에 반응한다 하며, 빔과 참에 처하지 않고 빔으로 참을 받아들인다고 함으로써 일정한 상황에 머물지 않고 변화 가운데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그러나 소위 진인은 변화 가운데 있는 모습이 아니라 일정한 지점에 이른 모습을 드러낸다. 다시 말해, 진인은 성정이 도와 만난다고 하지 않고 부합한다고 하며, 없음으로 있음에 반응한다 하지 않고 있음이 없음과 같다 하며, 빔으로 참을 받아들인다고 하지 않고 참이 빔과 같다고 한다. 그러므로 하나에 머물고 안을 다스리며, 분명하고 순수하며, 무위로써 질박함으로 돌아가고, 근본을 몸으로 삼고 신을 안으며, 세속에 간여하지 않고 천지의 울타리를 노닐며, 일 없음을 일삼고 계산적 기교에 마음을 두지 않는다. 따라서 죽음과 삶 때문에 자기를 변하게 하지 않고, 천지가 비록 무너져도 그것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다. 이와 같은 경지에 이른 진인은 밖의 세계를 인식하는 창구인 이목을 버리고 몸 안에 집중함으로써 도와 짝한다. 그러므로 평상의 생활에 인위적 할 바를 모르고 행함에 의도적 갈 바를 모르며, 무심코 가고 온다. 이런 사람의 형체는 고목 같고 마음은 식은 재와 같으니, 음식을 섭취하여 오장을 작동하게 함으로써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일을 마음에 두지 않으며 形骸 조차도 버린다. 의도적으로 배우려 하지 않으니 모든 것을 알며, 인위적으로 보려는 마음이 없이 보니 모든 것을 보며, 인위적으로 하려고 하지 않으니 모든 것을 이루고, 의도적으로 무언가를 다스리지 않으니 모든 것을 변별해 낸다. 그러므로 감지한 대로 반응하고 닥치는 대로 움직이며, 부득이한 상황이 되어 행동함이 빛이 발하듯 그림자가 생기듯 신속하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도로써 법도를 삼으니 만물이 도에 따라 그렇게 되듯 하기 때문이다. 이 인용문에서 비록 변화 가운데에 반응함을 보여주는 성인과 도와 부합한 모습을 그리고 있는 진인을 구별하여 묘사하고 있으나, 죽음과 삶 때문에 자기의 중심이 영향받지 않고, 밖의 세계에 대한 관심을 거두고 자기 몸과 안의 세계에 집중하여 혼백이 마땅히 처할 곳에 머물며 식은 재와 같은 마음을 유지하는 점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지점에 이르러야 모든 행위의 적절한 지점을 감지하고, 배울 수 없는 지점에서 배움의 지점으로 넘어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呂氏春秋·孟夏紀·尊師』편의 다음 기록은 이에 대한 방안을 제시한다.

> 하늘이 사람을 낳아 그 귀로 하여금 들을 수 있게 하였으나 배우지 않으면 그 들음이 듣지 못하는 것만 못하고, 그 눈으로 하여금 볼 수 있게 하였으나 배우지 않으면 그 봄이 보지 못하는 것만 못하며, 그 입으로 하여금 말을 할 수 있게 하였으나 배우지 않으면 그 말이 말하지 못하는 것만 못하고, 그 마음으로 하여금 알게 할 수 있게 하였으나 배우지 않으면 그 앎은 미친 사람만 못하다. 그러므로 무릇 배움은 듣고 보고 말하고 아는 것에 더 보태는 것이 아니라 타고난 성정에 도달한 것이다. 능히 처음 타고난 바를 온전히 하고 허물지 않으면, 훌륭한 배움이라 할 수 있다.(且天生人也, 而使其耳可以聞, 不學, 其聞不若聾, 使其目可以見, 不學, 其見不若盲, 使其口可以言, 不學, 其言不若爽, 使其心可以知, 不學, 其知不若狂. 故凡學非能益也, 達天性也. 能全天之所生而勿敗之, 是謂善學.)[12]

12) 高誘注, 『呂氏春秋』, 『諸子集成』第九冊, 38쪽 참조.

이 기록은 사람이 듣고 보고 말하고 아는 대상이 선행된 배움을 통해 제대로 인지된다는 것을 말한다. 그렇다면 선행된 배움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타고난 본성에 도달하게 하는 것이며, 다시 말해 태어날 때의 성정을 온전히 유지하고 훼손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呂氏春秋·孟夏紀·尊師』편에서 말하는 배움은 분명 유가에서 말하는 성인이나 경전의 가르침이 아니라 도가의 타고난 성정으로 돌아가게 하는 가르침을 지칭한다. 이것이 바로 노자에서 말하는 "도를 하면 날로 줄어든다(爲道日損)"는 배움의 도일 것이다.

도가에는 배워야 할 것을 설정하지 않기 때문에 익혀야 할 경전의 지식체계와 같은 일정한 틀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틀 없는 틀을 배울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도가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위해 輪扁이 바퀴 통을 깎을 때의 '적절한 지점을 감지하기'와 '배울 수 없는 지점에서 배움의 지점으로 넘어가기'의 능력을 배우는 자가 익혀가야 할 지점으로 설정하였다. 여기에 도달하기 위해 영아의 순수한 의식으로 돌아가고, 밖의 것을 떠나고 자기에게 있는 것을 취하며(去彼取此), 좌망(坐忘)의 상태에 들고 꺼진 재(死灰)와 같은 마음을 유지하며, 배움을 통해 전통의 뜻은 계승하면서도 옛사람과 같지 않을 수 있는 지인(至人), 삶과 죽음 때문에 자기를 바꾸지 않고 도에 머물 수 있는 성인(聖人)이나 진인(眞人)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도가에서는 타고난 성정을 온전히 하거나 타고난 성정의 상태로 돌아가기를 역설한 것이다.

3. 무엇을 이룰 것인가

도가에서는 "배우지 않을 것을 배워라"고 말하고, "배움을 하면 날로 더해지고 도를 하면 날로 덜어진다"고 하는 비교를 통해 배움을 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의미를 전달한다. 물론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여기서 배움을 한다는 것은 인위적이고 의도적인 배움을 말하기 때문에 도가에서의 도에 따른 스스로 그러한 배움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배우지 않을 것을 주장하는 도가의 표면적 입장에서 보면 배워서 이룰 무엇도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가의 서적에는 도가의 이상적 인물인 聖人에 대한 언급이 자주 등장한다. 이렇게 언급된 성인의 모습을 통해 도가의 배움을 통해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지 살펴보자. 먼저 『老子道德經』에서 언급된 聖人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도가의 배우지 않을 것을 배워서 도달할 수 있는 이상적인 인물의 경계는 어디인가 혹은 무엇인가 살펴보자. 『老子道德經』에는 26개의 장에서 33번에 걸쳐 성인이라는 언급이 보인다.[13] 여기에 보인 성인은 그가 어떤 사람이라고 묘사하거나 어

13) 2장: 是以聖人處無爲之事, 行不言之敎. 萬物作焉而不辭, 生而不有, 爲而不恃, 功成而不居. 夫唯不居, 是以不去.
3장: 是以, 聖人之治, 虛其心, 實其腹, 弱其志, 强其骨. 常使民無知無欲, 使夫智者, 不敢爲也. 爲無爲, 則無不治.
5장: 聖人不仁, 以百姓爲芻狗.
7장: 是以聖人, 後其身, 而身先, 外其身, 而身存. 非以其無私邪. 故能成其私.
12장: 是以聖人爲腹, 不爲目, 故去彼取此.
22장: 是以聖人抱一, 爲天下式. 不自見, 故明. 不自是, 故彰, 不自伐, 故有功, 不自矜, 故長. 夫唯不爭, 故天下莫能與之爭. 古之所謂曲則全者, 豈虛言哉.
26장: 重爲輕根, 靜爲躁君. 是以聖人終日行, 不離輜重.
27장: 是以聖人常善求人, 故無棄人. 常善救物, 故無棄物. 是謂襲明. 故善人者, 不善人之師, 不善人者, 善人之資. 不貴其師, 不愛其資, 雖智大迷, 是謂要妙.
28장: 知其榮, 守其辱, 爲天下谷. 爲天下谷, 常德乃足, 復歸於樸. 樸散則爲器, 聖人用之, 則爲官長. 故大制不割.
29장: 是以聖人去甚, 去奢, 去泰.
47장: 是以聖人, 不行而知, 不見而名, 不爲而成.

떤 사람이라는 일정한 틀이나 모습을 그리지 않는다. 단지 성인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일은 하지 않는 행위를 통해 끊임없이 무언가를 실현하거나 변화 중에 있는 인물로 묘사한다. 『老子道德經』에 그려진 성인은 대략 세 가지 모습으로 분류될 수 있다. 첫째, 無爲의 모습이다. 성인은 하지 않는 일에 처하고 말하지 않는 가르침을 행하기 때문에 일과 가르침이 떠나지 않고(2장), 하지 않음을 하기 때문에 다스려지지 않음이 없다.(3장) 또 성인은 가지 않아도 알고, 보지 않아도 이름하며, 하지 않아도 이루고,(47장) 하지 않아도 백성이 스스로 변화한다.(57장) 성인은 모나나 깍지 않고, 날카로우나 자르지 않으며, 곧으나 함부로 하지 않고, 빛나나 부시지 않는, 즉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적응한다.(58장) 성인은 도로써 천하에 임하니 귀신도 신통을 부리지 못하고, 성인도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는다.(60장) 성인은 함이 없기 때문에 패함이 없고, 잡음이 없기 때문에 잃음이 없다.(64장)

둘째, 無我의 모습이다. 비록 직접 무아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나. 그 행위의 내면은 무아의 실현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러므로 천지가 어질지 않아 만물을 풀강아지처럼 여기듯, 성인도 어질지 않아 백성을 풀강아지처럼 여긴다.(5장) 성인은 자기를 뒤로 하기 때문에 앞서게 되고, 자기를 던지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자아의식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7장) 성인은 늘 사람과 사물은 잘 구제하기 때문에 버리지 않고,(27장) 끝내 크게 되지 않으니 큼을 이루며, 어렵게 여기니 끝내 어려움이 없게 되고,(63장) 병을 병으로 여기니 병들지 않는다.(71장) 성인은 백성 위에 있고자 하면 말로써 자신을 낮추고, 백성보다 앞서고자 하면 몸으로 그들보다 뒤에 서니, 그들 위에 처하여도 무겁게 여기지 않고, 앞에 처하여도 해롭다 여기지 않는다.(66장) 하늘이 미워하는 것에 대해 아무도 그 연유를 알 수 없으므로, 성인은 그것을 어렵게 여긴다.(73) 성인은 무언가를 하면서 자랑하지 않고, 공을 이루어도 거기에 머무르지 않으며,(77장) 나라의 온갖 더러움을 받기 때문에 사직의 주인이라 말하고, 나라의 온갖 상서롭지 못함을 받기 때문에 천하의 왕이라 말한다.(78장) 성인은 채권의 어음을 갖고 있으면서 채무자를 독촉하지 않고,(79장) 쌓아두지 않고 남을 위하니 자기가 더 있게 되며, 남에게 주니 자기가 더 많아지게 되고, 하면서도 다투지 않는다.(81장)

셋째. 中心이 있는 모습이다. 여기서의 중심은 몸 밖에 있는 것에 관심을 갖거나 연연하지 않고 자기 안의 것 혹은 몸 자체 혹은 근본에 자기의 마음이 머물며 집중함을 말한다. 그러므로 성인은 몸을 이루게 하는 존재의 근원이 되는 배에 마음이 머물지, 몸 밖의 것을 인식하는 눈에 마음이 머

49장: 聖人無常心, 以百姓心爲心. 善者, 吾善之, 不善者, 吾亦善之, 德善. 信者, 吾信之, 不信者, 吾亦信之, 德信. 聖人之在天下, 歙歙焉, 爲天下, 渾其心. 百姓皆注其耳目, 聖人皆孩之.
57장: 故聖人云, 我無爲而民自化, 我好靜而民自正, 我無事而民自富, 我無欲而民自樸.
58장: 是以聖人, 方而不割, 廉而不劌, 直而不肆, 光而不燿.
60장: 治大國, 若烹小鮮. 以道莅天下, 其鬼不神. 非其鬼不神, 其神不傷人. 非其神不傷人, 聖人亦不傷人. 聖人亦不傷人, 夫兩不相傷, 故德交歸焉.
63장: 是以聖人終不爲大, 故能成其大. 夫輕諾, 必寡信, 多易, 必多難. 是以聖人猶難之, 故終無難矣.
64장: 是以聖人無爲, 故無敗, 無執, 故無失. 民之從事, 常於幾成而敗之, 愼終如始, 則無敗事. 是以聖人欲不欲, 不貴難得之貨, 學不學, 復衆人之所過. 以輔萬物之自然, 而不敢爲.
66장: 是以聖人欲上民, 必以言下之, 欲先民, 必以身後之. 是以聖人處上而民不重, 處前而民不害. 是以天下樂推而不厭. 以其不爭, 故天下莫能與之爭.
70장: 是以聖人, 被褐懷玉.
71장: 聖人不病, 以其病病. 夫唯病病, 是以不病.
72장: 是以聖人, 自知不自見, 自愛不自貴, 故去彼取此.
73장: 勇於敢則殺, 勇於不敢則活. 此兩者, 或利或害, 天之所惡, 孰知其故? 是以聖人猶難之.
77장: 是以聖人, 爲而不恃, 功成而不處, 其不欲見賢.
78장: 是以聖人云, 受國之垢, 是謂社稷主, 受國不祥, 是謂天下王. 正言若反.
79장: 是以聖人執左契, 而不責於人. 有德司契, 無德司徹. 天道無親, 常與善人.
81장: 聖人不積, 旣以爲人, 己愈有, 旣以與人, 己愈多. 天之道, 利而不害, 聖人之道, 爲而不爭.

물지 않는다. 그러므로 저것을 버리고 이것을 취한다.(12장) 성인은 하나(道, 無爲)를 안고 천하의 모범이 되고,(22장) 종일 다녀도 무거운 수레를 떠나지 않는다.(26장) 성인은 통나무 같은 질박한 본연의 도를 사용하면 관리의 우두머리가 된다.(28) 성인은 심함(甚)과 사치(奢)와 과분함(泰)을 버리고,(29장) 늘 사심이 없고 백성의 마음을 자기의 마음으로 삼으며, 천하에 있을 때는 욕심을 줄이고, 천하를 위해 자기 마음을 순박하게 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이목에 집중하게 하여 어린애처럼 살게 한다.(49장) 성인은 겉은 남루한 옷을 걸치나 속에는 옥을 품고 있으며, 스스로 알지만 드러내 보이지 않고, 스스로 아끼지만 자기를 귀하다 않네.(72장)

이와 같이 『老子道德經』에 언급된 성인의 모습을 無爲의 모습, 無我의 모습 그리고 中心이 있는 세 가지로 대별해 보았으나, 이 모든 형상들은 사실 도를 체득한 일정한 경지에 이른 사람의 다양한 모습일 뿐이다. 『莊子』에 보이는 성인의 모습도 크게 이 세 가지의 경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먼저 「庚桑楚」편에 보이는 '无有'의 상태에 머무는 성인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자. "도는 통한다. 그것은 나누고 이루며, 이루고 무너뜨린다. 나누어짐을 싫어하는 자는 나뉨으로써 구비됨을 구한다. 구비됨을 싫어하는 자는 있음으로써 항상 구비됨을 구한다. 그러므로 (마음이 몸을) 나와서 돌아가지 않으면 그 鬼를 보고, 나와서 얻는다는 것은 죽음을 얻는다는 말이다. (마음이) 소멸되어 실체만 있게 되면 鬼와 하나 된다. 형체가 있는 것으로써 형체가 없는 (도를) 본받으면 안정된다. 나옴에 근본이 없고, 들어감에 구멍이 없다. 실체는 있으나 처함이 없고 지속됨이 있으나 시작과 끝이 없다. 나오는 것이 있으나 들어갈 구멍이 없는 것이 실체가 있는 것이다. 실체는 있으나 처한 것이 없는 것이 공간(宇)이고, 지속됨은 있으나 시작과 끝이 없는 것이 시간(宙)이다. (도는) 삶에 있고 죽음에 있으며. 나옴에 있고 들어감에 있다. 들어가고 나옴에 그 형체를 볼 수 없으니 천문이라고 말한다. 천문이라는 것은 있음이 없는 것(无有)으로 만물이 무유에서 나온다. 있음은 있음으로써 있음을 삼을 수 없으니, 반드시 무유에서 나오며, 그러므로 무유가 온전한 무유이다. 성인은 이 무유에 숨는다.(道通. 其分也成也, 其成也毁也. 所惡乎分者, 其分也以備. 所以惡乎備者, 其有以備. 故出而不反, 見其鬼. 出而得, 是謂得死. 滅而有實, 鬼之一也. 以有形者象无形者而定矣. 出无本, 入无竅. 有實而无乎處, 有長而无乎本剽, 有所出而無竅者有實. 有實而无乎處者, 宇也. 有長而无本剽者, 宙也. 有乎生, 有乎死, 有乎出, 有乎入, 入出而无見其形, 是謂天門. 天門者, 无有也, 萬物出乎无有. 有不能以有爲有, 必出乎无有, 而无有一无有. 聖人藏乎是.)"[14] 「庚桑楚」편의 이 기록은 도의 작용과 몸과 마음의 관계, 시간과 공간에 대한 개념 그리고 만물의 출처인 无有 등 도가의 우주론 존재론에 대한 거대담론이다. 성인이 자신을 숨긴다는 "있음이 없는 곳(无有)"은 어떤 상태에 머문다는 것일까? 도가에서 말하는 있음(有)이란 인위적이거나 의도적인 것이며, 자연적이거나 도에 따른 순리적인 있음은 없는 것과 같다. 만약 이와 같은 추론이 옳다면 여기서 말하는 성인은 무위의 모습이고 무아의 형상일 것이다.

「達生」편에 보이는 '神'이 온전한 상태의 성인의 모습에 대한 묘사를 살펴보자. "무릇 취한 자는 수레에서 떨어져도 비록 다치기는 하나 죽지는 않는다. 골절이 다른 사람과 같으나 해를 당하는 것이 다른 사람과 다른 것은 그의 神이 온전하기 때문이다. 타고 있는 것도 알지 못하고 떨어지는 것도 알지 못하며, 죽음 삶 놀람 두려움이 그의 가슴에 들어가지 않으니, 사물에 부딪혀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이다. 그는 술에 의해 온전한 '神'을 얻어 그렇게 된 것이니, 하물며 하늘에 의해 온전함을 얻게 된다면 어떠하겠는가? 성인은 타고난 상태(天)에 숨어 있으니 아무것도 그를 다치게 할 수 없다.(夫醉者之墜車, 雖疾不死. 骨節與人同而犯害與人異, 其神全也, 乘亦不知也, 墜亦不知也, 死生驚懼不

14) 陳鼓應, 『莊子今注今譯』, 611-612쪽 참조.

入乎其胸中, 是故遯物而不慴. 彼得全於酒而猶若是, 而況得全於天乎? 聖人藏於天, 故莫之能傷也.)"[15] 여기에서 묘사된 성인은 항상 자기의 몸을 嬰兒와 같은 타고난 상태로 유지하기 때문에 죽고 사는 것 놀라고 두려운 것에 구애되지 않은 神이 구족된 무아의 모습이다.

「庚桑楚」에 보이는 성인은 부득이한 상황이 되었을 때 비로소 행동하는 모습으로 묘사된다. "형벌로 발이 잘린 사람은 명예가 훼손되는 것을 도외시하고, 노역하는 죄수들이 높은 곳에 올라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생사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협박을 당하여 굴복하고도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면 남을 잊게 된다. 남을 잊을 수 있으면 타고날 때 모습의 사람(天人)이 된다. 그러므로 공경하여도 기뻐하지 않고 모욕하여도 화내지 않은 사람은 태어날 때의 조화로운 모습과 같아져야 그렇게 될 수 있다. 화를 내나 분노하지 않으면, 화가 분노하지 않음으로부터 나온다. 함을 하나 (인위적으로) 함이 없으면, 함이 함이 없음으로부터 나온다. 고요함을 바라면 기를 공평하게 하고, 신이 온전하기를 바라면 마음을 순조롭게 해야 한다. 함이 있어 합당하고자 하면 부득이한 상황에 따라야 한다. 부득이한 상황에야 행동하는 것이 성인의 도이다.(介者侈畫, 外非譽也. 胥靡登高而不懼, 遺死生也. 夫復謵不餽而忘人, 忘人, 因以爲天人矣. 故敬之而不喜, 侮之而不怒者, 唯同乎天和者爲然. 出怒不怒, 則怒出於不怒矣. 出爲无爲, 則爲出於无爲矣. 欲靜則平氣, 欲神則順心, 有爲也欲當, 則緣於不得已, 不得已之類, 聖人之道.)" 여기서 묘사된 성인의 모습은 명예를 도외시하고 생사를 초월하며, 남과 나의 구분을 잊고 태어날 때의 모습과 같아진 嬰兒 같은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마음에서 분노를 표출하지 않고 인위적으로 함이 없으며, 늘 기가 화평하고 마음이 순조롭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부득이한 상황이 되어서야 움직인다고 말한다. 도가에서 배워야 할 가장 적절한 지점에서 행하고, 알지 못하는 지점에서 아는 지점으로 나아가는 움직임이 바로 부득이한 지점이다.

성인 외에 도에 다다랐다고 여겨지는 진인에 관한 기록도 다양하게 나타난다. 『莊子·大宗師』편에 비교적 상세한 진인에 관한 기록이 보인다.

> 진인만이 참된 앎이 있게 된다. 어떤 사람을 진인이라 말하는가? 옛날의 진인은 작은 것도 거스르지 않고 이룸을 뽐내지 않으며, 일을 도모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은 시기를 지나쳐도 후회하지 않고, 감당하여도 자득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사람은 높은 곳에 올라도 떨지 않고 물에 들어가도 젖지 않으며, 불 속에 들어가도 뜨겁다고 하지 않는다. 지각이 도에 부합하는 지경에 이른 자만이 이와 같을 수 있다. 옛날의 진인은 잘 때는 꿈을 꾸지 않고 깨어있을 때는 근심이 없다. 먹는 것을 달게 여기지 않고, 호흡은 깊게 하였다. 진인은 발뒤꿈치로 호흡하고, 중인은 목으로 호흡한다. 굴복당한 사람은 아첨하는 말이 알랑거리듯 한다. 좋아하거나 바라는 것이 많은 자는 그 타고난 근기가 얕다. 옛날의 진인은 삶을 기뻐할 줄도 모르고 죽음을 싫어할 줄도 모른다. 태어남을 기뻐하지도 않고 죽음을 거부하지도 않으며, 의연히 가고 의연히 올 따름이다. (생명이) 시작한 바를 잊지 않고 마칠 바를 구하지 않는다. (생명을) 받아도 기쁘게 여기고, (생사를) 잊고서 되돌아간다. 이것을 가리켜 마음으로 도를 훼손하지 않고, 사람 때문에 하늘을 돕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런 사람은 진인이라 말한다. 이와 같은 사람은 마음은 잊고 얼굴은 적적하며 이마는 널찍하다. 처연함이 가을 같고 따스함이 봄날 같으며, 희노의 감정 변화가 사시와 상통하고, 사물과 더불어 적절하게 머묾이 그 끝을 알 수 없다.(且有眞人而後有眞知. 何謂眞人? 古之眞人, 不逆寡, 不雄成, 不謨士. 若然者, 過而弗悔, 當而不自得也. 若然者, 登高不慄, 入水不濡, 入火不熱. 是知之能登假於道者也若此. 古之眞人, 其寢不夢, 其覺無憂, 其食不甘, 其息深深. 眞人之息以踵, 衆人之息以喉. 屈服者, 其嗌言若哇. 其耆欲深者, 其天機淺. 古之眞人, 不知說生, 不知惡死. 其出不訢, 其入不距. 翛然而往, 翛然而來而已矣. 不忘其所始, 不求其所終. 受而喜之, 忘而復之, 是

15) 陳鼓應, 『莊子今注今譯』, 468-471쪽 참조.

之謂不以心損道, 不以人助天. 是之謂眞人. 若然者, 其心忘, 其容寂, 其顙頯. 凄然似秋, 煖然似春, 喜怒通四時, 與物有宜而莫知其極.)[16]

여기서 묘사되고 있는 진인의 형상은 성인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 작은 것도 거스르지 않고 지나쳐도 후회하지 않은 것이 중도가 있는 지점에 머문 것 같다. 이룸을 뽐내지 않고 감당하여도 자득하지 않으며, 높은 곳에서 떨지 않고 물 속에서 젖지 않으며, 불 속에서 뜨겁다고 하지 않고 꿈을 꾸지 않으며, 근심이 없고 음식을 달게 여기지 않은 것이 무아의 지점에서 행동하는 것 같다. 인위적 일을 도모하지 않는 것은 무위를 실행하는 것 같아 성인의 모습과 대동소이하다. 그렇기 때문에, 생사 문제에 대해 잊은 듯 의연하게 대처하며, 마음을 잊고 얼굴은 적적하듯 한다. 밖으로 풍기는 모습에는 만물을 시들게 하는 가을 기운 같은 처연함도 있고, 만물을 소생하게 하는 봄날 같은 따스함도 있다. 희노애락의 감정은 사시사철의 자연규율과 상통하여 변하고, 바깥 세계의 사물과 함께 하며 끝없이 적절하게 대처한다.

도가의 학습을 통해 도에 다다랐거나 가까이 간 사람을 聖人 眞人 至人 天人 神人 등 다양한 명칭으로 언급된다. 다음은 이들 명칭이 의미하는 경지의 차이를 보여주는 기록들이다. 먼저 『莊子·天下』편의 기록은 살펴보자. “종주로부터 떨어지지 않은 사람을 천인이라 말하고, 정신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은 사람을 신인이라 하며, 참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은 사람을 지인이라 말한다. 하늘을 종주로 삼고 덕을 근본으로 여기며, 도로써 문을 삼고 변화의 조짐에 반응하는 사람을 성인이라 말한다.(不離於宗, 謂之天人. 不離於精, 謂之神人. 不離於眞, 謂之至人, 以天爲宗, 以德爲本, 以道爲門, 兆於變化, 謂之聖人.)”[17] 비록 여기서 언급된 宗, 精, 眞을 명확하게 정의할 수 없지만, 宗은 타고날 때의 근본을 지칭한다고 보면, 그 근본을 떠나지 않아야 천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精은 精、氣、神의 精으로 보아 정신이라고 번역하였는데, 사람이 精、氣、神을 잃지 않아야 신묘한 세계를 감지할 수 있는 신인이라 할 것이다. 眞은 타고날 때의 참 모습으로 그 상태를 떠나지 않아야 지극한 경지의 至人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성인은 天人 神人 至人의 특징들을 모두 아우르며 변화 가운데 머물면서 알지 못하는 지점에서 앎의 지점으로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다. 『淮南子·詮言訓』에는 성인과 진인을 비교하여 언급한 다음과 같은 기록이 보인다. “태초를 헤아려보면 사람은 없음에서 생겨났고, 있음에서 형체가 있게 되었으며, 형체가 있게 되자 만물의 제어를 받게 되었다. 생겨난 바로 돌아가서 형체가 없을 때와 같게 된다면, 그를 진인이라 말한다. 진인이라는 것은 태일에서 아직 나뉘지 않은 모습이다. 성인은 이름의 주인이 되지 않고 모략의 장소가 되지 않으며, 일을 맡아 하지 않고 지혜의 주인이 되지 않는다. 형체 없음으로 숨기고 행적 없이 행하며, 조짐 없이 노닐고 복의 앞에 서지 않으며, 화의 시작이 되지 않고, 비고 없음 속에서 보호되며 부득이한 경우 움직인다.(稽古太初, 人生於無, 形於有, 有形而制於物. 能反其所生, 若未有形, 謂之眞人. 眞人者, 未始分於太一者也. 聖人不爲名尸, 不爲謀府, 不爲事任, 不爲智主, 藏無形, 行無迹, 遊無朕, 不爲福先, 不爲禍始, 保於虛無, 動於不得已.)” 이 기록에 보이는 진인과 성인의 차이는 분명해 보인다. 진인은 형체가 생겨날 때의 본래의 모습만을 강조한 형상이라면, 성인은 그러한 모습에 더하여 행위 가운데 이름 모략 일 지혜 형체 행적 조짐의 얽매임을 받지 않고, 비움과 없음에 처하며 부득이한 경우 적절한 지점에서 행동하는 사람이다.

16) 陳鼓應, 『莊子今注今譯』, 168-177쪽 참조
17) 陳鼓應, 『莊子今注今譯』, 855-861쪽 참조.

4. 나오는 말

‘무엇을 배울 것인가’의 적절한 지점과 배울 수 없는 지점에서 배움의 지점으로 넘어가는 지점의 경계를 직감으로 찾아가는 경지와 ‘어떻게 배울 것인가’의 몸 밖의 것을 버리고 자기에게 있는 것을 취하는(去彼取此) 행위를 통해 嬰兒와 같은 상태를 유지하고, 우주 자연과 합일된 坐忘에 이르고, 식은 재와 같은 마음을 유지하며, 생사를 초월하여 도에 머물 수 있는 성인이나 진인의 경지는 모두 일정한 도의 지점을 말한다. 다시 말해 도의 여러 측면을 형용하는 다른 용어의 표현일 뿐이다. 도의 이런 지점에 도달하기 위한 배움은 타고난 성정의 상태로 돌아가 그것을 온전히 유지하는 것이다고 도가는 말한다.

『莊子』·『呂氏春秋』·『淮南子』와 같은 문헌에서 추상적 주제에 대해서 논리적 서술 방식을 취하지 않고, 단편적 고사나 사건을 나열하는 방식을 취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각자의 이야기나 사건들의 점들이 모여 추상적 주제에 대한 일정한 모습을 그려낸다. 3장에서 도가의 배움을 통해 다다른 성인의 모습에 대한 논술을 진행하면서 위의 방법을 취하였다. 도를 체득한 성인의 모습은 본래 언어로 형용할 수 없는 지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방법이 아닌 서술방법을 취한 것이다. 위의 문헌에 위와 같은 성인의 모습에 대한 기록들이 적지 않게 보이며, 이 기록들에 대한 설명의 나열을 통해 성인의 이미지에 대한 윤곽을 드러내려고 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도가의 開宗明義인 “도가 도라고 말할 수 있으면 항상 그러한 도가 아니다(道可道, 非常道)”의 宗旨에 따른 서술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다.

노자는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知者不言, 言者不知)”(56章)라고 말한다. 도가의 배움(學)에 대해 쓴 이 글은 모르는 지점을 탐구하며 생각들을 전개하였다. 모든 글쓰기는 이분적 개념의 전개일 수밖에 없다. 그것은 마치 『老子道德經』은 1장에서 우주 자연을 지배하는 원리로서의 道와 천지의 시작과 만물의 어머니인 無·有의 개념에 대해 말함으로써 우리 눈앞 세계의 시작 지점을 설정하고, 2장에서 美와 惡, 善과 不善, 有와 無, 難과 易, 長과 短, 高와 下, 音과 聲, 前과 後 등의 이분되는 분별이 시작되면서 인간의 개념 세계가 형성되므로 분별의 지점을 살펴 무위의 일(無爲之事)에 처하고 불언의 가르침(不言之敎)을 행하라고 말한다. 이제 도가의 배움에 대해 알지 못했던 지점에 대한 윤곽이 그려지면서 앎의 지점으로 넘어가기를 기대하면서 글을 마치려고 한다.

메 모

【문학분과Ⅰ】 발표 ②

이승 사람의 명계 겸직 현상 연구
- 중국 고전 문헌 자료를 중심으로

안희진*

【목 차】

1. 서론
2. 명부 겸직 업무의 진행 과정
  1) 이승 사람의 명부 겸직 이유
  2) 명부 겸직 내용
3. 명부 겸직자 진술 내용의 공통점
  1) 비밀
  2) 미래 예지
4. 명부 겸직자들이 알려주는 명부의 법칙
  1) 응보
  2) 명부 겸직자들이 말하는 운명의 해법
5. 결론

1. 서론

정사를 포함한 중국 고대 문헌에는 이승에서 명부 일을 한 사람들에 관한 기록이 적지 않다. 본 연구자는 기록문학으로 분류되는 문헌의 관련 내용을 보던 중 상당수가 구체적이면서도 일정한 공통점이 있음을 발견했다. 그것은 곧 이런 내용이 일정 부분 사실일 가능성이 있음을 뜻한다. 본 논문에서 다루는 자료는 약 20여 개의 기록으로서 주로 『태평광기』·『자불어』·『열미초당필기』 등에서 수집했다. 이는 대부분 현실의 살아 있는 사람이 밤만 되면 명계에 가서 명부 판관이나 혼령 안내자 등의 직무를 보았다는 기록이다. 이들 기록 중 간단한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

> 나강현의 도사 초예준譙乂俊은 20년간 밤마다 명부의 태산부군 예하에 들어가서 '장직杖直'이라는 직무를 맡아 일했다. 그는 일하면서 알게 된 사실을 종종 이승의 지인들에게 말했다.
> "이승에서 아직 수명이 다하지 않은 사람이 나쁜 짓을 하면 명부에서 그의 혼령을 잡아다가 매질을 합니다. 그러면 그는 이승에서 병에 걸리거나 액운을 당합니다. 제 친척이나 이웃 중에 그렇게 명부로 혼령이 불려온 사람을 본 일이 있는데, (이승에서) 실제로 다음 날 그 마을로 가 만나보면 확실히 그런 일(질병이나 액운)이 있었습니다."(『야인한화』)[1]

당시 초예준은 그 일이 힘들었기 때문에 그만두고 싶어서 명부에서 도사를 찾아가 물었다. 도사

* 단국대
1) 『太平廣記』 神二十四

는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고 그는 그대로 정성껏 기도하자 명부의 태산부군이 사직을 허락했다. 그 뒤 도를 닦고 주역을 공부하며 80살까지 살았다.

이 글에서 주목되는 것은 그가 밤마다 명부에 다녀왔다는 것인데, 명계로 가는 것은 내용으로 유추하면 육신이 아니라 영혼만 가는 것이다. 또 하나는 사람의 행위를 명부에서 다 알고 있고 그것에 맞게 응징한다는 부분이다. (질병이나 사고를 당한 사람이 모두 명부와 관련 있는 것은 아니다. 뒤에서 언급하겠지만, 명부에서 누구에게 어떤 조치를 하면 그 사람은 이승에서 갑작스럽게 뜻하지 않은 일을 맞는다. 나쁜 생활습관이 오래되면 사고나 질병을 초래하는데, 이에 반해서 명부의 조치를 당하면 습관과 관련 없이 갑자기 의외의 사고나 질병이 발생한다)

위의 이야기는 당나라 시기의 일화로, 초예준 외에도 인간 세상에 살면서 저승의 명부에 오가며 겸직한 사람 이야기가 종종 보인다. 그중에는 '저승사자'라는 혼령 안내 업무를 보는 경우가 비교적 많지만, 때로는 판관이나 다른 직책을 맡는 사람도 있다. 심지어 명부의 '염라왕' 직무를 맡아서 낮에는 이 세상일을 하고 밤이면 명부에 들어가서 중요한 심의를 결재하고 각종 업무처리를 경험한 사람도 있다.

청대의 원매袁枚에 따르면 이처럼 이승에서 명부의 일을 하는 사람 중 죽은 사람의 혼령을 데려가는 존재, 즉 저승사자를 항주 지역에서 '활무상活無常'이라고 한다.[2] 중국에서 전통적으로 '무상無常'은 저승사자를 가리킨다.[3] 현대에 와서 '음차陰差'(또는 '구혼음차勾魂陰差')로 불리는 이들 혼령 안내자는 사실 일반적인 무당과는 다른 개념이다. 무당은 신령과 소통이 되거나 접신되는 능력의 사람이라면 '활무상'은 현실에 살아 있는 저승사자다. 명나라 시기 축윤명祝允明의 글에서 관련 기록을 볼 수 있다.

> "풍도酆都의 '주무상走無常'은 ……(그 일을 하는 사람은) 종종 넋이 빠져나가는데, 사람이 다니는 길에서건 물건을 들고 가는 중에도 별안간 날뛰다가 바닥에 쓰러져서 마치 죽은 것 같다. 사람들이나 식구들은 지켜볼 수밖에 없다. 여섯 시간 뒤에나 또는 한나절, 심지어 하루를 다 지나야 저절로 깨어났기 때문에 그걸 고치려고 하지도 않는다. 깨어난 뒤 물어보면 (사람 혼령)을 거두러 다녔다고 말한다. 명부에서 혼령을 거둘 일이 많아지면 안내자가 부족해서 산 사람을 불러서 일을 맡긴다. 혼령 안내자가 되면 첩지(공문서)를 들고 일을 하는데 일을 마치면 돌아왔다. 무언가 옮겨오는 일이 필요해도 그렇게 했는데, 이를 '주무상'이라고 했다."(『어괴』)[4]

'풍도酆都'는 사천성에 있는 인간 세계와 명계의 접경 지역이다.[5] '주무상走無常'이란 앞서 말한 '활무상'이다. 축윤명의 이런 기록이 사실일 수 없다고 단정한다면 더 논의할 것이 못 된다. 그러나 고금의 그 수많은 기록과 자료가 다 지어낸 '소설'이나 꾸며진 '전설'로만 볼 수 없다. 본 연구자 역시 이를 전부 사실이라고 보기에는 상당한 저항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지만, 각 이야기의 구체성과 일련의 공통점을 놓고 보면 완전히 허구라고 단언하기도 어렵다. 만약 이런 글이 일정 부분 사실의 기록이라면 거기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 본 연구에서는 관련 기록을 분석하고

2) 『子不語』 p.230
3) 이는 '鬼差', '陰差', '冥吏'와 같은 뜻이며 죽은 사람의 혼령을 명부로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살아서 혼령 안내자 일을 하는 사람인 '活無常'은 청대에 '走無常'이라고도 했다.
4) "酆都走無常事……彼中以此為常。"(明祝允明『語怪·重書走無常』)
5) '酆都'는 중국 중경직할시의 한 지역명으로 전통적으로 귀신의 도시라고 알려졌으므로 현대에 와서는 귀신문화를 관광 테마 상품화했다. 도교 경전의 하나인 『北帝伏魔神咒妙經』과 唐 段成式『酉陽雜俎·玉格』을 보면 이 지역은 고대로부터 사람들이 말하는 '명부' 입구로, 이들 문헌에 그 지리 환경, 궁전 가옥, 조직 구성 등이 상세히 전한다.

검토해서 그 내용의 핵심 메시지를 규명해 보기로 했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해 고대 문헌상의 관련 자료를 찾아, 근현대의 유사한 기록과 비교해서 논하고자 한다.

2. 명부 겸직 업무의 진행 과정

1) 이승 사람의 명부 겸직 이유

동진시기 간보干寶가 『수신기搜神記』를 편찬한 것은 현령으로 있던 그의 형 간경干慶이 죽었다가 살아난 일이 있은 뒤다. 소생한 뒤 명부 이야기를 하는 간경의 말을 듣고 놀란 일이 그 책 집필의 동기 부여가 됐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 무녕현의 현령 간경이 죽었는데 입관하지 않은 채 3일 되던 날 도사 오맹이 찾아와 울면서 말했다. "현령께서는 수명이 다한 게 아니니 제가 하늘에 가서 어떻게 된 건지 알아보겠소."
> 오맹은 간경 시신 옆에 눕더니 며칠 뒤에 간경과 함께 깨어났다. 당시 날씨가 더워 시신도 썩어가고 있었으므로 간경의 혼령은 자신의 몸에 들어가려 하지 않았다. 오맹이 억지로 간경을 시신 속으로 밀어 넣자 간경이 깨어났다. 진晉의 저작랑著作郎으로 있던 동생 간보는 부친의 첩이 그랬던 것처럼 형도 죽었다 살아난 걸 보고 느낀 바가 있어서 『수신기』를 지었다.(『십이진군전』)[6]

'오진군吳眞君'으로 더 잘 알려진 도사 오맹은 '허진군許眞君' 허손許遜의 스승이다. 오맹는 어려서 부모에게 달려들지 않도록 자신의 몸에 앉은 모기와 파리를 쫓지 않은 일화로 유명한 사람이다. 이 두 사람의 특이한 능력의 행적은 여러 문헌에 수많은 기록으로 남아 있다. 이 사건을 기록한 다른 글에 보면 죽은 간경의 시신은 심장이 아직 식지 않은 채 있었고, (직전의 3일을 포함해서) 7일 만에 오맹과 함께 깨어났다. 아무 병도 없이 죽었다가 깨어난 간경은 그 사흘 뒤 건강을 회복했다. 그리고 명부에서 오맹을 만난 일과 그를 둘러싸고 일어났던 이야기를 이승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상세하게 말한다. 명부에서 간경이 본 명부 정경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

> 오맹이 북면을 하고 명부 왕에게 무언가 설명하자 왕은 간경을 돌려보내라고 명했다. (명부에서 간경이 보니) 오맹이 지나갈 때 관청마다 나와서 오맹에게 존경의 예를 표했고 오맹도 동등한 예의로 그들을 대했다.(『유명록』)[7]

이상의 내용을 보면 오맹이 명부의 겸직자가 아니라 이승의 사람으로 수행의 도가 높아 명부를 오갈 수 있는 사람이었다.

앞의 글에서 부친의 첩 이야기가 잠깐 언급됐다. 간보의 부친 간영干瑩이 여종을 총애했는데 간영이 죽자 부인은 살아 있는 여종을 남편의 무덤 안에 던져 넣고 봉해버렸다. 간보 형제는 아직 어려서 그런 사실을 몰랐으나 10년 뒤 모친이 죽어서 부친과 합장하려고 무덤을 열자 그 여종이 살아 있었다. 여종은 그 뒤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았다.[8] 간보는 이런 사건을 경험한 뒤 그와 유사한 신

6) 『太平廣記』한글1권p.383
7) 『太平廣記』再生四
8) 『五行記』『太平廣記』再生一

비한 일화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나온 그의 저서『수신기』중에도 여기서 논하고 있는 주제인 ′명부 겸직자′에 관한 일화가 나온다.

> 오 지방의 부양 사람 마세馬勢의 처는 성이 장蔣 씨다. 마을에 병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장 씨는 하루 내내 깊이 잠이 든 채로 있다가 병자가 죽는 걸 본 뒤에 깨어났다. 장 씨가 죽은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하면 아무도 믿지 않았다.
>
> "그 사람이 병이 걸려 죽어가는데 내가 (혼령을 거둬가기 위해) 죽이려 해도 혼령이 완강해서 쉽게 죽일 수 없었어요. 내가 그 집에 가보니 찬장에 흰쌀밥과 생선이 있었지요. 그 집 부엌에 들어갔는데 하녀가 나한테 덤비기에 그녀의 등을 때렸더니 엎어져 기절했다가 깨어나더군요."
>
> 장 씨의 오빠가 병들어 죽으려 하자 저승사자가 그녀에게 오빠를 죽이라고 (혼령을 데려오라고) 했다. 그녀는 저승사자에게 오빠가 살게 해달라 애걸하면서 차마 죽이지를 못했다. 그녀는 깨어난 다음 오빠에게 "이제 회복될 거예요."라고 말했다.(『수신기』)[9]

내용을 보면 장 씨가 깊은 수면에 빠지면 육체를 떠난 그의 영혼은 죽어가는 사람을 찾아간다. 보통사람은 할 수 없는 이런 능력은 마치 수면 상태에서 영혼만 빠져나와서 활동했던 미국의 심령치료사 에드가 케이시(Edgar Cayce 1877-1945)의 사례를 연상하게 한다.[10] 이 글에서 장 씨는 저승사자의 명을 받아 혼령을 거두어 가는 역할을 하는 ′산 사람′이다. 장 씨는 어느 집 혼령을 찾아갔다가 망자의 혼령이 너무 강해서 거두지 못하고 부엌으로 들어갔다. 문장에서는 말하지 않았으나 장 씨는 밥을 먹으러 들어간 것이다. (영혼 상태의 장 씨가 어떻게 밥을 찾아 먹으려 했는지 의문이 들겠지만, 영혼 상태의 사람은 음식의 기炁를 먹는다) 문맥으로 보아 부엌에 있던 그 집 하녀는 귀신을 보는 사람이었고, 장 씨는 그 하녀를 때려 기절시킨다. 영혼 상태의 장 씨가 산 사람을 때린다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지만, 영혼 상태에서도 상대방(몸의 기炁)을 때린다. 장 씨는 또 자기 오빠의 혼을 거둬가야 하는 상황에서 오빠의 목숨을 잠시 연기해 준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부분은, 장 씨 오빠의 영혼을 저승사자가 거둬가지 않고 왜 살아 있는 사람인 장 씨가 그런 일을 할까 하는 점이다.『수신기』에서의 이런 의문은, 청나라 기윤의 다음 글에서 답을 얻을 수 있다.

> 간보의『수신기』에 나오는 마세의 처는 요즘 말하는 "주무상走無常"이다. 이곳 무청 왕경타 마을의 조 씨 집에 늙은 하녀가 있는데 역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 태부인이 한번은 명부에 일할 사람이 많을 텐데 왜 하필이면 (산 사람인) 너한테 그런 일을 시키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그녀가 대답한다.
>
> "환자의 침대는 대개 누군가가 지키고 있는데 그들에게는 양기가 넘쳐서 저승사자가 접근하기 어렵지요, 높은 사람은 양기가 왕성하고, 인격자는 양기가 강인해서 더욱 접근이 어렵습니다. 군인이나 경찰에게는 살기가 있고, 사나운 사람에게는 무서운 기운이 있어서 가까이 가기 어려워요. 저 같은 살아 있는 사람은 양기가 강해서 그런 일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저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
> 이 말을 들으면 상당히 일리가 있어서 노파가 지어내서 하는 말은 아닌 것 같다.(『열미초당필기』)p. 472

9) "吳國富陽人馬勢婦,姓蔣,村人應病死者,蔣輒恍惚,熟眠經日。…" (《搜神記》) p.338 인용된 번역문의 중간에 괄호를 넣은 부분은 연구자가 전체적 문맥의 흐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첨가한 것이다. 이후 인용문에도 이와 같다.

10) 미국의 현대 심령가. 그가 소위 'Reading (占辭) '이라는 심령 치료 기록물 약 5천건의 자료가 에드가 케이시 도서관에 남아 있다.

조씨 집안의 명부 겸직자 하녀에게 태부인이 물었던 것은 '왜 너 같은 산 사람에게 명부 임무를 겸하도록 하는 것이냐'는 질문이었다. 이 집 하녀의 말에 따르면 죽어가는 사람의 혼령을 거둬오는 일이 간단한 역할은 아니다.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시신에서 분리돼 나온 혼령을 명부의 안내자들이 인도해 가지만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과정을 겪는 건 아니다. 자살 등 일부의 경우는 사자가 오지 않고, 도가 높은 경우는 스스로 다음 세계를 찾아간다.) 저승사자가 죽어가는 사람 몸에서 혼령을 거두어 가려 할 때 고관이나 장군처럼 주변에 여러 사람이 돌보고 있으면 접근조차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관해 하녀가 설명하기는 했지만, 청대 말엽에 같은 문제를 질문하는 친구 임유양林黝襄에게 명부 겸직자였던 여주黎澍 역시 상세하게 대답하고 있다.

> 문 : "명부는 어째서 종종 이 세상 사람에게 혼령 안내자의 임무를 맡깁니까?"
> 답 : "부귀한 사람들 저택에는 많은 수호령이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들도 젊고 힘이 세며 양기가 왕성하기 때문에, 귀신이 그 병상에 접근해서 사망자의 영혼을 거두어 갈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장군이 군대 안에서 병으로 죽으면 주위에 무기를 든 경비가 삼엄하고, 영내의 병사들도 모두 젊은이들이어서 양기가 넘칩니다. 그러니 보통 저승사자들은 그의 영혼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이럴 때는 반드시 이승 사람의 살아 있는 영혼에게 잠시 혼령 안내자의 역할을 맡깁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명부 법정에 세울 수 있습니다."(『유명문답록』) 11)

사실 앞에서 보았듯이 부귀 권력자나 장군들처럼 보호를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의지가 강하고 기가 센 사람이나 정신이 올바른 도가 높은 인격자도 평범한 저승사자가 접근하기 어렵다. 겸직 경험자의 말을 빌려 비유하자면 이런 종류의 사람은 마치 뜨거운 용광로처럼 느껴져서 귀신이 다가갈 수 없다는 것이다.

> 의흥현의 현위 배성裴盛은 낮잠을 자다가 갑자기 한 귀신(저승사자)에게 끌려갔다. 귀신이 말했다.
> "아이 하나를 데리러 가자."
> 아이의 집에 도착해보니 부모가 아이를 가운데 두고 양옆에 누워있었고 앞에서는 기도 상이 차려져 있었다. 귀신이 말했다.
> "부처님께 빌고 있으므로 산 사람이 필요했소."12)
> 산 사람인 배성이 와 있었고, 귀신이 손을 한번 휘젓자 아이의 부모는 모두 잠이 들었다. 귀신은 배성에게 아이를 안아 침상에서 끌어 내리라고 했다. 배성이 아이를 안자 아이의 목에서 무슨 소리가 났다. 그 바람에 아이의 부모가 놀라 잠에서 깨었다. 이에 귀신은 배성을 데리고 그 집에서 나왔다. 배성이 귀신에게 자기 집에 가자고 계속 말했다. 가서 귀신은 그의 혼령을 육신 안으로 밀어 넣어주었고 배성은 잠에서 깨어났다. (『광이기』) 13)

저승사자가 배성이라는 산 사람의 영혼이 잠시 필요했던 이유는 저승사자인 자신의 혼령으로는 부처의 기도 상이 있는 곳에 접근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저승사자들은 특정한 사람, 특정한 나무 등에 가까이 가지 못한다. 강인한 정신과 올바른 의식의 소유자나 측백나무, 복숭아나무 등 특별한 기운(기炁 또는 파장, 진동 등으로 이해됨)을 가진 사물이다.

---

11) 『幽冥問答錄』 pp. 6 – 7
12) 명대에 기록된 원문에는 한자 3자가 빠져 있으므로 추정해서 넣은 글이다
13) 董士元云,義興尉裴盛晝寢,忽為鬼引,形神隨去。出『廣異記』 (裴盛태평광기 한글) 14-176 본문에서 배성의 몸과 혼이 다 따라나섰다고 했는데, 돌아와서는 다시 혼을 몸에 넣었다는 부분이 이해되지 않는다. 내용으로 봐서는 혼만 따라나선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당나라) 개원년간(713~741) 말에 낙양의 안의방에 사는 한 서생이 밤에 문을 닫고 공부하고 있었는데, 문틈으로 갑자기 어떤 사람이 머리를 내밀었다. 서생이 어떤 놈이냐고 소리치자 그가 대답했다.

"나는 귀신(혼령 안내자)인데 잠시 좀 찾아뵈려 하오."

그러면서 서생에게 잠시 좀 나와 같이 가자고 했다. 서생은 귀신을 따라 밖으로 나가서 땅에다가 '십(十)' 자를 표시하면서 계속 따라갔다. 안의방을 나서 절 문 앞에 이르자 서생이 (혼자) "절 앞은 지나갈 수 없겠지."라고 말했다. 그러자 귀신이 말했다.

"나를 따라오기만 하시오. 별 탈 없을 테니."

잠시 후 그들은 정정문 안으로 들어갔다. 귀신은 서생을 업더니 문틈으로 빠져나가 계속 전진하여 오교 앞에 도착했다. 길옆에 무덤처럼 생긴 집이 보였는데 천창으로 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다. 귀신은 다시 서생을 업고 천창 옆으로 올라갔다. 거기서 아래를 내려다보니 한 부인이 병든 어린 아들을 보며 울고 있었고, 남편은 그 옆에서 눈을 붙이고 있었다. 귀신이 천창을 통과해 아래로 뛰어 내려가 손으로 등불을 가리자 부인은 무서워서 남편을 질책하며 말했다.

"아이가 죽어 가는데 어떻게 잠을 잘 생각을 하세요? 지금 뭔가가 불빛을 가렸으니 어서 불을 좀 더 밝혀 보세요."

남편이 일어나 등잔을 몇 개 더 켜자 귀신은 부인을 피해 몸을 숨겼다. 그리고 자루 하나를 가져다가 그 안에 아이(혼령)를 담았다. 아이는 자루 안에서도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다. 귀신은 아이 담은 자루를 짊어지고 천창 위로 올라간 다음 다시 서생마저 짊어지고 땅으로 내려왔다. 귀신은 서생을 정정문에 데리고 가 집까지 바래다준 다음 감사하며 말했다.

"제가 명부의 명령대로 이 아이를 데려가야만 하는데, 반드시 산 사람과 같이 가야만 했기에 당신을 번거롭게 한 것이니 이해해 주시오."

귀신은 말을 마치고 떠났다. 그가 처음 귀신을 따라 길을 나설 때 멈추는 곳마다 '십'자 표시를 해 놓았었는데, 이튿날 그의 형제들을 데리고 다시 찾아 가보니 어젯밤 해 놓은 '십'자가 모두 그대로 있었다. 아이를 잃어버린 집으로 가 사정을 물어보았더니 (그 집에서 하는 이야기도 서생이 보았던 것과) 역시 같았다. (『광이기』)[14]

이 서생의 경험담은 앞의 배성처럼 저승사자에 의해서 잠시 혼령이 빠져나가 아이의 혼령을 거둬오는 일을 도와준 얘기다. 가는 길에 했다는 십자 표시는 혼령인 상태에서 했다는 것으로, (뒤에서 언급하겠지만) 혼령인 상태에서도 그것이 가능하다. 이 내용에서 서생이 왜 필요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가는 길에 불당 앞을 지나기 어려웠던 것도 아니다. 내용이 상세히 기록되지는 않았으나 '귀신이 부인을 피해 몸을 숨겼다'는 문구로 추측하자면 아이 엄마의 양기가 강해서 이 서생 기운의 조력이 필요했던 것 아닐까 추정된다. 여하튼 자루 안에서도 아이의 혼령은 계속 움직였다는 구절은 상당히 사실적인 묘사다.

2) 명부 겸직자 중 '혼령 안내자'의 업무

현대 사회에서의 명부 겸직 사례는 환생과 관련된 자료로 정리된 내용이 있다. 중국의 리창전李常珍은 지난 2016년 호남과 광서 접경 지역을 탐사해서 취재한 내용을 2018년 봄 한 권의 책으로 출판했다. 책의 제목은『평양촌의 환생한 사람들』[15]이다. 이 책은 중국 호남湖南성 회화懷化시 통도

14) "開元末,東京安宜坊有書生,夜中閉門理書。出『廣異記』" (安宜坊書生태평광기) 한글 14-174

15) 李常珍著,『坪陽再生人, 中國侗族100個轉世投胎案例實訪記錄』(100 Reincarnation cases in Pingyang) 稻田出版

通道현 평양坪陽촌을 중심으로 주변 9개 지역 거주 소수민족인 동족侗族 사람 중 전생을 명료하게 기억하는 사람 106명의 대담 기록을 담고 있다.[16] 그중에는 3명의 명부 겸직자로 저승사자 일을 한 내용의 인터뷰 기록이 보인다. 사례자의 하나인 띵성훠丁生活(1952년10월8일생)의 진술에 따르면 현실에서 그는 농촌의 전통 한의사이지만, 겸직하는 명부에서는 사자 4명으로 된 구성원의 조장이다. 그의 인터뷰 기록에 다음과 같은 부분이 있다.

> "우리가 오래전에 한 노인을 데리러 갔는데 마침 손자 생일잔치가 한창이었죠. 술을 마시는 노인의 옆에는 며느리가 앉아 있었는데 웬일인지 우리 모두 그 여성이 무서워 그 근처에는 접근할 수가 없었어요. 할 수 없이 우리는 건넌방에 있는 여성의 갓난아이를 울려서 그녀가 자리를 뜨게 한 뒤 노인의 혼령을 거둬왔습니다."[17]

혼령을 거뒀다고 번역하기는 했지만, 실제로는 영혼 상태로 다가간 띵성훠가 철퇴로 노인의 (몸이 아닌 영혼의) 머리를 친 다음 여럿이 그 혼령을 메고 나온 것이다. 그 순간 현실에서의 노인은 별안간 머리가 어지럽다고 하며 가족들에게 잠시 눕겠다고 하고 잠시 후 죽는다. 그들이 노인을 메고 나올 때 느낌은 산 사람을 둘러메고 나오는 것과 똑같이 무거웠다. 윗글을 보면 조원 중 한 명에게 아이를 울리게 한 다음, 아이 엄마가 자리를 뜨는 순간 노인을 쳤다고 한다. 이런 일을 하는 동안 현실의 사람들은 누구도 이들 4명을 보거나 듣지 못한다. 혼령 안내자들이 그 며느리에게 접근하지 못했다는 것은 그녀의 완력이 강해서가 아니라 '양기가 센'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그녀의 영혼이 (의식과 정신이) 올바르고 건강한 사람이었다는 뜻이다. 관련 자료로 볼 때 띵성훠는 2018년 당시 생존해 있는 사람이고 그의 진술 속 다양한 경험은 충분히 상세하다.[18]

이는 현재 살아 있는 겸직자의 경험담인데 그의 이야기 중에 철퇴로 죽어가는 사람의 머리를 친다는 부분은 사실인지 의문스러울 수도 있다. 연구 자료를 보면 명부라는 공간 개념이 지구상의 나라와 지역마다 다르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 그 상황도 조금씩 변화한다. 여기서 다루는 중국의 사례에서 철퇴란 명부에서 부여한 기炁의 철퇴이지 실물은 아니다. 띵성훠의 전후 진술을 들어보면 철퇴를 맞은 죽어가는 사람은 머리가 '띵' 하는 약간의 충격을 받고 영혼이 몸과 분리되는 것이다.

> 귀신(혼령 안내자)은 손에서 한 자쯤 되는 철퇴를 하나 꺼내서 장하도독의 머리를 조준하고 손을 들어 내리쳤다. 장하도독이 말했다.
> "머리가 조금 아프구나."
> 장하도독은 잠시 후 머리가 갑자기 아프기 시작하더니 한 식경 지난 뒤 죽었다.(『수신기』)[19]

위의 인용문에서는 '저승사자'라고 번역했으나 원문에서는 '귀鬼'라고 돼 있다. 이 내용은 동진시기의 기록이므로 퇴근 기록인 앞의 내용에 비해 거의 1700년 전의 것이다. 철퇴로 머리를 친다는 진술이 매우 잔혹해 보인다. (생명의 시간이 다하면 영혼이 자연스럽게 몸을 벗어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안내자들이 억지로 영혼을 끌어내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때 물질의 육신이 아닌

社, 2018年1月

16) 이에 관련된 뉴스와 연구는 중국에서 이미 잘 알려졌다. 언론에서는 凤凰网, 新京报, 人民网, 新华网, 广州日报, 南方周末 등이 기사로 다뤘고, 대학 등 연구기관에서 현지 조사를 했다.

17) 李常珍著,『坪陽再生人, 中國侗族100個轉世投胎案例實訪記錄』p.257

18)『坪陽再生人』pp.257-262

19) 吳興施續，有門生，常秉無鬼論。『太平廣記』鬼八 '施續門生'

영혼의 머리를 쳐서 뇌출혈, 가슴을 쳐서 심장마비 등을 일으켜 몸과 영혼이 이탈되도록 한다는 진술이 있으나 여기서는 주제를 벗어나므로 논의를 생략한다) 위와 같은 명부 겸직자로서 좀 더 상세하게 진술한 다음 사람의 자료를 보자.

위의 책『평양촌의 환생한 사람들』에 나온 또 한 사람으로, 다른 지역에서 명부 겸직을 하고 있다고 진술한 우위화吳玉華(1968년4월16일생)가 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그는 6명으로 이루어진 혼령 안내자 한 조의 조원이었다. 그는 밤과 낮을 구분하지 않고 조원들이 (그에게만 들리는 소리로) "갑시다!"하고 부르면 곧장 깊은 잠에 빠졌다. 잠이 들면 그의 영혼이 빠져나가 조원들과 합류한 뒤 주소와 이름만 가지고 함께 임무를 처리하기 위해 이동했다.

한 번은 80세 노부인을 데려오는 임무를 수행했는데, 그 집에 찾아가니 식구들이 2층에 모여있었고, 노인은 한쪽 벽에 붙은 침대에 누워있는 게 보였다. 그들은 식구들 뒤로 침상에 누운 노부인을 끌어내려 데리고 떠났다. 그의 진술에 따르면 그들이 떠났음에도 식구들이 볼 때 노부인의 몸은 여전히 그 자리에 누워있다. 그들은 노부인의 혼령을 데리고 마을 입구로 간 다음 공중을 떠서 이동했다. 도착한 산자락에서 그들은 도보로 이동하는데 이동하는 과정에서 망자의 혼령에게 우물물을 마시게 했다. 우위화의 말에 따르면 우물물은 더럽고 벌레도 있었지만, 망자는 너무 목이 마르기 때문에 대부분 그 물을 마신다.[20] (주는 물을 거절하고 안 마시는 사람도 있다고도 했다) 그리고 이들은 한참을 더 걸어가 커다란 다리가 있는 곳까지 왔는데, 시야에는 그 다리의 중간까지 밖에 보이지 않았다.[21] 그 너머는 안개로 가려져 있었고 그들은 망자의 혼령을 다리 위로 보내고 돌아온다. 돌아온다는 것은 우위화가 잠에서 깨었다는 말이다.[22]

우위화의 수많은 경험담을 기록한 리창전에 따르면 명부 겸직자로 일한 띵성훠와 우위화가 서로 아는 사이도 아니고 거주지도 완전히 먼 곳이다. 그들이 하는 일은 같은 종류의 업무이긴 하지만 각자 정해진 명부의 범위와 지역이 다르다. 글에서는 그들이 진술한 사례로 볼 때 사람의 수명은 건강 상태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명부의 정해진 시간으로 결정된다고 덧붙였다.

위에서 말한 여주와 임유양의 대화록『유명문답록』은 1900년대 중반에 기록된 자료이므로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이기는 하나 여기서는 그 내용을 전부 다룰 수 없으므로 일부만 소개한다.

> 문 : "선생께선 예전에 명부의 판관을 지낸 적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습니까?"
>
> 답 :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말을 들으면 모두 이상하게 여길 테지만 나에게는 그 일이 일상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조금도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
> 문 : "그게 언제쯤의 일이었습니까?"
>
> 답 : 광서 경자(1900년) 때의 일로, 내 나이 열아홉 살이었습니다.
>
> 문 : "맡은 일은 어떤 것이었고 어느 부서에 속했습니까? 그리고 직원은 몇 명이 있었는지요?"
>
> 답 : (내 부서는 중국 동북지방을 관장하는) 동악부에 속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동악대제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사안을 처리해서 공문으로 올렸을 뿐입니다. 나는 한 지역의 재판장을 맡았었는데, 배심원 4사람을 두었고 예하 직원들은 아주 많았습니다

20) 중국 전통 설화에서 이 물은 '맹파탕孟婆湯'으로 알려졌다. 물을 마시면 망자는 지난 생의 기억을 잊게 된다.

21) 중국에서는 이 다리를 '내하교奈河橋'로 부른다. 인간 세계와 명계를 이어주는 다리로, 나라와 문화마다 이름이 다르다.

22) 자료 상의 진술은 사례자가 처음 겸직을 시작하게 된 동기와 혼령 안내자 업무에 관한 여러 경험 등 내용이 구체적이고 상세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논지에 해당하는 부분만 언급했다. 李常珍著,『坪陽再生人, 中國侗族100個轉世投胎案例實訪記錄』p.257-262 관련 인터뷰 내용은 영상으로도 완전히 공개돼 있다. 유튜브에는 이 책의 저자인 李常珍의 영상 자료가 'ReincarnationWorld'라는 채널에 전부 공개돼 있다.

문 : 그 판관을 몇 년이나 했습니까? 그 일은 매일 가서 처리했습니까? 어느 지방을 관리했습니까?

답 : 거의 4, 5년 동안 매일 갔습니다. 맡은 구역은 화북의 5개 성입니다.

문 : 명부에서는 왜 선생을 판관으로 임명했을까요?

답 : 나도 그것이 궁금해서 그곳 동료들에게 알아봐 달라고 한 적이 있는데, 그들의 말에 따르면 내가 여러 전생에서도 명부 판관을 했었답니다. 그렇게 전생의 인연 때문에 다시 그 일을 하게 된 것뿐이라고 합니다.(『유명문답록』)[23]

여주의 경험은 혼령 안내자가 아니라 '명부 판관'이었다. 내용을 보면 그는 자신이 명부 업무를 보기 위해 몸을 떠날 때는 매일 저녁 시간이었으나 때로는 낮에도 불려가기도 했다. 당사자들이 경험하는 명계는 인간계와 크게 다르지 않다. 여주의 말대로 명부 겸직자들은 꿈과는 전혀 달리, 명료한 의식을 갖고 명부의 업무에 임한다. 그의 진술에 따르면 명계라는 공간은 중국의 경우 5개 구역으로 분할돼 있고 외국에서도 지역별로 구역이 나누어져 있다.[24] 명계에는 현실보다는 단순하지만, 거리와 상점처럼 보이는 환경이었고 관청에서 업무를 보거나 만나는 명계 사람들의 복식도 그 지역 전통의 것과 흡사했다. 특히 서류나 책자도 이승에 있는 현지 관서의 공문서와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양식을 사용했다.

근대 시기에 잘 알려진 명부 겸직자는 장태염章太炎(章炳麟)의 경우다. 민국4년(1915) 원세개는 스스로 총통 즉위를 획책하면서, 반대할 것으로 유력시되는 장태염을 북경으로 불러 용천사에 연금시켰다. 장태염은 울분에 찬 심정으로 종앙宗仰스님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내용은 자신이 명부의 판관으로 초빙됐다면서 그 '꿈속'에서 나눈 대화를 상세히 적었다.[25] 글에서는 비록 꿈이라고는 했으나 그 상세함과 대화의 내용을 보면 위에서 본 여주의 경험과 다름없다. 장태염을 명부으로 부른 초청자는 명나라 무종 시기의 명재상 왕오(王鏊 1450-1524)였고, 그 자리에는 삼국 후기 하후현(夏侯玄 209-254)과 북송의 매요신(梅堯臣 1002-1060)도 함께 있었다. 장태염의 글에 의하면 거기에는 인도인, 유럽인과 다른 중국인들도 있었는데 편지 중 일부를 보면 초청자인 왕오와 나눴던 대화가 있다.

왕오가 제게 말합니다.

"우리가 서류를 검토해야 합니다. 매요신은 총검찰이고 우리는 판관이지요. 모두 아홉 사람이 다섯 개 대륙의 일을 분담합니다. 저와 선생은 동아시아를 관리하구요."

제가 왕오에게 물었습니다.

"생사는 기한이 있는 것이고, 윤회는 업보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천지도 누군가를 주재할 수 없는데 우리가 그 일에 관여하다니요?"

매요신이 대답합니다.

"생사윤회는 분명 주재자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단지 소송을 받아서 불러다 묻거나 잡아 오는 일만 합니다. 심문받는다고 다 죽는 건 아니지만 일단 잡혀 온 자는 죽은 겁니다. (죽거나 사는) 판정을 한 뒤에 기한이 돼서 석방할 때가 되면 여러 가지 다음 생으로 떠나게 되니 여기서 결정하는 건 없습니다." (중략)

다음 날 다시 같은 꿈을 꿨고 그 뒤 저녁마다 꿈속에 그곳에 가서 일을 봤습니다. 제가 판결하는

23) 陳玫俐校訂編輯『增訂幽冥問答錄』 p.1

24) 『유명문답록』p.

25) 朱鏡宙「章太炎夢做閻羅王」, 陳玫俐校訂編輯『增訂幽冥問答錄』 p.24. 저자 朱鏡宙(1889~1985)는 장태염의 사위로서 그의 진술을 기록했다.

것은 중대한 안건은 없었고 대부분 흉기로 살인을 하거나 사기로 재물을 취하는 안건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밤마다 일을 보았으나 일요일 밤에는 그런 꿈을 안 꿨습니다. 저는 그 일이 너무 싫었습니다. 작년에는 그런 업무를 처리하는 꿈을 20여 일이나 꿨는데, 하루는 제가 휴가를 내는 글을 써서 태우자 밤에 그런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26]

장태염은 이 편지에서 자신이 경험한 일을 꿈이라고 하고 있지만, 사실 그것은 꿈이 아니었다. 꿈이라면 일정한 일을 일관성 있게 한다는 게 불가능하다. 왕오가 장태염에게 말하는 내용을 보면 명부의 역할이란 상과 벌을 주는 곳이 아니라 조정과 조치를 하는 것이다. 소송을 받는다는 말은 막 죽은 혼령이 자신의 억울함을 하소연하면 그 진위를 밝혀서 안건을 처리한다. 여기서 처리한다는 말은 혼령들의 원한을 밝혀주는 일이다. (명부는 원한 등의 불균형에 빠진 혼령에게 그것의 원인을 알려주고, 어디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밝혀서 그 혼령이 자신의 다음 길을 찾는 데 어려움이 없게 한다) 만약 원한이 사실이면 악행을 한 자의 혼령을 불러오는데, 불려와서 되돌려 보내지지 않는 한 그 혼령의 몸은 죽은 것이다. 그리고 그 혼령은 자신의 죄과에 따라 다음의 생으로 넘어간다. 여기에서 다시 고대 문헌 기록을 보자.

당나라 우창于昶은 무측천 시기에 병주 녹사참군 직에 있었다. 밤 7시가 되면 숨을 몰아쉬고 진땀을 흘렸는데 밤 9시 경이면 증세가 더 심해졌다. 처 류씨가 의원을 부르려고 하자 우창이 가만히 말했다.

"다른 문제는 없고 낮에 관청 일을 하고 밤마다 명부의 일을 보느라 기력이 빠졌을 뿐이오."

그는 매번 재난이 있음을 알면 남몰래 그걸 대비하게 하고, 겸직 일한다는 말을 안 하다 보니 벌써 6년이 됐다. 뒤에 모친상을 마친 뒤 「금강경」을 독송하며 명부 겸직을 그만뒀다. 그는 「금강경」의 공덕을 강조하면서 자손들에게 독송하게 했다. 나중에 경주사마를 하다가 84세에 임종을 앞두고 별안간 전에 없던 향기가 퍼지자 그가 주변에 말했다.

"성인이 나를 서방정토로 인도하신다."

말을 마치고 세상을 떠났다.(『태평광기』) [27]

이 기록에서 주목할 부분은 명부 겸직자들이 일정 정도 미래를 안다는 점이다. 우창도 그런 비밀을 알기 때문에 남들에게 재앙에 대비하도록 언질을 주곤 했다. 우창의 명부 직위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판관이나 그 이상의 직위에 있었으므로 명부의 기록물을 볼 수 있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위의 내용 중 「금강경」을 독송하는 것이 복을 주는 일이라고 했는데, 이는 당시 불교가 성행하던 사회적 배경 때문만은 아니다. 임유양이 여주에게 불교를 잘 모르고 유교만 믿고 바르게 산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하는지 묻자 여주가 대답한다.

답: 역시 하늘나라에 태어납니다. (영혼이) 소멸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여주의 이런 대답을 근거로 한다면 어떤 특정의 종교가 사람의 사후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행위가 그것을 결정한다.

그러나 이들처럼 소송을 받아 얽힌 것을 풀어주는 판관이건, 죽은 사람의 혼령을 거둬오는 역할을 해야 하는 안내자이건 겸직자들은 모두 그 일을 힘들어한다. 앞에서 본 초예준이나 장태염, 여주

26) 위의 책 p.25-26
27) "唐于昶。天后朝任幷州錄事參軍。出『報應記』" (『太平廣記』)

등의 많은 사람이 명부 겸직을 그만두고 싶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애썼다고 말한다. 당사자들은 주로 밤에 잠이 들면 영혼만 육체를 떠나서 명부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일이 긴장되고 고된 일임을 하소연한다.[28] 마치 야간 근무자처럼 밤에도 정신이 쉬지 못하는 것이다. 이승에서 명부 일을 하는 것은 임시직이므로 일시적인 업무이기는 하지만 그들은 종종 그 업무에서 벗어나고 싶어 한다. 일부의 겸직자는 나중에 임기가 차거나 기도와 수행으로 그 일에서 벗어나기도 한다.

3. 명부 겸직자 진술 내용의 공통점

1) 비밀

위의 우창의 사례 인용문에서 본 것같이 이들은 명부 업무 중에 이승의 미래를 일정 정도 알 수 있다. 그뿐 아니라 초예준 등 여러 겸직자의 진술에서처럼 명부에서는 이승의 '일부' 비밀을 알게 된다. 왜 '일부'인지는 뒤에 나오는 인용문에서 사붕비의 말을 참고해야 한다.

> 당 형주 지강현 주부 하영은 (이승에서) 명부의 판관을 했다. 그곳 현승 장경이 여종 한 사람을 몹시 사랑했다. 그 처 양씨는 그 여종을 질투해서 장경이 출타한 틈을 타서 여종을 죽인 다음, 변소에 던져 넣었다. 장경이 돌아오자 거짓으로 그 여종이 도망쳤다고 말했다. 장경은 아내가 너무 사나웠기 때문에 더는 묻지 않았다. 죽은 여종은 자신이 억울하게 죽은 일을 (명부 판관) 하영에게 고소했다. 하영이 그 일을 확인하려고 장경에게 가서 "공의 부인께서 병이 깊습니다."라고 하면서 부인의 모습을 상세히 설명했다. 장경은 하영과 자기 처가 사통한다고 의심해서 크게 화를 냈다. 하영이 말했다.
>
> "공의 부인께서 여종을 죽여서 측간에 버렸군요. 지금 (당신 부인이 죽지는 않았지만, 부인 혼령은 이미 명부에서) 심문을 당하고 있으니 공께서 물어보시지요."
>
> 장경은 그제야 사태를 알아차리고 처에게 물었다. 처는 병이 너무 깊었으므로 사실대로 시인했다. 하영은 사람을 시켜 측간에서 여종의 해골을 찾아냈다. 그 해골을 깨끗한 약초 물로 씻은 다음 후하게 장례를 지내줬다. 그러나 (명계의) 여종은 끝내 부인을 용서하지 않았고, 부인은 한 달쯤 뒤에 죽었다. (「조야첨재」) [29]

하영은 혼령 안내자 일이 아니라 명부에 가서 판관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이승에 살아 있는 사람임에도 그는 명부에 오가고 있어서 주변 사람이 모르는 영혼 세계의 일을 알 수 있었다. 이미 죽은 장경의 하녀는 혼령인 상태였으므로 그에게 고소했던 것이다. 이 기록에서 주목할 것은 하녀를 죽인 장경의 처가 아직 병사하기 전임에도 혼령은 이미 명부에 건너가 살인 사건에 대한 심문을 당하고 있다는 부분이다. 맨 앞의 인용문에서 초예준이 말한 것처럼 이승 사람의 영혼은 명부에 불려가기도 하고 그곳에서 처벌을 받기도 하는데 이승에서의 당사자에게는 며칠간의 사이를 두고 그 결과가 (질병이나 사고, 죽음으로) 나타난다.

이승에서의 비밀스러운 행위라도 명부에서는 다 드러나고 기록된다는 게 영계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견해다. 명부 관리는 어떤 문제가 접수되면 그것을 확인하고 대질하며 균형 있게 조정한

28) 그 외에도 명부에서 일하는 존재들은 고되고 힘든 생활을 한다고 말하는 기록이 많다. 예) "幽冥吏人。薄福者衆。無所得食,率常受餓。必能食推食,泛祭一切鬼神,此心不忘。"(鬼31, 錢方義『太平廣記』)

29) 『太平廣記』

다. 본 연구에서는 부득이하게 '판관', '재판,' '판결', '처벌' 등의 용어를 쓰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영혼 세계의 보이지 않는 질서를 위한 명부의 '조정 업무'라고 할 수 있다. 질투 때문에 살해당한 여종은 명부에 고소했고, 명부 관리자들은 그녀의 원한에 균형을 잡아주기 위해서 살인자를 (죽게 해서) 데려갔다.

청대 기윤의 한 기록에 따르면 그의 지인 고덕무 역시 명부 판관을 겸직하고 있었다. 고덕무는 자신이 명부 재판에서 한 여자를 무죄로 뒤집은 경험을 자랑스럽게 말했다. 당사자의 이름을 고덕무는 밝히지 않았으나, 시어머니에게 쫓겨나 절에서 살던 여자가 몰래 찾아온 남편과 밀회하다가 절의 스님에게 발각되었다. 그 일로 여자는 남편과도 못 만나게 됐고 수치심과 외로움에 죽은 혼령이었다. 명부에서는 비구니로서 그녀가 타락했다고 처벌하려고 했으나 고덕무의 사리에 맞는 변호의 말로 그녀를 무죄 처리해서 환생하도록 도와줬다는 얘기다.[30]

> 강녕현의 류모는 7살이었을 때 고환이 벌겋게 부어올라 치료를 받았으나 아무 효과가 없었다. 이웃집 요씨 부인은 명부 겸직을 하는 여자였다. 명부 일을 할 때면 남편과 침대를 달리하고 먹거나 마시지도 않고 넋이 나간 사람처럼 잠을 잤다. 아이의 고환 병 때문에 류씨 집에서는 그녀에게 찾아가 (명부에) 알아봐 달라고 했다. 사흘 뒤에 요씨가 와서 말했다.
>
> "큰 문제 아니에요. 아드님이 전생에 개구리 먹는 걸 좋아해서 많이 죽였죠. 그래서 개구리들이 복수하는 바람에 이번 생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나 개구리는 원래 사람 음식으로 먹히게 태어난 것이지요. 어충류는 다 팔납신이 관리하는데 유맹 장군 사당에 고사를 지내면 나아질 겁니다"
>
> 고사를 지내자 아이의 병이 나았다.(『자불어』p.53)

위의 일화를 본다면 명부에서는 이승의 선행과 악행이 기록돼 있고 명부 겸직자의 일부는 그것을 볼 수 있다. 전생과 현생의 기록을 읽는 것이다.

그에 관련된 응보로서의 미래가 예정돼 있다.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중요한 의문은 현실의 선행과 악행처럼 주변에 영향을 미치는 소위 '업'이 발생하면 그에 상응하는 응보로서의 결과는 고정불변의 것인가 하는 점이다. 만약 고정불변이라면 사람의 운명을 포함한 모든 존재의 흐름과 변화가 절대 불변의 고정성을 갖고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눈앞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인지만 해야 할 뿐 아무런 선택의 여지가 없게 된다. 그러나 이 역시 단정하기에는 아직 이르므로 더 많은 자료를 보면 논의를 이어가려 한다.

2) 미래 예지

살아서 명부의 명계 업무에 종사한 사례는 위의 사례자들 외에도 일일이 거론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데 그중 「창최」(『태평광기』권제304신14)의 기록이 있다. 창최는 자신의 부하 오백(직책명)이 명부에서도 같은 업무를 본다는 사실을 듣고 그에게 자신의 미래를 물었다. 그러나 오백은 자신보다 어느 곳 아무개 현령이 현생에서 명부의 판관 일을 보기 때문에 미래를 더 잘 안다고 말한다. 창최는 서둘러 그 현령을 모셔다가 미래를 물어서 답지를 받았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 그의 승진 좌천 등이 그 답지에 적힌 날짜와 직급대로 진행됐다. (한글13권98)

두붕거杜鵬擧는 임사체험 과정에서 명부의 여러 인물을 만났다. 그들 중 두 사람이 찾아와서 자

30) 『열미초당필기』p.1305

신들은 이승에서 두붕거와 가까운 지역에 사는 사람으로서, 명부의 일을 겸직하고 있다고 말한다. 명부에서 그들은 두붕거를 반가워하면서 그의 인생 기록부를 찾아 확인한 다음 그의 앞일을 알려준다. 두붕거는 그들로부터 어느 때가 되면 새로운 황제가 등극할 것이고, 이어서 어느 시점에 자신이 재상이 될 것이라는 말을 듣는다. 임사체험에서 깨어난 그는 옛 관직의 일로 알았던 (등극 전 즉위 가능성을 모르고 있던) 예종을 알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줬다. 3년 뒤 과연 예종이 등극하고 두붕거는 우습유를 거쳐 재상에 올랐다.[31]

촉지역의 대리소경 직에 있던 이영李泳의 아들 관련 이야기다. 이영은 버려진 아이를 데려다가 키웠는데 몹시 총명했으나 커가면서 보이지 않는 존재와 대화를 했다. 이영은 혹시 명부 일을 하느냐고 아들에게 물었고 그렇다는 대답을 듣는다. 이영이 자신의 미래 관운을 묻자 아들은 부친이 (더 승진하는 일 없이) 지금의 현직에서 끝난다고 말했고 실제 그대로 됐다.[32] 이처럼 명부의 겸직자들은 그곳에서 본 기록부의 내용을 종종 이승의 사람들에게 말했고 그것은 거의 틀림없었다.

류지감柳智感 일화의 내용은 좀 더 상세하다. 명부 일을 겸직하는 류지감은 명부에서 본 인생 기록부 내용을 종종 이승의 지인에게 알려주고 조심하도록 했다. 한번은 명부에서 어느 여인을 만났는데, 그녀가 울면서 자신이 홍주 사창참군의 처인데 (죽어서) 남편과 헤어졌기 때문에 너무 슬프다고 하소연한다. 류지감은 이승에 돌아오자마자 홍주의 사창참군을 찾아가서 부인의 건강을 물었다. 그때 이승의 부인은 베틀에서 옷감을 짜고 있었고, 한창 젊은 여성이었으므로 사창참군은 류지감의 말을 귀담아듣지 않았다. 그러나 그 부인은 열흘 뒤 별안간 병이 들어 죽었다. 류지감도 여주처럼 누군가 찾아와 부탁하기에 명부 겸직을 해서 3년 정도 지났을 때 명부의 관리가 와서 말했다. "이번에 융주 자사 이사호를 정식 판관으로 임명했으니 이제 판결 업무를 그만 하시지요." 그 며칠 뒤 이승에서 류지감은 이사호가 방금 죽었다는 소식을 듣는다.[33]

류지감柳智感의 이야기에서 사창참군의 처는 앞서 '장경의 처'처럼 현실에서는 아직 죽지 않았으나 그녀의 혼령은 이미 명부에 올라가 있다. 초예준이 말한 대로 명부에서 먼저 일어난 일이 이승에서 나중에 일어나는 이런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은 가정을 할 수 있다. 마치 '넋이 나가는 현상'과 같이 영혼의 세계에서 (주 에너지가) 먼저 작용하고 물질의 세계에서 (부 에너지가) 나중에 반영되는 것이 아닐까. 대만대학 이사잠李嗣涔의 견해대로 이 영혼의 세계를 에너지의 장이라고 본다면 가능성 있는 추정이기도 하다. 앞에서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소스와 같다고 했지만, 다른 비유로 설명하자면 진원에서 지진이 일어난 한참 뒤에야 주변의 사물이 무너지는 것처럼 물질의 변화는 에너지라는 진원의 외연이 아닐까 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일단 어떠한 단정도 짓지 않고 좀 더 다른 기록을 보아야겠다.

사붕비는 인화현의 생원으로 지내면서 명부 일을 겸직했다. 낮에는 일반 백성이었으나 밤만 되면 명부에 가서 공무를 처리했다. 그걸 아는 친구들이 각자의 수명 등을 물어오면 대답하지 않았다. '천기누설'이 곤란해서 그러느냐고 친구들이 묻자 그는 이렇게 말했다.

> "천기라서가 아니네. 이승에서도 관청에 가면 소송이 걸려야 수천만 서류 중 해당 서류를 꺼내 보지 않나? 누가 무슨 여유로 그 많은 백성 중의 한 사람 문건을 열어보는가? 관청이란 (소송이나 민원 등) 업무가 있어야 일이 진행되는 거네. 명부에서도 마찬가지야. 자네들이 소송에 걸리거나 잡혀가지

31) 「杜鵬擧」(『태평광기』권제300신10 권12 P725) 두붕거가 죽었다가 살아나서 들려준 명부에서의 예지 일화는 『記聞』의 '唐相王' 일화에 또 보인다 (『태평광기』卷135-30 「帝王休徵」)
32) 「李泳子」(『태평광기』권제314신34)
33) 「柳智感」(『태평광기』권제298신8, 권12 P683)

않는 한, 정해진 때가 되면 살고 정해진 때가 오면 죽는 것뿐. 내가 그런 서류를 어떻게 다 찾아서 들여다볼 수 있는가."

"전염병으로 죽게 될 사람은 미리 알 수 있나?"

"그런 작은 재난에서도 죽을 사람은 마치 지방 시험처럼 명단이 있어서 이름을 찾아볼 수 있네. 평범한 백성도 이 명단에 들어가지. 그래도 배경이 있는 사람은 작은 재난에 죽지는 않는데 그건 마치 조상의 관직을 이어받아 벼슬을 하는 사람과 같은 이치네."

"전염병 외에도 더 큰 재난이 있나?"

"홍수 화재 전쟁이 더 큰 재난인데, 이 경우에는 높은 사람도 피할 수 없네."

"명계에서는 어떤 신령이 가장 높은가?"

"명부에 무슨 높은 신이 있는가? 높다 하면 천상계의 신선들일 뿐이네. 명계의 성황신 토지신 등의 직책은 이승의 지방 관청 말직과 같은 거네.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수고만 많을 뿐이라서 현자가 보기에는 별 게 아니지. 예전에 백석 선인이 끝까지 백석 달이는 일만 하고 하늘로 오르려고 하지 않자 사람들이 물었지. 그러자 그가 대답하기를 '명부세계는 엄격하고 할 일은 너무 많아.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고생이 이만저만 아니야. 나는 그저 산과 강에서 유유자적하면서 자유로운 선객이 되고 싶어'라고 했는데 그게 그 때문일세."(『자불어』)[34]

명부에서 판관이 방금 올라온 사람의 문서를 찾아 확인하는 일은 여러 기록에 보인다. 기록을 보는 첫 번째 이유는 정해진 수명을 살고 제 때에 도착했는지 점검하는 일이다. 그 외에도 그 사람의 생전 언행에 선악 문제를 따질 것이 있는지 확인하기도 한다. 이런 기록이 실제로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는 일은 별도의 문제지만, 많은 문헌 자료를 보면 판관들이 이를 보고 미래를 알려준다. 위의 대화에서 사붕비의 말대로라면 완전히 비밀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걸 보는 일은 쉽지 않은 것이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명부에서 일어나는 일은 약간의 시간적 간격을 두고 이승에서 일어난다. 방척房陟의 부인이 울고 있는 장면을 명부에서 본 노파가 한 달 뒤에 보니 현실의 그 부인이 죽었다.[35] 유유청劉惟淸의 경우도 몇만의 음병(陰兵. 현실의 병사가 아닌 鬼兵)을 만났는데 4년 뒤 반란이 일어나 모든 병사가 반란군에 가담한다.[36] 왕륜은 죽었다가 15일 만에 살아났다. 그는 명부에서 양신긍이 고소한 이임보와 왕홍의 소송 사건을 보았는데, 당시 명부에 잡혀 온 왕홍을 본 이후 한 달 뒤에 이승에서 왕홍이 처형된다.[37] 영휘년간에 노제경이 죽었다가 살아나서 자기 외삼촌이 명부 판관을 하는 걸 봤다고 한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저승사자가 문건을 갖고 와서 말했다. "우문융이 재상으로 정해졌습니다." 판관이 말했다. "(재상감이 못 되는) 우문융이 어찌 감히 재상을 한단 말이냐?" "천조의 명령이 이미 내려왔습니다. 기간을 얼마나 할지 정해 주시지요." 판관이 100일로 판결했다. 그 뒤 이승에서 우문융은 재상이 됐다가 100만에 물러났다.[38]

이매李玫는 귀신을 볼 줄 아는 사람이다. 도사 최창연과 길을 가다가 별안간 나무숲 뒤로 숨어서 한동안 거리를 훔쳐보고 있다가 나왔다. 도사가 물으니 방금 한 사람이 잡혀가는 행렬을 보았다고 한다. 잡혀가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추측으로는 장호일 듯했다. 며칠 뒤 장호가 주살을 당했다

34) 『자불어』 p.142
35) 房陟 태평광기 (14귀p679)
36) 劉惟淸 태평광기 (14귀p602)
37) 태평광기 보응20 楊愼矜 한글5-644 한글6-466 양신긍은 수나라 황실 후예로 도사 사경충에게 명주라는 미녀를 선사했다가 모함을 받고 현종에게 역모죄로 죽음.
38) 태평광기권146-11 定數1『嘉話錄』 한글6-541

는 소식을 듣는다.[39]

맨 앞 인용문에서 본 초예준의 진술처럼, 명부에서 처벌받아 곤장을 맞으면 며칠 뒤 이승에서 그 사람의 맞은 부위에 병이 생긴다. 명부 겸직자가 죽을 정도로 가격을 하지 않으면 산 사람은 정신을 잃고 쓰러지기도 하지만, 꼭 죽어야 할 사람의 머리를 (명부의) 철퇴 등으로 치면 당사자는 잠시 머리에 두통을 느끼고 잠시 후 또는 며칠 뒤 죽는다. 가슴을 치면 심장병으로 죽거나, 몸을 밀치면 어지럼증으로 쓰러져 추락사나 익사를 한다. 명부에서 볼 때 그곳에 불려온 사람이 있다면 며칠 뒤 이승의 그 육신은 죽는다.

명부의 일을 본다고 이승의 일을 다 아는 건 아니다. 명부에도 신분의 고하가 있어서 명령과 규칙에 따라야 한다. 이승에 관한 명부의 모든 기록은 장부[冥籍]에 기록이 돼 있어서 그걸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으면 확인하기 어렵다. 설사 기록을 보고 미래를 알더라도 미리 알기보다는 사후에 확인해야 한다. 명부에서 알게 된 일을 이승에 와서 확인하기도 하고 미리 언질을 주기도 한다. 또 이승에서 사람들이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다.

4. 명부 겸직자들이 알려주는 명부의 법칙

1) 응보

수많은 관련 자료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질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원인과 그에 따른 '응보'라는 원칙이다. 이승에서의 선행과 죄악은 자연계의 섭리에 따라 응분의 결과를 낳는다. 중국 사상에서 기본적으로 이해되고 있는 '도道', 즉 섭리의 힘은 본질을 향한 균형과 조화라는 운행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목전의 현실에서는 그런 흐름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살인의 죄를 저질러 사형 판결로 처형되면 그것은 응당한 결과로 확인된다. 그러나 법을 이용해서 계략으로 정적을 죽인다면 피해자의 억울함이 밝혀지지 않는다. 사기를 쳐서 남의 일생을 무너뜨려도 사기꾼은 평생토록 법의 그물을 벗어나서 잘 산다. 이 경우 모든 에너지의 균형과 조화를 유지하고자 하는 영계, 즉 명부에서는 응보를 원칙으로 하는 힘이 작동한다. 남의 피와 땀을 거짓으로 속여서 갈취하게 되면 다음 생에서 소나 말이 돼서 그 빚을 갚도록 한다. 남을 죽이거나 잔혹하게 학대하면 여러 생의 돼지나 닭이 돼서 도살되는 일을 거듭해서 당한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통 '죄'나 '벌'이라고 표현하지만, 우주의 질서로 말하면 에너지의 부조화로 인한 '불균형'과 그것의 '회복'이다. 그 불균형이 심화하여 더는 회복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른 것이 '지옥'이라는 개념이다.

장태염이 명부판관 겸직을 요구받고 가서 제일 먼저 물어본 것도 바로 '지옥'이 있느냐 하는 것이다.

> 내가 다시 (명부에서 만난 세 명의 판관에게) 물었지요.
> "(흔히 말하는) 쇠 침대와 구리 기둥 (같은 고문 기구들)은 극도로 참혹하다고 하는데 그런 제도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39) 『神二十三』 李玫 태평광기

그분들이 대답합니다.

"여기에는 누구도 그런 걸 만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임무를 받은 것도 염부제(불교 지명) 사람들의 추천이었고, 누구도 명령을 내린 건 아니지요. 여기 법률은 당, 명, 청나라 법과 멀리 서양이나 일본의 법률을 참고한 것이지 쇠 침대니 구리 기둥 같은 건 없습니다. 중죄를 지으면 1겁을 가둬두고 짧으면 1백 년입니다. 태형이나 사형 등은 없습니다. 우리는 옥졸들이 사적 형벌로 그런 짓을 하는지 의심해서 사람을 보내 몰래 알아보게 했는데 누구도 그런 건 없었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형벌의 기한이 끝난 자들은 모두 그런 고통이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말했습니다.

"옥졸들이 사적인 형벌을 가하는지 직접 살펴보지 않으면 알 수 없으니 공들께서 저와 함께 직접 가서 그런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왕오가 대답합니다.

"저도 그것이 좋을 듯합니다." (중략. 앞의 각주00 부분)

어느 날 밤에는 옥졸들이 다 교체됐기에 죄수들에게 물었더니 '쇠 침대와 구리 기둥으로 형벌 받는 일은 여전히 있다'고 합니다. 그런 고문 기구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니 그들이 눈으로 가리키는데 제 눈에는 안 보이는 겁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불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건 모두 생각이 만들어낸 환영이었던 겁니다. 원래 아무도 그렇게 지옥의 고통을 주는 일은 없는 것이었지요. 사실은 죄인들의 업보가 그런 것을 나타내게 한 겁니다. 제가 그런 꿈을 꾼 것 또한 업보의 결과지요.

올봄 인삼이 오장을 안정시킨다고 해서 사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 후 한 시간 동안 참선을 했습니다. 그런 환영 같은 꿈을 안 꾸도록 하겠다는 것이었는데, 끝내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아도 저는 알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환영임을 알면서도 떨치지 못하는 것은 제 마음속의 분노와 울분이 그런 (지옥이라는) 환영을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40](『유명문답록』 pp.24-25)

명부에서 만나 장태염과 대화를 나눈 매요신 등은 명부에 지옥이란 없으며, 사람들이 말하는 지옥은 악업에 물든 혼령들이 스스로 만든 환영이라고 봤다. 그러나 창나라 말엽의 여주黎澍는 지옥이란 분명 있으며 업보에 따라 고통을 받는다고 말한다. 여주의 진술에 의하면 악행을 하고 이승에서 감옥 가거나 질병을 앓으면 악업이 탕감되지만, (이태학처) 만약 악업이 쌓였는데도 징벌을 받지 않으면 죽은 뒤에 상응하는 징벌을 받는다.(왕담) 위 글에서 장태염은 그것을 '환영'이라고 말했으나 지옥에 떨어진 혼령에게는 엄연한 현실이다. 왜냐하면 현실이란 본인이 만들어내는 실체이기 때문이다.

천국과 지옥이 있느냐고 묻는다면 누구도 대답하지 못하겠지만 스베덴보리 등의 체험에 따르면 지옥이 결코 환영은 아니다. 비유하자면 수 천길 어두운 바닷속처럼 태양이 빛나는 하늘과 완연한 경계가 있는 전혀 다른 세상이다. 영혼의 상태가 되면 악으로 가득한 영혼은 마치 심해의 생명체처럼 저도 모르게 바다 밑바닥을 찾아가고, 밝고 따뜻한 사랑으로 가득한 영혼은 아름다운 미소를 띤 어머니처럼 태양이 빛나는 하늘로 오른다. 그곳은 바다와 하늘 같은 물리적인 공간은 아니나 영혼들이 만든 현실의 세상이다. 단지 누구에게는 아무리 찾아보아도 볼 수 없지만, 누구에게는 고통스러운 현실 세상으로 엄연히 존재한다.

첩을 질투해서 매일 회초리질을 하는 이태학의 처에게, 명부 일을 겸직하는 같은 마을의 노파가 말했다.

40) 위의 책 p.25-26

"마님과 그 첩은 (전생의) 오래된 원한이 있어서 만나기는 했지만, 그 응보는 회초리질 200대까지일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열 배도 넘게 때리시니 첩에게 오히려 빚을 지는 일이지요. 더구나 여자에게 벌을 줄 때는 관청에서도 옷을 벗기지 않는데, 지금 발가벗기고 때리니 귀신 세상에서도 금하는 일이예요. 제가 마님과 친해서 명부 기록부(冥籍)를 좀 보았고, 말씀을 안 드릴 수 없어서 하는 말입니다." (『열미초당필기』pp.80-81)

이 내용을 보면 주인 여자는 이 늙은이가 복채가 필요한가 왜 간섭이야 하면서 욕을 했다. 얼마 뒤 반란이 일어나 남편도 죽고 그 매를 맞던 첩은 장군의 첩으로 갔다. 장군은 처가 없어서 모든 집안일을 첩에게 맡겼고, 매질하던 이태학의 처는 그 집에 잡혀들어가 하녀가 됐다. 하녀가 된 전 주인 여자에게 첩은 보복하지 않고 관대하게 대했으나 하녀는 결국 병으로 죽는다. 이 기록에서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이 정리된다. 하나는 현실의 두 여성이 처와 첩으로 때리고 맞으며 사는 것은 (학대와 피학대라는) 전생의 빚 때문인데, 그런 내용이 명부의 인생 기록부(冥籍)에 기록돼 있다는 점이다. 노파는 명부 겸직자로서 명부에 갔을 때 그 내용을 읽어봤다고 한다. 다른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은 첩에게는 현생에서 본처에게 200대의 매를 맞을 운명이 정해져 있다는 점에서, 그걸 넘어서는 학대는 본처가 오히려 첩에게 빚을 지는 일이라는 것이다. 주인 여자는 과도한 학대를 일삼은 뒤 곧바로 현생에서 처지가 뒤바뀌는 상황을 맞았다. 여기서 우리는 앞서 말한 대로 명부의 원리란 기본적으로 균형을 잡아가는 힘에 근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왕담王湛 역시 이승에서 명부 일을 겸직했다. 그의 숙부는 현령으로 있으면서 남의 돈을 빼앗은 뒤 그 후환을 없애려고 다른 일을 빌미로 상대를 죽였다. 숙부는 그 후 진급에 연달아 실패하자 명부 일을 하는 조카 왕담에게 그 연유를 알아봐 달라고 물었다. 그러자 왕담이 말한다.

"숙부께서는 예전에 현령을 하실 때 남에게 악한 일을 하셨군요. 그 안건은 지금 명부에서 계류 중인데 거기서 하는 말이 피고(숙부)가 죽어서 명부에 올라오면 사람 죽인 일을 심리할 것이고, 돈을 빼앗은 일 때문에 현재 진급에 실패하고 4년 동안 봉록이 깎였다고 합니다."[41]

남의 돈을 빼앗고 권력으로 그 상대를 죽이는 짓은 매우 사악한 범죄임에도 현실에서는 그 죄악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명부의 법칙은 응보, 즉 균형을 잡아가는 힘에 따라 움직이므로 숙부는 언젠가 처벌을 받게 된다. 현실에서도 승진에 실패하는 등 되는 일이 없으나, 그의 악업은 그것만으로 완결할 수 없으므로 결국 죽은 뒤의 세계인 명부에서 해결될 것이다. 명부에서 해결된다는 말은 다음 생에 축생이 되는 등 부단한 환생 속에서 응보가 진행된다는 뜻이다.

2) 명부 겸직자들이 말하는 운명의 해법

명부 겸직자들이 볼 때 명부의 법칙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앞에서 본 대로 '응보'다. 한 생명체가 한 생을 살면서 지은 의지의 행위는 뒤의 삶에 그에 상응하는 일정한 영향을 주는 것이다. '업보'는 전생과 현생으로 부단히 반복되는 업의 생성과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장태염이 그의 편지에 남긴 대로 천국과 지옥은 자신의 업보가 스스로 지어낸다는 말을 인정한다면 모든 미래는 결정된 고정불변의 것인가? 심은 대로 거두고, 지은 대로 맺는다고 단순한 정리를 한다면 사람의 현실이란 전생의 반영인 셈이다.

41) 王湛14귀 p.116

> 호목정의 말에 따르면 그의 고향에 명부 겸직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명부에 관해서 매우 상세히 알고 있었다. 다는 기억할 수 없지만 대부분 책에 전하는 내용과 같았다. 육도윤회는 일일이 보내지는 게 아니라 일생의 선행과 악행에 따라 마치 물이 젖듯이, 불에 타듯이 비슷한 것끼리 끌리는 것처럼 저절로 찾아가는 것 (氣類相感,自得本途) 이라고 한다. 상당히 일리 있는 말로써, 귀신이나 신령을 믿는 사람은 말한 적이 없는 내용이다. (『열미초당필기』)p.588 [42]

장태염이 고민했던 문제, 즉 천국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의문은 그보다 백여 년 전에 언급한 기윤의 이 글과 맥을 같이 한다. '육도(영혼이 가는 6가지 사후 세계)'에 드는 것은 누가 주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원칙에 따라 운행되는 하늘의 섭리라는 말이다. 그러나 빙산도 움직이고 배도 움직인다.

수많은 명부 겸직자가 일관되게 말하는 것은 생명에 대한 존중이다. 앞에서 하영은 여주인에게 맞아 죽은 여종의 해골을 측간 속에서 찾아서 향초로 씻어서 제사를 지내고 묻어 줬다. 왕담은 자신의 숙부가 살인을 저지르고 악행한 것을 지적했고, 명부 겸직자 노파는 이태학의 처에게 첩에게 매질을 멈추라고 하며 선행을 권했다. 한 명부 겸직자가 명부 판관에게서 들은 얘기를 확인해 보자.

> 우리 마을에 장씨 노파가 말하기를 자신이 한동안 혼령 안내자 일을 봤다고 한다. 그녀는 언젠가 명부에 갔을 때 부처를 믿으면 정말 도움이 되는지 물었다. 그곳 관리가 대답했다.
>
> "부처는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면 복을 받는다고 했지 부처가 복을 주는 건 아니다. 다들 부처에게 복을 달라고 빌지만, 청렴한 관리들도 뇌물을 안 받는데 부처가 뇌물을 받겠는가?"
>
> 이어서 참회를 하면 도움이 되는지 물었다. 명부 관리가 대답했다.
>
> "참회는 용맹정진해서 지난 잘못을 만회하겠다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요즘 사람들은 참회한다고 하면서 죄를 용서해 달라고만 하니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
> 이 말은 무당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수준의 말이 아니다. 누군가에게 듣고서야 할 수 있는 말이다.(『열미초당필기』) [43]

장씨 노파도 운명을 고치고 바꿀 수 있는지 궁금했을 것이다. 명부 판관이 하는 말에 따르면 커다란 노력을 기울일 때 운명이 바뀐다. 그것을 그는 '용맹정진'이라고 표현했다. 시주를 많이 하고 복을 빈다고 운명을 바꿀 수는 없다. 그러나 반성과 참회 뒤 악업을 보상하고도 남을 만큼의 엄청난 노력을 통해 올바른 길을 찾아간다면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니다.

> 내(책의 저자 기윤) 조상님 뢰양공께서 하신 말이다. 예전에 우연히 혼령 안내자를 만난 사람이 물었다.
>
> "운명이란 정해진 것입니까?"
>
> "그렇습니다. 특히 성공과 실패, 장수와 요절이 그렇습니다. 당나라 문헌에 보이는 것처럼 사람이 먹을 음식까지 정해져 있다는 것은 술사들이 하는 말입니다. 만약 사람들의 그런 모든 일을 기록한다면 세상을 다 덮는 분량의 장부에도 기록하기 어려울 겁니다."
>
> "운명이 있다면 그게 바뀔 수도 있습니까?"
>
> "있습니다. 커다란 선행으로 운명이 바뀌고, 커다란 악행으로 운명이 바뀝니다."

42) "胡牧亭侍禦言,其鄉有生為冥官者,述冥司事甚悉,不能盡憶,大略與傳記所載同。"(『열미초당필기』) p.588
43) "里有張媼,自云嘗為走無常,今告免矣。"(『閱微草堂筆記』) p.722

"누가 결정하고 누가 바꾸는 겁니까?"
"자신이 정하고 자신이 바꾸는 겁니다. 귀신이나 신령은 그럴 권한이 없습니다."

이 내용은 위에서 "참회는 용맹정진해서 지난 잘못을 만회하겠다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명부 판관의 이야기와 똑같다. 만약 천금을 도둑질했다면 올바른 마음을 회복해서 만금으로 갚아야 운명이 바뀐다는 뜻이다. 그래야만 악업이 소멸되어 복된 운명으로 바뀐다.[44]

"응보에는 어째서 결과로 확인되는 것도 있고, 확인되지 않는 게 있습니까?"
"사람은 선악으로 일생을 논하고, 재앙과 복덕으로 일생을 논하지만, 하늘에서는 선악을 이전 생과 연결해서 보고, 화복을 다음 생과 연결 지어 내다봅니다. 그러므로 종종 (눈앞의 상황으로만 보면) 어긋나 보이는 것입니다."

올바르게 살았어도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다거나, 극악무도한 죄를 저질렀는데도 잘 살다가 편안히 죽었다면 현생이 아닌 다음 생에 응보가 나타난다는 말이다.

"응보는 어째서 달리 갈라지는 것입니까?"
"그건 사람마다 근본의 운명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람 일로 비유를 하자면 관직이 승진될 때 상서尙書는 한 단계 오르면 재상宰相이지만, 전사典史가 한 단계 오르면 주부主簿일 뿐입니다. 강등도 같은 원리입니다. 비유하자면 승진이 안 되면 강등된 거나 다름이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므로 똑같은 일을 했어도 때로는 그 응보가 달리 나타납니다."

전생에 커다란 죄악에 물든 사람이라면 현생에서 좀 나아졌다 해도 고생하는 삶을 살 뿐이다. 전생에 공덕이 큰 사람은 이번 생에서는 태어나자마자 훌륭한 조건과 환경을 물려받는다. 둘 다 나아지긴 했어도, 전생이나 현생에서 쌓인 업장이 오늘과 내일의 결과를 다르게 한다는 뜻이다.

"천명은 왜 미리 알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까?"
"알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리 알면 세상은 아무 일도 하지 않을 겁니다. (천명을 알고 산다면) 제갈량은 쓸데없는 일을 한 것이 되고, 당말 육신은 통달한 사람이 될 겁니다."

제갈량은 천하의 충신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그가 충성을 다한 유비의 촉나라는 끝내 패망해 사라졌다. 제갈량이 그런 미래를 알고도 충성했다면 그는 헛수고한 셈이다. 당나라 말 애제 시기 6명의 대신은 천하의 무능력자들이었으나 애제가 황위를 양태조에게 넘기자 가볍게 그 밑으로 들어가 고위 관직을 이어갔다.[45] 당 왕조가 곧 사라질 미래를 내다보고 그런 짓을 했다면 그들은 인생의 달인이라고 할 수 있다는 비아냥의 말이다.

"그러면 어째서 천명을 우연히 알게 하는 걸까요?"
"우연이라도 알게 하지 않으면 귀신이나 신령이 없다고 믿고 사람들이 함부로 행동할 테고, 남이 안 보는 곳에서는 안 하는 짓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44) 凡為國捐生者, 雖下至仆隸, 生前苟無過惡, 幽冥必與一職事 ; 原有過惡者, 亦消除前罪, 向人道轉生。나라를 위해 몸을 바친 사람은 명직도 주고 사람으로 환생시킨다.(열미초당필기) p.161
45) 이에 관해서는 북송의 구양수가 「唐六臣傳」을 써서 통렬하게 비판했다.

(이런 이야기를 두고) 부친 요안공께서 말씀하셨다.

"이건 뢰양공의 개인적인 생각을 혼령 안내자의 이름으로 남기신 것일지도 모르지만 이치를 따져보면 확실히 이치에 맞는 말씀이다." (『열미초당필기』)[46]

현실에서 살면서 혼령 안내자 역할을 했던 띵성훠(1952년생)는 이상진과의 인터뷰 말미에 이런 말을 했다. "어려운 사람에게 금품을 기부하고 남들을 위해서 무너진 다리를 놓으면 자신의 생사기록부에 정해진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47]

양반집 첩들이 명계를 겸직하며 오가는 한 노파에게 물었다.

"우리 첩들은 무슨 인연으로 이렇게 (박복하게) 사는 건가요?"

"명부의 법칙에 작은 선행으로 작은 악행은 갚을 수 있지만, 커다란 선행이나 악행은 쉽게 감출 수 없지요. 아씨들은 모두 작은 선행이 쌓여서 이렇게 큰 집에 들어온 것이고, 악행이 쌓여서 그렇게 (첩으로) 사는 겁니다. 이번 생에 선업을 짓는다면 악업을 갚게 되고, 선업이 쌓이면 다음 생에 더 행복하게 됩니다. 이번 생에 악업을 지으면 선업도 사라집니다. 악업이 쌓이게 되면 다음 생은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선업을 쌓는다는 게 부처에게 향을 사르고 절하는 일은 아니지요. 효도와 우애 공경으로 가정을 화목하게 하는 게 진정한 선업입니다."

다른 여자가 물었다.

"자식이 있고 없는 것도 정해진 건가요? 점을 쳐서 명부에서 정해 준 자식이 없다면 저는 이제 기도하지 않으려고요."

"그 일로 점을 칠 필요는 없습니다. 자식을 바라며 선행을 하면 명부 기록부에 (자식이) 없었어도 있는 걸로 바뀝니다. 자식이 (있을 것인데도) 없을 듯이 악하게 살면 있던 계획도 없게 됩니다." (『열미초당필기』)[48]

노파의 말은 명계의 원리를 명확하게 들려준다. 사람의 현생은 지난 생의 선악에 따른 업보의 결과다. 그것을 만회하는 길은 그 업보를 뛰어넘는 정도의 노력이다. 비유하자면 정해진 물줄기를 따라 흘러가는 강물 위의 배를 저어가며, 끊임없이 커다란 힘을 쏟아부어야 방향도 바뀌고 부딪히는 일도 없는 것과 같다.

신동보가 의양현 현령으로 있을 때 한 노인이 글을 올렸다.

"어제 동성문 밖에서 묵었는데 문틈으로 목매어 죽은 귀신 대여섯 명이 들어오는 걸 보니 이 성내에서 대역을 찾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 현령께서는 백성들에게 종이나 첩을 학대하지 말고, 빚 갚으라고 사람 옥죄지 말고, 모든 일에 서로 양보하고 싸우지 말라고 분부하십시오. 그러면 귀신들도 사람들 틈으로 파고들 수가 없습니다."

신동보는 크게 화를 내고 노인을 때려 쫓아내게 했다. 노인은 원망도 하지 않고 계단을 내려와 무릎을 어루만지며 말했다.

"아쉽다. 이제 대여섯 명의 목숨은 구할 수 없구나."

며칠이 지나자 성안에 네 사람이 목을 매었다는 보고가 올라왔다. 신동보는 놀라서 급히 노인을 불러 물었다. 노인이 말했다.

"요 며칠 기억이 어렴풋합니다만 제가 글을 올린 생각이 납니다. 그 일로 귀신에게 미움을 사서 제

46) 族祖雷陽公言,昔有遇冥吏者,問命皆前定,然乎？(『閱微草堂筆記』) pp.136-137
47) 『坪陽再生人』 p.257
48) 王慶垞一媼,恒為走無常。(『閱微草堂筆記』) p.901

가 매를 맞은 게 아닐까요?"

이런 소문이 알려지자 집마다 자살을 대비하던 중 과연 두 사람이 목을 맸다가 구조됐다. 하나는 시어머니의 학대로 목을 매는 여자였는데 시어머니가 크게 반성하자 죽지 않았다. 다른 하나는 빚 때문에 목을 매는 여자였으나 그걸 알고 빚쟁이가 즉시 채권을 태웠기 때문에 죽지 않았다.

운명은 사전에 정해져 있지만 크게 노력하면 열의 한둘은 만회할 수 있다. 사람의 목숨이란 막중하니 귀신이 누군가를 죽이려 해도, 한 가닥의 희망이 있다면 사람의 노력으로 구조가 가능하다. 한겨울 바람이 불고 눈이 내리면 대지도 한파를 피할 수 없다. 그러나 털옷을 입고 문과 창문을 막고 눈을 피하려는 노력은 하늘도 막을 수 없다.(『열미초당필기』)[49]

목을 매어 자살한 혼령의 사례가 여기서 잘 묘사됐다. 여러 글에서 공통으로 말하는 것처럼, 이런 자살 혼령은 물에 빠져 자살한 혼령들처럼 '대역'을 찾는다. 물에 빠져 죽거나, 목을 매서 죽은 혼령 등 모든 자살한 혼령은 영혼 세계의 영접을 받지 못한다. 당연히 저승사자가 안내하러 오지 않기 때문에 죽는 순간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끌어안고 지낸다. 목을 매어 죽은 혼령은 명계에서도 대들보를 어깨에 지고 밧줄을 목에 걸고 다니는 것이다. 자살자들은 귀신으로 지내는 이런 고통을 벗어나려고 산 사람에게 자기 방식대로 자살하도록 유도해서 자기가 진 고통의 짐을 떠넘긴다.

창주 삽화사의 여승은 성이 동씨다. 관음보살 생신날 올릴 음식을 준비하다가 피곤해서 잠시 책상에 기대어 쉬었다. 꿈인 듯한데 관음보살이 말했다.

"네가 음식을 올리지 않아도 내가 배고플 일은 없다. 음식을 올린다고 내가 배부른 것도 아니다. 절 문밖에는 네다섯 명의 노숙인이 있는데 밥을 얻지 못해 굶어서 죽어가고 있다. 네가 이 음식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면 내게 주는 것의 열 배나 공덕이 많으리라."

동 스님이 깜짝 놀라서 문을 열어보니 과연 절 밖에 굶주린 노숙인이 여러 사람 있었다. 그 뒤로 스님은 매년 음식을 올린 뒤 그걸 노숙인에게 베풀면서 "부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말했다.(『열미초당필기』)[50]

관음보살이 말한 것처럼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 부처를 향한 기도이며 공양이다. 남에게 베푸는 것은 밥과 돈일 수도 있으나, 때로는 따뜻한 말 한마디나 고운 눈길일 수도 있다. 그것이 설령 마음뿐이라 하더라도 하늘은 기억한다.

영혼의 세계에서 만난 원로(판관)가 에마뉴엘과 대화하던 도중에 말했다.

"그 버스 정류장에서 있었던 일을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전혀 생각나지 않는 일이었으므로 에마뉴엘이 물었다.

"버스 정류장에서 있었던 일? 무엇을 뜻하는가요?"

원로의 도움으로 직전 생의 기억을 회복하자 한 정경이 떠올랐다.

서둘러 회사로 걸어가던 어느 날 에마뉴엘은 버스 정류장 옆에 앉아 울고 있는 여성을 발견했다. 그는 무심코 다가가 여자의 옆에 앉아 등으로 팔을 돌려 그 여자를 안으며 달래줬다. 그 여자는 잠시 낯선 이 사람의 위로를 받고 마음을 추스른 다음 버스를 타고 떠났다. 에마뉴엘은 회사로 갔고 그 짧은 순간의 친절은 잊혀졌다. 최면을 통해서 명계에서 있었던 그런 일을 기억해낸 에마뉴엘은

49) "辛彤甫先生官宜陽知縣時" (『열미초당필기』) pp.213-214
50) "滄州插花廟尼,姓董氏"(『열미초당필기』) pp.205-206

전생에 평소 자선단체에 기부도 해왔다고 하면서 현자들이 칭찬하는 일이 그런 것이었음에 놀란다.[51]

현대인 우위화吳玉華(1968년생) 등 현실에 살면서 혼령 안내자 업무를 겸직한 사람의 경험담에서 이 부분은 다음과 같다. 영혼 상태가 되면 영혼 세계를 본다. 사람이나 산천초목의 ′영혼′을 보는 것이다. 시각효과로 따진다면 일반 사람이 육안으로 보는 세상과 전혀 다름이 없다.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이 혼령 안내자들이 침대에 누운 노인을 둘러메고 나올 때, 식구들이 보면 그 노인은 여전히 침대에 누워있는 것이다. (명부 겸직자들끼리는 서로를 보고 듣지만 산 사람은 그들을 보거나 듣지 못한다) 띵성훠丁生活이 자신의 장인을 데려갈 때 장인은 잠시 거위로 보였으므로 아무 거리낌 없이 '잡아서' 끌고 갈 수 있었다. 우위화도 같은 경험을 했는데, 당시 우위화가 본 장인은 다른 사람의 얼굴이었다. 누군지 모르는 ′흉악한 얼굴′이었으므로 그의 뒷머리를 가격했고 함께 일하는 조원들이 그 쓰러진 사람을 끌고 나갔다. 우위화는 그 순간 깨어나 주변을 돌아보았는데, 그 자리에서 자신의 쇠뭉치에 맞았던 사람은 분명 장인이었다. 그러나 눈앞에 앉아 있는 장인은 여전히 식구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자세히 보니 얼굴색이 직전보다 검게 변해 있었다. 자신의 경험으로 볼 때 우위화는 이 상황이 어떤 건지 명확했다. 그이 말에 따르면 방금 끌려나간 건 장인의 '본 영혼'이었고 현재 장인을 움직이는 것은 장인의 '부 영혼'인 것이다. 우위화가 알기로는 '본 영혼'은 나중에 다른 사람의 태아로 들어갈 영체이고, '부 영혼'은 분묘에 남아 있을 영체다.[52] 그러나 방금 혼령 안내자로서 '주 영혼'을 끌고 갔을 때 그 자리에는 아무도 남아 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부 영혼'이 어디 있는지는 몰랐다.

당나라 소황문 사수史遂는 병이 들어 사직하고 집에서 요양 중이었다. 그는 식구들을 불러 놓고 병으로 혼절했을 때 누런 옷 입은 사람이 와서 한 말을 들려주면서 죽었다가 깨어난 경험을 얘기했다. 누런 옷 입은 사람이 말했다. "명부 관부에서 당신의 혼령 둘을 불러들여 일을 보게 하고, 다른 하나의 혼령을 남겨두어 몸을 움직이게 할 것이오."[53] 영혼이 분리되는 일이 있는지 궁금한 사람도 있겠지만, 마이클 뉴턴에 의하면 영혼은 분리돼서 환생하게 될 때 일부 에너지를 영혼 세계에 두고 오거나 환생 과정에서 두 개의 다른 몸으로 들어가기도 한다.

'주 영혼'이 끌려나가면 그 사람은 이미 죽은 것이다. 우위화의 말대로라면 남은 몸이 움직이고 있다 해도 7일을 못 넘긴다. 당시 우위화는 장인이 며칠 내로 죽을 것을 알고 처남들을 한쪽으로 불러 "장인어른의 주 영혼은 이미 떠났네. 며칠 안으로 돌아가실 테니 어디 가지 말고 임종을 준비하시게"라고 말했다. 주 영혼이 떠났지만, 장인은 여전히 식구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런데 우위화의 예상대로 저녁이 되자 장인은 거동을 힘들어하더니 이튿날 건강이 급속히 악화되면서 말을 어눌하게 했고 사흘째 되던 날에 숨을 거뒀다.[54]

51) 『영혼들의 운명2』 p.50
52) 영혼은 하나의 덩어리처럼 인식되는 것이 아니다. 『雲笈七籤』에서는 영혼을 '胎光', '爽靈', '幽精'으로 나눴다. 마이클 뉴턴은 『영혼들의 운명』 '영혼의 분리와 재합일'에서 사람들은 영혼의 일부를 영계나 직전의 삶 속에 남겨 놓는다고 기술했다.
53) 『太平廣記』神 311-2 '史遂'
54) 坪陽再生人 pp.259-260

5. 결론

이승에서 명부의 겸직을 하는 사람은 저승사자 외에도 판관은 물론 특정 지역의 염라왕 직무를 맡기도 한다. 그중 가장 많은 사례는 명계에서 볼 때 양기가 강해서 혼령을 거두어 오기 힘든 경우 살아 있는 사람에게 저승사자 겸직 업무를 맡기는 일이다. 이와 관련된 기록은 고대 문헌에만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지난 2000년대 초반 호남성 평양촌의 동족 거주지에서도 3명의 명부 안내령으로 일하는 겸직자가 있음이 확인됐다. 이는 고대 기록에 이어서 청말 민국 초기에 명부 판관으로 일했던 장태염이나 『유명문답록』의 주인공인 여주의 구체적인 진술과 맥을 같이 한다. 특이한 점은 이들 대부분 그 업무를 힘들어했다는 것이다. 밤이건 낮이건 정신이 충분히 쉴 시간을 갖지 못했다고 말한다.

명부 겸직자들의 진술에는 일정한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명부에서 인간 세상의 비밀과 과거 미래의 일을 일정 정도 알 수 있다는 점이다. 공개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악행의 경우 명부에서 종종 이승 사람(혼령)을 불러 처벌한다. 명부의 처벌이 내려지면 급작스러운 병에 걸리거나 사고 또는 죽음을 맞는다. 다른 하나는 과거와 미래를 알 수 있다는 점이다. 현생의 과거 미래뿐 아니라 전생도 알 수 있어서 현생의 문제가 전생과 연관돼 있음이 확인된다. 명부 겸직자들 모두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 정도는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알게 된다. 그들이 미래를 알 수 있는 것은 명부의 서고에 보관된 인생 기록부의 내용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기록부에는 수명과 공명 그리고 일생의 식록(음식과 녹봉)이 적혀 있는 것이다.

명부 겸직자들의 진술을 보면 영혼의 세계에 일정한 법칙이 운용됨을 알 수 있다. 그것은 바로 '응보'라는 것으로, 한 사람이 한 생을 살면서 지은 의지의 행위는 뒤의 삶에 그에 상응하는 일정한 영향을 주는 것이다. 영향이란 현생에서 바로 나타나기도 하고 죽은 뒤 다음 생이나 또는 여러 생에 걸쳐서 나타나기도 한다. 남을 죽인 사람은 다음 생에서 자신이 죽임을 당하고 빚을 지고 죽으면 다음 생에 빚을 갚게 된다. 그러나 명부 겸직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런 철저한 생명의 법칙에도 운명을 변화시키는 해법이 있다. 그것은 악행의 업이 쌓여있다면 그 업장을 소멸시킬 정도의 커다란 선행을 축적하는 일이다. 예를 들어 악업이 무겁게 쌓여있음을 안다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 목숨을 바쳐서 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것은 신에게 음식을 바치고 기도하는 일보다 더 커다란 선업으로 작용한다. 참회란 마음으로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커다란 선행을 쌓아가야 진정한 참회가 된다는 말이다.

메 모

【문학분과Ⅰ】 발표 ③

고계(高啓)의 시가 특징과 명대 시학의 추향*

정보선**

【목 차】

1. 들어가는 말
2. 고계 시론과 시가의 특징
   1) 시의 정신과 태도
   2) 시가의 특징
3. 고계 시의 평가와 명대 시학의 추향
   1) 시에 대한 평가
   2) 명대 시학의 추향
4. 나오는 말

1. 들어가는 말

원·명대에 활약한 시인 중, 고계(高啓)는 '명대 제일의 시인'으로 평가받았다. 사고전서총목(四庫全書叢目提要)에서는 고계가 "타고난 재능이 훌륭하여 실로 명대 시인 상등의 자리에 있다(天才高逸, 實據明一代詩人之上)."라고 평하였는데[1], 후인들이 고계라는 시인에 대한 지위와 그의 시에 대한 가치를 높이 받들었음을 알 수 있다. 고계는 39년간의 짧은 생으로 인해 자신의 타고난 시적 재능을 다 펼쳐내지 못하였으나 시 본질에 대한 깊은 사유를 통해 적극적인 창작활동을 펼쳐서 2,000여 수의 시를 후세에 남겼다. 명대 고기륜(顧起綸)은 『국아품(國雅品)』에서 고계가 "원말의 시체를 변화시켜서 가장 먼저 명대 초기의 시풍을 창도하였다. 침울한 풍격으로 시작하였으나 아득히 심오한 흥취로 깊이 들어가서는 시에 미친 사람이 격렬한 풍자로 정밀하고 미묘한 뜻을 얻었다. 고계, 양기(楊基), 장우(張羽), 서분(徐賁) 등이 훌륭한 시인으로 나란히 이름이 올려졌으나, 오직 고계만이 가장 뛰어났다(始變元季之體, 首倡明初之音, 發端沈郁, 入趣幽遠, 得風人激刺微旨. 故高,楊,張,徐, 雖並稱豪華, 惟季迪爲最)."라고 평가하였다.[2] 후대에 이르러서도 고계는 원대 말기의 유약하고 기이한 시풍에서 벗어나 고전 시의 전통을 계승하여 당시(唐詩)의 순수한 서정성을 회복하고자 노력하였고, 명대 초기의 시풍을 새롭게 개척하였다고 평가받는다. 본고는 고계가 궁구한 시의 본질에 대한 태

* 이 논문은 2021년 대학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1S1A5B5A17048498)
** 경북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강사 (baoxian@hanmail.net)
1) 『四庫全書提要』, 北京, 中華書局, 1987. p,1471.
2) 『歷代詩話續編』, 北京, 中華書局, 1983, p.1090.

도와 정신을 바탕으로 창작한 시의 특징과 표현 등은 어떠하였는가를 살펴보고, 고계의 시가 높이 평가를 받은 이유와 그의 시에 대한 평가, 그리고 그의 시가 명대 시학의 흘러가는 방향에 어떠한 원동력으로 작용하였는가 등을 살펴볼 것이다.

2. 고계 시론과 시가의 특징

고계(1336-1374)는 자가 계적(季迪), 호는 청구자(青丘子) 혹은 사헌(槎軒)이고 장주(長州. 지금의 소주) 사람이다. 어려서부터 시가 창작에 큰 관심을 두었고, 청년이 되어서는 시를 잘 짓는 것으로 이름을 알렸다. 그는 오(吳) 지역에 거주한 시인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시를 창화(唱和)하며 교분을 쌓아갔다. 사람들은 이들을 북곽십자(北郭十子)라고 불렀는데, 그 중, 고계와 양기(楊基)·장우(張羽)·서분(徐賁)을 오중사걸(吳中四傑). 혹은 명초사걸(明初四傑) 등으로 칭하였다.[3] 고계는 홍무(洪武) 2년에 명 조정의 부름으로 『원사(元史)』를 저술하였고, 한림원편수(翰林院編修)를 지냈다. 이어 호부시랑(戶部侍郎)의 관직을 제수받았으나 사양하고 물러나서 고향인 오송강(吳松江) 옆 청구(青邱)에 은거하면서 전원생활을 즐기며 시 창작에만 몰두하였다. 그는 비교적 부유한 가정에 태어났지만, 부모가 죽은 후 가정을 잘 돌보지 않아서 형편이 어려워졌고, 빈곤한 생활이 이어지자 루강(婁江, 지금의 오송강) 옆으로 옮겨 살기도 하였다. 장사성(張士誠)이 소주를 점령하였을 때도 친구들은 관직을 받았으나 그는 관직을 거절하였다. 명조가 세워지자 장사성 정부에 부역한 그의 친구들은 모두 죽었지만, 고계만은 살아남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후 소주부사(蘇州府司)였던 위관(魏觀)이 좁은 관가를 개축하자 고계가 상량문을 지어주었는데, 이 일로 그는 위관의 모반에 연루되었다.[4] 명 태조 주원장은 그를 남경으로 압송하여 요참(腰斬)의 형벌을 내려, 고계는 39세라는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하였다.[5]

고계는 시를 생명처럼 소중하게 생각하여 세상을 떠나기까지 시 짓기에 모든 힘을 쏟아부었다. 그는 『부명집서(缶鳴集序)』에서 자술하기를 “나는 불행히도 적게 가진 것이 좋았다. 서책을 펼쳐 깊

3) 고계는 오현(吳縣)의 북곽(北郭)에 거주하며 동향의 여러 시인과 교유하였다. 당시 문인들은 고계(高啟)를 포함하여 서요신(徐堯臣), 장우(張羽), 양기(楊基), 왕행(王行) 여민(呂敏), 송극(宋克), 서분(徐賁), 진칙(陳則) 도연(道衍) 왕이(王彝) 등의 10명의 시인을 ‘북곽십자’라고 불렀다. 이들은 고계의 또래로서 모두 뛰어난 학식과 능력을 겸비한 인재로 장사성(張士誠) 정권에서 관직을 지내기도 하였다. 특히 양기(楊基)·장우(張羽)·서분(徐賁) 등과는 오중사걸(吳中四傑) 혹은 명초사걸(明初四傑)로 칭해졌다. 이들은 모두 명 태조에게 죽임을 당하였다.

4) 조익은 『구북시화』에서 『명사·본전(明史·本傳)』에 있는 고계에 관한 기록을 서술하였다. “ 고계가 전에 시를 지어 풍자한 바가 있었는데, 황제는 불쾌했지만 드러내지는 않았다. 그가 고향으로 돌아간 뒤에 위관이 군청을 개수하여 고계가「상량문」을 짓자 황제가 노하여 마침내 저자에서 허리가 잘렸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고계가 먼저 시로 인해 혐의를 받았고, 위관의 상량문 때문에 화를 입은 것이다(惟『明史』本傳謂 “啟嘗賦詩, 有所諷刺,帝賺之未發.歸家,以觀改修郡治, 啟為作「上樑文」,帝怒,遂腰斬於市″是青丘先以詩召嫌, 而禍發於觀之「上樑文」也.).” 趙翼, 『趙翼全集』三「甌北詩話」, 南京, 鳳凰出版社. pp.1278.

5) 고계의 죽음에 대해서는 여러 이야기가 전한다. 고계가「군치상량문(郡治上梁文)」을 지었기 때문에 주원장에 의해 화를 입었다는 설, 그가 남경에서 관리로 있을 때 지은「궁녀도(宮女圖)」,「화견(畫犬)」이라는 시가 황제의 음탕함을 암시하여 주원장의 미움을 받고 있었던 설, 고계가 벼슬을 사임하여 귀향함으로 새 왕조에 협조하지 않아서 주원장의 미움을 받았다는 설, 고계가 교류한 인물들이 주원장과 대적했던 장사성 정권에 협조하였다는 것으로 그를 의심한 점 등이다. 李聖華, 『高啓試選』, 中華書局, 2005, pp..8-11참조.
이러한 여러 가지 설을 종합적으로 보면 주원장이 고계와 그 주변의 인물들에 대해 항상 경계하였음을 알 수 있다. 고계는 정치적 속박을 벗어나 자유롭고 독립적인 의식을 가진 시인이었기에 명 태조 주원장의 폭정과 의심 많은 성격을 견딜 수 없었다. 그러기에 그의 모든 시문이 인생의 비극을 부르는 직접적 원인이 되었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 생각하고, 소리 내어 읊조리니 소리가 입에서 끊이질 않았다. 세상일도 포기하고 세상에 대한 뜻도 잃어버린 듯이 보였다(余不幸而少有是好, 含毫伸牘, 吟聲咿咿, 不絶於口吻, 或視爲廢事而喪志.)"라고 하였다.[6] 그는 오로지 시에만 마음이 있었고, 세상에 나아가 공업을 쌓고 높은 관직을 받아서 정치를 하려는 뜻이 전혀 없었다. 그는 오로지 인생을 시가 창작에 대한 열정과 몰입으로만 채웠다. 고계는 시를 짓는데 고인의 시를 배우고 익히는 것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로 생각하고, 배운 것을 바탕으로 시체를 분류하고 모든 시체의 장점을 겸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고인의 시를 반복 학습하여 작가 내면에 체화하고, 다양한 풍격과 예술적인 수법을 받아들이고 융합하여야 자신의 이상적인 시를 지을 수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바로 고계가 "모든 사람의 뛰어난 점을 두루 본받고, 일에 따라 모의하며 그때의 마음이 융화되기를 기다리면 온전하게 저절로 이루어진다(兼師衆長, 隨事模擬, 待其時至心融, 渾然自成.)"라고 말한 바이다.[7] 실제 그의 시에는 이전 시의 작시에 관한 언어기법과 표현수법, 시의 기풍 등이 많이 활용되었다.[8] 그의 학고(學古) 후의 시의 모습에서 이전 시의 면모를 많이 볼 수 있다. 그러나 그가 지향한 학고(學古)가 무차별적 모방을 통한 과거로의 회귀는 아니다. 그가 말한 학습을 통한 모방과 의고는 작가의 창조적 상상력이 총동원된 예술 형상을 만들어내기 위한 필수과정이었고 시가 창작론이기도 하였다. 즉 그에게서 학고(學古)는 이전 시인들이 가진 장점과 그들의 정신과 특징, 개성을 스스로 내면화하여 새로운 시의 구상과 배열로 창조적인 시 세계를 열어가는 도정이었다. 이로 보면 시인이 새로운 시 세계를 열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대 시인들의 고전에 대한 광범위한 학습을 통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인 자신의 개성과 정신적 세계에 더 많은 예술적 생명인 영감과 예술적 구상의 길을 열어젖힐 수 있는 시 창작의 중요 요소였음을 알 수 있다.

고계는 당시(唐詩)를 받들고 따랐는데, 특히 이백의 시의 초월적이고 낭만적인 풍격과 두보 시의 사회현실의 비판적인 기풍을 많이 본받았다. 그러나 그는 당시를 매우 받들고 많이 배우기는 했지만, 당시의 격조와 틀에 제한받지 않았고, 좋은 시라면 시대를 가리지 않고 창조적 상상력을 동원한 자기 방식의 모방을 하여 자유롭고 독자적인 시 영역을 구축해 나갔다. 그리하여 그의 시는 형식보다는 내용을 더 중시하여서 많은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평이한 표현과 생동적인 언어로 독창적인 서정이 장착된 창작의 성과를 거두었다.[9]

1) 시의 정신과 태도

지정(至正) 27년(1367), 고계는 그의 시집인 『부명집·서(缶鳴集·序)』에서 그의 시에 대한 정신과 태

6) 『高靑丘集』,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5. p.906.
7) 『高靑丘集』,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5. p.907.
8) 고계의 시 중에 전대 시인들을 배운 영향과 그 닮은 시에 대한 상세한 서술은 조익의 『구북시화』에 잘 설명되어 있다. 趙翼, 『趙翼全集』三「甌北詩話」, 南京, 鳳凰出版社. pp.1274-1275.
9) 고계는 생전에 『누강음고(婁江吟稿)』, 『부명집缶鳴集)』, 『고소잡영(姑蘇雜詠)』등을 간행하였으며, 영락(永樂) 원년에 그의 조카 주립종(周立從)이 유고시(遺稿詩) 천여 수를 모은 것에 서용(徐庸)이 다시 천 여수의 시를 첨가하여 『고태사대전집(高太史大全集)』을 간행하였고, 청(淸)·김단(金檀)이 『유시(遺詩)』한 권 사집(詞集) 『구현집(扣舷集)』에 『부조집(鳧藻集)』을 더하여 청(淸)·옹정(雍正)때 『고청구시집주(高靑丘詩集注)』를 간행하였다. 고계는 시인이 사물을 모방하거나 여러 선배 시인들의 장점을 두루 채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의 주장에 따라 그의 시가는 이백의 표일(飄逸), 두보의 침울(沈鬱), 한유의 개활(開闊), 유종원의 간결(簡潔)함을 채용하였고, 시경(詩經)에서부터 초사(楚辭)에 이르기까지 한위고체(漢魏古體)에서부터 당송 시, 서곤체(西崑體)까지도 익혔다. 그는 옛것을 배웠지만 범속(凡俗)함으로 흘러가지 않고 여러 시체의 장점을 취하고 계승하여, 시인 자신만의 독특한 풍격을 만들어 후세에까지 영향을 끼쳤다.余登保, 「論高啓詩歌的藝術風格」, 2010, 內江師範學院學報 第25卷 第9期 참조.

도를 가장 먼저 제시하였다. 그는 고인의 시가 시인의 '뜻'만이 아니라 저절로 우러나온 '성정(性情)'에 의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임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시 창작은 시인의 마음과 정신을 모두 쏟아야 하는 일이고, 또 시인의 뜻이 정련된 언어와 잘 융합되어 자족(自足)의 즐거움을 누리는 일임을 표명하였다.

> "고인의 시에 대해서 오로지 뜻으로만 시를 지은 것이 아니었다. 국풍의 시는 성정이 우러나오는 것을 놔둘 수 없어 지어졌던 것이지, 어찌 힘써 그리 한 것이었겠는가? 뒷날 비로소 뛰어난 시인들이 나와서 이 일에 전념하고 다른 일을 한 것은 아니다. 심신을 다 쏟아내고 물상을 다 담고 다듬어서 정련하게 만든 언어를 통하여 시 솜씨에 만족하고 뽐내었다. 마음에 들면 노래하고 춤을 추니 세상의 그 어떤 즐거움과도 바꾸기에는 부족한 것이었다. …… 비록 그 공교함은 감히 예전의 훌륭한 작가와 비교할 정도는 아니지만, 스스로 얻은 즐거움은 비록 이치에 밝은 사람이라도 그 다름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없다. (古人之于詩,不專意而爲之也.『國風』之作, 發于性情之不能已, 豈以爲務哉? 後世始有名家者, 一事于此而不他, 疲殫心神, 授刮物像, 以求工言語之間, 有所得意, 則歌吟蹈舞, 擧世之可樂者不足以易之. …… 雖其工未敢與昔之名家者比, 然自得之樂, 雖善辯者未能知其有異否也)"[10]

위의 서에서 고계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고인들은 시를 쓸 때 전적으로 뜻에만 의거 하여 짓지 않았고,『시경·국풍(詩經·國風)』의 작품들은 모두 고인들의 자연 발생적인 진심(性情)의 표현이지, 작위로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후에 시를 전문적으로 짓는 작가가 나와서는 다른 일은 하지 않고, 객관적인 사물과 경치를 세밀하게 표현하면서 시가의 언어는 다듬어지고 공교해지게 되었고, 시를 보는 이들은 시가 마음에 들면 절로 노래하고 춤을 추는데, 이는 세상의 그 어떤 즐거움과도 바꿀 수 없는 일이 되었다는 것이다. 고계는 한 시를 짓는 사람으로서, 시로 어떠한 곤경에 처하든 시 쓰는 일은 결코 멈출 수 없는 운명으로 받아들였고, 작시에 대한 사명 의식도 강하게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고계는 작시를 '스스로 얻는 즐거움(自得之樂)'이라고 하였다. 그는 출세하여 세속의 이익을 얻고 공명을 이루기보다는 은퇴하여 시 짓는 즐거움을 얻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하고 즐거움을 작시의 목적이면서 결과로 여겼다. 그래서 현실적 어려움 속에서도 끊임없이 시를 지어 친구들과 창화하고 이를 즐거워하였다. 비록 자신이 지은 시가 이전의 대가들의 시보다 공교롭고 수사학적인 정돈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스스로 얻는 즐거움으로 시의 대가(大家) 여부를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중국의 시인들은 학문하는 지식인이면서 정치가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고계는 세속의 부귀영화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단지 '시를 위한 시인'으로 살기만을 원했다. 그래서 그는 시를 짓는 궁극적인 목적을 '자득지락(自得之樂)'에 두었다고 보인다. 그는 이러한 즐거움을 얻기 위해 "오로지 시 짓는 일만 하고 다른 것은 하지 않으며, 심신을 다 쏟고 물상에 다 긁어모아 언어 속에서 공교함을 구한다(一事於此而不他, 疲殫心神, 蒐刮物象, 以求工於言語之間)."라고 밝혔으니, 여기에서 그의 시 창작 태도와 정신을 엿볼 수 있다. 한편 그가 말한 낙(樂)에는 작시(作詩)의 즐거움뿐 아니라 학시(學詩)의 즐거움도 함께 들어 있다. 이는 고계가 배우고 짓고, 짓고 또 배우는 과정에서 공자가 말한 "배우고 때에 맞게 익힌다면 또한 기쁘지 않은가(學而時習之 不亦說呼?)"의 학문의 즐거움과 통한다고 할 수 있다. 고계가 자신이 지은 시와 당시에 지어진 시들이 정교함을 다투는 형식미인 공교함에서는 이전에 미치지 못한다고 한 바에서, 그는 옛날의 훌륭한 시를 열심히 배우고 익

10) 高啓,『高靑邱集』,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5, p.906.

혀서 이전의 시처럼 공교해져야 한다는 학시의 진지하고 성실한 태도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고계는『부명집서·독암집서(缶鳴集序·獨庵集序)』에 시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세 가지 요소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체는 '격', '의', '취'일 뿐이다. 격으로써 그 체를 구별하고, 의로써 그 정을 전달하고, 취로써 그 묘미를 모은다. 체가 구별되지 않으면 바르지 못하고 천박해져서, 옛것을 본받는 뜻마저 어그러진다. 정이 전해지지 않으면 가볍고 허황함에 빠지게 되고, 사람에게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본질이 실로 흐려진다. 시의 묘미가 모이지 않으면 내보일 것 없는 평범함으로 뛰어난 기풍이 사라진다. 이 셋을 얻으면 이후로는 바르고 우아하며 온화하고 담박하며 재주와 지혜가 뛰어나며 무성하고 화려하여 그윽하고 아름다우며 기이하고 어려운 말들이 다채롭게 변화되어 마땅한 이치에 따라 시를 짓게 된다. ……시의 도리가 갖추어진 것이다.
>
> 詩之要,□有曰格,□曰意,□曰趣而已. 格以辨其體□意以達其情□趣意臻其妙也. 體不辨則入于邪陋,□而師古之義乖,□情不達則墮于浮虛,□而感人之實淺, 妙不臻則流于近凡□而超俗之風微. 三者旣得, 以後典雅, 沖澹, 豪俊, 穠縟, 幽婉, 崎險之辭, 變化不一, 隨所宜而賦焉. …… 如是而詩之道備矣."[11]

위의 글에서 고계는 시의 세 가지 요체로 '격(格), 의(意), 취(趣)'를 제시하고, 시를 짓는 기본 원리라고 주장하였다. 고계가 제시한 세 가지 요체가 무엇을 말하는가에서 그의 작시에 대한 시각과 논점이 파악될 것이다. 먼저 '격(格)'은 시의 골격으로, 각종 시체의 전형적인 규격인 체격(體格)을 가리킨다. 고계는 격을 시의 요체에서 첫 번째에 둠으로 체격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는데 형식을 중시한 명대 전칠자(前七子)가 이를 이어받았다. 바로 체격은 시를 배우는 기초이면서 옛 시를 스승으로 삼고 배우는 필수적인 조건이다. 체격으로 먼저 시를 분류하고, 옛 시를 배워야 비로소 시에 내포된 뜻(詩意)이 지극한 정(詩情)에 이를 수 있는 것이다. 시는 규격을 통해 분류되고 구별되는데,[12] 고계는 위의 글에서 시체(詩體)가 제대로 판별되지 않은 시는 바르지 못하고 천박해져서, 대가들의 시를 배우고 익히는 후인들은 시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옛 시의 정밀한 체제를 잘 본받은 시는 골격이 튼튼하여 천박함과 궁핍함, 조잡함과 편벽함을 피할 수 있고, 전통적인 시의(詩意)도 올바르게 계승된다는 것을 말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고계가 말한 '격'을 체격(體格)과 격률(格律)이라는 형식으로 나누어 보면, 체격은 시의 격식인 전형적인 규격으로, 시의 자법(字法)과 구법(句法), 기승전합(起承轉合)의 시의 장법(章法) 등이고, 격률은 성률(聲律)로, 시의 운율, 평측, 엄정한 대구(對句) 등의 형식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고계는 작시의 기본 원리 중에서 '의(意)'를 두 번째에 두었다. 의는 시인의 영감이 시에 고스란히 투영되어 나타난 진정성을 말한다. 바로 시의 존재가치이다. 고계는 시를 짓는 데 진실한 감정인 '성정'을 매우 중시하였다. 즉 영감이 자아낸 활달한 심리상태에서 시인은 상상력과 서정성을 발동시켜 시를 짓는다. 이렇게 창작된 시가 사람에게 진심을 전달하게 되고, 그 진심은 감동을 준다. 고계가 시에서 성정을 중시한 면은 청대 성령시파(性靈詩派)의 영수인 원매(袁枚)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시인의 강렬한 감정과 욕망이 시인 자신의 충동적 세계와 감개에 스며들어서 타인에게 흘러 들어가는 것을 바로 정이 전달되는 것이라는 관점이 원매에게 통했기 때문이다.[13] 시의 기능과 작동

11) 高啓,『高青邱集』,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5, p885
12) 成復王 著,『中國文學理論史』, 三 北京出版社, 1987, 7, p29 참조
13) 송영주,『청대 시론에 관한 논고』, 시간의 물레, p.249. 참조

영역을 교화와 인륜 도덕교육에 두지 않았던 고계였기에, 그가 말한 '의'는 성정이 바탕이 된다. 의로써 정을 전달한다는 그의 주장은 성정으로 지은 시는 사람의 기운과 정서, 정신이 시에서 자연스럽게 흘러 나와 시는 강렬한 감염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 번째는 '취(趣)'로서, 시의 오묘한 맛이 다 모인 말이다. 고계가 '취'를 세 번째에 놓았으나 그는 시가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 요소라고 여겼다. 그는 『누강음고·서(婁江吟稿·序)』에서 "천하가 태평하여 일이 없을 때는 호방한 영웅의 기상이 있는 재사가 있더라도 쓰임이 없다. 때로는 초목이 우거진 곳으로 쫓겨나서 농사짓는 늙은이들과 술 잔치를 열고, 스스로 만족하고 즐거워하며 노래 불러, 세상의 일에는 조금도 개의치 않는다(天下無事時, 士有豪邁奇崛之才而無所用. 往往放于山林草澤之間, 與田夫野老沉酣歌呼以自快其意, 莫有聞于世)."라고 하였다.[14] 고계가 말하는 '취'는 바로 "스스로 만족하고 즐겁다(自快其意)"를 가리킨다. 즐거움에 시인의 모든 감정이 모여 있고, 온 감정이 발산되어 흥취가 있는 시에는 온갖 오묘한 정신이 다 들어있는 것이다. 고계는 시에 대한 몰입도가 상당히 높았다. 고계의 모든 정신이 집중된 시는 시인으로서는 자기만족에 빠지는 황홀경을 경험할 수도 있고, 독자는 시인의 감정에 절로 감정이 이입되어서 새로운 예술세계의 승화도 경험할 수 있다. 고계가 말한 '취'는 바로 이러한 시의 상호성을 활발하게 작동시켜 시에 대한 이해의 깊이와 폭을 경험하는 주요한 요소가 된다.

이상으로 고계의 시의 세 가지 요체에 대해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고계는 시는 외재적 요소 '격'과 내재적 요소 '의'에 자족적인 요소 '취',이 세 가지의 요소가 모두 조화롭게 잘 이루어져야 아름답고 완전한 시를 이룰 수 있음을 말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고계의 시의 세 가지 요체가 잘 조합된 예로「청구자의 노래(青邱子歌)」를 살펴보자, 이 시는 자서전적인 시로, 시인의 타고난 맑은 성품과 작가의 작시에 대한 강한 열망을 보여주고, 또한 고계의 시 창작에 대한 정신과 태도를 분명히 밝혀준다.

「청구자의 노래」
청구자는 수척하고 맑은 자태에, 본래는 오운각 아래의 신선이었다.
언제 속세에 귀양 왔는지도 모르기도 하고, 사람들에게도 성명을 밝히지 않았다.
……
다만 시구를 찾기 좋아하여 스스로 시를 짓고 스스로 그 시에 화답한다.
새끼줄 띠를 하고 지팡이를 짚고 논둑길을 걸으니, 주변 사람은 알지 못하고 비웃고 경멸하며
노나라의 얼빠진 선비, 초나라의 미치광이라고도 하네.
……
물가에 홀로 앉기도 하고 숲속을 혼자 거닐기도 하며
우주의 근원을 분석하고, 자연의 본질을 탐구하니, 천지 만물도 그 비밀을 숨기기 어렵구나.
광대무변한 세상에서 유유히 사색하여, 조용히 앉아서 우주 만물의 정신을 시로 표현해본다.
정밀함은 쇠틀에 매달린 이를 화살로 꿰뚫는 것 같고
웅장함은 거대한 고래를 칼로 잡는 것과 같고
청신함은 맑은 이슬 기운을 들이마시는 것과 같고
준험함은 우뚝 솟은 산봉우리와 나란히 있는 것 같다.
뭉게뭉게 맑은 구름이 피어오르는 것 같고, 움찍움찍 언 땅을 뚫고 풀이 싹 트는 듯하다.
높이 하늘의 별을 붙잡고 올라 달을 탐색하고, 무소뿔을 살라 강의 달을 비추니 온갖 요괴 드러낸

14) 高启, 『高青丘集』,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5, p.892.

다.

기묘한 시의는 갑자기 귀신을 만난 듯하고, 멋진 경치묘사는 매번 강산과 그 아름다움을 다툰다.

……

이 세상에는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이 없어서, 스스로 쇠 종과 석경을 꺼내 두드려 소리를 내본다.

강가 초가집에 비바람이 그쳐 맑게 개고, 문을 닫고 푹 자고 났더니 시가 막 이루어졌다.

……

다만 염려되는 건, 갑자기 파도가 일어, 새와 짐승이 놀라 소리치고 산이 흔들려 무너지더니

옥황상제께서 이를 듣고 노하시어, 아래로 흰 학을 파견해서 청구자를 받아드려

속세에서의 간교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고, 다신 신선의 옥을 채워 하늘궁전으로 돌아오게 하였다.

「青邱子歌」

青邱子, 臞而清,□本是五雲閣下之仙卿. 何年降謫在世間,□向人不道姓與名. ……

但好覓詩句,□自吟自酬賡. 田間曳杖復帶索, 旁人不識笑且輕.

謂是魯迂儒·楚狂生. …… 向水際獨坐, 水中獨行.

斲元氣, 搜元精, 造化萬物難隱情. 冥茫八極遊心兵, 坐令無象作有聲.

微如破懸蝨, 壯若屠長鏡. 淸同吸沆瀣, 險比排崢嶸

靄靄晴雲披, 軋軋凍草萌. 高攀天根探月窟, 犀照牛渚萬怪呈

妙意俄同鬼神會, 佳景每與江山爭 ……

世間無物爲我娛, 自出金石相轟鋻

江邊茅屋風雨晴, 閉門睡足詩初成 ……

但愁欻忽波浪起, 鳥獸駭叫山搖崩, 天帝聞之老, 下遣白鶴迎,

不容在世作狡獪, 復結飛佩還瑤京.

위의 시는 68구(句) 399자(字)로 구성된 장단구(長短句) 형식이다. 이 시는 시인인 자아의 인품과 인격에 대한 표현이 강렬하고 선명하게 드러나고, 이백과 같은 낭만적인 기풍이 충만하다. 작가는 시구를 대구배열(排比)과 사곡(詞曲)과 같은 장단구를 자유자재로 배합하여, 자신의 성정이 자연스럽게 노출되게 하고, 신비롭고 환상적인 분위기도 만들어냈다. 이 시에 대해 장배항(章培恒)은 “한 시인이 자유롭고 독특한 시인이 되기를 원한 시인 자신에 대해 말해 놓은 것이다. 한적한 때의 소일거리를 말한 것도 아니고. 사회도덕실현을 목표로 한 도구로 말한 것도 아니다. 시는 단지 시인 자신의 내부에 존재해 있던 욕구가 우러나온 것이지, 어떠한 외재적인 목적에도 따르지 않았다. 이처럼 시인의 가치와 비공리성을 강조한 시는 과거에 거의 보이지 않았다(他只願做個詩人, 一個自由獨特的詩人, 而詩對於詩人來說, 旣不是閒適的消遣, 更不是一種實現社會道德目標的工具, 詩只是詩人自身內在的需要, 不服從任何外在的目的. 如此强調詩人的價值和非功利性, 是過去極少見的.)”라고 하였다.[15] 앞의 평가는 고계가 시에 대해 매우 순수한 열정과 창작의 열의를 지녔던 시인으로, 목적의식 없는 창작에만 자신의 의지를 불태웠던 사람임을 강조한 것이다.

고계는 23세에 소주(蘇州) 교외 오송강(吳松江) 옆의 청구(青邱)로 이주하고 스스로 청구자(青邱子)라고 불렀다. 이 시는 청구에서 한가로이 생활하며 시 짓는 것을 낙으로 삼고 살면서 지은 것으로, 시인의 개성과 시의 색깔이 선명하게 드러난다. 또 시인의 시에 대한 깊은 사유와 전 우주적 관찰이 시인의 시를 더욱 정채롭게 한다. 첫 번째 단락은 세속에 귀양 온 청구자가 세상일에 전혀 개

15) 章培恒 ,『中國文學史』下冊, 上海, 復旦大學出版社, 1996, p.217.

의치 않고 열심히 시 창작에 몰두하는 모습을 묘사하였다. 특히 자신을 '귀양 온 신선(謫仙)'인 이백(李白)의 기풍을 그대로 본떠서 묘사하였다. 두 번째 단락은 시인이 가슴에 자연 만물의 이치를 다 품고 자신의 시에 다양한 풍격(微, 壯, 淸, 險)을 다 창출하였다고 하였으니 자신의 시의 '미(味)'와 '의(意)'를 다 풀어서 설명한 셈이다. 세 번째 단락은 "우주의 근원을 분석하고 자연의 본질을 탐구" 하고 "광대무변한 세상에서 유유히 사색하여 우주 만물의 정신을 시로 표현한다"라고 한 것은 시공을 초월한 광활한 기운과 기세가 또한 이백의 시와 닮았다고 할 수 있다.[16] 그리고 시인의 시가 귀신과 자연, 하늘, 온 사방으로 영향을 미치는 강한 감화력을 가졌다는 표현에는 작가의 시 창작에 대한 자신감과 자부심이 묻어있다. 이 시는 "귀양 온 신선(謫仙)"에서 시작하여 "신선의 패옥을 차고 하늘로 돌아간다(飛珮還瑤京)"로 마무리되어, 시작과 종결이 있는 한 편의 이야기와 같은 구조이다.

2) 시가의 특징

고계의 인생역정을 세 시기로 나눈다면, 혼란한 원말부터 명에 출사하기 이전의 시기와 명 수도인 남경에서 관직 생활을 하던 시기, 명 태조가 내린 호부시랑(戶部侍郎)을 거절하고 청구로 돌아온 시기이다. 고계는 인생의 고비가 된 시기마다 시 창작으로 남다른 개성과 독특한 풍격을 표현하였다. 그 특징을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하였다.

(1) 시대에 따라 시의 풍격이 변화하였다.

고계는 원말(元末)의 혼란한 정치사회상황을 직접 목격하면서 쇠퇴해가는 원이 중흥하기를 염원하는 시를 짓기도 하였고, 명 왕조를 아름답고 과장된 문사로 찬양하는 시도 지었다. 전자의 예로, 지정(至正) 18년(1358), 고계는 23세에「경사로 시험을 보러 가는 장상을 전송하며(送張貢士祥會試京師)」[17]라는 시를 지었다. 바로 원(元)이 잇따른 전쟁에 패하고 원말 군웅(群雄) 중 장사성(張士誠)이 항주(杭州)와 가흥(嘉興)을 점령한 때이다. 고계 이때 과거시험에 뜻이 없었으나 국가의 일에는 관심이 많았다. 이 시에서 그는 원조(元朝)가 다시 일어서기를 기대하고, 친구가 급제하여 조정의 일을 잘 해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시의 구성은 다소 산만하여 내용의 연결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지만, 젊은 시인의 웅건한 패기와 나라에 대한 충정이 충만해 있다.

> "국가의 학문 통치 백 년에 이른 지금, 많은 현사가 은혜를 깊이 받은 것은 하늘도 아네.
> 國家文治今百年, 多士孰賁皆知天.
> "근래 국운이 진흙에 빠져 순절을 다투어 흠모하니, 목숨 보전한 것이 부끄러워라.
> 邇來國運屬中圮, 爭慕死節羞生全.
> "그로 인해 천자의 기강을 다시 크게 바로 세운다.

16) 고계는 이백의 시를 많이 학습하였고, 그의 시를 모방하여 지은 작품도 많았다. 이에 대해 조익(趙翼)은 구북시화(甌北詩話)에서 "고계는 당대의 시인 중에서 이백을 많이 배웠다. 이백의 시는 종래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없었는데, 오직 고계만 그와 비견되고, 시의 형태와 정신이 비슷하다(李靑蓮詩, 從未有能學之者, 惟靑邱與之上下, 不惟形似, 而且神似)."라고 평가하였다. 趙翼,『趙翼全集』三,「甌北詩話」卷8, 南京, 鳳凰出版社. p.1274.

17) 지정(至正) 18년인 1358년에 지어진 초기의 시이다. 원말의 혼란한 시기에 고계가 원(元)이 기울어 가는 것을 걱정하며 다시 중흥하기를 기원하는 내용이다. 초기의 작품이어서 시의 장법은 산만하게 느껴지나 기세가 웅건하고 감정이 충만하다. 李聖華選注.『高啓詩選』, 北京, 中華書局, 2005, p.4.

坐令王網紀復大正.

위의 시에서 고계는 원말의 군웅(群雄) 중 하나인 장사성이 혼란한 원말의 시대를 다시 바로 세울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내심 크게 가졌음을 말해준다. 장사성은 오 지역을 점령한 후, 원(元)대의 현사들과 문사들을 관대하게 예우하였으므로 문인들의 생활이 조금 안정되었다. 진지재(陳沚齋)는 고계시선(高啓詩選)에서 “고계는 장사성을 뜻을 세울 영웅이라 여기고, 그에게 호감이 있었다. 오 지역에 거주한 10년 동안에는 비교적 안정적이고 평온한 생활을 보냈다. (詩人對張士誠這位起義英雄還是有好感的, 詩人在吳的十年中, 過着比較的適意生活)”라고 하였다.[18]고계는「평산 유람기(遊太平山記)」에서 “나와 제군들이 장사성의 힘을 입어서 전원에서 편안히 지내고 아름다운 계절이 오는 것을 누리며, 명산에 올라 둘러보고, 술 한 잔에 취할 수 있으니 그 무엇과 바꾸리(而我與諸君蒙在上者之力, 得安于田里, 撫佳節之來臨, 登名山而眺望, 擧觴一醉. 豈易得哉!).”라고 노래하여 장사성의 덕을 칭송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장사성이 주원장에게 지자 고계는「전쟁이 끝난 후 성곽을 나가서(兵後出郭)」를 지었다. 시에서 “순식간에 나라의 흥망이 달라졌으나 청산은 낙조 속에서도 여전히 푸르다(俯仰興亡異, 靑山落照中).”라고 읊었다. 전쟁에 지고 갑자기 포로로 전락한 장사성의 신세에 대한 통탄과 전쟁이 끝난 후의 노을이 펼쳐진 오현(吳縣)의 평온함이 교차 대비되었다.

명 태조 홍무(洪武) 원년(1368), 고계는 조정에 소환되어 남경(南京)으로 가는 길에「서울로 가는 길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친구를 만나서(赴京道中逢還鄉友)」라는 시에 “고향 사람들에게 안부를 전하려다가 서울의 사정을 먼저 묻노라(欲寄故鄉言, 先詢上京事).”라고 노래하였다. 고향의 안부를 먼저 묻지 않고, 서울 소식이 궁금한 것은 바로 시인의 마음속에 새 왕조 출사에 대한 불안과 의혹이 가득 차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남경에 도착하여 관리가 된 이후 그의 시는 돌연 명나라의 태평세월을 찬양하거나 제왕의 성덕을 칭송하는 내용으로 바뀌었다.[19] 『원사(元史)』의 편찬을 다 마친 고계는 잠시나마 남경에서 편안한 생활을 보낼 수 있었다. 이때 그는 시에 역사를 보존한다(以诗存史)는 생각으로 영사시(詠史詩)를 짓기도 하였다.[20] 이후 고계는 남경에서의 편안한 생활을 하였지만, 마음속에는 안빈낙도를 꿈꾸며 고향으로 돌아갈 적절한 기회만 엿보고 있었다. 이때 고계는 친구인 여요신(余堯臣)과 양기(楊基)가 명에 충성하여 공업을 세우기를 독려하는 시를 짓기도 하였는데,[21] 자신은 오히려 관직을 마다하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 까닭은 무엇이었을까? 장사성이 오 지역에 있었을 때, 고계는 친구의 권유도 듣지 않고 관직에 나아가지 않았다. 그러나 명 태조가 그가 장사성 정권에 부역했던 무리와 친구로서 가까이 지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척하는 것에 대해 늘 불안하였다. 겉으로는 고계는 황제와 돈독한 군신 관계를 유지하였지만, 명 태조의 의중은 심하게 변덕스러웠고, 그를 보는 의심의 눈초리가 날로 매서워진다는 것을 잘 알아서 곧잘 자신

18) 陳沚齋, 『高啓詩選』, 廣東人民出版社, 1985, p.159.

19) 명 정부와 황제를 칭송하는 시로「금릉의 우화대에 올라 큰 강을 바라보며(登金陵雨花臺望大江)」, 「유생에게 보냄(贈劉生)」, 「천전진에 원사를 올리며(奉天殿進元史)」, 「送沈左司從汪參政分省陝西, 汪油御使中丞出」, 「궁궐 속의 눈(禁中雪)」등이 있다. 「금릉의 우화대에 올라 큰 강을 바라보며(登金陵雨花臺望大江)」라는 시는 고계 시의 대표작중의 하나이다. 남경의 우화대에 올라 멀리 장강을 바라보면서 지은 시로, 표현이 눈앞의 경물이 바로 앞에 있는 듯하다. 고계는 이 시에서 주원장이 원말의 군웅들을 물리치고 강남을 통일하여 혼란한 국가를 하루빨리 바로 세워주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나타내었다. 고계의 웅혼한 기상을 볼 수 있는 시이다.

20) 胡翰의 『缶鳴集序』중에 고계의 영사시를 “일이 비록 작은 것이라도, 득실을 따졌으니, 역사가의 징계와 권장을 다 갖추었다.(其事雖微, 可以考得失, 備史氏之所惩勸)”라고 하였다. 고계 자신도 그의 관점에 동의하였다. 賀雯婧「論高啓詩歌觀念及詩歌風格的前後變化」, 湖北民族學院學报, 第 30卷 第 5 期, 2012, p.93. 참조

21) 친구가 영화를 얻기를 바라는 시로「여요신에 답하여(答余新郎)」, 「양기에게 보내며(贈楊榮陽)」를 남겼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심정을 표현한 시로는「가족이 경사에 이른 것을 기뻐하며(喜家人至京)」, 「새벽에 성 동문에 나가 노 젓는 소리 듣고(曉出城東門櫓聲)」, 「정감에 기탁함(寓感)」20수 등을 지었다.

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휩싸였다. 그의「서울의 혹독한 추위(京師苦寒)」라는 시에 “괴석이 얼어 터져서 주름의 흔적이 생겼다(怪石凍裂生皴痕).”라는 표현은 겉으로는 서울의 추위에 대한 과장 표현으로 보이지만 그 속뜻은 작가의 복잡한 불안심리를 나타낸 것이다. 게다가 그는 관리 생활을 하는 중에 궁궐 속에 저질러지는 황제의 음탕함을 풍자하는「화견(畵犬)」,「궁녀도(宮女圖)」라는 시를 지어 주원장의 노여움을 크게 샀다.[22] 고계는 이 시에서 직접적인 비판의 본색을 피하고자 시어 속에 뜻을 숨기는(言外之意) 전고의 기교로 풍자시를 지었다. 그러나 이를 눈치챈 주원장은 그를 더욱 미워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그의 죽음을 재촉한 원인이 되었다.

홍무(洪武) 3년(1370), 35세 때 고계는 사직하고 오현으로 돌아와서야 자유로움과 평안함을 느낄 수 있었다. 이때부터 그는 다양한 시체의 시를 선보이며 시 창작의 전성기를 보낸다. 특히 중국 강남 수향(水鄕)의 풍경과 풍습, 명승고적, 역사 인물, 민간의 일상 등을 읊은 전원시가 두드러지게 많이 보인다. 그는 전원시를 짓는데 자유로운 형식과 구어체에 가까운 악부체(樂府體)와 가행체(歌行體)를 사용하였다. 이는 시인이 고향에서 농촌 생활의 경험과 가난한 농민들의 일상 생활상을 꾸밈없이 잘 묘사하는데 가장 적합하면서 잘 할 수 있는 시체를 선택하였기 때문이다.[23] 전중련(錢仲聯)『명청시정서(明淸詩精選)』에서 “고계가 호부시랑으로 발탁되었으나 그는 사절하고 고향으로 돌아온 뒤, 시구가 서정적으로 변화하였다. (高啓于壯年擢戶部侍郎時, 辭官不就, 放還, 正與詩句抒發的情緒合由)”라고 하였다.[24] 그는 고향으로 돌아와서는 안도하고 자신의 흥취를 충분히 드러내고 내면의 감정에도 충실하여 진정성 넘친 시풍의 시를 마음껏 지을 수 있었다.

(2) 출중한 시적 재능으로 시체의 다양성을 추구하였다.

고계는 일생 이천여 수의 시를 지었다. 청(淸) 김단(金壇)의『고청구집(高靑邱集)』에 악부 180수, 오언고시 368수, 칠언고시 134수, 장단구 37수, 오언율시 284수, 연구 6수, 육언율시 5수, 칠언율시 221수, 오언절구 188수, 육언절구 7수, 칠언절구 321수 등이 있다. 고계의 시체에 대한 후대의 평가는 그가 모든 시체를 잘 지었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청(淸) 왕사진(王士禛)은『고시선(古詩選)』에서 “명대에는 많은 작가가 있었다. 칠언장구는 명대 초기 작가인 고계와 장지도, 유자고가 가장 뛰어났다(有明一代, 作者衆多. 七言長句, 在明初則高啓季迪, 張志道(以寧)、劉子高(崧)爲最).”라고 하였고,[25] 조익은『구북시화』에서 “고계는 오언고시와 오언율시는 한·위·육조 및 초·성당의 풍격을 환골탈태하였고, 칠언고시와 칠언율시는 중당을 참고하였으며, 칠언절구는 만당을 쫓아갔다. 그는 재능이 출중한 인재로, 당시를 학습했지만, 당시에 구속되지 않았다(五古五律. 則脫胎於漢魏六朝及盛唐; 七古七律則參以中唐; 七絶並及晩唐, 要其英爽絶人, 故學唐而不爲唐所囿).”라고 평가하였다.[26] 조익의 평가로 보자면 고계가 고전 시에 대한 배움의 자세가 단순한 시의 표절과 답습의 수준이 아닌 새로운 창작이었음을 강조하여 말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2)「화견(畵犬)」에서는 “옥 계단을 향해 사람 그림자를 보고 짓지 말라, 화려한 수레가 한밤중에 깊숙한 궁전을 나선다(莫向瑤階吠人影, 羊車半夜出深宮.)”「궁녀도(宮女圖)」에서는 “작은 개가 꽃 너머 공연히 그림자를 보고 짖고, 밤이 깊은데 황궁에는 누가 오는 것일까?(小犬隔花空吠影, 夜深宮禁有誰来?) ”라는 시구가 모두 명 황제를 풍자하는 내용이다.

23) 고계의 전원시에 대한 자세한 특징과 분석은 崔雄赫의「高啓의 詩論과 그의 田園詩」, 中國語文學 第39輯에 잘 나타난다.

24) 李聖華,『高啓詩選』, 北京, 中華書局. p.30. 재인용

25) 王士禛,『古詩選』, 廣文書局, 1962.

26) 趙翼,『趙翼全集』卷三,「甌北詩話」, 南京, 鳳凰出版社. 2009, p.1274.

고계의 시는 다양한 내용으로 여러 가지 시체로 나타나는데, 바로 '일에 따라 모의(隨事摹擬)'하여 시인의 뛰어난 예술적 영감이 작동된 독특한 풍격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주이존(朱彝尊)이 『고청구집·부록(高靑邱集·附錄)』에서 "고계의 재주는 아우름에서 시작하여 그 시체가 모든 것을 겸비하였다(季迪之才, 始于兼, 故其體備.)"라고 하였다. 또 명(明) 왕세정(王世貞)은 『예원치언(藝苑巵言)』에서 고계의 시에 대해 시적인 재능이 뛰어나고 아름다운 성정 표현에서 "고계를 뛰어넘을 자는 없다. (才情之美, 無過高季迪)"라고 하였다. 또 시의 풍격이 "재빠른 송골매가 날아오르듯이 빠르고, 천리마가 박차고 달리는 듯하다. 아름답기는 붉게 물든 태양 빛의 노을 같고, 가을의 맑은 물 위의 부용과 연꽃 같다(快若迅鶻乘飛, 良驥躡景. 麗若太陽照霞, 秋水芙蕖.)"라고 칭찬하였다.[27] 명대 복고 시풍을 적극적으로 주도했던 왕세정의 고계에 대한 평가가 극찬으로 이어진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앞의 평가는 시대의 기풍을 떠나 독자적인 시의 영역에서 고계 시가의 시적 정수(精髓)와 예술적 미학의 높은 가치를 최고로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고계라는 시인의 타고난 재능과 담대한 식견이 제대로 발휘된 시들이 얼마나 고상한 품격을 지녔으며 시의 표현이 변화무쌍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다.[28]

(3) 고전 시를 학습하여 모든 시체에 능하였다.

고계는 이상적인 시를 잘 짓기 위해 고전 시의 뛰어난 점을 본받아 이전 시의 작시 기법과 풍격을 충실히 배워서 시 창작에 활용하였다.[29] 조익은 또한 고계는 이백의 속세를 초탈한 고아한 흥취(高逸之致)를 배웠고, 두보의 언어와 필력의 굳셈(骨堅力勁)을 배웠고, 한유의 느슨함이 없는 필치(無一懈筆) 등을 배웠다고 하였고 이외 백거이와 이상은 황정견과 같은 시를 배웠다고 하였다. 그에게 고전학습은 이전의 것에 대한 모방과 표절이 아니라 좋은 시의 여러 가지 장점을 배워 새로운 구상으로 독창성을 갖춘 시 짓기를 의미한다. 이는 바로 두보의 시「戱爲六節句·其六」에서 "요즘 사람 옛사람에 못 미치는 걸 의심 말고, 서로 배우고 옛사람 따르기 앞뒤 가릴 필요 없네. 거짓된 시체를 떼 내고 시경의 풍아를 가까이하면, 옛사람 하나하나 모두 너의 스승 되리라(未及前賢更勿疑, 遞相祖述復先誰. 別裁僞體親風雅, 轉益多師是汝師.)"와 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이전 시대 시가의 체재와 내용이 시대마다 각기 다른 특색이 있으므로 후세 시인들이 학습과 계승으로 양기(揚棄)와 창신(創新)할 것을 말한 것이다.

청(淸) 김단(金壇)은 고계의 시가 "뭇 시인의 여러 장점을 다 갖추어 대담하여 치우침이 없다(兼全衆長,有大方而無偏執)."라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평은 바로 고계의 시가 문학의 수용(受容)과 변신(變新)이라는 원칙에서 시에 대한 지평을 넓혀갔음을 말한 것이다. 또 시인들의 전대 시인들의 작품

27) 王世貞,『藝苑巵言)』卷六 , 鳳凰出版社. 2009,

28) 고계의 대담한 식견은 그의 박학다식함에서 기인한다. 명조 관리가 되어서도 원대의 인물들을 기탄없이 시 속에 끌어오기도 하였다. 고계는「전 국자감 왕조교가 임천으로 돌아가는 것을 전송하며(送前國子王助敎歸臨川)」에서 인생에 대한 비애를 노래했고「역사를 읽고(讀史)」와「형가를 노래함(詠荊軻)」에서는 그의 남다른 역사관을 보여주었으며,「진수주를 전송하며(送陳秀州)」라는 시와「여신랑에게 답하여(答余新郎)」에서는 어지러운 사회와 민생의 고통, 지식인들의 심적 방황을 드러냈다. 주이존(朱彝尊)이『고청구집부록(高靑邱集附錄)』에서 "고계의 재주는 아우름에서 시작하여 그 시체가 모든 것을 다 겸비하였다(季迪之才, 始于兼, 故其體備)."라고 한 ' 바처럼 고계는 먼저 모든 시인을 스승으로 삼아 그들의 장점을 학습하여 취사와 선택을 통한 수용으로 자신만의 독특한 새로운 시각을 나타낼 창작의 변화를 꾀하였다.

29) 고계는 당·송대 시인 중 이백의 속세를 초탈한 고아한 흥취(高逸之致)를 배웠고, 두보의 언어와 필력의 굳셈(骨堅力勁)을 배웠고, 한유의 느슨함이 없는 필치(無一懈筆) 등을 배웠다. 이외 백거이와 이상은, 황정견 등의 시를 배웠다고 하였다. 趙翼,『趙翼全集』三,「甌北詩話」, 南京, 鳳凰出版社. pp.1274-1275. 참조

에 대한 광범위한 학습은 작가 자신의 개성과 정신적 세계에 더 많은 예술적 영감과 구상에 활기찬 생명력이 되어 새로운 시 세계를 이루는데 가장 바탕이 되는 것임에 인식을 함께 한 것이라 할 수 있다.[30]같은 시대의 조익도 『구북시화』에서 고계는 당시를 받들고 학습하면서도 당시의 형식과 표현에 얽매이지는 않았으나, 명대 중기에 복고를 지향한 이몽양(李夢陽), 하경명(何景明) 등이 당시를 본받으며 정신과 이치가 없이 외관의 치장에만 힘썼다고 평하였다.[31] 이러한 평가를 보면 당음(唐音)을 높이 받든 명대 시인들이 당대 시가의 외적인 부분에만 배우고 힘써서 당시를 흉내 낸 작품만 지었고, 고계는 이들에 비해 당시의 배운 바를 바탕으로 독자적인 성정으로 창의성을 발휘하여 창신(創新)한 시를 썼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고계의 이전 시에 학습에 대해서 후세의 평론가들은 한결같이 고계는 모든 시인의 장점을 다 배워서(兼師衆長), 그들의 장점을 다 갖추었고(兼全衆長), 그의 모든 시체가 훌륭함을 갖추게 되었다(衆體兼長)고 평가하였다.[32] 최웅혁(崔雄赫)은 앞의 논문「高啓의 詩論과 그의 田園詩」에서 '겸사중장(兼師衆長)'을 '학시의 과정에서 지켜야 할 하나의 준칙'으로 보았다.[33] 그러나 이러한 의견은 글자의 의미 분석으로만 본 것으로, 오히려 이는 고계의 전체 시에 관통하는 창작론 혹은 창작방법론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고계는 시의 세 가지 요체를 분명히 제시하였고, 배움과 창작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을 막고 균형을 유지하려면 옛 시인들의 훌륭한 면을 골고루 배워야 한다고 하였다. 시인은 시를 지을 때 언어의 진부하고 상투적인 무미건조함을 벗어나서 새로운 경지를 찾으려 할 때 고전 시를 읽고 배우게 된다. 고계에게 고전 시의 학습은 '학시 과정의 준칙'을 벗어나 시 창작활동의 기본 원칙이자 길라잡이의 역할로 보인다. 또 고인을 학습하면서 고인의 틀을 벗어나서 창조적 상상력을 동원한 창신과 변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창작의 원칙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그 스스로 말한 '시의 묘미가 모이지 않으면 내보일 것 없는 평범함으로 뛰어난 기풍이 사라진다(妙不臻則流于近凡, 而超俗之風微)'와 '일에 따라서 모의한다(隨事模擬)'에서 고계의 시 창작 태도가 분명히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고계는 요절로 인하여 그의 시 창작론과 시 정신을 온전히 남기지 못하여 '학고(學古)'를 바탕으로 '변고(變古)'와 '창신(創新)'으로 가는 새로운 시 세계를 열어갈 충분한 시간이 없었던 점은 아쉽다. 그러나 그의 시가 명이라는 새로운 시대에 시에 복고를 입히는 새로운 기준과 기틀이 탄탄하게 준비되는데 힘이 되었다. 고계가 '의고(擬古)주의'에 입각하여 시를 창작한 것은 사실이다. 그의 시를 '의고시(擬古詩)'라고 이름하더라도 이전의 시와 다른 새로운 면의 발견과 분석이 이루어진다면, 시사상 또 다른 하나의 깃발을 꽂을 여지는 충분히 열려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사고전서총목』에서는 고계의 시를 다음과 같이 요약 평가하였다.

> 시에 있어서 한·위를 모의하면 한·위와 같았고, 육조를 모의하면 육조와 같았고, 당을 모의하면 당과 같았고, 송을 모방하면 송과 같았다. 무릇 옛사람의 뛰어난 점을 다 겸하였다. 원말의 섬세하고 번거로우며 지나치게 화려한 면을 떨쳐내고 옛날로 되돌리는데 고계는 실로 큰 힘을 발휘하였다. 그러나 세

30) 고계는 시를 배우면서 이백의 표일(飄逸), 두보의 침울(沈鬱), 한유의 개활(開闊), 유종원의 간결(簡潔) 등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배운 범위가 시경(詩經)에서부터 초사(楚辭)에 이르기까지, 한·위고체(漢魏古體)에서부터 당·송시, 서곤체(西崑體)까지 이른다. 그의 시는 널리 옛것을 배우면서도 범속함으로 흘러가지 않아서 여러 고전 시체의 장점을 전승하면서 시인 자신만의 독특한 풍격을 이루었다. 余登保,「論高啓詩家的藝術風貌」, 2010, 內江師範學院學報, 第25卷, 第9期, p.46.

31) 趙翼,『趙翼全集』三,「甌北詩話」, 南京, 鳳凰出版社. p.1274.

32) 游國恩等著『中國文學史』, 人民文學出版社 1964 2, p.898.

33) 崔雄赫,「高啓의 詩論과 그의 田園詩」, 中國語文學, 第39集, p.337.

상을 산 기간이 너무 짧아서 너무 일찍 요절하여 기틀을 세우고 변화시켜 스스로 일가를 이루지 못하였다. 고로 옛사람의 풍격은 갖추었으나 고계의 풍격이 무엇이라고 이름하기는 부족하다. 이는 곧 하늘이 그렇게 정한 것으로 그의 잘못이 아니다. 다만 그가 옛 곡조를 모방하는 가운데 저절로 정신과 의상이 스며들어 있다.(其於詩, 擬漢魏似漢魏, 擬六朝似六朝, 擬唐似唐, 擬宋似宋. 凡古人之所長, 無不兼之. 振元末纖穠綢麗之習而返之於古, 啓實爲有力, 然行世太早, 殖折太速, 未能鎔鑄變化, 自爲一家, 故備有古人之格, 而反不能名啓爲何格, 此則天實限之,非啓過也, 特其纂仿古調之中, 自有精神意象存乎其間.)[34]

위의 평가에서도 비록 고계가 짧은 생으로 인해 시의 대가는 될 수 없었으나, 그는 '의고'의 시풍 가운데 작가의 고유한 정신(精神)과 의상(意象)을 충분히 창출해내었음을 평가한 것이다. 바로 고계가 고인의 시를 학습하고 고인의 유산을 계승하는 속에서 스스로 새롭고 고유한 시 정신과 독창적인 시의(詩意)를 개발하는데 적극적이었다는 창작 태도에 긍정적인 평가를 한 것이다.

(4) 진실한 감정표현으로 서정성이 돋보인다.

문학에 진실한 감정의 중요성은 오래전부터 있었다. 인간은 시대와 자연환경의 영향 속에 각자의 인생을 경험하게 되므로 창작을 통해 나타나는 시인의 감정은 각자의 다른 개성으로 드러나고 작품의 풍격도 달라진다. 고계는 시의 요체 중 세 번째에 '흥취'를 두었다. 이는 시인의 진실한 감정과 자아의 개성을 예술적 작품으로 표현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흥취가 발해야 작가의 상상력으로 이어져 생동한 예술 형상을 창조할 수 있다. 고계의 시는 평범한 일상의 시재(詩材)를 흥취가 촉발되는 심리적인 활동을 통해 다양한 서정성을 확보하였다. 그러므로 그의 시에서는 정형미와 함축미보다는 자연미와 평이함이 훨씬 더 많이 느껴진다. 고계가 직접 경험한 인생의 비애와 꽃 파는 사람의 노고를 간접 경험한 시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를 통해 작가의 예술적 사유가 어떠한 예술적 형상으로 드러나는지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꽃을 보니 죽은 딸 서를 생각하네(見花憶亡女書)」는 전쟁 중에 죽은 딸을 생각하며 아비의 절절한 슬픔을 토로하였다.

둘째 딸 서(書)가 너무 어여뻐서,
품에 안고 과자 먹는 것을 바라보고,
아침에 일어나 언니의 화장을 배우고,
예쁜 비단을 좋아하는 줄 알았지만,
안타깝게도 나는 오래전 세상 뜻을 잃었고,
저녁에 귀가하여 반갑게 맞는 둘째를 보면,
둘째가 몹쓸 병에 걸려도 어찌하지 못하니,
갑자기 숨을 거두었다는 놀란 소식 들리고,
황급히 하찮은 관이나마 마련하여,
망망한 천지에서 그 아이 찾을 수 없고,
그런데 지난해 봄을 생각해 보면,
둘째는 내 손을 잡고 나무 밑을 거닐며,
올해에도 꽃은 다시 아름답게 피었으나,
여섯 살이 되어도 안아주었네.
무릎 위에 앉혀 시 낭송을 가르쳤다.
떼를 쓰고 경대 앞에 가서 들여다보았다.
집이 가난하여 만들어 입히지 못하였다.
눈과 비 오는 갈림길에서 헤매었다.
그때마다 근심은 기쁨으로 바뀌었다.
마침 다시 사변이 일어나던 때였다.
약과 음식은 제대로 먹여보지도 못하였다.
통곡하며 멀리 산비탈에 묻고 말았다.
생각하면 할수록 마음만 쓰라리다.
정든 뜰과 연못에 꽃이 만발하였지.
나에게 예쁜 꽃가지 따달라고 하였다.
나는 멀리 떨어진 강변에 거처하고 있다.

34) 『四庫全書總目提要』, 中華書局 1965年 影印本 p.1471.

온 가족 중 너 홀로 죽고 없으니, 꽃을 보아도 눈물만 공연히 흐른다.
술 한잔을 들어도 위로가 되지 않는데, 황혼 녘 장막에 바람 불어 처량하구나.

中女我所憐, 六歲自抱持　　懷中看哺果, 膝上教誦詩
晨起學妹妝, 鏡台強臨窺　　稍知愛羅綺, 家貧未能爲
嗟我久失意, 雨雪走路岐　　暮歸見歡迎, 憂懷每成怡
如何属疾朝, 復値事變時　　聞驚遽沈殞, 藥餌不得施
倉皇具薄棺, 哭送向遠陂　　茫茫已難尋, 測測猶苦悲
却思去年春, 花開舊園池　　牽我樹下行, 令我折好枝
今年花復開, 客居遠江湄　　家全爾獨歿, 看花淚空垂
一觴不自慰, 夕幔風凄其

이 시는 고계가 누강에 거처할 때, 전쟁 중에 죽은 딸인 서(書)와 함께 지냈던 평범한 일을 회상하고, 딸의 죽음을 기리는 애도시(哀悼詩)이다. 중국 시에서 죽은 배우자를 그리워하며 짓는 도망시(悼亡詩)는 많은 편이지만, 죽은 자녀를 애도하는 시는 그리 흔하게 보이지 않는다. 명군(明軍)이 장사성이 점령해 있던 소주성(蘇州城)을 포위하여 공격할 때(1367년), 고계는 딸이 병으로 죽자 시를 지어서 아버지로서의 지극한 정과 자식 잃은 슬픔을 드러내었다.[35] 시의 처음은 딸의 어린 시절을 회상하는 순간, 그녀의 일상이 먼저 나타난다. 이후로 험난한 세상에서 출세할 뜻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던 시인의 황망함 - 전쟁터 속에서 빈곤하여 제대로 치료하지 못해 병사한 딸을 보는 애절함 - 아름다운 꽃을 보며 놀던 딸의 즐거움 - 눈물과 술로도 달래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는 외로움 등의 감정이 층층이 표현되었다. 시어 중 '작년의 봄(去年春)'과 '올해의 꽃(今年花)'이라는 시간의 대조는 시의 분위기 전환과 시인의 감정 굴곡을 한층 더 선명하게 보여준다. 한 잔의 술의 고독과 저녁 황혼의 처량한 마음에서 "가슴속의 모든 것을 다 쏟아낸(自云胸懷)," 작품이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시로 오언율시「딸을 애도하며(悼女)」라는 시에서도 비애에 젖은 작가의 정취를 느낄 수 있다.

고계의「꽃을 파는 사람의 노래(賣花詞)」에서는 꽃 파는 사람의 수고와 비애를 노래하고 있다.

푸른 화분의 작은 나무는 가지들이 잘 자라나서, 다른 사람의 화분 보다 일찍 꽃이 피었네.
거리마다 봄바람 싣고 꽃을 지고 다니니, 미인이 꽃 판다는 소리를 듣고 주렴을 걷어 나와보네.
옮겨 심으면 꽃이 살지 않을까 근심 거두기를, 꽃을 팔면서 꽃 재배 비결도 함께 알려주니.
온 거리에 향기 가득 남고 날 저물어 돌아가는데, 벌과 나비가 서로 날아와서 내 뒤를 따라오네.
부잣집에서 사지는 않고 몇 번이나 다시 고르니, 차라리 등에 그대로 짊어졌더라면 꽃이 오래갈 텐데.
綠盆小樹枝枝好, 花比人家別開早.
陌頭擔得春風行, 美人出簾聞叫聲.
移去莫愁花不活, 賣與還傳種花訣.
餘香滿路日暮歸, 猶有蜂蝶相隨飛.
買花朱門幾回改, 不如擔上花長在.

이 시는 민간 일상생활의 소재를 시에 들여와 강남의 정조가 그대로 묻어난다. 꽃 파는 사람이

35) 고계의「見花憶亡女書」의 영향을 받아서 귀유광(貴有光)은「한화장지(寒花葬志)」라는 산문집을 지었다. 귀유광은 이 자신의 시첩(侍妾)이던 한화의 죽음을 기렸고 고계 시의 구성과 필법을 본받았다. 凌雨.「論高啓詩歌的藝術特徵」, 三明學院學報, 第37卷, 第3期, p35

골목마다 꽃향기를 남기고, 꽃을 파는 소리에 아름다운 여인들이 나와서 구경하는 정취가 경쾌하고 한적한 농촌의 모습을 연상시킨다. 고계는 대부분의 생애를 고향에서 은거하며 보낸다. 대자연과의 친밀감 속에서 작가의 서정성은 고스란히 창작으로 연결되었다. 꽃 파는 사람의 꽃에 대한 정성과 사랑은 꽃 재배의 비결을 알려주는 시구에서 절정을 달하고, 마지막 구에서는 꽃 구경만 하고 팔아주지 않는 부자들의 용심으로 꽃의 생명만 앞당긴 셈이 되어버려 원망과 체념이 모두 느껴진다. 고계는 일반인들의 소박한 생활 정경을 실감 나게 묘사하는데 뛰어났다. 특히 이 시는 풍부한 감정을 자유로운 형식에 담은 한·위 악부의 전통과 현실적인 소재가 많았던 원·백의 신악부의 장점이 모두 잘 살아있다고 할 수 있다.

3. 고계 시의 평가와 명대 시학의 추향

중국 시사(詩史)에서 원대의 시는 당·송의 시에 비해 창작 수준이 비교적 뒤떨어진다고 인식되었다. 원대는 남송의 유민(遺民)과 원호문(元好問) 등이 종당득고(宗唐得古)의 시풍을 추동하였고, 말기에 이르러서는 시가 더 이상 출세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일상적인 일로 취급되면서 많은 시인이 나오게 되었다. 이는 원말의 세태가 군웅들의 할거로 사회는 불안정하였으나, 문사들에 대해서는 호의적인 태도로 생계 걱정이 없이 시작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기에 예찬(倪瓚), 양유정(楊維정), 고계(高啓), 유기(劉基) 등의 시인이 나와서 주동적으로 명 초기의 시풍을 개척하고 시의 경계를 확장해 갔다. 그 중, 가장 활발하게 열정적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시 창작에 뛰어든 시인은 고계였다. 명을 세운 주원장이 문자옥(文子獄)을 자주 일으켜 문인들에 대한 탄압이 심해지자 시인들은 자유로운 창작활동을 포기하고 태평성대를 이룬 황제의 공덕을 기리고 칭송하는 '대각체(臺閣體)'를 유행시켰다. 명 중기에는 전·후칠자(前·後七子)의 등장으로 과장되고 화려한 문풍은 점차 사라지고 이전의 시를 적극적으로 본받고 모방하는 복고경향의 시풍이 한 시대를 풍미하였다.

고계의 시는 대체로 수사와 형식에 치우치지 않고 진솔 담백한 평이함으로 시인의 내면세계와 내용 전달이 중점이었다. 솔직하고 평범하고 쉬운 언어로 창작된 시가는 단조롭고 지루해지기 쉬운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시의 형식과 구상에도 여러 가지 장치를 만들었고, 역사적인 사건 및 상황의 서술에 개인적인 생각이 조화롭게 녹아들어서 시상이 신선하면서도 심오하였다.

1) 시에 대한 평가

고계는 명대 제일의 시인으로 평가받았기에, 중국 시사(詩史)상 지위도 크게 높았음을 알 수 있다. 후대의 그의 시에 대한 평가가 어떠하였는가를 살펴보아 그의 시의 가치와 특징을 규명해 볼 것이다.

「사고전서제요(四庫全書提要)」에서는 고계의 시를 "옛 곡조를 모방하는 가운데 저절로 시의 정신과 의상이 시의 사이사이에 스며들어 있다(特其模倣古調之中, 自有精神意象存乎其間)"라고 평하였다. 명대 장욱(張旭)은 고계의 시를 "시는 당인을 모범으로 삼아서 이백의 시의를 지극히 하였고, 대가들의 시의도 좇았다(詩始以唐人爲法,極意太白而縱意諸家)."[36]라고 하였다. 여면(吕勉)은 "시의 고고

함은 위·진의 기풍이고, 충담함은 위응물과 유종원, 온화함은 고적(高適)과 잠참(岑參), 자유로움은 왕유와 맹교, 진실함은 원진과 백거이와 같다(詩之高古類魏晉, 沖澹如韋柳, 和暢如高岑, 放適如王孟, 質直如元白屬意).”[37]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평가는 모두 고계가 이전의 시에 대한 학습으로 얻은 풍격에 대한 모방을 중심으로 한 것이다. 그들의 평가는 고계가 한·위·진·당의 시풍을 모두 학습하였고, 특히 당시의 풍격과 이백의 시를 추종하여 시를 따라 지었고, 그 외 시대를 불문하고 대가들의 뛰어난 풍격을 모두 받아들였으므로 그야말로 고계는 모든 시체를 다 갖춘 시인이었음을 시사한다.

조익은 “오직 고계가 재기가 뛰어나고 음절은 맑게 울리고, 당인의 시를 배웠으나 새로운 뜻을 펼쳐내었다. 한번 붓을 들면 크고 밝은 기상이 발휘되어 명대의 문운과 관련되어 있으니, 논자들이 그를 개국 시인의 제일이라고 추앙하니 실로 헛된 말이 아니다(惟高靑丘才氣超邁, 音節響亮, 宗派唐人, 而自出新意, 一涉筆則有博大昌明氣象, 亦關有明一代文運, 論者推爲開國詩人第一, 信不虛也).”[38]라고 하였다. 그리고 고계의 시만이 “오직 시의 경계에서 꼭 알맞은 경지를 얻었다(惟靑邱適得詩境中恰好之步).”라고 평가하였다. 앞선 평가에서는 모두 고계의 ‘이전의 시 모방’을 강조하여 평가했다면, 조익은 이와 다른 평가를 보인다. 조익은 고계가 천부적으로 타고난 시적 재능이 대단하다고 여기고, 바로 그 재주와 기질로 그의 시는 맑고 우아하였다고 한 것이다. 시를 잘 짓기 위해 배운 옛 시 중 당시(唐詩)를 모사했으나, 당시에는 없는 자신만의 독특한 새로운 뜻(新意)을 나타내어서 시가 흥(興)에 딱 들어맞는다고 평가한 것이다. 이로 고계가 옛 시를 배우고 모사하는 차원을 넘어, 새로운 창작의 길로 나아가서 독자적인 풍격을 창출할 수 있었음을 인정한 것이다. 시 비평에서 시가의 ‘창신(創新)’을 가장 중시하고 기준점으로 삼았던 조익은 고계의 시를 “시의 경계에 꼭 들어맞는 경지(詩境中恰好之步)”에 이르렀다고 평하였다. 고계의 시 중「서성문에 올라(登西城門)」의 “병탄이 언제 그치려나, 수많은 목숨을 한 치의 땅과 바꾼다(併呑何時休, 白骨易寸土.)”와「매를 그린 그림에 제하여(題畵鷹得嘯字)」의 “오래된 힘줄이 노쇠한 뼈를 동여매고, 차가운 날씨에 기세는 더욱 등등하다(秋筋束老骨, 天寒勢逾矯.)”,「태호(太湖)」의 “윙윙 소리 내며 부니 땅이 뜰 것 같고, 기세 좋게 치니 산이 무너질 듯하다(聲吹地將浮, 勢擊山欲壞.)”를 고계의 가장 핵심적인 시구로 지목하고, 이러한 시를 읽으면 마음과 혼이 요동치는 느낌을 받아 큰 감동을 얻을 수 있다고 하였다.[39] 조익이 고계 시의 ‘창신’을 높이 평가한 점은 조익이『구북시화』에서 각 시대를 대표하는 시인 10명 중 고계를 명대를 대표하는 시인의 자리에 배치한 것에서도 알 수 있는 바이다. 그리고 고계의 시가 “명대의 문운과 관련이 있다(關有明一代文運.)”라고 한 것에서 명대 시학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위치에 있었던 주요 시인으로 고계를 높였음을 알 수 있다. 조익은 시화에서 고계의 시의 좋은 점을 충분히 내보인 후, 시의 폐단도 지적하였다. “고계의 시에는 구절이 중복되어 나오는 경우가 있다(靑邱詩亦有複句)”라고 하고. 매화 9수 중의 제1수의 시구가 다시 제5수에 시의 격조(格調)와 운미(韻味)가 반복 사용되었음을 비판하였다.[40]

---

36) 張旭『吳中人物志』, 券7, 臺北, 學生出版社, 1969, p.239
37) 高啓『高靑丘集』, 附錄,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5, p.997
38) 趙翼,『趙翼全集』三,「甌北詩話」卷8, 南京, 鳳凰出版社. 2009. p.1274.
39) 趙翼,『趙翼全集』三,「甌北詩話」卷8, 南京, 鳳凰出版社, 2009. p.1276.
40) 조익은『구북시화』에서 고계의 시구가 반복적으로 사용된 것을 그의 시를 예로 들어 지적하였다.「매화·9수」중 제1수의 “눈 덮인 산속에 고상한 선비가 누워있고, 달빛 비추는 숲 아래에서 미인이 나온다(雪滿山中高士臥, 月明林下美人來.)”라는 아름다운 구가 제5수에서 “푸른 소매 옷을 입은 가인이 대나무 밑에 기대어 있고, 하얀 옷을 입은 재상이 산속에 산다(翠袖佳人依竹下, 白衣宰相住山中.)”라고 하였으니 이는 말의 중복은 아니라 하더라도 시의 격조와 운치가 중복된 것이라고 하였다. 趙翼,『趙翼全集』三,「甌北詩話」卷8, 南京, 鳳凰出版社, 2009. p.1277.

왕부지(王夫之)는『명시평선(明詩評選)』에서 고계의 시에 대한 세부적 관찰을 통해 시풍과 기세를 살폈다. 특히 악부시와 고시, 율시 등에 대한 시의 장단점을 서술하였다. 왕부지는 고계의 악부시에 대해 “팔백여 년 동안 쇠락했던 악부를 부흥시켰다(季迪樂府起八百餘年之衰)”라고 하였고,[41]「단가행(短歌行)」이라는 시를 평가하여 “기세가 조조(曹操)와 비견되고, 패기도 뒤지지 않는다. 당 이후 악부가 보이지 않았는데, 천년 만에 고계가 나타났으니, 악부가 없어졌다고 누가 말할 것인가(氣勢在曹瞞之右, 沉勇亦不下之. 唐以來不見樂府久矣, 千年而得季迪, 孰謂樂乐亡哉)!”라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그의 견해는 고계가 악부의 전통을 제대로 이어받은 진정한 작가로, 조조가 강한 포부로 읊은「단가행(短歌行)」의 “천하의 마음을 얻고자 한다(天下歸心))”와 같은 강하고 굳센 기세에 비견된다고 하였다. 당 이후 악부시의 전통을 이은 진정한 시가 없었는데, 고계가 악부의 옛 제목과 사건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짧고 허무한 인생을 노래함으로 그 진면모를 찾았으니, 이는 송·원대의 악부에는 보이지 않았다. 또 고계는 이전의 것을 계승도 잘 하였지만, 새로운 모습으로 변환을 시도한 시도 지었다. 그 예로『수 자리 하러 떠난 남편을 둔 부인의 원망(征妇怨)』이라는 시는 원래는 변방으로 떠난 남편을 그리는 부인의 그리움이 주된 내용이었으나 그는 오히려 흉노족에 의해 전몰한 한나라 군사의 시신을 거둘 사람도 없어서 그들의 혼을 불러들인다(紙幡剪得招魂鬼去)는 내용으로 바꾸어서 전쟁의 참상에 대한 고통과 비애를 묘사하였다.

왕부지는 고계의 오언고시가 고시의 전통을 가장 잘 갖추었다고 평가하였다. 왕부지는 “고계가 창작한「버들개지(柳絮)」를 시인이 진정한 재주꾼이고 참된 시인이어서 현란함에 빠져들지 않았다(眞才子, 眞詩人必不入絢爛)”라고 하였고, 또 “「은사(隱士)에게 보냄(贈竹里子)」은 지극히 고요하고 담박하여(静極澹極), 진정한 고시로다(岂非真古诗)!”라고 하여 고시의 자유로운 형식과 평이한 표현이 시 속에 그대로 체현되었다고 평가하였다. 두 시는 모두 시의 운율이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그 어디에도 구속되지 않는 성정의 표현으로 오묘한 시미(試味)를 맛볼 수 있다. 이에 왕부지가 고계의 시가 작가의 담담한 시적 정취가 잘 드러나므로 ‘진고시(眞古詩)’라고 평가한 것이다. 또 왕부지는 고계의 오언율시를 “정신이 뛰어난 작품(神品)”이라고 극찬하기도 하였다. 그 이유는 왕부지는 오언고시라면 당연히 격앙된 감정이 없이 아정하고 부드러우며, 번잡하지 않고 질박한 품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여기고 이를 오언시 품평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고계의 오언시가 시인의 진실한 감정이 자연스럽게 잘 드러나서 왕부지가 중시한 ‘시의 성정 표현(詩道性情)’과도 잘 부합된 까닭이다.

한편 왕부지는 고계의 시「매화(梅花)」에서 “눈으로 덮인 산중에 현사가 누워있고, 달 밝은 숲 아래로 미인이 오는구나(雪滿山中高士卧, 月明林下美人來.)”의 시구를 가리켜서 “졸렬한 시(惡詩)”라고 평가하였다.[42] 왕부지는 영물시를 지을 때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감정을 놓치지 않고 바로 시로 나타내는 것을 중시하였는데, 고계의 영물시는 그가 주장한 “즉각적인 흥취인 직감(現量)”과 “사물에 닿자 정이 통한다(即物達情),”라는 시론에 맞지 않다고 여긴 까닭이다.

매화 9수 중 첫 번째

백옥 같은 자태는 요대에 있어야 맞건만, 누가 강남땅 곳곳에 심어놓았는가?
눈 덮인 산속에 고상한 선비가 누워있고, 달 밝은 숲 아래로 미인이 오는구나.
추위 속에 맑은 그림자 대나무에 의지하고, 봄날에 향긋한 꽃잎이 이끼 위에 내려앉았네.

41) 王夫之,『明诗评选』,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11
42) 李佳佳,「論王夫之『明詩評選』評高啓詩歌」, 衡阳师范学院学报 (社会科学, 2021. pp.29-30.

하손(何遜)[43]이 떠난 뒤로 아름다운 노래 끊겨, 봄바람 속에 슬픔에 젖으니 매화는 몇 번이나 피려는지.

梅花九首 (其一)

瓊姿只合在瑤臺. 誰向江南處處栽.
雪滿山中高士臥, 月明林下美人來.
寒依疎影蕭蕭竹, 春掩殘香漠漠苔.
自去何郎無好詠, 東風愁寂幾回開.

이 시는 매화를 주제로 한 연작시 중 그 첫 번째로, 고계의 영물시(詠物詩)를 대표하는 시이다. 시인은 매화의 고결하고 아름다운 자태를 통해 자신의 고결하고 맑은 정신을 표현하였다. 이 시는 사물에 대한 즉흥적인 감정을 그대로 물상에 이입한 것이 아니라 전고(典故)[44]의 수법으로 시인의 주관적인 상상력을 동원하여 창작한 것이다. 위에서 제시한 왕부지의 비판은 시구가 눈앞의 경물에 대한 즉흥적인 감흥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는 평가자의 주관이 작용한 것이다. 이에 반해 조익은 고계의 시가 "전고를 적절하게 사용하고 자구를 자연스럽게 다듬어, 신비롭고 고상한 운치가 높아지고 밝아짐에 힘을 쏟았다(蓋其用力全在使事典切, 琢句渾聲, 而神韻又極高朗.)"라고 하였으니, 왕부지의 지적과는 다르다. 영물시는 시인이 대상의 어떠한 속성에 초점을 맞추어 주제 의식을 표출하고 있는가가 중요하므로, 우의(寓意)의 기법이 많이 사용된다. 이러한 점에서 왕부지의 평가보다는 고결한 품격과 정신이 담겨있다고 한 고계의 평가가 적절하다고 할 것이다.

2) 명대 시학의 추향

원말과 명초 시단에서는 당시(唐詩)를 모범으로 삼아서 솔직하고 자연스러운 서정의 세계를 추구하려는 작가들이 많이 나왔다. 특히 경제적으로 비교적 여유가 있고, 놀이문화가 발달 된 강남의 오(吳) 지역은 농염한 가사가 담긴 민가가 발달하였다. 원말의 문인들은 혼란한 사회환경을 벗어나고자 지역적 특색이나 세속적인 방면에 더 관심을 가졌다. 특히 오 지역에는 양유정(楊維楨)이 문단의 영수로서 활약하였는데, 그의 자유분방하면서도 향락과 자의적인 감정을 표현한 시가 큰 인기를 끌었고, 그를 따르는 문인들도 매우 많았다.[45] 당시 오 지역에서 양유정과 같은 예교(禮敎)의 틀을 벗어나 방탕한 시풍과 괴벽한 시풍이 유행하자 [46] 시의 본질과 기틀을 바로잡는데 고계의 시는 다른 시인들의 시를 교정하는 역할도 하게 되었다. 고계는 중국 전통 고전 시의 대표인 당시(唐詩)를 모범으로 학습하였고, 그의 시가 보여준 절제미와 순수 서정의 세계,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쓰인 시의 참모습을 다른 시인들에게 보여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원말에는 사회가 혼란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43) 하손(何遜)은 남조(南朝) 양(梁)의 유명한 시인이다. 그는 매화에 푹 빠져 매화에 대한 시를 많이 지었다.
44)시의 두 구는 『후한서·원안전(後漢書·袁安傳)』의 "현인 원안이 누워있다(袁安高臥)"와 유종원(柳宗元)의「용성록(龍城錄)」에 "조사웅이 매화꽃 아래에서 술잔을 들었다(趙師雄梅花下開樽)"라는 시구의 담긴 뜻을 빌어 온 것으로, 매화가 풍기는 고결한 품성과 우아한 자태를 비유한 것이다.
45) 王輝斌, 『唐後樂府詩史』, 合肥, 黃山書社, 2010, pp.220-235. 참조.
46)고계와 동시대의 사람인 양유정(楊維楨, 1296-1370)의 시는 은일하고 호방의 풍격과는 거리가 멀었다. 왕이(王彝)는 『옥상종집(王常宗集)』권3「문요(文妖)」에서 "양유정은 음란하고 괴이한 말이 인의(仁義)를 해치고, 名實에 반하며, 孔子의 도를 어지럽힌다. 회계 땅 양유정의 문사는 여우 같으니, 요사스러운 문인이다(浙之西, 有言文者必曰楊先生. 余觀楊之文, 以淫詞怪語裂仁義, 反名實, 濁亂先聖之道. 故曰, 會稽楊維楨之文, 狐也, 文妖也.)"라고 서술하였다. 이러한 양유정의 시 풍격은 놀이문화가 발달한 강남의 오 지역의 세속적 기풍과도 관련이 깊다. 서연주, 楊維楨의 『續奩集』연구, 中國文學, 第102輯, 2020.02. p.153.

문학의 본질적인 가치를 중시하고, 진정성을 강조한 창작활동이 진행될 수 있었다. 그러나 명초 주원장이 문자옥으로 문인들을 탄압하자 창작활동의 자유로움이 점차로 줄어들었다. 이러한 때에 고계 시의 정신인 대항의식(對抗意識), 침울상심(沈鬱傷心), 자득지락(自得之樂) 등은 정치적인 폭압에 갇힌 남방의 문인들에게 정신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고계는 원말의 험괴(險怪)하고 염려(艶麗)한 시를 바로 잡아서[47] 명대의 시가가 나아갈 새로운 길을 선도하였고, 중국 남방 민간시가 더욱 성숙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 갔다.[48]

명대의 시가 발전은 복고와 반복고의 두 가지 경향으로 나타난다. 그중 복고의 경향이 더욱 유행하였는데, 고계는 특히 명대 시가의 복고적인 사조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다. 명대 초기에는 대각(臺閣)의 세 중신 삼양(三楊), 즉 양사기(杨士奇), 양영(楊榮), 양박(楊溥)이 송대 서곤체(西昆體)의 영향을 받아 주도한 대각체(臺閣體)가 유행하였다. 이는 대부분이 내용 없이 천편일률적으로 성덕 찬양과 태평세월을 노래한 것이었다. 이러한 시체는 전칠자의 영수인 이몽양과 하경명이 나와서 복고를 제창하기까지 100여 년간 지속되었다. 고계도 대각체의 시를 짓기는 하였으나 기교를 부려 내용 없이 전아함만을 추구하지는 않았다. 이후 고계가 순수 서정시와 전원시, 민간의 일상을 표한 시 등으로 방향을 바꿀 수 있었던 것도 내용과 생기 없는 대각체의 시는 자신과 맞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후 고계의 영향으로 다릉시파(茶陵詩派)의 대표 이동양(李東陽,1447-1516)은 대각체의 전아하지만 무미건조한 풍격 대신에 이백과 두보를 대표로 하는 당시를 본받자고 주장하였다. 이동양의 주장은 이몽양과 하경명이 영수가 되어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전·후칠자(前·後七子)의 복고사조로 이어진다. 고계의 학시 도정은 전칠자와 거의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전칠자의 대표인 이몽양(李夢陽)이 『시집자서(詩集自序)』에서 사언(四言)은 시경을 배우고, 부(賦)는 한·위를 배우고 악부는 육조(六朝)를 배웠고, 근체시는 성당을 배웠다고 말하였으니 고계와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러나 전칠자는 옛것을 배우기만 하였고 소화하여 내면화해내지 못했다. 왕세정이 말한 바처럼, 이몽양이 “옛것을 먹기만 하고 소화하지 못했다(食古不化)”라고 하여, 모사의 경지인 고인의 ‘(자취를 남기지 않는)無跡’에 이르지 못했다.[49] 고인의 학시 방법에서 배운 것을 체화하지 못하여 시는 새로운 뜻도 없었고, 개성도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 그리고 대력(大歷) 이후의 시와 송시(宋詩)는 부정하고 본받지 못할 바라고 여겼으니, 시를 배우는 시각이 고계에 비해 지나치게 협소하여, 시에 대한 넓은 안목에서 고계와 분명한 차이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50] 조익은 『구북시화』에서 고계가 명대 전·후칠자(前·後

47) 고계가 이전의 시풍을 기반으로 원말 새로운 시의 풍격을 열었다는 평가는 자주 보인다. 갈준례(葛遵禮)는 『中國文學史』에서 고계의 시가 “위로는 건안풍골을 엿보았고, 아래로는 당대까지 미쳤으니, 아름답고 고아하고 힘이 있으며, 맑고 영특하며 참신하기도 하여 원대의 섬약한 폐단을 싹 씻어내었다(其詩上窺建安, 下逮開元. 偉麗雅健, 淸雋新穎, 一洗元人纖弱之陋習).” 라고 하여 원말의 시풍 쇄신에 고계의 역할이 컸음을 높이 평가하였다. 王國德, 「論高啓的詩人品格」, 中國人文科學, 第33輯, p.111. 재인용

48) 중국 강남의 오 지역은 특히 정치적 압박이 가장 심한 곳이었다. 그 지역의 시인들은 창작에서 고계 시의 창작 형식과 수사 등은 다르게 표현하였으나 고계 시어의 소박하고 평범한 언어특징과 시의 우울하고 처량(沈鬱蒼凉)한 의경을 계승하였다. 특히 명대 산수화가로 유명했던 심주(沈周,1427－1509) 와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남방에서 활동한 당인(唐寅)이 고계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고계 시의 소박하고 평담(平淡)을 본받고, 자아 존중과 인성을 높이는 인본주의에 입각한 시를 창작하였다. 曾慶雨, 「高啓與明代詩歌」, 雲南民族大學學报, 第25卷, 第1期, 2008, pp.134-135.

49) 왕세정(王世貞)은 『예원치언(艺苑卮言)』에서 “모사의 오묘한 점은 여러 갈래로 나뉜 강경한 의견과 다 써낸 기세와 태도를 적으로만 여기지 않고, 고인의 자취를 남기지 않고 다 모으는 것으로 얻어지는 데 있다(模拟之妙者, 分歧逞力, 窮势盡態,口不唯敌手, 兼之無跡, 方爲得耳.)”라고 하였다. 이는 모사의 최고의 경지로 ‘자취를 남기지 않는(無跡)’ 것에 있다고 하였다. 배웠지만 그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경지에 이르는 자만이 진정으로 시의 정수를 배웠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曾慶雨, 「高啓與明代詩歌」, 雲南民族大學學报, 第25卷 第1期, 2008. p.133. 참조

50) 王國德, 「論高啓的詩人品格」, 中國人文科學, 第33輯, p.123. 참조

七子)에 대해 미친 영향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 “이후 당시를 학습한 이몽양(李夢陽), 하경명(何景明) 등이 그의 면모를 이어받고, 그의 성조를 모방했지만, 정신과 이치가 다 없어지고 옛사람의 의관을 가장했을 뿐이었다. 종성(鍾惺)과 담원춘(譚元春) 등은 한 자 한 구를 좇아가서, 흔하게 보기 힘든 면을 억지로 드러내놓고는 맛 이외의 맛을 얻었다고 생각했지만, 이는 고독한 사람의 허튼소리일 뿐이었다. 오직 고계가 하늘에 걸친 붉은 놀처럼 하계를 비추어서 지금까지 광경이 늘 새로우니 그의 타고난 재능은 미칠 수 없는 것이다(後來學唐者: 李、何必習其面貌, 仿其聲調, 而神理索然, 則優孟衣冠矣. 鍾譚等又從一字一句, 標擧冷僻, 以爲得味外味, 則幽獨君之鬼語矣. 獨靑邱如天半朱霞, 映照下界, 至今猶光景常新, 則其天分不可及也.)”[51]

고계는 원대부터 시작된 종당(宗唐) 중심의 복고에 동조하였던 시인이었다.[52] 그러나 천성이 자유롭고 독립적이었던 고계는 어느 한 시대 한 풍격에만 갇혀서 배우기를 고집하지 않았다. 그는 “고인의 장점을 두루 배우고 갖추는데, 일에 따라 모의한다(兼師衆長, 隨事模擬)”를 시 창작의 구심점으로 삼았다. 이에 시의 전통을 과거부터 당대(當代)로 잇는 과정에서 학습의 절대적인 중요성이 피력됨과 동시에 시의 재료와 내용에 따라 자신의 창조적 상상력을 충분히 동원하여 예술적 작품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조익의 고계에 대한 평가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4. 나오는 말

이상에서 고계의 시론, 그의 시가의 특징, 후대 평론가들의 평가와 그의 시가 명대 시학을 추동한 방향 등을 살펴보았다.

고계는 “옛것을 배운다(師古)”라는 이론을 내세웠으나 순수한 복고주의자는 아니었다. 고인의 시를 열심히 체득한 다음에 배운 시에서 모범적인 창작 기교와 방법을 익혀나가기를 권장하였다. 그러면서 시 창작에서 학고(學古)를 기본으로 한 위에 시인 자신의 마음과 융합된 새로운 상상력이 동원되어야만 한쪽으로 치우치는 폐단을 면해야 한다고 하였으니 복고에만 매달린 순수복고주의자는 결코 아니었다. 즉 전대 시인들의 예술적인 형식과 기교를 흡수하는 목적을 바로 시인이 한 시대와 한 시파(詩派)가 표방하는 풍격에만 구속되지 않고 자신만의 자유롭고 새로운 시를 재창출하는데 두었기 때문이다. 이는 바로 그가 말한 “고인의 장점을 두루 배우고 갖추는데, 일에 따라 모의한다(兼師衆長, 隨事模擬)”로 자신의 시의 창작 체제와 기교를 완비한다면 최종적으로 “그때를 기다려 마음이 융화됨에 이르면 자연스럽게 절로 이루어진다(待其时至心融, 渾然自成)”라고 하여 새로운 시 세계를 열어갈 수 있음을 말한 것이다. 고계는 시가 갖추어야 할 세 가지 요체인 ‘격, 의, 취’를 분명히 밝혀서 시 창작이 나아가야 할 바를 선도적으로 제시하고 보여주었다. 그는 세 가지 요체를 창작실천에 적용하여 다양한 풍격의 시를 창작하였고, 옛것을 스승으로 삼는 중심에 자신의 진실한 감정을 시에 담았다. 이러한 까닭에 그를 개국의 시인 중 으뜸(開國詩人第一)이고, 명대의 시인 중 그에 미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有明一代詩人, 終莫能及之者.)라는 후대의 칭송이 있었다. 고

51) 趙翼, 『趙翼全集』三, 「甌北詩話」卷8, 南京, 鳳凰出版社. p.1274.

52) 원초(元初) 시단은 송(宋)의 시풍에 대한 반발로 종당(宗唐)의 풍조가 유행했는데, 강남지역이 유독 더 번성하였는데, 이들을 ‘종당성령파(宗唐性靈派)’라고 불렀다. 張紅, 「元代唐詩學研究」,上海師範大學博士學位論文, 2004, pp.99-112.

계는 시에 미친 사람이었고,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즐거움이라 여겨서 시 창작만을 위한 생을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기에 그의 시는 그와 그의 생활을 그대로 보여주었고, 주변의 풍경과 일상, 백성들의 삶을 꾸밈없이 평이하게 그려낼 수 있었다. 그리고 성정이 바탕이 된 시를 지을 것을 주장하여 그와 그의 시는 진정한 시(眞詩), 혹은 진실한 시인(眞詩人)으로도 평가받았다.

고계의 문학사상과 시가 창작은 명대 문학가들의 문학관과 시문 창작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명 중기의 전·후칠자들은 고계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아서 '복고'를 제창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학고(學古)는 고계와는 다르게 고인의 시로 배만 불리고 전혀 소화해 내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러서 새로운 뜻도 없었고, 개성도 없었다. 이로 과거의 것을 모방만 일삼고 전대의 것을 표절하는 데만 그쳤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이다. 일반적으로 후대의 평자들은 명대의 시가 '복고를 위한 복고', '모방과 표절'을 지향하여 독창성은 없고, 과거의 영광만을 되찾는 방향으로 흘러갔다고 하였다. 또 시가 전대에 비해 국격(局格)이 낮아지고 비창조적이라고 평가하여 볼 만한 것이 없다는 평가도 많이 나왔다. 이후로 이러한 명대 시의 복고경향에 대한 평가를 재구성해 보는 시작은 바로 '의고'와 '독자적인 풍격'을 함께 추구한 고계 시에 대한 새로운 분석과 평가에서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바로 고계가 실천한 자아의 존중, 개성강조, 진정성의 발로, 자유롭고 독립적인 의식과 정신을 바탕으로 한 창작성과물을 좀 더 세밀히 들여다볼 필요성을 제기해 본다. 또 명대 시학을 '복고'로만 바라보는 편협된 시각을 벗어나는데도 고계의 올바른 문학사적인 위치와 그 시의 의미를 되새겨 볼 수 있을 것이다.

메 모

【문학분과Ⅱ】 발표 ①

東南學派 研究*

이여빈**

【목 차】

1. 서론
2. 동남학파의 구성과 대표인물
3. 간행물 소개
1)『史地學報』
2)『學衡』
3)『國風』
4)『思想與時代』
4. 결론

1. 서론

아편전쟁 이후 수차례 문명사적 위기에 봉착하게 된 중국은 구국을 위한 방도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된다. 그리하여 서구의 발달된 과학기술과 각종 제도를 최대한 단기간 내에 수용하고자 하였고, 문학계에서는 구문학의 병폐를 지적하고 이를 고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 신문학운동이 일어났다. 예컨대 후스(胡適)의 '문학개량론(文學改良論)', 천두슈(陳獨秀)의 '문학혁명론(文學革命論)', 저우쭤런(周作人)의 '인간의 문학(人的文學)'과 '평민의 문학(平民文學)' 등의 주장이 신문학운동을 이끌었다.

한편 당시 신사상과 신문학을 부르짖는 이들의 서구 편향적 사고, 즉 중국과 서구를 지나치게 이분화 하여 중국의 고유한 문물은 낙후되고 버려야할 것으로 치부하고 서구의 것이라면 무조건 발달된 것이며 중국이 마땅히 좇아야할 것으로 찬양하는 태도에 대해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낸 이들도 존재하였다. 바로 당시 남경(南京)에 위치한 동남대학(東南大學)을 중심으로 형성된 지식인 그룹인 일명 '동남학파(東南學派)'인데, 이들은 1900년대 초 남경에 설립된 남경고등사범학교(南京高等師範學校)와 이 학교의 교명이 여러 차례 변경되면서 설립된 동남대학, 제4중산대학(第四中山大學), 강소대학(江蘇大學), 중앙대학(中央大學), 그 외 절강대학(浙江大學)을 근거지로 삼아 활발하게 활동하였다.

주지하다시피 이 동남학파는 앞서 서술한 일련의 동남 계열의 학교에서 근무한 교수와 학생들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는데, 이들은『사지학보(史地學報)』,『학형(學衡)』,『국풍(國風)』,『사상과 시대(思想與時代)』등의 잡지를 창간하여 글을 발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였다. 이들 잡지는 1920년대 초부터 1940년대 말까지 학교의 교명이 여러 차례 바뀌는 동안 같은 시기에 함께 간행되기도 하고, 또 각각 다른 시기에 간행되기도 하면서 동남학파 지식인의 목소리를 대변하였다. 비록 시대에 따

*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1S1A5B5A17052304)
** 전남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강사 (sjseraph@hanmail.net)

라 교명과 간행물은 바뀌었지만 동남 계열의 학교를 중심으로 형성된 사제 간의 학술적 연결고리는 끊어지지 않고 이어졌기 때문에 그들 사이에서 일종의 학풍을 확인할 수 있다.

동남학파의 주요 인물 가운데 한 명인 장치윈(張其昀)은 일찍이 역대로 남경에서 일어났던 국학, 예컨대 남조(南朝)의 국학, 남당(南唐)의 국학, 명대(明代)의 국학 등을 연구하였는데, 여기에서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남경을 중심으로 하는 이른바 '남경학파(南京學派)'가 존재하였다고 주장하였다.[1] 돤화이칭(段懷清)은 「『학형』에서 『국풍』까지 - 현대 중국 비평사에서의 "동남학파"(從『學衡』到『國風』:現代中國批評史上的"東南學派")」라는 글을 통해 "'동남학파'의 형성은 물론 정신적으로 이전 조대의 국학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하지만 현대 중국 비평사에서의 '동남학파'의 흥기는 5·4 신문학과 신문화운동의 발생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심지어 현대 비평사에서의 '동남학파'는 5·4 신문학과 신문화운동의 주장에 대응하여 일어났으며 인문학자를 중심으로 형성된 지식인 문화비평 단체라고 할 수 있다."[2]라고 주장하였다. 위와 같은 글을 통해 중국 학계에서는 이미 동남학파를 5·4시기에 신문화운동에 대응하여 활발하게 활동하였던 남경의 지식인 집단이라고 정의하고 이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안타깝게도 국내에서는 동남학파에 관한 논문을 찾아보기 어렵다. 중국에는 앞서 언급했던 돤화이칭의 「『학형』에서 『국풍』까지-현대 중국 비평사에서의 "동남학파"」, 선웨이웨이(沈衛威)의 「5·4신문화에 대한 제재와 반성-『학형』에서 『동남논형』까지(對五四新文化的制衡與反思－從『學衡』到『東南論衡』)」와 「현대 대학의 양대 학통-민국시기의 북경대학·동남대학·중앙대학을 중심으로(現代大學的兩大學統－以民國時期的北京大學、東南大學、中央大學爲主線考察)」등의 연구논문이 몇 편 발표되었다. 이들 논문은 역사학적 관점에서 동남학파에 대해 개론적인 설명을 하였을 뿐, 문화와 문학사적 관점에서 각 시기별 동남학파의 특징과 지향점 등을 언급하지 않아서 좀 더 거시적인 안목으로 동남학파를 연구해야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우선 동남학파가 어떠한 시간과 공간, 인적 네트워크의 배경 하에 구성되었는지 살펴보고, 그들이 출간한 학술지를 각각 시기별로 나누어 문화적·문학적 범주 안에서 무엇을 추구하였는지, 그것이 중국의 근대 학술과 사상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2. 동남학파의 구성과 대표인물

20세기 초부터 중국 지식인들은 자신들의 새로운 역할에 대해 탐색하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일종의 '학술사회'라는 이상을 세우고 그들만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되었다. 당시 명망 높은 학자들은 대부분 구미에서 유학했던 지식인이었고 이들은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서 자리를 잡고 후학을 양성하거나 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그들의 영향력을 넓혀나갔다.

후스는 북경대학의 1921년 개학식에서 "학벌(學閥)을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것도 학벌 중에 최고의 학벌을 말이다!"[3]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당시 사람들이 자신들을 학벌이라고 비판하는 것을 듣고 학벌이라는 것이 결코 나쁜 의미가 아니라는 의미로 이렇게 말한 것이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1) 張其昀, 「源遠流長之南京國學」, 『國風』, 第七卷, 第二期, 國風社, 1935.09, p.34.
2) 段懷清, 「從『學衡』到『國風』:現代中國批評史上的"東南學派"」, 『浙江社會科學』, 第4期, 浙江省社會科學界聯合會, 2007.07, p.159.
3) 쉬지린 편저, 김영남 외 역, 『20세기 중국의 지식인을 말하다·2』, 도서출판 길, 2011, p.258.

학벌은 좋지 않은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많지만, 후스는 당시 북경대학의 학술 수준을 높여서 '지식 엘리트'를 육성하고 나아가 이 '지식 엘리트'가 사회의 분위기를 바꾸어서 서양과 겨룰 수 있는 정도까지 이르도록 노력해보자는 의미로 이렇게 주장한 것이다. 이처럼 당시 지식인들은 학술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인지하였고, 사회의 발전을 위해 이를 잘 활용하고자 노력하였다. 복잡하게 얽힌 네트워크는 일반적으로 '교육배경', '재직 학교', '학술기관', '간행물 창간', '현실 정치'등을 매개로 이어져 왔는데, 중국의 북방에서는 북경대학을 중심으로 지식인 네트워크가 형성되었다면, 남방에서는 남경고등사범학교가 교명을 바꾸면서 등장한 동남 계열 대학이 그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1915년 9월 남경에 남경고등사범학교가 세워졌고, 이후 남경고등사범학교는 1921년에 동남대학, 1927년에 제4중산대학, 1928년 2월에 강소대학, 같은 해 5월에 중앙대학으로 교명이 바뀌었다. 현재는 1950년에 바뀐 교명인 남경대학(南京大學)으로 존재하고 있다.

차이위안페이(蔡元培)가 임시정부 교육총장직을 맡던 시기인 1914년에 강소성(江蘇省)의 각급 학교장들은 중등교사 배출을 위해 고등사범학교를 설립해달라고 요청하였고, 교육부에서는 미국에서 교육학을 전공한 강소성 출신의 학자인 궈빙원(郭秉文)을 1915년 9월에 정식으로 문을 연 남경고등사범학교의 초대 교장으로 초빙하였다. 이 학교는 당시 설립된 중국의 고등사범학교인 북경고등사범학교(北京高等師範學校), 무창고등사범학교(武昌高等師範學校), 광주고등사범학교(廣州高等師範學校)와 더불어 4대 고등사범학교가 되었다.

1915년에 개교한 이후 남경고등사범학교는 1921년부터는 학생을 모집하지 않고 1923년 6월까지 이 학교의 학생들을 모두 졸업시켜 동남대학에 입학시켰다. 이후 동남대학은 학술과 사상, 교육방면에서 영역을 확대시켜 남방의 제1학부가 되어 북방의 북경대학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게 되었다.

1925년 1월에 궈빙원은 돤치루이(段棋瑞) 임시집정교육부에 의해 교장직에서 파면되었고, 그 이후 동남대학의 교장은 빈번하게 바뀌어서 1926년까지 교장 자리가 실제로는 공백이었다고 할 수 있다.[4] 1927년 3월에 국민당이 남경을 점령하였고, 동남대학은 대학구제(大學區制)에 따라 제4중산대학으로 합병되었다. 이듬해에는 강소대학으로 교명을 바꾸었다가 또 다시 3개월 만에 중앙대학으로 교명을 바꾸게 되었다. 동남대학은 이처럼 당시 급변하는 사회와 정치 상황에 따라 교명도 수차례 바뀌고 학교의 분위기도 바뀌게 되었다.

당시 동남학파는 대부분 외국에서 유학을 했던 경험이 있는 엘리트 지식인이었으며, 대학 혹은 대학 안의 기관, 각종 학술단체, 때로는 특정 정당과의 인맥을 활용하여 그들의 입지를 굳건하게 만들기도 하였다. 궈빙원 교장은 수백 명의 미국 유학생으로 구성된 '중국과학사(中國科學社)'라고 하는 학술단체를 남경고등사범학교로 옮겨왔고, 이로 인해 이 학교에 유학파 교수 자원이 풍부해졌다. 남경고등사범학교와 동남대학 시절 교수였던 메이광디(梅光迪), 류이정(柳詒徵), 탕융퉁(汤用彤), 후셴쑤(胡先驌), 타오싱즈(陶行知) 등은 모두 중국과학사의 구성원이었다. 이 중국과학사의 지식인들은 서양의 과학을 중시하였는데, 이는 남경고등사범학교와 동남대학의 학점제, 선택과목제, 교학법 개

4) 일명 '교장 풍파'라고도 부르는데, 북양정부(北洋政府)와 국민당 세력, 강소 지방 세력, 교수 간의 알력 다툼이 뒤섞인 사건이었다. 북양정부의 교육부에서 궈빙원 교장을 내쫓고 후둔푸(胡敦复)를 새로운 교장으로 앉혔고, 일부 교수와 학생들은 이에 불만을 품었다. 그들은 새로 온 후둔푸를 공격하였고 그에게 임명을 수락하지 않는다는 문서에 사인을 하도록 협박하여 억지로 지장을 찍게 하였다. 이러한 학내 풍파에서 일부는 궈빙원을 옹호하였고 일부는 후둔푸를 옹호하면서 양측의 다툼이 시작되었다. 류이정 등 4명의 교수는 연명으로 교육총장에게 연락하여 학생들이 교장을 모욕하는 태도에 불만을 표하였다. 이로 인해 교내의 궈빙원을 옹호하였던 이들의 공격을 받게 되었다. 난감한 상황 아래 류이정은 심양의 동북대학(東北大學)으로 떠나게 되었다. 주커전은 이 일로 인해 크게 실망하게 되었고 사직서를 제출하고 상무인서관(商務印書館)으로 떠나게 되었다.

혁, 학과 설치 등 과학적인 운영방식에 영향을 주었다.

남경고등사범학교 및 동남 계열의 대학에서 배출한 인재는 대단히 많았는데, 그 가운데 초창기부터 동남학파라는 학맥과 독특한 학풍을 형성하는 데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인물로 류이정(柳詒徵, 1880-1956), 류보밍(劉伯明, 1887-1923), 장치윈(張其昀, 1901-1985)을 들 수 있다. 이 세 명의 학자 가운데 류이정과 장치윈은 동남 계열의 학교를 졸업했고 이들 학교에서 줄곧 교편을 잡는 등 동남 계열의 학교 및 졸업생 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학교와 제자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평생 헌신하였다. 류보밍은 일찍이 남경고등사범학교 시절부터 이곳에서 교편을 잡았고 동남대학 시기에는 교장인 궈빙윈을 대신하여 교내의 사무를 처리하는 등 학교의 핵심 인사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이들의 생애와 사적, 인적 관계 등을 살펴보는 것부터 동남학파 연구가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출생년도에 따라 먼저 류이정부터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류이정(柳詒徵, 1880-1956)은 17세에 수재에 합격하였고, 이후 남경고등사범학교의 전신인 삼강사범학당(三江師範學堂)에서 수학하였다. 그는 어려서부터 엄격한 경서 교육을 받았는데, 이는 그가 평생 동안 국학연구를 하는 데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5] 그는 삼강사범학당을 졸업한 이후 1902년에 변법을 주장하였던 스승 먀오취안쑨(繆荃孫)을 따라 일본으로 유학을 갔는데, 이때 서양문화와 접촉을 하게 되었고 이 시기의 경험은 이후 그의 세계관이 형성되는 데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일본에서 돌아온 이후 1914년에 남경고등사범학교의 국문학·역사학 교수로 초빙되었다가 남경고등사범학교가 동남대학으로 바뀌자 동남대학으로 옮겨가서 역사학과 교수를 맡게 되었다.

그는 특히 동남대학에서 사지연구회의 지도교수가 되어 1921년에 『사지학보』, 1922년에 『학형』을 창간하는 데에 큰 도움을 주었다. 그러던 중 1925년에 동남대학에서 궈빙윈 교장이 교장직에서 파면되는 사건이 벌어졌고 이로 인해 한바탕 소동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류이정은 폭력적인 학생운동에 반대하여 동남대학을 떠나게 되었다. 이후 북경으로 가서 청화대학(清華大學), 북경여자대학(北京女子大學), 동북대학(東北大學) 등에서 교편을 잡았다가, 1927년에 중앙대학으로 교명이 바뀌고 난 뒤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류이정은 남경고등사범학교 시기부터 동남 계열의 학교에서 줄곧 역사학을 교육하였고, 본고 제3장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잡지 가운데 『사지학보』, 『학형』, 『국풍』을 창간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하였다. 그는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끊임없이 각종 잡지를 창간하여 글을 발표하였을 뿐만 아니라 학교의 동료교수나 제자들에게도 그가 창간한 잡지에 글을 발표하도록 독려하였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류이정의 평생은 동남 계열의 대학 및 국학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어린 나이에 수재에 합격할 정도로 국학에 밝았고, 교장 초빙 풍파로 인해 잠시 북경으로 가서 교편을 잡기도 하였지만 대부분은 남경의 동남 계열의 대학에서 역사학과 교수로 재직하였다. 또한 1920년대 후반부터는 국학도서관에서 엄청난 분량의 국학도서를 정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그의 생애를 통해 동남대학에 대한 열정과 중국 전통학문에 대한 깊은 조예를 엿볼 수 있다.

류이정은 『사지학보』에 19편, 『학형』에 33편, 『국풍』에 29편의 글을 발표하는 등 동남학파가 간행한 대부분의 학술 간행물에 다수의 글을 발표하였다. 대체적으로 5·4신문화운동을 비롯한 당시 사회현실에 대한 비판과 사회개혁에 대한 학자의 책임, 국학의 중요성을 강조한 글, 비상시국에서 역사를 강조하는 글 등을 발표하였다.

주지하다시피 류이정은 동남학파의 핵심인물로서 각종 간행물을 창간하는 데에 앞장섰으며 수많

5) 柳詒徵, 「我的自述」, 『柳翼謀先生紀念文集』, 第11輯, 鎮江文史資料, 1986, p.245.

은 제자들을 양성하여 자신의 문화적·문학적 주장을 이어나가도록 하였다. 특히 국난 속 지식인의 책임에 대해 깊이 통감하여 민족 부흥의 길을 찾기 위해 각종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는데, 그중에서도 국학 연구를 통해 중화민족의 자신감을 제고하고자 노력한 흔적이 돋보인다.

둘째, 류보밍(劉伯明, 1887-1923)은 남경 출신으로, 어린 시절 장타이옌(章太炎)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고 전해진다. 이후 금릉대학(金陵大學)의 전신인 회문서원(彙文書院)에서 공부하였고 이곳을 졸업한 이후에는 일본에서 유학하면서 일본유학생 청년회 간사를 맡았으며 쑨중산(孫中山)이 이끄는 동맹회(同盟會)에 가입하기도 하였다. 신해혁명이 발발한 이후에는 미국으로 건너가 노스웨스턴 대학교 대학원에서 철학과 교육학을 전공하여 '노자(老子) 철학'을 주제로 박사논문을 썼고 학위를 받았다. 1915년에 귀국하여 금릉대학 국문과 교수로 초빙되었으며 이후 남경고등사범학교으로 가서 철학과 교수로 교편을 잡았다. 1921년에 동남대학 문이과(文理科) 주임 겸 부총장의 역할도 맡게 되어 당시 학교 밖의 일로 바빴던 교장 궈빙원을 대신해 교내의 크고 작은 일을 도맡아 처리하였다.

류보밍은 주로 서양의 고대와 근대 철학사를 연구하였고, 중국과 서양 학문의 조화 문제에 대해 고민하였다. 1919년부터 1921년까지 듀이가 중국을 방문했던 기간에는 듀이의 강연을 통역하거나 듀이의 학설을 번역하고 소개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류보밍이 남경고등사범학교의 편집대표로 참여하였던 『신교육(新教育)』에 「실험의 논리학(試驗的論理學)」(제1권 제1기), 「듀이의 논리학(杜威之論理學)」(제1권 제3기), 「학생의 사회봉사 문제(學生社會服務問題)」(제2권 제1기) 등의 제목으로 듀이의 글을 번역하여 발표하였다. 특히 그가 번역한 「듀이의 3대 강연(杜威三大演講)」[6]은 듀이의 학설이 중국에 널리 퍼지는 데에 큰 영향을 주었다. 류보밍은 여러 차례 듀이 강연의 통역을 맡으면서 그의 사상과 학설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듀이 학설 가운데 학교와 사회, 학생 자치, 개인의 개성과 집단의 공화(共和) 등을 주제로 삼아 쓴 글을 여러 차례 발표했다. 류보밍은 듀이를 대표로 하는 미국 교육사상의 영향을 받았고 자유롭게 사회에 헌신하고자 하는 진정한 자각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하였다. 그는 당시 격렬한 학생운동을 겪으면서 학생들의 사회운동 참여에 대해 깊이 고민하였고, 학생들이 교실 안에서 지식과 기술만을 익히는 이기적인 무리가 되기보다는 교실 밖으로 나가 진정한 사회의 일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학생들이 사회정치 활동에 참여하면서 점차 폐단이 나타나자 그는 이들을 다시 교실로 불러들이기 위한 조치를 단행한다. 이와 같은 학생운동을 겪고 난 후에 류보밍의 관점은 중국의 낡은 구문화를 폐지하고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자고 주장하는 등 비교적 개혁적이었던 이전과는 관점이 확연히 달라졌다. 그는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서구화하려다가 오히려 혼란함만 가중되는 당시 상황에 문제의식을 느끼게 되었고, 중국의 전통문화 속 정신을 더욱 강조하게 되었다. 그는 무조건 중국의 구문화와 구도덕을 폐기하기 보다는 그것에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고 만약 고칠 것이 있다면 고쳐서 써야지, 지나치게 서구문화에 치우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류보밍은 또한 『학형』 제3기에 발표한 「량수밍의 동서문화와 그 철학을 평함(評梁漱溟東西文化及其哲學)」이라는 글을 통해 량수밍(梁漱溟)의 『동서문화와 그 철학(東西文化及其哲學)』에서 서양문화의 요지를 '과학'과 '민주'로 개괄한 것은 근거가 없는 말이라고 지적하고, 희랍문화와 종교전통이야말로 서양문화의 근원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당시 신문학가들이 서양의 근대문화와 사상, 문학을

6) 듀이의 '3대 강연'은 「教育哲學」, 「試驗論理學」, 「哲學史」로, 「教育哲學」은 총 22차례, 「試驗論理學」와 「哲學史」는 각각 10차례씩 강연하였다. 듀이는 당시 북경 등지에서 강연하였는데, 많은 잡지에서 그의 강연 번역본을 실었다. 그중에서 류보밍이 번역한 「杜威三大演講」은 각각 단행본으로 출판된 것 외에도 上海泰東圖書局에서 1920년 11월에 초판을 낸 것을 시작으로 1923년까지 총 4판 이상을 출간하였다.

소개하는 것과는 달리 서양의 전통문화와 사상, 문학 이론을 연구하고 소개하는 작업에 더 열심이었다.

류보밍은 1922년과 1923년에 가장 왕성하게 글을 쓰고 발표하였는데, 『학형』에 「학자의 정신(學者之精神)」(1922년, 제1기), 「학자의 정신을 다시 논함(再論學者之精神)」(1922년, 제2기), 「듀이가 중국 사상을 논함(杜威論中國思想)」(1922년, 제5기), 「비종교운동 평의(非宗教運動評議)」(1922년, 제6기), 「공화국민의 정신(共和國民之精神)」(1922년, 제10기), 「학풍을 논함(論學風)」(1923년, 제16기) 등과 같은 글을 발표하였다. 그는 특히 교육방면에 관심이 많았는데, 『학형』제1기와 제2기에 연속으로 발표한 「학자의 정신」과 「학자의 정신을 다시 논함」에서 새로운 것을 좇아서 표절하지만, 동화(同化)되지는 않고 명성과 이익만을 얻으려고 하는 당시 학술계에 나타난 각종 현상에 대해 지적하였고, 이는 진정한 학자가 따라야 할 치학 정신이나 준칙과는 거리가 멀다고 비판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학자가 마땅히 가져야 할 정신으로 '자부심 있는 정신(自信之精神)', '스스로 터득함(自得)', '지식의 정조(知識的貞操)', '진실을 추구하는 정신(求眞之精神)', '세심하고 신중한 태도(審愼之態度)'를 꼽았다.[7]그는 또한 당시 새로운 학제 개편에 대해서도 의견을 개진하였는데, 학년제에서 학점제로 바뀐 것에 대해 "전자는 훈련에 가깝고 후자는 자유에 가깝다"[8]고 언급하였고, 각각의 장단점에 대해 논하면서 학점제를 기계적인 방법으로 학점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운용한다면 폐지하는 것이 낫다고 보고, 또한 이러한 방식으로 직업교육을 하더라도 전체적인 인성을 중시해야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각각의 단계에서 어떻게 이러한 과정을 편성할 것인지에 대해 더욱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제시하기도 하였다.

그는 또한 당시 대학교육이 직업주의와 실용주의에 치우친 것에 대해 비판하였다. 류보밍은 듀이 실용주의 이론에 대해 "너무 급하게 서두르며, 차분하고 안정된 태도가 결핍되어 있다. 창조만을 강조하고 누릴 줄은 모른다. 많은 것을 욕심 부리고 만족할 줄을 모른다. 나날이 나아갈 줄만 알고 멈출 줄은 모른다. 그리하여 그 결과로 정신이 피폐해지고 마음이 어지러워졌다."[9]라고 하면서 듀이의 실용주의 이론을 비판하였다. 이와 같이 그는 학교를 지식의 교역장소 정도로 여기는 시장 원리는 학생들의 건전한 인격교육을 소홀히 하게 만든다고 보아 경계하였다.

류보밍은 대학이 반드시 모든 면에서 뛰어난 사람을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중국의 문화뿐만 아니라 서양문화와 서양의 명작, 서양의 사상 등에 정통해서 동서의 정신을 통하게 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그중에서 그가 특히 강조한 것은 '과학정신'이었다. 그는 서양의 과학정신과 과학방법을 중국에 들여오자고 주장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중국 전통문화의 학습과 전승을 중시하여 동남대학을 '과학화'하고자 하였다. 그는 과학에는 적당한 훈련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과학정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조건은 '진실함'이라고 주장하였다.

류보밍은 상술한 바와 같이 동남대학의 민족과 민주, 과학을 중시하는 분위기,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않는 학풍을 세우는 데에 크게 일조하였다. 또한 신구문화와 중서문화의 갈등에 많은 관심을 보인 메이광디와 우미 등에 비해 그는 당시 교육 현상과 교육 발전에 더욱 관심을 보였다. 동남학파의 인물들이 편협한 전문가가 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류보밍과 같은 넓은 안목을 가진 스승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안타깝게도 류보밍은 1923년 11월, 37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1932년에 『국풍 반월간』은

7) 劉伯明, 「學者之精神」, 『學衡』, 第1期, 學衡雜誌社, 1922, pp.1-3.
8) 劉伯明, 前揭, p.6.
9) 劉伯明, 「杜威论中国思想」, 『學衡』, 第5期, 學衡雜誌社, 1922, p.5.

류보밍 특집호를 발표하였는데, 메이광디의 「9년 후의 회상(九年後的回憶)」, 후환융(胡煥庸)의 「류보밍 선생님을 회고하며(憶劉師伯明)」, 뮤펑린(繆鳳林)의 「류보밍의 서양문화를 논함(劉伯明論西洋文化)」, 장치윈의 「교육가의 정신수양(教育家的精神修養)」, 「류보밍 선생 서거 기념일(劉伯明先生逝世紀念日)」 등의 글이 실렸다. 이와 같은 글을 통해 류보밍이라는 인물이 이 학교에서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쳤으며 중요한 역할을 하였는지 알 수 있다. 각각의 인사를 단결시키는 핵심인물인 류보밍을 잃게 된 동남학파는 그 구성원들 간의 내부 갈등이 점차 심해져서 화합하지 못하고 결국 제각각 흩어지게 되었다.

셋째, 장치윈(張其昀, 1901-1985)은 절강성립제4중학(浙江省立第四中學)을 졸업하고 남경고등사범학교 사지부(史地部)에 입학하여 류보밍, 류이정, 주커전(竺可楨) 등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가 만년에 쓴 자서전에는 남경고등사범학교 재학 시절 류보밍과 류이정이 그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이라고 기술되어 있다. 류보밍의 신문화운동에 대한 태도는 장치윈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이는 훗날 장치윈이 『사상과 시대』를 창간하는 데에 큰 영향을 주었다. 장치윈은 류이정과도 인연이 깊다. 당시 류이정은 1920년대에 이미 중국 남방에서 학술적으로 이름을 떨치고 있었다. 장치윈은 남경고등사범학교에 입학하고자 입학시험을 보았고 우수한 성적을 거뒀지만 체격검사에 통과하지 못하여 여러 차례 낙방했는데, 류이정이 그의 능력을 알아보고 직접 학교 측에 요청해서 그가 이 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고 전해진다.[10] 이러한 인연으로 인해 장치윈은 남경고등사범학교에 입학한 이후, 류이정이 설립한 사지연구회의 회원이 되었고 사지연구회의 기간 간행물인 『사지학보』에도 여러 편의 글을 발표하였다. 그는 특히 서양의 역사와 지리를 소개하는 데에 열심이었고, 이러한 그의 노력은 훗날 그가 서양의 역사학과 지리학 이론을 중국으로 들여와 학문을 구축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다.

장치윈은 1927년부터 1936년까지 중앙대학에서 교편을 잡았는데, 1932년 9월 1일에 중앙대학 교수들이 창간한 간행물인 『국풍 반월간』을 창간하고 편집위원을 맡았다. 그 외에도 장치윈은 『방지(方志)』월간, 『과학 중국(科學的中國)』의 총편집장직을 맡았다. 『과학 중국』 잡지가 1935년에 『과학(科學)』이라는 이름의 잡지로 개편된 이후, 장치윈은 이 잡지에 글을 여러 편 발표하기도 하였다. 그가 당시에 역사와 지리, 새로운 과학 지식, 사상과 문화 등을 주제로 한 글을 쓰고 발표하였던 것을 볼 때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학문영역을 폭넓게 확대시켜 갔음을 알 수 있다.

장치윈은 1948년까지 중앙대학 교수, 절강대학 사지학과 주임, 사지연구소 소장, 문학원 원장 등의 직책을 맡았고 지리학과 사학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한 나라의 국민은 그 나라의 역사를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세계인의 일원으로서 반드시 지리를 알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지리학이 과학과 인문의 두 방면을 모두 포함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교육의 기본이라고 하여 지리학을 무엇보다도 중시하였다.

장치윈은 1923년 『사지학보』 제2권 제7호에 발표한 「지리와 국제문제(地理與國際問題)」[11]라는 글에서 지리교육은 국제간의 경쟁을 피하고 상호 협력하는 관계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당시 세계의 사상과 관념은 '상호 경쟁'에서 '상호 보조'로 그 경향을 바뀌었기 때문에 세계의 정치를 개혁하고 세계 공민을 훈련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개혁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그는 또한 시국에 관심이 많아서 이와 관련된 글을 많이 발표하였는데, 「오늘날 세계의 중대한 문제(世界今日之重大問題)」[12], 「열하성 형세론(熱河省形勢論)」[13], 「태평양의 두 선(太平洋上之二線)」[14], 「동북의 잃어버린

10) 鄭素燕, 「1949年前張其昀的人際網絡」, 『長春工業大學學報(社會科學版)』, 第22卷, 第5期, 2010, p.107.
11) 張其昀, 「地理與國際問題」, 『史地學報』, 第2卷, 第7號, 史地研究會, 1923.11, p.29.

땅을 잊지 말자(毋忘東北失地)」[15] 등을 통해 시대적 상황과 중국의 지리를 함께 살펴보고 난국을 헤쳐 나갈 방도를 구상하였다. 그는 특히 장제스에게 새로운 보금자리로 대만을 추천한 인물로 유명하다. 국공내전 기간에도 수도를 북경에서 남경으로 옮겨야 하는 역사적 이유와 지리적 이점에 대해 논의하기도 하였다. 지리와 역사에 대해 누구보다도 해박한 그의 실력을 일찍이 알고 있었던 국민당 고위직 간부들의 요청에 의해 그는 1930년대부터 국민당 내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되었다.

특히 항일전쟁 시기에는 『사상과 시대』잡지를 창간하였고, 국방설계위원회(國防設計委員會)의 특별위원, 중국지리학회 총간사, 국민당 중앙연구원 제1기 평의원, 국민참정회(國民參政會) 제2기 참정위원을 맡았다. 그중에 국방설계위원회는 각종 군사, 외교, 변경 지역 등에 대해 연구하였는데, 그는 교과서 편찬업무를 맡았다. 장치윈은 중국 서북지역 인문지리조사단으로 파견되어 그곳의 수리, 지질, 작물재배, 인문지리 환경 등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 기간 동안의 경험은 「서북여행기(西北旅行記)」라는 제목으로 『국풍』 제8권 제1기부터 제8기까지 연재되었다.

1943년부터 1945년까지는 미국 국무원의 요청에 의해 미국에 가서 강의와 연구를 하였고 방문교수로 하버드대학에 가기도 하였다. 1946년에는 제헌국민대회(制憲國民大會)의 대표로 당선되었고, 1948년에는 국대대표(國大代表)에 당선되었으며 국민정부고시원(國民政府考試院) 고시위원을 맡았다. 이처럼 국민당 정부에서 다양한 임무를 맡았던 장치윈은 신중국 수립 시기에 국민당 내 여러 직책을 맡고 그들을 위해 일했다는 혐의를 받아 학교에서 내쳐지게 되었고, 결국 1949년에 국민당 정부를 따라 대만으로 옮겨가게 되었다. 그곳에서도 중앙상무위원, 국민당 중앙선전부장, 개조위원회(改造委員會) 비서장, 중앙위원회 비서장, 대만 행정원 정무위원 겸 교육부장, 국방연구원 주임직, 중앙평의위원회(中央評議委員會) 주석 등 정부의 중요 직책을 역임하였다.

그는 1949년 이전에는 지리학을 위주로 연구하여 『중국지리학 연구(中國地理學研究)』, 『중국구역지(中國區域志)』등의 저서를 남겼고, 대만으로 간 이후에는 『동서문화(東西文化)』, 『중국문화신론(中國文化新論)』, 『민주헌정과 중국문화(民主憲政與中國文化)』, 『중화오천년사(中華五千年史)』등과 같은 다수의 역사와 문화에 관련된 저술을 남겼다. 장치윈은 류보밍·류이정과의 사제관계를 중심으로 사지연구회의 회원이 되었고 『사지학회』와 『국풍』, 『사상과 시대』 등의 동남 계열의 대학과 관련된 간행물에 지리와 역사에 관한 글을 다수 발표하였다. 그는 또한 국민당 정부의 중요한 직책을 역임하기도 하면서 정권과의 깊은 관계를 맺었다. 학술사회를 건설함에 있어서 지식인들은 공공 업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독립적인 지위를 유지하고자 한다. 장치윈 역시 현실정치에 직접 참여하는 것과 학자로서 독립적인 지위를 유지하는 것 사이에서 고민했지만, 상황에 따라 정부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는 지식인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학술사회와의 끈을 놓지 않고 문화와 역사에 관한 연구를 줄곧 이어갔음을 알 수 있다.

3. 간행물 소개

1) 『史地學報』

12) 張其昀, 「世界今日之重大問題」, 『史地學報』, 第1卷, 第3號, 史地研究會, 1922.
13) 張其昀, 「熱河省形勢論」, 『國風』, 第1卷, 第1,2號, 國風社, 1932.
14) 張其昀, 「太平洋上之二線」, 『國風』, 第1卷, 第5號, 國風社, 1932.
15) 張其昀, 「毋忘東北失地」, 『國風』, 第3卷, 第8號, 國風社, 1933.

중국의 지식인들은 학술 네트워크를 형성함과 동시에 대중을 각성시키고 계몽하고자 각종 간행물을 발간하여 자신들의 사상과 주장을 펼치고자 하였다. 동남학파 지식인들 역시 다양한 간행물을 발행하여 자신들의 주장을 펼쳤는데, 본 장에서는 류이정, 류보밍, 장치윈 이 세 사람이 각각 설립하고 참여하였던 연구회와 창간했던 잡지 등을 살펴보아 그 특징을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동남학파가 창간했던 잡지 중에서 『사지학보』(발행기간: 1921~1926), 『학형』(발행기간: 1922~1933), 『국풍』(발행기간: 1932~1936), 『사상과 시대』(발행기간: 1941~1948)는 동남학파의 초기 모습부터 신중국 성립 직전까지 그들의 발자취를 가장 잘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이를 중심으로 동남학파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들 잡지는 발행 시기가 조금씩 겹치기도 하고 전혀 다르기도 하지만 동남학파 지식인들의 대략적인 흐름과 주장을 살펴볼 수 있다. 예컨대 『사지학보』와 『학형』은 1922년부터 1926년까지 발행기간이 겹치고[16], 『학형』과 『국풍』은 1932년부터 1933년까지 발행기간이 겹친다. 발행기간이 겹치는 경우 동남학파 지식인들은 두 군데에 모두 글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우선 『사지학보』는 1920년 5월에 설립된 남경고등사범학교의 사지연구회(史地研究會)에서 창간한 간행물로, 1923년에 남경고등사범학교가 동남대학으로 이름을 바꾼 이후 사지연구회도 동남대학으로 옮겨가게 되었다. 이 사지연구회는 대부분 문사지부(文史地部)의 교수와 학생으로 구성되었는데, 역사학은 류이정, 지리와 기상학은 주커전의 지도 아래 조직되었다. 류이정은 『사지학보』에 20 여 편의 글을 발표하였는데, 거의 대부분의 기수에 글을 발표하였다. 주커전 역시 「난징기상보고(南京氣象報告)」시리즈를 거의 대부분의 기수에 발표하여 그의 지리학과 기상학 연구는 현대 기상 관측 연구에 큰 영향을 주었다.

사지연구회는 1921년 11월부터 1926년 10월까지 총 4권, 제20기, 총 300 여 편의 글을 게재하였는데, 평론(評論), 통론(通論), 사지교학(史地教學), 연구(研究), 고서 신평(古書新評), 서보 소개(書報紹介), 사지계 소식(史地界消息), 조사(調查), 사지가 전기(史地家傳記)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의 글을 실었다.

류이정은 『사지학보』의 「서문(序文)」을 썼는데, 그는 과거 중국의 성인들은 비록 그 지식에 차이가 있었지만 모두 대인(大人)의 학문에 부합한 것이었는데, 지금 사람들은 수십 년 동안 음식과 쉬는 일에 온 신경을 쓰고 그 외의 일에는 귀를 막고 눈을 가리고 보지 않으니, 그 나라는 반드시 위태롭고 그 종족은 생존할 이유가 없다[17]고 하면서 중국이 당면한 현실에 대해 비판하였다. 그는 『사지학보』의 종지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 청대부터 지금까지 학교에는 사지(史地)의 교과가 있었다. 사람들은 도표의 목적을 알고 있다. 그 학문은 마땅히 정진해야 한다. 스승은 가르치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제자는 배우는 것을 기뻐하지 않게 되었다. 교과서와 강의를 듣는 것만을 바른 길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여러 해를 거치면서 그것은 미치지 못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역사와 지리의 지식은 거의 학교에 남아있지 않게 되었다. 나라에는 진귀한 신문이 있고 집에는 진귀한 보물이 있는데, 그것을 두드리고 알아보고자 하는 자도 아무것도 모르게 되었다. 오직 다른 나라의 유명인과 석학의 박식함에 놀랄 뿐이다. 즉 다른 나라의 것을 배우는 것 역시 교과서와 강의의 상식수준을 벗어나지 않으며 심지어 표절하거나 찌꺼기를 주워 담는다. 교과서와 강의의 상식 역시 불완전하다. 그리하여 우리나라는 마침내 무학(無學)으로 세상에 알려지게

16) 沈衛威는 『사지학보』를 학형파 계보의 중요한 일부분으로 간주하여 "『학형』 잡지의 형제 간행물"이라고 주장하였다.(沈衛威, 「史地學報及其文化立場」, 『史學月刊』, 第3期, 2004, p.54.)
17) 柳詒徵, 「序」, 『史地學報』, 第1卷, 第1號, 史地研究會, 1921.11, p.1.

되었다.[18]

「서문」에서 류이정은 사지(史地)의 지식은 이른바 “大人之學”으로, 이는 국가의 성쇠 및 종족의 존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청말 이래 학교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다가 외국의 것을 표절하거나 찌꺼기를 주워 담은 나머지 학술이 낙후되어 결국 “無學”의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특히 중국과 외국의 사학 연구 상황을 비교하면서 중국이 무지하기 때문에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없으며 오히려 조상이 남긴 지식마저 잃어버릴 위험성까지 있다고 지적했다. 「서문」을 통해 볼 때 사지학회 회원들이 『사지학보』를 창간한 것은 바로 중국의 낙후된 학술상황을 국민들로 하여금 직시하게 하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제대로 된 학술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그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학술사업은 어떤 것일까? 그들은 서양과 비교해볼 때 특히 중국의 사지학이 빈약하다고 보았다. 황제(黃帝)와 대우(大禹)시대부터 이미 사지학이 시작되었고 사적(史籍)은 풍부하지만, 그에 비해 과학이 발전하지 못하여 사학(史學)과 지학(地學)의 수준이 크게 뒤떨어졌다고 토로하였다. 그리하여 사지학에 관련된 다양한 연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그 결과 세계의 역사와 문화 및 각국의 현황에 대해 소개하고 평론하거나[19] 중국과 동양에 대해 연구한 외국학자의 글을 번역하여 소개하였다.[20] 또한 사지연구회 회원들은 중국과 중국인의 현실, 5·4신문화운동 등에 대해 반성하였는데, 이와 관련된 글로는 류이정의 「근래 제자(諸子)의 학문을 논하는 자들의 오류를 논함(論近人言諸子之學者之失)」, 「중국인의 생계 연구(漢人之生計研究)」, 「역사를 억측하여 가르치는 것의 폐단을 논함(論臆造歷史以教學者之弊)」, 천쉰츠(陳訓慈)의 「우리나라의 최근 경제변천에 대한 관찰(對於吾國最近經濟變遷之觀察)」등의 글이 있다. 특히 미국의 역사와 민주주의에 대한 그들의 관심을 엿볼 수 있는 후환융의 「미국 국민사(美國國民史)」는 1924년 4월에 간행된 제3권 제1기부터 학보가 종간될 때까지 연재되었다.

류이정은 『사지학보』 창간호에 「요즘 제자(諸子)의 학문을 논하는 자들의 오류를 논함」이라는 글을 발표하여 북경대학의 구제강(顧頡剛), 첸셴퉁, 후스 등을 대표로 하는 ‘의고파(疑古派)’에 반대하였다. 그는 ‘의고파’에 대해 “객관적인 것을 좋아한다고 하면서 학문을 논하는 것은 주관에 많이 치우쳐있다. 억지의견은 마치 발을 깎아서 신발에 맞추는 것처럼 왕왕 있어서는 안 되는 말로 창조된다.”[21]라고 하여 그들의 큰 병폐는 옛것을 아무런 근거 없이 독단적이라고 보고, 유가가 옛것을 본받아 제도를 고치고 고서에 근거하여 일률적으로 말살하는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그는 후스의 저술방식과 대화방식에 대해서도 자신의 이상에 부합하는 것은 번지르르하게 말하고, 부합하지 않는 것은 왕왕 꾸짖거나 꺼린다고 지적하였다. 그 외에도 류이정은 후스의 『제자(諸子)는 왕관(王官)으로부터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설(諸子不出於王官論)』, 『중국철학사 대강(中國哲學史大綱)』에서의 제자(諸子)에 관한 논단에 대해서도 반박하였다. 또한 류이정의 학생이었던 류산리(劉掞藜) 역시 의고파가 아무런 근거 없이 유가·묵가·도가·법가 등의 말이라면 거짓으로 간주하는 태도는 분명 문제가

18) 上同

19) 胡煥庸의 「美國國民史」, 張其昀의 「美國人之東方史觀」,「火之起源」,「關於華府之表計種種」,「地理與國際問題」, 「柏拉圖與周官」,「地理學之新精神」등, 徐則陵의 「近今西洋史學之發展」, 王玉章의 「菲尼基通商殖民史」,「英格蘭文化史」, 「歐戰大事記」,「日本之海上政策與殖民政策」,「各國歷史所受地理之支配」, 陳訓慈의 「戰後之德意志之歷史教學」,「近世歐洲政治社會史」, 向達의 「朝鮮之亡國之原因及其能否複興之推測」등이 있다.

20) 張其昀이 번역한 「美國人之東方史觀」, 向達이 번역한 「史律」, 王庸이 번역한 「大戰開始後七年間西洋之中國史研究」, 陳訓慈의 「美人研究中國史之倡導」등이 있다.

21) 柳詒徵, 「序」, 『史地學報』, 第1卷, 第1號, 史地研究會, 1921.11, p.1.

있다고 지적하였다.[22]

다양한 방면에서 사지학의 발전을 이끌었던『사지학보』는 류이정과 주커전이 앞서 언급했던 1925년에 발생한 교육부의 교장 면직에 폭력적으로 항의한 학생들을 비판하다가 이들의 공격을 받아 학교를 떠나면서 종간되었다. 류이정과 주커전이 학교를 떠나게 되자 사지연구회는 중심축을 잃게 되었고 사지연구회의 학생들도 졸업을 하면서 연구회의 인물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다. 이후 1926년에는 류이정, 장치윈, 샹다(向達)가 주축이 되어 중국사지학회(中國史地學會)를 결성하였는데, 그 구성원 역시 대부분 사지연구회의 동인이었다. 이들은 그해 1월부터 1928년 10월까지『사학과 지학(史學與地學)』이라는 잡지를 총 4기 발간하였다.

1928년에 장치윈은『지리잡지(地理雜志)』를 창간하였고, 1929년에 류이정, 장치윈, 뮤펑린, 천쉰츠 등은『사학잡지(史學雜志)』를 창간하였다. 이 잡지는 총 10기를 발간하였는데, 책임자부터 글을 발표하는 사람까지 모두 동남학파라고 할 수 있다.

사지연구회의 주요 인물들은 1932년에 국풍사(國風社)를 결성하였는데, 류이정이 사장이었고 장치윈, 뮤펑린, 샹다는 편집위원이었다. 이들은 종산서국(鐘山書局)을 세우고『국풍 반월간』을 창간하여『사지학보』·『사학과 지학』·『지리잡지』·『사학잡지』등 앞서 그들이 출간했던 간행물의 뒤를 이어 중국 고유문화를 발양하고 세계의 최신학술을 소개하고자 하였다.

주지하다시피 사지연구회는 동남학파의 초기 학술조직인데, 이들은 이후 동남 계열의 대학에서 줄곧 연구모임을 결성하였고 각종 간행물을 창간하여 연구의 결과물을 발표하고자 하였다. 당시 대부분의 학교 교재와 서적이 서로 베낀 것에 불과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없는 현실에 불만을 가진 사지학회의 지식인들은『사지학보』를 통해 중국인들이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 당당한 세계인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바랐다.『사지학보』의 중국과 세계의 역사 및 지리에 관한 연구는 바로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었던 것이다.

2)『學衡』

동남학파가 20세기 초 중국 남경의 남경고등사범학교에서 신중국 성립 전 중앙대학까지의 동남 계열 대학의 교수와 동문을 중심으로 형성된 학파라고 한다면 그 속에는 학형파 역시 포함될 수 있다. 학형파는 1922년부터 동남대학의 교수와 학생이 주축이 되어 간행한『학형』이라는 잡지에 글을 발표한 동인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학파이다.『학형』잡지의 창간 초기에 동인들은 분쟁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사장, 편집장, 편집위원 등의 직함을 만들지 말자고 의견을 모았다. 심지어 회원 또한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학형』에 글을 발표한 사람은 회원이고, 원래는 회원이었지만 더 이상 글을 발표하지 않는 사람은 회원이라고 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23] 사실 이러한 기준으로 회원을 구분하면『학형』에 글을 발표하였던 사람들은 모두『학형』의 회원이 되는 셈인데, 이 당시에는 지식인들이 자신이 창간한 잡지 외에 자신과 관련이 없는 간행물에도 글을 투고하거나 전체적인 문학적 주장이 다른 간행물에도 글을 발표하곤 했기 때문에 이들까지 모두 싸잡아서 학형파라고 부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

『학형』의 편집자 중 대다수는 청화학교(淸華學校) 출신으로, 구미에서 유학한 경험이 있는 자들이었다.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메이광디(梅光迪)는 류보밍과 미국의 노스웨스턴대학에서 학교를 같이

22) 劉掞藜,「儒家所言堯舜禹事, 僞耶?眞耶?」,『史地學報』, 第2卷, 第8號, 史地研究會, 1924.02, p.8.
23) 吳宓,『吳宓自編年譜』, 生活·讀書·新知三聯書店, 1995, p.229.

다녔고, 귀국 이후 그는 류보밍의 초청을 받아 남개대학에서 동남대학으로 옮겨와서 서양문학과 교수를 맡았다. 이후 메이광디는 하버드대학 비교문학연구소의 어빙 배빗[24] 교수 아래 수학하던 우미(吳宓)를 초청하였고, 우미는 북경고등사범학교와의 초빙약속을 깨고 동남대학으로 갔다. 『학형』의 주요인물 가운데 메이광디, 우미, 후셴쑤, 류보밍, 류이정 등은 어빙 배빗의 제자였는데, 이들은 배빗의 신인문주의 사상이 신문화운동의 대안이 될 수 있으며 당시 중국에 반드시 필요한 사상이라고 보았고 이를 수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선전하였다.

『학형』의 작가군은 앞서 살펴보았던 류보밍·류이정·장치윈을 비롯하여 우미가 동남대학에서 근무하던 시기에 함께 교편을 잡았던 교수들과 그들의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 혹은 우미의 청화학교 시절 친구와 그가 청화대학에서 근무하던 시기에 같이 일했던 동료 및 제자들, 『학형』과 뜻이 맞는 투고자들이 주축이 되어 『학형』을 창간하고 글을 발표하였다.

『학형』을 창간한 8명(류보밍, 호선숙, 류이정, 메이광디, 우미, 샤오춘진(蕭純錦), 샤오주핑(邵祖平), 쉬저링(徐則陵)의 인물 가운데 학형파의 학술 경향을 대표하는 통론과 술학 등에서 가장 많은 편수의 글을 발표한 이는 류이정이며, 그 다음으로 우미, 후셴쑤, 류보밍, 메이광디 등이 있다. 뮤펑린은 가장 일찍 『학형』에 글을 발표한 사지연구회의 학생 구성원이었으며 그 이후 징창지, 장치윈 등이 이어서 『학형』의 작가 대열로 뛰어들었다. 학생 회원 가운데 뮤펑린과 징창지는 류이정이 남경고등사범학교에서 키워낸 제자 가운데 가장 우수한 이들로, 류이정과 우미 외에 『학형』에 글을 가장 많이 발표하였다. 주지하듯이 『학형』은 앞서 서술한 『사지학보』와 1922년부터 1926년까지 발행기간이 겹치고 각각의 회원들은 이 기간에 두 군데 모두 글을 발표하기도 하였으며 서로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움을 주기도 하였다.

일반적으로 동남학파 속 구성원 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진 그룹은 학형파(學衡派)라고 한다. 학형파의 "학술을 논구하고 진리를 탐구하며, 국수를 밝히고 새로운 지식과 융합한다.(論究學術, 闡求眞理, 昌明國粹, 融化新知)"[25]는 종지는 동남대학 시기에 창간한 『사지학보』를 비롯하여 이후 동남학파 학자들이 창간한 『문철학보(文哲學報)』·『사학잡지(史學雜志)』·『지리잡지(地理雜志)』·『방지월간(方志月刊)』·『국풍』·『사상과 시대』 등의 간행물로 이어졌다.

『학형』은 당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던 신문화운동의 과격함과 파괴성, 신문화운동가들의 신문화와 구문화에 대한 이분법적 사고에 주목하였고 메이광디의 「신문화를 제창하는 것을 평함(評提倡新文化者)」, 우미의 「신문화운동을 논함(論新文化運動)」등 다수의 글을 발표해서 이를 비판하였다. 『학형』은 이러한 문장을 발표하면서부터 신문화운동에 반대하는 보수적인 단체로 전국에 이름을 알리게 되었다. 우미 등은 이미 유행이 지난 서양의 찌꺼기를 아무런 숙고의 과정 없이 받아들이는 분위기에 대해 일침을 가하였다. 궁극적으로 이들이 바라는 것은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니라 외국으로부터 들여오는 것들에 대해 선택적으로 수용하자는 것이다. 전통문화를 무조건 버리고 단절할 것이 아니라 마땅히 남겨야 할 것은 남기고, 서양문화를 무조건 수용할 것이 아니라 마땅히 버릴 것은 버리고 중국사회가 발전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들만 남겨서 수용하자는 입장이다. 그리하여 중서의 융합이 중국의 정신적인 가치를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류보밍은 5·4신문화운동

24) 어빙 배빗(Irving Babbitt, 1865-1933)은 미국 하버드대학에서 프랑스 문학과 비교문학을 교육하는 교수이자 문학비평가로서 '신인문주의(新人文主義, New Humanism)'의 대표인물이다. 신인문주의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자본주의에 대한 환상이 사라지고 전통 인문정신으로 돌아가서 세상을 구원하자고 주장하였던 사상이다. 당시 배빗에게서 직접 전수를 받은 메이광디, 우미, 후셴쑤, 류보밍, 류이정 등의 중국 학생들은 귀국한 이후 『學衡』 잡지를 창간하였다.

25) 學衡雜誌社, 「學衡雜誌簡章」, 『學衡』, 第1期, 學衡雜誌社, 1922, p.2.

이 가져온 새로운 조류와 해방 및 자유의 외침이 처음에는 사회를 동요하게 만들겠지만, 결국에는 사회로 하여금 새로운 가치를 받아들이게 하여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하여 5·4신문화운동에 대해 높은 평가를 내렸다. 다만 이때 필요한 것은 '자유'와 '책임감'과 같은 진정한 공화정신이라고 하여 새로운 가치를 받아들이는 자세에 대해 언급하였다.[26]

한편 『학형』은 문원(文苑) 칼럼을 개설하였고 구체의 시·사·문·부(詩詞文賦)를 게재하였다. 이는 신문학의 백화자유시, 백화소설, 백화산문과 반대되는 일종의 복고적이고 보수주의적인 문학형태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이 이렇게 시대적 흐름을 역행한 것은 전통에 대한 강한 집착이자 민족주의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3) 『國風』

1925년에 우미가 『학형』을 청화국학연구원으로 옮겨가면서 동남대 그룹은 『학형』을 대신하여 『동남논형』, 『국풍』, 『사상과 시대』 등과 같은 잡지를 간행하였다. 그중에서 본 절에서는 『국풍』을 살펴보고자 한다. 『국풍』은 동남대학의 교명이 변경된 중앙대학의 류이정, 뮤펑린, 장치윈 등이 1932년 9월 1일 남경에서 '국풍사(國風社)'를 결성하여 "중국 고유의 문화를 발양하고 세계의 최신학술을 밝히자(發揚中國固有之文化, 昌明世界最新之學術)"[27]고 주장하면서 간행한 잡지이다. 이 잡지 역시 『학형』의 "국수를 밝히고 새로운 지식과 융합한다"는 종지를 그대로 이어받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국풍사의 사장은 류이정이었고, 편집위원으로는 장치윈, 뮤펑린, 니상다(倪尚達)가 있었다. 장치윈과 뮤펑린은 류이정의 제자였고, 니상다는 남경고등사범학교 이화과(理化科)를 졸업한 학생이었다. 사장인 류이정은 『국풍』의 정신적 지주였고, 장치윈, 무봉림, 예상달이 실질적인 임무를 맡았다. 1932년 9월에 창간된 『국풍』은 원래 『국풍 반월간』이라는 이름이었다가 이듬해 1월에 간행된 제2권 제1기부터 『국풍』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고, 항전이 발발하기 직전인 1936년 12월에 정간되었다. 총 여덟 권, 제85기까지 출판되었고 발표된 글은 900여 편에 이른다. 『국풍』의 주요 투고자는 앞서 살펴보았던 학형파를 비롯한 당시 남경에 있던 지식인들이었다.

『국풍』에 글을 발표한 주요 작가로는 장치윈(40여 편 발표), 류이정(30여 편 발표), 징창지(16편 발표), 뮤펑린(14편 발표), 주커전(11편 발표) 등이 있다. 이들은 앞서 『사지학보』와 『학형』에도 글을 발표하였던 동남학파의 주요 인물이다. 당시 장치윈은 중앙대학의 지리학과 교수, 징창지와 뮤펑린은 같은 학교 역사학과 교수, 니상다는 물리학과 교수였고 류이정과 주커전은 비록 당시 중앙대학에서 교편을 잡고 있지는 않았지만 동남 계열 대학에서 많은 인재를 키워냈기 때문에 이들과는 긴밀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었다.

한편 『국풍』의 회원 가운데에는 과학자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주요 인물로는 주커전, 루위다오(盧於道), 빙즈(秉志) 등인데, 이들은 「신경해부학 자서(神經解剖學自序)」[28], 「우리의 장래 연구사업의 방향(我們以後研究工作的方向)」[29], 「우리의 역사시대의 기후변화(我們歷史時代之氣候變遷)」[30], 「동물학의 연구기초(動物學之研究基礎)」[31], 「직관적으로 관찰한 중국인의 뇌(從直覺觀察所得之

26) 劉伯明, 「共和國民之精神」, 『學衡』, 第10期, p.3.
27) 國風亞지, 『國風』, 第2卷, 第1期, 國風社, 1933.01, p.1.
28) 盧於道, 「神經解剖學自序」, 『國風』, 第1卷, 第4期, 國風社, 1932.10, pp.51-52.
29) 盧於道, 「我們以後研究工作的方向」, 『國風』, 第2卷, 第2期, 國風社, 1933.01, pp.4-11.
30) 竺可楨, 「我們歷史時代之氣候變遷」, 『國風』, 第2卷, 第4期, 國風社, 1933.02, pp.1-4.

中國人腦子)」[32], 「국내 생물과학의 근래 발전(國內生物科學近年來之進展)」[33]등의 글을 『국풍』에 발표하여 과학연구, 역사, 지리, 기후, 인종, 건강 등 광범위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이러한 글을 통해 살펴볼 때 『국풍』은 중국의 사상과 문화 외에 과학기술의 발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류이정은 『국풍』 발간사에서 "본 간행물의 사명은 역사적 발자취에 근거하여 정치를 이끌고 지리의 수호에 근거하여 백성의 고통을 치유하고자 하며, 사물의 이치를 연구하여 지식을 공고히 하고 옳은 것을 선택하여 굳게 지키고자 하는 것이다. 일가나 일파의 선입견에 구애되지 않고, 인격을 높이고 국격을 높이는 것을 위주로 한다."[34]라고 하였다. '국풍'이라는 단어는 『시경(詩經)』의 「국풍(國風)」에서 그 의미를 가져온 것으로, 현실에 대한 비판과 앞으로 중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고민해보고자 한다는 종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발간사에서 알 수 있듯이 『국풍』은 동남학파들이 이전에 간행했던 『사지학보』나 『학형』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이전의 간행물과는 달리 '정치', '국격'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면서 『국풍』의 주장을 짐작할 수 있다.

『국풍』을 창간했던 당시는 9.18사변이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라서 국난의 시기에 인문과 과학을 모두 중시해야 한다는 구국의 주장이 제기되었고 학술계에서도 지식인들은 마땅히 국가와 국민을 책임져야 한다는 지식인의 책임론이 부각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국풍』은 시대적 흐름과 중국사회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구국에 앞장서고자 하였다. 예컨대 『국풍반월간』창간호만 살펴보더라도, 발간사 외에 류이정의 「정의의 이로움(正義之利)」와 「도풍루기(陶風樓記)」, 장치윈의 「열하성 형세론(熱和省形勢論)」, 뮤펑린의 「일본개화론(日本開化論)」, 장위저(張鈺哲)의 「천문과 인생(天文與人生)」, 니상다의 「극단파 무선전신의 기억(極短波無線電之回顧)」, 판춘중(範存忠)의 「談談我國大學的外國文學課程」, 쉬진즈(徐近之)의 「위북(渭北)에서 강동(江東)으로 보내는 편지(自渭北寄江東的一封信)」, 리싱즈(李行之)의 「감숙학파(甘肅學派)」, 「무석 문헌 중의 하나(無錫文獻之一)」, 「중국 토지와 인구의 새로운 통계(中國土地人口之新統計)」등의 글이 실렸는데, 이를 통해 이들이 당시 중국의 토지와 인구, 교육 외에도 일본이나 서양의 발전상 등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 수 있다.

특히 『국풍』에는 당시 중국을 침략한 일본이라는 나라의 역사와 경제, 문화, 인구, 군비 등에 대해 연구한 글이 20 여 편이나 발표되었다. 또한 중국의 화북(華北)이나 동북(東北)지역의 변경 상황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자세히 설명한 글도 여러 편 발표되었는데, 일본이 침략한 지역의 지리적, 문화적 상황에 대해 연구한 글이 돋보인다. 뮤펑린이 연재한 「일본사 개관(日本史鳥瞰)」, 장치윈의 「열하성 형세론(熱河省形勢論)」 등이 그 예이다. 이러한 글은 민족위기의 긴박한 상황에서 적국 및 전쟁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 연구하여 자국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자 쓴 글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학형』이 창간 초기에 신문화운동가들의 문학과 문화에 관한 주장을 비판하고 신문화운동의 이분법적이고 극단주의적 성격을 비판한 것과 달리 『국풍』은 중국의 전통 학술, 특히 국학 연구에 초점을 맞추어 국학으로 국민들의 민족정신을 각성시키고자 노력하였다. 그리하여 『국풍』은 중국문화를 보호하고 더 발전시켜야 한다는 기본적인 의무와 더불어 민족주의를 제창하였다. 류이정은 19

31) 秉志, 「動物學之研究基礎」, 『國風』, 第3卷, 第9期, 國風社, 1933.11, pp.1-9.
32) 盧於道, 「從直覺觀察所得之中國人腦子」, 『國風』, 第3卷, 第10期, 國風社, 1933.11, pp.1-3.
33) 秉志, 「國內生物科學近年來之進展」, 『國風』, 第3卷, 第12期, 國風社, 1933.12, pp.5-20.
34) 斯刊職志, 本史跡以導政術, 基地守以策民瘼, 格物致知, 擇善固執 ; 雖不囿於一家一派之成見, 要之隆人格而升國格爲主. 柳詒徵, 「發刊詞」, 『國風』, 第1卷, 第1期, 國風社, 1932.09, pp.2.

34년『국풍』제7기에 발표한「중국문화에 대한 소견(對於中國文化之管見)」에서 각 민족의 문화에는 모두 그 자체의 가치가 있으며, "중국의 병폐를 구하려면 반드시 세력이나 이익보다 윤리를 중시해야 한다."[35]라고 하여 다른 민족의 문화를 인정하고 포용하는 태도를 보여주었으며 그 중에서도 윤리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그들은 또한 공자(孔子)를 소환해서 공자학을 발전시키는 것이야 말로 쇠퇴한 것을 일으키고 폐단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들이 보기에 공자는 중국의 고대와 현대를 이을 수 있고, 이를 집대성한 위대한 인물이라는 것이다. 특히 징창지와 같은 이는「공자의 진면목(孔子的眞面目)」이라는 글을 통해 공자가『육경(六經)』을 정리한 것의 요지는 '도덕화'와 '과학화'라고까지 주장하였다.[36]

게다가『국풍』제1권 제3호에는 공자 탄신을 기념하는 '성탄 특간(聖誕特刊)'을 발행하여 메이광디의「공자의 풍모(孔子之風度)」, 류이정의「공자학에 대한 소견(孔學管見)」,「명론(明論)」, 뮤펑린의「공교를 이야기하다(談談孔教)」,「공자를 이해하는 방법(如何了解孔子)」, 장치윈의「스승의 날(教師節)」, 징창지의「공자의 진면목(孔子的真面目)」, 판춘중(範存忠)의「공자와 서양문화(孔子與西洋文化)」, 궈빈허(郭斌和)의「공자와 아리스토텔레스(孔子與亞裏士多德)」등의 글을 실었다. 이와 같은 글을 통해 공자와 공자학, 사표(師表)로서의 공자에 대해 살펴보는 동시에 중국문화 본위의 입장에서 공자의 유가사상과 서양의 희랍 사상을 비교하고 상호 융합을 꾀하였다.

『국풍』역시『사지학보』,『학형』과 마찬가지로 전통문화를 발전시키는 것이 국난의 시기 나날이 침체되고 있는 민족정신을 제고할 수 있는 방도라고 보았다. 우선 중국의 전통문화와 문학을 통해 민족의 자긍심을 높이고 서양에 비해 뒤떨어져있는 과학 연구에 힘쓰면 자연히 국력이 제고되고 국민들은 국가 관념을 가지게 되어서 국방을 공고히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4)『思想與時代』

본 절에서 살펴보고자 하는『사상과 시대』는 1941년부터 1948년까지 항전시기와 항전 이후 중국 학계에 큰 영향력을 미쳤던 지식인 간행물이다. 이 시기는 지식인들의 현실 정치 개입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시기이기도 하다.[37] 이 잡지는 1941년 8월에 창간되었는데, 이 시기는 항전시기로 절강대학이 귀주성(貴州省) 준의시(遵義市) 미담현(湄潭縣)으로 옮겼던 때이기도 하다. 핵심인물로는 장치윈, 장인린(張蔭麟), 첸무(錢穆), 셰유웨이(謝幼偉), 궈빈허(郭斌龢), 허린(賀麟), 주광첸(朱光潛) 등이 있다. 장치윈은 장인린과 함께『사상과 시대』를 창간하였는데, 창간 당시 절강대학 총장인 주커전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회원들은 대부분 절강대학(浙江大學), 서남연대(西南聯大), 무한대학(武漢大學) 등의 대학 교수였는데, 이들은 장치윈을 중심으로『학형』을 비롯한 각종 간행물에 다수의 글을 발표하고 활발하게 활동했던 동남학파 인물이다.

『사상과 시대』는 1945년 2월에 출간한 제40기 이후 2년 동안 정간되었다가 항전이 끝나고 절강대학이 다시 항주로 돌아오면서 1947년 1월에 복간되었고, 이듬해 11월에 출간된 제53기를 끝으로 종

35) 柳詒徵,「對於中國文化之管見」,『國風』, 第4卷, 第7期, 國風社, 1934.04, p5.
36) 景昌極,「孔子的眞面目」,『國風半月刊』, 第1卷, 第3期, 國風社, 1932.09, p57.
37) 학술 독립의 정신을 무엇보다도 강조했던 후스 역시 1938년 9월에 국민 정부 하에서 주미 대사로 임명되었는데, 국난의 시기에 자신 또한 피할 길이 없어 대사 일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며 이후 전쟁이 끝나면 다시 자신을 가르쳐주었던 책 속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술회하면서 부득이하게 대사직을 맡은 고충을 토로하였다. 胡適,「致江冬秀 1938.9.24」,『胡適書信集(中)』, 北京大學出版社, 1995, pp.752-753.

간되었다. 이 잡지는 항전시기에 급작스럽게 간행이 되어서 별도의 「발간사」가 없으며 이후 복간될 때 편집장인 장치윈이 다음과 같은 「복간사(復刊辭)」를 발표하였다.

> "지난 몇 년간의 사업을 살펴보면, 본지는 분명한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다. 간단하게 말해 '과학시대의 인문주의(科學時代的人文主義)'이다. 과학의 인문화는 현대 교육에 있어 중요한 문제이며, 본지가 노력하고자 하는 방향이기도 하다. 구체적으로는 새로운 지식을 관통하고 문(文)과 질(質)을 통하게 하며 통재교육(通才教育)을 위해 방향을 인도하는 방도로 삼고 현대 민치를 위해 그 토대를 튼튼히 하는 것이다."[38]

상술하였듯이 『사상과 시대』잡지는 '과학시대의 인문주의'[39]를 종지로 삼아 '과학의 인문화'를 주장하였다. 이는 『사지학보』 시기부터 동남 계열 학교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바였다. 장치윈은 1941년 8월 제1기에 발표된 「시대관념의 인식(時代觀念之認識)」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다음과 같은 역사관을 밝혔다.

> 한 나라의 민족성은 비록 일률적이지 않지만, 그 역사는 오래도록 변하지 않는다.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창조를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전통의 전형이 있다. 무릇 역사가 오래될수록 민족성은 그 내용도 오래되고 견고해진다. 민족 부흥설은 이를 근거로 한다. 역사는 면면히 이어져 내려오며 현재에는 과거의 잠재력이 포함되어 있다. 역사는 또한 누적된다. 매 순간에 새로운 성분이 들어와서 현재는 과거와는 결코 다르게 된다. 우리는 과거를 회복할 수 없고 과거를 없앨 수도 없어서 과거를 이어가는 것이다.[40]

이와 같은 역사인식은 동남학파의 공통된 역사인식이다. 후스가 "한 시대에는 그 시대의 문학이 있다"[41]고 하면서 과거의 것을 버리고 새로운 문학을 창조해야 한다고 주장한 진화론적 문화관에 상대하여 동남학파는 줄곧 신구의 개념을 상대적인 것으로 간주하였고, 전통을 밑거름으로 삼아 새로운 것을 창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첸무(錢穆)는 1944년 3월 제32기에 발표된「동서의 접촉과 중국문화의 새로운 경향(東西接觸與中國文化之新趨向)」이라는 글을 통해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이 인류에게 큰 재앙을 가져왔고, 더 나아가 고도로 발달한 서구 자본주의의 물질문명과 자본주의 제도의 폐해를 드러냈다고 서술하였다. 그는 이로 인해 서구를 세상의 중심으로 보는 사상이 흔들리게 되었고, 결국 중국 전통문화를 통해 서양문화를 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서 첸무는 중국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발전시킴으로써 민족 자신감을 제고하여 항전에서 승리하면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까지도 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42]

이들은 기본적으로 역사는 누적되는 것으로 현재는 과거를 이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전통문화를 지키고 더 발전시켜야 한다는 관점을 견지하였는데, 한걸음 더 나아가 자신들의 발전된 전통문화를

38) 就過去幾年的工作看來, 本刊顯然懸有一個目標, 簡言之, 就是'科學時代的人文主義'. 科學人文化是現代教育的重要問題, 也是本刊努力的方向. 具體來說, 就是融貫新舊, 溝通文質, 爲通才教育作先路之導, 爲現代民治厚植其基礎. 張其昀, 「復刊辭」,『思想與時代』, 第41期, 1947.01, p.1.

39) 張其昀, 「復刊辭」,『思想與時代』, 第41期, 思想與時代社, 1947.01, p.1.

40) 張其昀,「時代觀念之認識」,『思想與時代』, 第01期, 思想與時代社, 1941.08, p.42.

41) 一言以蔽之, 曰:一時代有一時代之文學. 胡適 著, 歐陽哲生 編, 「歷史的文學觀念論」,『胡適文集』, 第2卷, 北京大學出版社, 1998, p.27.

42) 錢穆, 「東西接觸與中國文化之新趨向」,『思想與時代』, 第32期, 思想與時代社, 1944.03, p.1.

통해 세계를 구해야 한다는 관념까지 생겨났다. 또한 5·4신문화운동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기보다는 외래문화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던 시기에 외부 변화에 적절히 대응한 바람직한 예라고 평가하였다.

예컨대 1941년 8월 제1기에 발표된 허린의 「유가사상의 새로운 발전(儒家思想的新開展)」이라는 글에서는 사상과 문화적 측면에서 현대는 고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았으며 신문화운동기는 오히려 유가발전의 전환기라고 평가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신문화운동은 비록 공자점(孔子店)을 타도하고 유가사상을 전복하는 커다란 운동이었지만, 실제로는 유가사상을 새롭게 열게 한 공적과 중요성은 예전의 쩡궈판(曾國藩)이나 장즈둥(張之洞) 등과 같은 인물이 유가사상을 제창했던 것을 훨씬 뛰어넘을 것이다."[43]라고 하여 신문화운동이 유가의 경직성과 형식성, 개성의 속박 등의 부패한 부분을 깨부수고 제거하였다고 보아 높은 평가를 내렸다. 또한 1943년 2월 제19기에 발표된 「전통역사와 철학을 논함(論傳統歷史哲學)」에서 장인린은 5·4신문화운동에 대해 본토 문화가 외래문화의 영향을 받아 사회가 위기에 직면했을 때 변화에 대응하고 조치를 취한 하나의 예라고 평가하였다.[44]

특히 이들은 당시가 서양의 과학기술이 발달한 '과학시대'임을 인정하고 중국을 서양과 비교해보았을 때 과학방면의 지식이 가장 부족하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서양의 과학을 배우는 것 외에 중국이 자립할 방법이 없다고 단언하고 서둘러 과학의 서구화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5·4신문화운동을 거치며 과학주의로까지 발전한 중국의 근대 과학은 마르크스주의 속에 내재되어 있는 과학적 사회주의라는 관념을 받아들이게 하였다. 1930,40년대에 과학은 더 이상 하나의 이념이나 사상으로 존재하기 보다는 더욱 다양한 형태로의 변형을 도모하고 있었다. 『사상과 시대』 역시 이러한 지식인들의 과학에 관한 고민을 담고 있다. 장치윈은 "과학과 과학정신의 발전은 현대정신이 변화하기 위한 기본적인 내용"[45]이라고 하였고 과학 연구가 개인의 자유로운 발전에 도움이 되고 궁극적으로는 정치에 공헌하여 중국이 강대해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사상과 시대』는 또한 서양의 과학과 동양의 인문이 결합할 것을 주장하였는데, 특히 "과학의 임무는 사람과 사물이 각자의 역할을 하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있다."[46]라고 하여 과학을 활용하여 인생관을 총체적으로 개혁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1942년 5월 제10기에 발표된 루위다오의 「Bernal의 『과학의 사회적 작용』(貝納兒「科學之社會作用」)」이라는 제목의 글에서는 과학이 사회와 관련이 없으며 소수 천재들의 산물이자 진리를 위한 진리라는 과거의 인식과는 달리 이제는 역사, 교육, 전쟁, 국제관계, 통신, 사회개혁 등을 위해 과학이 활용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47]

이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전통학문을 연구하는 과정에서도 현대의 과학정신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과거 한학자들의 치학 정신과 방법이 현대의 과학정신과 일맥상통하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노력하였다. 1944년 11월 제37기에 발표된 샤오장(蕭璋)의 「왕넨쑨 부자의 치학정신과 방법(王念孫父子治學之精神與方法)」이라는 글은 청대 언어학자인 왕넨쑨(王念孫), 왕인즈(王引之) 부자의 치학 방식과 그 정신에 대해 연구한 것으로, 샤오장은 이들의 치학정신인 '구시(求是)'가 현대 과학정신과 상통한다고 주장하였다.[48]

43) 賀麟.「儒家思想的新開展」,『思想與時代』, 第01期, 思想與時代社, 1941.08, p.14.
44) 張蔭麟,「論傳統歷史哲學」,『思想與時代』, 第19期, 思想與時代社, 1943.08, pp.4-16.
45) 張其昀,「論現代精神 (續)」,『思想與時代』, 第03期, 思想與時代社, 1941.10, p.46.
46) 張其昀,「論現代精神 (續) 」,『思想與時代』, 第03期, 思想與時代社, 1941.10, pp.44-46.
47) 盧於道.「貝納兒『科學之社會作用』」,『思想與時代』, 第10期, 思想與時代社, 1942.05, p.47.
48) 蕭璋,「王念孫父子治學之精神與方法」,『思想與時代』, 第37期, 思想與時代社, 1944.11, p.1.

1945년 2월 제40기에 발표된 뮤웨(繆鉞)의 「구양수의 치학정신(歐陽永叔治學之精神)」이라는 글에서는 구양수의 한학에 대한 회의와 비판정신을 높이 평가하였고,[49] 1947년 1월 제41기에 발표된 허린의 「왕안석의 심학(王安石的心學)」이라는 글에서는 서양 철학에 근거하여 중국의 전통적 사고를 해석하였는데, 왕안석 심학의 출발점이 '자아를 세우는 것(建立自我)'이며 이는 신문화운동의 '개인 해방'과 '개인에 대한 강조'라는 부분과 부합한다고 보았다.[50]

한편 과학시대의 인문주의를 강조하였던 『사상과 시대』월간은 대부분의 학술간행물이 정부의 지원을 받기 어려웠던 항전시기에 정부의 보조를 받아 오랫동안 간행물을 출판할 수 있었다. 여기에는 국민당 정권 아래 활발한 정치활동을 하였던 장치윈과 그의 친구 천쉰츠(陳訓慈)의 공이 컸다고 할 수 있다. 천쉰츠의 형인 천부레이(陳布雷)는 장제스 정부의 고위급 인사로, 장제스에게 장치윈과 『사상과 시대』를 소개하였고, 이후 정부의 예산을 받은 『사상과 시대』는 학술지로서 국민당에 조언하는 역할도 담당하게 되었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1900년대 초 남경의 동남대학을 중심으로 한 지식인 그룹인 일명 '동남학파'라는 학술유파의 형성과정과 그들의 문화적·문학적 주장에 대해 살펴보았다.

동남학파는 남경고등사범학교로부터 그 학교의 교명이 변경된 여러 학교에서 긴밀한 인적 유대관계를 중심으로 각종 잡지를 간행하고 활발하게 학술활동을 하였던 그룹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류이정, 류보밍, 장치윈이라는 인물은 이 그룹의 인적 네트워크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인사였으며 이들을 포함한 동남학파의 지식인들은 자신들의 전공분야를 중심으로 시대와 사회에 관련된 다양한 주제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였고 이를 잡지에 발표하였다. 대체적으로 당시 다른 간행물과 비교해보았을 때 확실히 보수주의적인 성향이 있지만, 서양에 비해 여러모로 낙후되었던 중국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면으로 고군분투하며 연구한 흔적이 돋보인다.

류이정, 류보밍, 장치윈을 중심으로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한 동남학파는 교명은 바뀌었지만 끊임없이 간행물을 창간하였다. 간행물 가운데에서 그들의 초기, 중기, 후기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사지학보』, 『학형』, 『국풍』, 『사상과 시대』라는 잡지의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이들 간행물은 기본적으로 동남 계열 학교의 분위기와 시대적 분위기를 담고 있으며 국가와 민족을 위한 동남학파 지식인들의 고민을 엿볼 수 있다. 초창기에 간행한 『사지학보』 같은 경우는 5·4신문화운동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거나 비판하지는 않았지만, 역사와 지리연구를 통해 보다 많은 민중을 각성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돋보인다. 『사지학보』보다 보수적인 분위기를 더욱 강하게 드러낸 『학형』은 국수를 밝히고 새로운 지식과 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5·4신문화운동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으나, 일부 논자들은 비판보다는 새로운 가치를 받아들이는 자세가 더 중요하다고 하면서 '자유'와 '책임감'이라는 덕목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국풍』은 9.18사변이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 창간되었으며 『학형』과 마찬가지로 중국 고유의 문화를 발양하고 세계의 최신학술을 밝히자고 주장하였다. 국난의 시기 『국풍』은 앞서 창간한 『사지학보』나 『학형』보다 시대와 중국 및 국제사회에

49) 繆鉞, 「歐陽永叔治學之精神」, 『思想與時代』, 第40期, 思想與時代社, 1945.02, pp.22-25.
50) 賀麟, 「王安石的心學」, 『思想與時代』, 第41期, 思想與時代社, 1947.01, pp.22-25.

대한 관심이 커졌고 중국의 역사와 지리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상황, 그중에서도 특히 일본의 지리와 문화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아래 『국풍』은 중국문화를 더욱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가지고 민족주의적 각도에서 공자 연구에 박차를 가하였고, 공자를 중심으로 하는 중국 전통문화의 바탕 위에 서양의 고대 희랍 사상을 비교하고 융합시키고자 하였다. 『사상과 시대』는 '과학시대의 인문주의'라는 종지를 정하였고 5·4신문화운동에 대해서도 재평가를 하였다. 5·4신문화운동이 유가의 경직성이나 형식성과 같은 부정적인 면을 제거해주었기에 유가발전에 있어서 일종의 전환기가 되었으며 본토문화가 외래문화의 영향을 받아 사회가 위기의 상황에 직면했을 때에도 변화에 대응하고 조치를 취한 하나의 긍정적인 예라고 보아 높은 평가를 내렸다. 『사상과 시대』는 특히 이전의 『학형』이나 『국풍』과는 달리 과학과 과학정신을 강조했는데, 과학의 발전은 현대정신이 변화하기 위한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보고 과학이 개인의 자유로운 발전과 인생관 개혁, 사회의 개혁, 역사, 교육 등 다방면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지적하여 과학의 범주를 넓히기도 하였다.

한편 장치윈과 첸무가 발표한 글 가운데에는 당시 국민당 정권에 조언하는 정론성 글이 많은데, 그들의 조언은 국민당이 정치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장치윈은 「「남고(南高)」의 정신(「南高」之精神)」이라는 글에서 동남학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 세상 사람들은 남고학풍이 보수주의에 치우쳐있다고 말하는데, 이는 오해이다. 보수적이라기보다는 신중하고 사실에 비교적 가깝다고 말하는 편이 낫다. 남경고등사범학교의 정신 가운데 과학적인 부분이 매우 많다. 그들은 편견에 갇혀있지 않고 사적인 견해에 얽매이지 않으며 말을 할 때에는 정확하게 하고자 힘쓰고 망령된 말을 하지 않아서 자유로운 공기와 진지한 정신이 가장 풍부하다.[51]

장치윈이 말한 신중하고 진지한 학술정신이 바로 동남학파의 성격을 가장 잘 대변해주는 말이 아닌가 싶다. 오랜 기간 동안 하나의 학술 네트워크를 이어오면서 시대 상황에 따라 각각 그 주장이 조금씩 다르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학문에 대한 것이라면 그것이 중국의 것이든 서양의 것이든 매우 신중하고 진지하게 접근했고, 몸소 실천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그들의 학술 네트워크에는 일종의 민족주의 정서가 내재되어있는데, 이는 근대 중국에 있어서 여타의 국가에 비해 훨씬 큰 의미를 가지는 단어이자 동남학파와 떼려야 뗄 수 없는 의미를 가진 단어라고 할 수 있다. 민족과 민족의 정서에 깊이 스며들어 다양한 모습으로 그 형태를 드러내는 민족주의 콤플렉스는 혼란스러운 시대적 흐름 속에서 보수주의의 한 축을 담당하여 중국의 학술과 문화의 활로를 모색하였던 동남학파의 모습에서 엿볼 수 있었다.

51) 柳詒徵, 「「南高」之精神」, 『國風』, 第七卷, 第二期, 國風社, 1935.09, p.18.

메 모

【문학분과Ⅱ】 발표 ②

在批判、反思中建构中国精神文化内涵
——以卢新华为研究对象

毕文秀*

【目 录】

1. "个人化写作"
2. 表层上的"个人化写作"
3. 里层上的文化隐喻
4. 文化危机感
5. 精神内涵的构建

1. “个人化写作”

20世纪80年代以后，中国开始逐渐脱离集体主义意识形态，文学也逐渐独立于国家、政治及时代命题，“个人化写作”成为20世纪90年代文学界尤为瞩目的一种写作现象，“个人化写作”这一概念也被广泛用于文学批评之中。关于“个人化写作”这个概念，有研究者认为“这一提法首先是由作家（陈染）本人命名并加以阐发的。陈染在1996年出版的『私人生活』一书的‘附录’中以及一些报刊上陆陆续续地发表了一系列有关‘个人化写作’的看法。陈染并没有加以系统论述，而是以一种漫谈和问答的形式从各个侧面向我们提示了这一提法的内在涵义。”[1] 刘小新在考察“个人化写作”这个概念时，认为“1994年蔡翔在『日常生活的诗情消解』中已经讨论了小说的公共性与个人化的努力之间的矛盾关系。1995年12月戴锦华和王干关于女性文学的对话中，直接提出了‘个人化写作’的说法。”[2]

戴锦华从三个层面界定了“个人化写作”的含义：一是个性风格，鲁迅就是一个在风格意义上相当个人化的作家；二是只从个人的视点、角度切入历史，构成对权威话语和主流叙事的消解。三是对女作家而言，“个人化写作”有着自传意义。女性写作个人生活、披露个人隐私，构成对男性社会、道德话语的攻击。[3] 从戴锦华对“个人化写作”的定义中，可以看出其趋向于广义上的个人写作。即，不是为政治及主流话语服务的文学创作，即可划为“个人化写作”范畴之中。而在中国文学批评界“个人化写作”这一批评术语多用于20世纪90年代以展现女性个人生活隐私为主的创作。有论者把“个人化写作”看作一种思潮，将其发展分为三个阶段，“第一阶段以鲁羊、东西等人为代表，他们在创作中描绘个人的现实生存体

* 부산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강사（wenxiu79@hanmail.net）。
1) 樊波，「试析“个人化写作”及其他」，『文艺理论与批评』，1998，（01），p.44。
2) 刘小新，「个人化写作、总体论及介入」，『学术评论』，2012年第3期，p.15。
3) 参考南帆主编，『二十世纪中国文学批评99个词』（杭州：浙江文艺出版社，2003.9），pp.28-31。

验，并杂揉了自我的审美感受和思考，始终恪守个人价值理念；第二是以陈染、林白等为代表的女性‘个人化写作’，与第一阶段作家不同的是，她们在创作中普遍将视角圈定在女性人物身上，用灵动精细的笔法刻写女性生存的隐秘感受，以欲望推动女性意识的觉醒，用理性反叛男权话语世界；第三是卫慧、棉棉们的‘身体写作’及以沈浩波、尹丽川等人为代表的‘下半身写作’和‘胸口写作’，他们彻底抛弃了在前两个阶段的作家创作中尚有余温的理性原则，放纵躯体及物质的欲望，追求一种‘肉体的在场感’。”[4] 如果说20世纪90年代中国文学界“个人化写作”初始是为了讲述、展现小人物的故事的话，其出现和发展有其必然性和合理性，但是也使“个人化写作”陷入了只拘泥于个人体验、丧失了文学的审美功能、缺乏人性内涵的困境。[5] 后来发展到以女性身体为表现对象，甚至出现“下半身写作”等大量以展现女性躯体及暴露人的性欲望，可以说走上了通俗色情文学之路，即文学在商业操纵下走上了消费文化道路。文学成为消费文化同资本市场有密切关系。资本和市场利用这种个人隐私所隐含的巨大商业潜力，一方面满足了消费者窥探别人隐私的好奇心理需求，同时又打着“个人主义”的招牌，试图与群体及社会对立、分离。如果说“个人化写作”“主张和强调个体和群体的完全对立和分离、私人和社会的完全对立和分离、主观和客观的完全对立和分离。换个角度讲，这也就是主张和强调‘个别’和‘一般’、‘特殊’和‘普遍’的对立和分离。”[6] 而实际上个人同群体、私人和社会实际上存在着密不可分的内在关联，作品中的人物也不是独立存在的，而是存在于“艺术作品的对象性世界”之中，作家陈染不过是因沉溺于自己在作品中所运用的种种艺术手法，如“感官印象”、“内心分析”、“梦的压缩”、“回忆”等，“从而产生认识上的迷障和偏差”，以为个人可以超越群体与社会而存在。[7] 而在资本与市场的主导下，“个体主义往往被高度组织化的市场社会原子化，进而被纳入市场这一更具民主表象的总体论之中。文学和文学理论越来越难以真正有效地切入日常现实和当下的文化经验，越来越显得软弱无力，逐渐退出社会文化论述的核心场域。”[8]

中国大陆文学界的“个人化写作”最终走向了只是展现个人性欲望的消费文化之路，而丧失了文学的审美及有效切入当下文化经验。美籍华人作家卢新华的『紫禁女』这部小说可以说是典型的“个人化写作”，『紫禁女』这部小说可以分为两个层面，一个是表层上的“个人化写作”，里层是隐形的文化隐喻与批评。作者卢新华表面上在写个人欲望，实际上借以批判现代资本，思考中国文化走向。

2. 表层上的“个人化写作”

小说『紫禁女』讲述的是一个有着幽闭症的女子石玉的故事，以第一人称有限视角的叙述方式，没有采用按照时间的流动引出故事的发生、发展这样的叙述结构，而是采用意识流文学中常用的表现手法，比如直接内心独白，时空交错，自由联想等表现手法，讲述了石玉这个有着幽闭症女子的曲折的爱情故事。小说伊始，引子里面主人公就说，

> “作为一个女人，因为身体的某个隐秘的部位出了一些偏差，我已经被世人在背后指指戳戳了很久，我决计不再藏藏掖掖地面对那些猎奇的目光……我打算把自己身体的隐秘以及和它有关的心灵体验一并呈

4) 陈桂芳，「悬崖边上的独舞—论“个人化写作”思潮」，『名作欣赏』，2011，（03），p.160。
5) 吴亦繁，「“个人化写作”探究与反思」，『河北广播电视大学学报』，2015，第20卷第5期，pp.54-56。
6) 樊波，「试析“个人化写作”及其他」，『文艺理论与批评』，1998，（01），p.45。
7) 樊波，「试析“个人化写作”及其他」，『文艺理论与批评』，1998，（01），p.46。
8) 刘小新，「个人化写作、总体论及介入」，『学术评论』，2012年第3期，p.17。

现出来……现在的我已有足够的勇气在众目睽睽下赤身裸体登上古今上下时光流转的舞台，在宇宙的大背景上展现我姣好的身材，漂亮的脸蛋，丰满的乳房，修长的大腿，还有时不时会从大腿根部脱落的……”9)

“身体的某个隐秘部位”、“赤身裸体”、“娇好的身材”、“漂亮的脸蛋”、“丰满的乳房”、“修长的大腿”，“是不是会从大腿根部脱落的……”这些火辣辣的字眼，给人的第一感觉就是这是一部关于女性个体经验的“个人化写作”。我这里采用“个人化写作”更多的指的是展现关于女性个体情欲、性爱的渴望以及对私处的描写。小说中多处涉及到这方面的描写。主人公石玉和吴源深深相爱，在大学毕业之前，他们没有能够抵制住性的欲望，而偷吃禁果，在这一过程中吴源发现石玉是一个有着幽闭症的女人。石玉为了能够和爱人吴源结婚并过上正常的夫妻生活，决定做手术。可是手术失败的几率也很高。即便当时手术成功了，可重新愈合的可能性也很大。手术后，医生便给了她一个男性生殖器，让她放在她的下体以防止重新合拢。本来是为了怕手术失败而采取的防备措施，可是“它的时而扭扭捏捏地推进，时而毫无顾忌地破门而入，渐渐地竟然给我一种压迫的快感，撞击的喜悦……久而久之，即便简单的推进拔出，也有一种让人无限向往和回味的乐趣……”10)本来只有夜间才会做的事情，中午午休的一小时左右的时间内，“也开始安排起它和我身体的频繁的约见和接触。”11)石玉开始享受它所带来的性快感。不幸的是，三个月后那个男性生殖器无法再进入到石玉的身体之中了，这意味着手术是失败的。不仅如此，石玉是“石女”的传闻也在学校传开，迫于舆论压力，中国没有石玉可以立足的地方，她最终选择离开故乡远赴美国生活。在上海进修汉语的布鲁斯，他来自美国。石玉本想去美国留学，可是需要经济担保人。她便请布鲁斯帮忙，可是布鲁斯家人不同意，布鲁斯便以假结婚的名义帮助石玉离开故土去了美国。到了美国之后，石玉要和布鲁斯同居两年才能够办理离婚手续，顺利拿到美国绿卡。本来布鲁斯让石玉一个人睡在床上，他睡沙发。石玉是一个善解人意的女子，到布鲁斯一个人睡沙发不舒服，就建议俩人合床睡，只是一个人一个被窝。尽管石玉是一个有着幽闭症的女人，但是她有正常人的正常的生理需求及性需求，是幽闭症让她不得不忍受着无性的生活。她渴望得到异性的抚摸与进入。同布鲁斯同居时，起初她厌恶布鲁斯身上的气味，可是同布鲁斯同床之后，她享受着布鲁斯的抚摸。如果说中国大陆作家陈染、林白在他们的“个人化写作”中以回忆的方式从儿童视角来展现女性的性启蒙、性需求，甚至以此来对抗男权中心主义，如陈染的『私人故事』、林白的『一个人的战争』，可是她们故事中的女主人公性格比较孤僻、不合群，小说中充斥着一种有意脱离集体的同时又有些孤芳自赏的意识。而卢新华的『紫禁女』女主人公石玉则是一个积极追求爱情，热爱生活的人。她是处于不得已，而不得不选择自慰的方式来满足自己的性需求，尤其是与布鲁斯离婚之后。

石玉是先天性的半幽闭状态，如果不打开，没有办法进行正常的性生活，更不可能受孕而繁衍后代。作为一个女性，有着爱与被爱的权力，况且她又和吴源深深相爱，为了吴源，她肯冒险做手术。在美国同布鲁斯离婚之后，石玉又和常道深深相爱，为了能和常道过上正常的夫妻生活，她在美国再次做了手术，这次手术结果非常成功。出人意料之外的是，常道是天生的发育不良，根本没有办法满足石玉的性需求。石玉开始想到吴源，可是此时的吴源那原先生气勃勃、积极进取、奋发向上的一族，如今竟成了垂头丧气、萎靡不振、软弱无能的一摊，无法满足石玉压抑已久的性欲望。由此，石玉开始转向了跟布鲁斯偷情，以满足自己的性欲。石玉也因欲望而沉沦。

9)卢新华，『紫禁女』，武汉：长江文艺出版社，2004.08，p.1。
10)卢新华，『紫禁女』，武汉：长江文艺出版社，2004.08，p.103。
11)卢新华，『紫禁女』，武汉：长江文艺出版社，2004.08，p.103。

一切污秽恶浊的东西都是从清白无辜开始的。

一切心灵的创痛也很容易就转化为对身体的迫害。

那晚，我反复要了很多次。

在那种昏天黑地的黑暗里，我将自己的灵和肉彻底交给了魔鬼……

我已然变了。我的身体完全不受我的控制。我甚至都不能软弱地对自己的身体说一声“不”……

我虽然一次次地满足，但我那里始终还是一个巨大的“空洞”，也像是宇宙的黑洞，无时无刻不在企图吸纳一切可以吸纳的物质……

我变得很下贱。

我在大布鲁斯这个巨大的“钟乳石”似的身体上毫无羞耻之心地攀上爬下……我还贪婪地嗅闻他身上的狐臊臭……

我也变着所能想到的各种花样，在一阵阵令我惊悸和目眩的躁动中，毫无廉耻地体验和享受着苦痛而肮脏的快乐……

总之，那夜，我很像一条水蛇，用我无穷无尽的欲望死死缠住了大布鲁斯这头高大壮硕的巨象……终于，他的身体渐渐被掏空了，吼叫声越来越低沉，并且不断地遗下“赤字”……[12]

石玉被压抑已久的性需求，通过大布鲁斯的巨大而得到满足的心理，作者卢新华以诗性的语言将其表达出来。欲望尽管得到满足，可是内心深处的空洞却是无法填补的，也许肉体上的不断索取与被满足，正意味着灵魂的堕落与心灵的空虚。石玉起初对布鲁斯并没有好感，布鲁斯曾将石玉的名字喊成“石女”，而且石玉在中国做手术之前曾做过一个被七八个人轮奸的噩梦，其中就有布鲁斯，“我对他这个人有着一种本能的抵触、提防和敬而远之……”[13]石玉曾是个有自尊并且非常自爱的女孩。因为自己是“石女”的事情被传开，迫于众人的议论和异样的眼光，不得已才跟布鲁斯假结婚来到美国，为了接受移民局的检查，他俩必须睡在一张床上。起初，石玉并不十分情愿与布鲁斯合睡一张床，原因有二：“其一，我闻不惯他身上一股说不清是狐臊臭还是烂鱼腥的怪味道。那气味常常因为喷过过多的香水而更显得刺鼻。有时他从我身边贴近走过，或者站在敞开的门窗前与我讲话，我也会闻到一股类似小孩的尿布被热水浸泡过后所产生的那种呛鼻的怪味。其二，他的多毛的身体，也常常会引起我生理上一种不适的反应。”[14]从石玉的叙述中可以看到，她迫于无奈而同布鲁斯同居，而她对布鲁斯甚至有一种种族上的歧视心理。“我发觉他的胳膊、大小腿、前胸、后背，到处都是厚厚实实、亮亮晶晶的黄毛……这使他变得更像一只长毛熊，或者一头长毛的白猪。所以，有时我会有一种错觉，以为他只不过是一只尚未完全进化彻底的兽类。”[15]让石玉所无法忍受的正是大布鲁斯身上的狐臊味，而此刻性欲冲昏了头脑，她竟然贪婪地嗅闻着大布鲁斯身上的这种味道。同时石玉在事后竟然想到“对于我‘门户开放’后狂躁不安的身体而言，大布鲁斯也许正是我所期待的那把珠联璧合的钥匙……”[16]源于性的欲望，冲昏了石玉的头脑，而后来她竟然到街上找了一个黑人流浪汉，把他领到旅馆，想满足自己的性欲，幸亏有人及时报警，才避免了石玉进一步的堕落。

12)卢新华，『紫禁女』，武汉：长江文艺出版社，2004.08，pp.283-284。
13)卢新华，『紫禁女』，武汉：长江文艺出版社，2004.08，p.107。
14)卢新华，『紫禁女』，武汉：长江文艺出版社，2004.08，p.156。
15)卢新华，『紫禁女』，武汉：长江文艺出版社，2004.08，p.156。
16)卢新华，『紫禁女』，武汉：长江文艺出版社，2004.08，p.284。

3. 里层上的文化隐喻

单从表层上看『紫禁女』这部小说，讲的是一个有着幽闭症的女人的爱情的故事，小说中描写了一些跟性需求有关的部分，可以看成是“个人化写作”后期的“下半身写作”。但是性欲作为人的正常的生理需求，如此的描写并不意味着这是部低俗小说，并不仅仅单纯地满足读者的猎奇心理及窥探欲。就小说艺术层面来讲，卢新华的艺术表达能力极强，使得小说充满着一种诗情画意。比如，写到石玉同吴源夜晚在校园散步，来到了池塘边。卢新华如此描写当时的情景：

> 满天繁星仿佛一粒粒碎钻撒满深邃、宁静、黑黢黢的水底。
> 有几只萤火虫在水面飞来舞去，似乎要和沉落在塘底的星星遥相辉映。
> 池塘对面的老柳树根下，依稀传来几声不甚清晰的蛙鸣。
> 万籁俱寂，只有蚊虫依然在嗡嗡地浅唱低吟，渴了，嗓子干了，一时寻不着喝的，便在我们的脚踝上、胳膊上、脖子间随意地吮一口……
> 我们一边拍打着蚊虫，一边有些依依不舍地离开水塘，继续漫无目标地前行，有一搭没一搭地说着自己刚刚说过但马上又已忘记的话题。17)

一个有幽闭症的女人，在民间被称为“石女”，是邪恶力量的化身，石玉承受的心理压力是巨大的。而她和吴源深深相爱，为了吴源她愿意去做手术，可是即便做了手术，也极有可能再重新封闭。夜色的静谧，景色的美好，反而更加反衬出石玉复杂不安的心理。如此以景衬情的场面有很多。这里就不一一列举。小说『紫禁女』中，作者卢新华延续了其在小说『细节』中采用的跨文体写作技巧18)，通过日记体、散文、诗等文体的融入，提升了小说的艺术性。

女主人公石玉极想摆脱下体幽闭这一状态，曾试图用烧红的火钳向自己下体插去，毕竟这是向自己行刑。当火红的火钳碰到大腿时，石玉就放弃了这一做法，只是稍微烫伤，并没有造成更大的悲剧。石玉从美国回来探亲时，姑姑不幸去世。在回美国之前，石玉想去北京探望在北京已经成为了处级干部的吴源，途经曲阜时，去参观了孔府、孔庙，在孔庙时，石玉突然觉得肚子疼，一时昏厥，滚下山坡，私处被小木桩直直地插中了，不得不住院接受了两周的治疗，创痛才慢慢恢复。如果作家单纯想向读者展现一个有着幽闭症女子的私人生活，这样的描写显得极为荒诞，同时也给人一种惨不忍睹的感觉，少了色情小说所营造的煽情的氛围。

“女人的身体一向是文化想像与社会监控的焦点关注，从文学、绘画到宗教、医学，从一首诗到一句口号，女人的身体既是活生生地存在于权力密布的具体时空之中，也穿越时空而承载着繁复的符号象征。”19)『紫禁女』这部小说不是一部单纯满足读者的猎奇心理，也不仅仅是一部一般意义上的私人写作，石玉是一个象征符号，象征中国，其有着很深的文化隐喻。与石玉相关联的几个人物，都起了隐喻作用，具有文化象征意义。吴源象征着新儒家，常道象征中国道家文化，布鲁斯象征美国，尹华象征日本。这一点在小说的很多地方都有暗示。作者卢新华也说“通过一个‘半封闭’的石女，在打开、封闭、再打开、再封闭，再打开，最后达致肉体的空洞和心灵的空虚的双重磨难。通过这样一个历史的和文化的双向循环的心路历程，表面上叙述了几个青年男女之间的情色故事，深层里却隐喻和象征了千百年来中华民族

17)卢新华，『紫禁女』，武汉：长江文艺出版社，2004.08，p.73。
18)参考毕文秀，「论卢新华小说『细节』的艺术性与思想性」，『中国现代文学』第97号。
19)张小虹，『性别／身体与权力／欲望的新地图』，『联合文学』第11卷第4期。

思想文化发展和成长的轨迹。”[20]

小说一直围绕“一把钥匙开一把锁”展开。石玉独自一人去南京某军队医院妇产科检查身体，路上在车上睡着了，梦见一位白胡子、白头发的千秋老人给了自己一张纸条，上面写着“一把钥匙开一把锁”，而石玉一看这千秋老人竟然是自己的父亲。石玉姑姑曾出家做过尼姑，笃信佛教，后虽被迫还俗，依然在家虔诚礼佛，“焚香、磕头、跪拜、供奉、念佛、斋戒”样样不少。她得知石玉身体上的问题之后，便带石玉去庙里上香抽签，抽到的还是“一把钥匙开一把锁”。石玉在曲阜受难的经历，她在自述时，如此说到“那里虽然很疼痛，我心里却有着一种抑制不住的期待—也许，经过这番前所未有的经血和鲜血的冲刷和洗礼，终于可以冲垮那座横亘在我身体内部的可恶的‘拦河大坝’……同时，我也满心希望，那戳在我身上的小小的树桩，原来正是那把我遍寻不得的可以用来开启我身体之锁的钥匙……”[21]当石玉在美国手术成功，无论是吴源还是常道，都无法满足自己的性欲，她想到了布鲁斯，认为布鲁斯是自己身体开放成功之后所期待的那把珠联璧合的钥匙。

作者卢新华以这种方式思考的是中国文化的走向问题，即什么样的文化才是适宜中国现阶段的发展的。中国传统文化大体可以分为三大部分：儒家文化、佛家文化、道家文化。儒家文化和道家文化是中国固有的文化，佛教由印度半岛传入中国。佛教在中国的传播历史悠久，而且起初在传播讲解佛教道义时，曾借用了很多儒家和道家的概念来讲解佛教教义，经过一个本土化的过程之后，中国佛教已经成为中国传统文化的一个有机组成部分。在卢新华看来，这三种中国传统文化都不适宜现阶段的中国的发展。而这一点是以他们对石玉的态度来体现出来的。石玉早在8岁左右，其父亲就将她托付给她姑姑，自己含冤自杀，离她而去。石玉的姑姑是虔诚的佛教徒，她相信佛教里所说的业障之说，而建议石玉出家礼佛。面对姑姑的建议，石玉只能委婉拒绝姑姑，实际上她更想说的是“我才不信这种鬼话，就是父亲和菩萨都有这个意思，我也宁愿独身，做个有文化、有知识、有头脑、有鉴赏力、有钱、有车、有房子，活得轻轻松松、愉愉快快的现代社会的单身女贵族。”[22]中国已经迈向了现代国家，传统的文化如儒家文化、佛家文化，石玉并不持绝对服从态度。卢新华说石玉“其实并不拒绝、排斥佛和佛教，相反，内心还对有关佛、佛教的一切故事、教义、思想和哲学发生着浓厚的兴趣。”[23]即便如此，石玉拒绝与一群泥塑木雕的偶像挤在一起，了此余生。对于信仰，石玉有自己的观点：“我的信仰，我的宗教，无论将来会是什么，东方的或是西方的，泛神的还是偶像的，有一点对我很重要—那就是得有一种现代的气氛和人间的气息；同时，它还必须是真正通过我自己心灵的体察和觉悟得来的。”[24]当一个国家成功转型成为现代国家时，必然要面对的是这个国家的传统文化与现代文化之间的冲突。文化激进主义者可能主张完全摒弃自己本国的文化，全盘接受外来文化。中国如五四新文化运动时，一部分知识分子主张全盘西化。实际上一个国家不可能完全摒弃自己的母体文化，卢新华对中国传统文化的态度，并非绝对继承，也不是绝对批判，而是在全面了解的基础上，理性地、有选择性地接受适宜现代社会的东西。

20)卢新华，「我看鲁迅-兼谈鲁迅对我文学创作和人生的影响」，『鲁迅研究月刊』，2018年09期，p.93。
21)卢新华，『紫禁女』，武汉：长江文艺出版社，2004.08，p.199。
22)卢新华，『紫禁女』，武汉：长江文艺出版社，2004.08，p.41。
23)卢新华，『紫禁女』，武汉：长江文艺出版社，2004.08，p.40。
24)卢新华，『紫禁女』，武汉：长江文艺出版社，2004.08，p.40。

4.文化危机感

从近代中国的发展史来看，历代知识分子始终思考的是如何让中国跻身于国富兵强的现代民族国家之林，可由于中国特殊的机制，它走的是一条封闭—开放的循环之路。1840年以后，中国被迫打开国门，晚清的洋务运动以“中学为体，西学为用”为根本学习方针，想以学习西方先进的技术来让清政府走上富强的道路，这一方法以清日甲午战争的失败而告终。既然学习西方的先进技术无法改变中国的现状，当时的知识分子又借鉴日本成功转型为现代国家的经验，导入西方的君主立宪制，可由于保守派的阻挠，戊戌变法历经一百日也最终失败。辛亥革命推翻了清政府的统治，建立了当时知识分子所认为的现代民族国家，中国将近两千年的专制制度之基础—普遍王权由此被推翻。林毓生认为“普遍王权是贯穿社会政治秩序与文化道德秩序，并将此双重秩序做高度整合的必要链索，因此普遍王权的崩溃所导致的社会政治秩序的瓦解，无可避免地亦使文化道德秩序发生根本动摇，传统的整合所形成的思想与价值丛聚（cluster of ideas and values）遭到了腐蚀，或是从原来的接榫处脱臼了。换言之，传统文化与道德的架构（framework）解体了。这样全面性的解体，为五四反传统主义者提供了结构的可能性，使其得以采用一种从传统中演变而来的思想模式，对中国的过去提出整体主义的攻击。”[25]五四一代的知识分子走了一条激进反传统道路，他们把中国传统文化看成是一个整体而予以整体性否定，高举“科学”与“民主”旗帜，以启蒙主义的精神，主张中国应全盘西化。西方社会的“科学”与“民主”的诞生有其西方社会条件下的渊源及历史形成因素，没有培养“科学”与“民主”的土壤，想让其开花结果，其困难可以想象。20世纪30年代因为日本入侵中国，中国的知识分子不得不投入到抗日救国的斗争中去。尽管如此，反传统的激进主义却如鬼魅一般，一直伴随到中国的文化大革命时期。小说『紫禁女』中石玉去曲阜旅行，参观孔府时，“我在抬脚跨进孔府的时候，忽然有一种回家的感觉，甚至府内的一草一木，一砖一石，也似曾相识。”而在参观孔林时，“我被那些大大小小、高高低低、形状各异的墓碑所吸引，一会儿细读其碑文，一会儿欣赏其刻字，有时也不忘辨识一番墓主的身份和姓名，渐渐竟觉得是寻亲访友来了。”[26]石玉对儒家有如此的亲近之感，却在游览孔林时受难。对此，她如此说到“那里虽然很疼痛，我心里却有着一种抑制不住的期待—也许，经过这番前所未有的经血和鲜血的冲刷和洗礼，终于可以冲垮那座横亘在我身体内部的可恶的‘拦河大坝’……同时，我也满心希望，那戳在我身上的小小的树桩，原来正是那把我遍寻不得的可以用来开启我身体之锁的钥匙……”[27]石玉在孔林的受难，隐喻中国文化大革命时期的“批林批孔”运动。[28]然而文化大革命这种反传统反文化的激进主义非但没有让中国走上一条富强的道路，相反给国民经济的发展带来重挫，更引发了一系列的社会问题。

卢新华在反思中国的现代化进程时，说到“我在2004年出版的『紫禁女』这部长篇小说，就是尝试用了一个石女的身体来象征中国近千年来的精神发展史和文化发展史。人民为什么越来越穷，国民经济为什么走到了崩溃的边缘，一个最主要的原因便是当政者反复强调‘宁要社会主义的草，不要资本主义的苗’，只准‘存’钦定的所谓‘放之四海而皆准的真理’——亦即‘天理’，必须‘灭’人们与生俱来就有的七情六欲。这种有违自然，有违人性的理论与实践所造成的结果，必定会使一个正常的民族和社会渐渐走向

25)林毓生，『中国意识的危机：五四时期激烈的反传统主义』，新北：联经出版事业股份有限公司，2020年9月初版，pp.36-37。
26)卢新华，『紫禁女』，武汉：长江文艺出版社，2004.08，p.196，p.197。
27)卢新华，『紫禁女』，武汉：长江文艺出版社，2004.08，p.199。
28)笔者在研究卢新华作品时，曾同卢新华通过电话，卢新华亲口告诉我他写石玉在孔林的受难隐喻文化大革命时期的“批林批孔”运动。

自我封闭，其生殖通道也会一点点萎缩。当然，石玉身体器官遇到的麻烦最后还是通过先进的西方医疗手段加以解决的。但这并不能让她的身体一劳永逸。因为打开封闭的同时，又会形成一个新的空洞。这种空洞所带来空虚只能用更多的肉欲和物质欲望来加以填充并作为先前‘灭’欲的补偿。然而我们知道，欲望的穹窿一经生成，要想填满它，将和打开它一样困难。所以，石玉的生殖系统的封闭诠释了一个民族一直强调‘存天理灭人欲’所达成的最终宿命，而它的‘开放’所引致的贪婪、浮躁、急功近利、物欲横流、道德沦丧等，却又构成了另一幅‘存人欲灭天理’的人生和社会乱像。”[29] 小说『紫禁女』中，最后石玉终于在美国通过先进的西方医疗手段完全打开了自己封闭的下体，而这又带来了新的问题，就是欲望膨胀。而这隐喻中国在改革开放之后，又进入了一个欲望膨胀的社会。

哈贝马斯曾阐述过对现代社会的看法，把现代社会分化成系统和生活世界两部分。“系统主要是指经济组织与管理组织，生活世界则是由教育体系、媒体和家庭生活所构成。系统主要以工具理性的逻辑来运行，而生活世界则是以价值理性的逻辑来运行。现代社会面临一个系统侵入生活世界的问题，工具理性开始主宰生活世界，现在这种工具理性主导的市场经济，其实是将社会做一种单一化的理解，市民社会从此被看做只是由经济理性主宰的领域，而失去了道德、文化等生活世界的价值内涵。”[30] 中国自“五四”时代把中国传统作为一个整体而予以整体否定之后，并没有构建一套新的符合中国国情的核心价值观。中国文化大革命时期，又以更为激进的方式破坏了传统文化，毁坏了一直以来存在于中国一般大众心里的源于传统文化基础上的价值观及道德观。中国改革开放之后，导入市场经济之后，由于既有的传统价值观被否定，而新的价值观却没有建立，在这样的情况下，经济上固然取得了飞跃发展，一跃成为世界第二大经济体，开始向现代化国家转型。现代文化有两大特点，一是崇尚科学理性，一是把人看成是经济人，将人异化。中国大众逐渐出现了“一切向钱看”的心理。只要是赚钱的，即便是坑蒙拐骗，依然昧着良心去做。卢新华在『三本书主义』中面对中国人的集体沉沦，有过严厉批判。[31] 正如卢新华在『财富如水』中所说“物质之水腐蚀和摧毁的对象终究是自然界的各种物质，而财富之水腐蚀和摧毁的主要对象却是人类的心灵和精神。”[32] 以市场经济为主导的现代文化，让人们在追求利益的同时不自觉地丧失了人的道德主体性，丢掉了人之所以为人的根本。“都说西方文艺复兴时代告别了黑暗、专制的中世纪，迎来了人性复苏和思想解放的新纪元，人恢复了大写的人，不再是神的奴隶。然而，人类文明的发展注定了必须以一种代价换取另一种代价。当人性从神性中解放出来，人的物质欲望引导工业革命和科技革命的爆发并获得巨大的成功的同时，从神和专制的奴隶中解放出来的人类，却又一步步演变成财富的奴隶。”[33] 卢新华在对现代资本进行反思、批判的同时，他思考的还有中国的富强问题。“可以达成中国的文艺复兴以及民族复兴的那个神秘的转折点又在哪里？”[34] 小说『紫禁女』中石玉后来因布鲁斯而意外受孕，石玉想把这个孩子生下来，带回中国一心一意把他抚养长大成人。可是她心里念念不忘的依然是常道，听说常道在中国，她就回中国找他。常道隐喻中国道家文化，即便石玉钟情常道，可是在她的身体开放之后，常道已经不能够满足她的需求，即中国道家文化也不适宜转型中的中国。作者卢新华通过石玉寻找常道这一过程，隐喻的是寻找适宜中国发展的道路。

29)陈思和访谈
30)罗岗，许纪霖著，『启蒙的自我瓦解1990年代以来中国思想文化界重大论争研究』，pp.184-185。
31)如卢新华，『三本书主义』，上海：复旦大学出版社，2018.1。
32)卢新华，『财富如水』（南京：江苏凤凰文艺出版社），2014.11，p.31。
33)卢新华，『财富如水』（南京：江苏凤凰文艺出版社），2014.11，pp.61-62。
34)卢新华，『三本书主义』，上海：复旦大学出版社，2018.1，p.13。

5. 精神内涵的构建

中国社会到如今“已经是一个资本主义化的社会：市场经济已经日益成为主要的经济形态，中国的经济改革已经把中国带入全球资本主义的生产关系之中”，“中国是一个巨大的国家，它也没有办法简单地通过抄袭别人的方式来解决自身社会的问题。但这一困境自身提供了可能性：即从这个社会的丰富性和复杂性出发，展开另外一些想象这个世界和我们自身的方式。要探讨自己的道路，就必须估价我们据以出发的那个社会传统，包括古代传统、近代革命传统、社会主义传统和改革传统。我们不但要问传统当中哪些因素导致了悲剧性的后果，而且更要问究竟是什么力量使得中国社会仍然包含了如此的活力。”[35]有中国文化背景的知识分子开始思考如何建构一种适宜中国现阶段发展的文化。劳思光曾提出文化的开放成素与封闭成素。他认为，任何一种文化都有自身的开放与封闭的成素，所谓的“开放成素”就是符合人类普遍价值的部分，所以即便时代变迁，这一部分都应该被继承并且发扬，而“封闭成素”是适宜当时时代的东西，如果时过境迁，则会阻碍社会的发展，这一部分应该被舍弃。[36]林毓生认为“对许多人而言，整体主义的反传统主义排除了古老中国文化在中国传统解体后，尚存在具有知识和道德意义的成分，这些成分正因为无法被明确地认同和对待，而遭到忽视。……寻求一个新的架构，将古老文化中在思想上具有意义的部分与来自西方的新观念和价值加以整合”，以期实现文化上的创造性转化。[37]从卢新华的写作中，可以看出卢新华抱持着一种文化的开放观念，无论是东方的还是西方的，传统的还是现代的，本民族抑或是它民族的，适宜当代中国社会发展的，他都坦然拿来作为建构自己主张的成素。

儒家文化中有要抛弃的部分，同时也有要继承发扬的部分。石玉的男友吴源曾经标榜过要做新儒家，石玉说自己不愿意做手术时，吴源问为什么，石玉调侃他说孔子讲过身体发肤，受之父母，毁弃不得的时，吴源说“现在早不是孔子的时代了，我们要的是儒家那种对事业孜孜不倦的追求精神，而不是他的一两句陈腐的教条。”[38]新儒家的主张未必适宜中国社会的发展，但是儒家文化中那种务实的精神，是值得继承且发扬光大的。

面对物欲横流的世界，卢新华提出要懂得“敬畏”与“反省”。“一个人可以不是宗教徒，也可以没有宗教信仰，但绝不可以对自然不时时心存敬畏，对自身不事事深刻反省。对自然不再心存敬畏，对自身从不深刻反省的人，会是一个疯狂的、充满破坏性的、既不珍惜他人也不珍惜自己生命的人。一个对自然不再心存敬畏，对自身也不痛加反省的人类，将是浮躁的、物欲的、短视的、疯狂的、加速走向灭亡的人类。”[39]“反省”精神也是中国文化的固有组成部分。“中国传统文化中主张要‘反省’或‘内省’的也大有人在。道家的始祖老子就说：‘知人者智，自知者明。’孔子则说：‘吾日三省吾身。’鲁迅先生说得更明确：‘我的确时时解剖别人，然而更多的是无情地解剖我自己。’而‘批评与自我批评’也曾是中国共产党人战胜国民党人的一个至关重要的法宝……至于佛教徒们为抑制‘贪、嗔、痴’三毒而在‘戒、定、慧’上所下的功夫，则更将‘内省’推向极致了。遗憾的是，多年来我们尽管在一手抓‘物质文明’的同时，也没忘记抓‘精神文明’，但‘反省’这样一个优良的传统或曰国粹却被社会日益泛滥起来的物欲大潮几乎冲击得荡然无存。”[40]卢新华在对现代资本社会进行本质上批判的同时，提倡一种深

35)许纪霖等著，『启蒙的自我瓦解：1990年代以来中国思想文化界重大论争研究』，2007.9，pp.235-236。
36)劳思光，『当代西方思想的困局』，台北：台湾商务印书馆股份有限公司，2014.
37)林毓生，『中国意识的危机：五四时期激烈的反传统主义』，新北：联经出版事业股份有限公司，2020年9月初版，p.212。
38)卢新华，『紫禁女』，武汉：长江文艺出版社，2004.08，p.45。
39)卢新华，『财富如水』（南京：江苏凤凰文艺出版社），2014.11，pp.152-153。
40)卢新华，『财富如水』（南京：江苏凤凰文艺出版社），2014.11，pp.150-151。

刻的自我反省精神。

中国作为一个多民族聚集的国家，每一个民族都是中国的重要的有机组成部分，其民族文化对今天的精神内涵建构有重要的参考作用。卢新华曾随访问团去彝族采风，经历过一场万人跳“左脚舞”的“狂欢盛筵”。“老人们如同年轻人般不停地勾腿、提腿、踮足、扭腰、摆胯、转身、合脚，可他们的面部表情却始终呈现出一种稀有的宁静和安详。”[41] 当卢新华好奇这些老人白天要干农活，通宵达旦跳累不累时，老人回答就是累才要跳，越跳越不累。老人的话，让卢新华感悟到“他们并不是在跳舞，而是在休息呢，并且是一种更高意义和更高境界上的休息！世间的人们常常是身体休息了，心灵却不能休息。而这些跳舞的老人们，身体虽然还在有节奏地摆动着，可他们的心灵，他们的精神却似乎已经甜美地睡下了。”[42] 与跳舞的彝族人相比，生活在大都市的人，“我们的身体是暂时休息了，我们的心却一刻也不能安宁—不是想着房市就是牵扯着股市，或者做着永远醒不来的发财梦……尤具讽刺的是：当身处边陲的少数民族同胞为了生态平衡和环境保护，正积极地退耕还林的时候，我们有些人还在挖空心思要将每一寸耕地变成商品房或者白花花的票子。”[43] 卢新华通过这种对比，批判现代资本对人的心灵的腐蚀，同时提出倾听内心的声音，关照内在心灵。

从世界文明发展进程来看，西方与东方一直在进行着经济与文化交流。换句话说，东方文化包括中国的传统文化也曾对西方社会的变革产生很大影响。[44] 当英国率先进入工业革命之后，生产方式改变了，生产率也大大提高，由此导致了社会结构发生了变化。传统的庄园经济逐渐被现代的工业经济所代替。因生产方式与社会结构的变化以及市民阶层的出现，欧洲各国先后进入了现代化社会。现代化社会，或者说现代文化并非完美的文化，有其先天的病态，崇尚工具理性，把人看成是经济人，将人异化。尤其是当资本主导市场之后，这种现象日益严重。人丧失了道德主体性，被各种欲望所左右。为了让每个人都能从平凡的生活中获得心灵的宁静、幸福和快乐，卢新华提出我们每个人其实都应该融会贯通地去读好三本大书：“有字之书”—书本知识、“无字之书”—社会经历、心灵之书—对人的心灵的观照、心灵的反省、心灵的体悟。虽然卢新华并没有构建一个完整的哲学体系以完善自己的主张，而是以随笔、随想的形式提出了自己的看法，如“敬畏”与“自省”精神以及对内在心灵的关照等等。面对现代资本对人类精神世界的腐蚀，卢新华提出的主张，是具体可行的，同时对当下的中国社会精神内涵的建构起了带头作用，非常具有价值。

41) 卢新华，『三本书主义』，上海：复旦大学出版社，2018.1，p.49。
42) 卢新华，『三本书主义』，上海：复旦大学出版社，2018.1，p.50。
43) 卢新华，『三本书主义』，上海：复旦大学出版社，2018.1，p.55。
44) [英]约翰·霍布森，『西方文明的东方起源』，山东画报出版社，2009.11。

【문학분과Ⅱ】 발표 ③

홍콩문학에 관한 한국 학자의 관점과 논의 고찰

송주란*

【목 차】

1. 머리말
2. 한국에서의 홍콩문학 연구 개황
3. 홍콩문학의 범주와 특수성 논의
4. 홍콩(인)의 정체성과 도시 서사 논의
5. 맺음말

1. 머리말

홍콩문학에 대한 연구는 20세기 말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소수의 학자와 연구자들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중국 대륙문학[1] 연구에 비하면 홍콩문학 연구는 50년도 채 되지 않은 짧은 역사를 보여준다. 이것은 홍콩이라는 장소가 가진 특수성으로 기결시켜 볼 수 있다. 현재의 홍콩은 중화인민공화국의 특별행정구에 속한다.[2] 하지만 홍콩은 1997년 7월1일 이전에는 150여 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영국의 식민지로 존재했다. 식민지 이전의 홍콩은 사람이 살지 않는 척박한 어촌 마을에 불과했고, 중원의 지배 세력권에서도 벗어나 있던 곳이었다. 1차 아편전쟁 이후 영국의 식민지가 되어 1997년까지 영국 식민지 정부의 지배를 받았고 그후 홍콩에 대한 주권이 중국으로 반환되었다.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점이 발생한다. 홍콩문학이라는 것은 그 자체적으로 독자적인 성격을 가지는 문학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홍콩문학을 중국 대륙문학의 연장 선상에서 발생한 한 지역의 문학으로 간주하고 중국 대륙문학의 한 부분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문제점이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면 홍콩문학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이다.

이에 대해 1990년 이후부터 다수의 중국 대륙 출신 학자들은 홍콩문학사를 집필하기 시작했다. 대표적으로는 谢常青 의『香港文学简史』(1990), 潘亚暾·汪义生의『香港文学概观』(1993), 王剑丛의『香

* 부산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강사 (heeya5280@hanmail.net)

1) 여기서 '중국문학'과 '중국 대륙문학'에 대한 개념 정의가 필요해 보인다. 필자는 중국문학을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되기 전까지의 중국의 문학으로 보고, 중국 대륙문학은 중국문학에 1949년 이후의 중화인민공화국의 문학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고자 한다.

2) "현재 중국의 행정구역은 성급, 지급, 현급의 3급 체제로 나누어져 있다. 현급 이하에는 향진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4급으로 구분되어 있다. 최근에는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구획이 세분되어 4등급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제1급인 성급에 속하는 행정단위는 총34개로 23개의 성(대만 포함), 5개의 자치구, 4개의 직할시, 2개의 특별행정구로 이루어져 있다."; 김상균·신동윤 지음,『중국문화』, 동양북스, 2019.

港文学史』(1995),『二十世纪香港文学』(1996), 刘邓翰의 『香港文学史』(1999) 등이 있다. 이들 중국 대륙 학자들의 공통적인 서술 방식은 홍콩문학의 독자적인 특징을 인정하면서도 결국은 중국 대륙문학으로 통합시키고자 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사회주의 문학과 자본주의 도시 문학, 순수문학과 상업문학, 중심문학과 주변 문학 등 모든 것을 포괄하고자 하는 입장이다.[3] 중국 대륙 학자들의 홍콩문학 서술 방식에 대해 정작 홍콩 학자들의 대응은 미흡했다. 이들은 홍콩문학사를 서술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시간이 더 필요하며, 홍콩문학의 정체성과 독자성에 대한 연구와 규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사실 홍콩 학자의 입장에서 홍콩문학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범주를 규정하는 것도 쉬운 문제는 아니었다. 이것은 홍콩문학을 누가 어디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관점과 시선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과 시선의 문제로 인해 홍콩문학의 시작 시점을 어디서부터 볼 것인가에 대한 견해 역시 홍콩과 중국 대륙 학자들마다 제각각이다. 刘以鬯, 王晋光, 刘邓翰 등은 1874년부터 홍콩문학의 출발로 보고 있고, 谢常青, 潘亚暾, 王义生 등은 1927년부터 王剑丛, 易明善 등은 1930-1940년대로, 黄继持 등은 1950년대, 郑树森 등은 1960년대 중후기, 黄康县 등은 1970년대로 서로 주장하는 바가 각각 다르다.[4] 이것뿐만이 아니다. 홍콩문학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 학자들마다 서로 다른 관점을 보인다. 중국문학이나 중국 대륙문학에 대한 홍콩문학의 입지부터 홍콩문학의 개념과 정의, 범주, 독자성 뿐만 아니라 소위 홍콩문학이라고 명명할 수 있는 작품의 특징과 도시 서사 방식 등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서로 다른 관점들이 산재해 있다.

필자는 중국 대륙 학자나 홍콩 학자와 달리 한국에서 홍콩문학을 연구하고 있는 한국 학자들은 홍콩문학을 어떻게 해석하고 바라보고 있었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국가나 지역의 정치적 이데올로기나 경제적 이해관계를 배제한 채 제3 자의 시선에서 바라본 홍콩문학에 관한 제반 문제의식들이 어떻게 논의되고 있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19세기 말부터 그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한 홍콩문학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를 통해 향후 홍콩문학의 미래 발전 방향과 입지 역시 가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 한국에서의 홍콩문학 연구 개황

홍콩문학에 대한 관심이 본격적으로 일기 시작한 정치적인 사안은 영국의 식민지였던 홍콩에 대한 주권이 중국으로 반환되는 계기가 된 영국 수상 대처의 중국 방문(1982.9.22.)과 2년 후 열린 중영성명(关于香港问题的联合声明, 1984.9.)발표였다. 이 두 가지 정치적인 사안은 홍콩 반환 문제를 전면적으로 부각시켰다. 그전까지 홍콩이라는 도시가 의미하는 정체성에 대해 무관심했던 홍콩인[5]은 그제서야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홍콩이라는 특정한 공간에 대해 주목하기 시작했고, 더 나아가 홍콩인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해 사고하기 시작하면서 홍콩과 자신들에 대한 의미 찾기와 의미 부여를 시작했다. 1980년대 초반부터 홍콩에서 일기 시작한 이러한 움직임은 문학작품을 통해서도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한국에서 홍콩문학에 대한 연구가 시작된 시점은 홍콩인들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한 1980년대에 비하면 시기적으로 약 20여 년이 지난 2000년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다. 손미령의

3) 임춘성, 「홍콩문학의 정체성과 탈식민주의」, 『중국현대문학』, 31, 한국중국현대문학학회, 2004, p. 344.
4) 김혜준, 「홍콩 반환에 다른 홍콩문학의 변화와 의미」, 『중국현대문학』, 39, 한국중국현대문학학회, 2006, p.492.
5) 여기서 '홍콩인'은 홍콩에서 나고 성장한 사람과 홍콩으로 이주한 이후 7년이 경과한 사람들을 일컫는다.

논문「한국의 홍콩문학 연구」[6]에 의하면 한국에서 홍콩문학에 관한 학술지 논문을 시작으로 해서 학위논문 10여 편과 학술논문 45여 편이 2000년부터 시작해서 2018년까지 게재되거나 학위논문으로 발표되었다. 이후 2019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 홍콩문학 관련 학위논문 1편과 학술논문 2-3편이 추가되었다. 손미령의 논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홍콩문학 관련 학위·학술논문에는 내용상 홍콩문학과 무관한 홍콩의 정치, 문화에 관련된 논문뿐만 아니라 홍콩의 통속문학에 속하는 金庸의 무협소설과 영화까지 포함하여 서술하고 있다. 이에 필자는 홍콩문학에 대한 대상의 폭을 좁혀보고자 한다. 필자가 본고에서 서술하고자 하는 홍콩문학은 통속문학과 영화를 배제한 순문학을 기준으로 한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살펴보면 홍콩문학 관련 학위논문과 학술논문의 수는 손미령의 논문에서 통계로 보여주는 것보다 그 수가 적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중국현대문학 연구 현황과 비교해 보면 그 차이를 확연하게 느낄 수 있다. 김수진은「近十年中中国现代文学在韩国的研究现况」에서 1996년부터 2006년 8월까지 발표된 중국현대문학 관련 연구 논문을 조사하였는데 박사논문이 69편, 석사논문이 193편으로 2000년 이후 그 숫자가 현저하게 증가했다고 서술하고 있다.[7] 이를 통해 살펴볼 때 한국에서의 홍콩문학 연구는 상대적으로 여전히 소수의 학자들에 의해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0년대 초반에는 홍콩문학에 대한 연구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현재는 다시 감소세로 접어든 모양새다. 이것은 홍콩 반환 이후 홍콩문학의 독자성이 희석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고, 정치적인 요인과 상업성이 결부되어 작품 창작이 홍콩 반환 이전보다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한국에서 연구된 학위논문과 학술논문에 이어 홍콩문학 관련 번역서와 단행본의 출판 현황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홍콩 단편 소설 모음집『사람을 찾습니다』[8](2006), 소설『빅토리아 클럽』[9](2010),『나의 도시』[10](2011),『포스트식민 음식과 사랑』[11](2012),『월미각의 만두』[12](2012),『양팔저울』[13](2014),『그녀의 이름은 나비』[14](2014),『술꾼』[15](2014) 등이 있고, 산문에는『눈부시게 새빨간 부겐빌레아』[16](2012) 등이 있으며, 시집으로는『홍콩시선』[17](2012),『빅토리아 항을 지나며』[18](2012) 등이 있다. 이것 역시 홍콩의 무협소설과 영화 관련 번역서는 제외하고 순문학 중심으로 살펴본 것이다. 순문학에 이어 홍콩문학 관련한 단행본에는 2019년에 출판된 김혜준의『홍콩문학론: 홍콩 상상과 방식』[19]이 있고, 홍콩의 문학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영화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서술한 류영하의『홍콩이라는 문화 공간』(2008)[20],『홍콩 산책』(2019)[21]과 임춘성 외의『홍콩과 홍콩인의 정체성』(2006)[22]등이 있다. 출판된 홍콩문학 관련 번역서와 단행본의 출판 연도를 살

6) 손미령,「한국의 홍콩문학 연구-2000년부터 2018년까지」,『세계문학비교연구』, 65, 세계문학비교학회, 2018.
7) 손미령,「한국의 홍콩문학 연구-2000년부터 2018년까지」,『세계문학비교연구』, 65, 세계문학비교학회, 201, p.8.
8) 김혜준 외 옮김,『사람을 찾습니다』, 이젠, 2006.
9) 스수칭, 김양수 옮김,『빅토리아 클럽』, 한걸음더, 2010.
10) 시시, 김혜준 옮김,『나의 도시』, 지식을만드는지식, 2011.
11) 예쓰, 김혜준 송주란 옮김,『포스트식민 음식과 사랑』, 지식을만드는지식, 2012.
12) 리비화, 김태성 김순진 옮김,『월미각의 만두』, 푸른사상, 2012.
13) 타오란, 송주란 옮김,『양팔저울』, 지식을만드는지식, 2014.
14) 스수칭, 김혜준 옮김,『그녀의 이름은 나비』, 지식을만드는지식, 2014.
15) 류이창, 김혜준 옮김,『술꾼』, 창비, 2014.
16) 옌훠, 박재우 김윤진 옮김,『눈부시게 새빨간 부겐빌레아』, 푸른사상, 2014.
17) 룡핑콴 외 지음, 찬찌딱 엮음, 고찬경 옮김,『홍콩시선 1997-2010』, 지식을만드는지식, 2012.
18) 천몌, 김순진 박남용 박재우 옮김,『빅토리아 항을 지나며』, 푸른사상, 2012.
19) 김혜준,『홍콩문학론: 홍콩 상상과 방식』, 학고방, 2019.
20) 류영하,『홍콩이라는 문화 공간』, 아름나무, 2008.
21) 류영하,『홍콩산책』, 산지니, 2019.
22) 임춘성 외,『홍콩과 홍콩인의 정체성』, 학연문화사, 2006.

펴보면 2006년에 시작해서 2008년, 2011년, 2012년, 2014년, 2019년에 출판되었고 상당수의 서적이 2012년도에 출판되었음을 알 수 있다. 2019년 이후 현재까지 홍콩문학 관련 서적은 출판되지 않았다. 이것은 홍콩문학의 독자성과 홍콩(인)의 정체성에 대한 연구가 한동안 진행되다 최근 들어 그러한 연구의 움직임이 잦아들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홍콩문학에 관한 학위논문과 학술논문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선 1980년대 이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홍콩에서 출판된 문학작품의 주제와 소재 그리고 내용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것은 한국의 홍콩문학 연구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홍콩문학에서 다루고 있던 주제나 소재는 1997년을 전후해서 다소 변화를 보인다.[23] 1980년대 초부터 일기 시작한 홍콩(인)의 정체성 찾기와 홍콩 도시 서사는 홍콩문학의 토대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다소간의 변화가 생겼다는 의미이다. 1997년 이전에는 홍콩 반환을 직접적인 소재나 제재로 한 소설이 연이어 발표되었다. 陈浩泉의『香港九七』, 季子의『一九九一』, 梁锡华의『头上一片云』, 白洛의『福地』, 刘以鬯의『一九九七』, 也斯의『神打』, 陶然의『天平』등이 있다. 이들 홍콩 반환을 직접적인 주제나 소재로 다룬 소설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주제와 내용이 더 다양해지고 구체화되었고 또 심화되었다. 양적인 증가와 함께 질적인 면에 있어서도 발전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1980년대에는 홍콩의 과거와 현재를 되돌아보며 과거 역사를 회고하고 정리하는 내용의 작품이 다수를 차지했고, 중국 대륙의 변화 상황이나 중국 대륙에서 홍콩으로 이주한 사람들에 관한 작품도 증가하기 시작했다. 또한 1990년도에 들어서는 홍콩에서 다른 나라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면서 이와 관련한 외국 이민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다수 등장했고, 이를 바탕으로 한 도시의 상실이나 소외를 다루는 작품들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1997년 이전 홍콩문학은 홍콩의 역사 회고, 새로 홍콩으로 이주해온 신이주자나 외국으로 이주해 나가는 이주자들의 이야기, 도시로부터의 소외나 도시의 상실 그리고 중국 대륙과 구별되는 사회 현상들이 작품의 주요 내용이었다.

1997년 이후에는 홍콩문학에서 다루고 있는 소재와 제재가 그전과 유사하기는 하지만 관점에 있어 다소 변화를 보여준다. 같은 도시 상실이라는 주제를 다루더라도 세계 자본주의 도시 자체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인간 소외 현상과 도시의 상실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1997년 이전의 작품에서 보여주던 도시 상실과는 다소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 시기에는 도시에서의 남녀 간의 사랑과 애증을 다룬 이야기도 대폭 증가한다. 1997년 이후의 작품에서는 이전 작품과 비교했을 때 홍콩(인)의 정체성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대신 홍콩 사회에 만연한 사회 현상을 다룸으로써 여전히 홍콩(인)의 정체성을 내면화하고 있다. 이것뿐만 아니라 주변화된 여성 문제, 홍콩 사회에서 나타나는 식민지에 형성된 계급 문제, 포스트식민지적 문제 등 홍콩의 제반 사회 현상들을 모두 다루고 있다. 1980년대 이후부터 홍콩 문학계에서 다루어지던 작품의 소재나 내용에 대한 연구는 2000년대 들어와서 한국의 홍콩문학 연구자들에게까지 고스란히 이어진다.

1997년 이후 홍콩문학의 변화 중에서 눈에 띄는 점은 시집이 대량 출판되었다는 점이다. 사실 홍콩문학의 특징은 통속문학과 칼럼산문을 들수 있는데 갑자기 순문학을 대표하는 시집이 대량 출판되었다는 점은 특이한 점이다. 이에 대해 김혜준은 홍콩 반환 이후 중국 대륙쪽 인사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행정적 지원이 있었을 것으로 본다. 1997년 6월에 결성된 香港散文诗学会나 2000년 12월에 개최된 香港散文诗研讨会 그리고 1998년에 출판된『香港散文诗选』와 2002년과 2004년에 출판된『香

23)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김혜준의 논문을 참고로 한다: 김혜준,「홍콩 반환에 다른 홍콩문학의 변화와 의미」,『중국현대문학』, 39, 한국중국현대문학학회, 2006, p.494.

港散文诗丛书』등 갑작스럽게 등장한 산문시에 대한 적극적인 행사와 출판은 홍콩 반환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 이것 뿐만이 아니다. 기존의 홍콩문학사에서 다루지 않았던 전기문학에 대한 관심 역시 홍콩 반환에 따른 변화 중 하나로 보고 있다.[24] 그렇다면 한국에서의 홍콩문학 연구에 대한 상황은 어떤지 살펴보자.

한국에서의 홍콩문학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2000년대 초반에 가장 활발히 진행되었다. 이것은 2000년 이전에는 홍콩문학이 주목받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이유는 중국 대륙문학이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 묻혀 홍콩문학이 그 독자성을 인정받지 못한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고, 홍콩이라는 공간 자체에 대한 특수성에 대해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기존의 중앙과 지방, 중심과 주변, 주류와 비주류와 같은 이분법적 사고가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아무튼 2000년도 이후 이러한 인식의 변화와 홍콩 사회의 변화로 인해 한국의 학자들도 홍콩문학에 대해 주목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 대표적인 학자로는 김혜준, 임춘성, 임대근, 유영하, 김양수, 홍석준, 김명석, 박남용, 신동순, 송주란 등을 언급할 수 있다. 이들 학자들의 구체적인 학술논문은 다음과 같다. 김혜준, 「홍콩문학의 독자성과 범주」(2003), 「홍콩반환에 따른 홍콩문학의 변화와 의미」(2006), 「홍콩 칼럼산문의 현황과 미래」(2007), 「1997년 후 홍콩소설에 나타난 주부와 가정부의 모습」(2009), 「'나의 도시'속에서 사라져버린 사람들: 홍콩문학 속의 외국인 여성 가사노동자 '페이용'」(2011),「『我城』(西西)의 긍정적 홍콩 상상과 방식」(2013), 「홍콩작가 류이창 소설『술꾼』의 가치와 의식」(2015),「예쓰의 소설『포스트식민 음식과 사랑』의 홍콩 상상과 방식」(2016) 등이 있다. 임춘성, 「홍콩문학의 정체성과 탈식민주의」(2004) 등이 있다. 류영하,「「홍콩 문화와 문학의 주체성」(2004), 루쉰의 홍콩」(2005),「董桥의 산문과 디아스포라 홍콩인」(2006), 「홍콩문학의 정체성: 회고와 전망」(2006) 등이 있다. 박남용, 「홍콩의 梁秉钧 시에 나타난 도시문화와 홍콩의식」(2009) 등이 있다. 송주란, 「타오란 작품에 나타난 홍콩의 장소성」(2015), 「예쓰의 작품에 나타난 홍콩 도시화에 대한 기억과 흔적-소설『포스트식민 음식과 사랑』을 중심으로」(2016), 「식민시대 홍콩 지배 계층의 권력 구조와 갈등 양상-스수칭의 소설『维多利亚俱乐部』를 중심으로」(2022), 「也斯산문의 홍콩성 연구-1970~80년대 작품을 중심으로」(2010), 『헤테로토피아로서의 홍콩』(2019) 등이 있다. 김양수, 「스수칭의『빅토리아 클럽』에 나타난 홍콩사회의 식민구조」(2021) 등이 있다.

한국의 홍콩문학에 대한 연구 중 그 주제가 홍콩의 정치나 문화 또는 영화와 무협 소설인 경우에는 본고의 연구 대상에서 배제하였고 순문학에 대해 연구를 진행한 학자들 중 학술지에 학술논문을 다수 게재한 학자를 대상으로 삼았다. 필자는 김혜준, 임춘성, 유영하의 홍콩에 대한 관점과 논의를 주요 대상으로 삼아 본고에서 살펴보겠다. 이들 세 학자 이외에도 논의의 필요성이 있다면 참고로 할 것이다.

3. 홍콩문학의 범주와 특수성

4.홍콩(인)의 정체성과 도시 서사

5. 맺음말

24) 김혜준, 「홍콩 반환에 다른 홍콩문학의 변화와 의미」, 『중국현대문학』, 39, 한국중국현대문학학회, 2006, p.496..

메 모

【문학분과Ⅱ】 발표 ④

근대 초기 한중일 번역문학의 상호텍스트성*
- 한중일 「십오소년표류기』의 번역을 중심으로

이시활**

【목 차】

1. 들어가면서: 동아시아 근대에서 번역의 의미
2. 근대 초기의 한중일 서구문학 번역 수용양상
3. 한중일『십오소년표류기』의 번역태도와 지향, 상호텍스트성
4. 나오면서: 근대적 문체와 더불어

1. 들어가면서: 동아시아 근대에서 번역의 의미

한국과 중국, 일본의 동아시아의 근대 수용과정에서 번역은 거대한 역할을 하였다. 동아시아 근대 형성기의 번역은 각국의 사회문화적 상황과 맞게 적용되어 서구 근대의 다양한 모습을 이해하고, 또 근대 민족국가로서 한중일 각국의 '국어'로 발전하는 언문일치의 과정에 도움이 되었다.

번역이야말로 한 나라의 문화형성에 관여하는 언어문화적 힘은 실로 크다고 할 수 있다. 자국의 문화형성에 관여하는 번역은 모든 시대에 걸쳐 해당되지만, 한중일 동아시아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근대라는 미지의 새로운 타자의 문물과 접촉한 근대 형성기 시대에는 우리들의 상상을 넘어서는 거대한 역할을 담당했던 것이다. 특히 일본은 1860년대부터 서구 열강의 침탈과정에서 번역을 통해 적극적으로 수용한 근대의 다양한 개념과 서구의 풍경을 동아시아의 공통언어인 한자를 사용하여, 새로운 의미를 지닌 한자어의 번역 언어로 변용함으로써 한국과 중국의 동아시아 근대를 창출하는데 큰 영향을 끼쳤다. 이른바 '번역된 근대'라는 말이 있듯이 번역이란 열쇠가 없었다면, 한중일 동아시아에서 근대의 거대한 대문을 열지 못했을 것이다.

이처럼 동아시아에서 번역문학은 단지 서구의 사상을 수용하는 단순한 지적행위가 아니라 번역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서구의 근대적인 타자와의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국가와 민족 그리고 개인의 정체성을 새롭게 인식하는 문화적 실천행위라고 할 수 있다. 한국과 중국, 일본의 동아시아의 근대 수용과정에서 번역문학은 서구문명을 이해하고, 근대를 기획하기 위한 거대한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본 연구는 서구의 문학작품 중에 근대 초기 한중일 3국에서 공통적으로 번역된 텍스트 중의 하나인 쥘 베른(Jules Verne, 1828-1905)의『십오소년표류기(원제: 2년간의 휴가,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0S1A5B5A16082905)
** 경북대학교 비정규교수(sihlee@hanmail.net)

Deux ans de vacances, 1888년 발표)』를 중심으로 삼아 서구 문학작품 번역 텍스트의 생산과 문화적 수용과 관련한 상호성을 살펴보려고 한다.

근대 공상과학소설의 선구자인 쥘 베른의 작품들은 19세기 서구 사회에서 근대 과학 문명과 인류 진보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던 서구 사회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따라서 『십오소년표류기』에서 표류했던 무인도에 식민지 건설이라는 제국주의적인 요소가 보이지만, 새로운 과학 문명에 대한 기이함과 상상을 초월하는 미지의 세계로의 모험이라는 쥘 베른의 소설 서사는 서구 근대화에 뒤쳐졌던 한중일에서 공히 번역되어 그 시대에 추구해야 할 근대적 이상을 제시하는 작품으로 인식되었다.[1] 『십오소년표류기』는 원래 제목은 『이년간의 휴가(Deux ans de vacances)』이고 30회로 이루어져 1888년 발표된 작품인 바, 그 이듬해부터 영어로 번역되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동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일본에서 1896년 메이지시대 번역왕으로 불리워졌던 모리타 시켄(森田思軒)이 영어번역본을 참조로 중역되어 당시 일본 최대의 출판사인 박문관(博文館)에서 운영하던 소년용 종합잡지인 「소년세계少年世界」[2]에 15회로 구성하여 「모험기담 십오소년(冒險奇談 十五少年)」이란 제목으로 연재되었다가, 그 해 12월 박문관에서 『십오소년』이란 제목의 단행본으로 출판[3]되었다. 일본에서 처음 소년용 종합잡지에 연재되었기 때문에 『이년간의 휴가』를 잡지 성격에 맞게 『십오소년』으로 탈바꿈하였던 것이다. 이 당시에 근대지향을 갈망했던 한중일에서 '소년'이라는 말은 새로운 근대 사회를 건설하는 희망의 상징이었다. 동아시아에서는 미래의 새 사회를 향해 시련을 굴하지 않는 도전과 진취의 자세를 '소년'이라는 상징물에게 기탁하였던 것이다. '십오소년'으로 명명하였던 것은 동양적 근대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4] 그 후 일본에서 어린이용 축약본 형태로 많이 출판되었고, 후일 한국에 영향을 주어 소년용 읽을거리로 간주되었다. 하지만 최근 한국에서 쥘 베른 컬렉션으로 번역된 『15소년표류기』의 번역량은 단행본 600여 페이지에 달한다. 일본에서 영어본

1) 한국에서는 1907년 일본 유학생 박용희가 쥘 베른의 『해저 2만리(Vingt Mille Lieues sous les mers, 1870년 발표)』를 일본어 중역본을 참조로 한국 실정에 맞추어 번안하여 『해저여행기담』이란 제목으로 일부 발표하였고, 1908년 이해조가 『인도 왕비의 유산(Cinq Cents Millions de la Be´gum, 1879년 발표)』을 계몽소설적 내용으로 번안하여 『철세계』라는 단편으로 번안하였다.

2) 「소년세계(少年世界)」는 청일전쟁의 승리가 보이던 시점인 1895년(메이지 28년) 1월에 창간하여 1933년(쇼와 8년)까지 하쿠분칸(博文館)이 출판한 소년용 종합 잡지이다.한국의 최남선, 방정환 등에 큰 영향을 주었던 근대 일본 아동문학의 창시자인 이와야 사자나미(巖谷小波)를 주필로 하였다. 독일어에 능통했던 이와야 사자나미는 「소년세계」에 일본의 어린이에게 한국의 전래동화를 처음 소개하였던 인물이기도 하였다. (오오다케키요미(Otake Kiyomi), 「이와야 사자나미(巖谷小波)와 근대 한국」, 한국아동문학연구 15권, pp.149-167, 2008. 참조)

3) 모리타 시켄의 일본어 번역본의 출판 상태는 최근에 나온 것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세련되었다. 이는 그 당시 서구의 기술, 설비, 기계, 경제 제도 등을 도입하여 생산력을 증대시키고 근대적인 산업을 일으키려는 일본의 식산흥업의 정책의 성공과 선진적인 생산기술을 알 수 있다. 모리타 시켄의 『십오소년』 단행본은 번역된 본문만 292쪽에 이르는데, 불어 원문의 절반 정도만 번역된 것으로 추정되고, 30회인 원문의 2회 분량을 1회로 압축하였다. 이는 모리타 시켄이 영어본에서 번역했기에 그는 알 길이 없었을 것이다. 그는 『십오소년』 단행본 앞머리 일러두기에서 3개의 사항을 언급하였다. 1)프랑스 쥘 베른의 『이년간의 학교휴가』의 영역본에서 중역하였고, 2)번역방법으로 사역(詞譯)은 버리고 의역(義譯)을 취해서 '의미의 전달(達意)'을 중심으로 하고 글을 다듬고 꾸며서 아름답게 하는 수사(修辭)는 부차적인 것으로 하였고, 3)책에 들어 있는 많은 삽화들은 많이 고민이 되는 바, 내가 원서에 있는 것을 선택해서 화공의 생각에 맡긴 것이 역시 한 두 개가 된다고 하였다. 모리타 시켄(森田思軒), 『십오소년』, 博文館, 1896, 일러두기 참조. 본 연구자가 본문에서 일일이 찾아본 삽화는 총 32개이고, 또 표지 제목에 등장 인물 삽화가 10장이 한 페이지에 있고, 책 마지막에 등장 인물 삽화가 5장이 한 페이지에 있다. 총 등장인물 15명이 삽화로 그려진 것이다. 그림으로 보여주기라는 효과를 내기 위해 표지 삽화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분석텍스트는 이 박문관 것으로 삼는다.

4) 한국의 최남선은 1908년 『소년』 창간호에 「해에게서 소년에게」의 한국 최초의 현대시를 발표하여 서구 근대의 신문화의 수용의 적임자는 소년이고 이를 통해 힘있고 활기에 찬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고자 하는 열망을 담고 있다. 또 중국에서는 사회진화론과 맞물려 소년은 진보라는 상징의미가 만연하였다. 근대의 최고 사상가인 량치차오(梁啓超)는 1900년 「소년중국설(少年中国说)」을 지어 소년의 생기발랄함과 씩씩함을 극히 찬송하였는 바, 그는 봉건통치하의 중국을 '늙은 제국'이라 하였고 조만간에 '소년 중국'이 도래할 것을 희망하였다.

에서 번역된『십오소년』을 량치차오가 중역하면서『십오소호걸』로 중국어 제목을 바꾸었고 18회로 구성하여 1902년『신민총보新民叢報』제2호부터 제24호까지 연재하였다. 량치차오는 중국 전통의 익숙한 문체와 문화로 번역하는 장회소설의 방법, 즉 귀화(歸化, Alienation)의 방법으로 번역하여 18회 연재되었다. 전체 분량은 일본어 번역본보다 적다. 앞의 9회는「소년중국설」끝에서 스스로 명명한 '소년중국지소년(少年中國之少年)'이라는 역자의 이름으로 량치차오가 호걸처럼 통쾌하게 붓을 휘둘러 원작에 첨삭을 가하는 '호걸역'[5]으로 번역하였고, 뒤에 9회는 '피발생披髮生'이라는 역자로 뤄푸(羅普)가 량치차오 대신 번역하였다. 앞에 9회는 "지금 천하의 수많은 나라 가운데 그 퇴보의 속도와 위험의 극렬함이 우리 중국만한 나라가 없다(夫今日天下萬國中, 其退步之速與險象之劇者, 莫吾中國若也.)"[6]는 자기 반성에서 출발하여 진취와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새로운 중국을 지향하려는 량치차오의 뚜렷한 목표의식이 보이지만, 뒤에 9회는 책을 마무리하기 위해 번역한 것에 불과하여 이야기의 신기함과 참신성만 제공했을 뿐이다. 한국에서의 번역은 1912년 2월 민준호(閔濬鎬)가 중국어제목을 그대로 사용하여『십오소호걸』이라는 이름으로 번역하여 동양서원(東洋書院)에서 발간하였다. 한국어 번역본『십오소호걸』은 중국어 제목을 그대로 사용하였지만 표지 앞에 모험소설이라는 관형어를 붙여『모험소설 십오소호걸』이라 명명하여 미지의 세계로 향하는 모험적 요소를 강조하였고, 쥘 베른의 30회, 모리타 시켄의 15회, 량치차오의 16회의 구분은 따르지 않고 회 구분 없이 전체를 하나로 엮였다. 단행본은 154쪽으로 일본어 번역본과 중국어 번역본보다 분량이 훨씬 적었다. 모리타 시켄의 일본어 번역본의 일러두기와 량치차오의 중국어 번역본의 주와 같이 정보를 알 수 있는 일체의 설명이 없어서 누구의 책을 번역하였는지 알 길이 없는 상황이지만, 개화기시대 서구소설의 한국수용처럼 량치차오의 중국어 번역본을 뼈대로 삼아 번역하였고 모리타 시켄의 번역본을 참조하여 번역한 것이다.

한편, 텍스트와 텍스트 사이에 일어나는 상호관계, 두 개 이상의 텍스트가 맺고 있는 상호연관성을 상호텍스트성이라 말하는 바, 한 텍스트의 의미가 다른 텍스트 관련 속에서 상호 텍스트적으로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 말하는 상호텍스트라는 것은 가장 넓은 의미의 범주로서 문학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질적인 다른 문화까지를 포괄하고 있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즉 근대를 지향하면서 서구 작품을 번역하는 한중일의 사회와 각국의 언어로 번역된 문학과는 상호텍스트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번역은 원어 텍스트와 문화에 대한 '다시 쓰기(rewriting)'라고 할 수 있다. '다시 쓰기' 과정에서 한중일 번역자의 전략적 의도와 각국의 문화적인 상황에 따라 해석과 개입, 변형과 왜곡, 전복과 조작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번역을 통해 부단하게 변화하는 것은 언어의 표현형식의 변화일뿐만 아니라 서구 근대를 지향하는 사회적 열망의 요구이다. 본고는『십오소년표류기』를 통해 한중일 각국의 문화적 환경 아래에서 번역자에 번역 방법과 의도를 통해 번역과정에서 무엇을 추구했는지를 살펴보고, 이런 과정에서 개입과 전복, 변형과 왜곡 등이 발생하는 상황을 탐구하고,

5) '호걸역'은 일본의 메이지 초기에 출현하였다. 그 당시 일본에서는 메이지 유신으로 인해 적극적으로 서구를 학습하면서 많은 서구의 문학작품이 번역되었는데, 당시 번역은 원작의 주제, 구조, 인물 등을 바꾸는 등 요약과 다시 쓰기를 한 작품이 많았다. 이런 번역방식을 '호걸역'이라고 하는 바, 스스로 호걸이라 지칭하고 통쾌하게 붓을 휘둘려 제멋대로 원작을 잘라내고 훼손시킨다는 의미이다. 또 중국에서는 만청시기에 성행하였다. 그 당시 林紓, 梁啟超, 蘇曼殊, 周桂笙, 包天笑 및 魯迅 초기의 번역 등이 다 '호걸역'이라 말할 수 있다. 즉 '호걸역'은 원작에 대해 손을 대어 첨삭, 생략, 증감, 대체, 개역 등 임의적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왕원향,『飜譯文學導論』, 北京師範大學出版社, 2004. p.146. 참조. 이는 한중일 서구문학 번역 초기에 번역 원작에 대한 불철저성에서 기인하는 공통적인 현상이다.

6) 량치차오,「論進取冒險」,『신민총보』제5호, 1902년 4월 8일. 夫今日天下萬國中, 其退步之速與險象之劇者, 莫吾中國若也.

근대 민족국가로서의 정체성을 지니고 각국의 새로운 국어로 탄생하는 과정의 일면을 초보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2. 근대 초기의 한중일 서구문학 번역 수용양상

한국에서는 병인양요(1866), 신미양요(1871)를 통해 서구 근대가 조선을 침략하기 시작하고, 메이지 유신을 통해 새로운 제국으로 성장하던 일본이 운요호사건(1875)을 통해 불평등한 강화도조약(1876)을 통해 강제적으로 개항하는 시기까지 서구 근대를 알기 위한 번역은 전무하였다. 새로운 근대의 문화를 건설하고자 욕망했던 1894년 갑오경장 이후 일본의 이노우에 츠토무(井上勤, 1850-1928)이 1883년 번역한『아라비안나이트』를 번역 저본으로 삼아 1895년 전통고전소설의 문체로 번안하여 번역한『유옥역전』을 필두로, 같은 해에 청교도들의 신앙과 신학을 비유형식으로 그린 존 버니언(John Bunyan, 1628-1688)의 소설인『천로역정(天路歷程, The Pilgrim's Progress)』을 제임스 게일(James S. Gale, 1863-1937) 목사가 한국어로 발췌하여 번역한『텬로력뎡』이 출판되었고, 1886년『이솝이야기』가 일본번역본을 참조로 발췌하여 번역되면서 서구문학의 번역작품이 소개되기 시작하였다. 1900년까지 한국에서 서구문학 작품이 번역된 것은 이 세 종이 전부이고 1910년도까지 번역된 것은 거의 일본어 번역본이거나 중국어 번역본을 중역한 것에 불과할 뿐이다.[7] 한국에서는 새로운 근대를 향한 번역작업의 중요성과 근대의 민족 언어 만들기로서의 의식적인 자각이 부족하였던 셈이다.

중국에서는 1840년 아편전쟁 이후 1911년 신해혁명까지의 소위 청말 혹은 만청시대에 중국정신이라는 봉건적 전통가치는 보전하려는 욕망 속에 근대화를 추구하는 난감한 상황 속에서 그래도 중국 지식인들은 서구문학의 번역 소개 등으로부터 부국강병을 도모하였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선교를 목적으로 영국 선교사 윌리엄 번스(William Burns, 1815－1868)가『천로역정(天路历程)』을 1953년 중국어로 번역한 이후에, 1872년 상하이에서 창간되고 사회적 영향력이 커서 중국현대사 연구의 백과전서라 불리던 신문『신보(申報)』에 조너선 스위프트의『걸리버여행기(Gulliver's Travels)』가 그 해 5월 21일부터 24일까지『담영소록(談瀛小錄)』이라는 제목으로 나흘간 일부 연재되다 중단된 적이 있다. 이『담영소록』은 걸리버여행기 속의 인물이 중국인으로 바뀌고 난쟁이 나라 소인국만을 간단하게 서술한 번안물이였다. 이어서 1873년 영국 작가인 에드워드 조지 불워 리튼(Edward George Bulwer Lytton, 1803-1873)의 소설『밤과 아침(Night and Morning)(1841년 작)』을 여작거사(蠡勺居士)가『흔석한담(昕夕闲谈)』이란 제목으로 번역하여『신보』가 발행한 중국 최초의 통속성을 중시하는 문학잡지인『영환쇄기(瀛寰瑣記)』제3기부터 28기까지 전통의 장편 장회체 소설문체로 발표하였다.[8] 하지만 중국에서 서구문학을 본격적으로 번역하기 시작한 것은 1894년 청일전쟁 이후이다. 청일전쟁의 패배로 중국이 서구 제국이나 메이지유신을 통해 새로운 근대 제국으로 성장한 일본에 비해 과학기술의 물리력의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사상, 문화의 차원에서 낙후되어 있다는 인식에 도

7) 한국에서 서구 근대의 모습을 알 수 있는 저작물이 소개된 것은「한성순보(漢城旬報)」(1883),「한성주보(漢城周報)」(1886) 등의 신문의 발간과 한국 최초의 근대화 책략서라 할 수 있는 유길준(俞吉濬)의『서유견문(西遊見聞)』(1895)이 간행되고 난 다음부터이다. 김병철 저,『한국근대서양문학이입사연구』, 을유문화사, 1980, pp.7-76.참조.

8) https://wenhui.whb.cn/third/baidu/201907/08/275551.html [2022.10.3.] 및 Patrick Hanan, "*A Study in Acculturation-The First Novels Translated into Chinese*", Chinese Literature: Essays, Articles, Reviews(CLEAR), Vol. 23, Dec., 2001, pp.55~60.참조

달하면서 서구의 근대를 탄생시킨 수많은 저작들을 본격적으로 중국어로 번역하기 시작하여 중국에서 서구의 사상서이나 문학 작품의 번역종수가 이전에 비해 압도적으로 증가하였다.[9] 서양 유학생 출신인 엄복(嚴復)은『천연론(天演論, Ethics and Evolusion, 1897년『國聞彙報』에 연재됨)』등 서구 사상서를 신·달·아(信·達·雅)라는 자신의 독창적인 번역관을 확립시키면서 문언문으로 번역하였고, 임서(林紓, 1852-1924)는 중국 최초의 서구 번역소설로 잘못 알려졌던『파리차화녀유사(巴黎茶花女遺事, 1895)』를 비롯하여『흑노유천론(黑奴籲天錄, 엉클 톰스 캐빈, 1901),『해외헌거론(海外軒渠錄, 걸리버여행기, 1903년부터『繡像小說』에 연재되고 1906년 출판됨) 등 180여 종의 문학작품을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의 구술의 도움을 받아 뛰어난 문언문으로 번역하였다. 특히 쥘 베른의 작품은 중국의 근대 초기에 가장 많이 번역된 서구 작가의 하나로『십오소년호걸』이 번역되고 난 다음부터 중국 근대 최초의 백화소설「광인일기』가 나오기 전까지 총 19종의 쥘 베른의 작품이 일본어본 중역을 참조하여 중국 전통의 형식과 문체로 다양하게 번역되었다. 1907년도에 250여종이 나올 정도로 서구문학 번역종수가 가장 많았다. 하지만 5·4시기 이전까지 중국에서의 번역 행위는 늙은 중국의 제국을 극복하려는 노력에서 출발한 중국 지식인들의 사회적 책임감과 애국적 열정에 따른 정치적 행위에 다름 아닌 바, 새로운 근대적 언어와 문체에 대한 자의식은 부족하였다.

주지하다시피 한중일에서 번역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것은 메이지 유신을 통해 동아시아 근대의 제국으로 성장했던 일본이었다. 일본은 에도막부 시대에 난학蘭學의 최초의 학자 스기다 겐파쿠杉田玄白가 일본 한문체로『해체신서解體信書』를 완역하는 과정에서 동아시아에 없던 새로운 개념의 어휘를 동아시아 문명의 공통언어인 한자어로 재창조한 이후에 서구를 본격적으로 이해하기 시작하였다. 한국과 중국처럼 일본은 미국의 매튜 페리가 근대식 군함을 몰고 개항을 강요하여 1895년 불평등한 조약인 미·일수호통상조약을 맺고 강제적인 개항 이후, 근대 세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탈아입구脫亞入歐라는 슬로건으로 서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했던 메이지시대에 서구 언어에 대한 깊은 연구를 바탕으로 서구 개념에 대한 번역어들을 고민하면서, 근대를 상징하는 수많은 번역어가 쏟아져 나오게 되었다. 개인, 사회, 민주, 민족, 철학, 주의, 논리, 의식, 의지, 문명, 사회, 공산, 자본, 이성 등 현재 한중일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근대 어휘가 한중일 공통의 서면 언어인 한자를 매개로 하여 번역을 통해서 출현하게 되었다. 그 한자어 번역어들이 한국에 수입되고, 또한 한자의 종주국인 중국에 수용되었던 것이다. 한국과 중국에서 일본 번역의 근대적 어휘의 유입은 한국과 중국에서 새로운 근대의 개념을 가져다주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어와 중국어에서 서구 근대의 개념을 좀 더 명확히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이처럼 일본에서 번역을 통해 만들어낸 근대 어휘가 없었더라면 한국과 중국에서 국어의 탄생, 즉 언문일치의 완성이 불가능했을 것이다.

일본 메이지시대 이전에 서구 문학이 번역 소개된 것은『이숍 이야기』와『로빈슨 크루소』이다. 일본 최초의 서구문학 번역본인『이숍 이야기』는 1857년 기독교 전도를 목적으로 일본에 왔던 예수회 선교사 알렉산드로 발리냐노에 의해 라틴어본을 저본으로 삼아『이숍의 파블라스イソポのハブラス(ESOPO NO FABVLAS)』로 일본어 구어체로 번역되어 로마자 표기로 출판되었다.[10] 대니엘 디

9) 郭延礼는『中国近代翻譯文学概論』(湖北教育出版社, 1998)에서 중국 근대의 50년간의 번역문학을 50년간의 번역문학사를 맹아기(1870-1894년), 발전기(1895-1906년), 번성기(1907-1919년)로 나누고 있다. 일본의 樽本照雄의「清末民初の翻訳小説」(『大阪経大論集』第47巻 第1号, 大阪経大学会)의 분석에 참조해보면, 1901년부터 번역소설의 종수가 눈에 보이게 서서히 증가하여 1903년에 하나의 정점을 맞이한 뒤, 1907년에는 250여종이 나올 정도로 1903년의 발행 종수의 3배에 가까운 작품이 출판되어 최정점을 맞이한다. 그러나 1907년을 경계로 그 후 번역작품의 종수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가 중화민국이 성립되고 난 뒤에 번역소설의 수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다가 1915년 신문화운동에 발 맞추어 번역소설의 종수는 청말의 최절정기인 1907년의 숫자를 훌쩍 넘어서는 350여종의 이상이 발간되었다. 그 후 점차 줄어들어 1928년까지 1915년과 1907년을 최정점을 초과하지 못하였다.

포가 1719년 발표한 장편소설『로빈슨 크루소(Robinson Crusoe)』는 네델란드어, 영어, 불어, 독어에 능통했던 구로다 유키지로(黒田行次郎, 1827-1892)[11]가 1854년 네델란드 번역본을 저본삼아 로빈슨 크루소를 사무라이의 아들로 만들어서 일본어로 발췌하여 필사본으로 번역한『표황기사 漂荒紀事(ロビンソン・クルーソー)』가 있고, 요코야마 요시키요(横山由清, 1826-1879)가 1857년에 발췌번역하고 3점의 목판 삽화를 삽입한『魯敏遜漂行紀略』가 있고, 1872년 메이지 5년에 사이토 료안(斎藤了庵)이『魯敏孫全傳』의 제목으로 발췌번역하였다.『로빈슨 크루소』는 메이지 시대에 특히 많은 인기를 얻었는데, 1912년까지『로빈슨 크루소』는 13종이 넘는 다양한 형태로 일본어로 번역출판되었다. 이처럼『로빈슨 크루소』,『걸리버여행기』,『십오소년표류기』,『월세계여행』,『80일간 세계일주』등과 같은 모험과학소설류는 메이지 시대에 서구 근대를 따라잡기 위해, 현실의 삶의 역경을 굴하지 않고 고군분투하면서 문명개화와 부국강병으로 요약되는 새로운 근대의 새로운 세계를 열고자 했던 일본인들의 도전과 개척의 산물이었던 셈이다.

이 지점에서 메이지 시기의 서구문학 일본어 번역상황을 살펴보자. 2001년에 출판된 川戸道昭 등이 편집한『明治期翻訳文学綜合年表』에서는 메이지 원년(1868)부터 메이지 45년(1912)까지 간행된 서구문학 번역작품은 총 4,509종이었고, 나라별로는 영국(1,115종), 프랑스(859종), 러시아(756종), 독일(536종), 미국(425종) 등의 순서로 번역되었다. 일본의 메이지 시기는 서구문학번역을 통해 서구를 철저히 이해하려고 노력하였던 것이다. 메이지 시대 메이지 시기(1868-1912) 최초의 10년간 번역작품은 적어서 매년 나오는 번역작품은 거의 한자리수에 머물지만, 메이지 11년(1878)을 기점으로 간행되는 서구 번역문학의 작품이 증가하기 시작하고 메이지 20년(1887)년에 100종이 넘을 정도로 하나의 피크에 이르고 있다. 메이지 20(1887) 이후 매년 30여종에서 100여종까지 번역되다가, 메이지 35년(1902)에는 350여종 정도 서구작품이 번역되어 최절정기에 도달하였고, 그 이후에도 매년 거의 300여종을 넘을 정도로 간행되어 절정에 이르다가 메이지 45년(1912)에 200여종이 번역되어 서구문학 번역추세의 정체를 보이고 있다.[12] 메이지 시대의 번역은 서구 근대의 신지식과 사상을 전달하는 캐리어가 되어, 일본이라는 국가와 민족과 개인의 측면에서 아이덴티티의 급격한 변화를 동반하였다. 언어사용의 방면에서도 한문으로 사용한 동아시아의 문언 중심의 전통적인 가치에서 근대민족국가의 국어로 전환하는 의식의 변화가 동반되었다. 이로 인해 메이지 말에는 벌써 서구문학의 번역을 통해 근대국가로서의 언문일치라는 일본의 근대 국어를 탄생시켰으며 구어 중심의 문체가 완성된 시기라 할 수 있다.

1887년『부운(浮雲)』을 발표해 일본의 언문일치소설의 선구자가 되었던 후타바테이 시메이(三葉亭四迷)는 한학과 러시아문학에 능통한 번역가로서 러시아어로 소설을 쓰고 그것을 일본어로 옮기는 과정에서 새로운 근대적 언어와 문체를 재발견하였다. 후타바테이 시메이는 1888년 지식인들의 종합잡지였던『국민의벗(国民之友)』에 1988년 이반 투르게네프의『사냥꾼일기』를 일부 번역한「밀

10) 이 책은 그 당시 쇄국의 시대적 상황에서 발금조치 되어 일반인들에게 유포되지 않고 오직 전세계에서 유일본으로 대영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메이지 시대가 되어서 알려지게 되었다. 그 후 에도시대(1603-1868) 초기부터 1639년까지『이솝이야기 伊曽保物語』일본어 문어체로 번역된 9종의 고활자본이 있었고, 1659년 삽화들이 들어가 있는 제판본도 나와 일반적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濵田幸子,「『伊曽保物語』と江戸時代におけるその受容について」,『佛教大学大学院紀要, 文学研究科篇』第38號, 2010년 3월, p.57. 참조.

11) 난학자(蘭學者)인 구로다 유키지로는 천문·역학으로부터 정치·종교에 이르는 110여종에 관하여 저술하였고, 또한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의『서양사정』을 주해·주석하여 후쿠자와 유키치조차도 감탄시켰다. 에도 말기부터 시작하여 메이지 유신시대에 절정을 이루었던 서구 문명의 수용과 전파에 있어서 중요한 인물이었다.

12) 川戸道昭 等(編),『明治期翻訳文学総合年表』, 2001년, 大空社. 와 王 虹,「データから見る清末民初と明治の翻訳文学」,『多元文化』第7號, 2007년, pp.151-165참조.

회(あひびき)」를 발표하였는 바, 그전까지 일본한문체로 대충의 전체 줄거리를 축약하거나 요약하는 번역방법에서 벗어나 투르게네프의 문장을 한 글자, 한 글자씩 엄밀하게 직역하는 방법을 통해 일본의 언문일치체의 선구를 이루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일본 한문체의 문어를 사용하지 않고 서구의 표현을 모방하기 위해 서구식 문장기호의 사용, 일본어 어법에서 이탈한 참신한 문학적 예술적 표현을 많이 사용하여 서구식의 표현과 문화에 접근할 수 있었기에 쓰보우치 소요(坪内逍遙, 1859-1935) 등을 비롯한 많은 젊은 작가들에게 영향을 주어 새로운 일본어를 탄생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처럼 일본에서는 번역을 통해 근대문체의 탄생을 알려던 것이다. 번역이란 어떤 문화에서의 개념을 언어적 차원에서 변용하여 이질의 다른 문화에서도 통하게 하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 어떤 문화와 다른 문화가 통하는 경계선이라고 할 수 있다. 메이지 시대 번역은 단순한 언어의 번역을 넘어서 서구 근대에 대한 철저한 수용과 모방을 통해 동아시아 근대의 제국을 실천한 행위였을 뿐만 아니라, 근대어와 문체를 탄생시키기 위한 철저한 시도였던 셈이다. 따라서 일본의 근대 문학사는 서구문학의 전통을 번역을 통해 일본화하려는 서구 문학의 영향사라 해도 과언이 아닌 바, 『십오소년』을 비롯한 모리타 시켄의 번역작업도 서구의 사상과 문화의 다시 쓰기를 통해 서구 근대를 철저히 모방하고 근대국가로서 일본의 국어를 건설하고자 하는 핵심 작업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셈이다.

3. 한중일 『십오소호걸』의 번역의 태도와 지향, 상호텍스트성

이 지점에서 『십오소년표류기』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살펴보자. 모든 시대를 통틀어 최고의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성서를 제외하고 전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번역된 작가로 알려져 있는 쥘 베른의 『십오소년표류기』의 원제목은 『2년간의 휴가』이다. 1860년 3월 뉴질랜드 체어맨 스쿨의 학생 14명이 배를 타고 뉴질랜드 연안을 일주할 희망에 부푼 계획을 세우지만, 출항 전날 선장과 선원들이 없는 사이에 묶어둔 밧줄이 풀리면서 학생들을 태운 배가 망망대해 바다로 떠내려 가버린다. 그 배에는 학생 또래의 미성년의 흑인 견습선원인 모코만이 타고 있을 뿐이다. 15명의 소년들이 바다에 폭풍우를 만나 2주 동안 사투를 벌이다가 간신히 무인도에 표류하게 된다. 그 곳에서 15명의 소년들은 자신의 학교 이름을 따서 체어맨 섬이라 명명하고 자체적으로 지도자를 선거를 통해 뽑아 생활한다. 이 과정에서 15명의 소년들은 과학의 지식을 활용하여 사물에 대한 관찰력을 키우고, 다양한 시련과 갈등을 돌파해나가면서 죽을 고비를 넘는다. 어려움을 만나면 용기를 발휘하고 합심단결하는 협동의 자세를 가지면서 각자 자립심을 키우고 맡은 바 책임을 다한다. 그들은 2년간 체어맨 섬에 살다가 간신히 구조되어 집으로 돌아오기까지의 모험 이야기이다.

일본에서는 서구제도와 문명을 수입하는 '문명개화'와 자본주의 경제발전을 추구하는 '식산흥업'으로 상징되는 서구 근대화를 통해 청일전쟁의 승리를 거머쥐고 탈아입구를 외치면서 동아시아 제국으로 성장하던 시기인 1896년에 모리타 시켄은 『십오소년표류기』를 번역하였다. 이에 반해 중국에서는 양무운동의 실패와 변법유신의 좌절, 의화단의 난을 진압한다는 구실로 8개국 연합군이 중국에 진출하여 굴욕적인 '베이징의정서'를 체결하여 반식민지·반봉건 사회로 전락한 민족멸망의 시기에 량치차오는 '신민(新民)' 만들기라는 뚜렷한 목적의식 아래 1902년 번역하였고, 한국에서는 서구 근대화를 제대로 추구하지도 못하고 한일합방을 통해 완전히 일본 식민지 상태로 떨어진 시기인 19

12년에 민준호가 번역하였다. 이런 까닭에 한중일 번역자의 사회문화적 시대환경에 따른 번역정신과 태도에 따라 한중일『십오소년표류기』의 텍스트의 변형과 왜곡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쥘 베른의『십오소년표류기』가 동아시아에서 최초로 번역된 일본에서는 모리타 시켄(森田思軒)이 영어의 어떤 판본인지 언급하지 않았지만 영어본에서 중역하였다고 밝히고 있고, 량치차오는 모리타 시켄의 일어본에서 중역하였다고 언급하고 있다.[13] 하지만 민준호의 한국어 번역본에서는 원본 텍스트에 대한 어떤 설명도 없이 단지 '역술(譯述)'하였다고만 표기하고 있다. 모리타 시켄의『십오소년』, 량치차오의『십오소호걸』, 민준호의『십오소호걸』은 모두 번역작품이라 부를 수 있지만, 모두 번역당시 한중일의 특수한 사회문화적 상황에 따라 번역에 대한 태도가 달라진다. 여기에서 역술은 만청 시기에 번역과정에서 직역을 하지 않는 특수한 번역현상을 가리키는 용어라고 할 수 있는 바, 만청시기 번역소설에서 원전 텍스트를 번역하면서 자의적으로 다시 고쳐쓰기를 하는 다양한 상황을 광범위하게 지칭하는 용어이다. 다시 말해 역술은 원전 텍스트의 주요 내용을 참조하여 역자의 주관적인 성분이 강하게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번역하는 것이다. 바로 량치차오는 역술과 다시 쓰기의 경계에 있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량치차오의『십오소호걸』도 모리타 시켄의 "원문과 터럭만큼의 잘못도 없는 것을 자신한다(惟自信於原文無毫釐之誤)"[14]고 단언하였지만, 중국 전통의 장회소설체의 형식에 얽매여서 그 번역을 당대 중국인들에게 익숙한 방식과 문체로 '다시 고쳐쓰기'를 하고 있다. 따라서 그는 전통적인 강창문학에서 발생되고 이야기꾼의 대본인 송대 화본소설을 거쳐 발전된 명청대 장회소설의 특징을 분명히 운용하면서 이야기꾼(說話人)과 가상적인 청중을 설정하고 있는 바, 전체 18회의 모든 부분에서 설서장면을 모방하고 있다. 첫째, 청자를 설정해서 말하는 이야기꾼의 상투어인 '看官(여러분)', '却說', '話說' 등이 사용되고 있으며, 둘째, 30회의 쥘 베른의 원본과 15회의 모리타 시켄의 일본의 번역본에서 각 회의 내용을 간단한 몇 개의 구절로 요약하는 방법[15]과 달리 화본소설의 개장시처럼 각 회의 첫머리에 그 회의 내용을 압축적으로 설명하는 제목이 있고, 셋째, 산장시처럼 각 회의 마

13) 모리타 시켄은 '서유기', '삼국지', '수호전' 등의 중국소설을 원문으로 읽을 수 있었으며, 14살 때 오사카 게이오의숙에 입학하면서 영어를 공부하였다. 한마디로 일본에서 청소년 시절 영어를 공부한 최초의 세대로, 메이지 초기의 번역 문체의 혁신과 언문일치체의 확립과 완성에 크게 기여한 인물이다. 그의 번역 문체은 원문에 충실한 '周密體'이다. 이는 번역자의 정확한 외국어 능력이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고 할 수 있는 바, 그의 번역목표는 번역을 할 때 번역어의 정확함을 강구하는 한 편, 구두점의 위치까지도 원문에 맞게끔 신경쓰고 있다. 한편 한국에서『십오소년표류기』에 다룬 유일한 글로 시에구사 도시카쓰의「쥘 베른(Jules Verne) 의『십오소호걸」의 번역 계보-문화의 수용과 변용」(사이間SAI·제4호)이라는 논문이 있다. 이 논문은『십오소호걸』의 1차적인 서지자료 분석과 한중일 작품에 대한 간단한 비교분석을 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구체적인 모든 사안에 대해서 명확하게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으나, 모리타 시켄은 뉴욕(New York)에서 1889년 대중용 해적판으로서 포켓판의 단행본의 형식으로 출판한 A Two Years' Vacation(Seaside Library Pocket Edition)을 원본 텍스트로 사용했을 것이라 추측하고 있다. 또 민준호의『십오소호걸』은 소설 등장인물의 이름표기가 아돈, 파사타, 좌극, 격라사, 을보, 사비 등의 이름은 일본어 한자표기와 다르고, 중국어 량치차오의 번역본의 俄敦, 巴士他, 佐克, 格羅士, 乙菩, 沙毗 등과 같은 점을 들어서 민준호의『십오소호걸』은 량치차오의 번역본에 근거하여 번역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번역본의 한자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여 아돈, 파사타, 좌극, 격라사, 을보, 사비 등 차용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량치차오의 판본에 근거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번역계보는 불어원전→영어판→일본어판→중국어판→한국어판이라고 밝히고 있다. pp.36.-40. 참조. 하지만 민준호의 한국어판은 일본판을 더불어 참고한 것 같다. 이야기 순서가

14) 량치차오,『십오소호걸』,『新民叢報』第2號, p.100.

15) 모리타 시켄의 번역본 제1회의 표제에는 "폭풍우, 태평양 바다에 외로운 배 한 척, 단지 아이들만, 육지의 환영, 뱃머리의 아우성(大あらし、太平洋心の一孤舟、只だ是等の童子のみ、陸影、船首の叫聲)"으로, 제2회에는 "뉴질랜드의 어느 학교, 여름휴가, 14명의 학생, 밧줄 풀림의 전야, 표류, 모리부리 위.()"라고 몇 개의 단어나 구절로 간단하게 요약되어 있다. 민준호 한국어 번역본에서는 회 구분없는 소설체제를 이루고 있다.

지막 부분 앞에 그 회의 내용을 7언 2구나 4언 4구 혹은 4언 7언 4언 7언의 4구의 운문시가 있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음 회의 전개될 이야기의 궁금증을 유도하는 '후에 일을 알고 싶으면 다음 회를 들어 보시라(欲知後事如何, 且聽下回分解)'와 같은 상투적인 언급 등이 있고, 넷째, 18회 번역의 끝에 10회부터 번역을 한 뤄푸(羅普)가 7언 16구의 장편고시로써 소설을 총결하는 것처럼 철저히 중국전통의 장회소설의 형식으로 '다시 쓰기'를 시도하고 있다. 모리타 시켄의 일본 번역본을 한마디로 중국 전통문화의 형식에 맞추어 버리고 있다. 특히 제1회에서 제4회까지 량치차오가 번역에 대한 목적과 의도에 대한 설명이 마지막에 부기되어 있다. 이 지점에서 제1회의 예를 들어 자세히 분석해보자.

제1회의 제목은 '망망한 대지 위에 외로운 배 한 척, 출렁출렁 성난 파도 속에 아이들 몇 명(茫茫大地上一葉孤舟, 滾滾怒濤中幾個童子)'이라 명명하여 바다 속에 표류하는 아이들의 운명을 암시하고 있다. 바로 그 다음에 화본소설의 개장시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는「摸魚兒」라는 사패(詞牌)에 의지하여 짓는다는 의미의「調寄摸魚兒」를 의도적으로 창작하여 소설 전체의 내용을 요약하고 번역의 의도를 중국의 독자에게 알려주고 있다. 이「摸魚兒」의 사에 바로 이어서 "여러분, 말해보시길. 이 한 편의 사가 무슨 전고를 얘기하는지를. 말하자면 지금으로부터 42년전, 바로 서기 1860년 3월 9일에…(看官, 你道這首詞講的是什麼典故呢. 話說距今四十二年前, 正是西曆一千八百六十年三月初九日…)"라고 설화인이 직접 말하는 형식으로『십오소년표류기』의 이야기를 시작한다. 이 지점에서 개장시 역할을 하는「調寄摸魚兒」를 소개해본다.

> 망망 대해에 거친 파도 몰아치고 사나운 비가 날리는데, 찢어진 돛을 달고 배 한 척이 건너가네. 삶과 죽음의 고비를 넘나드는 사람 열 다섯, 모두들 온통 어린 아이들뿐이라네. 살 곳을 만났으나, 다시 하늘 끝에 홀로 있는 무인도에 떨어져서 돌아갈 길이 없도다. 쓰라린 고통에 우두커니 멈추었지만, 단지 정신을 단단히 차리고 괴로움과 어려움을 베고 덜어내면서, 우리를 이 년 동안 살아가게 하였도다.
>
> 사회의 이상적 가치를 실현하는 영웅의 일이니, 어찌 하늘님이 시샘할까, 식민지를 건설하여 새로운 땅을 열었도다. 밝게 빛나는 국기를 남극에 휘날리니, 공화 제도가 좋다네. 하늘이 저버리지 않으니, 말에 뿔이 나고 까마귀가 하얗게 변하는 것을 보듯이 용케 모두들 살아남아 함께 즐겁게 돌아가도다. 나는 헛되게 말을 하지 않으니, 나이가 어린 동포에게 권하노니, 닭울음 소리를 듣고 칼을 휘두르듯이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분발하자구나, 부디 이 생애를 그르치지 말지어라.
>
> 調寄摸魚兒
>
> 莽重洋驚濤橫雨, 一葉破帆飄渡。入死出生人十五, 都是髫齡乳稚。逢生處, 更墮向天涯絶島無歸路。停辛竚苦, 但抖擻精神, 斬除荊棘, 容我兩年住。
>
> 英雄業, 豈有天公能妒, 殖民儼闢新土。赫赫國旗輝南極, 好個共和制度。天不負, 看馬角烏頭奏凱同歸去。我非妄語, 勸年少同胞, 聽雞起舞, 休把此生誤。[16]

량치차오가 "천하의 가운데 서서 멈춰 있는 일이란 없으니 용맹하게 전진하지 않으면 넘어지고 퇴보한다. 사람의 생명은 우환과 같이 오니 어려움을 두려워하면 위험에 빠진다.…(략)…서구민족이 중국보다 우월한 까닭은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진취적이고 모험적인 정신이 아주 풍부하다는 점이 대체로 가장 중요할 것이다."[17]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중국 상황에서『십오소호걸』의 15

16) 량치차오,『십오소호걸』,『新民叢報』第2號, p.93. 신민총보에서는 문장기호에 구두점만 있었는데, 본고에서는 모어아를 참고하여 문장기호를 다시 적었음.

17) 량치차오,「論進取冒險」,『신민총보』제5호, 1902년 4월 8일. 天下無中立之事, 不猛進, 斯倒退矣. 人生與憂患俱來, 苟畏難、斯落險矣. …… 歐洲民族所以優強於中國者, 原因非一, 而其富於進取冒險之精神, 殆其尤要者也.

명 어린 소년처럼 용맹하게 정진하지 않으면 퇴보할 것이고, 정신을 단단히 차리고 시련과 고통을 이겨내면 영웅의 대업처럼 금의환향 새롭게 개선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일은 중국의 사회와 다른 서구의 사회제도, 즉 공화제도에 기인한 일이니, 미래의 꿈을 안고 있는 중국의 젊은 소년에게 일생을 그르치지 않도록 시련을 견디고 힘써 노력해서 국가에 충성하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애기하고 있다. 다시 말해 15소년의 서구의 소년처럼 모험적이고 진취적인 자유로운 정신으로 탈바꿈해서 새로운 중국을 건설한 소년들의 등장을 희망하고 있는 것이다. 이점이 바로 량치차오가 『십오소년표류기』를 번역한 의도이자 정치적 목적임을 알 수 있다.

이런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량치차오는 번역의 과정에서 의식적으로 원문이나 모리타 시켄의 일본어 번역본에 없는 문장, 즉 1회에 “그때 이 배는 정말 자유의 권리라곤 없는 노예가 되었다.(那時這船可不成了個沒有自由權的奴隸.)”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삽입하였고 어휘상에도 “Boy, 莫科莫科, My Boy”처럼 Boy[18]라는 영어를 직접 사용하거나, 자유, 권리, 법률, 총통 등의 근대적 가치가 있는 어휘를 특히 강조하여 낯설게 하였다. 이처럼 량치차오는 『십오소년표류기』를 서구소설을 단순히 소개하는 것이 아니고 중국의 국민들에게 사상계몽적 차원에서 번역한 바, 민족멸망의 위기에 처한 중국국민에게 위기를 돌파할 진취적이고 모험적인 자세를 두려워하지 않고 함께 단결하여 새로운 세상을 열어나가야 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량치차오의 중국어 번역 제2회, 민준호의 회를 나누지 않은 한국어 번역 17쪽, 모리타 시켄의 일본어 번역 제1회에 나오는 한 장면을 들어보자.

> 무안은 아돈과 여러 아이들에게 말했다. “오늘 오히려 우리들이 아주 위급한 상황에 이르렀는데, 모든 사람이 한 곳에 붙어 있어서 위급함을 늦추거나 서로 도와주어야 한다. 만약 상호 떨어진다면, 이는 멸망하는 이치이다.” 두번은 이 말을 듣고 무안이 일부러 그를 비웃는다고 여기고 갑자기 흥분해서 말했다. “무안 네가 무슨 권리가 있어 감히 법률을 제정하여 우리들을 따르게 하느냐?” 무안이 말하길, “아니다. 무슨 권리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야. 다만 여러 사람들이 안전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떨어지면 안된다는 것이야.” 그 중에 가장 심려 깊은 아돈이 또 이어서 말했다. “무안의 말이 옳다.” 그 나머지 아이들은 모두 따르면서 그렇지, 그렇지라고 동의하였다. 武安向俄敦及衆孩子道。今日尙是我輩至危極險之時。大家同在一處。緩急或可相救。若彼此分離。是滅亡之道也。杜番聽見這話。以爲武安有意譏誚他。便勃然道。武安你有甚麼權利。敢制定法律。令我們遵行嗎。　武安道。豈敢豈敢講甚麼權利不權利呢。但大家欲保安全。這却離開不得呵。就中最老成的俄敦。亦接着說道。武安的話不錯呀。其餘一班孩子都附和道。是是
>
> 무안이아돈과여러ᄋᆞ히를향ᄒᆞ야ᄒᆞᄂᆞᆫ말이
> [무]오날도오히려우리들의지극히위험ᄒᆞᆫ쩌니모다ᄀᆞᆺ치한곳에모혀원급을가히셔로구ᄒᆞᆯ　것이오만일피ᄎᆞ분리ᄒᆞᆫ즉이ᄂᆞᆫ곳멸망ᄒᆞᆯ장본이니라
> 두번이그말을드른즉자긔를빗디놋코ᄒᆞᄂᆞᆫ말ᄀᆞᆺ흔지라얼골이ᄲᆞᆯ긔지며
> [두]너는무슨권리잇셔남더러이리해라뎌리해라ᄒᆞ늬그것참졔—
> [무]권리가무슨권리야여러시셔로혜여지면위험ᄒᆞ다ᄒᆞᄂᆞᆫ말이지
> 그즁에가장로셩ᄒᆞᆫ아돈이썰ᄉᆞ우스며
> [아]그리너무급ᄒᆞ게ᄒᆞᆯ것이아니야무안의말이그러ᄒᆞᆯ듯ᄒᆞ군
> 아돈의말이쑥써러지며젼일에무안을신뢰ᄒᆞ던어린ᄋᆞ해셔히일시에겻츨치여

18) 민준호 한국어 번역본에도 ‘뽀이’라고 하면서 ‘부리ᄂᆞᆫ ᄋᆞ히’라고 주를 달아 설명하고 있다.

그럿치々々々

무안이 오돈과 여러 아이들을 향해서, 지금에 이르러서 모두 같은 곳에 있음으로써 위급함을 낮추어서 상호 도움을 줄 필요가 있음을 장황하게 타이르며「만약 서로 떨어지면 이것은 멸망하는 길이다.」고 말했다. 곧바로 그것에 대해 이 말을 들은 두 번은 소리치면서「너는 감히 우리들 위에서 법률을 제정하고 시행할 권리가 있다고 말하는가.」무안은「어쨌든 그런 권리가 있다고 말할 수 없어. 다만 공동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서로 떨어지지 말아야 한다고 말할 수 있을 뿐이야.」항상 심려 깊은 오돈은 그말에 맞추어서「무안의 말이 옳도다.」이전부터 무안을 신뢰하던 두 세 명의 어린 아이들은「그렇지. 그렇지」라고 호응했다.

武安は呉敦及び諸童子に向ひて、今に及びても尚ほ、　一同一處に在りて以つて、緩急相救ふことの必要なるを、諄々として諭しをり、「若し互に相離れば、是れ即ち亡滅の道なり」といへり。方さにこゝに来りて、此の語を聞きし杜番は、叫びたり「君は敢て余等の上に、法律を制定し、　施行するの權利あると謂ふか」。武安「何ぞ此の如き權利ありと謂はむ、唯だ共同の安全を保つがために、　余輩は互に相離るべからずと謂へるのみ」。常に深慮ある呉敦は之に和して「武安の說是なり」。かねて武安を信賴する幼年の二三子は「然り、然り」と應呼せり。

여기에서 량치차오, 민준호, 모리타 시켄의 인용문은 원문 그대로 수록하였다. 한중일 세 개의 번역문을 언급한 이상, 각국에서 언문일치체의 완성에 큰 역할을 하였던 근대적 문장부호를 먼저 간단히 살펴보자. 동아시아에서 한중일은 한자 문화권의 자장 아래에서 전통적으로 문장에 부호를 쓰지 않았다. 전통적인 문장을 읽을 때에 표점하는 능력을 학문적 지식의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으로도 삼기도 하였다. 량치차오의『십오소호걸』번역문은 구두점, 특히 고리점(。)인 구점만 있어서 표점만 강조하는 문언문의 전통적인 문장체계를 보이고 있다.[19] 민준호의『십오소호걸』을 보면 띄어쓰기가 전혀 되어 있지 않고[20] 마침표도 없지만 문장과 문단을 초보적으로 나누고 있고, 일본에서 유래된 몇 가지 문장부호를 사용하고 있다. 물음표, 느낌표가 없는 일본어와 같이 물음표, 느낌표는 없지만 병렬적으로 나열할 때 쓰이는 、반복부호인 첩자표(오도리지) 々와 ゝ, 인물의 대사에서 인

19) 서구언어에서 사용하는 표점부호를 중국에 처음으로 도입한 사람은 양무운동시기 청나라가 외국어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한 同文館의 영어반 학생인 장덕이張德彝이다. 그는 1868년 중국사절단의 일원으로 구미를 방문하였다가 적은『구미환유기(歐美環游記)』에서 쉼표, 마침표, 느낌표, 물음표, 큰따옴표, 괄호, 콜론, 세미콜론 등 서양식 표점부호를 소개하였다. 장덕이는 이러한 표점부호가 자질구레하고 번잡하다고 생각하여 의식적으로 중국에서 표점부호 사용을 주장하지는 않았다. 1904년 중국에서 처음으로 嚴復은『英文漢話』란 책에서 처음으로 신식표점부호를 사용하였고, 문언문에 반대하고 백화문을 서면어로 삼자고 제창하는 신문화운동시기인 1915년 호적이「論句讀及文字符號」의 글을 적어 표점부호를 실제적으로 제정하였다. 또 1917년 劉半農은「我之文字改良觀」을 발표하여 문장에 신식표점부호를 사용할 것을 주장하였고, 신문화운동의 대변자인 신청년 잡지에서는 창간 이후로 줄곧 신식표점부호를 사용하였다. 1919년 胡適, 周作人, 錢玄同, 馬裕藻, 朱希祖, 劉復 북경대학 6명의 교수들이 문법의 구별과 가독성을 강화시키기 위해 정부에 “, 。; : ? ! - () 《》” 등의 표점부호 사용을 공포해줄 것을 정식 요청하였다. 1920년 북양정부 교육부에서는『通令采用新式標點符號文』을 공포하여 중국 최초로 법정 신식표점부호가 탄생되었다.. 신식표점부호는 근대 백화문의 보급과 근대 국어로서 문자와 문체의 발전에 큰 영향을 끼쳤다.「标点符号来历: 1919年北大六教授提『请颁行新式标点符号议案』」, https://www.visitbeijing.com.cn/article/47QrXpdyT4s 참조

20) 한국에서 띄어쓰기는 1896년 최초의 한글신문인『독립신문』에서 도입되었으나 크게 보급되지 못하였다. 1908년 최남선이 일본에서 출판용 기계를 도입하여 설립한 신문관이라는 출판사에서 1908년 창간한 근대적 종합잡지인『소년』과 1914년 창간한『청춘』에 띄어쓰기가 부분적으로 보이고, 또 고리점(。), 낫표(「」) 등이 보인다. 1919년에 창간한 한국 최초의 종합문예 동인지인『창조』에 이르러서 느낌표와 물음표가 도입되었다고 한다. 1910년대 말에 이르러 띄어쓰기와 문장부호에 의식적인 관심이 많아지기 시작하였고, 이상춘(李常春)이 1925년에 지은『조선어문법』에 이르러서 물음표, 느낌표, 마침표 등 문장부호 13개를 처음으로 열거하여 설명하였다. 하지만 1920년대에 창간한『조선일보』와『동아일보』에서는 띄어쓰기를 하지 않았고, 1933년 조선어학회에서 제정한「한글맞춤법통일안」이 공표되어 띄어쓰기의 원칙과 문장부호 17개가 규정되었다.

물의 앞의 이름을 약칭으로 해서 []안에 넣어서 대사를 표시하는 방식 등이 시범적으로 보이는 바, 전통적인 문장에서 변화를 모색하는 흐름이 포착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모리타 시켄의 일본어 번역문은 현재 일본어에서 사용되는 용법에 따른 문장부호, 즉 우리나라 마침표에 해당되는 구점(。), 우리나라 쉼표에 해당되는 두점(、), 반복부호 (々), 우리나라 따옴표처럼 회화문에 사용하는 나타내는 카키캇고인 홑낫표(「」) 등이 모두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모리타 시켄이 번역할 당시 서구어에서 유래된 문장부호가 완전히 정착된 것으로, 근대 국어로서 일본어의 형식적 특징이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21]

다시 위의 인용문으로 돌아가보자. 량치차오는 제2회의 번역후기에서 제1회와 제2회의 이야기 핵심을 요약하면서 “이 두 회는 오로지 무안을 드러내고 있는데, 그중에서 그가 한 말 중에 ‘오늘 오히려 우리들이 아주 위급한 상황에 이르렀는데, 모든 사람이 한 곳에 붙어 있어서 위급함을 늦추거나 서로 도와주어야 한다. 만약 상호 떨어진다면, 이는 멸망하는 이치이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 중국 동포가 마땅히 매일 세 번씩 반복해야 할 것이다.”[22]고 하였다. 그 당시 중국의 위기상황에서 량치차오는 중국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암울한 현실과 맞부딪치면서 생존을 도모해나가는 ‘15소년’처럼 진취적인 정신으로 대동단결하여 민족위기의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사회를 개척하자라는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또 인용문에서 “네가 무슨 권리가 있어 감히 법률을 제정하여 우리들을 따르게 하느냐?”라고 하는 두번의 대사에서 보는 것처럼 그는 공화제의 법률 제정, 권리 등의 근대적 단어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그는 일본어 번역본에서 “너는 감히 우리들 위에서 법률을 제정하고 시행할 권리가 있다고 말하는가.”(君は敢て余等の上に、法律を制定し、 施行するの權利あると謂ふか)라고 잘못 번역되어, 법률 제정, 권리라는 글자적인 의미를 중국적 상황에서 확대해석 하고 있는 것이다.[23] 이와 동일한 효과를 주는 것의 하나로, 소년들이 표류한 무인도에서 생활을 총괄할 책임자를 뽑을 때, 모리타 시켄 본 6회와 9회에서는 그 책임자를 ‘태수’라고 명명하였고, 민준호 본에서는 ‘두령’이라고 한 반면에, 량치차오 본 9회와 12회에서는 근대적인 용어인 ‘총통’으로 번역하여 선거를 실시하였다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는 량치차오의 신민 만들기를 통한 공화제의 실현을 하려는 욕망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인용문 그 대사의 실제적인 의미는 ‘너가 네 맘대로 정하고 실행할 권리가 있느냐?’는 일상적이고 관용적인 뜻이다. 그런데 한국어 번역본에서는 “너는 무슨 권리 잇셔 남더러 이리해라 뎌리해라 ᄒᆞ늬 그것 참졔—”라고 그 의미를 제대로 번역하고 있다. 한국어 번역본에서 중국과 일본본과 다르게 유일하게 대사의 맥락에 따라 관용적으로 번역하고 있다. 그럼 민준호의 한국어 번역본은 무엇을 참조하고 있는가? 기본적으로 량치차오의 『십오소호걸』에 의거하고 있으나, 일본어 번역본도 같이 동등하게 참조하고 있음을 위의 인용문에서 알 수 있다. 한국어 번역본에서는 량치차오의 번역본에 안 나오지만, 모리타 시켄의 번역본에 나오는 글이 수록되어 있는 바, “젼일에 무안을 신

21) 일본에서는 1880년대부터 伊藤圭介의 「日本人/雜俗文章=於ケル句讀段落ノ標示スルヲ以テ必要トセサルハ一欠事タルヲ弁ス」(1881), 山田美妙의 「新體詞選」(1886)과 權田直助의 「國文句讀法」(1887) 등을 필두로 문장의 모호함을 피하고 문장을 쉽게 읽고 이해하도록 서구문장에서 유래된 문장부호를 참조하여 문장부호를 제정하거나 의식적으로 도입을 강력 주장하였고, 그 후에 일본 언문일치체 소설의 선구자인 후바타테이 시메이의 「부운」에서 문장부호를 의식적으로 사용하여 널리 보급되었다. 김병철 저, 『한국근대서양문학이입사연구』, 을유문화사, 1980, pp.76-95.참조.

22) “此兩回專表武安, 就中所言「今日尙是我輩至危極險之時, 大家同在一處, 緩急或可相救. 若彼此分離, 是滅亡之道也.」我同胞當每日三復斯言.” 이 다음의 서술에는 경쟁이 있으면 진화가 있으며, 무안과 두번이 싸우는 것은 세계의 여러 정당의 축소판이라고 해서 공화제를 찬양하고 있다. 량치차오, 『십오소호걸』, 『新民叢報』 第3號, p.96.

23) 시에구사 도시카쓰의 「쥘 베른(Jules Verne) 의 『십오소호걸』의 번역 계보-문화의 수용과 변용」(사이間SAI·제4호)에서는 원문과 대조하여 법률 등과는 아무 관련 없는 관용적인 말이라고 하고 있다. p.56-57.참조

뢰ᄒᆞ던 어린 ᄋᆞ해 셔히"가 바로 일본어 번역본에서 나오는 구절이고 중국어 번역본에서는 전혀 나오지 않는 구절이다. 또 량치차오 번역본은 회의 구분상 일본어 번역본과 다르게 설정되어 있다. 모리타 시켄본의 제2회는 오클랜드 체어먼 학교를 소개하면서 방학 때 뉴질랜드 일주를 나가게 된 동기와 학생들을 소개하고, 바다에 처음 표류하여 무인도를 발견하게 되는 과정을 서술하고 있는데, 쥘 베른 원작의 3, 4회에 해당된다. 하지만 량치차오의 번역본은 모리타 시켄의 제 1회, 2회의 이야기를 제1회와 제2회에 나누어서 분절하고 있으며, 모리타 시켄의 제2회 초반의 오클랜드 체어먼 학교 소개와 소년들이 표류하게 된 상황을 언급하고 있는 이야기는 량치차오 제3회에서 독립시켜 다루고 있다. 그 나머지는 대략 모리타 시켄본의 순서대로 따르고 있다. 하지만 민준호 한국어 번역본은 회구분은 없지만 모리타 시켄의 회 구분의 시간적 순서와 동일하게 다루고 있다. 위의 인용문만 보면 모리타 시켄본을 축약하여 번역한 것처럼 보이는데, 바로 량치차오 번역본만 참고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된다. 즉 중국어 번역본에 안 나오는 구절 등이 민준호 번역에서는 나오고 있다. 한국과 일본어 본에서『십오소년표류기』의 주제를 한 마디로 요약해서 서술한 마지막 부분을 예로 들어보자.

> 그아돈의신려(愼慮)무안의자ᄋᆡ(慈愛)와두번의무룡(武勇)이며그중인의인닉강의(忍耐剛毅)홈은진실로경ᄋᆡ치아니ᄒᆞ리업스며ᄯᅩ가치란은두번과일ᄃᆡ가우(一對佳藕)를이루니ᄯᅩ한셰상에드문긔연이오이범은여러ᄋᆞᄒᆡ의부모가각기의연을ᄒᆞ야ᄇᆡ한척을사쥬고뉵셔륜에셔여러ᄋᆞᄒᆡ와이웃을살게ᄒᆞ더라
>
> 우리들이 제군과 함께 이 십오소년의 표류담을 읽고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즉 신려, 자애, 용감의 세 가지를 가지고 거기에 또 더해서 인내심와 강건함의 덕까지도 갖춘다면 인생의 어떤 어려움도 물리칠 수 있고 어떤 분란도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
>
> 余輩か諸君と共に、斯の十五少年の漂流譚を讀みて、學び得る所の訓へは即ち、愼慮慈愛勇武の三者有りて、之に兼ぬるに耐忍剛毅の德を以てすれば、人生何の難か排すべからざらむ、何の紛が解くべからざらむ、といふなり。

민준호의 마지막 구절 "이 배는 여러 아이들의 부모가 각각 의연금을 출연하여 배 한 척을 사주고 오클랜드에서 여러 아이와 이웃들이 더불어 살게 하였다(이 범은 여러 ᄋᆞᄒᆡ의 부모가 각기 의연을 ᄒᆞ야 ᄇᆡ 한 척을 사쥬고 뉵셔륜에셔 여러 ᄋᆞᄒᆡ와 이웃을 살게 ᄒᆞ더라)"라는 구절도 중국어 번역본에는 없다. 이 마지막 구절은 모리타 시켄의 마지막 장면 앞의 부분을 간단하게 한국적 상황에 맞춰 축약해서 서술한 것이다. 위의 한국어본 일본어본 인용문도 중국어 번역본에서는 나오지 않는 내용이다. 중국어 번역본은 위의 인용문에서 나오는 신려, 자애, 용감(勇武), 인내, 강의(剛毅)와 같은 중국의 전통적인 단어에는 별 흥미를 못 느끼고 번역하지 않았다.『십오소호걸』을 번역할 당시의 중국의 위기상황에서 서구의 새로운 근대적 단어와 이야기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민준호 본은 중국어 본만을 참조해서 번역한 것이 아니라, 일본어 본과 함께 보면서 그걸 종합해서 번역자 스스로 새로운 소설을 창작하려고 하는 의도가 개입되어 있다고 추측해볼 수 있다. 하지만 한글로 민준호 본의 번역된 문체에서는 '-ㄴ다', '-ㅂ다' 'ㅅ다' 식의 종결형 어미가 보이지만, 대부분 고전소설과 그 당시 신소설에 많이 사용되던 '-지라', '-이라', '-러라', '-더라', '-리오', '-노라' 등이 대부분 사용되고 있다. 또 한문투의 '-ᄒᆞᆫ즉' 등의 연결형 어미 사용을 통해 문장이 길어지는 특징이 있는 바, 독자의 읽기 중심을 소설 특징으로 하는 근대적 요소보다 중국소설의 영향을 받아 이야기꾼이 구연하는 특징을 가진 고전소설과 신소설적 요소가 개입되어 있는 것에 기인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준호의 번역본은 한자 단어에 한글 조사만 덧붙여서 사용하던 기존에 한문체 문장에서 완전히 탈피하여 근대 국어의 탄생을 위한 한글 문체 만들기로 중심이 이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자국어에 대한 의식적인 자각이 어느 정도 동반되어 있어서 언문일치체의 국어의 완성으로 나아가는 과도기적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량치차오의 『십오소호걸』의 번역문체는 그가 4회의 번역주에서 “본서는 원래 수호전 홍루몽 등의 책의 체재에 의거하여 순수하게 속어를 사용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번역을 할 때 심히 어려운 점이 있었기에 참고로 문언을 사용하여 노력은 절반을 투입하였지만 그야말로 성과는 그 두 배가 되었다.”[24]고 고백한 바, 『십오소호걸』은 반문반백의 문체를 사용하여 번역을 하였다. 그 당시 지식인이 일상적인 백화의 속어를 사용하여 글을 짓는다는 정말 어렵고 문언문을 사용하는 것이 정말 쉽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토로하고 있다. 이는 량치차오가 백화속화를 사용하는 문체의 개혁에 방점이 있었기 보다는 민족위기의 절대절명의 상태에서 중국민을 계몽시키고자 하는 번역의도에 방점이 찍혔기 때문에 나온 결과이다. 따라서 량치차오를 이어서 10회부터 18회를 번역한 披髮生도 량치차오의 의도대로 모험 이야기와 계몽의 차원에서 번역을 하였다. 일본어 번역본에 없는 18회의 마지막 장면을 한 번 살펴보자.

곧바로 파사타(백스터)가 매일 정성을 다해서 적은 일기가 출판되어 나왔다. 초판은 5천부를 찍었는데, 이삼일도 지나기 전에 모두 팔렸다. 재판을 오천부를 발행했는데, 또 눈깜짝할 사이에 깔끔하게 다 팔렸다. 이 때문에 판권을 포기하고 모든 사람들이 마음대로 간행하도록 하였다. 이로부터 세계 각국에서는 이 「십오소호걸」의 번역본이 있지 않는 곳이 없었다. 단지 동양의 유일한 대제국 중국에서는 여태껏 그 책을 번역하지 못하였다. 후에 『신민총보』가 발간되고 사주 량치차오가 이 책이 본국의 학생의 의기와 지식을 개발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새로이 번역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십오소호걸』이 중국에 유입된 원인과 결과이다. 因此索性把巴士他每日留心劄記的日記刻了出來。初次刻了五千部。不上三兩日都賣完了。再刋了五千部。也是轉眼就都賣得乾乾净净。因此棄了板權。任人隨意翻刻。自此各國莫不有了這本十五小豪傑的譯本。只是東洋有一老大帝國。從來還沒有把他那本書譯出來。後來到新民叢報發刊。社主見這本書可以開發本國學生的志趣智識。因此也就把他從頭譯出。這就是十五小豪傑這部書流入中國的因果了。

동해의 구슬은 어린 정위에게 돌아가고, 곤산의 옥은 어린 봉황을 부르네. 사람이 태어나 이와 같은 일을 겪는 것이 어쩌면 복이 아닐지? 사람과 대자연이 한바탕 싸워 승리함을 노래하네. 동해에 한 아이는 등이 곱사등이고 서쪽 이웃의 아이는 어린아이보다 못하네. 눈은 우물 속 개구리 같아 바다를 말할 수 없고, 몸은 마치 두어같이 헛되이 순국의 맹세 글을 썼지. 느릿느릿 불어오는 남풍은 하늘이 교만하지 않음이요, 젊은이가 낙심하면 나라의 혼도 없어지거늘. 어찌 약하게 출렁이는 바닷물이 전세계 만물이 다퉈 조수같이 밀려드는 것을 막을 수가 있으리! 황도에서의 표류함에 스스로 무너지지 않았는데, 우리 땅의 옛 연못과 누대는 내 마음을 아프게 하네. 책 속 종이장에 풍운의 기운이 가득한데, 떨쳐 일어나 춤출 남아대장부가 있을지?

東海珠還小精衛崑山玉叫雛鳳皇人生經此甯非福凱奏人天戰一場東鄰有兒背僂傴西鄰有兒不勝雛眼同井蛙叵語海身似蠹魚空殉書靡靡南風天不驕少年心死國魂銷何堪弱海輕盈水郤當全球物競潮海島飄蓬不自哀傷心吾土舊池臺蓬蓬紙上風雲氣可有男兒起舞來。

24) “本書原擬依水滸紅樓等書體裁, 純用俗語, 但翻譯之時, 甚爲困難, 參用文言, 勞半功倍。”『신민총보』 제6호, p.83.

위의 인용문은 백화로 작성하여 출판의 연유를 설명하면서 다시 한 번 랑치차오가 말한 번역의 의도를 강조하고 있다. 또 산장시 역할을 하는 문언의 7언고시를 삽입하여 중국에서 십오소호걸의 현재적 가치를 총결하고 있다. 이 인용문의 내용은 일본어 판이나 원전에는 표류할 때 적은 일기가 히트쳐서 전 세계적으로 번역되었다는 간단한 내용만을 가지고 중국어 번역자가 창작한 것이다.

이 지점에서 한국어 번역자 민준호를 살펴보기로 하자. 한국어 번역본의 역술 겸 발행자로 기록된 민준호(閔濬鎬, 1877-1937)에 대한 자료는 전무하다. 본 연구자가 여흥 민씨 족보와 인터넷 검색 등 여러 자료를 찾아본 것에 의하면, 민준호는 여흥 민씨 27대손으로 1877년 서울에서 민치헌閔致憲의 장남으로 출생하였고, 자(字)는 순명(舜明)이고 호(號)는 소송(小松)이다. 친동생으로 임시정부 외교부 의사국장 및 중국혁명군 정치부 선전처 과정 등을 지낸 민제호(閔濟鎬)와 동화산업회사, 공업진흥회사, 대동화재보험회사 등의 사장을 지낸 민용호(閔溶鎬)와 휘문의숙을 졸업하고 중국교통부 전신학교를 졸업하고 임시정부 외무부 차장과 주대만총영사를 역임한 민필호(閔弼鎬)가 있다. 민준호의 형제들을 보듯이 그의 집안은 전통에 얽매인 것이 아니라 근대적인 자세로 애국사상을 지녔고 국제적인 안목을 갖추었던 것 같다. 민준호는 1893년 계사년(癸巳年)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하였고 1900년 경자년(庚子年)에 법부주사(法部主事)를 거쳐 시종원시종(侍從院侍從)을 지냈다.

민준호는 1900년대 초 연동교회에 입신하여 기독교인이 되었다. 1907년 일본 동경에서 개최된 제7회 세계기독학생연맹 세계대회에 황성기독교청년회 부회장 윤치호 등 7명의 대표와 함께 참여하여 국제적인 연대를 모색한 기독교운동에 열정적이었던 사람이었다. 여흥 민씨의 재력가로 1909년 양반들이 모이는 교회로서 일명 양반교회라 불리는 안동교회 설립 때 거액을 헌금해 재정적인 기초를 놓았으며 안동교회 당회장을 지냈고, YMCA 창립에도 깊이 관여했다고 한다. 그는 기독교 사상에는 식민지화 되는 현실에서 애국사상도 함께 녹여져 있었던 것 같다. 한편 한국사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한 결과, 1909년 5월 7일자 統監府文書 9권에 실려있는 警視總監機密報告인「베델의 사망 후『大韓每日申報』운영에 대한 정보 등 보고」에서 어제 5월 6일 민준호와 사촌형인 閔商鎬, 梁起鐸 외 10명이 鍾路靑年會館에 집합하여 故 베델 동상을 鍾路 부근에 건설하고자 협의하고, 우선 출석자 중에서 大韓每日申報社 1,500圓, 閔濬鎬 100圓, 閔商鎬 100圓, 기타 인물은 20圓씩 기부금을 갹출하였다고 보고되어 있다. 배설(裵說)이라는 한국 이름을 가진 영국인 베델은 1904년 양기탁과 함께 국한문판『대한매일신보(大韓每日申報)』를 창간하였다. 당시 일본은 한국에서 발행되는 출판물은 사전 검열하여 일본에 저항하는 출판물들을 출판되지 못하게 하였지만, 영국인 베델의 명의로 발행한『대한매일신보』는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대한매일신보』는 한일합방까지 항일적 색채를 계속 유지한 유일한 신문이었다. 따라서 통감부의 일본인들은 베델의 추방시키기 위해 영국 공사를 통해 갖가지 압력을 가했지만 실패로 돌아가고, 베델은 1909년 5월 심장병으로 갑자기 사망하였다. 위의 경시총감기밀보고서는 바로 이런 사실에 기반하고 있다. 이것으로 볼 때 민준호는 식민지화되는 조선의 현실을 걱정하고 타개하기 위해 자신 나름대로 노력하였다.

민준호는 또한 기업설립에 적극적이어서 1910년대 초반 최남선의 출판사인 신문관과 더불어 쌍벽을 겨루는 출판사인 동양서원을 설립하여『신약주석』등 기독교 문서출판과 신소설 총서, 서구번역소설 등을 주로 발행하였다. 최남선의 신문관이 1908년부터 1918년까지 10년 동안 발행한 번역소설이 7권인데 반해서 민준호의 동양서원에서 1912년 1월부터 1913년 4월까지 6권의 서구 번역소설을 출판하였다.[25] 이 때 동양서원에서 번역된 소설 중의 하나가『십오소호걸』이다. 1910년대는 한국의

25)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bookgram&logNo=120147912925

문화계에서 출판사 동양서원의 시대라고 할 만한데, 연구가 활발하지 않다.

한편 국사편찬위원회 한국근대사기초자료집에서 개화기 교육의 교육통계에 보면 1910년(明治43년) 10월말일 현재 기준으로 내무부 학무국 학무과 조사에 의해 작성된「종교학교를 제외하고 경성부내 사립학교 현황(京城府內私立學校現狀一斑(宗教學校ヲ除ク))」이라는 자료에 의하면, 민준호는 외국어 야학을 전문으로 하는 2년제 사립학교인 해동신숙海東新塾(1903)에서 교장을 맡았다는 기록이 보인다.[26] 이 기록에 유추해볼 때 민준호는 상당히 외국어에 관심이 많았다고 할 수 있다. 그는 일본어 문장을 보는 데는 문제가 없었으며,『십오소호걸』을 모리타 시켄본을 보고 참조하여 번역했음을 추측할 수 있다.

민준호 한국어 번역본은 서구 소설의 번역에 단순히 목적에 있기보다는 번역, 엄밀한 의미에서 역술을 통해 모험에 익숙치 않은 한국의 독자들에게 이야기의 신기함을 제공함으로써 출판사 사장으로서 시장성을 생각하였고, 또 당시 유행하던 애국계몽류의 개화기 신소설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의 참신함과 문장의 새로움을 추구하는 좀 더 근대화된 새로운 소설을 만들고자 하는 욕망이 개입된 것이라고 추측해볼 수 있다. 이로 인해 번역본 앞부분에 한 페이지 정도 분량의 묘사가 뛰어난 창작글이 있다. 민준호가 창작한 글을 간단히 보자. '동소문 밖 성북동 금잔디 위(동쇼문 밖 셩북동 금잔듸 우에)'에 좋은 하늘을 배경으로 하다가 갑자기 시커먼 구름이 사면으로 모여들고 맹렬한 비바람이 치고, 번개불이 왔다갔다 하면서 탐해등같이 태평양 한가운데를 뻔쩍번쩍 내리치면서, 영국의 낼슨 장군이 프랑스 함대를 쳐부수고 도망하는 불국 군함을 쫓아가는 구축함처럼 배가 등장한다. 이 창작의 글은 아마 량치차오의 앞부분 사를 모방하여 서술하였을 수도 있고, 민준호가 개화기 신소설 보다 한층 발전된 근대소설을 추구하려는 욕망에서 독자에게 새로운 소설과 같은 느낌을 제공하려고 했던 의도일 수 있다. 이 창작글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번역이 시작되는 바, 그 배 위에는 얼굴이 희고 나이가 열 너댓살 쯤 된 학생 세 명과 살빛이 검은 열 너살 쯤 되는 '뽀이'라고 하는 '부리는 아이'가 죽을 힘을 다해 뱃머리를 붙들고 간신히 버티고 있다고 일본과 중국의 번역본을 축약해서 자신이 소설을 창작하듯 자연스럽게 번역하고 있다. 이는 역술이라는 번역방법의 불충분함의 한계에서 기인하지만, 반대로 역술에는 시대적 상황과 번역자의 주관적인 의도에 따라 번역 문장을 자유롭게 창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민준호가 번역한 문장은 고전문체와 같은 옛스러움이 있으나 새로운 한글문장을 추구하려는 의식적인 노력으로 인해 문학성있게 간결한 문장을 구사하고 있고, 인물간의 대사를 잘 활용하면서 분명하게 한국사회에서는 보지 못했던 이국적인 모험 이야기의 서사를 전달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량치차오의『십오소호걸』에서는 이야기꾼으로 설정된 서술자가 이야기의 내용과 문장의 형식에 관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사에까지 개입하여 부단히 이야기를 해석하고 설명하고 있다. 소설의 서술자가 량치차오인 것처럼, 량치차오 자신의 주관적인 의도와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편집자적인 논평의 서술방식을 사용하여, 중국 독자에게 직접 소통하려는 번역의 의도를 보이고 있다. 다시 말해 공화제로 상징되는 새로운 백성 만들기라는 량치차오 신민 프로젝트의 결과물인 것이다. 이에 반해 모리타 시켄의『십오소년』의 서술자는 근대소설처럼 서술자가 관찰자의 위치에서 주관을 완전히 배제하고 객관적인 태도로서 발생하는 사건을 서술하고 있는 바, 논평과 판단은 독자에게 맡기고 있다. 근대소설에 한 층 접근한 방법이다. 한편 민준호의『십오소호걸』의 서술방식은 관찰자적인 입장에서 서술하지만, 신소설적인 문체로 인해 독자에게 구연하

26)「明治四十三年十月末日現在「京城府內私立學校現狀一斑」(內務部學務局學務課調査)이라는 자료는 渡部學·阿部洋編,『日本植民地教育政策史料集成(朝鮮篇)』제67권에 나온다.

는 듯한 인상을 주고 모든 상황을 다 아는 것과 같은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그는 일상 생활 속에서 살아 있는 담화적 언어, 즉 구어체를 사용하여 인물간의 생동하는 대사를 구성하여 언문일치체로 나아가는 방향을 보여주고 있다.

4. 나오면서

『십오소년표류기』를 최초로 동아시아에 소개하였던 모리타 시켄은 타언어간의 넘을 수 없는 언어문화적 차이를 이 작품의 번역을 통해서 어떻게 뛰어 넘을까를 고민하였다. 그 당시 일본 지식인에게 익숙했던 동아시아의 전통적인 한문체와 화한혼효체 즉 문법과 어휘가 모두 중국의 전적을 모범으로 삼는 문장, 일본어 문법의 구조하에서 일본전통의 어휘와 중국 전적 중의 한자 어휘를 혼합하여 사용한 문장 등과 같은 문체의 벽을 뛰어넘어 일상현실에서 살아있는 구어체의 어휘를 선택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는 출발어의 영어 원문 텍스트의 언어와 문화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방식을 가지고 전통적인 문장과 낯설게 하는 방식으로 번역하여 새로운 일본의 문장을 희망하였다. 그런 과정 속에서 근대국가로서의 일본어 언문일치체의 문장이 완성되는 것이다. 민준호도 량치차오의 중국어 번역본과 모리타 시켄의 일본어 번역본을 교차 참조하여, 전통적인 문장에 익숙한 독자들에게 다소 생소함을 주는 문체로 번역하려고 나름대로 고심한 것 같다. 모험 이야기의 새로움을 드러내기 위해 생동하는 구어체식의 대사를 많이 활용하였지만, 기본적으로 문체는 고전소설과 신소설체의 한계를 완전히 탈피하지 못하였다. 이는 구시대의 문장에서 벗어나 새로운 문체로 나아가는 도전의 하나였다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량치차오의『십오소호걸』은 중국인을 각성시켜 새로운 백성으로 만드는 계몽과 유신을 위한 '신민' 만들기 프로젝트라는 정치적 목적에 우선하였기 때문에, 번역소설에 자신의 정치적인 견해를 부단히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인 독자에게 전통적으로 거부감이 없었던 장회소설의 형식을 사용하여 번역하였고, 번역이 힘들어서 자신에게 쉬운 문언 사용을 꺼리지 않고 번역을 하는 등, 번역을 통한 중국어 문체의 창조에는 등한시하였다고 할 수 있다. 중국에서는 울분과 감정이 넘치는 량치차오의 글쓰기를 '신민체', '신문체'라고 평가하였지만, 엄격한 차원에서 문언중심의 전통적인 글쓰기의 벽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오직 새로운 어휘 차원의 단계에 머물려 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근대국가로서의 국어로의 성장, 즉 언문일치체의 완성은 5·4시기로 미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메 모

【문화분과Ⅰ】 발표 ①

동북아 문화냉전과 미국의 對 대만 교육원조
- 스미스-문트 프로그램과 풀브라이트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이가영*

【목 차】

1. 미국의 對 대만 원조 목적과 시행
2. 미국의 對 대만 교육 원조 목적과 시행
3. 대만에서의 스미스-문트 프로그램 시행
4. 대만에서의 풀브라이트 프로그램 운영
5. 결론

1. 미국의 對 대만 원조 목적과 시행

국공내전에서 패한 중국 국민당이 대만으로 근거지를 옮긴 이후, 현재의 모습으로 발전한 데에는 미국의 국제적 힘이 절대적으로 작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대만해협위기 당시 '중미공동방위조약'이 체결되면서 ,대만[1]은 안보적인 측면에서 국제적으로 안전을 보장받았으며, 지속적인 미국의 원조를 통해 경제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또한 농업, 공업, 공공위생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국의 선진 기술을 들여오면서 산업화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다.

냉전 시기 미국 정부의 대만 원조는 미국의 자유진영 제국에 대한 원조법인 〈상호안전보장법(Mutual Security Act)〉에 근거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종식 이후 냉전체제가 굳어지면서, 미국은 〈상호방위원조법(Mutual Defence Assistance Act)〉[2], 〈경제협력법(Economic Cooperation Act)〉[3], 〈대외원조법(Foreign Assistance Act)〉[4], 〈국제개발법(Ac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을 통합하여 1951년 10월 10일 〈상호안전보장법〉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자유진영 제국에 대한 미국의 경제원조, 군사원조, 기술원조는 각각 상호안전보장국, 국방성, 국무성이 담당하게 되었으며, 이를 상호안전보장기구(MSA; Mutual Security Agency)에서 조정하는 방식이 채택되었다. 이로써 당시 미국은 제3세계에 대한 공산 진영의 확산을 저지하고, 제3세계 우방국을 비롯하

* 전남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학술연구교수 (zglijiaying@naver.com)

1) 본 연구는 중화민국, 자유중국, 대만, 국민당 정부 등으로 일컬어지는 명칭을 '대만'으로 통일한다. 다만 지리적 개념으로서 '대만'과 함께 쓰이는 경우와 정치 체제로서 지칭하는 경우에는 '국민당 정부'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2) 1949년 제정. 미국은 이를 근거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 대한 군사원조를 실시하였다.
3) 1948년 제정, 이를 근거로 1948년 4월부터 1951년까지 서유럽에 120억 달러 상당의 경제 원조를 실시하였다.
4) 1948년 제정, 이를 근거로 미국은 1948년 대만에 500만 달러 상당의 경제 원조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단발성에 그쳐 그 효과는 매우 미미하였다.

여 낙후된 제1세계 동맹국에 대한 경제, 군사, 기술 지원을 실시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미국의 대외원조가 인도주의적 지원이라는 대외적 명분과 함께 공산 진영의 확대를 막고 국제사회의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대내적 명분을 지니게 된 것이다.

특히, 아시아지역에서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 진영과의 대결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던 미국에게 있어서는 전후 중국에 대한 영향력 확보와 공산화의 억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 일찍이 제2차 세계대전의 종식과 함께 냉전체제 확립이 본격화되는 상황 속에서 1949년 1월 재취임한 트루먼 대통령은 재취임식 연설에서 저개발지역(Underdeveloped Areas)[5]에 대한 기술원조와 경제원조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제3세계의 빈곤율 하락과 생산력 증대를 통해 미국의 국제적 시장을 개척한다는 경제적 목적과 함께 공산주의 확대의 저지라는 정치적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포인트 포 계획(Point Four Program)[6]을 발표한 것이다. 트루먼 대통령은 저개발지역이 가난에서 벗어나 보다 윤택한 삶을 영위하도록 미국이 도와야 함을 천명하였다. 그리고 전 세계의 번영과 평화를 위해서는 저개발지역의 생산증대가 이루어져야 하고, 생산증대를 위해서는 저개발지역에 미국의 선진 과학, 기술, 지식이 도입되어야 함을 밝혔다. 실제로 트루먼 정부는 이를 시행하기 위한 기술협력부서(TCA: Technival Cooperation Administration)[7]을 설립하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서유럽국가의 반대 등의 이유로 인해 실행하지 못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발생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미국의 세계적 영향력은 군사력과 경제력만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다. 이는 미국이 다양한 원조를 통해 지속적으로 우방국을 확대하고 자유 진영을 공고히 하였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이는 대만에서 미국의 영향력 역시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 미국은 아시아지역에서 효과적으로 자유 진영을 확대하기 위하여 군사원조와 더불어 대만에 대한 경제원조, 기술원조 등의 방식을 채택하여 외교정책을 펼쳤다. 냉전 시기 미국이 대만에 지원한 구체적인 원조 내역과 금액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1> 산업별 미국의 對대만 원조 금액[8]

회계년도	전체금액	농업	광업/제조	전력	운수송	건강/위생	교육	행정	국방	기타
										금액 (단위:1,000달러)
1951	12,938	98	677	5,966	4,958	-	141	-	1,098	-
1952	12,313	252	6,772	5,879	141	4	-	-	2,070	195
1953	20,728	1,885	5,615	6,778	1,796	156	531	8	3,615	344
1954	28,803	1,077	14,839	5,167	1,592	151	179	23	5,046	729
1955	35,646	1,925	10,760	11,174	1,368	941	842	774	4,612	3,250
1956	32,102	941	8,443	7,139	5,285	1,672	1,129	248	55	7,190

5) 저개발 지역이란, 일반적인 생활 수준이 미국의 그것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 즉, 아시아로 대표되는 제3세계를 의미한다. 개발과 저개발이라는 표현을 통하여, 과거 제국시기의 식민-피식민의 개념이 원조 공여국-원조 수원국 개념으로 대치된 것이라 할 수 있다.

6) 주요 외교 정책의 네 번째 항목에 해당하여 포인트 포 계획이라 불린다. 트루먼 대통령은 제3세계 신생 독립국에 대해 농업, 공공위생, 교육 부분에 대한 기술적 지원에 중점을 두는 원조정책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는 저개발국의 기술지원과 경제원조 제공을 위해 마련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7) 아이젠하워 대통령 취임 이후 대외활동본부(Foreign Operations Adiministration)으로 이전하였다.

8) Council for Economic Planning and Development Repubilc of China, *Taiwan Statistical Data Book 2002*, Council for Economic Planning and Development, 2002, p.254.
https://ws.ndc.gov.tw/Download.ashx?u=LzAwMS9hZG1pbmlzdHJhdG9yLzEwL3JlbGZpbGUvNTYwNi83MTgvMDAwMTMxOS5wZGY%3d&n=MjAwMkRhdGFCb29rQDk5MzUwNy44NDI5MjMxNDkyQC5wZGY%3d&icon=.pdf

1957	42,890	1,345	11,538	14,244	6,632	1,338	976	103	210	6,504
1958	29,726	1,070	3,636	13,648	5,925	739	1,109	-	-	3,599
1959	55,176	23,069	9,771	7,211	11,221	347	1,231	-	-	2,329
1960	32,412	1,081	15,336	207	10,978	595	1,081	150	-	2,984
1961	23,805	767	3,286	16,813	412	448	932	192	-	955
1962	6,629	327	4,313	-	74	462	668	-	-	785
1963	1,825	163	370	-	95	6	279	271	-	641
1964	46,589	256	217	45,053	73	-	66	235	-	689
1965	371	59	72	-	-	-	-	-	-	240
총계	381,953	34,315	92,645	139,279	50,550	6,859	9,164	2004	16,706	30,431

비율 (단위:%)

1951	100.0	0.8	5.2	46.1	38.3	-	1.1	-	8.5	-
1952	100.0	2.1	30.6	47.7	1.2	-	-	-	16.8	1.6
1953	100.0	9.1	27.1	32.7	8.7	0.7	2.6	-	17.4	1.7
1954	100.0	3.7	51.5	18.0	5.5	0.5	0.6	0.1	17.5	2.6
1955	100.0	5.4	30.2	31.4	3.8	2.6	2.4	2.2	12.9	9.1
1956	100.0	2.9	26.3	22.2	16.5	5.2	3.5	0.8	0.2	22.4
1957	100.0	3.1	26.9	33.2	15.5	3.1	2.3	0.2	0.5	15.2
1958	100.0	3.6	12.3	45.9	19.9	2.5	3.7	-	-	12.1
1959	100.0	41.8	17.7	13.1	20.3	0.6	2.3	-	-	4.2
1960	100.0	3.3	47.3	0.6	33.9	1.9	3.3	0.5	-	9.2
1961	100.0	3.2	13.8	70.6	1.8	1.9	3.9	0.8	-	4.0
1962	100.0	4.9	65.1	-	1.1	7.0	10.1	-	-	11.8
1963	100.0	8.9	20.3	-	5.2	0.3	15.3	14.9	-	35.1
1964	100.0	0.5	0.5	96.7	0.2	-	0.1	0.5	-	1.5
1965	100.0	15.9	19.4	-	-	-	-	-	-	64.7
총계	100.0	9.0	24.2	36.5	13.2	1.8	2.4	0.5	4.4	8.0

위의 표에서 보듯, 미국은 행정 분야를 비롯하여 농업, 광업, 전력, 운수송업 등 기초적 경제 개발을 위한 분야는 물론, 공공위생, 국방 등 국가 안전을 위한 분야에 원조를 실시하였다. 즉, 대만에 대한 미국의 원조는 대만의 재건과 안보, 그리고 경제 개발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특이하게도 교육이라는 부분을 별개의 원조 영역으로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다는 점이다.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 전체 원조 금액에서 교육 원조가 차지하는 비율은 불과 2.4%에 지나지 않는다. 사실, 전체 원조의 금액에서 볼 때, 교육 원조에 소요된 비용은 극히 일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 원조라는 부분을 별개의 영역으로 지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 별도의 기금을 마련하여 원조를 실시하였다는 점은 미국이 대만의 교육 분야에 특별한 관심을 보였으며, 그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존재하였음을 반증한다.

2. 미국의 對 대만 원조 목적과 시행

미국이 대만에 교육 원조를 실시한 이유는 무엇일까? 당시 미국이 교육 원조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교육 원조를 실시한 이유는 대만의 친미 지식인 양성이 자유 진영의 확대와 공산진영의 억제를 위해 매우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은 미국 정부는 냉전 체제가 시작된 시기부터 다양한 법제정과 시행을 통해 아시아 지역에서의 자유진영 확대와 친미 지식인 양성을 시도하였다. 특히, 과거 유럽지역에서 미국의 경제적 지배력을 확대하기 위해 실시한 〈마셜플랜(Marshall Plan)〉 은 이후 아시아지역에 대한 미국의 원조에 큰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1947년부터 1951년까지 경제협력부서(Economic Cooperation Administration)[9]의 주관 아래 실시된 〈마셜플랜〉 은 전후 경제적 불안정으로 인해 기아와 빈곤이 만연했던 유럽 국가의 경제적 혼란을 안정시키고, 유럽지역에서 자본주의 세계 체제를 유지·확대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당시 러시아의 다양한 문화선전 활동으로 인해, 서유럽국가 전반에서 진행된 〈마셜플랜〉 은 결국 큰 효과를 거두지는 못한다. 미국에 대한 유럽지역의 전반적 이해 부족과 이로인하여 발생한 미국에 대한 오해와 편견으로 인해, 〈마셜플랜〉 은 유럽의 기초과학 및 학계에 약간의 영향력을 미치는 정도의 반쪽짜리 성공을 거두게 된 것이다. 이에 미국 정부는 〈마셜플랜〉 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군사원조와 경제원조를 비롯해 문화선전을 위한 교육·문화 원조를 시작하게 된다. 그리고 이 같은 교육·문화 원조의 시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미국 의회는 〈스미스-문트법(Smith - Mundt Act)〉[10]과 〈풀브라이트법(Fulbright Act)〉 등을 제정하고 시행하였다.

1948년 제정되고 1952년에 통과된 〈스미스-문트법〉 과 1946년 8월에 의회를 통과한 후 1958년에서야 시행된 〈풀브라이트법〉 은 모두 공산진영 세력 확대와 문화선전 공세에 대항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특히 이 시기 공산 진영의 중국 공산당과 자유진영의 중국 국민당 간의 갈등이 지속되면서, 미국은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자유 진영을 더욱 공고히 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미국은 대만을 대상으로 스미스-문트 프로그램과 풀브라이트 프로그램을 실시하게 된다. 기실, 이 두 개의 법안과 이를 근거로 한 두 개의 프로그램은 대만의 학계 발전과 미국에 대한 이상적 이미지 형성이라는 목표를 지니고 있었다. 그리고 이 같은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미국은 대만 사회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인물을 선정하여 미국의 긍정적인 제도, 문화 등을 흡수토록 하고, 이를 귀국 후 대만 사회에 전파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대만의 대학교수를 비롯하여 연구자, 학생, 교사 등 당시 혹은 미래의 대만 사회를 선도할 엘리트를 미국으로 파견하였고, 그들이 미국 사회의 선진적 제도와 문화를 접촉하고 받아들이도록 하였다. 이처럼 두 법안은 기본적인 목표와 그 방식은 비슷한 점이 있으나,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각 법안의 목표와 프로그램의 시행 방안에서는 각기 상이한 양상을 보인다. 〈스미스-문트법〉 은 미국과 대만간의 국가 간 상호 이해를 촉진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따라서 대만의 지도자와 전문가를 중점적으로 지원하였으며, 대만의 미래 인재에 대한 영향력을 고려하여 중등 영어교사의 미국 방문을 추진하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풀브라이트법〉 은 대만 학술계와 교육계의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대만의 대학 교수, 연구원, 중등교사, 대학원생 등 학술계 혹

9) 1952년까지. 이후 미국의 대외 원조는 공동안보부서(1952년부터 1953년 8월까지), 국외업무부서(1953년 8월~1955년 7월), 국제협력총서(1955년 7월~1961년 11월), 국제개발총서(1961년 11월 이후)

10) 정식명칭은 〈미국공보및교육교류법(U.S. Information and Educational Exchange Act)〉 이다. 일반적으로 〈스미스-문트법(Smith - Mundt Act)〉 이라고도 불린다.

은 교육계에 종사하는 인원을 주로 미국에 파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었다.

미국은 대외원조를 통해 미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형성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확대를 통해 자국의 이익을 증진시키고자 하였다. 이는 미국의 문화·사상·이념의 세계화의 산물로, '고도의 외교적 목표 하에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한 문화, 이념적 지배권 구축 작업의 결과'[11]라 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문화, 이념적 지배권 구축 작업'이란 단순히 문화 수출의 형태로 진행된 것이 아니었다. 그 내막을 살펴보면, 대부분 문화원조, 특히 교육원조[12]의 형태로 전 세계 학계와 문화계에 대한 지배력을 확장한 결과인 것이다. 이후, 1961년 9월 21일 〈스미스-문트법〉과 〈풀브라이트법〉은 결국 하나로 통합되어, 〈풀브라이트 헤이즈 법안 (교육문화상호교류법, Mutual Educational and Cultural Exchange Act, Fulbright-Hays Act)〉이 제정된다.

그러나 미국의 교육 원조는 단지 반공이라는 목적만으로 진행된 것만은 아니었다. 대만에 대한 미국의 교육원조가 대부분 당시 대만 사회에서 대대적인 지원이 필요했던 사회경제, 농업, 공업 등의 연구와 관련 분야 및 기초 연구 인력 양성에 집중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의 지원은 초중등 교육부터 고등교육, 직업교육, 공업교육, 농업교육, 과학교육 등 각 분야의 전문가를 육성하고 연구의 기반을 조성하는데 투입되었으며, 이 외에도 해외로 이주한 화교들의 교육과 교육 행정 부분까지 전반적인 교육 분야의 발전에 쓰였다. 사실, 이 같은 교육 원조는 대만으로의 퇴각하며 사회·정치·경제적 면에서 혼란한 시기를 겪던 중국 국민당 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 인재 양성의 문제와 재정의 분배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즉, 대만의 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는 미래의 문제와 한정된 예산을 교육 외에도 식량 보급, 인프라 건설, 국방 등의 분야에도 분배해야 한다는 현재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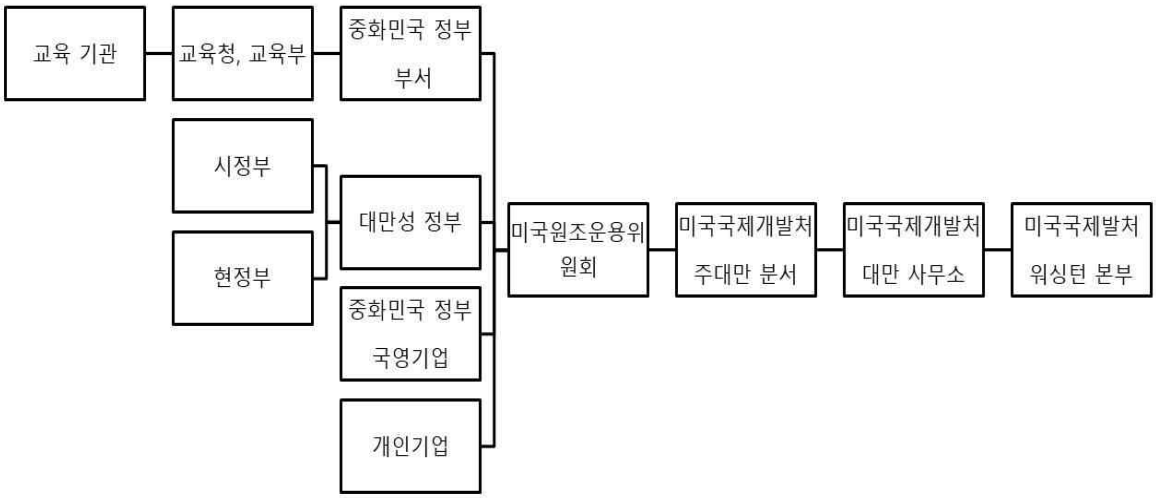
따라서 국민당 정부 역시 행정원에 원조 계획, 배분, 집행, 감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미국원조운용위원회(美援運用委員會, 이하 미원위로 약칭)[13]를 설치하고, 對대만 미국원조의 실질 업무를 진행토록 하였다. 당시 국민당 정부의 각 기관은 미국의 원조를 받기 위한 계획을 미원위에 제출해야만 했고, 미원위는 각 기관과의 협상을 통해 계획을 수정·보완하고 선별하여 미국원조기구 대만지부의 동의와 서명을 받아 워싱턴 본부에 보냈다. 그리고 최종적인 지원 여부는 워싱턴 본부의 심사 및 허가를 통해 결정되었다. 미국의 대만 교육 원조 역시 이와 동일한 과정으로 결정되었다. 당시 중화민국 교육부와 대만성 교육청이 기획하거나 각 교육기관이 교육부 또는 교육청에 계획을 제출하면 교육부와 교육청이 미원위에 신청하고 협상을 거친 다음 미국 원조기구의 대만지부의 동의와 서명을 받아 워싱턴 본부에 보내져 심사 및 허가를 받은 후 집행[14]된 것이다. 미국의 對대만 교육원조가 이루어진 과정을 담당한 기관을 도식화 하면, 아래 <그림1>과 같다.

아래 <그림1>을 살펴보면, 대만에 대한 미국의 교육 원조가 기본적으로 냉전이라는 세계사적 흐름 속에서 미국의 정치·외교적 요구와 국제관계의 인식 속에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미국 측의 가치관과 이데올로기의 필요에 따라서만 진행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중화민국 교육부와 대만성 교육청이 대만의 사회·정치·경제·교육의 현실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미원회에

11) 오병수, 「아시아재단과 홍콩의 냉전(1952~1961) - 냉전시기 미국의 문화정책」, 『동북아역사논총』, 제48호, 2015, p.7.
12) Grace Ai-Ling Chou, *Confucianism, Colonialism, and the Cold War: Chinese Cultural Education at Hong Kong's New Asia College, 1949-63*, Chinese Cultural Education at Hong Kong's New Asia College, 2011, pp.60-61.
13) 위원회의 최고 책임자는 행정원장이 겸임하였으며, 업무 진행에 필요한 모든 인사권을 부여하였다.
14) 손준식, 「냉전 초기(1952-1965) 미국원조와 대만교육 - 農工職業教育과 華僑教育을 중심으로」. 『중국근현대사연구』 제66호, 2015, pp.87-88,; 傅麗玉, 「美援時期臺灣中等科學教育發展(1951-1965)」, 『科學教育學刊』 제14-3호, 2006, pp.335-337.

제출해야만 심사와 협상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당시 미국의 원조를 받아 미국 유학을 경험한 자들은 국민당의 고위 간부 및 중앙·지방 정부의 고위직 관료, 대학교수, 연구자, 기업가, 기자, 영어 교사 등 당시 대만의 재건에 필요한 엘리트층의 인물들이었으며, 이들은 미국 유학 후 귀국하여 대만 사회의 발전과 산업화에 실질적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미국의 對대만 교육 원조는 아시아 지역에서의 자유 진영의 확대와 대만 내 이상적 미국 이미지 형성이라는 미국의 필요와 함께 국가 재건을 위한 인재양성, 교육 역량 확대를 통한 대만의 산업화 실현이라는 대만의 필요가 맞물리면서 양측의 이해관계가 부합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림1> 미국의 對대만 교육원조의 집행 담당 기관[15)]



3. 대만에서의 스미스-문트 프로그램 시행

1948년 제정되고 1952년에 통과된 〈스미스-문트법〉(미국정보 및 교육교류법, US Information and Educational Exchange Act of 1948, 공법80-402)의 목적은 '미국 정부가 다른 국가에서 미국에 대한 더 나은 이해를 증진시키고, 미국 국민과 다른 나라 국민들 사이의 상호 이해를 증진 시키는 것'[16)]으로, 그 범위를 ① 사람, 지식 및 기술의 교류, ② 기술 및 기타 서비스의 제공, ③교육, 예술, 과학 분야 발전의 교류로 규정하고 있다. 사실 이 법안은 미국과 소련의 냉전 대립이 고조되는 가운데 공산당의 선전 공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1946년 8월에 의회를 통과한 〈풀브라이트 법〉을 보완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즉, 직접적인 군사적 충돌을 축소하고, 선전전과 심리전을 통해 자유 진영에 대한 지지를 확대하기 위한 체제를 마련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다는 것이다. 사실, 2차세계대전 당시부터 원조는 선전전과 심리전의 주요 방식 중 하나였다. 특히, 제3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군사원조, 경제원조, 기술원조 등을 지원하면서 국제사회의 균형발전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이라는 대외적 명분을 획득함과 동시에, 미국의 국가이익 추구와 자유 진영의 확대라는 대내적 목표를 달

15) Jacoby, N. H., *U. S. AID to Taiwan*, Fredric A. Praeger Publishers, 1966, p.65. Jocoby의 도식을 참조하여, 교육 부분의 원조 집행 담당 기관을 정리하였다.

16) "To promote the better understanding of the United States among the peoples of the world and to strengthen cooperative international relations."

성하려 했던 것이다.

미국 의회는 〈스미스-문트법〉의 제정을 계기로 미국 정부에 전시가 아닌 평시에도 교육·언론·선전의 방식을 통해 유럽은 물론 제3세계에 대한 선전전과 심리전을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즉, 영화·문학·잡지 등은 물론 교육, 강연, 교사 파견, 유학생 양성, 영어 교사 미국 연수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자유 진영을 대표하는 미국의 사상과 문화를 전파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이로써 기존의 국가와 국가 간 물질적 원조 관계는 〈스미스-문트법〉의 제정을 통해 국가와 개인의 비물질적 원조 관계로 형태가 변화되었다. 그리고 1953년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미국 정보국(USIA; United States Information Agency)를 신설하고, 이를 통해 비정부 기관과 단체를 활용하여 간접적인 선전전과 심리전을 본격적으로 전개하였다.

미국과 대만 간의 스미스-문트 교육 교류 프로그램은 1952년부터 시작되었다. 일반적으로 스미스-문트 프로그램은 '심리전'이라는 목적하에 진행되었기 때문에, 대부분 몇 주에서 몇 개월의 기간 동안 미국 현지를 탐방하고 시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대학교수, 연구원, 대학원생과 같은 학재의 인재 외에도 중등교사를 비롯하여 각 영역의 전문가와 지도자 그룹의 인원도 프로그램에 참가하였다. 스미스-문트 프로그램이 시행된 1952년부터 1957년까지 미국과 대만의 교육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한 인원의 구체적 수는 다음과 같다.

<표 2> 스미스-문트 프로그램을 통한 교육 교류 프로그램 참여 인원수[17]

	대학원생 Students		중등교사 Teachers		연구원 Research Scholars		대학교수 Lecturers		전문가 Specialists		지도자 Social Leader		합계	
년도	미국	대만	미국	대만	미국	대만	미국	대만	미국	대만	미국	대만	미국	대만
1952	-	5	-	10	-	-	1	-	-	-	-	4	1	19
1953	-	-	-	3	-	-	-	-	-	-	-	1	-	4
1954	-	-	-	4	-	-	1	-	1	1	-	3	2	8
1955	-	-	-	4	1	1	3	-	3	1	-	4	7	10
1956	-	-	-	2	-	1	1	-	2	4	-	2	3	9
1957	-	-	-	3	-	1	3	-	2	2	-	2	5	8
합계	-	5	-	26	1	3	9	-	8	8	-	16	18	58

위의 표를 자세히 살펴보면, 세 가지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스미스-문트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은 대만의 대학교수의 수가 0명인 것에 반해, 스미스-문트 프로그램을 통해 대만에 방문한 미국의 대학교수의 수는 9명이라는 점이다. 이는 대만 교육의 전반적인 질적 향상이라는 대만의 수요와 미국의 사상과 이념을 대만에 이식한다는 미국의 수요가 적절히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즉, 스미스-문트 프로그램이 심리전의 일환으로서 이루어졌음과 동시에, 대만의 성장과 발전에 이익이 되어야 한다는 미국의 對대만 원조의 기조가 유지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대만의 입장에서 볼 때, 단기간 안에 '대만의 국가재건을 위한 인재 양성'과 '교육 역량 확대를 통한 산업화 실현'이라는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만의 학생 개개인을 미국으로 연수 보내는 것보다 미국의 우수한 학자와 교수를 대만으로 초청하는 것이 훨씬 가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이었다. 그리고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미국의 대학 교수를 대만으로 파견

17) *Survey of Educational Activities: International Educational Exchange Program, Part VII－Formosa*, December 6, 1957, Folder 25, Box 316, CU Papers.

함으로써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대만 학생에게 미국의 이념, 사상 등을 전파하고, 이와 동시에 미국의 교육 문화, 커리큘럼, 선진적 교육법을 대만의 대학에 이식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었던 것이다.

두 번째는 다른 유형에 비해 중등교사의 지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이다. 대만 측의 교류 프로그램 참가자의 수만 놓고 볼 때, 중등교사는 26명으로, 대만 참가자 58명의 약 45%에 달하는 수이다. 이처럼 중등교사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 배경 역시 '심리전'이라는 스미스-문트 프로그램의 특성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미 국무부는 '원조 수혜국의 영어 교사가 현지에서 반공 의식을 형성하는 데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 한다'[18]는 판단 아래, 1952년부터 1957년까지 대만의 중학교 영어 교사 26명을 선발하여 미국의 문화와 교육을 직접 경험하게 하였다. 이에 대해 1956년 10월 미국 대사관이 국무부에 보고한 보고서[19]에 따르면, "이들(26명의 대만 중학교 영어 교사)은 교육 교류 프로그램에서 미국의 생활방식을 가장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미국에서 훈련받는 동안, 수많은 '보통의' 미국인을 만날 기회가 있었으며, 그들이 만난 미국인들은 대부분 중국에서 온 손님들에게 친절하고 상냥하며 그들의 국가에도 관심이 많았다. …(중략)… 영어교사의 미국 생활 경험을 통해 미국은 '친절하고 부지런하며 자유를 사랑하는 나라'의 이미지로 종합된다. 그들이 귀국하게 되면 학생들에게 이러한 미국의 이미지를 전할 것이다"라고 영어교사 파견 목적이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대만 중등교사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은 미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미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도록 만들고, 이를 본국인 대만으로 돌아가 홍보하고 선전하도록 만들기 위함이라 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지도자의 유형의 경우, 미국 측의 지도자가 교류 프로그램에 참가한 경우는 전혀 없는 반면,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만의 지도자 수는 16명에 달한다는 점이다. 사실, 지도자의 신분으로 미국에 초청된 사람은 대부분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의 고위 관료와 국민당의 고위 간부 등 대만 정치계의 주요 인물이었다. 이들은 오랜 기간 동안 국내 정치계를 떠날 수 없었기 때문에 2개월 동안 미국을 방문하였고, 미국 정부는 이 기간 동안 당시 대만보다 선진적이었던 미국의 정치 체제를 직접 보여주고 체험시킴으로써, 민주적인 정치 체계의 필요성을 체감토록 하였다. 이에 반해, 미국의 정치인이 대만에 방문하는 것은 소요되는 비용에 비해 선전 효과가 떨어졌다고 판단하고, 추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4. 대만에서의 풀브라이트 프로그램 운영

〈풀브라이트법〉은 1946년 8월에 의회를 통과하였으나, 〈스미스-문트법〉에 비해 다소 늦은 1958년에서야 정식 시행되었다. 〈풀브라이트법〉은 제 3세계에 대한 학술·교육계의 인재 양성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으며, 법안 통과 이후 미국정부가 최초로 양자 간의 협정을 맺은 국가가 중국[20]이라

18) *Survey of Educational Activities: International Educational Exchange Program, Part VII－Formosa*, December 6, 1957, Folder 25, Box 316, CU Papers.

19) *Educational Exchange: Semiannual Report*,, Taipei Desp.167, October 18, 1956, 511.933/10-1856, Folder 25, Box 316, CU Records.; *Survey of Educational Activities: International Educational Exchange Program, Part VII－Formosa*, December 6, 1957, Folder 25, Box 316, CU Papers.

20) *From Acting Secretary Dean Acheson To Ambassador Koo*, Washington,Apr.5, FRUS, 1947, Ⅶ. pp.1263-64. 1947년 4월 5일 미국 국무차관 애치슨(Dean Acheson)이 중국 대사 웰링턴 구(V.K. Wellington Koo, (顧維鈞)에게 보낸 서한에는 "중국과 미국의 전통적 우호관계, 특히 양국 국민의 오랜 지적 유대(intellectual association)의 역사를 볼 때, 미국 정부는 중국이 (풀브라이트) 교육교환 프로그램 협정을 협상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되기를 바

는 점에서 볼 때, 이는 對대만 교육원조에 법제적 기초를 다진 법안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이 법안에 기초하여 1947년 남경에 중미교육재단(USEF/C: United States Educational Foundation in the Republic of China)이 설립되었다. 그러나 국공내전이라는 중국의 상황과 이에 따른 중국 국민당 정부와 미국과의 관계 변화[21]로 인해 실제 양국 간의 학술 교류 활동은 1년 만에 잠정 중단되었다.[22] 이후 1957년 11월 30일, 대만 타이베이에서 주중국미국대사 랜킨(Karl L. Rankin)과 중화민국 외무부장관 션창환(沈昌煥)의 협정 체결을 통해 중미교육재단이 다시 설립되었고, 풀브라이트 프로그램이 새롭게 체결된다. 그리고 1958년에 들어서야 〈풀브라이트법〉의 재시행과 함께 풀브라이트 프로그램이 정식 운영되었다.

〈풀브라이트법〉의 주요 골자는 미국 정부가 잉여 농산물을 외국에 판매한 대금을 적립해 두었다가 이를 문화·교육의 교류에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기존의 대외 원조가 기본적으로 군사, 경제, 기술 분야에 집중된 반면 이 법안은 기초과학분야[23]의 학술·교육계 인재 양성에 중점[24]을 두었으며, 특히 미국과 대만의 연구자가 상호 교류하고 이해를 증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기할 만하다.

풀브라이트 프로그램이 정식으로 시작된 1958년부터 1968년까지 대학 교수 30명, 연구원 63명, 중등교사 25명, 대학원생 117명이 미국에서 교육 및 연수를 받았으며, 이와 관련된 기금은 약 234회 지원되었다.[25] 대부분의 지원 기간은 1년 정도 였으며, 지원을 받은 인원의 수는 아래의 표와 같다.

<표3> 풀브라이트 프로그램을 통한 교육 교류 프로그램 참여 인원수[26]

년도	대학교수 Lecturers	연구원 Research Scholars	중등교사 Teachers	대학원생 Students	전문가 Specialists	합계
1958	-	3	5	2	2	12
1959	6	8	4	24	3	45
1960	-	6	2	10		18
1961	4	7	3	11		25
1962	4	4	2	15		25
1963	3	11	2	10	2	28
1964	3	8	2	10		23
1965	4	6	5	7	2	24
1966	3	3	-	18	4	28
1967	3	7	-	10		20
합계	30	63	25	117	13	248

란다."라고 적혀있다.

21) 이 기간 동안 중국 내에서는 국공내전이 진행되고 있었으며, 미국 내에서는 '공산중국'과 '자유중국'간의 대치 상황에 대해 확실한 전망이 불가하였다. 따라서 미국은 정치 외교적 관점에서 양측 중 어느 쪽이 진정한 '중국'이 될 것이며, 아시아지역 내 자유 진영이 어디까지 확산될 수 있는가에 대한 확고한 관점이 존재하지 않았기에 지원을 중단하였다. 이 같은 사실 역시, 대만에 대한 교육 원조가 냉전이라 당시 국제정치적 상황과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음을 증명한다.

22) Hongshan Li, *U.S.- China Educational Exchange: State, Society, andIntercultural Relations, 1905-1950*, London:Rutgers University Press, 2008, pp.93-132.

23) 中華民國外交部, 〈MINUTES OF BOARD OF DIRECTORS〉, 『美國在華教育基金協定』, 1959.

24) *From Richard T. Ewing To Mr. Hsu Shao-ch'ang*, American Embassy, Taipei, 1954.10.22.; *Report no.10*, American Embassy, Taipei, 1954.10.29.

25) TAIWAN FULBRIGHT, *Ten Years of Educational Exchange(1957-1967)*, TAIWAN FULBRIGHT, 1967, pp.43-68.

26) *Survey of Educational Activities: International Educational Exchange Program, Part VII-Formosa*,, December 6, 1957, Folder 25, Box 316, CU Papers.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 풀브라이트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연구원과 대학원생 육성에 집중되었다. 또한 대학 교수들이 미국에서 연구와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도 하였다. 이는 풀브라이트 프로그램의 목적이 미국에 대한 대만 학계의 이해도를 높이고, 향후 동아시아 민주 진영의 리더를 육성하는데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 풀브라이트의 교육 교류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미국에서 연수 혹은 유학을 가게 된 인재들은 이후 대만사회 곳곳에서 두각을 나타내었다. 중화민국 제19대 국방부부장과 국립대만대학 총장을 역임한 쑨전(孫震)은 1965년부터 1966년까지 풀브라이트 프로그램을 통해 오클라호마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과정[27]을 밟았으며, 대만신세기문교기금회를 설립자이자 미국 뉴욕법학원 교수인 천롱즈(陳隆志) 역시 1960년부터 1961년까지 풀브라이트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아 노스웨스턴대학교에서 법학 석사과정을 밟았고, 이후 예일대에서 법학 석사 및 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또한 '대만 원자과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순콴한(孫觀漢) 역시 1958년 푸어브라이트의 보조금을 받았다. 이 외에도 문화 예술 계의 인사 역시 다수 풀브라이트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았다. 대표적으로 작곡가이자 지휘자로 평생 음악과 영어 교육에 힘쓴 리바오천(李抱忱) 역시 1958년부터 1959년까지 풀브라이트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았으며, 대만 작가이자 비교문학 학자인 치팡위안(齊邦媛)은 1956부터 1957까지 그리고 1967부터 1968까지 총 두 차례에 걸쳐 풀브라이트의 지원을 받아 미국에 유학을 떠났다.

이처럼 지원금을 개인에게 분배하던 형태로 진행되던 풀브라이트 프로그램은 1965년을 전후로 하여 프로그램의 성격과 지원 방식이 상당부분 변화하였다. 1965년 9월부터 대만대학교, 청화대학교, 동해대학교 등 주요 대학의 중점학과(미국사, 수학, 경제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학과)에 지원금을 위탁하는 형태로 진행된 것이다. 사실, 이 같은 변화는 풀브라이트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은 대만 연구자들이 미국 연수 후에도 계속적으로 미국에 체류함에 따라, 대만의 인재 유출 문제[28]가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비롯되었다.

이 같은 프로그램의 성격 변화는 미국의 對대만 교육 원조가 '아시아지역에서의 자유 진영의 확대'와 '대만 내 이상적 미국 이미지 형성'이라는 미국 측의 필요와 '대만의 국가재건을 위한 인재양성', '교육 역량 확대를 통한 산업화 실현'이라는 대만 측의 필요가 동시에 고려되었음을 재차 확인시켜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5. 나가는 말

냉전 시기 국공내전에서 패한 국민당 정부가 대만으로 근거지를 옮김에 따라, 동아시아는 '소련, 중국, 북한의 공산진영과 일본, 대만, 한국의 자유 진영으로 분할되면서, 대만해협이 동아시아 냉전 진영을 가르는 분계선'[29]이 되었다. 당시 식량 보급, 인프라 건설, 국방 등 사회 전반에 어려움을 겪던 국민당 정부는 자유 진영의 확대와 공산 진영의 억제라는 미국의 원조 목표에 따라, 교육, 농업,

27) 그는 풀브라이트 외에도 오클라호마대학의 장학금과 대만 국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장학금을 수혜하였다.
28) 中華民國外交部, 「MINUTES OF BOARD OF DIRECTORS」, 『美國在華教育基金協定』, 1959.
29) 이가영, 「中·臺·美의 금문도와 대만해협에 대한 인식변화 - 냉전시기 대만해협을 둘러싼 중국·대만·미국 간 갈등과 대립의 전개양상을 중심으로」, 『중국학』 제78호, 2022, p.401.

광업, 전력, 운수송업, 공공위생, 국방 등의 분야에 원조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 중, 미국의 對대만 교육 원조는 〈스미스-문트법(Smith - Mundt Act)〉과 〈풀브라이트법(Fulbright Act)〉이 제정되고 시행되면서 본격화 되었다.

1948년 제정되고 1952년에 통과된 〈스미스-문트법〉은 기본적으로 '심리전'을 전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서, 교육, 강연, 교사 파견, 유학생 양성, 영어 교사 미국 연수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자유진영을 대표하는 미국의 사상과 문화를 전파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이 법안에 근거하여 1952년부터 1957년까지 대만에서 운영된 스미스-문트 프로그램은 대만 사회에서 영향력이 큰 인물을 선발하여 몇 주에서 몇 개월의 기간 동안 미국 현지를 탐방하고 시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대만의 대학교수, 연구원, 대학원생, 중등교사, 전문가, 지도자 등을 대상으로 시행된 스미스-문트 프로그램은 지원받은 인원의 규모를 볼 때, 세 가지의 면에서 불균형의 특징을 보인다. 첫 번째는 미국과 대만 간 대학교수의 지원 규모의 차이이다. 스미스-문트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은 대만의 대학 교수와 대학원생 수가 각각 0명과 5명인데 반해, 이 프로그램을 통해 대만에 방문한 미국의 대학교수의 수는 9명이라는 점이다. 두 번째는 다른 유형에 비해 대만 중등교사의 지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이다. 세 번째는 지도자의 유형의 경우, 미국 측 참가자는 0명인 반면,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만의 지도자 수는 16명이라는 점이다. 이 같은 세 가지 특징은 모두 짧은 시간 안에 적은 비용으로 미국과 대만 모두가 만족하는 결과를 얻기 위함이라 할 수 있다. 즉, 대만 교육의 전반적인 질적 향상이라는 대만의 수요와 미국의 사상과 이념의 대만 전파라는 미국의 수요가 적절히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1958년에서야 정식 시행된 〈풀브라이트법〉은 기초과학분야의 학술·교육계 인재 양성에 중점을 두었으며, 특히 미국과 대만의 연구자가 상호 교류하고 이해를 증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이 같은 목표에 따라 풀브라이트 프로그램은 연구원과 대학원생 육성을 중심으로 운영되었으며, 1958년부터 1968년까지 대학 교수 30명, 연구원 63명, 중등교사 25명, 대학원생 117명이 풀브라이트의 지원을 받아 미국에서 1년간 교육 및 연수를 받았다.

실제로, 이 같은 풀브라이트 프로그램의 시행은 이후 대만 사회를 이끌어갈 인재를 키워내는데 큰 공헌을 하였다. 중화민국 제19대 국방부부장 쑨전을 비롯하여 여러 대학교수, 음악가, 작가, 법학가 등 정치계, 학계, 예술계, 교육계의 주요 인사들을 배출한 것이다. 이 같은 결과는 풀브라이트 프로그램의 목적이 미국에 대한 대만 학계의 이해도를 높이고, 향후 동아시아 민주 진영의 리더를 육성하는데 있었음을 반증한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미국의 對대만 교육 원조는 대만 교육의 전반적인 질적 향상이라는 대만의 수요와 미국의 사상과 이념을 대만에 이식한다는 미국의 수요가 적절히 반영되며 진행되어 왔다. 교육 원조를 통해 대만은 경제 발전과 산업화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는 미래의 문제와 한정된 예산을 교육 외에도 식량 보급, 인프라 건설, 국방 등의 분야에도 분배해야 한다는 현재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미국은 대만의 친미 지식인을 양성함으로써 미국이 지향하는 가치와 이념을 대만 사회 전반에 전파시키고 이상적인 미국 이미지를 형성한다는 미시적 목표와 함께 대만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아시아지역에서 자유 진영을 공고히 한다는 거시적 목표를 함께 달성할 수 있게 되었다.

메 모

【문화분과Ⅰ】 발표 ②

고급 중학교 필수 조선어문교과서에 나타난 시진핑 시기 중국의 국민화 강화 양상
- 2017-2018년 판과 2020년 판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담* ·이은홍**

【목 차】

1. 들어가며
2. 시진핑 집권기,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강화와 교과서 제도 개혁
 1) 시진핑 집권기, 강화된 '중화민족' 국가관
 2) 시진핑 집권기, 중국의 교과서 제도 개혁
3. 신·구판 조선어문 교과서에 나타난 국민화 강화 양상
 1) '민족' 개념의 단일화와 조선(민)족의 특수성 삭제
 2) 조선족의 영웅에서 중국의 영웅과 인민모범으로
 3) 중국 문화 전범(典範) 중심의 교과서 정전 재구성
4. 나오며

1. 들어가며

이 연구는 고급 중학교 필수 조선어문 교과서 2017-2018년 판(구판)과 2020년 판(신판)의 비교를 통해,[1] 시진핑 집권 1·2기 강화된 국민화 양상을 확인하는데 목표가 있다. 알튀세르는 학교란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로서, 국가권력을 유지하고 재생산하는 핵심 기제라고 말한 바 있다. 그렇다면 학교 교육의 교재인 교과서는 한 사회의 지배적 가치나 이념을 가장 명시적이고 공식적으로 전달해 주는 미디어이다.[2] 그중, 어문(국어) 교과서는 역사, 도덕, 사상정치와 같은 교과목과는 달리, 문화적 교양 학습이라는 간접적이고 정서적인 방식으로 학생들에게 국민 정체성과 국가 이데올로기를 내면화한다.

* 원광대
** 순천대

1) 중국의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고급 중학교의 필수 조선어문교과서는 심사통과 년도를 기준으로 할 때, 2017년에 필수1-2권, 2018년에 필수3-4권이 출판되고, 2020년에 필수1-4권의 개정판이 보급되었다. 2021년의 경우 심사통과 년도는 2021년이나, 수록된 작품이 두 작품을 제외하고 2020년과 동일하며, 판본 역시 2020년 10월로 2020년 교과서와 동일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2017-2018년 판본을 구판으로, 2020년 판본을 신판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2) 정종현, 「국어교과서와 '(국)문학' 이데올로기- 4차 교육과정기 국어교과서의 '국문학사' 인식 및 수록 작품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연구』, 2011, 281쪽.

그러나 민족어 교육이 시행되어 온 다민족국가 중국에서는 그 양상이 조금 복잡하다. 조선족 학교에서 사용하는 조선어문교과서의 경우, 민족의 언어문화 교육이라는 목표를 지니면서도 국민 정체성 형성이라는 목표를 지닌 국정교과서라는 점에서 국민정체성과 민족정체성의 역학 관계가 나타나기 때문이다.[3] 이러한 역학 관계는 국내외 정치상황에 따라 민족 융화와 동화[4] 사이를 오가며 전개되어 온 중국의 민족정책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중국의 민족정책은 개혁개방 시기 덩샤오핑 체제의 등장과 함께 문화대혁명 시기의 '급진적 동화'에서 '민족 융화'로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었다. 하지만 '소수민족에 대한 민족 차별을 금지하고 각 민족 간의 평등과 단결'을 그 기본원칙으로 하면서도,[5] 2000년대 이후 소수민족 분리운동의 격화, 중화민족주의의 강화 등으로 인해 '민족융화'는 소수민족지역 개발을 통한 경제적 통합과 같이 그 범위가 날로 축소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조선어문교과서에서도 감지되는데, 조선족의 다중적이고 고유한 정체성을 담지하고 있는 조선어문교과서에서 민족정체성 표상이 날로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다.[6]

동일한 시진핑 집권기, 그것도 2-3년의 짧은 시기 동안 조선어문교과서에 나타나는 작품 선정과 교체 및 수정, 동일한 작품에 대한 해석 관점의 변화 등은 시진핑 집권기의 강화된 '중화민족' 국가관과 관련이 있으며, 2017년 교육부 교재국(教材局)과 교재위원회가 발족되면서 본격적인 궤도에 오른 교과서 제도 개혁도 빼놓을 수 없다. 2019년부터 본격 추진된 교과서 제도 개혁은 소수민족지역의 민족어로 된 자체 교과서 관리와 '푸퉁화' 교재 사용 확대, 특히 '삼과통편교재'의 점진적 사용을 골자로 한다.[7] 다민족 국가인 중국에서는 민족어 교육이 시행되어 왔고, 소수민족지역에서는 교육부가 2013년 발표한 <민족중소학한어과정표준(의무교육)>에 따라 민족어를 '어문(국어)' 즉, 모어로 배우고 푸퉁화는 '한어(중국어)' 즉, 제2언어로 학습해 왔다. 그런데 이제 '한어'가 '어문'으로 과목 명칭이 변경되면서 '조선어문'과 대등한 지위로 격상되고 국가통용어이자 사회언어로서의 푸퉁화의 위상이 더욱 공고화된 것이다. 이는 기존에 '이중언어 교육사업을 어떻게 잘 할 것인가'에 맞춰졌던 소수민족 문화교육정책의 초점,[8] 또는 소수민족 지역의 민족학교에서 민족어와 중국어의 '이중언어' 교육이 필요한가에 대한 타당성 논의[9] 단계에서 완전히 벗어나있어 주목된다. 즉, 민족대단합을 위

3) 이은홍, 한담, 「조선어문교과서에 나타난 중국 조선족의 민족정체성 표상 방식의 변화– 2007-2011년 판과 2021년-2022년 판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중인문학연구』, 2022, 10쪽. 김해영, 「중국 조선족학교 민족문화 교육과정 개발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인문논총』, 2014, 275-276쪽.

4) 소수민족의 동화와 융화, 다원주의의 차이에 대해 이중희(2003)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민족지역과 소수민족을 통합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한 극단은 동화이며, 다른 극단은 다원주의이다. 동화는 소수민족이 지배집단에 흡수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소수민족은 그들의 언어 상실하고 지배집단과 구분되는 특성을 상실한다. 다른 극단인 다원주의 체제에서는 문화의 상당부분, 전통적 행위양식뿐 아니라 그들의 언어를 유지할 수 있다. (중략) 그리고 그 사이에 민족융화가 있다. 민족융화는 소수민족의 분리를 부정하고 민족통합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민족동화와 공통성을 가진다. 그러나 차이점은 민족동화는 정책의 속도가 급진적이고 강제성과 폭력성을 가지는 반면, 민족융화는 민족모순의 장기성을 인정하면서 점진적이고 비강제적 방식을 취할 뿐만 아니라 각 민족의 정체성을 인정한다는데 있다." 이중희, 「장쩌민 시대의 소수민족정책과 서부대개발」, 『아시아연구』, 2003, 3쪽.

5) 이는 일찍이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전야에 제정된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공동강령>(1949.09.29.)에 기반하며, 1954년 제정되고 1982년 개정된 <헌법>에도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다.

6) 2007-2011년 판과 2021-2022년 판의 초중(중학교)과 고중(고등학교) 조선어문교과서에 나타난 중국 조선족의 민족정체성 표상 방식의 변화는 이은홍, 한담, 위의 연구 참고.

7) '삼과통편교재'란, 도덕·법치(고교는 사상·정치), 어문, 역사, 이 세 과목의 교과서를 국가(교육부)가 통일적으로 편찬한 국정 교과서를 말한다.

8) "2004년 국가교육부가 제정한 <교육진흥행동계획>을 통해, '소수민족 지역에서 이중어 교학 방식을 지속적으로 사용·강화하며, 개혁의 강도를 높인다'는 정책을 마련하고, 교육부의 2006년, 2007년, 2011년 및 2012년까지 사업 중점도 모두 '소수민족 이중언어 교육 사업을 온당하게 추진하라'는 정책 요구를 거듭 표명하였다." 崔晓琰, 『中国共产党少数民族文化政策发展研究』, 西藏大学马克思主义学院博士论文, 2021, 4장 3절. 148쪽.

9) 임형재·김효신은 중국의 이중 언어 정책의 변화와 민족학교에서의 이중언어 사용 실태 통해 조선어 교육의 위기

한 국민화 강화와 교과서 제도 개혁 속에서, 조선족 고유의 민족 정체성을 발양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 온 조선어문교육이 도구적인 언어 교육으로 축소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국민화 강화 양상을 고찰하는 기존의 연구는 주로 중국의 소수민족 정책이나 교육 정책에 집중되어 있다.[10] 그러나 정책만으로는 문학작품의 감상과 학습을 통해 어떻게 미래의 국민이라는 주체가 형성되고 강화되는지에 대한 심층적 고찰이 어렵다. 한편, 조선어문 교과서를 매개로 한 기존 연구들은 텍스트와 교육 목표 등을 바탕으로 조선어문 교수·학습의 구체적인 방향을 파악하도록 돕는다. 특히 조선어문 교과서의 텍스트 선정 및 구성을 조선족의 민족정체성의 위기, 조선족 사회의 변화와 관련지어 분석한 연구[11]나 조선족의 복합적인 정체성, 조선어문교육에 대한 역할을 조선어문 교과서 구성과 관련지어 분석한 연구[12], 비교를 통해 조선어문 교과서의 변화를 분석한 연구[13] 등은 조선어문 교과서를 통해 조선족의 민족정체성의 변화와 위기를 분석할 수 있는 유용한 접근법을 제시해준다. 다만, 이들 연구는 조선어문 교과서와 교육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가 목표이기에, 본 연구의 문제의식을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14]

이에 본 연구는 시진핑 집권기 강화된 국민화 정치담론으로서 '중화민족' 국가관과 교과서 제도 개혁을 검토한 후, 신·구판의 교과서를 비교분석하여 '민족' 개념의 단일화와 조선족의 특수성 삭제, 조선족에서 중국의 인민모범으로의 교체, 중국문화 전범 중심의 교과서 정전을 재구성을 중심으로

와 과제를 분석하였다. 연구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전면적인 이중 언어사용 방안이 확립되었고, 2010년이 넘어서면서 이중 언어 교육에 대한 표준과정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두 언어가 민족학교의 교수 언어로서의 지위를 놓고 팽팽한 찬반 논의에 휩싸이기 시작했다. 崔晓琰의 연구를 참고할 때, 2004년부터 2012년까지 '소수민족 이중언어 교육 사업을 온당하게 추진하라'는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었음에도,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조선족 학생들의 입시 및 사회진출이라는 현실적 여건 및 국가 통용어로서의 푸퉁화의 지위 속에서 이중 언어 교육의 균형이 깨질 수밖에 없었고 교과서 제도개혁 이전에도 상당부분 조선어교육의 기능적 측면만이 유지되고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임형재·김효신,「중국의 이중 언어 정책의 변화와 민족학교 중국어 교수의 도입」,『국제어문』(65), 국제어문학회, 2015, 149-174쪽. 崔晓琰, 위의 논문.

10) 강창구,「중국정부의 소수민족정책」,『중국인문과학』, 2021. 표나리,「시진핑시기 중국의 소수민족 정책과 한중간 역사갈등: 조선족요인을 중심으로」,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정책연구시리즈, 2021. 공봉진·김창경,「시진핑 시대 중국 교육정책에 관한 연구」,『동북아문화연구』 제65집, 2020. 공봉진,「중국의 문화굴기와 소수민족문화의 세계화전략」,『21세기정치학회보』, 2019. 이정태,「중국의 소수민족정책과 조선족 디아스포라의 정체성」,『대한정치학회보』 25집 2호, 2017. 공봉진,「시진핑 시대의 중국민족정책 연구」,『동북아문화연구』 제43집, 2015. 시진핑 외 지도자의 중국 소수민족정책이나 흐름에 대해서는, 이진영,「중국소수민족 정책의 이론적 기초에 대한 연구」,『아태연구』, 1999. 박병광,「중국 소수민족정책의 형성과 전개: 민족동화와 융화의 변주곡에 관하여」,『국제정치논총』, 2000. 이중희,「장쩌민 시대의 소수민족정책과 서부대개발」,『아시아연구』, 2003. 남종호,「중국 소수민족 정책과 조선족 사회변화」,『역사문화연구』 제23집, 2005. 주용·이미정,「중국 소수민족 정책에 관한 연구 동향 분석」,『인문사회21』, 2018.

11) 김경훈,「조선족 초중 ≪조선어문≫ 교재 연구－소설과 시 교육을 중심으로－」,『문학교육학』 (26), 한국문학교육학회, 2008. 황규수,「中國 朝鮮族「조선어문」의 南北韓 小說 受容 樣相과 統合「국어」編纂의 한 方案 考察」,『어문연구』 38(1),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0. 등

12) 전월매(田月梅),「신편 중국조선족 중고등학교 조선어문교재(2014-2019)의 수록 작품 분석」,『한국학연구』, 2020. 김영,「중국 조선족 중학교 문학교육 현황 고찰-『조선어문(新編, 2014～2016年)』 교과서를 중심으로」,『문학교육학』 (65), 한국문학교육학회, 2019. 오현아··오지혜·진가연·신명선,「재외동포 현지 교과로서의 '조선어' 교과의 복합적 위상 분석 연구를 위한 시론」,『국어국문학』 (177), 국어국문학회, 2016. 등

13) 황규수,「북한 고중『국어』및『문학』과 중국 조선족『조선어문』수록 시의 비교 고찰」,『새국어교육』 (82), 한국국어교육학회, 2009. 이영태·박향란,「중국 조선족 고중(高中) 신편(新編) 《조선어문》 소재(所載) 고전시가의 양상과 특징 - <청산별곡>을 중심으로」,『새국어교육』 (84), 한국국어교육학회, 2010. 임칠성·류마리아·元愛蓮,「2014년 심사 전후『조선어문』어휘의 계량언어학적 비교 연구 - 조선어 교육의 변화를 중심으로」,『한국어문교육』 (32), 고려대학교 한국어문교육연구소, 2020. 등

14) 이은홍, 한담, 위의 연구는 초중(중학교)과 고중(고등학교) 조선어문교과서 2007-2011년 판과 2021-2022년 판에 수록된 작품과 소재, 표현, 관점 등을 민족정체성 표상 변화 측면에서 다루고 있어 본 연구와 궤를 같이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시진핑 집권기인 2017-2022년 시기, 고중 어문교과서로 한정하여, 짧은 시간 내의 국민화 강화 양상을 분석하여 선행연구를 보완하였다.

조선어문교과서에서 나타나는 국민화 강화 양상을 고찰하고자 한다.

2. 시진핑 집권기,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강화와 교과서 제도 개혁

1) 시진핑 집권기, 강화된 ‘중화민족’ 국가관

두 시기의 교과서를 비교할 때,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조선족이라는 에스닉 차원의 민족과 문화 특수성을 표상하는 ‘우리’와 ‘민족’ 용어의 의미가 각각 ‘중국’과 ‘중화민족’으로 단일화되었다는 점이다.[15] 불과 2-3년이라는 짧은 시기에 나타나는 이러한 변화는 시진핑 집권기의 강화된 ‘중화민족’ 국가관에서 기인된다.

시진핑은 2012년 공산당 총서기에 선출된 직후, 국정 장기 목표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의미하는 중국몽 실현을 선언하였다. 그리고 중국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중국몽 실현을 향한 주요 기점들을 넘어왔다. 2018년은 개혁개방 40주년, 2019년은 신중국 성립 70주년, 2020년은 ‘전면적인 소강사회’ 건설 달성, 2021년은 건당 100주년이었다. 하지만 미국과의 패권 갈등 격화, 전례 없는 팬데믹 상황, 양안문제와 홍콩 민주화, 소수민족 문제, 소득 격차와 부의 불균형에 따른 계층갈등 심화 등 장기적인 위기들도 산적해있다. 이러한 국내외 위기 상황 속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중국몽 실현 여부는 내부 결집, 즉 56개의 민족을 하나의 국족 ‘중화민족’으로 단결하는데 달려있다.

‘중화민족’ 개념이 공산당의 역사적 경험을 회고하며 집정 합법성을 확인하는 상황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2017년 19차 당 대회부터이다.[16] 이 대회에서 시진핑은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을 확고히 주조할 것(铸牢中华民族共同体意识)”을 제기했고,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은 19차 전국대표대회 보고서와 당헌에 공식 기록되었다.[17] 이후 민족사업과 관련된 크고 작은 행사에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을 구축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시진핑의 발언이 반복됐다. 여기서 ‘중화민족 공동체’는 56개 민족이 다원 복합적으로 이뤄진 ‘민족 대가정’, 즉 ‘중화민족’을 의미한다. 그러나 중공 이론지인 『구시(求是)』 기고문에 명시된 바와 같이, 중화민족과 56개의 민족 간에는 상하위계가 분명하다.

> “중화민족 공동체의식과 각 민족의식의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각 민족은 항상 중화민족의 이익을 앞에 두고, 각 민족의식은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에 이바지 해야한다. 동시에 중화민족 공동체의 총체적 이익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각 민족의 구체적인 이익을 실현해야 하며. 대한족주의와 지방 민족주의는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에 불리하다.”[18]

15) 교과서를 펴면 가장 먼저 만나는 목차에서 구판의 <우리말 교실>은 <조선말 교실>로 수정되었다. ‘우리’는 더는 조선족만을 의미하는 수식어로 허용되지 않고 ‘우리나라 조선족 작가’처럼 조선족의 중국으로의 귀속을 분명히 했으며, ‘조선’이라는 명칭은 중국의 소수민족으로 자신들을 대상화하는데 사용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본고의 3장-1을 참고.

16) 장윤미, 「중국공산당의 사회건설 주장: 군중노선과 새로운 인민 주체의 창조」, 『현대중국연구』, 2021. 283-284쪽.

17) 시진핑이 ‘中华民族共同体意识’을 처음 제기한 것은 2014년 9월 중앙민족공작회의에서다. 2017년 10월 19차 당 대회에서 재언급한 후, 대회 보고서와 당헌에 공식 기록되었고, 2019년 10월에는 중공중앙판공청, 국무원판공청에 《关于全面深入持久开展民族团结进步创建工作铸牢中华民族共同体意识的意见》가 인쇄, 배포되었다. 于春洋·陈奥博, 「多元一体格局中的铸牢中华民族共同体意识」, 『青海民族研究』, 2020, 8쪽.

18) 「求是网评论员：深刻认识铸牢中华民族共同体意识是新时代党的民族工作的“纲”」(2021.09.08.) https://export.shobserver.com/baijiahao/html/403505.html(검색일:2022.04.18.)

시진핑 정부가 국민통합을 위해 강조하는 '중화민족론'은 중국의 저명한 인류학자 페이샤오퉁(费孝通)이 1988년 홍콩 중문대학교가 주최한 테너 강연의 주제 발표논문 「중화민족의 다원일체구조(中华民族的多元一体格局)」에서 제기한 국족(國族)으로서의 '중화민족' 개념과 각 민족과의 관계를 따른 것이다.[19] 이 시기 중국은 문화대혁명 실패와 소련 해체로 인해 중국 사회를 지탱하던 기존의 사회주의 이념이 크게 흔들렸으며, 개혁개방 이후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하고 '천안문 사태'로 대표되는 민주화 시도와 그 실패로 인해 사회가 매우 혼란스러웠다. 그리고 이러한 이념의 공백을 메우고 인민을 하나로 결집한 것이 1990년대 이래 고조된 애국주의였다. 중차대한 시기에 페이샤오퉁이 제기한 '중화민족론'은 사회주의 이념 위기에 처한 다민족국가 중국의 민족분열을 방지하는 국민화 전략으로 부상했다.[20] 그에 따르면, "중화민족은 중국 영토 내에 민족정체성을 갖는 10억 인민을 가리킨다. 그것이 포함하는 50여개의 민족 단위는 다원적이나, 중화민족은 하나이다. 그들은 모두 '민족'이라 불리나 그 차원은 다르다." 즉, 중화민족은 중국의 영토를 중심으로 하는 하나의 국족이며 각 민족들의 상위개념이다. 또한, "중화민족은 최근 백여 년 동안 서양 열강과 대항하는 가운데 민족 실체를 자각했지만, 그 실체는 몇 천 년에 걸친 역사 과정을 통해 형성됐다."[21]

'실체'로서 중화민족의 '다원일체' 구조, 그리고 56개 민족의 다원과 중화민족인 일체 간의 위계관계를 설정한 페이샤오퉁의 논지는 이후 중국 내 민족문제연구자들에게 하나의 강령처럼 받아들여졌고,[22] 2017년 시진핑의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강조 이후 재차 주목받고 있다. 중국의 민족 연구자들은 그의 '중화민족 다원일체구조'론을 "중화민족구조를 연구하는 핵심이론"으로[23] "국가차원의 '민족'으로서 중화민족과 중화민족 구성부분으로서의 56개 민족 간의 개념 혼동 문제를 해결하고",[24] "신시대에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을 확고히 주조하는 데 중요한 학술 분석 틀과 실천적 게시를 제공"[25]한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중화민족'이 자연적으로 생겨난 '민족'과 달리, 각 민족의 총체적 이익의 일체를 기초로 한 차생민족(次生民族)으로[26] 중국의 정치적 경계 안에 있는 국족(Chinese Nation) 개념임을[27] 분명히 하게 된다면, 중화민족의 '국가 정체성'과 소수민족의 '민족 정체성' 간의 충돌을 피하기 어렵다. 실제로 '다원'과 '일체'의 관계 즉, 각 민족과 중화민족 간에는 종교, 민족, 국경 등 각종 요인으로 인한

19) 이 발표문은 1989년 <北京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제4기에 실렸고 이후 단행본으로 출판되었다. 한글 번역본은 페이샤오퉁 지음, 팡리리 엮음, 구문규 번역, 『(중국인이 바라본) 세계화와 중국 문화: 페이샤오퉁 만년문선』(경기: 다락원, 2019)에 수록된 글 「중화민족의 다원일체구조」 참고.

20) 조경란의 연구는 중국의 민족과 중화민족 개념을 중심으로 소수민족의 국민화가 100년간 어떻게 진행되어 왔고 또 그 개념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통시적으로 고찰했다. 다만 당대(当代)의 경우, 1989년 페이샤오퉁의 중화민족다원일체론까지만 포함되기 때문에, 본 연구는 '중화민족론'의 연장선에서 시진핑 집권기 어떻게 재소환되고 해석되고 있는지를 보완하고 있다. 조경란, 「현대중국의 소수민족에 대한 '국민화' 이데올로기: 중화민족론을 중심으로」, 『시대와 철학』, 2006.

21) 费孝通, 「中华民族的多元一体格局」, 『北京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1989, 1쪽. 페이샤오퉁 지음, 팡리리 엮음, 구문규 번역, 위의 책, 158-159. 그러나 표나리는 이러한 페이샤오퉁 주장의 가장 큰 맹점이 현재의 영토를 기준으로 과거의 민족을 재단하는 뒤섞인 시간관념에 있다고 본다. 즉, 현재 중국 영토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역사는 다 중국 역사라는 논리이며, 동북공정도 이러한 인식하에 나온 것이라 비판한다. 표나리, 위의 연구, 19쪽.

22) 정작 페이샤오퉁은 자신의 논지가 "이 문제에 대한 연구의 출발점 정도", "학술영역에서의 대담한 시도"라고 언급하였다. 페이샤오퉁 지음, 팡리리 엮음, 구문규 번역, 위의 책, 158-159쪽.

23) 「如何理解中华民族多元一体格局与中华民族共同体意识的关系？」, 『学习时报』(2021.10.18.)

24) 王延中, 「费孝通多元一体格局理论与铸牢中华民族共同体意识－－纪念费孝通先生诞辰110周年」, 『社会发展研究』, 2020, 46쪽.

25) 于春洋·陈奥博, 위의 논문, 8쪽.

26) 于春洋·陈奥博, 위의 논문, 10쪽.

27) 王延中, 위의 논문, 51쪽.

장력이 작용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는 방편으로 지금까지는 소수민족지역의 경제개발을 통한 물질적 측면의 '총체적 이익 달성'을 강조해왔다면,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은 정신적 측면에서 '다원일체' 간의 관계를 포용하되 하나의 국족 정체성을 강화하려는 시도이다.[28] 시진핑에게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주조하는 것은 민족 관계의 융화와 화합을 촉진하고, 나아가 중화민족 총체성의 응집력과 구심력을 높이는 기초이자 전제"[29]이며, 이는 곧 14억 중국 인민을 하나로 응집하여 중국몽을 실현하는 정신적 바탕인 것이다.

한편, '중화민족'이 중국의 정치 경계 안에서 법률적 보장을 받는 국가민족 즉, 국민을 의미한다면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의 강화는 곧 국민적 정체성을 강화하는 것이 된다. 시진핑은 2019년 전국민족단결진보표창대회에서 정신 공작을 강화할 것을 주문하면서,[30] 국민의식 교육이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을 확고히 주조하는데 주요한 일환이자 효과적인 수단의 하나라고 언급했다. 즉, 국민의식 교육을 수단으로, '민족단결 진보교육 심화'를 내실화하고, 동시에 '민족' 개념의 다중적 함의가 야기할 수 있는 오해, 모호함, 혼란, 내적 긴장을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31] 또한, 교육 사업에서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을 강화하는 방법으로는 '5개 동의(五个认同)'와 '4개 자신(四个自信)'을 꼽았다.[32] 하지만 이것은 추상적인 정치적 강령일 뿐, 실제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발현되어야 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렇다면 교과서의 제도적 측면에서는 '중화민족'으로의 통일된 국민화 강화 방침이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살펴보자.

2) 시진핑 집권기, 중국의 교과서 제도 개혁

시진핑 집권기, 중국의 교육은 '사회주의 핵심가치관',[33] 시진핑 주요 사상 등의 이념 학습과 애국심 고양을 통해 학습자의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을 부단히 강화하고 있다.[34] 그런데 2017년 이래 추진된 교과서 제도 개혁은 정책 측면에서 이러한 국가 의지가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다민족 국가인 중국에서는 민족어 교육이 실시되어왔다. 민족자치와 함께 중국 소수민족 정책의 주요 성공 요인으로 평가되는 민족어 교육은 민족어 보존은 물론 소수민족의 민족 정체성을 발양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국가차원에서는 다양한 언어로 출판되는 교과서들을 일률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어려울 뿐 아니라, 국가통용문자인 '푸퉁화' 보급에도 걸림돌이 될

28) "중화민족공동체의식은 통일다민족국가 의식의 반영으로, 국가통일·민족단결·사회조화를 위해 적극적인 추동작용을 발휘, 중화민족다원일체구조를 유지하고 발전하는데 있어 극히 중요하고 대체불가한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学习时报』 위의 기사 (2021.10.18.)

29) 王学荣, 「"多元一体"的逻辑构式: 新时代中华民族共同体意识的多维敞显」,『宁夏社会科学』, 2022, 24쪽.

30) 2019년 9월, 건국 70주년을 앞두고 개최된 '민족단결진보표창대회'에서는 집권 후 소수민족지역의 빈곤율을 획기적으로 낮춘 정책성과를 과시하면서 '통일된 다민족국가'로서 국가통일과 민족단결을 재차 강조했다. 「习近平：在全国民族团结进步表彰大会上的讲话」, 新华网(2019.09.27)
https://www.neac.gov.cn/seac/xwzx/201909/1136990.shtml [2022.08.19.]

31) 王延中, 위의 논문, 48-49쪽.

32) '5개 동의(五个认同)'란 위대한 조국, 중화민족, 중화문화, 중국공산당, 중국특색사회주의에 대한 동의를 말하며, '4개 자신(四个自信)'은 (중국의) 길, 이론, 제도, 문화의 자신감을 말한다.

33)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은 시진핑 집권을 알리는 제18대 전국대표대회에서 채택된 새로운 중국식 사회주의 가치관으로 총 12개의 가치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부강, 민주, 문명, 조화의 '국가 가치관', 자유, 평등, 공정, 법치의 '사회적 가치관', 애국, 직업정신, 성심과 신용, 우호의 '개인적 가치관'으로 분류된다.

34) 시진핑 정부 1, 2기의 전반적인 교육정책에 관한 연구는 공봉진·김창경, 「시진핑 시대 중국 교육정책에 관한 연구」,『동북아문화연구』, 2020 참고. '신시대 애국주의 교육'에 관해서는 공봉진, 「중국 '신시대 애국주의'에 관한연구」,『국제정치연구』, 2019 참고.

수밖에 없었다. 교과서 체계 개혁의 필요성은 시진핑 집권을 알리는 당 18대 이후 중대 사안으로 떠올랐고 2017년 교육부 교재국(教材局)과 교재위원회가 발족되면서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이후 2019년 2월에는 국가교과서 제도정비를 골자로 한 <중국교육현대화 2035>가 출범하였고, 12월에는 <초중등 교재관리방법(中小學教材管理辦法)>이 전국적으로 배포되었다. 또한 같은 해 국가교재위원회는 소수민족지역 내 국가통용어 교재사용의 점진적 추진과 '삼과통편교재(三科統編教材)' 사용 시기를 규정한 내용이 담긴 <전국 대중소 교재건설계획(2019-2022)>(이하, 계획)을 발표하여 주목을 끌었다.

신시기 교과서 정책은 크게 3가지로 개괄할 수 있다. 첫째, 통일된 계획과 통일적 분배를 결합한 관리체제 하의 '삼과통편교재' 사용이다. '삼과통편교재'란, 도덕·법치(고교는 사상·정치), 어문, 역사, 이 세 과목의 교과서를 국가가 통일적으로 편찬한 국정 교과서를 일컫는다.[35] 둘째, 외국 교재와 자체적으로 편집한 교본 교재 사용을 제한하여 국가의 교과서 관리를 강화했다. 셋째, "5심과 익명심사(五审盲审)"제도의 시행이다. 이는 정치, 전공, 종합, 주제, 대조의 5개 분야 심사를 진행하고 통편교재 외의 대부분 교재에서는 익명심사제를 실시하여 교재의 사상성, 과학성, 적합성을 엄격히 하겠다는 의지이다.[36]

그 중에서 소수민족지역 내 교과서 사용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크게 2가지다. 첫째, 초중등 소수민족언어 교과서 관리가 강화되었다. 2021년 교육부가 반포한 <초중등 소수민족문자교재관리방법(中小學少數民族文字教材管理辦法)>에 따르면, 민족언어 교재 편찬의 총괄, 지도, 관리, 감독을 교육 행정부가 주관하여 통일적으로 기획하고, 소수민족 어문교재 및 기타 과목의 번역(편역)판 교재 심사 또한 통일적으로 조직한다. 특히 개정판 편찬과 번역(편역)에서는 "중화민족공동체의식을 교과서에 융합하고, 중화민족의 공통역사를 구현한 전형적 인물과 생생한 이야기를 발굴, 각 민족의 선생님과 학생들이 올바른 국가관·역사관·민족관·문화관·종교관을 확고히 확립하도록 교육하며, 위대한 조국, 중화민족, 중화문화, 중국공산당, 중국특색사회주의에 대한 공감대를 끊임없이 증진해야"하고(3장 9조), "소수민족의 어문교재는 중앙의 교육 공작과 민족공작에 관한 최신 정책 결정과 통편어문교재(統編語文教材) 개정 주기에 따라 즉각 수정되어야한다."(12조)[37]고 적시하고 있다.

둘째, '삼과통편교재' 편찬과 소수민족지역으로의 확대 적용이다. 이번 교과서 개혁의 핵심은 소수민족 지역에서의 '푸퉁화' 교재 보급과 특히 '통편삼과교재' 사용에 있다. 교육부는 2012년부터 통일적으로 조직하고 편찬한 '통편삼과교재'를 의무교육단계는 2017년부터, 일반 고교에서는 2019년부터 사용해왔다.[38] 소수민족지역에서도 2019년 발표된 <계획>에 따라, 국가통용언어 교재의 단계적 사용이 권고되었을 뿐 아니라 '통편삼과교재' 사용 시기 또한 확정되었다. 기존에 소수민족지역에서는 교육부가 2013년 발표한 <민족중소학한어과정표준(의무교육)>에 따라 민족어를 '어문' 즉, 모어로 배우고 푸퉁화는 '한어' 즉, 제2언어로 학습해왔다. 그러나 <계획> 실행에 따라, 현재 전국 11개 민족성(자치구)에서 통편교재 사용을 점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조선족이 집거한 헤이룽장, 지린성

35) 교육부는 2012년부터 통일적으로 조직하고 편찬한 도덕·법치, 어문, 역사 교과서를 의무교육단계는 2017년부터, 일반 고교에서는 2019년부터 사용해왔고, 2022년에는 전면적으로 일률집필·심사·사용(统编、统审、统用)될 예정이다. 张美静,「中国共产党百年教材政策的发展脉络、演进逻辑与未来进路」,『当代教育论坛』, 2021, 36쪽.

36) 张美静, 위의 논문, 36쪽.

37)「教育部關於印發《中小學少數民族文字教材管理辦法》的通知」(2021.08.30.) [2022.06.18.] http://www.moe.gov.cn/srcsite/A26/moe_714/202110/t20211015_572561.html

38) 중·소학교의 도덕과 법치(사상정치), 어문, 역사과목의 삼과통편교재는 2017년 가을부터 사용하여 2019년 모든 학년에 '전면화(全覆盖)' 되었고, 2019년부터 사용한 고교의 경우 2025년에 전국 모든 학년의 '전면화'를 계획하고 있다.

은 2020년 가을학기부터 채택하고 있다.[39] 소수민족지역 내 통편교재 사용 시행 이후, 지역 내 반응과 개선책을 제시하는 기사와 연구들이 나오고 있다. 한 예로, 중국교육신문에 실린 <국가통편교재가 민족지역 교육의 질적 향상에 기여한다: 관련 민족성(자치구)에 기초한 조사연구>는 민족어로 된 교재와 통편 교재를 비교하며, 민족어 교재의 집필 수준이 낮고 시대정신의 변화와 새로운 교육이념을 적시에 반영하지 못해 오히려 민족교육의 질적 향상을 저해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린다. 그러나 필자가 근거로 든 교재의 작품 선택에서 경전성이 부족하고 그 민족의 민간 고사와 전설이 시대성이 강하지 않다는 점은 그 평가 기준이 모호해 설득력이 떨어진다.[40] 또한 '삼과통편교재'의 경우, 국가 이데올로기적 특징이 강한 사상, 역사, 어문 세 과목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지역 간 교육격차를 줄이는 것 외에 '중화민족공동체의식'을 주조한 국민 만들기의 사상 강화 목적이 깔려있음을 배제할 수 없다.[41] 이처럼 시진핑 집권기 전격 추진된 교과서 제도 개혁은 민족어 교과서 입지를 축소시켜 소수민족 정체성의 유지, 보존 측면에서는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3. 신·구판 조선어문 교과서에 나타난 국민화 강화 양상

두 시기 교과서를 살펴보면 짧은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국적별 작품 수의 급격한 변화가 확인된다. 그러나 작품 수의 양적 변화뿐만 아니라 교과서 구성, 작품과 소재, 학습내용에서의 작품 해석과 관점 등의 질적 변화까지 검토해야 짧은 시간 내 급격한 변화를 온전히 해명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두 시기의 비교를 통해, '민족' 개념의 단일화와 조선족의 특수성 삭제, 조선족에서 중국의 인민모범으로의 교체, 중국문화 전범 중심의 교과서 정전을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국민화가 강화되고 있음을 확인하고자 한다.

1) '민족' 개념의 단일화와 조선(민)족의 특수성 삭제

신판 교과서의 가장 큰 변화는 에스닉 차원의 조선'족'을 표상하는 민족의 의미가 '중화민족'으로 단일화되었다는 점이다. 교과서를 펴면 가장 먼저 만나는 목차에서 구판의 <우리말 교실>은 <조선말 교실>로 수정되었다. '우리'는 더는 조선족만을 의미하는 수식어로 허용되지 않고 '우리나라 조선족 작가'처럼[42] 조선족의 중국으로의 귀속을 분명히 했으며, '조선'이라는 명칭은 중국의 소수민족으로 자신들을 대상화하는데 사용되었다. 또한, 구판의 <전통문화교실>이 전면 삭제되었다. <전통문화교실>은 조선족 전통혼례와 현대식 혼례, 세시풍속과 명절 등 표면적으로는 조선족 문화를 포

39) 「國家統編教材助力民族地區教育質量提升－基於相關民族省（自治區）的調研」, 中國教育新聞[2022.04.16.] http://www.jyb.cn/rmtzcg/xwy/wzxw/202206/t20220614_697085.html.

40) 위의 기사.

41) 전면적인 제도 개혁의 보급과 안정적 실행을 위해, "통편삼과 교재 속으로(走进统编三科教材)"라는 온라인 사이트를 교육부 교재국, 인민망, 인민교육출판사가 공동 관장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 5월 말에는 CCTV-4 채널의 《国家记忆》 프로그램에서 중·소학 통편삼과교재 사용의 정책의 배경과 의의를 소개하는 다큐멘터리 《统编教材》 5부작을 방영한 바 있다. 이러한 대대적인 홍보는 소수민족 지역을 포함한 전국적인 국정교과서 사용에 따른 진통이 그만큼 크고 국민의 이해 과정이 필요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통편삼과 교재 속으로" 사이트는 다음을 참조. [2022.09.04.] https://www.pep.com.cn/xw/zt/hd/zjywjytbskjc/

42) 구판에서는 조선족 작가 작품의 경우, '중국 조선족'이라는 소개가 붙었지만, 신판에서는 '우리나라 조선족'으로 바뀌었다.

괄적으로 다루고 있으나 그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면, 한반도에서 시작된 조선 문화의 역사성 그리고 조선족 이주와 그로 인해 갖게 된 전통문화의 특수성, 중국 문화의 영향 등의 혼종성과 현재성이 다양하게 표상된다. 조선어문과정의 성격이 조선어 능력함양 뿐 아니라, "옳바른 민족의식과 건전한 공민정서를 함양하여 민족문화를 이어가려는 뜻을 갖게 하는 학과목"[43]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변화는 문제적이다.

<표1> 구판(2017-2018)의 <전통문화교실>에 나타난 조선족 모빌리티

권-단원	표제	조선족 모빌리티
1-1	전통혼례 (1)	
1-2	전통혼례 (2)	
1-3	현대식 혼례 (1)	고조선-신라와 백제-고려
1-4	현대식 혼례 (2)	
2-1	중국 조선족 전통혼례 개황	17세기부터 20세기 중엽에 이르기까지 조선반도-중국 동북으로의 천입
2-2	조선족 전통혼례의 옷차림	신라-조선왕조
2-3	환갑잔치	
2-4	돌잔치	
3-1	중국 조선족 상례 (1)	고대-조선왕조-중국
3-2	중국 조선족 상례 (2)	1960년대 이후, 길림성 각 지역별 차이
3-3	중국 조선족의 세시풍속과 전통명절 (1)	조선반도-문혁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중국
3-4	중국 조선족의 세시풍속과 전통명절 (2)	조선왕조-1960년대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중국
4-1	중국 조선족제례 (1)	조선왕조-중국 천입 이후 현재
4-2	중국 조선족제례 (2)	조선왕조-중국 천입 이후 현재, 연길시와 길림성의 지역별 차이
4-3	중국 조선족주택 (1)	구석기-신석기-삼한-고구려 백제 신라-고려-조선-193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중국
4-4	중국 조선족주택 (2)	195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중국

<전통문화교실> 표제 가운데 조선족 문화의 역사성, 혼종성, 현재성을 엿볼 수 있는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자.

(1) 조선족 문화의 역사성

"중국 조선족은 조선반도로부터 중국 동북지역에 이주한 근로하고 지혜로운 천입(迁入)민족입니다. 중국 조선족의 이주는 17세기초의 명말, 청초로부터 시작되였으며 19세기 중엽에 이르러서 대규모의 이주가 이루어졌습니다. 조선족의 전통혼례문화는 조선족의 이주와 더불어 고스란히 중국 땅에 뿌리내렸으며 100여 년간의 력사과정에서 중국특색이 있는 조선족문화로 부상하였습니다." (2-1, 중국 조선족 전통혼례 개황)[44]

(2) 조선족 문화의 혼종성

43) 료녕성교육청·길림성교육청·흑룡강성교육청 제정, 『의무교육조선족학교 조선어문과정표준』, 연변교육출판사, 2017, 2쪽. 전월매, 위의 논문, 67쪽에서 재인용.

44) 이어서 1931년, '9·18사변' 이후 일본제국주의가 동북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조선족에 미친 영향 그리고 1930년대 전후, 중화인민공화국 건립 후, 개혁개방 이후 연변지역의 혼례형식 변화를 서술하고 있다.

"중국 조선족들이 제사상을 차리는 방식은 지방에 따라 다소 부동합니다. 아래에 연길시 소영진 명신촌의 함경도사람들이 제사를 차리는 방식과 길림성 영길현 강밀봉진 서광촌의 경상도사람들이 제사상을 차리는 방식을 소개합니다." (4-2, 중국 조선족제례(2))

"중국 조선족은 20세기 60년대 이전까지는 조선왕조시기 서민계층에서 실행하던 상례법을 그대로 실시하였습니다. 그 후 '10년 동란시기'를 거치면서 전통적인 상례풍속은 '봉건미신사상'의 여독으로 락인이 찍혀 크게 개변되였고 1980년대 이후에는 사상이 전례없이 개방되면서 전통적인 상례풍속에 더욱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였습니다. 지난날 조선족의 전통적인 '인생의례(人生仪礼)' 가운데서 가장 복잡하고 까다로운 것이 상례와 제례였는데 지금은 제일 간단한 의례로 되었습니다." (3-1, 중국 조선족 상례 (1))

(3) 조선족 문화의 현재성

"1980년대에 이르러 조선족가정은 식구가 보통 2~4명밖에 안 되는 소형 가정으로 변하였기에 실내에 여러개 방을 막을 필요가 없으므로 량통형 구조가 점차 사라졌습니다." (4-3, 중국 조선족주택 (1))

"그러나 사회의 급격한 변화와 물밀듯이 쏟아져들어온 서방문명에 영향을 입어 전통적인 우리 민족의 혼례풍습은 사라지고 새로운 혼인문화가 성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1-3, 현대식 혼례 (1))

조선반도로부터 중국 동북지역에 천입한 민족인 조선족은 자신들의 이주 역사가 명말, 청초에서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이어져왔음을 밝히고, '중국특색이 있는 조선족문화'라고 자신들의 문화를 설명하고 있다.(역사성) 떠나온 고향의 문화로 한반도의 함경도, 경상도 문화가 섞이기도 했으며 문혁을 거치며 전례 없는 변화를 겪기도 했다.(혼종성) 또한, 개혁개방 이후 급격한 사회변화 속에 현재에도 변화해 가는 과정으로 조선족의 문화를 설명하고 있다(현재성).

<표2> 구판-한국작가

권-단원	장르	작가	작품
1-2	수필	류안진	지란지교를 꿈꾸며
1-2	수필	김정의	민들레찬가
3-2	수필	법정	무소유
3-4	의론성글	탁석산	사람은 왜 일을 하는가
3-4	의론성글	리기백	민족문화의 전통과 계승
4-3	문화	리규태	탈여가의 문화

<표3> 신판-한국작가

권-단원	장르	작가	작품
1-2	수필	류안진	지란지교를 꿈꾸며

본문의 작품 구성과 내용 변화 측면에서 살펴보면, 구판에는 6개의 한국작가 작품이 실렸으나 신판에서는 우정이라는 보편적인 주제를 담은 류안진의 <지란지교를 꿈꾸며>를 제외하고 모두 삭제되었다. 조선 민족의 민족 문화, 민족성, 가치관 등을 주제로 다룬 작품들이었다. 삭제된 리기백의 <민족문화의 전통과 계승>은 '우리' 민족문화의 현재성과 미래성을 강조하는 글인데, 인습을 타파한 새로운 전통 창조의 예시로 연암의 열하일기, 겸재, 단원, 혜원의 그림, 한글 창제 등을 들고 있다. 이 글에서 한국과 조선족은 '조선'이라는 접점으로 연결되어 있어, 조선족을 중국의 '우리'로 범주화하는데 문제가 되기에 삭제된 것으로 보인다. 리규태의 <탈여가의 문화> 역시 '우리' 민족문화 중 하나로 부지런함과 끊임없이 노동하는 문화를 표상하고 있는데, 계승된 조선의 문화를 '한국문화'라고 명명하고 있어 한국과 조선족 문화 간의 접점이 발생한다.

<표4> 구판-조선족작가

권-단원	장르	작가	작품
1-3	신문소식	장정일	지게효자
2-1	시	김철	대장간 모루 우에서
2-1	시	리상각	물빛으로 살고싶다
2-2	전기문	김호웅	불굴의 투혼-김학철 선생
3-2	수필	리성권	태항산맥은 바래지않다
3-3	소설	허련순	고리
3-3	소설	림원춘	몽당치마
4-1	수필	조광명	한점의 도자기에도 미치지못해라
4-3	문화	임범송	자연미의 민족색채

<표5> 신판-조선족작가

권-단원	장르	작가	작품
3-3	소설	림원춘	몽당치마
3-4	의론성글	리성권	태항산맥은 바래지않다
4-1	수필	조광명	한점의 도자기에도 미치지못해라
4-3	문화	임범송	자연미의 민족색채

한편, 9개에서 4개로 줄어든 조선족 작가 작품의 경우, 신·구판에 동일하게 실린 작품에서도 본문 세부내용이나 학습활동 내용이 수정되었다. 반우파투쟁과 문혁까지 정치풍파 속에 조선족의 환난과 극복을 그린 림원춘의 <몽당치마>는 혼인, 복식, 환갑잔치 등 조선족 문화를 담은 본문이 수정 없이 신판에 담겨있으나, 학습활동 내용에서 '민족적인'이란 표현만 삭제되었다.[45] 특히 임범송 <자연미의 민족색채>의 본문 내용 삭제 및 수정은 주의를 요한다. "자연미는 어찌하여 일정한 민족과 나라를 상징하는 민족적 색채를 띠게 되었는가"를 논하는 이글은 "중국의 만리장성" "중국 인민의 매화"와 "조선족의 장백산과 진달래꽃" 간의 위계·귀속관계가 민감하게 부각될 수밖에 없다. 신·구판 모두 그 문제를 결론에서 "자연에 대한 열렬한 애국주의 감정이 솟아오르게" 되고 "조국 산천에 대한 사랑, 조국 어머니에 대한 사랑 - 이것은 중화민족의 미덕"(구판 109쪽, 신판 95쪽)이라고 신속하게 봉합하지만, 글의 서론부터 본론까지 "조국과 민족, 고향과 대지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나래치게"(구판 109쪽, 신판 95쪽) 하는 조선족 인민들의 '진달래꽃'과 '장백산'의 자연미는 "중화민족"의 "조국"에 귀속되어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판의 서론, 본론의 일부가 수정되었다. ① 작품의 소개글 "어떤 자연물은 한 나라나 민족의 력사, 문화 속에 들어와 그 나라 인민들이나 민족 구성원들로부터 특수한 애대와 숭상을 받게 됩니다. 진달래꽃과 장백산에 대한 조선족 인민들의 사랑과 숭상이 바로 이런 일례이다(밑줄 인용자)."라는 밑줄 내용을 삭제하여 조선족 인민들의 민족색채를 표현한 글의 요지를 축소했다.(구판 106쪽, 신판 92쪽) ② 연변 조선족 인민을 소개하는 본문에서는 "장백산은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이 땅을 개척하고 보위한 연변인민들의 빛나는 력사에 대한 견증인으로"가 "장백산은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중화민족의 일원이 되여 이 땅을 개척하고 보위한 연변인민들의 빛나는 력사에 대한 견증인으로 (밑줄 인용자)"(구판 108쪽, 신판 94-95쪽)로 수정, 조선족의 중화민족으로의 귀속을 분명히 하였다. ③구판에서 진달래꽃문화의 예로 든 가곡 <고향의 봄>, 임효원의 시 <진달래>도 삭제되었는데(108쪽), 이는 조선 민족성을 표상하면서도 한국 작가를 매개하거나 한민족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작가의 작품이라는 점에서 삭제된 것으로 보인다.[46]

45) 구판의 "이 소설에서는 민족적인 생활과 인정세태를 보다 짙게 표현하기 위해 조선족인민들이 즐겨 사용하는 성구, 속담과 관용어를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글에 쓰인 성구, 속담, 관용어들을 찾아 그 뜻을 새겨봅시다."라는 학습활동 질문이 신판에서는 '민족적인'이란 용어만 삭제되었다. (2020년 제3권, 104쪽)

46) 이 작품은 2007-2011년판에도 실렸다. 그런데 2007-2011년판과 본고에서 다루는 신·구판을 비교할 때, 또 다른 수정사항이 발견된다. 2007-2011년판에는 '조선'을 무대로 한 항일투쟁 관련 내용인 "장백산을 중심으로 이어진 장백산맥은 항일투쟁의 성지로, 근거지로 되여 혁명의 영웅업적을 남기였으며"라는 부분이 신·구판에서는 삭제

이와 같이, 신판에서 ‘우리’는 중국 또는 중화민족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대체되고 ‘민족’의 의미는 조선족에서 중화민족이라는 국족 개념으로 단일화되어 ‘조선족’은 해방 전후 조선과의 고리가 끊기고 중국의 ‘우리’를 구성하는 일부로 의미화 됨을 확인할 수 있다.

2) 조선족의 영웅에서 중국의 영웅과 인민모범으로

전기문은 한 인물의 생애와 업적 등을 기록한 글을 말한다. 하지만 대개 그 인물은 우리가 흔히 영웅이나 위인이라 부르는 역사적으로 중요하거나 남다른 업적을 남긴 이를 특정하며, 그 글이 독자에게 감동이나 교훈을 준다는 점에서 목적성이 뚜렷한 장르다. 그런데 “영웅이 그저 비범한 능력의 소유자에 그치지 않고 민족의 영광과 상처를 상징하는 육화된 기호”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국민을 창출하고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47] 따라서, 교과서에 실린 전기문의 인물 선택과 구성은 국가가 성장기의 청년들로 하여금 ‘그 인물을 통해 이 시대에 무엇을, 어떻게 기억하게 하고 싶은지’를 역으로 유추해볼 수 있는 단서가 된다.

신·구판의 전기문에는 미국의 대표적인 위인으로 꼽히는 프랭클린이 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형식으로 쓴 자서전의 일부와 중국의 국부이자 혁명 위인인 마오쩌둥이 주은래의 부고를 듣고 슬퍼하는 이야기가 동일하게 실렸다. 그러나 교체된 마지막 한 편은 신·구판 모두 한 국가를 대표하는 위인이라기보다 한 민족이나 인민 영웅을 그렸다는 점은 공통적이나, 조선족의 위인 김학철 선생이 중국의 인민영웅 장부청으로 교체되었다.

<표6> 구판-전기문

권-단원	작가	국적	작품
2-2	프랭클린	미국	사랑하는 아들에게
2-2	곽금영	중국	위인의 눈물
2-2	**김호웅**	**중국 조선족**	**불굴의 투혼-김학철선생**

<표7> 신판-전기문

권-단원	작가	국적	작품
2-2	곽금영	중국	위인의 눈물
2-2	프랭클린	미국	사랑하는 아들에게
2-2	**마용**	**중국**	**초심을 홰불처럼 추켜든 사람-영웅 장부청의 이야기**

김호웅의 <불굴의 투혼-김학철 선생>은 1996년 80세를 맞은 김학철 생일을 기념하는 축사에서 발췌한 글로, 선생의 생애, 인간됨, 문학적 가치를 평하고 있다. 눈에 띄는 것은 출생부터 조선의용군 분대장으로 활약한 내용이 담긴, 그가 조선족이라는 정체성을 갖기 이전의 삶의 궤적이다.

> 김학철은 1916년 11월 4일 조선의 아름다운 항구도시 원산에서 태여났는데 1935년 서울 보성고등학교를 다닐 때 반일사상에 눈뜨게 된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하는 리상화의 부르짖음을 듣고는 일제의 통치하에 망국노로 사는 운명이 한스러웠고 입쎈의 <민중의 적>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은 혼자 따로 사는 사람”이라는 웨침을 듣고는 그대로 주저앉아있을수 없었다. 그는 빼앗긴 조국을 찾겠다는 일념을 안고 상해에 가서 김원봉이 지도하는 반일테로조직인 민족혁명당에 가입하였다. 그후 조직의 지령에 따라 중앙륙군군관학교에 들어간 그는 거기서 맑스주의와 접촉하게 되였고 단순한 민족주의자로부터 맑스주의자로 변신하였다. 그후 그는 조선의용군에서 분대장으로 있을 때 중국공산당

된 것이다. 다시 말해, 이 작품은 교과서가 개정될 때마다 조선인의 항일투쟁 기록 축소, 조선족 고유의 민족색채의 중화민족으로의 귀속을 분명히 하는 방향으로 부단히 수정 및 삭제되었다.

47) 박지향 외 지음, 『영웅만들기: 신화와 역사의 갈림길』, 한길사, 2003, 22쪽.

에 가입하였다."(45-46쪽)

조선에서 태어나 반일사상에 눈을 떠 "빼앗긴 조국" 조선을 되찾기 위해 상해로 떠났고, 조선의용군으로 독립운동을 하던 중 중국공산당에 가입하게 된 김학철 선생의 젊은 날은 항일을 위해 고국을 떠나 중국에서 활동하고 정착하게 된 조선족의 역사를 대변하고 있다. 학생들은 "우리 조선족 문화사와 정신사적 흐름에서 빛나는 리정표"(48-49쪽)인 그의 삶을 통해 민족의 뿌리와 디아스포라로서 조선족의 역사를 되새기고 여타 소수민족과 다른 조선족의 정체성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글은 2020년 개정판에서 삭제되었다.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화민족'으로 민족개념의 단일화 및 조선족의 민족 특수성 삭제라는 전체적인 변화와 궤를 같이한다. 또한, 중국에서 조선인이 참여했던 항일전쟁의 목적이 '한반도 조국' 독립을 위한 투쟁이었음을 연상시킬 수 있는 텍스트들이 대거 교체되어 온 장기적인 추세와도 관련이 있다.

본디 항일투쟁의 역사는 동북지역에 거주하던 조선인이 중국의 조선족으로 편입되기 이전의 역사이며, 그 목적은 '한반도 조국의 독립'과 더불어, 제국주의에 대항하여 피압박민족, 세계 인민의 해방을 위한 연대, 즉 '국제주의적 항전'에 있었다. 또한, 조선인의 중국 내 항일전쟁 참여는 신중국 건립에도 큰 공을 세운 역사이기 때문에 조선족으로 중국으로 편입된 이후에도 (조선족의) 자부심과 민족 정체성의 근간이 되었다. 그러나 2004-2007년에 출판된 조선어문 교과서와 최근의 교과서를 비교해보면, 기존의 '한반도 조국의 독립'과 '국제주의적 항전'이라는 두 가지 의미역이 공존하며 특히 전자가 분명하게 드러났던 작품들이 국제주의와 중국 국토 보위를 위한 애국주의 전쟁이었음을 강조하는 텍스트들로 대거 교체되었다.[48] 이런 추세 속에서 대표적인 조선인 항일투사 김학철의 전기문은 조선인으로서의 뿌리와 조선족으로서 중국 국적을 갖게 된 역사를 모두 드러내야했기에 삭제된 것으로 보인다.

김학철 선생의 자리를 채운 것은 2019년 7월 1일자 인민일보에 실린 기사 <초심을 홰불처럼 추켜든 사람- 영웅 장부청(张富清)>이다.[49] 부당한 현실에 대한 저항,[50] 투사의 강한 정신력과 올곧은 신념, 무사봉헌(无私奉献)은 두 인물이 공통적으로 갖춘 덕목이나, 신판의 장부청은 조선족의 고유한 정체성은 완전히 사라진 해방전쟁시기의 전투영웅이자 전국도덕모범으로,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를 실현할 중국 전체를 대표하는 이상적인 국민모델이다. 그렇다면 "국민을 창출하고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모델로서 그는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교과서에는 18쪽에 걸쳐 그가 해방군에 참가하게 된 계기부터 도덕모범으로 선발되기까지의 생애가 서술되어 있다.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해야 할 만큼 가난한 집 출신인 장부청은 일찍이 '공산주의만이 중국을 구할 수 있다'는(41쪽) 계급적 각성을 통해 해방군에 참가했고 혁혁한 공을 세웠다. 신중국 수립 후 사회주의 건설시기에는 지역 간부로서 산간오지 마을을 현대화하기 위해 분투했다. 개혁개방 이후에는 부은행장으로 봉사했고 은퇴 후에는 평범한 노년을 보내다가 95세에 '전국도덕모범'으로 선발되었다. 즉, 장부청은 전쟁시기에는 전장에서 조국을 지키고, 건설시기에는 오직 인민을 위한 마음으로 맡은 사업에 투신했으며, 평화시기에는 평생의 공로를 숨기고 초심을 지켜오며 중국이 걸어온 역사적 단계마다 가장 필요한 곳에 국가와 인민을 위해 자신을 헌신한 자이다. 그는

48) 이와 관련해서는 이은홍·한담, 위의 연구, 3장의 1, 항일전쟁부분 참고.
49) 기사 원문은 http://cpc.people.com.cn/BIG5/n1/2019/0701/c64104-31206142.html [2022.08.13.]
50) 김학철의 경우, "일제의 통치하에 망국노로 사는 운명이 한스러워" 상해로 건너가 민족혁명당에 가입했고(45-46쪽), 장부청의 경우 남의집 머슴살이를 하다 국민당 부대에서 후근일을 했는데 할 일도 많고 호된매질을 당하며 "세상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폐부로 느끼며"(41쪽) 해방군에 가입했다.

2019년 제7회 '경업봉헌(敬业奉献)' 유형의 '전국도덕모범'으로 선발되어 시진핑의 축하를 받으며 "신시대의 '가장 사랑스러운 사람'"[51]이 되었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의 모범상을 학습하자는 움직임이 일었을 뿐만 아니라, 2021년에는 장부청을 비롯하여 '항미원조' 전사, 과학자 등 공화국훈장을 받은 8인의 업적을 그린 드라마 <공훈(功勋)>(48부작)의 주인공이 되기도 했다. 2007년부터 보통 2년에 한 번씩 거행되는 '전국도덕모범' 표창대회는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을 발양하고 사회주의 사상도덕 건설의 성과와 중국인민의 정신 풍모를 보여줌으로써 전국 인민을 단결하여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제정되었다.[52] 마오쩌둥 시기 혁명적이고 도덕적으로 순결한 정치적·사상적 영역의 모범을 상징하는 '가장 사랑스러운 사람'의 신시대 버전인 것이다.[53]

신판에는 '효로애친(孝老爱亲)' 유형의 또 다른 '전국도덕모범' 요족 람련청의 이야기 <훌륭한 가풍을 이어가다>도 실렸다. 신·구판 모두 효 문화를 주제로 한 도덕 가치를 선양하고 있으나, 조선민족의 효 문화와 그 사례(장정일의 <지게효자>)가 '전국도덕모범'으로 선발된 요족의 효행사례로 교체된 것이다. 이러한 교체 경향은 사상·도덕 교육이 강화되고 있는 최근 중국 교육개혁의 흐름 속에서, '전국도덕모범' 학습이 집단(국가)을 위한 자기희생과 봉사라는 애국주의와 사회주의 가치관 수양을 위해 중요한 제재로 부상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54] 또한, 달라진 학습활동 내용이 시사하듯이, 효 문화는 "조선민족문화에서의 핵을 이루는 문화"(구판1권, 63쪽)에서 중국 사회주의 사상도덕적 가치범주의 "문화자신심"(신판1권, 53쪽)으로 재맥락화되었다는 점도 주목된다.

51) 「"他们是新时代最可爱的人"」, 中国青年报(2011.11.07.)
https://baijiahao.baidu.com/s?id=1715761071548856728&wfr=spider&for=pc
참고로 '가장 사랑스러운 사람'이란, '항미원조' 전지작가 웨이웨이의 대표작 「누가 가장 사랑스러운 사람인가(誰是最可愛的人)」에서 나온 용어로 1951년 4월 『인민일보』에 처음 소개된 이후 중국 인민에게 '항미원조'와 인민지원군의 이미지로 각인되었다. 이후 '가장 사랑스러운 사람' 인민지원군은 마오쩌둥 시기 내내 혁명적이고 도덕적으로 순결한 정치적·사상적 영역의 모범을 표상하는 강력한 집단 기호로 작용해왔다. 한담, 「시진핑 시대, '항미원조' 전쟁의 귀환과 문화 내셔널리즘」, 『중국인문과학』, 79집, 425쪽.

52) '전국도덕모범'은 중앙선전부, 중앙정신문명건설지도위원회사무소(中央文明办), 해방군총정치부, 전국노동조합협의회, 공청단중앙, 전국부녀자연합이 공동주관하는 신중국 성립 이래 규모가 가장 큰 표창대회다. 모범에는 "타인 돕기를 즐겨함(助人为乐)", "의를 보고 용감히 행함(见义勇为)", "성실하고 믿음을 지킴(诚实守信)", "맡은 일에 전심전력하고 봉사함(敬业奉献)", "효를 다하고 가족을 사랑함(孝老爱亲)"의 총 다섯 유형이 있다. 快懂百科, 百度百科참고 [2022.08.11.]

53) 사회주의 중국에서는 국가 이념을 체현한 '인민 영웅'을 선정해 사회주의 국가의 가치를 선양해왔다. 그 예가 '전국모범노동자(劳动模范)'이다. 사회주의 시기에는 계획경제체제 속에서 '레이펑'으로 대표되는 정직한 육체노동, 도덕적 사회주의 이상, 당과 인민에 대한 충성 등의 가치가 주요 선발 기준이었다. 그러나 시장경제체제로 전환된 이후, 특히 2005년 야오밍과 같은 스포츠스타, 부호인 민영기업가 등이 후보로 지명되면서 모범노동자 선발을 둘러싼 논쟁이 일었고, 국가 발전의 양적기준과 가치로 그 기준이 확대되면서 본래의 의미가 퇴색하기에 이르렀다. 2007년 새로 생긴 '전국도덕모범'은 2005년을 기점으로 도덕적 가치가 퇴색된 '전국모범노동자'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국가 발전과 사회주의 도덕 가치 모두 놓칠 수 없는 중국 정부의 초조함이 엿보인다. '전국모범노동자'의 의미와 '개혁선봉'에 이르기까지의 변화는 김정수, 「중국 국가개혁 담론의 방향과 특징: 2018년 '개혁개방 선봉인물 100인' 선정을 중심으로」, 『중국문화연구』, 2019 참고.

54) 王忠国은 최근의 중국 교육개혁이 사상도덕 측면에서 애국주의(家国情怀) 배양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한 개인의 정신 성장이 완성되는 고교 시기가 중요함을 강조한다. 더불어 어문교육이 교과목 특성상 애국주의 교육에 가장 적합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王忠国, 「家国情怀教育融入高中语文教学的价值与路径」, 『长江丛刊』, 2018.

<표8> 구판-신문, 소식, 칼럼

권-단원	작가	국적	작품
1-3	-	-	장백산 '중국 10대 피서명승지'
1-3	장청령	-	좋은 사람의 이름을 만방에 널리
1-3	**장정일**	**중국 조선족**	**지게효자**
1-3	교자곤	중국	효성은 역경 속에서 더더욱 빛을 발한다.

<표9> 신판-신문, 소식, 칼럼

권-단원	작가	국적	작품
1-3	-	-	습근평 총서기께서 '약속'대로 연변에 오시다
1-3	장청령	-	좋은 사람의 이름을 만방에 널리
1-3	**사몽정**	**중국**	**훌륭한 가풍을 이어가다.**
1-3	교자곤	중국	효성은 역경 속에서 더더욱 빛을 발한다.

3) 중국 문화 전범(典範) 중심의 교과서 정전 재구성

어문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은 정전의 지위를 갖고 교육 공동체에서 유통되며, 그 유통 과정을 통해 정전성을 확고하게 하는 순환 구조에 위치한다. 그리고 정전은 해당 문화 공동체의 지배적인 이데올로기와 가치를 반영하기에, 소수민족 학생이 하나의 중국과 중국 국민으로 자신을 인식하는 이데올로기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 시기 조선어문교과서에서는 중국의 고대, 현당대의 문화적 전범을 중심으로 교과서 정전들이 재구성되는 양상을 통해, 중국 문화를 중심으로 한 위계적 질서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교과서에 나타난 문학사 수록 논리와 중국 작가 작품 비중 확대 양상에 주목해 보고자 한다.

첫째, 구판과 달리 신판에서는 조선어문 교과서에서 문학사의 개념이 등장한다. 조선어문 교과서에서 문학사를 교육 내용으로 구성하는 것은 조선족의 정체성을 표상하는 방식이 되기 때문에 민감하고 어려운 문제일 수 있다. 문학사의 기점과 분기점, 중국 국민으로 편입되기 이전의 문학과 중국 문학과의 관계 등까지도 선택해야하기 때문이다. 물론 조선족의 문학사 구성에서 중국의 국민 정체성과 조선 민족 정체성이 양립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분기점의 설정과 서술 방식에는 차이가 있지만 조선족이 이주한 시기부터 시작해서 중국의 사회·문화·정치적 조건에서 조선족 문학의 형성과 변화를 기술한 조선족문학사들이 이미 존재한다. 그러나 중국의 국정 교과서에서 조선족에 초점화된 문학사를 구성할 경우, 중국 문화와 조선족(인)의 문화의 관계가 명료화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조선어문 교과서에서 문학사를 다루기가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표10>의 대단원 목표에서 볼 수 있듯이, 구판에서는 '중국 고대시가'라는 명칭을 통해 시대성을 드러내지만 중국 조선족 시인의 작품 감상과 중국 고대문학 감상을 병치할 뿐, 문학사의 구성을 취하고 있지는 않다.

그런데 신판에서는 간접적인 방식이긴 하지만 문학사의 구성을 취하고 있다. <표11>의 대단원 목표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 고대시가'라고 명명함으로써 해당 단원의 작품을 하나의 공동체 단위로 범주화하고 있다. 또한 작품을 당시→송사→조선의 가사(歌辭) 순으로 배치하여 시간 질서로 배치함과 동시에, 중국의 역사적 질서 속에 조선 민족의 역사를 귀속시키는 구성을 취하고 있다. 정철의 <관동별곡>은 임금의 성은에 감격하고 선정에 대한 포부를 다지는 서사 부분과 위정자로서의 책임 의식이 드러난 본사 부분, 그리고 꿈에서 신선을 만나는 결사 부분을 발췌하여 수록하고 있는데, 이는 해당 단원의 당시와 송시의 작품에 드러난 조국애, 향토애, 자연의 유구함에 대한 예찬, 현실-환상-현실의 구성 등과 유사하다. 이러한 교과서 정전의 구성은 <관동별곡>을 중국 문학 텍스트와의 상호텍스트적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시기적인 배치로 인해 조선 문학에 끼

친 중국 문학의 영향과 중국 문학과 조선 문학의 유사성, 보편성을 강화하는 방식이다.[55] 이는 간접적이지만 중화민족 다원일체의 방식으로 민족 문화의 다양성을 질서화하고 있는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표10> 구판-조선어문 필수 2 1단원

작가	작품
김철	대장간 모루 우에서
리상각	물빛으로 살고 싶다
두보	춘망(봄을 맞으며)
백거이	매탄옹(숯 파는 늙은이)
리백	몽유천모음유별 (꿈에 천모산을 유람하고 벗들과 작별하며)
[대단원 목표] • 중국 조선족 시인들의 시세계를 흔상해봅니다. • 당시를 중심으로 중국 고대시가를 료해해봅니다. • 개념에 대한 론리학지식을 학습하고 상관되는 실제 문제를 해결해봅니다.	

<표11> 신판-조선어문 필수 2 1단원

작가	작품
두보	춘망(봄을 맞으며)
리백	몽유천모음유별 (꿈에 천모산을 유람하고 벗들과 작별하며)
신기질	청옥안 원석(청옥안 정월 대보름 밤)
리욱	우미인 춘화추월하시료 (우미인 봄꽃과 가을달은 언제 가야 다할가)
정철	관동별곡
[대단원 목표] • 고대시의 '멋'과 '맛'을 터득해봅니다. • 우리나라 고대시가를 료해해봅니다. • 개념에 관한 론리학지식을 학습하고 상관되는 실제 문제를 해결해봅니다.	

<표12> 작가 국적별 작품 수록 양상 비교

	국적별	구판 (2017-2018)		신판 (2020)	
중국 작가 작품 *조선족 작가 제외	중국 작가(칼럼 포함)	16	**19**	29	**38**
	중국고전(부록제외)	3		9	
조선 민족 작품	조선 고전(부록제외)	1	**18**	1	**7**
	해방 전 조선인 작가	2		1	
	한국 작가	6		1	
	조선족 작가	9		4	
외국 작가 작품 *한국 작가 제외	기타 외국작가	13	**13**	5	**5**
	합계	50		50	

둘째로 중국 작가의 작품 비중이 확대된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 <표12>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중국 작가의 작품은 구판과 비교해서 신판에서 2배 증가했고, 조선민족의 작품과 외국 작가의 작품은 구판과 비교해서 신판에서 절반 이상(약 60%) 감소했다. 전체 작품 수는 변화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산술적으로 조선 민족 작품과 외국 작가 작품의 감소는 중국 작가 작품의 증가로 이어졌음을 알 수 있다. 앞서 조선족 작가와 한국 작가의 작품 변화에 대해서는 살펴보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55) 신중국 건립 이전의 조선 문학과 중국 문학을 병치해서 '고전'으로 다룬 예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07년에 출판된 조선족고급중학교교과서 조선어문 필수 2에서도 '고전의 향기'라는 단원명으로 중국과 조선민족의 고전문학을 다룬바가 있다. 여기서는 고려가요 <청산별곡>과 당시 3수로 리백 <꿈에 천모산을 유람하고 벗들과 작별하며>, 두보 <춘망>, 백거이 <숯 파는 늙은이>, 그리고 조선 후기의 소설 박지원 <양반전>이 수록됐다. 신판과 다른 점이라면, 작품이 시간 순서로 배치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또한 <청산별곡>을 "별곡(別曲)이란 중국의 가곡인 정곡(正曲)에 대응하여 고려시대에 들어오면서부터 조선의 고유노래를 별도로 부르던 말이다."(3쪽)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중국 문학과 조선 문학의 관계 속에서 조선 문학의 고유성을 설명하려고 한다는 점이 눈에 띈다.

외국 작가 작품의 감소와 중국 작가 작품의 증가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조선어문 교과서에서 외국 작품 수록이 갖는 상징성이 있다. 중국은 2004년부터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 정책으로 신과정개혁(新課程改革)을 채택하였고, 선택과목 배정과 학생의 소질 평가 등 다양성을 확보하려는 가치를 표방하였다. “중국 교육부에서 언급한 과목의 다양성에 따른 선택과목의 배정이 신편 ≪조선어문≫ 교과서 소재 시가에서 중국문학, 한국문학, 외국문학의 작품 수의 증가와 장르의 확장으로 나타났던 것이다.”[56] 이러한 기조가 유지되어 왔으나 신판에서는 특히 외국문학의 수 감소가 두드러진다.[57]

<표13> 구판-조선어문 필수 3 1단원

작가	작품
롱펠로	인생례찬
윌리엄 블레이크	호랑이
괴테	들장미
[대단원 목표] • 외국 시인들의 시세계를 흔상해봅시다. • 랑만주의 시문학에 대해 알아봅시다.	

<표14> 신판-조선어문 필수 3 1단원

작가	작품
소식	적벽부
구양수	추성부
도연명	귀거래사
[대단원 목표] • 부(賦)와 사(辞)의 '멋'과 '맛'을 터득해봅시다. • 우리나라 고대문학장르를 료해해봅시다.	

특히 구판의 조선어문 필수 3의 1단원은 주목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다른 외국 작품들은 전기문, 소설, 희곡 등 장르에 대한 문학적 지식과 감상을 위해 선택된 작품이지만, 이 단원의 경우 ‘외국의 명시’를 감상하는 것 자체가 목적으로 설정되었기 때문이다. 윌리엄 블레이크의 <호랑이>는 프랑스혁명을 배경으로 ‘혁명력량과 이런 력량을 키워낸 인민들을 상징적으로 찬미한’(5쪽) 작품이며, 괴테의 <들장미>는 ‘지고의 감정을 미적으로 승화시켜 운률적으로 창조한 언어예술’의 전범을 경험할 수 있는 작품이고, 롱펠로의 <인생례찬>은 중국어로 번역된 최초의 영국 시이자 중국인에 의해 번역돼 반향을 일으켰던 작품이다. 그리고 대단원 목표에서는 이들을 ‘외국 시인’과 ‘랑만주의 시문학’으로 묶어내고 있다. 이러한 작품 구성이 말해주는 것은 무엇인가? ‘랑만주의’를 혁명적 낭만주의와 서정갈래의 본질적 속성, 그리고 계몽의 대상인 인간이 아니라 생에 대한 인간의 욕망과 개성을 표방하는 인간 이해의 속성으로 해석하며 사조에 대한 다각적인 이해를 반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민에 대한 예찬이라는 ‘내용’과 감정을 운율로 조직한 ‘형식’, 그리고 외국과 중국의 문화교류 ‘태도’까지 외국문학을 균형적으로 수용하려는 모습도 반영하고 있다. 세계화, 정보화 시대의 문화 개방과 교류라는 다소 거시적이고 추상적인 정책과 목표 가운데서도, 다각적이고 균형적으로 외국문학을 수용하려 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던 것이 신판에서는 동일 단원이 중국의 고전 정전으로 모두 교체되었다. 고대문학의 범위도 초나라, 한나라, 위진 남북조, 당송 시기까지 확대하고, 고대 운문 문체의 대표적인 부(賦)와 사((辭)의 장르에 대한 경험도 확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56) 이영태·박향란, 「중국 조선족 고중(高中) 신편(新編) 《조선어문》 소재(所載) 고전시가의 양상과 특징-<청산별곡>을 중심으로」, 『새국어교육』 84, 한국국어교육학회, 2010, 209쪽

57) 교과서 작품 설명과 학습 활동, 작품 내용 등에 근거해서 살펴보면, 서구의 자본주의, 정치, 문화 등에 비판 의식을 드러낸 작품들(발자끄, <가문의 불행>, 마크 트웨인, <주장선거경쟁>, 오 헨리, <경찰과 찬송가>)이 사라졌고, 중국의 구습을 타파하고 새로운 근대 주체의 전범으로 중국 근대 문학사에서 수용되었던 입센의 <인형의 집>이 조우의 <일출>로 교체되는 등의 변화가 나타난다.

<표15> 구판-중국 현당대 작가와 작품(조선족 제외)

권-단원	작가	작품
1-2	가평요	못난 돌
2-3	여지견	나리꽃
2-4	로사	차집
3-3	로신	아Q정전
4-1	곽계굉	부족함의 아름다움
4-1	서강	깨달음
4-3	풍기재	피라미드가 주는 계시
4-4	첨극명	자연을 경외하라

<표16> 신판-중국 현당대 작가와 작품(조선족 제외)

권-단원	작가	작품
1-1	**모택동**	**심원춘 눈**
1-1	**하경지**	**연안으로 돌아왔네**
1-2	가평요	못난 돌
1-2	주자청	푸른 빛
1-4	**손리**	**련꽃늪**
1-4	**팽견명**	**그 산, 그 사람, 그 누렁이**
1-4	여지견	나리꽃
2-4	로사	차집
2-4	**조우**	**일출**
3-2	**벽야**	**천산의 경물**
3-2	**모순**	**풍경이야기**
3-3	로신	아Q정전
3-4	**진목**	**땅**
4-1	곽계굉	부족함의 아름다움
4-1	**주국평**	**홀로 있을 때 느끼는 풍부함**
4-2	**철응**	**오, 향설이**
4-3	풍기재	피라미드가 주는 계시
4-4	첨극명	자연을 경외하라

신판에서는 고전 정전뿐만 아니라 중국 현·당대 정전도 구판에 비해 두 배 이상 확대 수록되었다. 모택동부터 철응에 이르기까지, 중국 현당대문학사에서 주요하게 다뤄지는 작가인데 수록된 작품은 내용 측면에서 사색이나 인간애를 그린 두 편(팽견명, 주국평)을 제외하고 크게 다음의 세 유형으로 나뉜다. 첫째, 구사회의 암흑을 폭로하고 혁명정신과 전쟁을 소재로 한 작품이다. 한용운 <님의 침묵>, 정철 <관동별곡>의 자리를 채운 모택동과 하경지의 서정시는 학습활동 질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각각 혁명 영웅주의와 중국 혁명의 요람인 옌안 정신을 노래하고 그 현실적 의의를 학습하기 위한 것이다. 모순의 <풍경이야기>(1940)도 해방구 옌안의 새로운 생활과 옌안 군민의 숭고한 정신을 찬양한 작품이다. 또한 중화인민공화국을 있게 한 두 차례의 전쟁, 즉 항일과 해방전쟁을 소재로 한 작품이 추가되었다. 손리의 <련꽃늪>은 항일시기를 배경으로, 농촌 청년들과 부녀자들이 연꽃 늪에서 벌인 적들과의 매복전을 유쾌하게 그린 작품으로 '혁명 낙관주의가 충만하다'(83쪽)고 평가받는 작품이다. 둘째, 추가수록된 중국 고전처럼, 조국애, 국토애를 주제로 하고 있다. 벽야 <천산의 경물>(1956)은 1949년 해방된 신장에 위치한 천산의 자연미와 그곳에서 살아가는 소수민족의 삶을 찬미하는 수필이다. 진목의 <땅>(1961)은 "우리 중화민족의 문화는 '땅에 대한 열애에 뿌리를 둔 문화'"(117쪽)라고 소개하며, 2600여년 전 <좌전>에 기재된 춘추시대 이야기부터 신중국의 공산당에 의한 해방에 이르기까지 인민의 반제, 반봉건의 투쟁과 그 결실로 수호한 영토의 소중함, 그 후 눈부신 발전과 풍요로움을 읊은 사회주의 색채가 강한 글이다.[58] 셋째, 사회주의 현대화

58) 신판의 3-4단원에는 진목의 <땅>과 함께 중국 조선족 작가 리성권의 <태항산맥은 바래지 않다>가 수록되었다. 본래 구판에서 3-2단원에 실린 <태항산맥은 바래지 않다>는 항일 전쟁 시기 조선의용군이 팔로군과 연합하여 전투한 호가장전투를 배경으로, 조선 의용군이 중국 인민을 보호하고 중국 인민도 이들에 애정을 갖고 기리는 모습을 강조함으로써 가족과 같은 군민의 관계를 그리고 있다. 그런데 신판에서 진목의 <땅>과 함께 새롭게 배치된 것이다. 이러한 배치는 진목의 <땅>과 상호텍스트성을 형성, 항일 의식이 중국 국토의 보위 의식과 병치되면서 조선(족)의 항일이 중국을 위한 희생으로 애국정서를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의 창신과 발전을 긍정하는 내용이 강화되었다. 철응의 <오. 향설이>(1982)는 세상과 단절된 외딴 산골마을에 기차가 통하게 되자 향설과 친구들은 단 1분 멈추는 기차를 만나러 매일 같은 시간 간이역으로 향하고, 기차로 대표되는 현대문명은 그녀들, 특히 그 마을의 유일한 학생인 향설이에게 다른 삶을 꿈꾸게 한다. 작가는 마지막까지 향설이의 심리변화와 그 결과를 직접적으로 서술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작품은 시골소녀의 성장기, 현대화 과정의 명암 등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가 가능하지만, 학습활동은 “개혁개방이래 우리나라 농촌에서 거둔 거대한 성취를 알아보고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생각해봅시다”라는 질문으로 학생들의 이해를 사회주의 현대화와 발전의 긍정으로 고정시키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철응의 작품이 실린 신판 4-2단원의 작품구성이다. 구판에서 배금주의를 비판하는 발자끄의 <가문의 불행>은 <오, 향설이>로 교체되어 체호브의 <갑 속에 든 사람>과 함께 모두 창신과 발전에 대해 긍정하는 내용으로 재구성되었다. 현대문학은 현대 민족국가의 탄생과 함께 국민을 하나로 응집시킬 민족국가의식의 필요로 생겨났으며, 민족국가라는 공동체를 상상하고 강화함으로써 국민을 형성하고 확립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지금의 중국을 있게 한 혁명과 전쟁, 그 과정에서 탄생한 근대적 주체(옌안의 노동하는 군민들), 조국애와 영토의식, 사회주의 현대화를 긍정하는 작품 구성은 이와 같은 현대문학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덧붙여 2019년 판 고중 어문 통편교과서 즉, 국정교과서와 비교할 때, 동일하게 실린 작품 수가 기존 3편에서 6편으로 확대됨으로써[59] 조선 어문교과서만의 독립성은 희미해져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 나오며

본 연구는 고급 중학교 필수 조선어문 교과서 2017-2018년 판(구판)과 2020년 판(신판)의 비교를 통해 시진핑 집권 1·2기 강화된 국민화 양상을 확인하는데 목표가 있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정치, 제도적 측면에서 시진핑 집권기의 강화된 ‘중화민족’ 국가관과 교과서 제도개혁을 살펴보고 이러한 변화가 조선족 교육에 미친 직간접적인 영향을 가늠해보았다. 3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신·구판 조선어문교과서의 작품 선정과 교체 및 수정, 동일한 작품에 대한 해석 관점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조선어문교육이 어떻게 성장기의 조선족 학생들에게 국가 이데올로기를 내면화하는지, 그 양상을 다각도로 고찰하였다.

정치, 제도적 측면에서 보면, 시진핑 시기 강화된 ‘중화민족’론은 특히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주조하자’는 국정 슬로건을 통해 사상적 측면에서 중국 인민을 하나의 국민으로 응집하는 국족 정체성을 강화하고 있었다. 더불어 2017년 이래 추진된 교과서 제도 개혁은 이러한 국가의 의지가 민족어로 된 자체 교과서 관리 강화와 국가가 통일적으로 편찬한 국정 교과서인 ‘삼과통편교재’의 전국적 사용으로 적극 반영되고 있었다. 조선어문교과서의 신·구판 비교를 통해서는, ‘민족’ 용어의 국족 개념으로의 단일화와 조선(민)족의 특수성 삭제, 조선족의 영웅에서 중국의 인민모범으로의 교체, 중국문화 전범 중심의 교과서 정전을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국민화가 강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선족 어문교과서의 이러한 변화는 날로 감소하는 조선족 학습자의 수, 중국 사회와 동화의 필

59) 2019년 판 고중어문 통편교과서(고1 필수 상권, 고2 선택필수 상·중권, 고3 선택필수 하권)와 조선어문교과서에 실린 작품을 비교할 때, 구판의 여지견, 로사, 로신의 작품 3편에서 신판의 모택동, 손리, 철응의 작품 3편이 추가되어, 신판에서는 총 6편이 국정교과서와 동일하게 실렸다.

요성 등 조선족의 현실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찰되어야 하는 문제이다. 다만, 학교는 국가권력을 유지하고 재생산하는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이며, 교과서는 국가의 지배적 가치나 이념을 명시적이고 공시적으로 전달하는 미디어라는 점을 상기할 때, 조선‘어’ 교육만으로 축소되어가는 조선어문교과서의 변화는 본 연구의 문제의식인 국민화 강화 양상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더불어, 국가 이데올로기적 특징이 강한 사상, 역사, 어문 과목에서 국정교과서(통편교과서)의 전 국가적인 사용은 조선족을 비롯한 여타 소수민족지역 내에서 국민화 강화를 위한 국가 의지를 더욱 강력하게 추동할 것이다. 교과서만을 주요 대상으로 분석한 본 연구는 통편교과서 채택 이후 조선족을 비롯한 소수민족지역의 반응과 대응 등 교과서 밖의 논의들을 담지 못했다. 추후 이러한 한계를 보완한 후속연구를 이어가길 희망한다.

【문화분과Ⅰ】발표 ③

疫情后韩国国内文化旅游业为中国游客相对应措施
——文化内容为中心

이해명*·이지윤**

【目 录】

1. 疫情对国际旅游业的冲击和挑战
2. 疫情之下韩国国内（中国游客）旅游动向分析
   1) 调查对象
   2) 海外旅行意向
   3) 访韩注意事项调查
3. 旅游行业未来地升级与转变
   1) 各地方政府为缓解旅游业出台相对应措施
   2) 韩国政府推出外国人的文化旅游项目
   3) 线上旅游平台OTA的数字化转型与升级
   4) 以仁川为例分析智慧旅游城市地建设
4. 结论:在韩华人对智慧旅游城市地看法

1. COVID19后旅游行业发生动摇

1）疫情对国际旅游业的冲击和挑战

据世界旅游协会（WTTC）统计，截至 2020 年 6 月 10 日，COVID-19导致1.79亿个工作岗位流失。这是一个非常严重的情况，与 4 月 24 日估计的 1.08 亿相比，失去了约7800 万个工作岗位。即使在旅行和旅游业的国内生产总值（GDP）损失预测中，在基本情景,下全球旅行和旅游业总共损失了1.211 亿个工作岗位，全球 GDP 预计损失 3.44 兆美元。

2）中国人来韩旅游市场变化分析

韩国国内旅游业的最大变数预计将取决于中国人和日本人。从图表中可以看出新冠疫情,19年底到20年初入境游客数呈现大幅度递减趋势。

* 延世大学 全球地域学大学院 博士课程 (damingwz@naver.com)
** 庆熙大学 技术经营大学院 兼职教授 (rebecca jiyunlee@kbu.ac.kr)

资料来源：世界旅游协会 (WTTC)

资料来源：韩国观光公司

2. 疫情之下韩国国内（中国游客）旅游动向分析

1）调查对象

2021年7月14日至7月26日，中国旅游研究院，为了深入分析新型冠状病毒以后旅行形态的变化及海外旅行意向、和访韩旅游需求,直接对中国当地消费者进行了在线问卷调查。调查对象为19—69周岁的中国人，1000名，调查方式为在线调查。本次调查的项目包括 2022年海外旅游意向，访韩旅游应注意的相关注意事项。[1)]

2）海外旅行意向

当被问及2022年海外旅行的意向时,40.3%的人回答"有意向",31.0%的人回答"没有意向" 调查显示，回答"一般/一半"的人占28.9%。今后海外旅行的意向在30多岁(53.8%)、白领(47.7%)和专门职(49.4%)中高于全体,家庭收入越高,意向就越高。 相反，男性(38.2%)、60多岁(38.9%)、无业/退休(78.3%)没有意向的比率较高。

以2022海外旅行意向者为对象，中国游客最希望访问的国家“韩国”以（第一顺位 23.8%，）达到第一位，其次是日本（第一顺位达到了22.9%）美国（第一顺位 11.1%，）达到第三位。

希望访问的理由中，访问韩国的理由第一点是"有魅力的看点/乐趣"（33.8%），其次是"购物方便"（26.0%）、"和中国相隔的距离近"（11.8%）、"感染新冠肺炎的危险小（防疫/扩散税等）"（11.6%）。

2022年调查中国人是否有意向韩国旅行，有意向访问韩国的人的比率为68.7%。 女性对韩国旅游的

1) 이원희 • 김형종 • 감지수, 〈코로나19발생 이후 주요 방한지장분석 및 정책과제〉, 《정책연구》, 第34回, 2021.

意向达到了72.3%，高于男性64.7%， 30多岁的旅游意向达到82.1%，比其他年龄段高。 有子女的情况达到了71.8%，高于没有子女的受访者 ,调查还显示CNY 达到40,000以上的高收入区间,的访问者意向较高。

3) 访韩注意事项调查

新型冠状病毒前后相比,当被问及韩国形象的变化时,40.6%的人回答"变好了",36.6%的人回答"没有变化",15.2%的人回答"变坏了" 据调查,与负面形象相比,正面形象变化较大。

韩国旅行计划时的必要信息,今后韩国旅行计划时,必要信息被问及时 ,"韩国国内新冠肺炎状况"(39.8%)以第一位为基准最高,以1+2+3位为基准,"住宿设施安全及卫生水平"(71.2%)最高。从年龄段来看,20多岁的人回答"韩国入境程序及检疫"(81.1%)和"韩国国内新型冠状病毒情况"(62.2%)较多,50多岁的人回答"饭店安全及卫生水平"(44.1%),60多岁的人回答"住宿设施安全及卫生水平"(87.0%)和"旅游景点及体验活动运营现状"(84.8%)较高。

访问韩国时需要的线上互联网服务领域,今后访问韩国时需要的非面对面服务领域时,以第一位为基准的"出入境程序"(22.3%)最高,以1+2+3为基准的"观光地预约/售票"(55.0%)最高。从各年龄段来看，20多岁人群回答"旅游景点预约/售票"（70.3%）和"出入境手续"（59.5%），40多岁人群回答"酒店入住/退房"（59.6%），60多岁人群回答"旅游景点体验/参观内容"（76.1%）和"公共交通预约/售票"（78.3%）。

“旅行地安全以及卫生管理排第一位，放宽入境程序及资格隔离措施"(第一位22.2%,)"以新型冠状病毒以前的水平简化签证发放（14.2%)、"实时介绍信息服务"占14%。

3.旅游行业未来的升级与转变

1) 各地方政府为缓解旅游行业出台相对应政策

文化体育观光部为了应对新冠肺炎,推进金融、雇佣、税政、保证、经营领域的旅游企业支援对策。正在实行共8000亿韩元规模的融资支援，各地方自治团的支援对策也在推进中。韩国文化体育观光部为了帮助因新型冠状病毒长期损失而面临经营困难的旅游业，住宿业等旅游业早期恢复，对所有旅游企业推迟偿还一年的融资，并减免最多1%的利息。另外，计划在上半年集中安排70%的普通应聘者，并大幅扩大支援信用部特别融资.

2) 韩国政府推出的针对外国人的旅游项目

kITP-MFT-韩国旅游观光局每年推出这样的外国人免费旅行活动，一方面是为了宣传韩国著名的旅游观光地一方面也是为外国人更好地了解与加深对韩国地认识，旅游覆盖韩国首尔和其他地方自治市是韩国政府为振兴旅游业推出的旅游项目和措施。

全罗南道政府也积极募集在韩外国人免费旅行，通过两天一夜或者以三天两夜这样的短途旅行招募宣传者，募集者通常是SNS 活跃用户，在各大粉丝平台拥有一定粉丝基础，可以在各大社交平台起到KOL作用和一定宣传能力，政府募集到这样的宣传者通过图片和视频为各地旅游观光做宣传，并且可以在社交平

台起到一定的影响力，这也是各地政府为了振兴旅游业推出地宣传措施。

3）线上旅游平台OTA的数字化转型与升级

旅游产业的数字转换与新型冠状病毒一起,非面对面旅行化正在加速，预计今后新冠肺炎时代也将扩大深化。例如，旅游在线/移动平台从单纯的旅游商品和服务中介功能向规划、调查、预约、评论等游客旅游整体体验（한국관광학회,2020），逐渐演变为引领旅游业内所有价值链数字化转型的商业模式，改变旅游生态。 另外,利用数码技术的多种个别旅游商品/服务开发及供应也将加速。预计将开发利用大数据、AI等提供量身定做的旅游信息、利用增强现实/虚拟现实(AR/VR)的实感型体验内容等新的旅游商品及服务(관광레저산업인적자원개발위원회,2021)。OECD（国际经合组织）为了应对旅游部门的数字化,在2020年第106届旅游委员会上,考虑到克服新型冠状病毒危机和获得数字技术的必要性,提出了旅游中小企业数字化的人力教育、数字化促进支援、数字差距分析等政策事例,强调了促进旅游产业数字转换和支援。旅游产业的数字变化是由以全球OAT 为中心的旅游业平台引领，OAT 市场规模2020年达到43210亿美元，预计到2025年将增长到833，52亿（statista，2021）特别是全球OAT的收购合并，实现规模经济，强化了世界旅游市场的竞争力(한국관광공사, 2021)。

例如,Airbnb是连接游客和旅行地当地居民,共享宿舍的平台。用平台进行评论及评论在线网站/手机应用程序、推荐算法、价格调整等,在旅游领域平台企业的成长可以实时收集游客数据。确保以游客数据分析为基础，旅游企业为各游客量身定做提供和谐的旅游内容和服务，提高旅游服务质量和游客满意度。因此今后也将为中介数码游客和个别旅游商品及服务销售者提供服务，预计平台企业在旅游产业内的影响力将逐渐扩大。[2)]

4）以仁川为例分析智慧旅游城市地建设

仁川市发布的名为“Incheon e-G”的应用程序（APP），不仅可以查看基于人工智能 (AI) 推荐的旅游指南，还可以查看有关附近餐馆、咖啡馆、旅游景点和住宿的信息。增强现实 (AR) 和虚拟现实 (VR) 允许时间旅行来比较过去和现在。得益于随处可见的公共Wi-Fi，甚至不用担心数据问题，这个地方已经发展为“仁川智慧旅游城市”。[3)]

首先该市将开放港口周边地区作为旅游目的地，无需担心交通问题。从私人交通服务（MOVV）到城市旅游巴士、月尾海上火车和开港故事自行车等，都可以预订和使用仁川e-G应用程序。

该市还准备了实时戏剧内容，可以在杂酱面博物馆和济物浦俱乐部通过 VR 看到生动的 19 世纪的济物浦。在自由公园和青一租界楼梯，有一个全景AR，可以让您通过时间循环比较现在和过去的济物浦。有金九、金兰沙、摩登女歌手、萨巴钦、阿彭策勒等历史人物直接指导的AR鬼体验内容。

同时为游客提供便利的基础设施和服务。提供行李寄存服务，让游客可以轻松方便地存放任何数量的行李，同时景区配备语音导览服务，这是一个“我自己的旅行指南”，让游客可以在没有导游的情况下进行沉浸式旅行。

该市建立了一个移动简单支付（I-PASS）系统，这样就可以轻松地在仁川开放港口周围旅行，而无需

2) 이 훈, 〈코로나(COVID-19) 팬데믹, 관광여행의 변화와 전망〉, 《미래예측연구회》, 2020.

3) 경기일보, “스마트관광도시 인천 개항장, ‘인천e지’ 앱으로 실감나게”, 2021.8.31.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10831117443 6)

钱包。对于中国游客等，也可以使用微信支付进行二维码扫描支付。此外，海外游客可通过实时退税服务，在缴费后立即收到退税。

此外，仁川市还准备了智能排队和点餐系统，让您可以在仁川e-G预订您想去的地方，进行“智能餐厅”之旅。还准备了各种智能优惠券，以增加前往仁川开放港口的成本效益。

通过多语种服务（英文、中文、日文）和面向外国游客的非面对面点餐和文字聊天服务，各国游客可以轻松地享受旅行。其中，微信小程序“Urban Haengrang”与中国最大的IT公司腾讯合作，在亚洲首次面向中国游客开放。

4. 结论:在韩华人对智慧旅游城市地看法

为了更精准知道在韩华人对智慧旅游城市的看法，采用了采访调查法，调查了在韩的旅游博主以及在韩旅游管理专业的留学生，调查韩国智慧旅游城市发展现状以及如何推进和让更多中国游客了解并有所关注，如何更好地发展智慧旅游等问题，将智慧城市的理论与实际相结合。

邢加奇（首尔市立大学 硕士 城市社会 研究方向：城市观光）

1:请问来韩的时间？2008年.

2:看您经常参加这样的外国人旅行活动，有去体验过韩国的智慧旅游吗？有。

3:有听说过韩国的智慧旅游城市吗？从哪些渠道听说呢？有，韩国旅游发展局官网以及旅游推介会。

4:了解的智慧旅游城市有哪几个呢？在韩国旅游时使用的线上APP有哪些呢？

仁川. 清州. 去哪儿网、穷游网、飞猪

5:如果政府出资邀请您去韩国智慧旅游城市旅游 你最想体验什么项目呢？城市规划有关的新型旅游一条龙布局，方便国外游客旅游的线路

6:韩国的智慧旅游项目如何吸引中国游客你有什么好的建议吗？

1:多做旅游推广，联合国内的旅游平台； 2:政府出头多多和中国各地区旅游部门做资源互换推广，多多交流提高中国民众信赖度。

7:智慧旅游和普通旅游你觉得最大的区别有哪些呢？有一些什么优点呢？

韩国的外国语导航这部分做得很好，无论是街边外国语指示牌，还是韩国旅游官方的外语导航信息，都能让外国人在韩国旅游方便。但是中国的微信和支付宝普及里比较高，现在景区的自助系统和微信结合的比较好，感觉比国内更加方便，比如电子支付，旅游信息扫码讲解，城市旅游小程序等

8：从体验者角度出发你最希望增加的体验项目有什么呢？为了增强游客复购率有什么好的活动和建议？

通过韩国旅游发展局和各地方旅游部门带头开展宣传活动，联合知名旅游平台和网络SNS平台开展旅游营销，吸引不了解韩国的人群。

刘璐 东国大学（电影制片专业硕士 韩游记中国SNS宣传组成员 小红书粉丝 42.5K

1:请问来韩的时间？2021.09

2:看您经常参加这样的外国人旅行活动，有去体验过韩国的智慧旅游吗？体验了仁川智慧旅游

3:有听说过韩国的智慧旅游城市吗？从哪些渠道听说呢？有听朋友说过

4:了解的智慧旅游城市有哪几个呢？在韩国旅游时使用的线上APP有哪些呢？

水源、庆州,인천e지、韩国问我、奋斗在韩国

5:如果政府出资邀请您去韩国智慧旅游城市旅游 你最想体验什么项目呢？通过VR设备体验时间旅行

6:韩国的智慧旅游项目如何吸引中国游客你有什么好的建议吗？招募中国sns记者团进行宣传

7:您在中国有体验过这样的智慧旅游吗？可以列举您觉得两国在智慧旅游城市发展上可以相互学习借鉴的点吗?

有，国内的智慧旅游会通过大数据分析消费者偏好而推荐精准的兴趣点;而韩国的VR体验方面更完善

8:从体验者角度出发你最希望增加的体验项目有什么呢?

自助式交通租赁,这样会更方便游客出行[2]为了增强游客地复购率 有什么好的互动活动建议吗？通过打卡分享等活动，提供优惠门票等方式

文茜 在韩职场人（韩国旅游博主 小红书粉丝1w+）

1:请问来韩的时间?

2019年

2:看您经常参加这样的外国人旅行活动，有去体验过韩国的智慧旅游吗?

暂时还没有，今后有时间一定会去的

2:有听说过韩国的智慧旅游城市吗？从哪些渠道听说呢?

听过 小红书，上面会有一些智慧城市的介绍

3:了解的智慧旅游城市有哪几个呢？在韩国旅游时使用的线上APP有哪些呢?

仁川E-G naver kakaomap

5:如果政府出资邀请您去韩国智慧旅游城市旅游 你最想体验什么项目呢?

文化体验 VR项目,这样的项目比较有体验感和代入感

6:韩国的智慧旅游项目如何吸引中国游客你有什么好的建议吗?

多利用中国sns平台 如抖音小红书等进行宣传，并且设置低价体验活动

7:智慧旅游和普通旅游你觉得最大的区别有哪些呢？有一些什么优点呢?

更多地使用了人工智能 可以给游客带来更便利和更新颖的体验，增强游客代入感

7: 你觉得现在韩国的智慧旅游城市有一些什么困境，还可以从哪些方面来完善呢?

对于一些年龄比较大或者不太会用智能机的人来说会有点困难 可以通过一些宣传或培训手段来普及科技

8：对于韩国智慧旅游城市的宣传从个人层面和宏观政策层面可以做哪些努力呢?

多设置一些쾀투어来吸引在韩外国人参加 然后通过sns发布帖子进行宣传

综上，从宏观政策层面上分析，韩国旅游业市场发展，应联系到本国经济，文化旅游观光局出台相关政策扶持各个地方政府和企业，提供有针对性的实施方案，政会策层面上给予补助，从旅游平台OTA地转型升级变化来看，通过APP的系统设置，为中国游客提供更多便利和服务措施，简化旅游服务流程，有利中国游客出入韩国，个人层面上充分利用社交平台和SNS 等 平台为韩国旅游做宣传，让更多人知道并深入韩国旅游，并在此基础上积极推行智慧旅游城市地发展以及普及率，进一步推动韩国智慧旅游业地转型与升级。

【문화분과Ⅰ】 발표 ④

‘공한증’의 한국적 의미
- 한국 축구를 자기-정의하는 재현을 위해 중국 축구를 타자로 호명하는 기표

서재철* · 리 사일루오**

【목 차】

1. 연구 요약문
2. 연구의 배경 및 문제의식
3. 이론적 틀과 관점
4. 연구 결과 및 핵심 주장의 개요

1. 연구 요약문

이 연구는 ‘공한증(恐韓症)’이라는 특정한 개념 혹은 아이디어가 한국 사회와 스포츠 세계 속에서 이해, 소통, 소비되고 있는 ‘한국적 의미’의 역사성과 (문화적) 정치성을 ‘개념사(槪念史)’의 관점과 ‘문화연구(cultural studies)’의 접근을 통해 비판적으로 탐구하는 하나의 조그만 작업이다. 강조하건대, 이 연구는 공한증이 과연 무엇인지를 혹은 그것이 정확하게 어떠한 현상과 사건 혹은 증상을 지칭하는지를 조사하거나 규명하는 작업이 아니다. 우리의 연구는 공한증의 ‘실체’를 조사, 실증, 확인하는 것이 아닌, 그것과 관련된 혹은 그것이 매개하고 발산하는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의미’를 해석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기획한 것이다. 특히, 우리가 천착하는 것은 공한증의 ‘한국적 의미’이다. 다시 말해, 공한증이라는 개념/아이디어가 한국인들이 의사소통하는 언어적 실제 속에서 어떠한 의미/상징의 기표로 사용, 언급, 표현, 이해, 소통되어 왔는지, 그리고 그러한 개념/아이디어의 ‘쓰임새’는 한국의 스포츠 현실과 한국 사회 속을 살아가는 한국인들에게 어떠한 의미와 상징을 시사하고 매개하는 유의미성을 띠어 왔는지 등을 비판적으로 해석하고 성찰해보는 것이다. 이러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유용한 소스로서, 우리의 연구는 한국의 언론/미디어가 ‘중국 축구’라는 특정한 주체/대상을 ‘재현(representation)’하는 기사 생성의 형식과 특성에 주목하고, 그러한 언어적/담론적 실제의 내러티브 속에 ‘공한증’의 개념/아이디어가 어떻게 언급, 표현, 이해, 사용되는지의 양상과 방식을 분석함과 동시에, 그러한 개념/아이디어의 ‘쓰임새’를 둘러싼 맥락을 고려하여 해석하는 작업이다.

이하의 글에서는 필자들이 어떠한 배경과 문제의식으로 이 연구를 기획했는지, 그리고 어떠한 이론적 틀과 관점으로 이 작업을 수행했는지, 나아가 우리가 발표장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 徐在喆, Seo Jae-Chul. 부경대 스마트헬스케어학부 해양스포츠학과 교수 (jaechul-seo@pknu.ac.kr@pknu.ac.kr)
** 李赛珞, Li SaiLuo. 부경대 스마트헬스케어학부 해양스포츠학과 박사과정 (samlee960104@gmail.com)

연구 결과와 핵심 주장에 대한 간략한 요점을 서술하고자 한다. 부족하지만, 필자들의 게으름과 시간 관리 능력의 부족으로 이 글에서는 하나의 완결된 내러티브를 완성하지 못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양해의 뜻을 전하고 싶다. 그러나 연구 결과에 대한 진정성 있는 발표를 약속함과 동시에, 향후 대한중국학회의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무대 속에 체육적이고 스포츠적인 모습과 무늬들도 함께 형성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희망하며 이 글을 시작한다.

2. 연구의 배경 및 문제의식

사실, '공한증'이라는 용어는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 대신, 국립국어원이 추진하고 있는 일종의 개방형 한국어 사전인 우리말샘과 네이버 국어사전에는 등록되어 있는데, 이 두 사전은 공한증을 "한국 축구에 대해 가지고 있는 중국인의 두려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정의하고 있다. 위키피디아는 조금 더 '긴' 설명을 수록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중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을 잘 이기지 못하는 현상, 또는 언론에서 그러한 까닭을 설명할 때 쓰는 말이다.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한국(韓)을 두려워하는(恐) 증상(症)'이라는 뜻이다. 원래 중국 대중 매체에서 사용하던 용어를 대한민국 대중 매체에서 가져와서 사용하면서 널리 퍼졌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공한증의 용어가 중국에서 먼저 사용되었다는 점이다. 공한증 용어의 역사를 추적, 조사한 박경호(2019)에 의하면, 왕준(王俊)이라는 신문기자가 운영하는 블로그에서, 자신이 처음으로 공한증의 용어를 만들었으며, 1992년 6월 2일「足球」신문 제533회 3면에 '중국축구 "공한증"(中国足球"恐韩症")'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왕준 기자는 최근까지도 축구 전문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데, 2019년 아시안컵 조별 예선의 한국전과 관련된 자신의 기사에서도 1992년 6월 2일에 기고한 기사를 언급하면서 자신이 중국 언론에 처음으로 공한증의 용어를 알린 사람임을 재차 언급했다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박경호(2019)는 1992년 왕준의 기사 이후 각종 중국 언론들이 공한증의 용어를 활용하였으며, 4년이 지나 1996년이 되어서야 한국의 언론/미디어에도 등장하기 시작했음을 기사 검색을 통해 발견하여 언급하고 있다.[1)]

'공한증'의 개념/아이디어가 한국의 언론/미디어에 최초로 등장한 것으로 추정되는 기사의 내용을 소개하면 이렇다.[2)] 1996년 9월 17일 경향신문은 제1차 한중 축구 정기 교류전을 앞둔 상황에서 "축구대표 공격진 부상병동"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면서 다음과 같이 '공한증'의 개념/아이디어를 언급하고 있다. "중국은 그동안 공한증이라는 말이 만들어질 정도로 한국 팀만 만나면 유난히 맥을 못춰 왔으나 최근 프로축구의 성공과 함께 무섭게 성장, 결코 만만히 볼 수 없는 상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3)] 같은 기간 조선일보의 기사도 '공한증'을 언급하고 있는데, "중(中), 비상한 관심. CCTV 생중계"라는 제목의 기사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중국의 공한증은 심각하다. 중국 국민들은 중국 선수들이 잘 하다가도 한국팀만 만나면 얼어붙고 만다고 믿고 있다."[4)] 이상의 내용처럼,

1) 박경호(2019). 한-중 축구의 문화적 유산: 공한증에 대한 고찰. 한국체육사학회지, 24(1), p. 5
2) 박경호(2019)가 조사하여 논문에 수록하였고, 필자들 또한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를 통해 이 기사가 공한증의 용어를 수록하고 있는 최초의 기사임을 확인하였다.
3) 유형렬, '축구대표 공격진 부상병동', 경향신문, 1996년 9월 17일 18면.
4) 양상훈, '中(중) 비상한 관심...CCTV 생중계', 조선일보, 1996년 9월 24일 13면.

한국의 언론/미디어가 한국 축구에 대한 중국의 인식과 감정을 소개하고 전달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중국 측의 표현을 인용하게 된 계기가 바로 공한증의 개념/아이디어가 한국 사회 속에 처음 등장하게 된 국면이었다.

이후, 공한증의 개념/아이디어는 한국과 중국의 축구 경기가 있으면 으레 아니 항상 함께 등장하는 일종의 상투적 ‘단골’ 표현으로 오르락거렸다.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의 기사 검색 결과, 1996년 9월 이후부터 1999년까지 총 39편의 기사에서 공한증의 개념/아이디어가 등장하는데, 모두 중국 축구와 관련된 기사 속에서 한국 축구에 대한 중국 혹은 중국 축구팀의 공포와 두려움을 일컫는 말로 일제히 소개하고 있다. ‘공한증’과 ‘코리아포비아’를 신어와 유의어의 관계로 파악하고 뉴스 기사에 나타나는 어휘 사용 양상을 분석한 한승규(2020)는 빅카인즈 뉴스 검색을 통해 1996년부터 2020년까지 총 1,736건의 기사에서 공한증의 용어를 발견하였으며, 연도별 사용 빈도에 있어서도 축구와 관련된 일정에 따라 용어 사용의 빈도가 압도적으로 증가하였음을 밝히고 있다.[5] 한국의 언론/미디어는 공한증의 개념/아이디어를 자주 활용하기 시작했을 뿐 아니라, 그것을 활용하는 쓰임새와 맥락에 대해서도 더욱 다양하게 확장해 나갔다. 비단 중국의 축구 뿐 아니라, 중국의 다른 스포츠는 물론, 축구/스포츠와 관계없는 중국의 다양한 분야들까지, 그리고 더 나아가 ‘중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한국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드러내는 다양한 주체와 대상에 관한 기사에서도 공한증의 개념/아이디어가 등장함을 엿볼 수 있다.[6] 한국과 중국의 축구를 매개로 생성, 소통되기 시작한 개념/아이디어의 활용이 문자 그대로, ‘한국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드러내는 증상’을 뜻하는 보통명사의 일반성을 얻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이 지점에서 필자들의 문제의식을 언급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우리의 질문은 이렇다. 1996년 9월 한국의 언론/미디어에 처음 등장한, 그것도 한국 축구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감정이 아니라, 중국 측 입장의 인식과 감정을 소개하고 전달하는 맥락에서 사용된 이 공한증의 개념/아이디어는 어떠한 배경, 맥락, 국면을 계기로 그리고 어떠한 흐름과 경로를 통해 오늘날 그 쓰임새가 마치 보통명사와도 같이 확장된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 것일까? ‘축구’라는 ‘스포츠’ 실제 속에서 생성, 이해, 소통된 한 개념의 쓰임새가 ‘축구’와 ‘스포츠’를 넘어 한국 사회와 대중문화 속으로 널리 퍼지고 확장되었다는 것은, 혹시 ‘축구’와 ‘스포츠’의 실제 속에서 그 개념/아이디어가 매개하고 발산한 그 ‘쓰임새’의 영향력이 그만큼 강렬하고 폭발적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한국과 중국이 축구를 매개로 접하고 관계하며 상호작용해온 역사 속에는 무슨 일들이 있었으며, 또 그러한 사건과 현상 들 속에서 ‘공한증’의 개념/아이디어는 어떻게 연관되어 존재해온 것일까?

3. 이론적 틀과 관점

이 연구를 기획한 문제의식은 필자들이 ‘개념사(槪念史)’라는 역사연구의 한 정향으로부터 영감을 얻은 것이다. 개념史 연구의 ‘문제의식’은, (특정한) 개념 그 자체의 역사를 밝히고 규정하기보다는,

5) 한승규(2020). 뉴스, 기사에 나타나는 ‘공한증’과 ‘코리아포비아’ 어휘 사용 양상 분석. 인문사회21, 11(6), p. 1851-1865.

6) 다음과 같은 기사들을 참고하기 바란다: 박성수, ‘바둑 공한증, 中 이창호 집중분석’. 경향신문, 2004년 5월 12일; 박은경, ‘중국인들, 축구 이어 영화서도 공한증’. 주간경향, 2022년 11월 7일 1501호; 박상준, ‘남자하키 32연속 무패...일본은 공한증’. 스포츠동아, 2014년 9월 25일.; 박문규, ‘日 전자업계 공한증 탈출 뭉쳤다’. 경향신문, 2005년 4월 27일.; 김원석, ‘미·유럽계 가전사들 공한증?’. 전자신문, 2003년 10월 28일.

(특정한) 개념이 사용되는 '맥락', 즉 누가 언제,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그리고 왜 그 (특정한) 개념을 사용해왔는지를 질문하고, 그러한 언어/개념 사용의 실제와 국면 속에 스며 있고 녹아 있는 역사적,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의미/상징 생산의 역동성을 탐구하는 데 있다. 따라서 우리는 공한증의 개념/아이디어를 말하고 듣고 이야기하는 주체로서 '우리'에 방점을 찍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중국 축구와 관계해온 역사적 맥락과 문화적 국면 속에서 공한증의 개념/아이디어를 언제, 어떻게 그리고 어떠한 국면 속에서 왜 언급하고 표현하면서 사용해왔는지, 그리고 그러한 개념/아이디어를 사용하는 언론/미디어의 실제는 어떠한 의미와 상징을 생산하고 매개하는지, 나아가 한국 사회와 문화 속에서 어떠한 언어적/담론적/문화적/정치적 힘, 영향력, 이데올로기 등을 발산해 온 것인지를 검토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탐구하는 공한증의 한국적 의미는 한국이 중국을 접하고 상대하며 상호작용하는 관계적 성격의 의미이다. 우리는 공한증의 '한국적 의미'라는 것이 마치 한국 사회 속으로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특정한 본질적 실체로 존재하는 고정불변한 성격의 '의미'라고 생각하지 않고 전제하지도 않는다. 이러한 본질주의(essentialism)적 관점과 달리, 우리는 공한증의 '한국적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중국 축구와 관계하는 맥락과 국면 속에서 특정한 양상과 방식으로 만들어지고 구성/형성되는 유동적이고 가변적이며 상황적인 성격의 의미로 이해한다. 즉 우리는 공한증의 한국적 의미를 해석하는 데 있어 '구성주의(constructivism/constructionism)'적 관점을 취한다. 공한증의 개념/아이디어를 일종의 '사회적 구성물(social construction)'로 인지하고, 그것이 사용/활용되는 언어적 실제 속에서 생산, 매개, 관계하면서 만들고 구성/형성해내는 의미에 초점을 두는 것이 우리가 취하는 기본 관점이다.

이러한 구성주의의 관점 아래, 우리는 '재현(representation)'이라는 키워드에 주목하고, 공한증의 개념/아이디어를 한국의 언론/미디어가 중국 축구를 재현하는 실제 속으로 위치시켜 놓고 접근, 분석, 해석한다. 구성주의적 관점의 '재현'은 대상과 실체를 '있는 그대로' 혹은 객관적이고 사실적으로 반영하는 성격의 언어 활동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재현의 주체가 대상과 주체에 대한 의미를 구성/형성하는 데 직접 관여하고 참여하는 정치적 활동이다. 따라서, 우리의 연구는 공한증의 개념/아이디어를 한국의 언론/미디어가 '중국 축구'라는 대상/실체를 특정한 양상과 방식으로 묘사/표현/설명하고 이야기해온 재현의 실제 속에서 만들어내고 구성/형성한 '재현(representation)'의 산물로 인식하고, '공한증'이라는 기표(記表, signifer)가 언어와 담론의 지형 속에서 어떠한 의미와 상징의 개념/아이디어로 부유(floating signifier)해 왔는지를 들여다보고 분석/해석하는 작업이다.

필자들은 이러한 접근과 방식으로 공한증의 '한국적 의미'를 탐구하는 작업이야말로, 중국 축구가 아닌 정작 우리의 한국 축구에 대해 많은 것들을 잘 알게 되는 '특별한' 기회를 가질 것으로 판단한다. 이러한 '믿음'은 자아와 타자의 문화적 차이에 주목하고 서로의 다름을 발견, 확인, 강조하는 재현의 실제를 통해 자아와 타자의 정체성을 만들고 구성/형성/구축하는 문화정치성의 행간을 비판적으로 탐구하는 문화연구의 특정한 지형으로부터 근거하는 것이다. 예컨대, 동양/아시아/비서구에 대한 서구적 재현의 산물인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이 서구의 정체성을 구성/형성/구축하는 자기-재현의 또 다른 문법이자 언어라는 Edward Said의 지적처럼, 필자들은 공한증'의 개념/아이디어 역시 한국 축구를 자기-정의하는 재현의 문법과 시스템의 연장선 속에 위치하고 또 그것에 부합하는 요소라고 파악한다. 즉 타자를 특정한 방식으로 이야기하는 재현의 실제가 곧 자아의 정체성 형성과 관련된 정치적 언어로 구성되듯이, 공한증을 필두로 한국의 언론/미디어가 중국 축구를 재현하는 실제를 들여다보는 것이야말로, 곧 한국 축구를 자기 정의하는 정치성의 이면과 행간을 이해할 수 있

는 유익한 통로이자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4. 연구 결과 및 핵심 주장의 개요

필자들의 주장을 요약하자면 이렇다. 간단히 말해, '공한증'이라는 개념/아이디어는 한국의 언론/미디어가 '중국 축구'라는 특정한 집합적 주체를 '재현(representation)'하는 실제 속에 특정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핵심 키워드이다. 중국 축구와 관련된 서사 속에서 그것이 기능하는 역할의 핵심은 중국 축구를 특정한 내용과 성격, 즉 한국 축구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는 열등적 '타자(the Other)'로 규정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공한증의 한국적 의미는 '중국 축구'라는 타자의 호명을 통해 한국 축구의 우월적 정체성을 자기-표현하고 자기-정의하는 한국적 쓰임새의 언어적 산물인 것이다.

필자들은 '공한증'의 개념/아이디어가 포함된 내러티브들을 크게 두 가지 '맥락' 속으로 위치시켜 놓고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첫 번째 맥락은 이른바 '일본식 혹은 일본형 오리엔탈리즘'으로 이해, 소통되고 있는 자아-타자 관계에 대한 재현의 방식이다. 일본형 오리엔탈리즘이란, 서구의 오리엔탈리즘을 다시 일본식으로 전유하는 재현의 담론이자 방식인데, 아시아를 타자화하면서 일본을 아시아와 서구의 중간에 위치시키는 자기-정의의 방식이다. 필자들은 이러한 일본형 오리엔탈리즘의 서사 양식이 한국의 근대성을 형성하던 시기에 자주 등장하였고, 또한, 한국의 스포츠와 축구를 이야기하고 재현하는 서사 속에서도 자주 등장하여 활용되고 있음을 목격한 바 있다. 20세기 후반, 한국 축구에 대한 담론 역시 이러한 일본형 오리엔탈리즘의 형식과 내용을 많이 닮은 형태로 전개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아시아의 맹주'와 '아시아의 호랑이'와 같은 표현들은 아시아 축구라는 타자를 설정하고, 그것과의 차별을 통해 한국 축구의 우월적 정체성을 표현하고 확립하는 자기-정의의 언어이다.

무엇보다, '공한증'의 개념/아이디어는 '아시아 축구'를 타자화하고, 나아가 그것을 넘어서는 한국 축구의 세계적 수준을 이해하고 표현하며 정의하는 서사 속에서 특별한 기능을 수행한다. 그것은 바로, 중국 축구라는 타자를 활용함으로써 한국 축구의 우월성을 재차 강조, 확인, 구축하는 것이다. 중국 축구가 한국 축구와 '특별한' 공포와 두려움의 관계를 맺기 이전에 그 역할을 담당했던 것은 '일본 축구'였다. 공한증이라는 개념/아이디어는 등장하지 않았지만, 그러한 개념/아이디어만 없을 뿐, 서사의 내용과 성격은 충분히 한국 축구에 대한 일본 축구의 '공한증'을 잘 표현하고 있는 기사들을 많이 확인하였다.

'공한증'의 개념/아이디어가 처음 등장한 1996년을 전후한 시기는 바로 공한증을 드러내는 주체가 일본에서 중국으로 넘어가던 시기였다. 일본과의 경기에서 패하는 것이 반복되면서 일본은 한국 축구가 아시아의 맹주와 호랑이가 되는 것을 위협하는 라이벌로 자리옮김하였고, 아시아와 구별되는 한국 축구의 우월성을 반증하는 거울의 역할로 등장한 것이 바로 중국 축구였다. 사실, 한국 축구의 존재가 중국 축구의 세계 무대 진출, 예컨대 올림픽 예선과 월드컵 예선의 과정 속에서 발목을 잡은 것은 객관적으로 빈번한 사례였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이 2002 월드컵에 자동 출전하게되면서, 중국이 처음으로 월드컵에 진출하게 되는 좋은 기회를 가지게 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필자들은 그러한 경기적 요소 외에도 '공한증'이라는 개념/아이디어의 사용을 확산시키게 된 특정한 '맥락'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그것은 바로, 중국과의 수교 이후, 한국 사회 속에서 만들어

지고 구성/형성된 중국 및 중국인에 대한 특정한 인식의 지형이다.

요컨대, 필자들은 20세기 후반을 전후한 시기, 공한증의 개념/아이디어는 '중국'과 '중국인'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지형과 결합하는 국면 속에서 더욱 그 '쓰임새'가 강화되고 확산되었음을 해석적으로 주장할 것이다. 이러한 믿음의 맥락적 근거는 '중국/중국인'에 대한 한국의 인식을 역사적으로 혹은 문화적으로 탐구한 학술 지형으로부터 유추해볼 수 있다. 예컨대, 백영서(2013)의 경우, 중국/중국인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에는 세 가지 유형이 역사적으로 혼재하거나 서로 중층적으로 결합하고 있는 양상이 있음을 언급한 바 있는데, 그것은 바로 1) 천한 중국, 2) 개혁 모델로서의 중국, 3) 세력균형의 축으로서의 중국이다.[7] 다시 말해, 한국과 중국이 관계해온 특정한 역사적 맥락과 국면 속에서, 중국에 대한 한국의 인식은 이 세 가지 유형이 불연속적이면서도 일관적이지 않은 양상과 방식으로 구성/형성(discurive construction)되어 있다는 것이다.

비슷한 관점과 유사한 방식으로, 필자들은 '공한증'의 개념/아이디어가 중국 축구를 대하는 한국인식의 첫 번째 유형, 즉 '천한 중국 축구'의 유사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중국의 축구와 스포츠를 이야기하는 한국 언론/미디어의 내러티브 속에도 위의 세 가지 유형이 조잡하게 얽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1978년 중공 축구와 스포츠가 아시아 무대에 등장한 이후, 축구계와 스포츠계에 새로운 균형을 견인하는 세력의 축으로서 소위 중국위협론에 입각한 담론은 항상 빈번하게 등장하였다. 또한, 시장 개방 이후, 중국의 축구와 스포츠계가 급성장하고 있는 모습들 역시 한국의 축구계와 스포츠계가 눈여겨 봐야 할 사항이라는 점을 넌지시 알리는 기사들도 줄을 이었다. 중국 인식을 탐구한 연구들이 흔히 '큰 중국, 작은 중국인'이라는 담론으로 공유하고 있듯이, 필자들은 공한증의 개념/아이디어야말로, '중국 축구/스포츠 위협론'으로 대표되는 '큰 중국' 인식에 대응하고 맞서며 길항작용을 하는 '작은 중국인'의 축구판 혹은 스포츠판 상징적 기표라고 해석한다.

이상의 포인트들과 함께, 한 가지 추가적으로 더 구체화하여 설명할 사항이 있다. 필자들은 '공한증'의 개념/아이디어가 중국 축구를 사실적이고 객관적으로 '기술(description)'하는 차원보다, '한국 축구'의 자아 정체성을 구성/형성하는데 더 밀접한 관련을 맺고 기능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한국의 언론/미디어가 '공한증'의 개념/아이디어를 활용해서 한국 축구의 지위와 위상을 어떻게 '신화화'하는지에 대해서도 상술할 것이다. 여기에서, '신화'의 의미는 역사적 사실성의 엄밀함과 확실성을 담지하는 그런 성격과는 구별되는 것이다. 예컨대, 한국과 중국의 역대 전적이 어떻게 왜곡되어 언급, 표현, 소개되는지, 나아가 '공한증'이라는 기표를 통해 한국 축구에 대한 중국 축구의 공포와 두려움이 어떠한 구조와 흐름의 이야기로 생성, 반복, 재구성되는지 등을 보여줄 것이다.

7) 백영서(2013), '중국의 동북공정과 한국인의 중국인식의 변화'. 중국근현대사연구, 58, p. 55-85.

【문화분과Ⅱ】 발표 ①

从听见到“看见”
——中国流行音乐的新媒体传播

刘磊*

【목 차】

1. 从流量吸引到多元音乐形态
1) 音乐行业新变局
2) 抖音“看见音乐计划”
3) 造音行动与可视化宣推
2. 平台与现状
1) 音乐类主战场
2) 音乐人的新媒体平台选择
3) 平台与优质内容创作者互相成就
3. 抖音可视化宣推表现
4. 新音乐格局的发展方向
1) 音乐平台体系的构建，实现对音乐人的全方位帮扶
2) 音乐消费新趋势，流行音乐潮流密码
3) 线上线下相结合，打造独有宣推场景
5. 结语

【摘要】目前，抖音已经成为了中国原创音乐宣传的最重要阵地，抖音通过多维度、强运营、站内流量、算法机制等方式，主推更多原创优质作品，并没有持续火爆的势头。总的来说，以短视频为核心的外延式发展，呈现出更为多元的音乐生态模式，激发了原创音乐的创作活力。在帮助音乐内容提升宣传效率的同时，对歌曲在传播上起到了非常重要的引流作用，实现了抖音音乐平台、乐手、音乐听众三方共赢的局面。从研究背景和目前的发展现状出发，通过分析抖音可视化推广的具体表现，为抖音可视化的未来发展探索方向。

【关键词】新媒体；看见音乐计划；可视化宣推；原创音乐；流量池。

1. 从流量吸引到多元音乐

1）音乐行业新变局

随着短视频平台的火热，传统音乐领域也伴随着时代潮流发生了巨大的变化，不仅创作方面人才辈出，在全网范围内打造了无数脍炙人口的歌曲，就连音乐宣传也随着人们听歌方式的改变完成了从线上流

* 南京传媒学院播音主持艺术学院教师。

量到线下的切换。抖音的音乐用户+增长策略，其实可以概括为一句话——“时刻注意把握用户需求“时刻注意把握用户需求”并不容易，如《需求》作者斯莱沃斯基说的：“真正的需求，潜藏在人性因素与其他一系列因素的相互关联之中。这些千奇百怪、不断变化的因素包括金钱和情感成本、社会规范、基础设施、产品设计、沟通方式等。所有这些因素通过一种复杂而无法预测、违背直觉的方式相互作用。只有理解这一切，才有可能创造出真正的需求。[1)]”在泛娱乐领域，无论是摇滚音乐节，还是短视频平台，还是直播平台，都在寻找更符合时代的创意形式，为这个行业带来全新的视角与活力。

抖音是一个针对年轻人的15秒音乐短视频社区，自2016年底上线以来，已成为最热门的音乐短视频平台。其精准的定位使其成为音乐短视频的市场领导者。作为一个以音乐创意为核心元素的社交短视频节目，它在众多的音乐短视频APP中脱颖而出，独树一帜。然而，近年来，短视频平台上的原创歌曲大爆发，无论是早年的《答案》还是后来的《少年派》，都通过短视频的能量放大了音乐。作为音乐创意短视频社交软件，支持优质音乐内容，一直是抖音平台发展的重要方向。

如今，短视频平台的兴起已经完全重塑了我们看待音乐市场的方式。歌曲破圈的方式变了，“可视化推广”担起了爆款歌曲的幕后推手，频频创下震撼奇迹。随着短视频和音乐流媒体平台的兴起，视觉效果和个性化的推荐正在帮助推广音乐。由于短视频平台的存在，新歌迅速成为热门歌曲，而抖音的经验也证明了这种方式的成功。[2)]

音乐产业在两个方面发生了变化：一是通过数字技术，二是通过新场景。在传统时代，几十年前，音乐产品是通过唱片公司+评论媒体的渠道传播，乐评人有较大的发言权，媒体的评价和推荐可以直接影响唱片的销售，而实体唱片的销售则要靠线下商店的开设。然而，随着互联网引发的数字化浪潮，实体唱片和磁带逐渐从大众消费的场景中消失，随身听和CD机也是如此，用户可以更方便地享受数字音乐，因此，音乐产业已经成为虚拟经济的代表。音乐播放器和在线音乐平台已经成为录制音乐的主要传播渠道，普通用户可以用脚投票来选择大量的音乐，获得更多的选择权和个人影响力，而专业音乐评论媒体的地位也在下降。这一新趋势也在颠覆娱乐业、传媒业、文化产业的某些环节和产业，并从中获取利润。

随着分销系统的变化，克里斯-安德森对数字音乐产业的洞察力导致了用来描述互联网经济模式的 ″长尾理论″。随着短视频成为最重要的内容消费形式，它们同时为音乐作品提供了一个全新的用户场景。Jitterbug是作为一个音乐短视频的社区成立的，现在致力于流行音乐血液的创作。Fastdata发布的《2021年中国音乐营销发展研究报告》显示，音乐人推广音乐作品的主要方式中，音乐平台的占比达到95.2%，其次是占比达到81.3%的短视频平台，“首发在抖音，卖给腾讯音乐”成了音乐制作者的常态。短视频的新场景同时塑造了大众用户对音乐的审美偏好，短视频将比音乐平台更能影响音乐产业的未来。

2）抖音“看见音乐计划”

原创音乐近年来经历了爆发式地增长，大量年轻艺术家的涌入不仅为市场提供了源源不断的新鲜血液，更是在碎片化的时代，给了短视频合适的机会深度参与到音乐的宣发中来。《摇一摇·看见音乐计划》是一个比较成功的项目，在打破音乐创作者的地域限制的同时，为音乐作品提供了一个新的宣传渠道。

抖音“看见音乐计划”于2018年1月首次启动，目前已进入第四年。项目是为了支持中国原创音乐，帮助音乐人传播好的音乐而设立的。2018年，SeeMusic项目将提供作为 ″抖音音乐人 ″的认可、财政资

1)焦裕佳. 「抖音短视频的传播价值分析」.『北京印刷学院』,2019.
2)黄晓音,邱子昊.「技术赋能与情感互动:抖音平台的视觉化音乐传播研究」『西南民族大学学报(人文社科版)』,2019,40

源、专业导师和制作人的指导、一次性的 制作奖金，个性化的音乐视频和其他多方面的支持，它已经帮助数以万计的抖音音乐人销售他们的作品。这大大增强了互动游戏，更广泛地传播了音乐，并使伟大的音乐设计师和原创声音的使用多样化。

自2018年以来，抖音启动了以短视频为核心的宣传研究，并在音乐领域开展了多个不同形式、不同侧重点的音乐项目，对自身的生态建设非常重要。它继续展示优质的音乐家和音乐作品，并扩大平台上优质音乐内容的范围。官方称，在该节目的第一季中，有1.4万名音乐家做出了贡献，收到了8万多件原创音乐作品，1.5亿抖音用户用他们的音乐制作了短视频。

2019年，抖音推出了第二季的《看见音乐计划》，在去年的基础上改进了游戏性。通过增加互动规则的封面版本，以半建议的形式改编流行的内容进行音乐制作。音乐内容的生态模式多种多样，包括开发、推广、签约、直播、演出和营销。

抖音“看见音乐计划”的推广、演变，使得越来越多的音乐人在抖音里见证了中国音乐新形式下的内容爆炸与增长。[3]抖音的音乐可视化宣发路径在几年的时间里，不断地推动着爆款歌曲的诞生，也不知不觉的改变着音乐行业的工作模式。每一年通过“摇一摇看到音乐计划”走向大众的音乐人和作品，都是以万为单位的。围绕这个项目诞生了多首脍炙人口的歌曲，也让众多音乐人走进了大众的视野。王欣宇、吴佳煜、任然等风格各异的音乐人在比赛中脱颖而出，《你笑起来真好看》、《爱你三千遍》、《飞鸟与蝉》等歌曲更是通过抖音的方式火遍了整个网络。

《看见音乐计划》通过“去中心化”的流量宣发和多元的运营玩法，为乐手们创造了更为公平的展现机会。即便是小众音乐，也有机会登上流行舞台。在此期间，抖音音乐实现了品牌化，也成功地通过多维度的支持和多样化的传播，为音乐人搭建了一条发展通道。

3）造音行动与可视化宣推

在泛娱乐领域，无论是摇滚音乐节，还是短视频平台，还是直播平台，都在寻找更符合时代的创意形式，为这个行业带来全新的视角与活力。造声行动是由抖音音乐发起的短视频歌曲推广计划，致力于打造下一首激动人心的全网爆款歌曲。通过抖音平台，为更多音乐人提供一个属于自己的平台，帮助原创作品走出圈子，这个计划就是造音行动。造音行动同时也是抖音平台对外官方宣传的合作模式，除了商业化的推歌模式，不管是音乐人/厂牌，还是类KOL歌曲宣传、影视OST推广，都是覆盖整个音乐圈的广泛服务人群。

从抖音垂类来看，其内容覆盖了音乐、体育、舞蹈等近20多个品类，作为以音乐内容起步的抖音，未来的垂类锚点依然是音乐。

2. 平台与现状

1）音乐类主战场

在客观环境不断完善的背景下，作为中国用户数据播放量最大的短视频平台，抖音的音乐业务和推广

3)刘博,夏德元.「“抖音”短视频中的音乐传播创新——基于示能性理论的视角」.『新闻者』,2019(06)

生态日趋完善，逐步提升了很多歌曲在音乐界的知名度。

优质的音乐知识产权是可以二次创造的，知识产权质量的标准不应该是短期的粉丝消费，而是长期的审美体验，抖音的运算逻辑更倾向于服务内容消费者，追求的是为用户提供高效的信息匹配，也就是说，抖音对流量分配权的“控制感”要更强。因此，抖音平台上的内容，马太效应会更强。同时在电影场景、电视剧场景、动漫场景、游戏以及娱乐场景等也同样适用， 新的声音和歌词的重构，贴近社会的实际需要，适应公众价值观的变化，并得到广泛传播。4)

抖音在诞生之初就在进行音乐垂类的布局，通过突破音乐次元壁与大众进行连接，音乐垂类在抖音的众多内容中表现的最为亮眼。民谣、流行、RAP、电子等各种类型的歌曲为创作者积累了流量与关注，通过在全网的扩展，不断破圈，使得更多元、原创的音乐生态逐步搭建。

2）音乐人的新媒体平台选择

2021年，很多人正在被“那一刻心动”的甜蜜氛围刷屏。在“华语新歌日均发行2000首”的活跃状态下，「2021抖音看见音乐计划」实实在在地拉近了音乐作品和听众们的距离，与《那一刻心动》同期出现的参赛歌曲中，视频播放量破亿的作品超过百首。乘势而上的年轻原创音乐人迅速出圈，成为大众歌单里的常驻嘉宾。

其实，“被看见”始终是音乐人的首要需求。唐汉霄、任子墨、七叔、余佳运等原创音乐人仅仅两个月内便涨粉3000万+，在高额曝光与多元玩法的加持下，「2021抖音看见音乐计划」为音乐人们提交了一份值得信赖的成绩单。在数据维度上，抖音的飙歌榜、热歌榜也通过榜单的形式展现了当下音乐市场的流行趋势，对于引流歌曲起到了十分重要的作用。从实际结果来看，抖音对于音乐作品的传播量甚至超过了传统渠道，抖音路人用户对于音乐人歌曲的评价，也反过来在团队内部给出了不少启发与思考。

3）平台与优质内容创作者互相成就

抖音对音乐行业的影响，帮助音乐内容公司进入移动互联网时代的 ″黄金时代″，为平台本身的发展夯实了内容基础。5)

在音乐产业垂直领域，抖音通过多维度的强大运营、算法机制和站内流量，为提高优质音乐的知名度做出了贡献。对于音乐行业来说，抖音有助于提高广告效率，同时也刺激了音乐行业新一代的音乐内容。在富有想象力的内容生态方面，捷报频传，加强了传播的娱乐性、互动性和商业性，使传播的发展和内容的变现以及与用户的内容互动有了更广阔的想象空间，构建了一个充满活力的音乐生态抖音的超级用户和超级池确保原创音乐以一种有效和有针对性的方式到达人们手中。

总的来说，抖音的多元化发展推动了音乐内容产业的发展，激发了原创音乐的创作活力。在这个过程中，抖音不断支持音乐人和原创歌曲，为音乐人、抖音音乐平台和用户创造了一个双赢的局面，抖音和优质内容相互受益。相互成就。

4） 发展与融合，流行音乐新路径

4)邵超琦.「 后亚文化视角下音乐短视频研究」.『苏州大学』,2019.
5)金玥,王家福.「抖音短视频音乐传播可视化设计研究」.『工业工程设计』,2021,3

（1）流行风向标的形成

抖音(含抖音火山版)日活用户超6亿，这一数据的背后，是一个个鲜活的生命。音乐对于绝大多数抖音用户来说都是伴随性产品，用户除了需要拍摄视频使用BGM之外，还有社交娱乐的需求，比如在线K歌、合唱、玩舞蹈挑战等等。选择消费什么样的音乐，大多与音乐创作者的身世、经历以及拍摄短视频时的心情等因素有关。也正因如此，绝大多数人的音乐审美喜好，在某种程度上成为了“流行风向标”，这一批消费者将带着一批红歌走向流行。

（2）推动音乐的二次创作

在抖音平台内部，在各种细分音乐品类中，嘻哈、民谣、民族风、电音都有很高的接受度。“流量池”的累计不仅体现在中文歌曲中，在抖音音乐类目中欧美歌曲、东南亚歌曲也因为流量池不断扩大地域、传播途径、方式，最终导向圈层内实现“小火”，或者击穿所有圈层实现两种流量兑现结果的“国民级大火”。6)

抖音的曲风不是一成不变的，从华语、民谣、中国风、朋克、蓝调、说唱等各种曲风的音乐，也都有了一个比较稳定的消费盘，而且在逐渐壮大。雪球效应之下，一方面，爆款音乐走向大众市场，赢得了最广大的消费者，这与娱乐市场诞生至今的二八法则是一脉相承的。

如今，热曲从各个角落传来，音乐人可以借助任何工具、任何资源，与全世界的音乐消费者亲密接触。这给音乐人和厂牌带来了更多元化的机会，同时内容的竞争也越来越激烈。如何在海量的内容中慧眼识珠，挖掘出有潜力的曲目或音乐人，并向大众消费者进行宣传和推广？这成为内容方面临的新问题，也为抖音之后的可视化推广提出了新一轮思考。

3. 抖音可视化宣推表现

如果说1.0版本是2018-2019年，这是“爆款歌曲制造机”时代，2.0时代是“推歌又推人”，解决产业推新人以及歌红人不红的痛点。到了第三个阶段，也就是2022年，从抖音到汽水音乐，看见音乐计划第一次实现了从碎片到全曲，打造了用户消费的闭环，全产业链路服务音乐行业。

2020年，伴随抖音音乐正式品牌化，看见音乐计划在流量倾斜的基础上推出亿元补贴计划，以“流量+收入”两大维度支持音乐人的发展，并助推《飞鸟和蝉》《卡哇伊》《我要》等歌曲获得数亿播放量。7)建立一个更高效、更有利于行业的生态系统，并提供一种全新的、不同的音乐服务，从而建立一个内容创造和生产的良性循环。

伴随数字音乐时代与短视频时代的相继到来，不论对用户还是对行业而言，最明显感知到的都是宣发模式的改变。因此，如何进行音乐宣发成为行业最经常探讨也最常关注的话题之一。

6)司思.「论短视频平台的数字音乐版权保护」.『西南政法大学学报』,2018,20
7)赵文秀.「心流体验下的音乐短视频类App交互设计研究」.『江南大学』,2019.

4.新音乐格局的发展方向

1）音乐平台体系的构建，实现对音乐人的全方位帮扶

《抖音看见音乐计划》自诞生之日起就赋予了原创新歌的行业价值，不仅通过音乐可视化、千亿流量池、投稿红包激励等方式，帮助内容一方解决了新歌营销中“推歌难”的实际痛点，同时也让新歌的版权价值得到了提升，在辐射作品播放量的同时，进一步激发了新生内容的制作。事实上，不仅是对外沟通策略发生转变，抖音在具体打造自身音乐生态也一直有新的尝试。一方面，抖音通过流量扶持、专题活动，不断帮助各类音乐类型发展，以此去满足用户的不同口味和表达需求。独特的场景之一，就是借助精准算法，将音乐传播到各个垂直领域用户中的强大能力，比如一首激动人心的歌曲，在体育赛事的场景下，将成为被争相使用的BGM。

在抖音站内，在各种细分音乐品类中，嘻哈、民谣、国风、电音都有较高的接受度，容易做到病毒式传播。无论是新歌、老歌，还是英文歌、越南语歌，都很容易在抖音台内积累起规模不等的“流量池”，最终导向圈层内实现“小火”，或者击穿所有圈层实现两种流量兑现结果的“国民级大火”。[8)]

音乐品类的丰富性更好的适应了大众用户基于不同场景使用BGM的需求。在抖音“可视化宣发”的带动下，多元化曲风实现了消费升级。同样，在专业音乐领域，摇一摇已经成为聚集原创音乐人和明星歌手的一块热土。考虑到一些作品音乐性强但人气不足，2020年“抖音看见音乐计划”中，邀请了郑钧、萧敬腾、刘宪华、乃万担任星光发现官，对参赛作品进行把关与指导。同时，联合多个著名音乐制作人和创作人组成看见伯乐团，借助专业人士的力量，让好的音乐作品有更多被看见的机会在今年，抖音延续了这一方式，邀请那英、薛之谦、李玉刚、陈粒、艾福杰尼等知名音乐人担任“音乐热爱官”，并联合业界知名音乐制作人、乐评人共同发掘好音乐。《最IN最IN》是整合优质音乐人资源的代表性IP，通过牵手高流量人气歌手、抖音乐手，在直播间进行直播连麦、歌曲演唱等宠粉互动，快速制造“霸榜”热门话题，同时融入直播带货环节，激发品牌销量转化。

针对抖音目前的发展状况，不断繁荣音乐创作人生态，为品牌带来更多的音乐营销可能。Shake正在快速构建完整的音乐平台生态系统，以实现对音乐人的全方位支持。

2）音乐消费新趋势，流行音乐潮流密码

在平台不断涌现国民级歌曲的过程中，还可以选择用巨量引擎不断探索爆款音乐的流行法则，并将品牌营销诉求融入其中，为品牌进行广告歌曲“量需定制”的推广计划。搭载爆款音乐内容，打响品牌。[9)]

过去我们获取音乐信息，需要通过电视电台、音像店、报纸杂志，现在只需要一部手机、一款软件就可以了。与之同步变化的，还有我们乐此不疲的行为方式。在抖音短视频平台上，用户在半年内使用抖音音乐视频的投稿高达52亿，音乐视频平均浏览量是平均浏览量的2倍。

从抖音的角度来看，平台对音乐品类的持续投入，也预示着大众群体中音乐的消费前景向好。作为多类型音乐的聚集地，抖音与艺术的结合已成为当下重要的发展趋势。其中，Shake平台推出的音乐与高雅

8)韩瑞兵.「新兴短视频播放平台对传统在线音乐平台的影响研究」.『大连海事大学』,2020.
9)张朝霞.「多维探析音乐社交短视频软件——抖音」.『科技传播』,2018,10

艺术相结合，是最早提出并正在推广的。例如：国家大剧院成为摇音艺术指导机构，钢琴演奏家郎朗成为摇音艺术顾问。这一切都为央广网的发展注入了新的活力。字节跳动CEO张楠提到，“视频化的表达方式，让抖音这个平台天生就离艺术很近。”

3）线上线下相结合，打造独有宣推场景

短视频的兴起颠覆了传统的唱片公司生产内容的链路，在线音乐平台分发内容。在摇一摇中，一站式实现音乐创作和出圈的新推歌模式初现端倪。

“短视频+音乐”现在已经成为了品牌营销的万能公式，基于这样的策略，短视频内容的制作逻辑也变成了先定BGM，再把对应的内容拍下来，如此看来，有点反常的顺序正在提供品牌音乐营销的新思路。[10]例如：在发视频前，大家会倾向于先定好BGM，再拍摄对应的内容。根据旋律来决定是否选用相应的乐曲来创作短视频。结合“短视频+音乐”，在内容上为全民狂欢释放空间，在传播上为品牌获取更多曝光，为品牌音乐在短视频时代“造浪”提供绝佳契机。

为了实现尽快将音乐带入人们生活的目标，抖音在站内建立了一个音乐制作和消费的完全闭环，用户通过 ″二次制作 ″参与各种主题活动和现场场景。 无论是现场音乐还是站内站外的线下音乐场景，摇摇看音乐项目已经成为组织站内流量和整合站内站外多种渠道的有效手段。在极短的时间内积累了一个庞大的“不断循环的音乐短视频制作与消费流量池”。

在线上，今年看乐计划还将在活动期内开启4场音乐直播“看乐最live”，届时将邀请知名资深音乐人与选手进行互动。线下方面，今年的SeeMusic计划还将与知名音乐节进行深度合作。线下场景的展现，将有助于抖音原创音乐人获得更多机会被乐迷“精准看见”。将线上与线下相结合，为了吸引更多细分类型的音乐人参与，从第二届“抖音看见音乐计划”起，参赛歌曲风格更加多元。在第四届的赛程中，具体分为五大赛道：流行、民谣、国风、嘻哈、电音。为期近2个月的时间内，共有超过3.6万首作品参赛，参赛歌曲抖音视频总播放量超280亿，其中800多位音乐人作品单月突破一百万播放量，参赛音乐人人均累计涨粉60%。如LBI 利比的歌曲《或许》，在参赛后，快速进入大众视野，被118万用户在创作中使用，不乏欧阳娜娜、张婧仪、赵露思等知名艺人。

抖音持续鼓励音乐人进行原创创作，通过去中心化的流量推荐，将更多新鲜血液输送到行业。同时，平台提供行业内实力音乐人资源，更专业、更专业地给予新兴原创音乐人指导。抖音看见音乐节目邀请的明星阵容，总是体现多元化的音乐风格。

对从零开始的原创音乐人，“抖音看见音乐计划”依然是展示作品、收获第一波粉丝的绝佳契机。这不单是基于流量的说服，更多是来自真实需要的呼唤。比起去音乐软件听歌，在抖音中看到好听的音乐，开始成为更多年轻网民的选择。而“音乐+短视频”可视化内容的风靡，更是激发出无限潜力，为品牌音乐营销提供了新意。

一方面，我国音乐产业正蓄势待发，亟需持续变革、创新发展。短视频平台的出现，以视觉为先，为音乐传播增添了新的玩法，打破了传统媒体无人问津的宣传枷锁，成为链接音乐人与音乐用户的新的联动渠道。另一方面，国内音乐用户对“音乐+短视频”的接受度和互动性都非常强，从播放量的成倍增长来看，用户主动加入传播的意愿非常强烈。

00后为主的年轻一代，是新媒体及音乐市场主流消费人群。当付费购买音乐的习惯在大众中养成时。

10)周洁如,宋晓洁.「抖音的商业模式创新及其路径研究」.『上海管理科学』,2019,41

“音乐+短视频”的形式更能释放资本与用户需求。它借助可模仿、可复制、可互动的特性，将高高在上的品牌形象巧妙地消解掉，将品牌拟人化与用户产生平等的交流，在用户认知层面，可以增加品牌的友好度。在传播上，音乐凭借天生的潮流感和记忆度，与短视频平台的分发逻辑更加契合，对于产业链来说，官方撮合交易，可进一步降低市场失灵的频率，全方位提升音乐宣推的产业链效率。5. 总结

当下，多元化的歌曲凭借抖音声名远扬，热歌不仅品质在提升，玩法和生态的多样也让新媒体成为主流，而这一切都离不开抖音平台早已建立起来的生机勃勃的音乐内容和消费生态。因此，音乐只有成为抖音内容和用户生态的一部分，并运用新的品牌传播和广告形式，才能让品牌持续“火”起来。

结合抖音传播的特点，抖音未来将改变单纯的呈现音乐的方式，在音乐内容品质的基础上，结合音乐作品本身的特点和抖音的优点，形成健康、可持续的传播思路；在创意上，与音乐厂商合作，开发故事性、观赏性、导向性的内容，在原创上加大投入，凸显作品的优势。

【문화분과Ⅱ】 발표 ②

中国“关公大刀”的民俗信仰研究

靳晓斌*

【目 录】

1. 引言
2. 关公大刀的民俗信仰缘起
   1) 中华民族的器物图腾
   2) 关公人物的忠义象征
   3) 民俗精神的意象寄托
3. 关公大刀的民俗信仰事象
   1) 观念反映：文艺叙事，民间掌故
   2) 行为追随：赏刀使刀，武者习练
   3) 仪式讲究：庙宇祭祀，居家供奉
4. 关公大刀的民俗信仰内涵
   1) 尚力、尚速、尚斗、尚战的民俗尚武情结
   2) 至忠、至义、至仁、至勇的民俗道德诉求
   3) 兵器、礼器、道器、法器的民俗观念进阶
   4) 护民、护主、护国、护法的民俗精神寄托
5. 结语

1. 引言

关公大刀作为中国武圣的标识性兵器被民众广为颂扬，近两千年来有着丰富庞杂的民间故事演绎和多维生活空间的民间膜拜活动，任时代更迭其关注度和信奉度居高不下。就关公大刀的器物属性而言，关公大刀是一种重型长柄兵器，刀锋锐利、杀伤力强，供历代膂力过人、勇猛超凡的武者使用，素秉“刀起头落、招招制敌”的杀法刀技。然而，随着关公封王封帝、神化圣化道路的不断延展，在天下百姓“爱屋及乌”和“万物有灵”的心理驱使下，关公大刀作为关公信仰的“附属品”走入民俗信奉的舞台，随之其身份神性化、战绩吹捧化、功用多元化，继而出现庙宇多陈列、民间多祭祀、居家多供奉的普遍信仰态势，也一度形成独有的信仰脉络和供奉体系。从民众信仰的底层逻辑推演：关公大刀象征了武圣关公的忠义精神，反映了中华民族“善其事、利其器”的工具理性思维，深描了中华儿女尚武善斗的民族文化基因，诠释了亘古通今正义必胜、中国必盛的民俗信念。习近平总书记说：“人民有信仰，民族有希望，国家有力量。”[1]站在中华民族“两个一百年”奋斗目标的历史交汇点上，着意从民众“尚武图强”精神范畴探究“关公大刀”的民俗信仰，必将助益于全球华人汲取信仰力量、增强文化认同、实现民族理想。

* 中国运城师范高等专科学校 副教授，韩国国立群山大学 留学生（jxbbt1@126.com）。

1)新华网，〈习近平:人民有信仰民族有希望国家有力量〉[EB/OL]，(2015-02-28)，http:news.xinhuanet.com//politics/2015-02/28/c_1114474084.htm。

2. 关公大刀的民俗信仰缘起

1) 中华民族的器物图腾

图腾是原始居民最初始、最本真的信仰。器物图腾是指一个部族认定与某件器物有特殊的关系，该器物便成了这个部族的保护神、徽号和象征[2)]。中华民族自古以来信奉刀、仰仗刀，有着“刀图腾”的思维倾向和情感纽带：“茹毛饮血”的蛮荒时代，“刀”作为原始民族狩猎、采集、起居等生产生活器具被长期沿袭使用；“诸侯争霸”的战争年代，“刀”作为主要的作战武器列阵为头等兵器；“昌和太平”的安定时期，民众间有佩刀、赠刀、赏刀的行为习惯。民俗流传中的“关公大刀”，又名“青龙偃月刀”，为东汉名将关羽所用，是超重、超能、凶煞的高冷武器，兼有青龙化身、英雄所系、盖世之功、神出鬼没的多重神器秉赋，从而“关公大刀”作为民俗信仰的代表性器物被人们敬畏、被庙宇供奉。千年以来，在人们“大刀图腾”的潜意识里，把武者身使手用的战场器物升级成灵性感应的人间宝物，把战场上斩将杀敌的兵器摇身穿越成斩妖除魔的法器，可以说“神乎其神”的“关公大刀”是民众宠爱备至的表达，是民俗渴望演化的结果。

2) 关公人物的忠义象征

关公从“人化”到“神化”的整个民俗信仰脉络中，其关键的表述是“丹凤眼、卧蚕眉、红脸面、长髯须，身着绿锦袍，脚跨赤兔马，手执青龙刀”。“青龙刀”即指“关公大刀”，是关公武力倍增、战绩显赫、功劳卓著的决定因素，是关公威猛形象、凛然特质、“万人敌”称号的充要条件。最具代表性的章回小说《三国演义》里，把关公斩颜良诛文丑、过五关斩六将、杀蔡阳擒庞德、单刀赴会等的英雄事迹与“大刀”的出场紧紧裹挟在一起。正是由于这把大刀对关公武力的加持，确立了关公“武将”的身份，赢得了关公“武圣”的封号。嘉靖本《三国演义》第二版，特用“关羽还刀”象征了他的死。于是，关公大刀常作为关公最具识别力的人物标志，成为关公“忠义”特质的典型象征。中国民间历来仰慕关公，关切“关公大刀”，崇奉“忠义”，无穷的民间智慧以精神传递的形式进行迭代演进：《水浒传》中称作关羽后裔的关胜持“关公大刀”列为五虎将之首，《说岳全传》中称作关胜之子的关铃使“关公大刀”抗金有功，亦有后世无数名不见经传的武者习练关公大刀、弘扬“忠义”精神。关公大刀随着关公信俗的世界性传播，其独特的民俗化信仰也深得人心、远播海外，尤其具有“见刀如见人”的灵性与“奉刀如奉神”的神性。

3) 民俗精神的意象寄托

中华民族源远流长，以从未有过文明断代而自豪，深厚的文明素养给养与沉淀了伟大的民俗精神：中国民众自古有尚武图强的龙马精神、坚定不屈的抗争精神、惩恶除暴的侠义精神、解民倒悬的救赎精神、精忠报国的的忠贞精神。而如此主观精神的表达，总是渗透在生活的各个方面，又会典型而集中地定义在某件特殊的客观事物上。罗贯中，赞关羽诗写道“惟凭立国安邦手，先试青龙偃月刀”。关公大刀作为关

2)张泽洪，<中国少数民族的宗教观>，西藏民族学院学报(社会科学版)，1995(01)，pp.46-51。

公信仰的“集大成者”，在漫长的民俗宣扬中，凸显了保民卫国、扶正镇邪、利益众生的精神品质。在民俗信仰的世界里，人们公然认为：关公大刀刀势威猛、刀锋锐利，上可以利家国平安、降人间吉祥，下能够苟利于民、守护生民财富。人民群众精神意象的寄托，是美好渴望与诉求的心灵呼唤，绝不是不劳而获、坐享其利的情感表达。盛行儒家道义的中国社会里，始终讲求“仁爱”，其间亦言“仁者必有勇”，所以“勇武”是雄健、刚毅的华夏儿女永不褪色的底色，也永远是华夏民族自立自强于世界民族之林的基础。中华民俗信奉关公大刀，是信奉其洽融了民俗精神中“善于斗争、敢于亮剑、无惧无畏”的一面，这一面越是在民族危亡的关头、越是在天降不幸的时期，就越容易被激发出来。

3. 关公大刀的民俗信仰事象

钟敬文主编的《民俗学概论》中指出：“民间信仰又称民俗信仰，是在长期的历史发展过程中，在民众中自发产生的一套神灵崇拜观念、行为习惯和相应的仪式制度。”[3]对于关公大刀的民俗信仰，民众的“崇拜观念”影射在民间戏曲演艺、文学作品及民间故事传颂中，“行为习惯”反映在武者追捧、勤练不辍的实践追随上，“仪式制度”表现为关公大刀特有的庙宇祭拜仪式、居家供奉讲究的各种仪规等。

1）观念反映：文艺叙事，民间掌故

民间反映关公大刀信俗观念的体裁多样，形式多元。整个“叙事”过程，不仅有千年流传的文学典籍、史料传记、楹联章句、神话故事，还有不断迭新的话本、评书、民间掌故及多种戏剧演艺等，可谓集结了民间尽有的文化传播形式。描写关公与关公大刀的经典之作，首推元末明初著名小说家罗贯中所著的中国第一部长篇章回体历史演义小说《三国演义》，书中对“义绝”关羽的塑造不惜篇幅，其中对关公大刀的刻画可谓浓墨重笔，第一章回开篇便提到“云长造青龙偃月刀，又名‘冷艳锯’，重八十二斤”……陶弘景《古今刀剑录》记有关羽刀的传说：“关羽，为先主所重，不惜身命，自采都山铁为二刀，铭曰万人敌。及羽败，羽惜刀，投入水中。”[4]《三国志平话》、《关圣帝君圣迹图志》、《关王事迹》等著作中亦能捕捉到多处书写关公大刀的情节。在戏剧流行的中国传统社会，设有演红脸关公的特有行当——“红生”，红生的随身道具是青龙偃月刀和红马鞭。“关公大刀”的相关故事被大量搬上戏剧舞台，经典剧目有《白猿教刀》、《关大王独赴单刀会》、《三英战吕布》、《温酒斩华雄》、《战长沙》等，剧场上竞相演唱、舞台下百观不厌。另外，与“关公大刀”有关的民间掌故不胜枚举，且推陈出新：“关公门前耍大刀”的典故老少皆知；清廉著称的清朝大学士张鹏翮在有人干谒求进时，以“关将军的刀非常锋利，难道你就不害怕吗”来自我警醒、时刻警戒，此故事成为官员廉洁的经典佳话；中国人民的伟大领袖毛泽东会见印度总理尼赫鲁时提及“我们不怕原子弹，我们有关老爷的大刀”，其故事风趣雅致、口耳相传。

民间诸多形式的广泛传播下，“叙事”内容的铺展更是丰富庞杂。依据《三国演义》叙述“关公大刀”的情节脉络，民间传颂深广的故事有：温酒斩华雄，灞桥挑袍，单刀赴会，拖刀战黄忠，等等。小说中对关公大刀最典型的描述是“关公舞刀直取，刀起处、人头落地”。这把叱咤沙场的夺命武器，在民间

3)钟敬文《民俗学概论》，北京，高等教育出版社，2010。
4)[梁]陶弘景，《古今刀剑录》，北京，商务印书馆，2018。

饱有玄妙惊奇的传说，譬如诡秘出世传说“有名铁匠反复锻造，最终在月圆之夜、空中降落青龙血滴铸而成”；再如“关公战秦琼”、“关公战蚩尤”等超时空作战的怪诞故事。民间许多口述、言传的轶闻野史，传颂内容更是不着边际、无理可循，但人们不做辩驳、津津乐道。然而衍生的“关公大刀”故事还有“周仓赠刀”、“周仓掉刀”，民间由大刀带来的如下说法“掇刀石”“卓刀泉”“磨刀石”“磨刀雨”“捞刀河”“落刀嘴”……林林总总，难以涵盖。在所有“叙事”的世界里，人们发自内心地关注关公大刀、感受关公大刀、传扬关公大刀，是“情有独钟”的心理观念，也是进一步崇尚关公的情感表达。

2）行为追随：赏刀使刀，武者习练

中国古代的十八般武艺中，威猛彪悍、节奏迅捷、杀伤力强的器械演练应以大刀为首，故大刀有“百兵之帅”的美称。这里的大刀即指“关公大刀”，江湖各派不同时期皆有“关刀”“关王刀”“青龙偃月刀”“春秋大刀”“掩月刀”“三停刀”等不同叫法。关公大刀刀头狭长、形似偃月、刀身附龙、刀光闪烁、背有歧刃、龙口相托，尾部有鐏，整体外观形态俊逸、气势宏大、威武凛然。明朝万历年间的王圻、王思义辑著《三才图绘》所记载：“关王偃月刀，刀势既大，其三十六刀法，兵杖遇之，无不屈者，刀类中此为第一。”[5]《少林大刀谱诀》曰：“青龙偃月双手举，入步勾挂断腰脊，左右挑胁缠绕步，分开中门加力劈……”大刀的实战技法主要有劈、砍、斩、抹、挑、撩、挂、拨，为在套路演练中提高观赏性经常穿插舞花、缠腰、裹脖、云胸等花法。大刀属于重长器械，练习时腰部发力、身步协调，动作上大劈大砍，气势上雄伟泼辣，刀出如猛虎震山，刀走如银龙穿梭。套路编排中涵括关公提刀、举刀、舞刀、磨刀、拖刀等要素，也讲求“尾鐏之用”和“长器械短用之法”。套路竞演中有个人演练和集体演练，也有“大刀进枪”的双器械对练，演练中刀法连贯流畅，风格雄浑豪迈，气势汹涌高涨。

“关公大刀”在关公文化的宣扬下，在江湖义士的追捧下，在武术人士研磨习练下，民间赏刀、使刀、练刀的风气日益浓烈：作为兵器特显尊贵威严、具有美学观赏性，民间铁匠常以打造一把关公大刀而自喜，民间爱好者更以收藏一口关公大刀而自豪；作为冷兵器时代重器械的代表，较力、练力的武勇者们首推必选、竞相比试，据记载清代武举制中测膂力的重要一项便是“舞大刀”[6]；作为一项套路运动，既有实战技法、又有演练花法，能够增进功法气力、培植武勇胆识，世代武术人士钟爱有加、勤练不辍。相传深厚功法、超强臂力的将领或武林高手才能操持关公大刀，这又令“争强好胜”的武林侠客愈加跃跃欲试。中国传统武术虽门派林立、拳械多样，可在关公大刀的武技沿传上各家均十分热衷，流传于世的经典套路有“关公十八刀”“关公二十四刀”“武当春秋大刀”“少林春秋大刀”“陈氏太极春秋大刀”“哈尼族的大刀”“心意门青龙偃月刀”等。时代流转，“关公大刀”民间知名度高、关注度高、点赞率高的态势始终保持。现如今，无论是民间节庆活动、武术比赛活动、关公信俗活动，“关公大刀”必然亮相出场、展演竞赛、祭祀供奉。“习其刀、练其力、得其理，继其志”，关公大刀的信奉者们用身体的践行，锻炼着关公的功法，体悟着关公的精神，传承着关公的意志。

3）仪式讲究：庙宇祭祀，居家供奉

关公大刀祭祀供奉的主要场域是庙宇，世界各地的“关帝庙”、“关王庙”、“武庙”，庙内拜供关

5)[明]王圻，王思义，《三才图绘》，上海，上海古籍出版社，2019。
6)李利锋，武状元马鸿图列传，档案天地，2014(05)，pp.30-33。

公塑像的右侧总有“周仓持刀”侍立，庙门外常有“大刀”陈设，尤有个别庙院专设“刀楼”供奉。庙宇院落供奉关公大刀以“武庙之祖”的运城解州关帝庙当为之最：主体建筑崇宁殿周围陈设几把300斤重的青龙偃月刀，门前置放相传关羽磨刀试刀时划裂缝的“大石桌”香案；春秋楼建筑前两侧分别有刀楼、印楼，刀楼内存放“青龙偃月刀”；建筑“含章馆”内陈设含有关公大刀的各类兵械。再如，河南许昌春秋楼建筑群设有“刀楼”，香港文武庙内竖着一把青龙偃月刀……如此置放“关公大刀”的庙宇比比皆是。随着关公信俗的发展，全国各地在关公诞辰日、关帝巡城等民俗活动中经常把庙宇内的关公大刀一同“请”出来巡游。本着民众发自对“关公大刀”的特有崇仰，继而衍生出独钟于关公大刀的祭奉节日——“磨刀节”，也称“关公磨刀节”，是日下雨为“磨刀雨”。每年农历五月十三日这天，请出“青龙偃月刀”，进行祭拜、磨刀、供奉及相关表演。各地盛行的“磨刀节”，仪式流程略不相同，但都体现了本地区人们对关公大刀的崇仰，旨在“祈求风调雨顺、五谷丰登、国泰民安”。

民众对关公大刀的敬奉渗透到了生活各个方面，而且有着相当讲究。整体而言，关公大刀的恭请：居家放置祈求“护院守财”，车内放置祈求“避祸就福”，商业店面放置祈求“招财进宝”，机关单位放置祈求“勤政廉洁”。民间流传“关公大刀”放置不可随意，要遵循以下讲究：刀尖向上是直刀，表忠义，用来驱邪、辟邪，驱除屋内晦气；刀尖向下是劈刀，为求财；如果是乞求家宅平安，关公大刀的刀刃应该朝内；如果是做生意求财路，关公大刀的刀刃应该朝外。同时，各类关公大刀塑像还有如下说法：提刀关公，象征辟邪、镇恶、招财，适宜家庭和商业机构奉请；托印提刀关公，大刀象征勇往直前、与时俱进；立刀关公，刀尖朝上直立，也就是直刀，放在宽阔的中堂，功用是镇宅驱邪；横刀关公也称劈刀关公，指招揽生意、开拓市场、招财聚宝，适合生意人、经商创业等恭请。作为信奉恭请的大刀，常有红布缠绕，信奉者时时擦拭保障大刀的清洁卫生。此外，武术爱好者们，放置“关公大刀”时，遵从祖辈师傅“关公大刀宜立放不宜着地横放”的教导，置备刀架立刀安放。信奉关公大刀的“约定俗成”，讲求关公大刀的民俗礼仪，守得是内心崇敬，图得是家国泰平。

4. 关公大刀的民俗信仰内涵

1）尚力、尚速、尚斗、尚战的民俗尚武情结

关公大刀在民间流传的武斗风格是刚劲有力、威猛快速、招招毙命、所向披靡，这切实反映了战争频仍、纷乱不断的中国古代社会对沙场兵器、战场武艺的至上追求。以死相搏的残酷战场，披坚执锐的较量双方，久战兵钝的战场法则，需要“关公大刀”这般利器横空出世，需要驾驭这般兵器的武将冲锋在前。关公大刀有以下兵械特点：通体较“长”，适合远刺长击；以“重”著称、具有穿铠破甲的穿透力；刀锋锋锐，刀尖犀利，具有疾速利落的杀伐优势；尾部有鐏，适宜近打时挡戳之用。关公大刀广泛运用于马战、车战、步战，勇将武士操持起来有气势凌人、所向披靡、速战速决的战斗效能。关公大刀适合武斗格杀、能够战无不胜，千年留传“温酒斩华雄”“斩颜良诛文丑”“过五关斩六将”的经典故事，浸润着民众胜战而归的功利情愫，迎合着民众善战而往的勇武情结。民间盛行的“摔跤”是斗勇较力者喜好的民俗娱乐活动，民间组织的“擂台赛”是武打竞技者好勇善斗的合法舞台，官方“武举制”的创设进一步促进习武者的比武热情。中国社会追求文治武功，天下寒士奉行以武报国，关公大刀的民俗信仰凝结了冷兵器时代人们对于武器的全部想象，辐射出民众对于崇武精武的壮志豪情，沉淀了华夏子孙能斗能战的龙马精

魂。

2) 至忠、至义、至仁、至勇的民俗道德诉求

忠、义、仁、勇是关公精神的典型表达，也是中国优秀传统文化的重要组成部分：忠是赤胆忠心、忠效祖国，义是正义、侠义、义薄云天，仁是仁爱、仁慈、人间博爱，勇是勇武、勇略、无畏无惧。众所周知，关公是诠释忠义仁勇的人物典范，而“关公大刀”被世人赋予灵性后有同样的精神传达：关公大刀伴随关公一生，与其同荣辱、共进退，可谓“忠”；“过五关斩六将”故事中单刀匹马只为千里寻兄，“华容道释放曹操”桥段中鲜明的“横刀立马”变为“刀下留人”，可作“义”；相传关公大刀不杀下马将、不斩无名卒，可见“仁”；“万军当中刀斩颜良”“临江亭单刀赴会”等的传颂故事，可显“勇”。忠、义、仁、勇的内部关系是相辅相成、紧密联系、协调一致的。对忠义仁勇道德品格集中概括地对标凝练，正是人民大众对维系现实社会的心理向往。在道德观念主导、法律意识浅薄的基层民众之间，高度倡扬忠肝义胆、一诺千金、知恩图报、杀身成仁、舍己为人、得理饶人等的君子社交。这些民间自然生成、相沿成习的道德标准，规范着民众的言行，构建着民间的道德舆论导向。“关公大刀”文化符号所传递的“忠义仁勇”，代表着中国传统社会宣扬的核心价值观，蕴涵着民间道德伦理的理想追求，诚如前人所论：“对国以忠，待人以义，处事以仁，作战以勇。”

3) 兵器、礼器、道器、法器的民俗观念进阶

关公大刀随关公声望的攀升而倍受瞩目，随关公由“人化”到“神化”的升级其“神格化”地位持续稳固。关公大刀在不同历史发展阶段或不同场域之下，民俗中载录着不同的功能用途：关公大刀作为一把锋锐兵器，在关公生平所在的东汉末年、在关胜所在的北宋时期等战乱纷争年代用于疆场杀敌；关公大刀制作精良、外观俊美、观赏性高，在外交、礼葬、加官进爵等大型礼仪活动时作为相赠的礼器使用；又说关公大刀形态威严、象征权力，常作为帝王出行或彰显军威的仪仗礼兵器使用；民间戏剧频频上演关公故事，关公大刀即作为剧目道具出现在戏曲舞台上；清代武举制度中，关公大刀作为特制兵械成为武举考生考核勇力的道具；在关公神格化的信奉体系中，战神、武神、元帅神、武财神、门神等诸多神号的不断加封，儒释道三教共同尊神，关公大刀被民众视为护佑平安、镇妖驱邪、加官进爵、招财进宝的万能法器；现代化社会的车居一族，好多人把关公大刀作为辟邪气、增福气的挂饰、摆件置于车内；更有“闯社会”的江湖人士，身上附着“关公大刀”造型的纹身刺青来显霸气、誓忠义。关公大刀的功能化演变，镌刻着时代民俗变迁的印记，映射着人们的历史信仰轨迹，渗透着当代百姓的现实生活观念，滋润着人们向往美好的心理情趣。

4) 护民、护主、护国、护法的民俗精神寄托

上千年来的民族惯习，跨越世纪的文明滋养，塑造了官民共崇的普遍的精神价值取向：惩恶除霸以护民，知恩图报以护主，忠贞不二以护国，利益众生以护法。民间自发演义了关公的热血故事，自然生成了关公大刀护民、护主、护国、护法的传奇事迹：救世济民、惩恶扬善是关公大刀的“亮剑”意图，相传后世居多良将借关公大刀之威、承关公大刀之法行侠仗义、为民纾困；关公大刀护持关公戎马一生，始终形

影不离，“手握青龙刀”已是关公典型形象，因而有些版本的小说里用关公青龙偃月刀沉入水底暗示关公离世；尽忠报国、抗敌护国的核心主题挈领关公提刀、举刀、舞刀的主线脉络，“杀曹操、兴汉室”是关公持刀纵横、鏖战疆场的精神支柱；关公受到儒释道三教共尊，并被佛教奉为护法伽蓝神，关公大刀便护持阴阳两界，诸如“讨伐壬辰倭乱的战争中关羽显灵相助，明军方能大获其胜”的军旅传言频频爆料。关公大刀在民众信仰的世界里，砥砺了民族精神与气节，实际生活中赋能了保民卫国、忠君报国、护国安邦的思想意识以及驱邪斗恶、匡扶正义、惩恶扬善的心理暗示。护民、护主、护国、护法，这里着重一个“护”字，指明关公大刀“念善”非“喜恶”，“关公大刀”的精神内核是明辨忠奸、严明法度、教人向善、护人成长，绝不是以恶相向、穷凶极暴、得理不饶、格杀勿论。

5. 结语

图腾是原始居民最初始、最本真的信仰。关公大刀作为中华民俗精神中的“武”符号、“义”标杆长期流行民间信仰的生活空间，被广大民众“奉若神明”，由衷地关切、顶礼地膜拜、谦敬地祭拜。中华民俗自古有寓志于物、寓情于物、寓爱于物的思维惯习，“关公大刀”洽融了、包涵了人们对关公的追思、对太平盛世的渴望、对利益众生的求索，同时补偿了、巩固了主张“仁治天下”的儒家道德精义中勇于抗争、敢于奋斗、乐于创造的一面。

“关公大刀”牵系着全球华人的共同情感，沉淀着全民主义的文化认同，提升着中华文化的世界影响力，始终对增强民族认同感、筑牢中华民族共同体意识大有裨益。关公大刀弘扬的是惩恶劝善的“正气”，而非暴虐成性的“戾气”；关公大刀护佑诚信经营的“生财有道”，而非巧取豪夺的“利益至上”，关公大刀诠释的是镇邪压魔的“重拳铁腕”，而非投鼠忌器的“优柔寡断”。坚守“关公大刀”信仰，有历史性普遍性的一种原始坚持，也有随时代而新的内涵充盈。在“与时俱进”的民俗信仰体系中，关公大刀的信仰观念体现在“习近平新时代中国特色社会主义社会”，就是以武止战、热爱和平的武装逻辑，就是矢志奋斗、勇往直前的精神谱系，就是民为邦本、造利于民的经世诉求。

메 모

【문화분과Ⅱ】 발표 ③

高麗時期的書法與中國書法的關係

李雪峰*

【目 录】

1. 高麗時期的歷史概述
2. 高麗時期的文化
1) 崇儒敬佛
2) 文學和藝術
3.高麗時期的書法
1) 以書取仕
2) 書家
4. 結語

【摘要】高麗時期的文化是統一新羅文化的繼承和發展。新羅致力於輸入盛唐文化，為此後全面吸收中國文化打下了基礎。高麗王朝繼承其大業，進一步大力輸入中國文化，使韓半島的文化與中國文化更緊密地聯結起來。高麗文化繼承了三國時期和統一新羅時期全面吸收外來文化的優秀傳統，借鑒中國文化的精華，使自己的文化進一步走向昌盛。高麗化的文字書法、印刷術等發展到了一個新的水準，足以與中國相頡頏。

【關鍵詞】高麗；書法；中國；歷史；文化。

高麗平定了新羅末期群雄割據的混亂局面，最終取得了國家的統一。政治的、民族的統一，使高麗逐步走向繁榮，加之疆域北擴，國運隆盛，文化絢爛，高麗文化繼承了三國時期和統一新羅時期全面吸收外來文化的優秀傳統，借鑒中國文化的精華，使自己的文化進一步走向昌盛。高麗化的文字書法、印刷術等發展到了一個新的水準，足以與中國相頡頏。

1. 高麗時期的歷史概述

高麗王朝的建立者王建，本來是後高句麗王弓裔的部將，他在918年通過政變取代後高句麗，建立高麗政權，定都開京（開城）。935年，新羅敬順王舉國歸服王建。936年高麗吞併後百濟，再次統一半島。

高麗王朝建立後，從政治理論、行政組織、軍事制度、土地制度上引入漢唐儒學思想和三省六部制、府兵制、班田制以及科舉制度。一方面引進採用中國大陸制度，另一方面力圖形成一個獨立的“小中

* 書法導報 编辑（2065305873@qq.com）

華”。高麗王朝的統治持續了近五個世紀（918-1392），期間，中國大陸先後交替或同時並列了許多王朝，即五代十國、北宋、遼、南宋、金、元、明等，大陸政治形勢的每一次劇變，都給高麗王朝帶來了或大或小的影響。然而，高麗王朝憑藉自己的實力和智慧，在應對複雜的國際關係時，有效地渡過了大陸王朝變遷的危機，最終保存併發展了自己。

高麗的建立時間距離唐朝滅高句麗（668）已經過去了二百多年，高句麗的統治區域在中國東北境內和半島北部，高麗統治區域在半島中南部。從民族組成上看，高句麗的建立者和民族主體是扶餘人，為中國境內的少數民族，而高麗的建立者是新羅人，新羅源自土著三韓之一的辰韓，統一半島南部後又融合進了高句麗人和百濟人。高麗歷經34代君主，共475年，經歷了中國歷史上五代十國、北宋與遼，南宋與金，元、明初時期。大陸政治形勢的每一次劇變，都給高麗王朝帶來了或大或小的影響。尤其是曾經佔據中國北方的遼、金、元、明各王朝，由於直接和高麗王朝接壤，因此對高麗王朝的影響更為直接。其中，遼、金、元各王朝在其上升擴張的時期，都曾抱有染指半島的野心，程度不同地侵略過高麗王朝。複雜多變的國際環境，給予高麗王朝不同以往的新的考驗。然而，高麗王朝具有對付大國的外交智慧，即一邊在外交上“俯首低眉”，一邊在軍事上“堅決抵抗”，同時又發展出了一種新的外交智慧，即利用中國大陸並列王朝之間的矛盾，讓它們互相牽制，以減輕自己的壓力，從而，高麗王朝躲過了一個又一個驚濤駭浪，最終保存併發展了自己。由於高麗既拼死抵抗、又納貢稱臣的兩手戰略的成功，使高麗此後得到了寶貴的長久和平，發展出了高麗文化的黃金時代。

高麗歷史從高麗太祖到恭讓王二十三代王朝歷經457年，可分為四個階段。第一期從太祖到靖宗十個朝代，這是一個再統一、再組建的過程。其時為129年。第二期從文宗到睿宗五個朝代，其間77年，這是一個興隆期和黃金時代。第三期從仁宗到元宗八個朝代，其間153年，這是一個內憂外患的動亂期。第四期從忠烈王到恭讓王九個朝代，其間119年，這一時期為衰退期。

高麗王朝末期，中國大陸元、明王朝交替，高麗王朝也受到了影響。元朝勢力衰落以後，高麗王朝驅逐了元朝的官吏，收回了統治高麗的主權。但是一個多世紀以來的事元歷史，也在高麗王朝內部造就了一股親元勢力，他們在感情上仍忠於元朝。於是圍繞著“忠於守舊”還是“樂於迎新”，高麗王朝內部經常發生意見分歧，表現在對元、明的外交政策上，也是一直搖擺不定。明朝建立之初，高麗即曾遣使稱臣。但到1372年以後，高麗親元勢力抬頭，卻採取了“親元疏明”的外交政策，高麗與明朝關係因而不斷惡化。特別是1374年，明朝派往高麗的使臣，在回國途中被高麗護送官殺害，該高麗護送官隨即逃往北元，此事引起了雙方關係的緊張。顯而易見，此時的高麗王朝，昧於大陸政治形勢的劇變，已失去了外交政策的現實性和機敏性，韓半島因此處於危機之中。

2. 高麗時期的文化

高麗時期的文化是統一新羅文化的繼承和發展。新羅致力於輸入盛唐文化，為此後全面吸收中國文化打下了基礎。高麗王朝繼承其大業，進一步大力輸入中國文化，使半島的文化與中國文化更緊密地聯結起來。高麗高宗（1215-1260）以前，在新羅時代輸入的唐代文化的基礎上，又加上了宋代文化；高宗以後，主要引進宋代的新文化。而在元宗（1260-1275）時，高麗王朝附屬元朝，元帝室與高麗王室建立起親戚關係，於是高麗王室子弟中多留學元都者，他們成了在半島傳播程朱理學的先驅。

1）崇儒敬佛

高麗王朝建國之初，採取了崇儒敬佛並重的政策。從光宗九年（958）起，正式實施科舉制度，每三年進行一次科舉，分制述、明經、明法、明算、明書、醫業、咒禁、地理諸科。要想成為高級官僚，必須通過制述、明經兩科中的一科。最受重視的是制述科（進士科），其考試科目是經義、詩、賦、策等，必須通過三場考試（三場制）才算合格。合格者依其成績分為甲、乙、丙、同進士四種。到肅宗時（1096-1105）取消了甲科，規定乙科三人，丙科七人，同進士二十三人，共取三十三人，據說這是為了與佛家的三十三天相應。

到第六代王成宗（982-997）時，更強力推行崇儒政策。為了革除佛教的弊害，取消了燃燈與八關兩項佛事，並與此同時創設了國子監，地方也開設了儒教學校。此外，派學者入宋，積極引入中國的儒教文物。成宗时期，儒學結合政治理念，造就了一批碩學巨儒，至文宗時期更為隆盛。儒學分經學中心或理論中心和詞章中心或文藝中心，在科舉中分明經科和制述科，高麗時期對此已作判明。經學是理論的，詞章是華麗的，經學則更為實用。這對後世朝鮮時期有所影響，產生了更傾向於中國學問中經世致用的思想。

睿宗十四年（1119），推行文武一致主義教育制度，在國學卷賢庫大規模新築校舍，建儒學齋和武學齋。睿宗好文愛士，偃武修文，派遣學生赴大宋留學。在闕內清燕閣和寶文閣研究經史，搜求古今典籍。文風盛起，鴻儒碩學輩出。諸如金仁權、樸升中、郭輿、鄭克恭、金富俊、金富軾、尹彥頤、鄭知常、鄭抗、李仁實、權適等文人儒者。

貴族子弟為了通過科舉而當官，就必須首先接受學校教育。官學在京城有國子監、東西學，在地方有鄉校。國子監包括國子學、太學、四門學之儒學部和律學、書學、算學之技術學部，是綜合性的教育機構。學部不是依學科的內容劃分，而是依入學者的身份劃分。國子監的教學內容有所謂“七齋”，即麗澤齋（《周易》）、待聘齋（《書經》）、經德齋（《詩經》）、求仁齋（《周禮》）、服膺齋（《禮記》）、養正齋（《春秋》）和講藝齋（武學），後來講藝齋廢去，只剩下六齋。1119年，國家設立了養賢庫，這可以說是對學生們的獎學和福利機構。養賢庫到朝鮮王朝時改為成均館，起著同樣的作用。

官學之外，高麗時期的私學也極發達，其教育成效甚至超過國子監等官學。私學的開創者是當時的名儒崔沖（984-1068），崔沖二十二歲科舉及第，後來官至宰相之位，文宗稱他是“累代儒宗，三韓耆老”。他退官後於1055年七十一歲時開辦學校，分設樂聖、大中、誠明、敬業、造道、率性、進德、大和、待聘等“九齋”。

崔沖辦學不久，又有十一位儒臣受崔沖啟發，退官後相繼開辦學校，所以當時有“十二徒”之說，侍中崔公徒（文憲公徒）之外，還有匡憲公徒、南山徒、西園徒、弘文公徒、文忠公徒、良慎公徒、貞敬公徒、忠平公徒、貞憲公徒、徐侍郎徒、龜山徒等十一家門徒弟子。由此，以儒學為主要教育內容的私學名聲大振，辦私學的風氣一直持續到高麗王朝末年。三百餘年間培養出如金仁存、尹彥頤、鄭知常、金富軾等許多文人學者。

忠烈王（1275-1308）和忠宣王（1309-1314）時，積極採取振興儒學的政策。此時，程朱理學自元朝傳到了高麗。忠烈王針對當時“儒士唯習科舉之文，未有博通經史者”的情況，要求國子監要讓“通一經一史以上者教授國子”。他借助崇奉朱子學的儒者安珦的力量，完善國學，建立孔廟，又擴充了養賢庫。

忠宣王長期居住在元朝首都，並在元朝首都設立“萬卷堂”，組織元朝和高麗的一些學者收集中國的經史資料，進行認真研究。高麗學者白頤正、李齊賢、樸忠佐等人，就是在那裏開始研究程朱理學，並把程朱理學傳播到高麗的。高麗末期，又出現了李穡、鄭夢周、鄭道傳、權近等理學者，形成高麗末期的新

官僚群體，他們不僅在學術方面有重大影響，而且在政治方面也發揮了重要作用。

中國的五代和北宋時期，曾有不少文人學士移居高麗，他們得到高麗朝廷的重視和優遇，對在高麗傳播中國文化作出了貢獻。例如後周人雙翼，956年隨冊封使到高麗，高麗國王光宗請求把他留下來，並委以重任。高麗設科舉制，就是採納雙翼的建議而實行的。

高麗時代，佛教受到王權的特別保護，佛教界實行了像科舉制度那樣的僧科制度，僧官的登用分教宗和禪宗兩科進行考試，合格者可以獲得“大選”的法階，然後依次晉升為大德、大師、重大師、三重大師，與官階類似。禪宗可成為禪師、大禪師，教宗可成為首座和僧統。僧侶的最高名譽是王師、國師，相當於高麗王的顧問。

由於國家對佛教的保護，宗教也產生了一種偉大的信仰力量，加之人力、財力的大量投入，像雕刻大藏經這樣宏大的工程也付諸實施。以開京為中心的國立寺刹大興土木，《宋史·高麗傳》記載“王城有佛寺七十區”，極其興盛。朝廷信奉佛法可以護國佑民，為圖興隆，人們高度重視與現世有關聯的般若經、金剛經、華嚴經、法華經、藥師經、仁五經等，誦經寫經盛行。

高麗僧人中，義天很是著名，他曾入宋求法，回國後在高麗開天臺宗。他編纂了《義天續藏經》，影響很大。義天（1055-1101）為文宗第四子，原名煦，字義天，號祐世，諡大覺國師。今傳《大覺國師文集》。在《義天續藏經》之前，高麗已刊行過《大藏經》，共六千餘卷。《大藏經》和《義天續藏經》的版木收藏在大邱的符仁寺，但可惜於13世紀初毀於戰火。從1236年起，高麗重刻《大藏經》，花了十五年的時間，到1251年才告完成，這就是至今仍流傳的《高麗藏》。其刻版達八萬六千六百多塊，現保存在慶尚北道陜川的海印寺裏。高麗的印刷事業極為發達，大量刊印佛經、佛典和各類漢文書籍，推動了印刷技術的發展。中國在北宋慶歷年間（1041-1048），畢昇發明了活字排版，但其活字是用膠泥制的。畢昇的活字排版法傳到高麗後，在其基礎上，高麗又發明了金屬活字。金屬活字的印刷始於1234-1241年間刊印的《詳定古今禮文》五十卷（崔允儀撰），使用的是銅制活字，這比西方德國使用金屬活字要早二百年，比中國使用銅活字也早得多。

高麗初期，華嚴、天臺兩教盛行，高麗後期禪宗壓倒教宗。禪僧智訥（普照國師）主張教、禪調和，提倡頓、漸並行，定、慧雙修，在當時佛教界很有影響，他的思想被朝鮮王朝的禪僧休靜所繼承。

2）文學和藝術

中國宋代，朝廷常向高麗贈送書籍，內容除文史之外，還有醫書、佛經佛典等諸多種類。高麗也常通過民間交易途徑重金收購有價值的中國書籍，收集的書籍又重新加以刊行、珍藏。因而高麗所藏中國書籍極其豐富、齊全，宋哲宗稱高麗“書籍多好本”，並開列了一個大書單，希望高麗宣宗能向中國提供。書目內容廣涉經、史、子、集等中國各方面的書籍，多達一百二十餘種，四千九百八十餘卷。

與此同時，高麗王朝也很重視修史事業，現存最早的兩部史書《三國史記》和《三國遺事》，就是出自高麗時代，兩書都是用漢文書寫的。《三國史記》是仁宗時（1123-1146）金富軾奉王命而編纂的。其體例完全仿中國正史，記述了三國時期一千年的歷史，分為本紀、年表、志、列傳，共五十卷，體現出儒教的歷史觀。《三國史記》編成後過了一個世紀，忠烈王時代的一然禪師撰成《三國遺事》，記載紀傳體的《三國史記》所未能包含的內容，其中有豐富的民間習俗內容和神話傳說，還收有新羅的詩歌、鄉歌十四首，貫穿著佛教的歷史觀。除兩部書外，據載還有鄭可臣的《千秋金鏡錄》、閔漬的《本朝編年綱目》、李齊賢的《世代編年》、金寬毅的《編年通錄》等漢文史書，但今已失傳。李承休的《帝王韻記》

二卷至今尚存，這是用漢詩的形式詠贊中國和韓國歷代帝王治績的一部書。關於佛教人物，覺訓編有《海東高僧傳》，但現今只有其中的一部分保存了下來。

高麗前期的文學，其素材多是神話、傳說，如李仁老的《破閑集》、李奎報的《白雲小說》和《李相國集》、崔滋的《補閑集》，以及李齊賢的《櫟翁稗說》，都屬於這一類。高麗後期，詩歌文學發達起來，略分為兩種類型：一種是漢文學系統的詩歌群，如《翰林別曲》《關東別曲》《竹溪別曲》等，一般稱之為“京畿體歌”。另一種是高麗歌謠性質的詩歌群，一般稱之為“高麗俗謠”或“古俗歌”。高麗歌謠沒有鄉歌那樣的佛教色彩，多包含著民眾的樂天情趣和豐富聯想，並重視音樂性的要素，宜於在舞臺上詠誦。因為高麗還沒有自己的固有文字，所以書面流傳還是要借助漢文或吏讀文字，民間則常用自己的語言口碑相傳。高麗末期，由於儒學特別是程朱理學的影響，歌謠中的樂天傾向逐漸減弱，其倫理教化意義則逐漸增強，從而朝著朝鮮王朝的時調方向發展。

高麗藝術和新羅時期的藝術一樣，仍在佛教的影響之下，並與中國的佛教藝術相通。例如高麗時代的石塔，明顯是受宋塔的影響。高麗末期的敬天寺石塔，是元朝工匠參與建造的，共有十層，基壇和塔身都有佛菩薩群雕，生動形象。但許多宮殿寺院都毀於戰火，留存至今的並不多。政治和民族的統一，使高麗逐步走向繁榮，加之疆域北擴，國運隆盛，文化絢爛，高麗還通過王權和佛教的結合，支持和保護佛教藝術，使高麗的佛教造型藝術得到了長足的發展，為世所矚目。高麗文化繼承了三國時期和統一新羅時期全面吸收外來文化的優秀傳統，借鑒中國文化的精華，使自己的文化進一步走向昌盛。高麗化的文字書法、印刷術等發展到了一個新的水準，足以與中國相頡頏。

3. 高麗時期的書法

高麗初期的書法有著統一新羅時期的餘韻，由於科舉制度推行考試制度，學校設書學博士科，從而也推動了教育的發展。

1）以書取仕

經過統一新羅時期的半島書法取得重大發展以後，高麗王朝時代則進一步將之普及開來，其中一個最重要的途徑就是“以書取仕”：太祖王建十三年（930），於“成均館”設“書學博士”；成宗王治十一年（992），立國子監，下設國子學、太學、四門學、律學、書學、算學等“六學”，招收兩班弟子進行書法和儒家教育。可以說“書學博士”和國子監的設立使得書法學習與傳播有了制度性的保證，這一點又與中國漢代盛行的“善史書而仕宦”以及唐代取官要求“楷法遒美”有著共通性。六學中書學作為獨立科目，從立身揚名這一點也足見高麗對書法的重視。在書學中有專職書學博士，教授說文、五經字樣、書品、書體等課目，以學問為目的，打下堅實基礎，走入書法的深度。

高麗王朝統治半島前後延續四百餘年，期間中原政權幾經更迭，但其書法的發展始終與中原保持著聯繫。據相關史料記載，高麗王朝的書法前期多崇尚和學習唐代歐陽詢等人，中期王羲之書法風格再次興盛，到元代趙孟頫書法出現之後，“趙體”書法幾乎風靡了從高麗王朝後期到李氏朝鮮初期的二百餘年。

在高麗王朝第一期129年間，就留下傳至今天的書法遺跡三十三種，撰書名記十八種，還收集了新羅末期的佚名金石。撰書名記既體現出一種歷史的責任感，同時也確立了信心。通過對名家書跡的整理記

載，同時也對後人有所交待，也推動了自身的發展。通過對書家的記載，也起到了核實歷史人物的問題。

在高麗王朝第二期77年間，即文宗到睿宗的五個朝代中也湧現出一批書家。其間，中國大陸自唐滅亡後，相继出现後樑、後唐、後晉、後漢、後周等五代十國，宋統一後，北方契丹、遼、金相繼稱帝，此時的中國處於動亂時期。而高麗卻在這一時期完善了國家統一，內政恩威並施，外交和親並行，進入到一個興隆時期。高麗的宗教制度儒佛並施，貿易、美術、工藝都得到長足的發展。文宗推進各項制度的改革，使高麗的文化也得以空前繁榮。同時，高麗也和大宋保持著良好的文化交流關係。宋仁宗時期，出現了韓琦、富弼、司馬光、歐陽修等名臣，文化也達到了隆盛時期。文宗即位三十六年間，推進兩國的文化交流。高麗前期，由於新羅文化的關係，還受著唐文化的影響。自文宗以後，受遼宋文化影響，從而形成高麗獨自的文化特徵。

2）書家

高麗王朝從仁宗到元宗八代152年間，稱之為第三期的動亂期，這也是史學上劃分的所謂高麗中葉。高麗中葉王權衰微，政治混亂，中國大陸動盪的餘波，加之蒙古人的入侵，禍亂時起。中央政變，地方叛亂，朝廷一貫崇文輕武，遭致武臣跋扈。王朝惶惶不可終日，國力衰微，文化低下，民不聊生。由於武臣叛亂，儒者文人為活命避於山林或佛門。期間，由於崔忠獻父子優待文士，保護了像李仁老、李奎報、琴儀、金良鏡、崔滋等這樣的文官，以及部分有學問的僧侶。

據《槿域書畫征》記載，這一時期的書法家有王儆、吳彥侯、釋惠素、釋英僅、釋慧觀、釋坦然、釋麟、文公裕、李知命、崔均、黃父莊、文克謙、釋悟生、釋了然、明宗、釋沖曦、王沔、釋道休、釋機俊、樸孝文、李仁老、崔說、柳公權、釋淵懿、釋圓鏡、金仁鏡、李洪壽、李子林、張自牧、安置民、金居實、金君綏、崔瑀、李子晟、李湊、郭預、金孝印、李穎、朱悅、李尊庇等。

從忠烈王元年（1275）到恭讓王四年（1292）為高麗王朝末期，也就是第四時期即衰退期。其間118年，蒙古入侵，女真征伐。高宗十九年（1232）無奈遷都江華島。元朝始違，與元講和，方遷都開城。元對高麗還進行了殖民化統治，支配干涉高麗的統治權，並高麗帝室封為駙馬，以此為特徵，高麗則成了駙馬國。改稱王的廟號，改變官制。忠宣王即位五年（1314）本應繼承王位的世子（忠肅王）跑到元大都北京築萬卷堂，以研究古今中外典籍為任，和高麗的李齊賢與元朝趙孟頫等學者詩書相娛。

李齊賢（1287-1367），字仲思。初名之公，號益齋，櫟翁，慶州人。人稱其詩、書、畫為三絕。高麗忠烈王二十七年辛醜（1301）文科。曆事忠烈、忠宣、忠肅、忠穆、忠定、恭湣等七朝，官至門下侍中，封雞林府院君。諡文忠。《筆苑散語・編上第一》云：

> 我東人文集似中原人文集者惟《李益齋集》。自益齋從忠宣王入燕京，構萬卷堂，日與元學士虞集，歐陽玄，趙孟頫，揭曼碩等相唱酬。又自長安入蜀，皆有紀行詩。又從忠宣降香江南，而凡蘇杭二州及金陵錢塘佳麗之地皆有題詠，膾炙人口，如《甘露寺》詩及《夔府新詠》是之。其後稼亭，牧隱父子登元朝制科，而其遊賞則不及益齋耳。

高麗的人名、官職採用蒙古法，宮中王妃帶來了蒙古風，使蒙古風俗和高麗風俗雜交成了一種新的高麗樣式。

在元朝，學術發達，流行程朱理學。文化方面，忠肅王禪讓居北京萬卷堂，與元朝巨儒閣後、姚燧、趙孟頫、虞集有交往，並聘用高麗學者李齊賢等購置了大量的中國典籍，與詩、書、畫三絕的趙孟頫交流

學藝。萬卷堂儼然成了麗元文化交流的中心。

宋代哲學家程顥、程頤兄弟及朱熹等構建的儒學新體系，從儒學原本關懷的宇宙根本原理轉而到人間的心性問題研究。這種以道學或性理學著稱的程朱學後來傳入韩半島，成為韓國學術的重要理論支柱。元世祖忽必烈滅掉南宋後，對宋代儒學大加推行，並積極向東方輸入。忠烈王的儒臣安裕（珦）和忠宣王的儒臣白頤都曾接受到這種傳輸。

安裕感於國學衰微，為振興文教，設置育英財團，以贍學錢從江南購入大量性理學書籍。由於朱子學的導入，在國內開始盛行起來，出現了像麗末三隱這樣的大家，即牧隱李穡、陶隱李崇仁、圃隱鄭夢周，成為當時性理學界的三大高峰，乃至後來成為朝鮮王朝的學統。

李穡（1328-1396），字穎叔，號牧隱，諡文靖，籍貫韓山。李穀子，李齊賢門人。高麗恭湣王二年癸巳（1353）乙科第一。為高麗詩文大家，“麗朝詩十二家”之一。其門下權近、卞季良等諸多弟子輩出。奉享韓山文獻書院。與李奎報、李齊賢並稱麗朝三李，與鄭夢周（圃隱），李崇仁（陶隱）並稱麗末三隱。有《牧隱詩稿》《牧隱文稿》。

李崇仁（1347-1392），字子安，號陶隱，本貫星州。高麗恭湣王十一年壬寅（1362）丙科第二。麗末三隱之一。有《陶隱集》。《芝峰類說》卷十三《文章部》六《東詩》云：

> 李陶隱崇仁在麗末諸學士中最後進，文譽未著。一日揭古畫障於壁，書一絶其上曰：“山北山南細路分，松花含雨落紛紛。道人汲水歸茅舍，一帶青煙染白雲。”牧隱見之以為逼唐，聲名遂盛。

鄭夢周（1337-1392），原名夢蘭，夢龍，字達可，號圃隱，籍貫延日。高麗恭湣王九年庚子（1360）乙科第一。麗末三隱之一，後稱東方理學元祖，追贈領議政，從祀文廟，奉享開城松陽書院等十三處書院。諡文忠。“麗朝詩十二家”之一。有《圃隱集》。《五山說林草稿》記載：

福靈寺壁上有數十人題名，字畫宛然不黝，曰李穡，曰李崇仁，曰鄭夢周，曰鄭道傳，曰權近。餘及近目擊，餘不記。

在書法上，如果說在高麗初、中期都是以唐風、右軍風、北碑為主流的話，到了高麗末期則流行趙孟頫的松雪風，一直影響到後來的朝鮮王朝。這一時期出現的書家有金方慶、崔峘、釋卓然、李行儉、郭預、高適、金晅、金恂、崔斯立、釋雲默、吳同、權漢功、李齊賢、忠肅王、李嵒、釋性證、崔誠之、鄭浦、金開物、全元發、釋宗古、玉守誠、成士達、釋覺雲、黃石奇、釋惠勤、釋混修、權仲和、恭湣王、韓修、李岡、鄭夢周、成石、申德鄰、賓於光、鄭乙輔、李文挺、樸礎、尹虎、金祗、長寺、鄭道傳、李詹、李鐘德、鄭矩、權近、權鑄、吳天經、釋達蘊、釋宜聞、成石鎔、釋天澤、慶壽、孔俯、釋萬而、薑准伯等。現舉例如下：

李嵒（1297-1364），初名君侅，號杏村、紅杏山人，固城人。高麗忠烈王三十三年丁未（1307）文科。諡文貞。著有《農桑集說》《檀君世紀》。

《東國詩話匯成》卷六記載：

> 李嵒.....恭湣王初，乞骸入清平山。後征還，拜侍中。居家常以圖書自娛，詩詞簡古，筆法妙一時。

4. 結語

因為地緣的關係，高麗時期的各種藝術樣式，比如繪畫、書法等，在其產生和早期的發展中，既深受中國藝術的影響，同時又表現出了自己的特點。在這樣一個歷史背景下，似乎決定了高麗書法與中國書法的天然聯繫。要在當時中國大陸書法和高麗書法之間劃分出一條明確的界線，或者說在高麗書法中間找出其民族的獨特因素，相對來說要比其他藝術領域更為困難。因為當時使用漢字這一前提條件，在根本上限制了這種可能性，畢竟當時的高麗文化和中國文化同屬於漢文化圈。韩半島是一個特殊的地域，她與中國大陸緊密接壤，在西方文明進入東亞之前，她一直是漢文化圈的組成部分。今天，我們回顧歷史，通過探究高麗時期的書法，可以深深感受到中國大陸和韩半島之間的傳統文化聯繫之緊密。

每個民族對於自己的歷史和文化的看法，雖然在主觀上都有追求客觀真實的願望，但在實際上卻深受某些隱藏得很深的因素的影響，在一定意義上不妨都可以看作是一些隱喻，含蓄地表達著每個民族的心理和願望。只有這樣來理解學術上的各種觀點和看法，我們才不會糾纏於具體的細枝末節，而直達導致她們產生的原點和核心，並理解她們所包含的各種隱喻意義。韓半島所處的獨特的地緣環境，也對韓民族的歷史和文化觀點產生了深遠的影響。歷史上長期以來所受到的來自中國的影響，為了保持自己的民族特性而作的努力，在東亞漢文化圈中所處的“半島式”的地理位置，價值觀念從漢文化到西洋文化的急劇變遷，與中國和日本的現實關係的變動，近代以來民族主義意識的抬頭與流行.....這一切都深深地影響了其歷史和文化觀點。也只有從上述這些歷史背景出發，我們才能理解其歷史和文化觀點的意義。

正如中國著名書家沈鵬所認為的，中國書法和韓國書藝，都是重要的傳統文化，有力地影響著本國文化。在全世界，雖然因文字的隔閡阻礙溝通，但其獨樹一幟的書法精神卻影響到許多國家，而成為世界的文化藝術之寶。我們需要關注各民族之間書法文化的共同點與相異點。處在不同歷史、地理、人文環境下，書法雖然有共同點，但其不同的特點也不容忽視，我們需要互相尊重，互相交流。中國書法、韓國書藝，雖然名詞相異，但是本質上是一致的，都是要求技、藝、道的統一，由技藝而達到人生觀與世界觀的高度。

【사회과학분과】 발표 ①

중국의 수출입 동물과 동물제품 위생검역에 관한 연구

손성문*

【목 차】

1. 서론
2. 중국의 수출입 동물과 동물제품 위생검역 적용법규와 체계
3. 중국의 동물과 동물제품 위생검역 사례
4. 사례분석을 통한 시사점
5. 결론

1. 서론

1990년 북경에서 제11회 아시안게임이 개최되었으나 국제경마대회는 취소되었다. 2008년 중국 북경올림픽에서도 경마대회는 북경에서 열리지 못하고 홍콩에서 진행하였다. 그로부터 2년 후 2010년 중국 광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드디어 국제경마대회를 운영할 수 있었다. 이는 1990년 북경 아시안게임을 개최한 이후 20년이 경과한 이후에 중국의 수출입 동물에 대한 위생검역의 수준이 국제적 수준에 도달하였음을 의미하는 중요한 잣대다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중국의 수출입동식물 검역법이 1991년 10월에 제정되어 1990년 북경 아시안게임의 경우 국제경마대회에 출전하는 말의 수출입에 대한 적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비록 1982년에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동식물 검역조례가 있었지만 해당 규정으로 국제적인 행사를 진행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왜냐하면 국제경마대회에 출전하는 말들의 가격은 상당히 고가이고 이들 경주말을 어떻게 운영하고 관리할 것이며, 대회가 종료된 이후에 다시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등의 복잡한 동물검역의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위생검역과 관련한 규정과 과학적인 위생검역절차 및 이들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위생검역 전문인력의 역량이 국제적 수준에 도달함과 동시에 국제적인 인증도 받아야 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운영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국제경마대회를 운영할 시스템의 구축과 더불어 경마위생검역의 국제적인 인증을 받아 경주마의 이동과 행사진행 그리고 자국에 다시 반송하는 모든 프로세스를 진행하였다.

한편, 2007년 3월 미국과 캐나다에서 중국산 애완용 동물사료를 먹은 개와 고양이 등의 동물들이 급성신부전증으로 5천여마리 이상이 사망하였다는 것이 보고되었다.[1] 이에 미국의 식품의약국(Food

* 경상국립대학교 국제통상학부 교수 (bearson@gnu.ac.kr)

and Drug Administration, FDA)은 사망한 해당 동물들을 조사한 결과 신장에서 멜리민(Melamine, C3H6N6)과 시아누르산(CNOH)3의 성분이 검출되었으며, 중국에서 수입한 단백질 사료에서도 해당 성분이 동일하게 검출되었다.

멜리민은 암모니아와 탄산가스로 합성된 것으로 질량의 66%가 질소이고 공업용 화학물질로서 플라스틱을 만드는 화학원료로 사용된다. 주로 열에 강한 주방기구나 화이트보드, 플라스틱 제품 등에 사용되고 있지만 식품제조에 사용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식품내 질소함량 측정방법을 단백질 함량으로 평가하는 키엘달법(Kjeldahl method)이라는 방법으로 우유와 같은 식품에서 단지 식품 내 질소함량만을 높여 좋은 평가를 받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측정방법에서 멜라민이 식품에 사용되는 이유는 멜라민이 1% 추가하면 단백질 함양이 4% 증가하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으며, 상온에서 멜라민 3.1g 정도는 물에 용해해도 침전이 생기지 않으면서 단백질 함량은 1.2% 상승하고, 액상우유에서 단백질 함량이 약 30% 정도 증가할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다.[2] 따라서 소량으로 높은 단백질 함량을 나타낼 수 있어 가격대비 성능이 우수하기 때문에 수익을 높이고자 하는 생산농가에서 멜라민을 우유나 곡물에 첨가하고 이러한 원료가 동물용 가공사료의 원료로 사용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였다.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자 중국의 질검총국은 즉각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미국의 FDA에게도 그 조사결과를 통보하면서 해외수출용 동물사료를 제조 생산하는 기업에 대해서 등록제와 원료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하여 중국의 해외수출용 동물사료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 노력을 하였다.

하지만 중국이 식품내 질소함량 측정방법을 단백질 함량으로 평가하는 키엘달법(Kjeldahl method)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고, 멜라민에 대한 자국내 생산과 식품에 대한 규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미국의 애완동물에 대한 대규모 사망 다음 해인 2008년 9월 중국과 홍콩에서 멜라민 성분이 포함된 일명 “가짜분유”를 먹은 50,000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신장질환이 발생하였고, 12,892명의 소아들이 입원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4명이 신장결석과 신부전으로 사망하였다.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자 중국의 국무원은 “우유제품에 대한 멜라민사건에 대한 통지”를 시작으로 2008년 10월에 “유제품안전감독관리조례”를 신속하게 제정하였고, 이후 유제품에 멜라민 성분의 첨가와 그 관리방법 등의 규정들을 제정하여 동물과 동물제품에 대한 위생검역 관련 규정들이 제정되면서 부족한 위생검역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체계화하기 시작하였다.

앞의 예에서 처럼 동물의 위생검역은 국제적인 스포츠 행사에서부터 동물 및 동물제품의 해외수출입에 의한 애완동물 등의 사망, 위생검역의 규정과 체계화의 부족에 따른 영향 등 위생검역은 그 범위가 매우 넓을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또한 최근 국제적인 전시컨벤션 및 공연, 중국을 경유하는 항공기나 선박의 증가에 따른 이들 운송수단에 대한 위생검역과 이들 운송수단에 적재된 환적화물에 대한 동물 및 동물제품의 위생검역, 여행자가 휴대하여 반입하는 동물과 동물제품에 대한 수요의 증대에 따른 위생검역, 우편에 의한 동물이나 동물제품의 발송에 따른 수출입 검역, 국제 크루즈 등과 같은 국제여행의 확산에 따른 애완동물 동반 여행관련 동물검역까지 그 적용범위가 상당히 넓어지고 있다. 한편 위생검역 대상인 동물의 질병유형과 전파의 속도가 상당히 신속하게 일국에서 타국으로 이전되기 때문에 동물의 위생검역에 대한 연구가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1) 정경환, 「멜리민과 신장」, 『경희의학』, 2009, 제25권 제1호, p.14.
2) 성우석·이선주, 멜리민과 요로결석, 上揭書, p.7.

이처럼 위생검역의 적용범위가 광범위하다는 것과 동물의 전염병이 빈번하게 발생함과 동시에 전 세계적으로 신속한 확대되고 있어 한국과 인접한 중국의 동물검역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동물에 관한 위생검역은 중국의 수입동물위생검역에 관한 선행연구 이외에는 관련 연구가 이어지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후속적인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한국과 중국간의 FTA협상과 향후 서비스무역FTA 협상의 진행, 중국의 주요 항구와 공항을 환적항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높아 중국의 동물과 동물제품의 위생검역의 중대성은 지금보다 더욱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중국의 동물과 동물제품의 위생검역의 법규와 절차 및 이들 법의 적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함께 검토하고 그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향후 한 중 동물과 동물위생검역의 운영에 실질적인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이 필요하여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2. 중국의 수출입 동물과 동물제품 위생검역 적용법규와 운영체제

1) 수출입 동물과 동물제품 위생검역 적용법규

중국의 동물과 동물제품의 수출과 수입의 위생검역과 관련한 최초의 규정은 1982년 6월 국무원에서 공포한 행정규정으로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동식물검역조례”[3]가 있었다. 동 조례는 주로 수출입 동식물 검역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과 검사범위와 대상 및 질병 및 해충의 검역 등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다. 동 규정의 목적은 동식물에 해를 끼치는 질병, 곤충, 잡초 및 기타 유해 유기체가 해외 및 중국에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동 규정이 제정되고 10여년이 경과한 후 보다 구체적이고 법으로의 성격을 상향시키기 위하여 농업부가 1989년 1월에 “중화인민공화국출입국동식물검역법”(초안, 이하 “검역법(초안)”이라고 함)”을 작성하여 국무원에 정식으로 “검역법(초안)”을 송달하였고, 국무원은 해당 초안을 심의 수정하였다. 국무원법제국은 여러 차례 관련 부서와 지방정부의 의견을 수렴하고 위생검역 관련 부서와 연구 및 토의조직을 구성하여 동 초안에 대해서 여러 차례 수정하여 국무원 상무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였다. 1991년 8월 2일 국무원은 제88차 상무위원회에서 심의 수정한 동 초안을 통과하였다. 동 초안에 대한 추가적인 수정사항을 검토하고 필요한 내용을 수정하여 전국인민대회 상무위원회 검역법(초안)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였다. 1991년 10월 30일 제7차 전국인민대회상무위원회 제22차 회의에서 “검역법”을 통과하는 것을 결정하고, 당일 국가주석은 중화인민공화국주석령 제53호를 공포하여 동 법률이 1992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현재 중국에서 수출입 동물과 동물제품의 위생검역에 대한 최상위 법률은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동식물검역법”[4]이다.

동 법률은 동물의 전염병과 기생충병의 위험성을 예방하고 기타 유해생물의 국내유입 및 해외이전을 방지하고 농, 임, 목, 어업의 산업과 인간의 건강을 보호하며, 대외경제무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동 법의 적용범위는 수출입하는 동물과 동물제품 기타 검역물이 그 대상이며, 포장된 동식물과 동식물제품 및 기타 검역물의 포장용기, 포장재와 동식물검역지역에 반입된 운송용

3) 『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动植物检疫条例』是1982年6月4日由国务院发布施行的行政法规

4) “中华人民共和国进出境动植物检疫法”, 1991년 10월 30일 제7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2차 회의에서 제정되었으며, 2009년 8월 27일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 법률이 일부 개정되었다.

구에 대해서 적용하는 법률이며 보다 구체적인 세부 실행내용은 1996년 12월에 제정한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동식물검역실시조례”[5]에서 규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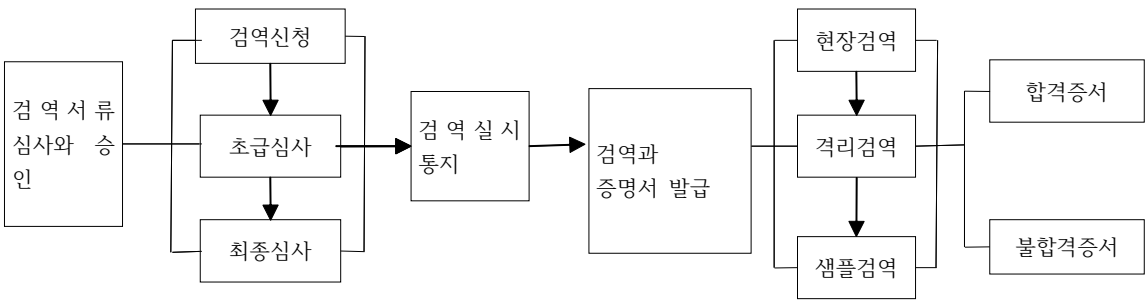
한편 중국의 수출입 동물과 동물제품 위생검역과 관련한 기타 법률은 “중화인민공화국동물방역법” “중화인민공화국목축업법” “중화인민공화국상품검역법” “중화인민공화국식품안전법”, “중화인민공화국국경위생검역법”, “중화인민공화국전염병방지법”, “중화인민공화국해관법” 등이 있다.

2) 수출입 동물과 동물제품 위생검역의 운영체제

중국의 수출입 동물과 동물제품의 위생검역 체계는 크게 수입동물과 동물제품의 검역절차, 수출동물과 동물제품의 검역절차, 국경을 통과하는 동물과 동물제품의 검역절차, 휴대 및 우편의 수출입 동물과 동물제품의 검역절차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 및 체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입동물과 동물제품의 검역절차는 국외로부터 동물 및 그 배아, 정액, 수정란 등을 수입할 경우에 반드시 규정에 따라서 이행하는 수입검역절차를 말한다. 이는 “수출입동식물검역방법실시조례”와 “국가질검감독검역총국수입동식물검역심사관리방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동물과 동물제품, 기타 검역물의 검역을 수입할 경우 검역심사허가, 검역보고, 검역증명서 등의 단계를 거친다. 또한 “수입동식물검역심사비준관리방법”의 규정에 따라서 수입동물, 동물제품 및 특별허가가 필요한 금지물의 수입인 경우 “농업유전자생물안전관리조례”의 규정에서 국경통과유전자변이 제품의 경우 검역과 비준(이를 검역허가라고 한다)을 거쳐야 하며 이들 구체적인 절차는 <그림2-1>과 같다.

<그림2-1> 수입동물, 동물제품 검역 절차도



*출처 : 汤锦如 彭大新 主编,『动物检疫技术指南』, 中國农业出版社, 2019, p.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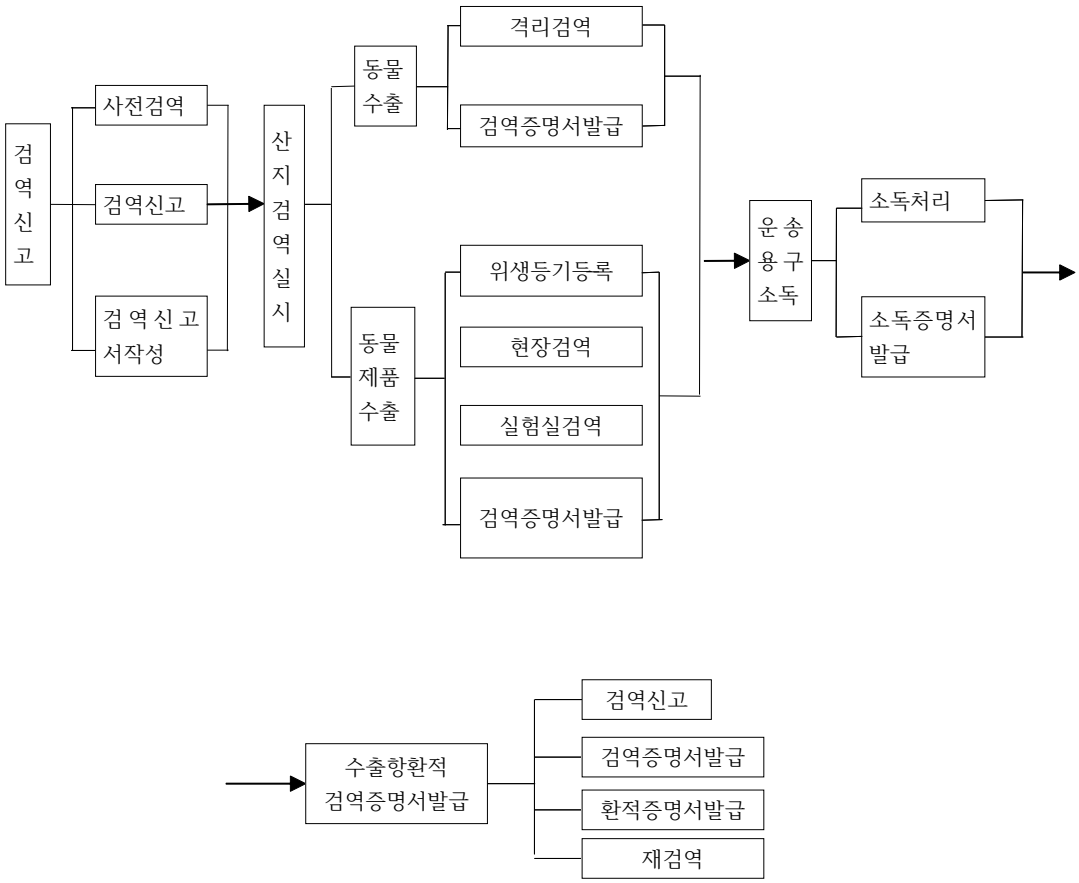
검역신청과 승인절차는 (1) 수출국 혹은 수출지역이 중대동물역병이 없어야 하고, (2) 중국의 관련 동물검역 법률, 법규, 규정의 조건에 부합해야 하며, (3) 중국과 수출국가 혹은 수출지역간 쌍방간 서명한 검역협정에 부합해야 한다. 또한 검역심사와 승인은 초급심사와 최종심사를 포함하며, 신청인은 검역수속을 희망하는 기업이 신청을 하여야 한다.

두 번째로 수출동물과 동물제품의 검역이란 수출할 해당 국가나 지역에 가공하지 않거나 혹은 가공은 하였지만 전염병이 있을 수 있는 동물제품에 대해서 실시하는 검역을 말한다. 수출동물 및 동

5) “中华人民共和国进出境动植物检疫法实施条例”, 국무원령 제206호, 1997년 1월 1일 시행. 동 조례는 총칙, 검역심사와 승인, 수입검역, 수출검역, 통관검역, 휴대용물품검역과 우편검역, 컨테이너검역, 검역감독, 법률책임, 부칙 등 10장 68개 조로 구성되어 있다.

물제품검역은 검역보고, 현장검역실시, 운송용구소독, 수출항구 검역 등의 절차를 거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그림2-2>와 같다.

<그림2-2> 수출 동물과 동물제품 검역 절차도



*출처 : 汤锦如 彭大新 主编,『动物检疫技术指南』, 中國农业出版社, 2019, p.94.

세 번째, 국경통과 동물 및 동물제품 검역절차는 어떤 국가를 경유하여 운송하는 동물 이나 동물제품과 기타 검역물 및 동물 및 동물제품을 적재한 운송용구나 컨테이너 용기 등에 대해서 실시하는 검역을 말한다. 국경통과동물검역허가증처리원칙은 최초 원산지국가와 자국에 통과되지 이전에 경유한 모든 국가의 동물 및 동물역병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만약 이들 국가들이 발생 혹은 유행한 법정 1류(혹은 1류) 동물전염병, 새롭게 발생한 전염병 혹은 축산업이나 인간의 건강을 위협할 기타 엄중한 전염방이 발생한 경우 모든 동물은 국경통과를 불허한다. 그리고 국경통과를 요구하는 동물은 반드시 수출국 검역기관의 검역을 거쳐야 하며, 건강하고 질병이 없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또한 통과국에 동물이 체류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운송과정 중에 해당 국가의 검역기관이 동물에 대한 국경통과검역허가증 혹은 동물접수증명을 작성하여 발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동물의 국경통과를 동의한 경우, 검역기관은 “동물국경통과검역허가장”을 서명하여 발행한다.

네 번째로 휴대 및 우편의 수출입 동물 및 동물제품 검역은 농업부가 2012년 1월에 발포한 ‘중화인민공화국 휴대 및 우편 금지 수출입 동식물 및 그 제품 명단’ 중에서 동물 및 동물제품류, 식물 및 식품제품류 및 기타 검역대상물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표2-1>과 같다.

<표2-1> 동물 및 동물제품류 검역대상물

분 류	명 칭
생동물	소유한 포유동물, 오리류, 어류, 양서류, 파충류, 곤충류와 기타 무척추동물, 동물유전자물질
동물제품	(생 혹은 열을 가한) 육류 (내장을 포함한) 그 제품; 수생동물제품. 동물에서 추출한 유와 유제품, 생유, 신선유, 발효유를 포함한다. 동물에서 추출한 크림, 버터, 치즈와 기타 고열을 처리하지 않은 유제품류. 알과 그 제품; 신선알, 피단, 소금에 절인 알, 알액, 알껍질, 마요네즈, 기타 열처리를 하지 않은 알원료제품. 제비집(통조림의 제비집 제외). 유지류, 모피, 털류, 족, 골, 뿔과 그 제품. 동물성사료(유청분(serum), 혈분 등). 동물성 중의약재, 동물성비료.
기타 검역물	동물시체, 동물시료, 동물성 폐기물. 균종, 동 등 동식물병원체, 해충과 기타 유해생물, 세포, 장기조직, 혈액과 그 제품 등 생물재료, 유전자변이생물재료, 국가 반입금지하는 기타 동식물, 동식물제품과 기타 검역물.

*출처 : 汤锦如 彭大新 主编,『动物检疫技术指南』, 中國农业出版社, 2019, 98面.

휴대자가 휴대한 반려동물을 수입할 경우 반드시 수출국가 혹은 지역의 수의검역기관이 발급한 동물검역증서 혹은 동물면역주사증명서 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입국시에 입국 항구의 검험검역기관의 검역을 신청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 검역증명서가 없거나 동물면역주사증명서가 없는 반려동물은 반송하거나 살처분한다. 휴대자의 반려동물이 개나 고양이 등 애완동물의 경우 1인당 1마리만 반입을 허용한다. 입국시 휴대동물과 동물제품의 검역절차는 입국하는 사람이 휴대하는 동물과 그 동물제품에 대한 검역절차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친다; 신청, 관련 증명서 제출, 검역과 그 처리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제 운송용기 검역은 동물 및 동물제품을 적재한 운송용기가 국제적으로 상이한 국가 또는 지역을 운송하는 경우 동물역병 병원체의 매개가 동반할 수 있기가 용이하다. 따라서 해당 동물 동물제품을 적재한 검역대상물품이 국경을 반입 반출할 운송용기에 대해서 검역을 할 경우에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동식물검역법”에서 “동물검역지역의 선박, 비행기, 기차 및 국경에 진입하는 차량 등에 대해서 검역을 실시하며, 국제운송용기검역절차는 신청, 검역 및 처리 등의 절차를 거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중국의 동물과 동물제품 위생검역 사례

1) 돼지열병으로 인한 반입동물 소각 사례[6)]

1999년 3월 6일 중국의 A기업은 영국으로부터 404마리의 원산지가 벨기에산인 흰돼지(Sige) 종돈을 항공운송으로 중국 B시 국제공항으로 수입하였다. 수입 다음날인 3월 7일 새벽 중국의 위생검역국으로부터 위생검역 위임업무를 받은 위생검역전문기관이 해당 종돈을 격리장소로 이동하여 현장검역을 실시하였다. 수입종돈에 대한 격리검역기간은 3월 7일부터 4월 20일까지 총 45일의 기간이

6) 王国平,『动植物检疫法规教程修订版』, 科学出版社, 2016, p.170.

주어졌다. 격리검역기간중에 임상관찰을 통하여 의심스러운 전염성 위축비염의 증상이 나타났고, 국가질검총국에 검역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여 해당 수입종돈의 검역 격리기간을 5월 5일까지 추가로 연장하였다. 추가 격리검역기간 중에 3마리의 돼지가 병으로 사망하였으며, 그 중 한 마리는 3월 19일 방광에 천공이 발생하였고, 두 마리는 4월 17일, 18일에 호흡기질병으로 각각 사망하였다. B시의 위생검역 담당부서는 “수출입동식물검역법”과 기타 실시조례 및 중국의 “동물검역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돼지 관련 동물전염병 대상 목록 중에서 1류로 분류된 구제역(foot and mouth disease, FMD), 돼지수포병(swine vesicular disease, SVD), 돼지콜레라(classical swine fever, CSF),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ASF), 고병원성돼지람이병(highly pathogenic porcine reproductive and respiratory syndrome, HPPRRS)[7] 등의 검역목록에 따른 동물질병들을 각각의 돼지에 대해서 임상검역과 실험실검역을 진행하였다. 동 검역조사에서 돼지 이질 트레포네마균(treponema) 병원체를 분리하였고, 브루셀라균에 대한 실험실 응집시험, 돼지마이크로 플라즈마 폐렴검역, 돼지 전염성 위장염 저지 ELISA 시험[8], 결핵피식변동반응 검사[9] 돼지 남이병 시험[10], 혈청(Serum)에서 병독 분리 검역을 각각 진행한 결과 위축성 비염 임상증상을 발견하고 모든 돼지에 대해서 위축성비염 병원균 분리 검사를 진행하였다. 전수조사 검역에서 226마리의 양성반응이 나왔으며, 이는 수입돼지의 55.9%에 달하는 것으로 이들 수입돼지의 검역과정에서 브루셀라균 검출이 1마리, 전염성 뇌수막염이 3마리, 위축성비염이 222마리가 추가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의 위생검역국과 A기업의 동의를 얻어 위생검역 담당 부서는 226마리의 돼지에 대해서 전부 화장처리하였다.

2) 멜라민 위생검역과 애완동물 사망 사례[11]

2007년 3월 미국에서 동물사료를 먹은 애완동물들이 중독사고로 연속적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중독의 주요 사망원인은 신장이 쇠약해지는 질병이었다. 이에 미국 식품의약품관리청(FDI)의 초기조사에서 의심을 받은 오염식품은 2006년 말 중국에서 수입한 소맥단백질과 쌀단백질이며, 이들 단백질에서 멜라민(Melamine)[12]과 시아누르산(CNOH)3[13] 성분이 검출되었다. 중독으로

---

7) 한국에서는 이를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Porcine reproductive and respiratory syndrome, PRRS)으로 번역하는 경우도 있으나 중국 용어의 통일성을 위해서 중국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함.

8) 엘라이사(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 ELISA)는 항체에 결합된 효소를 통해 항원-항체 반응을 확인하는 실험법으로 엘라이사는 물질을 확인하기 위해 항체와 색깔 변화를 이용하는 시험이다. 효소결합면역흡착검사 혹은 엘라이사는 항체나 항원에 효소를 표지하여 효소의 활성을 측정하여 항원-항체 반응의 강도와 그 양을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으로 현대 생명공학에서 이용되고 있다.

9) TB Skin Test 결핵피식(结核皮试)

10) 고병원성 돼지람이병(Blue Ear Disease, BED, or PRRS)은 1987년 미국의 양돈지역을 중심으로 원인을 알 수 없는 새로운 돼지 질병의 발생이 보고되기 시작했으며, 번식장애와 호흡기 감염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이 질병은 1988년과 1989년 여름에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미국 양돈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이 질병을 초기에는 돼지 미스테리병 이라고 불렀으며, 이후 원인 바이러스가 분리되고 임상증상, 병원성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번식장애와 호흡기 감염이 함께 나타나는 임상증상의 특징을 따라 새롭게 명명하여 현재는 국제적으로 PRRS라고 부른다.

11) 黃冠胜,『中國質檢工作手册动植检验检疫管理』, 中國質檢出版社, 2012, pp.505-508.

12) 멜라민(Melamine)은 분자식이 C3H6N6이고 질량의 66%를 질소가 차지하고 있는 공업용 화학물질이다. 포름알데히드를 반응시켜 만드는 멜라민 수지는 열경화성 수지로 열과 산, 그리고 용제에 대하여 강하고 전기적 성질도 뛰어나 주방용 식기나 잡화 또는 전기 기기 등의 성형재료로 쓰인다. 한편 멜라민은 과거에는 비료, 반추동물의 사료첨가물로 사용되기도 하였으며, 사이로마진(cyromazine)이라는 살충제의 대사과정에서 만들어지기도 한다.

13) 사이아누르산 (三聚氰酸) 시아누르산 또는 1,3,5- 트리 아진 -2,4,6- 트리올은 화학식 $(CNOH)_3$ 의 화합물이다. 대부분 산업적으로 유용한 다른 화학 물질과 마찬가지로 이 트리아진에는 많은 동의어가 있다. 이 흰색의 무취

사망한 애완동물의 신장에서도 앞에서 언급한 두 개의 물질이 각각 검출되었다.[14] 미국 식품의약품 관리청은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소맥단백질과 쌀단백질에서 위생검역결과 멜라닌성분이 검출되었음을 밝히고 애완동물사료에 함유된 멜라민 성분이 개와 고양이를 중독하여 사망하게 한 원인으로 지목하였다.[15]

멜라민(melamine)는[16] 분자식이 C3H6N6이고 일종의 유기질소복합화합물이며, 그 용도는 알데히드를 합성시키는 것으로 멜라민과 포름알데히드수지를 형성하여 가소성고분자화합물생산에 사용되며 연소방제제 화학비료 등으로 사용된다. 포름알데히드를 반응시켜 만드는 멜라민 수지는 열경화성 수지로 열과 산, 그리고 용제에 대하여 강하고 전기적 성질도 뛰어나 주방용 식기나 잡화 또는 전기 기기 등의 성형재료로 쓰인다. 멜라민(Melamine)은 질량의 66%를 질소가 차지하고 있는 공업용 화학물질이며, 식물단백질가루와 사료에서 1% 정도 멜라민 성분을 첨가되며, 통상적으로 키달법(Kjeldahl method)[17]으로 측정하는 단백질은 4% 정도 증가한다. 식물단백질가루와 사료에서 단백질 증가는 1% 증가할 때마다 멜라닌의 비용은 실질적으로 단백질 원료의 1/5 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생산공정이 간단하고 원가가 낮으며 적극적인 이윤극대화 할 수 있는 동기가 되어 생산품의 외관상 담백질함량의 증가만을 표시하는 것이 멜리민을 첨가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18]

“멜라민” 사건 발생이후 중국의 국가질검총국은 상무부, 해관총서와 연합하여 “인체용 식품과 동물사료첨가제 및 원료에 대한 수출입검험검역보고의 공고”를 2007년 제70호로 하달하고 124개의 인체용 식품과 동물사료첨가제 및 원료제품에 대해서 “수출입검험검역조사수출입상품목록”을 나열하고 수출입검험검역기관에 감독을 거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124개의 제품에 단백질, 비타민, 광물질 등 첨가제를 모두 포함하며, 수출입사료에 대해도 법에 의거 검험검역을 하도록 하였다. 전국 질량업무회의 정신을 확실하게 관철시키고 수출입농산품질량안전전문업무를 체계화하기 위하여 국가질검총국은 가장 먼저 수출농산품품질안전보장체계를 만들었고, 수출기업 모두 등록등기제도를 실시하며, 모든 수출농산물의 재배, 양식, 가공, 포장, 보관기업들은 등기등록과 관리범위를 지정하도록 하였다. 수출사료에 대해서 2007년 10월 15일부터 등기등록을 하지 않은 수출사료생산가공기업은 수출을 할 수 없으며, 수출사료에 대해서 원산지 감독관리와 운송과정감독을 명확하게 하여 “멜라민”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위생검역 체계를 구축하였다.

고체는 표백제, 소독제 및 제초제의 성분으로 사용된다.

14) 통상적으로 음식물에 멜라민은 거의 검출되지 않는다. 비록 소량 검출된다 하더라도 독성은 미미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동물 사료 및 유제품의 품질 검사 과정에서 일부 기관이 고가의 단백질 농도 측정법 대신 경제적 이유로 단백질의 주 구성 성분인 질소 함량을 측정하는 방법을 쓰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일부 비도덕적인 동물 사료업체 및 우유 가공업체에서 고질소 화학물인 멜라민 또는 시아누릭산을 사료나 우유 등의 제품에 첨가해 질소 함량을 높이는 방법으로 품질 검사를 통과해왔던 것이다. 멜라민을 우유에 넣으면 단백질 함량이 높아져 고급제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한다.

15) 2007년에 미국에서 개와 고양이 등의 애완동물들이 사료에 함유된 멜라민 독성에 따른 급성신부전으로 5천여 마리 이상이 희생된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16) 멜라민은 유기염기의 하나이며 일반적인 상온의 물에는 약간 녹지만, 수온이 높아지면 비교적 잘 녹는다. 약 345 °C 이상의 온도에서는 파괴되면서 융해가 일어난다.

17) 분석화학에서의 키엘달법 또는 키엘달 소화는 유기 물질에 포함된 질소와 무기 화합물인 암모니아와 암모늄에 함유된 질소의 정량적 결정을 위한 방법으로, 이 방법은 1883년 Johan Kjeldahl에 의해 개발되었다.

18) 식품 내 질소함량 측정방법을 단백질 함량의 평가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일부 나라에서는 가끔 우유와 같은 식품에 대하여 단지 식품 내 질소함량만을 높여 좋은 평가를 받아 수익을 높이고자 생산농가에서 멜라민을 첨가하고 (특히 우유에 물을 타서 희석할 경우), 이러한 식품재료가 가공식품의 원료로 사용됨으로써 이번 중국산 우유사건과 같이 소비경로 상에 놓인 많은 사람들이 멜라민에 노출되어 급·만성 유해의 피해를 보고 있다. 멜라민 자체는 저농도에서 거의 독성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시아누르산(cyanuric acid)과 결합하면 결정체를 만들어서 신장결석을 만들고 심하면 신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

3) 국제경마대회 위생검역 사례[19)]

2010년 11월 중국 광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국제경마대회을 진행할 80필의 말을 중국외에서 반입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1990년 북경에서 진행한 제11회 아시안 게임에서 경마대회를 취소하였고, 2008년 북경올림픽 때에는 경마대회를 홍콩에서 진행하였기 때문에 국제경마대회 말의 중국내 반입의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특히 중국과 외국간 마병의 전염병이 복잡하고, 경마대회 참여로 질병이 함께 중국으로 유입될 위험성이 있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2008년 국제질검총국은 광저우 아시안게임 경마대회 참가하는 말의 검역에 대한 각 항목을 조사하는 전문적인 업무를 개시하였다. 동 업무를 시작한 다음 해인 2009년 국가질검총국 대표단은 5차례나 미국, 독일, 아랍에미리트 연합, 일본, 한국, 인도, 말레시아 등 7개 국가에 경마대회 참가할 말의 원산지와 동물역병에 대한 조사와 위험을 분석하였으며, 현지 동물역병의 발생과 관리 및 통제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조사하고, 각국의 경마대회 참가할 말의 역병유입위험과 형성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과 평가 및 그와 관련된 평가와 보고를 하였다. 마지막으로 광저우 아시안게임 경마대회 최종 참가할 나라들은 중국,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아랍 에미리트 연합, 카타르, 태국,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폴, 인도, 시리아, 브루나이, 바레인, 홍콩, 대만 등이며, 이들 경마대회 참여는 다양한 국가와 지역에서 입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경마대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크린에어리어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왜냐하면 말의 경주와 상주의 과정에서 모기 진드기 등의 벌레에 의한 위생검역의 오염으로 인한 경주대회 참가하는 말의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크린에어리의 범위는 핵심지역, 감독관리지역, 완충지역의 3지역으로 설정하는데, 핵심지역은 경마대회가 열리는 중심지역 주변 반경 5,000미터 지역의 이내이고, 감독관리지역은 핵심지역 주변에서부터 화시(化市) 행정구역까지이며, 경마대회장에서부터 백운국제비행장, 경마대회장소에서 심천 황강해안까지의 관련 고속도로 양측 1,200미터 범위 이내이며, 백운 국제비행장에서부터 주변 1,200미터 지역은 생물안전통로이며, 완충지역은 화시 주변 8개 현급행정구역에서부터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는 지역까지가 완충지역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이들 클린에어리어지역에 보호와 통제도 함께 진행하였다.

국가질검총국은 전문적으로 “제16회 아시안게임위원회마사회운동장과 체육관 검역 및 위생요구조건”을 제정하여, 아사인게임 마사회 운동장과 체육관 검험검역시설, 주변환경, 현장관리, 검역처리, 인원파견관리 등의 측면에서 인가를 진행하였다. 시합장소와 그 주변에 대해서 3단계 방역보호조치를 취하였다. 가장 밖의 지역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난간이며, 모든 봉쇄지역을 망으로 둘러쳐져 높이는 3미터이고 그 길이는 7.3 Km이다. 그물망으로 개나 고양이 등의 작은 동물의 출입을 막기 위한 것이며, 땅 밑으로 50cm 깊이로 묻었고, 맨 꼭대기는 철망이나 전기철조망을 하였다. 입구 이외에는 2중으로 경계망을 형성하였다. 2층 중앙 경마장소와 훈련주변지역에 말보호망을 하여 관중과 말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못하도록 하였으며, 그 높이는 1.2m이고, 말이 시합장과 훈련장소간의 전용노선을 확보하였고, 맨 안쪽은 말 전용지역으로 주변과 2m로 허가없이 아무도 입장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전용 말 주변지역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과 차량에 청결과 소독을 필수적으로 진행하였다. 또한 검험검역부서는 병원매개체충방역단을 조직하고, “광저우마술장생물안전통제실시방안”을

19) 黃冠胜,『上揭書』, 中國質檢出版社, 2012, pp.513-519.

제정하여 경마대회장소에 안전생물안전방제를 진행하였다. 말의 마구간에 창과 문 그리고 환풍구에 가는 창호망을 설치하고 마구간내에 모기를 박멸할 뿐만 아니라 말들이 경마장에 입장하기 이전에 경마장내 유량하거나 야생하는 동물의 진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층구조의 순환감시를 하고 병원매개체의 모기, 붉은 불개미 등의 생물안전을 감독하고 통제하였다.

한편, 국가질검총국이 국제적인 인증을 받기 위하여 2010년 1월 유럽 수의대표단은 중국 광저우에 현장을 방문하여 말 관련 동물의 크린에어리어 설정과 검험검역정책과 관련 법규, 기술수준, 실험실기술, 특히 격리검역능력 등에 대해서 엄격한 조사에 편의를 제공하였다. 또한 국가질검총국과 유럽 조사단은 유럽에서 경마대회에 참가하고, 행사 이후 반출하는 검역조건, 동물검역증서합격, 중국내 경마대회 참가하는 말에 대한 검역요구수준, 중국내 전염병 미발생지역의 말에 대한 행사참여, 유럽으로 영구적인 반출 검역문제 등에 대해서도 협상하였다. 그 결과 2010년 5월 13일 유럽은 정식으로 2010/266/EU결정[20]을 선포하고, 광저우에서 무역병지역으로 “유럽연합이 인가한 말 임시반출경마대회참여국가명단”의 목록에 포함시켜 해당 지역에서 반입한 말을 유럽으로 임시반출을 승인받았다. 2010년 11월 29일 경마대회에 참가하였던 말이 자국으로 안전하게 반송조치하여 광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경마검역 수출입업무를 최종적으로 완성할 수 있었다.

4) 위생검역 관할권에 관한 사례[21]

중국의 현급 동물검역점(站)[22]은 모 식품기업이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한 촌충이 있는 돼지고기와 질병이 없는 돼지고기를 혼합하여 판매하고 있다는 대중의 고발건을 접수하였다. 이에 해당 지역 현급 동물검역점은 즉각 해당 식품기업의 판매점이 있는 관할부서에 현재 판매하고 있는 돼지고기에 대해서 검역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해당 검역 관할부서는 촌충알이 있는 돼지고기를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식품기업에 대해서 3,000위엔의 벌금을 부과함과 동시에 즉각 영업정지를 명령하였다.

식품기업은 벌금통지서를 받은 이후 이의제기 기한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았고 현급 동물검역점의 행정처벌결정도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현급 동물검역점은 해당 식품기업에 대해서 현급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였다. 현급 인민법원은 동물검역점의 행정처벌결정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식품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현급 위생방역점이 현급 동물검역점의 행정처벌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였다. 왜냐하면 현급 동물검역점은 단지 가축과 동물에 대해서 검역을 진행하고 관련 위반자에 대해서 행정처벌을 할 수 있으며, 도살 이후 식품으로 된 가축동물에 대해서 검역을 진행하여 관련자에 대해서 책임을 처벌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식품업자가 판매하는 촌충이 있는 돼지고기를 판매한 행위는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따라서 위생방역점이 행사한 검역권과 처벌권은 현급 동물검역소가 검역과 처벌은 너무 앞선 것으로 동물검역점의 이와 같은 행위는 월권행정행위이라는 것이다.

이에 현급동물검역점은 다음과 같이 항변하였다. “동물방역법” 제48조와 관할성 인민재정법제의 실시조례에 따라서 돼지고기는 축산물에 속하며, 동물검역점이 당연히 권한과 처벌을 가지고 있다

20) 欧盟兽医委员会于2010年5月11日做出决定（编号：欧盟2010/266/EU）将中国从化无疫区列入“欧盟认可的马匹临时出口参赛国家/地区名录”，并允许来自该地区的马匹临时返回欧盟并可永久性出口欧盟;http://www.horsing.org/article-306-1.html [2022.08.17.]

21) 王国平,『上揭書』, 科学出版社, 2016, pp.176-178.

22) 중국에는 성(省)급 동물전염병예방통제센터가 있고, 현(縣)급 동물전염병예방통제센터 그리고 향(鄕),진(鎭)급 동물수의소가 있다. 본 사례의 동물검역점은 현급 동물검역기관을 칭한다.

고 주장하였다. 현 인민법원은 본 사건의 집행 과정에서 행정관할권쟁의에 관한 사건에 대해서 현 인민정부가 현 동물검역점과 현 위생검역점간의 행정관할권의 범위를 결정할 것을 건의하였다. 왜냐하면 본 사건의 경우 모 현 동물검역점과 위생검역점간에 발생한 논쟁은 “동물방역법”과 “식품위생법”의 관련 기관간에 “돼지고기”에서 발생한 분쟁이기 때문이다.

“동물방역법” 제32조와 41조의 규정에 따르면 미가공돼지고기는 동물제품에 속하며, 동물방역감독기관이 표본수집, 검역유예와 검역실시를 할 수 있으며, 검역증명서가 없는 것에 대해서 추가적인 보충검역 및 이중검역을 할 수 있다. 전염병에 감염되거나 혹은 감염의심이 있는 경우 격리검역 밀봉과 처리를 할 수 있다. 만약 돼지고기가 검역을 거쳐 불합격하였다면 동물방역감독기관은 “동물방역법” 4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영업정지를 명령하고 즉시 유효한 조치를 취하고 이미 판매된 돼지고기에 대해서 회수조치하고, 위법한 소득과 미판매 돼지고기에 대해서 몰수처분을 할 수 있다. 상황이 엄중한 경우에 추가적으로 위법소득의 5배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따라서 동물검역감독기관의 모 현 동물검역점은 해당 식품회사가 판매하는 촌충돼지고기 사건에 대해서 관할권을 가진다는 것이다.

반대로 “식품위생법” 제54조에 따르면 “식품”이란 일반대중들에게 제공하는 식용 또는 음용의 성분과 원료 및 전통적인 식품과 약품의 물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하지만 치료용 목적의 물품은 포함되지 않으며, 본 사건의 대상인 돼지고기는 식품에 포함된다. 위생행정부서는 식품위생감독책무를 담당하고 있다. 촌충이 있는 돼지고기는 “식품위생법” 제9조의 규정에서 생산과 판매를 금지하는 식품이며, 위생행정부서는 해당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서 경영자에게 영업정지명령을 부과할 수 있으며, 판매한 식품에 대해서 즉시 회수하도록 공고하고, 해당 판매식품에 대해서 위법소득에 대해서 몰수 조치할 수 있다. 위법소득의 1배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위법소득이 없는 경우 1,000위엔 이상 50,000위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사건이 엄중한 경우 위생허가증을 취소할 수 있다. 이에 따라서 모 현 위생국은 법에 의거 해당 사건에 대해서 관할권을 가진다.

하지만 그 하급기관의 현급 위생방역점은 법집행의 주체가 아니며, 현급 위생방역점은 해당 사건에 대해서 관할권이 있다고 주장할 수 없다. 왜냐하면 벌금처벌을 결정하기 이전에 직무관할권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일반적으로 “우선 집행부서가 우선 관할권을 가진다”라는 원칙에 따라 가장 먼저 본 사건을 처리한 기관이 관할권을 가지기 때문이다. 또한 기타 기관이 벌금을 부과 및 처벌을 할 경우 가장 우선 관여한 기관이 차후에 관여한 기관으로부터 그 건의를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기타 기관이 가장 우선 관여한 기관이 관할권이 없는 경우 “행정처벌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상급기관에 관할권 지정을 서면으로 요청하면 된다.

4. 사례분석

1) 위생검역 제도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중국에서 2008년 “멜라민” 가짜 분유사건 이후 한국에서도 멜라민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이어졌다. 사건 발생이후 중국의 국가질검총국은 상무부, 해관총서와 연합하여 “인체용 식품과 동물사료 첨가제 및 원료에 대한 수출입검험검역보고의 공고”를 2007년 제70호로 하달하고 124개의 인체용

식품과 동물사료첨가제 및 원료제품에 대해서 “수출입검험검역조사수출입상품목록”을 나열하고 수출입검험검역기관에 감독을 거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124개의 제품에 단백질, 비타민, 광물질 등 첨가제가 포함되며, 모든 수출입사료에 대해서 법에 의거 검험검역을 하도록 하였다. 전국 질량업무회의 정신을 확실하게 관철하고, 수출입농산품질량안전전문업무를 체계화하기 위하여 국가질검총국은 가장 먼저 수출농산품품질안전보장체계를 만들었고, 수출기업 모두 등록등기제도를 실시하며, 모든 수출농산물의 재배, 양식, 가공, 포장, 보관기업들은 등기등록과 관리범위를 지정하도록 하였다. 수출사료에 대해서 2007년 10월 15일부터 등기등록을 하지 않은 수출사료생산가공기업은 수출을 할 수 없으며, 수출사료에 대해서 원산지 감독관리와 운송과정감독을 명확하게 하였다.

하지만 중국이 식품내 질소함량 측정방법을 단백질 함량으로 평가하는 키엘달법(Kjeldahl method)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고, 멜라민에 대한 자국내 생산과 식품에 대한 규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미국의 애완동물에 대한 대규모 사망 다음 해인 2008년 9월 중국과 홍콩에서 멜라민 성분이 포함된 일명 “가짜분유”를 먹은 50,000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신장질환으로 발생했고 12,892명의 소아들이 입원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4명이 신장결석과 신부전으로 사망하였다.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자 국무원은 우유제품에 대한 멜라민 사건에 대한 통지를 시작으로 중국은 2008년 10월에 “유제품안전감독관리조례”를 신속하게 제정하였고, 이후 유제품에 멜라민 성분의 첨가와 그 관리방법 등의 규정들을 제정하여 동물과 동물제품에 대한 위생검역 관련 규정들이 제정되면서 부족한 위생검역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체계화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2011년 3월 중국 뉴스에 일명 “독 돼지”사건이 발생하여 중국의 대중들에게 또 다시 큰 충격을 준 위생검역 사건이 발생하였다.[23] 본 내용은 중국의 양돈업자가 돼지사료에 돼지의 성장을 촉진하고 상대적으로 지방을 연소시키는 클렌부테롤(Clenbuterol)을 첨가하여 대량으로 유통시키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클렌부테롤은 특정 약물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단백질 합성을 촉진하고 지방 축적을 억제하는 페닐에탄올아민 화합물 계열의 총칭으로서 이들은 모두 아드레날린성 수용체(주로 베타 수용체) 작용제에 속하며 구조에 따라 아닐린형, 페놀형 및 디페놀형의 세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24]

한국식품안전연구원에 따르면 클렌부테롤은 가축의 성장촉진제와 알레르기 호흡계 질환의 치료제가 그 목적이지만 가축의 지방 당 근육무게를 증가시키는 불법의약품으로 사용될 수도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사람에게 나타나는 부작용으로 두통, 졸음, 신경과민, 위장장애가 있으며 심한 경우 사지마비가 나타나며 2006년 FDA는 모든 치료제에서 클렌부테롤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고 한다.[25]

왜냐하면 인간이 짧은 시간안에 클렌부테롤을 과량 섭취하면 급성 중독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이는 주로 심계항진, 가슴 답답함, 현기증, 두통, 메스꺼움 및 구토, 목 및 등 근육통, 혈압 상승으로 등의 임상이 나타나며, 심하면 발작성 심실상 빈맥, 동방 차단, 조기 박동 등을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9년 중국 광저우에서 클렌부테롤을 투여한 돼지고기를 섭취한 사람들이 앞에서 언급한 증상을 보였고, 70명 이상이 입원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 이후에 중국에서 40개 이상의 지역에서 클렌부테롤을 투여한 돼지들이 조사되었고 이에 대한 내용을 2011년 3월 11일 중국의 CNN 방송이 집중적으로 보도[26]하여 중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관심을 보였다. 해당 사건

23) 王艺璀,「近十年我国"瘦肉精"相关事件[J]」,『食品安全导刊』, 2017, 21, pp.34-35.
24) https://zh.wikipedia.org/wiki/%E7%98%A6%E8%82%89%E7%B2%BE#cite_note-67 [2022/08/19.]
25) http://www.kfsri.or.kr/02_infor/infor_01_02.asp?idx=10 [2022.08.19.]
26) https://www.163.com/news/article/6V67PHMS0001124J.html [2022.08.19.]

이 이후 중국에서 클렌부테롤 계열의 약품에 대해서 동물에게 사용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농업부의 통지[27]를 통하여 위생검역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에서의 위생검역 관련 사건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들 사건들이 중국에 한정하지 않고 그 문제가 여타 국가로 연결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중국의 식품 안전에 대한 제도상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28]들이 제시되고 있으나 여전히 그 효과에 대해서는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있는 실정이라 중국의 위생검역에 대한 사건들과 관련 규정들을 지속적으로 조사 연구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 국제적 동물검역 경험으로 동물산업 국제적 Biz모델 수립

말의 전염성 질병에는 선역(Strangles)과 같은 세균성 전염병, 말파이로플라즈(Qquine piroplasmosis)와 같은 기생충성 전염병, 아프리카마역(African horse sickness)과 같은 바이러스성 전염병 있으며,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는 마과에 모두 감염이 되는 질병과 말에만 한정하여 발생하는 전염병으로 구분하고 있다.[29] 중국의 경우 말에 대한 질병으로 1급과 2급으로 각각 구분하고 있으며, 말에 대한 1급 전염병으로 아프리카말질병(African horse sickness, AHS)을 규정하고 있다. AHS는 바이러스는 1600년대 중반에 사하라 사막의 남쪽에서 처음 기록되었고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에서 풍토병으로 알려졌었다. 현재 모로코, 중동, 인도 및 파키스탄을 거쳐 이베리아 반도와 태국에까지 발병을 보이는 질병이다. AHS는 아프리카 말 질병 바이러스에 의해 야기 된 전염성이 높고 치명적인 질병으로 이것은 일반적으로 말, 노새, 당나귀에 영향을 미친다. 이 질병은 Reoviridae 가족에 속하는 Orbivirus 속의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며, 이 질병은 이 바이러스의 아홉 가지 혈청 중 하나에 의해 발생할 수 있고 직접적으로 전염성이 없지만 곤충 벡터에 의해 퍼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0]

한편 중국에서 말에 대한 2급 전염병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말전염성빈혈(equine infectionus anaemia, EIA)[31], 말유행성임파선염(epizootic lymphangitis, EL), 말비종창(glanders)[32], 말바베시아병(equine babesiosis, EB), 트리파노소마 에반시병(trypanosoma evanis infection) 등의 질병들이 분류되어 있다.

국제적인 경마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이동하는 말에 대한 위생검역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한국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4-82호에 따르면 2014년 8월부터 국제경주마 및 복귀마 수입위생조건이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 동 규정은 가축전염예방법 제34조 제2항 및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국제경주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경주마에 대한

27) 2021年3月19日，农业农村部办公厅印发『关于开展"瘦肉精"专项整治行动的通知』

28) 김은영, 「중국 식품안전관리의 제도상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에 대한 법적 연구 - 블록체인 활용론을 중심으로」,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2018, 제35집.

29) 문진산, 예정용, 김현주, 권창희, 「최근 국제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말 전염병 현황과 국제화를 대비한 국내 말 전염병 관리 대책 방안」, 『대한수의학회지』, 2008, 5, p.439.

30) https://en.wikipedia.org/wiki/African_horse_sickness [2022.08.18.]

31) 한국에서는 "말접촉성빈혈"이라고도 번역하고 있음

32) 세균(Burkholderia mallrei) 감염에 의해 말, 당나귀, 노새 등의 단제류에 발생하는 치사율이 높은 전염성 질병임으로 병소의 형성부위에 따라서 폐비저(肺鼻疽),비저(鼻疽), 피저(皮疽)의 3형으로 나누며, 감염말의 대부분은 편측 또는 양측의 비공에서 회황색의 점조한 농성 비즙을 배출한다; https://www.gyeongnam.go.kr/gnvri/board/view.gyeong?boardId=BBS_0000138&menuCd=DOM_000000403002002001&paging=ok&startPage=1&dataSid=2190778

수출국의 검역내용 및 가축위생 상황 등 경주마 검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본 규정에 제정되기 전에 2013년 한-일간 국제경마대회를 최초로 개최한 바 있는데 동 경마대회에서 일본의 말을 한국으로 반입하기 위한 위생검역에 관한 규정 및 협의체가 구성되었다. 동 행사의 검역과정에서 일본 국제교류경주 출전 말 수출위생조건 검토에 대해서는 동물검역과가 담당하고, 한국-일본 국제경주 참가 말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고시는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126호에 따라 이루어졌고, 동 검역의 협의체는 한국의 농림축산 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한국 마사회와 일본의 농림수산성, 일본검역본부, 일본 마사회 등이 각각 참여하였다. 이처럼 국제경주대회에 참가하는 말의 반입과 복귀마의 위생검역은 관련 규정과 참여 기관과 관련 단체 등이 많고 또한 해당 업무의 기간도 오래 지속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동물의 위생검역에 대한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은 광저우 아시안 게임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국제경주마에 대한 위생검역의 운영과 최종적인 마무리 단계까지 할 수 있었던 국제적인 위생검역의 경험은 향후 중국이 국제경마대회용 위생검역 부분에 있어서 국제적인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을 축적하였고, 중국 우한에서는 초기에 중국내 경마대회의 운영이 앞에서 언급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는 매년 10월 국제적인 국제경마대회로 승격 운영하고 있다.[33] 한편 2023년 9월 23일부터 중국 항저우(杭州)에서 아시안 게임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곳에서도 국제경마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중국 항저우 아시안 게임은 2010년 11월 광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적용한 크린에어리어 설정 등 다양한 위생검역 시스템을 적용 및 운영할 예정이다.[34]

5. 결 론

본 연구는 중국의 수출입 동물과 동물제품에 대한 위생검역의 법적체계와 시스템 및 위생검역분쟁 분쟁사례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중국의 동물 및 동물제품에 대한 위생검역의 법적체계와 시스템은 위생검역의 국제적 분쟁이 발달함에 따라 그 체계성이 구체적 및 명확하게 되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앞의 몇 가지 위생검역 국제적 분쟁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위생검역의 중요성이 인간 및 동물에게까지 그리고 중국과 관련 국가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위생검역의 체계는 단순히 법률적인 체계뿐만 아니라 위생검역 전문인력, 위생검역 관련 장비의 고도화 등 종합적인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가능하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중국의 동물 동물제품에 대한 위생검역의 수준이 국제적인 수준에 도달하여야 국가 상호간 위생검역의 신뢰성 증대와 더불어 국제적인 경마대회의 상설화로 성장하는 말산업 글로벌 Biz모델까지 성장이 가능하다는 사례를 보여주었다.

향후 의료 및 위생검역 관련 기술발전과 더불어 한 중 서비스무역FTA와 중국의 주요 공항과 항구의 통관항구로서의 역할증대에 따른 위생검역의 변화에 대한 후속적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33)https://baike.baidu.com/item/%E6%AD%A6%E6%B1%89%E5%9B%BD%E9%99%85%E8%B5%9B%E9%A9%AC%E8%8A%82/5820848 [2022.08.17.]

34) http://news.cnhubei.com/content/2021-11/14/content_14247336.html [2022.08.17.]

【사회과학분과】 발표 ②

How does leisure participation benefit life satisfaction for demographic overworking adults in China? Testing curvilinear moderating effect*

Chen Nan**

【Table of Contents】

1. Introduction
2. Theoretical background and hypothesized relationship
   1) Conservation of resources theory and effort-recovery model
   2) Effects of working hours on life satisfaction
   3) Curvilinear moderating effect of leisure participation
3. Methodology
   1) Data and sample
   2) Measures
   3) Statistical analyses
4. Results
   1) Hypothesis1 Linear and quadratic regression
   2) Hypothesis2 Curvilinear moderation effects
5. Discussion

1. Introduction

Long working hours have been considered as occupational risk factors. Exposure to long working hours cause physical illnesses (e.g., ischemic heart disease, stroke) and affect mental health[1]. In response to the stress induced by long working hours, overworked people may experience physiological reactions such as fatigue, burnout, unhealthy lifestyle; these changes may affect life satisfaction[2]. Overworking is defined as “hours provided worked in excess of normal weekly

* This paper is unfinished.

** 고신대학교 중국어중국학과 조교수 (chennan@kosin.ac.kr)

1) Pega et al., Global, regional, and national burdens of ischemic heart disease and stroke attributable to exposure to long working hours for 194 countries, 2000-2016: A systematic analysis from the WHO/ILO Joint Estimates of the Work-related Burden of Disease and Injury. Environ Int. 2021 Sep;154:106595.

2) Choi et al., Long working hours and depressive symptoms: moderation by gender, income, and job status. J

working hours, which normally extend the right to overtime compensation"[3]. Many countries in the world have regulated 40 hours/week as standard working hours and some countries have se t maximum weekly working hours limit as 48 hours[4]. Nevertheless, overworking is a common phenomenon around the world.

Overworking phenomenon has been studied in various fields through multiple perspectives. So me scholars argued that overworking is related to cultural orientations and religious ethics[5]. Ot hers asserted that overworking is affected by information revolution, employment instability whi ch is attributed to international economic competition and work-and-spend cycle which is induce d by consumerism[6]. With respect to coping method of overworked stress, researchers found tha t leisure time contributes to personal well-being and leisure participation operates as a buffer ag ainst negative life events to predict greater mental or physical health[7].

Chinese working adults have relative longer working time and shorter leisure time in the worl d (OECD, 2022). According to Chinese leisure and well-off index, 48.6% of respondents have an average leisure time less than 10 hours a week in 2018 and 73.6% of the respondents reported t hat discretionary time is insufficient in 2020[8]. With respect to young workers, 2014 China Dyna mic Labor Force Survey (CLDS) found that 51.64% of the young working adults worked more t han 44 hours per week and 58.57% said they felt "physically and mentally exhausted" several ti mes a month[9]. Long working hours without efficient physical and mental recovery may impair quality of life. Eighteen young migrant workers committed suicide at Foxconn production faciliti es in 2010 has drawn worldwide attention[10]. Some studies found that young working adults suf fered from internalized overworking due to time pressure and alienated labor circumstance[11] and these vulnerable working conditions exacerbated their life satisfaction and wellbeing[12]. Thus, re ducing negative effect of overworking through leisure time is a critical issue to improve life sati sfaction in China.

Affect Disord. 2021, 286:99-107.

3) Ghosheh, Working conditions laws report 2012: A global review, International Labour Office - Geneva: ILO. 2013, Available at: http://www.ilo.org/dyn/travail (2022-6-23), 3.

4) Ghosheh, Working conditions laws report 2012: A global review, International Labour Office - Geneva: ILO. 2013, Available at: http://www.ilo.org/dyn/travail (2022-6-23).

5) Kang et al., Affective and Normative Motives to Work Overtime in Asian Organizations: Four Cultural Orien tations from Confucian Ethics. J Bus Ethics 140, 2017, 115 - 130.

6) Morioka, K. The overwork era, New Star Press, 2018; Schor, The Overworked American: The Unexpected D ecline of Leisure, Basic Books, 1993.

7) Iso-Ahola, psychological analysis of leisure and health. In Haworth, J. T. (Ed.), Work, leisure and well-being (pp. 131-144). London: Routledge, 1997.

8) Liu, China Leisure Well-off Index: 96.8 How do Chinese people choose travel destinations? 2020.12.09 Availa ble at: https://www.chinaxiaokang.com/ (20220621)

9) Zhu & Wang, Class Anxiety Syndrome: The Spiritual Crisis and Way Out of Contemporary Young adults, C hina Youth Study, 11, 2018, 77-82.

10) Ngai & Chan, Global Capital, the State, and Chinese Workers: The Foxconn Experience. Modern China. 201 2;38(4):383-410.

11) Ren & Liu, "Insomnia in academia": Administrative Logic and the Time Pressure of Young College Teacher s, China Youth Study, 8, 2021, 14-21.

12) Li et al., Research on the influence of overtime labor and work autonomy on the well-being of young work ers: Empirical analysis based on CLDS (2016) data, China Youth Social Sciences, 2, 2021, 88-95.

Despite the empirical contributions from the previous studies, some issues regar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overworking, leisure participation, and life satisfaction remain unresolved. First, prior research has heavily focused on linear relationship between working time and life satisfaction while neglecting the potential curvilinear relationship. This analytic approach might be too simplistic to account the dynamics relationship of these two variables. Second, several empirical studies have found that leisure time can buffer negative life event and enhance well-being. However, it is not clear whether specific type of leisure activity has stronger moderating effect than others. In addition, it is worth exploring the extent to which leisure participation buffers the curvilinear effect of working hours on life satisfaction. Third, little research has focused on how vary age and gender groups could benefit from leisure participation. Specifically, it is unknown whether leisure participation may allow different demographic overworking adults to deal with stress and enhance life satisfaction. Thus, further research could provide a way to intervene the vulnerable working circumstance and help the disadvantaged overworking group to recover from job demands. The present study used data collected from the 2015 China Health and Nutrition Survey (CHNS) to gain a more specific understanding of the curvilinear relationship between working time and life satisfaction as well as the curvilinear moderation effect of leisure participation on this relationship.

2. Theoretical background and hypothesized relationship

1) Conservation of resources theory and effort-recovery model

Conservation of resources theory notes that people struggle to maintain and create resources that have instrumental value and symbolic value, such as object resources, conditions, personal characteristics, and energies[13]. Both perceived and actual loss or lack of gain of these resources may trigger mental stress and exacerbate well-being[14]. Though individuals may utilize other resources to compensate the loss, people who lack resources are more vulnerable to gain additional resources[15]. According to conservation of resources theory, working time, as personal energy, could help to enhance object resources (e.g., house, private car) and social conditions (e.g., seniority, tenure). However, during an unfavorable overworking condition, individual may suffer from loss of work-life balance and mental depression. In order to restore resources, one may draw on other resources to make up for these losses. Scholars indicated that activities during off-job time which has mastery and control aspects could help to restore threatened internal resources (e.g., energy, self-efficacy, and positive mood) and benefit recovery[16].

13) Hobfoll, The ecology of stress. Washington, DC: Hemisphere, 1988.
14) Hobfoll, Conservation of resources. A new attempt at conceptualizing stress. Am Psychol. 44(3), 1989, 517-518.
15) Dohrenwend, Social status and responsibility for stressful life events. In C. D. Spielberger & L G. Sarason (Eds.), Stress and anxiety (Vol. 5, pp. 25-42). New York: Wiley, 1978.

Effort-recovery model presents correlation between processes of workload (e.g., work demands, work potential, and decision latitude) and load effects which concern the short-term psychological reactions[17]. This model assumed that when no special demands are required, the psycho-biological systems will recover from baseline level of workload while insufficient recovery and continued exposure to demand may stimulate negative load effects and influence well-being[18]. Meanwhile, this model focus on the job control characteristics that are correlated with opportunities for recovery, such as work breaks and holidays[19]. Scholars suggested that activities which have aspects of psychological detachment from work and relaxation can fulfill psychological needs and facilitate recovery[20].

2) Effects of working hours on life satisfaction

The first hypothesis concerns the correlation between weekly working hours and life satisfaction. As noted, the conservation of resources theory and effort-recovery model clearly suggests the main effect of workload on health and life satisfaction. Many previous studies have been generally supportive of such linear effects[21]. For example, Holly & Mohnen (2012) used representative panel data from German households to examine the impact of working hours on work life balance. They found that overtime have positive effects on life satisfaction if employees' overtime is appropriately compensated. Lee (2021) employed longitudinal data from the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to test the correlation between reduced working hours and life satisfaction. She found that higher socioeconomic status showed a significantly sharper increase in life satisfaction when working hours decreased. Other studies found the relationship between working time and life satisfaction focusing on specific occupation[22].

Although these studies shed light on the convincing evidence of the effects of working time on life satisfaction, they neglected potential curved relationships between variables. In a curved relationship, the change in the life satisfaction associated with a one-unit shift in the working hours may not be a constant value and varies based on where to start on the regression line[23]. T

16) Korpela & Kinnunen, How Is Leisure Time Interacting with Nature Related to the Need for Recovery from Work Demands? Testing Multiple Mediators, Leisure Sciences, 33:1, 2010, 2.
17) Meijman & Schaufeli, Psychological fatigue and work, The Psychologist, 6, 1996, 236-242.
18) Meijman & Kompier, Bussy business: How urban bus drivers cope with time pressure, passengers, and traffic safety.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Psychology, 3(2), 1998, 109 - 121.
19) Meijman, Effort and recuperation: A conceptual framework for psychological research of workload. In T.F. Meijman (Ed.), Mental workload and job stress: A work psychological approach, (pp. 5-20). Assen/ Maastricht: Van Gorcum, 1989.
20) Newman et al., Leisure and Subjective Well-Being: A Model of Psychological Mechanisms as Mediating Factors.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5, 2014, 555-578.
21) Holly & Mohnen, A. Impact of working hours on work-life balance, SOEP papers on Multidisciplinary Panel Data Research, No. 465, Deutsches Institut für Wirtschaftsforschung (DIW), Berlin, 2012; Lee, Working hours and life satisfaction: finding blind spots from Korean panel data, International Review of Public Administration, 26:1, 2021, 92-109.
22) Jia et al., Working Hours, Job Burnout, and Subjective Well-Being of Hospital Administrators: An Empirical Study Based on China's Tertiary Public Hospitals, IInt J Env ron Res Public Health, 18(9), 2021, 1-13.
23) Frost, Regression Analysis: An Intuitive Guide for Using and Interpreting Linear Models, Statistics Jim Pub

his potential undesired effect of excessive working load has been examined in only a few studies[24]. For example, Schröder (2020) investigated at which point working hours cease to increase and start to decrease life satisfaction. His study showed that the life satisfaction of fathers increases more steeply with paid working hours while life satisfaction of mothers hardly depends on working hours. Wang (2015) identified curvilinear association between parents' working time and Subjective well-being of their children. He found that mother's working hours have no impact on children's satisfaction while there is inverted U-shape relationship between father's working hours and children's satisfaction. Thus, continuing increase of working time did not infinitely enhance life satisfaction, and in fact, excessive working load may have a negative effect on life satisfaction. Although these literature does measure the nonlinear impact of working time on life satisfaction, it is still unclear how this curvature relationship differs among each gender across age groups. Thus, further exploration using a diverse sample would yield more generatable results.

Young working adults in this study is defined 20-45 age range. Most of them belong to China's new generation who have benefitted from the relatively affluent living conditions while facing unprecedented job competition due to the deepening globalization[25]. As only child in a family, they are pampered by parents and more self-centered than the prior generations. Previous studies found that post 90's generation pay more attention to work-life balance and this balance improves their job satisfaction[26]. As the phenomenon of youth overwork is spreading in various industries in China, young working adults are increasingly coerced by working systems[27]. Meanwhile, dual-income family is the basic model of modern Chinese family. Chinese women work less paid hours than men while they have more unpaid labor hours and less leisure times at home[28]. When over-working blurs the boundaries between work and life, women and young worker may be more vulnerable to gain time resource and effectively restore their physical strength as well as personal energy. Thus, overworking will especially accelerate time pressure of these groups than others, which at a turning point might cease to increase and start to decrease their life satisfaction. Accordingly, the following hypothesis was developed:

Hypothesis 1. Weekly working hours will show different invented-U shape curvilinear relationships with life satisfaction across different demographic groups.

---

lishing, 2019, 77.

24) Schröder, Men Lose Life Satisfaction with Fewer Hours in Employment: Mothers Do Not Profit from Longer Employment: Evidence from Eight Panels. Soc Indic Res 152, 2020, 317–334; Wang, Impact of Long Working Hours on Family Life in Korea, KDI Policy Study, No. 2015-01, ISBN 979-11-5932-100-9, Korea Development Institute (KDI), Sejong, 2015.

25) Li, Children of the reform and opening-up: China's new generation and new era of development. J. Chin. Sociol. 2020,7-18.

26) Wang & Fang, Raising wages or reducing overtime: Job type differences in job satisfaction among contemporary youth, China Youth Study, 1, 2022, 21-27.

27) Lian, The Tyranny of Time: A Review of Youth Labor in the Mobile Internet Era, China Youth Study, 7, 2021, 29-37.

28) Du et al., Where had time gone? Research report of Chinese time use survey, China Social Sciences Press, 2018, 94.

3) Curvilinear moderating effect of leisure participation

According to theory of conservation of resources and effort-recovery model, leisure participatio n acts as a resource to provide psychological detachment from work engagement, which may mi tigate stress and improve personal quality of life. Thus, we further argue that leisure participati on influences the expected inverted U-shape relation between weekly working hour and life sati sfaction. Leisure time availability has been associated with psychological well-being and can im prove life satisfaction for working adults[29]. It has been shown that both low-effort activities an d physical activities during leisure time promote recovery from work stress and enhance persona l wellbeing[30]. Previous studies also found that leisure activities had psychological benefits for hi gher stress working adults and could buffer the stressful working effect on life satisfaction[31].

Although the moderation effect of leisure particip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ful lif e event and life satisfaction has been documented, few studies have determined the extent to w hich leisure participation buffers the curvilinear effect of working hours on life satisfaction. Mor eover, it is not clear whether specific type of leisure activity has stronger moderation effect on this curvilinear moderation. Compare with people who do not have much time to participate in l eisure activities, people who have time to participate in leisure activities are more likely to reco ver from overwork pressures and facilitate work-life balance[32]. Hence, we expect overworking adults who participate in leisure activities may show higher levels of life satisfaction.

Hypothesis 2. Leisure participation will moderate the curvilinear, inverted U-shape relationshi p between weekly working hours and life satisfaction across different demographic groups.

3. Methodology

1) Data and Sample

This study utilized the cross-sectional data from 2015 China Health and Nutrition Survey (CH NS). The survey was designed to examine how the social and economic transformation of Chine se society affect health status and health behaviors in the changing environments in community

29) Iwasaki et al., Contributions of leisure participation in predicting stress coping and health among police and emergency response services workers. J Health Psychol. 2005 Jan;10(1):79-99.
30) Sonnentag & Fritz, Recovery from job stress: The stressor-detachment model as an integrative framework.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2015, 36(S1), S72S103.
31) Chen & Tsai, The Relationships between Leisure Time, Perceived Stress and Subjective Well-Being in You ng and Middle-Aged Working Adults in China, Leisure Sciences, 2022, DOI: 10.1080/01490400.2022.2074925
32) Cheng et al., W Work-leisure balance: Perceived organizational leisure support, Journal of Leisure Research, 52:2, 2021, 202-226.

organizations as well as individual economic, demographic, and social factors. The survey was c onducted using a multistage, random cluster process by an international team of researchers wh o visited households and drew samples in China. Three hundred and sixty communities, 7,319 h ouseholds and 20,914 individuals within 12 provinces were included in the study. These 12 provi nces contain approximately 45% of the Chinese population. More detailed information of data is available from this website: https://www.cpc.unc.edu/projects/china/about/design/survey). <Table 1> summarizes descriptive statistics among all variables using mean and standard deviations (S D).

<Table1> Descriptive statistics of study variables

	Minimum	Maximum	Mean	SD
Life Satisfaction: LS	1	5	2.26	.85
Working hours: WH	0	168	43.88	15.97
Age	20	65	47.26	11.72
Sex	1	2	1.53	.49
Marital Status: MS	1	5	2.03	.54
Household Registration: HR	1	2	1.54	.49
Education: Edu	1	6	2.6	1.38
TV Watching: TW	0	21	1.39	2.14
Online Activities: OA	0	11	.14	.42
Reading: RE	0	20	.09	.49
Playing Sports: PS				
Walking: WA				

2) Measures

Dependent variables

In this study, life satisfaction was assessed with a single-item scale that was stated as How would you rate the quality of your life? In the questionnaire, the respondents were provided wit h five response categories ranging from 1 (very bad) to 5 (very good). Thus, a higher value in dicated higher SWB.

Independent variable

The main independent variable to explain life satisfaction is weekly working hours, including overtime. For workers whose regular working hours were fixed (full-time job) or not fixed (par t-time job), their total weekly working hours were all calculated by adding their weekly regular and overtime working hours.

Moderating variables

Previous studies have divided leisure activities into two categories: inactive leisure activities a

nd active leisure activities. Inactive leisure activities refer to sitting activities during leisure time (e.g., TV viewing, computer use, and reading) whereas active leisure activities refer to individua l exercise activities (e.g., walking, running, and swimming) (WHO, 2020). There are a total of s even types of active leisure activities (i.e., “Martial arts”; “Gymnastics, dancing, acrobatics”; “Tr ack and field, swimming”; “Walking”; “Soccer, basketball, tennis”; “Badminton, volleyball”; “Othe r”) and six types of inactive leisure activities (i.e., “TV”; “Watching movies and videos online o r on a smartphone” ; “surfing the internet”, “Participating in chat rooms including QQ and WeC hat”; “Playing computer/smartphone games”; “Reading”) included in this study from the CHNS 2 015 dataset. One item was utilized to assess leisure participation: “Do you participate in this acti vity?” In this question, participants provided their participation experience for each leisure time activities (1=No, 2=Yes). Some similar activities were operationalized to form a broader category. For example, activities related to sports were combined into one category named “Playing sport s”. Thus, this study utilized leisure time participating in “TV watching”, “Online TV”, “Internet surfing”, “Online chatting”, “Online game”, “Reading”, “Playing sports”, and “Walking” as moder ating variables.

Control variables

Age, sex, marital status, household registration, and education, were used as control variables in this study. Age was a continuous variable, ranging from 20 years old to 65 years old. In ord er to examine whether the relationship between working hours and life satisfaction differs by ag e, age was dichotomized into young working group (20-45 years old) and middle & old working group (46-65 years old). Sex, marital status, and household registration were dummy-coded (fe male = 0 and male =1 for sex; single or divorced =0 and married =1 for marital status; rural = 0 and urban = 1 for household registration). Education level was measured with an ordinal scale (no education = 1, elementary school = 2, middle school = 3, community college = 4, four-year c ollege = 5, Master’s degree and over= 6).

3) Statistical analyses

The first section of the results uses linear and curvilinear hierarchical regression models to te xt weekly working hours and working hours squared on the life satisfaction of each of the four groups (young working adults, middle & old working adults, men, and women). This analyzes f or a nonlinear relationship between working hours and life satisfaction, where working hours ma y first increase and then decrease life satisfaction. At first, we centered the independent variable s because centering is critical for analysis in which curvilinear effect is found[33]. We entered w eekly working hours and control variables into the model, and then enter squared working hours to analyze whether squared working hours added a significant increment to the model. With res

33) Cohen et al., Applied Multiple Regression/ Correlation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 Routledge, 2002.

pect to curvilinear moderating effect, we entered weekly working hours and the respective leisur e activities facet in the first step; then entered the linear interaction term in the second step. In the third step, we entered squared working hours and in the fourth step, we entered the interac tion term between squared working hours and the respective leisure activities facet. The meanin g of the quadratic by interaction term between squared working hours and leisure participation i s that the quadratic relationship between working hours and life satisfaction varies in form as a function of the value of leisure participation[34].

4. Results

1) Hypothesis 1 Linear and quadratic regres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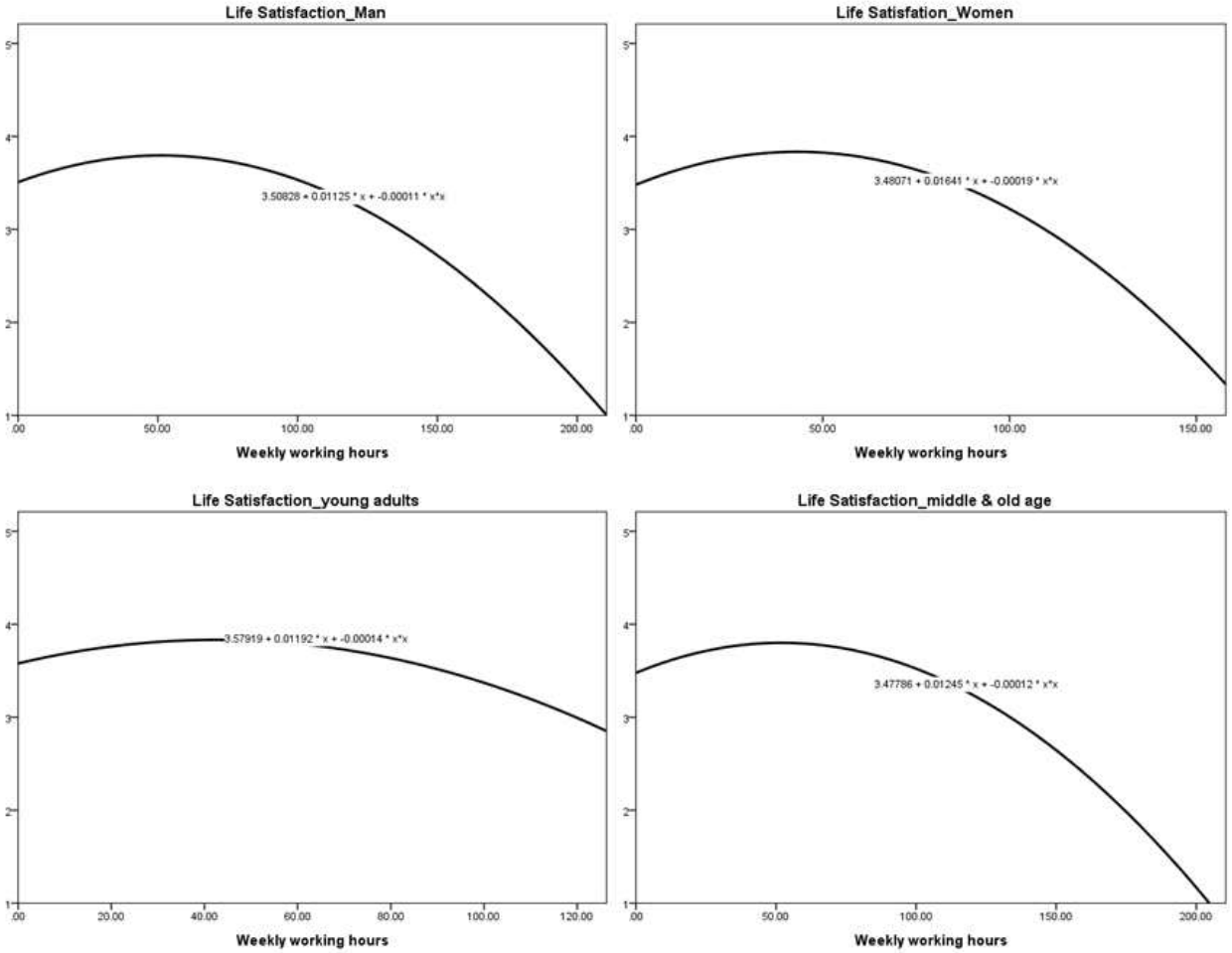


Figure1 Curvilinear relationship between working hours and life satisfaction for different demographic groups

This study first conducted a series of regression analyses to determine whether there were si

34) Aiken & West, Multiple regression: Testing and interpreting interactions. Sage Publications, Inc, 1991, 70.

gnificant linear relations between working hours categories and LS. Because of the demographic differences in working hours and LS, we conducted separate regressions for each sex and age groups. We then utilized the curve estimation model to determine whether the relations between weekly working hours and LS were quadratic rather than linear. Hypothesis 1 predicted the different U-shape curvilinear relationships between weekly working hours and life satisfaction across age and sex groups. This hypothesis was supported, such that the square terms of working hours had significant incremental effects on life satisfaction beyond their linear effects (= -.124, p < .01 for men; = -.149, p < .01 for women; = -.133, p < .05 for young adults; = -.163, p < .001 for middle & old adults). The visual representation of the associations between working hours and LS are shown in Fig. 1. Working hours and LS exhibited inverted U-shape relationships across four demographic groups, indicating that more working hours does not always lead to higher life satisfaction. We then calculated the vertex of each group to verify the maximum point on these equations' parabola. Thus, the most ideal quantities of weekly working hours for life satisfaction were 51 hours for men (X-vertex=51.13, Y-vertex=3.79); 43 hours for women (X-vertex=43.18, Y-vertex=3.83); 42 hours for young adults (X-vertex=42.57, Y-vertex=3.82); 51 hours for middle and old adults (X-vertex=51.87, Y-vertex=3.77).

2) Hypothesis 2 Curvilinear Moderation effects

Hypothesis 2 states that the curvilinear relationship between working hours and life satisfaction is moderated by leisure participation. This hypothesis was supported, the coefficient related to the interaction term between squared working hours and life satisfaction was significant (= -.22, p < .01 for young working adults and TV watching; = .147, p < .1 for young working adults and Reading; = .16, p < .05 for young working adults and Surfing; = .147, p < .05 for young working adults and Gaming; = .202, p < .01 for women and Surfing; = .162, p < .01 for women and Chatting; = .156, p < .05 for men and Gaming). The significant interaction between squared working hours and life satisfaction are displayed in Figure 2, 3, and 4. It can be seen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weekly working hours and life satisfaction followed an inverted U-shape given that participants reported participating in TV watching for young working adults. On the contrary, the relationship between weekly working hours and life satisfaction followed a U-shape given that participants reported participating in Reading, Online surfing, and Gaming for young working adults; Online surfing and chatting for women; Gaming for m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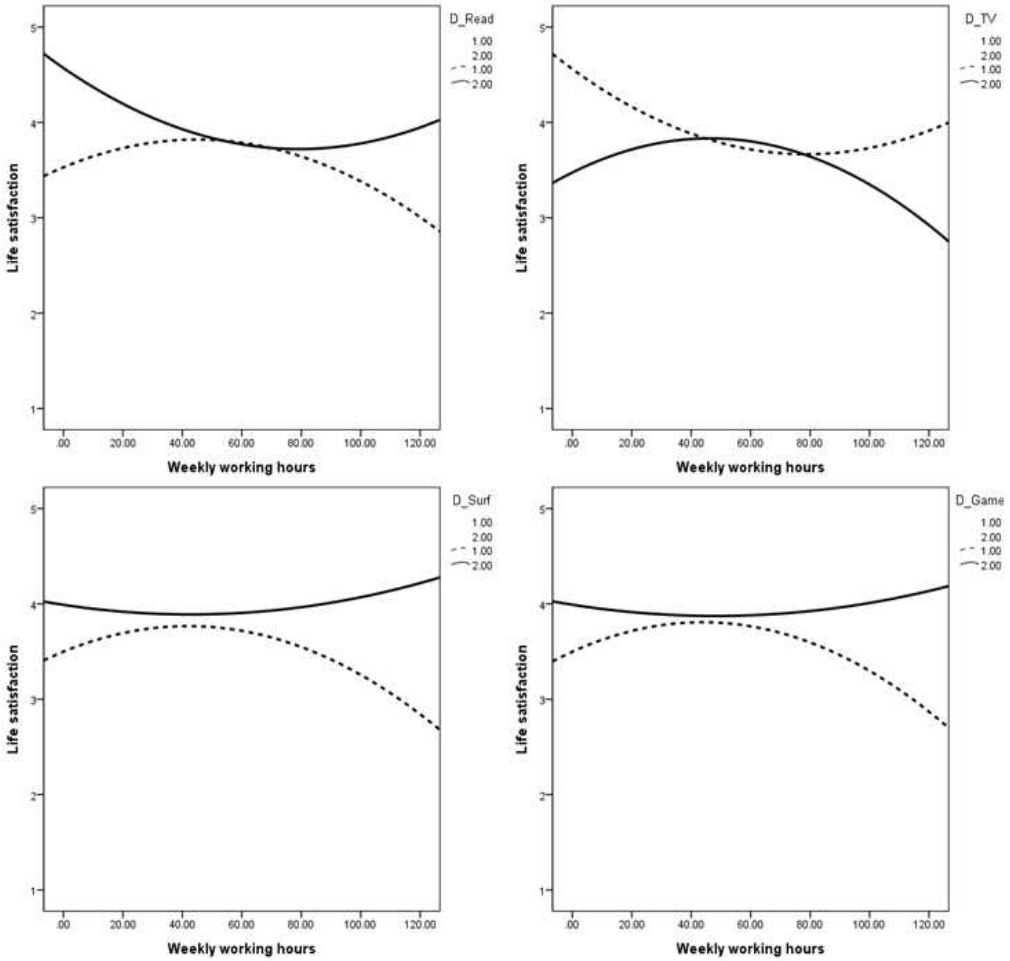


Figure2 Curvilinear interaction effect of working hours and leisure participation on life satisfaction for young adul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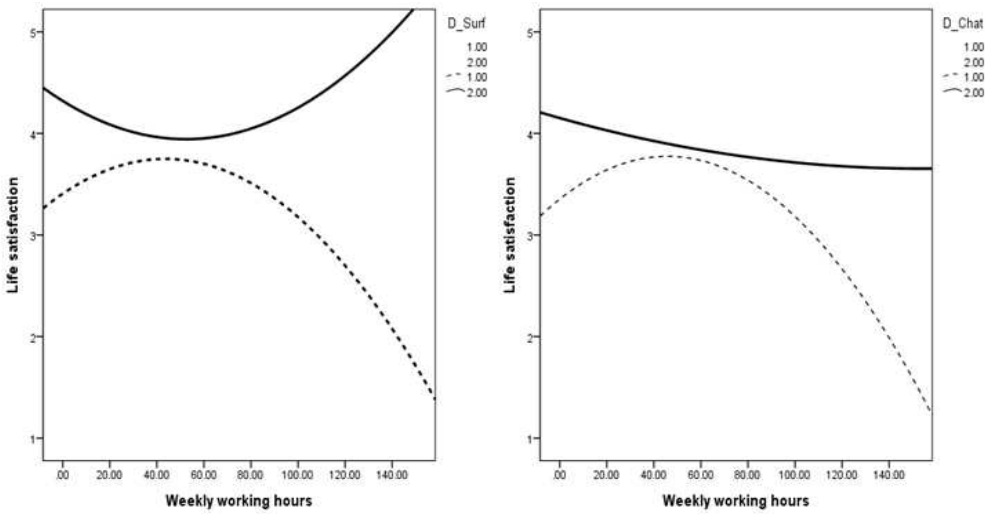


Figure3 Curvilinear interaction effect of working hours and leisure participation on life satisfaction for working wom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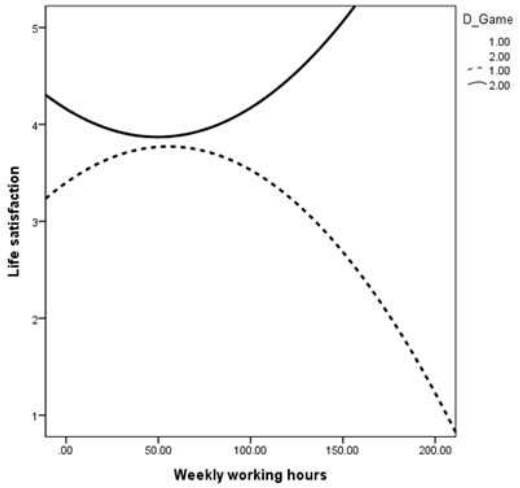


Figure4 Curvilinear interaction effect of working hours and leisure participation on life satisfaction for working men

5. Discussion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curvilinear relationship between working hours and l ife satisfaction and the buffer effect of leisure participation on this relationship by extending effo rt-recovery model[35] and integrating the perspective of conservation of resources theory[36]. Ex tant studies have been dominated by investigating on linear relationship between working hours and life satisfaction while neglecting potential curvilinear relationship between them[37]. The findi ngs of the current study illustrated complex relationships between working hours and life satisfa ction across different demographic groups that were not captured by previous studies.

In line with the extant research, the results provide evidence for an inverted U-shape relation between working hours and life satisfaction[38]. On the whole, a moderate level of working hours was optimally related to higher life satisfaction than low or high levels of working hours. With respect to demographic groups, the life satisfaction of woman increases less with working hours and peaks at lower working hours than that of man. Meanwhile, the life satisfaction of young working adults increases less with working hours and peaks at lower working hours than that of middle and old-aged working groups. Our results emphasize the importance of accounting for curvilinear effects when examining relations between working hours and life satisfaction. This fi nding extends research on antecedents of working hours because most studies have not focused on demographic differences so far. The results suggest that overworking cause a lower life sati

35) Meijman & Mulder, Psychological aspects of workload. In P. J. D. Drenth, H. Thierry, & C. J. de Wolff (E ds.), A handbook of work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Work psychology volume 2 (pp. 5 - 33). Psychology Press/Erlbaum (UK) Taylor & Francis, 1998.

36) Hobfoll, The ecology of stress. Washington, DC: Hemisphere, 1988.

37) Song & Lee,Work Hours, Work Schedules, and Subjective Well-being in Korea, International Sociology, 36 (1), 2021, 25-48.

38) Knabe & Rätzel, Income, happiness, and the disutility of labour, Economics Letters, 107(1), 2010, 77-79.

sfaction in young and women, relative to men and middle & old working group. Thus, young a nd women group profit less from overworking and long working hours have more detrimental ef fects on life satisfaction in these working groups.

As a second result, the study found leisure participation buffers the negative effect of workin g hours on life satisfaction, especially when overworking occurs. This finding contributes to the literature on the effort-recovery model holding that job demands affect load effects through job control (recovery opportunities)[39]. Specifically, leisure time reading, online surfing, and game pla ying may improve life satisfaction for overworking young adults; online surfing and chatting for overworking women; game playing for overworking men. Our results reveal that different leisur e activities may have unique benefits for different demographic overworking groups. Our finding s are consistent with earlier research which showed that leisure participation is related to indivi dual's well-being and happiness[40]. Moreover, the positive effects of leisure participation were ev aluated as effective activity for recovery from work stress for specific demographic working gro ups. Thus, inactive activities (e.g., low effort activities) have positive effects on well-being for o verworking adults.

39) Van Veldhoven, Need for recovery after work: an overview of construct, measurement and research. In: Ho udmont J, Leka S (eds) Occupational health psychology: European perspectives on research, education, practi ce, vol III. Nottingham University Press, Nottingham, 2008, 1-25.

40) Lee et al. Do More Leisure Time and Leisure Repertoire Make Us Happier? An Investigation of the Curvili near Relationships,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21(5), 2020, 1727-1747.

메 모

【사회과학분과】 발표 ③

对中国互联网平台企业“扼杀式并购”的反垄断规制研究
(중국 인터넷 플랫폼 기업의 ‘살해식 M&A’에 대한 반독점 규제 연구)

Zheng Jin-Xin* · 서석홍**

【目 录】

1. 问题的提出
2. 规制“扼杀式并购”的必要性
3. “扼杀式并购”长期规避反垄断审查的原因
4. “扼杀式并购”的识别与判定
5. 对“扼杀式并购”反垄断规制的完善
6. 结论

【초록】

2020년 12월 11일,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회의에서 ‘반독점을 강화하고 자본의 무질서한 확장을 방지해야 한다’는 요구를 제시하였다. 그 후 반독점에 관한 논의에서 ‘살해식 M&A(Killer Acquisition)’가 가장 큰 관심사 중의 하나로 되였다. 전통적인 M&A과 비해 ‘살해식 M&A’에는 인수합병의 목적, 인수합병 대상의 규모, 인수합병의 속도 및 효율성 향상 등에서 많은 차이가 존재한다. 플랫폼 경제 분야의 살해식 M&A는 플랫폼 시장의 경쟁과 혁신을 저애하고, 소비자 권익을 훼손시키고, 시장 질서 및 환경을 파괴하는 등의 우려가 있다. 플랫폼 경제 시장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전통적인 심사기준이 효과를 잃고, 플랫폼 반독점에 대한 감독이 부족하고, 살해식 M&A의 불법 행위를 입증하기 어려운 이유 등으로 인해 초창기업(start-ups)과 신생기업(nascent firms)의 M&A는 장기적으로 반독점 심사를 피할 수 있었다. 본 논문은 살해식 M&A의 개념, 특징 및 발생가능한 피해를 결합하여 살해식 M&A가 장기간 반독점 심사를 피할 수 있는 원인을 분석하고 대형 인터넷 플랫폼 기업이 초창 중소 플랫폼 기업을 인수하는 행위에 대한 위법성을 제시한다. 이를 바탕으로 살해식 M&A에 대한 반독점 규제를 두 방면으로 보완한다. 첫째, M&A 심사 거래액 기준의 도입을 통하여 사전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 둘째, 반독점법 집행기관 사후 평가의 주동성을 향상하고, 거래완성 후의 재심사를 촉진하는 사후 심사를 보완해야 한다.

【키워드】 디지털플랫폼, 대형 인터넷기업, 초창기업, 경영자 사업집중, 살해식 인수합병, 반독점

* 부경대 경제학과 대학원 석사과정 (xy1443152230@gmail.com)
** 부경대 경제학부 교수 (ssk668@pknu.ac.kr)

1. 引言

2020年12月11日，中共中央政治局会议[1]明确要求“强化反垄断和防止资本无序扩张”，国务院反垄断委员会[2]在2021年2月7日发布的《关于平台经济领域的反垄断指南》（以下称《反垄断指南》）第19条：根据《国务院关于经营者集中申报标准的规定》（以下称《国务院申报标准规定》）第四条[3]中规定，即便相关经营者集中案件未达国务院申报标准，但若“参与集中的一方经营者为初创企业、新兴平台”的，反垄断执法机构仍有权主动调查。但是截至目前为止，中国尚未出台专门针对互联网平台企业扼杀式并购行为进行规制的法律文件。此外，尽管互联网平台企业在平台经济时代竞争优势显著增强，但却由于自身特点导致市场垄断问题日益凸显——例如市场主导地位和市场影响可能成为互联网平台企业扼杀式并购行为产生的主要原因。

在互联网平台经济市场中，初创企业的进入与退出异常活跃。平台经济领域扼杀式并购是指占据市场主导地位的大型互联网平台企业为了巩固和强化自身地位，对具有潜在竞争威胁或初创中小型平台企业采取规模化并购的垄断行为。通常情况下，大型互联网平台企业一般倾向于通过“复制、收购与扼杀”的策略，实行持续性收购，来防止其被其他大型平台收购或成长为不受自身控制的竞争对手，以消灭为目的并购这些在未来可能形成的潜在竞争隐患的对手。但部分初创中小型平台企业为了更好地退出市场不可避免地会存在主动寻求融入的情况。

对于初创中小型平台企业的并购，通常在短时间内不会对市场的竞争、创新和结构产生显著的影响，因而很少受到反垄断法的谴责。但随着时间推移走向长期发展时，平台在扼杀潜在竞争对手、强化自身市场主导地位的同时，更会扭曲长期的创新供给，致使未来市场的可竞争性丧失[4]。在许多文献中提到，这种行为被指是垄断创新赛道，但在现有的《中华人民共和国反垄断法》（以下称《反垄断法》）中仍体现了相对宽松的执法模式，不足以实质性挑战这类并购交易的具体规制。本文认为，反垄断执法机构容忍平台扼杀式并购原因可分为两方面：

第一，由于扼杀式并购在短时间内无法表现出显著的影响，缺乏规制的必要性。

扼杀式并购的目标企业通常是尚处于萌芽期-生长期、盈利模式与目标消费市场模糊的初创企业或新兴企业。一般来说，此类并购被认为是纵向并购或跨类切入，不会造成显著的市场结构变化和实质性的短期产品价格或质量损害。相反，大型互联网平台的技术、资产与渠道，可能会加速初创或新兴企业的想法与产品的商业化，是相对有促进作用的行为。

---

1) 中国共产党中央政治局会议，是中国共产党高层重要会议。《中国共产党章程》规定，中央政治局会议由中国共产党中央委员会总书记召集。《中国共产党中央委员会工作条例》规定，中央政治局会议应当有半数以上中央政治局委员到会方可召开，一般定期召开，遇有重要情况可以随时召开。(百度百科)

2) 国务院反垄断委员会，其主要职责是研究拟订有关竞争政策；组织调查、评估市场总体竞争状况，发布评估报告；制定、发布反垄断指南；协调反垄断行政执法工作；国务院规定的其他职责。2018年3月，根据第十三届全国人民代表大会第一次会议批准的国务院机构改革方案，将国务院反垄断委员会办公室职责整合，组建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将国务院反垄断委员会具体工作由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承担。(百度百科)

3) 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国务院关于经营者集中申报标准的规定》，第四条：「经营者集中未达到申报标准，但按照规定程序收集的事实和证据表明该经营者集中具有或者可能具有排除、限制竞争效果的，国务院反垄断执法机构应当依法进行调查。经营者可以就未达到申报标准的经营者集中主动向国务院反垄断执法机构申报。国务院反垄断执法机构高度关注参与集中的一方经营者为初创企业或者新兴平台、参与集中的经营者因采取免费或者低价模式导致营业额较低、相关市场集中度较高、参与竞争者数量较少等类型的平台经济领域的经营者集中，对未达到申报标准但具有或者可能具有排除、限制竞争效果的，国务院反垄断执法机构将依法进行调查处理。」 等。

4) 孔祥俊，〈商业数据权：数字时代的新型工业产权〉，《知识产权》，2022.(02):pp.127-128.

第二，对扼杀式并购的识别与违法性判定困难，导致规制的可行性不足。

由于扼杀式并购本身并不是违法行为，且有部分初创中小型平台企业主动融入大型平台的情况，是其退出市场与资本变现的渠道。在不能确定是初创中小型平台企业主动寻求融入的，还是大型平台扼杀被迫融入的情况下，并购审查政策又相对严格，将会阻碍初创中小型企业的市场退出，进而长期导致平台经济市场创新水平的降低[5]。

从这些角度来看，继续加强对于平台扼杀式并购的识别、违法性判定和完善反垄断规制的研究依然是很有必要的。本文将以广义的扼杀式并购为基础，结合扼杀式并购的概念、特征及可能造成的危害。分析扼杀式并购长期规避反垄断审查的原因，从而有效的识别和判定大型互联网平台企业并购初创中小平台企业的行为。在此基础上本文认为完善对扼杀式并购规制分为两方面：一方面，是要通过合理引入并购审查交易额标准加强事前审查；另一方面，则是要通过完善反垄断执法方式优化事后审查评估。

2. 规制“扼杀式并购”的必要性

1) 什么是“扼杀式并购”？

扼杀式并购（Killer Acquisitions）又称为猎杀式并购、掐尖式并购，是对一类特殊的企业并购行为的总称，由于其本身并不违法，严格来说并不能称之为法律概念，可视作激烈竞争的某一类衍生物。在不同的环境下促成的“扼杀式并购”可分为狭义和广义。狭义是指“占据市场优势地位的企业以终止目标企业的创新项目，规避未来竞争为目的”的并购[6]。而从广义的角度来看，扼杀式并购更关注与对潜在竞争的抑制。其中包括将被扼杀或没进行却存在潜在竞争的目标项目纳入自身经营范围，使其不能充分发挥潜力。如在中国的网约车服务市场、外卖市场、自行车租赁市场以及电商平台等与日常生活紧密相关的领域，滴滴并购了Uber中国，饿了么并购了百度外卖，美团并购了摩拜单车，阿里巴巴并购了网易考拉，等等[7]。最早出现在人们视野中的扼杀式并购是在制药行业，并由此提出了扼杀式并购这一重要的反垄断概念。部分文献中提到，通过平台经济领域的迅速发展，扼杀式并购的发生率相比制药行业更高。

2) “扼杀式并购”相较于传统并购的特征

(1) 从并购的目的来说

扼杀式并购的主要目的并不是提高大型互联网平台自身的实力，而是通过直接消灭潜在竞争对手来巩固垄断地位。传统企业并购的主要目的是增强自身能力、获得更高的盈利水平，以此有机会更好地实现规模经济和范围经济、减少不必要的交易成本，从而让其运作变得更有效率，获得更多的利润[8]。然而，对于扼杀式并购而言收购方主要目的则是直接消灭潜在对手，而非提高自身实力。

5) 王伟，<平台扼杀式并购的反垄断法规制>，《中外法学》，2022.34(01):pp.20.
6) 陈永伟，<扼杀式并购：争议和对策>，《东北财经大学学报》，2022.(01):pp.11-22.
7) 赵丰，<欧盟数据驱动型企业扼杀式并购的监管发展及启示>，《电子政务》，2022.(06):pp.75-85，DOI:10.16582/j.cnki.dzzw.2022.06.006.
8) 秦勇、宋丽玉，<平台经济领域扼杀式并购的反垄断规制>，《南方金融》，2022.(04).

(2) 从并购对象的规模来说

扼杀式并购的目标企业是创立时间短，以后管理模式不明确，但具有核心竞争力的初创中小平台企业。由于平台市场上的潜在竞争对手很多，不可能扼杀所有，且平台经济领域，创新方向相对不明确，创新项目信息共享也较为薄弱。所以在选择扼杀式并购的目标企业时收购方通常会建立专门的分析团队，采用大数据或其他技术手段来分析和识别潜在竞争对手。

比起传统并购，扼杀式并购不全是以购买目标企业的全部或部分股份来对被收购方进行控制的。由于扼杀式并购的目标仅仅是为了消灭潜在竞争，在一些案例中，收购方可能只会对其感兴趣的那些在未来可能构成威胁的项目、团队或技术进行收购，甚至可能仅仅挖走某个起到关键性作用的人[9]。为了排除这些威胁，收购方只需要停止项目，而没有必要收购整个公司。从形式上看，这种交易甚至不能称得上是并购，因而也不会触发并购审查。但是，一旦这些交易达成，长期来看也会产生和扼杀式并购完全相同的后果。

(3) 从并购的速度和频率来说

其实最早的传统产业中也存在扼杀式并购现象。例如，最早提出扼杀式并购概念的制药行业。在制药行业中，新药的产生通常会给老药的销售产生巨大的冲击，因而一些主要依靠制造老药盈利的在位企业经常会选择通过并购手段来直接消灭那些从事新药研发的企业，从而将潜在的竞争提前加以扼杀[10]。但是与此不同的是初创企业进入传统市场，在短期内不会对优势企业造成威胁。而一般来说初创中小平台企业都是前期投入较多，容易迅速发展至威胁大型平台企业的竞争对手，所以大型平台必须在发展初期加以扼制。因此，平台经济领域扼杀式并购相较于传统并购来说速度更快、频率更高[11]。

3) “扼杀式并购”可能带来损害

平台经济具有规模效应、网络效应和锁定效应、数据效应[12]、以及“排他性”等典型特征，在大型互联网平台企业实施大规模扼杀式并购具有较强的主观意图，进一步巩固大型互联网平台的市场优势地位，虽然短期的影响并不明显，但长期纵容会对市场机制产生不可逆的后果，容易诱发市场失衡、不仅丧失了市场的可竞争性、阻碍了企业的创新发展、损害消费者的权益，最终可能会影响整体的市场环境。因此，本小节对扼杀式并购可能带来的竞争创新损害和消费者权益的损害进行分析。

(1) 限制潜在竞争、阻碍创新发展

从性质上讲，横向或纵向的并购并不能很好的诠释扼杀式并购的性质，它是一种较为抽象的概念，体

9) 陈永伟，<如何看待大型科技企业对创业企业的并购>，《经济观察报》，2020.12.04.
10)陈永伟，앞의 글 (2022).
11)秦勇、宋丽玉，앞의 글 (2022).
12)李亚南、孙曙生，<困境与路径:平台经济反垄断规制探析>，《北京经济管理职业学院学报》，2021.36(04):pp.13-18+78.

现在不同的行业中，通常是以消除潜在竞争或创新的目的所实行的并购措施。在平台经济领域扼杀式并购的许多案例中，比起同一市场的横向收购或上下游企业的纵向收购，大部分是发生在跨行业之间的。比如在某些领域具有市场优势地位的平台经常会利用其雄厚的资金实力去收购一些邻接行业的、与其没有直接竞争关系的企业。因此，仅仅基于传统的损害理论很难明确扼杀式并购对竞争的损害。相关文献提到，扼杀式并购本身就应该是被作为“潜在竞争的缺失”的一个特殊变体，而非一种特殊的并购形式。从理论上看，扼杀式并购对于潜在竞争的损害可能是巨大的。大企业在进行扼杀式并购时，经常会采用一边与被收购对象进行谈判，一边则开发竞争品与之竞争。对于没有明确经营模式、资本薄弱的初创企业来说，这是一种无形且巨大的压力，甚至可能会迫使很大的一部分企业最终被挤出市场。扼杀式并购长期被纵容会致使更深远的竞争损害，即大型平台持续拉大与仍处在萌芽期的竞争对手之间的差距。而且，这样一种强者越强、弱者越弱的两极化趋势几乎是不可逆的[13]。

由于同时受到规模经济、网络效应等多重机制的保护，大型互联网平台的市场力量相比传统市场中的垄断更为牢固，是一种能够长期维持的分层式垄断。具有市场优势的大型互联网平台，通过大量的供应链资源和大数据的控制下进行持续性并购，会形成以大型平台为核心的创新杀伤区[14]（Killing Zone），阻塞初创企业首轮风险融资渠道，进而减少创新市场中新产品或新服务的产出数量。大型平台通过并购初创中小平台可快速获得创新成果，这弱化了大型互联网平台的自主创新动力。且初创中小平台企业数量减少，会引导其投资方向，进一步减损平台经济市场中的创新积极性。另外，扼杀式并购的存在除了直接对创新产生损害之外，还会对创新的方向产生影响，使其创新的效率遭到扭曲[15]。

(2) 对消费者权益的损害

无论是消灭或限制潜在竞争、还是阻碍创新，无疑都会对消费者权益造成损害[16]，主要体现在消费者的选择多样性及消费者个人隐私。

在互联网平台经济市场中，扼杀式并购可能在对经济效应产生影响的同时，减少消费者的选择多样性。大型平台进行此类并购，以控制平台内提供的商品或服务的价格及质量，可以说是限制了消费者的公平交易权的同时缩小了消费选择范围和数量。在并购实行完成后，大型平台可能会停止对竞争产品的进一步研发，并且考虑到潜在的竞争隐患、抢占未来竞争的先机，极可能会阻止该产品进入市场。这里需要关注的是，在很多时候，被关停的项目原本可能产生比当前市场上的产品更为质优价廉的产品。长远来看，就互联网平台市场来说，大型互联网平台企业在迅速促进平台经济发展的同时，直接影响了产品的价格、数量和质量，这种行为不仅减少了消费者的选择，也消灭了消费者实现消费升级的可能性，因而其影响更为恶劣。

在以大数据作为平台支撑的现在，扼杀式并购行为会损害消费者的数据隐私。对于一家成熟的平台企业来说，拥有了数据就相当于拥有了市场核心竞争力，这就间接地导致数据驱动型[17]的扼杀式并购的催生，且存在巨大的消费者数据隐私忧患。在一些案例中，收购方对目标企业发动并购的主要目标是获取其手中的数据。作为一种生产要素，不同数据之间的互补性是很强的，通过对数据进行整合，企业就可以更好地了解消费者的偏好，并更好地对其进行个性化的销售。这种行为可能损害消费者权益，而收购方通过

13)王伟，앞의 글 (2022).
14)王磊，<数据驱动型并购创新效应的反垄断审查>，《北京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2022.59(03):pp.131-140.
15)陈永伟，앞의 글 (2022).
16)王迪、孙晋，<反垄断:无序并购的违法判定与规制路径>，《长江论坛》，2021.(05):pp.7.
17)王磊，앞의 글 (2022).

并购获得的数据也可能成为侵害消费者的隐私。

3. “扼杀式并购”长期规避反垄断审查的原因

1) 并购交易额指标单一、新型并购下效果失灵

目前，多数国家在审查经营者集中并购案件时实行事前申报审查制度。事前申报制度是指当经营者集中达到国家规定的标准时，经营者在并购行为发生之前向反垄断执法机构申报，反垄断执法机构对并购行为进行审查。实行事前申报制度的国家很多将营业额作为合并通知的标准之一。一些国家，目前已经采取了合并审查自愿通知制度。例如，2005年，经合组织理事会通过的《关于合并审查的建议》中指出，有关经营者集中的通知和审查程序，并规定合并审查所使用的任何标准都应明确和客观以尽量避免为合并缔约方造成不必要的成本和负担，其中包括审查的阈值。但是其中明确规定，标准的明确不应限制合并审查的有效性。反观，中国采取的是法定标准和自由裁量权并存的并购审查申报模式，《国务院申报标准规定》第三条[18]规定了经营者集中申报的法定标准，第四条规定了主管机构依职权调查的兜底条款。然而，就《反垄断法》此前实施十余年的实证来看，并未有成熟案例表明集中审查机构开展了实质性调查，兜底条款基本形同空设[19]。

在事前申报审查制中，如果并购双方并未达到营业额标准，则主管机构一般不会进行并购审查。这种营业额标准在传统市场是有效的，因为较小的营业额意味着较弱的市场势力。然而在数字经济市场中，营业额标准的适用缺乏有效性。数字经济初创企业的特性决定了以营业额标准认定其是否具有竞争力是不准确的，这种衡量标准具有单一性和滞后性，忽视了非财务因素对企业竞争力的影响。初创中小平台企业在发展初期一般通过大量的补贴聚集用户、收集数据，往往处于亏损状态，但是这并非意味着企业不具有竞争力。现有的营业额标准使得很多大型互联网平台的并购游离在反垄断监管之外，其中很多并购对市场竞争和消费者福利都有重大的影响，但根据现有的合并审查标准，很难在个案中确定。

2) 反事实证明困难，导致机构监管缺失

限制监管部门执法的问题在于信息不对称、对竞争创新损害的分析方法还存在局限性，可预测未来的能力有限，导致无法确定相关的反事实（relevant counterfactual）情况，即平台经济领域的扼杀是并购。如前所述，《反垄断法》对判定平台经济领域扼杀式并购的包容性，很容易将绝大部分的扼杀式并购认定为是促进市场竞争的，从而导致部分大型平台企业钻了法律的空子，致使规避事前审查或者处于事前审查的模糊地带，这就需要反垄断执法机构的事后干预，通过事后的调查和追踪确定并购行为是否具有反

18) 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国务院关于经营者集中申报标准的规定》. 第3条规定:「第三条 经营者集中达到下列标准之一的，经营者应当事先向国务院商务主管部门申报，未申报的不得实施集中:（一）参与集中的所有经营者上一会计年度在全球范围内的营业额合计超过100亿元人民币，并且其中至少两个经营者上一会计年度在中国境内的营业额均超过4亿元人民币;（二）参与集中的所有经营者上一会计年度在中国境内的营业额合计超过20亿元人民币，并且其中至少两个经营者上一会计年度在中国境内的营业额均超过4亿元人民币。营业额的计算，应当考虑银行、保险、证券、期货等特殊行业、领域的实际情况，具体办法由国务院商务主管部门会同国务院有关部门制定。」 等。

19) 仲春，<我国数字经济领域经营者集中审查制度的检视与完善>，《法学评论》，2021.39.(04):pp.140-150，DOI:10.13415/j.cnki.fxpl.2021.04.013.

竞争性。

目前，中国反垄断执法在对扼杀式并购的事后审查方面仍旧呈现出不足，对扼杀式并购案件的事后实质性监管缺失。由于扼杀式并购的事后审查还不成熟，在对并购案件进行评估时多是从程序方面入手，并未从实质上评估并购对竞争带来的影响。例如，在2021年7月公布的互联网领域22起违法实施经营者集中案中[20]，国家市场监管总局均以其违反了《反垄断法》第二十一条[21]为由，认定构成违法实施经营者集中，但评估案件认为不具有排除、限制竞争效果[22]。虽然从程序上认定经营者集中违反法律规定是应对平台经济市场垄断简便且高效的方法，但从长远来看，实质性审查的缺失无法准确判断并购案件对竞争的效应，不利于建立有效精准的对扼杀是并购的反垄断执法体系。

4. 扼杀式并购”的识别与判定

1) 大型平台并购初创的中小型平台

在平台经济领域，扼杀式并购的构成主要具备以下特点：一方面，以并购双方的性质来看，收购方是拥有成熟的盈利模式、资本雄厚的大型互联网平台企业，而被收购方则是具有较强创新能力和发展前景的初创中小型平台企业。首先，收购方为资本雄厚，且占据市场一定主导地位的的现有企业。前述到，由于平台经济具有高度集中的网络效应属性，平台经济领域主要呈现出有市场主导地位的垄断态势，而大型互联网平台企业大量并购初创企业的结果则是进一步强化了垄断。其次，被收购方为具备较强创新能力和发展前景的初创企业。不可否认的是，初创企业在竞争激烈的市场中扮演着至关重要的角色，不仅是颠覆性创新和拥有特立独行的商业模式的关键来源，还是可以帮助打破市场集中固态的新力量，通过迫使效率较低的现有企业改善或退出的方式，从而有助于维护市场的公平竞争。

以上，在大型互联网平台企业的收购实践中有得到证实，其中囊括了作为目前或未来潜在竞争对手的相同或相似领域的初创中小型平台企业。这种行为往往会导致大型互联网平台企业对初创中小型平台企业的收购达不到并购申报审查标准。目前很多国家都将传统的营业额作为评估指标，而初创中小企业的规模有限、盈利模式较为模糊，并购行为经常未达到申报审查标准，虽然各国反垄断当局并没有完全忽视平台经济发展所带来的非价格效应，但这种现象的存在极容易使大量的并购案件当然地规避了反垄断机构的审查。正是由于这种并购行为具有高度的隐蔽性，尽管并购行为已经对市场竞争产生了破坏影响，对该并购行为的明确识别和违法性判定依旧具有较大的困难。

2) 造成实质性的竞争和创新损害

本文认为在扼杀式并购中，对大型互联网平台企业的监管，不能只关注其市场主导地位，而应重点关注其是否存在实质性的对竞争创新损害或消费者权益损害等行为。承上，在扼杀式并购特征中有提到，大

20) 王先林、曹汇，〈平台经济领域反垄断的三个关键问题〉，《探索与争鸣》，2021.(09):pp.54-65+178.
21) 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中华人民共和国反垄断法》，第21条规定：「行业协会不得组织本行业的经营者从事本章禁止的垄断行为。」 等。
22) 魏蔚，〈涉及五大平台互联网反垄断监管追根究底〉，《北京商报》，2021.07.08.(003)，DOI:10.28036/n.cnki.nbjxd.2021.002624.

型互联网平台企业对初创中小型平台企业的并购目的是为了消灭潜在竞争，巩固自身主导地位。初创企业被收购后，大型互联网平台企业通常采取两种方式：一种是直接将收购后的初创企业关闭，以消灭竞争；另一种是将初创企业所开发的产品，通过整合融入自己的业务之中，在消灭竞争的同时也巩固自身的主导地位。互联网平台市场乃至整体市场都需要保持可竞争性，才能为创新发展予以加持，因此在消灭潜在竞争的并购行为对市场竞争的实质性损害是不言而喻的。可竞争性的丧失会间接导致这种行为严重阻碍市场、企业或对新领域的创新与探索。企业的创新能力主要体现在产品的竞争性上，而产品的替代性越强、竞争性也越强。对于中国来说，根据《反垄断法》第27条[23]，对市场进入和技术进步的影响也是经营者集中审查重要的考量因素。

3）进一步提高进入平台市场的门槛

本文在前边提到，并购行为本身并不一定是违法的，因此《反垄断法》中规制的从来不是并购本身，而是在占据主导地位的大型平台进行“垄断化”的过程中，以消灭潜在竞争为目的来实行的无序并购行为。从大型平台的特征来看，“规模大”的本身不应当是互联网平台企业受到反垄断规制的真正原因，而应该是形成的过程以及所带来的负面后果没有得到明确的纠正才是反垄断规制的根源。

目前高速发展的互联网平台发，其市场本身就存在着高度集中、规模收益和市场进入门槛相对较高的特点，而成熟型平台企业对创新型初创企业的大量并购行为，致使进入互联网平台市场的门槛进一步提高、阻碍行业创新发展的负面效果进一步加强。这里需要注意的是，虽然平台的创立需要大量的前期投资，但随着市场力量的增强和市场规模的扩大，使其规模收益进一步增加，平均单位成本不断下降。而大型企业对初创企业的大量收购进一步增强了其自身实力的同时，巩固了市场地位，导致这一效应陷入了正向循环，这些原因共同提高了进入市场的门槛。

大型平台对初创平台的规模行收购，会阻碍资本对该领域新的投资，对创新行业发展的负面效果强烈。如前述到，大型平台的持续性收购会引发一种强者越强、弱者越弱的两极化趋势，使得本就已经处于市场主导地位的互联网巨头的技术优势和资本优势愈发强大，逐渐导致社会资本对那些潜在竞争的初创企业的投资信心下降，资助意愿也越发低迷。而正是扼杀是并购的推动下，也逐渐出现一些专门为大型企业所高价并购的初创企业。如果有更多的初创企业方抱有这种被高价收购的预期，则会减弱初创企业的创新动力和积极性，也会弱化社会资本给初创企业投入更多资本的意愿。

总而言之，在扼杀式并购的影响下，大型平台企业对初创平台企业的并购产生了较强的负外部性，而这恰恰降低了互联网行业在未来创新发展的空间和更多的的可能性。

5. 对 “扼杀式并购”反垄断规制的完善

《反垄断法》本身并不是保护某一方的经济利益，而是保护市场公平竞争和创新活力，防止“市场强者”利用其优势地位阻碍竞争和创新，营造公平竞争的市场环境，促进行业的健康发展。不过截至目前，

23) 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中华人民共和国反垄断法(修正草案)》，第27条规定：「经营者集中有下列情形之一的，可以不向国务院反垄断执法机构申报:(一)参与集中的一个经营者拥有其他每个经营者百分之五十以上有表决权的股份或者资产的;(二)参与集中的每个经营者百分之五十以上有表决权的股份或者资产被同一个未参与集中的经营者拥有的。」等。

由于中国的《反垄断法》、《经营者集中审查规定》都无法适应互联网平台的迅速发展和其特殊性，对大量未申报案件进行主动调查存在一定的滞后性，不足以对扼杀式并购进行有效的规制。如果缺乏有效的制度创新和治理举措，甚至会渗透到媒体、学术、监管和司法等领域，形成"公共俘获"[24]。因此本文认为，对扼杀式并购开展执法的最主要方式应该分为两方面：经营者集中的事前审查和事后评估，以此合理有效地规制扼杀式并购。但这目前依旧存在一些难点：如何确定审查适当的交易额标准？

如果是进行事前审查，交易当事方一般不会主动来申报；如果是进行事后审查，对于已经完成的交易采取审查措施，可能会存在部分主动被并购的交易方，甚至其上下游企业的强烈反抗，造成社会资源浪费，所以目前给到执法机构的压力也可想而知。

1）完善并购申报交易额标准以加强事前审查

基于互联网平台经济市场企业发展的特殊性，初创企业的竞争潜力无法反映在营业额或市场份额的标准之中，因而逃脱了反垄断事前审查。为了补足这一缺漏，反垄断执法机构有必要调整并购申报门槛，在当前营业额标准的基础上引入能够有效筛查具有反竞争效应的并购的其他适当标准[25]。而全面审查所有具有"扼杀"嫌疑的并购是需要巨大的成本和时间的。相比于传统的《反垄断法》，在《中华人民共和国反垄断法(修正草案)》第25条[26]，第26条[27]中，对审查时限的规定进行了优化，对一些疑难案件、对事实的考察或者效应的论证等，耗时漫长的实践实行"停表"制度。简单来说，就是整个审查过程以180天为期限，通过"30+90+60"的模式进行，完善了耗时长的难题。因此本文认为，对于反垄断执法机构来说，执法成本最小，最合理[28]、有效、精准的方式是在营业额标准为基础的前提下，引入明确的交易额标准，通过事前审查的方式及时有效的应对扼杀式并购所带来的负面效应。在传统反垄断法中，均以事后救济为主要实现方式，而加大事前审查力度则是现在乃至今后优化和完善反垄断执法的重点方向[29]。

如前所述，大量平台经济领域扼杀式并购案件长期规避反垄断执法机构的事前审查的原因之一，是以营业额通知标准作为单一的指标，这种方法在新型并购形态下效果失灵。为此，《反垄断指南》第19条规定了国务院反垄断执法机构主动调查的情形，赋予了反垄断执法机构在事前审查方面更多的主动权[30]。虽然已对大型互联网平台企业对初创中小平台企业的并购问题有所提及，但并没有修订营业额标准。因此，对这一问题的法律规制做出一定完善是有必要的。

截至目前，中国仍处在发展中国家的行列中，经济基础和上层建筑均与欧美国家存在部分差异。在引入并购审查交易额标准的数额时，应当结合中国的实际情况，顺应经济发展潮流，借鉴欧美国家标准的基础上，确定符合中国经济发展水平的数额。另外，执法机构进行干预审查时，应当在不构成对市场机制的干扰的同时，治理市场失灵。如若对平台经济领域扼杀式并购采取"一刀切"规制的方法，会存在确立的

24)方兴东、钟祥铭，〈互联网平台反垄断的本质与对策〉，《现代出版》，2021.000(002):pp.37-45.
25)方翔，〈数字市场初创企业并购的竞争隐忧与应对方略〉，《法治研究》，2021.(2):pp.11.
26)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中华人民共和国反垄断法(修正草案)》，第25条：「经营者集中是指下列情形：（一）经营者合并；（二）经营者通过取得股权或者资产的方式取得对其他经营者的控制权；（三）经营者通过合同等方式取得对其他经营者的控制权或者能够对其他经营者施加决定性影响。」 等。
27)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中华人民共和国反垄断法(修正草案)》，第26条「经营者集中达到国务院规定的申报标准的，经营者应当事先向国务院反垄断执法机构申报，未申报的不得实施集中。经营者集中未达到国务院规定的申报标准，但有证据证明该经营者集中具有或者可能具有排除、限制竞争效果的，国务院反垄断执法机构可以要求经营者申报。经营者未依照前两款规定进行申报的，国务院反垄断执法机构应当依法进行调查。」 等。
28)陈永伟，앞의 글 (2022).
29)王迪、孙晋，앞의 글 (2021).
30)承上，〈超级平台并购初创企业的反垄断规制〉，《人文杂志》，2021.000(010):pp.20-29.

并购审查交易额标准过低，且无法适应当前平台经济迅速发展的局势，致使部分大型互联网平台“钻空子”。这种方法虽然可以囊括多数并购案件，却会导致过度干预的局面，因此在引入并购审查营业额标准时，需在尊重市场优先原则的前提下进行合理、有效、精准的规制。

2) 完善反垄断机构的执法方式以优化事后审查评估

与传统市场不同，平台经济市场最重要的创新是模式创新，平台经济市场的竞争也更加动态化，因此仅仅通过完善事前审查来规制扼杀式并购显然是不够的。在事前审查机制不完善的情况下，可能存在部分遗漏的扼杀式并购事件，需要事后审查机制对此行为进行规制。反垄断执法机构不仅可以在事前调查中拓展积极审查与干预的手段，还可以通过合理有效的反垄断执法手段和方式以优化并购行为的事后评估与干预，以规制扼杀式并购。

迄今为止，中国尚未开始对互联网平台企业并购初创中小平台企业的行为展开深入调查。纵观美国和欧盟对于互联网巨头展开的反垄断调查耗时漫长，且都尚处于调查阶段。而互联网产业和平台经济市场仍处于高速发展的阶段，所面临的问题也是在这个特定的发展阶段中出现的。因此，面对如此耗时，且投入较大的反垄断调查，有必要采取更为灵活的阶段性措施。那么，对于完善事后审查机制可具体分为两个阶段。

(1) 提升事后审查的主动性，深入分析个案进行评估

在《反垄断指南》、《经营者集中审理暂行规定》、《国务院申报标准规定》中，虽然都已对经营者集中案件的事后审查进行了规定，明确授权反垄断执法机构有权调查未达到申报标准的经营者集中案件，但是中国还未有关于扼杀式并购的执法案例。例如腾讯、阿里巴巴分别在过去十几年中并购了超过40家公司，然而反垄断执法机构没有对该类并购进行事后审查，这恰恰体现了反垄断执法对扼杀式并购案件缺乏主动性。因此，对于那些没有主动申报、且具有并购初创企业嫌疑的合并行为，反垄断执法机构应当采取措施进行主动调查，并对个案进行深入分析的方式，针对性地实行规制。由于事后审查具有信息优势，所以在对个案的深入分析中，是可以通过大数据来调查在某些相同情况下促成扼杀式并购的原因，有利于更好地发现并完善审查中缺失的部分。

(2) 有限度的调查已经完成的并购交易

如前所述，由于中国在平台经济发展初期，实行的是“审慎包容“监管的政策，因此在这个阶段发生了大量的并购案件。这虽然对巩固大型互联网平台的市场主导地位起到了重要作用，但其中不乏扼杀式并购案件，以致影响市场的正常运作。反垄断执法机构需要重视并利用其所具有的事后审查权，有限程度地调查已完成但未申报的平台并购初创企业的交易依旧是可取的。

相较于事前并购审查，事后调查具有信息优势。监管部门能够根据并购后的价格、产量等并购行为数据，精准地界定相关市场与评估相应的反竞争效应，同时能避免过早行动的信息缺少与竞争损害证明困难。虽然这种方法具有后见之明的信息优势，但监管部门仍需更加严格的证明责任。从预测性的审查评估到实证性的事后调查，不仅需要监管部门提出比预期更高的实际性竞争损害经济的证据，还必须证明实际

发生的反竞争损害与挑战的并购交易之间存在因果关系。这里值得注意的是，监管部门完成这一证明的难点在于，并购之外的其他市场因素也可能导致价格上涨或服务质量降低等竞争损害。而且并购交易完成的时间越长，监管部门对于举证这一因果关系也将会越来越难[31]。

6. 结语

2020年12月召开的中央政治局会议和中央经济工作会议均指出要“强化反垄断和防止资本无序扩张”。反垄断、反不正当竞争的本质都是维护消费者利益，而互联网是创新和变革，乃至走向共同富裕的引擎。平台反垄断无疑是全球面临的共同难题和共同挑战，中国虽然起步较晚，但并不甘于落后。中国不断的在完善和修正反垄断相关法律就是最好的证明。那么对于作为资本无序扩张的一个重要表现形式——扼杀式并购，也是当前反垄断实践所面临的一大难题。随着2021年2月7日《反垄断指南》的发布，为日后平台经济领域的反垄断监管带来有力指引，中国的互联网平台经济领域正在迎来反垄断强监管时代。在有必要积极应对平台经济给反垄断执法带来挑战的同时，必须继续坚持“包容审慎”的监管原则，避免走上矫枉过正、过度监管的误区，从而对平台经济的发展造成负面影响。目前，全球的反垄断执法机构对于大型平台企业并购初创中小型平台企业的规制并不成熟。因此，不仅要在反垄断法修订的过程中对经营者集中审查制度做出适当调整，也有必要在日后的反垄断执法实践中不断积累和探索。

31)王伟，앞의 글 (2022).

메 모

【사회과학분과】 발표 ④

녹색신용대출이 은행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중국상업은행을 중심으로

권일숙* · 주병육**

연구의 배경 및 주제

- 세계 최대 탄소배출 국가인 중국이 2020년9월 유엔총회에서 화상연설을 통해 탄소중립 이행약속을 함
  -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자국의 국가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산업 구조도 및 생산방식의 녹색 저탄소 전환을 대폭 제고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
- 금융업에서는 기존 추진해왔던 녹색신용대출을 대폭 강화
- 녹색신용대출이란: 광의에서는 은행금융기관이 산업정책에 따라 금리 레버리지 등을 활용해 신용자금의 흐름을 조절하고 자금을 녹색산업으로 분배하는 것(梁铃洁, 2022)
  - 협의에서는 금융기관이 에너지절약, 청정생산, 청정에너지, 생태환경, 그린업그레이드를 위한 녹색산업에 대출하는 것
- 녹색신용대출의 개념은 도입된지는 오래되었지만, 녹색신용대출을 취급한 은행의 수는 많지 않았으나 최근 다수 은행으로 확산됨
  - 2007년부터 도입된 녹색신용대출은 초·중반에는 주로 환경보호정책을 위반한 기업에 대한 부정적 스크리닝을 통해 대출에 불이익을 줌
  - 2018년 중국인민은행이 '녹색신용대출업적평가의 통지'에서 녹색신용대출에 대한 평가지표와 방법 등 체계를 제정, 2019년 '녹색산업지도목록(2019)' 발표하면서 상업은행에서 본격적으로 녹색신용대출 업무 추진
  - 2020년 9월 22일 시진핑총서기가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선언하면서 녹색신용대출은 금융업에서 정책추진의 수단으로 더욱 주목을 받음

2022-11-19 1

* 한남대 부교수
** 한남대 석사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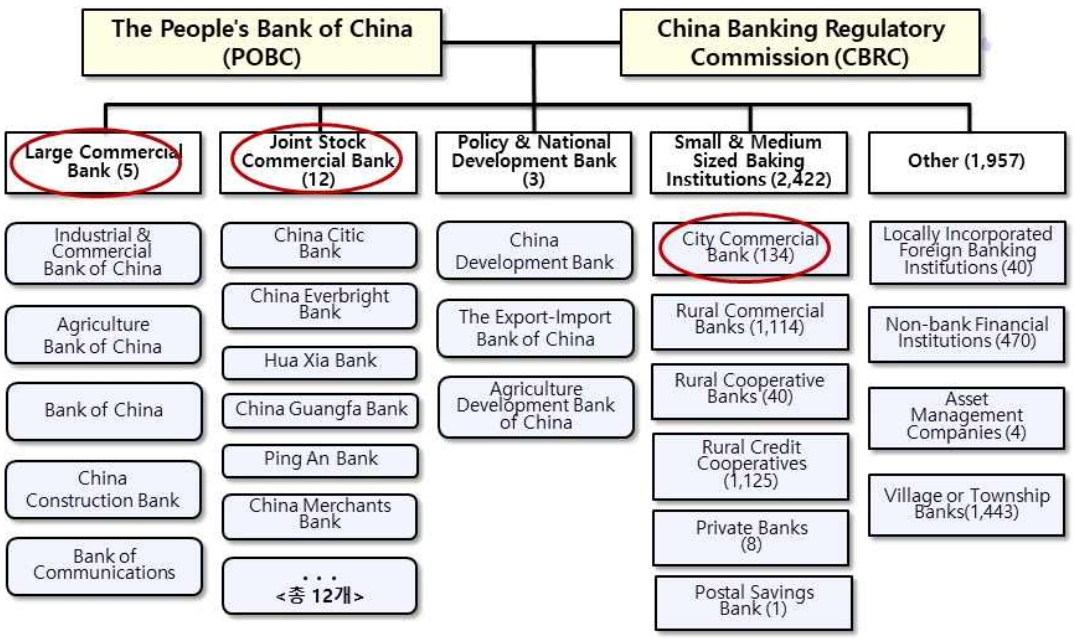
연구의 배경 및 주제

- 녹색신용대출에 대한 연구는 다년간 진행되었지만 시기별로 관심을 두었던 주제와 이슈가 다름
  - 초기에는 중국 녹색신용대출에 대한 개념의 정립과 정책입안 차원에서 다룸
  - 중기에는 은행 녹색신용대출 업무에 대한 평가, 해당 업무가 은행의 수익성과 위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였지만 녹색신용대출을 진행한 은행 수의 한계로 일관된 결론을 얻지 못함

- 본 연구에서는 중국에서 본격적으로 녹색신용대출을 추진 초기인 2008년부터 가장 최근인 데이터를 이용하여 녹색신용대출이 은행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함
  - 녹색신용대출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주장과 정부정책에 따라 자원을 임의로 배분함에 따라 효율성을 감소시킨다는 상반된 주장 존재
  - 구체적으로 녹색신용대출이 수익성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 해당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검증하고자 함

2022-11-19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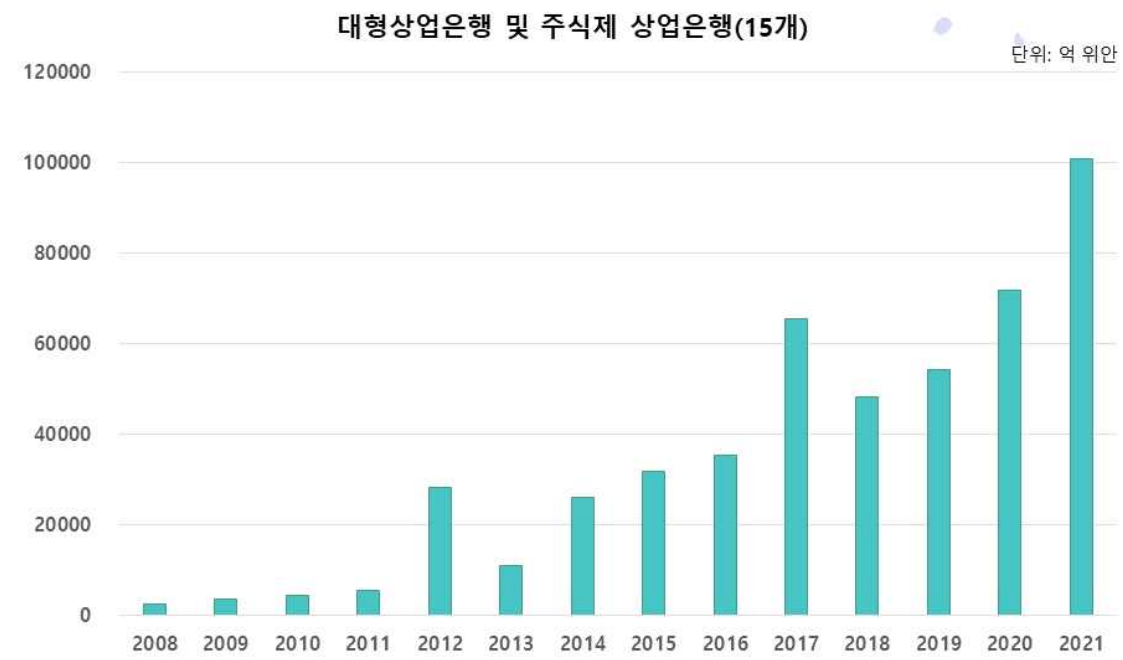
중국은행산업의 개요



자료: 중국은행업감독위원회 연말보고서(2016) 자료를 토대로 직접 작성

2022-11-19 3

연도별 녹색신용대출금액 추이



2022-11-19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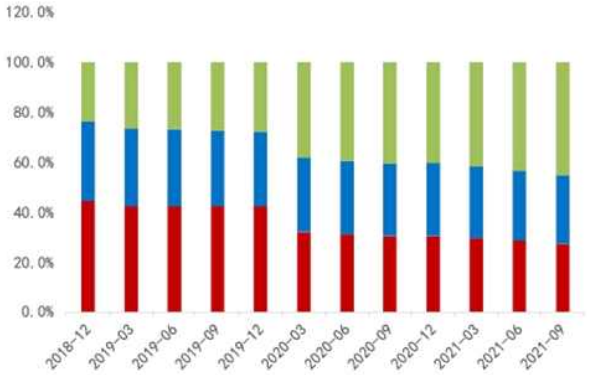
주요 금융기관의 대출액 대비 녹색신용대출 비중

출처：Wind，中泰证券研究所

2022-11-19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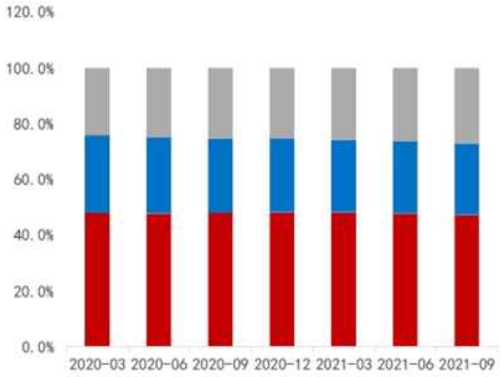
녹색신용대출의 주요 투자 업종과 산업

녹색신용대출의 투자업종 비중



■ 화물운송, 창고보관 및 우편
■ 전기, 열, 가스 및 물 생산과 공급업
■ 기타 업종

녹색신용대출의 투자산업 비중



■ 인프라그린업그레이드업
■ 청정에너지산업
■ 기타 산업

출처: Wind, 中泰证券研究所
자료: 2021년9월말 기준

2022-11-19 6

상장한 중국상업은행의 녹색신용대출비중

	绿色信贷	绿色贷款占比总贷款	总贷款市占率	绿色贷款市占率
工商银行	21,545	10.8%	10.8%	15.5%
建设银行	15,665	8.7%	9.7%	11.3%
农业银行	17,639	10.7%	8.9%	12.7%
中国银行	8,968	6.3%	8.3%	7.5%
交通银行	4,088	6.4%	3.4%	2.9%
邮储银行	3,171	5.1%	3.3%	2.3%
招商银行	2,387	4.4%	2.9%	1.7%
中信银行	662	1.5%	2.5%	0.6%
浦发银行	2,729	5.8%	2.6%	2.0%
民生银行	527	1.4%	2.2%	0.4%
兴业银行	4,127	9.8%	2.3%	3.0%
光大银行	1,037	3.4%	1.7%	0.9%
华夏银行	2,015	9.3%	1.2%	1.4%
平安银行	369	1.3%	1.5%	0.3%
浙商银行	847	6.7%	0.7%	0.6%
北京银行	312	1.9%	0.9%	0.2%
南京银行	885	11.5%	0.4%	0.6%
宁波银行	88	1.3%	0.4%	0.1%
江苏银行	1,222	9.2%	0.7%	0.9%
贵阳银行	206	8.4%	0.1%	0.1%
杭州银行	374	6.9%	0.3%	0.3%
上海银行	189	1.6%	0.6%	0.1%
成都银行	44	1.6%	0.2%	0.0%
长沙银行	186	5.9%	0.2%	0.2%
青岛银行	175	7.4%	0.1%	0.1%
郑州银行	13	0.5%	0.1%	0.0%
西安银行	13	0.8%	0.1%	0.0%
苏州银行	78	4.2%	0.1%	0.1%
无锡银行	40	4.0%	0.1%	0.0%
常熟银行	12	0.9%	0.1%	0.0%
苏农银行	21	2.7%	0.0%	0.0%
张家港行	5	0.5%	0.1%	0.0%
青农商行	31	1.4%	0.1%	0.0%

주: 파란색표시은행은 2020년12월 기준, 기타는 2021년 6월 기준

2022-11-19 7

선행연구 (1/2): 녹색신용대출과 중국상업은행의 수익성 검증

- 표본과 연도에 따라 녹색신용대출과 수익성의 관계는 상반된 결과가 나타남

- 수익성이 제고되었다는 주장 :
  - 雷博雯(2020)은 16개의 중국상업은행의 2010-2018년 데이터로 실증분석을 진행했는데, 단기적으로는 수익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 장기적으로는 수익성 및 유동성위험관리에도 도움이 됨을 확인
  - 陈昆·孙秀冰·于慧林(2021)은 14개 중국상업은행의 2014-2018년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했는데, 녹색신용대출은 상업은행의 수익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 위험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지며, 장기적으로 은행의 경영에 도움이 된다고 제안
  - 刘降斌·赵玉娟(2021) 상장한 중국상업은행 7개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녹색신용대출은 수익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에 녹색금융의 중요성을 강조
  - 金榕(2022)는 12개 상장한 중국상업은행의 2011-2018년 데이터를 분석하였는데, 녹색신용대출은 전체 상업은행의 수익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지방상업은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확인
  - 熊露翎(2021)은 5개 중국상업은행의 2011-2019년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녹색신용대출과 수익성은 정의 상관관계를 가짐을 발견

2022-11-19 8

선행연구 (2/2): 녹색신용대출과 중국상업은행의 수익성 검증

- 수익성이 제고되지 않았다는 주장 :
  - 杨姝平(2020)은 14개 중국상업은행의 2014-2018년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했는데,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작다고 주장. 그 이유는 녹색산업은 단기투입이 높고, 은행이 녹색신용대출을 적극 진행할 동력이 낮으며, 본격적으로 녹색신용대출을 진행한 연한의 짧음을 언급
  - 白涵(2021), 중국공상은행의 2010-2020년 데이터를 이용하여 녹색신용대출업무는 은행에 잠재적 수익성을 갖고 있지만 이를 실현하려면 녹색대출의 체계를 완비해야 한다고 지적함
  - 吴赛楠(2021)은 중국 5대 대형상업은행(2010-2020년)을 대상으로 분석했는데, 단기적으로 수익성 개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녹색신용대출업무의 관리수준, 자산품질을 높여야만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주장
  - 孙成秀(2021)은 8개 중국상업은행의 2011-2018년 데이터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은행의 녹색신용대출이 경영성과에는 일부분 정의 영향을 미치지만, 수익성(ROA)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는데 이는 녹색신용대출업무의 발전시간이 짧으며, 정책 및 체계의 미완비를 들음
  - 唐亚兰(2021)은 13개 중국상업은행의 2011-2018년 데이터로 분석한 결과, 단기적으로 수익성에 도움이 되지 않으나, 매년 녹색신용대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전략을 세워야 함을 강조
  - 崔洋(2022)은 2011-2020년 12개 중국상업은행을 분석하였는데, 역시 단기적으로 중국상업은행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에 녹색신용대출 자산의 건전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
  - 邵晓艳·孙英隽(2022)은 2010-2019년 15개 중국상업은행의 데이터를 분석했는데, 전체 중국상업은행의 수익성과 국유상업은행의 수익성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발견

2022-11-19 9

표본 및 연구방법론

- 연구표본: 중국상업은행 17개(대형상업은행 5개, 주식제상업은행 12개, 도시상업은행 3개)
- 분석기간: 녹색신용대출 업무가 본격화된 2008-2021년
- 표본자료: CSMAR Database의 녹색신용대출자료 및 은행별 홈페이지의 연말보고서
- 분석방법: 회귀분석
  - 식1: $ROA_{i,t+1} = \beta_0 + \beta_1 GC_{i,t} + \beta_2 CAR_{i,t} + \beta_3 NPL_{i,t} + \beta_4 NIM_{i,t} + \beta_5 LA_{i,t} + \varepsilon_{i,t}$
  - 식2: $ROA_{i,t+1} = \beta_0 + \beta_1 GC_{i,t} + \beta_2 CAR_{i,t} + \beta_3 NPL_{i,t} + \beta_4 NIM_{i,t} + \beta_5 LA_{i,t} + \beta_6 LCB_{i,t} + \varepsilon_{i,t}$
  - 식3: $ROE_{i,t+1} = \beta_0 + \beta_1 GC_{i,t} + \beta_2 CAR_{i,t} + \beta_3 NPL_{i,t} + \beta_4 NIM_{i,t} + \beta_5 LA_{i,t} + \varepsilon_{i,t}$
  - 식4: $ROE_{i,t+1} = \beta_0 + \beta_1 GC_{i,t} + \beta_2 CAR_{i,t} + \beta_3 NPL_{i,t} + \beta_4 NIM_{i,t} + \beta_5 LA_{i,t} + \beta_6 LCB_{i,t} + \varepsilon_{i,t}$

2022-11-19 10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기대부호

구분	변수명		변수설명	기대부호
종속변수	수익성	ROA	총자산이익률(ROA) = (당기순이익÷총자산)×100	
		ROE	총기자본이익률(ROE) = (당기순이익÷총자기자본)×100	
독립변수	녹색신용대출	GC	LN(녹색신용대출금)	(+)
	자본적정성	CAR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위험가중자산)×100	(+)
	자산건전성	NPL	부실대출비율 = (부실대출금÷ 대출금) ×100	(-)
	경영관리적정성	NIM	순이자마진율 = (순이자수익÷수익자산)×100	(+)
	유동성	LA	유동자산비율 = (유동자산÷총자산) ×100	(+)
	대형상업은행더미	LCB	대형상업은행이면 1, 주식제상업은행 0	(+)

2022-11-19 11

실증분석1 : 기술통계량 및 상관관계 분석결과

기술 통계량	수익성 ROA(t+1)	수익성 ROE(t+1)	녹색신용 대출	자본 적정성	자산 건전성	경영관리 적정성	유동성
평균	1.02	15.30	7.13	13.25	1.35	2.50	99.32
표준편차	0.24	3.81	1.77	2.08	0.41	0.42	0.41

상관관계	1	2	3	4	5
1. 녹색신용대출	1.000				
2. 자본적정성	0.433***	1.000			
3. 자산건전성	0.376***	0.257**	1.000		
4. 경영관리적정성	-0.066	-0.238**	-0.173*	1.000	
5. 유동성	-0.207*	-0.117	0.112	0.025	1.000

주: ***, **, *은 각각 1%, 5%, 10%에서 유의함을 나타낸다.

2022-11-19 12

부실대출비율

2022-11-19 13

실증분석 2: 실증분석결과

구분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ROA	ROA	ROE	ROE
녹색신용대출	0.077*** (4.39)	0.071*** (3.74)	0.624** (2.15)	0.588* (1.87)
자본적정성	-0.006 (-0.43)	-0.007 (-0.51)	-0.599** (-2.55)	-0.607** (-2.55)
자산건전성	-0.223*** (-4.70)	-0.228*** (-4.76)	-4.516*** (-5.78)	-4.548*** (-5.74)
경영관리적정성	0.276*** (6.31)	0.276*** (6.29)	3.557*** (4.94)	3.555*** (4.91)
유동성	-0.007 (-0.16)	0.001 (0.00)	-0.466 (-0.64)	-0.421 (-0.56)
대형상업은행더미		0.04 (0.80)		0.243 (0.30)
상수	0.879 (0.20)	0.204 (0.05)	62.212 (0.86)	58.076 (0.79)
N	94	94	94	94
R^2	0.55	0.55	0.52	0.52
F	21.651	18.078	19.252	15.892

주: ***, **, *은 각각 1%, 5%, 10%에서 유의함을 나타낸다.

2022-11-19 14

결 론

- 녹색신용대출은 수익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남. 녹색신용대출이 확산되고 업무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이후 정책과 체계가 개선되고 완비됨에 따라 운영능력 향상되고 이로 인하여 긍정적 효과를 보게 된 것으로 사료됨
- 자산건전성을 대표하는 부실대출비율은 낮을수록, 경영관리적정성을 대표하는 순이자마진율은 높을수록 수익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됨
- 모형3과 4에서 자본적정성을 대표하는 자기자본비율은 낮을수록 수익성에 긍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ESG, 탄소중립 등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는 현재 중국상업은행의 녹색신용대출은 중국정부의 정책대안으로 활용되고 있음. 금융기관이 사업에 투자할 때 경제적이익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평가도 고려한다는 것은 장단점이 존재. 하지만 중국의 녹색신용대출이 에너지절감과 기술혁신을 강화하여 자원배분을 최적화하고, 산업구조를 고도화 하는데 주력한다면 장기적으로 지속성장가능성이 있는 금융정책으로 거듭날 것으로 사료됨

2022-11-19 15

【차세대학자분과Ⅰ】 발표 ①

중학교『생활중국어』상의 '了' 분석과 제언

김선호*

【목 차】

1. 들어가며
2. '了'의 분류
3.『생활중국어』의 '了' 분석
  1) 분석
  2) 논의점
  3) 제언
4. 나가며

1. 들어가며

한국 중학교의 '생활중국어'[1]는 제2외국어의 한 영역으로 학습을 통해 얻어진 언어와 문화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학습자가 외국인과 적극적으로 의사소통에 참여하도록 하는 교과이다. 현재 중학교에서 배우는 '생활중국어'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따르고 있는데, 이는 2018년부터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에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2019년, 2020년까지 각 학교 급, 학년 별로 차례로 적용되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생활중국어'가 지향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이 제시되어 있다.[2]

>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외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배양한다.
> 가. 기초적인 의사소통 기본 표현을 이해하고, 상황에 맞게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 나. 외국 문화의 이해를 통해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하고, 해당 문화에 대한 배려심과 존중의 자세를 확립한다.
> 다. 다양한 매체와 자료를 통해 학습 해당국 관련 정보를 선별하여 활용하는 능력을 기른다.

학습자로 하여금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기초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배양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생활중국어'교과서에는 어떠한 내용이 제시되어야 할까? 그것은 바로 기초 의사소통에 필요한

* 경희대학교 동양어문학과 중국어문학전공 박사과정 (kshroad@hanmail.net)
1) 2015 개정 교육과정 중『생활중국어』교과서는 '시사중국어사', '넥서스', '엔이능률', '미래엔', '와이비엠', '다락원', '파고다북스', '천재교과서', '동양북스' 총 9개 출판사에서 출판하고 있다.
2) 교육과학기술부, 제2외국어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16], 2015, p.4.

어휘와 어법 항목들이 다양한 상황에서 어떠한 기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적절한 설명과 다양한 예문이 제시되는 것이다. 그리고 실제 교과서에 각 어법 및 어휘 설명이 어떻게 제시되고 있는지 검토하는 것은 학습자의 학습을 효율적으로 도울 수 있는 좋은 방법 중 하나일 것이다.

그동안 한국 중·고등학교의 중국어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중에서도 '了'의 교육과 관련한 연구로는 김란(2005)[3], 박용진(2012)[4], 손정애(2013)[5], 나혜숙(2021)[6], 조은숙(2021)[7], 유지선(2011)[8], 가선영(2012)[9] 등이 있었으며, 특히 중국어 교과서 혹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로는 이지선(2003)[10], 지은영(2004)[11], 김성희(2006)[12], 신현영(2006)[13], 박수현(2012)[14], 서무준(2015)[15], 김민주(2017)[16] 등이 있었다. 중국어 교과서와 관련된 선행 연구에서 제기된 현행 중국어 교과서의 문제점으로 세 가지를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 동태조사 '了'와 어기조사 '了'의 분포가 고르지 못하고 몇 단원에 치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는 현행 교과서가 학습자에게 '了'가 가지는 다양한 기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다양한 '了'를 구분하는 어법 설명이 충분하지 않거나 아예 없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 조사 '了'에 대한 예문 제시가 본문에만 치중되어 있어 학습자들이 각 어법적 요소들을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즉, 학습자가 다양한 상황과 표현에서 적용되는 '了'를 이해하기에는 예시가 불충분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제시한 공통된 개선안으로는 알맞은 문법 설명 제시와 더불어 적절한 예시를 충분히 제시하여 학습자로 하여금 '了'가 가지는 다양한 기능에 대한 이해를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중국어 교과서에 대한 연구는 학습자들의 효율적인 학습을 도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어 교육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대부분의 연구들이 고등학교 교과서『중국어Ⅰ』또는『중국어Ⅱ』에 대한 분석과 연구에 치중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행 우리나라의 교육과정 상 학생들이 처음 중국어를 접할 수 있는 단계가 중학교 '생활중국어'라는 점에서 '생활중국어'의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대한 연구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중학교 교과서『생활중국어』에 대한 분석 및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기에 본고에서는 현행『생활중국어』교과서 중 많이 사용되는 5종을 선택하여 교과서 안에 '了'가 갖는 다양한 의미와 기능을 학습하기 위한 설명이 학습자

3) 金蘭,「韓國學生"了"字句習得偏誤分析」,『중국어교육과연구』, (2), 83-97, 2005.
4) 박용진,「韓籍漢語學習者'了'的習得研究」,『중국어문학논집』, (73), 2012.
5) 손정애,「현대중국어 동태조사 '了'의 교육 연구」,『중국어문학논집』, (83), 95-124, 2013.
6) 나혜숙,「중국어 교육을 위한 중국어 문법 항목 분석 - 초급 회화 교재의 존현문과 조사 '了'를 중심으로」,『중국언어연구』, 96(0), 477-505, 2021.
7) 조은숙,「한국인을 위한 '了'의 교학문법 설계」,『중국언어연구』, (93), 441-473, 2021.
8) 유지선,「助詞 '了' 사용상의 오류분석과 지도방안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11.
9) 가선영,「『了』의 교학상 주요 어법기능 연구」, 수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12.
10) 이지선,「제7차 교육과정 중국어 교과서 1의 효과적인 助詞 습득 연구 : 動態助詞와 語氣助詞를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3.
11) 지은영,「고등학교『중국어Ⅰ』조사 "了"의 활용현황 분석을 통한 교재 개선안」,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4.
12) 김성희,「助詞 "了"의 분석 및 효과적인 학습방안 : 제7차 고등학교 중국어교과서 Ⅰ·Ⅱ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6.
13) 신현영,「고등학교『중국어Ⅰ』에서의 어기조사 교수 - 학습방안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6.
14) 박수현,「動態助詞'了'와 語氣助詞'了' 使用에 관한 教授法 研究」, 원광대학교 석사논문, 2012.
15) 서무준,「현대중국어 조사 '了' 연구 : 2009 개정 제7차 고등학교 교과서『중국어Ⅰ』과 대학 교재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석사논문, 2015.
16) 김민주,「고등학교 중국어Ⅰ교과서에서 표현하는 "-了"와 "了#"의 어법적 특징 연구」,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17.

에게 충분히 제시되었는지 고찰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了'가 가지는 다양한 의미와 기능에 대한 학습자의 이해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을 제언하고자 한다.

2. '了'의 분류

본고에서는 '了'의 구체적인 용법에 대한 고찰이 아니라,『생활중국어』교과서에서 제시되는 '了'의 양상과 그 설명이 교학에 있어 적합한지에 대한 분석이다. 그러기에 '了'에 대한 자세한 용법 설명은 생략하고 '了'를 어떻게 분류하는지에 집중하려 한다.

'了'의 분류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이견이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呂叔湘의『現代漢語八百詞』에 근거하여 '了1'과 '了2'로 분류한다.[17]

> "了"有兩个。'了1'用在動詞后，主要表示動作的完成。如動詞有賓語，'了1'用在賓前。'了2'用在句未，主要肯定事態出現了變化或卽將出現變化，有成句的作用。動詞有賓語，'了2'用在賓語后。

'了1'은 동사 뒤에 쓰여서 주로 동작의 완성을 나타내고 동사에 목적어가 있다면 '了1'은 동사 뒤, 목적어 앞에 사용한다. 그리고 '了2'는 문장 끝에서 주로 상황의 변화 발생, 혹은 곧 변화의 임박을 확신하며 문장을 완성하는 역할을 하며, '了2'는 동사에 목적어가 있다면 목적어 뒤에 사용한다.

위와 같은 분류는 중국어를 학습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외한어(對外漢語)의 영역에서도 따르고 있다. 盧福波(2007)[18]는 '了'를 통해 '완성(완료)'과 '변화'를 나타낼 수 있으며 의미와 위치에 따라서 '了1'과 '了2'로 구분하고 있다.

> 从"了"表示"完成"和"變化"与成句的意義与位置上，可以把它看成兩个。
> (1) "了1"-表示動作完成; 用于動詞后
> - 他出去叫了一輛車來。
> - 上午我就把那封信發走了。

'了1'은 동작의 완성(완료)을 나타내며 동사 뒤에 위치하는데, 혹 동사 뒤에 결과보어나 방향보어가 올 경우에는 '了'는 그 후에 위치한다. 주의할 점으로 '了'는 과거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동작의 완성, 실현을 나타내기에 미래의 일정 시간 안에 완성되는 동작에도 '了'를 사용할 수 있음을 들었다.

> (2) "了2"-表示事態的變化，確定的語氣; 用于句后
> - 下雨了，回屋里去吧。
> - 苹果已經红了，可以吃了。
> - 这年頭不是從前了。
> - 我已經寫了回信了。

17) 呂叔湘,『現代漢語八百詞』, 商務印書館, 1999, p.351.
18) 盧福波,『對外漢語教學實用語法』, 北京語言大學出版, 2007, pp.159-162.

‘了2’는 상황이나 상태의 변화와 확정의 어기를 나타내며 일반적으로는 문장 끝에 위치한다고 하였다.

이 외, 동사 뒤에 ‘了1’이 위치하고 ‘了2’ 또한 문미에 위치할 경우에는 완성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변화도 나타낸다고 하였다.

齊滬揚(2005)[19] 역시도 ‘了’의 위치와 나타내는 기능에 어기사 ‘了2’와 동태조사 ‘了1’을 구분하며 양자 간의 차이점을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在这里，需要區别一下表示陳述語氣的“了”和動態助詞“了”。語氣詞“了”附着在句末，表示確定的語氣，去掉后不影響句意。而動態助詞“了”只能附着動詞或某些形容詞的后邊，表示動作行爲或性壯變化已經完成，經常出現在句子的中間，不能去掉。
>
> - 我给他送去了一些水果。
> - 到明年暑假就有八年没見到他了。
> - 蘋果已經熟了。

齊滬揚은 ‘了2’의 경우, 문미에 위치하여 확정의 어기를 나타내는데 ‘了’를 제외하더라도 문장의 의미에는 차이가 없다고 하였다. 반면 ‘了1’의 경우에는 동작 행위나 성질이 이미 완성되었음을 나타내며 일반적으로 동사나 일부 형용사 뒤에 위치하여 제외할 수 없다는 특징이 있다고 하였다. 이 외, ‘了’가 어기조사와 동태조사의 기능을 모두 겸할 수 있다고 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서 본고에서도 교육을 위한 ‘了’를 다루고 있으므로, 대외한어의 분류에 따라 ‘了’를 ‘완성(완료)’의 의미를 지닌 동태조사의 ‘了1’과 ‘변화(확정의 어기)’의 의미를 지닌 어기조사의 ‘了2’로 분류하려 한다. 그리고 위의 예문 ‘蘋果已經熟了。’와 같이‘了’가 문미에 위치하여‘완료’와 ‘변화’의 의미를 모두 겸하고 있는 경우에는 ‘了3’으로 분류하여 『생활중국어』를 분석하려 한다.[20]

3. 『생활중국어』의 ‘了’ 분석

1) 분석

	‘了’의 분류	표현
1	了2	你多大了?
2		太高興了。
3		幾點了?
4		走十分鍾就到了。
5		上課了!
6	了1	我昨天買了一些書。
7	了3	你打錯了。
8		我感冒了。

19) 齊滬揚, 『對外漢語教學語法』, 复旦大學出版社, 2005, p.157.

20) 盧福波(2007)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了1’이 위치하고 또 문미에 ‘了2’가 동시에 출현하는 경우도 있지만, 의사소통 기본 표현과 5종의『생활중국어』교과서에서는 제시된 바가 없기에 본고에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생활중국어』 교과서에 제시된 '了'를 살펴보기 전,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생활중국어' 의사소통 기본 표현 중에서 '了'가 포함된 문장을 살펴봄으로써 학습자가 반드시 학습해야 하는 '了'는 무엇인지를 판단해 보고자 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의사소통 기본 표현 중에서 '了'를 포함한 문장은 모두 8문장이다. 그중에서 '了2'가 5문장, '了1'이 1문장, '了3'은 2문장으로 나타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생활중국어' 의사소통 기본 표현에서 '了'가 제시된 비율을 보면 '了2'가 62.5%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了1'과 '了3'을 모두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는 '생활중국어' 교과 내에서 학습자가 '了2'는 물론 '了1'과 '了3'모두를 학습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생활중국어』 교과서는 '了2'를 기본으로 학습하되 그 외의 다양한 기능들 또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了'가 가지는 각각의 어법적 기능을 이해 및 구분할 수 있는 자세한 설명이 부가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현행『생활중국어』 교과서에는 '了'가 어떻게 제시되고 있을까?

	출판사	출현 빈도		
		了1	了2	了1 + 了2
1	시사중국어사		2	1
2	천재교과서		2	
3	미래엔		2	
4	다락원		1	2
5	엔이능률		8	

현행 교과서 5종에서 제시된 '了'를 보게 되면 확연하게'了2'에 편중되어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了3'은 2종의 교과서에서 발견할 수 있지만, '了1'은 단 한 번도 제시되지 않았다. 이러한 현상을 통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의사소통 기본 표현을 학습 요소로 제시하고 있지만 현행 교과서가 이를 고르게 반영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각 교과서에서는 어법 및 어휘 설명은 어떻게 제시하고 있을까? 먼저 시사중국어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了'에 대한 어법 및 어휘 설명을 살펴보자.

	과	표현	了의 분류	어법 설명	어휘 설명
시사 중국어사	제0과	Dǒng le ma?[21]	了3	-	le 了 ~했다
	제8과	你吃飯了嗎？	了2	* 'le(了)'의 부정은 'méi(沒)/méi yǒu(沒有)+동작'의 형식으로 표현합니다. * 'Tài ~ le (太~了)'를 써서 '너무 ~하다'라고 표현합니다.	* le 了 ~했다 (완료) * sǐ le 死了 (어떤 상태가) ~해 죽겠다
		太好了!			

21) 시사중국어사 출판사의『생활중국어』에서는 "Dǒngle ma?"로 표기되어 있다. 하지만 한어병음을 표기함에 있어

시사중국어사에서는 ‘了’가 포함된 문장은 총 3문장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본문이 아닌 도입부의 ‘교실 중국어’로 제시되는 “Dǒng le ma?”를 제외한다면 ‘了2’가 제8과의 본문에서 두 번 제시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어법 설명으로 부정 형식을 설명하고 있어 다양한 상황에 맞게‘了2’를 활용할 수 있는 설명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학습자가 ‘了2’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에 필요한 의미적 설명이 부재하다. 또한 ‘了2’를 설명하는 어휘 설명란에서는 ‘완료’라고 제시되어 있어서 학습자로 하여금 ‘了2’가 지니는 의미와 기능을 학습하는 데에 어려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기에 어법 설명에 의미적 설명을 덧붙이고 어휘 설명에 있어서 어법 포인트를 ‘변화’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과	표현	了의 분류	어법 설명	어휘 설명
천재 교과서	제8과	太好了，我喜歡吃辣的。	了2	-	le 了 어기 조사
		太貴了，便宜點兒吧。			

천재교과서의 경우에는 제8과 본문에서 ‘了2’를 포함한 두 문장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了2’의 어법 설명이 전혀 제시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휘 설명에서도 ‘어기조사’라고만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기타 어법 설명이 없이 입문자에게 ‘어기조사’라는 어법 용어만을 제시하는 것은 학습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해당 어법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고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아 보인다. 그러기에 적절한 어법 설명을 추가하는 것과 어휘 설명에 있어서 어법 용어를 제시하기 보다는 해당 본문에 제시된 어법 포인트를 반영한 의미적 설명이 함께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과	표현	了의 분류	어법 설명	어휘 설명
미래엔	제9과	你吃飯了嗎？	了2	-	le 了 ~했다,~됐다 [완료나 변화를 나타냄]
		太好了，我想吃漢堡。			

미래엔의 경우에도 제9과 본문에서 ‘了2’를 포함한 두 문장이 제시되고 있지만, 마찬가지로 어법 설명은 전혀 제시되고 있지 않다. 미래엔의 특징으로는 어휘 설명에 있어서 ‘완료’와 ‘변화’를 모두 제시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는 ‘了’가 지니는 기능을 학습자에게 모두 제시하고자 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본문에서는‘了1’의 예시가 없이 ‘了2’의 예시만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학습자가 해당 본문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 잘못된 해석과 이해를 야기할 수 있다. 그러기에 적절한 어법 설명의 추가와 해당 본문에 해당하는 어법 포인트를 제시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과	표현	了의 분류	어법 설명	어휘 설명
다락원	제0과	Dǒng le ma? Dǒng le.	了3	-	-
	제10과	你怎麼了?	了2		le 了 ~됐다
		我感冒了。	了3		

서 동사 ‘懂(dǒng)’과 조사 ‘了(le)’는 구별되어야 하므로 필자가 임의로 띄어쓰기를 하였다.

다락원의 경우에는 '了'가 제시된 문장은 총 4문장이지만, 시사중국어사와 마찬가지로 본문에서 제시되고 있는 경우로 제한한다면 제10과에서 두 문장이 제시되고 있다. 특이한 점으로는 다락원에서는 '了3'을 포함한 문장이 본문에 제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제시된 표현'我感冒了。'의 경우, 단순히 감기에 걸렸다는 의미로 '了1'로 해석할 수 있는 동시에, 감기에 걸려버렸다는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는 '了2'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이러한 이중적인 의미 해석은 앞뒤의 맥락을 참고해야 하는데, 교과서에는 이에 대한 어법 설명은 부재하며 어휘 설명도 한국어 뜻만을 제시하고 있다. '생활중국어'의 학습자가 중국어를 처음 배우는 학생임을 감안한다면, '了3'이 가지는 특징과 기능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고 '了2'의 의미로만 해석하게 될 것이다. 이는 훗날 학습자가 원어민과의 의사소통 시 정확한 의미 전달과 해석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기에 적절한 어법과 어휘 설명이 추가되어 학습자가 다양한 의미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과	표현	了의 분류	어법 설명	어휘 설명
엔이능률	제3과	你幾歲了? / 你多大了? 您多大年紀了?	了2	-	le 了 ~되다 (변화,7 완료를 나타냄)
	제4과	現在幾點了?			-
	제6과	不遠，走十分鍾就到了。			tài ~ le 太~了 아주 ~하다
		太好了。謝謝您。			
	제7과	太貴了，便宜點兒吧。			-
	제8과	你吃飯了嗎?			

엔이능률의 경우 기타 교과서보다 '了'의 예문이 많이 제시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학습자에게 다양한 예시를 통하여 '了'에 대한 이해를 돕는 것은 바람직해 보인다. 그러나 제시된 문장 모두 '了2'에 국한되어 있으며 해당 어법 설명은 부재하여 학습자가 '了2'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또한 미래엔과 마찬가지로, 본문이나 기타 설명에서 '了1'의 표현이 제시되지 않으면서 어휘 설명에서는'변화'의 의미 외에'완료'까지 제시하고 있다. 그러기에 본문에 제시된 표현에 대한 적절한 어법 설명과 어휘 설명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2) 논의점

이상 5종의『생활중국어』에서 제시하고 있는 '了'에 대한 분석을 통해 다음 몇 가지 논의되어야 할 사항을 발견하였다.

첫 번째, 교과서 편찬의 기본이 된 2015 개정 교육과정 의사소통 기본 표현과는 달리 현행『생활중국어』는 '了2'에 편중되어 제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대만사범대학의 초급단계 학습자들의 중간언어 현상을 분석하고 각 유형별 사용 문장의 분포와 오류 발생 빈도를 분석하여 '了'의 교육 순서를 제안한 鄧守信(1999)[22]의 의견을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즉 외국인들의 중간언어를 분석한 결과 동태조사 '了1'의 오류 비율이 높고 어기조사 '了2'의 오류 비율이 낮은 것을 근거로 하여'了2'의 습득이 더욱 용이하기에'了1'보다 '了2'를 먼저 가르쳐야 한다고 제안한 바를 바탕으로 교과서를 구

22) Teng, Shou-hsin, "The Acquisition of 了 le in L2 Chinese", *World Chinese Teaching*, 56-64, 1999.

성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박용진(2012)과 손정애(2014)[23], 나혜숙(2021) 등은 반대로 '了1'을 먼저 교육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다. 박용진(2012)은 鄧守信(1999)과 상이한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는데, 이는 연구 대상자의 모국어가 다르다는 데에서 비롯되었다고 하였다. 그러기에 학습자의 국적에 따라 중국어 교육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며, 한국인 중국어 학습자의 '了' 교육은 '동사+了1'을 먼저 학습한 후 '동사+了1+빈어'문형을, 그리고 '了2'를 학습해야 한다고 하였다. 손정애(2014)는 한국인 학습자의 중간언어에 대한 분석을 통해 '了'의 여러 구조에 대하여 사용 빈도와 오류 발생 빈도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새로운 '了'의 교육 순서를 제안하였다. '동사+了+빈어' 구조와 '동사+了'는 사용 빈도가 가장 높고 기본적으로 서로 같은 의미를 표현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了1'을 먼저 교육하고, 구조가 간단하고 오류의 발생도 높지 않은 '了2'는 초급이나 중급 어느 시기에 배치하여도 무관하다고 하였다. 나혜숙(2021) 역시 국내 대학의 초급 중국어 교과 교재 3종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了1'을 우선 학습하고 '了2'를 학습하도록 교육 순서를 정하였다. 위와 같이 '了'의 교육 순서에 대한 다양한 논쟁들이 있다는 것은 학습자에게 있어서 '了1'과 '了2' 모두 교육할 필요성이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중국어를 처음 배우게 되는『생활중국어』에서는 어느 한쪽에 편향되지 않고 '了'의 다양한 용법을 제시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두 번째, '了'에 대한 어법 설명이 부재한 경우가 대다수라는 점이다. 어법에 대한 명시적인 정보는 학습자가 해당 어법을 인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이는 곧 학습자의 언어 학습을 강화할 수 있는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24] 이처럼 명시적인 어법 설명은 학습자의 언어 학습에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그러나 5종의 교과서 중 단 한 교과서에만 '了'에 대한 어법 설명이 있었으며 제시된 어법 설명 역시 지극히 부분적인 내용만을 담고 있어서 학습자가 '了'를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다. 실제로 동태조사와 어기조사의 '了'는 상이한 기능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의미와 특징에 대한 명시적인 설명이 덧붙여져야만 처음 중국어를 배우는 학습자가 이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어휘 설명의 부적절성이다. 2종의 교과서 본문에서 '了2'의 표현만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어휘 설명에서는 '완료'와 '변화'를 모두 언급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불명확한 어휘 설명은 각각의 '了'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그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제시된 예문에 따른 적절한 어휘 설명이 부가되어야 할 것이다.

상기 제기된 논의점들은 학습자가 '了'의 다양한 의미를 이해하고 활용하기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결국은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을 배양하는 데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학습자의 효율적인 학습을 돕기 위해서는 각 논의점에 대한 대안들이 필요하고, 그 대안들로 인하여 교과서를 재구성 및 보충할 필요성이 있다.

3) 제언

학습자로 하여금 '了'가 지니는 다양한 의미와 기능을 제대로 이해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를 제언하고자 한다.

23) 손정애,「한국인 학습자의 중간언어 분석을 통한 중국어 조사 '了'의 교육 순서 연구」,『중국문학』, 84, 2015, pp. 301-328.

24) Wynne Wong, 서종학 외 역,『입력 강화: 이론과 연구에서 교실까지』, 한국문화사, 2011, p.60.

첫 번째, 적절한 어법 및 어휘 설명 보충이다. 동태조사 ‘了1’과 어기조사 ‘了2’에 대한 어법 설명을 상세하게 교과서에 수록하여 학습자로 하여금 ‘了’를 정확하게 구분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了’에 대한 어법 설명에 있어서 동일한 문장에서 ‘了1’과 ‘了2’를 사용하게 되면 각각 의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제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25]

(a) 我昨天买了一些书。
(b) 我昨天买一些书了。

그 의미만을 생각하면 큰 차이가 없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각 문장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a)는 정말로 화자가 어제 책을 샀다고 하는 ‘완료’에 초점을 두어 사실을 전달하는 반면, (b)는 화자가 어제 이미 책을 샀으므로 책을 사러 갈 필요가 없다는 ‘변화’에 초점을 두어서 문맥에 따라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제시는 학습자가 ‘了’의 위치에 따라서 쉽게 ‘了1’과 ‘了2’를 구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각의 의미적 차이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생활중국어』교과서에는 각각의 어법적 특징들에 초점을 두어 학습자로 하여금 ‘了1’과 ‘了2’가 가지고 있는 차이점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了1’과 ‘了2’, 각각의 의미와 특징을 명시적으로 제시하여 학습자가 그 차이를 이해하게 된다면 본문에‘了3’의 표현이 제시되더라도 각 상황과 맥락에 따라 적절한 의미로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어법적 설명이 추가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학습자의 학습 부담감을 줄일 수 있는 계기 또한 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了’에 대한 다양한 예문 제시이다. 학습자가 ‘了1’과 ‘了2’가 가지는 의미적 차이점을 명확하게 학습한 후에 교과서의 기타 본문에 각각의 ‘了’를 포함한 표현을 다양하게 제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의사소통 기본 표현에 제시된 바와 같이 ‘사실 및 정보 전달’ 중 설명하는 표현으로 ‘我昨天買了一些書。’와 같이 ‘了1’을 제시하고, ‘생활 관련 표현’ 중 교통과 관련된 표현으로 ‘走十分鐘就到了。’와 같이 ‘了2’를 각각의 다른 본문에서 제시하는 것이다. 학습자는‘了’가 동태조사로 쓰이거나 어기조사로 쓰일 경우에 대해 이미 학습한 후이기에 별다른 어법 설명이 제시되지 않아도 그 의미를 구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습한 내용을 다양한 예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교과서 본문에 다양한 기능을 지닌 ‘了’가 제시된다면, 학습자는 ‘了’에 다양한 의미와 어법적 특징이 있음을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결국 학습자가 올바른 의사소통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교육과정 상에서 학년에 따른 교육 내용 재구성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과정 상에서는 일반적으로 중학교에서『생활중국어』를 통해 처음 중국어를 배우기 시작하고, 고등학교에 진학하여서는 일반 선택 교과인『중국어Ⅰ』와 진로 선택 교과인『중국어Ⅱ』를 통해 중국어를 배울 수 있다.[26] 그러나 현재 교육과정 상에서 교과서를 보게 되면『생활중국어』와『중국어Ⅰ』의 내용이 상당수 중복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연계성에 대한 논의는 이선주(2011)[27],남지은(2018)[28],

25) 각 현행 교과서에 제시된 예문들은 모두 다르기 때문에, 모든 교과서가 포함하고 있는 예시문을 제시하기는 쉽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예시문 설정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제시된 의사소통 기본 표현에서 발췌하였다.
26) 이 외에도 전문 교과인 ‘전공 기초 중국어’, ‘중국어 회화Ⅰ’, ‘중국어 회화 Ⅱ’, ‘중국어 독해와 작문Ⅰ’, ‘중국어 독해와 작문 Ⅱ’, ‘중국 문화’을 통해 중국어를 배울 수 있다.
27) 이선주,「중학교 생활 중국어와 고등학교 중국어Ⅰ 교과서의 연계성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11.
28) 남지은,「중·고등학교 중국어 교과서 분석 및 교과 연계 방안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18.

임재민(2019)[29]의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지적하고 있다. 또한 김강호(2015)[30]의 연구에 의하면, 학생들조차 고등학교 교과서의 문법은 중학교 교과서의 내용을 더욱 심화시키거나 새로운 것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기에 학생들의 효율적인 중국어 학습을 위해서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중국어 교과서 간의 연계성을 고려해야 한다. 즉, 학습자에게'了'를 제시함에 있어서도 각 학교급, 또는 교과서별로 점층적·단계적으로 교과서에 반영되도록 재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4. 나가며

2015 개정 교육과정 '생활외국어'의 학습 목표는 '의사소통능력 배양'이다. 이는 중학교 '생활중국어'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우리는 교과서를 바라볼 때 어떻게 하면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을 배양시킬 수 있을지를 고려해야 한다. 즉, 학습자로 하여금 의사소통 능력을 배양토록 하기 위해서는 학습자에게 '了'의 다양한 기능들이 교과서에 명시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하여 본고에서는『생활중국어』안에 제시된 '了'를 대외한어(對外漢語)의 관점으로 '완료'의 의미를 지닌 동태조사 '了1', '변화'의 의미를 지닌 어기조사 '了2', 그리고 '완료'와 '변화'의 의미를 모두 지닌 '了3'로 분류하고 분석하였다. 그 결과, 현행『생활중국어』교과서에 제시된 표현들은 '了2'에 편중되어 있으며, 학습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어법 및 어휘 설명이 부족하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그리하여 그에 대한 제언으로 '了1'과 '了2'가 갖는 어법적 특징을 대비시켜 그 차이점을 명시적으로 제시하는 것과 각 과별 해당 주제에 맞는 표현에 다양한 '了'를 제시하는 것을 들었다. 그렇게 된다면『생활중국어』에 '了3'에 관한 어법을 별도로 수록하지 않아도 되기에 학습자의 학습 부담감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상기 제기된 논의점들이 고등학교 교과서를 분석한 선행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제기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교육과정을 구성함에 있어서 중학교 교과서와 고등학교 교과서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了'의 다양한 표현과 기능이 각 학교급, 또는 교과서 별로 점층적으로 제시될 수 있도록 재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고에서는 연구범위를 '생활중국어'에 제시된 '了'로 국한하여 고찰하였다. 중국어 교육에 대한 전체적인 조망을 하기 위해서는 기타 어법과 표현 간의 구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또한 중학교 교과서와 고등학교의 다양한 교과서와의 관계 역시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향후 연구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앞으로 중국어 교과서에 대한 다방면에서의 연구가 진행되어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을 배양토록 도울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29) 임재민,「중국어교과 교육과정과 교과서 비교 연구」,『중국언어연구』, 83, 2019, pp.235-261.
30) 김강호,「중학교『생활 중국어』와 고등학교『중국어 Ⅰ』의 문법 내용 비교 분석연계성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15.

【차세대학자분과Ⅰ】발표 ②

花间词情境整一性的显现与建构方式

韩珂*

【目 录】

1. 花间词情境整一性的显现
  1) 现实寄托背后的整一性
  2) 精神寄托背后的整一性
  3) 话语寄托背后的整一性
2. 花间词情境整一性的构建方式
  1) 集中文本指涉对象
  2) 统筹文本意象选用
  3) 规范文本措辞风格

1. 花间词情境整一性的显现

花间词中情境的整一性对于文本而言是自在自发的呈现特性，因而其显露于花间词的每一项审美追求之中，与花间词的每一项情境寄托直接相关。但花间词的审美追求的形成却也与一众创作者的创作共性关系密切，因而花间词中情境的整一性又是自觉的，即产生自创作者有意的建构，所以探究花间词情境整一性的显现与建构方式也是十分必要的。

1）现实寄托背后的整一性

探寻生活意趣让花间词的情境构建得以贴近现实，抒发微观情感让花间词的情境构建得以贯彻精神，显现修辞魅力让花间词的情境构建得以依靠话语。可见，花间词情境的诸种寄托是其整一性能够形成的重要基础，而我们若想发现花间词情境的整一性，也必须通过这些具体的情境寄托。换言之，花间词情境的整一性实质上就显现在其情境寄托的背后。

现实寄托的存在实际上已经表明花间词的文本指涉存在着固定的范围。所以晚唐五代以来流传的花间词章都极具辨识度。也就是说，一般具有相当阅读经验的读者可以在不考量词章具体出处的情况下颇为准确地判断一首词是不是花间词。因为花间词的表述内容和观照对象都是独特的。以探寻日常生活意趣为审美要旨，花间词的这些表述内容和观照对象构成了其情境的现实寄托的主体部分。而与日常生活相关，能

* 국립 군산대학교 중국학과 박사과정 학생 (s2120153@kunsan.ac.kr)

够用来释放个中意趣的众多文学意象本就处在一张天然的联系网络之内，即便不是同样的事物，但它们被引介到文学文本，内中仍然积淀着同质的美学内涵。以这些整一的意象为基本建构单位落成的审美情境也自然是整一的。

事实上，我们完全可以从花间词情境的现实寄托出发，去对花间词文本的具体表述内容和观照对象做出分类。在日常生活意趣的大主题的框定之内，犹存在着以下小主题。

其一是男女之情。选用这一类主题的词章在花间词之中为数最多，流传最广。比如温庭筠的《菩萨蛮·玉楼明月长相忆》：

玉楼明月长相忆，柳丝袅娜春无力。门外草萋萋，送君闻马嘶。画罗金翡翠，香烛销成泪。花落子规啼，绿窗残梦迷。[1]

全词借女子送君之思，道出了男女相依相恋时的至真之情；

再如韦庄的《菩萨蛮·红楼别夜堪惆怅》：

红楼别夜堪惆怅，香灯半卷流苏帐。残月出门时，美人和泪辞。琵金翠羽，弦上黄莺语。劝我早还家，绿窗人似花。[2]

词中也写离别，但离愁别绪实际上已经将相爱的男女多年来所经历的种种凝聚到了一处，并以文本为推力使其在顷刻间迸发出来。

其二是自然之景。但花间词并不热衷于单纯客观地描摹景物的外观之美，而是在描摹自然之景时加入一层主观的滤镜，或以景写情，或情境交融，并且词章作者时常会让情凌驾在景之上。比如温庭筠的《酒泉子》：

日映纱窗，金鸭小屏山碧。故乡春，烟霭隔，背兰釭。宿妆惆怅倚高阁，千里云影薄。草初齐，花又落，燕双双。[3]

一般情况下这种自我感知确实会受到自然之景的客观风貌的影响。自古逢秋悲寂寥，大多数情况下，创作者的个人情感是附属于引发这些情感的自然之景的，但花间词却乐于有意地制造主体感知与外物风貌之间的张力关系以突出前者。由此也可以看出，花间词即便写景最终也要落实到情。

其三是自我之行。将日常生活的例行动作铺展开来，以此展现这些看似普通的动作中可能存在的美学韵味。比如温庭筠的《归国遥》：

双脸，小凤战蓖金靥艳。舞衣无力风敛，藕丝秋色染。锦帐绣帷斜掩，露珠清晓簟，粉心黄蕊花靥，黛眉山两点。[4]

1) 玉楼明月长相忆，柳丝袅娜春无力。门外草萋萋，送君闻马嘶。画罗金翡翠，香烛销成泪。花落子规啼，绿窗残梦迷。赵崇祚编，杨景龙校注：《花间集校注》（典藏本）（北京：中华书局，2015年），〈菩萨蛮·玉楼明月长相忆〉，页42。

2) 红楼别夜堪惆怅，香灯半卷流苏帐。残月出门时，美人和泪辞。琵金翠羽，弦上黄莺语。劝我早还家，绿窗人似花。赵崇祚编，杨景龙校注：《花间集校注》（典藏本）（北京：中华书局，2015年），〈菩萨蛮·红楼别夜堪惆怅〉，页321。

3) 日映纱窗，金鸭小屏山碧。故乡春，烟霭隔，背兰釭。宿妆惆怅倚高阁，千里云影薄。草初齐，花又落，燕双双。赵崇祚编，杨景龙校注：《花间集校注》（典藏本）（北京：中华书局，2015年），〈酒泉子·日映纱窗〉，页119。

4) 双脸，小凤战蓖金靥艳。舞衣无力风敛，藕丝秋色染。锦帐绣帷斜掩，露珠清晓簟，粉心黄蕊花靥，黛眉山两点。赵崇祚编，杨景龙校注：《花间集校注》（典藏本）（北京：中华书局，2015年），〈归国遥·双脸〉，页113。

全词书写女子梳妆之行，再配合以多种修辞手法，从“双脸[5]”到“黛眉山两点[6]”，将梳妆这一隶属于生活日常的行为动作表现得韵味十足。花间词中与之近似的词章为数不少。日常生活的审美价值无需多言，但花间词之于这审美价值的有意发掘却也透露出了鲜明的主体意识。

被重视的男女之情、被过滤的自然之景，以及被延展的自我之行均表明花间词的情境的现实寄托实际上不过是一个衔接点。一方面，花间词情境的构成元素均来自于日常生活这整一的大范围内，另一方面花间词已构成的情境虽依托于现实却又全部都指向非现实的领域。这正是花间词情境的现实寄托背后的两重整一性。构成元素被日常生活统筹，情境整体又被日常生活中蕴含的情感统筹，使得花间词的情境构建既具备内在的凝合力，又兼顾外在的完成度。而现实寄托作为一个衔接点实际上暗示着精神寄托的必然存在，也暗示着精神寄托背后整一性的必然存在。

2）精神寄托背后的整一性

花间词作者的笔触指向的是个人的内心世界，因为善于发现琐碎日常中的非凡情致，花间词所展现的个人的内心世界是饱满而充盈的。这种饱满而充盈的内心世界构成了花间词文本深层的主体，也为花间词的情境提供了精神性的寄托。可问题在于，花间词乐于表现内心世界，却并不忽视内心世界的个人性，但不同的个人却往往拥有不同的内心世界，按照这一思路，花间词的创作实则很难规整化。不过结合我们的阅读经验却能够发现，花间词的创作不只规整而且规整之余还可显出作者的艺术个性。

如欧阳炯的《浣溪沙·落絮残莺半日天》：

> 落絮残莺半日天。玉柔花醉只思眠。惹窗映竹满炉烟。独掩画屏愁不语，斜欹瑶枕鬓鬟偏。此时心在阿谁边。[7]

初品可知其词与温庭筠、韦庄等词人作品的基本旨趣一致，但内中不乏独属欧阳炯个人的风格，即最后一句，温、韦素来习惯统一全词内容性质，一首词内极少有间接表现到直接抒情的转变，但欧阳炯却在精心完成景物铺陈之后，直接将景中之情带出，遂为词章刻上了属于自己的个性标签。

《花间集》共计收录了十八个词人的五百首词，这十八个词人时常会在相同词牌的限定之下舒展各自的才情，词章主题各异，视角繁多。尤其是与情境直接相关联的精神性内容，同样是写男女之离别，温庭筠不同于韦庄，韦庄又不同于孙光宪。但每一首花间词引入精神性内容的方式却几乎都是相同的，即借物抒感，借事言情。每一种特定的情绪表达都与特定的情境元素直接对应，二者结合紧密而稳固。事实上，花间词为情境设置精神寄托的过程即是更进一步完善情境构建的过程。因为现实寄托的存在，花间词完成了的境的框架范围，因为精神寄托的存在，花间词才正式在这一框架范围内注入了情。

情与境，二者于文本空间之内相互融合。是以，境为情划定了延展的范围。这是花间词情境的精神寄托背后的整一性的第一重体现。此外，考察情本身也可以发现，花间词所表达的精神性内容，即个人的内心世界虽然异彩纷呈，但并不是杂乱无章，无规律可循的。事实上情与境之融合，既与创作者个人的统筹

5）双脸。赵崇祚编，杨景龙校注：《花间集校注》（典藏本）（北京：中华书局，2015年），〈归国遥·双脸〉，页113。
6）黛眉山两点。赵崇祚编，杨景龙校注：《花间集校注》（典藏本）（北京：中华书局，2015年），〈归国遥·双脸〉，页113。
7）落絮残莺半日天。玉柔花醉只思眠。惹窗映竹满炉烟。独掩画屏愁不语，斜欹瑶枕鬓鬟偏。此时心在阿谁边。赵崇祚编，杨景龙校注：《花间集校注》（典藏本）（北京：中华书局，2015年），〈浣溪沙·落絮残莺半日天〉，页821。

能力相关，也与情和境各自的先天特质相关。能够为日常生活意象所融载的情感类型，实际上即是有限的又是有机的。其有限性使得花间词所表达的精神性内容可以整一，其有机性使得花间词所表达的精神性内容必然整一。

具体来讲，因为花间词以日常生活意象为表意单元展开文本，但任何一种意象的指涉范围都不是随意的。红玉珠钗、舒床高枕无法融载深沉的历史感慨和宏大的国运之思，日常生活意象必然只能匹配与日常生活直接关联的情感类型，这就在个人的内心世界之中又划分出了一小块园地，花间词所表达的一切精神性内容都在这一小块园地之内。不过这些精神性内容的分布却也不是杂乱无章的，所谓有机性实际上是指能够为日常生活意象所融载的情感类型之间的先天关联。男女之欢爱与个人之喜乐，过往之追忆与现世之怅惘，相互之间都是互相影响的。所以即便是花间词的作者也不确信自己创作之时的心绪状态，但文本之中的情境也不会显得松散琐碎，因为作者创作时的心绪状态，凝聚在文本中的情感内容纵使模糊也终究是一个浑融的整体。

3）话语寄托背后的整一性

情与境融汇在一起，最后还需落实到具体的话语形式之中，即是转变为文本才能真正显露出艺术价值。花间词作者素来乐于自觉地释放修辞魅力，因而即便不考察情与境的适配性和情境自在的艺术内涵，花间词仍可以作为单纯的修辞话语机制显露艺术价值。这实际上引出了花间词创作之时必须予以妥善处理的一对基本矛盾，即情境自在的艺术内涵与修辞技术自身的艺术效果之间的矛盾。

按照文学创作的一般规律，即便是不自觉的依赖修辞技巧，纯粹地打磨情境，让情境中蕴藏的艺术内涵得以自发地释放，仍旧能够产出具备经典意义的作品。在魏晋之前，尤其是先秦文学和汉代文学中，从来都不乏质朴古直的文学名作。但文学之求新求变既与创作者主动的革新意识有关也与创作者现实的创作困境有关。花间词兴起的晚唐五代，质朴古直的文风既不顺应时代的审美潮流，也难以借此彰显作者自身的艺术品性。因此自觉运用修辞技术是创作者践行自我的美学理想的必由之途。

不能脱离情境又必须运用修辞，是以在具体的创作过程中二者谁为先导对于创作者而言就成为了必须予以正视的问题。联系花间词的文本实际，我们可以确定，花间词以情境为先导，以修辞为辅助。比如孙光宪的《浣溪沙·桃杏风香帘幕闲》：

> 桃杏风香帘幕闲，谢家门户约花关，画梁幽语燕初还。绣阁数行题了壁，晓屏一枕酒醒山，却疑身是梦云间。[8)]

在最后一句点明全词情境构建的中心点，即一应铺陈全部都是为了解释作者为何会怀疑“身是梦云间[9)]”。情境构建的总体需求统筹着全词一切修辞手法的选用，也就是说情境是目的，修辞是手段，目的自然要先于手段，因此需要先行明确情境的艺术内涵，随后再借助话语手段让情境文本化、形象化、具体化。这样一来，情境有了话语寄托，又通过这种话语寄托显现出了整一性。事实上，超越话语的现实层面与精神层面的整一性对于艺术接受者而言都必须要通过细细的体味才能够察觉到。但话语层面的整一性却能够直接显露在文本的最表层。一方面，我们可以直接发现花间词在运用修辞手法之时的偏好，即将多种

8) 桃杏风香帘幕闲，谢家门户约花关，画梁幽语燕初还。绣阁数行题了壁，晓屏一枕酒醒山，却疑身是梦云间。赵崇祚编，杨景龙校注：《花间集校注》（典藏本）（北京：中华书局，2015年），〈浣溪沙·桃杏风香帘幕闲〉，页1083。

9) 身是梦云间。赵崇祚编，杨景龙校注：《花间集校注》（典藏本）（北京：中华书局，2015年），〈浣溪沙·桃杏风香帘幕闲〉，页1083。

修辞手法联系在一起，让文本不只是意象的系统、意义的系统，同时也是修辞的系统。另一方面，我们还可以看到花间词修辞手法在其情境构建过程中发挥了怎样的作用，也就是帮助组接意象，让意象能够生成意义。在修辞话语的组接之下，情境内在要素的粘合度也提高了，因而情境自身的整一性的表现也更加鲜明。

综上所述，花间词情境的整一性显现在了现实、精神、话语三个维度，即是贯彻在了情境构建的三个环节之中。现实维度正是花间词情境构建的初始阶段，即意象收集和整合的阶段。精神维度正是花间词情境构建的升华阶段，即是发掘释放意象的艺术和美学内涵的阶段。话语维度正是花间词情境构建的完成阶段，即是借助修辞技术让被发掘释放出的艺术和美学内涵具体化、形象化、文本化的阶段。由此我们完全可以得出结论，花间词的情境显现出来的整一性是其审美追求所主导的必然结果。但是同样不能忽略花间词创作者在具体的情境构建过程中发挥的主观能动作用。事实上，文本的必然从来都蕴藏在文本创作的具体环节之中。所以我们还需要进一步地考察花间词的创作特色，借此探析花间词的整一情境更加具体的构建脉络。

2. 花间词情境整一性的构建方式

当花间词中所展现的情境的整一性成为文本的客观现实，这整一性的构建方式就成为了必须予以直视的问题。根据前文的论述，花间词情境的整一性生成自词作者的自觉的创作过程，所以我们完全可以根据词章的具体创作环节来探析花间词迄今整一性的具体构建方法。事实上前文提及的花间词的三项审美追求本身就隐含了花间词创作的三个最为关键的环节。生活意趣表明了花间词文本的指涉对象，微观情感关联着花间词文本的意象选用，修辞魅力牵引出花间词文本的措辞风格，我们对花间词情境整一性的构建方式的探究也将依照这三个创作环节来进行。

1）集中文本指涉对象

因为花间词中蕴含的现实内容和理念内容均来自日常生活这一大范围，均受日常生活这一存在区间的规约，所以花间词所展现出来的情境尽皆落实于完整统一的现实寄托之上。这是花间词情境整一性的第一重体现，同时却也表明了花间词情境整一性得以构建所依凭的第一项创作方法。已经完成的词章文本具有自在性和客观性这两种基本属性，而文本指涉对象的最初显露则不是来自于作者对文本的阐释，而是来自于读者对文本的接受体验。由于后者极其依赖个人经验，是以词章文本的指涉对象时常有着多元化的呈现。这一点在词体日益成熟的宋代表现得十分突出。有宋一代，即便词体风格有婉约、豪放之分，但无论是婉约词还是豪放词，词章文本的指涉空间均表现出鲜明的张力感，一应体式能够被创作者更加自由的驾驭是词体发展的重要标志。但花间词所处的晚唐五代却属词体的草创时期，彼时创作者的任务是为新兴文学体式快速建立规范，以供后世借鉴。因此，一众词人的创作便不像后世词人那般随心所欲。而是立足于一片匠心，谨慎精严地去打磨文本。

既然是要打磨文本，那么就必须尽可能主动地控制文本的指涉空间，尽可能地明确文本的指涉对象。为了完成这一项工作，花间词人选择的方法是将文本指涉对象集中在确切的场域空间之内。一方面不去有意地隐含创作主旨，以缩小主题空间，另一方面让文本内容与创作主旨严格对应。

我们以韦庄词为例。《花间集》中所收录的韦庄的四十七首词作有一个共同特点。即词章开篇便快速迅捷地导入主题，不绕任何弯子。比如享誉后世的《菩萨蛮·人人尽说江南好》：

> 人人尽说江南好，游人只合江南老。春水碧于天，画船听雨眠。垆边人似月，皓腕凝霜雪。未老莫还乡，还乡须断肠。[10]

开篇两句“人人尽说江南好，游人只合江南老[11]”便点明全词主旨。即词人想要展现的不是大众眼中的江南的杏花春雨、山清水秀，而是鲜明的个人体感。江南虽美，但美中却别有一番滋味。一个老字，道出了人世所见的杏花春雨、山清水秀背后的离合悲欢、光阴流逝。而后全词的一切词句尽是附属于这两个主旨句。结尾再继续强调：“未老莫还乡，还乡需断肠。[12]”呼应开头即已点明的主旨。再如《菩萨蛮·劝君今夜须沉醉》，同样也是在开篇两句就交代出主旨：“劝君今夜须沉醉，尊前莫话明朝事[13]”，比之前一首菩萨蛮主题表现得更加直白。“劝君”二字可作多解，“劝”字无需多说，而“君”既可认为是文本情境中倾听词人倾诉的人，又可认为是文本情境之外的读者。但无论“君”作何解释，“劝”字却天然地带有一种直白的、信息传递的意味功能，继而明确地指出，“劝”字之后即是全词主旨。“尊前莫话明朝事[14]”用语分外直白，也表明了词人丝毫不想隐藏自己的创作意图，不想激起读者的联想和阐释欲。词章结尾的两句“遇酒且呵呵，人生能几何。[15]”在开篇的两句主旨的基础上做出了进一步的延展，但这一延展的功能也还是补充交待开篇可能存在的语意不详，目的是为了让读者对全词主旨的把握更加直接明确。

欧明俊认为：“花间词是当时的‘流行歌曲’”“人们对词的需要只是娱乐、消遣。[16]”这也从另一个角度表明了花间词作者有意集中文本指涉对象的原因。花间词的创作既然以流行为第一要务，那么词的创作者就不能像其他文学类型的作者那样有意地疏远读者与文本之间的距离，丰富文本的思想性。反之，还要调用各种可用可行的手法来拉进读者与文本之间的距离，继而让文本能够被读者较为准确的理解，以扩大引发共鸣的可能。集中文本指涉对象显然有助于词人做到这一点，当创作主旨被清晰地讲明，当全词的一切内容都紧密地围绕清晰的创作主旨展开，读者与文本之间的隔阂自然随着阅读过程的深入被逐渐消解了。

这样一看，花间词情境的整一性仿佛成为了词人创作之时的意外产物。但事实并非如此，情境是花间词的文本内核，文本的指涉归根结底就是情境的指涉，因此词人在创作过程中发挥出的一切主动性都必然以情境的构建为中心，只是好多时候作者可能不会特别在意这一点，因为情境的重要性已经使其完好地融入词人的创作意识，无需词人再刻意地去关注。

---

10) 人人尽说江南好，游人只合江南老。春水碧于天，画船听雨眠。垆边人似月，皓腕凝霜雪。未老莫还乡，还乡须断肠。赵崇祚编，杨景龙校注：《花间集校注》（典藏本）（北京：中华书局，2015年），<菩萨蛮·人人尽说江南好>，页326。

11) 人人尽说江南好，游人只合江南老。赵崇祚编，杨景龙校注：《花间集校注》（典藏本）（北京：中华书局，2015年），<菩萨蛮·人人尽说江南好>，页326。

12) 未老莫还乡，还乡需断肠。赵崇祚编，杨景龙校注：《花间集校注》（典藏本）（北京：中华书局，2015年），<菩萨蛮·人人尽说江南好>，页326。

13) 劝君今夜须沉醉，尊前莫话明朝事。赵崇祚编，杨景龙校注：《花间集校注》（典藏本）（北京：中华书局，2015年），<劝君今夜需沉醉>，页340。

14) 尊前莫话明朝事。赵崇祚编，杨景龙校注：《花间集校注》（典藏本）（北京：中华书局，2015年），<劝君今夜需沉醉>，页340。

15) 遇酒且呵呵，人生能几何。赵崇祚编，杨景龙校注：《花间集校注》（典藏本）（北京：中华书局，2015年），<劝君今夜需沉醉>，页340。

16) 花间词是当时的‘流行歌曲’”“人们对词的需要只是娱乐、消遣。欧明俊：〈花间词与晚唐五代社会风气及文人心态〉，《福建师范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1996年第3期，页40-45。

2）统筹文本意象选用

集中文本指涉对象的目的是让文本的主旨更加清晰明确，而与文本主旨紧密联系在一起的情境也随着文本指涉对象的集中而变得整一。但这种整一仅仅是形态上的。也就是说，词章文本的指涉对象虽然已经集中，主旨虽然已经被框定在一个相对精细的意义空间内，但这些至多不过是让词章文本以及其中的情境在外观呈现上变得完整统一。然而情境整一性的真正体现绝对不只有外观呈现这一个维度，唯有情境内部各组合要素被有序化编排，即是文本内部各个意象被秩序化统筹，情境的整一性构建才算是真正完成。因此统筹意象选用就成了词人创作必须处理的任务。

结合花间词已经完成的文本的实际情况来看，所谓的统筹意象选用对于作者而言就是强化文本内部各个意象之间的关联性。这种强化具体又体现在两个方面，其一是根据创作主旨的需要选取意象，其二是根据意象的先天特质组合编排。花间词所选取的意象尽是读者日常生活中常见的，但是并不存在适用于各种主题的万能意象，因此意象与主题的适配性在花间词的创作过程中就显得尤为重要。此外，意象先天带有的美学性质间接决定了这一意象的使用方式，以及与之搭配的意象类型，词人在创作过程中会有意照顾到这一点，通过突出意象先天的美学性质来展现意象之间联系组合的自然。

比如鹿虔扆的《临江仙·金锁重门荒苑静》：

> 金锁重门荒苑静，绮窗愁对秋空。翠华一去寂无踪。玉楼歌吹，声断已随风。烟月不知人事改，夜阑还照深宫。藕花相向野塘中，暗伤亡国，清露泣香红。17)

该词叙说的核心内容是亡国之哀，这在花间词中实属少数，但被归入花间词之列，也表明了这首词与一般的叙说亡国之哀的词作不同。若说亡国之哀，书以成词，自然首推南唐后主李煜（937-978）。李煜词作的特点是语言朴直，情感的醇厚足以逾越意象先天的美学特质。但主题固有相似性，这首《临江仙》却与李词截然不同。全词用以指涉亡国之思的尽是细碎的日常意象，这样的意象选用看似与主题违和，但实际上却达成了与主题的深度适配，需知国既已亡，哀伤之情自是弥漫进了生活中的每一个细节，所以用“金锁”、“玉楼”、“藕花”等意象更能表现出国亡之后主体内心中负面情绪的挥之不去和延绵不绝。“暗伤亡国，清露泣香红。18)”词中每一个意象的日常性全都被词人毫不避讳地呈现了出来，最终的结果就是亡国之伤浸透了词章文本的全部。意象和各个情境要素之间的关联继而更加有序化，词章意念层面的整一性也由此映透出了文本情境内在的整一性。

3）规范文本措辞风格

由内而外，情境的整一性得到了全方位的构建。但对于词章创作而言，还需要完成最后一项工作。即是词人需要借助话语的调配来让自己精心构建出来的情境的整一性被读者发现。无论是文本的指涉对象还是词章的意象选用都必要落实于话语。因此情境的整一性还需要借助话语即措辞风格的整一性得以外化。

17)金锁重门荒苑静，绮窗愁对秋空。翠华一去寂无踪。玉楼歌吹，声断已随风。烟月不知人事改，夜阑还照深宫。藕花相向野塘中，暗伤亡国，清露泣香红。赵崇祚编，杨景龙校注：《花间集校注》（典藏本）（北京：中华书局，2015年），<临江仙·金锁重门荒苑静>，页1295。

18)暗伤亡国，清露泣香红。赵崇祚编，杨景龙校注：《花间集校注》（典藏本）（北京：中华书局，2015年），<临江仙·金锁重门荒苑静>，页1295。

总的来看，花间词的语言风格不似而后的词体那般绮丽，但具体的词章中倒也不乏浮靡之句，比如温庭筠《菩萨蛮》中的“画罗金翡翠，香烛销成泪[19]”，再如韦庄《菩萨蛮》中的“桃花春水绿，水上鸳鸯浴。[20]”所以花间词的措辞风格大体上就是平白之中夹杂炫彩。这样的语言风格是花间词作者的共性，平白之语突出了词章中的情境及情境的整一，平白之间的一丝色彩则作为一种反衬，使得情境的整一性显现得更加鲜明。

综上所述，花间词情境整一性的建构立足于文本指涉对象、文本意象选用、文本措辞风格三个基本点。让文本指涉的对象集中化，从而显示出了情境外在的整一性；让文本的意象选用有序化，从而显示出了情境内在的整一性；让文本的措辞风格规范化，从而让情境内外两个方面的整一性融合到一起，最终直观地展现在读者的审美视域之中。不可忽视的是花间词情境的整个构建过程与文本的创作过程严密对应，这实际上表明了情境在花间词文本体系内所处的中心位置，而情境的整一性则关涉着花间词一切具体的艺术特色。

理清了花间词情境整一性的显现形式，我们已然可以发现，情境的整一性既是词章文本的客观实际，又是词章作者主观努力的结果。花间词情境的整一性实际上就逐步显现于词章作者创作的各个环节。所以我们还需理清花间词情境整一性的具体建构方式。根据花间词的三项审美追求，以及其情境整一性的三点体现，我们最终得出结论，花间词情境的整一性来自于作者在创作过程中有意识地集中文本指涉对象、统筹文本意象选用、规范文本措辞风格。通过集中文本指涉对象使花间词情境的呈现形式整一化，通过统筹文本意象选用使花间词情境的组成要素整一化，通过规范文本措辞风格使花间词情境的物化载体整一化。这三个过程层层递进，彼此之间又相互联系，继而完成了对花间词情境整一性的最终构建。

考察花间词情境构建的整一性，从这整一性的体现以及构建方式入手重新认识花间词，其最终目的是帮助发现花间词所呈现出来的众多表面艺术特色的生成机制。因此，整一性又可作为一种研究导引，帮助我们回答更多与花间词相关的学术问题。

19) 画罗金翡翠，香烛销成泪。赵崇祚编，杨景龙校注：《花间集校注》（典藏本）（北京：中华书局，2015年），<菩萨蛮·玉楼明月长相忆>，页42。

20) 桃花春水绿，水上鸳鸯浴。赵崇祚编，杨景龙校注：《花间集校注》（典藏本）（北京：中华书局，2015年），<菩萨蛮·洛阳城里春光好>，页343。

【차세대학자분과Ⅰ】발표 ③

路遥小说人物精神的美学分析

——以『平凡的世界』为例

李文*

【目 录】

1. 绪论
2. 小说人物精神形成的背景
   1) 恶劣的生存环境
   2) 曲折的奋斗历程
3. 小说人物精神的美学分析
   1) 苦难之美
   2) 抗争之美
4. 结论

1. 绪论

路遥作为现当代陕西乃至中国伟大的作家之一，其作品为中国无数处在人生低谷的人们指引了奋斗的方向，让他们重燃了生活的希望。人民日报2018年12月12日报道：中国青年报社联合“志愿中国”和共青团中央官微进行“改革开放40年”大型青年调查显示，在40年灿若繁星的文学作品中，对青年影响力最大的文学作品依然是『平凡的世界』。66.0%的受访青年确认『平凡的世界』对自己影响最大，获选率排名第一。[1] 小说中的人物在中国可谓家喻户晓，如『人生』中的高加林，『平凡的世界』中的孙少平兄弟等，他们栩栩如生的音容笑貌和人生经历给广大读者留下了深刻的印象，他们作为与苦难生活相抗争的典型形象，激励着中国一代又一代的奋斗者。著名企业家马云曾在『人生』上做序，“路遥对我影响最大。18岁时，我是蹬三轮的零工，如果没有『人生』，也不会有今天的我。”地产大鳄潘石屹更是将百万字的『平凡的世界』读了七遍，花费十万人民币修缮了路遥墓地的他说：“每天晚上看着看着就哭了，每一次的人生低谷，觉得这个坎过不去了，我都要拿起来读一遍，以至于每个细节都记得很清楚。”

学界对路遥的研究始于上世纪80年代，截至目前，成果已遍布作家作品的方方面面，通过分析得知，其研究内容主要集中在作者研究和文本研究两方面，本文则试图关注文本研究中的小说人物精神领域，首先列举几篇有关先行研究如下：

于金金的『论文艺作品中的环境描写与人物性格的塑造——以路遥小说<平凡的世界>为言说中心』（2021）文章以路遥小说『平凡的世界』为例,探讨了文艺作品中的环境描写和人物性格的塑造；李小辉『 论路遥作品中的两个男性人物形象』（2017）文章主要通过对路遥代表作『人生』和『平凡的世界』中两个青年主人公的奋斗过程和爱情悲剧的描写，进行了人物形象分析；王永奇的『 路遥作品在塑造人物形象方面的外来影响』（2008），指出路遥在塑造人物形象时,在人物的出场安排、典型性格的塑造、心理描写等方面受到了明显的外来影响。 另外也有许多文章对路遥小说人物精神有所提及，如申朝晖，李延梅的『陕北文化

* 釜庆大学中国学博士修了生（lwdyx1983@naver.com）

1) 人民日报，“『平凡的世界』为何对当代青年影响这么大？”2018.12.12 https://baijiahao.baidu.com/s?id=1619608603865101510&wfr=spider&for=pc

精神对路遥创作的影响-以,<平凡的世界>为例』（2020）一文，文章的在第2章第2节提到了小说人物身上反映出的意蕴丰厚的人性之美，表达了作者对黄土地上农民的由衷喜爱。

由先行研究可以得知，对路遥小说人物方面的研究多数集中在文学领域，结合作者的创作历程来描绘小说人物形象。而从美学角度出发对作品人物的研究相对较少。这为本文的论述提供了空间。

2.小说人物精神形成的背景

1）恶劣的生存环境

『平凡的世界』中的孙少平、孙少安兄弟出生于千沟万壑的陕北山区农村，这里地处黄土高原，由于人为的破坏，已经不再像以前一样草丰林茂。更多的是水土严重流失之后的荒山秃岭。同时，由于地处大陆腹地，南边又有秦岭的阻挡，导致季风无法北上，干旱少雨，农作物无法成活，丰收更是成了奢望。恶劣的自然环境直接影响着生活在这里的人们的生活质量和精神面貌。在孙氏兄弟生活的双水村，“黄土高原千山万壑已经光秃秃地看不见任何一点绿颜色了。一座座山峁像些赤身裸体的巨人，任凭严厉的风鞭抽自己黄铜似的躯体。”[2]这里的农民终日辛苦劳作，收获却往往成了一场赌博。

这里险恶的自然条件和落后的生产、生存设施决定了，自孙氏兄弟出生的那一刻起，生活就必定与艰辛为伴，而要想改变艰苦的生活状况，改变生来便险象环生，少有风吹草动就会危及性命的生活境遇，就只有付出超越那些相对养尊处优的城里孩子几倍的努力，才有实现阶层跨越的希望。

孙少平、孙少安在饥饿中长大，孙少平在求学过程中，每天只能吃学校食堂里最便宜的黑面馍，同时，为了维护自己仅剩的尊严，还只能等其它同学都将饭食领取之后，自己再如同做贼一般地将属于自己两个黑疙瘩拿走，再将没几个菜叶的汤底盛入碗中。除了饮食，正值青春期，风华正茂的他在女同学面前，也只能穿的衣衫褴褛。作者在书中这么写道：“他撩开两条瘦长的腿，扑踏扑踏地踩着水走着。这也许就是那几个黑面馍的主人？看他那一身可怜的穿戴想必也只能吃这种伙食。瞧吧，他那身衣服尽管式样裁剪得勉强还算是学生装，但分明是自家织出的那种老土粗布，而且黑颜料染得很不均匀，给人一种肮肮脏脏的感觉。脚上的一双旧黄胶鞋已经没有了鞋带，凑合着系两根白线绳；一只鞋帮上甚至还缀补着一块蓝布补丁。裤子显然是前两年缝的，人长布缩，现在已经短窄得吊在了半腿把上；幸亏袜腰高，否则就要露肉了。（可是除过他自己，谁又能知道，他那两只线袜子早已经没有了后跟，只是由于鞋的遮掩，才使人觉得那袜子是完好无缺的）。”[3]通过这些描写，作者从侧面描述了孙少平的家庭条件，也描绘出了一个处于极端贫困中的青年形象。

毕业之后，缺乏家庭支撑的孙少平也只能去工地做一个不需要多少知识文化的小工。几经辗转，虽然短暂当了乡村教师，可最终的落脚之地也只在深不见底的煤矿，成了需要用生命与命运死磕的煤矿工人。

哥哥孙少安的肩头又何尝不是挑着比弟弟孙少平更为沉重的担子。为了减轻父亲孙玉厚的负担，学习本不差劲的他早早放弃了学业，跟着父亲起早贪黑，勉强维持着整个家庭的运转。为了改善家里烂包的光景，为了把黑面馍换成白面馍，在那个普遍艰苦的环境下，他过着比别人更为艰苦的生活，付出着比别人更多的努力。面对和自己青梅竹马的润叶，巨大的身份差异让他选择了拒绝。几经蹉跎，砖厂终于有些起色之时，妻子秀莲又撒手人寰。

然而，这些悲剧性的书写，并未让孙氏兄弟放弃生活的希望，他们不但不曾倒下，反而迸发出更加惊

2) 路遥，『平凡的世界』，北京：北京十月文艺出版社，2021.6，p.247。
3) 路遥，『平凡的世界』，北京：北京十月文艺出版社，2021.6，p.5。

人的精神力量，展现出决绝的抗争之美。

2）曲折的奋斗历程

孙少平和哥哥一样，不甘心一辈子过贫苦的生活，对于孙少平来讲，更多的是希望走出大山，看看外边的世界。高中时，纵使时刻被饥饿困扰，他也没有放松对知识的追求，毕业之后，在二叔玉亭的帮助下，当了乡村教师，算是学以致用，可好景不长，种种因素下，只干了两年。这之后，他又不得不去工地找活儿，当了一个出卖劳力的揽工汉。纵使这样，也是过着吃了上顿儿没下顿儿的生活。最为艰难的时刻，他选择去投奔亲戚，最终感受到的却是世态炎凉。感情方面，初恋郝红梅因为想要追求更安逸的生活，选择了班长顾养民，后来遇到不惧世俗约束的真爱田晓霞，在他们冲破一切艰难险阻，终于快要在一起的时候，身为记者的田晓霞却因为在洪水现场抢救小女孩而牺牲了。孙少平深受打击，而这还不是尽头，最后又在矿井事故中被毁了容。而即使这样，他也只能强忍悲痛，继续前行。

在公社书记的举荐下，开办砖厂出了成绩的哥哥孙少安作为冒尖户去参加了夸富会，见了世面，结识了一些有识之士。在新友胡永合的鼓励下，他野心勃勃地扩大砖瓦厂，为此还在公社信用社贷了七千元。但由于孙少安对制砖产业缺乏足够的了解，聘用的师傅资历不足，技术不过关，导致烧出了事故砖，卖不出去，资金无法回笼，不但砖窑倒闭破产，还欠了一屁股债。这次失败后，孙少安消沉了一段时间，但即使情绪低落，他也没有推脱生活的责任，依旧默默努力，一点一滴地尝试挽回损失。当他终于扭亏为盈，重新开设砖厂后，他吸取了创业失败的教训，经过不断的努力，砖厂终于以惊人的速度重新发展起来。

孙氏兄弟曲折的奋斗历程赋予了他们强烈的苦难意识，而他们在苦难面前的顽强不屈又展现出路遥笔下陕北农村青年决绝的抗争精神。

3. 小说人物精神的美学分析

1）苦难之美

“路遥在『平凡的世界』中，给苦难以深刻的理解和评价。他实际上将苦难看做高于苦难的东西，使苦难成为一种生存需要。从而，苦难之树神奇地结出了甘美的果实，并且携带着崇高迷人的光芒。”[4)]

来自贫苦农村家庭的孙少平每天都在饥饿以及由此带来的自卑与敏感中度过。毕业了，在高中时期品学兼优，才华横溢的他却始终因为出身、家庭等环境问题无法落实一份安稳体面的工作，只能以干艰苦的体力活为主，尽管在任何艰苦的时刻，他都不曾放弃学习，甚至都没有间断过。但命运对他的选择仍然是最终的成为煤矿工人和毁容。而哥哥孙少安的苦难经历比起弟弟来，又可以说是有过之而无不及。为了贴补家用，小学刚读完就和父亲一起扛起生活的重担，而年纪轻轻就当上的生产队长的他也不知比别人多吃了多少苦头。因为贫穷，他甚至没有勇气和从小青梅竹马的润叶喜结连理。在生活终于逐渐好转的时候，妻子却又因癌症离开了他。两兄弟就是这样经历着人生一个个接踵而至的苦难，在他们对生活的认知里，充满了无尽的悲苦与凄凉。而他们也只是这种生活的典型代表，在陕北农村，在双水村，还有无数个孙少平、孙少安和他们一样在经历着人生无穷无尽的苦难，与此同时，他们毫不退缩，拼尽全力，由苦难衍生出的是决绝的抗争精神和积极进取的人生动力。

“路遥笔下的人物无论承受的打击多么沉重，都具有英雄一般坚韧不屈的承担能力，没有一个去‘寻

4) 傅翔，『灵感：苦难与良知的精神－－论路遥』，『厦门文学』，1996年第4期。

短见’自杀的。他们用对生活的质朴博大的爱，来包容苦难，超越苦难。”[5]

2）抗争之美

弟弟孙少平虽然面对了无尽的艰辛与苦难，但仍是一个始终对知识怀有至高追求的农村青年形象，作为在那个年代少有的受过教育的知识分子，先做乡村教师， 虽然又在命运的愚弄下，不得不去做一个又苦又累，无需任何知识技术的揽工汉，但最后还是得到了改变身份的机会，做了煤矿工人，成为了“城里人”。由此，一个品学兼优，有理想，有抱负，面对困难顽强不屈热血青年最在小说中的最终结局是，成为了一名无需太多知识技术的煤矿工人。在他的人生旅程中，作者希望向读者传达的是面对人生的苦难，不退缩，不惧怕，积极进取，不断超越，坚定自己的信念，追求自己的生活理想，实现自我价值的奋斗精神。而他这种顽强的精神也是那个时代众多劳苦大众所共有的。作者通过对这一形象的塑造，表达了自己对这片黄土地上自强奋斗不息的劳苦大众的理解和热爱。同时，也表现了作者对他们那艰辛曲折的人生的同情，也许同情往往是苍白无力的，但在精神上，作者仍在试图以最大的努力，去影响一些人，让他们能够勇敢地继续奋战在这个极其残酷的世间。

面对苦难，哥哥孙少安也比周围人都来得刚强，对美好生活的憧憬，也比任何人都要强烈，正是在这样一种超越常人的抗争精神的支撑下，最后成为双水村的能人及远近闻名的冒尖户。也正是在他的庇佑下，弟弟妹妹才能顺利完成学业，姐姐一家才能安稳度日。弟弟孙少平之所以能够放心地出外闯荡，也正是因为后方有这样一个哥哥在。从孙少平、孙少安等路遥笔下众多的人物形象身上，在与命运抗争的过程中，不时展现着这种面对巨大困难，不退缩，尽最大的努力去与困难抗争的悲壮的美。

孙少安是个身处信息闭塞大山深处的普通农民，同时，又是个非同一般，敢想敢做，吃苦耐劳、身体力行地拼命想要改变这个“烂包”光景，又能带领乡民共同富裕的农民，在他紧扣当时农村发展的时代脉搏，开办砖厂，物质生活上得到改善之后，首先去做的不是给自己箍一口新窑，而是把村子里闲散的劳动力接纳到自己的砖厂，为他们解决了生活上的困境。在砖厂遇到困难之时，他也没有退缩，更没有逃避，最终可以说是凭借一己之力力挽狂澜，成为全村人心目中的奋斗楷模。在孙少安身上，既看到的中国农民淳朴正直，善良勤劳的传统美德，又能看到不同凡响、敢作敢当的抗争精神。

像自己笔下的人物一样，无论身处在多么严酷的环境之中，路遥也在竭力挖掘着生活的美好，正如贺智利所说：“在人生的舞台上，路遥是强者。他在那艰难困苦中追求奋斗的精神，会给人力量。他的小说总是充满了理想主义的精神，让人感受到春天的气息。”[6]

4、结论

『平凡的世界』里蕴含着不平凡的美。作家通过小说人物的一言一行，一举一动，在小说里展现了特定时代的美。路遥在面对苦难时，并未将它视作摧毁自己的魔鬼，苦难对他来说，反而是自己成功路上的垫脚石，反倒是苦难这把刻刀，将自己雕琢成了一件艺术品。而抗争则贯穿在过程中的每一个瞬间，小说人物通过自己的言行向读者诉说着：挫败时不放弃，失意时仍认真生活，熬过命运的捶打，受过的伤才能变成坚硬的铠甲。『平凡的世界』中出现的各个人物在各自人生旅途中所展现出的不同形式的美，在不知不觉中，也影响着每一位阅读过他们的读者。

5）林夕，『路遥改变的人生』，『路遥十五年祭』，新世界出版社2007年版。
6）贺智利，『路遥的个性心理』，『小说评论』，2006年第2期。

【차세대학자분과Ⅰ】발표 ④

论冯梦龙“三言”中自然良知的近代化转变

张静*

【目 录】

1. 绪论
2. 晚明社会和思想的近代化转变
  1) 晚明社会的近代化转变
  2) 晚明哲学和艺术思想的近代化转变
  3) 冯梦龙创作思想
3. "三言"中自然良知的世情风貌
  1) 本乎天性的慕色之情
  2) 发自肺腑的不忍之心
  3) 忠于内心的赤诚之心
  4) 面向实际的坦率之心
  5) 超越尊卑的平等之心
4. "三言"中自然良知的近代化转变
  1) 自然良知的主体性
  2) 自然良知的个体性
  3) 自然良知的世俗化
  4) 自然良知的平等意识
  5) 自然良知的民主萌芽
  6) 自然良知的朴实博爱
5. 近代化转变的内发原生性和民族个性
  1) 中国近代化转变的内发原生性
  2) 中国近代化转变的中庸、浑融和弹性
6. 结论

1. 绪论

1）作家、作品和时代

冯梦龙（1574－1646）是晚明杰出的文学家、思想家和编辑出版家。他所处的时代正是商品经济不断发展，农村人口向城市流动聚集，资本主义萌芽蓬勃发展，个性解放新思想萌发的社会转型时期。他本就出生于商品经济发达的苏州，再加上青年时期屡试不第、入仕无门，于是纵情于秦楼楚馆，出入于茶楼酒肆，这更使他熟悉了下层社会，广泛接触了民间文学。冯梦龙收集宋元话本和明代拟话本编撰成三部白话短篇小说集『喻世明言』（『古今小说』）、『警世通言』、『醒世恒言』合称“三言”，是中国文学史上“白话短篇小说从说书人的口头向文人的案头转变的里程碑”[1]，广泛地反映了社会生活的各个领域和各个阶层。

冯梦龙既是编撰者，又改编和创作了其中诸多篇章，体现了自己鲜明的文学思想。他受阳明心学“致良知”、李贽“童心”说、汤显祖“至情”论等强调人的主体性、个体性、情感性的哲学思想和艺术思想的影响，形成了自己“情教”的、“通俗”的文学创作论。他在『情史·龙子犹序』中讲到，“我欲立情

* 한서대학교 대학원 한중언어문화학과 박사과정（471443637@qq.com）

1）冯梦龙著，魏同贤主编，『冯梦龙全集·前言』，南京：凤凰出版社，2007，p.8。

教，教诲诸众生”[2]，以“情”之真纯来统摄诸理，从内在“良知”的层面，而不是外在理法的层面来感化“教诲诸众生”。

他深知小说触动人心的力量，“虽小诵『孝经』『论语』，其感人未必如是之捷且深也。”[3]并喟叹道：“噫，不通俗而能之乎？”[4] 故而，“通俗”成为他编撰和创作的一大追求，也表露出他对于市井文化的熟稔和认同。“三言”在传统小说帝王将相、忠臣孝子、义夫节妇、才子佳人、侠道僧尼、神鬼仙妖之外又大量描绘了行商坐贾、掌柜伙计、仆从工匠、下层文人、良家妻女、妓女鸨母、戏子优伶、媒妁牙婆、乞丐无赖等市井细民的生计和生活、际遇和内心。正因如此，“三言”成为反映晚明“近代化转变进程”[5]的重要文本，以“嘉惠里耳”[6]的通俗故事呈现世间百态、人情风俗。

冯梦龙不仅热衷于表现世俗生活，而且有着明确的非官方文化立场。他在『喻世明言・叙』中开宗明义地讲到：“史统散而小说兴。”[7]“史统”是官方针对史实及其意义进行记录和阐述的正统话语体系，具有权威性、唯一性、精英性的特点。而小说的兴起则意味着“史统”正统话语的绝对权威以及唯一性的失落。[8] 小说往往讲述被历史排除在外的底层社会、边缘群体和日常生活的故事，是去官方化、去中心化的，多元杂糅、民众喜闻乐见的故事；承载着不同于“史统”的价值和文化、立场和趣味、道德和良知，表达着不同作家的不同倾向，不同人群的不同诉求；不再是官方权威的统一口吻，而是多元并存的众多声音。冯梦龙短篇小说集“三言”的一家之言当然也承载着他对这个时代、这个社会的不同于主流封建话语的独特见解。

在明晚这样一个商品经济发展、市民阶层壮大、世俗文化兴起、思想解放、文艺繁荣的“近代化转变进程”的特殊时期，已出现了中国社会内发原生的近代性思想文化因素。[9] 晚明的通俗文学作品广泛地表现出了这种近代性思想文化因素。而冯梦龙“三言”作为中国文学史上白话短篇小说集的一座丰碑，其中描写世俗生活的篇章往往闪耀出不同于封建主流话语的思想、情感和良知。

2) 研究目的

通过探讨“三言”中发乎作家和人物自然本心的“良知”，可以窥见封建主流话语之外的价值和秩序，进而梳理其中近代化转变进程中出现的新要素。这有助于我们离开近代史开端于1840年的框架及其背后的“西方冲击-中国反应”论，以晚明历史亲历者冯梦龙叙述的“三言”为文本，来分析其中自然良知的近代化转变，从而照见中国社会近代化转变的内发原生性和民族个性，这正是研究的目的所在。

3) 先行研究

中国学术界对于冯梦龙“三言”的研究从上个世纪“五四”时期开始。之前的有清一代冯梦龙作品散逸海外而在本土流失，鲁迅当时也仅见到『醒世恒言』一种，他在『中国小说史略』中说 ““三言”云者，

2) 冯梦龙著，魏同贤主编，『冯梦龙全集・情史・龙子犹序』，南京：凤凰出版社，2007，p.1。
3) 冯梦龙著，魏同贤主编，『冯梦龙全集・古今小说・叙』，南京：凤凰出版社，2007，p.3。
4) 同上。
5) 万明，『晚明社会变迁：问题与研究・绪论』，北京：商务印书馆，2005，p.10。
6) 冯梦龙著，魏同贤主编，『冯梦龙全集・古今小说・叙』，南京：凤凰出版社，2007，p.3。
7) 同上，p.2。
8) 张开焱，「“史统散而小说兴”——冯梦龙小说思想研究之三”」，『明清小说研究』，2007年 第2期，pp.177-187。
9) 许苏民，「中国近代思想史研究亟待实现三大突破」，『天津社会科学』，2004年 第6期，pp.130-136。

一曰『喻世明言』，二曰『警世通言』，今皆未见，仅知其序目。”[10]“五四”之后至1949年期间，学术界不断收集、考证作家生平和创作，校订版本，为后续研究奠定了文本基础。[11]1949-1989年间在作家研究方面主要是对冯梦龙的生平、思想、文学创作活动的考察和论述，作品研究方面主要是对版本、本事源流、撰述时代、流传影响、思想艺术等的探索和评析，以及对作者其他著作的论考，专题研究涉及到市民文学问题、社会历史研究、爱情婚姻问题、宗教问题和中国白话短篇小说的艺术特征等。[12]1990-1999年间研究的重点是作品的妇女主题、婚恋问题以及西方理论的运用；2000-2010年间对作家研究、人物形象、情节结构、文本比较、爱情婚恋、社会思潮与市民意识的研究取得了良好成绩；2010—2015年间的作品研究包括嬗变作品、故事类型、词作研究、语言研究、文体、叙事、美学、对比、翻译、传播、人物形象、文本思想、宗教文化、道德文化、民俗文化（鬼、神等）、生态文化、女性文化、婚恋文化等主题，此外故事类型、版本考证、本事来源和嬗变作品的研究也异常活跃，在对比和译介领域有新突破，语言研究中语音、词汇和句法研究成新亮点。[13]2016-2022年间“三言”研究在各个方面更加广泛深入地继续发展。比如叙事研究在上一阶段关于叙事视角、叙事时间、叙事节奏、叙事结构、欲望叙事、商业叙事、死亡叙事等基础上又走向空间叙事、伦理叙事的新领域，且越来越细化，探讨酒、占卜、疾病、梦境、诗词在“三言”中的叙事功能，以及说书人的套语叙事等；人物形象研究增加了对侠女、悍妇、皂隶、婚恋中的男性、历史文人中的苏轼、柳永的关注，且呈现出了关注人物之间关系的新趋势，如士妓关系、士妓关系和商妓关系比较的研究；语言研究在同素异序词、委婉语、话语标记方面有新进展。

将阳明心学“致良知”纳入到冯梦龙“情教”思想来源和“三言”作品分析的研究成果颇丰。赵维国认为“冯梦龙情教思想是在“致良知”“童心说”的影响下,针对晚明颓废世风、纲纪不振而提出的,意在匡正时弊,淳厚世俗,其内涵既有维护封建道德的责任感,又有张扬人性的进步性,二者看似矛盾,实为一体。”[14]何悦玲认为“王阳明明确反对将“天理”与“人欲”做形上与形下的区分,认为“天理”与“人欲”共存于人的一“心”,从而提出了“心”一元论的观点”，“王阳明还明确将对“心”本体的追求与整体人伦建设密切联系起来,从而提出“致良知”的纲领性口号”，但“在“致良知”的道德实践中,王阳明仍把“私欲”作为人性中的消极因素,仍然把表现私欲的“情”作为第二性的因素,从而置其于“理”的规范之下”，冯梦龙“情教”思想是对阳明心学的扬弃。[15]侯钧才认为“冯梦龙“情教观”与阳明心学皆非对程朱理学的否定，它们的根本取向均为封建纲常，只不过从推广对象上来看，程朱理学偏向于士大夫，而“情教观”与阳明心学则趋向于普通老百姓，俱为“平民哲学”。但由于阳明心学，尤其是左派王学，在晚明走向末流，对社会造成了一定的负面影响，故此时冯梦龙“情教观”的生成与推广”，“对趋向“狂禅”的左派王学的有纠弊之功。”[16]他还认为冯梦龙情教观“继承了王阳明“万物一体”的理念”，而他的情教观“具体生成，却要有赖于晚明主情思潮的盛行”，“其中李贽的“童心说”贡献最大”，“李贽“童心说”发端于王阳明心学中有关于“情”的一个重要命题”，即“七情俱是人心合有的……七情顺其自然之流行，　皆是良知之用，　不可分别善恶。”“童心说”对七情之人心做了进一步阐释，认为“绝假纯真，最初一念之本心也。”此外，“主张“至情论”的汤显祖对冯梦龙“情教观”的建构颇有筚路蓝缕之功”，但他“将“理”与“情”对立起来进行考察”，冯梦龙接受了他“有情之天下”

10) 鲁迅,『中国小说史略』,沈阳：春风文艺出版社，2020，p.126。
11) 袁志,「冯梦龙研究七十年」,『福建论坛』(文史哲版),1993年 第5期，pp.59-64。
12) 王立言,「三言二拍研究综述(上)」,『中国文学研究』,1992年 第4期，pp.48-154。
13) 吴碧宇,「21世纪以来国内“三言二拍”研究述评」,『中国文学研究』(辑刊)，2015年 第2期，pp.113-121。
14) 赵维国,「论心学思潮与冯梦龙的情教思想」,『华东师范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1999年 第1期，p.53-59。
15) 何悦玲,『冯梦龙“情教观”辨析』,陕西师范大学硕士学位论文，2004。
16) 侯钧才,「冯梦龙“情教观”对左派王学的修正——以“三言”为中心进行考察」,『泉州师范学院学报』，2019年　第1期，pp.64-68。

的思想，而“在“理”与“情”的关系上做了进一步的探讨”，“这也是对王阳明“致良知”的一种回归”。[17]殷双煜认为“““致良知”奠定了情教观的思想基础，“童心说”是冯梦龙创作的指导思想，而“至情说”则是情教观的直接理论来源。”[18]以上学者认为冯梦龙“情教”思想的主要来源是阳明心学“致良知”、李贽“童心”说和汤显祖“至情”论，主要是理论研究。张雪飞在硕士论文『“三言”中的情教观』中追溯了冯梦龙“情教”观的理论来源，结合文本从情感、情爱、情欲三个层面分析了“情教”观在“三言”中的体现。[19]

关于“三言”近代化转变的研究尚处于待完善的初期，“中国知网”有五篇相关的论文，分别是谢娟林『论『三言』中日常生活的现代性』喀什大学2019年硕士学位论文，冯娜“浅谈“三言”、“二拍”的时代特征”『北方文学』2019年第20期），杨丽“社会变迁与晚明娼妓——以“三言二拍”为中心”『海南热带海洋学院学报』2018年第4期，张礼“从『三言二拍』中看中国新思想的产生”『北方文学』2017年第12期，任永安“对封建旧秩序的冲击与市民社会新秩序的整建——“三言二拍”思想内容新探”『水浒争鸣』（第十辑）崇文书局2008年。由于史学界对“西方冲击-中国反应”论的反思刚刚兴起，近代史的开端依然界定在1840鸦片战争这个节点，也使得“三言”被看作古代文学史，因而影响了对它的近代性因素的研究。

4) 研究方法和预计取得的效果

本文试图通过社会历史研究法，将“三言”还原到明末的历史语境中，参照当时盛行的阳明心学“致良知”、李贽“童心”说、汤显祖“至情”论等哲学和文艺思潮，探讨冯梦龙受到的影响、自身形成的“情教”思想，以及“三言”中表现出来的创作意图、所蕴含的自然良知。通过文本分析法，重点分析“三言”中反映世俗生活的篇章，对人物形象及叙事者表现出来的自然良知进行整理归纳；梳理其在世情风貌层面的表现，发现不同于传统的新要素；进而在社会思想变迁的层面继续进行更为深入的文本分析，厘清“三言”中自然良知的近代化转变。运用比较研究法，参照西方文艺复兴、启蒙运动的近代化特征，对比“三言”中自然良知的近代化转变，发现中西方相通的“近代性”构成要素。这说明在西方对中国进行“冲击”之前，中国内部已经生化出了“近代性”萌芽。“三言”中的自然良知已然昭示出晚明社会思想及心态的近代化转变，这进一步确证了中国近代化转变进程的内发原生性和中庸浑融的民族文化个性。

2. 晚明社会和思想的近代化转变

1) 晚明社会的近代化转变

晚明是中国历史上新旧交替的转型时期，“国内外学者多将晚明视为两个划时代意义的开端，即中国从古代社会向近代社会转型的开端和世界一体化的开端。”[20]晚明经济空前活跃，经济结构变迁，从单一农业转向农、工、商并举的多元经济结构。人口由农村向城市流动，手工业发展，社会分工扩大，雇佣

17) 侯钧才，「冯梦龙情教思想对王学的继承与修正—以“三言”为中心进行考察」，『九江学院学报』(社会科学版)，2019年 第2期，pp.81-85。
18) 殷双煜，『冯梦龙的小说情教观研究』，渤海大学硕士学位论文，2020。
19) 张雪飞，『“三言”中的情教观』宁波大学硕士学位论文，2009。
20) 陈支平、万明，『明朝在中国史上的地位』，天津：天津古籍出版社，2011，p.99。

关系增加。工商业城市兴起，专业商人出现，商帮崛起，全国市场形成并向世界延伸。白银由市场选择而成为主要流动货币，国家丧失了货币的垄断权，政府职能部分转移至民间。新型地方精英崛起，党社兴起，近代政党萌芽出现，对启蒙思想家有重要影响。学术民间化，上层文化与世俗文化交融。妇女、雇工、奴婢的法律地位有所提高。对于相应的尊长的法律从属关系有所减弱。[21] 总之，生产力的发展、生产方式的改变、商品经济的发达、城市的兴起、社会阶层与相应权利的变化等因素综合在一起，使得承袭数千年的传统农业社会发生了质的变化，在其内部孕育了一种新的运作逻辑，从容不迫地展开了近代化转变的进程。

2）晚明哲学和艺术思想的近代化转变

在这种生机萌动、万物勃发，新生事物不断涌现的社会大潮中，封建统治的主导思想宋明理学遭到质疑。明朝中期，当程朱理学日益成为束缚人心的教条桎梏时，王阳明以他的心学理论极大地拓展了精神世界的空间。王阳明在“龙场悟道”后提出“心即性，性即理”[22]，“吾性自足，不假外求”[23]的思想，这样格物就不是向外求得事物之理，而是向内求得心中之理，这极大地提升了人的主体地位，对后世影响极为深远。王阳明“致良知”思想认为“天命之性，粹然至善，其灵昭不昧者，此其至善之发见，是乃明德之本体，而即所谓良知也。”[24]“盖良知只是一个天理自然明觉发见处，只是一个真诚恻怛，便是他本体。故致此良知之真诚恻怛以事亲，便是孝；致此之真诚恻怛以从兄，便是悌；致此良知之真诚恻怛以事君，便是忠，只是一个良知，一个真诚恻怛。”[25] 这继承并发扬了孟子“人之所不学而能者，其良能也；所不虑而知者，其良知也”[26] 的天赋良心观，并强调良知的“天命之性”、“粹然至善”和“真诚恻怛”。以“致良知”的“真诚恻怛”赋予孝、悌、忠等美德教条以丰盈充实的心理依据和情感质地。

继阳明心学、王学左派、泰州学派之后，出现了被传统道学视为异端的李贽的“童心”说，重视“心体”，以“心”为本，以为“童心者，心之初也”，“绝假纯真，最初一念之本心也”[27]，肯定和提倡个体意识和自主精神，继承和发扬了王阳明“致良知”的主体性和个体性。[28] 而汤显祖的“至情”论又在阳明心学和李贽“童心”说基础上更加突出了“情”，汤显祖在『牡丹亭记题词』中说：“情不知所起，一往而深，生者可以死，死可以生，生而不可与死，死而不可复生者，皆非情之至也”[29]。情之“至”，更凸显了人的情感价值和生命体验。

3）冯梦龙创作思想

冯梦龙对以上三位思想家、艺术家极为推崇，作『皇明大儒王阳明先生出身靖难录』表达对王阳明的钦佩；增补、整理、刊行李贽评点的『水浒传』，“酷嗜李氏之学，奉为蓍蔡”[30]；改编汤显祖『牡丹亭』为『

21）万明，『晚明社会变迁：问题与研究』，北京：商务印书馆，2005，pp.25-26。
22）王阳明，『传习录』，长沙：岳麓书社，2004，p.45。
23）黄宗羲，『黄宗羲全集 第13册 明儒学案一』，杭州：浙江古籍出版社，2012，p.。
24）王阳明，『王阳明全集·大学问』，上海：上海古籍出版社，1992，p.969。
25）王阳明，『传习录』，长沙：岳麓书社，2004，p.233。
26）朱熹，『四书章句集注·孟子·万章上』，北京：中华书局，2011，p.331。
27）李贽，『焚书·续焚书』，北京：中华书局，1975，p.98。
28）李云涛，「李贽“童心说”对王阳明“良知说”的继承与发展」，『中国文化研究』2014年 第2期，pp.102-110。
29）汤显祖著，徐朔方笺校，『汤显祖集全编』，上海：上海古籍出版社，2016，p.1552。
30）许自昌，『椮斋漫录』卷六第八页。转引自北京图书馆古籍出版编辑组编，『北京图书馆古籍珍本丛刊65·子部·杂家类』，北京：书目文献出版社，1996，p.304。

风流梦』，并在“小引”中盛赞“若士先生千古逸才，所著“四梦”,『牡丹亭』最胜。”[31]冯梦龙得益于王阳明“心即理”、“致良知”所开拓出的主体性空间，吸收了李贽“童心”说“绝假纯真”的的赤诚之意，又在汤显祖“至情”论的共振下，讲出了“天地若无情，不生一切物。一切物无情，不能环相生。生生而不灭，由情不灭故。……我欲立情教，教诲诸众生”[32]的豪言壮语，并以情率理，“子有情于父，臣有情于君，推之种种相，俱作如是观”[33]，“文王、孔子之圣也而情。文正、清献诸公之方正也而情。子卿、澹庵之坚贞也而情。卫公之豪侠也而情。和靖、元章之清且洁也而情”[34]，在他看来，理法所尊崇的忠孝节义最初都是发自本心的一片真情。只有回归到真情，才能以“情”动人，教诲众生。“世儒但知理为情之范,孰知情为理之维呼？”[35]在“情”与“理”的关系中，“情”是第一位的，“情”才是践行“理”的最本质的心理依据和情感动力。冯梦龙“情教”的落脚点仍然是王阳明所讲到的“真诚恻怛”、“粹然至善”的“良知”。

3. “三言”中自然良知的世情风貌

冯梦龙的创作思想融入到“三言”的编撰和再创作中，这使得“三言”中的人物和叙事有意无意地流露出一种自然真纯的“良知”，它发自本真一念之间，少有道学腐儒的僵化教条，闪耀着世俗生活的烟火气，贴近着温暖的人心，在冯梦龙所构筑的“三言”文学世界里自然地呈现出一幅世情生活的画卷。

1）本乎天性的慕色之情

“三言”中对于男女之事、慕色之情非但不讳言，反而通过人物、故事和评论表达出一种赞美和肯定。『喻世明言』“张舜美灯宵得丽女”讲到张舜美“年方弱冠，是一个轻俊标致的秀士，风流未遇的才人”[36]，灯影中遥见刘素香“冉冉而来。那女子生得凤髻铺云，蛾眉扫月，生成媚态，出色娇姿”[37]，张舜美着意接近，暗暗撩拨。“说那女子被舜美撩弄，禁持不住，眼也花了，心也乱了，腿也苏了，脚也麻了，痴呆了半晌。四目相睃，面面有情。”[38] 此时虽是在街上，不便搭话，但也彼此心领神会，相互爱慕了。先是有了男女双方本乎天性的慕色之情，这才有了后文的传递情诗、约为欢会、私奔离散、庙庵重圆、进士及第、荣归故里。这一段过程曲折、结局美满、双方称心的婚姻，究其缘起还是“知好色，则慕少艾”[39] 的天性本心。

『喻世明言』“蒋兴哥重会珍珠衫”讲到蒋兴哥和王三巧初婚时的郎情妾意：“蒋兴哥人才本自齐整，又娶得这房美色的浑家，分明是一对玉人，良工琢就，男欢女爱，比别个夫妻更胜十分”，“专在楼上与浑家成双捉对，朝暮取乐，真个行坐不离，梦魂作伴。”[40] 栩栩绘出这一对少年结发夫妻相互爱慕、郎

31) 冯梦龙著，魏同贤主编，『冯梦龙全集・墨憨斋定本传奇（下）』，南京：凤凰出版社，2007，p.1047。
32) 冯梦龙著，魏同贤主编，『冯梦龙全集・情史・龙子犹序』，南京：凤凰出版社，2007，p.1。
33) 同上。
34) 冯梦龙著，魏同贤主编，『冯梦龙全集・情史・情芽类・总评』，南京：凤凰出版社，2007，p.550。
35) 冯梦龙著，魏同贤主编，『冯梦龙全集・情史・情贞类・总评』，南京：凤凰出版社，2007，p.36。
36) 冯梦龙著，魏同贤主编，『冯梦龙全集・古今小说』，南京：凤凰出版社，2007，p.356。
37) 同上，p.357。
38) 同上。
39) 朱熹，『四书章句集注・孟子・万章上』，北京：中华书局，2011，p.283。
40) 冯梦龙著，魏同贤主编，『冯梦龙全集・古今小说』，南京：凤凰出版社，2007，p.4。

情妾意的恩爱之情，也这属“有妻子，则慕妻子”[41] 的人之常情。

『醒世恒言』“乔太守乱点鸳鸯谱”中孙寡妇因担心新女婿重病不愈误了女儿终身，让儿子玉郎男扮女装代姐出嫁。结果嫁到刘家，果然新郎重病不起。刘母怕失了儿子亲事，让女儿慧娘代儿子拜堂，拜堂过后又让慧娘代入洞房，结果阴差阳错洞房里正好凑成一双。玉郎、慧娘相互爱慕对方美貌，假姑嫂倒成了一对真夫妻。后来闹起官司，判案的乔太守对此不以为怪，判道：“移干柴近烈火，无怪其燃；以美玉配明珠，适获其偶”[42]，把男女相恋、干柴烈火视为自然规律，成全了这一对佳偶。又将玉郎原本定下的未婚妻判与慧娘原本的未婚夫，再加上慧娘哥哥病愈，亦可与玉郎姐姐完婚，结果三对新婚夫妇“相悦为婚”，“各赴良期”。[43]　　乔太守不重理法教条，而重人间真情，判后“众人无不心服，各各叩头称谢”，杭州府百姓“都说好个行方便的太守，人人诵德，个个称贤”。[44] 这说明上到朝廷命官，下到市井百姓，都发自本心地认同和祝福男女相慕、两情相悦，希望有情人能够终成眷属。这不是出于什么抽象教条的“道”、“义”、“理”，而是出于自己内心的自然良知。

『喻世明言』“闲云庵阮三偿冤债”入话部分奉劝天下父母及时嫁娶儿女，直白地说“情窦开了，谁熬得住？”[45]可谓是心直口快，全然不在乎封建的假道学。冯梦龙在『情史・情外类・总评』说“情史氏曰：饮食男女，人之大欲。”[46]这和孔子在『礼记』里讲的“饮食男女，人之大欲存焉”[47]都是在认同人性原欲的存在。

但冯梦龙并不赞成淫欲，『喻世明言』“新桥市韩五卖春情”中，韩五娘只为娼门生计，不顾吴山正在灸后静养之时，邀之欢会。吴山不讲节制，色欲过度而脱阳，命悬一线，家人费尽心机才将他抢救回来。他经此一事浪子回头，再不去眠花宿柳，反而获得人们的称赞。而『醒世恒言』“赫大卿遗恨鸳鸯绦”中几个尼姑沉溺于肉体欢愉，不顾赫大卿的意愿，趁其睡熟将其剃发，阻止他回家。结果连日纵欲害了赫大卿性命，又埋尸灭迹。『醒世恒言』“汪大尹火焚宝莲寺”中的和尚以密道暗通信女居住的静室，借着罗汉送子的由头骗奸来求子的良家妇女。『醒世恒言』“金海陵纵欲亡身”中的金废帝海陵王肆意淫乐，不知节制，夺人妻女，罔顾人伦。最终这些无情唯淫的行尸走肉或被清官断案处死，明正典刑，或被臣下谋弑，被降为庶人，这都是在劝谏世人以此为戒。“夫情近于淫，而淫实非情。”[48]冯梦龙将情爱和淫欲加以区分，“此一见后，更无余情”[49]的便是淫心而不是真情。上面所讲的韩五娘、尼姑、和尚、金海陵或为钱财，或为欲望本身，都是无情之淫。而情爱却是有情所以动人的。

『醒世恒言』“卖油郎独占花魁”中挑担卖油的年轻后生秦重，坐在湖边一块石头上歇脚，偶然见到一户金漆篱门走出来一个送客的女娘。“秦重定睛观之，此女容颜娇丽，体态轻盈，目所未睹，准准的呆了半晌”[50]，他是个老实子弟，不知有烟花行径，只是单纯而发自内心地爱慕花魁娘子的美貌，质朴地想，“我每日到他家卖油，莫说赚他利息，图个饱看那女娘一回，也是前生福分。”[51] 后来在附近的酒馆中找酒保打听到了此女娘的身份是娼家花魁。一听说花魁王美娘和他一样是汴京人氏流落到此地的，“触了个乡思之念，心中更有一倍光景”[52]，可以发现，这时秦重的慕色之情又多了同病相怜的因素，

41) 朱熹，『四书章句集注・孟子・万章上』，北京：中华书局，2011，p.283。
42) 冯梦龙著，魏同贤主编，『冯梦龙全集・醒世恒言』，南京：凤凰出版社，2007，p.168。
43) 同上。
44) 同上，p.169。
45) 冯梦龙著，魏同贤主编，『冯梦龙全集・古今小说』，南京：凤凰出版社，2007，p.79。
46) 冯梦龙著，魏同贤主编，『冯梦龙全集・情史』南京：凤凰出版社，2007，p.961。
47) 孙希旦撰，沈啸寰、王星贤点校，『礼记集解』（中），北京：中华书局，1989，p.607。
48) 冯梦龙著，魏同贤主编，『冯梦龙全集・情史・情痴类・总评』，南京：凤凰出版社，2007，p.224。
49) 同上。
50) 冯梦龙著，魏同贤主编，『冯梦龙全集・醒世恒言』，南京：凤凰出版社，2007，p.44。
51) 同上，p.45。

不光视王美娘为慕色的对象，更看到了对方飘零他乡一如自己，甚至想到她沦落风尘的堪怜身世不禁为之叹息：“世间有这样美貌的女子，落于娼家，岂不可惜！”[53]这时他再看王美娘，看到的是王美娘本身，而不是自己欲望的投射。慕色之情因一份为对方设身处地的真心而得到升华。也正因情感的升华，秦重后来积攒碎银一年有余，等待见面一月有余，好不容易宿得一夜，不但没有趁美娘大醉肆意轻薄，反而袖沥捧茶、悉心照料的情节才有了深层的心理依据和充盈的情感内涵。

男女慕色之情的升华更有『醒世恒言』“陈多寿生死夫妻”中的夫妻情深。陈多寿与朱氏自幼订亲，不料突发奇疮迁延不愈，双方父母商定退婚，朱氏却断然不依毅然出嫁。丈夫自觉不久于人世，不愿耽搁妻子终身。自杀前向妻子袒露心迹，讲到夫妻之间“虽有三年之处，却是有名无实。并不敢污损了娘子玉体，这也是陈某一点存天理处。日后陈某死了，娘子别选良缘，也教你说得嘴响，不累你叫做二婚之妇。”[54] 陈多寿用情之深，似乎走到了情欲的反面，他克制自身的慕色之情、好色之欲来守护妻子的后半生幸福。他对妻子的体恤顾惜已然超越了男女相慕相欢，而是把对方的得失利害看得比自己还重，全然替对方思虑筹谋。这一份至爱深情怎不令朱氏为之所动？她一旦发现丈夫饮下砒霜毒酒，立刻夺过酒壶自己一饮而尽。这一份至纯至真、生死相随的的坚贞爱情也令人感喟不已。好在两对老夫妻及时发现，以羊血灌入小夫妻腹中，吐出剧毒后得以醒转。多寿更是因祸得福，砒霜之毒使皮肤崩裂，恶血排尽，先前的奇疮恶疾倒是渐渐好了。从此温书备考，登科及第，夫妻恩爱，子孙繁茂。这样模式化的团圆美满大结局虽显得老套，却是说书人和听书人、作者和读者心理上的默契和道德良知上的共鸣。唯有如此才能慰其悬盼关切之心，畅其自然良知之意。

2) 发自肺腑的不忍之心

“情主人曰：“草木之生意，动而为芽。情亦人之生意也，谁能不芽者？文王、孔子之圣也而情。文正、清献诸公之方正也而情。子卯、滔庵之坚贞也而情。卫公之豪侠也而情。和靖、元章之清且洁也而情。”[55]自然良知是发一念之善的至诚，无需他人赞扬，也不图日后得到回报，如心田中自然长出的绿芽，绝无做作，发自肺腑。

『喻世明言』“蒋兴哥重会珍珠衫”中，因兴哥行商离家数年，妻子美貌被陈商窥见，陈商伙同薛婆设下罗网着意引诱，得手后坏了兴哥、三巧姻缘。三巧被休后嫁与广东合浦县吴知县为妾，恰逢兴哥在此地做生意遭人命官司诬陷，因着先前夫妻恩情，三巧只称兴哥是亲哥，跪求吴知县开脱。吴知县秉公断案，兴哥冤屈得解。三巧又求吴知县容兄妹见一面，不料两人一见，就不禁抱头痛哭。吴知县见此情形“好生不忍”[56]，令他两个诉说前情。他两个一一诉知，又哭做一团，吴知县“也堕泪不止”，说道，“你两人如此相恋，下官何忍拆开。幸然在此三年，不曾生育，即刻领去完聚。”[57] 这位知县大人不但不恼三巧谎称前夫是亲哥，与之余情未了，反而甘愿自退一步、成人之美；不但不以官威权势压人，反而通情达理，厚德温良；不但不以礼教纲常相迫，反而见他人苦情而不禁，甚至在旁“堕泪不止”，足以见得他亦是一个有情之人。情动于中而发于外，内心的不忍、发自肺腑的善意使他流露出人性的温暖和柔软。他做到了道德君子应该做的，但并非空洞、冷漠、刻板地去做，而是亲自安排，细细嘱咐，“即忙讨个小轿，

52) 同上，p.46。
53) 同上。
54) 同上，p.187。
55) 冯梦龙著，魏同贤主编，『冯梦龙全集·情史·情芽类·总评』，南京：凤凰出版社，2007，p.550。
56) 冯梦龙著，魏同贤主编，『冯梦龙全集·古今小说』，南京：凤凰出版社，2007，p.33。
57) 同上。

送三巧儿出衙；又唤集人夫，把原来陪嫁的十六个箱笼抬去，都教兴哥收领；又差典吏一员，护送他夫妇出境”[58]，体恤之情不啻于对待亲朋故交，周到细致全然出自一片真意，发自肺腑的不忍之心使他自发地行良善利他之举。他实现了道德君子的教条准则，而又赋予这些教条准则以充盈的情感和人性的温情。

“情史氏曰：万物生于情，死于情。人于万物中处一焉。特以能言，能衣冠揖让，遂为之长，其实觉性与物无异”，“即草木无知，而分天地之情以生，亦往往泄露其象。何则？生在而情在焉。”[59]冯梦龙在『情史・情通类・总评』中表达自己关于“情”的一元论思想，认为人和万物都生长于这有情的天地之间，都是因情而生，即使是无知的草木也蕴含着天地生养之情。『醒世恒言』“灌园叟晚逢仙女”中的灌园叟就是一位爱花、惜花，懂得花之有情的园丁。他爱花成痴，竟至把花看做人，赏花前先要向花深深作揖，“口称“花万岁”三声”[60]，勤谨护花，“如见日色烘烈，乃把棕拂蘸水沃之。遇著月夜，便连宵不寐。倘值了狂风暴雨，即披顶笠，周行花间检视。遇有欹枝，以竹扶之。虽夜间，还起来巡看几次”[61]。他移情于花，更见得花的有情。关于花看法也与众不同，“凡花一年只开得一度，四时中只占得一时，一时中又只占得数日。他熬过了三时的冷淡，才讨得这数日的风光。看他随风而舞，迎人而笑，如人正当得意之境，忽被摧残，巴此数日甚难，一朝折损甚易。花若能言，岂不嗟叹！”，“全仗人去护惜他。却反恣意拗折，于心何忍！”“既折之后，拣择好歹，逢人取讨，即便与之。或随路弃掷，略不顾惜。如人横祸枉死，无处申冤。花若能言，岂不痛恨！”[62] 他对花的护惜与其说是爱物，不如说是对神交知己的一片深情。灌园叟见花遭摧残的不忍之心，既是发自肺腑的真情，也体现着“以天地万物为一体”的“圣人之心”[63]。冯梦龙也借这个人物来“推其天地万物一体之仁以教天下”[64] 。

3）忠于内心的赤诚之心

“三言”中有许多关于人物心理的刻画和描写，而且各有特点，绝不雷同，许多人物的内心活动甚至超越了一般世俗人情的考量，而具有了其个性化色彩。这些人物因一片不同流俗的赤诚之心，而显得与众不同，光彩照人。

『喻世明言』“蒋兴哥重会珍珠衫”中的蒋兴哥外出数载归来，已然知道了妻子出轨的事情，他“急急的赶到家乡，望见了自家门首，不觉堕下泪来。想起：“当初夫妻何等恩爱，只为我贪著蝇头微利，撇他少年守寡，弄出这场丑来，如今悔之何及！”在路上性急，巴不得赶回。及至到了，心中又苦又恨，行一步，懒一步。进得自家门里，少不得忍住了气，勉强相见。”[65]这一段心理描写和动作描写简练而又细腻，传神地描绘出了兴哥飞奔归家又近乡情怯，自悔当初又恼恨妻子，愤懑满胸又勉力压制的复杂情态，也刻画出他通情理、懂自制的良善本性。在这件事情上他没有站在道德高地上指责羞辱妻子，虽然理法是在他这一边的。他扪心自问，承认自己也有责任，“只为我贪著蝇头微利，撇他少年守寡，弄出这场丑来”[66]。也因为“这场丑”他不得不将三巧休回了家，又将三巧之前用的十六只箱笼封存起来。这里有一段心理描写解释他的行为，“只因兴哥夫妇，本是十二分相爱的。虽则一时休了，心中好生痛切。见物

58）同上。
59）冯梦龙著，魏同贤主编，『冯梦龙全集・情史・情通类・总评』，南京：凤凰出版社，2007，p.932。
60）冯梦龙著，魏同贤主编，『冯梦龙全集・醒世恒言』，南京：凤凰出版社，2007，pp.76-77。
61）同上，p.77。
62）同上。
63）王阳明『传习录・达顾东桥书』，长沙：岳麓书社，2004，p.152。
64）同上。
65）冯梦龙著，魏同贤主编，『冯梦龙全集・古今小说』，南京：凤凰出版社，2007，p.23。
66）同上。

思人，何忍开看？”[67]直言兴哥对三巧的未了之情，为后文兴哥送箱笼埋下了伏笔。后来有个吴知县赴任途中欲纳一房妾室，取中了三巧，央媒议亲，三巧父亲报与兴哥询问意见。平常之人在如此情境中，即使有几句刺话嘲讽也是情有可原的，但兴哥却“并不阻当”，甚至还在临嫁之夜“雇了人夫，将楼上十六个箱笼，原封不动，连匙钥送到吴知县船上，交割与三巧儿，当个陪嫁”，“旁人晓得这事，也有夸兴哥做人忠厚的，也有笑他痴的，还有骂他没志气的。”[68]不管旁人怎么说，他只做自己觉得应该做的事。也许他心中也有一些对前事的怨艾，对三巧再嫁的妒意和不舍，但最终都被更深厚的情分和更良善的祝福所压倒。尤为难得的是，自始至终他都从未以“妇德”、“七出”、“贞洁”等无比正确和硬气的理法之语来贬低和羞辱三巧。三巧内心也明白这些，收到箱笼，心中“过意不去”[69]，实被兴哥的义举所打动。这才有了后来兴哥官司缠身，三巧一意搭救，甚至不顾后夫吴县令的威严，与兴哥相认，抱头痛哭不已。三巧此举亦是出自一片赤诚之心，甚至可以说是不计后果。如果吴县令不是一个通情达理的坦荡君子，结局也许是悲惨的棒打鸳鸯两分散。兴哥和三巧这两个有情之人，虽一时情爱断，却仍是恩义存，他们都在对方人生的重要时刻主动帮扶；也都发自一片赤诚之心，以行动坦率地表达了自己的良知和情义，活出了自己的真本色。

『警世通言』“宿香亭张浩遇莺莺”中的李莺莺形象经过冯梦龙改造，也变成一个大胆追求爱情，勇于捍卫婚姻的新形象。她与张浩毗邻居住，在游览张府宿香亭的时候被张浩窥见，惊为天人。张浩与之搭话，却不料莺莺开诚布公地说道，“妾之此来，本欲见君”[70]，原来二人小时曾在一处玩耍，莺莺对张生原是有情的，她愿与张生“为通媒妁”，“成两姓之好”。[71]张生一听喜出望外，两人以题诗罗带为信互约婚姻。莺莺即将离去，张生却“遂奋步赶上，双手抱持”[72]，这违礼之举被好友劝阻。后来为二人传话的尼姑传达莺莺父母不愿让女儿早嫁的意思之后，张生也就只好等待。时间过去一载，莺莺趁着父母出门，越墙过来与张生相会，有了肌肤之亲。但莺莺父亲突然调任，全家搬离。这边张浩父亲给张浩安排了孙氏成亲，张浩不敢违抗父命，更不敢告知父亲之前与莺莺的婚约，托尼姑传话给莺莺。莺莺毅然告知父母，并表示“女行已失，不可复嫁他人，此愿若违，含笑自绝！”[73]父母不忍莺莺自绝，但张生已和孙氏有婚约。莺莺表示，“父母许以儿归浩，则妾自能措置”[74]。她写下状纸“径至河南府讼庭之下”[75]，以题诗罗带为证，状告张生背离婚约。陈公责问张浩，张浩则以父命为辞。陈公问二人意愿，二人都愿结为夫妇。陈公成人之美判合了二人之婚。这样最终圆满的结局，其每一步都是莺莺迈步向前，勇敢争取得来的。莺莺忠于自己的内心，敢于争取幸福，对待爱情执着、真诚、热烈，这些都是张生所不及的。张生形象还停留在才子佳人私相授受、暗通款曲，一旦父命相逼立时就要妥协的中古叙事模式之下，而莺莺形象则具备了敢于选择、勇于承担、一往无前开拓生活道路的新时代精神。她身为闺中女子，却有自己独立的思想和强大的内心。在突遭变故，情人亦手足无措之时，她冷静决绝，不被“名节”所累，破釜沉舟告上公堂，无畏人言，不惧权威。其心之赤诚至真，其行之执着至坚，使她成为独特的生命个体，令世人称叹。

67) 同上，p.26。
68) 同上。
69) 同上。
70) 冯梦龙著，魏同贤主编，『冯梦龙全集·警世通言』，南京：凤凰出版社，2007，p.449。
71) 同上。
72) 同上，p.450。
73) 同上，pp.454-455。
74) 同上，p.455。
75) 同上。

4）面向实际的坦率之心

“三言”中还有一些次要的人物，他们在故事的关节点上却起到了关键作用。他们说的话，给出的建议往往比主人公更加面向实际，贴近生活，常常一番言语就将陷入生活困境、伦理僵局的主人公点醒，使其开始面对现实，思考切实的解决办法，从而推动故事情节的发展。

『喻世明言』“蒋兴哥重会珍珠衫”讲到兴哥“到一十七岁上，父亲一病身亡”[76]，家中并无其他亲人，兴哥于悲中操持殡葬大事，事事俱得妥帖。兴哥父亲在世时曾为他定下一门亲事，如今岳家王公上门吊唁，“少不得蒋门亲戚陪侍叙话，中间说起：兴哥少年老成，这般大事，亏他独力支持。因话随话间，就有人撺掇道：“王老亲翁，如今令爱也长成了，何不乘凶完配，教他夫妇作伴，也好过日。””[77]所谓“乘凶完配”即是指父母刚死，不成服而婚娶。这是非常罕见的对礼法的突破之举，提出这种建议的亲戚自己也要冒一些舆论上的风险。而他实际上又得不到什么切实的好处，只是见兴哥一人孤苦，心中不忍，就坦率地实话实说，把这一番好意冒险提出了。“王公未肯应承，当日相别去了。众亲戚等安葬事毕，又去撺掇兴哥。”[78]几次撺掇之后，兴哥下定决心，央媒人去王家说。王公态度松动，后来未待三年满孝，而是一年“小祥”之后就将女儿嫁了过来。小夫妻俩彼此陪伴，兴哥从此也就不再伶仃度日，可见“乘凶完配”建议面向实际的好处。

『喻世明言』“蒋兴哥重会珍珠衫”中还有一个提出实在建议的小人物张七嫂。陈商是破坏兴哥与三巧婚姻的第三者，后来听说事情败露一病死了。其妻平氏从家乡赶来为他治丧，却因家仆卷银私逃而陷入困境。隔壁的张七嫂常来常往、不时相帮，得到了平氏的信任和感激。一日张七嫂劝平氏，“死的没福自死了，活的还要做人”[79]，又讲到棺木无钱安葬的问题，劝平氏“莫若趁此青年美貌，寻个好对头，一夫一妇的，随了他去。得些财礼，就买块土来葬了丈夫，你的终身又有所托，可不生死无憾？”[80]，关于为夫守节的问题，张七嫂也看得很透彻，“莫说你衣食不周，到底难守；便多守得几时，亦有何益？”[81]连吃饭穿衣的问题都解决不了，如何守？拿什么守？这里没有直接抨击“饿死事小，失节事大”的道学先生之语，但却以生活本身的实实在在，表述了市井中的普通人最单纯质朴的道理。“平氏见他说得近理，沉吟了一会，叹口气道：“罢，罢，奴家卖身葬夫，旁人也笑我不得。””[82]走投无路的平氏其实是被这朴实的道理说服了，但她还是不自觉地运用“卖身葬夫”的道义盾牌来做一下心理上的防御。这更反衬出张七嫂的坦率之心是何其难得。假如平氏不是个温厚肯听人劝的，一旦拍案而起，闹将起来，张七嫂很有可能会被一番道义之词指着鼻子痛骂，一番好意尽付流水不说，自己还要遭到羞辱。可见为他人着想的坦率也是需要勇气的，因为这种以实际生活为准绳的坦率，实际上挑战了正统理法的价值体系。

5）超越尊卑的平等之心

“三言”中的故事往往有意无意地透露出当时人们的看法。尽管封建等级尊卑秩序的影响一直持续存在，但也出现了一些不同价值取向的新声音。比如阶层的尊卑在“三言”中常被淡化。在塑造人物形象的

76）冯梦龙著，魏同贤主编，『冯梦龙全集・古今小说』，南京：凤凰出版社，2007，p.2。
77）同上。
78）同上。
79）同上，p.29。
80）同上。
81）同上。
82）同上。

时候，并非官宦世家的平民之子也被细细描摹，一番盛赞。『喻世明言』“蒋兴哥重会珍珠衫”中的兴哥是商家的孩子，从小就可爱伶俐，生得“眉清目秀，齿白唇红，行步端庄，言辞敏捷。聪明赛过读书家，伶俐不输长大汉。人人唤做粉孩儿，个个羡他无价宝”[83]。『醒世恒言』“陈多寿生死夫妻”中的陈多寿出身农家，从小读书，更是出众，“仪容清雅，步履端详。却疑天上仙童，不信人间小子”，“行步舒徐，语音清亮，且作揖次第，甚有礼数”。[84]『喻世明言』“闲云庵阮三偿冤债”中的阮三“虽不比宦家子弟，亦是富室伶俐的才郎”，“年方二九，一貌非俗；诗词歌赋，般般皆晓，笃好吹萧”，“留连风月”。[85]这些描摹和夸奖之词毫不吝啬地用在了商家之子、农家儿郎身上，商家之子、农家儿郎的文学形象也开始变得清晰美好、鲜明饱满起来。

爱情也不再是才子佳人的专利，市井细民亦可以追求爱情。卖油郎以真挚深情打动了花魁娘子，最终婚姻圆满，成就了风月场中的一段佳话。还有婚姻的选择，商家之子亦可高攀官家千金，“闲云庵阮三偿冤债”中的太尉之女陈玉兰就爱上了商家富户子弟阮三郎，三郎去世，玉兰小姐一生不嫁，教子成名。“宿香亭张浩遇莺莺”中的李莺莺是官家女，张浩家虽是财豪富户却非官家，但莺莺不以为意，与之相悦情深，终得圆满。“蒋兴哥重会珍珠衫”中的三巧同样做妾，却离开了知县家，而到了商户家。这些都模糊了阶层贵贱的等级观念，表现出一种“以人为本”的评判标准和“以情为重”的价值观念。

传统社会男尊女卑的思想观念也在“三言”故事中受到挑战。『醒世恒言』“苏小妹三难新郎”的入话诗开宗明义：“聪明男子做公卿，女子聪明不出身。若许裙钗应科举，女儿那见逊公卿。”[86]讲出了男女在才智上的平等。并列举“有等聪明的女子，一般过目成诵，不教而能。吟诗与李、杜争强，作赋与班、马斗胜”[87]，提到了续写『汉书』的班昭，创制『胡笳十八拍』的蔡琰，咏柳絮词的谢道韫，通晓诗文和政事的上官婉儿，还有宋朝的李清照、朱淑真，“都是闺阁文章之伯，女流翰苑之才”[88]。盛赞女子之才学不输男儿。接下来细细讲述苏小妹过目成诵、以文断士、以才学取夫君、三难新郎秦观的传奇故事。不仅如此，苏小妹还能断佛印奇文，令苏轼甘拜下风，“吾妹敏悟，吾所不及！若为男子，官位必远胜于我矣！”[89]太后激赏其才，常厚赐以索其题咏，“每得一篇，宫中传诵，声播京都”[90]。苏小妹最终先于丈夫去世，丈夫对她念念不忘，不再续弦娶妻。最后有诗为证：“文章自古说三苏，小妹聪明胜丈夫。三难新郎真异事，一门秀气世间无。”[91]苏小妹锦心绣口、聪慧敏悟、才学过人的形象被塑造得立体饱满、光彩照人。

对于女子的赞美不仅局限于苏小妹这等名门闺秀，“三言”还将真挚的赞美毫不吝啬地赋予身份低贱的妓女群体。『警世通言』“赵春儿重旺曹家庄”的入话部分讲，“自古道：有志妇人，胜如男子。且如妇人中，只有娼流最贱，其中出色的尽多。”[92]列举李亚仙、梁夫人这般妓中大才的故事之后又讲了赵春儿“在千辛百苦中熬炼过来，助夫成家”[93]的故事，最终丈夫做了三任牧民官，夫妻衣锦还乡，重振家业，夫妻相敬如宾，生活圆满幸福。其实“三言”中涉及的妓女形象不胜枚举，玉堂春、杜十娘、花魁娘子美娘，还有与柳永交好的一众名姬，无不是有情有义的美好形象。

83) 同上，p.2。
84) 冯梦龙著，魏同贤主编，『冯梦龙全集·醒世恒言』，南京：凤凰出版社，2007，p.174。
85) 冯梦龙著，魏同贤主编，『冯梦龙全集·古今小说』，南京：凤凰出版社，2007，p.80。
86) 冯梦龙著，魏同贤主编，『冯梦龙全集·醒世恒言』，南京：凤凰出版社，2007，p.212。
87) 同上。
88) 同上，p.213。
89) 同上，p.223。
90) 同上，p.225。
91) 同上。
92) 冯梦龙著，魏同贤主编，『冯梦龙全集·警世通言』，南京：凤凰出版社，2007，p.471。
93) 同上。

尤为难得的是『喻世明言』“杨思温燕山逢故人”中还以一则故事表达了在贞洁问题上男女两性也应平等的观念。讲宋朝靖康之冬，韩思厚、郑义娘夫妇途中被劫掠，韩思厚趁乱逃脱，郑义娘“义不受辱，以刀自刎而死”[94]，死后鬼魂显灵，韩思厚立下誓言“贤妻为吾守节而亡，我当终身不娶，以报贤妻之德”[95]，“若负前言，在路盗贼杀戮，在水巨浪覆舟”[96]。结果未过多日，因做法事结识了女道士刘金坛。这刘金坛的先夫是枢密院冯六承旨，也因靖康之难“被冷箭落水身亡”[97]，刘金坛发愿出家，“追荐丈夫”[98]。不料这两个誓要为先妇先夫守志的鳏寡，却“各有其情，甚相爱慕”[99]，把前情往事抛到了九霄云外。成亲后，“一个也不追荐丈夫，一个也不看顾坟墓”[100]。二人乘船出游之际，突遇大风，双双落水而亡，原来是先妇先夫来索命，“一负冯君罹水厄，一亏郑氏丧深渊”[101]。虽然故事的结局以因果报应来昭示善恶，实现叙事者权威，略显生硬，但其在贞洁问题上的男女平权思想却是极为可贵的。

另外，“三言”中的平等思想还涉及到行业贵贱和年龄歧视。『醒世恒言』“张廷秀逃生救父”中张廷秀之父被恶人攀诬身陷囹圄，张廷秀和弟弟乘船往镇江告状诉冤，不料也遭恶人暗算，被捆缚之后抛入江中，好在被冲上芦苇浅滩，第二天正好遇上戏船搭救。这个戏班中的生角哑了喉咙，领班见廷秀人物标致、声音响亮，就留他学戏。张廷秀此时身无分文、寸步难行，对方又对他有救命之恩，明知戏乃贱业，“在患难之际，也只得从权”[102]。一年之后，礼部主事看戏过程中观其相，发现廷秀“是个未发积的公卿，只可惜落于下贱”[103]，细细询问，考究学问之后惜才不已，将他收为义子，令其温书备考。廷秀果然不负所望，一考及第，得了官职。回乡为父申冤，同时奉养两家老人。他虽在困厄之时流落戏班，沦为戏子，但腹有才学，戏子亦有出头之日。

『警世通言』“老门生三世报恩”中批评了“老去文章不值钱”[104]的看法，讲了一个名叫鲜于公的老门生“五十七岁登科，六十一岁登甲，历仕二十三年”[105]，三次向主考官报恩的故事。这位主考官本意最是瞧不上年长而未及第的老考生，结果因缘际会，先后三次取中这位老考生。原本不指望这位年岁比自己还大的老门生相帮衬的，不料三次困厄之时，都亏得这位老门生鼎力相助。他临终前留下遗言，说“自己不幸少年登第，因而爱少贱老”[106]，门生虽多，最得力的还是这位老门生，“我子孙世世不可怠慢老成之士！”[107]鲜于公也道：“下官今日三报师恩，正要天下人晓得扶持了老成人也有用处，不可爱少而贱老也！”[108]

可见，在“三言”所反映的世情风貌中，无论在社会阶层、男女两性，还是在职业贵贱、年龄老少等广泛领域，都萌发了朴素的平等意识。这些平等意识不是来自统治者的推崇和主流思想的教化，而是来自普通民众的自然良知和质朴判断。

总之，冯梦龙“三言”书写本乎天性的慕色之情，歌颂男女情爱而并不讳言情欲，但将无情唯欲的淫

94) 冯梦龙著，魏同贤主编，『冯梦龙全集・古今小说』，南京：凤凰出版社，2007，p.371。
95) 同上，p.375。
96) 同上，p.376。
97) 同上，p.378。
98) 同上。
99) 同上。
100) 同上。
101) 同上，p.380。
102) 冯梦龙著，魏同贤主编，『冯梦龙全集・醒世恒言』，南京：凤凰出版社，2007，p.419。
103) 同上，p.426。
104) 冯梦龙著，魏同贤主编，『冯梦龙全集・警世通言』，南京：凤凰出版社，2007，p.242。
105) 同上，p.252。
106) 同上，p.251。
107) 同上。
108) 同上。

加以区别和反对；赞赏发自肺腑的不忍之心，正是内在的不忍良善之心推动着人们行善举，也赋予了道义的教条准则以充盈的情感和人性的温情；珍视忠于内心的赤诚之心，对于活出自己的本色的至诚至坚的生命个体予以尊重和赞美；赞成面向实际的坦率之心，在市井细民的朴实想法中见出自然良知的善意，及其挑战正统礼法话语的勇气；表达超越尊卑的平等之心，提醒人们要平等看待不同阶层、性别、行业和年龄的人。

冯梦龙“三言”丰富多彩的故事、形形色色的人物，以及叙事者的评价劝诫，都隐含着某种发乎自然本心的“良知”，这种自然本心的良知成为世情生活画卷的底色，悄无声息地影响着人们的态度、情感和选择，于正统理法的威严话语之外也发出一些细微的声音来。仿佛庄严庙堂中的窃窃私语，声息虽似微末，却宣告了话语权利唯一性的终结。普通人不再盲从理法和礼教的规训，他们开始以自己朴素的“良知”来区分善恶美丑，以有情之性灵来拥抱这个世界。晚明渐渐衰老的社会机体中已然孕育出了新的话语、新的思想和和新的秩序。

4. “三言”中自然良知的近代化转变

“三言”中自然良知在表层的世情风貌中呈现出和传统封建价值体系不同的崭新要素，显得更加世俗，更切实际，更为开明，也更富人情味。若究其深层，则会在社会心理变迁层面发现明显的向近代化转变的趋向，表现出一些近代性特征。

1) 自然良知的主体性

普通人的主体意识觉醒，不再一味盲从旧秩序的规训；觉知到“我”的存在，以“我”之内在尺度来衡量万事万物，运用“我”之理性决定自己的道路；由于对更大自由的渴望而深感旧秩序之桎梏的狭窄，奋力从中脱离；而这也意味着新时代号角的吹响，旧秩序走向瓦解的开端。

突破礼教规约，大胆追求自由的爱情和婚姻，肯定人的自然原欲，这是主体意识觉醒大潮中最汹涌澎湃的表面。“三言”顺应晚明主情的时代大潮，大量描写本乎天性的慕色之情，讲述美好动人的爱情故事；但却没有止步于此，而是致力于塑造主体意识更为凸显的人物形象，表达主体意识更为强烈的思想观念。

『警世通言』“杜十娘怒沉百宝箱”中的杜十娘，主体意识觉醒，她知道自己想要什么，“十娘因见鸨儿贪财无义，久有从良之志。又见李公子忠厚志诚，甚有心向他。”[109] 杜十娘身为京华名妓，艳名响动天下，却并未沉溺于花魁的虚荣和风月场上的纸醉金迷。故事一开头就交代，她“久有从良之志”，可见主体意识觉醒在先，有心取中李甲在后。李甲当时钱财散尽，又无自己的主意，是没有能力为她赎身的，她倚仗的是自己事先的筹谋、与老鸨周旋的智慧和临门一跃的勇气。可惜她从良之心太过热切，一叶障目之下，没有从李甲“温存性儿”[110] 中看到懦弱，从李甲“惧怕老爷，不敢应承”[111] 中看到前方隐伏的悲剧。后来孙富一番“尊大人之怒”[112]，“异日妻不以为夫，弟不以为兄，同袍不以为友，兄何以立于

109) 同上，p.484。
110) 同上。
111) 同上，pp.484-485。
112) 同上，p.494。

天地之间”[113]的吓唬和千金相赠的引诱，就令李甲弃绝了与杜十娘的恩义。

“杜十娘怒沉百宝箱”从表层看来是一个凄婉的爱情故事；而深层则是觉醒的主体以一己之力对抗旧世界而被毁灭的故事。无论是李甲或是李乙都只是一个符号，顺应着旧秩序的演算规则，要将杜十娘逼回到原来的身份地位。只是杜十娘头脑异常清晰冷静，不肯屈身苟活。她果敢决绝，宁为玉碎，不为瓦全。当发现自己在所托之人那里依然只是个可以换钱的物件时，她拒绝接受自己的物化、商品化，宁可悲戚赴死，也不卖笑苟活。悲戚是属于她自己的，而勉力做出的笑却是属于买主的。她以自身的毁灭来换一个森严秩序下的悲怆例外。她追求的不仅仅是自由和爱情，更有人格和尊严。捍卫人格尊严不惜身死，又何惜百宝之箱？这个抗争与毁灭的故事如此震撼人心，正在于杜十娘这个主体觉醒、大胆反抗的形象是如此动人心魄，熠熠生辉。

主体意识的觉醒也并非都是如此感天动地、轰轰烈烈，也可以是平平淡淡、琐琐碎碎，比如『喻世明言』“陈御史巧勘金钗钿”的入话故事。金孝之母见儿子拾回一包银子，她劝说引导儿子“这银子，不知是本地人的，远方客人的？又不知是自家的，或是借贷来的？一时间失脱了，抓寻不见，这一场烦恼非小。连性命都失图了，也不可知。”[114]将心比心，急人所急，金孝一听母亲之言，赶紧把银子带回去归还。同样的情形还发生在『醒世恒言』“施润泽滩阙遇友”中。施润泽是个小本织户，卖绸缎的过程中拾到一包六两多的银子，一开始心中欢喜，想着家中只有一台织机，若用这钱再添一机，一年是多少利，攒了来年再添一机是多少利，算到十年开外已是千金。一边走一边想，快到家时突然转念，“这银两若是富人掉的，譬如牯牛身上拔根毫毛，打什么紧，落得将来受用；若是客商的，他抛妻弃子，宿水餐风，辛勤挣来之物，今失落了，好不烦恼！”“或是与我一般样苦挣过日，或卖了绸，或脱了丝，这两锭银乃是养命之根，不争失了，就如绝了咽喉之气，一家良善，没甚过活，互相埋怨，必致鬻身卖子，傥是个执性的，气恼不过，肮脏送了性命，也未可知。”“不如原往那所在，等失主来寻，还了他去，到得安乐。”[115]这一番拾银之后的自思自想虽看似琐碎，却在将心比心处见出真意。冯梦龙在『情史·情侠类·总评』中讲到，“己若无情，何以能体人之情”[116]，正因主体觉醒，成为有情之个体，才能以己度人，将心比心，体会到他人之情，产生共鸣，怜惜不忍，于是自觉地行义举善事。

将心比心看似简单，要发自真诚地去做到却很难，因为这意味着主体不仅觉醒，有较强的自我意识和自省能力，还脱离了自我为中心的幼稚状态，能够看到他人的需要和感受。不仅看到了他人的需要和感受，而且不以为忤，脱离了“他人即地狱”的矛盾状态，达致主体间性的成熟稳定，这更是主体性的更高阶段。主体意识的觉醒不仅意味着欲望的扩张和个性的张扬，还意味着主动的内省，意味着将他者也视为另一主体的洞察力和同理心。

2) 自然良知的个体性

主体意识的觉醒，也往往意味着个体性的生命表达。“三言”中那些主动追求理想生活的人物形象，那些不畏人言忠于自己内心的人物形象，往往都是个性突出，令人过目难忘的。他们的选择往往出于自律而非他律，也就是说，他们是为自己本身而活，却不是为他人对他的褒贬臧否而活。

『喻世明言』“裴晋公义还原配”中的裴晋公。他平叛立功，还朝拜相，规劝圣上而不听，上表求退而

113）同上。
114）冯梦龙著，魏同贤主编，『冯梦龙全集·古今小说』，南京：凤凰出版社，2007，p.37。
115）冯梦龙著，魏同贤主编，『冯梦龙全集·醒世恒言』，南京：凤凰出版社，2007，p.354。
116）冯梦龙著，魏同贤主编，『冯梦龙全集·情史·情侠类·总评』，南京：凤凰出版社，2007，p.157。

不准，又羞与佞臣为伍，于是纵情酒色歌舞，谄媚者由是多献歌舞乐妓。不想小娥却是被抢来的，其未婚夫唐璧几欲寻之而己身遭难。裴晋公听闻后亲自过问，查明真相后不仅亲自主持了二人的婚礼，还相资千贯助其归返。小夫妻临走前想好好拜谢一番，却不料裴晋公早已吩咐门吏“不劳再见”[117]。裴晋公将乐妓小娥义还原配，如此善举却连对方的拜谢都辞之不受，可见他发心之正。施恩不望报答，不图虚名，全因自己内心的良知而行善事、济危困。他也不因地位之高和施恩之厚就将自己放在道德高地，自恃骄矜，以恩人自居，而是坦率地承认错误：“老夫不能杜绝馈遗，以致足下久旷琴瑟之乐，老夫之罪也”[118]，并采取主婚、赠金等方式来表达“赎罪之意”[119]。他虽居庙堂之高，经宦海浊染，却依然保有一片心灵的净土，一派本真的良善，而守卫这片净土的正是他的自然良知，而非外在的法律制度和理法规约。他纵情酒色大隐于朝堂，体恤下情多有帮扶，这都是他坚守内心，勇于不同流俗的个体化表现。

『喻世明言』“任孝子烈性为神”中的任珪，因妻子在娘家与人通奸，自己撞破反而被岳丈一家故意认作贼人殴打。他激愤不已，回家将父亲安顿到姐姐家，自己则以一柄尖刀复仇，杀死纵女行淫的岳丈两口、串通一气的使女、正在私会的奸夫淫妇，共五人。复仇之后他并不逃走，而是敢作敢当，前去投案，不累乡邻。虽下狱中，“众人见他是个好男子，都爱敬他。”[120]临安府大尹也认为“任珪是个烈性好汉，只可惜下手忒狠了，周旋他不得”[121]，上奏刑部和天子后，按律判处凌迟。而任圭在游行示众时“一时间天昏地黑”，“飞沙走石”，待到“风息天明”[122]时已坐化死去，其尸首因得烧化，免于凌迟。任珪死后借小儿显灵众人，“玉帝怜吾是忠烈孝义之人，各坊城隍、土地保奏，令做牛皮街土地。”[123]街坊乡邻为任圭建庙宇、塑神像，“其庙至今尚存”[124]。

任珪明知杀人的后果是偿命，仍激愤杀人。杀人之后“自知罪重，低头伏死”[125]。从“存在主义”哲学看来，他做出了自由的选择，并为自己的选择承担了责任。他的选择高度个人化，虽然要付出高昂的代价，但他毅然做出抉择，既为自己复仇，客观上也起到了维护伦理秩序的作用。他在这出伦理悲剧中，既是被明正典刑的罪犯，又是对抗邪佞不惜一死的悲剧性英雄。一方面他行为过激而其情可悯，另一方面，他宁折不弯的刚烈、敢于承担责任的光明磊落，令世人钦佩。他的鲜明个性和极端个体化的行为，也使他成为“三言”中一个令人过目不忘的人物形象。

3) 自然良知的世俗化

晚明社会，由于商品经济的发展，城市集镇的繁荣，市民阶层的扩大，市民文化需求的强劲，世风的世俗化犹如春来气暖，是大势所趋。出版事业的盛极一时也折射出文人群体文化倾向的世俗化，他们整理编撰各类民间喜闻乐见的通俗文学作品，越来越认同市井文化和民间立场。冯梦龙编撰的“三言”即是代表性的“嘉惠里耳”[126]的通俗文学之作。

“三言”赞同市井细民们面向实际的坦率之心，在贞洁问题上还表现出一种去理学化的倾向。比如『

117) 冯梦龙著，魏同贤主编，『冯梦龙全集・古今小说』，南京：凤凰出版社，2007，p.143。
118) 同上，p.141。
119) 同上。
120) 同上，p.584。
121) 同上。
122) 同上，p.585。
123) 同上，p.586。
124) 同上。
125) 同上，p.585。
126) 冯梦龙著，魏同贤主编，『冯梦龙全集・古今小说・叙』，南京：凤凰出版社，2007，p.3。

喻世明言』“蒋兴哥重会珍珠衫”中三巧被兴哥休回娘家，深感羞耻，悬梁自尽，被母亲发现。三巧母劝女儿道，“你好短见！二十多岁的人，一朵花还没有开足，怎做这没下梢的事？莫说你丈夫还有回心转意的日子，便真个休了，恁般容貌，怕没人要你？少不得别选良姻，图个下半世受用。”[127]可见在母亲心中，女儿的性命最珍贵，幸福最重要，纵是一时走到歧路，也该盼个柳暗花明，不该如此轻生。至于“饿死事小，失节事大”那一套提都没提。

『醒世恒言』“汪大尹火焚宝莲寺”的入话故事中讲到一个动了俗念的和尚。他心中不满戒律，暗自想道，“我和尚一般是父娘生长，怎地剃掉了这几茎头发，便不许亲近妇人？我想当初佛爷也是扯淡”，“立下这个规矩，连后世的人都戒起来。我们是个凡夫，那里打熬得过！又可恨昔日置律法的官员”，“设立恁样不通理的律令！如何和尚犯奸，便要责杖？难道和尚不是人身？”“不如还了俗去，娶个老婆，生男育女，也得夫妻团聚。”[128]　他不再盲从戒律法规的训诫，而是独立做出了自己的判断，后来果然蓄发还俗，娶妻成家。

相反的情况出现在『警世通言』“况太守断死孩儿”。邵氏新寡，立志守节，众人从实际出发，认为“孤孀不是好守的。替邵氏从长计较，到不如明明改个丈夫，虽做不得上等之人，还不失为中等，不到得后来出丑。”[129]但邵氏“心如铁石，全不转移，设誓道：“我亡夫在九泉之下，邵氏若事二姓，更二夫，不是刀下亡，便是绳上死！””[130]她认同“好女不更二夫”的礼法规训，立心贞洁。哪料守节十年之后，却被歹人设计引诱，与仆从私通生下孩儿。她将那婴儿溺死，交代仆从抛尸意欲掩盖，却不料死孩儿落入歹人之手，以此要挟她顺从。她愤而杀死仆从后上吊自杀，落得个屈辱惨死的下场。这都是理学贞洁观对人性强行压抑扭曲的结果。

在『情史・情贞类・总评』中，冯梦龙指出，“自来忠孝节烈之事，从道理上做者必勉强，从至情上出者必真切”，“世儒但知理为情之范，孰知情为理之维乎”。[131]冯梦龙以“情”教诲众人，并不是反对理学的价值，而是希望以世俗之情代教条之理，引导人们达成道德良知上的自觉和真诚。

4）自然良知的平等意识

“三言”故事中不仅萌发了以平等之心看待不同阶层、性别、行业和年龄之人的意识，而且在某些篇章中还深化了这种平等意识。『警世通言』“俞伯牙摔琴谢知音”中，身为大夫的俞伯牙通晓音律，也自恃清高。在与樵夫钟子期的交往中，他先是轻视怠慢，连姓名都不曾问。与之交谈越深，越见其真才实学，也越发惊异敬重。他见子期对答如流，宠辱不惊，所谈不俗，实为璞中真玉、隐世高贤。况又通音律、知款曲，乃是真正懂音乐，懂自己的人，遂引为知己。在得知子期去世的消息时，他震惊不已，待到子期坟前，他悲痛不能自已，大哭之后祭上一曲，曲终将琴砸碎。“伯牙道：“摔碎瑶琴凤尾寒，子期不在对谁弹！春风满面皆朋友，欲觅知音难上难。””[132]这是两个人精神层面的相知、互赏才能有的深挚情感。大夫与布衣之间的外在等级秩序隔阂，并不能真正隔开两颗同时跃动的心灵。故事虽发生在春秋战国之时，但讲故事和听故事的却是晚明的世人，在他们的自然良知中，人本身比他们的身份等级标签更为重要。

127）冯梦龙著，魏同贤主编，『冯梦龙全集・古今小说』，南京：凤凰出版社，2007，p.25。
128）冯梦龙著，魏同贤主编，『冯梦龙全集・醒世恒言』，南京：凤凰出版社，2007，p.874。
129）冯梦龙著，魏同贤主编，『冯梦龙全集・警世通言』，南京：凤凰出版社，2007，p.538。
130）同上。
131）冯梦龙著，魏同贤主编，『冯梦龙全集・情史・情贞类・总评』，南京：凤凰出版社，2007，p.36。
132）冯梦龙著，魏同贤主编，『冯梦龙全集・警世通言』，南京：凤凰出版社，2007，p.11。

『警世通言』“杜十娘怒沉百宝箱”李甲之友柳遇春被杜十娘从良之决心和用心而感动，慷慨借予李甲一百五十两以助其为十娘赎身，并交代李甲“既系真情，不可相负”[133]，杜十娘脱身后与李甲来拜，他慌忙答礼道，“十娘钟情所欢，不以贫窭易心，此乃女中豪杰”[134]，后知十娘已死，“叹息累日”[135]。可谓是比情郎李甲更懂十娘的人。他真正地超越了世俗偏见，把十娘看作一个有自己情感和意志的人，并因其真情和高志而对她刮目相看，热诚相帮。甚至认为杜十娘是女中豪杰，可钦可敬。知其最终结局，又为她嗟叹不已。柳遇春是真正以人格上的平等和尊重来看待十娘的人。

5) 自然良知的民主萌芽

『喻世明言』“闹阴司司马貌断狱”中，司马貌才华卓越，只因家贫无法捐官，直到五十岁都一直郁郁不得志。他对卖官鬻爵、污浊肮脏的官场怀着忿忿不平之怨。一日作诗讽世，最后四句是：“善士叹沉埋，凶人得暴横。我若作阎罗，世事皆更正。”[136] 写罢“吟哦了数遍，猛然怒起，把诗稿向灯焚了，叫道：“老天，老天！你若还有知，将何言抵对？我司马貌一生鲠直，并无奸佞，便提我到阎罗殿前，我也理直气壮，不怕甚的！”[137] 是夜，司马貌入梦后果然有青面獠牙的鬼卒来提，说他毁谤阴司，要拿他去见阎罗王。司马貌毫无惧色，见了阎君也不跪拜，而是高声叫道：“阎君，阎君，我司马貌久欲见你，吐露胸中不平之气”，“你休得把势力相压，须是平心论理，理胜者为强”。[138]接下来痛斥世间不公，质问阎君道：“似此颠倒贤愚，要你阎君何用？若让我司马貌坐于森罗殿上，怎得有此不平之事？”[139]司马貌不满世间不公，深恨阎君判罚不明，敢以白衣秀士之微，挑战阎罗王之威权，对其质问，与其辩理。这种胆敢“犯上作乱”的行为已经具有了争民主、抗专制的近代性品格，成为了这个时代正在觉醒的民主萌芽的体现。

6) 自然良知的朴实博爱

“三言”故事中表现人们发自肺腑的不忍和良善之心的书写比比皆是。有同情男女相悦、弄假成真的乔太守（“乔太守乱点鸳鸯谱”），有愿意宽宏大度、成人之美的吴知县（“蒋兴哥重会珍珠衫”），有保护约定为婚、私定终身的陈待制（“宿香亭张浩遇莺莺”），还有不忍失银之人身遭横祸的施润泽（“施润泽滩阙遇友”），不忍责打花魁娘子的鸨母王九妈（“卖油郎独占花魁”），不忍花木遭人摧残折损的灌园叟（“灌园叟晚逢仙女”）等等，他们身份各异，却都是有良知的善良之人。

儒家学说“仁者，爱人”[140]思想影响中华民族至深。再加上中华乃农耕文明，依托土地生产生活。这和北方的游牧文明和西方的海洋文明有时通过冒险征服，掠夺外部世界财富是不一样的。农耕文明主要依靠自身的劳作，依靠对天时地利的感悟和把握，从土地来获取生存资料。所以推崇大地无私之生养之德，注重天时、地利、人和之间的互动，以整体观看待世界，“四海之内，皆兄弟也。”[141]可以说，中

133) 同上，p.488。
134) 同上，p.490。
135) 同上，p.498。
136) 冯梦龙著，魏同贤主编，『冯梦龙全集·古今小说』，南京：凤凰出版社，2007，p.459。
137) 同上，pp.459-460。
138) 同上，pp.461。
139) 同上。
140) 『论语·颜渊』：“樊迟问仁。子曰：“爱人。””『孟子·离娄下』：“仁者爱人，有礼者敬人。”（朱熹，『四书章句集注』，北京：中华书局，2011，p.131，p.278。

国拥有朴实的博爱精神的悠久文化传统和深厚社会基础。即使到了商品经济日益发达的近代化转型期，商人们也讲究“义中取利”、“童叟无欺”，自觉地建立和维护一套面向长远利益、成就各方利益的商业伦理。

总之，“三言”中自然良知在社会心理变迁层面所表现出来的主体性、个体性、世俗化、平等意识、民主萌芽和朴实博爱，已然具备了近代化转变的明显特征。与西方近代化进程中文艺复兴大写的“人”字的个性解放、反对禁欲主义的世俗化倾向以及“启蒙运动”中“自由、民主、平等”和法国大革命“自由、平等、博爱”的主张有着奇妙的暗合。这似乎也昭示着不同民族、不同文化在向近代转变过程中，一些基本构成要素的相通之处。

5. 近代化转变的内发原生性和民族个性

冯梦龙“三言”作为中国文学史上白话短篇小说从说书人的口头向文人的案头转变的里程碑，广泛地反映了晚明社会生活的各个领域和各个阶层，其人物和叙事者在故事中流露出的自然良知，已然超越了官方正统理法礼教的规训，显示出来自民间、来自生活、来自本心的情感和力量、活力和生机。同时，这些发自自然本心、原于生活实际的自然良知以其思想倾向上的主体性、个体性、世俗化，以及闪耀出的平等意识、民主萌芽、朴实博爱精神，而呈现出晚明社会向近代转变的历史大势。这也意味着中国近代化的推动力最早并非来自西方世界的“冲击”，而是来自内部的原生性的发展力量。

1）中国近代化转变的内发原生性

西方世界在完成自己的近代化转型之后，常以停滞论来描绘中国。18世纪英国经济学家亚当·斯密(Adam Smith) 认为中国似乎很早就停滞于静止状态了。[142]20世纪初，德国社会学家马克斯·韦伯 (Max Weber) 提出了中华帝国的概念，认为与西方不同，中国是一个静止的社会，除非受到外力冲击，自身难以转变为一个理性现代社会。[143]20世纪50-60年代，美国以费正清(J.K,Fairbank)为首的哈佛学派提出了西方冲击-中国反应的模式，认为西方冲击之后，中国才发生了向近代社会的转变。这种西方中心论的观点，在70年代以后受到批判，被柯文 (Paut A. Cohen)“中国中心观”所代替。[144]在中国，自1937年吕振羽在『中国政治思想史』中率先提出中国传统社会后期已出现了资本主义萌芽之后，学者们以半个多世纪的“资本主义萌芽”研究来回应西方关于中国的停滞论。虽然以西方的资本主义发展道路作为参照系，但在经济史的具体研究中成果颇丰，有力地驳斥了西方的停滞论。1996年李伯重“资本主义萌芽情结”一文提出“近代中国的历史已证明了资本主义并非中国历史的必经阶段”[145]，认为“资本主义萌芽”的具体研究是有价值的，但以西方为圭臬的“资本主义萌芽情结”则是需要摆脱的。2005年万明主编『晚明社会变迁：问题与研究』认为“晚明社会变迁的走向是从传统社会向近代社会转变，带有根本性的社会转型性质，具有划时代的意义，”“中国社会转型是原生型的，即内力型生发的，而非外力型”。[146]

141）朱熹，『四书章句集注·论语·颜渊』，北京：中华书局，2011，p.127。
142）万明，『晚明社会变迁：问题与研究』，北京：商务印书馆，2005，p.4。
143）同上，p.8。
144）同上，p.9。
145）李伯重，「资本主义萌芽情结」，『读书』，1996年 第8期，pp.63-70。
146）万明，『晚明社会变迁：问题与研究』，北京：商务印书馆，2005，p.27。

2) 中国近代化转变的中庸、浑融和弹性

中国社会的近代化转变具有自身的民族个性，“中庸”即是其中一个鲜明的特点。朱熹注解“中庸”：“中者，不偏不倚、无过不及之名。庸，平常也。”147)『中庸』曰：“喜怒哀乐之未发，谓之中；发而皆中节，谓之和。中也者，天下之大本也；和也者，天下之达道也。致中和，天地位焉，万物育焉。”148)自儒家文化成为统治思想以来，追求“中和之美”，认为“过犹不及”的思想倾向和审美态度一直潜移默化地影响着人们的思维方式。

“三言”中的一些故事就非常明显地表现出了中庸的思想。比如『警世通言』“苏知县罗衫再合”的入话故事讲酒色财气的适度问题。李生游秋江亭，见到墙上题一首词，“酒是烧身硝焰，色为割肉钢刀，财多招忌损人苗，气是无烟火药。四件将来合就，相当不欠分毫。劝君莫恋最为高，才是修身正道。”149)李生觉得此词将酒色财气贬损太过，于是在旁题词，“三杯能和万事，一醉善解千愁，阴阳和顺喜相求，孤寡须知绝后。财乃润家之宝，气为造命之由，助人情性反为仇，持论何多差谬！”150) 结果夜间做梦，酒色财气四精化作四位女子前来相谢，却彼此攻讦起来，打在一处。李生惊醒，想起酒色财气的确不像自己夸得那么好，于是“再题四句，等人酌量而行”151)，又在墙上写道，“饮酒不醉最为高，好色不乱乃英豪，无义之财君莫取，忍气饶人祸自消。”152)劝诫世人不要走极端，而要酌量酌情，才可享其乐趣而永保太平。这也透露出叙事者教诲众生的一番苦心，毕竟在现实生活中持中守正往往是更稳妥的选择。

除了中庸之外，“三言”故事兼收并蓄、杂糅并存的特点也展现了民族文化的多元浑融性。比如对于人物的赞赏往往通过善有善报的佛教因果循环来实现，虽然这些人物所表现出来的特质是具有时代新特征的勇于反抗权威、敢于突破礼法、行权开明善良、平等对待他人等。显示出旧瓶装新酒的思想杂糅状态。再如，既赞美男女情爱和自由自主的婚恋，又赞赏贞洁守志的女子。乍看时自相矛盾，细细揣摩，却发现作者早已以“情”为维贯通了这两者。在作者看来，不管是大胆追求爱情，还是执意为夫守志，都看其情是否真挚。其情若真，这两者便都是至爱深情，令人钦敬。从这个意义上来讲，冯梦龙以他的“情教”观很好地融合了新旧两种秩序，给人们了提供更多的选择。当然，多种选择本身就意味着对中古权威性、唯一性规则的超越。

“三言”故事往往面向实际，也传达出中国人处理实际事物时的弹性智慧。比如“乔太守乱点鸳鸯谱”中乔太守的判决就事出从权，灵活处理，看似不按婚约乱点一气，实则平衡了法理、私情、伦理和舆情的各个方面。是面向实际、导向最优结果、平衡各方利益的最佳选择，也体现了弹性的智慧。再如“闹阴司司马貌断狱”中的司马貌空有满腹才学，而在卖官鬻爵的官场风气下始终郁郁不得志。他的怨气冲天达地，惊动了玉皇大帝和阎罗王。最终的解决办法却是让他代阎罗行权六个时辰，看他如何公平判案，结果他平冤昭雪无人不服，阎罗王叹服于他，玉皇大帝还赐他来世王侯之位。这种“纳谏”的统治美德似乎也为反抗权威的行为提供了某种弹性空间，怨气被接纳和引导之后，司马貌并不想激愤之下把天捅个窟窿，反而尽心尽力地办起了积压三百多年的大案要案，开始了他的“补天”努力。

147) 朱熹，『四书章句集注・孟子・万章上』，北京：中华书局，2011，p.19。
148) 同上，p.20。
149) 冯梦龙著，魏同贤主编，『冯梦龙全集・警世通言』，南京：凤凰出版社，2007，p.130。
150) 同上。
151) 同上，p.134。
152) 同上，p.135。

更不用说，“三言”中诸多困顿之人一朝金榜题名，立刻时来运转，要风得风，要雨得雨，花烛洞房，衣锦还乡。个人的奋斗和反抗往往需要借助科举的官方正规渠道。一方面，似乎又落入了故事的俗套和既定规则的窠臼，但另一方面，阶级跃升有正规渠道也正是这个社会具有弹性、韧性和活力的一种表现。

中庸、浑融和弹性，既反映了那个时代新旧思想矛盾共存的状态，也表现出中国社会近代化转变的民族个性。正如经济史学家傅衣凌在遗作中的表述：“中国传统社会产生了许多西欧社会发展模式所难以理解的现象”，“用西欧模式看起来互相矛盾的各种现象，在中国这个多元的社会结构中奇妙地统一着，相安无事，甚至相得益彰，这种既早熟又不成熟的弹性特征，使中国传统社会具有其它社会所无法比拟的适应性。”153)

6. 结论

综上所述，冯梦龙“三言”以“小说”的形式区别于正统大道，回归个人内在的“自然良知”，将善恶是非的辨别权、舒张主体的自由权、言说自我的话语权，从庙堂下移扩展到了市井中的茶肆酒楼和普通人的书桌案头，为普通民众思想觉醒、个性独立打开了更为广阔的空间。

“三言”作为中国文学史上一座白话短篇小说集的丰碑，兼收并蓄、多元杂糅地表现了那个转型时代的社会生活和人们的思想感情。“三言”的编撰者冯梦龙则在阳明心学“心即理”、“致良知”打开的主体性空间中，以“情教”和“通俗”在文学的世界经天纬地、畅抒胸臆，将发自于内心的“情”与“良知”一体两面地贯穿于“三言”的每个故事中。

从“三言”中人物和叙事者所自然流露出来的本乎天性的慕色之情、发自肺腑的不忍之心、忠于内心的赤诚之心、面向实际的坦率之心和超越尊卑的平等之心，不仅可以看到人们不同于传统理法体系的道德情感和自然良知，而且可以发现，普通人不再盲从理法和礼教的规训，他们开始以自己朴素的“良知”来区分善恶美丑，以有情之性灵来拥抱这个世界。

而他们发自内心的真诚恻怛之良知，实际上已具备了新时代的精神，其鲜明的主体性、个体性、世俗化、平等意识、民主萌芽、朴实博爱，无不呈现出晚明社会向近代转变的历史大势。晚明渐渐衰老的社会机体中已然孕育出了新的话语、新的思想和和新的秩序。这也确证了中国社会自晚明开始的近代化转变的内发原生性。

同时，“三言”作为汇总了宋、元、明三代话本故事的小说集，其字里行间无不浸润着传统中国的深厚文化底蕴。一方面，“三言”反映了时代的转型，另一方面“三言”也充分地表达了中国社会近代化转变进程中的民族特色：中庸、浑融和弹性。

153) 傅衣凌，「中国传统社会：多元的结构”，『中国社会经济史研究』，1988年 第3期，pp.1-7。

메 모

【차세대학자분과Ⅰ】 발표 ⑤

退溪与朱熹哲理诗之对比研究*
——以「天渊台」」和「鸢飞鱼跃」为中心

阎先宝**

【目 录】

1. 绪论
2. 哲理诗概述
3. 退溪与朱熹哲理诗之对比研究
4. 结论

【摘要】

目前韩中两国学界对退溪和朱熹两位大儒的研究主要集中在哲学思想领域，对他们文学，特别是诗学方面的对比研究凤毛麟角，而对他们哲理诗的对比研究尚属空白。而近些年来，在欧美学界，有关诗歌哲学化和哲学诗歌化的争论日趋激烈，与此同时有关诗歌哲学的相关研究成果也日益丰富，故本文顺应这一诗歌研究转向和趋势，依据英国诗人兼文评家塞缪尔·泰勒·柯勒律治的诗评理论，以「天渊台」和「鸢飞鱼跃」为中心，采用文献法的研究方式对这两首诗从韵律、意象、主题和思想的深度和力量等四个方面进行了对比研究，探讨了诗中在韵律、取象、主题的选择以及思想的深度和力量等四个方面所蕴含两位思想家在哲学思想方面的异同，向世界发出了世界东方诗歌哲学的声音，有利于形成东方哲学在该领域的话语权和主导权。

【关键词】 哲理诗；天渊台；鸢飞鱼跃；韵律；意象；主题；思想。

1. 绪论

朱熹(1130.10.18-1200.4.23)，字元晦，又字仲晦，号晦庵，晚称晦翁。又称考亭先生、紫阳先生、云谷老人、沧州病叟、逆翁等。赐谥号文，故世称朱文公。从祀孔庙。他是中国古代南宋时期著名理学家、哲学家、思想家、教育家、诗人，理学集大成者，闽学代表人物，被后世尊称为朱子。朱子集孔孟、

* 안휘성대학교인문사회과학연구중점프로젝트 (SK2021A0206),안휘성교육청대학교과학연구중점프로젝트 (SK2020A0031),안휘이공대학교고차원인재유치과학연구기금지원프로젝트 (13210611)。

** 한서대학교 대학원 한중언어문화학과 박사과정 (2139306668@qq.com)

周敦颐、张载、二程等思想学说之大成，并积极吸收了佛老思想，创立了庞大的哲学体系，自成一家。朱熹学说被元、明、清三朝奉为官学，影响深远。宋儒勉斋先生黄文肃公评其“紹道統，立人極，為萬世宗師。”[1] 清代著名史学家、文学家全祖望认为朱子之学“致廣大，盡精微，綜羅百代。”[2] 钱穆[3]认为“在中國歷代史上，前古有孔子，近古有朱子，此兩人，皆在中國學術思想史及中國文化史上發出莫大聲光，留下莫大影響。曠觀全史，恐無第三人堪與倫比。”[4] 著名教育家，思想家民主主义革命家蔡元培先生认为：“宋之有晦庵，犹周之有孔子，皆吾族道德之集成者出”。[5] 朝鲜王朝时期退溪先生认为：“晦庵夫子挺亞聖之資，承河洛之統，道威而德尊，業廣而功崇。其發揮經傳之旨，以幸教天下後世者，既皆資諸鬼神而無疑百世以俟聖人而不惑矣。”[6] 朱子说在高丽王朝忠烈王时代东传朝鲜半岛，继而经由朝鲜半岛往东传入日本。朱子学高丽王朝末期传入朝鲜半岛后，涌现出安珦、郑梦周、郑道传、金时习、李彦迪、徐敬德、李滉、李珥、曹植、金麟厚、奇大升等众多朱子学人，形成“主理派、主气派、折中派、实学派”[7]四大学派。可谓说是百花齐放，百家争鸣。其中退溪李滉“补充整理了朱子学说中的不足之处，终于完成了唯心论体系”[8]，即退溪继承、发展并完善了朱熹的理学体系，并最终确立完成了客观唯心论哲学体系。

李滉(이황，1501.11.25.-1570.12.08)，初名瑞鸿，字景浩、季浩，号退溪、退陶、陶翁、清凉山人、真宝人，谥号文纯，从祀文庙。退溪先生是朝鲜王朝时期著名哲学家、儒学家、思想家、教育家，朱子学家，被后世尊称为李子。韩国学者李家源曰:“中国之士，有称退溪为东聖，如梁启超、黎元洪之題語於《聖學十圖》者，辭甚鄭重，然未有专著。”[9] 梁启超[10]赋诗盛赞退溪先生曰：“巍巍李夫子，繼開一古今。十圖傳理訣，百世詔人心。雲谷琴書潤，濂溪風月尋。聲教三百載，萬國乃同欽。”[11] 在中国，退溪先生还被尊为“海东之考亭”[12]。中国台湾淡江大学教授王甦认为，“退溪先生是大韩民国儒学的宗师。韩国儒学之有退溪，正如中国儒学之有朱子。”[13] 淡江大學教授竺家寧认为，“退溪先生不僅是位有名的理學家，也是一位相當傑出的文學家。”[14] 由于朝鲜著名诗人、历史学家崔南善先生认为，由于“李退溪完成了以程朱理学为中心的宋学中尚未完成的较精细和尽善尽美部分”，故退溪先生在韩国被尊为“朝鮮朱子”[15]、“朝鮮五百年推為第一儒宗”[16]。在朝鲜，退溪先生被认为是“东方最大的朱子学者。”[17] 在日本，退溪先生被称为“朱熹之后第一人”[18]、“朝鮮第一人”[19]。日本学者

1) [宋]黃榦撰，王雲五主編，《黃勉齋先生文集(三)》，上海：商務印書館，1936，p.187。
2) [清]黃宗羲原著，[清]全祖望補修，陳金生、梁運華點校，《宋元學案(貳)》，北京：中華書局，1986，p.1495。
3) 钱穆为中国著名国学大师，近现代历史学家、思想家、教育家。
4) 錢穆，《朱子新學案(第一册)》，臺北：三民書局，1971，p.1。
5) 蔡元培，《中国伦理学史》，北京：中华书局，2014，p.100。
6) [宋]朱子原著，李退溪節要，丁紀點校，《朱子書節要·序》，長沙：岳麓書社，2017，p.1。
7) 李勇强、陈欣雨、谢海金，「中国人民大学孔子研究院院长张立文：朱子学在韩国生根发芽，为中国文化走出去提供借鉴」，《文汇报 . 文汇学人 . 访谈录》，2016/12/09(W10)。
8) 朝鮮民主主义人民共和国科学院历史研究所著，吉林省延边朝鮮自治州《朝鮮通史》翻译组译，《朝鮮通史·上卷(第三分册)》，沈阳：吉林人民出版社，1973，p.724。
9) [韓]李家源，「李退溪研究之諸課題」，《退溪學报》第14期，退溪學研究院，1977，p.62。
10)梁启超为中国近代著名思想家、政治家、教育家、史学家和文学家。
11)梁启超，「退溪先生聖學十圖贊詩」，《退溪學報》創刊號，1973，p.6。
12)高令印，「从闽学到退溪学」，《福建学刊》，1989，p.50。
13)王甦，「退溪의 詩學과 詩教」，《退溪學報》第十九輯，1978，p.152。
14)中國人民大學國際退溪學會編，《退溪學在儒學中的地位——第十一届退溪學國際學術會議論文集》，北京：中國人民大學出版社，1993，p.454。
15)阿部吉雄 지음， 김석근 옮김，《退溪와 日本儒學》，서울：전통과현대，1998，p.185。
16)[日]林泰輔著，陳清泉譯，《朝鮮通史》，上海：商務印書館，1934，p.136。
17)朝鮮民主主义人民共和国科学院历史研究所著，吉林省延边朝鮮自治州《朝鮮通史》翻译组译，《朝鮮通史 . 上卷(第三分册)》，沈阳：吉林人民出版社，1973，p.724。
18)阿部吉雄 지음， 김석근 옮김，《退溪와 日本儒學》，서울：전통과현대，1998，p.185。

阿部吉雄认为，“退溪是朝鲜第一大儒生，其风化影响波及整个朝鲜地区，这是自古以来的定论，被评价为朱子之后第一人，在退溪门人(比如曹好益)也已出现。但是在日本，早早就有人评价其为朱子之后第一人”[20]“即使跟明朝大儒薛文清以及明末清初的的陆陇其、张履祥相比，也能断定他确实是「朱子之后第一人」。”[21]

英国诗人兼文评家塞缪尔·泰勒·柯勒律治(1772.10.21.-1834.07.25)在其文艺批评论著《文学传记》中写到，“一个人不同时是一位思想深邃的哲学家，他就不会是一位伟大的诗人。”[22] 根据柯勒律治这一论断，一个伟大的诗人与此同时必须也是一位思想深邃的哲学家。优秀的诗歌作品总能反映诗人的哲学思想抑或暗合哲理，因此在很大程度上讲，诗人就是哲学家。毫无疑问，不管是退溪还是朱熹，他们都是伟大的哲学家，思想家和教育家，至于他们在文学方面特别是在诗歌方面的成就则鲜有提及。根据明朝文学批评家胡应麟所编写的《诗薮》，在诸多宋人中，其中诗“掩於儒者,朱仲晦、呂伯恭”。[23]此处的朱仲晦即朱熹。朱熹，字元晦，又字仲晦。朱杰人[24]在在谈及朱子诗论诗也认为“这位生活在12世纪后半叶中国南方山区的伟大哲人的文学才华及其对文学事业的卓越贡献,至今未受到足够的重视”[25]，并进一步指出“今天,当我们再重新认识这位伟人的时候, 只停留在理学的范围内,显然是不够的如果我们把视野拓宽,从另一个侧面观察一下朱熹,那么我们看到的将不仅是一位伟大思想家的朱熹,同时也是一位伟大文学家的朱熹”。[26] 纵观韩中学术界，有关退溪先生诗歌文学方面的研究亦未受到足够重视。与此同时，王甦[27]也认为，“今天研究退溪學的學者，大都是偏重理學的範疇。其实，退溪在文學方面，也有很深的造詣。只是因為退溪在理學方面的成就太大，聲名太高，所以文學為理學所掩”[28]；在其专著《退溪詩學》中更是进一步指出，“而研究退溪學者，莫不以理學為主。其實，退溪在文學方面，亦有很深之造詣。惟因退溪為理學大儒，文學遂為理學所掩。”[29]

无论是作为理学家、哲学家和思想家的李退溪还是朱熹，他们在文学特别是诗学方面的成就均被其理学方面的成就所遮掩，尚有待进一步的挖掘与研究。退溪先生和朱熹一生诗歌创作颇丰，退溪一生创作诗歌“達二千餘首之多”[30]，而《朱文公文集》一至十卷收录朱熹存世诗歌1200余首，中国古诗文网收录1392首[31]，古诗集网收录朱熹1472首诗[32]，古文学网收录1480首[33]。他们这些存世诗歌中相当一部分都是哲理诗，故本文拟将采用就他们的哲理诗所反映出来的儒道佛思想予以尝试性对比分析。

19)高桥进著，王根生等译，《李退溪和主敬哲学》，延边：延边人民出版社，1991，p.2。
20)阿部吉雄 지음， 김석근 옮김，《退溪와 日本儒學》，서울：전통과현대，1998，p.183。
21)同上，p.185。
22)Adam Roberts, *Biographia Literaria by Samuel Taylor Coleridge,* Edinburgh：Edinburgh University Press, 2014, p.220。
23)[明]胡应麟，《诗薮》，上海：上海古籍出版社，1979，p.314。
24)朱杰人为上海儒学研究会会长，中国朱子学会副会长，世界朱氏联合会秘书长。
25)朱杰人，《朱子学论集》，北京：北京大学出版社，2018.10，p.64。
26)同上。
27)王甦为中国台湾淡江大学教授，韩国檀国大学校交换教授，韩国岭南大学教授。
28)王甦，「退溪의 詩學과 詩教」，《退溪學報》第十九輯，1978，p.152。
29)王甦，《退溪詩學》，서울：退溪學研究院，1988，p.188。
30)王甦，《退溪學論集》，台北：文史哲出版社，1992，p.44。
31)https://so.gushiwen.cn/search.aspx?type=title&page=1&value=&valuej=。[2022-08-19]
32)https://www.gushiji.cc/shiren/zhuxi/。[2022-08-19]
33)https://www.guwenxue.org/search/shiwen/30/1.html。[2022-08-19]

2. 哲理诗概述

要概述哲理诗，我们首先要搞清楚何之谓哲理诗；要搞清楚什么是哲理诗，必须要先弄明白何之谓诗。在此需要特别说明的是，在本文中所使用的诗皆指一般意义上的诗作，凡专指《诗经》，将以书名号予以标记。《说文解字》曰:“詩，志也”[34]“志，意也。”[35] 《毛诗序》曰:“《詩》者，志之所之也；在心為志，發言為詩。”[36] 《书》曰:“诗言志，歌永言，声依永，律和声。”[37] 《荀子》曰:“诗者，中声之所止也。”[38] 《庄子》曰:“诗以道志。”[39] 《六艺论》曰:“詩者，弦歌諷諭之聲也。”[40] 也就是说，未发，怀于内，谓之志；已发，言于外，谓之诗；诗可言、可叙、可诵、可和、可吟、可讽、可喻，至中声止从而使淫不外流也。孔子曰:“不学《诗》，无以言”[41]“兴于诗，立于礼，成于乐”[42]“《诗》，可以兴，可以观，可以群，可以怨”[43]，从而为我们勾画出了诗在培养语言表达能力、交际沟通能力、向善求仁的自觉主动性以及提高个体认识、教育、审美之于社会的效用等方面发挥着重要作用。孔子“述而不作”[44]，“删《诗》、《书》，定《礼》、《乐》，赞《周易》，修《春秋》”[45]，集夏商周诸圣贤学说之大成，整理序定六书，继往圣之绝学，开万世之儒学。在此需要特别指出的是孔子将《诗》列为六经之首[46]，可见其对诗、诗学以及诗教的高度重视。

谈完诗，我们再谈哲理诗。探讨哲理诗，我们就不得不谈及诗的哲理化的问题。古希腊先哲亚里士多德认为，诗较之历史“更富有哲学意味”，因为历史是有关于“已发生的事”或“个别的事”，而诗则是有关于“可能发生的事”或“普遍性”的事，即“按照可然律或必然律可能发生的事”。[47]因此，诗可言哲理，亚里士多德的在其《诗学》中的这一论断是西方文学对诗的哲理性的可溯源的最早论述。而在中国，孔子日:“君子以理为尚。博而不要，非所察也。繁辞富，非所听也。唯知者不失理。”[48]《诗品》曰:“永嘉時，貴黃老，稍尚虛談。於時篇什，理過其辭，淡乎寡味。爰及江表，微波尚傳，孫綽、許詢、桓、庾諸公詩，皆平典似道德論，建安風力盡矣。”[49]由此不难看出，如果孔子所言之“理”，我们还难以确定是指诗之哲理性抑或其它，但是钟嵘所言之“理”明显就是指玄理。纵观中国千年诗歌史，其总体演变过程可以概括为，志而言，言而诗，诗而歌，继而词，再而曲。三代及以上以歌为主；夏商周时期，制礼定乐，歌、诗并行，以叙事诗为主；秦汉时期以汉赋、乐府诗为主；魏晋南北朝时期，以玄理诗(玄言诗)、山水诗和田园诗为主；隋唐时期以释道诗、抒情诗、田园诗、山水诗词赋为主；宋朝时期，

34)[漢]許慎撰，[清]段玉裁注，《說文解字注》，台北：天工書局，1987，p.90。
35)同上，p.502。
36)[漢]毛公傳，鄭玄箋，[唐]孔穎達等正義，黃侃經文句讀，《毛詩正義》，上海：上海古籍出版社，1990，p.15。
37)曾运乾注，黄曙辉校点，《尚书》，上海：上海古籍出版社，2015，p.22。
38)[战国]荀子著，方勇、李波译注，《荀子》，北京：中华书局，2015，p.7。
39)[战国]庄子著，贾云编译，《庄子》，西安：三秦出版社，2018，p.141。
40)[漢]鄭玄著，[清]陳鱣輯，《六藝論》，中國國家圖書館藏陳氏裕德堂刊本，乾隆49年。
41)[宋]朱熹集注，《论语·大学·中庸》，上海：上海古籍出版社，2013，p.201。
42)同上，p.99。
43)同上，p.206。
44)同上，p.82。
45)同上。
46)方勇译注，《庄子》，北京：中华书局，2015，p.243。《庄子·天运》载，“孔子谓老聃曰：’丘治《诗》、《书》、《礼》、《乐》、《易》、《春秋》六经，自以为久矣，孰知其故矣；以奸者七士二君，论先王之道而明周、召之迹，一君无所钩用，甚矣夫！’”
47)[古希腊]亚里士多德著，罗念生译，《亚里士多德：「诗学」、「修辞学」》，上海：上海人民出版社，2016，pp.45-46。
48)白冶钢译注，《孔丛子译注》，上海：上海三联书店，2018，pp.12-13。
49)[清]何文煥輯，《歷代詩話(上)》，北京：中華書局，1981，p.2。

以理学诗、宋词为主，元朝则以元曲为主。其中哲理诗在其中的发展过程为魏晋南北朝的玄理诗，隋唐的释道诗，进而演变为宋及以后的理学诗。在诗歌演变背后则是中国文论及哲学思想的在不同历史时期的发展和演变。正如中国学者许总所言，“作为中国古典哲理诗的典型形态，从魏晋时期的玄言诗发展到隋唐时期的道释诗，进而发展至两宋时期的理学诗，这既是诗歌艺术表现形式演变的结果，也是其所依附哲学思想文化发展演变之必然。”50)

《辞海》将哲理诗定义为“希腊诗之一种，起源于芝诺芬尼。尝居柯罗凤，遭波斯之乱，流为歌人；不信神话，以自然无限为神，作诗论自然，惟今仅存断片，为古代希腊哲学之源泉。按今人对于诗中包含哲理，不纯为情绪之抒写者，亦统称为哲理诗。”51)根据该定义，“包含哲理，不纯为情绪之抒”的诗作，皆可以被统称为哲理诗。中国学者孙鑫亭将哲理诗定义为，“在诗中着力阐发富于哲学色彩能够发人深思的生活真理的诗作”；认为哲理诗有别于叙事诗和抒情诗；并将哲理诗的主要特点概括为“要有深刻哲理”、“和鲜明的形象结合”、“与动人的诗情交融”、“形体比较短小，具有格言的某些特点”。根据韩国学者李昤昊对哲理诗的研究，我们人类借用诗歌这一艺术形式来吟诵人类和世界的哲学探讨或探索的过程和结果的诗之谓哲理诗；并进一步指出哲理诗的主题皆关乎“儒佛仙”；朱子学派的哲理诗因其对有关于人类精神和自然哲学探索最为深入而颇具代表性，并将其称为“道學詩”或“濂洛詩”；并将哲理诗分为“說經詩”和“說理詩”，进而将其分为“經義詩”、“注義詩”和“性情詩”、“自然詩”。52)到目前为止，虽然古今中外学者尚未就哲理诗给出一个确切的定义，但从哲学的视角去研究诗学抑或从诗学的角度去探讨哲学业已称为当今文学哲学和文学的哲学研究的重要转向和趋势。Bergson(1959)、Rosen(1988)、Lang(1990)、Blackburn(1992)、Eidridge(1996)、Critchley(2005)、Zanir(2007)、Barfield (2011)、Destrée & Herrmann(2011)、Gibson(2015)、Destrée & Edmonds(2017)、Gaynesford(2017)和Ghosh(2019)等诸多有关于哲诗之辩、诗歌哲学、哲学和诗歌、诗哲协奏、哲人和诗人、哲人和诗学专著或论文集的一一面世就是明证，与该主题相关的期刊论文更是蔚然成风。笔者希冀此拙作也能顺应该学术思想的重大转向，向世界发出东方的声音，从东方哲学的视角去探讨诗歌，特别是本身就孕含哲学思想的哲理诗。

紧接着我们来综述一下对朱熹和李退溪的诗歌特别是对他们哲理诗在韩中两国的对比研究现状。在韩国，通过图书馆RISS和DB통합검색数据库入“철리시(哲理诗)”、“시(诗)”、“시교(诗教)”或“시학(诗学)”进行综合检索，同时综合吴台熙的研究结果53)，我们可以发现其中对朱熹和李退溪的哲理诗进行对比研究的论文或专著0篇；对朱熹和李退溪的诗进行对比研究的专著1部，期刊1篇，即汉城建国大学李秀雄(1989，1991)教授的《朱熹与李退溪诗比较研究》和「李退溪與朱熹詩語的比較小考」，学位论文0篇。专注于研究朱熹诗歌的学者中主要涉及两个方面，即《诗集传》和淫诗。前者主要有金海明(1984)，李再薰(2003，2004，2006，2007，2008，2009，2012，2019)，韓鐘鎬(2003)，천기철(2004)，楊沅錫(2009)，安性栽(2012)，김수경(2013)，박정숙(2018)；后者主要有李再薰(1998)，양원석(2009)和한흥섭(2010)等；其余则侧重文论、诗学或诗教研究，如姜澤求(1998)，李相圭(2004)，鄔國平(2004)和장영록(2011)等，对退溪诗歌其它方面进行研究的学者主要有李璡(1986)，장세후(1995)，홍광훈(2000)，신두환(2010)和申斗煥(2013，2017)，李義康(2020)，陳耀輝(2020)等。而在中国，以同样的方式通过中国知网全网搜索结果显示，在中国学界对李退溪和朱熹诗歌进行直接对比研究的只有李秀雄(1991)的《朱熹与

50)许总，「中国古代哲理诗三阶段的特征及发展轨迹」，《晋阳学刊》第1期，1998，pp.64-73。
51)叶昌云，「外国哲理诗审美价值初探」，《重庆电大学刊》第3期，p.29。
52)李昤昊，「哲理詩의 범주와 미의식에 관한 시론-儒家哲理詩를 中心으로-」，《東方漢文學》第33輯，2007，pp.197-224。
53)吳台熙，「韓國的中國詩與中國詩學研究概要」，《동방시화학회》第7輯，2005，pp.33-60。

李退溪诗比较研究》，徐志啸(1999)的「从退溪诗看李退溪与陶渊明」和金东勋(2003)的「朱熹与李滉之诗论、诗风联姻关系考」。其余的则要么就他们的太极、易学、理气思想进行对比研究，如梁宗华(1999)，林映希(2001)，项广明(2002)，张品端(2007)，刘艳(2016)等；要么对他们的义利观、仁学、书院教育或哲学辩证思想等方面进行对比研究，如(韩国)丁淳睦(1991)，高令印(1991)，林孝宣(2003)，谢桂娟(2004)，(2005)，贾喜平(2006)，张品端(2015)等。通过以上梳理，我们不难发现，到目前尚未有人就李退溪和朱熹的哲理诗进行对比研究，因此本论文以「天渊台」和「鸢飞鱼跃」这两首诗为中心对两位哲人的哲理诗进行研究这一选题具有一定研究价值。在研究方法上将依据英国诗人兼文评家柯勒律治诗评理论的四个维度，即诗律、诗歌主题、诗歌意象和诗歌思想之深度和能量等四个维度对两位哲人的这两首哲理诗予以对比分析和尝试性研究。[54] 根据柯勒律治的诗歌文学批评的四个维度，笔者在此尝试将哲理诗定义为：凡从形式上符合诗之韵律，其主题、意象、思想之深度和能量关乎哲理或能激发人之哲学思考的诗作均可被视为哲理诗。毫无疑问，这一定义侧重强调诗之哲学之真理，而非生活之真理。这一定义虽然有待商榷，但在一种程度上也不能不算作一种有益尝试。当然魏晋南北朝时期的玄言诗、唐之道释诗、宋之理学诗，以及理语诗、理趣诗等因其特别强调诗之哲理，故都可归类于哲理诗的范畴。作为性理学家的晦庵朱熹和退溪李滉，为人类留下了大量的诗篇，其中绝大部分都是哲理诗，当然这都他们的文论思想密不可分。退溪先生曰：“凡君子述古垂世，但務明吾道以俟知者”[55]；朱子曰：“這文皆是從後道中流出。”[56] 因此在接下来的部分，本文将依据柯勒律治的诗评理论采用文献法从韵律、意象、主题、哲学思想之深度和力量四个维度就这两首诗所蕴含的两位思想家在哲学思想上的异同，填补相关研究空白，同时也望借此在这股全球诗歌哲学研究学术思潮转向中发出世界东方的声音。

3. 退溪与朱熹哲理诗之对比研究

“诗言志”出自《尚书·尧典》。《书》曰：“诗言志，歌永言，声依永，律和声。”[57] 意思是说诗可以用来表达一个人的志意，歌可以用来舒缓地吟咏一个人的言语，宫、商、角、徵、羽等五音需要根据所吟咏的言语来予以确定，黄钟、大吕、太簇、夹钟、姑洗、仲吕、蕤宾、林钟、夷则、南吕、无射、应钟等十二个阴阳律则需要跟五声相和合。此处的“志”意为人心中的思想、志向、抱负、情感等。根据《左传·襄公二十七年》记载，郑伯设宴款待文子赵孟，坐上赵文子让子展、伯有等从君七子“赋以卒君贶”[58]。宴毕，赵文子对文向说：“伯有将为戮矣！诗以言志，志诬其上，而公怨之，以为宾荣，其能久乎？幸而后亡。”[59] 至此，“诗言志”或“诗以言志” 才第一次被作为理论术语给提了出来，其涵义通过赵文子对七子所赋之诗的现场点评及宴后的评论而得以阐发。志而言，言而文。历史纵向文道关系的论述见证了古代文论话语体系的演变。孔子曰：“志于道，据于德，依于仁，游于艺”[60]“吾道一以贯之”[61]“人能弘道，非道弘人。”[62]荀子曰：“圣人也者，道之管也。天下之道管是矣，百王之道一

54)Adam Roberts, *Biographia Literaria by Samuel Taylor Coleridge*, Edinburgh：Edinburgh University Press, 2014, p.215-221。
55)退溪學叢書編輯委員會研會編輯，《退溪學叢書第II部第2卷：陶山全書二》，서울：退溪學研究院，1988，p.125。
56)[宋]朱熹撰，朱傑人、嚴佐之、劉永翔主編，《朱子全書(修訂本)第拾捌册：朱子語類(五)》，上海：上海古籍出版社，合肥：安徽教育出版社，2010.09，p.4298。
57)曾运乾注，黄曙辉校点，《尚书》，上海：上海古籍出版社，2015，p.22。
58)[战国]左丘明著，[晋]杜预注，《左传(下)》，上海：上海古籍出版社，2016，p.639。
59)同上。
60)程树德撰，程俊英、蒋见元点校，《论语集释(上)》，北京：中华书局，2013，p.512。

是矣，故《诗》、《书》、《礼》、《乐》之归是矣。”[63]扬子曰：“聖人之言遠如天；賢人之言近如地。瓏玲其聲者，其質玉乎？聖人矢口而成言，肆筆而成書。言可聞而不可殫，書可觀而不可盡。”[64]曹丕曰：“夫文本同而末异，盖奏议宜雅，书论宜理，铭诔尚实，诗赋欲丽。此四科不同，故能之者偏也；唯通才能备其体。文以气为主，气之清浊有体，不可力强而致。”[65]刘勰曰：“道沿圣以垂文，圣因文而明道。”[66]王通曰：“吾视千载已上，圣人在上者，未有若周公焉。其道则一，而经制大备，后之为政，有所持循。吾视千载而下，未有若仲尼焉，其道则一，而述作大明，后之修文者，有所折中矣”[67]“天下有道，圣人推而行之；天下无道，圣人述而藏之。”[68]韩愈曰：“体不备不可以为成人，辞不足不可以为成文”[69]“盖学所以为道，文所以为理耳”[70]“思古人而不得见，学古道则欲兼通其辞；通其辞者，本志乎古道者也。”[71]李汉曰：“文者，贯道之器也。”[72]柳宗元曰：“及长，乃知文者以明道”[73]“然圣人之言，期以明道，学者务求诸道而遗其辞。”[74]周子曰：“文所以載道，猶車所以載物。”[75]程颐曰：“學本是脩德，有德然後有言”[76]“问：‘作文害道否？’曰：‘害也’”[77]“人見六經便以謂聖人亦作文，不知聖人亦據發胸中所蘊，自成文耳。”[78]朱子曰：“這文皆是從後道中流出。”[79]由此可见，在千年的历史演变中，文道关系历经人能弘道说、圣人管道说、气主文说、圣人述道说、以文为理说、文以明道说、文以贯道说、文以载道说、作文害道说、文从道中流说以及“道文一贯”[80]说。退溪先生曰：“凡君子述古垂世，但務明吾道以俟知者”。[81] 也就是说，退溪先生认为君子应作文以明道。

退溪先生和朱熹所生活的时代都是前朝都崇佛抑儒，当朝崇儒抑佛，即宋朝前面的魏晋南北朝、隋唐至五代十国和朝鲜王朝前面的高丽王朝都是被称为异端的佛、道大行于世，而朝鲜王朝和宋朝自开朝起统治者便确立了以儒治国的主基调，因此当时社会的主流哲学思想都是儒学。作为世界东方哲学思想特别是性理学思想的代表人物，下面我们将首先通过具体的诗例来探讨退溪先生和朱熹这两位先贤的哲学思想如何在他们的其诗歌作品得以彰显和反映。在此，我们将选用诗作是退溪先生的「天渊台」和朱熹先生的「鸢飞鱼跃」两首诗。接下来我们将借助英国诗人兼文评家柯勒律治诗歌评论理论中有关诗歌之韵律、主题、

61)同上，p.298。
62)程树德撰，程俊英、蒋见元点校，《论语集释(下)》，北京：中华书局，2013，p.1279。
63)战国]荀子著，方勇，李波译注，《荀子》，北京：中华书局，2015，p.102。
64)[漢]楊雄著，汪榮寶撰，陳仲夫點校，《法言義疏(上、下》，北京：中華書局，1987，pp.266-257。
65)[魏]曹丕撰，魏宏灿校注，《曹丕集校注》，合肥：安徽大学出版社，2009，p.313。
66)[南朝梁]刘勰著，[清]黄叔琳注，[清]纪昀评，戚良德辑校，刘咸炘阐述说，《文心雕龙》，上海：上海古籍出版社，2015，p.4。
67)[隋]王通，《中说》，北京：中国文史出版社，2012，p.28。
68)同上，p.214。
69)[唐]韩愈，《韩昌黎全集(上)》，北京：北京燕山出版社，1996.4(2009年1月重印)，p.426。
70)[唐]韩愈，《韩昌黎全集(下)》，北京：北京燕山出版社，1996，p.543。
71)同上，p.581。
72)[唐]韩愈，《韩昌黎全集(上)》，北京：北京燕山出版社，1996，p.1。
73)[唐]柳宗元著，曹明纲标点，《柳宗元全集》，上海：上海古籍出版社，1997，p.277。
74)同上，p.82。
75)[宋]周敦頤著，陳克明點校，《周敦頤集》，北京：中華書局，1990.05，p.34。
76)[宋]程顥、程頤撰，[宋]李籲、吕大臨等輯録，朱傑人、嚴佐之、劉永翔主編，《朱子全書外編第貳册：程氏遺書、程氏外書》，上海：華東師範大學出版社，2010，p.291。
77)同上，p.299。
78)同上，p.300。
79)[宋]朱熹撰，朱傑人、嚴佐之、劉永翔主編，《朱子全書(修訂本)第拾捌册：朱子語類(五)》，上海：上海古籍出版社，合肥：安徽教育出版社，2010，p.4298。
80)许总，「论南宋理学极盛与宋诗中兴的关联」，《社会科学战线》第6期，2000，p.100。
81)退溪學叢書編輯委員會研會編輯，《退溪學叢書第II部第2卷：陶山全書二》，서울：退溪學研究院，1988，p.125。

意象和诗人所要传递思想之深度和能量等四个维度来对这两首诗予以对比分析和研究。

天淵臺[82]	鸢飞鱼跃[83]
(朝鲜王朝)退溪李滉	(宋朝)晦庵朱熹
縱翼揚鱗孰使然，流行活潑妙天淵。	此理充盈宇宙间，下穷鱼跃上飞鸢。
江臺盡日開心眼，三復明誠一巨編。	飞斯在上跃斯下，神化孰尸本自然。

根据柯勒律治的诗评理论，诗歌之韵律必须完美甜蜜，适合主题；在改变语序的情况下所展现的韵律力量并没有达到比思想所要求的更崇高更富有弹性的节奏。[84] 根据七言近体诗的韵律要求，只能押平声韵，通常两句一韵，同首诗中不能换韵，不入韵句子之尾字则必须用仄音字代替；所用格律有四种基本平仄结构格式(平平仄仄平平仄，仄仄平平仄仄平。仄仄平平平仄仄，平平仄仄仄平平。)，可以构成两联，每一联，一个问句，一个答句。从用韵的角度看，两首诗作均用“an”韵，「天渊台」中的每一诗行的尾字，即“然”、“淵”、“眼”、“編”四字都用“an”韵，只不过“眼”字虽用了“an”韵，但属上声仄音，其余均属于平声。而在「鸢飞鱼跃」诗行中四个尾字，即“间”、“鸢”、“下”、“然”中，三个字用了“an”韵，不押韵的诗行则用了仄音字“下”代替。由此可见，从用韵上看，退溪先生的诗作在用韵上则稍微胜朱熹先生之作一筹。此外，从格律上看，虽然两首诗均不完全严格符合七言近体诗之要求，但朱熹先生在用格用律上稍逊一筹，特别是两首诗首联中的出句和对句，孰优孰劣，一目了然。之所以出现这种不完全严格符合格律要求情况，主要跟这两位哲人的文论思想密切相关。朱熹认为：“道者，文之根本；文者，道之枝。惟其根本乎道，所以發之於文，皆道也”[85]“大意主乎學問以明理，則自然發為好文章，诗亦然” [86]“道外有物，固不足以爲道，且文而無理，又安足以爲文乎？蓋道無適而不存者也，故即文以講道，則文與道兩得而一以貫之，否則亦將兩失之矣”[87]。 也就是说，朱熹主张道本文末，以文讲道，文道贯一，无理、无道之文不足以为文。退溪先生也认为：“凡君子述古垂世，但務明吾道以俟知者”[88] “夫詩虽末技，本於性情，有體有格，誠不可易而為之”[89]“詩於學者最非緊切，然遇景值興，不可無詩矣。” [90] 换句话说，退溪先生将诗文归于“末技”、“于学者最非紧切”之类，强调诗文应以明道为要。自此，我们不难看出，在理学家那里，诗文则已经完全被融入性理学范畴之内，而作为哲理诗中的理学诗实际上也成为了理学思想的诗化形态，即包括诗歌在内的文都需要为道、为理服务；学者不必牵于训诂，溺于文章，无需过于追求诗赋辞章；为达明道贯理之目的，在一定程度上牺牲文辞也是可以被接受的。由此可见，「天渊台」和「鸢飞鱼跃」这两首诗在用韵上不分伯仲，所用之韵律也适合于主题，但因两位哲人的文论思想两首诗的格律并未完全符合格律之要求，即便如此，两首诗韵律力量的表达和节奏的表现基本不影响。真可谓，“朱子之文，表裏瑩徹，故平平說出，而轉覺矜奇者之為庸，明明說出，而轉覺恃奧者之為淺。其立定主意，步步回顧，方遠而近，似斷而連，特其餘事”[91]，“其詩

82)退溪學叢書編輯委員會研會編輯，《退溪學叢書第II部第1卷：陶山全書一》，서울：退溪學研究院，1988，p.97。
83)https://www.iguoxue.top/shici/sx0786889.html。【2022-08-25检索】
84)Adam Roberts, *Biographia Literaria by Samuel Taylor Coleridge*, Edinburgh：Edinburgh University Press, 2014, p.215。
85)[宋]朱熹撰，朱傑人、嚴佐之、劉永翔主編，《朱子全書(修訂本)第拾捌册：朱子語類(五)》，上海：上海古籍出版社，合肥：安徽教育出版社，2010，p.4314。
86)同上，p.4299。
87)[宋]朱熹撰，朱傑人、嚴佐之、劉永翔主編，《朱子全書(修訂本)第貳拾壹册：晦庵先生朱文公文集(二)》，上海：上海古籍出版社，合肥：安徽教育出版社，2010，p.1305。
88)退溪學叢書編輯委員會研會編輯，《退溪學叢書第II部第2卷：陶山全書二》，서울：退溪學研究院，1988，p.125。
89)退溪學叢書編輯委員會研會編輯，《退溪學叢書第II部第3卷：陶山全書三》，서울：退溪學研究院，1988，p.53。
90)賈順先主編，《退溪全書今註今譯(五)》，成都：四川人民出版社，1995，pp.928。

勁健典實，不衒華彩。初看似無味，愈看愈好。”92)

根据柯勒律治的诗评理论，诗歌意象的选择只能漂亮、忠诚地复制于自然且使用精准的词汇来代表，绝对不能以诗人作为意象的特征。93) 从意象上看，两位哲人都选择了鸢飞于天和鱼跃于渊这两个意象作为明理贯道之依托。很明显两位哲人意象的选择均忠实于自然界意象之原相，也使用了“縱翼揚鱗”和“鱼跃飞鸢”这些词汇精准地代表原相，且其意象特征跟诗人无关。其实，「天渊台」中的“縱翼揚鱗”和「鸢飞鱼跃」中的“鱼跃”和“飞鸢”均出于《诗经》。《诗经・大雅・旱麓》曰：“鸢飞戾天，鱼跃于渊。”94) 意象的选择之所以从《诗经》中选取，主要是因为“三代聖賢文章，皆從此心寫出，文便是道。”95)在朱熹看来，上至三代下至孔孟等诸圣贤之文皆自道心而出，故文便是道。从道文中选取意象便更能使其文近乎道。当然，作为道文的《诗经》自然而然也成为学习者竞相仿效之对象。退溪先生亦曾劝诫郑子精作诗宜“取古今名家著實加工而師效之”96)，万不可“以誇多、鬪靡、逞氣為尚，言或至於放誕，義或至於庞雜，一切而不问而信口信筆胡亂寫去，雖取於一時，恐難傳於萬世。” 97) 两首诗均取象于《诗经》，《诗经》取象于自然。鸢飞于天和鱼跃于渊这两个意象不仅画面感十足，而且空间感亦十分强烈，一个上取于天，一个下取于地，空间张力开阔且空灵。这两首诗作意象地选择不可谓不是后生作诗师效之典范。此外，退溪先生的「竹十绝」、「丛竹」、「次翠竹韵」、「雪竹」、「风竹」、「种竹」等诗均取象于竹；「孤山梅隐」、「观梅」、「陶山访梅」、「代梅花答」、「再访陶山梅十绝」、「谢金而精送梅竹一盆」、「季春至陶山山梅赠答两首」、「次韵奇明彦追和盆梅诗见寄」、「次韵金惇叙梅花」、「忆陶山梅二首」、「陶山月夜咏梅六绝」、「溪斋夜起对月咏梅」、「种梅」、「梅花诗」等取象于梅；「金慎仲挹清亭十二咏」取象于山、江、月、风、鹤、鱼、花等；「次韵集胜亭十绝」取象于晓角、暮钟、白烟、落照、春花、秋月、渔火、行雨、飞雪等；「次韵禹景善菊问答六首」取象于菊花；「仙游洞八咏」取象于月、春、牛、鹤、草、药、鱼等；「题金上舍慎仲画幅八绝」取象于牛、羊、鱼、鹅、雪、瀑、鹿、鹤等；「韩上舍永叔江墅十景」取象于朝云、暮帆、小川、薇、雨、菊霜、月、竹、风、松等；「歧亭十咏」取象于云、月、鱼、山、竹、梅、雁、荷、冰等；「从侄凭索咏图中花卉八首」取象于松、菊、梅、竹、牡丹、蹯躅、芍药、四季；以及其它诸如水、雷、电、泉、潭、渊、柳、瓜、莲、牡丹、芍药、白茅、葵花亭、洞、井、台、壁、圃等意象无不源于天地自然。退溪曰：“風霜摧剝之餘，雖枝條枯瘁，生意未形，而其萌長之理已動於今日矣。” 98)在退溪的眼里，自然界中的一切，一草一木抑或一山一石，都是抽象的理具体显象之处。至于朱熹先生的诗歌主题，「梅」、「梅花二绝句」、「赋梅花有怀元履」、「清江道中见梅」、「不见梅再用来字韵」、「红梅腊梅」、「观梅小集」、「和元范示及十梅诗」等诗取象于梅，「梵天观点对雨」、「秋雨」、「冬至阴雨」、「夜雨两首」、「冬雨不止」、「中元雨中承自晋」、「兼山阁雨中」取象于雨；「武夷七咏」取象于天柱峰、洞天、书鹤、仰高堂、赴真亭、大小藏嚴、丹龟等；「武夷棹歌十首」取象于寒流、幔亭峰、玉女峰、两石嚴、隐屏、仙掌、鼓楼、桑麻等；「百丈山六咏」取象于石凳、小涧、山门、石台、西阁、瀑布；「云谷二十咏」取象于谷、涧、瀑、关、沼、杉、庄、泉、池、山、圃、庵、庐、桃、溪；「云谷杂诗十二首」取象

91)[清]劉熙載，《藝概》，北京：朝華出版社，2018，p.64。
92)賈順先主編，《退溪全書今註今譯(五)》，成都：四川人民出版社，1995，pp.928。
93)Adam Roberts, *Biographia Literaria by Samuel Taylor Coleridge*, Edinburgh：Edinburgh University Press, 2014, p.217。
94)[宋]朱熹集传，《诗经》，上海：上海古籍出版社，2013，p.345。
95)[宋]朱熹撰，朱傑人、嚴佐之、劉永翔主編，《朱子全書(修訂本)第拾捌册：朱子語類(五)》，上海：上海古籍出版社，合肥：安徽教育出版社，2010，p.4314。
96)退溪學叢書編輯委員會研會編輯，《退溪學叢書第II部第3卷：陶山全書三》，서울：退溪學研究院，1988，p.53。
97)同上。
98)賈順先主編，《退溪全書今註今譯(五)》，成都：四川人民出版社，1995，pp.834。

于山、风、月等；「奉张敬夫城南二十咏」取象于湖、渚、桥、船、堂、涧、楼、山、轩、石、亭、堤、榭、屿、舫、梅、舟、菱等；「秋华四首」取象于木芙蓉、蕙、木犀、菊等；以及其它诸如湖、雷、蝉、海棠、枯木、残雪、晚霞、木耳、梨、山药等诸多意象亦皆取象于自然。从意象的选择上看，退溪先生更多取象于自然界中的自然景，而朱熹则更多是从自然界中的人文景观中取象；同时退溪先生的诗取象的广度和深度也较朱熹先生丰富一些。

根据柯勒律治的理论，诗歌主题的选择应远离诗人的个人兴趣爱好及其所生活的环境，因为选自诗人个人感受和经历的主题往往只是一首诗优秀性的真正诗意模糊标志，且往往是虚假的保证。[99] 很明显，「天渊台」和「鸢飞鱼跃」这两首诗都是以天地自然之理作为主题，且主题均在诗的第一联出句和对句中予以呈现。只不过「鸢飞鱼跃」的首句“此理充盈宇宙间”以平铺直叙较直白的方式呈现诗之主题，而「天渊台」的首句“縱翼揚鱗孰使然”则以对问的方式让主题予以间接含蓄呈现。毫无疑问，两首诗的主题也都跟两位这人的个人兴趣爱好和生活没有关系，但是跟他们的哲学思想密切相关。诗歌的主题往往跟诗人创作创作诗歌的目的密切相关，要么抒情，要么言志，要么阐理。显然这两首诗的主题是阐理，阐释縱翼揚鱗之理，阐释鸢飞鱼跃之理，正如朱熹先生的所言，阐释不知鸢之所以全不用力得飞和鱼之所以怡然自得得跃之理。作为性理学家，两位哲人以哲理作为诗歌主题的诗作占他们所创作诗的总量相当比例。根据汉城建国大学李秀雄教授的研究结果，在朱熹先生所创作的约一千五百首诗中，其中“說理詩可達百分之十七%，說理詩韻也可達百分之十五%。如把釋老詩語和詩韻加進，各各佔了百分之二十四%和百分之二十一%了”[100]；在退溪先生所创作的约二千三百首诗中，其中“說理詩語及詩韻各各佔了百分之二十七%和百分之二十六%。”[101] 根据该研究结果，一、两位哲人都为后世留下了数量不菲的哲理诗作，如果我们把两位哲人说理诗和说理诗韵相加，则朱熹和退溪两位哲人的说理诗分别占其诗作创作总量的45%和53%，即两位哲人一生中分别创作了约700首和1200首哲理诗；二、无论从所创作哲理诗作的总量上还是占比上，退溪先生都比朱熹先生创作了更多的哲理诗作；三、诗歌的创作主题虽然都有关于哲理，除了新儒学所涉及的哲学主题外，朱熹先生还涉及其它宗教，即佛教和道教，有关的哲学思想主题。诗之主题和诗之意象关系密切，就像《易经》中理与象之间地关系那样，一隐一现，一体一用；理隐象现，理体象用，正如后人对两位哲人的诗所作的评述那样。朝鲜王朝中期著名文人郑惟一评退溪之诗，“其詩初甚清麗，既而剪去華靡，一歸典實，莊重簡淡，自成一家。爲文本諸六經，參之諸子華實相兼，文質得中，雄渾而典雅，清健而和平。要其歸則又粹然一出於正。”[102] 郑惟一认为退溪之诗完成从清丽、华靡到典实、庄重、简淡的蜕变，形成自己独特的诗风，自成一家。《艺概》曰，朱子之诗“蓋惟有理趣而無理障，是以至為難得。”[103] 接下来，我们将主要从跟诗歌创作主题密切相关的思想这一维度讀两位哲人的诗歌予以常识性对比研究。

根据柯勒律治的理论，诗歌从所要传递思想的深度和能量是诗歌之灵魂；没有思想深度和能量，诗作的韵律、主题和意象将不复存在；不同时是一位思想深邃的哲学家，没人可以是一位伟大的诗人，这是因为诗歌是因为诗歌是所有人类知识、思想、激情、情感和语言之花朵和芬芳。[104] 虽然不少学者对于一位伟大的诗人必须同时是一位思想深邃的哲学家这一论述过于武断甚至极端，但是如果我们将这一论述放

99)Adam Roberts, *Biographia Literaria by Samuel Taylor Coleridge*, Edinburgh : Edinburgh University Press, 2014, p.216。
100)李秀雄，李退溪與朱熹詩語的 比較小考，《인문과학논총 》第21輯，1989，p.1。
101)同上，p.2。
102)賈順先主編，《退溪全書今註今譯(五)》，成都：四川人民出版社，1995，pp.536。
103)[清]劉熙載著，薛正興校點，《劉熙載文集》，南京：鳳凰出版社，2017.12，p.108。
104)Adam Roberts, *Biographia Literaria by Samuel Taylor Coleridge*, Edinburgh : Edinburgh University Press, 2014, p.220。

到其整个诗评理论体系中去就能更好理解思想对于诗歌的重要性。诗歌一旦没有了思想，诗作的韵律、主题和意象将会变得毫无意义，否则只能会走上牵于训诂，溺于文章的老路上去。诗歌没有思想就像人之没有灵魂。就像柯勒律治所打比喻那样，诗歌的创作力和思想智慧能量像两条湍急的溪流一样,在狭窄的河岸和岩石的河岸内初次相遇时，它们彼此争先恐后地相互排斥，勉强地相互混合，相互喧哗，但很快就会融为一体，形成更加宽阔、更肥沃的河岸，相互扩张，以同一个声音而同流而流。 105) 就像朱熹所言，“道外有物，固不足以為道，且文而無理，有安足以為文乎”106)，“今人作文，皆不足爲文。大抵專務節字，更易新好生面辭語。至說義理處，又不肯分曉”107)，故无道之文无以真正成文，正所谓退溪先生之所谓“務明吾道以俟知者”。108) 下面将着重分析「天渊台」和「鸢飞鱼跃」这两首诗所载或所明之道。

在《诗集传·大雅·旱麓》中，朱熹先生为鸢飞鱼跃注曰：“盖鸢之飞全不用力，亦如鱼跃，怡然自得，而不知其所以然也。” 109) 鸢之所以能够全不费力的翱翔于空，鱼之所以能够怡然自得游跃于渊，皆天地自然之理使然。在《中庸集注》中，朱熹先生又为其著曰：“子思引此诗以明化育流行，上下昭著，莫非此理之用，所谓费也。然其所 以然者，则非见闻所及，所谓隐也。”110) 也就是说，朱熹先生认为，子思引用此诗的目的是为了明理，明“鸢飞鱼跃”、“化育流行，上下昭著”之理。而我们人类目之所见、耳之所闻者，皆所然也，非其所以然也。天地万物之所以然者，皆理之体也；之所然者，皆理之用也；用显而体隐。虽然翻阅退溪先生的《诗经释义》、《中庸释义》及诗集无法直接找到先生对此处的释义，但是我们还是可以在《中庸释义》的追录中找到端倪，即中庸之道无外乎天道和人道也111)，并最终在《退溪先生言行通录·卷五》中回答德弘的提问处找到了答案。

> “德弘問：‘鳶飛戾天,魚躍於淵,莫非車不行水,舟不行陸之義與？’
> 先生曰：‘其間不無此意思。此則實道之妙用，上下昭著，流動充滿之義。故朱子曰：道之流行發見於天地之間，無所不在。在上，則鳶之飛而戾於天者，此也。在下，則魚之躍而出於淵者，此也。在人，則日用之間，人倫之際，夫婦之所知所能，而聖人之所不知不能者，亦此也。其流行發見於上下之間者，可謂著矣。今若以車不行水，舟不行陸之義推之，鳶，陽物也，故戾於天而不得潛於水；魚，陰物也，故躍於淵而不得飛於天。孰使之然也？此自然之妙，不容己之地，要在默而識。’”112)

通过此处的对话，我们不难发现，退溪先生认为：车行于路、舟行于水跟鸢飞戾天,魚跃于渊一样，皆“道之妙用”也，“上下昭著，流動充滿”的道之用，皆道之体使然，理使然也。退溪先生认为，“凡天下所當行者，理也。” 113)此处的“所当行者”即朱熹先生所谓天地万物之所以然者。摆出自己的观点后，退溪先生紧接着引用了朱熹先生的“道之流行發見於天地之間，無所不在”这句话来论证自己的观点。进而推物及人；继而推之，曰“鳶，陽物也，故戾於天而不得潛於水；魚，陰物也，故躍於淵而不得飛於天”，最后总结，此乃“自然之妙”。在这一推理过程中，退溪先生认为，因为鸢是阳物，鱼是阴物，故鸢只能飞于天而不得潜跃于水，而鱼只能游跃于渊而不得飞于天。在朱熹先生看来，此理解谬也。

105)同上。
106)[宋]朱熹撰，朱傑人、嚴佐之、劉永翔主編，《朱子全書(修訂本)第貳拾壹册，晦庵先生朱文公文集(二)》，上海：上海古籍出版社，合肥：安徽教育出版社，2010，p.1305。
107)[宋]朱熹撰，朱傑人、嚴佐之、劉永翔主編，《朱子全書(修訂本)第拾捌册：朱子語類(五)》，上海：上海古籍出版社，合肥：安徽教育出版社，2010，p.4313。
108)退溪學叢書編輯委員會研會編輯，《退溪學叢書第II部第2卷：陶山全書二》，서울：退溪學研究院，1988，p.125。
109)[宋]朱熹注，赵长征点校，《诗集传》，北京：中华书局，2011，p.243。
110)[宋]朱熹撰，《四书章句集注》，北京：中华书局，2011，p.24。
111)賈順先主編，《退溪全書今註今譯(五)》，成都：四川人民出版社，1995，pp.472-473。
112)同上，p.827。
113)同上，p.825。

鸢飞鱼跃之所然者，理之用也；之所以然者，理也。理之未发，体也，性也；已发，用也。在此，退溪先生认为阴阳二气是鸢飞鱼跃之所以然之理，这在一定程度上反映了其理气互发说。在答奇明彦《四端七情分理气辨》中曰：“盖理之與氣本相須以為體，相待以為用。固未有無理之氣，亦未有無氣之理”[114] “四則理發而氣隨之，七則氣發而理乘之耳。”[115] 很明显，退溪先生认为理和性皆可发，跟气一样具有能活动的特性，很明显这跟朱熹先生理气论和性情论明显相悖。正如朱熹先生所云：“仁、義、禮、智是未發底道理，惻隱、羞惡、辭遜、是非是已發底端倪”[116]“然以意度之，則疑此氣是依傍這理行。及此氣之聚，則理亦在焉。蓋氣，則能凝結造作，理却無情意，無計度，無造作。只此氣凝聚處，理便在其中。且如天地間人物草木禽獸，其生也，莫不有種，定不會無種了。白地生出個物事，這個都是氣。若理，則只是個淨潔空間底世界，無形迹，他却不會造作。氣則能醞釀，凝聚生物也。但有此氣，則理便在其中間。”[117] 如果理气性情都具有能活动的属性，那么理和气，性和情分别各为一物？抑或为两物？很明显两位哲人都认为理气为两物，性和情也是两物。退溪先生在其《非理气为一物辩证》中也曾引用孔子、周子、明道、朱子之言批判花潭徐敬德所主张的气一元论，如果说“陰陽是太極”、“理氣本一物”，那么“太極卽是两儀，安有能生者乎？曰真曰精，以其二物，故曰妙合而凝。如其一物，寧有妙合而凝者乎？”[118] 当然，在《论所当然、所以然是事是理》中，退溪先生也同意奇明彦的观点，即所当然者和所以然者皆为理。[119] 由此可见，理气绝非一物，而是两物，理之体亦有别于理之用。故鸢阳鱼阴绝非鸢飞鱼跃之所以然，其所以然者，理之道也，理之本也，理之体也；其所然者，气之器也，气之具也，理之用也。在退溪先生后来对类似问题答复时对自己的观点进行了修正，从而更好地把握了其中地要义，“鳶飛魚躍，狀化育流行，上下昭著，莫非此理之用也。理無息，故用之流行自然無一息間斷。人亦必有所事，無期待、去念、助長之病，則本體呈露，妙用顯行，亦無一息之間。其象乃如此。”[120] 朱熹先生也认为：“蓋通天下只是一個天機活物，流行發用，無間容息。據其已發者而指其未發者,則已發者人心，而凡未發者皆其性也，亦無一物而不備矣。夫豈別有一物拘於一時、限於一處而名之哉？即夫日用之間，渾然全體，如川流之不息、天運之不窮耳。此所以體用、精粗、動靜、本末洞然無一毫之間，而鳶飛魚躍，觸處朗然也”[121]；又曰，“天地之間, 有理有氣。理也者，形而上之道也，生物之本也。氣也者，形而下之器也，生物之具也。是以人物之生，必稟此理然後有性，必稟此氣然後有形。其性其形雖不外乎一身，然其道器之間分際甚明，不可亂也。”[122] 此即朱熹先生的理气论，理为形而上之道，气为形而下之器；理为生物之本，气为生物之具，两者道器分明，不可乱。故言鸢阳鱼阴并非鸢飞鱼跃之所以然者，其所以然者，理之道也，理之本也，理之体也。更何况阴阳者，气也，非理也。

114)退溪學叢書編輯委員會研會編輯，《退溪學叢書第II部第2卷：陶山全書二》，서울：退溪學研究院，1988，p.41。
115)同上，p.47。
116)[宋]朱熹撰，朱傑人、嚴佐之、劉永翔主編，《朱子全書(修訂本)第拾伍册：朱子語類(二)》，上海：上海古籍出版社，合肥：安徽教育出版社，2010，p.1764。
117)[宋]朱熹撰，朱傑人、嚴佐之、劉永翔主編，《朱子全書(修訂本)第拾肆册：朱子語類(一)》，上海：上海古籍出版社，合肥：安徽教育出版社，2010.09，p.116。
118)退溪學叢書編輯委員會研會編輯，《退溪學叢書第II部第3卷：陶山全書(三)》，서울：退溪學研究院，1988，p.241。
119)賈順先主編，《退溪全書今註今譯(六)》，成都：四川人民出版社，1995，p.1312。
120)賈順先主編，《退溪全書今註今譯(五)》，成都：四川人民出版社，1995，p.829。
121)[宋]朱熹撰，朱傑人、嚴佐之、劉永翔主編，《朱子全書(修訂本)第貳拾壹册：晦庵先生朱文公文集(二)》，上海：上海古籍出版社，合肥：安徽教育出版社，2010，pp.1393-1394。
122)[宋]朱熹撰，朱傑人、嚴佐之、劉永翔主編，《朱子全書(修訂本)第貳拾叁册：晦庵先生朱文公文集(四)》，上海：上海古籍出版社，合肥：安徽教育出版社，2010，p.2755。

4. 结论

综上所述，笔者依据柯勒律治的诗评理论运用文献法对退溪和朱熹先生的这两首哲理诗进行对比分析和研究后，我们不难发现：两首诗韵律上不分伯仲，但在用格用律上，虽然退溪先生的诗稍胜一筹，但两位哲人的诗都没完全符合相应的格律要求，这主要是他们文以明道和文从道中流文论思想在其诗歌中的集中反映，即道大于文，为了道，在一定程度上可以牺牲文辞；在意象的选择上，这两首诗均忠实完美取象于自然，源于《诗经》，但如果将他们的其它诗歌意象也纳入考量之中，则朱熹先生诗歌取象的广度和深度则稍逊于退溪先生，这主要是因为宋朝时期较朝鲜王朝时期儒者重道更甚于文，从他们哲理诗占其诗歌总量的比例可见端倪；从诗歌主题的选择上看，两首诗均以天理或天道作为诗歌主题，所选主题跟其哲学思想密切相关，跟韵律和意象的的选择和搭配亦各有千秋；从思想内容的深度和力量上看，两首诗反映了两位哲人在理气这一世界观上的异同，虽然两者都主理，但是朱熹认为理静气动，理体气用，理本气末，理道气器，未发为理，已发为气，而李退溪则认为理气互动，理气互发，进一步辩证发展了朱熹先生的理气哲学思想体系。但是在此需要特别指出的是，虽然这是笔者在两位哲人在文学特别是在诗歌方面进行了深入的探讨，但研究的广度和深度仍有待进一步挖掘，比如是不是还有更多的诗歌可以反映同一研究课题，以及他们的诗歌是如何反映两位哲人其它哲学思想的。即便如此，但愿本文不仅能激发起更多东亚学者及专家关心并关注这两位哲学家在文学特别是诗歌方面所取得的巨大成就，而且能够在全球诗歌哲学这股学术思潮转向中向世界发出更多东方的声音，进而确立东方哲学在相关领域的话语主导权。

메 모

【차세대학자분과Ⅰ】발표 ⑥

意识形态安全视角下高校网络思想教育体系构建研究

Zhao Fan*

【目 录】

1. 高校意识形态工作面临的挑战和主要问题
1) 高校意识形态工作面临的挑战
2) 高校意识形态工作存在的主要问题
2. 高校网络思想教育的四大原则
3. 高校网络思想教育体系构建
1) 坚持社会主义的办学方向
2) 意识形态控制机制建设
3) 网络舆情话语权及监管体系构建
4) 高素质师资队伍建设
5) 强化隐性教育
6) 网络信息化建设
4. 结语

【摘要】

意识形态安全是政治安全的灵魂，与国家政权安全息息相关，高校要切实发挥意识形态工作的前沿阵地作用，以习近平新时代中国特色社会主义思想为指引，从坚持社会主义的办学方向、意识形态控制机制建设、网络舆情话语权及监管体系构建、高素质师资队伍建设、强化隐性教育、网络信息化建设等六个方面构建网络思想教育体系，做好大学生意识形态教育工作。

【关键词】 意识形态；高校；网络；教育。

1. 高校意识形态工作面临的挑战和主要问题

中国互联网络信息中心第48次《中国互联网络发展状况统计报告》中指出，截至2021年6月，我国网民规模达10.11亿，其中 6-19 岁网民规模达 1.58 亿，占网民整体的 15.7%[1]。互联网已成为大学生获取信息的主渠道，大学里“低头族”现象已成常态，各种的社交软件充斥着大学生的生活，互联网在给教育带来便利的同时也带来了新的挑战。其中意识形态教育是高校的重要工作，高校意识形态工作直接关系“为谁培养人”“培养什么人”的问题，因此在当今意识形态领域的斗争愈加隐蔽，意识形态渗透方式更为多样的形势下，努力构建网络思想教育体系，做好大学生意识形态教育工作尤为重要。

1）高校意识形态工作面临的挑战

* 群山大学博士生

早在2013年，习近平总书记就在全国宣传思想工作会议上指出：“能否做好意识形态工作，事关党的前途命运，事关国家长治久安，事关民族的凝聚力和向心力。[2]”互联网的快速发展不断改变着大学生的生活方式、思维方式和学习方式。大学生虽在年龄结构上已属成年人，但世界观、价值观、人生观还处于成长和发展阶段，且思想相对独立开放，思维活跃，事物接触面较广，很容易受不良信息的影响导致思想意识的混乱。长期以来，西方资本主义国家将意识形态斗争的重点放在了青年学生身上，意在与我们党争夺阵地、争夺青年、争夺人心。

高校是国内外社会思潮的聚集和交汇地，是抵御各种错误思想观念的前沿阵地，高校意识形态状况是国家意识形态的晴雨表。在网络环境下高校意识形态工作面临着重大挑战，大学生思想活跃，非常关注新事物的发展，乐于接受新事物，但是受限于个人成长环境和经历，以及对党的历史和我国国情了解不够深入，加之受到资本主义价值观的侵蚀，会出现对一些错误的思潮不抵触甚至尝试接触的现象。高校在技术上无法阻止学生通过网络获取不良信息，甚至偶尔会出现个别教师以西方意识形态代言人的立场用批判的眼光、不负责任的态度诋毁党的路线方针政策，歪曲主流意识形态。

2）高校意识形态工作存在的主要问题

高校意识形态工作“失位”和“缺位”现象凸显。高校意识形态工作中存在着“重要性认识经常讲，忙的时候忘记抓，出现问题一拥而上，事件平息就鸣鼓收兵”的问题。两课教学工作存在着能进课堂入不了心、“满堂灌”的现象，有的教师在“党”不言“党”，负面情绪较多。由于课堂教学缺乏吸引力，“两课教师”被学生戏称“马列老头、马列老太”，思想政治理论课被当成拿学分的课程。习近平总书记在在哲学社会科学工作座谈会上指出：“实际工作中，在有的领域中马克思主义被边缘化、空泛化、标签化，在一些学科中“失语”、教材中“失踪”、论坛上“失声”[3]。如何将铁一样的逻辑和诗一样的语言结合起来，发挥思想政治理论课在意识形态教育中主渠道的作用值得我们深入思考。

2. 高校网络思想教育的四大原则

高校在意识形态控制中应坚持四个方面的原则：政治性原则、及时性原则、主动性原则、包容性原则。政治原则毫无疑问就是坚持马克思主义为指导，习近平总书记指出：“要把意识形态工作领导权和话语权掌握在手中，不断巩固马克思主义在意识形态领域的指导地位，巩固全党全国人民团结奋斗的共同思想基础。[2]”马克思主义意识形态和非马克主义意识形态在社会主义初级阶段会同时存在，但并非没有主次，也并非同步发展。及时性原则是指遇到突发事件时，处理一定要及时有效，做到早发现、早介入、早解决，不要等个体事件变为群体事件时才予以解决。主动性原则是要主动谋划具有本校特色的品牌性工作，同时主动发生掌握网上舆论的主动权和话语权。包容性原则是尊重大学生群体间的差异性，在意识形态教育中对特殊群体学生采取因地制宜的教育方式与方法。

3. 高校网络思想教育体系构建

1）坚持社会主义的办学方向

中共共产党的执政地位和我国社会主义性质决定了高校应当坚持社会主义办学方向，必须全面贯彻党的教育方针、培养新时代中国特色社会主义事业建设者和接班人。

网络环境下，意识形态领域的斗争具有长期性、复杂性的特点，要确保国家意识形态的安全就必须坚持和巩固马克思列宁主义、毛泽东思想和中国特色社会主义理论体系，全面贯彻习近平新时代中国特色社会主义思想，全面深入学习贯彻习近平总书记在全国教育大会和学校思想政治理论课教师座谈会上的重要讲话精神，全面把握习近平总书记关于马克思主义意识形态建设的重要论述。回顾苏联亡党亡国的历史教训，我们要清醒的认识到在任何条件下都要坚持马克思主义的指导地位不动摇，坚持四项基本原则，强化政治意识、责任意识、阵地意识和底线意识，这是我们的立国之本。高校党委必须把意识形态工作的领导权和话语权牢牢掌握在手中，必须高举旗帜，指明方向，做到守土有责、守土尽责。

2）意识形态控制机制建设

（1）加强组织领导

《党委（党组）意识形态工作责任制实施办法》中指出：要强化党管宣传、党管意识形态，牢牢掌握意识形态工作的领导权主动权，巩固马克思主义在高校意识形态教育中的主导地位。高校要建立党委统一领导，宣传部牵头负责，各基层党组织密切配合的管理体制，完善思想政治动态研判机制和预警机制。对学生关注的社会热点焦点问题进行梳理，以“三贴近”（贴近学生、贴近生活、贴近实际）的方式，增强思想政治教育的针对性，提高解决意识形态领域突发事件的处理能力。

（2）构建现代化的高校新闻宣传体系

有句谚语“酒香不怕巷子深”，放在当今各种讯息快速更新迭代的时代已不太适用，新闻宣传工作者更不能有这种等靠让的思想，而应主动发声，充分发挥宣传部门在思想引领、价值传播和形象塑造方面的使命和作用。高校要形成以宣传部门为主导，教学、科研、招生等多部门协同合作的大宣传格局，要注重学校校园文化品牌的培育和树立，发挥校园文化品牌的感召力和号召力，达到“以正确的舆论引导人，以优秀的作品鼓舞人”的良好效果。另外，高校党委要重视发挥基层党组织宣传委员的作用，给其工作开展提供相应制度和经费保障。

（3）构建现代化的高校新闻宣传体系

马克思在《关于费尔巴哈的提纲》中指出：环境是由人来改变的，而教育者本人一定是受教育的[4]。我们处于一个“知识大爆炸”时代，高校的教师也要及时更新自己的知识，想“毕其功于一役”是不

可能的。高校教师学习的途径无非是深造、培训和自学，培训是因其权威、高效和便捷成为一种备受欢迎的形式。意识形态教育工作要重视培养一批政治素质过硬、业务能力强的中青年教师，常态化的教育培训工作应是重点。高校要建立意识形态教育专项经费，使意识形态教育工作者能够听到权威专家解读，能参加国内外有关学术会议和外出学习交流活动。

3）网络舆情话语权及监管体系构建

（1）掌握网络舆情的话语权

习近平总书记指出：“我国网民有近7亿人，很多人有大部分信息都是网上获取，必须正视这个事实，把网络舆论工作作为重中之重来抓”[5]。在网络环境下要掌握意识形态工作的领导权和主导权，必须要拥有网络舆情方面的话语权，牢牢把握互联网上的舆论导向。网络话语权的构建一方面要通过技术手段屏蔽、禁止和删除不良信息，营造健康良好的网络环境；另一方面发挥好校园主流媒体如网站、微信公众号等软性引导作用，鼓励积极正面发声。同时，在意识形态的教育中，要坚持以学生为本，尊重大学生的主体地位，充分发挥学生主观能动作用，强调话语权不是控制权，要以大学生喜闻乐见和能够接受的方式开展教育活动。

（2）网络舆情监管制度完善

习近平在确立新网络舆论观中指出：善于运用网络了解民意、开展工作，是新形势下领导干部做好工作的基本功[6]。在意识形态教育中不能有防民之口甚于防川的思想，要管控和引导结合，总结出一套行之有效的“事前预防、事中控制、事后反馈”的监管制度体系和应急预案。在意识形态出现问题的初期，要有高度警觉，做好舆情管控，在事情发生以后，尽快了解事况，根据应急预案做好应对以及后续处理适宜。如某高校出台了《关于深化网评员队伍建设的实施意见》，建立网络专职管理员队伍，充分发挥辅导员等一线工作人员的作用。

4）高素质师资队伍建设

（1）严把入口关和质量关

“政治路线确定之后，干部就是决定的因素”[7]，毛泽东讲这句话是强调了选人用人的重要性。思想政治理论课教师和辅导员在意识形态教育中承担着重要作用，在引进的过程中，一定要进行严格的审查，其政治面貌一般应要求中共党员。教师在一定情况下和演员有相似点，演员对角色感情不深就演不出好戏来，同样的，从事思想政治教育的教师如果心中没有坚定地共产主义信仰或对党没有感情的话就不会有良好的教育教学效果。对思想政治教育理论课教师考核要高标准、严要求，打造一支立场坚定、素质过硬、作风优良的师资队伍。

（2）正面的“网红”和“意见领袖”的培育

习近平总书记在全国宣传思想工作会议上指出：各级宣传部门的领导干部要加强学习，加强实践，真正成为在理论上、笔头上、口才上或其他专长上有“几把刷子”，让人信服的行家里手[8]。现如今高校网络文化阵地意见领袖难寻，“绅士”太多，“战士”太少，大家习惯于做沉默的大多数。高校要鼓励从事思想政治教育的教师，通过微信、微博、抖音等，鼓励他们发帖撰文、拍微视频，打造具有本校特色的正面的“网红”精英团队和“意见领袖”，打造敢于、善于正面发声的教师团队；同时培育学生话语权领袖队伍，在应对舆论事件时，从学生身份发声，更好的实现大学生层面的教育引导作用。

（3）丰富教育载体，提升课堂教育吸引力

在课程思政改革如火如荼的形势下，落实育人成效，提升课堂吸引力至关重要。在进行课堂教学灌输的同时，充分与实践教学启发相融合，做到理论与实践相结合，推进习近平新时代中国特色社会主义思想“进教材、进课堂、进头脑”。其中高校思想政治理论课是高校学生意识形态教育的主阵地，对于大学生意识形态教育发挥着主要作用。一是通过课堂教学掌握主流意识形态，把握话语权，占领意识形态阵地，同时防范资本主义意识形态的侵蚀。通过课堂教学，高度实现社会主义意识形态学习、宣传的主要作用，加强学生意识形态教育。在思政课的意识形态属性方面，高校教师要勇于面对，敢于讨论、发声、引导，以扎实的理论基础实现以理服人、正面引领，这也要求广大教师注意提升自我水平，多钻研、学习意识形态相关知识。二是广泛开展主流意识形态教育相关实践活动，发挥实践育人功能。实践活动有助于大学生意识形态初步形成到逐步成熟的转化，通过暑期实践、专业实习、教育基地参观、志愿服务等渠道和形式，实现大学生逐渐积累体验和感悟，逐步认同核心价值观，形成价值共识，最终内化于心、外化于行。

5）强化隐性教育

（1）红色理论社团建设

大学生在学校生活中常以群体的情况出现，大学生中同辈教育的作用非常大，学生社团组织对大学生成长影响是巨大的。群体组织中个人先被同化而后内化然后再外化为行动，团体活动参与度高，受团体意识和他人观点的影响就较大。高校应有意识的扶持“信仰读书会”等理论学习方面的社团，提升红色理论社团在学校的凝聚力，发挥其自我教育、自我管理、自我服务的职能。红色理论社团的建立不仅能够提升大学生的沟通能力，形成归宿感，更重要的是增强了大学生的自我认知和价值判断。

（2）活动育人

高校要注重顶层设计，围绕“社会主义核心价值观”和“中国梦”两个大的主题，开展中国特色社会主义理想教育。充分利用国庆、党庆、五四青年节、校庆等具有重要纪念意义的节庆日，开展丰富多彩、生动活泼的主题教育活动，强化集体主义、爱国主义教育。充分发挥“优秀大学生”等典型人物的示范作用，号召更多的大学生在先进典型的感召下，践行“爱国、敬业、诚信、友善”的社会主义核心价值观，使思想政治教育起到润物细无声的良好效果。

6）网络信息化建设

高校要加快数字化改革，充分发挥“钉钉”、微信公众号、官网等平台的作用，加强在网络平台建设方面的投入，完善校内网络信息化平台建设。在公共平台上开放留言板，学生有问题可以直接向有关部门咨询和反映，减少中间环节，使信息沟通交流渠道更为畅通、便捷，避免因沟通不畅引发舆论事件。借助网络载体构建学校、家长、企业、校友和学生交流平台，形成全员育人、全过程育人、全方位育人的良好氛围。成立高校网络信息化领导小组，将孤立、分散的网络信息高效整合，加强对日常网络舆情的监管。

4. 结语

意识形态与国家政治安全息息相关。高校要高度重视意识形态工作，围绕国家意识形态安全目标，以习近平新时代中国特色社会主义思想为指引，始终坚持“为谁培养人、培养什么人、怎样培养人”教育方针，以提高大学生意识形态的安全性为目的，积极应对高校意识形态工作面临的各种问题与挑战，全面构建网络思想教育体系，全力做好大学生思想政治教育工作，促进大学生树立正确的世界观、人生观和价值观，助力大学生成长为合格的社会主义建设者和可靠的接班人。

【차세대학자분과II】 발표 ①

数字经济发展与人口迁移*
——来自中国广东省的经验证据

张荷 · 殷慧慧*****

【目 录】

1. 引言及文献综述
2. 研究设计及描述性统计
   1) 构建模型
   2) 变量测度与说明
   3) 数据描述性统计
3. 数字经济对人口迁移影响的实证分析
   1) 基准回归结果
   2) 稳健性检验：工具变量方法
   3) 稳健性检验：交乘项
4. 结论
5. 研究不足与展望

【摘要】

本文探讨了数字经济对广东省人口迁移的效应及其背后的机制，使用2011—2019年中国广东省21个地级及以上城市的数字经济和迁入迁出率。结果表明：数字经济水平的提高是城市迁入率和净迁移率的拉力因素，但对城市迁出率存在显著的负向影响。这一结论在引入工具变量等稳健性检验后仍然成立。本文的研究有助于推动广东省人口迁移模式以及数字经济高质量发展的效应、机制和城市差异的理解。

【关键词】数字经济 迁入率 迁出率 净迁移率 广东省

1. 引言及文献综述

《“十四五”数字经济发展规划》中提到数字经济是继农业经济、工业经济之后的主要经济形态，是以数据资源为关键要素，以现代信息网络为主要载体，以信息通信技术融合应用、全要素数字化转型为重要推动力，促进公平与效率更加统一的新经济形态。学者们普遍认为，互联网等数字通信技术的应用能够显著提高国际贸易规模[1)2)]。

* 本文受广东省教育厅2022年度普通高校青年创新人才科研项目“一核一带一区发展格局下粤港澳大湾区数字经济与传统特色产业集群高质量融合发展路径研究”(项目编号：2022WQNCX192）、广东省哲学社会科学规划2022年度学科共建项目“粤港澳大湾区产业集群数字化转型与跨境电商协同共享发展机制研究”的资助

** 庆熙大学 经济系 博士研究生(zhanghe@khu.ac.kr）

*** 庆熙大学 经济系 博士研究生，广州城市职业学院 国际贸易专业 讲师(vivien-yin@nav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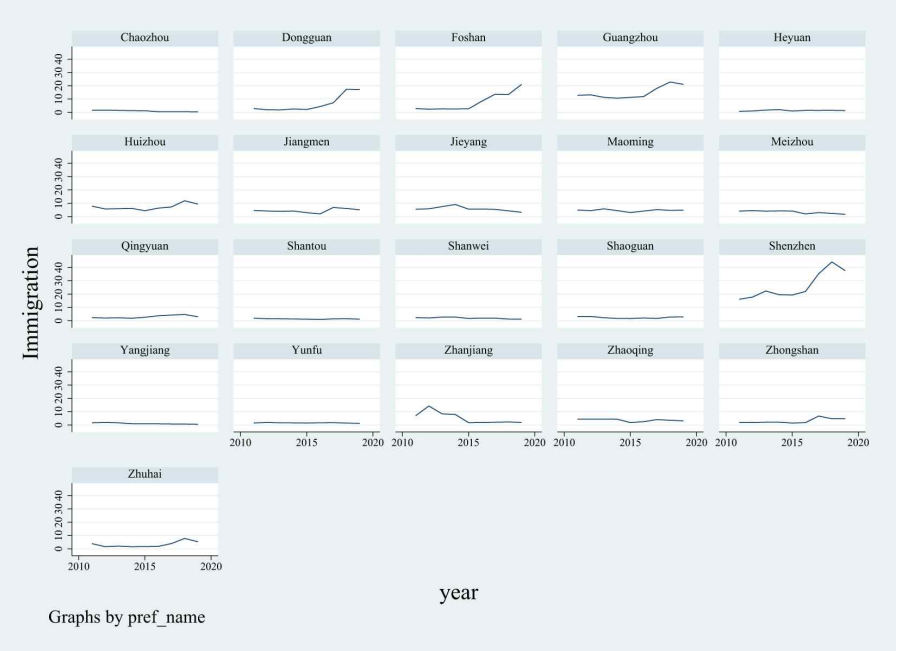
1) Freund C. and Weinhold, D. 2004. The Effect of the Internet on International Trade.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62(1) :171－189

经济发展是人口流动的重要驱动力。那么，数字经济是否驱动了中国的人口迁移呢？城市数字经济水平的提高有利于增加流动人口的居留意愿。数字经济提高了城市的创新创业活力和宜居性[3)]。数字经济发展推动产业结构升级进步，促进产业转型。同时，科研发展投入、金融发展水平、移动互联网发展水平对产业结构升级也产生正向助推力，但信息技术发展对产业结构升级呈现不显著性。

现有的研究大多注重于数字经济的发展现状分析，缺少实证分析论文。已有的实证分析多从国家层面出发，没有具体到粤港澳大湾区。本研究使用广东省数据分析数字经济和人口迁移问题，建立计量模型来弥补这一空缺，并与数字经济理论相结合，探讨广东省数字经济与人口迁移作用机制，并给出相关的政策建议。

<图1>为广东省人口迁入情况，深圳、广州、佛州和东莞四个城市迁入人口最多，并呈现出逐年上升趋势。

<图1> 广东省人口迁入情况(万人)



2. 研究设计及描述性统计

1）构建模型

本研究主要使用以下回归模型研究数字经济发展对广东省人口迁移的影响：

$$\mathrm{p\_im}_{\mathrm{it}} = \beta_0 + \beta_1 \mathrm{dig\_level}_{it} + \delta X_{it} + \lambda_{\mathrm{i}} + \eta_{\mathrm{t}} + \varepsilon_{it} \qquad (1)$$

$$\mathrm{p\_emi}_{\mathrm{it}} = \beta_0 + \beta_1 \mathrm{dig\_level}_{it} + \delta X_{it} + \lambda_{\mathrm{i}} + \eta_{\mathrm{t}} + \varepsilon_{it} \qquad (2)$$

2)施炳展．2016．互联网与国际贸易——基于双边双向网址链接数据的经验分析．经济研究(5):172－187．

3)张锟澎，刘雪晴，2022，数字经济、流动人口与城市居留意愿——基于全国流动人口动态监测数据的经验研究，山西财经大学学报，pp.15-p28

$$pNOutside_{it} = \beta_0 + \beta_1 dig\_level_{it} + \delta X_{it} + \lambda_i + \eta_t + \varepsilon_{it} \quad (3)$$

其中，i 代表城市，t 代表时间，p_im为城市的迁入率， p_emi为城市的迁出率，pNOutside为净迁移率，dig_level 为数字化程度。X 代表一系列控制变量。具体如下：在岗职工人均工资总额(waget），表示该城市的经济发展水平；城市化水平(Urban），用人口密度来表示；外商投资(FDI），用当年实际使用外资比地区生产总值表示；城市医疗水平(bed），用医院卫生院床位数表示；城市教育水平(edu），用教育支出表示。λ 表示各个城市不随时间变化的未观察因素，用来控制地区固定效应； η 则控制时间固定效应； ε 表示随机扰动项。

2）变量测度与说明

<表1> 数字经济指标体系[4)]

数字化程度	移动化	移动支付笔数占比
		移动支付金额占比
	实惠化	小微经营者平均贷款利率
		个人平均贷款利率
	信用化	花呗支付笔数占比
		花呗支付金额占比
	便利化	芝麻信用免押笔数占比(较全部需要押金情形）
		芝麻信用免押金额占比(较全部需要押金情形）
		用户二维码支付的笔数占比
		用户二维码支付的金额占比

<表2> 数据说明及来源

变量名称	变量说明	变量来源
p_im	迁入率，一定时期(通常为一年）内迁入人数与同期平均总人口之比。通常以千分比表示。	广东统计年鉴
p_emi	迁出率，一定时期(通常为一年）内迁出人数与同期平均总人口之比。通常以千分比表示。	广东统计年鉴
pNOutside	净迁移率，指一定时期(通常为一年）内人口迁入迁出相抵后(迁入人口减迁出人口）与同期平均总人口之比。通常以千分比表示。	广东统计年鉴
dig_level	数字化程度	北京大学数字普惠金融指数
Postal	1984年邮政业务总量(万元)	中国城市统计年鉴
tel	移动电话年末用户数(万户）	中国城市统计年鉴
waget	经济发展水平，在岗职工人均工资总额(万元)	中国城市统计年鉴
urban	城市化水平，人口密度(人 / 平方公里)	中国城市统计年鉴
edu	城市教育水平，教育支出(万元)	中国城市统计年鉴
bed	城市医疗水平，医院卫生院床位数(张）	中国城市统计年鉴
FDI	外商投资企业工业总产值(万元）	中国城市统计年鉴

4) 郭峰、王靖一、王芳、孔涛、张勋、程志云，2020，测度中国数字普惠金融发展：指数编制与空间特征，经济学季刊，第19卷第4期，第1401-1418页

3）数据描述性统计

<表3>变量描述性统计结果

Variable	Obs	Mean	Std. dev.	Min	Max
p_im	189	8.5817	5.3099	1.7116	35.4984
p_emi	189	8.4916	5.7182	0.6483	31.9776
pNOutside	189	1.3841	3.8178	-8.5944	16.4894
dig_level	189	202.2157	75.2361	44.6300	323.5537
Postal	189	427871.4	1050965	5991	6861781
tel	187	750.2144	826.9224	102.1	4008
waget	189	5844162	9824982	413507	61100000
urban	189	741.7633	552.4186	176.8	2648.1
edu	189	917523.2	1022213	130899	7165514
bed	189	18228.78	15311.23	4919	90940
FDI	189	13200000	20800000	186361	80500000

3. 数字经济对人口迁移影响的实证分析

1）基准回归结果

<表4> 数字经济影响人口迁移的基准回归结果

	FE	FE	FE	FE	FE	FE
	迁入率	迁出率	净迁移率	迁入率	迁出率	净迁移率
VARIABLES	p_im	p_emi	pNOutside	p_im	p_emi	pNOutside
dig_level	0.0516**	-0.0528**	0.0368***	0.0276	-0.0519*	0.0263*
	(0.0228)	(0.0224)	(0.0138)	(0.0225)	(0.0271)	(0.0155)
lnwaget				5.0541***	1.9072*	1.7570**
				(1.3471)	(1.1428)	(0.7915)
urban				0.0014	-0.0026*	0.0020*
				(0.0017)	(0.0016)	(0.0011)
lnedu				-1.1753	4.7141*	2.9302*
				(2.3806)	(2.7060)	(1.6648)
lnbed				8.5117***	-2.3087	4.2981**
				(3.0828)	(3.5178)	(1.8063)
lnFDI				2.1055	2.3295	0.3639
				(1.5525)	(1.7610)	(0.5084)
Constant	5.7138***	10.4592***	-0.4425	-161.1560***	-88.5096	-34.0048
	(1.7551)	(1.6130)	(1.2717)	(50.8489)	(66.0253)	(35.3201)
year fixed effects	yes	yes	yes	yes	yes	yes
city fixed effects	yes	yes	yes	yes	yes	yes
Observations	189	189	189	189	189	189
R-squared	0.616	0.713	0.746	0.671	0.730	0.769

Robust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2）稳健性检验：工具变量方法

本文采用工具变量回归方法(IV Regression），通过利用与数字经济相关但不与流动人口居留意愿存在直接影响的工具变量，采用工具变量估计来缓解内生性问题对本文研究结论的干扰，模型设定如下：

$$\text{dig\_level}_{it} = \beta_0 + \alpha IV_{it} + \delta X_{it} + \lambda_i + \eta_t + \varepsilon_{it} \quad (4)$$

$$\text{p\_im}_{it} = \alpha_0 + \alpha_1 \widehat{\text{dig\_level}}_{it} + \delta X_{it} + \lambda_i + \eta_t + \nu_{it} \quad (5)$$

$$\text{p\_emi}_{it} = \alpha_0 + \alpha_1 \widehat{\text{dig\_level}}_{it} + \delta X_{it} + \lambda_i + \eta_t + \nu_{it} \quad (6)$$

$$\text{pNOutside}_{it} = \alpha_0 + \alpha_1 \widehat{\text{dig\_level}}_{it} + \delta X_{it} + \lambda_i + \eta_t + \nu_{it} \quad (7)$$

本文参考黄群慧等[5](2019）和赵涛等[6](2020）的研究，采用各城市1984 年历史邮电数据作为城市数字经济指数的工具变量。理论上，数字技术是传统信息技术的延续和创新，城市历史邮电建设会影响该城市的技术水平，进而影响后续该城市对数字技术的应用，因此符合相关性。另外，城市历史上的邮政业务总量与当前流动人口的迁移率无直接关系，符合排他性。本文选取历史上各个城市1984年邮政业务总量作为城市数字经济的工具变量。由于本文的研究样本为面板数据，而选择的工具变量原始数据为截面数据，因此，借鉴Nunn 和Qian(2014）的设置方法，引入上一年移动电话年末用户数万户与1984 年各个城市邮政业务总量的交乘项，作为城市当年的数字经济指数的工具变量(IV）。

<表5> 工具变量回归结果

	2SLS	2SLS	2SLS
	迁入率	迁出率	净迁移率
Stage 2.Dependent variable	p_im	p_emi	pNOutside
dig_level	0.0552***	-0.0325**	0.0529***
	(0.0164)	(0.0154)	(0.0128)
city control variables	yes	yes	yes
Stage 1.Dependent variable	dig_level	dig_level	dig_level
IV	9.69E-09***	9.69E-09***	9.69E-09***
Kleibergen-Paap rk LM statistic	27.998***	27.998***	27.998***
Cragg-Donald Wald F statistic	32.224***	32.224***	32.224***
Observations	187	187	187
R-squared	-0.389	-0.060	-0.625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弱工具变量会导致很多问题[7]。使用F-statistic来检验被排除弱工具变量十分重要。如果第一阶段

5) 群慧，余泳泽，张松林.互联网发展与制造业生产率提升：内在机制与中国经验，中国工业经济，2019(8）：5-23.
6) 赵 涛，张 智，梁上坤.数字经济、创业活跃度与高质量发展———来自中国城市的经验证据，管理世界，2020，36(10）：65-76.
7) Stock, James H., and Motohiro Yogo. 2005. “Testing for Weak Instruments in Linear IV Regression.” *In Identification and Inference for Econometric Models*, eds. Donald W. K. Andrews and James H. Stock. Cambridge University Press, 80–108.

的F-统计量小于10，说明存在弱工具变量[8]。检验后发现，从表中来看，Kleibergen-Paap RK的LM可测估计值为27.998，远大于10，说明不存在弱工具变量问题。工具变量(IV）的回归系数显著为正，说明工具变量(IV）与数字经济指数(dig_level）显著正相关。在缓解了内生性问题后，数字经济提高了迁入率和净迁移率，降低了迁出率的研究结论依然显著。

3）稳健性检验：交乘项

引入经济与平均工资的交乘项构建回归模型：

$$p\_im_{it} = \beta_0 + \beta_1 dig\_level_{it} + \beta_2 lnwaget_{it} + \gamma_1 dig\_level_{it} * lnwaget_{it} + \delta X_{it} + \lambda_i + \eta_t + \varepsilon_{it} \quad (8)$$

$$p\_emi_{it} = \beta_0 + \beta_1 dig\_level_{it} + \beta_2 lnwaget_{it} + \gamma_2 dig\_level_{it} * lnwaget_{it} + \delta X_{it} + \lambda_i + \eta_t + \varepsilon_{it} \quad (9)$$

$$pNOutside = \beta_0 + \beta_1 dig\_level_{it} + \beta_2 lnwaget_{it} + \gamma_2 dig\_level_{it} * lnwaget_{it} + \delta X_{it} + \lambda_i + \eta_t + \varepsilon_{it} \quad (10)$$

<表6> 其他稳健性检验

VARIABLES	迁入率 p_im	迁出率 p_emi	净迁移率 pNOutside
dig_level	-0.2004**	0.0916	-0.0711*
	(0.0950)	(0.0837)	(0.0365)
lnwaget	1.9368	3.8681**	0.4261
	(1.8805)	(1.3935)	(0.7467)
c.dig_level#c.lnwaget	0.0136**	-0.0086*	0.0058**
	(0.0062)	(0.0048)	(0.0025)
Constant	-103.6636	-124.6741	-9.4590
	(71.1228)	(78.3639)	(38.6631)
city control variables	yes	yes	yes
year fixed effects	yes	yes	yes
city fixed effects	yes	yes	yes
Observations	189	189	189
R-squared	0.698	0.739	0.778

Robust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在公式(8）中数字经济对迁入率的偏效应(partial effect）为d p_im /d dig_level =β1+γ1lnwaget。如果γ1>0，那么模型(8）意味着数字经济的发展有助于城市迁入率的提高。如表中可以知道模型(8）和(10）中交互项的系数显著为正，模型(9）中交互项的系数显著为负，可以得出数字经济的发展可以促进城市迁入率的提高，而对迁出率的影响是负向的。

8) Kleibergen, Frank, and Richard Paap. 2006. "Generalized Reduced Rank Tests Using the Singular Value Decomposition." *Journal of Econometrics* 133(1): 97–126.

4. 结论

本文使用2011年—2019年中国城市统计年鉴与新北京大学数字金融研究中心的城市数字经济水平，研究了广东省城市层面的数字经济水平对人口迁移的的影响。首先，基准回归部分采用固定效应模型并控制了年度-城市固定效应和其他城市变量后发现，城市数字经济水平的提高有利于迁入率和净迁移率的提高，而对迁出率有着显著的负向影响。其次，为了保持研究结论的稳健性，本文在采用工具变量模型后，研究结论依然保持稳健。再次，进一步引入数字经济和平均工资的交乘项之后数字化程度与迁入率和净迁移率显著正相关，相比之下，数字化水平与迁出率显著负相关。

本文的研究启示。提高城市数字经济水平，提升广东省城市吸引力对粤港澳大湾区高质量发展具有重要意义。本文实证分析表明，城市数字经济水平的提高有助于增加城市的吸引力。因此，在数字经济时代，政府应当重点关注城市的数字化建设与发展，进一步释放数字城市的吸引力。

5. 研究不足与展望

由于数据限制，本文仅使用了一种数字经济水平衡量方式，未来可以基于其他数据来源，构建更全面的城市数字经济指标研究城市数字经济对人口迁移的影响。其次，本文研究使用了城市层面的数据，未考虑个人特征，今后可以入个人数据完善论文内容。最后，人口流动的影响因素较为复杂，其他因素对城市人口流动的影响也有待研究。

메 모

【차세대학자분과II】 발표 ②

中国对外援助政策中的国家身份
——基于援外白皮书的分析

吴岳*

【目 录】

1. 引言
2. 文献综述
3. 研究设计
4. 结果
5. 讨论
6. 结论与展望

1. 引言

对外援助是外交政策的重要组成部分。中华人民共和国（以下称，中国）自1949年建国以来，便开始对其他国家提供援助，至今已有七十多年的援外历史与经验。二十一世纪以降，中国逐渐扩大了其对外援助的规模。根据2021年中国国务院最新发布的援外白皮书，*新时代的中国国际发展合作*，自2013至2018年，中国总共向122个国家和20个多边组织提供了价值2702亿元人民币的援助。[1]其中，非洲和亚洲的发展中国家是中国援助的主要对象。相比之下，根据白皮书，*中国的对外援助（2011）*，截至2009年底，中国累计提供援助的金额为2562．9亿元人民币。[2]换言之，中国在2013年至2018年这六年间的援助支出就已经高于自建国之日起到2009年期间的全部援助支出。鉴于此，中国已然跃升成为世界主要的援助国（donor country）之一。

作为外交的一种政策工具，对外援助或受到主导的外交范式的影响，并为国家整体的外交战略服务。自中国国家主席习近平执政以来，中国的外交战略出现了范式转型，即从先前邓小平所提出的“韬光养晦”转变成为“大国外交”。[3]“大国外交”与“韬光养晦”的区别之一在于对中国国家身份的认知的转变。Wu认为在“大国外交”下，习近平主席将当代中国的国家身份定义成“大国”，而胡锦涛主席则承接“韬光养晦”，将中国定位成“发展中国家”。[4]Wu进一步认为，这种国家身份认知上的变化导致中国对

* 国立釜山大学 国际专门大学院 博士研究生（wuyue@pusan.ac.kr）。

1) “新时代的中国国际发展合作』白皮书（全文）”，『中国国务院』，2021.01.10， http://www.scio.gov.cn/zfbps/32832/Document/1696685/1696685.htm [2022.09.30.]

2) “『中国的对外援助』”，『中国国务院』，2011.04.21，http://www.scio.gov.cn/zfbps/ndhf/2011/Document/896983/896983.htm [2022.09.30.]

3) Wang, J.W., 2019, Xi Jinping’s ‘Major Country Diplomacy:’ A Paradigm Shift?,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28(115), pp.15-30.

4) Wu, Y., 2022, China’s Foreign Aid Transformation: A Neoclassical Realist Perspective, The Korea Journal

国家利益界定的变化，即“发展中国家”将经济与发展利益视为外交的首要，而“大国”则要求中国构建有助于实现中华民族复兴的有利外部环境。[5]

然而，既有文献却很少考察中国对外援助政策是否能够贯彻当下的“大国外交”范式。尤其是“大国外交”所定义的“大国”身份是否延伸到且主导了中国对外援助政策？因此，本文将重点回答下列三个研究问题。（1）中国对外援助政策所体现的国家身份与相对应的国家利益展现出了怎样的特点？（2）中国对外援助政策中所体现的国家身份与“大国外交”所定义的国家身份是否一致？（3）为什么会出现这些特点以及身份不一致的情况？为了回答上述问题，本文将基于中国三份对外援助白皮书，即*中国的对外援助（2011）*，*中国的对外援助（2014）*及*新时代的中国国际发展合作*，进行文本分析。

本文的结构如下。第二章是文献综述。建构主义国际关系理论为本文聚焦国家身份提供理论支撑。基于此，本章将回顾“大国外交”背景下的中国国家身份，以及中国对外援助与中国国家身份的关系。本章还会指出既有文献的不足。第三章介绍本文的研究设计，包括数据与研究方法。第四章展示文本分析的结果。第五章对结果进行讨论与解释。第六章总结并对未来的中国对外援助政策做出展望。

2. 文献综述

建构主义国际关系理论为本文考察中国的国家身份与相对应的国家利益提供了理论基础。现实主义与新自由制度主义国际关系理论假设国家的利益是外生的且是物质的。相比之下，建构主义理论则反驳这样的假设，提出国际关系是社会建构的。该理论认为国家利益并不是由物质所决定的。物质资源只有通过它们所嵌入的共享知识结构才能获得人类行动的意义。[6]因此，国家利益并非是外生的，而是社会建构的。正如Finnemore所描述的，利益不是在那等待被发现，而是通过社会互动建构而成的。[7]那么，什么内生变量决定了国家利益呢？建构主义理论认为国家身份是国家利益的自变量。国家身份是建构主义理论的核心概念之一。Wendt把身份定义成一种根植于行为体自我认知（self-understanding），并使行为体产生动机与行动倾向的特性。[8]该理论认为身份是社会互动建构产生的，它决定了国家如何理解与定义国家利益。因此，国家的外交政策可以被认为是国家身份的展现。[9]简言之，建构主义理论强调国家自我认知的身份决定国家对利益的界定，进而影响实现利益的外交政策。正因如此，考察中国的国家身份对理解中国的国家利益以及其对外政策十分必要。

“大国”身份是当代中国“大国外交”背景下对中国国家身份的界定。中国对自身“大国“身份的认知体现在以下两个层面。第一，中国的国家领导明确将中国定义成“大国”。例如，国家主席习近平在在中国共产党第十九次全国代表大会的报告中明确指出要“全面推进中国特色大国外交”且“发挥负责任大国作用”。[10]习近平主席还认为中国正“前所未有地靠近世界舞台中心，前所未有地接近实现中华民族

of Chinese Social Science 4(1), pp.107-149.

5) Wu, Y., 2022, 前揭, p.127-128.

6) Wendt, A., 1995, Constructing International Politics. International Security 20(1), p.73.

7) Finnemore, M., 1996, National Interests in International Society, Cornell University Press, p.2.

8) Wendt, A., 1999. Social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p.224.

9) Jepperson, R. L., Wendt, A., and Katzenstein, P. J., 1996, Norms, identity, and culture in national security. In P. J. Katzenstein (Ed.), The Culture of National Security: Norms and Identity in World Politics (pp.33－75), Columbia University Press.

10)“习近平：决胜全面建成小康社会　夺取新时代中国特色社会主义伟大胜利——在中国共产党第十九次全国代表大会上的报告”，『中国中央人民政府』，2017.10.27，http://www.gov.cn/zhuanti/2017-10/27/content_5234876.htm [2022.09.30.]

伟大复兴的目标，前所未有地具有实现这个目标的能力和信心”。[11]由此可见，习近平主席不仅认为中国已然成为一个“大国”，并且具备了一个“大国”的实力以实现国家的目标。因此，“大国外交”是中国基于“大国”身份下的外交范式。

第二，中国的“大国”身份还体现在与其他大国的共同身份与利益。2012年，习近平主席访问美国时首次提出与美国构建“新型大国关系”。此后，“新型大国关系”作为“大国外交”的一部分，还被中国官方用来描述中俄关系。中国将中美与中俄关系界定成大国与大国之间的关系无疑表明中国将自己定义为“大国”。不仅如此，中国开始认为自己与其他大国存在诸多利益交集。例如，中国外交部部长王毅在2022年9月在亚洲协会纽约总部发表演讲时指出中美两国不仅在经贸、能源、科技、教育、人文等双边领域，还在疫情、经济复苏、气候变化、反恐、防核扩散等全球性议题上有共同利益。[12]从建构主义的逻辑来看，承认与其他大国的存在共同利益，间接表明中国承认其作为“大国”的身份。

虽然对外援助作为中国外交的重要政策工具之一，但考察对外援助与中国国家身份的文献却较少。Zhang认为中国对外援助政策随着中国的国家身份的变化而变化。即，中国自建国以来，国家身份从社会主义国家演变为发展中国家，再转变成当下的崛起大国。相应地，中国的对外援助政策也从以意识形态为导向，转变以服务于经济利益与自身发展为重点，再转型为以构建负责任大国形象为目标。[13]此外，Wu认为由于习近平主席将中国定义成“大国”，这使得中国对外援助政策相较于胡锦涛主席执政时期发生了转型，包括突出中国所应当承担的国际责任以及对外援助的利他性。[14]然而，上述文献存在两个问题。其一，它们都采取一种线性的视角来看待中国国家身份的演变以及对外援助政策相应的变化，而忽视了当代中国或存在双重国家身份的可能。例如，Yan就认为当代中国虽然已经具备了“大国”物质实力，但却仍把自己定义成“发展中国家”。[15]与此同时，Wu和Zhang则认为当代中国同时将自己定义成“大国”以及“发展中国家”，这导致中国在参与三方国际发展合作（trilateral development cooperation）时表现出了矛盾的立场。[16]其二，它们的分析基于一个前提假设，即中国国家身份可以顺利延伸到中国对外援助政策，并对外援政策产生影响。换句话说，既有文献预设中国对外援助政策能够完全接纳并反应“大国外交”所定义的“大国”身份。但这种假设可能忽略了对外援助政策的复杂性。

综上，目前从国家身份的角度分析中国的对外援助政策的文献较少。此外，既有文献不仅忽视了中国的“大国”和“发展中国国家”双重国家身份的可能，而且可能错误地假设中国的“大国”身份可以顺利延伸至外援政策。因此，通过回答本文所提出的研究问题，本文或将弥补既有文献的不足。

3. 研究设计

中国政府分别在2011年、2014年以及2021年公布了对外援助白皮书，即*中国的对外援助（2011*

11)“‘三个前所未有’：当代中国历史方位的科学论断”，『中国国务院』，2015.11.09.，http://www.scio.gov.cn/zhzc/10/Document/1454451/1454451.htm [2022.09.30.]

12)“王毅：合作共赢是中美应当继续争取的共同目标”，『中国外交部』，2022.09.23.，https://www.fmprc.gov.cn/web/wjdt_674879/wjbxw_674885/202209/t20220923_10770713.shtml [2022.09.30.]

13)Zhang, D. H., 2020, A Cautious New Approach: China’s Growing Trilateral Aid Cooperation, ANU Press.

14)Wu, Y., 2022, China’s Foreign Aid Transformation: A Neoclassical Realist Perspective, The Korea Journal of Chinese Social Science 4(1), pp.107-149.

15)Yan, X.T., 2021, Becoming Strong: The New Chinese Foreign Policy, Foreign Affairs 100(4).

16)Wu, Y., and Zhang, M. H., 2021, China’s Trilateral Development Cooperation: Contradictions and Dual Identities. Journal of Global and Area Studies 5(2), pp.123–149.

）[17]，*中国的对外援助（2014）*[18]*及新时代的中国国际发展合作*[19]。白皮书是中国政府为了阐述重要政策或者报告所发布的官方文件。通过援外白皮书，中国政府主要阐明中国对外援助的政策以及成果。因此，对外援助白皮书对于了解中国的援外政策有着重要的学术价值。本文将基于这三份援外白皮书，通过对白皮书中有关外援政策阐述的文本编码，从而进行文本分析。为此，本文使用Atlas.ti 9作为文本编码与分析的软件。

本文所采用的文本编码方式如下。为了考察当代中国“大国”以及“发展中国家”的双重身份，本文将编码分为两大类：大国编码以及发展中国家编码。每一类编码项下包括了关于国家身份的编码以及国家利益的编码（见<表1>和<表2>）。就大国编码而言，在身份编码组*1大国*中分别有四个子编码。*1.1大国定位*将用来编码白皮书中指出中国是一个大国或者中国与其他大国有着共同利益与责任的文本。*1.2民族复兴*用来编码白皮书中涉及中华民族复兴的中国梦的文本。古代中国是东亚地区的大国，并且以自己为中心形成了朝贡体系。民族复兴表明中国期待恢复昔日的大国荣光。*1.3发展成就*用来编码对中国自建国以来取得的发展成就，尤其是物质发展成就，因为这构成“大国”身份的物质支撑。*1.4全球治理*则用来标注涉及中国参与全球治理的文本。Wang总结中国的“大国外交”意味着中国将承担更多的国际责任、提出更多的倡议，并提供更多的公共产品。[20]

其次，在大国利益编码组*3利他*中有三个子编码。*3.1共同利益*用于标注中国出于国际共同利益的政策内容。*3.2公共产品*用来编码中国提供更多公共产品的政策内容，而*3.3国际责任*则用来编码中国承担更多国际责任的内容。由此可见，本文认为大国的利益着眼于全球与全球性议题，而不仅仅局限于自身的利益与发展。大国需要承担国际责任与提供国际公共产品以保持国际机制的运营与稳定，这与霸权稳定论的观点一致。从这一点看，大国的利益存在利他性。

发展中国家的编码则与大国编码相对应。发展中国家的身份编码组*2发展中国家*中同样也有四个子编码。*2.1发展中国家定位*用来编码白皮书中指出中国是一个发展中国家或者中国与发展中国家有着共同利益的文本。*2.2百年国耻*与民族复兴相对。在1840年鸦片战争后，中国遭受了被殖民的经历，并逐渐失去了大国的地位与荣光。这让中国与众多发展中国家有着共同的历史记忆与身份认同。*2.3发展问题*则用来标注当代中国所正在面临的发展难题或者困境。发展问题意味着中国作为发展中国家仍面临着严峻的发展挑战。*2.4反对霸权*则编码中国反对霸权的文本。虽然霸权会为稳定国际机制付出成本并体现利他性，但霸权本身也通过国际机制巩固自己的霸权地位。反对霸权则意味着发展中国需要改革现有的国际机制以获得更多的发展机会。

同样地，在发展中国家的利益编码组*4自利*中也有三个与大国利益对应的子编码。*4.1自身利益*用于标注中国仅出于自身利益并非出于国际的共同利益的政策内容。*4.2自我发展*用来编码中国仅为了自身发展的政策内容。*4.3互惠互利*用来编码中国认为国家间的交往是基于互惠互利的双赢的内容。例如，就对外援助而言，互惠互利意味着中国提供的援助不能仅是单方面的赠与，而应该是中国可以从提供援助中获利，体现出南南合作的双赢性质。本文认为，相比于大国，发展中国家的首要利益是发展，这要求发展中国家的外交政策为自身利益与发展服务，而并非承担与自己实力地位不符合的国际责任与国际公共产品。

17)“『中国的对外援助』”，『中国国务院』，2011.04.21，http://www.scio.gov.cn/zfbps/ndhf/2011/Document/896983/896983.htm [2022.09.30.]
18)“『中国的对外援助（2014）』”，『中国国务院』，2014.07.10，http://www.scio.gov.cn/zfbps/ndhf/2014/Document/1375013/1375013_1.htm, [2022.09.30.]
19)“新时代的中国国际发展合作』白皮书（全文）”，『中国国务院』，2021.01.10， http://www.scio.gov.cn/zfbps/32832/Document/1696685/1696685.htm [2022.09.30.]
20)Wang, J.W., 2019, 前揭, p.27.

<表1> 中国国家身份的文本编码

大国编码	发展中国家编码
1 大国	2 发展中国家
1.1 大国定位	2.1 发展中国家定位
1.2 民族复兴	2.2 百年国耻
1.3 发展成就	2.3 发展问题
1.4 全球治理	2.4 反对霸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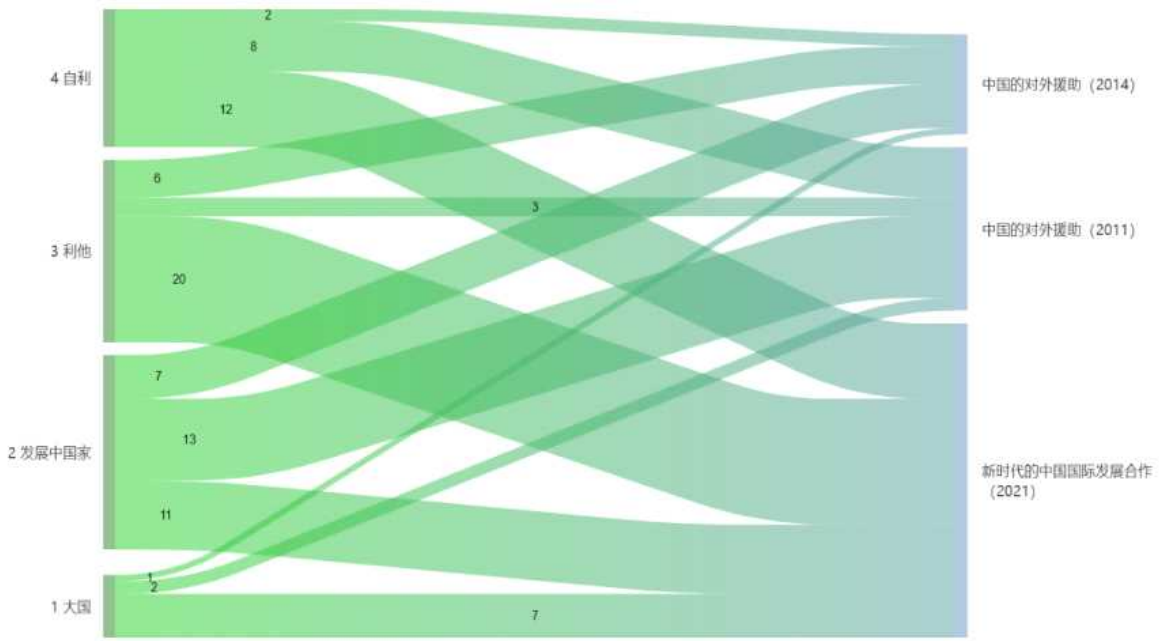
<表2> 中国国家利益的文本编码

大国编码	发展中国家编码
3 利他	4 自利
3.1 共同利益	4.1 自身利益
3.2 公共产品	4.2 自我发展
3.3 国际责任	4.3 互惠互利

4. 结果

在对三份白皮书中关于中国对外援助的政策内容进行文本编码后，共产生92个编码引用，被编码的段落详见附录。<图1>展示了4个编码组在三份白皮书中被引用的情况，而<表3>展示了各子编码被引用的频数。从<图1>和<表3>中可以发现，发展中国家编码被引用53次（占比57.6%），明显高于大国编码被引用的39次（占比42.4%）。

<图1> 编码组被引用情况



*来源：根据Atlas.ti统计生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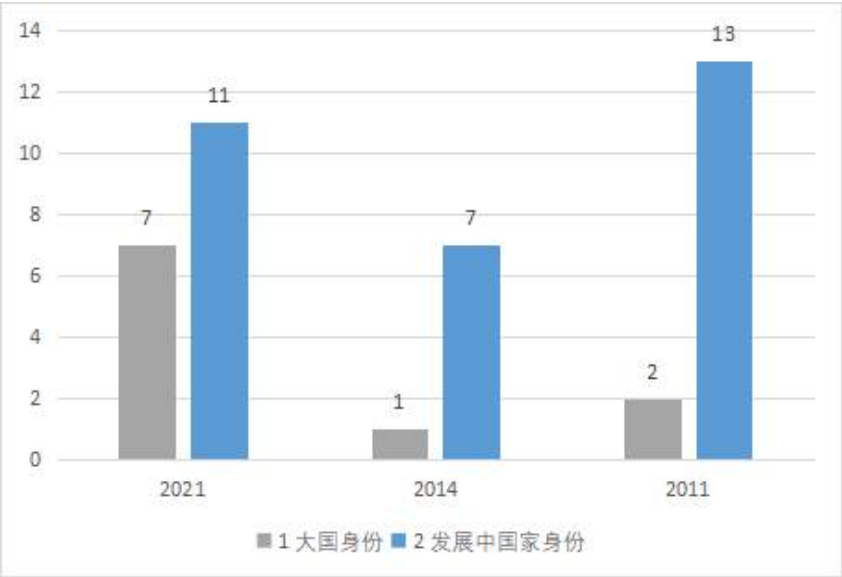
<표3> 子编码被引用情况

子编码	新时代的中国国际发展合作	中国的对外援助(2014)	中国的对外援助(2011)
1.1 大国定位	4	0	0
1.2 民族复兴	0	1	0
1.3 发展成就	1	0	2
1.4 全球治理	2	0	0
2.1 发展中国家定位	6	5	7
2.2 百年耻辱	0	0	0
2.3 发展问题	0	0	2
2.4 反对霸权	5	2	4
3.1 共同利益	13	6	2
3.2 公共产品	4	0	0
3.3 国际责任	3	0	1
4.1 自身利益	0	0	2
4.2 自我发展	8	0	0
4.3 互利互惠	4	2	6
总计	50	16	26

*来源：根据Atlas.ti统计整理而成

就白皮书中所被编码的国家身份而言，*1大国*编码组项下的子编码共被引用10次，而*2发展中国家*编码组项下的子编码共被引用31次，是前者被引用频次的三倍。不仅如此，如<图2>中所示，每份白皮书中，发展中国家身份被引用的次数都明显高于大国身份。大国身份被引用的次数直到2021年白皮书中才有明显的提升，但仍然低于发展中国家身份。

<图2>国家身份编码被引用的情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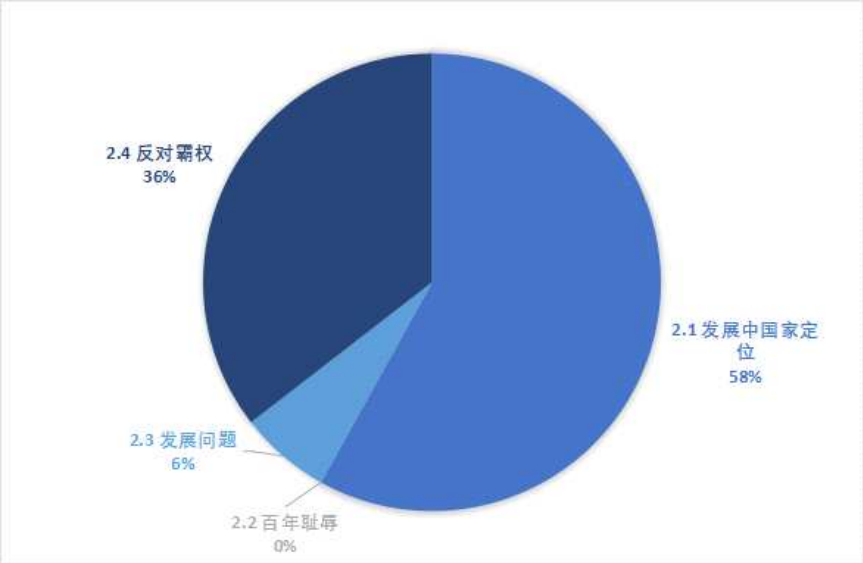


*来源：根据Atlas.ti统计整理而成

此外，根据<表3>，在*2发展中国家*项下，*2. 1发展中国家定位*被引用的次数最高（18次），其次是*2. 4反对霸权*（11次）。*2. 3发展问题*在2014和2021白皮书中没有被提及，而*2. 2百年国耻*则在三份白皮书中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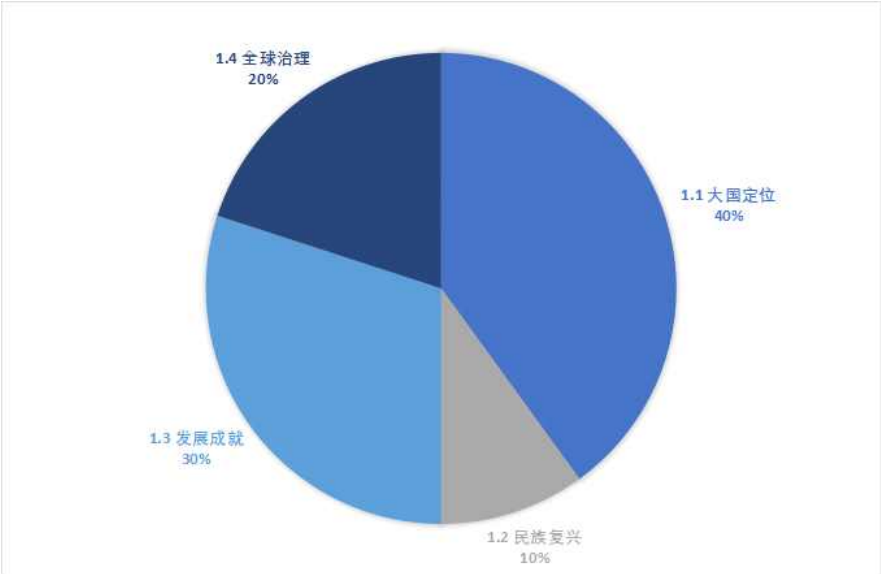
未被提及。这表明*2. 1发展中国家定位*和*2. 4反对霸权*这两个子编码是中国对外援助政策中发展中国家身份最主要的来源。相比之下，在*1大国*项下，*1. 1大国身份定位*与*1. 4全球治理*分别被引用4次和3次，且均来自于2021白皮书。这说明这两个子编码是中国外援政策中大国身份的主要来源，且在2021白皮书中首次被提及。<图3>和<图4>分别展示了*1大国*和*2发展中国家*编码组项下各个子编码被引用的占比情况。

<图3> 发展中国家身份子编码被引用占比情况



*来源：根据Atlas.ti统计整理而成

<图4> 大国身份子编码被引用占比情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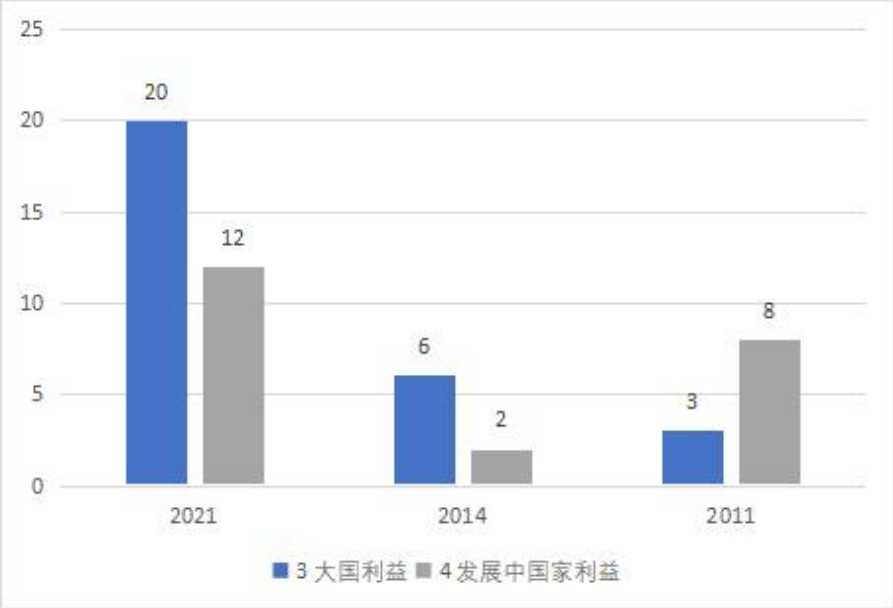


*来源：根据Atlas.ti统计整理而成

就白皮书中所被编码的国家利益而言，*3利他*项下的子编码共被引用29次，*4自利*项下的子编码共被引用22次。换言之，大国所代表的利益多于发展中国家所代表的利益。不仅如此，根据<图5>，从2014年的白皮书开始，大国利益被引用的次数开始高于发展中国家利益被引用的次数，且在2021年大幅度提升。此外，根据<表3>，大国利益的子编码中，*3. 1共同利益*被引用的次数最高（21次），且在三份白皮书中呈现上升趋势。*3. 2公共产品*在2021年首次被提及（4次）、*3. 3国际责任*在2021年提升至3次。相比之下，在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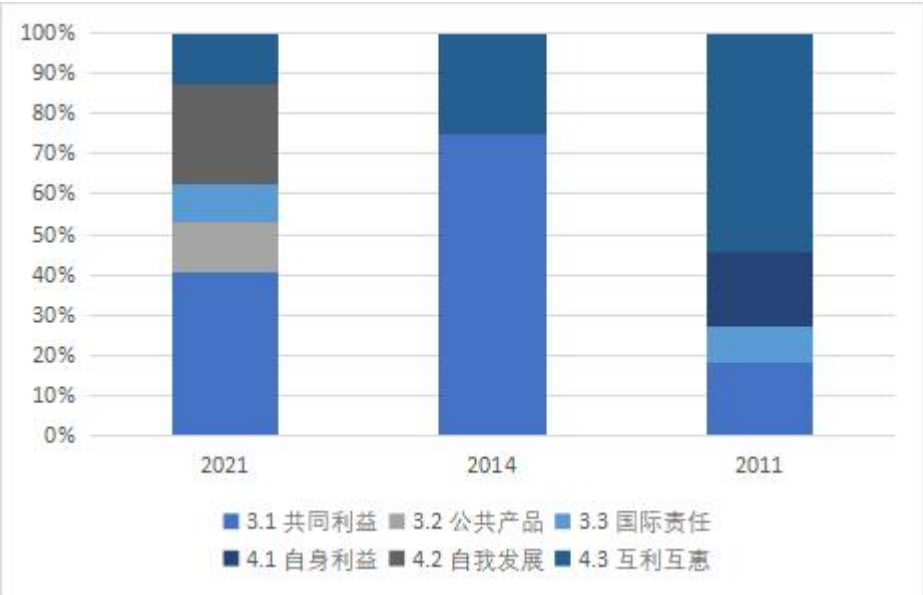
展中国家利益中，*4.3互利互惠*在三份白皮书中均被提及，且次数最多（12次），*4.2自我发展*次之（8次），而*4.1自身利益*在2011白皮书之后不再被引用。<图6>展示了关于国家利益的所有子编码在三份白皮书中被引用的占比情况。

<图5>国家利益编码被引用的情况



*来源：根据Atlas.ti统计整理而成

<图6> 国家利益子编码在三份白皮书中被引用的占比情况



*来源：根据Atlas.ti统计整理而成

综上，本文发现，在中国对外援助白皮书中，外援政策所体现的国家身份与相对应的国家利益呈现出以下两个主要特点。（1）援外政策展现出中国的“发展中国家”和“大国”的双重身份。而且，尽管“大国”身份呈现上升趋势，但“发展中国家”身份占主导。换言之，在“大国外交”的背景下，“大国”身份并未完全延伸至中国援外政策。（2）中国对外援助政策中出现了国家身份与国家利益错位的情

况。即，在身份上，发展中国家身份占主导，但在利益上，大国利益却多于发展中国家利益，且呈现上升趋势。在下一章，本文将分析出现上述特点的原因。

5. 讨论

本文认为“发展中国家”身份在援外政策占据主导地位的原因有以下四点。其一，中国利用“发展中国家”身份区分自己与传统发达援助国，而后者中的很多国家曾经是殖民国家。因此，“发展中国家”身份帮助中国在与其他发展中国家接触并提供援助时占据道德优势，以方便利用对外援助资金换取它们在国际政治与经济上的支持，包括对“一中政策”的支持、在联合国体系的支持、稳定的能源与资源供给、以及减少对西方的经济依赖。这些来自发展中国家的支持有助于中国保障自己的经济与能源安全并且推广自己的政治主张和议程。正因如此，根据<表4>对被编码文本内容的概括，共建一带一路的政策内容是*4.2自身发展*的主要引用来源。

其二，“发展中国家”身份可以让中国对外援助政策保持灵活性，避免因过多的援助给自身经济造与财政成负担。在改革开放以前，中国对外援助政策以无产阶级国际主义思想为指导，视对社会主义国家和争取独立的民族的援助为自己的国际主义责任。然而，这种以意识形态为指导的援助忽视了中国经济与财政的实际承受能力，给中国自身经济发展与国家建设造成负担。[21]改革开放以后，中国扭转了国际主义思想指导对外援助政策的情况，认为中国作为发展中国家没有足够的能力承担过多的援助责任，提出在力所能及的范围内提供援助的政策主张。因此，从<表4>中可以发现，“力所能及的援助”同样也反应出中国的“发展中国家”身份的定位。

其三，“发展中国家”身份可以合理化中国不同于西方的援助理念与实践，即互惠共赢的南南合作。综合<表4>和附录，本文发现“南南合作”是中国外援政策中“发展中国家”身份的主要来源。换言之，中国始终坚持自己提供的对外援助是在南南合作的框架下开展的，与发达国家和发展中国家之间的“南北”发展合作有着性质上的不同。中国并不完全认同西方根据“华盛顿共识”定义的发展理念和“良治”（good governance）标准。中国认为发达援助国在其援助中附加的基于“华盛顿共识”的结构改革以及良治的政治改革要求是对发展中国家内政的干涉。因此，从<表4>对*2.4反对霸权*的概括可以发现，中国对外援助政策坚持不附加政治条件、不干涉内政的援助，并且尊重各国选择自己的发展道路。另一方面，发展中国家之间的南南合作也可以提升中国对外援助实践的合理性。不同于传统援助国，中国对外援助在资金构成上优惠贷款占据较高的比例，并且在形式上强调大型经济基础设施以及公共设施的建设。这些援助项目不仅可以帮助中国承包商获取海外经营的经验、分享项目的经济成果，还可以刺激中国企业出口项目所需要的材料、产品以及服务。这解释了为什么*4.3互利互惠*是在发展中国家利益中被引用次数最多的子编码。即如<表4>所示，中国不认为对外援助仅仅是对发展中国家的单方面“捐助”，而是互利共赢的“经济合作”。

其四，“发展中国家”身份为中国对外援助政策提高在国内的合理性与支持度。中国民众对中国对外援助的支持度不高。联合国开发计划署在2017年发布的一份报告中显示，只有18.6%的中国人支持政府增加对对外援助的支出[22]。熊青龙和黄梅波在2022年的研究也印证了这一结论。他们发现仅20.94%的中国

21)任晓·刘慧华，『中国对外援助：理论与实践』，格致出版社，2017，pp.127-131.

22)“向国内传播发展合作”，『联合国开发计划署』，2018.01.28，https://www.undp.org/zh/china/publications/%E5%90%91%E5%9B%BD%E5%86%85%E5%85%AC%E4%BC%97%E4%BC%A0%E6%92%AD%E5%8F%91%E5%B1%95%E5%90%88%E4%BD%9C, [2022.10.02.]

民众不认同“中国每年对外援助太多”的观点，而持反对意见的民众占28.11%。相比于帮助其他国家，中国民众更倾向政府应该先处理中国自己的问题。[23] 皮尤研究中心一份2016年的民调显示，仅22%的中国民众认为中国应该帮助其他国家，而57%的人则认为应该先处理自己的问题。[24] 这些民调结果表明，中国民众更倾向自己的政府关注国内议题，而并非援助其他国家。因此，中国政府试图使用“发展中国家”的身份说服自己的民众，即，鉴于中国仍然是发展中国家，所以中国会在能力允许的情况下提供援助，并不会因为对外援助而挤压了用于国内发展的经济资源。例如，时任国家国际发展合作署署长王晓涛在2019年全国政协十三届二次会议开幕会后接受采访时表示，中国仍然是发展中国家，因此会秉持量力而行、尽力而为的原则，“精打细算，确保花好每一分钱”。[25]

<表4> 被编码文本的主要内容概括

编码	内容	编码	内容
1.1 大国定位	大国责任；大国担当	2.1 发展中国家定位	南南合作；最大的发展中国家；力所能及的援助
1.2 民族复兴	中国梦	2.2 百年国耻	无
1.3 发展成就	经济增长；综合国力上升	2.3 发展问题	贫困；经济发展不平衡
1.4 全球治理	为全球治理贡献中国力量；优化全球治理体系	2.4 反对霸权	公正平等的国际关系；不附加政治条件的援助；不干涉内政；尊重各国的道路选择
3.1 共同利益	全球性发展难题与挑战；人类共同发展与繁荣；联合国2030可持续发展议程	4.1 自身利益	恢复联合国席位；对外援助的经济效益
3.2 公共产品	提供更多国际公共产品；一带一路	4.2 自身发展	建设一带一路
3.3 国际责任	承担国际责任	4.3 互利互惠	互利共赢的对外援助与经济合作

*来源：作者根据被引用的文本整理

另一方面，本文认为，“大国利益”在中国援外白皮书占据多数且成上升趋势的原因有以下两点。第一，对外援助是推广中国作为崛起大国的发展理念与模式的重要政策手段。Yan认为如果崛起大国在物质能力能够追赶甚至超过守成大国，它就有机会塑造一种新的有利于自己的国际规范。[26] 换句话说，大国，尤其是崛起大国，在物质实力提升之外，还需要提出新的国际规范。鉴于中国已然成为综合国力世界第二的国家，因此除了进一步扩大自身的物质实力，中国还需要传播新的国际规范，以吸引更多的追随者。具体而言，中国认为实现发展并不只有“华盛顿共识”与“良治”所规定的道路与标准，而中国的发展道路可以成为西方发展模式的替代选项。例如，习近平主席在中国共产党第十九次全国代表大会上指出，中国的道路给其他发展中国家提供“全新选择”，贡献了中国智慧与方案。[27] 正如上文所述，中国

23) 熊青龙・黄梅波，〈中国对外援助评价研究：基于一项调查问卷〉，『国际经济合作』,第417輯，2022.09，p.67.
24) “Chinese Public Sees More Powerful Role in World, Names U.S. as Top Threat”，Pew Research Center, 2016.10..05, https://www.pewresearch.org/global/2016/10/05/2-china-and-the-world/ [2022.10.03.]
25) “国家国际发展合作署署长：对外援助会精打细算花钱”，『东方卫视』，2019.03.06.，https://www.youtube.com/watch?v=143aURw-x00 [2022.10.03.]
26) Yan X.T., Leadership and the Rise of Great Powers,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9, p.78.

对外援助的理念与发达援助国不一致，其中传达了中国的发展观以及发展模式。从这一点来看，对外援助对于中国塑造新的国际规范有重要政策意义：它不仅是展示中国发展成就的窗口，也是传播中国发展模式的手段。

因此，一方面，中国需要缩小“自利”占援助政策的篇幅，以减少国际社会对其援助的质疑并提升吸引力。所以，不仅*4自利*项下的子编码被引用的次数小于*3利他*项下的子编码被引用次数，而且即使在4*自利*编码组内部，*4.1自我利益*与*4.2自身发展*的被引用次数都低于*4.3互利互惠*被引用的次数。另一方面，中国需要展现出对自身发展模式的自信。所以，*2.2百年国耻*并未在三份白皮书中被引用，而*2.3发展问题*也在2011年白皮书后不再被引用。相反，在2021年白皮书中，中国经济与国力增长的是*1.3发展成就*被引用的主要内容，且贡献中国力量与优化全球治理体系成为*1.4全球治理*被引用的主要内容。

第二，新规范的推广或对现行规范的修改需要做相对应的制度建设或者改革，并获得国际社会的认可。这无疑要求中国要担任建设与维护新国际制度的领导国。因此，中国对外援助政策中“大国利益”势必更为突出。一方面，这要求中国的制度建设或改革的受益面要广，以吸引更多的支持者。所以，着眼于全球议题与人类发展的内容被*3.1共同利益*大量引用。另一方面，这还要求中国明确自己的责任。因此，中国在2021年白皮书中表示要为国际社会提供更多的公共产品以承担自己的国际责任。中国商务部国际贸易经济合作研究院的研究则进一步阐述了中国落实国际责任的重点领域，表明中国对外援助的重点将集中于全球的基础设施建设、促进贸易、医疗卫生、农业与减贫、环境、人道主义援助以及教育。[28)]

6. 结论与展望

通过对中国三份援外白皮书的编码与文本分析，本文发现中国对外援助政策中更多地体现了中国“发展中国家”身份，而并非“大国外交”所定义的“大国”。即“大国外交”的国家身份并没能完全延伸至对外援助政策。然而，外援政策却更多地展现出“大国利益”。这导致中国对外援助政策中出现了国家身份与国家利益不一致的错位情况。即“发展中国家”主导身份，而“大国利益”则更多且呈上升态势。本文认为“发展中国家”身份有助于合理化中国的援助理念与实践、提升其在国际与国内社会的合法性和支持度、以及维持政策灵活性。这些优势是“大国”身份所无法给予的。但在利益层面，中国作为崛起大国，除了扩展物质实力之外，还需要传播新的国际规范并建立与维护相应的制度安排。通过着眼于全球性议题，对外援助是实现这种大国利益的有效手段。它不仅可以有助于传播中国的发展理念，还能提升中国发展模式吸引力。

然而，即使身份与利益的错位有其合理性，但仍然会给中国对外援助政策造成挑战。其一，这导致在外援政策阐述时出现模糊的界定与表述。例如，“力所能及”的援助、“最大的发展中国家”、以及外援既要“以义为先”又要“互利共赢”。这些出现在对外援助白皮书中的概念要么缺少明确的定义以及衡量标准，要么彼此矛盾。其二，“发展中国家”身份占主导的对外援助政策可能会与“大国外交”背景下其他的外交政策产生身份冲突。其三，对外援助中的大国利益与发展中国家利益可能会产生冲突。例如，<表四>中，*3.2公共产品*与*4.2自身发展*都涉及一带一路的内容，因此，一带一路既是中国为自身发展而提

27)“习近平：决胜全面建成小康社会 夺取新时代中国特色社会主义伟大胜利——在中国共产党第十九次全国代表大会上2的报告”，『中国中央人民政府』，2017.10.27，http://www.gov.cn/zhuanti/2017-10/27/content_5234876.htm [2022.09.30.]

28)王泺 等，『国际发展援助的中国方案』，五洲传播出版社，2019.

出的倡议，又是中国所提供的国际公共产品。但中国并没有说明如何兼顾这两种不同的利益，以及当两种利益出现冲突时如何取舍。

因此，中国对外援助政策中身份与利益的错位因其合理性或将持续。但随着中国综合国力以及国际地位的提升，这种错位将给中国外援政策与外交造成挑战。为此，中国有必要在外交战略规划中统一对身份与利益的定义与论述。

附录：编码引用报告

● 1.1 大国定位

4 引用:

1:6 ¶ 58 in 新时代的中国国际发展合作（2021）

中国开展国际发展合作，源于中国的大国责任担当。中国是联合国创始成员国和安理会常任理事国

1:23 ¶ 78 in 新时代的中国国际发展合作（2021）

履行大国责任，积极为全球发展提供公共产品

1:45 ¶ 227 in 新时代的中国国际发展合作（2021）

根据国家综合国力和应承担的国际责任，稳步加大对其他发展中国家特别是最不发达国家援助力度

1:46 ¶ 230 in 新时代的中国国际发展合作（2021）

推进南南合作，彰显大国担当

● 1.2 民族复兴

1 引用:

3:10 ¶ 130 in 中国的对外援助（2014）

中国正在全面建设小康社会，致力于实现国家富强、民族振兴、人民幸福的中国梦

● 1.3 发展成就

3 引用:

1:5 ¶ 57 in 新时代的中国国际发展合作（2021）

70多年来，中华民族砥砺奋进，从积贫积弱逐步走向繁荣富强

2:3 ¶ 14 in 中国的对外援助（2011）

70年代末中国实行改革开放以来，经济快速发展，综合国力显著提升

2:15 ¶ 21 in 中国的对外援助（2011）

进入新世纪特别是2004年以来，在经济持续快速增长、综合国力不断增强

● 1.4 全球治理

2 引用:

1:38 ¶ 177 in 新时代的中国国际发展合作（2021）

中国坚持共同、综合、合作、可持续的安全观，向其他国家提供力所能及的支持，为应对重大挑战和完善全球治理体系贡献中国力量

1:49 ¶ 231 in 新时代的中国国际发展合作（2021）

加强团结协作，应对全球挑战。中国坚定支持多边主义，积极参与国际发展领域双多边对话与合作，推动优化和完善国际发展合作领域全球治理，维护以联合国为核心的国际体系。加大对国际组织的资金支持，积极支持国际组织发挥作用，共同应对公共卫生危机、粮食安全、经济衰退等全球性挑战。加强与其他国家和国际组织的沟通协调，在充分尊重受援国主权和意愿的基础上，与有关国家和国际地区组织探讨并稳步开展三方合作，推动国际发展合作创新发展

● 2.1 发展中国家定位

18 引用:

1:1 ¶ 48 in 新时代的中国国际发展合作（2021）

中国是世界上最大的发展中国家

1:13 ¶ 63 in 新时代的中国国际发展合作（2021）

南南合作是中国开展国际发展合作的基本定位

1:14 ¶ 63 in 新时代的中国国际发展合作（2021）

中国仍处于并将长期处于社会主义初级阶段的基本国情没有变，中国是世界上最大的发展中国家的国际地位没有变

1:15 ¶ 63 in 新时代的中国国际发展合作（2021）

中国开展国际发展合作，是发展中国家之间的相互帮助，属于南南合作范畴，与南北合作有着本质区别

1:22 ¶ 69 in 新时代的中国国际发展合作（2021）

量力而行，尽力而为。统筹国内国际两个大局，注重发挥比较优势，履行与国力相匹配的国际义务，在南南合作框架内，向其他发展中国家提供力所能及的援助

1:39 ¶ 207 in 新时代的中国国际发展合作（2021）

中国对开展国际发展领域交流和三方合作持开放态度，将继续坚持发展中国家定位，积极与有关各方探讨开展三方合作

2:1 ¶ 13 in 中国的对外援助（2011）

中国是一个发展中国家

2:5 ¶ 14 in 中国的对外援助（2011）

南南合作

2:17 ¶ 23 in 中国的对外援助（2011）

中国的对外援助属于南南合作范畴，是发展中国家间的相互帮助

2:20 ¶ 27 in 中国的对外援助（2011）

坚持量力而行、尽力而为。在援助规模和方式上，中国从自身国情出发，依据国力提供力所能及的援助

2:21 ¶ 96 in 中国的对外援助（2011）

积极推动南南合作

2:22 ¶ 98 in 中国的对外援助（2011）

中国愿在南南合作的框架下，在尊重受援国意愿的基础上，与有关方开展优势互补、富有成效的三边和区域合作，共同推动全球减贫进程

2:24 ¶ 101 in 中国的对外援助（2011）

中国作为国际社会的重要成员，将一如既往地推进南南合作

3:1 ¶ 12 in 中国的对外援助（2014）

中国是世界上最大的发展中国家

3:2 ¶ 12 in 中国的对外援助（2014）

中国坚持把中国人民的利益同各国人民的共同利益结合起来，在南南合作框架下向其他发展中国家提供力所能及的援助，支持和帮助发展中国家特别是最不发达国家减少贫困、改善民生

3:8 ¶ 129 in 中国的对外援助（2014）

国际社会应动员更多的发展资源，加强南北合作，支持南南合作

3:13 ¶ 130 in 中国的对外援助（2014）

积极推动南南合作

3:14 ¶ 130 in 中国的对外援助（2014）

积极推动南南合作，切实帮助其他发展中国家促进经济社会发展

● 2.2 百年国耻

0 引用

● 2.3 发展问题

2 引用:

2:4 ¶ 14 in 中国的对外援助（2011）

依然是一个人均水平不高、贫困人口众多的发展中国家

2:16 ¶ 23 in 中国的对外援助（2011）

中国是世界上最大的发展中国家，人口多、底子薄、经济发展不平衡。发展仍然是中国长期面临的艰巨任务

● 2.4 反对霸权

11 引用:

1:4 ¶ 55 in 新时代的中国国际发展合作（2021）

推崇公正合理的国际关系

1:10 ¶ 61 in 新时代的中国国际发展合作（2021）

人类命运休戚与共，没有发展中国家的发展，就不可能实现世界的稳定和繁荣。中国开展国际发展合作，帮助其他发展中国家减少贫困、改善民生，旨在同发展中国家一道，促进缩小南北发展差距、消除发展赤字

1:11 ¶ 61 in 新时代的中国国际发展合作（2021）

建设相互尊重、公平正义、合作共赢的新型国际关系

1:21 ¶ 68 in 新时代的中国国际发展合作（2021）

坚持国家不分大小、强弱、贫富，都是国际社会平等成员。开展国际发展合作时，不干预其他国家探索符合国情的发展道路，不干涉其他国家内政，不把自己的意志强加于人，不附加任何政治条件，不谋取政治私利

1:40 ¶ 208 in 新时代的中国国际发展合作（2021）

推动建立更加平等均衡的全球发展伙伴关系

2:7 ¶ 15 in 中国的对外援助（2011）

不附带任何政治条件

2:8 ¶ 18 in 中国的对外援助（2011）

1964年，中国政府宣布以平等互利、不附带条件为核心的对外经济技术援助八项原则，确立了中国开展对外援助的基本方针

2:10 ¶ 18 in 中国的对外援助（2011）

不附带条件

2:18 ¶ 25 in 中国的对外援助（2011）

坚持不附带任何政治条件。中国坚持和平共处五项原则，尊重各受援国自主选择发展道路和模式的权利，相信各国能够探索出适合本国国情的发展道路，绝不把提供援助作为干涉他国内政、谋求政治特权的手段

3:3 ¶ 13 in 中国的对外援助（2014）

中国提供对外援助，坚持不附带任何政治条件，不干涉受援国内政，充分尊重受援国自主选择发展道路和模式的权利

3:12 ¶ 130 in 中国的对外援助（2014）

尊重和支持发展中国家探索符合本国国情的发展道路

● 3.1 共同利益

21 引用:

1:3 ¶ 49 in 新时代的中国国际发展合作（2021）

为破解全球发展难题、推动落实联合国2030年可持续发展议程提出中国方案、贡献中国智慧、注入中国力量

1:7 ¶ 58 in 新时代的中国国际发展合作（2021）

中国坚守和平、发展、公平、正义、民主、自由的全人类共同价值，坚定走和平发展、开放发展、合作发展、共同发展道路

1:18 ¶ 65 in 新时代的中国国际发展合作（2021）

帮助其他发展中国家落实联合国2030年可持续发展议程是中国开展国际发展合作的重要方向

1:19 ¶ 65 in 新时代的中国国际发展合作（2021）

全球发展不平衡不充分的现象仍然突出，新冠肺炎疫情全球蔓延为落实议程带来严峻挑战。如期实现可持续发展目标，不让任何一个国家、任何一个人掉队任重道远。中国通过开展国际发展合作，增强有关国家发展能力，优化发展伙伴关系，帮助其他发展中国家克服疫情影响，加快落实联合国2030年可持续发展议程，实现共同繁荣

1:20 ¶ 65 in 新时代的中国国际发展合作（2021）

中国通过开展国际发展合作，增强有关国家发展能力，优化发展伙伴关系，帮助其他发展中国家克服疫情影响，加快落实联合国2030年可持续发展议程，实现共同繁荣

1:36 ¶ 135 in 新时代的中国国际发展合作（2021）

中国通过支持其他发展中国家减贫事业，提升农业发展水平，促进教育公平，改善基础设施，推进工业化进程等，为推动落实联合国2030年可持续发展议程积极贡献力量

1:37 ¶ 177 in 新时代的中国国际发展合作（2021）

公共卫生、自然灾害、移民和难民问题等全球人道主义挑战日益严峻

1:41 ¶ 219 in 新时代的中国国际发展合作（2021）

新冠肺炎疫情给世界各国人民的生命安全和健康福祉造成巨大威胁，给全球公共卫生安全带来重大挑战，落实联合国2030年可持续发展议程任重道远

1:42 ¶ 221 in 新时代的中国国际发展合作（2021）

中国将根据有关国家的实际需求，继续本着量力而行、尽力而为的原则，支持发展中国家抗疫斗争，为全球公共卫生事业贡献力量

1:43 ¶ 226 in 新时代的中国国际发展合作（2021）

中国将坚持以人为本，聚焦民生，与发展中国家携手应对全球性挑战

1:48 ¶ 231 in 新时代的中国国际发展合作（2021）

加强团结协作，应对全球挑战

1:51 ¶ 238 in 新时代的中国国际发展合作（2021）

面对日益严峻的全球性挑战，各国只有加强团结协作，深化和平合作、平等相待、开放包容、共赢共享的伙伴关系，才能实现持久稳定和发展，让和平与发展的阳光普照世界

1:52 ¶ 239 in 新时代的中国国际发展合作（2021）

中国始终将自身发展置于人类发展的坐标系中，始终把自身命运与世界各国人民的命运紧密相连，始终把中国人民利益同各国人民共同利益结合起来。中国将秉持初心，继续积极开展国际发展合作，始终做世界和平的建设者、全球发展的贡献者、国际秩序的维护者，为增进人类共同福祉、构建人类命运共同体作出更大贡献

2:23 ¶ 100 in 中国的对外援助（2011）

当前，全球发展环境依然十分严峻。国际金融危机影响尚未消退，气候变化、粮食危机、能源资源安全、流行性疾病等全球性问题给发展中国家带来新的挑战，国际经济发展不平衡现象日趋严重，南北贫富差距持续拉大。国际社会应加强合作，共同面对发展挑战

2:25 ¶ 101 in 中国的对外援助（2011）

在经济不断发展的基础上逐步加大对外援助投入，与世界各国一道，推动实现联合国千年发展目标，为建设持久和平、共同繁荣的和谐世界而不懈努力

3:2 ¶ 12 in 中国的对外援助（2014）

中国坚持把中国人民的利益同各国人民的共同利益结合起来，在南南合作框架下向其他发展中国家提供力所能及的援助，支持和帮助发展中国家特别是最不发达国家减少贫困、改善民生

3:5 ¶ 16 in 中国的对外援助（2014）

为促进实现千年发展目标，中国对外援助资金更多地投向低收入发展中国家

3:6 ¶ 116 in 中国的对外援助（2014）

联合国等多边机构在发展援助领域的作用突出，尤其在推动发展筹资、实现千年发展目标以及应对全球性发展问题等方面发挥巨大作用。中国通过自愿捐款、股权融资等方式，支持并参与多边机构发展援助行动

3:7 ¶ 129 in 中国的对外援助（2014）

国际金融危机的影响仍未消退，发展中国家特别是最不发达国家消除贫困与实现发展的任务依然艰巨

3:9 ¶ 129 in 中国的对外援助（2014）

推动发展中国家经济社会发展，以最终在全球范围内消除贫困

3:15 ¶ 131 in 中国的对外援助（2014）

中国愿与国际社会一道，共享机遇，共迎挑战，推动实现持久和平、共同繁荣的世界梦，为人类发展事业作出更大贡献

● 3.2 公共产品

4 引用:

1:9 ¶ 58 in 新时代的中国国际发展合作（2021）

中国把为人类作出新的更大贡献作为使命，愿努力为国际社会提供更多公共产品，与各国共创更加美好的未来

1:17 ¶ 64 in 新时代的中国国际发展合作（2021）

共建“一带一路”是中国开展国际发展合作的重要平台。丝绸之路经济带和21世纪海上丝绸之路是中国为世界提供的重要公共产品。

1:23 ¶ 78 in 新时代的中国国际发展合作（2021）

履行大国责任，积极为全球发展提供公共产品

1:47 ¶ 230 in 新时代的中国国际发展合作（2021）

中国将继续毫无保留地分享治理经验和适宜技术，增加全球公共产品供给，引导更多资源用于发展中国家经济社会可持续发展，支持广大发展中国家破除发展瓶颈

● 3.3 国际责任

4 引用:

1:8 ¶ 58 in 新时代的中国国际发展合作（2021）

积极开展国际发展合作，是中国作为国际社会负责任成员的应尽责任和义务

1:16 ¶ 63 in 新时代的中国国际发展合作（2021）

中国将继续承担与自身发展阶段和实际能力相适应的国际责任

1:44 ¶ 227 in 新时代的中国国际发展合作（2021）

落实承诺举措，履行国际义务

2:2 ¶ 13 in 中国的对外援助（2011）

坚持向经济困难的其他发展中国家提供力所能及的援助，承担相应国际义务

● 4.1 自身利益

2 引用:

2:11 ¶ 18 in 中国的对外援助（2011）

1971年10月，在广大发展中国家的支持下，中国恢复了在联合国的合法席位，中国同更多的发展中国家建立了经济和技术合作关系，并援建了坦赞铁路等一批重大基础设施项目

2:14 ¶ 19 in 中国的对外援助（2011）

更加注重提高对外援助项目的经济效益和长远效果

● 4.2 自我发展

8 引用:

1:24 ¶ 111 in 新时代的中国国际发展合作（2021）

共建“一带一路”倡议提出以来，中国根据有关国家发展需要，积极开展发展合作，在深化政策沟通、加快设施联通、推动贸易畅通、促进资金融通、增进民心相通上发挥作用，为各国发展培育空间、创造机遇，推动高质量共建“一带一路”

1:25 ¶ 113 in 新时代的中国国际发展合作（2021）

政策沟通是共建“一带一路”国家加强政治互信、开展务实合作、深化利益融合的基础。本着求同存异、聚同化异的理念，中国通过举办官员研修、派遣专家顾问等方式，促进与共建国的双向交流和了解，推动共建“一带一路”国家发展同向发力、协同增效

1:26 ¶ 117 in 新时代的中国国际发展合作（2021）

互联互通是共建“一带一路”的关键。中国积极支持共建“一带一路”国家公路、铁路、港口、桥梁、通信管网等骨干通道建设，助力打造“六廊六路多国多港”互联互通大格局

1:27 ¶ 122 in 新时代的中国国际发展合作（2021）

国通过促贸援助，帮助相关国家改善贸易条件、提升贸易发展能力，为共建“一带一路”国家间实现贸易畅通夯实基础

1:28 ¶ 126 in 新时代的中国国际发展合作（2021）

国积极帮助有关国家完善金融体系、搭建融资合作平台，为资金融通提供保障。

1:29 ¶ 127 in 新时代的中国国际发展合作（2021）

支持完善金融体系。支持共建“一带一路”国家优化金融环境，为参与国际金融体系创造条件

1:30 ¶ 128 in 新时代的中国国际发展合作（2021）

搭建多边融资合作平台。同世界银行、亚洲基础设施投资银行、亚洲开发银行、拉美开发银行、欧洲复兴开发银行、欧洲投资银行、美洲开发银行、国际农业发展基金等共同成立多边开发融资合作中心，通过信息分享、支持项目前期准备和能力建设，推动国际金融机构及相关发展伙伴基础设施互联互通，为“一带一路”建设聚集更多资金红利

1:31 ¶ 130 in 新时代的中国国际发展合作（2021）

中国通过实施民生援助，加大人文交流、文化合作，形成相互欣赏、相互理解、相互尊重的人文格局，筑牢共建“一带一路”的社会基础

● 4.3 互利互惠

12 引用:

1:2 ¶ 48 in 新时代的中国国际发展合作（2021）

中国对外援助内容更加丰富、形式更加多样，促进了中国与其他发展中国家的共同发展

1:11 ¶ 61 in 新时代的中国国际发展合作（2021）

建设相互尊重、公平正义、合作共赢的新型国际关系

1:12 ¶ 62 in 新时代的中国国际发展合作（2021）

恪守互利共赢原则

1:50 ¶ 238 in 新时代的中国国际发展合作（2021）

和平与发展的时代主题没有变，合作共赢、共同发展的历史大势没有变

2:6 ¶ 15 in 中国的对外援助（2011）

中国对外援助坚持平等互利

2:8 ¶ 18 in 中国的对外援助（2011）

1964年，中国政府宣布以平等互利、不附带条件为核心的对外经济技术援助八项原则，确立了中国开展对外援助的基本方针

2:9 ¶ 18 in 中国的对外援助（2011）

平等互利

2:12 ¶ 19 in 中国的对外援助（2011）

1978年中国实行改革开放后，同其他发展中国家的经济合作由过去单纯提供援助发展为多种形式的互利合作

2:13 ¶ 19 in 中国的对外援助（2011）

同其他发展中国家的经济合作由过去单纯提供援助发展为多种形式的互利合作

2:19 ¶ 26 in 中国的对外援助（2011）

坚持平等互利、共同发展。中国坚持把对外援助视为发展中国家之间的相互帮助，注意实际效果，照顾对方利益，通过开展与其他发展中国家的经济技术合作，着力促进双边友好关系和互利共赢

3:4 ¶ 13 in 中国的对外援助（2014）

相互尊重、平等相待、重信守诺、互利共赢是中国对外援助的基本原则

3:11 ¶ 130 in 中国的对外援助（2014）

中国将顺应和平、发展、合作、共赢的时代潮流

【차세대학자분과II】 발표 ③

Political Trend of China's Foreign Affairs since the 20th Party Congress

(第20次全国代表大会后中国外交政策的走向)

Lee Jae-Seung*

【목 차】

1. China's Foreign Strategies:
Forced Inclusiveness or Benign Exclusiveness
1) U.S.-China Relations
2) Reality of China's Foreign Affairs
2. China's Coercive Policy of Foreign Affairs
3. Conclusion
4. Reference

China under the Xi Jinping's rule has been coercive to bordering countries, and Beijing has ut ilized to the loans to developing states. After the U.S.-China trade dispute, China slightly compr omised to regional players, however, their ultimate policy to other stakeholders were not totally changed especially since the 2ndtermofXiJinpingadministration.CurrentChina'sforeignpolicywasdefin edbytwoconcepts,suchasWolfWarriorDiplomacy(戰狼外交) and Debt Diplomacy.

Domestically, Xi changed CCP's constitution about limitations as president terms, at some poin t of view, it was interpreted that Xi revised Deng Xiaoping's collective leadership system (集團指導體制). In 2022, CCP fixed 3rd historical resolution into 6th plenum of 19th Party Congress (조영남 2022). Xi's next term will be widely opened him, by now, China's regime will be altered from decentralized, which Deng designed, to recentralized by Xi. It is also the first time of Post -Mao rule. So, I will suggest this study by examining what political intentions of China is curr ently pursuing and what Xi Jinping and CCP are specifically aiming.

This paper comprises of three parts. The first section sketches political limitations of the Chin a's strategies. Beijing's eventual aspiration is to be a next superpower before in 2050. Since the Open policy, China's economy skyrocketed within the three decades. Consequently, the pre-Xi C hina vocally mentioned "not take a leadership" in the globe, however, since Xi came out to pow

* 부산대

er, Beijing have stressed to unveil hegemonic aspiration (Zhao 2021b). Also, the Washington str ategically announced that China is an upcoming adversarial hegemonic challenger for taking con ventional U.S. status to alter the Beijing's stance, and then, U.S. have operated with its allies a nd partners to politicized China's ascendant and aggressive capabilities. Next, it arranges China's ambitiously next steps about Xi Jinping's flagship, which is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BRI). The party decided to open Xi will take a next term as general secretary (Blanchette & Medeiro s 2021; Cheek 2021; 조영남 2022), it means that Xi will be a first president who does not compl y with the CCP rule, three consecutive terms since Jiang Zemin. After all, it will be estimated how the party and China will be arranged third term of Xi and post-Xi era. Finally, it ends up closing this paper.

1. China's Foreign Strategies : Forced Inclusiveness or Benign Exclusiveness

1) U.S.-China Relations (美中關係)

China has entered the ranks of the G2 after steep economic growth and has now emerged as a threat to the United States. Starting with joining the WTO in 2001 under the delivery of the U.S., China entered the G20, founded the BRICS and SCO (Hu 2018; Kent 2015), and established the AIIB (Stephen and Skidmore 2019), to gain an innumerable stimulus in the international com munity. But, apart from China's increased influence, it is tricky to readily answer whether there is a country that is just friendly to China or who its allies are (Larson 2020). Except for North Korea, its official alliance (Liu & Liu 2017), and Pakistan, a geostrategic partner, no country is only favorable to China, which soon leads to a repetition of fundamental questions about its infl uence.

President Xi also reaffirmed and expressed his intention not to build a long-term alliance (Lar son 2020) even with Russia as well (Lavrov 2019). In conclusion, even if Beijing overtakes Was hington, there are considerable questions about how many countries it will be respected by. If t he current trend continues, China will be able to beat the U.S. in GDP by the mid-to-late 2020 s.[1] In addition, between 2035 and 2049, proposed by the CCP, there are a lot of probabilities to be a superpower beyond the U.S. in terms of military aspects (Feng & Kai 2021). With this in context, if China becomes a hegemonic challenger, there will be a flood of submissive countries, but as the U.S. did, how much respect and praise can be received, and there are many question s about how well the international society can work under this so-called Chinese leadership. Ult imately, if China narrowly overtakes the U.S., Washington's remarkable authority will remain, an d if the U.S. fails to show an overwhelming difference, as it did before, the chances of a Sino-l

1) China's GDP percent of U.S. was 6.0% in 1990, 11.8% in 2000, 57.6% in 2013, 60.1% in 2016, and it of J apan was 11.5% in 1990, 24.8% in 2000, 186.3% in 2013, 227.7% in 2016 (World Bank 2022).

ed international order being reorganized are almost slim.

China, historically, has not had smooth relations with neighboring countries, East Asia has alr eady encountered this with China, a number of other countries are also jumping on China's asc ent to maintain its domestic economy and national growth. Foreseeable political concerns among regional countries have grown even greater as China has regained its pre-modern influence due to China's rise. Besides, China has already been using FTA as a political tool of international p olitics. Already, South Korea, Australia, India, Norway, and Palau have been unable to avoid so -called sanctions and confrontations with China (Chung 2021).

However, China is outwardly embracing neighboring countries with massive investments throu gh the BRI, and it particularly continues to cooperate by working with developing countries that are not allies with the U.S. but are not close to the West. In the meantime, the intention is to approach the EU, the world's largest purchasing market, which is an ally of the U.S., but canno t ignore China's economic impact. It is seen that Beijing has found a point of contact in pursui ng external relations. Of course, the initiative is a debt-based diplomacy that ultimately finds C hina other overseas entry points, like ports and military bases, and there is plenty of room for t he intention to proceed with the "freedom of navigation" brought up by the U.S. in the Indian Ocean. With this in mind, the political intention to proceed smoothly, use the BRI as a driving f orce for development through superiority in the Indian Ocean, and eventually confront the U.S. i s deeply implied.

Since the inauguration of the Trump administration, the U.S. has also strongly pressured Chin a (Pempel 2019), and it should be seen that it is making every effort to deter China due to its f ailure to respond to the spread of COVID-19. As Trump failed to succeed in serving a second t erm, the Biden administration was launched, but the U.S. is actively taking advantage of its alli es and partners to suppress China, mobilizing both diplomatic capabilities and security treaties, s uch as trilateral cooperation with Japan and South Korea, G7, the Quad, and the AUKUS, witho ut China's strategic access. The U.S., under the Biden administration, hopes for a so-called insti tutionalized unity of democracies, but it is questionable how much diplomatic binding it will hav e even if it is certainly completed. This is because China's presence in the global economy is al ready enormous, and there are at present Western-centered democratic gatherings, including the G7. Critically, before China's rise, democracy is a prerequisite for economic development, howeve r, now, democracy is not a precondition for geo-economic enlargement. Rather, since China's ris e, economic growth is a qualification for democracy (Moyo 2013). While Trump led the U.S., Ch ina was slightly expected to fill some of the so-called 'voluntary emptyness' caused by the U.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owever, after Xi's second term, China lost trust as it put stron ger pressure on adjacent countries as well as China lost trust at an irreversible level as it shift ed its responsibility to the origin of COVID-19 during the investigation period.

2) Reality of China's Foreign Affairs

Because of the pandemic, global supply chains have not likely operated before the COVID-19 outbreaks. All the prices of products and materials skyrocketed in China, and globally as well, since the pandemic. It will infinitely influence a huge amount of global commerce and international affairs. Most of all, the U.S. is eager to decrease China's status as an economic powerhouse and make a partial compromise while the U.S.-China confrontation continues. Even this is an optimistic application for China, however, in reality, China will not overtake the U.S., and there is not much span for the BRI to go well according to Beijing's drive. Although Western scholars are pessimistic about China, on the contrary, Chinese scholars are upbeat about China, the differences in opinions between Yan (2019) and Zhu (2021) show that it is not easy for Beijing to unconditionally overtake Washington and become a superpower. As Allison and Rudd predicted, it is much harder to forecast that China will eventually overtake the U.S., considering that China's internal problems and transition to a complete dictatorship, as shown in Chung (2021)'s descriptions.

First, China has faced the U.S.'s antagonistic containment along with other western countries. Many countries still account for a large portion of foreign trade with China, but as revealed by armed clashes with India and excessive sanctions on Australia, if many mid-sized countries choose to leave rather than restore relations with China, Beijing will not gain as much strength as it had before. It should be seen that the simple U.S.-led commitments are not implemented by Washington but are multi-layered and multi-faceted through a Quad that has established an anti-China front in the region with other developed democracies. In the future, as China's belligerence intensifies, the U.S. will have no choice but to suppress it with its allies and partners. As many countries did during the Cold War, it will not be able to directly divide themselves, but as shown in the cases of India and Australia, they are no longer active in restoring relations with China, as well as China who is diplomatically burdened if they take in offensively anti-China line. This will inevitably lead to the involvement of the UK and France, other regional players beyond the Indo-Pacific region (Jung et al. 2020), and if they, which usually engages in military action with Washington, become the two wings of America, China's military burden will naturally intensify and worsen. Already, the investment agreement between China and the EU signed at the end of 2019 has frozen. In 2019, EU leaders, like President of the European Commission Ursula Von der Leyen and the President of the European Council Charles Michel, French President Emmanuel Macron, and then-German Chancellor Angela Merkel officially confirmed their investment through 4+1 talks with Chinese President Xi. However, after the spread of COVID-19, China's diplomacy and human rights issues in Xinjiang became public, and the investment treaty with the EU remained at a standstill.

Second, the contractual relationship with developing countries seems like colonialism. The Chinese government has signed a 99-year long-term contract for BRI participation to take infrastructural stations and military bases, and profit sharing in other developing countries. On the other hand, as revealed in the 99-years contract, the relevant countries cannot use the facilities, and a

s they used Chinese labor, not local manpower, in the process of building the infrastructures, it did not help many BRI-affiliated countries immediately. Those that have provided domain can o nly use it again after 100 years, but there is a big disadvantage that it cannot be used until the n, which does not help economic growth sooner or later. In other words, they provide territories, but it is not easy for a few Southeast Asian countries, Djibouti, Pakistan, and Sri Lanka to achi eve economic development at once. The bases will be used after the contract expires, but questi ons remain as to how efficiently it will be to operate large transportations, and in many years, the success or failure of their contract with China will be decided by what kind of socioeconomi c leap and political growth would occur, furthermore, considering that Hong Kong was ultimatel y freed from the influence of the CCP after it was returned to China from the UK, the key is whether the capabilities dotted with contracts can be well managed by the original states.

Third, the political vagueness of a CCP-managed system, from decentralization to recentralizat ion (Lee 2017). Xi has already broken down the system of collective leadership and division of works that Deng had structured (Lee 2022; Stevens 2021; Zhao 2022), and is virtually announcin g the launch of the third government by abolishing regulations restricting the second term of th e president. It has already officially announced at the 6th Plenum of 19th Central Committee of the CCP that it will build China led by Xi Jinping, not the CCP, under the name of "Historical Resolution." As the dictatorship is expected to continue beyond Xi Jinping's one-manned syste m, previously, China experienced a one-party system. But, actually, Xi is not the strongest man, it means that Xi's regime has analyzed the strongest since Deng, which is more powerful than Jiang and Hu, however, not comparable to the likes of Mao. Xi has already taken many leading positions at the leading small groups (領導小組). By doing so, Xi has heavily concentrated on ta king the political jobs, which is also not comparable to the likes of Mao and Deng's rule. Instea d, Xi Jinping adopted the third "Historical Resolution"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through the 19th Sixth Plenary Session, certainly opening up the possibility of winning a third consecuti ve term at the 20th National Congress in 2022.

2. China's Coercive Policy of Foreign Affairs

China can strengthen its external relations, while if they falter, China's diplomatic isolation wi ll predictably continue. In other words, even if Beijing acquires many facilities such as ports an d railroads through contracts, China's diplomatic burden will inevitably increase in the long run if their economic growth is delayed or become stagnant, and if they are dissatisfied with China' s move after the contract is terminated, China's diplomatic position will be in trouble. Looking a t the attempt and promotion of the BRI, it seems to be the first internationalist endeavor since i ts foundation, however, the diplomatic moves of Xi Jinping are too strong to be inclusive to oth er players that they seem more isolationist rather than internationalist. Furthermore, since the o

utbreak of COVID-19, Beijing's assertiveness is the biggest obstacle in the global field, many co untries have seen China' unnecessary stance of denying the independent investigation of COVID -19 and the CCP has never accepted the virus's origin was from China (Blanchette & Medeiros 2021; Hewes and Hundt 2022).

Xi and the CCP has suggest the international-based initiative since the PRC was founded, ho wever, amid of the transformation from one party rule to a one-man oriented system by Xi, his terminologies and arrangements are affecting the whole of China, which has been a decisive fac tor in China's failure in the diplomatic respects and trade volumes despite China's big step in-li ne with the U.S. and western decline (Nye 2019). Through the BRI, as the title of this studies, it seems to be approaching to achieve challenging purposes while fully comprehensive perspectiv es on pan-regional countries, even though Beijing has been based on complex reasons. But sinc e then, it has driven too much power around Xi, it has been fully proven that China's position i n terms of commerce maintenance and market sharing has no longer been able to rise, as well as that it has become intricately motivated to gain much civic, social and national respect even if growth is accompanied in the future. Nevertheless, there is still no vacancy for change in the policy stance of President Xi and the CCP, and as revealed through the last Sixth Plenum in 20 21, it has clearly proved that China has entered a permanent dictatorship with preparations for Xi's third term. By 2022, he will be the first leader to serve three consecutive terms since Mao, and as at that time, China's current policy is taking a wide range of steps, which is expected t o be a pessimistic sign that for China's foreign relations.

China's standpoint of foreign policy is unlikely to be altered unless Xi steps down, and in the end, there is more of a gap for BRI to be interpreted as exploitation of Chinese interests based on Western-style colonialism, not interpreted as international cooperation based on the actual co ntract. Moreover, as both the collective leadership system and the process of appointing the nex t leader have disappeared since Xi lifted the restriction on the term limits of the President, the l iability on the Party and China is also expected to intensify, which could help maximize growth in the short-term, but is likely to face a bigger crisis in the long run. China has never experien ced an economic crisis since its opening, but if it faces an economic disaster since it became th e world's largest economy, it is likely to be publicly denied in conjunction with a closed syste m, raising political doubts more than ever.

It can be already forecasted that the BRI, which encompasses the MSRI, is a Sino-proposed i nternational cooperation project, but it is somewhat separated from the economic improvement a nd poverty escape those other developing countries can pursue, for example, easy to connect to European markets and oil supply. If most countries with China fail to achieve so-called "coordin ated growth," China has advocated internationalism based on cooperation, but it is exceedingly li able to be isolated externally. On the contrary, when they all grow, China can fasten a strong a lly regardless of whether it will take supremacy in the future. As feared, if profit sharing does not proceed properly and China's relative monopoly structure continues, Beijing may not be com fortable to be respected by anyone, let alone in acquiring friends and partners.

The U.S. and the Western followers continue to put pressure on the economic side, and it is best for now to maintain a competitive position in each field in the economy. U.S. President Bid en is also conscious of China to the extent that he expresses it as a "strategic competitor." If t he U.S.-led Western camp engages in an all-out war with China, it boasts an overwhelming mi litary advantage, but it will unavoidably suffer some damage. As Beijing is utterly aware of thi s, it is passive about the Washington's statements and engagements but quite confident.

3. Conclusion

China has marginally prepared a chamber for further regression as the U.S. has missed an op portunity to fill the absence of leadership caused during Trump's four years in power. As descri bed above, China has replaced leaders through a collective leadership system and learning the n ext leader (Blanchette & Medeiros 2021). However, as President Xi completely rejected it, China can maintain its system in the short-term pursed by Xi, but in the long-term perspective, it ha s not been decided what to do over the succession and allocation of the leadership system since Xi Jinping (Zhao 2022), so the short-term system maintenance and long-term uncertainty coexis t. With the launch of a specific person's third term for the first time since Deng, in 2022, the p oint is recentralized on whether to replace the leadership every five years (Lee 2017; Stevens 20 21), except for the President and Premier, and it is uncertain to estimate hastily when the actua l reshuffle will take place in the future.

More clearly, President Xi Jinping has entered his third consecutive term since the 20th Party Congress (全國代表大會) in 2022. In other words, as China's foreign relations stance will remain the same as before, there is considerable room for the current international situation and U.S.-C hina relations to be kept to a minimum or deteriorated to its maximum extent. Through the thir d historical resolution in CCP history, it has entered the stage of virtually confirming Xi's third consecutive term, and China's next five years are expected to continue a strong drive centered on Xi Jinping. If China has to stick to its strong stance against neighboring countries and relati vely weak countries, there are many questions about how well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ill regard China, even if it has maintained its so-called equal position with the U.S.

Beijing's expansion is bound to be affected by U.S.-China relations, and as China's economic growth has maintained the global economy and the U.S. has a variety of spots directly connecte d to China, hasty checks and bilateral decoupling is hard. Ahead of the 2022 Beijing Olympics, t he U.S. declared a diplomatic boycott and urged the U.S. alliance to participate under America's design, but the boycott from the U.S. was not stronger than its language, the engagement purs ued by Washington were slightly limited. Among them, maritime enlargement is finally not unco mplicated for America's engagement. This is because China accounts for a really large portion o f the global economy, and unless military conflicts arise, the U.S. should also see that it toughe

ns to control China through a diplomatic approach. This is because many countries prefer swing positions between the two powers, and not to belong to one specific camp as in the Cold War, and the U.S. certainly relies on the Chinese economy.

However, China's foreign policy is too coercive against its neighboring countries under Xi Jin ping (Hu 2018; Wang 2018a; Zhao 2021a). China's internal politics, which revolve around specifi c rules, such as the collective leadership system and choosing the next leaders, has broken dow n. China has to deal with a severe anti-China sentiment owing to excessive coercion via its tra de policy. Its aggressive stance on the origin of COVID-19 and responsibility after the pandemi c, if it is never comfortable to establish itself as a superpower beyond the U.S. in 2035 or 2049. Nevertheless, following the Maritime Silk Road Initiative, the BRI is a vital step towards China' s strive for power, in relation to commerce, logistics, security, and various other industrial field s, but also, among diversified countries and regions, including the EU and the U.S. It means tha t China's initiative has become significantly powered up in the current geopolitical world and in its future hegemonic stability.

So far, China priorities foreign policies, such as to recognize sovereignty South China sea, to unite with Taiwan, to enhance the BRI project, to decrease the U.S. influence in Asia, to promo te China's engagement in the Arctic, and to advance future technologies.

【차세대학자분과II】 발표 ④

论奥林匹克运动会中文化创意的各方异彩与完美的交织
——中国和五大陆发达国家比较，美美与共，天下大同

徐立忱* · 李知润**

【目 录】

1. 绪论
2. 北京、伦敦、亚特兰大中英美三国分析
   1) 北京奥运会开幕式八个文化创意分析
   2) 伦敦、亚特兰大奥运会文化创意分析
3. 主题曲里的共同点及交融之处
4. 不同点和共同点的深入思考
   1) "一亩三分田"定律
   2) "画好同心圆"原则
5. 结语

1. 绪论

奥运会作为一种体育与文化完美结合的庆典，包含了众多的文化元素，奥运会本身就是大量的文化创意的产物和结晶，也促进了世界文化的融合。现代奥林匹克运动会让我联想到了我所认为的美国文体娱的中心——天使之城洛杉矶，因为，奥运会总给我风情万种的感觉，是历届举办国不同的文化底蕴和所运用的文化创意而造就的。而奥运会更是在体育事业中敢为天下先的做到了文体娱的完美融合，不刻意、不做作。随着历届奥运会在各个国家的轮换与更迭，它仿佛就像一个风情万种的女子一样每四年华丽绽放在世人眼前，令人叹为观止、期盼不以。这就是文化创意的魅力.

2. 北京、伦敦、 亚特兰大中英美三国分析

1）北京奥运会开幕式八个文化创意分析

* 庆熙大学 技术经营大学院 硕士生
** 庆熙大学 技术经营大学院 兼职教授 (rebeccajiyunlee@khu.ac.kr)

(1) 击缶倒计时

身着银衣的数千表演者，推着褐色方鼓，暗河般悄无声息地流进场内。我们怀着无比激动的心情，终于等到了这一刻，突然，一道耀眼的天光，激活了场内古老的日晷，世界被震撼了2008个方鼓闪亮银光看台上彩光闪烁。巨大的矩阵击缶迎宾，在观众激情呐喊中，场上闪出最后的倒计时。焰火升腾、群情激昂，北京奥运会开幕式在高亢鼓乐和震天欢呼声中拉开帷幕。

(2) 巨人脚印

将象征奥运历史足迹的29个“巨人脚印”，在北京中轴线的上空，一步接一步的走过前在激越的轰鸣声中，一步步走向鸟巢，。当“奥运足迹”的第29个巨人脚印出现在“鸟巢”主赛场上空那一瞬间，全国沸腾了！寓意2008奥林匹克来到北京.

(3) 中国画卷

当场地上巨大的卷轴慢慢拉开时，全世界观众为之震撼。这幅147米长、27米宽的巨大屏幕，是展现中国五千年历史的长卷。“太古遗音”、四大发明、汉字和戏曲等中国灿烂的文化被神奇地展示了出来。

(4) 璀璨星河

当那直径18米、重16吨的液晶星球从地下升到20多米高空时，人们都被这庞然大物惊呆了。天空中的星球变幻着色彩和图案，众多演员在“地球”上行走，似乎脱离了地心引力，充满梦幻色彩;体育竞赛在“地球”上诠释着“更快、更高、更强”的奥林匹克精神。

(5) 太极圆阵

2008名中国演员上演的太极拳阵，千人划一、齐如刀刻，其形其景震撼世界！在古老神秘的东方文化氛围下，这场太极拳表演，动如奔雷，静若止水，声威震天，变幻莫测。巨大的圆阵象征着天人合一，

(6) 万张笑脸

星球顶端，站立着中国歌手刘欢和“天后”莎拉·布莱曼。本届奥运主题歌《我和你》在独奏中静静流淌。歌声中，欢乐的孩子撑开伞，场上闪现出万张世界各地孩子们的笑脸，此刻应是忘记战火纷飞珍惜和平的时分。

(7) 梦幻五环

每届，奥运五环展示都是固定不变的传统之一，而作为东道国的不同展示的方式彰显本国文化与创意这一不同使得全球观众格外热爱和期盼本环节。北京奥运会开幕式的星光点燃五环，惊艳了世人，“星光五环”寓意着华夏人民对于浩瀚宇宙的向往，对于璀璨星河的憧憬，对中国古代神话故事牛郎织女鹊桥相会等等的美好幻想。

(8) 逐日飞天点火

李宁化身“空中飞人”，在空中绕鸟巢一周，踏着祥云长卷，奔向主火炬，此意向神似中国古典神话“夸父逐日”。他迈着太空步，在鸟巢边缘绕场一圈，身后呈现出本次火炬途经的所有国家和地区。他最终高举火炬，点燃北京奥运会的主火炬奥运主火炬在夜空中熊熊燃烧，此时此刻、此时此地、此情此景、没有人不动容，没有人不共情…　　时任中共中央总书记国家主席中央军委主席胡锦涛同志从座位专门起立，带领全体党和国家领导人热烈鼓掌，每个人脸上都洋溢着幸福的笑容。这是奥林匹克盛会首次的，且是中国华夏文明的文化的方式在中华人民共和国的首都北京上空点燃，熊熊烈焰，彰显了中国从站起来到富起来再到强起来的两次伟大飞跃！

2）伦敦、 亚特兰大奥运会文化创意分析

（1）伊恩弗莱明笔下的特工007詹姆斯邦德

现场大屏幕上，一部全新的“007”正在上演。由丹尼尔·克雷格饰演的尹恩佛莱明笔下的特工詹姆斯·邦德来到白金汉宫，与女王共同执行“特殊任务”，两人乘坐直升机飞到开幕式现场上空，舱门突然打开，由特技演员扮演的“女王”身背降落伞纵身跳下，邦德也紧跟着跳伞。诠释了“把大屏幕里的表演搬进现实舞台是表演艺术的基本境界，把现实舞台里的表演搬进大屏幕是表演艺术的最高境界”这一表演艺术境界从基本境界到最高境界的伟大飞跃！

（2）拳王阿里

在1996年的亚特兰大奥运会上，身患帕金森综合征的阿里用颤抖的双手点燃火炬的场景感动了全世界，把个人永不退缩　勇往直前的高尚进取的人格精神与奥运盛会自然相结合，鼓舞了世人，也给在前进中披巾斩棘的我们塑造了标杆！

（3）花瓣点火

伦敦奥运会开幕式并没有让超级巨星完成最后的点火仪式，而是别出心裁地取消了主火炬手，由7位火炬手共同点燃了204个铜花瓣，最后合所有为一，寓意天下一家！

3. 主题曲里的共同点及交融之处

《登峰造极》是1996年亚特兰大举办的第26届奥运会的主题曲，这首歌旋律激昂，是一比较简单的，属于民谣，作词和作曲家为了体现奥运精神中的“更快更高更强”，2008年北京奥运会的主题曲《Youand Me》（我和你）以委婉、优美为主，中国风十足，世界风也夹杂其中，体现了天下一家世界不分离公住地球村的美好愿景，倡导当今时代的主题——和平与发展。

1988年在汉城举办了第24届奥运会，这届奥运会主题曲《HandInHand》（手拉手）在汉城奥运会后风靡全球，这首旋律动听的音乐是历届奥运会中传唱最广的主题歌，在国际化合作的同时融入本国的音乐方式，以此来表现体育精神，同时也将奥运会主题歌推向了经典的高峰。时任国际奥委会主席萨马兰奇先生也曾认为

《HandInHand》（手拉手）是非常成功的奥运会主题歌之一，我认为，格局二字成就了汉城奥运会，人生应有大格局——国家则更是如此，在奥运会中运用主题曲使得本国曲风与文化融合向全球表达世界人民大团结的美好愿望—奥林匹克格言的第四句—“更团结”。

主题曲因每个国家的文化不同，曲风不同，创意不同，各自散发着独特的美丽，但却始终离不开两个主题，那就是奋进和团结

4. 不同点和共同点的深入思考

不同点主要是由于各个国家的历史渊源，文化缘由不同，每届的文化创意必是各放异彩，深入思考的主要是相同点，为什么美美与共？将上升到哲学角度独创提出了“一定律一原则”来进行阐述

1）“一亩三分田”定律

古时农耕时代人们为了自身农耕产业经营与收益的细水长流，常常通过收好属于他们的那“一亩三分田”来保证春种一粒粟,秋收万颗子。进入第四次工业革命时代以来，“一亩三分田”早已不止来形容农耕领域。“一亩三分田”在现代奥林匹克中的具体体现:把握好本国特有、独一无二的文化优势来进行文化创意,并进行文体娱自然融合的敢为天下先。“一亩三分田”定律是每届现代奥林匹克运动会必须自然遵守的重要定律:无论是哪国举办的奥运会，可以明显的发现这是第一个重要共同点，必须也一定要选取和本国文化乃至历史长河中极致相关联的题材来进行文化创意，不可能是本国不擅长甚至无关本国的文化领域来牵强附会奥林匹克文化。以2012伦敦奥运会为例，以第一次工业革命为文化创意题材，就是独道彰显了“一亩三分田”定律的重要意义和深刻内涵。

开幕式上专门用《混乱时代》向曾经的世界工厂致敬和对这一改变了人类历史进程的时期进行反思

战争带来胜利的喜悦也带来生命消逝的哀伤。场地中的一块红色罂粟花盛开的地方几名士兵肃穆而立，和大家一起在悼念过去和现在所有战争中的亡灵。

2）“画好同心圆”原则

同心圆，圆心相同半径不同的圆。在数学几何学中，有同心圆的概念，讲的是虽然半径不同的无数个圆，但由于圆心一样，他们是围着绕一个圆心而共同存在和运作的。画好同心圆现如今也早不停留在数学几何学的领域中，进入第四次工业革命时代以来，文化创意在各大赛事大放异彩，尤其是在奥运会中，“画好同心圆”原则贯穿整个奥林匹克运动会的始终。“画好同心圆”原则也更是每届现代奥林匹克运动会必须遵守的重要原则:无论是哪国举办的奥运会，可以自然的发现这是第二个重要的共同点，是共同努力的过程，也是集体辛勤劳作的结果，更是集体智慧的结晶！没有任何一届可以是一两个方面甚至一两个人可以塑造这场世界级的文化创意文体娱盛会的，以中国2008年北京奥运会为例，张艺谋光靠独自一人或几人是无法实现的，是通过总导演到每一位演职员，即全体成员所有人员共同画同心圆的过程，此种盛会对于同心圆的组成更是如此，缺一不可，无法实现“地球离了谁都能转”。

从前车马很慢，一生只够爱一人。如今，信纸很快，在第四次工业革命的大背景下，“一亩三分田”和“同心圆”早已不止停留在本意层面，纵使天若有情天亦老，文创的光辉永远闪烁。又尽管人间正道是沧桑，文体娱的完美演绎永远令世人瞩目。这便是奥林匹克中文化创意的魅力，美美与共，天下大同。

5. 结语

奥运会与文化创意的关联在近现代历史的河流中已密不可分。通过中国和其他大陆的欧美国家对比，不难发现，不同点主要是因为历史渊源和文化差异导致了开幕式和主题曲中的文化创意体现大相径庭。相同点主要是必须坚持“发挥所长、展己特长”，以及“共同合作，独木不成林”的同心圆精神。奥运精神，奥林匹克格言的完美演绎和具体体现也是各国文化创意共同点的焦点，自然的运用文化创意在奥运盛会的开幕式和主题曲中去呼吁当今时代的主题——“和平与发展”，巧妙的运用文化创意的诗歌和表演层面在奥运盛会的开幕式和主题曲中告诉世人“更快 更高 更强 更团结”的奥林匹克格言。

메 모

【차세대학자분과II】 발표 ⑤

在韩中国留学生对韩国文化适应的影响因素研究

郭胜杰*

【目 录】

1. 绪论
2. 文献综述
1) 中国留学生的定义与现状
2) 文化适应的意义
3) 留学生的文化适应相关研究
3. 研究设计
1) 研究对象
2) 问题设计
4. 调查结果与分析
5. 结论

1. 绪论

中国与韩国从地理位置来看属邻邦国家，文化特性上也同属儒家文化，相较西方来说，中国学生对韩国文化的认同感相对更强，适应韩国当地文化的速度也相对更快。近年来，随着中韩两国日益多样化的文化交流现象的兴起，中韩两国也进而签订了『韩中文化交流协定』，中国国内的"韩流热潮"不仅扩大了两国之间的经济交流，还扩大了文化交流，增加了中国留学生流入韩国教育市场的数量。对此，韩国教育部为了吸引外国留学生，于2005年推出了"Study Korea项目"，并进一步在2012年"Study Korea 2020项目"—2011年的8万8468名的留学生到2020年增加到20万名的计划。实际上，又在2015年延长"2020Study Korea项目"，公布了比原计划延长3年的到2023年为止吸引20万名留学生的方案，全韩国大学争相吸引留学生。根据文献资料显示，部分中国留学生还因为生活费用相对较低、入学相对容易等原因选择赴韩留学[1]。以2019年4月为基准，韩国的中国留学生有7万1000多名，占全体外国留学生(16万165名)的44.4%。

由于中国留学生对韩国持有亲切感以及赴韩留学程序的便利，学生期待通过专业知识追求和学业成就取得成功[2]，但由于文化差异导致的心理上社会适应困难(例如文化适应压力)，最终考虑中断学业的情况有所增加[3]。中国留学生所具有的本国文化习惯必然会对韩国文化适应产生影响，这不仅会给留学生带来文化适应压力，也会对学校生活的适应产生负面影响。近几年，虽然中国对不同留学生的文化环境适应及

* 부경대학교 중국학과 석박사통합과정 대학원생 (guoshengjie9506@gmail.com)

1) 남순현,「중국유학생의 우리 성과정이 삶의 만족도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체면의 매개효과 검증」,『人間發達研究』, 제28집, 이화여자대학교 인간발달연구소, 2021, pp.21-40。

2) kim, S. A.「College life adaptation of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in South Korea」,『*College Life*』, 2010, 17, pp.57-68。

3) 오혜영、안하얀、백상은,「중국인 유학생 정신건강 척도개발 및 타당화 연구」.『상담학연구』, 22017, 18(6), pp.473-497。

身心发展问题进行了一些研究，但研究成果为数甚少，而且大多数研究者本人位于中国，缺少在韩国进行实地调查与深层次的分析研究。尽管韩国学界对于来韩国留学的外国留学生在社会适应、学业适应等方面有一定的研究成果，但是在分析的过程中缺少与研究对象相同文化背景的前提，而在分析过程中缺乏相同文化背景的共感分析。

留学生的文化适应状况会影响留学生自身学业的成败和个人未来的发展。文化适应问题处理不好的话，会导致留学生学习上面临困难，进而影响他们的学业完成，严重的甚至会导致身体和心理上的问题，而且可能会影响他们回国后对韩国社会和文化环境的整体评价。到目前为止，这个问题还没有引起韩国高校足够的重视，更多的时候，高校关注的是如何吸引更多的留学生来校学习而对留学生的跨文化适应关注较少。

本文力图揭示中国留学生在韩国的文化适应的状况，从他们自身内部因素和韩国文化环境，社会支持等方面出发对他们产生的跨文化适应问题进行分析与探索，试图找出问题产生的原因，并提出相应的改善建议。

2. 文献综述

1）中国留学生的定义与现状

中国留学生是指拥有中国国籍，在外国学校学习并专注于外国学校的教育体系或学业目标，希望实现各自的目标成年学生。以2019年4月为基准，韩国的中国留学生有7万1000多名，占全体外国留学生(16万165名)的44.4%(71，067名) [4]。 按地区来看，全体中国留学生中有49.5%(35，152名)在首尔地区就读，其次是釜山5396名、大田3461名、全北3360名、忠南3290名、光州2451名，中国留学生分布在韩国全境。最近，由于新冠肺炎，中国留学生流入韩国教育市场的数量出现萎缩的现象。因为两国出入境相关的隔离政策与国际航班的大幅减少，使得中国留学生进入韩国受到了极大的限制，也有一部分留学生因此而休学或退学。2020年韩国教育基础统计数据显示，留学生总数为153，695人，比上年下降4%（6，470人），中国留学生人数为43.6%，较2019年下降0.8%（4，037人）[5]。尽管如此，从长远来看，因为中韩两国位置相近，文化相通，互派留学生可以促进在政治、文化、经济等方面的积极效果[6]，所以预计今后赴韩中国留学生数量将会持续增加。

2）文化适应的意义

在掌握人类社会的本质上，没有什么比理解文化的意义更重要的了。区分人类和其他动物的标准也是文化，区分民族的标准也是文化。因此，社会可以说是人类共享文化的共同体[7]。对文化的定义多种多样，没有统一的定义。Hall（1977）定义"一个社会集团的生活方式是人类创造的总体环境"，在高中社会

4) 韩国教育统计服务 (2020).韩国国内外国人留学生现状. https://kess.kedi.re.kr/frontPop/publView ?publItemId=80235&survSeq=2019&publSeq=3.
5) 韩国教育部(2020). 新闻报道: 2020年教育基本统计公布结果，教育部。
6) 이재모,「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적응실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논문, 2008。
7) 유도진,「이질문화적응현상에 대한 기초연구」,『가톨릭사회과학연구』, 제2권 1호, 가톨릭사회과학학회, 1983, pp.93-123。

文化教科书中通用为"一个社会集团的生活方式"，Taylor（1871）定义"知识、信仰、艺术、道德、法律、习惯等人类作为社会成员获得的能力或习惯的总体" [8]。

文化不仅是一个社会集团内通用的生活方式，也是知识、信仰、艺术、习惯等的统称。最近，随着国际移民的剧增，文化也伴随着移民一起移动。由于这种社会变化，导致各种文化也自然而然地相遇。随着文化接触情况的发生，对适应问题的关注也随之产生。文化接触的结果显示的群组大致可以根据移动性(mobility)、自发性(voluntariness)、以及持久性(permanence)三个要素进行分类[9]。移动性是自己是否移动到新文化，是否接受新文化的人的问题。例如，移民者或难民是转移到新文化的人，而定居者和民族文化群组是接受新群组的人。自发性是根据个人意愿来进行，例如，移民或留学生等。持久性与在新的文化中居住多久有关。移民者将长期居住在新的环境中，旅行者、留学生等滞留者将暂时停留。但是暂时滞留的留学生可以结束留学生活回到本国，也可以留在韩国成为新的社会成员。由于积极的文化接触，来韩的留学生可以获得定居在韩国的机会。由此对文化接触产生的适应问题的关心催生了文化适应的概念。

文化适应是指在群组层面上两种文化接触时出现的群组上的改变[10]。一个移民或少数种族个体在试图适应主流文化和行为的准则时进行的个人价值观、信仰、行为和生活方式的改变。文化适应的过程要求个体在面对自己对家乡文化中的信念、社会关系作出承诺的同时，也要面对适应所在环境、融入其社区群体的选择。文化适应原则上属于两个用中立用语相互作用的群组，但实际上，大多数情况下，任何一个群组都比其他群组经历更多的变化[11]。在文化适应过程中，会产生文化适应压力。

文化适应压力包括心理、情绪、社会、身体状况在内，同时出现不安、忧郁等精神健康、身体异常症状等压力行为。这是适应新文化的一般现象，由自身中心文化和需要接受的文化之间的差异和诱发文化压力的多种原因而出现。如果文化适应压力得到缓解，在移居国家经历的生活及学业等困难就会得到很大程度的缓解，但如果这种压力得不到缓解，很有可能成为心理创伤[12]。

文化适应是一个复杂的过程，受到诸多因素的影响。不同学科背景的研究者，从不同角度研究影响跨文化适应的不同因素，但迄今学术界尚无统一的分类。文化适应研究者从20世纪70年代开始关注各种适应的形态和类型。在文化上，各种群体的人相遇的话，相互之间会对社会结构、制度、政治、价值体系产生影响。这种变化的属性和程度根据其接触发生的条件而不同。将文化接触的结果分为群组水平的结果和个人水平的结果，根据分析各自多种形态的研究[13]，可以看出以下四种形态出现。第一，在群组水平上，清肃是杀死所有其他接触群体的成员的情况。第二同化，主要是对殖民地强迫侵略的文化或价值等。许多国家有意图的施行了移民者或少数民族同化主流文化的同化政策。第三，有意图的群组分离，这种隔离在现实中，随着社会逐渐相互依赖，出现了不得不相互接触的情况，因此很难维持下去。最后的结果是统合。统合必须与同化区分开来，统合意味着保留自己文化的核心属性，同时接受并适应新文化的重要方面。

杨军红（2005）的研究表示，一般说来，可分外部因素和内部因素或宏观因素和微观因素[14]。外部

8) 박형순,「한국적 기독교 리더십이 지녀야 할 한국 전통 종교의 문화적 특성들에 관한 고찰」,『대학과 선교』, 제5호, 한국대학선교학회, 2003, pp.201-231。

9) Berry, J. W. (1997)：최승은,「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열린교육연구』, 제28권 제1호, 한국열린교육연구, 2020-재인용。

10) Redfield R., Linton R., Herskovits M. J.. ：1936, 38, 149-152. 李同归,「留学人员的文化适应与文化自信」,『神州学人』, 2022再引用。

11) 정진경、양계민(2004) 문화적응 이론의 전개와 현황, 『한국심리학회지』, 제23권 1호, 한국심리학회, pp.101-136。

12) 신영지,「한국어 문학교육을 통한 문화적응 가능성의 모색: 학부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언어문화학』, 제9권 1호,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2012, pp.101-129.

13) Ward, C., Bochner, S., & Furnham, A., *The psychology of culture shock*, New York, NY: Routledge, 2005.

因素包括价值观念、文化距离、社会支持网络、环境变化等，内部因素包括民族中心主义、刻板印象和歧视与偏见、评价和应对方式、人口统计变量等。王丽娟关于文化适应用影响因素中总结出，文化适应的主要外部和内部影响因素。根据各个国家学者的研究总结了主要外部因素为价值观念的影响：认为产生文化距离的主要原因在于价值观差异，它也是造成文化冲击和引起文化不适应的主要原因所在；文化距离：研究表明，文化距离越小[15]，越容易确切地理解对方。文化距离越大，文化交往的建立和保持和谐关系的难度就越大[16]；社会支持网络：个人的社会支持网络就是个人能借以获得各种资源支持(如金钱、情感、友谊等)的社会网络，通过社会网络的帮助，旅居者能够得到心理安全，减少压力、焦虑、无助感和疏远感，获得自我尊重和归属感；环境变化：在跨文化接触中存在着一系列变化。

Berry（2005）的文化适应理论认为，移民的同化虽然有助于快速适应新的文化，但不全是健康的文化适应[17]。提出多维观点的Berry批评了相互排他性地看待出身文化和主流文化的单一的文化适应概念。提出了彼此双方接受不同文化，且提示积极接受的可能性。为了掌握文化适应的态度，必须同时考虑"接受新文化"和"保持出身文化的认同感"两个因素。以这两个因素为标准，文化适应态度大致可以分为四种类型:整合、同化、分离、边缘化。整合(integration)是在维持出身文化的认同感的同时，与新接触的居住地文化建立积极关系的类型。同化(assimilation)是放弃出身文化的认同，积极接受居住地文化的文化适应的类型。分离(segregation)与同化类型相反，是拒绝接受与居住地文化的关系，坚定地维持对出身文化的认同类型。最后，边缘化(marginalization)与整合类型相反，是拒绝出身文化的同时也拒绝居住地文化关系的类型。这是作为社会成员发挥正常的情况，而最不可取的类型。因此，为了避免边缘化，在重视现有出身文化的同时亲近居住地的文化，即两种文化共存的形态(biculturalism)"整合"的类型可以说是理想的文化适应形态。

3）留学生的文化适应相关研究

最近，随着国际移民的剧增，对文化适应的关心逐渐增加，与此同时，随着留学生文化适应问题的提出，与此相关的研究也在持续进行。留学生是自愿进入新文化的群体，是停留较短时间后返回本国的人。留学生与其他滞留者不同，具有延长学习、取得学位等明确的目的，自发地投身到其他文化中，因此大部分都有想要学习的特别目标。由于具有可以实现目标的基本素质，从心理层面来看，可以认为在外国比较容易适应。但即便如此，也无法预测他们的文化适应。现有研究表明，留学生在文化适应的具体方面为生活和学业两方面的困难。　在生活领域，最普遍的是在适应新文化的过程中经历精神和肉体上的压力。此外还有语言问题、学费及其他财政问题、社会适应问题、对祖国的想念、日常工作执行困难等。尹智媛（音）等（2017）表示留学生在韩国主要是为顺利的完成学业为目的而滞留，因此适应大学生活是非常重要的必要条件[18]。从至今为止进行的研究来看，针对外国留学生的培训课程和学习策略的研究、留学生适应大学生活的研究、分析留学生和韩国学生的交友关系的研究等，以多种主题的研究正在积极进行。

在学业方面，罗东锡，姜硕华（音)(2010）表示韩国大学的外国留学生在留学期间为了实现自己的目

14) 杨军红，『来华留学生跨文化适应问题研』，华东师范大学博士论文，2005年. p.46。
15) 杨军红，『来华留学生跨文化适应倒题研究』，华东师范大学博士论文，2005年，p.32。
16) 徐光兴，『跨文化适应的留学生活：中国留学生的心理健康与援助』，上海辞书出版杜，2000年版。
17) Berry, J. W.「Acculturation: Living successfully in two cultures」,『*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29(6), 2005, pp.697-712.
18) 윤지원、김상욱,「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대한 연구: 중국인 유학생을 중심으로」,『중국과 중국학』, 제32, 영남대학교 중국연구센터, 2017, pp.29-56。

标，将经历各种困难。其中，在留学生所经历的压力要素中，大部分与文化因素有关[19]。朴恩美（音）等（2010）研究了中国留学生的语言能力、人际关系形成和社会支持对大学生活适应有很大影响[20]。由于对讲课内容的理解不足、研究执行和发表能力不足，导致学业成绩下降[21]、社会关系难以形成[22]等问题。特别是，由于有限的韩语能力或学习能力不足和学业缺乏自信而导致胆怯，与考试为代表的学业适应困难，但经历的语言障碍并没有影响整体的大学生活适应。李善英（音）等(2018）研究中，来到韩国的外国留学生在陌生的环境和文化中，要根据留学的大学教育价值，适应新的教育方式和体系，同时还要处理学业相关的具体要求事项，因此比在出身国家的大学生活更加困难[23]。留学生要想好好过大学生活，需要与韩国学生沟通，与教授建立良好的关系，解决语言障碍、交朋友等要求。另外，与韩国学生的关系和与教授的开放关系对适应学校有积极的影响。

这些研究中出现的共同点是，与相关人士沟通良好时，才能适应。特别是从文化适应相关研究来看，社会支持是调节文化适应压力的负面影响的因素，前后辈之间的排名或礼仪也会导致文化适应困难。值得注意的是韩语水平越低，文化适应压力就越高，大学生活也越难适应。　人在海外生活时，在适应那个国家文化的过程中会经历多种压力。

中国留学生在适应韩国文化的过程中，也因生活方式、语言及文化而感到异样，对适应与否的恐惧，对家人和朋友的思乡病等多种文化适应压力[24]。如果受到这种压力，很有可能经历混乱、不安、忧郁等负面情绪，从而对适应大学生活产生负面影响。以在韩中国留学生为对象进行的文化适应压力和大学生活适应相关先行研究结果显示，文化适应压力的一个要素—感知的差别感不仅对学业适应产生负面影响，而且中国留学生的文化适应压力越多，对大学生活适应产生越大的负面影响[25]。

中国学者关于文化适应方面的研究成果主要集中在两个领域：一是在国外的中国人特别是留学生，或者华裔的文化适应。如陈向明的『旅膀者和“外国人”——留美中国学生跨文化人际交往研究』是这一方面研究的代表作，由于海外有大量的中国的学者的存在。这方面的研究比较多。另外是少数民族群体在汉族主导地区的文化适应，其中最多的是社会学方面的“涵化”研究。当今开放的中国，逐渐国际化的高等教育吸引越来越多的外籍教师、专家来华讲学。

随着访韩留学的留学人数的增多，关于留学文化适应的相关研究中，中国学者陈慧的研究结果显示影响留学生跨文化适应的因素有内部因素和外部因素，外部因素包括环境变化、旅居时间、社会支持、文化距离及歧视与偏见[26]。严秀英（2010）对于中韩留学生话文化适应问题的研究，研究结果显示留学生的跨文化适应能力有明显差异，文化适应经验影响了他们的乐观认知和自我控制[27]。

19) 나동석、강석화,「중국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문화적응 능력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및 조절효과 중심으로」,『청소년학연구』, 제17권 7호, 한국청소년학회, 2010, pp.21-46。
20) 박은미、황빙의、정태연,「재한 중국인 유학생의 대학 생활스트레스와 대학생활적응의 관계: 관련 변인들의 중재효과 검증」, 제18권2호, 스트레스硏究 , 2010, pp.145-152。
21) 공영태、나성은,「이공계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한국과 일본의 예비교육에 관한 고찰」,『일본학보』, 제62, 한국일본학회, 2005, pp.267-282。
22) 황해연,「재한 중국유학생의 대인관계 문제와 대학생활 적응 간의 관계」,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2007。
23) 이선영, 나윤주,「외국인 유학생의 학업적응 실태조사-교양교과목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교양교육연구』, 제2권 6호, 한국교양교육학회, 2018, pp.167-193。
24) 김후조,「중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자아탄력성 및 낙관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석사논문, 2011。
25) Shen, Q.「재한 중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자아탄력성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학교 석사논문, 2019。
26) 陈慧,「留学生中国社会文化适应性的社会心理研究」,『北京师范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 2003(6)。
27) 严秀英,「中韩留学生跨文化适应问题研究」,『人民论坛学术前沿』(社会版), 2010。

3. 研究对象和方法

1）研究对象

本次研究预计对釜山多所大学的中国留学生进行问卷调查发出300份问卷。

2）问题设计

为了全面了解中国留学生在韩的跨文化适应状况，借鉴了国内其他学者的研究方法[28)]，并结合釜山文化的特点，从心理适应、社会文化适应、学业适应和社会支持等四方面编制了调查问卷。

心理适应主要是从思乡情绪和心理健康等方面来测量，共有7个问题。社会文化适应主要是从克服生活中的语言障碍，包括是否适应学校提供的住宿环境等方面来测量，共有9个问题。学业适应主要是从对课堂教学的满意度、能够及时完成作业、能在课堂上自如发言等方面来测量，共有7个问题。社会支持主要是从学校、政府以及校内外人员对待留学生的态度等方面来测量，共有8个问题。

所有问题采用里克特五级量表：

社会文化适应部分从1到5分别是:很困难、有些困难、一般、很少困难和无任何困难；

心理适应、学业适应和社会支持这三方面的问题从1到5分别是:非常同意、同意、不一定、不同意和非常不同意。

4. 调查结果与分析

1）心理适应

2）社会文化适应

3）学业适应

4）社会支持

5. 总结

28)黄河、刘睿，「在川韩国留学生跨文化适应状况研究」，『当代韩国』，第4期，2017。

问卷内容

1. 性别：男/女
2. 年龄：18-23，24-29，30-35，36岁以上
3. 学位：本科，硕士，博士，其他
4. 来韩时长：一年以内，1-2年，2-4年，4年以上
5. 韩语水平：3，4，5，6级
6. 正在学习的专业：
7. 来釜山之前的留学经历：从未出过国/出国时间少于3个月/出国时间在三个月以上
8. 来华之前是否参加过韩语培训：是，否

心里适应

9. 我思念家乡的人
10. 我想念家乡的风俗习惯和行事方式
11. 我想吃家乡的食物
12. 因为无法适应新环境，我有一种孤独、无助和绝望的感觉
13. 我已经开始有种家的感觉了
14. 在釜山的经历对我来说有着积极的意义，让我受益匪浅
15. 做出到这儿来的决定是正确的

社会文化适应

16. 我适应学校的住宿环境和住宿条件
17. 我能和韩国学生及当地人交朋友
18. 我能完成出门看病、取钱或购物等日常活动
19. 我能保持原有的兴趣爱好，调节业余生活
20. 我会参加学校或社区组织的各项活动
21. 我能克服生活中的语言障碍
22. 我能听懂釜山人的方言
23. 我在釜山能找到喜欢吃的食物
24. 我能适应釜山的气候

学业适应

25. 我知道为什么来釜山留学，也知道要学什么
26. 我能按时上每一堂课
27. 我能及时完成作业
28. 我能听懂课堂上老师的授课
29. 我在课堂上能自如地发言、表达我的观点
30. 我很满意目前大学的课程
31. 我对我的学习成绩满意

社会支持

32. 学校提供了好的住宿条件
33. 教师经常给我提供帮助
34. 学校经常或定期开展留学生活动
35. 校外的韩国人对我很友好
36. 韩国政府或学校提供的奖学金很丰厚，种类很多
37. 在釜山的中国同胞经常和我联系或聚会
38. 当我在生活和学习中遇到困难时，我会找韩国朋友帮忙
40. 当我在生活和学习中遇到困难时，我会找中国朋友帮忙

메 모

【차세대학자분과Ⅲ】 발표 ①

物态·意象
——“银钩”再阐释

孙其明*

【目 录】

1. “银钩”之义涵
2. “银钩蚓尾”之义涵
3. “银钩蚓尾”笔法的融通与演进
4. 结语

【摘要】“银钩”一词起初泛指银制或银色钩子，后泛化引申，具有头饰、纹饰、鱼钩、新月等多层义项。“银钩”介入到书法领域，其包含一般意义上的书法、往来书信墨迹或者是用以形容草书笔画的浑融圆转，甚至专指小楷墨迹等多种义项。“银钩蚓尾”作为六朝时期章草书笔法术语，从笔势和字势两个维度诠释其独特的艺术内涵。较之六朝时期这种描述性、模糊性的书法意象审美追求，唐代所产生的“折钗股、屋漏痕、锥画沙、印印泥、飞鸟入林、惊蛇入草、孤蓬自振、惊沙坐飞等诸草书笔法所呈现出来的笔势跌宕、笔画质感与银钩蚓尾多有融通之处，而且更容易反映出其草书用笔的具体过程以及笔画的生动质感。而这些草书笔法是随着草书书体不断成熟、草书书风不断丰富来转变和演进的。

【关键词】 银钩；银钩蚓尾；锥画沙；屋漏痕；折钗股。

自汉以来，书法艺术逐渐走向自觉，随之产生的则是大量的书法论著。这些论著涉及到书法的本体、源流、品评、品学、临习、创作等诸方面，其中亦不乏杂有技法理论。至唐朝，技法理论臻于完善，如日本学者中田勇次郎在《中国书法理论史》中提到：“中国书法上的书写技术，在唐代大体已经形成。[1]”除《笔阵图》《永字八法》外，中晚唐草书高度发挥的背景下，一时间涌现出了诸如印印泥、古钗脚、屋漏痕、夏云多奇峰、壁坼、飞鸟出林、惊蛇入草、孤蓬自振、惊沙坐飞等笔法术语。这些笔法术语在当时乃至后世得到了极大的认可，而且影响深远。其实在这些草书笔法术语产生之前，尤其是以“银钩蚓尾”为代表的六朝笔法论早已大行于世。“银钩”作为六朝草书笔法之一，透彻的剖析其艺术内涵，对草书艺术的审美理解以及草书审美追求都有着极其重要的意义。

* 釜庆大学

1）中田勇次郎著，卢永璘译《中国书法理论史》，天津古籍出版社，1987年12月，第41页。

长期以来，习书者多对唐以后固化的笔法术语如锥画沙、屋漏痕、折钗股、印印泥等给予充分探讨[2)]，但是关于六朝时期诸如银钩、银钩虿尾、婉若银钩等书法术语的研究寥寥无几，在实践技法、地位源流等方面更是缺少必要的关注。关于银钩及其关联，可参看者仅有《晋书·索靖传》《艺文类聚》《法书要录》《书苑菁华》《墨池编》《山谷内集》《衍极》《六一之一录》等，所论却仅有只言片语，难能深入且不成统序。然而近代学者更无深入涉及，可谓是莫大的遗憾。

笔者检阅相关书法文献，爬梳考证，通过对银钩义涵的逐层考察，进而考证了“银钩”一词进入中国书法领域，其内涵不断丰富的过程。通过对索靖书法艺术风格进行深度剖析，进而诠释“银钩虿尾”的艺术内涵。笔者发现诸如银钩、银钩虿尾、婉若银钩等书法术语，所呈现出来的艺术特质，丰富而深厚。后世诸如锥画沙、屋漏痕、折钗股、壁坼、惊蛇入草、飞鸟入林、孤蓬自振、惊沙坐飞等草书笔法实则是在“银钩”基础上的融通与演进。换言之，“银钩”所表现出来的（无论是笔势层面还是字势层面）书法品格，一定程度上蕴有锥画沙、屋漏痕、折钗股等所具有的艺术特质。

1. “银钩”之义涵

“钩”是后起字，是“鉤”的俗体字。段玉裁《说文解字注·句部》云：“曲钩也【钩字依韵会补，曲物曰钩，因之以钩取物亦曰钩】。从金句，句亦声【钩镶、吴钩、钓钩皆金为之，故从金。按句之属三字皆会意兼形声，不入手竹金部者，会意合二字为一字，必以所重为主。三字皆重句，故入句部。古侯切，四部】。[3)]”可知“钩”起初当指弯曲之物，多用来挂物所用，又因“钩”多为“金”制，所以“从金句”。《玉篇·金部》卷十八云：“钩，古侯切，铁曲也。[4)]” 又卷二十九句部四百八十二云：“古侯切，曲也，所以钩悬物也，引也。[5)]”这应该是“钩”之本义。除此之外，“钩”又有兵器之属，古时兵器，有钩有镶，皆为剑属。或为钩援钩引上城之梯，所谓“云梯”。

“银钩”一词，起初指银制或银色的钩子。如释惠洪《林间录》载唐德宗遣使驰诏召高僧懒瓒，因其竟不能致而叹之，题曰：“粪火但知黄独美，银钩那识紫泥新。尚无心绪收寒涕，岂有工夫问俗人。[6)]”再如《金史》志第二十二云：“俞石、银钩各一，铁钩二，小旗十五，并服花脚幞头、青锦络缝绯衤癸衫，金镀银双鹿束带。[7)]” 这里的“银钩”或指簪火之钩，或指银制之钩，都是指一般大的器物工具。

其实“银钩”还有多层意项。其一，指垂钓的鱼钩。如《艺文类聚·乐部》卷四十一载南朝梁刘孝威《钓竿篇》云：“钓舟画采鹢，鱼子服冰纨，金辖茱萸网，银钩翡翠竿，敛桡随水脉，急桨度沙湍，湍长自不辞，前浦有佳期，莲交棹影合，浦深鱼出迟。[8)]”其二，指用以挂纱帐的工具。如《初学记·器物

2) 相关论述有：2002年2月焦满金于《书画艺术》发表《试论“如锥画沙”》； 2011年4月彭文忠于《大众文艺》发表《锥画沙探微》；2014年4月陈梦婕于《时代教育》发表《浅谈书法理论中的折钗股》；2016年6月唐福祥于《艺术评鉴》发表《褚遂良“印印泥”初探》；2016年12月于《书法》发表《屋漏痕小议》；2018年2月杨阳于《艺海》发表《书论中锥画沙、印印泥等新论》；2018年6月杜纶渭于《中国书法》发表《从锥画石到锥画沙：唐代草书笔法理论生成的一个侧面》；2019年11月曹培于《中国书法》发表《何为屋漏痕》；2021年4月谢友国于《中国书法》发表《如印印泥新解》；2020年9月赵艺于《江苏教育》发表《折钗股于印印泥》；2021年10月吴建权于《书法》发表《锥画沙、印印泥渊源考》；2021年2月吴胜景于《书法》发表《论屋漏痕的意、形、美》等。

3) 段玉裁《说文解字注》，上海古籍出版社，2018年8月，第88页。

4) 顾野王《大广益会玉篇》，《丛书集成初编》载，商务印书馆，1935年6月，第402页。

5) 顾野王《大广益会玉篇》，《丛书集成初编》载，商务印书馆，1935年6月，第643页。

6) 释惠洪《林间录》，《石门文字禅》卷十五载，四库本，叶1b。

7) 脱脱《金史》，中华书局，1975年7月，第931页。

8) 欧阳询《艺文类聚》，上海古籍出版社，2013年12月，第1138页。

部》卷二十五载唐太宗文武皇帝《赋帘诗》云：“参差垂玉牖，舒卷映兰宫；珠光摇素月，竹影乱清风。彩散银钩上，文斜桂户中。唯当杂罗绮，相与媚房栊。[9]”再如《赌棋山庄集》卷二载徐鈇词云：“眉儿皱，人儿瘦，魂销最是黄昏候。泪难收，倚银钩，拌著东风，断送离愁。休休。[10]”其三，指女子头饰，类似簪子之属。《艺文类聚·水部》载徐陵《山池应令诗》云：“画舸图仙兽，飞艎挂采游，榜人事金桨，钓女饰银钩，细萍时带楫，低荷乍入舟，猿啼知谷晚，蝉噎觉山秋。[11]”再如《乐府诗集》卷四十载徐坚《棹歌行》云：“棹女饰银钩，新妆下翠楼。霜丝青桂楫，兰枻紫霞舟。[12]”其四，指代新月。如《薛涛李冶诗集》卷八零五《结素鱼贻友人》云：“情来对镜懒梳头，暮雨萧萧庭树秋。莫怪阑干垂玉箸，只缘惆怅对银钩。[13]”　银钩比喻新月，或者直接指新月，似乎成了文人笔下借以寄情的代名词。

“银钩”一词介入到书法领域，最初借以形容草书笔画的浑融圆转，后来借指书法或者是往来的书信墨迹，甚至专指小楷墨迹。《晋书·索靖传》云：“盖草书之为状也，婉若银钩，漂若惊鸾，舒翼未发，若举复安。[14]”“婉若银钩”中“婉”为会意字，《说文解字·女部》云：“顺也，从女宛声。”段玉裁《说文解字注》云：“《郑风传》曰：‘婉然美也。’《齐风传》曰：‘婉好眉目也。’”表示女子温婉媚好。从宛，宛有弯曲意，宛兼表声，本义为宛转、委婉。此处借用“银钩”来形容草书笔画的浑融圆转。东晋卫铄在《笔阵图》中云：“夫三端之妙，莫先乎用笔；六艺之奥，莫重乎银钩。[15]”古之“三端”，指文士之笔锋、武士之剑锋、辩士之舌锋。“六艺”则指礼、乐、射、御、书、数。《周礼·保氏》云：“养国子以道，乃教之六艺：礼、乐、射、御、书、数。[16]”　这就是所谓“通五经贯六艺”的“六艺”。卫夫人在《笔阵图》中开篇即提到三端中书法用笔的重要，“银钩”很明显是指书法，说明早在魏晋时期就已经将“银钩”作为指代书法的专用词而使用。此时的“银钩”，如《说略》卷十六云：“管宁，人但知其清节，而不知其银钩之敏。[17]”泛指书法（不分诸体），且一直沿用至今。

“银钩”在“书法”这个意义项的基础上进一步延伸，指往来书信墨迹，或指小楷，有时甚至作为一种用笔引用到绘画中。这些意项大约在唐宋时期就已经存在了。前者如白居易《令狐相公与梦得交情素深眷予分亦不浅一闻薨逝相顾泫然旋有使来……》：“银钩见晚书无报,玉树埋深哭不闻。[18]”这里用“银钩”代指令狐楚所寄的手书诗篇及书信。刘长卿《送邵州判官往南》：“早晚裁书寄，银钩伫八行。[19]”周邦彦《风流子·秋怨》：“想寄恨书中,银钩空满,断肠声里,玉箸偷垂。[20]”　此“银钩”亦指书信。后者如《指头画说》卷一云：“小幅枯柳新柳，则专用指甲，其急如风，其细如发，其健如刚，其锐如针，银钩铁画，远弗逮也，是岂笔之所能为者。[21]”

9）徐坚《初学记》，中华书局，2016年9月，第601页。
10）谢章铤《赌棋山庄集》，孙階兰本，叶12b。
11）欧阳询《艺文类聚》，上海古籍出版社，2013年12月，第282页。
12）郭茂倩《乐府诗集》，四库本，叶13b。
13）薛涛《薛涛李冶诗集》，四库本，叶13a。
14）房玄龄等撰《晋书》，中华书局，1974年11月，第1649页。
15）卫铄《笔阵图》，《历代书法论文选》载，上海书画出版社，2014年6月，第23页。
16）李昉《太平御览》，中华书局，2013年8月，第3302页。
17）顾起元《说略》，四库本，叶21b。
18）白居易《白氏长庆集》，四库本，卷33，叶5b。
19）《御定全唐诗》，四库本，卷250，叶3b。
20）曾慥《乐府雅词》，四库本，卷2，叶5b。
21）高秉《指头画说》，四库本，叶11a。

2. “银钩虾尾”之义涵

中国书法的艺术追求，似乎一开始就以物拟势、尚象尚人，如崔瑗《草书势》，蔡邕的《笔赋》《篆势》，成公绥《隶书体》，卫恒《四体书势》，索靖《草书势》等皆运用大量的意象比况，来诠释笔势、字势、书体、风格等诸方面的书法审美。关于“银钩”一词进入到书法领域，借喻书法的种种义项，就是在这样的背景之下产生的。“银钩”一词最早见于《晋书·索靖传》：“婉若银钩，漂若惊鸾。22)”这里用以形容草书的应有状态：婉转圆融处如银钩，飘逸流活处如惊鸾。用“银钩”、“惊鸾”两个自然意象比拟来模糊的表达草书所具有的审美效果。关于“银钩虾尾”的论述，最早见于张彦远《法书要录》所载王僧虔《论书》云：“传芝草而形异，甚矜其书，名其字势曰‘银钩虾尾’。23)”这里需要注意的是，“银钩虾尾”一词是索靖针对其章草书“字势”而言的。索靖，西晋书家，因善书法，尤善草书而得名。《晋书·索靖传》云：“靖与尚书令卫瓘俱以善草书知名，帝爱之。瓘笔胜靖，然有楷法，远不能及靖。24)” 羊欣《采古来能书人名》云：“敦煌索靖字幼安，张芝姊之孙，晋征南司马，亦善草书。25)”张怀瓘《书议》录“名迹俱显者一十九人”，“各能声飞万里，荣耀百代”。认为章草书“子玉第一，伯英第二，幼安第三，伯玉第四、逸少第五、士季第六、子敬第七、休明第八。26)”索靖书迹传世较少，唐李嗣真《书后品》既言“锺、索遗迹虽少”，流传至今仅有《七月》《皋陶》《月仪》以及隋人临的《出师表》等帖。“银钩虾尾”作为索靖最典型的艺术特征，做如何理解，恐怕我们只能凭借历代书录文献和仅有的几幅书迹，得以窥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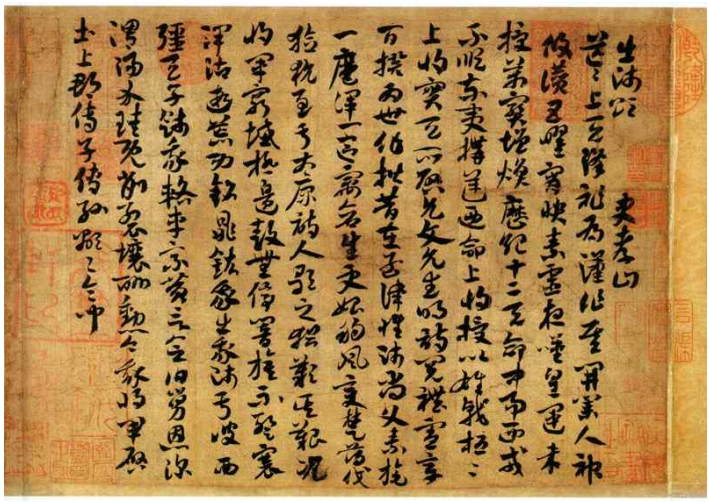
《晋书·卫瓘传》云：“汉末张芝亦善草书，论者谓瓘得伯英筋，靖得伯英肉。27)”这里可传达了两点信息，其一索靖草书师法于张芝；其二靖得伯英肉。我们如何正确理解“筋”、“肉”之语，需要借助张芝书法特点加以阐释。关于张芝草书取法的记载，唐张怀瓘在《书断》中引韦诞语：“杜氏皆有骨力，而字画微瘦。惟刘氏之法，书体甚浓，结字工巧，时有不及。张芝喜而学焉，专精其巧，可谓草圣，超然绝后，独步无双。28)”杜度字画微瘦，长于骨力，刘德升笔画甚浓，结构巧拙不定，张芝则在肥瘦之间，取会其骨，专精其巧。卫恒《四体书势·草势》，《三国志·韦诞》皆有类似的记载。张怀瓘在《书断》又云：“草书伯英创立规范，得物象之形，归造化之理，然其法太古，质不剖断，以此为少也。29)”这里实际上透露出了张芝草书的一个突出特点：在肥瘦之间，取会杜、刘书法之“骨力”，专精其结字“工巧”。这一点也使其书法“太古”，“质不剖断”。这样我们就不难理解索靖取法张芝草书“得其肉”。这里的“肉”应该与张芝师法杜、刘，在肥瘦之间，取会其“骨力”后的书法风格相类似。即：一种骨丰肉润书写面貌。

索靖师法张芝，除“得其肉”之外，还有一些相关文献得以考察。王僧虔在其《论书》中云：“传芝草而形异，甚矜其书，名其字势曰‘银钩虾尾’。30)”庾肩吾在《书品》中将索靖书列为上之下品，并云：“幼安敛蔓舅氏，抗名卫令。31)” 萧子良云“其形甚异”。 张怀瓘《书断》云：“楷法则过于卫

22) 房玄龄等撰《晋书》，中华书局，1974年11月，第1649页。
23) 张彦远辑录，范祥雍点校《法书要录》，上海古籍出版社，2013年10月，第17页。
24) 房玄龄等撰《晋书》，中华书局，1974年11月，第1648页。
25) 陈思《书苑菁华》，北京图书馆出版社，2003年10月，第326页。
26) 陈思《书苑菁华》，北京图书馆出版社，2003年10月，第204页。
27) 房玄龄等撰《晋书》，中华书局，1974年11月，第1057页。
28) 朱长文纂辑，何立民点校《墨池编》，浙江人民美术出版社，2012年8月，第225页。
29) 陈思《书苑菁华》，北京图书馆出版社，2003年10月，第204页。
30) 张彦远辑录，范祥雍点校《法书要录》，上海古籍出版社，2013年10月，第17页。

瓘，然穷兵极势，扬威耀武，观其雄勇，欲陵于张，何但于卫。[32]”其中 “甚矜”“敛蔓”“楷法”“极势”很好的概括了索靖书法结体特点：索靖章草胎息于张芝，出于韦诞，拟张则矜敛有余，峻险过之，极尽字之体势，却又法则昭彰，楷法超群，结体谨严。正如袁昂在《古今书评》中形容索靖章草体势时所云：“如飘风忽举，鹙鸟乍飞[33]” 。张怀瓘在《书断》中云：“有若山形中裂，水势悬流，雪岭孤松，冰河危石。[34]”

再有，张怀瓘《书估》将索靖估为第一等，云：“卫瓘可与张为弟，索靖则雄逸过之。[35]”在《书断》中又云：“其坚劲则古今不逮。[36]” 李嗣真《书后品》云：“观其趣况，大为遒竦，无愧珪璋特达。[37]”其中“雄逸”、“坚劲”、“遒竦”等术语是对索靖书法最切合的评价。从隋人临索靖《出师表》也可以隐约窥知其章草，用笔劲健圆畅、趣长笔短，结体矜敛峻险、雄逸遒竦，有绝伦之姿。



综上，借以对索靖章草书艺术风格的分析，“银钩虿尾”的艺术品格应该包含两个方面：其一指笔势劲健圆畅、趣长笔短，有着骨力雄强、骨丰肉润，流活而富于韧性的线质美。其二指字势敛蔓甚矜、峻险雄逸，有着坚劲遒竦、流丽峻洁，极尽草势而又不失潇洒的姿态美。

“银钩”作为一种书法术语，除了前文所提及的与“婉”、“媚”相联系以外，往往又与铁画缀合。欧阳询在《用笔论》中云：“徘徊俯仰，容与风流。刚则铁画，媚若银钩。壮则口吻而蠖蠕，丽则绮靡而消遒。[38]”这里将银钩与铁画相对。铁画坚实、硬挺，有一种阳刚之美；银钩温婉、圆劲，有一种阴柔之美。铁画、铁石、形如弯铁，最初泛指篆法，如李嗣真《书后品》评崔瑗书云：“崔氏爰效李斯，点画皆如铁石，传之后裔，厥功亦茂。此外镌勒，去之无乃复乎？若校之文章，则《三都》《二京》之比。[39]”后来，铁画与银钩连用，成为一个固化的美学概念。如赵宧光在《寒山帚谈·权舆》论及篆书与行草书用笔之别时云：“篆法常谈铁画银钩。画易解，钩难明。唐、宋而下骨力柔弱者，此语蔽之也。篆之宛转处宜匀者勿论矣，其不必匀者，会须迭荡顿挫，始有笔意。近见镌工改而相配，便不成观。此意与行草过脉处着意于笔锋之说相类，然似是而非。篆笔主到，行草不必到，篆是实体，草是意兴，故不侔也。[40]”“银钩”作为一种书法术语，在用笔上得到了直接的继承和更深入的发挥。

31）张彦远辑录，范祥雍点校《法书要录》，上海古籍出版社，2013年10月，第45页。
32）朱长文纂辑，何立民点校《墨池编》，浙江人民美术出版社，2012年8月，第228～229页。
33）张彦远辑录，范祥雍点校《法书要录》，上海古籍出版社，2013年10月，第50页。
34）朱长文纂辑，何立民点校《墨池编》，浙江人民美术出版社，2012年8月，第228～229页。
35）张怀瓘《书估》，《历代书法论文选》载，上海书画出版社，2014年6月，第151页。
36）朱长文纂辑，何立民点校《墨池编》，浙江人民美术出版社，2012年8月，第229页。
37）张彦远辑录，范祥雍点校《法书要录》，上海古籍出版社，上海书画出版社，2013年10月，第45页。
38）欧阳询《用笔论》，《历代书法论文选》载，上海书画出版社，2014年6月，第106页。
39）陈思《书苑菁华》，北京图书馆出版社，2003年10月，第167页。
40）赵宧光《寒山帚谈》，四库本，叶5a，5b。

3. “银钩虿尾”笔法的融通与演进

南北朝时期，自王僧虔《论书》首次拈出索靖曾自言其草书如“银钩虿尾”这一术语之后，这一时期，整个草书书论文献，如萧衍《草书状》，虞肩吾《书品》似乎基本以意象比况为基调[41]。至唐朝，草书笔法理论除了孙过庭在《书谱》中阐述的“真、草”之论“点画形制”、“使转情性”[42];虞世南《笔髓论·释草》提到的“纵心”、“覆腕”、“悬管”、“外拓”之论[43]；更为具代表性的当是以锥画沙、折钗股、屋漏痕、印印泥、壁坼、飞鸟入林、惊蛇入草、孤蓬自振、惊沙坐飞等为代表的草书笔法诸论。《述张长史笔法十二意》云：“真草用笔，悉如画沙，点画净媚，则其道至矣。[44]”其余诸论，更是明确为草书笔法。我们不难发现，较之六朝时期这种如“银钩虿尾”意象的描述性、模糊性的审美艺术追求用语，唐代所产生的“折钗股、屋漏痕、锥画沙、印印泥、飞鸟入林、惊蛇入草，显得更为生动而有针对性。更容易反映出其用笔的具体过程以及笔画的生动质感，这是六朝时期草书笔法阐释方式未能做到的。

关于锥画沙、印印泥的论述，则最早见于颜真卿《述张长史笔法十二意》：“用笔当须如印印泥”。“自兹乃悟用笔如锥画沙,使其藏锋,画乃沉着。[45]”关于孤蓬自振、惊沙坐飞、公孙大娘剑器舞、折钗股、屋漏痕、夏云多奇峰、飞鸟出林、惊蛇入草、壁坼等借以自然现象体悟书法的论述，则见于陆羽《唐僧怀素传》，《佩文斋书画谱》引《唐僧怀素传》中[46]。这些草书笔法无不师法自然、表现自然。黄庭坚在《论书》中记载其试诸葛方散卓笔时心有所悟，认为“张长史折钗股，颜太师屋漏法，王右军锥画沙、印印泥，怀素飞鸟出林、惊蛇入草，索靖银钩虿尾，同是一笔法：心不知手，手不知心法耳。若有心与能者争衡后世不朽，则与书艺工史辈同功矣。[47]” 这段文字，涉及到了两个观点，其一，折钗股、屋漏痕、锥画沙、印印泥、飞鸟入林、惊蛇入草、银钩虿尾同属一种笔法。其二，这种笔法即心不知手，手不知心法耳。或者言“心忘于笔，手忘于书”的纯熟技法。其中“同是一笔法”作如何解释，很值得深思与考究。

此“一笔法”，一方面当是就银钩虿尾与折钗股、屋漏痕、锥画沙、印印泥、飞鸟入林、惊蛇入草同属草书笔法范畴而言。索靖自言其草书如“银钩虿尾”，而折钗股、屋漏痕、锥画沙等诸语亦明确为唐朝草书典型的用笔方法，以上诸法，皆草书用笔之法。另一方面，这些草书笔法在用笔方式上虽各有差别，但互有融通之处。这一点需要借助于具体的相关文献加以理解。南宋姜夔《续书谱》云：“用笔如折钗股，如锥画沙，如壁坼，此皆后人之论。折钗股，欲其屈折圆而有力；屋漏痕，欲其横直匀而藏锋；锥画

41) 与《论书》略有不同的是，此两篇文献不仅运用了大量的意象比拟来诠释草书的体势美，更重要的是，在诠释的过程中已经初步涉及到草书书写过程中的迟速张弛、停徐驻均等节奏元素，如《草书状》云：“疾若惊蛇之失道，迟若绿水之徘徊。缓则鸦行，急则鹊厉，抽如雉啄，点如兔掷。乍驻乍引，任意所为。”

42) 孙过庭《书谱》，《历代书法论文选》载，上海书画出版社，2014年6月，第126页。

43) 虞世南《笔髓论》，《历代书法论文选》载，上海书画出版社，2014年6月，第112页。

44) 颜真卿《述张长史笔法十二意》，《历代书法论文选》载，上海书画出版社，2014年6月，第280页。

45) 颜真卿《述张长史笔法十二意》，《历代书法论文选》载，上海书画出版社，2014年6月，第280页。

46) 陆羽《唐僧怀素传》：“张旭长史又尝私谓彤曰：‘孤蓬自振，惊沙坐飞’。”“见公孙太娘剑器舞，始得低昂回翔之状，未知邬兵曹有之乎？”“怀素对曰：“似古钗脚，为草书竖牵之极。”“颜公曰：‘师竖牵学古钗脚，何如屋漏痕？’”“贫道观夏云多奇峰，辄尝师之。夏云困风变化，乃无常势，又无壁折之路，一一自然。”见陈思《书苑菁华》，北京图书馆出版社，2003年10月，第696～698页。《佩文斋书画谱》引《唐僧怀素传》：“颜真卿曰：“师亦有自得乎？”素曰：“吾观夏云多奇峰，辄常师之，其痛快处如飞鸟出林、惊蛇入草。又遇坼壁之路，一一自然。”真卿曰：何如屋漏痕？”素起，握公手曰：“得之矣。”见陆羽《释怀素与颜真卿论草书》，《历代书法论文选》载，2014年6月，第283页。

47) 黄庭坚《论书》，《历代书法论文选》载，2014年6月，第356页。

沙，欲其无起止之迹；壁坼者，欲其布置之巧。[48]”这里的“圆而有力”“匀而藏锋”“无起止之迹”“布置之巧”似乎都具有使转圆畅的笔势特征。这一点与“银钩虿尾”的用笔方式所表现出来的敛蔓雄逸、坚劲遒竦、流丽峻洁的艺术品格，有着高度的一致性。而这种圆畅笔势的用笔特征，恰恰又是草书最具代表性的特征之一。颜真卿求教张旭草书笔法时，张氏曾言：“妙在执笔，令得圆畅，勿使拘挛，其次识法,谓口传手授之诀,勿使无度,所谓笔法也。[49]”这种通活流转的圆畅用笔，基于执笔的虚和灵动，也是草书运笔过程中气韵生动、翰逸神飞的根本保证。

丰坊在《书诀》中云：

无垂不缩，无往不收，则如屋漏痕，言不露圭角也；违而不犯，和而不同。带燥方润，将浓遂枯，则如壁拆，言布置有自然之巧也；指实臂悬，笔有全力，擫衄顿挫书，必入木，则如印印泥，言方圆深厚而不轻浮也；点必隐锋，波必三折，肘下风生，起止无迹，则如锥画沙，言劲利峻拔而不凝滞也；水墨得所，血润骨坚，泯规矩于方圆，遁钩绳于曲直，则如折钗股，言严重浑厚而不为蛇蚓之态也[50]。

屋漏痕者，雨漏壁墙，蜿蜒曲伸，指用笔藏锋缓徐，绵延淹留，有一种欲前之势；壁坼者，墙壁中裂之痕，指用笔锋芒参差，一一自然。如孙过庭所言：“带燥方润，将浓遂枯[51]”；印印泥者，封泥印迹，凹凸有致，指用笔圆厚敦实，有空间立体之感；锥画沙者，以锥画沙，两边细沙斑驳隆起，无起止之迹。指用笔笔正锋均，笔画静动圆畅，志气和平，质感毛辣；折钗股者，用力折钗，致其弯曲，有回弹之力，指用笔敛蔓，劲健流转。至于飞鸟入林、惊蛇入草、孤蓬自振、惊沙坐飞、夏云多奇峰等则更进一步直观的表现其笔势动荡之感。

以上诸法所呈现的笔法动势、笔画质感与银钩虿尾多有融通之处，然而，较之这种以描述性的、模糊性的意象比况方式的“银钩虿尾”，则更容易反映出其草书用笔的具体过程以及笔画的生动质感。而且较之“银钩虿尾”的笔法概念，折钗股、屋漏痕、锥画沙等诸法已然成为人们眼中用笔的基本原则和笔画质感的标准范式。如褚遂良云：“用笔当须如印印泥。[52]”这一点也已经远远超出了草书笔法理论的范畴。除此之外，其实这些笔法也不仅仅拘泥在书法方面的应用，亦充分蔓展到绘画领域。比如在《元诗纪事》中这样记载，敬仲擅长画竹石，得笔法于文同，曾经自言:“写干用篆法，枝用草书法，叶用八分，或用鲁公撮笔法，木石用金钗股、屋漏痕之遗意，然其生意飞动，有龙翔凤翥之状。[53]”又有《养素居画学钩深》云:“凡作花卉飞走，必先求笔”，“书家所谓屋漏痕、折钗股、印泥、划沙，随处布置，天成画幅，自得神妙境界，非十三科所可限也。[54]”

从这其中可以看出，自六朝时期以描述性的、模糊性的物态意象比况方式的“银钩虿尾”章草笔法为源头，至唐朝折钗股、锥画沙、屋漏痕、印印泥、壁坼、飞鸟入林、惊蛇入草、孤蓬自振、惊沙坐飞等诸多草书笔法的出现，有着一个转换和演进的过程。随着后世的不断应用与构建，在这一过程中，也更容易反映出其用笔的具体呈现以及笔画的生动质感，其艺术内涵也更为生动而具有针对性。这些笔法不仅指代草书用笔，也早已成为人们眼中用笔的基本原则和笔画质感的标准范式。更进一步，他们不仅仅在书法方面发挥着作用，在绘画方面亦得到了充分运用。

48）姜夔《续书谱》，《历代书法论文选》载，上海书画出版社，2014年6月，第388页。
49）颜真卿《述张长史笔法十二意》，《历代书法论文选》载，上海书画出版社，2014年6月，第280页。
50）丰坊《书诀》，《历代书法论文选》载，上海书画出版社，2014年6月，第505页。
51）孙过庭《书谱》，《历代书法论文选》载，上海书画出版社，2014年6月，第130页。
52）颜真卿《述张长史笔法十二意》，《历代书法论文选》载，上海书画出版社，2014年6月，第280页。
53）顾嗣立《元诗选三集》，《钦定四库全书》本，卷五叶24b、25a。
54）董棨《养素居画学钩深》，《画学集成》载，河北美术出版社，2002年6月，第681页。

4. 结语

自银钩一词介入到书法领域，在不同的历史时期产生了不同的义项。至西晋，索靖自言其草书“银钩虿尾”这一术语之后，这一时期，整个草书书论文献，似乎基本以描述性、模糊性的意象比况方式为基调。至唐朝，草书笔法进一步细化，出现了折钗股、锥画沙、屋漏痕、印印泥、壁坼、飞鸟入林、惊蛇入草、孤蓬自振、惊沙坐飞等诸多草书笔法。这些草书诸笔法相比较“银钩虿尾”而言，其内在的用笔动作和笔画质感有着高度的融通性，而且在此基础上带有明显的时代特征，即用笔动作进一步直观细化，其艺术内涵也更为生动而具有针对性。当然这些草书笔法也是随着草书书体不断成熟、草书书风不断丰富来转变和演进的。

【차세대학자분과Ⅲ】 발표 ②

论白族民俗文化中“龙”的形象

刘浩淼*

【目 录】

1. 绪论
2. 白族龙文化繁盛的原因
3. 白族龙文化的形成与发展
   1) 白族对龙图腾的崇拜
   2) 白族龙文化向本主崇拜的演变
   3) 白族龙文化在民俗与民间文学中的传播
4. 白族龙传说的文学形象
   1)『金鸡与黑龙』
   2)『小黄龙与大黑龙』
   3) 反映与自然作斗争的龙的传说
   4) 反映社会生活的龙的传说
   5) 白族龙形象的转变
5. 结论

1、绪论

龙是中华民族的民族图腾。在中国的史前时代，龙不只是一种崇拜的图腾，而且还代表了早期人类对自然现象与祭祀活动的联系与认识，特别是对雨水这一自然现象的基本理解，与早期人类社会发展息息相关。龙并不只是中国单一民族的象征标志，在华夏大地的许多少数民族都曾出现过关于“龙”这一形象的传说，具有极其深刻的文化内涵。白族是中国第15大少数民族，主要分布在云南、贵州、湖南等省，其中以云南省的白族人口最多，主要聚居在云南省大理白族自治州。以云南大理白族地区为基本分布区域的白族龙传说，在中国五十多个少数民族龙传说中数量首屈一指。白族的历史是神话的历史，在这之中龙神话是非常重要的组成部分。在白族传说中龙不是单纯的神话传说的形象，而是白族文化长期耳口相传的产物，透过龙的传说可以反映出白族历史发展状况社会生活内容和文化特色。

白族拥有大量的龙神话传说，在白族民间文学中形成了一个庞大的形象体系，在广大白族民众中广为流传。在大理白族地区就流传着“九百九十九条龙，一潭水便住着一条龙”的俗语。和龙相关的地名、仪式、神话传说极其丰富，例如黑龙桥、黑龙潭、青龙潭、香火龙仪式等。白族自称为“九隆（龙）族”后裔，在大理市大展屯东汉墓出土的文物中，有双龙造型文物；在喜洲镇发掘的杨姓墓碑上，谱有杨姓为“九隆后裔”之说；在其他白族大姓，如赵、李、董、尹、何、张、段、施等族谱和墓碑中，亦自称为“九隆后裔”。

白族龙传说在我国五十多个少数民族龙传说中数量首屈一指，主要分布在传说中称为“西海”的云南大理洱海一带。这些传说故事表现了白族民间对仁善、诚信知报、勇毅力行等传统道德的强调和追求。[1)]

* 国立群山大学

2、白族龙文化繁盛的原因

明代文人王士祯曰：“大理多龙”。白族地区关于龙的神话传说很多，流传面很广，遍及大理州各县市，究其原因，有以下几点原因：

第一，大理地区的水系发达，现今就有四个天然湖泊（洱海、茈碧湖、剑湖、海西海），其中洱海是云南省第二大天然淡水湖泊，在古代有“叶榆水”、“叶榆河”、“叶榆泽”、“西洱河”、“洱河”、“昆弥川”等名称。洱海之所以最终以“洱”为名，要么说它“形若人耳”，要么说它“如月抱珥”，因而得名。此区域在古时水占比更大，湖泊、河流、积雪融水随处皆是，因而有了“海”的叫法。在云南十八怪中就有一怪为“湖泊称作海”，这一说法源于大理白族的古老习俗。在古代，大理、鹤庆，本为泽国，古籍屡有记载。当人们未能解释自然现象时，把龙当作与水有关的自然力量的化身，认为水之所在皆有龙神。如说老君山有九十九个龙潭是因为那里有九十九条龙，洱源凤羽河水是龙口里流出来的，鹤庆漾弓江是蝌蚪龙滚出来的，邓川弥苴河是母猪龙抓出来的，洱源新登温泉是从青龙厨房里阴沟头流出来的，洱海出口天生桥是黑龙用角撞开石壁后海水才淌出去的，等等民间传说皆印证了地理环境与白族龙传说的密切联系。[2)]

第二，大理地区古代水患甚多，水患频繁，给人们带来极大的祸害，但人们对水患的原因不可能理解，即认为水与龙有关，龙主水，水患是龙造成的，因而产生了关于“龙”的原始图腾崇拜。同样也有的地方旱象严重，白族人民与水旱灾作斗争甚为频繁。特别是佛教传入后，建佛塔以“镇”龙，屡见于史籍。民间传说与古籍都说，大理洱海的水下落以后，人们才从苍山顶上搬下来“平土以居”，可见古代滨海居民们与水患斗争是常事。反映到口头文学上，就出现了有利于民的龙与为害于民的龙的区别及其斗争的神话传说。

第三，龙的神话传说与古代洱海地区人民的原始信仰密切相关。白族先民的原始图腾，有人说是龙，有人说是虎与鸡而不是龙，有人说龙的神话传说在白族中广为流传乃系受楚文化的影响并继承南诏文化的缘故，这些都有待深入探讨。但是，古代洱海居民，处在原始社会时期，一定要有图腾崇拜才能受外来影响或从本族产生这类神话传说。而且，白族特有的信仰“本主”崇拜中，有许多“本主”是龙王，当是古代图腾遗迹的反映，而且已属于白族的了。

3、白族龙文化的形成与发展

1）白族对龙图腾的崇拜

白族对龙的图腾崇拜，由来已久，源远流长。早在秦汉以前，散居于以洱海为中心的滇西高原湖泊群周围的白族先民，就开始对龙产生了崇拜。那时，他们依山傍水而居，常遇暴雨山洪袭击，水涝灾害频繁，可对这种自然现象却不能理解，于是凭借想象，以为世间有某种神物，掌管着雨水，能行善，也能作恶，主率着人的命运，因而既爱它又恨它，既赞颂它又诅咒它。这种神物究竟叫什么？是什么样子？谁也

1) 朱黎，「从云南白族龙传说看白族民间对传统道德的强调和追求」，『大观(论坛)』，2018，pp.109-110。
2) 张文勋，『白族文学史』，云南，云南人民出版社 ，1983，pp.30-31。

没见过，谁也说不清。后来，有人想象它是鱼变的，蛇变的，鱼蛇合变的;；又有人想象它的样子似黄鳝，似蜥蜴，似大雕，它能飞天，能潜水，能呼风，能唤雨，千变万化，作威作福。从此，人们就把这种神物叫做“怒”(白语，即龙)。[3)]

白族龙文化的发展，曾经历过一个相当长的历史时期，其中尤以南诏、大理国为盛。这个时期在白族民间出现了许许多多龙的神话传说，而且大多十分神奇、生动和感人。据说，仅是原来的大理县，就有九十九条龙的说法一直在流传；苍山十八溪有十八条龙；洱海中有小黄龙、小白龙和大黑龙，还有龙王、龙母、龙太子和龙公主；大理古城下玉白菜四周有赤须龙和九条小金龙；下关温泉有火龙;此外还有大红龙、小青龙、独角龙、跛脚龙、母猪龙等等。凡是有水的地方，如沟、塘、泉、洞、大河、小河和水井中，几乎都有龙，同时也都有一篇或几篇龙的神话传说。[4)]

2) 白族龙文化向本主崇拜的演变

由于龙神话传说的大量涌现，由于佛教和汉文化的传入，也由于南诏和大理国统治阶级的提倡，白族先民对龙的类拜，此时已演变为本主崇拜，许多龙都被尊奉为本主，龙不但被神化，而且也被人格化了。如『九隆神话』中的第九个龙子，长大后成了南诏始祖细奴逻；绿桃村一个砍柴女子生下的男孩，跳进河海中变成了一条小黄龙，打败了凶悉的大黑龙；白族青年段东城见义男为，下河海折鲜，为民除去大吉，这些人物——细奴逻、男孩和他的生母、以及段赤城，死后都被奉为龙本主，受到人们崇敬，常享人间祭祀，白族人民每年都委过一次本主节。

在高度发达的白族文化体系中，白族龙文化作为一特殊的文化现象始终贯穿白族文化发展的整个过程，它以当事人和见证人的双重身份接受和目睹着白族文化的形成和完善。在它身上体现着白族文化多元性、开放性、兼容性和地域性、民族性的文化特征。

就白族龙文化现象而言，其组成因素中既有反映白族先民原始宗教意识的原生型龙文化，又有源于本民族土壤却受外来文化影响的次生型龙文化，而且还有本来产生于异质文化体系却为白族文化融摄、改造的复合型龙文化。在白族龙文化的形成过程中，汉族的龙文化、印度、藏传、大乘显密二宗的龙文化等外来文化对其完善起到了至关紧要的作用。

就其形成过程而言，远古时期的诸夏部族龙文化及三国时期汉民族龙文化对白族龙文化的影响结果基本上导致了白族龙文化的原生型诞生，而初唐后，印度密教、汉传显密二宗及藏传佛教对其的影响，便是形成了次生态型和复合型龙文化，其中尤以佛教对白族龙文化的影响至为关键且巨大。

3) 白族龙文化在民俗与民间文学中的传播

白族龙文化源远流长，早在远古时期，白族先民氐羌族群就已存在拜龙习俗，加之受到诸夏族群的龙文化的影响，渐形成较强的拜龙意识和崇龙思想。白族中存在的纹身习俗即为拜龙思想的历史见证。据调查，直至近代，大理白族中的段、王、张、杨、李、赵、何等姓氏均有纹身习俗。剑川、兰坪、云龙的白族无论男女都喜穿羊皮衣，羊尾巴保留得完好无损。

白族纹身历史悠久，史籍多有记载，『南诏野史』中，『南诏历代条』云：“哀牢山下，有妇名奴波息，

3) 李松，「论白族的原始崇拜与神话传说」，『文学界(理论版)』，2010(08)，p.207。
4) 周百里，「白族龙文化古今观」，『民族艺术研究』，1992(02)，pp.46-47。

生十女，九隆弟兄娶之，立为十姓，董、洪、段、施、何、王、张、杨、李、赵，皆刻画其身，象龙文，于衣后着尾。”此十姓皆为洱海区域白蛮大姓。

另据杨正权先生分析，『后汉书·西南夷列传』中所记“种人皆刻画其身，象龙文。”的“种人”不惟指哀牢夷，亦指焚人。此焚人即为白族先民的来源之一。自称九隆之后，并纹身以避龙虫之害或求龙蛇庇护，可从广泛流行于云南的『九隆神话』故事内涵窥见一斑。『九隆神话』实质上是感生(贞洁受孕)型民族起源神话与民族始祖神话的融合，并已熏染上了王权色彩，积淀着人类由母系氏族社会向父系氏族社会转变的历史过程。5)

『后汉书·西南夷列传』、东晋常璩撰『华阳国志·南中志』中均详细记载九隆神话故事，另外，该书还记录了三国时诸葛亮南征南中，为夷制图谱事。诸葛亮所作图谱着重强调了龙与夷之始祖关系，这既是对『九隆神话』故事历史积淀层和族源起源的肯定，又反映出汉文化中龙作为灵物崇拜阶段的神龙意识向少数民族龙文化开始有意识地渗透。

仔细分析『九隆神话』内容，可看出九隆神话产生的最初阶段，乃是原始的感生神话。而事实上，正是由于水的联结作用，感生型民族起源故事才得以与龙神话相溶。可以说，从『九隆神话』开始，逐渐演变、产生的各种龙文化中，其最原初、最深层的历史积淀层内涵正是崇水意识。正是由于崇水意识的深层积淀，白族龙文化才得以生存、发展。

4、白族龙传说的文学形象

1)『金鸡与黑龙』

这个传说流传在云龙白族人民中。通过金鸡战胜黑龙的故事，塑造了金鸡的英雄形象，反映了白族人民战胜洪水的美好理想。

相传金鸡山上有一只美丽善良而又聪明能干的金鸡，山下沘江里有一条凶恶残暴、横行霸道的黑龙。黑龙要把金鸡山及附近的老母山拉拢，截住江流，将金鼎坝子汇成海子，供自己享受。金鸡劝告不听，因而斗法。经过多次恶战，最后，金鸡唤起朝阳，踢开即将合拢的两山，排去洪水，黑龙被挂在山上了。

神话传说把山洪暴发、江水陡涨看作是人们讨厌的黑龙在兴妖作孽，把鸡声喔喔、朝阳四射，唤起一片光明，看作是金鸡聪明能干的表现。人民在金鸡身上寄托了美好的理想：金鸡迎着朝阳飞向东方，途中落下一根羽毛的地方就是凤羽坝，她一直飞到大理，永镇着人间的妖孽。金鸡可说是白族人民的化身。

2)『小黄龙与大黑龙』

在关于白族龙的神话传说中，『小黄龙与大黑龙』是最优秀的浪漫主义作品之一。这个民间传说源于古代洱海沿海居民常受水患之灾，他们相信并且希望有一种力量能战胜这强大的自然界的破坏力量。『小黄龙与大黑龙』正是通过为人造福的龙与恶龙斗、战胜恶龙，反映了古代洱海区居民战胜自然灾害的理想与艰巨的斗争。

在这个神话传说中:大黑龙盘据着洱海。有一次因寻找一副失盗的龙袍，竟不管人民的生命财产，用

5) 太丽琼，「九隆神话研究综述」，『保山学院学报』，2012.31(03)，pp.28-33。

尾巴闸起海尾不让水流出去，以至海水骤涨，淹没庄稼房屋。人们非常痛恨“大黑龙”。这时，“小黄龙”为民除害，在人们的集体力量支持下，他英勇、机智地打败了大黑龙，大黑龙逃出了洱海。

故事里的大黑龙，是一条恶龙，是一个丑恶的战败者的形象。小黄龙打瞎了他一只眼睛，并在他逃出洱海时，让他在崖石上触断了一只角。而小黄龙则是人们战胜洪水的理想的化身，备受人们赞扬。黄色是尊贵的颜色，称他为“小黄龙”，就已说明了这一点。在神话里，古代洱海居民把全部热情和浪漫主义的构思，都贯注在这个英雄形象身上了。

故事一开始就讲小黄龙的出生。小黄龙原先并不是一条龙，他妈妈在做姑娘时吃了一颗水里漂来的绿桃而怀孕，生下了小黄龙，不敢抚养。但小黄龙好好活着，白天有蟒蛇给他喂食，晚上有孔雀来遮露水。他妈妈隔了两天上山把他领回来，长得很快，到两三岁时就已是大娃娃了，能帮助妈妈砍柴、割草。这些浪漫主义的描写，给人一个鲜明的印象：小黄龙生来就不平凡，无怪乎他后来能够战胜大黑龙。

因为小黄龙本来是人，后来变成了龙，所以故事在发展进程中，并没有简单地把小黄龙写成神人，而是在浪漫主义的构思中对细节进行了许多合情合理的现实主义描写。小黄龙战胜大黑龙，并不是依靠虚幻的神力，而是靠了他的勇敢、机智和人们的集体力量。传说中是这样讲的:

> “……孩子(小黄龙)叫大家给他准备下一个铜龙头，两个铁龙爪，六把钢刀，扎九十九条草龙，再拣几百箩鹅卵石，蒸几百甑子馒头，准备几百只船，每只船都装上鹅卵石和馒头，并叫大家一齐来帮助他，他就能打败大黑龙。大家照他说的，把一切需用着的东西都准备全了。孩子头上戴起铜龙头，两手两脚套上铁龙爪，口里衔一把钢刀，两只手里各执一把，背上缚上三把。下水前他先把一条草龙丢下海里，只见海水翻滚起来，一会儿，草龙漂出了海，但是已经烂了。接着他又丢下了第二条、第三条龙，直到九十九条草龙被大黑龙打得稀烂，然后他才跳进海里。下海前他告诉大家：看见黄水翻就丢馒头，黑水翻就丢鹅卵石。孩子跳进海里后，变成了一条小黄龙，在海子里和大黑龙打起来，浪花涌起几十丈高。一会儿是黑浪花涌起来，大家就从船上扔下鹅卵石；一会儿是黄色的浪花涌起来，大家就丢下热馒头。大黑龙打饿了挨石头，小黄龙打饿了吃馒头。这样一直打了三天三夜，最后打败了大黑龙。”6)

通过这些描述，使得小黄龙成为一个富有现实感和人情味的活生生的英雄形象。恐怕也正是由于这个原因，才使得这个神话传说在白族人民的口中获得永久的生命力。

小黄龙和大黑龙的故事在大理白族各地都有流传，但主要流传地区是大理、邓川。两地流传的小黄龙战胜大黑龙的故事，主要情节和思想内容虽都相同，不过由于一些重要细节截然不同，两地的故事就容易混淆了。如邓川的说小黄龙的母亲是吃红鱼而怀孕，大理的则说吃绿桃而有身。邓川的说小黄龙在年幼时做了三件奇事：一件是一手能拔起一棵松树；一件是他放牛只须在地上划个圈，牛就不会走失；一件是他杀了牛吃掉，把牛尾插在石缝里后，拉牛尾牛还在叫。这三个小故事强调了小黄龙自小就不平凡：有神力、神术，而且非常聪明。这足以说明，他后来战胜大黑龙是不足为奇的。但是大理的没有这几个小故事，却又有小黄龙下龙宫给龙王医病，因披了一件黄色龙袍而变成小黄龙的情节。大理的传说小黄龙出生在绿桃村，他的母亲已成了绿桃村的本主，因而吃绿桃而怀孕的情节就无论如何流传也变不了。双川的传说小黄龙出生在弥苴河上的青素村，村旁有黄龙庙，弥苴河里又常有红鱼，故而吃红鱼而有身孕这一情节就为邓川的传说所特有。

由于口头文学有很大的变异性，因此大理小黄龙的故事往往与段赤城故事混淆起来，把小黄龙出生的传说拉到段赤城身上，或说段赤城就是洱海龙王。这种附会与混淆，主要原因可能是因为段赤城杀蟒与小

6) 张文勋，『白族文学史』，云南，云南人民出版社，1983年，p.31。

黄龙战胜大黑龙在思想主题上极为相似，他们又都原本是人，有功于民而祀为神的缘故。据『南语野史』引『白古记』，段赤城为洱海龙王之说，当在明代就已经有了。

3）反映与自然作斗争的龙的传说

这类作品当以牟伽陀制服蝌蚪龙、开辟鹤庆为最有影响，代表作有『密息岩清水龙与混水龙』、『苍山九十九条龙』、『赵宝龙降服母猪龙』、『小河山的传说』等。这些作品的特点是通过神化的人或劳动者去战胜恶龙。

『苍山九十九条龙』传说为：从前苍山洱海之间住着一个农民，既种庄稼也捕鱼。他经常从大河里捕捉很多黄鳝，一年两年，也就识得真龙了。后来他成了捉龙的人，一连捉了九十九条龙。可是大家不知道这是真龙，他拿到大理去卖，也没人要。最后他把一粪箕真龙倒在点苍山上，临走时对这些真龙说：“每年到五月十三，你们各自回家一转。”从此，苍山上有了九十九条龙，每年农历五月十三日成了他们的假日。龙王放假，雨水也就跟着下地了。另一说法中，是观音放龙而不是农民放龙。

『密息岩清水龙与混水龙』传说为：鹤庆灵地坡后干津地方，有一个清水龙潭，里面住着干津龙王。每年发大水，当地百姓常遭水灾，而大甸村又年年干旱，村民就想把干津龙王捉去给本村应水。干津龙王很害怕，就变成小白鸡躲在一家老百姓的柴堆里。它给这家主人托了一个梦：“明天有人来捉我，你千万不要说出我躲在你家柴堆里。”可是当地的老百姓因年年遭受水冲，对它很讨厌，主人就忙去告诉大甸村的人，把小白鸡捉住，放在一个罐子里拿回去。这消息被罗庄村的母龙知道了，就变成一个老太婆把罐子打开，干津龙王跳出来变成一条水牛，母龙也变成一条黄牛，一起逃走。跑到密息岩，被当地人吓住，跑不动了，只得在那里供水。从此以后，干津龙王就在密息山脚出清水，而罗庄村的母龙就在对面东山出混水，给这地方的居民灌溉田地。与此相类似的故事，如『美龙潭』说的是永北的龙跑到鹤庆来，永北的人来捉它，也变成白鸡，被主人说出来给永北人捉走；『母鸡龙搬家』则说鹤庆东山脚的母鸡龙因住处被人烧了而搬到了丽江。

『赵宝龙降服母猪龙』是讲苍山脚下崇益村青年赵宝龙为了降服为害庄稼的母猪龙，到鸡足山求师学道，苦练了十年，回村后与群众一起去斗争恶龙。他借助于避水珠到葶蓂溪找到恶龙，砍伤并降服了它。『小河山的传说』流传于元江白族中，传说为：一个山区龙潭的恶龙为了造一个大龙潭来住，脱掉龙壳放在包袱里，化名李升，到处去找合适的地方。后来到了甸索坝，他想背山堵住坝西的山口把坝子变成龙潭。夜里他变成龙背了山去堵，在半路上歇气时睡着了。天亮时被农民发现了小山，又找到李升，问明白后叫他把山搬走。双方引起争执，终于被老农识破了李升的诡计和歹毒心肠，撕毁了龙壳，打死了李升变成的小蛇。李升背的小山成了李升罪恶的见证。

在这些传说里，龙王的形象非常渺小，而人的形象则是高大的，不是龙支配人，而是人支配龙，战胜龙。龙，或则被农民捉去卖，或则装在罐子里；或则被迫供水，或由人规定假日；或被降服，改恶从善；或被诛杀，死有余辜。尽管有些人还要借助于法宝才能战胜恶龙，但总的说来劳动群众的形象是智勇兼备、崇高伟大的，而兴云作雾的龙在人民心目中已经渺小了。当然，这种描写仍然具有幻想的性质，然而它产生在现实生活基础上，证明了白族人民治水力量的强大，反映了生产力的提高，只不过是通过曲折方式以龙的故事来反映罢了。

4）反映社会生活的龙的传说

由于人们不断把大自然拟人化，把龙人格化，而且不仅人可变龙，龙也可以变人，龙的神秘性就逐渐减少，其人间性与社会性也就日益加强了。因而通过龙的生活反映人的生活，以及反映人与龙交往的故事，也就逐渐产生了。通过『幺龙王』和『白龙潭』的传说，可见一斑。7)

『幺龙王』的传说为：玉湖龙君有九子九女，命姑娘龙去看管沉在江边的金山，命幺龙王去看管沉在死海的银山。南诏王非常贪婪，又有罗荃助纣为虐，终于找到死海银山，驱赶两万人去淘死海，挖银山。幺龙王眼看不少劳动人民死于非命，为了拯救无辜人民，他自动泄干了海水。由于他违弃父命，受到严厉的惩罚，但他还热心给人民供水。

『白龙潭』的传说为；牛街东山的小白龙和从大理来抢占龙潭的红龙斗架，小白龙托梦给老和尚请求援助。二龙化为牛打架，老和尚帮助自牛赶跑了红牛。小白龙为了对老和尚表示感谢，就化为人形教老和尚从白龙潭挖沟接水，把水供给他。此外，还有不少龙潭借碗借东西、二龙相斗而求援于人的故事，都属于这一类。这些故事里的龙，具有人的性情，好恶哀乐，其生活与人世同，讲交情、婚姻、亲戚等等。幺龙王的同情劳苦群众，小白龙的求助于人，完全是现实社会生活的反映。龙与水晶宫虽是超现实的，但故事内容却是富于人间性和社会性的，具有强烈的现实感和生活气息。

5) 白族龙形象的转变

上面这些龙的传说，虽然传说本身不曾说明产生于何时，然而它们所反映的社会内容却具有鲜明的时代特色。它们由早期阶段基本上反映人与自然的斗争，发展到通过龙的生活反映现实社会的生活。神话色彩逐步减弱，现实成份逐步加强。但与元明清时期所产生的龙的故事相比，现实成份还未发展到极顶，神话色彩也还未降低到最小限度。

第一阶段龙的传说，可说都是白族人民与自然斗争的反映。龙的形象就是大自然的象征，或者是人们渴望征服大自然的力量的化身。到了南诏、大理国这一历史阶段，由于白族人民实际征服大自然、战胜大自然的斗争的开展，大规模治水与兴修水利的进行，龙的故事也有了新的发展，大量地反映了现实社会人与人的关系，也就是说龙的故事的主要矛盾，已由单纯与自然作斗争逐渐转化为社会性的斗争了。从反映与自然斗争的龙的故事看，龙的形象由强大转向渺小，甚至渺小到象一只鸡或一条黄鳝，与大黑龙相比，根本没有那种超人的力量。相反人的形象却越来越强大，不是靠神与好龙而是靠自己的力量去战胜恶龙。虽然这里反映了人民的理想，仍带有幻想性，但这些故事中的白族人民控制大自然的能力得到鲜明的表现，人们能征服大自然，战胜水患。这些故事的确反映了白族人民在由“龙支配人”到“人幻想支配龙”进而“人实际支配龙”这一漫长历史里程中所新跨出的步伐。从反映社会生活的龙的故事看，龙的形象不单是人格化了的自然本身，而是白族人民按照当时阶级社会中各种人物的形象创造出来的龙。幺龙王正好反映出专制主义统治时期具有民主思想和同情劳动人民的人的形象.争夺龙潭，或借物与人，也都反映的是人与人间的不同的交往关系.龙，已经与人结下不解之缘，成为社会关系中某种人物的称号，与人的区别无非是还保留有一些神话色彩而已。这些都足以说明，这些龙的故事具有浓厚的社会性和人间性，是与前一历史阶段龙的故事大不相同的。

7) 董秀团，「白族民间文学中人与自然关系的解读——以龙的故事为例」，『民族文学研究』，2008(04)，pp.140-145。

5、结论

由于白族先民博采中原文化之长，形成了以儒家文化承袭和转化为主，佛道共济，“三教共拜”为特征的本主信仰。在自身文化的特殊性上，“三教合一”在白族地区呈现独有的样貌。[]在白族文化体系中，龙文化作为一种特殊的文化现象，贯穿了白族文化发展的全过程，也体现了白族地区文化合流的特点。它以当事人和见证人的身份接受并见证了白族文化的形成和完善。它体现了白族文化的多样性、开放性、兼容性、地域性和民族性的特点，白族民俗中的龙形象所体现的“天人合一”思想在精神上与中原儒家文明与华夏传统龙文化不谋而合。

白族关于“龙”民俗文化的出现，有历史人文自然各方面原因，但任何神话传说都是人类社会发展到一定阶段的反映。因此，从白族龙传说的形成和演变来看，白族人创造这些龙的传说完全是基于社会生活的欲望和斗争。它用龙的形象来表达对邪恶的仇恨和蔑视，对真、善、美、和平的向往和赞美，以及展现白族人的智慧和力量。因此，龙的传说可以反映白族历史发展中演变的道德标准、审美心理、文化传统等。正因为如此，龙成为白族传说中的一个重要形象，丰富多彩的白族龙文化也成为白族民俗中的艺术瑰宝。

【차세대학자분과Ⅲ】 발표 ③

以“内卷”思想解读中国武术拳种与流派精细化产生的机制

Interpreting the Mechanism of Refinement of Chinese Martial Arts Styles and Schools with the Idea of “Internal Volume”

孫皓然*・李好根**

【目 录】

1. 序论
2. 拳种内卷促成流派的精细化产生
3. 武术内卷促成拳种的精细化产生
4. "内卷"思想成就中国武术的文化奇观
5. 结语

【초록】

문헌자료법과 논리분석법을 이용하여 중국 무술의 종류와 유파에 대해 "내권"으로 해석하여 중국 무술의 내재적인 가능성과 메커니즘을 분석하였다. 권종의 내권은 유파의 정밀화 생산을 촉진하는데, 그 기본동작의 내권, 조합동작의 내권, 특색기법의 내권은 유파의 정밀화 생산에서 서로 다른 작용을 한다고 생각한다. 무술안휘는 권술의 정밀화를 촉진하였는데, 미시적, 중간적, 거시적 3가지 차원으로부터 풍격이 판이한 권술의 정밀화를 위한 기초를 제공하였다. 내권의 사고방식은 중국 무술문화의 경이로운 경지를 만들어냈다.’경경세작’,’과밀성장’의 내권 사상과 내권 사상의 정•역응용은 중국 무술의 권법과 유파의 지속적인 발전을 가능하게 했다.

【키워드】 권법의 종류, 류파, 정밀화, 안감, 중국 무술

1. 序 论

为网络热词的内卷，无论是教育非理性的内部竞争还是职场收益努力比下降，其负面性解读已成定势。内卷，作为一个热词，有其社会环境的影响；作为一个概念，有其学术发展史。据韦森考证，康德在《判断力批判》一书中认为其是事物发展“演化、革命、内卷”三阶段的一个阶段。在康德对内卷进行形而上的哲思后，人类学与社会史学对其进行形而下对的研究。其中美国人类学家戈登威泽认为，内卷化是一种内部不断精细化的文化现象。[1]中国古代有无比璀璨的农业文明，从而产生“精耕细作”的“内卷

* 孫皓然 Sun Haoran 쑨하오란, 군산대학교.
** 李好根 Yi Hokun 이호근, 군산대학교.

化”的生产体系。“内卷”被定义为“系统在外部扩张条件受到严格限定的条件下，内部不断精细化和复杂化的过程”，“内卷即过密化的增长”。中国武术作为人类体育实践的代表，其种类繁多，风格独特，拳种流派“丰富多彩的多元化格局”更是成为中国武术最突出，外显的文化现象。[2]然而，是什么促成了这一文化现象呢？排除社会变迁、文化结构、地域特性等外部因素，本文试图以戈登威译的“内卷”思想解读中国武术拳种与流派精细化生产的内在可能性。

2. 拳种内卷促成流派的精细化产生

拳种可界定为：“流传有序，内容系统，而有区别与他家的拳术”。拳种内卷是指一个拳种中不断精细自身体系，如一个拳种不断精细化为多个流派、一个动作不断精细化为多种技术。武术拳种正是具备“拳种内卷”的现象，才能在拳种门户技术范式的革命、创新中为质变积累量的基础，[3]运用“拳种内卷”进行分析，解构拳种流派的生成机制，解读拳种的精细化生产。拳种作为“站在巨人肩膀上”的发明产物，是继承性的创新的成果而非颠覆式的创新，呈现出“道生一、一生二、二生三”的中国哲学思维，如同作为“母拳”太极拳，不断精细化分为赵堡、陈式、武式、杨氏、宋式等“子拳”之分。本文将拳种内卷概括为基本动作内卷、动作组合内卷和特色技法内卷。

1）拳种基本动作内卷在流派产生中的精细

“手之卷谓之拳”，拳种基本动作是构成拳种的基础，既表现为“手、眼、身、法、步”等内在功法之中，又呈现在“精、神、气、力、功”等外在气质之上，成为拳种的象征体现。拳种基本动作（冲拳、推掌、步型）在内卷中不断精细化，将作为“通识性基本技能”的基本动作精细化为各拳种的“专项性基本技能”。首先，“基本动作内卷”存在于各个流派的武术基本功之中。习练者在学习拳种之初时，往往都是从该拳种的基本动作开始学起，例如，学武术基本动作冲拳之时，不同拳种对其进行了其独特的精细化处理，如咏春拳对冲拳之“打”进行精细化处理，衍化为“标指手、圈手、伏手、膀手、捆手、拦手、耕手、摊手”等多种打法；[4]劈挂拳对冲拳之“打”，进行精细化处理，衍化为“撑拳、崩拳、挂拳、劈拳、炮、掖拳”等多种打法；其次，这种精细化处理还体现在“下盘”，在以马步为基础的步之姿态上，也进行精细化探索；如咏春在以二字钳羊马为基础的进行着精细化探索，生成“侧身马、追马、逼马、圈马、涉马、三角马、弹马”等步之新态。再次，这种精细化还体现在衍生动作数量的由一而多，又表现在其衍生动作功用的由简到繁。作为武术通识性基本动作的冲拳、马步等，在不同拳种中进行了各自的精细化生产，内卷为本质趋同但又各有功用的拳种流派基础技能。

2） 拳种组合动作内卷在流派产生中的多维性

“一招一式皆为拳”，武术在“手之卷谓之拳”的基础之上，将拳种动作进行内卷精细化为“头、肘、肩、手、胯、膝、足”皆可发力的“七拳说”。[5]以“七拳”之练形成组合动作，进行全方面系统提

1)郭继强，《“内卷化”概念新理解》，《社会学研究》第4期，2007年，第194页。
2)邱丕相,杨建营，《武术特征的文化研究》，《武汉体育学院学报》第7期，2009年，第5页。
3)戴国斌，《中国武术传播三题:文化史视角》，《上海体育学院学报》第3期，2016年，第56页。
4)孙皓然，《“弱者”的力量：咏春拳技术特征的文化研究》，《上海体育学院》，2021年。.
5)戴国斌，《中国武术传播三题:文化史视角》，《上海体育学院学报》第3期，2016年，第56页。

升身体的训练，以使习练组合动作更为具象化。首先，组合动作内卷是拳种套路定式的细化。武术套路是由n+1个组合动作形成的动作组合体，是为了方便传承而创造的记忆产物。以组合动作为内容的整体性训练，通过以局部的组合动作而达到整体效能提升的效果。如八卦掌在要求上盘“手如游龙”的同时还有着“步如趟泥”的规定范式，形成了八卦掌的组合动作——“动桩”，并以“动桩”为核心形成了套路。在套路的整体设定中，有对作为局部的组合动作有着精细化的要求，形成“手脚胸三心要空(三空)，两肩手脚心牙齿要扣(三扣)，背臀虎口要圆(三圆)，舌头掌要顶(三顶)”的“三圆三顶，三空三扣”之说。其次，组合动作内卷是套路劲力风格的延伸。一方面，组合动作内卷在细化拳种套路的同时，也活化了拳种套路，赋予其独特的风格。拳种组合动作通过空间布局对习练者身体进行“精耕细作”，以速度、力量、劲力等效度为表现指标，展现出不同拳种的劲力。这种拳种劲力的差异化生产又以各具特色的动作组合姿势体现出来。在组合动作内卷中，不断精细习练者的拳种本体化身体惯习，呈现出生活武术化的本体经验“形意如捉虾，太极如摸鱼，八卦如推磨”。[6]再次，组合动作内卷在流派之间呈现精微性迁移。例如，在杨氏太极拳中的“打虎式”其功用突显以进攻为主；武式太极拳中被称为“伏虎式”其突显以防守为主，在陈氏太极拳中称为“兽首式”其突显以“仿生”为主。从以上可见，不同流派的组合动作中，相同（似）的组合动作以不同的名称而区别于其他，表现出相同动作的功能差异特性。其在不同流派技术动作迁移变化较小，呈现出功能精微性。

3）拳种特色技法内卷构成不同拳种流派的延续性

拳种的特色技法内卷即拳种流派发展的“原型”，其使得拳种不断精细和复杂化，从而衍生为另一个“拳种”。一方面，特色技法内卷成为区分出拳种不同的标志。特色技法内卷是指拳种精细化实践中形成独具特色的技法，此外基本动作内卷和组合动作内卷都为特色技法内卷提供了技术支持。虽然基本动作内卷在不同的拳种中有着相似的设定逻辑，但基本动作却在不同拳种中体现其独特性。例如，从基本动作内卷上看，劈挂拳中的“麒麟步”“激绞连环步”等，南拳中的“骑龙步”“单蝶步”等，都属于特色技法内卷的产物。从组合动作内卷上看，八极拳的“铁山靠”“顶心肘”等，劈挂拳“双劈手”“开门炮”等，也属于特色技法内卷而成。另一方面，特色技法内卷成为流派延伸的基础。一个新的拳种流派本质上属于创新，这种创新是“继承性创新”，特色技法在不断内卷的精细化中衍生出流派创新的基础。例如咏春拳的各个流派在拳架、技法、功法等方面有所不同，但是咏春拳的特色技法仍然处于流派之基。例如，严咏春开创的咏春拳流派，便是观蛇鹤相争而获得灵感，在永春白鹤拳及少林拳法的基础之上融入缠绕吞吐的“仿生”理念，形成咏春拳。[7]又如李小龙开创的截拳道，他在以咏春拳为主的原有技术结构的基础上对诸多权重进行反思，不断精细原有技术结构，形成了截拳道。[8]

3. 武术内卷促成拳种的精细化产生

作为循“舞、击”两条道路发展的武术拳种，形成了“击有其术、武有其套”[9]“武有其理”“拳有其派”[10]的历史发展与文化成果。其既是中国文化“对野蛮的文明化进程”，也是武术拳种不断内卷，

6)李仲轩,口述.徐浩峰,整理，《逝去的武林》，北京;人民文学出版社，2006年，第87页。.
7)杨祥全,杨向东，《论中国女性对武术文化的贡献》，《体育文化导刊》第4期，2006年，第45页.
8)李洋，《李小龙功夫身体养成现象之再探－－基于福柯、德勒兹身体创造论视角》，《体育与科学》第1期，2020年，第64页.
9)蔡龙云，《华拳的起源与发展》，《体育报》第5期，1961年，第1页。.

不断精细化的结果。每个拳种诞生之初并非完全复杂精细的创造。武术的不同拳种虽然技术风格多样且内涵纷呈复杂，但无一不是由简单到复杂，由低级到高级，不断精细发展而来。[11] 对于习练者而言往往也体现出了由简到繁的精细化作用，体现在不同习练者“形成不同的技能，练就不同的专长，延伸了师之长”。[12] 在习得师之技艺的基础之上，又有着各自不同的精细化生产。例如，“神拳”李洛能8大弟子以8种专长为凭，其中车毅斋以顾法、刘奇兰以身法、宋世荣以内功著称。在“得到师父东西”之后又延伸了师之所长，通过各自的体悟将拳种进一步内化，呈现“一龙九子各不同”的精细化生产。“内卷”无疑起到了重要作用。

在一个拳种的习练和传承中存在不同层面的“内卷”，通过“得到师父的东西”的基础性学习，进而形成“延伸师之所长”的进阶性自学，又精细为“形成自己的东西”的突破性实践，从而形成一个新的拳种。内卷在拳种的精细化生产中具有不可替代的作用。笔者认为，武术的“内卷”存在不同层面，换句话说，习练者通过身体新体验在不同层面上不断精细并深化拳种，即“内卷”。在微观上，分为意、气、劲、神；在中观上，分为手、眼、身、步；在宏观上，分为攻击、防御。

1）拳种产生中的微观武术内卷

首先，“意”在各个拳种中发挥先在作用。一方面，“意”指通过思维意志支配形体和动作形成拳种招式的千变万化，拳谚有云：“心为主宰，以意行拳”。以意练拳，任何拳种都将“意”内涵其中，例如太极拳强调“意气君，骨肉臣”；意拳讲究“不求神骸似，但求神意足”，无一不将“意”放在首位。且武术中认为“意”的统筹是肢体和精神高度结合，若缺乏“意”的统帅，肢体动作则呈群龙无首之势，如《华拳》中描述“意为力之帅，力为意之军”。[13] 另一方面，武术讲究“以意领气”，从拳理上看内家拳重意,[14] 甚至认为有关“意”的训练要比单纯增强习练者的气力重要的多，学习内家拳皆要求“用意不用力，劲断意不断”，更强调对内意的修炼。拳种劲力的发挥存在“意动气至，气动劲达”递进逻辑，也证明了“意”在拳种应用中的先在作用。

其次，“气”是各个拳种共同性内核。[15] “气”既是中国武术追求的内在意蕴、例“先天之气”“后天之精”，又成为具身性的训练目标，如“内练一口气，外练筋骨皮”。一方面，“气”在不同拳种的体用之中皆有体现，例如，拳谚中有“以心行气、以气运身”；另一方面，武术讲究调息行气，要求练拳时“拳式呼吸”与技术动作相结合并体现在身形身法上，如少林拳“头正、项直、沉肩、坠肘、含胸、收腹、敛臀”旨在“形”正则气血运转顺。[16]

再次，“劲”是各个拳种精微性探索。其一，劲是力的精微化处理，在武术将“劲力”作为拳种核心能力来研究的同时，也在区分“力”与“劲”的不同。既将“劲”视作独立的实践体系，又离不开“力”的建构。例:力为有形,劲则无形,力方而功圆,力涩而劲速,力散而劲聚,力浮而劲沉,力钝而劲锐,此力与劲不同也。”。[17] 其二，“劲”是“力”的内向发展。在运动表现上，“力”形于外，“劲”运于内；在

10)戴国斌，《文化自觉语境中武术研究的探索与思考》，《上海体育学院学报》第5期，2014年，第65页。.
11)冯香红，《中华剑艺的分层技术结构及传承发展研究》，《北京体育大学学报》第8期，2021年，第122页。.
12)戴国斌，《门户对拳种、流派的生产》，《上海体育学院学报》第4期，2013年，第77页。.
13)段丽梅,杨国珍，《中国武术中“意”的文化内涵与阶序诠释》，《成都体育学院学报》第1期，2019年，第87页。.
14)田金龙,邱丕相，《武术内外家之争：焦点、论点及其分水岭》，《上海体育学院学报》第11期，2020年，第13页。.
15)阳家鹏,米晓宇,李守培，《基于“气”的传统武术内劲研究》，《文化遗产》第1期，2021年，第94页。.
16)花家涛,戴国斌，《近世以来的社会变迁与武术门户空间再生产》，《广西民族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第6期，2020年，第83页。.
17)曾卫红,高娅，《南、北少林武术同宗异派论－－以南、北少林武术风格特点为视角》，《哈尔滨体育学院学》第6期，2012年，第57页。.

形成机理上，“力”是外操，“劲”是内壮。例如：“有力能执数百斤，是骨节皮毛之外操也，故有硬力。如以全体之有劲，似不能执几斤，是精气神之内壮也”。[18]其三，不同拳种在“由力而劲”的发展路径中也形成各自对“劲”的探索。对于“劲”的理解也出现了过密性增长，如形意拳讲究“整劲”；太极拳多讲究“柔劲”；八卦掌多讲究“活劲”；劈挂拳多讲究“钻辘劲”等。同时将“劲”进行程式化、精细化。如形意拳一方面将发劲过程细化为“提劲、追劲、按劲”三个步骤，另一方面又将发劲部位精化为“上行肩催肘、肘催手、手催指；下行腰催胯、胯催膝、膝催足”。[19]可见，“劲”是各个拳种的精微性探索。

最后，“神”是各个拳种精微性意境。中国武术注重“精、气、神”内在神韵的追求，许多拳种流派皆有“神形兼备”“炼气化神”“练神还虚”之说，体现出武术的“内外合一”。神在武术中的表现“形者,神之质,神者,形之用”，[20]不同拳种通过肢体行为将“神似”置于“形似”之上，呈现为武术的象形化意境和会意性意境的两层意境。一方面，“神”即是拳种外在”形似”的神态模仿，通过模拟动物行为来命名武术动作。例如，太极拳的“野马分鬃”“揽雀尾”等，少林拳的“金鸡独立”“猴子爬杆”“雄鹰展翅”等，八卦掌的“狮子抱球”“鹞子穿天”“白蛇吐信”等，通过“形似”来描绘动作形态。另一方面，“神”又是拳种内在“神似”的神韵意会，通过功法、练法等体现出拳种不同的习练意境。例如武术家孙禄堂就曾以“形意拳钢球、太极拳皮球、八卦掌弹簧球也”，[21]形象的描述出了拳种习练意境的精微之别。

2）拳种产生中的中观武术内卷

首先，手法在不同拳种中有着精细化要求。“手法”是各个拳种不断精细化、复杂化的内卷成果。一是指对基本手法的不断精细化，例如在基本手型“拳、掌、勾、爪”的基础之上，八极拳使其与生产要素相结合创新出“八极拳的八大手法‘锤、斧、刺、叉、瓦、锛、镰’”[22]的手型精细化。二是对基本手法“拳、掌、勾、爪”的运用要求，例如强调技法力量的“拳击如钢炮、掌摔如炸弹、锤如铁沉”的效度精细化。三是对手法运用的空间布局要求。例如“高举不过眉,低按不下脐,左右不出肩窝”“两手运转,上不过眉,下不过膝”“上下一条线,两手围着操纵轴转”[23]的维度精细化。

其次，眼法在不同拳种起到传神之效。“眼法”是以头颈转动配合目光聚注来审视攻守的能力。各个拳种均讲究“眼随手动”“目随势注”，是拳种情感表达的窗口，表现为“击与舞”的两种不同形态。例如“左顾右盼”“上瞻下视”“前观后眸”、“远眺近暖”“正睹旁睐”等各种眼法,赋予拳种之“舞”志往神留之姿；[24]在拳种之“击”上又有着“向前进攻的动作,眼睛一定要注视着前方,如果看着旁边,该动作就失掉了进攻的意向”[25]的攻敌必救之态。

再次，身法在不同拳种起到传韵之效。“身法”是各个拳种中风格神韵的体现，表现为“闪、转、腾、挪”等技法要求，是不同拳种共同的要求。例如，《手臂录》中将技术要求具化为“身法乃艺之门户,进退盘旋,皆由身法”。身法在不同拳种中一般表现为演练风格，如劈挂拳“吞吐翻腾”之身法、八卦

18)徐汉元，《谈谈心、意、气、劲》，《武魂》第2期，2003年，第29页。.
19)董英杰，《太极拳释义》，上海:上海书店；1997年，第38页。.
20)赵铃，《民族文化是武术美学思想的沃土》，《西南民族学院学报(哲学社会科学版)》第2期，2002年，第296页。.
21)孙禄堂.孙剑云,编，《武学录》，北京;人民文学出版社，2001年，第177页。
22)王智慧，《价值理性与生存抉择:一位武术传承人的个体存续史》，《北京体育大学学报》第2期，2018年，第121页。
23)刘文武，《中国武术技击现实与境界的尴尬与救赎》，《武汉体育学院学报》第1期，2021年，第65页。
24)郭志禹，《武术形神论》，《上海体育学院学报》第3期，1997年，第7页。
25)蔡龙云，《武术运动基本训练》，北京：人民体育出版社，2013年，第209页。

掌“随走随换”之身法、大成拳“意感形随”之身法等。并在不同拳种中精细化为“活”的理解，如《纪效新书·拳经捷要》中记载对身法要求的描述“学拳要身法活便,手法便利,脚法轻固,进退得宜”。

最后，步法在不同拳种中起到筑基之本。第一，在武术中以“弓、马、仆、虚、歇”5种步法形态最为常见。拳谚中有“练武不练步，如房无支柱”“习武先扎三年马（步）”的说法，充分体现了步法在不同拳种中的基础性作用。第二、基础性步法在不同拳种中精细化为特定步型，成为拳种独特性之所在。例如劈挂拳之“鸡蹬步”、八卦掌之“趟泥步”、八极拳之“提跟步”、醉拳之“醉步”等等。第三，步法由腿而桩的新变化。如马步、弓步在南方武术中衍生为“不丁不八”“不弓不马”的新步型、“开档裹臀”的新规范。[26)]

3）拳种产生中的宏观武术内卷

尽管所有拳种都遵循“技缘形生、法依攻防”的原则，[27)]但不同拳种动作的攻防意向定位各有相同。一方面任何拳种都包含着攻防，另一方面不同拳种在“攻”与“防”的对手逻辑中，由身体的技术策略内化为心理的文化性格，分别体现为“迎拳而动、避锋而为、迎避结合”[28)]的三种类型。

首先，以“攻法”为主的拳种中，在“进攻是最好防守”的逻辑中形成挑战型的“迎拳而动”。例如硬打硬进特征的形意拳，其讲究“神攻、气攻、形攻”，形成“硬进直取”的技能功夫体现拳种迎难而上的文化性格。其次以“防法”为主的拳种中，在“无防守则不进攻”的逻辑中形成回避型的“避锋而为”。例如拧旋走转特征的八卦掌，其讲究“走转行圆”“避正击斜”，形成“横向闪避”的技能功夫体现拳种藏器于身的文化性格。最后，在“攻守兼备”的技击期待中形成了挑战回避混合的“迎避结合”。例如引进落空的太极拳，其讲究“随曲就伸”“舍己从人”，形成“螺丝缠劲”的技能功夫体现拳种权衡矛盾的文化性格。

总之，武术正因为在微观上形成“意、气、劲、神”的内卷，中观上“手、眼、身、步”的内卷，宏观上，“攻击、防御”的内卷，使得一个拳种不断精细化为多个流派、一个动作不断精细化为多种技术，促进了拳种的精细化生产，形成中国武术的拳种繁多，百家争鸣的文化奇观。

4. “内卷”思想成就中国武术的文化奇观

拳种、流派、功法的精而多，是中国武术之于世界武坛其他武技的最大区别。[29)]郭希汾在《中国体育史》中认为南北地理、气候、人的不同是造成中国武术门派众多的原因，[30)]但单从“内卷”角度看，在内卷的精细化下，拳种不断精细自身体系，一个拳种不断精细化为多个流派、一个动作不断精细化为多种技术,促进拳种门户技术范式的革命、为质变积累量的基础，从而成就了中国武术的文化奇观。

1）内卷思想中的“精耕细作”与内倾特质

26)戴国斌，《武术人类学研究：概念、议题与展望》，《体育学研究》第3期，2021年，第10页。
27)李富刚，《论武术套路之“势”》，《中国体育科技》第6期，2018年，第127页。
28)戴国斌,刘祖辉,周延，《“锻炼行道，练以成人”：中国求道传统的武术文化实践》，《体育科学》第2期，2020年，第24页。
29)申国卿，《文化学视野下的21世纪中国武术发展战略》，《北京体育大学学报》第6期，2009年，第38页。
30)郭希汾，《中国体育史》，上海:商务印书馆，1918年，第49页。

内卷的作用就是精耕细作，不断使自身内部系统更加复杂化、精细化。在武术发展中，武术内卷、拳种内卷也秉承着“内倾化”的思想，注重身体技术的“精耕细作”，拳种内部系统不断复杂精细；因此，武术观念产生“由外而内”的新变化，并呈现在南方文化“北方化（汉化）——南北均势——南方领先”的历史发展之中。例如，从“北方喜用腿、南方多练桩”之语可见，武术对于“腿”的功能定位出现了“内倾性发展”趋势。[31]由北方武术的击打性、移动性转向支撑性、稳定性，呈现出“由动而静”的运动表象，以腿部支撑之静开启了中国武术的内向型发展趋势。一方面，是拳种、流派对技术精细化的要求。例如，武术观念产生“由外而内”的新变化可具化为运动表象的“由动而静”、运动形式的“由腿而拳”（黄百家《内家拳法》“炼手者三十五、炼步者十八”可见拳多腿少）等；又如，在传统腿部训练“步法+腿法”的基础上进一步精细化为“桩功+发力”的新组合等。另一方面，是拳种、流派对身体动作微观化的要求。以“三节四梢”的微观化透视武术人的身体动作，在不同部位、身心、拳械的组合间构成了身体的深度协作，在“五合三催”“拳如绞花锤”身体实操中，理论化为以内导为主的内外三合组成的六合说、动作对应的相生相克五行说，动作构建的生生变化三才说等，这也体现出中国武术内卷思想中的“精耕细作”要求。

2）内卷思想中的“过密增长”催生了“突变”

在武术传承进程中，拳种在第一代独创之后，不同时段的传承者在该拳种的基本理论、动作、技法等基础上进行着集体生产，不断丰富自身拳种体系，倾向于技术数量的积累，形成内卷的“过密增长”。一方面，拳种内卷“量”的积累产生新的流派。“流派是武术发展繁荣的景观，是后学体验探索武术的路径，也是一幅幅进入武术别样思想的地图”。首先，在拳种内卷而“过密增长”的过程中，不仅存在习练者“墨守成规”的继而承之，更有着传习者“推陈出新”的传而续之。[32]例如，“形意拳最初只有践、钻、裹三拳，八卦掌最初只有单换掌和双换掌，其传承者从形式方面去发展本门武术，于是编创了众多越来越复杂的套路。形意拳就产生了连环拳、杂式捶、十二形拳等套路，八卦掌就编出了六十四掌、七十二截腿等套路”。[33]其次，拳种内卷增长后，不同的武术拳种各自倾向于传承向度的“守旧（正）”，技术向度的“创新”。武术的传授内容往往表现出对“新与旧”的追求，以“旧”的传授内容来继承门户技术，以“新”的传授内容来推进武术技术的新发展。[34]而个体在对习练拳种进行“革新”的过程中，呈现出第一代独创与第二代的集体生产再到第三代“形成自己的东西”的求新之路。例如形意拳各流派的形成。

另一方面，拳种内卷“质”的突变产生新的拳种。在“革新”过程中，不断追求内外层面的“超越”，引起拳种内卷发生“质”的突变，从而生产出新的拳种。以内向细化拳种引起拳种的内部结构的质变。例如，截拳道的创始人李小龙，在随叶问习练了咏春拳后，将之进行“细化革新”，产生出了新的拳种“截拳道”。“截拳道”则是在咏春拳的拳种内卷的“质”的突变，以“截”的技法要诀进一步精细化了其母拳，产生出一种风格独特，自成体系的拳种。

31)戴国斌，《武术人类学研究：概念、议题与展望》，《体育学研究》第3期，2021年，第10页。
32)刘启超,戴国斌,李文鸿，《中国武术师徒制文化传续论》，《上海体育学院学报》第8期，2021年，第63页。
33)严天放，《大成拳与截拳道的启示》，《武林》第1期，1997年，第4页。
34)戴国斌，《中国武术传播三题:文化史视角》，《上海体育学院学报》第3期，2016年，第56页。

3）内卷思想的正反向应用成就了武术“差异化”生产

中国武术实现“差异化”的生产，是内卷思想的正向应用和反向应用的结果。

首先，正、反向的内卷思想缺一不可。若只有正向的内卷思想，就会容易陷入文化的自我复制。欲以得到“师傅的东西”体现武术文化遗产“保其真”的继承样态，却难以实现武术技术的创新和拳种流派的产生。同样，若只有反向的内卷思想，就会容易陷入异化。欲以“形成自己的东西”体现武术文化遗产“至其极”的创新样态，却容易误入内卷造成拳种流派的“异化”的歧路。例如，打着传统幌子来“造拳”，一路变二路，刘氏拳变王氏拳。[35)]

其次,正、反向内卷思想的协同（双向）性。正向内卷思想的应用，如同习练者“独练专长”的实践过程，是“熟能生巧巧生神”(清《六合拳论序》)而“技,精而入乎神”(《岳武穆九要论》)的专精过程。而反向内卷思想的应用，则是“举一反三”的探寻过程，“由一个问题漫游到另一个问题、由一种事情诱发另一种事情”的变通或贯穿。[36)]对于一个拳种的习练,内卷是既是习练过程中的必然经历，身体技术因内卷而专精；又因个体能动性而寻求差异化（即“应该怎么练”向“还能怎么练”的过度），进入反向内卷思想应用阶段。从正向内卷思想向反向内卷思想的转化也意味着习武者进入了一个新的境界，例如形意拳师李仲轩认为“形成自己的东西”是练拳的新境界。[37)]

再次，正、反向内卷思想互异共生。内卷系统与拳种个性，如同太极图的阴阳两面，内卷体系促使拳种体系精细化的同时，为差异化的形成提供了技术支持；而反向内卷思想发展了拳种差异的同时，也有助于完善已掌握的拳种体系，二者作用看似不同，实则有着互异共生的关系。一种拳术因内卷而不断精细化，有助于拳种新理解与新体验的产生，这是拳种流派产生之源。[38)]而如果拥有习练体悟的新理解后，则是对自身知识的获得对已有武技的一种升华。

5. 结束语

中国武术拳种繁多，流派各异，是武术技艺精细化发展的产物，这离不开中国传统社会结构及传统思想的影响。然而，拳种流派的诸多技术体系并非完全独立的产生，不同拳种流派的技术之间也并非完全“风马不及”的独自创造，无不是在一定的武术内卷、拳种内卷的基础上，融合了中国传统文化而产生。如果没有“内卷”体系为基础，武术就不能实现精细化的产生，因此，内卷体系及内卷思想的应用是武术拳种和流派精细化衍生成为可能的内在机制。

35)马振川,张道鑫,支川,康德强,杨祥全，《传统武术文化自信的生成机制与提升策略》，《体育文化导刊》第9期，2021年，第48页。
36)赵汀阳，《心事哲学之二》，《读书》第4期，2001年，第133页。
37)李仲轩,口述；徐浩峰,整理，《逝去的武林》，北京;人民文学出版社，2006年，第61页。
38)武超,王江鹤,吕韶钧，《论民间习武共同体之生态保护》，《上海体育学院学报》第6期，2017年，第90页。

【차세대학자분과Ⅲ】 발표 ④

中国传统技艺类非物质遗产受众及受众保护评价体系研究
——以宣纸传统制作技艺为案例

吕尚枝*

【目 录】

1. 绪论
2. 传统技艺类非物质文化遗产的受众
   1) 传统技艺类非物质文化遗产的受众
   2) 传统技艺类非物质文化遗产的受众相互关系
3. 中国传统技艺类非物质文化遗产受众保护评价指标体系构建
   1) 评价指标构建的原则
   2) 中国传统技艺类非物质文化遗产受众保护评价指标体系的构建
   3) 评价指标权重的确定
   4) 传统技艺类非物质文化遗产受众保护评价模型的确定
4. 宣纸制作技艺基于受众保护评价指标体系的受众保护路径
   1) 基于传统技艺类非物质文化遗产受众保护评价体系的宣纸制作技艺受众保护分析
   2) 宣纸制作技艺基于受众保护评价体系的成就
   3) 宣纸制作技艺基于受众保护评价体系存在的问题
   4) 宣纸制作技艺基于受众保护模型的保护路径
5. 结论

【摘要】

传统技艺类非物质文化遗产保护是中国非物质文化遗产保护的重要组成部分，受众是衡量保护是否真实有效的有力杠杆。论文通过分析，确定传统技艺类非物质文化遗产的受众包括传承人及传习人、专业受众、社区、一般大众，并通过分析发现传承人及传习人、专业受众共同处于受众保护的核心部位，社区受众处于二者外围位置，一般大众处于最外围的关系。同时又通过文献分析法、定型与定量相结合、专家咨询法等方法，确定受众保护评价体系，其中包括一级标题4项、二级标题12项，三级标题28项，共同构成了传统技艺类非物质文化遗产受众保护评价指标体系。通过受众评价体系，评价目前宣纸制作技艺受众保护存在的问题和不足，发现宣纸在制作技艺存在传承人收入不高、原材料供应不足、社区参与度不高、媒体宣传针对性不强等问题，并有针对性地提出解决方案。

【关键词】 传统技艺；非物质文化遗产；受众；宣纸；保护；专业受众；社区受众；一般大众。

* 한서대학교 대학원 한중언어문화학과 박사과정（634666899@qq.com）。

1. 绪论

所谓传统技艺类非物质文化遗产，是指历史上传承下来的，旨在满足人们的衣食住行用等物质需求和精神需求的知识、技能以及相应的活动，它既具有现实的实用价值和经济价值，又具有很高的审美价值和艺术价值[1)]。2006年5月20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发出『关于公布第一批国家级非物质文化遗产名录』的通知，批准第一批国家级非物质文化遗产名录，并予以公布。『国家级非物质文化遗产名录』将中国非物质文化遗产划分为十大类，即民间文学、民间音乐、民间舞蹈、传统戏剧、曲艺、杂技与竞技、民间美术、传统手工技艺、传统医药、民俗[2)]。 其中传统技艺类非物质文化遗产被命名为“传统手工技艺”，是非物质文化遗产保护中非常重要的组成部分。2008年在公布第二批国家级非物质文化遗产名录时将‘传统手工技艺‘更改为‘传统技艺‘，去掉‘手工‘的限制无疑是扩大这类非遗的范围[3)]，此后一直沿用至今。中国传统技艺类非物质文化遗产是中国非物质文化保护中的重要组成部分，以中国现有世界为例物质文化遗产项目，截至2022年10月，中国入选联合国教科文组织非物质文化遗产名录（名册）项目共计42项，其中传统技艺类非物质文化遗产15项；国家项目保护与申报方面，国务院先后于2006年、2008年、2011年、2014年和2021公布了五批国家级非遗代表性项目名录，共计1557个国家级非物质文化遗产代表性项目，其中，国家级传统手工技艺类项目共计629项[4)]。

传统技艺类非物质文化遗产具有非常重要的价值，韦贻春在「对民族传统工艺现状、价值及其发展的思考」中认为，传统技艺具有科技价值、人文价值、历史价值、经济价值[5)]。

传统技艺类非物质文化遗产保护，指确保传统技艺类非物质文化遗产生命力的各种措施，包括这种遗产各个方面的确认、立档、研究、保存、宣传、弘扬、传承（特别通过正规和非正规教育）和振兴[6)]。然而在技艺类非物质文化遗产保护过程中却存在各种问题，如保护性破坏、技艺私有化、传承人申报造假等。如何才能正确评价传统技艺类非物质文化遗产保护效果呢？

学界一直试图寻找合适的评价机制，姚莉对于非物质文化遗产申报角度进行评估，“从非遗的品质评估、价值评估、濒危度评估、保护评估四个维度构建了非遗资源价值评估指标体系”[7)]。刘红萍[8)]从法律保护、制度保护、项目保护、传承保护、情境保护、公众宣传与教育等六个角度进行非物质文化遗产保护评价。除此之外，还有郭剑英等[9)]、仇兵奎[10)]、王纬纬等[11)]、崔光丽等[12)]， 佟玉权、赵玉玲试图对对非物质文化产业化利用途径进行评价[13)]。肖曾艳针对非物质文化遗产产业化困境，提出“ 建立非遗产业

1) 姚伟钧，于洪玲，「中国传统技艺类非物质文化遗产的分类研究」，『三峡论坛』，2013年第6期，p.70。
2) 王文章，『非物质文化遗产概论』，北京：文化艺术出版社，2006，pp.313-314。
3) 姚伟钧，于洪玲，「中国传统技艺类非物质文化遗产的分类研究」，『三峡论坛』，2013年第6期，p.69。
4) 中国非物质文化遗产网·中国非物质文化遗产数字博物馆：https://www.ihchina.cn/project_details/25160 [2022-10-10]。
5) 韦贻春，「对民族传统工艺现状、价值及其发展的思考」，『民族论坛』，2007年第2期，p.42。
6) 联合国教科文组织，『非物质文化遗产公约』，2003年10月。
7) 姚莉，「“申遗”视域下非物质文化遗产资源价值评估指标体系的构建——以贵州省从江县侗族非遗资源评估为例」，『贵州师范大学学报·社会科学版』，2022年第1期，p.99。
8) 刘红萍，「非物质文化遗产保护评价指标体系初探」，『社科纵横』，2009年第24期，pp.249-254。
9) 郭剑英、余晓萍，「非物质文化遗产价值评价—以四川西部少数民族地区为例」，『乐山师范学院学报』，2009年第4期，pp.91-93。
10) 仇兵奎，「非物质文化遗产整体性保护效果评价体系」，『晋中学院学报』，2018年第4期，pp.29-32。
11) 王纬纬、杨豪中，「非物质文化遗产综合评价体系构想」，『西北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2012年第2期，pp.77-81。
12) 崔广丽、崔朝辉，「赫哲族非物质文化遗产评价体系构建」，『边疆经济与文化』，2017年第11期，pp.46-47。
13) 佟玉权、赵玲，「非物质文化遗产保护利用的产业化途径及评价体系」，『学术交流』，2011年第11期，pp.187-191。

化选择标准评价体系”[14]。陈炜等[15]对民族地区体育非物质文化遗产活态传承绩效进行评价指标体系及模型构建。郑乐丹[16]对非物质文化遗产资源价值评价指标体系进行构建。许春华等[17]、梁圣蓉等[18]、张宏乔[19]、蒋丽芹等[20]对非物质文化遗产旅游资源价值进行评估。崔景辉等[21]、闻年富[22]、赵伟乾[23]、程美超等[24]、陈荣杨等[25]对体育类非物质文化遗产资源价值、旅游开发价值、传承体系等几个方面建立评价体系。介佩玺等[26]、付航等[27]对非物质文化遗产扶贫评价体系进行构建。秦祖明[28]非物质文化遗产微信公众号服务质量评价体系进行研究。

总体来说，对于非物质文化遗产保护评价模型研究中，多数评价机制出于产业化价值和旅游价值出发，对技艺类非物质文化遗产保护效果评价关注严重不足，研究深度不足。因此，关注技艺类非物质文化遗产保护效果是非常必要且迫切的。

另外，在所有关系评价机制的研究中，关注受众的评价机制几乎没有。受众是个传播学的概念，但随着时间的推移，受众研究不仅涉及传播学，更有心理学、文化学、地理学、经济学等学科出现交叉。所谓受众，传播学四大奠基人之一哈罗德·拉斯韦尔（Harold DwightLasswell）[29]认为，是信息的接收者[30]。本研究引用受众的概念，认为传统技艺类非物质文化遗产的受众即接收非物质文化信息的各个群体和个人，包括传承人、专业受众、社区、一般大众。受众作为传统技艺类非物质文化遗产的信息接受者，同时也是检验非物质文化遗产保护效果的最终评判人，是非物质文化遗产保护的最终归宿。受众在非物质文化遗产保护过程中，不是被动的，而是能动地参与非物质文化遗产保护的。因此对技艺类非物质文化遗产受众进行分析具有非常重要的意义。传统技艺类非物质文化遗产受众保护是指为促进传统技艺类非物质文化遗产保护效果，对其受众采取的各种保护措施。对受众保护研究，陈茜朦[31]关注非物质文化遗产虚拟展览馆用户体验评价与量化模型的研究，注意到用户的反应对非物质文化遗产虚拟展览馆的重要性。张素霞[32]从利益相关者角度，通过问卷调查法和几何分析法从地方政府、旅游企业、社区居民、遗产传承人角度建立保护效果模型，该研究角度新颖，对技艺类非物质文化遗产保护有非常重要的意义，然

14)肖曾艳，「非物质文化遗产产业化的困境与突破」，『学术论坛』，2012年第1期，p.70。
15)陈炜、高翔，「民族地区体育菲物质文化遗产活态传承绩效评价指标体系反模型构建」，『青海民族研究』，2016年第4期，pp.81-85。
16)郑乐丹，「非物质文化遗产资源价值评价指标体系构建研究」，『文化遗产』，2010年第1期，pp.6-85。
17)许春华、王曙等，「非物质文化遗产旅游产业化价值评价体系构建实证研究—以武威市为例」，『通化师范学院学报（人文社会科学）』，2018年第2期，pp.31-40。
18)梁圣蓉、阚耀平，「非物质文化遗产旅游价值评估模型」，『南通大学学报·社会科学版』，2011年第6期，pp.102。
19)张宏乔，「非物质文化遗产的旅游资源价值评价」，『河南教育学院学报(哲学社会科学版)』，2015年第4期，pp.19-23。
20)蒋丽芹，「非物质文化遗产旅游价值评价体系构建及应用」，『边疆经济与文化』，2014年第1期，pp.9-11。
21)崔景辉、付丽敏，「非物质文化遗产武术项目评审体系的建立」，『首都体育学院学报』，2016年第2期，pp.137-141。
22)闻年富，「湖北省体育类非物质文化遗产保护绩效评价研究」，湖北大学硕士学位论文，2013。
23)赵伟乾，「河北省非物质文化遗产武术项目管理评价体系研究」，河北师范大学硕士学位论文，2018。
24)程美超、王舜，「体育非物质文化遗产价值评价指标体系构建研究」，『淮北职业技术学院学报』，2020年第5期，pp.24-27。
25)陈荣杨，「体育非物质文化遗产旅游开发价值评价系统研究」，深圳大学硕士学位论文，2019。
26)介佩玺、武歆华，「非物质文化遗产开发扶贫评价指标体系构建研究」，『新西部』，2019年 7月下旬刊，pp.25-27。
27)付航、文冬妮，「广西非物质文化遗产助力精准扶贫绩效评价指标体系构建」，『产业创新研究』，2021年第24期，pp.85-87。
28)秦祖明，「非物质文化遗产微信公众号服务质量评价体系研究」，『山西档案』，2018年第7期，pp.79-81。
29)哈罗德·德怀特·拉斯韦尔（英语：Harold Dwight Lasswell，1902年2月13日－1978年12月18日），1950年代至1970年代美国社会科学的泰斗，各种学问科技整合运动的主要人物。曾于耶鲁大学学习政治学，并于同校任教。美国学术联合会（American Council of Learned Societies）褒扬拉斯韦尔是“所有社会科学的大师，各领域的先锋”（Master of all social sciences and pioneer in each）。
30)郭庆光，『传播学教程』，北京：中国人民大学出版社，1999，p.50。
31)陈茜朦，「非物质文化遗产虚拟展览馆用户体验评价与量化模型研究」，重庆大学硕士学位论文，2019。
32)张素霞，「基于利益相关者理论的传统手工艺类非物质文化遗产保护效果评价模型构建和保护体系研究」，北京交通大学硕士学位论文，2014。

而利益相关者分析中，忽略了消费者，这一最重要的受众。

宣纸制作技艺是中国传统制作技艺的杰出代表。自唐代诞生以来，历经宋、元、明、清、中华民国、中华人民共和国，技艺传承几乎从未出现断层，经过不断创新，至今机械设备仍无法替代。2006年宣纸制作技艺入选国家非物质文化遗产代表作名录，2009年入选入选联合国教科文组织人类非物质文化遗产代表作名录。宣纸制作技艺是传统技艺类非物质文化遗产保护的典型案例,对宣纸制作技艺研究的专著有『宣纸制造』[33]、『中国宣纸』[34]、『中国宣纸史』[35]等，主要介绍了宣纸技艺的发源、发展和保护、传承等内容。学术论文主要研究角度分别为关系宣纸制作技艺的保护，如汤夺先等[36]、戴健[37]、陈圆圆等[38]关注宣纸制造技艺的生产性保护，郭延龙等[39]关注宣纸制造技艺传承的问题，潘彤彤等[40]关注宣纸出口问题。对宣纸制造技艺的受众研究几乎没有，对受众保护研究也没有。

本研究以传统技艺类非物质文化遗产受众为对象，通过文献分析法、定型与定量相结合、层次分析法等方法，通过分析宣纸制作技艺的受众、受众保护，试图准确定义传统技艺类非物质文化遗产保护中受众，进而而建立非物质文化遗产受众保护的三级评价体系。以期使中国传统技艺类非物质文化遗产的保护的评价机制更加完善，传统技艺类非物质文化遗产保护可以走上良性发展轨道。然后通过传统技艺类非物质文化遗产受众保护评价机制，分析宣纸制作技艺目前取得的成就以及存在问题，并通过分析找到解决途径。

2. 中国传统技艺类非物质文化遗产的受众

麦奎尔[41]认为，受众这个概念起源于古代公开的剧场演出或者音乐演出，以及那时的体育比赛和展览。最早意义的“受众”概念，是指人们在某个物理地点的聚会[42]。同时他还分析了传统受众与现代受众对相同点和不同点，认为2000多年前的受众是现代受众的雏形。传播学四大奠基人之一的哈罗德·拉斯韦尔（Harold DwightLasswell）1948年发表了『社会传播的结构与功能』一文。在这篇文章中，拉斯韦尔明确提出了传播过程及其五个基本构成要素，即：谁(who)、说什么(what)、通过什么渠道(in which channel)、对谁(to whom)说、取得什么效果(with what effect)，即“5W模式”[43]。其中对谁（to whom）就是受众，受众就是信息的接收者。这个模式简明而清晰，是传播过程模式中的经典。后来的很多学者都对此进行过各种修订、补充和发展，但大都保留了它的本质特点。这一模式还奠定了传播学研究的五大基本内容：即控制分析、内容分析、媒介分析、受众分析以及效果分析。从此受众研究正式成为传播学研究重要组成部分，受众的概念也随着传播技术的发展不断迁移，从读者到听众再到观众，最后到传统技艺类

33)潘祖耀，『宣纸制造』，北京：中国林业出版社，2007。
34)曹天生，『中国宣纸』，武汉：华中科技大学出版社，2016。
35)吴世新，『中国宣纸史』，太原：山西经济出版社，2016。
36)汤夺先、伍梦尧，「非物质文化遗产的生产性保护：内涵意蕴、问题呈现与学理反思」，『文化遗产』，2017年第6期，pp9-15。
37)戴健，「作为非物质文化遗产的宣纸制作技艺保护与传承」，『内蒙古大学艺术学院学报』，2016年，pp.102-107。
38)陈圆圆、樊嘉禄、董克，「宣纸制作技艺保护现状调研」，『合肥学院学报』，2020年第3期，pp.38-42。
39)郭延龙、郑晶晶，「安徽省宣纸制作技艺传承与发展问题探讨」，『兴义民族师范学院学报』，pp53-57,96。
40)潘彤彤、祁邈、曹小杰，「宣纸出口现状分析与对策研究」，『科技资讯』，2022年第11期，pp.104-106。
41)丹尼斯·麦奎尔(DenisMcQuail)，英国传播学家，荷兰阿姆斯特丹大学传播学终身教授，“欧洲传媒研究小组”成员，『欧洲传播学杂志』三位创始人之一。曾就读于牛津大学并获得历史学学位，后在利兹大学获得博士学位。曾先后在美国宾夕法尼亚大学、哥伦比亚大学、哈佛大学、俄罗斯莫斯科大学，芬兰坦佩雷大学，英国南安普敦大学等大学担任教授或客座教授。后在阿姆斯特丹大学任教长达二十多年。丹尼斯·麦奎尔在传播学领域有着漫长而辉煌的研究经历。从1968年起，麦奎尔出版了十几本著作，广泛涉及传播研究的诸多领域。
42)Denis Mcquail，『Audience analysis』，SAVE Publications，1997，pp.2-6。
43)[美]拉斯韦尔著，何道宽译，『社会传播的结构与功能』，北京：中国传媒大学出版社，2012，p.35。

非物质文化遗产受众。

1）传统技艺类非物质文化遗产的受众

传统制作技艺类非物质文化遗产的受众，是传统制作技艺类非物质文化遗产的信息等接收者，也是传统制作技艺类非物质文化遗产保护效果的反馈者。具体来说包括传承人及传习人、专业受众、社区、一般普通大众。他们都是传统制作技艺类非物质文化遗产的参与者、评价者、传承者，对宣纸制作技艺保护具有至关重要对作用。

（1）传承人及传习人

『中华人民共和国非物质文化遗产法』第二十九条国务院文化主管部门和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文化主管部门对本级人民政府批准公布的非物质文化遗产代表性项目，可以认定代表性传承人。非物质文化遗产代表性项目的代表性传承人应当符合下列条件：熟练掌握其传承的非物质文化遗产；在特定领域内具有代表性，并在一定区域内具有较大影响；积极开展传承活动。认定非物质文化遗产代表性项目的代表性传承人，应当参照执行本法有关非物质文化遗产代表性项目评审的规定，并将所认定的代表性传承人名单予以公布[44]。

通过传承人的传授，习得、接受、掌握某项遗产的技术、技能，并有可能成为新的传承骨干的人，一般被称作 “继承人”、“接班人”，可以统称为 “传习人”[45]。

传承人和传习人是技艺类非物质文化遗产非常重要的受众，他（她）们最直接接触技艺类非物质文化遗产，是技艺类非物质文化遗产的直接受众。在非物质文化遗产保护中，既重视“传承人”的抢救，又加强 “传习人” 的培养，才有可能使非物质文化遗产 “世代相传” 下去[46]。传习人习得什么样的技艺，能不能创新发展并使其发扬广大，决定了未来该项非物质文化遗产的发展方向，因此，技艺类非物质文化遗产传习人保护非常重要。

（2）专业受众

专业性一般是指具有非常鲜明的专业、需要学习很多有一定深度的专业知识、不是所有人都能轻易入手的特性。必须要具备某方向的专业素质才能胜任该职位，而这种专业素质，是在普通生活中很难培养甚至不能培养的。

技艺类非物质文化遗产专业受众是该项非物质文化遗产技艺生产和传承服务的主要对象。如罗盘主要服务对象是风水师。当然也有很多技艺类非物质文化遗产并没有特别专业的服务对象，他们等技艺用来满足绝大数人等日常生活，如木工制作技艺、绿茶制作技艺等。但是在这些受众中，也存在一部分专业技能精湛的群体，如绿茶制作技艺的部分受众——茶艺师群体，这个群体精通辩茶、泡茶、品茶等专业知识，对技艺传承和发展有相当重要对作用。因此，我们将该类群体也划入专业群体的范畴。因此，技艺类非物质文化遗产专业受众是指该技艺主要服务对象或者具备与该技能发展具有很强决定能力的群体都被称为专业受众。专业受众是技艺类非物质文化遗产最重要的受众，他们决定该项技艺类非物质文化遗产是否具有

44)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中华人民共和国非物质文化遗产法』，2011，p.2。
45)祁庆富，「论非物质文化遗产保护中的传承与传承人」，『西北民族研究』第50期，p.120。
46)祁庆富，「论非物质文化遗产保护中的传承与传承人」，『西北民族研究』第50期，p.122。

存在价值，能否被传承下去，因此对专业受众对保护也是非常重要的。

（3）社区受众

“社区”一词在中国古代并不存在，是19世纪末中西文化交流的结果。“社区”一词最早出现德国社会学家腾尼斯（Ferdinand Tonnies）[47]。1948年10月16日，费孝通在学术期刊『社会研究』上发表一篇『二十年来之中国社区研究』的论文。论文中谈到“偶然间，我就想到了‘社区’两个字样，后来大家援用了，慢慢流行[48]。”100多年来，对于“社区”的概念众说纷纭。腾尼斯认为“社区”是指那些有着相同价值取向、人口同治性较强的社会共同体，其体现的人际关系是一种亲密无间、守望相助、服从权威且具有共同信仰的共同风俗习惯的人际关系；这种共同体关系不是社会分工的结果，而是由传统的血缘、地缘和文化等自然造成的；这种共同体的外延主要限于传统的乡村社区[49]。但是随着工业化的不断发展，乡村社区不断解体，具有新的形态的社区不断产生，该定义不再适用。2001年，中国社会学者徐永祥将社区定义为：一定数量居民组成的，具有内在互动关系与文化维系力的地域性的生活共同体；地域、人口、组织结构和文化是社区构成的基本要素[50]。

（4）普通大众受众

“大众”一词译自英文的mass，原意是“黑压压的一片，显然指的是数目众多、难以统计的人群[51]。美国社会学家刘易斯·沃兹认为“大众”包括刘七个方面的内涵：由大量的人所构成；广泛地分布在地球上；由文化、阶层、地位、职业等异质的成员所构成[52]；是大多数匿名者的集合；是无组织的；无支配个人行动的共同规范；由彼此间毫无接触的个人构成的。依照“大众”的概念，我们认为传统技艺类非物质文化遗产受众中的普通大众是指除传承人、专业受众、社区以外的不特定的大多数。他们或通过网络接触、或通过朋友相传、或通过旅游接触到传统技艺类非物质文化遗产，但是多数人不深入探讨，只是作为普通兴趣爱好了解传统技艺类非物质文化遗产。普通大众是传统技艺类非物质文化遗产受众中的大多数，他们决定了传统技艺类非物质文化遗产传播的广度，也是传统技艺类非物质文化遗产受众保护中应该关注的重要部分。

2）传统技艺类非物质文化遗产的受众相互关系

传统制作技艺类非物质文化遗产的受众包括传承人及传习人、专业受众、社区、一般普通大众。他们都是传统制作技艺类非物质文化遗产保证中不可或缺的组成部分。然而由于他们所处的位置不同，对传统技艺类非物质文化遗产保护的作用也不同。

首先，传承人或传习人，是传统技艺类非物质文化遗产的最直接的接触者，他们的直接决定了技艺所生成的产品的质量，因此在受众保护中，传承人应处于最直接的保护对象。同时，由于传承人和传习人也是最明显的保护对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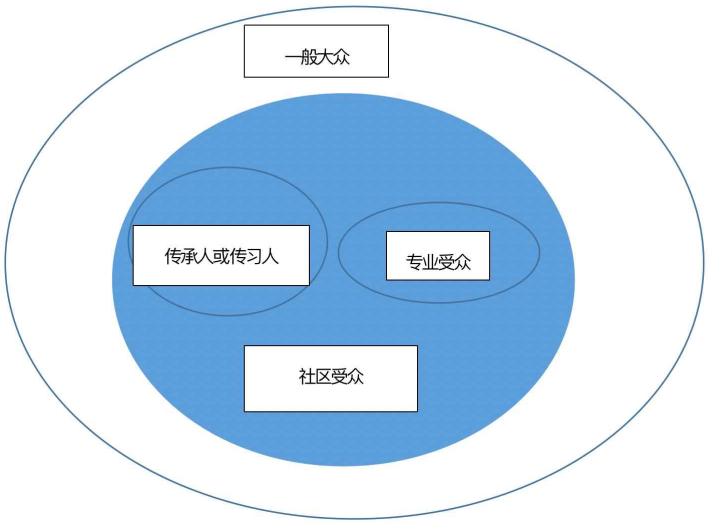
---

47)斐迪南·滕尼斯（Ferdinand Tönnies，1855—1936）社会学形成时期的著名社会学家，德国的现代社会学的缔造者之一。 他的社会学著作，尤其是成名作『共同体与社会』对社会学界产生了深远的影响。
48)费孝通，『费孝通文集』第五卷，群言出版社，1998，p.530。
49)[德]斐迪南·滕尼斯，林荣园译，『共同体与社会』，北京：商务印书馆，1999，p.58。
50)徐永祥，『社区发展论』，上海：华东理工大学出版社，2001，pp.33-34。
51)陈龙，『大众传播学导论』，苏州：苏州大学出版社，2006，p.113。
52)[美]德福勒、丹尼斯著，颜建军等译，『大众传播通论』，北京：华夏出版社，1989，p.12。

其次，专业受众是传统技艺类非物质文化遗产存在的主要价值，决定了该项技艺类非物质文化遗产发展的方向。因此，专业受众是技艺类非物质文化遗产受众保护中最重要的保护对象。只有保护好专业受众，该项技艺类非物质文化遗产才具有存在的价值。对专业受众对保护处于受众保护对核心部位。

再次，社区受众是传统技艺类非物质文化遗产所处的客观环境，只有保护好社区受众，传统技艺类非物质文化遗产才能有所依存。

最后，一般大众是传统技艺类非物质文化遗产受众保护的最大群体，也是传统技艺类非物质文化遗产依存的社会环境，是传统技艺类非物质文化遗产保护的最外围。



<图1> 传统技艺类非物质文化遗产受众关系图

3. 中国传统技艺类非物质文化遗产受众保护评价指标体系构建

1）评价指标构建的原则

（1）目的导向性原则

构建中国传统技艺类非物质文化遗产受众保护评价指标体系时，首先要明确受众保护的目标，然后再将受众保护目标概括至不同层级的指标体系中。根据目标概括出的指标可以真实评价目前传统技艺类非物质文化遗产受众保护的真实情况。

（2）可操作性原则

构建中国传统技艺类非物质文化遗产受众保护评价指标体系时，各个指标要既具有代表性又可进行实际操作，最好简单易行，又能评价受众保护的情况。

（3）定性与定量相结合

因为受众保护是个复杂的内容，包含内容较多，很难全部进行量化处理，因此在评价体系中坚持定性

与定量相结合的手段，一部分比较复杂的内容由作者定性处理，能够量化的内容尽量量化，二者相结合。

2）中国传统技艺类非物质文化遗产受众保护评价指标体系的构建

（1）确定评估指标

在遵循目的导向性原则、可操作性原则、定性与定量相结合的原则基础上，通过对非物质文化遗产学、传播学、民俗学、旅游学等相关学科的相关文献整理和分析，最终形成初级指标库，依照传统技艺类非物质文化遗产受众保护的目标，采用专家咨询法，最终形成最初的评价指标。分别是一级标题4项、二级标题12项，三级标题33项，共同构成了传统技艺类非物质文化遗产受众保护评价指标体系，详情见<表1>。

<表1> 传统技艺类非物质文化遗产受众保护评价指标体系

一级指标	二级指标	三级指标
传承人及传习人保护	传人人及传习人法律、法规保护	国家法律、法规保护情况
		地方法律、法规保护情况
	传承人能力培养及考核	传承人数量
		传承人和传习人的文化程度
		传承观念
		传承人工作回报
		传承人的创新能力
		传承人和传习人技术能力
专业受众保护	创新能力	技术创新能力
		产品创新能力
	文化赋值能力	文化价值赋值能力
	产品层级构建	产品层级
社区保护	地域环境保护	环境保护
		原材料供应
	组织环境保护	社区组织基本情况
		与社会组织关系
	人口环境保护	人口基本情况
		社区人口参与非物质文化遗产状况
		人口参与热情
	文化环境保护	项目相关文化活动数量
		社区参与度
		社区居民对该项非物质熟悉程度
一般大众保护	旅游受众保护	基础设施建设情况
		游客体验性服务情况
		旅游业服务情况
	传统媒体的受众保护	媒体等级
		媒体曝光度
		受众好感度
		受众参与度
	新媒体的受众保护能力	新媒体范围
		内容丰满度
		受众好感度
		受众参与度

（2）评估指标体系的修正

通过专家咨询法对拟定好的评价指标进行修改。首先，将重复的内容合并、组合。在“一般受众保护”项中，“传统媒体的受众保护”和“新媒体的受众保护”在第三项中多数都重复，应将此二项合并为“媒体受众保护”，三级标题修改为“媒体数量及等级”、“内容丰满度”、“受众好感度”、“受众参与度”。其次，将与受众保护关联不够紧密的项去掉，其中三级标题“人口参与热情”与主题关联不紧密，因此去掉。一级指标“传承人及传习人”下“二级指标”传承人能力培养及考核”下的三级标题“传承人及传习人的文化程度”应改为“传承人和传习人的文化教育”。最终形成评价指标修正标，分别是一级标题4项、二级标题12项，三级标题28项，共同构成了传统技艺类非物质文化遗产受众保护评价指标体系，详情见<表2>。

<表2> 传统技艺类非物质文化遗产受众保护评价指标体系修正表

一级指标	二级指标	三级指标
传承人及传习人保护	传人人及传习人法律、法规保护	国家法律、法规保护情况
		地方法律、法规保护情况
	传承人能力培养及考核	传承人数量
		传承人和传习人的文化教育
		传承观念
		传承人工作回报
		传承人的创新能力
		传承人和传习人技术能力
专业受众保护	创新能力	技术创新能力
		产品创新能力
	文化赋值能力	文化价值赋值能力
	产品层级构建	产品层级
社区保护	地域环境保护	环境保护
		原材料供应
	组织环境保护	社区组织基本情况
	人口环境保护	与社会组织关系
		人口基本情况
	文化环境保护	社区人口参与非物质文化遗产状况
		项目相关文化活动数量
		社区参与度
		社区居民对该项非物质熟悉程度
一般大众保护	旅游受众保护	基础设施建设情况
		游客体验性服务情况
		旅游业服务情况
	媒体的受众保护	媒体数量与等级
		内容丰满度
		受众好感度
		受众参与度

3）评价指标权重的确定

통过专家咨询法给每个指标权重，最后得出结果如下<表3>：

<表3> 传统技艺类非物质文化遗产受众保护评价指标权重

一级指标	二级指标	三级指标	权重
传承人及传习人保护30%	传人人及传习人法律、法规保护20%	国家法律、法规保护情况60%	0.036
		地方法律、法规保护情况40%	0.024
	传承人能力培养及考核80%	传承人数量5%	0.012
		传承人和传习人的文化教育10%	0.024
		传承观念5%	0.012
		传承人工作回报20%	0.048
		传承人的创新能力20%	0.048
		传承人和传习人技术能力40%	0.096
专业受众保护45%	创新能力60%	技术创新能力60%	0.162
		产品创新能力40%	0.108
	文化赋值能力20%	文化价值赋值能力100%	0.09
	产品层级构建20%	产品层级100%	0.09
社区保护15%	地域环境保护20%	环境保护50%	0.015
		原材料供应50%	0.015
	组织环境保护15%	社区组织基本情况30%	0.00675
		与社会组织关系70%	0.01575
	人口环境保护15%	人口基本情况30%	0.00675
		社区人口参与非物质文化遗产状况70%	0.1575
	文化环境保护50%	项目相关文化活动数量25%	0.01875
		社区参与度50%	0.0375
		社区居民对该项非物质熟悉程度25%	0.01875
一般大众保护10%	旅游受众保护50%	基础设施建设情况30%	0.015
		游客体验性服务情况40%	0.02
		旅游业服务情况30%	0.015
	媒体的受众保护50%	媒体数量与等级30%	0.015
		内容丰满度30%	0.015
		受众好感度20%	0.01
		受众参与度20%	0.01

4）传统技艺类非物质文化遗产受众保护评价模型的确定

根据评价指标体系的结构及各指标权重的最终结果，得到传统技艺类非物质文化遗产受众保护评价模型如下：

F= $\sum_{i=1}^{28} PiQi(i = 1、2、3、\ldots\ldots 28)$

式中，F表示传统技艺类非物质文化遗产受众保护评价的最终得分，Pi表示第i项指标的权重，Qi表示第i项的评分值。通过最终得分，可以了解某项传统技艺类非物质文化遗产受众保护情况。可以了解哪一项保护还存在问题，亟待解决，相关部门可以针对性地采取相应措施，从而加强传统技艺类非物质文化遗

产受众保护的有效性。

4. 宣纸制作技艺基于受众保护评价指标体系的受众保护路径

宣纸制作技艺就是制作宣纸的技艺，距今已有1000多年的历史，是中国传统手工纸制作技艺的杰出代表。中国宣纸制作技艺整个过程共有108道工序，每道工序都是在长期的发展过程中由世世代代劳动者不断改进和完善的，被称作世界手工纸技艺的“活化石”，它的每一道工序都凝聚了中国历代手工纸制造技艺者的智慧，是世界文化遗产中极其珍贵的组成部分。2009年在联合国教科文组织保护非物质文化遗产政府间委员会第四次会议上，中国宣纸制作技艺被列入“人类非物质文化遗产代表作名录”。截至2021年12月，宣纸制作技艺有2名国家级、7名省级、3名市级、9名县级代表性传承人。他们协同为数众多的宣纸行业从业者，积极开展有关宣纸制作技艺的传承实践。

在宣纸制作技艺的传承和发展过程中，不断关注受众需求，满足受众需求，使该项技艺历经千年而不朽，才能使该项技艺在工业技术快速发展的现代仍作为重要产业而存在。以2014年为例，泾县共有宣纸、书画纸及加工艺术品企业350余家，主要分布在丁家桥镇、泾川镇、黄村镇和榔桥镇，包括宣纸生产、手工书画纸、吊帘、喷浆和机制书画纸五类。生产各种类宣纸900吨，年产书画纸5000余吨，占全国书画纸市场50%的份额，是全国最大的手工纸生产基地。其中宣纸生产年销售额3.8亿元，手工书画纸3.7亿元，机制纸1.2亿元，宣纸加工2亿元。[53]2014年全县宣纸书画纸规模以上企业11户，年销售产值2.27亿元，实现税收3806.9万元。那么宣纸制作技艺受众保护状况如何呢，基于传统技艺类非物质文化遗产受众评价体系对宣纸制作技艺进行分析。

1）基于传统技艺类非物质文化遗产受众保护评价体系的宣纸制作技艺受众保护分析

根据传统技艺类非物质文化遗产受众保护评价体系，根据文献资料和实地访谈情况，给宣纸制作技艺进行评分，具体得分情况如下：

<表4> 宣纸制作技艺传统技艺类非物质文化遗产受众保护评价得分

一级指标	二级指标	三级指标	得分
传承人及传习人保护30%	传人人及传习人法律、法规保护20%	国家法律、法规保护情况60%	2.91
		地方法律、法规保护情况40%	1.51
	传承人能力培养及考核80%	传承人数量5%	1.81
		传承人和传习人的文化教育10%	1.71
		传承观念5%	2.11
		传承人工作回报20%	2.02
		传承人的创新能力20%	2.62
		传承人和传习人技术能力40%	7.84
专业受众保护45%	创新能力60%	技术创新能力60%	11.19
		产品创新能力40%	6.13
	文化赋值能力20%	文化价值赋值能力100%	9.77

53)泾县人民政府，http://www.ahjx.gov.cn/OpennessContent/show/1297405.html。[2022-10-11]

	产品层级构建20%	产品层级100%	8.62
社区保护15%	地域环境保护20%	环境保护50%	2.08
		原材料供应50%	3.02
	组织环境保护15%	社区组织基本情况30%	0.51
		与社会组织关系70%	1.19
	人口环境保护15%	人口基本情况30%	0.43
		社区人口参与非物质文化遗产状况70%	0.90
	文化环境保护50%	项目相关文化活动数量25%	0.91
		社区参与度50%	1.82
		社区居民对该项非物质熟悉程度25%	1.41
一般大众保护10%	旅游受众保护50%	基础设施建设情况30%	0.63
		游客体验性服务情况40%	1.51
		旅游业服务情况30%	0.83
	媒体的受众保护50%	媒体数量与等级30%	0.93
		内容丰满度30%	0.81
		受众好感度20%	0.75
		受众参与度20%	0.55

通过分析发现，总体得分75.52，目前宣纸制作技艺受众保护状况还算比较好，有一定经验可以被其他传统技艺类非物质文化遗产学习和借鉴的成果，但也存在许多问题，亟待解决。

2）宣纸制作技艺基于受众保护评价体系的成就

（1）作为受众的传承人

作为传承人或者传习人，一方面国家按照『中华人民共和国非物质文化遗产法』等一列法律、法规对他们进行保护，另一方面，安徽省任命代表大会常务委员会批准了『宣纸保护和发展条例』，这是专门保护和发展宣纸制作技艺发展的重要法规。除此之外，泾县泾县政府也出台了各种适合宣纸制作技艺发展的保护条例，如2002年6月，泾县县委、县政府颁行『泾县宣纸书画纸行业管理办法』。2005年3月，泾县县委、县政府颁行『泾县促进宣纸宣笔产业发展行动计划』，该计划成为泾县发展宣纸业的纲领性文件。2005年11月，泾县宣纸协会成立，会议通过『泾县宣纸协会章程』和『泾县宣纸协会议事规则』。2006年4月，『泾县宣纸协会行规行约』颁布。通过这些法律、法规，使传承人保护制度不断完善。另一方面，企业、社会也在积极参与保护宣纸制作技艺的传承人和传习人。

（A）废除“家族保密”、“传男不传女”、“传媳不传婿”、“留一手”等陋习

在中国技艺家族传承的历史上，很多行业有在家庭传承是有“家族保密”、“传男不传女”、“传媳不传婿”的规矩。如小岭曹氏发明宣纸后，核心技术捞、晒、检由曹氏族人掌握，相对来说，这些技艺体力付出较轻，收入较丰；而绝大数的粗活则由生活在小岭的其他各姓人员和沿江一带农民工承担，收益相对较低。[54] 曹氏家族正是在长期的传承过程中，坚持“传男不传女”、“传媳不传婿”的习俗，所以才使宣纸制作技艺长期把持在曹氏家族。这种陋习直接导致许多技艺类非物质文化遗产因家中无子或家中子侄不感兴趣而失传。在这种情况下，宣纸制作技艺的传承不再坚持家族传承，而是采用开放式的传承手段，每个感兴趣的人都可以去学习，成为宣纸传承技艺核心技术的受众，进而通过学习成为传承人。

54) 曹天生，『中国宣纸』，武汉：华中科技大学出版社，2016，p.27。

在师徒传承时，师傅常常有“留一手”的习惯。现代企业如中国宣纸集团，进厂前进行培训，进厂后由师傅带，师傅会倾尽全力尽快教会徒弟。为了使师傅带徒弟效果达到最好，中国宣纸集团于2021年恢复拜师仪式，改善师徒关系，使传承符合历史发展规律。

（B）对传承人进行正规学校教育

过去宣纸制作技艺都是家族传承，为提升传承人、传习人的个人素养，保证人才质量，泾县有关部门以本地职业高中为依托，并由县职业高中与中国宣纸集团联合开办了宣纸工艺专业，并在此基础上筹建中国宣纸书画技术学院。该专业班已于2007年开始招生，招生对象为初中毕业生，学制三年，期满颁发职业中专文凭。三年内，前两年学习文化知识和宣纸理论知识，到第三年到宣纸集团公司实习上岗。学习期间，每人每年享受国家助学金1500元和“红星助学金”，上岗后，除享受宣纸集团公司的工资待遇外，返还学生在校期间全部学费。55)

（C）规范评价体系

为提高传承人、传习人的服务质量，中国宣纸集团公司2011年制定并实行『宣纸捞、晒、剪技师、高级技师评聘办法』，建立捞自己的评价体系，“对于达到各项考评条件者，即评定、授予技师、高级技师荣誉，在公司范围内终身享有技师、高级技师称号，并享受一次性奖励；同时根据公司实际需要，从获取职称者中聘用技师、高级技师，按月享受技师、高级技师津贴。56)这项措施有助于作为受众的传承人和传习人不断提升技艺水平，使他们拥有职业荣誉感，促进宣纸制作技艺的保护与传承。

（2）作为受众的专业受众

（A）打造宣纸制作技艺的文化价值

为保证产品质量，在宣纸制作工艺上讲究古法制纸，即包括原料加工、抄纸、晒纸、剪纸等108道工序，保证宣纸质量。为满足专业受众文化需求，在宣纸技艺生产过程中强调宣纸制作客观上没有绝对标准，造纸师傅从来不会被告知在水里需浸染多少时间，要晒多少时间等等，这些全都靠造纸师傅自己去把握。如果造纸师傅对宣纸没有自己的悟性和理解，很难造成上等的宣纸，每一张宣纸都浸染着造纸师傅对宣纸制作技艺和人生对领悟，所以，每一张宣纸都有其独特对内涵。由于每一张宣纸对完成都需要108道工序，历经一到两年对时间才能完成，每张宣纸里都蕴含着完成每一个工序的师傅的认识和理解，展现中国人的哲学思想。通过打造文化价值，宣纸不再是普通的作画工具，而是具有深厚历史积淀和文化传承的特殊产品。

除此之外，在宣纸制作技艺传承过程中，还有许多口口相传的故事和传说，如关于选用青檀作为制作宣纸对材料，泾县有孔丹为纪念老师，为老师蔡伦画像修谱而寻获的传说。通过故事和传说，为宣纸制作技艺增加了文化价值，受众消费其实体价值的同时，也被其深厚的文化价值所打动。

（B）创新产品，满足受众收藏需求

为满足专业受众收藏需求，中国宣纸集团创造性地发行纪念宣纸系列产品。如2008年奥运纪念宣、2009年发行的建国60周年宣、2010年的世博会纪念宣、2011年的辛亥革命纪念宣等，通过将宣纸制作技艺和中国历史上有意义等历史事件建立联系，满足受众收藏的价值。为保证纪念纸的质量，宣纸制作过程中特意将老纸回笼，以保证宣纸的质量。

除此之外，2008年中国宣纸集团公司还自行研制出邮票印刷宣纸，与北京邮票局联合研制出邮票印制

55)左叶松，『安徽泾县传统手工艺的当代传承问题研究』，南京艺术学院硕士论文，2008，p.22。
56)吴章谦，「宣城集团评聘首批技师和高级技师」，『宣城日报』，2011-4-19（2）。

宣纸。2010年发行首套宣纸材质邮票『中国书法——行书』乃是我国乃至世界邮票史上印刷材质上的重大突破，实现国家名片与国宝宣纸的完美结合。57)

（C）产品分层，满足不同消费群体的需求

宣纸制作技艺传承企业有很多，每个企业对消费群体定位不同。如“红星”这个品牌主要针对高端市场，如顶级书画家。对于书画练习者、业余爱好者、普通书画家则可以选择普通的宣纸作为书画用纸。

（3）作为受众的社区

宣纸制作技艺的社区，本人认为就是宣纸制作技艺所处的社区环境。社区保护就是保持技艺与地域、人口、组织结构和文化和谐相处，针对社区保护问题，政府、企业和传承人都在不断努力，力求使宣纸制作技艺赖以生存的社区环境不被破坏，使宣纸制作技艺良性发展。

（A）地域环境保护

地域环境保护主要体现在两个方面，一是保护原材料生产，二是维护生态环境。

在保护原材料生产方面，青檀树的树皮是制作宣纸的主要原料之一，泾县林业局自2001年以来，相继培育和营造了4万亩青檀中幼林。同时还积极加大财政投入支持青檀培育，自2005年以来，泾县将青檀培育列入林业重点工程造林首推树种，县财政整合配套林业建设资金达5000余万元，重点支持青檀林基地培育建设。同时深化林业经营体制改革，龙头企业积极创建自己的原料基地，为基地建设注入资金，实现“双赢”。目前安徽省宣城市泾县青檀原料林基地已达10万亩，为宣纸产业的快速发展奠定了基础。2016年1月，泾县将青檀树列为泾县县树，提倡种植和保护青檀树，促进宣纸业的发展。

在保护环境方面，2008年，根据宣纸行业的发展情况修订国家标准，改强制性国家标准GB18739-2002为GB/T18739-2008，推进宣纸行业的标准化生产，提升宣纸生产品质；泾县政府投资5000万建成檀皮蒸煮黑液综合利用项目，实现制造废弃黑液的回收利用，建立污水处理设施，防止宣纸生产废水对环境造成污染。

(B)文化环境保护

文化环境的保护，主要通过加强社区内宣纸文化的宣传和促进社区居民与宣纸技艺的沟通两个方面。

促进文化宣传主要是2006年3月，创办发行『中国宣纸』期刊，建立宣纸研究成果交流平台，挖掘宣纸文化，促进宣纸制作技艺的保护和传承研究。2007年10月，中国宣纸集团公司兴建了宣纸文化园，该园总投资2500万，占地近4万平方米，以中国宣纸集团公司生产基地为依托，集中展示和传习宣纸制作技艺，供往来游客参观和体验宣纸文化。2015年12月，中国宣纸集团公司投资兴建中国宣纸博物馆开馆，该馆总投资约1亿元，建筑面积约1万平方米，集中展示宣纸宣纸制作技艺、宣纸产品及历史，宣传和推广宣纸文化。

社区居民和技艺等沟通主要体现在泾县文化馆每年都要把泾县各地的代表性老艺人青来，进行交流、座谈。中国宣纸文化园成为中国美术家协会和中国国家画院创作写生基地，接连举办了“泾上丹青”全国中国画展、首届中国宣纸出版论坛等一系列活动，2019年举办了一系列大型画展，努力将泾县打造成书画艺术交流的平台；政府支持企业创造与宣纸制作技艺相关的民俗产品，如与蔡伦相关的文化产品等。

（4）作为受众的大众参与

57)黄飞松、汪欣，『宣纸』，杭州：浙江人民出版社，2014，p.30。

（A）旅游

政府为吸引大众，保护普通受众等参与积极性，举办各种各样的节庆类活动，如1993年的“93泾县国际宣纸艺术节”、2021年的“2021宣纸艺术文化节“等；通过博物馆和文化园形式向普通大众提供服务，如2006年为更好地向受众宣传宣纸制作技艺，中国宣纸博物馆建成开馆，2007年泾县中国宣纸文化园开园，并被确定为中国书画纸研发基地，2015年中国宣纸博物馆新馆在中国宣纸集团股份有限公司所在地泾县乌溪正式开馆。大力发展研学旅游，2018年单日接待学生量突破2000人，单团突破1000人，全年接待人数20.13万人次，增长27%。58)

（B）大众传播形式

一方面通过本地大众媒介方式宣传宣纸制作技艺，如宣城本地的电视台，安徽省级电视台；另一方面也有央视合作，推出专门的宣纸制作技艺的节目，在全国范围内宣传宣纸制作技艺。同时，还采用网络形式向大众受众宣传宣纸制作技艺，如中国非物质文化遗产网·中国非物质文化遗产数字博物馆、安徽省物质文化遗产网·安徽非物质文化遗产数字博物馆、泾县人民政府网、中国宣纸集团官网、等各种网站宣传。

在新媒体盛行的时代，为满足大众需求，各单位也通过新媒体形式宣传宣纸制作技艺，如抖音、微博等，都是满足受众需求的阵地。

3）宣纸制作技艺基于受众保护评价体系存在的问题

（1）作为传承人或者传习人

随着技术的不断发展，宣纸制作技艺也在不断改进技术，使机械化、自动化机器代替人工，使工人劳动强度有所减少。但是为保证宣纸质量，宣纸制作过程仍采用古法纸质的方式，劳动量大、技术要求高、工作苦、待遇较差，导致大量在职工人流失。

除此之外，一些较大企业的熟练工很容易被小厂高薪挖走，虽然这些人还在进行宣纸制作，但是因为许多小厂为谋求暴利，经常出现原材料以次充好，质量很难保证，这样也是人才流失的一个重要表现。

另外，通过企业或学校培训获得技艺的年轻人，因为收入较低，很容易放弃宣纸制作技艺而外出打工。

由于“宣纸并无文字性标准，所有标准均由各工序的师傅掌握，并以心口相传的模式进行传承。……在招聘员工长期困难、生产线长期缺人的情况下，不仅宣纸行业正常的制造生产进程受到推迟，就连很多著名的宣纸制作技艺也要湮没在历史的长河中。

（2）作为受众的专业受众保护存在的问题

由于传统宣纸制作工艺复杂，且需要大量的优质材料。许多小企业为追求暴利，材料以次充好，一些必要的工序也被删除，导致市面上宣纸质量良莠不齐。以宣纸制作过程中青檀皮为例，在宣纸制作过程中需要大量的青檀皮，而青檀皮价格年年上涨，所以很多小企业在生产纸张的过程根本就不放青檀皮，或者象征性地放一点青檀皮，这直接导致宣纸质量下降，不能满足受众的需求。

58)中国非物质文化遗产网·中国非物质文化遗产数字博物馆https://www.ihchina.cn/tenyear_protect_detail/19680.html [2022.10.16]。

(3) 作为社区的受众保护存在的问题

(A) 地区环境

在地区环境保护方面，主要表现在宣纸制造技艺在生产过程中仍排放大量污水会污染环境，破坏生态平衡。因为在宣纸生产过程中会用到许多化学制剂，如石灰、纯碱等。在宣纸制作过程中，这个问题是不可避免的。如何才能运用生物原料不污染环境，或者采用什么手段杜绝环境污染，是今后一个非常重要的课题。

其次，由于宣纸制造工艺中原材料要求比较高，如青檀木、沙草等，尽管政府和企业都在努力保证原材料供应问题，但是因为原材料独特等生产环境还是存在供不应求等问题。

(B) 文化环境保护

在文化环境保护方面，虽然形成了统一的协会组织，但是在宣纸制作技艺文化环境保护方面还存在许多问题。如生产宣纸的企业由于存在竞争问题，经常出现内部价格竞争，有的企业会选择偷工减料，通过降低成本来提升竞争力，这样会伤害良好的传承环境，造成恶性竞争。宣纸文化对所在社区对影响仅局限于行业所涉及的政府单位、企业、工人等，社区参与度不高，社区民众参与积极性不高。

(4) 大众保护存在的问题

目前宣纸制作技艺宣传主要依靠企业根据自身需要进行宣传，还有央视、安徽各台等不成体系的宣传，未能形成完整的宣传体系。宣纸制作技艺在公众宣传针对性和广泛性均有待提高。

新媒体更多的是片段化宣传，很难展现宣纸制作技艺的全貌。

4) 宣纸制作技艺基于受众保护模型的保护路径

(1) 建立良好工作环境

针对传承人和传习人工作环境艰难，有等工作环节可能会造成工人身体受伤害的问题，应从政府和企业两个方面去着手改善。

首先，政府应出台相关政策，要求企业完成相关环境要求，并且不断监督、评判宣纸制作企业工作环境能否达标，对于不能达标的企业，应责令要求达到相关要求才能进行生产活动。

其次，企业应着力改造宣纸制造企业的工作环境，并且针对一些对工人造成身体伤害的工序的技术革新，改善工人的工作环境。并为工人提供相关技术培训，提升他们针对新技术的技术适用能力，使传承人和传习人技能不断提升。

(2) 提升工资待遇，留住年轻人

针对宣纸制作企业中，年龄普遍超过40岁，留不住年轻人的问题，企业应提升管理体系，形成现代企业管理制度，增加工人薪资比重，提高工人薪资待遇，留住年轻人。同时通过现代管理制度，引进先进管理人才，使宣纸制作技艺能够适应新时代管理体系，不断发展。

针对因为内部竞争导致的产品良莠不齐的问题，应从三个角度去分析，对于政府来说，政府应确定行

业规范和评价标准，规范宣纸制作技艺，加强内部竞争管理。对行业协会来说，要建立规范的行业规范要求，要求各企业相互监督，对有问题的企业要及时采取惩罚措施，规范竞争秩序。对企业自身来说，应提高管理者管理意识，严格按照宣纸制作技艺完成宣纸的生产，严于律己。

（3）改善生态环境和文化环境

针对社区受众保护中提到的环境问题，政府应建立专项攻关项目，有针对性地解决目前仍存在的环境污染问题，政府带头，将环境污染问题作为需要解决的大问题来抓。同时，企业作为环境问题的实际生产者，应严把环境关，使宣纸制作技艺适应当前发展需要。

针对社区受众文化环境保护不足，政府应加大文化投入，提升社区参与宣纸制作技艺受众保护环境，增加相关活动，增设专业教育。

可以通过社区宣传，营造宣纸制作技艺学习和了解氛围。首先，将宣纸制作技艺作为重要社区文化进行构建，形成以宣纸制作技艺社区文化。其次，将宣纸制作技艺文化通过居委会、社区规划师、社区服务团队等团体宣传给周边的居民。另外，也可以为宣纸制作技艺进行舆论宣传，引起周围群众关注。

其次，通过学校教育进行宣纸制作技艺等宣传，如传承人进校园，或者构建校园宣纸制作技艺兴趣小组，让感兴趣的学术参与进来。可以将宣纸制作技艺作为专业，在高职院校进行招生，一方面提供宣纸制作技艺，另一方面教授学生经营管理知识，提升学生技术和管理能力。

（4）一般大众受众

针对宣纸制作技艺宣传未能形成完整的宣传体系、新媒体更多的是片段化宣传的问题，应该从以下几方面提高服务，保护一般大众受众。

首先，应该塑造复合传播主体，也就是要把新媒体和传统媒体结合起来，构建一套完整的新旧媒体融合的宣传主体。一方面利用传统媒体的正统性和权威性构建一系列的关于宣纸制作技艺的作品，然后再利用新媒体配合，将一些新鲜的、能够吸引受众的内容通过新媒体（如微信、微博、直播平台等）发放出去，吸引更多的受众去关注宣纸制作技艺，然后再依靠传统媒体产生的经典作品使受众深入了解宣纸制作技艺，从而保护受众。

其次，增加宣纸制作技艺的相关文化内容的生产，不仅通过图片、视频、音频等方式，还可以通过微电影、动漫、游戏、动图、表情包等手段，丰富宣纸制作技艺相关的文化产品，多角度，宣传宣纸制作技艺。

再次，通过扩大传播渠道，增加受众基数。一方面，增加数字平台，如政府或者宣纸协会可以构建宣纸制作技艺的官方网站来专门宣传宣纸制作技艺，而不是仅仅依靠企业自身对宣传。通过官网定期宣传宣纸制作技艺，受众可以第一时间获得准确信息。另一方面可以利用移动客户端，如抖音、快手、微信、微博等大众娱乐app来制作系统性产品，如将宣纸制作技艺108道工序通过抖音段视频持续性地传递给大众。最后，还可以通过数字博物馆的形式，让受众在线体验宣纸制作技艺，构建受众参与比较多的游戏，增加受众对宣纸制作技艺的兴趣，从而更多地参与进来。

5. 结论

本文主要进行中国传统技艺类非物质文化遗产受众保护体系研究，确定传统技艺类非物质文化遗产受众及其相互关系，并在受众分类的基础上,通过专家咨询法，构建传统技艺类非物质文化遗产受众保护评价体系和评价模型，从各类受众角度提出传统技艺类非物质文化遗产受众保护的基本内容。最后通过案例分析，分析类宣纸制作技艺的受众保护成就和不足，并为其进一步发展提供了方法。

论文首先确定传统技艺类非物质文化遗产的受众包括最直接接触传统技艺类非物质文化遗产的传承人和传习人，其次是专业受众，认为专业受众是传统技艺类非物质文化遗产存在的价值体现，传承人和传习人、专业受众共同构成了传统技艺类非物质文化遗产受众保护对核心地位。社区受众作为传统技艺类非物质文化遗产存在的客观条件，处于受众保护的外围环境，一般大众作为受众保护的大多数，处于最外围的状态。

明确受众群体及其相互关系以后，尝试通过专业咨询法构建传统技艺类非物质文化遗产受众保护效果评价体系，通过专家咨询法构建起三级评价体系，其中一级指标4个，2级指标12个，3级指标28个，然后通过专家咨询法对各项指标进行权重，确定每项指标在传统技艺类非物质文化遗产受众保护中的重要性，通过数学运算最终确定传统技艺类非物质文化遗产受众保护的评价体系。通过该评价系统，可以客观评价在传统技艺类非物质文化遗产受众保护中，哪一项保护措施比较重要，哪一项保护措施处于次要地位。通过客观的评价数据，还可以了解某项传统技艺类非物质文化遗产目前哪方面保护措施比较好，哪方面还存在不足，亟待解决，相关部门可以及时、准确地采取措施解决问题。

最后，运用该评价模型，对宣纸制作技艺受众保护情况进行调研和网上资料搜集，获取相关数据，真实了解宣纸制作技艺受众保护现状，认为宣纸制作技艺在受众保护方面取得了成就，如在传承人和传习人方面，传承观念提升、学校教育参与、明确行业规范等；在专业受众方面，技艺提升、文化赋能、产品升级等；在社区受众方面，注意环境保护、文化环境保护等；在一般大众保护方面，旅游保护逐部发展，媒体发展较快。但是业存在很多问题，如留不住年轻人、内部恶性竞争、环境问题、媒体宣传不足等，并有针对性性地提出意见。

【차세대학자분과Ⅲ】 발표 ⑤

中国传统文化融入播音主持教育的路径与方法

Yang Li-Fei*

【目 录】

1. 中国传统文化的概述
2. 融入中国传统文化的必要性
   1) 提供内容源泉
   2) 奠定审美基础
   3) 提升主体素质
3. 中国传统文化融入播音与主持艺术专业教育的路径
   1) 以《即兴口语表达》课程为例探讨中国传统文化融入
   2) 以《电视节目创作》课程为例探讨中国传统文化融入
3. 中国传统文化融入播音与主持艺术专业教育的路径
4. 结束语

【摘要】

播音员、主持人作为媒介与大众之间沟通的纽带, 需要有效精准地将所要传递的消息, 通过有声语言及时传递给大众。此外, 作为传播消息的桥梁, 播音员与主持人都同样担负着文化的宣传和普及的责任。有声语言表达是播音主持专业中最关键的语言表现形式, 其表达质量直接影响到内容的创意品质和节目艺术效果。另外, 我国传统文化是中华民族最宝贵的文化财产, 是中华民族的历史传统, 反映了中华民族的文化风貌和精髓, 了解熟知中国传统文化, 在广播电视节目主持中能够熟练的使用, 更能显现出播音员主持人的内涵及文化底蕴, 同时也能为广播电视节目增色。通过把我国传统文化纳入到播音主持专业的教学过程之中, 不但能够培养播音主持专业学生的文化素质, 还能够为同学们带来创作灵感, 同时还能够起到继承与弘扬我国传统文化的目的。鉴于此, 本文将以『即兴口语表达』和『电视节目创作』课为例, 探索中国传统文化将如何融入播音主持专业教学，以及它具体途径与方式, 期望能为国家培育富有本民族精神审美价值的播音主持专业人才。

【关键词】中国教育；传统文化；播音员主持人；有声语言

引言

中国文化拥有5000年的发展历史, 是中华民族精神文明的积淀, 是中华民族不断发展壮大的基石。因此, 弘扬中华传统文化, 对于推动中华文明的进一步发展具有至关重要的作用。教育是文化传承的基本载

* 西安科技大学高新学院教师。

体,其核心是对人的价值观念的铸造、精神的培育与文化的承袭。播音主持专业为我国培养大量的播音主持人才,这些人才是大众媒体与受众群体之间沟通的重要桥梁,同时还承担着中国传统文化传播与推广的职责。目前的现实状况就是,在国际化的大环境里,由于全球化观念的侵入,很多青年人的文化观念也开始逐渐地"洋化",更有些人,在感受国外新潮的文化氛围的同时,却逐渐淡忘中国的传统文化,因此中国传统文化渐渐消失在"新青年"的视线当中,而对于播音主持专业领域的同学,由于更多的时间都是花在了学习播音专业课当中,所以对于中华传统文化的认识也比较浅。在目前的播音主持课程体系当中,由于比较缺乏对中华传统文化的渗透,所以播音的专业课程设置也大多是在广播电视传媒类的专业课当中,而关于我国古代的传统文化、美术、声乐、书法等的课程设置也就比较少,甚至于不少院校根本不会设置此类课程。所以在专业学习的过程中,对我国传统文化的认识非常的局限。那么,这就要求中国播音主持专业教育能够进一步改革人才培养方法,去适应中国当下的教学需要,认真规范的培养具有深厚中国传统文化学习内涵的高素质复合型主持人。而习近平总书记也一再表达了对我国传统文化的重视和理解,强调自身应具有文化自信,这也是对我国播音主持专业教育在中国传统文化弘扬方面提出了更高的要求,播音主持专业学生在参加工作时应具备充足的文化知识和修养,从而更好的对中国传统文化进行传播与推广。播音主持专业老师在教学过程中,要在思想上注重与中国传统文化的融合,在行动上对当下播音主持专业的教学任务有更新的需求,同时在日常教学活动中增加有关我国的历史文化内容,以进行我国传统文化与教学的结合,并对学习者进行关于中国的文化教育,以提高学生自身的文化自信。

1. 中国传统文化的概述

"中国传统文化"是一个与"中国现代文化"相对的名词。中国传统文化是中华民族的历史文化财产在现实中的具体体现,它具有特殊的文化含义和占有社会主导地位的基本精神。[1]它负载着一个民族的价值观念,影响着一个民族的生存方法,也聚扰着一个民族自身认同的凝聚力。

中国传统文化,是在中国漫长的历史发展演变过程中产生并演变出来的,保存在整个中华民族中间的一定形式的中国文明。它涵盖了思想观念、认识模式、价值观念、道德精神、文化方法、习惯方式、习俗、宗教、文学艺术、教育方法等多个方面的丰富内涵。

中国传统文化教育范围是很广范的,如人们所学的古文、古诗、词、歌曲、赋、音乐、少数民族戏曲、音乐、国画、文字、楹联、灯谜、射覆、葡萄酒令、歇后语等还有中华民族节庆日,如除夕、元宵节、清明节、端午节、七夕节、中秋节,还有国家和地区地域内各个少数民族的不同民族传统节日和各类风俗活动等;包含中国原有民族文化历法在内的我国古代自然科学,及其生活在我国的各地方、各民族的优秀习惯及民俗文化,都是中华传统文化的一部分。

关于我国的历史,通常以:渊博精深、源远流长;兼容并蓄,和而不同来形容。[2]中华民族促使了我们的社会继续向前发展,也不能不得益于我国古老文明的影响,而这又正是中华五千年文明的精神内涵所在。

文化是一种历史现象,每一个时期,都存在与之相适应的历史文化,并随着社会发展生产的发展而演变。历史文化也是一个地域问题,因为各个国家、地区的历史文化,都具有各自的共同特点,并且彼此融合与渗透。同任何国家和地区一样,中华民族文化也是当今世界上惟一不断发展从未被间断的文明,而中华民族又有着多源一体的文化体系。

1) 林丹.弘扬中华优秀传统文化增强国家文化软实力的核心内容探析[J].文化软实力,2016,1(3):5.
2) 安溪县校本课程教材古诗300首(六年级).第一页简述

2 .融入中国传统文化的必要性

1）提供内容源泉

在中国传统文化中,文字是其流传的重要形式,文字记载着中国古代先哲先贤的著作和文化艺术,后人可以通过文字形式来学习古人的智慧和品德。播音主持专业本身就需要通过有声语言来进行转化与表达,而这些表达的内容则需要进行创作,中国传统文化的加入可以为播音主持专业的内容创作提供源泉,播音主持通过有声语言对包含中国传统文化的内容进行传播,使中国传统文化在新时代得以蓬勃绽放。同时这种模式也能够适应播音主持专业的要求,更能够对我国的民俗文化加以继承,并发挥我国传统民俗文化的作用。

"以古代之规则,开自身之生面",我国传统民族文化栏目样态创新的逻辑也是这样。通过更多的我国传统文化栏目,把传统中华文化以更为轻松的对话方式展示了出来,也赢得了更广泛的瞩目和更多掌声:『中国诗词大会』把握中国人记住诗歌名篇的传统历史文化习惯,并以赛事竞技的形式成为看点;『朗读者』发现了中国传统文学典籍所蕴含的情感之力,通过"诵读+叙事"打动民心;而『大国瑰宝』『衣尚中国』以高度凝练的文字短剧,对国宝、服装等中国历史元素加以情景化展示,从而提炼出了一个个内涵无限的我国历史文化时刻[3)]。

中华文明源远流长,古代诗词是我国文化中最杰出、最精粹、最具历史意义的标志性作品。它含义深邃,意存高远,蕴藏了丰富的文化哲学,凝聚着对生活的珍贵感悟,正是这种杰出的优秀文化传统典籍,浓缩着华夏五千年的文化精髓,熏陶并影响着一批又一批人龙的子孙,滋润着一批又一批人的灵魂。璀璨的中国历史文化靠古代诗词的万古流传,崇高的中华民族文化凭古代诗词四海传播,浩然的江湖正气靠古老诗词代代流传,博大精深的汉语历史文化精神借古代诗词弘扬光大。因为现在中国高校教学中关于优秀文化传统的内容已经越来越少,使得许多学子对中华民族的优秀文化优良传统了解的更是少之又少。长此以往,中华民族的古典底蕴,也必然显得日益肤浅,甚至消失殆尽、荡然无存。因此弘扬中华民族文化不仅仅是高校教师的使命,我们每位中国人都有责任、也有义务弘扬我们中华民族的先进文化,为迈向伟大复兴的中华民族积蓄着源源不断的聪明才智和持续的文化发展动能。

2）奠定审美基础

播音主持在内容创作过程中,其形式是多样的,既可以是庄重的新闻语言、也可以是简明的评论性语言,更可以是优美的文艺语言,而这些多样的语言表达形式,究其根本是汉语语法,并由基本的词构成,语言表达通过对这些基本词汇的组织和编排从而传达自身想表达的思想。现代语言的表达方式,是在中国传统文化的基础上逐渐发展而来的,这种发展并不是对传统文化的摒弃,而是对传统文化的传承,同时这种传承可以体现中华民族主流审美意识理念。[4)]播音主持工作者在与受众群体进行交流时,通常需要使用有声语语言,而这些语言的组织,究其根本是本民族的思维模式,使用的也是本民族的语言逻辑。所以在语言组织上其语法规范应符合本民族的要求,才能保证有声语言在播出后能够达到理想的效果。

第一次担任制片人的节目主持人董卿,在谈到自己创作『朗读者』的想法时说,基本上任何综艺节目形式

3) 牛梦迪『电视文娱节目纷纷驻足传统文化』『光明日报』（2020年12月06日01版）

4) 田慧生,张广斌,蒋亚龄.中华优秀传统文化融入课程教材体系的理论图谱与实践路径[J].教育研究,2022,43(4):9.参照其概念进行详细解读

她都曾经经历过,她必须改革,这是『朗读者』出现的偶然性事件,但必须从市场与产业发展的方向出发,『朗读者』等这类节目的出现又是一个必然。就在近年来,从中国中央电视台陆续开播的『典籍里的中国』『中国诗词大会』『上新了故宫』『国家宝藏』等这样的中华传统文化栏目,都获得了广大观众的喜爱与赞赏。诗词歌赋、国学典籍,古人古韵,这些很快的走进了寻常百姓家庭。在低质的休闲快餐生活时代,浸润了丰富传统文化底蕴的中国传统经典一直是现代人审美的终极要求,中华民族的无限内涵在今天也必须继续继承与弘扬。它以新时代的形象向大众呈现了中国古代的文化魅力风采。在这一档颇具文化气息的节目上,节目主持人的文化素养审美理念也极为重要。

就像主持人董卿,她的节目创作就是我国民族审美的代表。"最是书香能致远,腹有诗书气自华。"如今的董卿,已几乎成为了我国传统文化的代称,当大家提到中国诗词时必然会想起董卿:一位温润如玉,博学多才的女性。她从小便饱读诗书,因而在『中国诗词大会』这档节目上不但能和评审团们就古诗词谈笑风生,有时还能讲出比参赛选手更加出色的金句。在『朗读者』栏目当中所采访的朗诵嘉宾,就像是带着每个听众重新回到生活本源的过程一般,朗诵虽说是一种现代的文化字眼,可是在中国的文化长期以来也是通过诵、说的方式来传播的。在『开学第一课』节目中她曾声泪俱下地说:"我们要热爱祖国,要传承我们的中华文化!"

所以,有声语言应符合本民族的主流审美,这也说明中国传统文化在无形中为我国有声语言建立审美标准,并要求我国播音主持工作者在内容创作时与我国民族审美理念保持一致,在情感方面进行表达时也要与我国民族意识形态保持一致。

3）提升主体素质

播音主持内容在创造时,创作人自身的文化素质和知识体系直接影响着有声语言创作的质量,也就是说创作主体自身的素质直接影响着创造内容的质量。中国传统文化具有独特的民族精神,在长期发展过程中,也体现其独特的人文特征,播音主持主体创作人在内容创作过程中应继承和发扬中国传统文化,彰显中国传统文化独有的魅力。中国传统文化的融入可以有效提升播音主持主体创造人自身的民族精神,并在整个创作生涯中自觉的承担起弘扬中国传统文化的重任,可以说中国传统文化为我国创作主体在素质提升方面提供了指引。

另外在主持流程中,播音员主持必须良好地把握栏目全局,做到栏目时间和节奏的把握,这将对播音员主持的专业素质和人文素养产生相应的要求。通过话语交际和情感表现,可以更良好地展现主持人的文学功底,同时,还能够表现出播音员的文化底蕴,并以此为电视节目的精彩性提供了基本的保证。

例如:湖南卫视『天天向上』的节目主持人汪涵,在该栏目中,每一期都加入了丰富的中华传统文化内容,在这样的栏目设定下,汪涵的传统文化精神得到了彰显,并从中展现出人格魅力,从而使得栏目拥有了深刻的社会意义。

总之,作为电视节目中的主要工作人员,主持人占有着关键的地位,发挥着关键性的作用。在新兴媒介时代背景下,媒介竞争也越来越剧烈,为了更好地在传媒事业中立足,播音主持才必须不断加强自身素质的提高,更加注重于话语沟通和情感表达能力的提升的需要,主持人必须经过长久的文化陶冶才能产生自身独特的风格韵味。人们常用"腹有诗书气自华"来赞美优秀的主持人,那么就说明具有优秀文化内涵的主持人更易于为观众所认可,从而影响着观众对其自身综合风格以及整体素质的评价。在某种程度上,对播音员主持来说,思想文化品质是位于底蕴层面上的,如果缺乏思想文化品质作为基石,基础条件再好的播音员主持也无法主持得得心应手。

3. 中国传统文化融入播音主持专业教育的路径

1）以『即兴口语表达』课程为例探讨中国传统文化融入

播音与主持艺术专业教育中融入中国传统文化,其教学的主要目的是让学生能够自觉承担传播和弘扬中国传统文化的重任,并积极主动学习中国传统文化的审美意识和文化素养。本文以『即兴口语表达』课程为例探讨中国传统文化融入的可行路径。播音主持专业通过多个教学环节,来提升学生有声语言创作质量和艺术审美理念,并使中国传统文化成为专业学生提高素养和创造性的源泉。『即兴口语表达』是播音主持专业的核心课程之一,是中国高校本科播音主持专业大二下学期开设课程,让学生掌握绘画、历史、文学、地理、社会、时政等各学科的部分知识点,并用于思维训练和语言表达中,从而增加学生的知识储备,开拓学生的思维空间,做到更加精准、深刻的口语表达。大二学生往往拥有广泛的兴趣爱好,热爱生活,热情积极,学习过程中也会不断的重塑自我和发现自我,所以在口语表达中敢于标新立异,独树一帜。因为学生们并非被动的讯息接收人,他们是主动的信息加工者与价值构筑者。所以教育必须以学生为中心,充分发挥他们的主观积极性,把教学的工作主动权让给他们。可以帮助他们梳理思维逻辑,并提升内容创作的质量。而将中国传统文化融入到课程当中,使其凝炼成具有传统文化特色的意识形态,将传统文化文字语言的形式转化为有声语言形式,这既可以增强专业学生自身的即兴口语表达能力,也能起到较好的话语传播效果。因此,本文将从以下两个方面来探讨『即兴口语表达』课程教育中传统文化的融入。

（1）融入传统文化凝练思维模式

由于中华民族文化源远流长,因此我国的传统文学也呈现出了百家争鸣齐放的局面,在这些作品中凝结了中国古人的思想和中华民族的精神,正是这些作品,在文化传播的进程中改变了中华民族的传统思想模式和行为习惯。在即兴口语表达的教学过程当中,老师们能够从这些语言作品所凝聚的思想当中汲取一定的内容,从而转化成即兴口语表达教学的思想方法,并让学习者在课程教学过程当中,使其有声语言表达能力能够更适应于本民族的语言需求与教学试听方式。[5]同时,在具体教学过程中,教师可以从传统艺术作品中选取优秀的艺术作品,来让学生进行鉴赏,并以此为标准训练学生的形象思维和想象力。在凝练思维模式方面,其具体融入方式有以下几点:

一是在教学内容中融入中国传统绘画作品。课程教师在教学内容上,可以选择北宋风俗画『清明上河图』这幅名家作品,学生通过对名家作品进行鉴赏,了解作品的历史常识和艺术价值,从而有效训练学生对事物表象的认知,这种学习方式可以有效提高学生即兴口语表达的能力。在『清明上河图』中,创作设计构图大量使用鸟瞰的全景方法,既逼真自然而又集中概括地展示了当时汴京东南部城角地区这个经典的特殊地域。[6]图片长而不冗,繁而不乱,严谨紧凑,如一气呵成般。图中所摄取的景色,远至寂静的田野,汹涌的河水,甚至高大的城郭;小的鞍马里的故事,摊位上的摆设物品,市招上的字样,丝毫不失。图片中,穿插着各类内容,安排的有错落有致,但也富有趣味。老师可让学生们从图片上不同的人物形象方面入手,培养他们的创造力,让他们勇于表达自己的观点,采用这些方法能够培养他们的想像力,并发现新的角度和方向。

二是在教学内容中融入中国传统诗文著作。课程的教师在教学内容中,可选用元曲诗人马致远的『天净沙秋思』这一曲牌,对学生的逻辑思维能力进行训练。此曲将各种景色并置,组成了一副秋郊夕照图景,并让

5) 季连帅,李景瞳. 中华优秀传统文化融入法学教育的内在逻辑与实践路径[J]. 继续教育研究,2022(7):4.
6) 申明南. 小学水墨画教学实践初探[J]. 读写算-素质教育论坛,2017(1):123.

天涯游子身骑一匹瘦马呈现在一派萧瑟的历史背景上,由此透出令人悲伤的气氛,表达了一位飘零天涯的游子在秋天想念故土、倦于流浪的凄苦愁楚之情。[7]这支小令句法独特,前面三句全部以名词性词组结构,总共列举了九个景物,语简而意丰。要求学生对诗歌的前半部分进行改编,可以以具体的景物为核心通过语言对其进行描述和形容,同时要求学生对诗歌的最后两句应抒发某种特定情感,这一要求的目的是对学生限定性逻辑思维能力进行锻炼。

三是在教学内容中融入中国传统音乐作品。授课老师在教学内容中,分别选用了『高山流水』和『十面埋伏』两首不同风格的传统音乐作品,『高山流水』是古琴曲,也是我国十大古曲之一。又相传先秦的著名乐师伯牙曾在荒山野中弹琴,樵夫钟子期闻竟能领悟它是描绘的"峨峨兮若泰山"和"洋洋兮若大江"。[8]伯牙惊道:"善哉,子之心而与吾心同。"钟子期死后,伯牙痛失知音,摔琴绝音,一生未弹,遂成了高山流水之名曲。[9]而『十面埋伏』,又名『淮阴平楚』,是以楚汉相争的历史为主题所作曲的琵琶艺术独奏曲,该曲以公元前二零二年刘邦和项羽垓下之役的历史事件为主要内容,以标题音乐的方式描写了当时惨烈的战争场面,虽无明确历史背景,却也不乏丰富的感情色彩。[10]要求学习者在聆听各种音乐的过程中,通过自己所体会到的音乐气息进行某个题材的即兴口语表演,采用这种方法,能够有效培养学习者的发散性思维能力。

上述三种不同的中国传统文化所呈现的意识形态都是不同的,将中国传统文化融入到即兴口语表达课程当中,可以有效帮助学生掌握不同的思维模式,从而更好的在特定场景中完成即兴口语表达的创作。专业学生自身的思维模式扩展能力越强,所创造的作品质量就越高,在演讲结束后就越能吸引并感染观众。

(2) 融入传统文化转化创作内容

中国传统文化的文字作品十分丰富,从唐宋诗词到明清小说,这些文化作品都为有声语言的表达提供了创造源泉。在进行口语表达课程教育过程中,教师可以从这些文字作品中吸取相应的元素,来转化成即兴口语表达课程的创作内容。[11]这种形式不仅可以提高专业学生的文化素养,也能提升学生口语表达的实际效果,在长期的学习和运用的过程中,使学生逐渐形成自己的播音与主持风格,在实际工作过程中可以更好的适应职业的需求。在具体教学过程中,专业学生可以采取不同的思维模式,从不同的历史时期,选择不同风格和载体的文字作品作为自己即兴表达的创作标准。在转化创作内容方面,其具体融入方法有以下几点:

一是在培养学生归纳思维方面。教师能够让学生以诗意作为表现主体,以各个时代的古典名句为写作规范,进而概括总结诗文中有同一本质性的结论,这种归纳的方式有利于学生储备相关的文化知识,在今后的内容创作中为学生提供一定的灵感,同时也更好的锻炼学生在归纳思维方面的能力。[12]古诗词本身就蕴含着古代的人文精粹,是中华民族在历史的长河中延伸出了各种文明的经典形式,反映了各个朝代和各种地区的人文特点,也体现了民众的生存状况。使用古诗词,来为学子们弘扬中国优秀传统文化教育,是一个很良好的选择。

二是在培养学生心理思维方面。教师可以让学生以女性人物为表达主题,比如"巾帼不让须眉"的代表花木兰,"千古第一才女"李清照。以不同女性人物不同时期的评价语言作为创作标准,创造符合该女性历史特征的情景,并激发学生内心丰富的想象力完成作品创作,同时使创作后的作品具有较强的感染力和表现力。

7) 张仲霏,张旭. 马致远『天净沙•秋思』解读别议[J]. 现代语文,2019(12):90-94.
8) 李慧华. 高中音乐鉴赏课中文化理解的体现——以音乐鉴赏课『高山流水志家国』一课为例[J]. 考试周刊,2020(29):149-150.
9) 高山流水[J]. 小学阅读指南(导学版),2022(4):53.
10) 车雅敏. 探析职业高中公共艺术音乐欣赏课琵琶曲『十面埋伏』教学[J]. 现代职业教育,2020(2):206-207.
11) 王倩融媒语境下提升播音主持专业即兴表达的有效教学手段探索[J]. 世界观,2021(13):127
12) 王淑清. 中华优秀传统文化融入高校立德树人教育过程的意义与路径[J]. 2021.

三是在培养学生理性思维方面。教师可以让学生以改革为表达主题,以不同历史时期的政治变革、城市迁移等作为主要创作标准,将以往历史的各种变革经验作为原始积累,应用在现代社会变革情境中,利用中国传统文化结晶作为解决现在社会发展过程中产生问题的重要手段,促进学生对当代社会实事政治敏锐度的提升。

2)以『电视节目创作』课程为例探讨中国传统文化融入

『电视节目创作』作为全国播音主持专业学校必修课的核心专业课之一,同时也是专门培养学员在电视、构图、摄像、策划、编排等方面创造艺术的基础专业课。本课程具备较强的实践性与应用性,通过理论学习培养学生创作、创新的能力,使之做到活学活用。并让学生全面掌握电视策划的基本原理,了解各种电视企划的知识和技巧,并训练了学生自主完成电视企划的专业能力,为学员在毕业后从事影视企划工作打下了扎实的基础。对于培养今后的主持人、播音员等充分利用语言表达方式、节目综合策划与制作的能力至关重要,是播音主持专业学生步入职业生涯后与社会接触最为密切的一项课程。媒体作为信息传递、娱乐交换的重要载体,其功能的实现,往往是以电视节目的输出作为结束,电视节目的具体内容质量和品质对媒体的综合竞争力及品牌价值有直接影响。以新媒体环境下的电视结节目为平台,经典的中国传统文化可以拂去古老的历史尘埃、褪去陈年旧色,重新抛光打磨,以全新的姿态让广大观众们积极的接受并且爱上这类传统文化节目。

央视的传统文化节目当中就有一些节目创作内容非常具有特色的。比如,『故事里的中国』栏目就采取"戏曲+电影+综艺"的结合方式,诠释历史典型片断、采访主创角色、展示真正爱情故事后面的复杂情感力量。『中国诗词大会』定位于中国古代的优秀诗词,是中华文化长河中的文字文明。"昨夜西风凋碧树,独上高楼,望尽天涯路",中国一句句优秀的诗词作品,就这样千年积淀,代代诵读。我们的广大中小学生,正是从我国优良的传统文学作品中,浸入其中,"欲穷千里目,更上一层楼",促进着我国青少年一代又一代人的思想继承与精神成长。[13]『舌尖上的中国』通过介绍了中华民族的日常饮食文化流变,以及中国人在传统饮食文化中所积淀的宝贵经验,通过千差万别的饮食习惯以及独具特色的味觉美学,揭示了提高到人类生活中精神层次上的东方人生价值观。

因此,本文将从以下两个方面来探讨『电视节目创作』课程教育中传统文化的融入。

(1)在电视节目策划阶段的具体融入途径

策划是表达整个电视节目主题内涵的关键环节,电视节目策划需要突出创意性。电视节目作为媒体品牌价值理念传递的基站,如果长期热衷于娱乐八卦,不深挖节目内涵,会让媒体丧失社会公信力和对大众的吸引力。在国家层面推崇中国传统文化创造性发展理念的引导下,电视节目策划阶段应该以中国优秀传统文化内容作为创作基底,不断追求电视节目质量的提升。在课堂上开设『电视节目创作』课程,能够在不同类型的电视节目策划过程中渗透中国优秀传统文化。在明确具体受众人群基础上,针对受众偏好对不同类型电视节目的策划创意进行中国传统文化融合,不断提高电视节目的策划品质。在具体课程教学内容上,可以选取社教类电视节目作为主要切入点,中国传统文化与社教类电视节目的有机融合,有利于其恰如其分的进行传播。以社教类节目中的旅游类别为例,将其创意主题设置为"文化之旅",在具体节目策划阶段就要彰显

13) 吴姝丽.传统文化节目在新媒体时代的传播策略[J].中国传媒科技,2021(10):108-110. DOI:10.19483/j.cnki.11-4653/n.2021.10.032.

不同地区的、具有代表性的建筑体系或非物质文化不同的民俗风情作为实际创作内容,利用演播室和外景相结合拍摄方式实现电视节目的策划与制作。还可以选取文艺类节目为切入点,将创意主题设置为"古风文学",每期节目介绍一位中国古代诗词名家极其代表作配合古典音乐跟舞台表演进行创作。

(2) 在电视节目播出阶段的具体融入途径

有声语言是电视节目最为重要的表达方式,可以直接向受众群体传递信息和文化知识,这也对播音主持从业人员的音准提出了更高的要求,我国在电视节目创作方面就对播音主持从业人员的创作质量进行明确要求。教师在『电视节目创作』课程教学过程中,除了要求学生的专业素质以外,还需要服装、道具以及化妆等方面进行严格要求。以美食节目为例,教师给学生限定美食主题,学生需要模拟电视节目播出的全过程,在节目播出过程中需要身穿符合节目主题的服饰和道具,在通过有声语言对美食所具备的特色进行讲解,服装和道具将会进一步加强观众的视觉效果,能使观众的身心投入到节目当中。以竞技类节目为例,教师可以给学生限定"民族运动"主题,并要求学生模拟电视节目播出的全过程,学生可以选择不同民族的运动特色,并配合相应的服装和道具,如太极运动,就需要身穿太极练功服、蒙古族博克运动,就需要身穿蒙古族民族服装。[14]通过上述方式,可以更好的将中国传统文化融入到电视节目的播出阶段,也能使播音主持学生深刻了解传统文化的融入途径。

4. 结束语

中国文化艺术以及新闻传播事业的持续蓬勃发展,在现阶段,由于面对着新兴媒介的快速发展,广播电视节目主持业务也面对着新的挑战和机会,而相关工作者若想不在新媒介竞争残酷的大背景下遭到淘汰,才能胜任相关的工作岗位,就要求主持人播音员具有专业的素质以及丰富的文化底蕴,同时还必须与时俱进地不断提高自我素质,形成自己独有的风采,并进行个性魅力的提炼,以便于在符合广大受众需要的基础上,为提高播出品质打下了良好的基础。在这个历史背景下,播音主持个人文化遗产的重要意义也越来越突出,不但与栏目的收视率有着重要的关联,还与播音主持的个人职业生涯有着巨大的联系关系。中国传统文化源远流长,必须将其融入到播音主持专业教育当中,这样才可以为学生带来创作灵感和审美标准。为我国培养更多的优秀的广播电视节目主持人奠定基础。在各大院校播音主持人才培养计划中,必须侧重于对中华优秀传统文化艺术的融入,在课程体系的设计中,多加入一些中国文化的内容,包括了美术、书法、诗歌、曲艺等。同时在专业课程中,还需要适当加入中国元素,比如把中华的古典诗词作为学生平时在本科课程中学习朗诵的主要训练内容,使他们在阅读的过程中,比较深入地理解中华的优秀传统文化,并体会古典诗词的韵律美感。同时在校园文化的发展过程中,还需要更加主动的吸引学生参与并弘扬我国的传统文化艺术活动。使他们逐渐形成了继承和弘扬中华优秀传统文化艺术的能力。而这不仅需要学校的积极帮助,同时还需要获得社会各界的大力支持。那么,为了将我国传统文化进一步的融合到播音主持专业之中,本文以播音主持专业的基础教学为例,论述了与我国传统文化融合的基本途径,通过中国传统文化在基础课程中进一步的融合,让学生们逐步地了解中国文化的基本含义,更好的融入到创作内容当中,并提升播音主持作品的质量。

14) 郭保国. 播音主持体育方向专业人才培养模式分析[J]. 江西电力职业技术学院学报, 2020, 33(09):91-92.

【포스터】 발표 ①

对中国互联网平台企业的自我优待行为的反垄断规制研究
(중국의 인터넷 플랫폼 기업의 자기우대 행위에 대한 반독점 규제 연구)

Mo Ran* · 서석홍**

【目 录】

1. 引言
2. 平台企业概述、反垄断行为的概述及自我优待行为的相关概述
3. 中国对于自我优待行为的现有（法律）规制
4. 反垄断法对于自我优待行为的规制缺陷及改善方法
5. 结论

【초록】

인터넷 디지털 플랫폼의 규모는 방대하고 전체 디지털 시장의 중요한 핵심 데이터를 장악하고 있다. 규모의 경제, 네트워크 효과, 자연 독점 등의 특징을 가진 디지털 플랫폼 시장에서 대부의 인터넷 디지털 플랫폼이 이미 시장지배적 지위를 갖추고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 인터넷 플랫폼의 자기 우대 행위는 시장의 자유 경쟁 질서를 파괴하고 소비자 후생를 손상시켜 반독점법의 규제 대상 중 하나가 되어야 한다. 자기우대 행위가 새로운 문제이기 때문에 중국 반독점법이 자기우대 행위에 대한 규제에 여전히 일련의 결함이 있다. 예를 들어, 자기우대행위의 구체적인 표현, 자기우대행위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시장을 정의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모호다 또한 플랫폼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갖는다고 판단하는 요소가 포괄적이지 않은 등의 문제가 자기우대 행위에 대한 여전히 반독점 규제를 어렵게 하고 있다. 인터넷 플랫폼의 점진적인 발전에 따라 새로운 문제가 점점 더 많이 발생하므로 중국의 반독점 분야에 대한 강력한 규제 시대가 도래했다. 따라서 '반독점법'은 최근 디지털 경제 플랫폼의 엄격한 반독점 법 집행과 일치해야 하며, 반독점법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관련 시장의 정의 방법을 명확히 하고 완전한 플랫폼 감독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 부경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moranfighting@gmail.com)
** 부경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ssk668@pknu.ac.kr)

1. 引言

1) 研究背景和意义

随着中国信息网络技术的快速发展，网络已经普及到家家户户和各种行业。互联网平台经济也依靠着互联网技术的普及而迅速发展起来，中国互联网产业发展迅速，在中国的经济发展过程中占据了重要地位。依据中国信息通

信研究院的统计研究[1)]，平台经济大幅度推动了经济增长。根据中国信息通信研究院监测，截至2019年底，中国价值超10亿美元的数字平台企业达193家，比2015年新增了126家。从2015-2019年，中国数字平台市场价值总额由7957亿美元增长到2.35万亿美元。互联网经济作为推动中国经济发展的新功能，在互联网平台经济不断创新的同时，不可避免地会形成几家独大的局面。这引发了垄断和不正当竞争的争议，同样不可避免的出现了平台自我优待行为问题，给反垄断法的各方面都迎来了新的困难。

随着国内外对互联网平台经济的反垄断规制进入强监管时代，监管常态化和执法严厉化成为平台经济反垄断的趋势，竞争法如何在平台经济中规制自我优待行为，这些就具有重要意义了。依据中国反垄断法的一般分析框架：首先界定相关市场；其次认定市场支配地位；最后认定该垄断主体存在滥用市场支配地位的行为。所以，互联网数字平台的相关市场如何界定、滥用市场支配地位行为的细化分类，这些问题都值得探讨.并且规制自我优待行为对市场的自由竞争具有重要意义.

举例说明：数据显示，仅2021年“双十一”当天，中国大陆电子商务平台全网交易额就达到了惊人的9651．2亿元，其中阿里巴巴和京东的交易额占比超过九成。[2)] 阿里巴巴以撮合电子商务平台内经营者和消费者的第三方平台业务为主，辅助“天猫超市”等自营业务；京东则以借助平台信誉背书的自营业务发家，并在自营体系成熟后吸引更多平台内经营者入驻。平台经营者的自我优待行为具有反竞争风险，需要反垄断规制；由于反垄断法的形成最初是在工业时代，所以在面对平台经济的许多新方面无法涵盖，如何规制自我优待行为等新兴平台垄断问题成为困扰国家法律领域的难题。

2） 研究方法

①文献研究法。通过搜集专著，期刊文章、硕士论文等，通过梳理，了解自我优待行为的基本内容、现实中对市场发展的危害。

②价值分析法。分析该制度蕴含的经济法价值，以及如何在现有法律框架下规制自我优待行为。

③经济分析法。是通过对互联网平台的自我优待行为进行分析给予评价并做出判断的分析方法。

2. 平台企业、反垄断行为及自我优待行为的相关概述

1) 中国信息通信研究院政策与经济研究所：『平台经济与竞争政策观察（2020年）』，中国信通院网站，http://www.caict.ac.cn/kxyj/qwfb/ztbg/202005/t20200529_283407.htm [2022.10.05.]

2) 参考『2021年“双十一”全网交易额超9600亿当日包裹数达11.58亿』，中商情报网，https://www.askci.com/news/chanye/20211112/1630311656250.shtml [2022.10.05.]

1）平台企业的概念及特征

对于平台，有学者提出了两种不同的平台形态：实体形态和虚拟形态。实体平台是以特定的形式出现的，比如传统的商贸和交换的集市，而虚拟平台就是以分享为特点的虚拟空间，比如网上的交易或者是服务。在数字经济时代，我们所讨论的平台都是网络交易等虚拟平台，而不是传统意义上的平台。『平台经济领域的反垄断指南』[3]则对平台作了具体规定，即互联网平台是指通过网络信息技术，使相互依赖的双边或者多边主体在特定载体提供的规则下交互，以此共同创造价值的商业组织形态。因此，本文所讨论的平台指的是互联网平台，与传统的线下实体平台区分开来。平台企业是指平台企业提供网络的底层技术和基础，不参与核心价值的创造，但链接核心价值的创造者和用户两端，所以平台企业就是一个中间商，为两个或多个类别的使用者之间提供通信服务，从这个过程中向双方或者多方收取租金或者服务费。可以说，平台企业在双边市场中处于核心地位，它不仅是双边市场运行的经营者、维护者，也是平台交易规则的制定者，拥有一定的管理权限，它具有企业和市场双重身份。[4] 『平台经济领域的反垄断指南』第二条第二款将平台企业定义为平台经营者，是指向自然人、法人及其他市场主体提供经营场所、交易撮合、信息交流等互联网平台服务的经营者。

平台经营模式已经被众多互联网企业应用和普及，平台经济早已成为推动经济发展的新引擎。与传统企业点对点的经营模式不同，平台企业通过互联网技术为多方用户提供交易场所，摆脱空间限制，在商业模式、定价方式和运营机制上具有许多不同于传统企业的新特征：

(1) 网络外部性

网络外部性是新经济中的一个概念，指的是一个网络的价值取决于所链接的用户总数。通俗来说就是，网络连

接的用户越多，网络中的用户所获得的价值也越多，这样网络外部性也会增长。以app为例，例如使用微信的人越多，微信的网络外部性越大，同时使用微信的人的价值也越大。网络外部性有直接和间接的分别，网络直接外部性是指因为使用该产品的消费者变多，而导致了被使用的产品的价值变大；网络间接外部性是指随着用户的数量增加，这个产品的替代品变多，市场竞争变得激烈，产品价格会下降，从而有利于消费者。平台企业更多体现的是网络间接外部性，平台企业的规模和结构取决于双边市场中参与双方或多方的数量规模。美国学者埃文斯提出，网络外部性越明显的平台其规模往往越大，平台规模越大其市场集中度越高。[5] 也就是说，平台的网络外部性和规模经济越大，则拥有较强市场力量的可能性就越大，相应的控制市场的能力也越强。相反，如果平台吸引用户的能力弱、消费者可以自主选择其他平台产品，代表平台的用户聚集效应不强、规模不大，对市场的支配能力也就越弱。

(2) 交叉补贴定价

平台企业往往对一边用户采取免费赠送或低成本销售来吸引顾客，对另一边用户则采取收费以弥补产品的损失，这就是交叉补贴定价。平台企业初期一般都通过免费定价来收获消费者，而当进入平台的用户越来越多，其获得的效用会越来越大，也就越来越吸引更多的用户进入该平台，消费者对平台形成常用的习惯之后就等于形成对平台的依赖性。我们所熟知的网络平台一般都是通过免费来收获消费者，比如通讯工具微信、QQ，搜索引擎百度、谷歌等，都是通过对消费者用户免费，而对广告商收取费用以获得利润收入。

3)『国务院反垄断委员会关于平台经济领域的反垄断指南』，印发于2021年2月7日.
4) 时建中,马栋.「双重身份视角下平台自治与反垄断监管的界限」. 来源期刊：竞争政策研究,2020年04期.
5) 时建中,张艳华.『互联网产业的反垄断法与经济学』[M].北京:法律出版社,2018,第42页.

(3) 无形资产比重大

平台企业与传统企业不同，平台企业无需购置生产设备，投入固定资产较少，但需大量投入科技、技术研发等无形资产，因此平台企业的资产更多体现为无形资产而非实物资产。平台发展前期，投入巨额资金，运营成本大，甚至严重亏损，而一旦克服困境获得大量用户后，其边际成本不断下降甚至为零，其规模和结构还可能会持续扩大。

（4）数据集中度高

平台企业作为双边市场中的核心，经营、管理甚至支配着双边的经营者和消费者，获取经营者和消费者的大量数据以取得支配地位，是平台企业追求利润最大化无法避免的结果。以交易类平台为例，平台往往聚集着大量的消费者和经营者个人信息和购买商品记录等数据信息，因此平台企业数据集中度非常高。一旦获得大量数据，平台企业便可以优化算法算力技术对数据进行加工，对用户行为精准预测然后推送产品促进产品销量。同时平台所拥有的数据资产越多就越具有优势，越能够拥有较强的市场支配力，产生一定的数据垄断可能性。

2）反垄断行为的概述和滥用市场支配地位

（1） 反垄断的四种行为

根据中国『反垄断法』[6]第3条的规定，垄断行为一般指四种经济垄断，具体包括：

① 垄断协议

垄断协议是指两个或两个以上的经营者以协议、决议或其他联合方式实施的限制竞争行为。在市场经济条件下，垄断协议广泛地存在于经济生活的各个阶段和各个方面，与滥用市场支配地位、经营者集中等垄断行为相比较，其表现出发生量大、涉及面广、对市场影响速度快等特点，对有效竞争的破坏具有普遍性和持续性。正因如此，垄断协议控制制度被看作是反垄断法的三大支柱制度之一。

② 滥用市场支配地位

市场支配地位是一种状态，是指经营者不顾竞争对手和交易相对人的反应从事经营行为。滥用市场支配地位是指企业获得一定的市场优势地位后滥用这种地位，对市场中的其他主体进行不公平的交易或排斥竞争对手的行为。

③ 经营者集中

经营者集中是一个宽泛模糊的概念，近似的概念有企业合并或者收购、经济力集中、企业并购或者兼并等。它的核心是指两个或两个以上企业以一定的方式或手段所形成的企业间的资产、营业和人员的整合。

④ 滥用行政权力排除、限制竞争

滥用行政权力排除、限制竞争是指拥有行政权力的政府机关以及其他依法具有管理公共事务职能的组织滥用行政权力，排除、限制竞争的各种行为。我国反垄断法第8条规定：“行政机关和法律、法规授权的具有管理公共事务职能的组织不得滥用行政权力排除、限制竞争。”这一原则性规定与该法第五章列举的滥用行政权力排除、限制竞争的主要表现形式互为补充，使得反垄断执法机构能够更加得心应手地运用反垄断法规范行政垄断。

6) 『中华人民共和国反垄断法』颁布于2007年8月30日，最新修订于2022年8月1日. https://baike.sogou.com/v290003.htm?fromTitle=反垄断法&ch=frombaikevr

（2）反垄断的行为之一——滥用市场支配地位

滥用市场支配地位是指企业获得一定的市场优势地位后滥用这种地位，对市场中的其他主体进行不公平的交易或排斥竞争对手的行为。滥用市场支配地位的表现形式有：①不正当的价格行为②差别对待③强制交易④搭售或附加不合理交易条件⑤掠夺性定价⑥独家交易⑦拒绝交易⑧限制转售价格

『反垄断法』第十七条，禁止具有市场支配地位的经营者从事下列滥用市场支配地位的行为：（1）以不公平的高价销售商品或者以不公平的低价购买商品；（2）没有正当理由，以低于成本的价格销售商品；（3）没有正当理由，拒绝与交易相对人进行交易；（4）没有正当理由，限定交易相对人只能与其进行交易或者只能与其指定的经营者进行交易；（5）没有正当理由搭售商品，或者在交易时附加其他不合理的交易条件；（6）没有正当理由，对条件相同的交易相对人在交易价格等交易条件上实行差别待遇；（7）国务院反垄断执法机构认定的其他滥用市场支配地位的行为。平台经济是创新的产物，在平台经济领域中“二选一”“大数据杀熟”“自我优待”“扼杀式并购”等行为在反垄断法中没有明确划定，属于新型的滥用市场支配地位行为。

3）自我优待行为的概念

（1）含义

互联网平台的自我优待行为，一般而言指的是互联网平台的经营者相对于在其平台内的其他经营者来说，通过利用自己在平台内的支配地位，制定平台规则或者利用自己的资源优势，优待自身业务的行为。

（2）发生的原因及表现形式

在传统的市场平台中，自我优待行为早已经存在。早期的自我优待行为其实就属于企业自主决策，比如各大手机品牌在自家厂家生产手机的时候可以自主选择自家生产的相关零件或者购买其他生产商的零件，从长远来说使用自家生产的零件可能成本更低，所以企业降低成本是自我优待行为发生的原因之一。但是现在占据市场支配地位的互联网平台企业产生自我优待行为的原因不仅仅是想实现企业自主决策，还想通过自我优待的方式将市场内其他竞争者提供的对自己有威胁的商品或者服务进行纵向整合，所以想封锁市场也是互联网平台企业发生自我优待行为的原因之一。

自我优待行为一般表现为封锁行为，主要可以根据封锁行为针对的市场而划分为两类：一是针对竞争者的竞争成本，封锁其所需要的重要投入品而提高其竞争成本的投入品封锁；二是通过封锁流量，减少客户的方法提高竞争对手的竞争成本的客户封锁。一般来说,平台“自我优待”主要表现为四种形式：一是利用控制搜索结果呈现的优势进行自我优待.如将自己的商品和服务置于检索结果排序的前列,从而获得更多的交易机会.二是利用控制非公开数据的优势进行自我优待。如通过收集和分析自身掌控的数据在经营过程中进行选品决策,从而形成竞争优势或通过其平台算法将流量引导到己方提供的商品上.三是利用直接控制消费者“选择”的优势进行自我优待；如搭售自家商品。四是利用平台政策执行者的地位进行自我优待；如为自己产品提供免费广告或利用开放应用程序接口,策略性地限制竞争对手。[7)]

(3) 对竞争的危害及正面影响

自我优待行为对竞争的危害:

① 损害平台其他经营竞争者权益

例如亚马逊曾被调查利用第三方平台内其他经营者的数据来为自己的同类商品提高竞争力。[8] 在亚马逊平台内，其他经营者需要通过对消费者的需求和喜好进行长期的观察来收集数据，然后进行分析才能获得市场优势，但是亚马逊平台利用自己的市场地位的优势通过不正当途径获取其他经营者努力得来的数据销售自家商品，损害其他竞争者的权益。

② 损害消费者利益

互联网平台企业为了巩固自己的市场地位，保持自己的数据优势，就需要付出巨大的成本，为了能获取更多的利益这些成本必定会由各个平台用户来承担，比如微信拥有无数的用户，免费提供通讯服务的同时也包含一些提现手续费之类的，导致用户的使用成本增高，损害消费者利益。

③ 损害市场自由竞争

互联网平台企业通过各种后台操纵去引导平台用户搜索想让用户搜索的结果，由于用户的注意力有限，通常情况下只会浏览排名在前几位的结果，比如抖音的热点排行都是通过后台数据推送给每个用户，推高热点然后在商城主页销售一些热门商品，而有些竞争者的商品随着浏览用户的减少到最后被淘汰出市场，所以相关竞争者与平台经营者处于不公平竞争，像这样垄断流量的互联网平台极度影响市场自由竞争。

正面影响:

虽然自我优待行为对竞争有一些危害，但对于平台经营者来说能够节约成本，而且对于一些下游竞争对手来说可能不是一件坏事，正所谓适者生存，具有市场支配地位的互联网平台企业将下游竞争对手排挤出市场，在整合过程中或许反而能降低下游竞争对手的压力；并且对部分平台竞争者来说有激励作用。

3. 中国对于自我优待行为的现有（法律）规制

1)『反垄断法』

我国『反垄断法』第十七条第一款第三项[9]禁止了占据市场支配地位者的拒绝交易行为。

2)『禁止滥用市场支配地位行为暂行规定』

『禁止滥用市场支配地位行为暂行规定』[10]第十六条第二十条规定，“禁止具有市场支配地位的平台经营者利用数据和算法、技术以及平台规则等，没有正当理由，在该平台内经营者竞争时，对自身给予下

7) 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网络交易监督管理司:『互联网平台“自我优待”主要表现』, https://www.samr.gov.cn/wljys/ptjjyj/202207/t20220718_348712.html [2022.10.05.]

8) 亚马逊被调查---平台获取第三方商家数据的法律分析, https://mp.weixin.qq.com/s?src=11&timestamp=1666520960&ver=4122&signature=jEexo5T7ouM4eMSzmox0gwi1JCwAXBx9r8-VP3brjbue5LBDtuDJjz0aUcKvDUL*FoOkQOZE14YU3R6BFSngygbyioGMexfuRj-wbNYTH3qupHzvK6iYOOtB9jODri3U&new=1 [2022.10.11.]

9) 中国『反垄断法』第十七条第一款第三项规定：禁止具有市场支配地位的经营者从事下列滥用市场支配地位的行为：（三）没有正当理由，拒绝与交易相对人进行交易。

10)『禁止滥用市场支配地位行为暂行规定』, 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网络交易监督管理司：https://baike.sogou.com/v182245992.htm?fromTitle=禁止滥用市场支配地位行为暂行规定。

列优惠待遇：（一）对自身商品给予优先展示或者排序；（二）利用平台内经营者的非公开数据，开发自身商品或者辅助自身决策。”该规定也是对自我优待行为难以准确对应现有滥用行为类型之困境的回应与解决。

3）『平台经济领域的反垄断指南』

『平台经济领域的反垄断指南』第十四条[11]规定，其有市场支配地位的平台经济领域经营者，可能滥用其市场支配地位，无正当理由拒绝与交易相对人进行交易，排除、限制市场竞争。

4）『反不正当竞争法』

『反不正当竞争法』[12]第十二条第二款，经营者不得利用技术手段，通过影响用户选择或者其他方式，实施下列妨碍、破坏其他经营者合法提供的网络产品或者服务正常运行的行为：（一）未经其他经营者同意，在其合法提供的网络产品或者服务中，插入链接、强制进行目标跳转；（二）误导、欺骗、强迫用户修改、关闭、卸载其他经营者合法提供的网络产品或者服务；（三）恶意对其他经营者合法提供的网络产品或者服务实施不兼容；（四）其他妨碍、破坏其他经营者合法提供的网络产品或者服务正常运行的行为。[13]

5）『电子商务法』

『电子商务法』[14]第二十二条、第三十二条、第三十五条也对平台经营者不得滥用市场支配地位，排除、限制竞争作出具体规定。其中提到了电子商务经营者利用技术优势、用户数量、对相关行业的控制能力以及其他经营者对该电子商务经营者在交易上的依赖程度等因素而具有市场支配地位时，不得利用服务协议、交易规则以及技术等手段，对平台内经营者的交易、交易价格以及与其他经营者的交易进行不合理的限制或附加不合理条件，或收取不合理的费用，这些情形可能属于自我优待行为，需进行个案分析。

4. 反垄断法对于自我优待行为的规制缺陷及改善方法

1）规制缺陷

互联网平台企业的自我优待行为不仅损害了竞争秩序，也损害了消费者利益与其他竞争者的利益，所以才会需要反垄断法的介入进行规制，判断自我优待行为是否违法、是否属于滥用市场支配地位的行为，需要通过界定相关市场、认定市场支配地位以及确定自我优待行为是否属于滥用市场支配地位的行为来确定。中国现存的法律对于这些问题仍然存在缺陷：

（1）相关市场界定的的不确定因素

目前对于相关市场界定的标准还存在模糊不清的因素，相关市场的界定是认定互联网平台的自我优待行为属于滥用市场支配地位行为的第一步。『反垄断法』第十二条提出了相关市场的概念，相关市场是认定

11)『平台经济领域的反垄断指南』第十四条，分析是否构成拒绝交易，可以考虑以下因素：（一）停止、拖延、中断与交易相对人的现有交易；（二）拒绝与交易相对人开展新的交易；（三）实质性削减与交易相对人的现有交易数量；（四）在平台规则、算法、技术、流量分配等方面设置不合理的限制和障碍，是交易相对人难以展开交易；（五）控制平台经济领域必需设施的经营者拒绝与交易相对人以合理条件进行交易。

12)『反不正当竞争法』，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https://baike.sogou.com/v273117.htm?fromTitle=反不正当竞争法。

13)“自我优待，孰是孰非---反垄断系列新规解析”，https://www.sohu.com/a/567828266_121123752 [2022.10.11.]

14)『电子商务法』，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 https://baike.sogou.com/v143454354.htm?fromTitle=电子商务法&ch=frombaikevr

是否具有市场支配地位的基础。在2021年国务院反垄断委员会发布的『国务院反垄断委员会关于平台经济领域的反垄断指南』中第四条中，该指南将相关市场界定划分为相关商品市场和相关地域市场，并且确定相关市场界定的基本方法为替代性分析。相关市场的界定是规制互联网平台经济垄断行为的前提条件，但互联网平台经济具有交叉网络外部性、多边性、价格结构的非对称性等特点，导致核心功能商品的边界较为模糊，商品功能识别以及替代性分析法难以适用，在多边市场的情况下，核心功能商品的相关市场以及关联市场的市场范围与影响力难以清晰认定，进而导致无法界定相关商品市场。

市场支配地位的考察因素不明确，现行的规制里并没有把自我优待行为明确划分到滥用市场支配地位行为的属性里，但互联网平台具有市场支配地位是认定互联网平台的自我优待行为是滥用市场支配地位行为的关键一环。认定市场支配地位，一般参考三个标准：市场绩效、市场行为、市场结构。市场绩效标准的达到条件是经营者在生产成本和销售价格存在较大差距的情况之下，依然处于盈利状态，那么该经营者就可以被认定为具有市场支配地位。如果该互联网平台没有占据市场支配地位，那也不会存在滥用行为，那涉事行为也只能被认定为市场竞争行为，并不会排除、限制自由竞争，市场会自行规制，而无需反垄断法。在互联网平台经济中，要注意多边市场以及因多边市场而产生的网络效应，认定市场力量时，应当着重考虑五个因素：直接和间接网络效应、用户的转移成本以及服

对人的现有交易；（二）拒绝与交易相对人开展新的交易；（三）实质性削减与交易相对人的现有交易数量；（四）在平台规则、算法、技术、流量分配等方面设置不合理的限制和障碍，是交易相对人难以展开交易；（五）控制平台经济领域必需设施的经营者拒绝与交易相对人以合理条件进行交易。

务可替代性的高低、网络效应促使经营者的效益增长程度、经营者获取用户以及其他经营者数据的能力、创新驱动型竞争的压力大小。[15)]

（2）滥用市场支配地位行为的困境

『反垄断法』第十七条规定了具有市场支配地位的经营者滥用市场支配地位的行为，包括不公平价格行为、低于成本销售行为、拒绝交易行为、限定交易行为、搭售行为、差别待遇行为。拒绝交易行为是指具有市场支配地位的平台经济领域经营者，滥用其市场支配地位，无正当理由拒绝与交易相对人进行交易，排除、限制市场竞争。平台的自我优待行为可能涉及拒绝交易行为，居于优势地位的企业为了将特定交易对象排除在相关市场之外，将会拒绝与其交易。在互联网平台的竞争中，拒绝交易行为主要表现互联网平台对平台内的竞争者人为设置较其他竞争者更为严苛的条件，或者隐瞒关键信息，令竞争者难以充分利用关键信息。自我优待行为可能涉及『反垄断法』中的搭售行为，『反垄断指南』第十六条，平台通过令交易相对人无法选择、更改、拒绝的方式，捆绑销售商品，使消费者丧失选择权。在实务中，互联网平台通过自己的技术优势或者平台规则来搭售或者捆绑销售自己的产品，十分常见。差别待遇是指在同等的交易下无理由地给交易相对人设置有差别的交易条件，令交易相对人在交易中处于劣势地位的行为。我国『反垄断指南』对我国『反垄断法』第十七条第六款所描述的“其他交易条件”结合互联网平台进行了解释，将价格歧视、非价格歧视都纳入了差别待遇行为的类型中，而非价格歧视又包括对不同的交易相对人设定不同的标准、付款条件、付款方式、算法规则等。这使得差别待遇行为不仅仅只包括价格歧视行为，非价格歧视行为也被纳入到差别待遇行为中，受『反垄断法』规制。[16)]

（3）竞争效果分析的困难

15)「陈兵：互联网市场支配地位认定方法再探」，https://mp.weixin.qq.com/s?src=11&timestamp=1666535740&ver=4122&signature=Rh75JtGQBdgkSoz*VRw5NJ*TKN8LFU-XXTLp2H-xJVmrSBb92UB8mduQQrf3r8cQaSyy8UJuTk-i2Y4cmxHIqnrEqexq3uKSIohvRznr8PLg6EsOpafUdHPuBGYymQ1a&new=1 [2022.10.15.]

16)叶明、张洁.「大数据竞争行为对我国反垄断执法的挑战与应对」，https://www.doc88.com/p-67047162426293.html

垄断地位的获得是经营者自身努力的结果而也不构成“故意违法”，反垄断法的本意并不是禁止市场支配地位，而是防范滥用市场支配地位的行为，从而维护市场健康竞争。如果在竞争审查中垄断行为对市场竞争的正面效果大于竞争损害，那么该行为就具有经济上的合理性与反垄断法上的合法性，这也是反垄断法“合理原则”的要求。合理原则与反垄断法的模糊性相辅相成，在没有明确的“条件程式”规范指引的情况下，反垄断法的主导目标对于其规则的适用具有重要意义，这也是反垄断法“目的程式”的具体表现。17)

2）完善方法

第一，明确相关市场中的“产品界定”标准。互联网平台的商品种类繁多，根据商品的不同功能进行细分界定相关产品，针对双边市场或者多边市场通过交叉网络外部性来划分；从用户方、经营者方、其他市场三个层面结合考虑来明确市场支配地位的考察因素。第二，细化滥用市场支配地位行为的分类。增加滥用市场支配地位行为的类型，中国『反垄断法』没有对自我优待行为进行独立化，但如果将自我优待行为独立于其他几种滥用市场行为的话，对互联网平台企业会有更强的约束。第三，竞争效果分析困难的改善方法。反垄断法是维护和保障公平及自由竞争的法。18) 竞争是反垄断法所要保护的核心法益，扩大竞争分析范围；对于自我优待行为对市场竞争的积极影响与消极影响不能一概而论，要根据不同个案不同分析。

5. 结论

互联网平台的自我优待行为损害市场竞争秩序，也损害了消费者权益。通过反垄断法规制自我优待行为来保证自由竞争秩序。但是，反垄断法规制自我优待行为，也必须界定相关市场、认定市场支配地位以及确认自我优待行

于实时掌控互联网平台的垄断行为，并通过引入平台放垄断合规监管制度，实现对互联网平台自我优待行为的反垄断法规制。

自我优待行为是平台企业纵向一体化的正常商业选择，其本身是没有问题的。平台企业自我优待行为虽能带来部分收益，却会给平台内经营者、平台市场的竞争和消费者带来严重的现实损害。在宏观上应重新审视包容审慎监管原则、以『反垄断法』第17条及其指南为规范指引，进而在微观上从相关市场界定、市场支配地位认定和竞争效果分析三个方面实现传统分析框架下的内部方法革新。

17)守文：『反垄断法的完善：定位、定向与定则』，载『华东政法大学学报』，2020年第2期。
18)水林：『反垄断法的挑战一一对反垄断法的整体主义解释』，https://max.book118.com/html/2016/0316/37797642.shtm

메 모

【포스터】 발표 ②

对中国数字平台企业滥用市场支配地位反垄断规制研究
(중국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시장지배지위 남용에 대한 반독점 규제 연구)

Shang Peng-Cheng* · 서석홍**

【目 录】

1. 绪论
2. 平台企业滥用市场支配地位的具体行为及危害
3. 平台企业滥用市场支配地位的法律规制现状
4. 『反垄断法』实施以来平台企业滥用市场支配地位的案例
5. 平台企业滥用市场支配地位法律规制的问题及改善方案
6. 结论

【초록】

빠르게 발전하는 정보화 시대에 빅 데이터는 기업의 전통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변화시켰다. 플랫폼 기업은 빅데이터의 우세와 양자 시장 구조 등의 특징을 이용하여 시장지배지위를 남용한다. 이는 시장의 공정경쟁과 경제 발전에 심각한 손해를 끼치기 때문에 플랫폼 기업의 시장지배지위 남용에 대한 반독점 규제가 매우 중요하다. 제1절에서는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연구 의의와 방법을 서술하였다. 제2절에서는 플랫폼 경제의 개념과 특성을 결합하여 플랫폼 경제 분야에서 기업이 시장지배지위를 남용하는 구체적인 행위와 리스크를 고찰하였다. 제3절에서는 중국 플랫폼 기업의 시장지배지위 남용에 관한 법률 및 규제 현황을 소개하고, 중국 <반독점법>의 입법 과정과 시장지배지위 남용에 관한 입법 현황을 고찰하였다. 제4절에서는 중국의 <반독점법> 시행 이후 시장지배지위 남용에 대한 규제의 구체적인 사례를 구체적으로 고찰하였다. 제5절에서는 플랫폼 기업의 시장지배지위 남용에 대한 법적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문제점으로는 ①관련 시장의 정의곤란. ②구체적 규제 법률과 법규 부족. ③반독점법 집행의 한계. 동시에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이 플랫폼 경제 분야에서 시장지배지위 남용을 규제하는 법규를 참고하여 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시장지배지위 남용의 기준을 명확이 하고 관련 법률 및 규정을 개선하며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다. 제6절에서는 전체 내용을 요약 정리하였다.

* 부경대 경제학과 대학원 석사과정 (spc727@naver.com)
** 부경대 경제학부 교수 (ssk668@pknu.ac.kr)

1. 绪论

1）研究必要性及目的

信息技术的迅猛发展衍生出很多新的平台，数字经济也随之而来。平台经济是一种基于数字技术，由数据驱动、平台支撑、网络协同的经济活动单元所构成的新经济系统，是基于数字平台的各种经济关系的总称。[1)]随着各平台的不断发展，平台间的竞争也越来越激烈。大型平台为人们提供数字化服务和高效整合资源的同时垄断现象频频发生。阿里巴巴、腾讯、美团等企业利用平台经济零边际成本和“马太效应”等特征在市场占据主导性地位。其中价格差别、“二选一”、捆绑销售、自我优待、掠夺性定价等滥用市场支配地位的行为层出不穷。在此背景下，平台经济领域企业滥用市场支配地位的反垄断规制研究成为当下重要的课题之一。本文结合具体事例具体分析，探讨中国在平台经济领域如何规制企业滥用市场支配地位和企业滥用市场支配地位反垄断规制中的问题，有助于清晰地认识到大数据发展给反垄断规制带来的挑战，更加明确平台企业滥用市场支配地位的认定。

2）研究意义及方法

在第十二届全国人民代表大会第三次会议上，政府报告中首次提出“互联网+”计划。[2)]自此以后，依托互联网平台发展的企业逐渐出现在大众视野。数据平台为社会创造出新的经济价值的同时也给我们的反垄断规制带来了挑战。企业依托互联网掌握大量的数据资源形成垄断优势，造成了大量的不正当竞争，损害了平台经营者和消费者利益。因此，对平台经济领域滥用市场支配地位的行为进行法律规制的研究具有一定的现实意义。

以『反垄断法』及相关法律法规为基础理论依据，结合具体案例分析在平台经济领域滥用市场支配地位反垄断规制中的问题，并结合美国、欧盟等发达国家规制平台企业的经验，认识到中国在这一方面法律规制的滞后性，进一步完善中国的相关法律法规，为反垄断提供坚实保障。

通过文献研究法，进一步了解有关滥用市场支配地位的法律规定及立法现状，了解其他学者对此问题的看法，认识到规制平台企业滥用市场支配地位过程中的问题，对反垄断法的基础理论有基本了解。结合具体的案例分析中国平台企业在滥用市场支配地位的反垄断规制中的问题与困难，通过对案例中的争议点进行梳理，参考美国、欧盟等发达国家在滥用市场支配地位规制中的有效方案，结合中国国情，进一步完善中国在平台经济领域滥用市场支配地位反垄断规制的相关法律法规。

2.平台企业滥用市场支配地位的具体行为及危害

1）平台经济的概念及特征

随着互联网技术日新月异，平台经济的不断发展不仅为人们的日常生活提供了便利，也使企业的商业

1) 戴慧.杨玉.中国发展观察.聚焦平台经济治理③ | 平台经济健康发展的税收政策支持.2022.04.15
2) 赵文君.齐中熙.政府工作报告首提“‘互联网＋’行动计划”.新华网.2015.03.05

模式发生了改变。平台经济是指虚拟或真实交易场所的平台本身不生产产品，但可以促成双方或多方供求之间的交易，收取恰当的费用或赚取差价而获得收益的一种商业模式。[3]例如阿里巴巴、美团、腾讯等就是以“平台”为桥梁，通过互联网技术改革创新商业模式，促进双边交易和市场的发展。

通过对文献资料的查阅与理解可知平台经济具有规模经济、范围经济、网络外部性、双边市场及大数据分析等特征。双边市场的网络交叉性促进了平台同时获得规模经济和范围经济，但平台交易过程中极易出现不对称性，从而导致企业滥用市场支配地位，因此规制企业滥用市场支配地位极有必要。

2）平台企业滥用市场支配地位的具体行为

平台企业企业滥用市场支配地位的行为具体表现为：

一是价格歧视。价格歧视是指针对不同的群体，在提供相同的服务或产品时进行差别定价使得交易不对等的行为。[4]二是“二选一”行为。指平台利用优势地位和商家对其的依赖性，采取不正当手段强迫经营者在平台间“二选一”。[5]三是掠夺性定价。所谓的掠夺性定价是指在位厂商将价格削减至对手平均成本之下，以便将对手驱逐出市场或遏制进入。[6]四是捆绑销售。平台经营者利用市场支配地位在交易过程中捆绑销售其他产品及服务，会扰乱其他产品的竞争市场。五是自我优待。表现为具有市场支配地位的平台企业在没有法律影响的情况下在市场内拒绝交易，对待自己及关联企业有利、对待竞争对手不利，从而迫使其退出市场。[7]

3） 平台企业滥用市场支配地位的危害

平台企业滥用市场支配地位会损害消费者权益，破坏公平竞争的社会秩序，阻碍经济发展。基于维护市场秩序和消费者的权益保护，世界各国出台了『反垄断法』。在商品交易过程中，平台企业利用其市场支配地位进行捆绑销售、价格歧视使消费者失去自主选择的权利，自身利益受到损害。平台经济双边市场和网络外部性的特征使市场竞争壁垒提高，从而中小企业进入市场更为困难。一些平台企业在竞争过程中利用市场支配地位设立技术壁垒，迫使潜在的竞争企业难以立足，在一定程度上也使企业在市场内失去了竞争，会使企业产生懈怠阻碍发展创新。同时在市场环境中公平竞争能激发企业不断创新增加企业实力，由于企业滥用市场支配地位违背了公平竞争，打破了公平公正的市场秩序，也阻碍了企业健康有序的发展。因此，要做好对企业滥用市场支配地位的反垄断规制。

3. 中国平台企业滥用市场支配地位的法律规制现状

1）中国『反垄断法』立法历程

1993年中国出台的『反不正当竞争法』中包含了反垄断问题，可以认为是中国反垄断立法的初步探索。

3) 顾嘉. 互联网平台经济. 2019. 08. 21.
4) 价格歧视基本定义. 百度百科.
5) “二选一定义”搜狗百科.
6) 千春晖. 闫星宇. 掠夺性定价理论. 2003. 10. p2
7) 白小莉. 我国反垄断法对平台自我优待的规制路径. 2022. 03. 31

随后『反垄断法』在第八届全国人大常委会上列为立法规划。2007年8月30日十届全国人大常委会第二十九次会议表决通过『中华人民共和国反垄断法』并于2008年1月1日起正式施行。[8]2021年2月8日，国务院反垄断委员会公布『关于平台经济领域的反垄断指南』。2021年10月19日，十三届全国人大常委会第三十一次会议会议审议了国务院关于提请审议反垄断法修正草案的议案。2022年6月24日，十三届全国人大常委会第三十五次会议表决通过关于修改反垄断法的决定，决定自2022年8月1日起施行。

2）平台企业滥用市场支配地位的立法现状

（1）『反垄断法』及其修正草案的相关规定

2008年1月1日起正式施行的『中华人民共和国反垄断法』（后称『反垄断法』）旨在维护公平竞争，规制滥用市场支配地位、经营者集中等垄断行为。法案第六条明确表示具有市场支配地位的经营者，不得滥用职场支配地位，排除、限制竞争。[9]因此，法案并不禁止企业合理获得市场支配地位，而是对滥用市场支配地位的行为进行规制。第十七条对经营者从事的滥用市场支配地位行为做了具体规制。平台企业在市场竞争过程中若出现价格歧视、“二选一”、掠夺性定价、捆绑销售、自我优待等行为，使市场竞争秩序遭到破坏、消费者权益受损，将会受到法律规制。第十八条明确了经营者滥用市场支配地位的认定因素，第十九条对十八条做了补充，规定了可以推定经营者具有支配地位的情形。2022年8月1日起施行的『反垄断法修正草案』第二十二条区别于『反垄断法』第十七条增加了具有市场支配地位的经营者利用数据和算法、技术以及平台规则等设置障碍，对其他经营者进行不合理限制的，属于前款规定的滥用市场支配地位行为的说明。[10]

（2）『禁止滥用市场支配地位行为规定』相关条款

根据『反垄断法』，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于2019年6月26日发布『禁止滥用市场支配地位行为暂行规定』（后称『暂行规定』），自2019年9月1日起施行。『暂行规定』对市场支配地位的界定做了更明确地解释。第六条至十一条基于『反垄断法』第二十三条逐项进行细化，使得认定更为明确。第十一条、十二条增加了平台经济领域认定经营者具有市场支配地位时的考量因素，考虑行业竞争特点及市场结构、相关商品的同质化程度、技术特性及掌握处理数据的能力等都属于考量因素。第十三条至二十一条对『反垄断法』第十七条经营者滥用市场支配地位的行为逐项细化，进一步规范经营者行为。[11]

（3）『中华人民共和国反不正当竞争法』相关规定

在『中华人民共和国反不正当竞争法』（后称『反不正当竞争法』）第十二条表明经营者利用网络从事生产经营活动，不得利用技术手段，通过影响用户选择或者其他方式，实施妨碍、破坏其他经营者合法提供的网络产品或者服务正常运行的行为。[12]第二十四条经营者违反本法第十二条规定妨碍、破坏其他经营

8) 许冠男.从探索到成熟——我国反垄断法发展历程及展望 | 威科先行.2021.06.25
9) 参见『中华人民共和国反垄断法』第六条“具有市场支配地位的经营者，不得滥用市场支配地位，排除、限制竞争。”
10)参见『中华人民共和国反垄断法（修正草案）』第二十二条“具有市场支配地位的经营者不得利用数据和算法、技术以及平台规则等从事前款规定的滥用市场支配地位的行为。”
11)参见『禁止滥用市场支配地位行为暂行规定』，https://baike.sogou.com/v182245992.htm?fromTitle
12)参见『中华人民共和国反不正当竞争法』第十二条“经营者利用网络从事生产经营活动，不得利用技术手段，通过影响用

者合法提供的网络产品或者服务正常运行的，由监督检查部门责令停止违法行为，处十万元以上五十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处五十万元以上三百万元以下的罚款。[13]与『反垄断法』的区别是『反垄断法』以销售额为基准进行规制，『反不正当竞争法』以情节轻重为基准进行判罚。

（4）『关于平台经济领域的反垄断指南』相关规定

2021年2月7日，国务院反垄断委员会发布『国务院反垄断委员会关于平台经济领域的反垄断指南』（后称『指南』）。『指南』与『反垄断法』的结构极其契合，对平台经济领域的相关问题做出了细化规定。『指南』第一章第二条明确了平台、平台经营者、平台内经营者和平台经济领域经营者的概念，第三章针对平台经济领域经营者市场支配地位的认定和平台经济领域常见的滥用市场支配地位行为进行了系统梳理。第十二条至十七条针对平台经营者滥用市场支配地位行为逐项分析，进一步规范了“正当理由”，为滥用市场支配地位行为抗辩制度的建立理论基础。『指南』第三章有针对性的规制了“二选一、搭售、大数据杀熟”等问题，对平台经济领域进行合法的公平竞争起了推动作用。[14]

4. 中国『反垄断法』实施以来平台企业滥用市场支配地位的案例

1）阿里巴巴“二选一”案

2019年“618”前夕，阿里巴巴集团不允许商家在两个平台同时开店，利用干预搜索结果、采取奖惩等方式迫使商家进行“二选一”。本案的相关市场界定为中国境内网络零售平台服务市场，2020年12月国家市场监管总局依据『反垄断法』对阿里巴巴集团滥用市场支配地位行为立案调查，调查认定阿里巴巴集团在相关市场具有支配地位。[15]

阿里巴巴集团滥用其市场支配地位实施“二选一”的行为，违反『反垄断法』第二十二条“没有正当理由，限定交易相对人只能与其进行交易或者只能与其指定的经营者进行交易”的规定，[16]构成滥用市场支配地位的行为。阿里巴巴集团为维护自身市场竞争力实施“二选一”行为排除、限制了市场竞争，阻碍了市场公平竞争和平台经济发展，损害了消费者权益。根据『反垄断法』第四十七条、第四十九条规定，市场监管总局责令阿里巴巴集团停止违法行为，并处以182.28亿元罚款，并向阿里巴巴集团发出『行政指导书』。[17]

2）奇虎360诉腾讯QQ案

户选择或者其他方式，实施妨碍、破坏其他经营者合法提供的网络产品或者服务正常运行的行为。”

13)参见『中华人民共和国反不正当竞争法』第二十四条“经营者违反本法第十二条规定妨碍、破坏其他经营者合法提供的网络产品或者服务正常运行的，由监督检查部门责令停止违法行为，处十万元以上五十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处五十万元以上三百万元以下的罚款。”

14)参见『国务院反垄断委员会关于平台经济领域的反垄断指南』https://baike.sogou.com/v202158632.htm?fromTitle

15)周楚卿.市场监管总局依法对阿里巴巴集团控股有限公司在中国境内网络零售平台服务市场实施“二选一”垄断行为作出行政处罚.2021.04.10

16)参见『反垄断法』第二十二条“没有正当理由，限定交易相对人只能与其进行交易或者只能与其指定的经营者进行交易”。

17)杨亚茹.因“二选一”垄断受行政处罚，阿里巴巴被罚款182.28亿元破纪录 .2021.04.10

奇虎360诉腾讯QQ案源于2010年的“3Q大战”。2010年2月12日腾讯用QQ升级时默认捆绑的方式，全面推广“QQ医生”软件。随后，奇虎360公司则推出了安全软件“360扣扣保镖”专盯腾讯。腾讯公司对此反应强烈，宣布在装有360软件的电脑上停止运行QQ软件，强迫用户“二选一”，后经工信部调节停止“二选一”行为。[18)]

2012年4月18日，奇虎360公司起诉腾讯，认为腾讯强制用户“二选一”属于滥用市场支配地位行为。最高院一审判决腾讯公司的行为不构成滥用市场支配地位的行为并驳回所有诉求。奇虎360公司为此向最高人民法院提出上诉，根据『反垄断法』第二十四条，奇虎360公司在安全软件中市场份额不低于70%，而腾讯市场份额没有超过5%，本案没有证据显示腾讯被诉搭售行为导致奇虎360公司在安全软件市场的市场份额发生显著下降，或者对安全软件市场内的其他经营者产生了排除或者限制竞争的效果。[19)]最高人民法院运用合理原则重新界定了相关市场范围，认为腾讯不足以构成限制交易及搭售行为。

3）百度被诉滥用市场支配地位案

人人公司是一家从事医药信息咨询服务的公司，其控诉百度降低搜索排名的投入并对其所经营的全民医药树在搜索结果中进行全面屏蔽的行为是百度公司滥用中国搜索引擎市场支配地位。百度公司辩称采取此措施是由于人人公司网站设置了大量的垃圾外链搜索引擎自动做出的反作弊措施。其次搜索引擎基于免费使用，因此搜索引擎相关的服务并不能构成『反垄断法』所称的相关市场，法院对此予以支持驳回了人人公司诉求。法院认定本案百度公司因垃圾外链搜索引擎自动做出的反作弊措施的行为存在正当理由，不符合『反垄断法』第二十二条规定，对于人人公司的诉求法院不予支持。法院强调：“『反垄断法』并不禁止企业通过自身的发展形成规模经济，从而占据一定的市场支配地位，『反垄断法』禁止的是占据市场支配地位的企业所实施的，能够影响市场结构，破坏市场竞争秩序的行为和措施。如果经营者所实施行为具有正当理出，也没有产生破坏市场竞争秩序的后果，即不构成『反垄断法』所禁止的滥用行为。[20)]

5. 平台企业滥用市场支配地位法律规制的问题及改善方案

1）滥用市场支配地位规制的困境

第一，相关市场界定困难。在多数互联网企业反垄断的案例中，相关市场与市场支配地位的认定一直都是焦点问题。互联网平台网络外部性、双边市场、规模和范围经济等特征都会使其相关市场的边界模糊，在传统企业模式中，商品及服务的市场边界相对清晰，而平台企业依托互联网打破了地域的限制，可以利用网络技术及平台在任意国家进行交易，这给规制平台滥用市场支配地位的行为带来了挑战。[21)]在市场支配地位的认定时，还需要考虑网络效应带来的需求弹性降低和市场进入壁垒提高等因素，这为企业市场支配地位的认定增加了难度。

第二，缺乏针对性的法律法规。中国『反垄断法』立法起步较晚，基本通过域外的立法借鉴得来。近些年来随着市场经济的不断发展，平台经济领域的垄断事件频发，虽然『反垄断法』在一定程度上对垄断行为

18)360诉腾讯垄断案.案件背景.百度百科.
19)奇虎腾讯"3Q大战"最高法院判决书.知产库.2019.10.31.
20)戴见民.百度公司被诉滥用市场支配地位一案之评析.2010.05.22
21)郧彦辉.张希.赛迪观点：平台滥用市场支配地位的反垄断规制.2021.06.30

进行了规制，但在互联网领域适用有局限性，并不能满足互联网平台迅速发展的要求。同时平台经济的特殊性也使传统的界定方法难以施展。在实际操作中，互联网行业特有的复杂性也极易被忽略，导致最终结果具有极大地争议性。[22]因此，在反垄断法制度体系中有针对性的出台专门针对双边市场等特性的平台经济领域的反垄断规定，有效解决平台经济领域的反垄断问题刻不容缓。

第三，反垄断执法的局限性。在中国『反垄断法』颁布之前，中国主要依托于『中华人民共和国反不正当竞争法』对各种不正当竞争的行为进行规制。一是很多规定相对笼统也导致在实践过程中产生了大量问题。利用技术手段、平台规则、数据和算法等方式拒绝、限定交易，排除、限制市场竞争的行为存在构成垄断协议或滥用市场支配地位的竞合问题。[23]『指南』第七条纵向垄断协议部分也提出前述行为可能构成垄断协议，也可能构成滥用市场支配地位。二是由于平台市场变化迅速，违法活动过于隐蔽，给执法带来了阻碍。三是互联网技术的发展也使得我们需要更加专业的执法人员进行执法。

2）域外滥用市场支配地位反垄断的经验参考

平台经济领域反垄断已经成为许多国家规制的重点，为此国际上很多国家都出台了针对互联网平台领域进行规制的法律法规，通过分析域外相关领域的法律法规，可以借鉴域外有效的经验，促进中国滥用市场支配地位法律规制的完善。

（1）美国

2021年6月23日，美国众议院表决通过了『终止平台垄断法案』『美国选择与创新在线法案』旨在消除“主导平台”滥用优势地位侵害平台内经营者利益的行为。这体现了美国反垄断法律法规正在推进明确平台经济反垄断的重点规制对象，推进收紧“主导平台”垄断判定标准，推进强化反垄断机构执法能力。[24]美国的『谢尔曼法』第一条明确违法原则和合理原则，使得平台经营者滥用市场支配地位的行为认定效率大幅提高，同时进行综合考虑，[25]使得法律适用度提升，因此在结合中国国情的基础上，我们可以借鉴学习美国反垄断规制的方式方法。

（2）欧盟

2019年6月，欧盟理事会批准了『关于提高在线平台服务的公平性和透明度规则』，要求大数据平台在运营过程中更加透明化，更易于促进形成公平公正的市场竞争秩序。欧盟针对平台经济领域反垄断采取“内松外严”的政策，对外来企业规制较为严格。近年来，欧盟的数字市场几乎都被美国的科技巨头占据，为遏制外来企业无序扩张滥用市场支配地位，因此2020年12月15日，欧盟委员会公布了『数字市场法案』（Digital Market Act，简称DMA）和『数字服务法案』（Digital Service Act，简称DSA）两大草案，从而保障本土企业的发展。[26]同样，中国也面临类似的形势，细化监管，借鉴欧盟的治理框架有利于中国更好的扬长避短。

22)梁庆.平台经济滥用市场支配地位的反垄断规制研究.2021.06.28
23)麦妙钿.互联网平台滥用市场支配地位将有规可治，市监总局发文征意见 .2020.11.10
24)张博卿.美出台五项法案强化平台经济反垄断.2021.08.04
25)『谢尔曼法』第一条.百度百科.
26)郭全中.刘佳妮.法治与管理丨互联网平台经济反垄断政策的国际比较.2022.07.29

3）滥用市场支配地位法律规制的改进方案

第一，改进平台企业的市场界定。绝大多数平台都需要根据其经营产品界定相关产品市场。互联网平台型产业中，商品的价值除了其固有价值之外，还包括网络效应提供的额外价值。基于网络，平台企业滥用市场支配地位的行为不单单只在一个领域进行，在多个领域会出现交叉，因此在界定相关市场时，应采取不同的界定方法，避免市场界定过于狭窄。其次平台经济具有双边市场的特性，在界定市场时应考量不同企业服务类型和商品类型，应从多方面分析并区分，从而制定界定方法。

第二，健全相关的法律法规制度。中国目前针对平台经济领域企业滥用市场支配地位法律规制还不够完善，随着互联网技术的不断创新发展，相关的法律法规也应考虑到平台经济双边市场、网络效应等特征进行相应的创新与完善。当前与之相关的法规在面对规制平台企业滥用市场支配地位时缺乏可操作性，但平台垄断的事件频频出现，破坏竞争秩序的同时捆绑销售、价格歧视等行为损害消费者的权利，因此应该细化『反垄断法』平台经济领域相关的法律法规，明确平台企业滥用市场支配地位认定及正当抗辩理由，增加针对性条款为相关案例审理提供法规基础。[27)]

第三，加强消费者权益保护。平台经营者极易利用网络外部性和双边市场等特征利用大数据占有市场滥用市场支配地位，这极易损害消费者的权利和地位。对平台内经营者采取奖惩政策保障经营者销售的产品及服务正规合法,保护消费者准确了解产品及服务减少权益损失的可能。完善相关配套的法律法规，加大对平台企业滥用市场支配地位的监督管理，提高监督执法的透明性，规范平台经营者的行为，保障消费者自由选择的权利。

6. 结论

随着全球信息化的发展，互联网平台经济无时无刻不影响人们的日常生活，冲击了传统的经济模式。在实践过程中平台企业滥用市场支配地位案例频繁出现，为保证消费者合法权益，对平台企业滥用市场支配地位的规制有必要性的意义。本文分析了平台企业滥用市场支配地位的行为及危害，并对中国平台企业滥用市场支配地位的法律法规现状进行整理，通过分析阿里巴巴“二选一”案、奇虎360诉腾讯QQ案、百度被诉滥用市场支配地位案，认识到平台经济特有的网络效应、双边市场以及规模效应等特征给反垄断规制带来的问题。如：相关市场界定困难、缺乏针对性的法律法规以及反垄断执法具有局限性。美国、欧盟等许多国家都建立了较为完善的互联网平台经济领域反垄断的法规制度，通过分析借鉴美国、欧盟等国家的反垄断规制，充分意识到中国应根据国情及时调整与改善对平台经济领域反垄断的规制方案。通过改进平台企业的市场界定、健全平台经济领域的反垄断法规制度、加强消费者权益保护等方案，进而改善平台企业滥用市场支配地位规制中遇到的问题，促进互联网平台企业的发展。

27) 单晓华. 数据平台滥用市场支配地位的认定障碍与应对. 2022. 08. 18

【포스터】 발표 ③

中国、美国和欧盟的平台经济反垄断政策比较研究
(중국, 미국, EU의 플랫폼 경제에 대한 반독점 정책 비교 연구)

Zhang Nai-Te* · 서석홍**

【目 录】

1. 绪论
2. 中国、美国、欧盟的平台经济反垄断政策背景和沿革
3. 中国、美国、欧盟的平台经济反垄断政策内容及特点比较
4. 中国、美国、欧盟的平台经济反垄断主要案例
5. 结论与启示

【摘要】

최근 몇 년 동안 세계 플랫폼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형식과 새로운 모델이 끝없이 등장했으며 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러나 동시에 플랫폼 경제는 데이터, 기술, 자본의 우위에 따라 시장 집중도가 점점 높아지는 추세를 보인다. 시장 자원은 선두 플랫폼 기업으로의 집중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플랫폼 독점에 대한 문제는 점점 더 중시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중국, 미국, EU의 플랫폼 경제에 대한 반독점 정책의 발전 과정을 정리하고, 위의 세 지역의 정책 특성을 분석하여 반독점 정책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제1절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목적을 서술하였다. 제2절에서는 중국, 미국, EU의 플랫폼 경제에 대한 반독점 정책의 배경과 연혁을 서술하였다. 제3절에서는 중국, 미국, EU의 플랫폼 경제에 대한 반독점 정책의 내용을 정리하고 특징 비교하였다. 제4절에서는 중국, 미국, EU의 플랫폼 경제에 대한 반독점의 주요 사례를 고찰하였다. 제5절에서는 결론과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개산 방안으로는 반독점의 다원화과 상시화, 규칙 체계 수립, 행정 지도 강화 및 사전 감독 보완, 규범 발전의 균형 등이 필요하다.

* 부경대학교 경제학과 석사과정
** 부경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ssk668@pknu.ac.kr)

1. 绪论

近年来，平台经济发展势头迅猛，引领了我国乃至国际新经济发展的潮流。受2020年初新冠肺炎疫情的影响，网上购物和线上服务为代表的平台填补了人们不方便出门导致的生活上的空缺。平台在疫情期间给人们带来便利的同时，也刺激着经济社会的发展。但随着平台经济发展的风生水起，“大数据杀熟”、“平台二选一”、滥用市场地位等问题屡见不鲜。为了防止在平台经济领域垄断行业的行为出现，促进平台经济健康良好发展，将是世界各国市场监管所面临的重大课题。为促进平台经济有序竞争和规范发展，近年来中国、美国和欧盟都出台了相应的针对性措施。平台经济反垄断已成为全球挑战。

2021年2月7日，中国国务院反垄断委员会印发『关于平台经济领域的反垄断指南』，旨在对平台经济领域具体适用反垄断法提供更加细化的规则指引。2022年1月5日，国家市场监管总局公布了13份行政处罚决定书，对阿里、腾讯、哔哩哔哩等公司作出行政处罚决定，上述公司均涉及未依法申报违法实施经营者集中行为。紧接着，国家发展改革委等9部门又联合发布了『关于推动平台经济规范健康持续发展的若干意见』，明确坚持发展和规范并重，坚持“两个毫不动摇”，建立健全平台经济治理体系，构建有活力、有创新力的制度环境，促进平台经济规范健康持续发展。[1)]

2021年3月，拜登任命哥伦比亚大学法学教授Tim　Wu（吴修铭）加入白宫国家经济委员会。2021年6月，拜登任命哥伦比亚大学副教授Lina　Khan（莉娜·汗）为联邦贸易委员会（FTC）主席。吴修铭和莉娜·汗都属于新布兰代斯学派，以主张加强监管和反垄断而闻名。2018年，欧盟已经实施了『通用数据保护条例』（GDPR），在全球首次用法规的形式保护数据和隐私。2020年12月欧盟委员会正式公布了针对数字在线平台、在线市场以及社交媒体的『数字服务法案』和『数字市场法案』两项提案，被认为是近20年来欧盟对数字经济的重大立法。[2)]

本文以中国、美国和欧盟的平台经济反垄断政策作为比较研究对象，分析了中国、美国及欧盟平台经济反垄断政策的发展过程及特征，从反垄断的主要对象及目标、经济发展方式和政策理念、立法模式等方面进行了国际比较。平台经济反垄断的政策制定，首先应从本国平台经济的发展现状出发，并加以创新改良，同时学习借鉴欧美在反垄断法律上的经验，为平台经济的发展营造良好的环境。

2. 中国、美国、欧盟平台经济的反垄断政策背景和沿革

1）中国

中国平台经济反垄断政策的演进可以被归结为两个阶段：萌芽期与发展阶段（2007-2019）和全面监管阶段（2019至今）。

第一阶段：萌芽期与发展阶段（2007-2019），以人人网诉百度为开端，到3Q大战结束。我国于2007年正式出台『反垄断法』，针对市场中的垄断协议、滥用市场支配地位、经营者集中、滥用行政权力排除、限制竞争等问题进行规制。在这一阶段中，数字经济的发展与反垄断法的实施相同步。由于反垄断法刚刚

1) “2022一起向未来——平台经济反垄断展望”，人民邮电报，2022.01.21。
2) 郭全中 刘佳妮，「互联网平台经济反垄断政策的国际比较」，2022.07.29。

实施，相关执法部门经验不足，对互联网企业几乎没有较为有效的干预与执法，存在着一定的制度漏洞与执法障碍。

第二阶段：全面监管阶段（2019年至今），时至今日，我国反垄断法已逐渐成熟，许多二选一事件已经被告到法庭，被反垄断执法机构大规模的调查。这一阶段的标志性节点是2019年的8月国务院发布『国务院办公厅关于促进平台经济规范健康发展的指导意见国办发〔2019〕38号』（简称『国发38号文』）。这一文件的出台代表着中国反垄断进入了全面的互联网执法的阶段，数字经济的全面监管时段也是这一时间开始。另一个具有标志性的事件是，2019年1月1号『电子商务法』的实施，在该法中22条、35条首次明确了电商平台的市场支配地位滥用的条款，这两个条款的引入为电商平台反垄断竞争的执法打下了法律基础。2021年是互联网反垄断“大年”。2月7日，国务院反垄断委员会印发的『国务院反垄断委员会关于平台经济领域的反垄断指南』细化了反垄断规则，对平台经济可能涉及的要求商家“二选一”、大数据杀熟、数据封禁等问题予以明确，对确定垄断标准这一难题做出积极回应，在相关市场界定、市场支配地位的认定标准和滥用行为的认定上进行了适应性考量，补足了此前政策上的空白。[3]2022年起，平台经济重点整改工作逐步完成，科学、法治、规范、市场化的监管体系逐步建立，平台经济监管进入常态化阶段。

2）美国

20世纪20年代，美国的反垄断理论以布兰迪斯主义为主导。布兰迪斯主义强调市场结构的过度集中会对民主政治和贫富差距产生负面影响。美国于1890年通过了『谢尔曼法』，1914年通过了『克莱顿法』和『联邦贸易委员会法』来限制垄断行为。『谢尔曼法』是美国最早的反垄断法，也是世界上第一部反垄断法。它旨在禁止垄断等不合理竞争。克莱顿法案增加了对收购、合并等的限制。『FTC法』设立了联邦贸易委员会(FTC)作为美国的反垄断执法机构。[4]

20世纪40年代，哈佛学派提出了结构-行为-绩效范式，认为过度的市场集中度会损害市场绩效。因此，为了促进竞争，政府应该积极干预市场，完善市场监管。20世纪80年代，出现了芝加哥学派，认为反垄断的目的是防止经济效率的丧失，市场集中度的提高不一定导致效率的丧失。20世纪末，后芝加哥学派在此基础上认为垄断不仅是经济效率的问题，还会带来不平等。因此强调应该更加关注消费者福利的变化，这也是现在美国主流的反垄断理论。在政策主张上，后芝加哥学派与芝加哥学派不同，前者认为市场是不完美的，因此需要政府干预。近年来，面对数字平台经济给反垄断理论带来的新挑战，布兰迪斯主义逐渐回归，再次强调市场结构的重要性。2021年7月9日，拜登签署新的行政令，在美国反垄断政府机构联邦贸易委员会（FTC）和司法部（DoJ）之外，设立白宫竞争委员会（The White House Competition Council）来协调和加强竞争。[5]

3）欧盟

欧盟的竞争政策和数字战略整体上可以代表欧洲发达国家针对互联网反垄断问题的治理态度和治理路径。欧盟比美国监管机构更早也更为果断地通过实施国家和欧盟层面的立法，对大型平台发起反垄断行动。2000年6月欧盟通过『电子商务指令』，试图通过确保成员国之间信息社会服务的自由流动，来促成内

3）杨东，“『平台经济领域反垄断指南解读』——落实全面监管，防范资本无序扩张”，2021.02.22。
4）张文朗、彭文生，「美国反垄断：演变与启示」，2021.11.23。
5）“美国总统行政命令对我国竞业限制协议实践的启示”，知产力，2021.08.30。

部市场的正常运行。在近年的反垄断大潮中，欧盟于2020年2月公布三份数字战略文件：『塑造欧洲的数字未来』『人工智能白皮书』『欧洲数据战略』，旨在重振欧盟技术主权地位。6)2020年12月欧盟委员会正式公布了针对数字在线平台、在线市场以及社交媒体的『数字服务法案』和『数字市场法案』两项提案，被认为是近20年来欧盟对数字经济的重大立法。随后，德国于2021年1月正式通过了世界上首部系统针对平台垄断而展开全面修订的反垄断法，即『反对限制竞争法』第十修正案。

3. 中国、美国、欧盟平台经济的反垄断政策内容及特点比较

1）中国

2020年11月30日，中央政治局第二十五次集体学习时，习近平总书记三次强调反垄断工作，要求加快完善相关法律法规，统筹推进反垄断法等法律修订工作；统筹做好知识产权保护、反垄断、公平竞争审查等工作，促进创新要素自主有序流动、高效配置；完善知识产权反垄断、公平竞争相关法律法规和政策措施，形成正当有力的制约手段。

2020年12月11日召开中央政治局会议，会议首次明确要强化反垄断和防止资本无序扩张。这是中央对当前数字经济领域，尤其是对平台经济中出现的垄断和资本无序扩张发出的治理信号，传递出市场将严格监管等重要信息。

2020年12月16日至18日，召开中央经济工作会议，把强化反垄断和防止资本无序扩张作为明年八项重点工作任务之一。强调要完善平台企业垄断认定等方面的法律规范，加强规制，提升监管能力，坚决反对垄断行为。中央经济工作会议明确指出，国家支持平台企业创新发展、增强国际竞争力；另一方面，防止资本无序扩张，也不是任由资本随意扩张，而是要依法规范发展。会议也明确指出，要完善平台企业垄断认定、数据收集使用管理、消费者权益保护等方面的法律规范；要加强规制，提升监管能力，坚决反对垄断和不正当竞争行为。

2021年2月5日市场监管总局发布焕发新气象　展现新作为——2020年反垄断工作综述。综述中写到，持续完善反垄断法律体系。围绕强化竞争政策基础地位、加强数字经济反垄断监管、健全反垄断制度规则，完成『反垄断法』修订草案，制定发布『经营者集中审查暂行规定』，印发『经营者反垄断合规指南』，起草『关于平台经济领域的反垄断指南』、『原料药领域反垄断指南』、『企业境外反垄断指南』等指南，增强反垄断法律制度的可操作性和可预期性。

2021年4月30日反不正当竞争部际联席会议第一次全体会议在京召开。会议提出，着力加强监管执法、着力形成监管合力、着力完善监管规则、着力抓好任务落实，解决影响公平竞争的痛点、难点、堵点问题，形成横向协同和纵向联动的工作格局。

2021年8月30日，习近平总书记主持召开中央全面深化改革委员会第二十一次会议，审议通过了『关于强化反垄断深入推进公平竞争政策实施的意见』，对保护和促进市场公平竞争作出战略部署。会议指出，针对一些平台企业存在野蛮生长、无序扩张等突出问题，我们加大反垄断监管力度，依法查处有关平台企业垄断和不正当竞争行为，防止资本无序扩张初见成效，市场公平竞争秩序稳步向好。

2021年2月7日，国务院反垄断委员会制定发布『国务院反垄断委员会关于平台经济领域的反垄断指南』

6)“从美国和欧盟的最新政策看人工智能的发展和监管，全球技术地图”，2021.09.23。

（以下简称『指南』），强调『反垄断法』及配套法规规章适用于所有行业，对各类市场主体一视同仁、公平公正对待，旨在预防和制止平台经济领域垄断行为，促进平台经济规范有序创新健康发展。

2）美国

美国在反垄断规制上以保护创新、促进市场自由竞争、保护消费者福利为目标，采用行为主义视角，采取合理原则，维持动态竞争以提高市场效率，促进互联网平台经济发展。

一是创新成为反垄断重要价值取向。美国重视互联网平台在技术创新中的重要作用，由关注静态的配置效率转向关注长期的动态效率，支持一定程度的市场集中对创新的正向促进作用。2010年，美国司法部和联邦贸易委员会联合发布了新版的『横向合并指南』，首次将由损害创新竞争引发单边效应加入合并审查的考虑之中。

二是注重对平台垄断行为的经济分析。美国在规制互联网超大型平台时主要采取“合理原则”，即认定反竞争行为需综合评估经营者主观垄断意图和损害竞争后果，经济学分析方法在明确竞争评估分析思路、界定相关市场、确定竞争损害、明确平台支配力的传导效应、确定附加条件有效性等诸多环节有重要的支持作用。

三是在反垄断中广泛运用和解制度。美国联邦贸易委员会通过颁布“同意命令”、司法部提出“同意判决”的方式，积极运用和解制度，有效提高执法效率，节约执法资源，增加反垄断规制的灵活性。如2011年，谷歌竞争对手认为，谷歌在搜索结果中优先显示自身服务，对天气信息、地图、比较购物等领域的竞争造成了伤害。美国联邦贸易委员会在对谷歌进行反垄断调查后，认定谷歌并未人为操纵搜索结果，但同意谷歌在本地搜索、广告等方面进行修改，达成和解。

2021年6月美国提出了五项反垄断法案议案，包括『终止平台垄断法案』『美国选择和创新在线法案』『通过启用服务交换法案增强兼容性和竞争性』『平台竞争和机会法案』和『收购兼并申请费的现代化』。除『收购兼并申请费的现代化』主要强调将中层并购的申报费用分层调整外，其他四个法案从不同层面进行反垄断规范，旨在进一步消除“主导平台”滥用优势地位和扼杀创新式收购行为，强化数据可携带和互操作性。

美国反垄断政策内容上的新意主要体现为主体规制的强化。主体规制模式主要针对行为实施主体是否属于受监管平台的认定，经营者一旦被认定为适格主体，则推定其实施的特定行为违法，该模式运行的关键在于主体资格的认定。以在线平台为例，符合以下条件将被认定为受监管平台：在美国至少拥有5000万月活用户或10万月活商业用户；被拥有6000亿美元年销售额或市值的人拥有或控制；构成在线平台上或与在线平台直接相关联的任何产品、服务的销售或提供的关键交易对象。[7]体现在经营者集中问题的处理上，美国提出采取经营者集中例外审查制度这一新思路，该制度是推定支配性平台并购违法思路的具体方式，通过将谷歌、脸书等大型互联网平台企业的并购行为推定为反竞争，从而增加对大型互联网平台企业的监管强度和监管深度，除非并购方能够证明交易对维护公共利益是必要的，并且通过内部增长和扩展无法获得类似的利益。

3）欧盟

在近年的反垄断大潮中，欧盟于2020年2月公布三份数字战略文件：『塑造欧洲的数字未来』『人工智能

7）“美国科技反垄断为何雷声大、雨点小？”，互联网怪盗团，2022.04.28。

白皮书』『欧洲数据战略』，旨在重振欧盟技术主权地位。2020年12月欧盟委员会正式公布了针对数字在线平台、在线市场以及社交媒体的『数字服务法案』和『数字市场法案』两项提案，被认为是近20年来欧盟对数字经济的重大立法。随后，德国于2021年1月正式通过了世界上首部系统针对平台垄断而展开全面修订的反垄断法，即『反对限制竞争法』第十修正案。总体来说，欧洲竞争执法机构一直以来对数字平台企业都秉持较为严格的监管态度，诸多执法实践经验对全球数字经济反垄断监管起到了重要示范和引领作用。

将数据因素纳入反垄断分析互联网平台经济反垄断的根本原因在于互联网平台经济掌控了规模巨大的用户及其数据，同时利用这种平台能力形成某一领域的实质性垄断并向其他领域扩张。数据垄断是平台垄断的典型表现，反数据垄断成为反垄断制度的新使命，加上欧洲强烈的个人数据保护意识传统，欧盟于2018年出台『通用数据保护条例』（GDPR），对于大型数字平台企业在用户数据收集、使用和消费者隐私保护等方面提出了更高的要求。2021年9月2日，WhatsApp因未向数据主体正确描述其合法权益，违反了GDPR，被处罚款2.25亿欧元。此外，德国『反对限制竞争法』第十修正案高度重视数据问题：从市场支配地位认定到滥用行为列举，数据问题贯穿了德国此次修法的始终。欧盟现行机制主要从规范网络垄断协议、禁止滥用在线市场支配地位和控制平台经营者集中三方面入手进行监管。在市场支配地位认定中，欧洲竞争政策引入数据因素并将其放在与市场份额同等重要的地位。针对经营者集中问题，与美国不同，欧盟更倾向于新设独立监管机构，因为欧盟已有电信业监管机构（Telecommunications National Regulatory Authorities）与欧盟竞争委员会协同工作的经验，希望通过监管机构制定黑名单并根据个案评估具体实施方式。[8)]

以美国超大型平台为主要规制对象多年来，欧盟各成员国的法律监管不统一，致使数字经济企业发展存在障碍。『数字服务法』和『数字市场法』制定了统一、明确的数据规则，在法律层面与竞争法和反垄断法相辅相成，为数字经济企业减轻了不必要的法律负担，优化了公平竞争的市场环境。

从规制对象来看，两个法案统一表现出对美国超大型平台的严格管控，不仅规定了更多的义务和责任，对于企业违规行为也都设置严苛的处罚，最高处罚金额分别高达全球年营业额6%和10%；从目的来看，规制美国大型平台只是第一步，如何扶持欧洲本土平台企业成长，形成与大型平台可抗衡的竞争力，还需要进一步探讨。『数字服务法案』对超大型平台规定了更多的责任和义务，所谓超大型网络平台，是指在欧盟境内拥有超过4500万用户（约占欧盟人口的10%）的平台，根据这一标准，美国以GAFA为代表的大型平台成为主要规制对象，平台不仅要遵守控制自身风险的具体义务，还要遵守新的问责制框架。

在人员配置方面，草案规定超大型平台应当任命具有专业知识背景的人担任合规官，并且采取必要措施确保合规官能独立行使职能并提供相应信息。合规官的姓名和联系方式应当传达给数据服务协调员和欧盟委员会。这与我国两部合规指南所倡导的建立企业合规部门和明确负责人不谋而合。

创新立法：引入“守门人”概念『数字市场法案』主要针对平台竞争问题，创新性引入“守门人”概念，建立了一套认定和识别“守门人”的判断标准，包括业务规模、用户数量和市场地位三个维度，并在此基础上进一步明确了市场公平竞争的一系列举措。该法案是对欧盟或成员国竞争法的补充，主要处理不属于竞争法规制范畴或竞争法难以处理的守门人不公平行为。该法案不仅规定了“守门人”需要额外承担的义务，而且规定了不承担相关义务的后果：处以高达该公司全球年营业额10%的罚款或者定期罚款，最高可达平均每日营业额的5%。如此，以事后审查监管为主的竞争法和具备事前预防垄断功能的『数字市场法』相配合，形成了一套反垄断的完整体系。比较来看，该法案与我国的『反垄断指南』作用相似。

8)“互联网平台治理欧盟新规：『数字服务法案』和『数字市场法案』草案解读”，美创，2020.12.23。

4）特点比较

美欧反垄断政策共同体现出对大型互联网平台监管趋严的特征。从各国反垄断规制中较为关注的相关市场界定、市场支配地位认定和经营者集中三方面来讲，由于相关市场界定的复杂性和模糊性，其对反垄断认定的影响逐渐减小，研究者也认为应该降低相关市场界定的重要性和高市场集中度的严重性，侧重可竞争性指标，例如市场壁垒等；在市场支配地位认定中，欧洲竞争政策引入数据因素并将其放在与市场份额同等重要的地位，美国反垄断政策同样纳入数字市场因素，量化大型企业的活跃用户、活跃商户等门槛；在经营者集中方面，美国提出采取经营者集中例外审查制度这一新思路，欧洲倾向于新设独立监管机构，侧重对大型企业的并购行为实施更具针对性的监管。此外，加强事前监管等也成为美欧反垄断政策关注的重点。

从我国互联网经济反垄断政策的演进过程可以看出，自2008年以来，尤其在『意见』颁布以后，我国对平台反垄断的进程进一步加快，总体朝着精细化、体系化、规范化方向发展，指导作用更加突出，监管更加严格。从监管理念和监管方式来看，监管理念由包容审慎到规范秩序，监管和处罚力度大幅提升；从政策制定过程来看，『反垄断法』一直发挥着核心的指导作用，一系列配套政策仍以『反垄断法』为基本框架展开；从政策类型来看，目前我国“一业一策”的治理模式突出，针对电子商务、网络直播等新业态的政策出台，使监管更加精准化和专业化；从政策适用阶段来看，目前大多数政策都是对垄断行为的事后规制，尽管出台两部合规指南和反垄断指南对企业反垄断合规进行指导，有意识地增强企业自我合规的能力从而预防和制止垄断行为的发生，但进一步的配套政策仍待完善。市场支配地位认定和经营者集中作为我国反垄断制度中的重要组成部分得到了进一步完善。

从市场支配地位认定来看，随着『反垄断指南』的颁布，我国对平台垄断的认定标准进一步细化，但与美欧相比，『反垄断指南』只是提出交易金额、交易数量、销售额、活跃用户数、点击量、使用时长等指标，并未明确量化；从经营者集中层面来看，我国目前采取的经营者集中申报的标准是法定营业额标准为主加自由裁量例外的申报标准模式，以『国务院关于经营者集中申报标准的规定』『经营者集中审查暂行规定』『关于经营者集中申报的指导意见』和『反垄断指南』等政策作为主要依据。[9]但由于平台中介属性，对营业额计算仅以GMV（Gross Merchandise Volume，商品交易总额）为标准存在争议，为此有研究者建议在营业额标准的基础上，增设交易额标准和用户规模标准作为经营者集中的申报门槛，并对具有重要市场力量的数字平台企业施加强制申报义务，将可能具有竞争隐患的数据驱动型经营者集中纳入反垄断审查范围。

4. 中国、美国、欧盟对平台经济反垄断的主要案例

1）中国

2021年4月8日阿里巴巴被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处以182亿人民币罚款。自2015年以来，阿里巴巴集团滥用该市场支配地位，对平台内商家提出“二选一”要求，禁止平台内商家在其他竞争性平台开店或参加促销活动，并借助市场力量、平台规则和数据、算法等技术手段，采取多种奖惩措施保障“二选一”要

9）王煜婷，“数字经济背景下我国经营者集中制度的完善，新论观瞻”，2022.03.25。

求执行，维持、增强自身市场力量，获取不正当竞争优势。调查表明，阿里巴巴集团实施“二选一”行为排除、限制了中国境内网络零售平台服务市场的竞争，妨碍了商品服务和资源要素自由流通，影响了平台经济创新发展，侵害了平台内商家的合法权益，损害了消费者利益。经查，阿里巴巴集团在中国境内网络零售平台服务市场具有支配地位。自2015年以来，阿里巴巴集团滥用该市场支配地位，对平台内商家提出“二选一”要求，禁止平台内商家在其他竞争性平台开店或参加促销活动，并借助市场力量、平台规则和数据、算法等技术手段，采取多种奖惩措施保障“二选一”要求执行，维持、增强自身市场力量，获取不正当竞争优势。

同时，按照『行政处罚法』坚持处罚与教育相结合的原则，向阿里巴巴集团发出『行政指导书』，要求其围绕严格落实平台企业主体责任、加强内控合规管理、维护公平竞争、保护平台内商家和消费者合法权益等方面进行全面整改，并连续三年向市场监管总局提交自查合规报告。10)

2021年4月，市场监管总局依据『反垄断法』对美团在中国境内网络餐饮外卖平台服务市场滥用市场支配地位行为立案调查。市场监管总局成立专案组，依法扎实高效推进案件查办，广泛开展调查取证，获取大量证据材料并全面深入分析，查明案件事实；组织专家反复深入开展研究论证；多次听取美团陈述意见，保障其合法权利；确保本案事实清楚、证据确凿、定性准确、处理恰当、手续完备、程序合法。

经查，2018年以来，美团滥用在中国境内网络餐饮外卖平台服务市场的支配地位，以实施差别费率、拖延商家上线等方式，促使平台内商家与其签订独家合作协议，并通过收取独家合作保证金和数据、算法等技术手段，采取多种惩罚性措施，保障“二选一”行为实施，排除、限制了相关市场竞争，妨碍了市场资源要素自由流动，削弱平台创新动力和发展活力，损害平台内商家和消费者的合法权益，构成『反垄断法』第十七条第一款第（四）项禁止“没有正当理由，限定交易相对人只能与其进行交易”的滥用市场支配地位行为。

根据『反垄断法』第四十七条、第四十九条规定，综合考虑美团违法行为的性质、程度和持续时间等因素，2021年10月8日，市场监管总局依法作出行政处罚决定，责令美团停止违法行为，全额退还独家合作保证金12.89亿元，并处以其2020年中国境内销售额1147.48亿元3%的罚款，计34.42亿元。同时，向美团发出『行政指导书』，要求其围绕完善平台佣金收费机制和算法规则、维护平台内中小餐饮商家合法利益、加强外卖骑手合法权益保护等进行全面整改，并连续三年向市场监管总局提交自查合规报告，确保整改到位，实现规范创新健康持续发展。11)

2）美国

谷歌在美国面临多起反垄断诉讼。2020年10月20日，美国司法部和11个州检察长共同对谷歌提起诉讼，指称谷歌通过排他性手段强化其在一般搜索服务、搜索广告和搜索文本广告市场中的垄断地位。具体而言，起诉书指出谷歌涉嫌通过与搜索服务的渠道商（包括设备制造商（如苹果、三星）、无线运营商（如AT&T）及浏览器开发商（如Mozilla））签订一系列排他性协议，封锁用户访问搜索引擎的主要途径。该等排他性协议包括：一，要求将谷歌设为其产品的默认搜索引擎；对部分渠道商，谷歌还要求其不得与谷歌的竞争者进行交易，如不得预安装竞争者的搜索应用程序。二，要求在移动设备上预先安装谷歌的搜索应用，将该等应用放置于最显眼的位置，并使用户无法删除该等应用。起诉状尤其指出谷歌与苹果达成了长期合约，谷歌通过支付巨额款项，换取其作为苹果产品的默认搜索引擎。该款项占苹果全球年收

10)“重大突发！刚刚，阿里巴巴被罚182亿，因实施“二选一”垄断行为！阿里火速回应”，e公司官微，2021.04.10。
11)“美团因‘二选一‘被罚34.42亿！多方回应案件焦点”，南方都市报，2021.10.09。

入的15%至20%。通过上述排他性合约及谷歌自营的渠道（如Chrome浏览器），谷歌控制了美国约80%的搜索渠道，每年在搜索广告业务上的营业额达到400亿美元，随后又将收入用于维系与渠道商的排他性协议，形成闭环。此外，通过限制广告竞争，谷歌有能力向广告主收取较高费用，并降低其为广告主提供的服务质量。12)

3）欧盟

(1）欧盟普通法院维持欧委会对Google的购物比较服务自我优待行为24.2亿欧元罚款

2021年11月10日，欧盟普通法院判决维持欧委会在2017年做出的对Google约24.2亿欧元罚款决定，该决定认定Google通过对其购物比较服务自我优待而实施了滥用市场支配地位行为。对于Google主张欧委会未能证明损害竞争的影响，欧盟普通法院认为欧委会仅有义务证明Google的行为存在至少潜在的影响，而没有义务证明实际造成了的影响。欧盟普通法院还认为欧委会无需证明竞争对手的购物比较服务与Google具有同等效率。值得注意的是，该法院推翻了欧委会对于相关行为损害搜索服务市场竞争的认定，认为欧委会并未充分分析和论证Google因相关行为的收入补贴了搜索服务。但推翻欧委会的这部分认定并不影响整体罚款数额。此外，虽然本案涉及公平使用Google搜索平台的问题，但欧盟普通法院法院认为无需考虑Google搜索平台是否构成必需设施或是否满足拒绝交易的构成要件，因为相关行为的实质是对竞争对手的歧视行为。自本案判决之日起，Google有2个月零10天的时间决定是否上诉。13)

(2）意大利处罚Amazon和Apple禁止未授权方在Amazon平台销售Apple产品的协议

2021年11月16日，意大利竞争执法机构分别对Amazon和Apple处以6870万欧元和1.345亿欧元的罚款，原因是Amazon和Apple于2018年10月签署了一项限制竞争协议，禁止Apple和其子公司Beats产品的经销商未经授权在意大利Amazon平台出售Apple产品，除一部分授权经销商外，Amazon将成为这些产品在Amazon平台上的的独家经销商。除不合理地区别对待经销商之外，该协议还通过减少意大利Amazon平台上Apple和Beats产品经销商的数量以更容易地控制该等产品在Amazon平台上的折扣水平。14)该机构认为以上行为违反了欧盟竞争法对于纵向反竞争性限制的规定，并要求Amazon和Apple允许其全部经销商使用Amazon平台销售Apple和Beats产品。Amazon和Apple拟对处罚决定提出上诉。目前，德国和西班牙的竞争执法机构也在对Apple和Amazon进行类似的调查。15)

4）小结

目前全球平台经济领域竞争日益激烈，各地区的数字平台企业持续拓展领域，呈现高度动态化、全球化和多元化的竞争趋态。美国、中国和欧盟等主要经济体都展现出对于平台经济领域的积极监管姿态，制定了符合其地区平台经济发展现状和需求的具体实行政策和监管方案，全球平台经济反垄断监管博弈局面仍在加剧。

12)“美国司法部对谷歌提起反垄断诉讼”，央视新闻客户端，2020.10.21。
13) 龚涛，“域外动态||欧盟普通法院维持对谷歌的24.2亿欧元反垄断罚款”， 2021.11.16。
14)“意大利反垄断机构：对苹果罚1.345亿欧元，对亚马逊罚6870万欧元”，新浪财经，2021.11.24。
15)“意大利对美国技术巨头处巨额罚款”，人民资讯，2021.12.06。

5. 结论与启示

从全球来看，尽管各国采取的反垄断措施和手段不尽相同，但均对平台经济加大了反垄断治理力度。无论是平台经济领域，还是任何其他领域，发展到一定程度进行规范是大势所趋，在全球化的今天，平台的治理是各国立法者必须要考虑的，各国对平台经济的态度不谋而合也在情理之中。不只是平台治理，其他行业的治理措施也慢慢出现全球化、一致性的趋势，总体而言，未来平台经济的反垄断政策变化应呈现如下趋势：

第一是反垄断治理常态化、多元化。首先是常态化，近似密集的立法、执法行为表明“加强反垄断和防止资本无序扩张”的工作正在落实中且将进一步加强，随着国家市场经济的进一步壮大，反垄断监管必将成为常态。其次是应与行业监管协同，平台反垄断监管本身就带有领域特征，之后的反垄断监管还将与隐私保护、反不正当竞争、消费者权益保护协同发展，方能解决现实中多领域交叉发展问题。最后是相关部门之间应协同治理，一旦与行业监管进行协同，必然会带来部门协同的状况。市场监管部门将会与工信部等部门将共同打击反垄断。从美国来看，联邦贸易委员会、司法部、安全部等多部门协同进行反垄断监管，中国未来反垄断发展亦走向整体协同监管的方向。

第二是事前监管和事后监管两者缺一不可。首先是应建立完整的规则体系，无论是美国通过行政执法措施，还是欧盟的加强规则建设，未来在平台经济反垄断中都将必不可少。传统的反垄断监管注重行政监管，在平台经济新趋势和新模式下，使用新手段和新思路来解决反垄断问题才是正道，未来应当将在规则立法层面强化。加强事前监管，明确细化规则。注重危害预防，加强企业自觉性，构建法律与行政共治的监管模式和规则模式。建立全方位、多层次、立体化监管体系。其次是应加强行政指导并补足事前监管，中国通过行政指导的方式要求平台企业履行自身义务，是未来发展的大势所趋。行政处罚固然具有警示和威慑价值，但其处罚额度高、力度大的特征也给平台发展带来一定损失。相较而言，未来常态化的反垄断治理需要常态化的措施，此时行政指导的方式就显得更加温和，有利于体现教育与制裁相结合的方针。最后是规范与发展并重，从中国中央财经委员会第九次会议要求推动平台经济规范健康持续发展，到2021年8月中央深改委会议通过了『关于强化反垄断深入推进公平竞争政策实施的意见』，国家一方面持续释放推动平台经济规范健康持续发展的信号，另一方面强调要坚持发展和规范并重的原则，把握平台经济发展规律，建立健全平台经济治理体系，明确规则、划清底线、加强监管、规范秩序，从无序乱序的“野蛮生长”到法治规范下的“有序发展”，这才是平台经济监管的要义。[16)]

16)“公平竞争丨中国反垄断迈上新台阶，人民资讯”，2021.12.31。

메 모

메 모